



통일전

慶州市史 Ⅱ

문화 · 예술 | 교육 · 언론 및 출판 | 종교 · 민속 | 인물

慶州市史編纂委員會

경주의 휴양 관광시설





1
2
3 4

1. 보문단지 전경
2. 보문 고수부지
3. 자전거도로
4. 물레방아









1
2
3

1. 엑스포공원
2. 벚꽃 거리
3. 산책로



경주의 축제





1
2
3
4

1. 해맞이축제
2. 해맞이축제
3. 토함산타종식
4. 토함산타종식













1. 세계문화엑스포
2. 원효대재
3. 술과 떡축제
4. 버섯축제
5. 세계문화엑스포

1 3
2 4
5



경주의 문화시설



1 3
2 4

1. 경주극장
2. 서라벌문화회관
3. 옛. 경주박물관
4. 경주박물관







경주의 조선시대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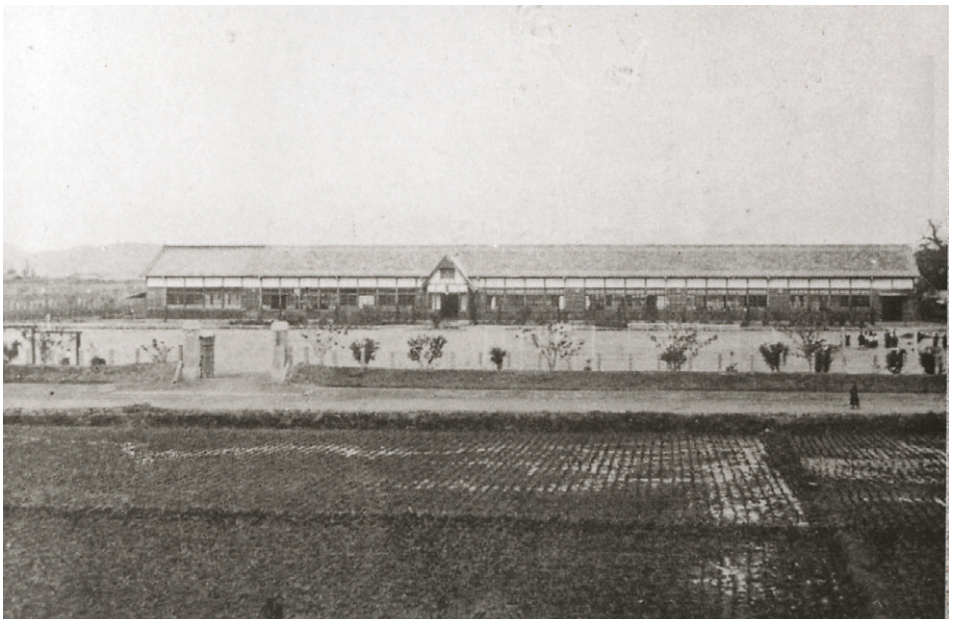
1. 서악서원
2. 사마소
3. 옥산서원
4. 경주향교




玉山書院


大成殿

경주의 근대교육기관









1 3
2 4
5
6



1. 경주공립여자보통학교
2. 사립계남학교
3. 경주공립여자보통학교 농업실습
4. 경주여자양잠전습소
5. 경주여자양잠전습소 실습
6. 경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



경주의 대학







1 3
2 4

1. 경주대학교
2. 동국대학교
3. 위덕대학교
4. 서라벌대학



경주의 종교와 민속





1
2
3 4

1. 기독교 예배당
2. 천주교 성당
3. 용담정
4. 수운 최제우 동상













1. 양동줄다리기
2. 농악
3. 국궁체험장
4. 윷놀이
5. 달집태우기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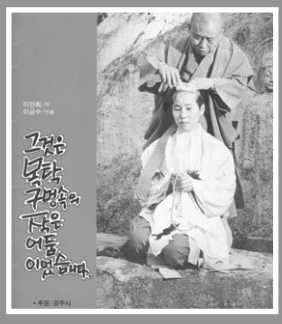


제6편 문화·예술 文化·藝術









제1장 문화
제2장 예술

제1장 문화(文化)

제1절 문화기관(文化機關) 및 단체(團體)

신라 천년의 고도이며 고려 · 조선시대 지방 관아가 있었던 경주는 어느 지역보다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그리하여 고대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 · 개발하여 전승해야 할 책임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의 샘터를 계발(啓發)해야 한다는 시민 의식이 강한 곳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시민 정서를 바탕으로 많은 문화단체의 발족과 눈부신 활동을 통하여 경주의 미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1. 신라회(新羅會)와 경주고적보존회(慶州古蹟保存會)

1910년 6월 13일 경주시민의 요망에 따라 출발한 신라회(新羅會)는 경주시 동부동의 옛 객사(客舍) 건물에 진열장을 마련하고 유물을 수집 · 진열하다가 1913년 6월 13일 동부동의 옛 관아 자리로 옮기면서 경주고적보존회로 발족하였는데, '경주 유물의 산일(散逸)과 훼손(毁損)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는 취지로 유물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박물관의 기능을 하였다. 1922년에 『구도경주도휘(舊都慶州圖彙)』를 간행하였다. 1921년 9월 금관총에서 금관이 출토되고, 이를 경주에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기부금을 각출하여 1923년 10월에 금관고(金冠庫)를 건립하였다.

2. 국립경주박물관(國立慶州博物館)

1) 소재지 : 경주시 인왕동 76번지

2) 설립목적(設立目的)

신라 문화재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다양한 기획 전시와 유적발굴조

사, 국제교류사업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의 중추적인 문화복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연혁(沿革)



현재의 국립 경주박물관 항공사진

국립경주박물관은 1926년 6월 20일 경주시 동부동 198-4번지 옛 경주관아(慶州官衙) 자리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으로 개관되었다. 본관인 온고각(溫古閣)에는 토기, 기와, 옥적(玉笛), 경주부윤의 융복(戎服) 등을 전시하였으며, 서부동의 양무당(養武堂)을 옮겨 와 집고당(集古堂)이라 하고 미륵반가상을 위시한 불상과 이차돈 순교비(異次頓殉敎碑) 등의 석조물(石造物)을 전시하였다. 또 박물관 경내에는 금관총 금관을 보존하는 금관고(金冠庫), 그리고 봉황대 밑에서 옮겨 온 성덕대왕신종과 종각(鐘閣)이 있었으며, 정원에는 석탑 등 석조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해방 후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주지역의 유적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유물이 많이 출토됨에 따라 그 보존과 전시에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75년 현재의 자리에 터를 마련하여 본관 · 별관전시실과 종각을 짓고 이전함으로써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1985년에는 안압지를 발굴조사하여 출토된 유물을 보관 · 전시하기 위한 안압지관을 개관하였고, 2002년에는 미술관을 신축 · 개관하였다. 2003년에는 고고관을, 2005년에는 어린이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 1945. 9. 23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개편
- 1954. 10. 10 어린이박물관학교 개교
- 1975. 7. 2 인왕동 신축박물관으로 이전
- 1975. 8. 20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승격
- 1994. 3. 9 경주박물관대학 개설

4) 역대(歷代) 관장(館長)

〈표 6-1-1〉 일제강점기

대수	성명	재임 기간
초대	모르가 나카오[諸鹿央雄]	1926. 6. 20~1934
2대	사이토 다다시[齊藤忠]	1934~1938
3대	오사카 긴타로오[大坂金太郎]	1938~1945. 8.

〈표 6-1-2〉 광복 후

대수	성명	재임 기간
초대	최순봉(崔順鳳)	1945. 9. 23~1951. 11.
2대	박일훈(朴日薰, 관장 서리)	1951. 11.~1952. 4.
3대	진홍섭(秦弘燮)	1952. 4. 27~1961. 3.
4대	홍사준(洪思俊)	1961. 7. 1~1963. 3.
5대	박일훈(朴日薰)	1963. 3. 14~1973. 11.
6대	정양모(鄭良謨)	1973. 11. 22~1975. 9.
7대	한병삼(韓炳三)	1975. 9. 8~1984. 4.
8대	정양모(鄭良謨)	1984. 4. 9~1986. 10.
9대	이난영(李蘭暎)	1986. 10. 15~1993. 9. 30
10대	지건길(池健吉)	1993. 10. 16~1997. 1.
11대	강우방(姜友邦)	1997. 1. 15~2000. 9. 1.
12대	박영복(朴永福)	2000. 9. 18~2004. 6. 30
13대	김성구(金誠龜)	2004. 10. 20~

5) 전시 시설(展示施設)

· 고고관(考古館) 선사 · 원삼국실, 신라 Ⅰ · Ⅱ실, 국은 기념실
· 미술관(美術館) 역사자료실, 조각 Ⅰ · Ⅱ실
· 금속공예실(金屬工藝室) 고분 출토 유물 외
· 황룡사실(皇龍寺室) 황룡사 출토 유물
· 안압지관(雁鴨池館) 안압지 출토 유물
· 옥외전시장(屋外展示場) 성덕대왕신종, 석탑, 부도, 석등 등
· 특별전시관(特別展示館) 특별 기획전시, 순회전시, 대관전시
·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장

6) 소장품 현황(所藏品現況)

〈표 6-1-3〉 (2004. 12. 31 현재. 단위 : 점)

구분	총 계	등록 소장품	국가 귀속 대상품	위탁 보관 협약품
수량	152,302	40,541	100,150	11,611

7) 주요 사업(主要事業)

· 소장품 전산화 사업 수집 · 관리, 전산화 사업
· 소장품 보존처리 수장 · 전시공간 환경조사, 훈증 소독
· 전시 상설 전시, 특별 전시, 대관 전시
· 조사연구 학술 조사, 책자 발간
· 사회 · 문화 교육 문화강좌, 경주박물관학교 · 경주박물관대학 운영
· 기타 사업 학술조사,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자료 관리

8) 주요 간행물(主要刊行物)

· 『국립경주박물관명품』(1973)
· 『국립경주박물관』(1995)
· 『냉수리고분』(1995)
· 『신라인의 무덤』(1996)
· 『문화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서』(1997)
· 『신라토우도록』(1997)
· 『경주유적지도 1 : 1,000』(1997)
· 『경주유적안내도』(1997)
· 『성덕대왕신종』(1999)
· 『신라와전』(2000)
·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2000)
· 『문자로 본 신라』(2002)
· 『연보』(1993~현재)

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 소재지 : 경주시 마동 93번지

2) 설립목적(設立目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대구 · 경북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유적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문화재의 학술조사 · 연구, 학술 국제교류, 긴급 발굴조사, 출토 유물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연혁(沿革)

· 1973. 3. 22 문화재관리국 소속 경주미추왕릉지구발굴조사단 구성
· 1975. 10. 31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단으로 개편
· 1990. 1. 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1990. 1. 30 경주문화재연구소 개소
· 1999. 5. 24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
· 2005. 5. 마동(馬洞) 신청사로 이전

4) 역대 소장(歷代所長)

〈표 6-1-4〉

대수	성명	발령 연월일
초대	고수길(高秀吉)	1990. 1. 24
2대	이주영(李住映)	1994. 7. 5
3대	신창수(申昌秀)	1996. 8. 23
4대	홍성빈(洪性彬)	1998. 4. 8
5대	최맹식(崔孟植)	2001. 10. 23
6대	윤광진(尹光鎭)	2003. 8. 22
7대	윤근일(尹根一)	2004. 8. 1

5) 경주지역 문화유적 학술 조사

· 월성해자 발굴 조사 1990~2004. 12. 8
· 신라왕경 유적 발굴 조사 1987~2004. 7. 13
· 분황사 발굴 조사 1990~2004. 12. 30
· 구황동 원지유적 발굴 조사 1999. 5~2004. 3. 31
· 전 인용사지 발굴 조사 2002~2004. 12. 31

6) 주요 간행물(主要刊行物)

· 『경주서악지역 지표조사보고서』(1994)
· 『황남대총(남분)발굴조사보고서』(1995)
· 『전랑지 · 남고루 발굴조사보고서』(1995)
· 『재매정지 발굴조사보고서』(1996)
· 『경주방내리고분군(출토유물)』(1996)
· 『경주방내리고분군(본문)』(1997)
· 『황남대총의 재조명』(2000)
· 『경주남산』(2002)
· 『신라왕경』(2002)
· 『경주손곡동 · 물천리유적』(2004)
· 『경주 천관사지 발굴조사보고서』(2004)
· 『월성 지표조사보고서』(2004)
·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Ⅱ』(2004)
· 『경주 남산 석탑 발굴 · 복원정비 보고서』(2004)
· 『경주남산 석조문화재 정밀실측보고서』 (2004)
· 『경주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2004)
· 『연보』제1호(1991)~14호(2004)
· 『월성』(2005)

4.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慶州世界文化組職委員會)

1) 소재지 : 경주시 천군동 130번지

2) 설립목적(設立目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유구한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지붕없는 박물관 경주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와 세계 문화의 접목을 통해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에 의해 1996년에 조직되었다.

영국이 산업박람회를 통해 20세기 산업사회를 이끌었듯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1세기 문화아이콘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미래 인류 문명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탐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3) 조직(組織)

⑴ 조직위원회(組織委員會)

· 위원장 : 경상북도지사 이의근(李義根)
· 위 원 : 84명(도의원 및 교육위원, 시의원, 관계, 학계, 문화관광단체, 사회단체, 종교계, 상공단체, 언론계, 기타)
· 고 문 : 13명

⑵ 이사회(理事會)

· 이사장 : 경상북도 지사 이의근(李義根)
· 이 사 : 14명, 감사 : 2명

⑶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

· 위원장 : 이어령 · 자문위원 : 60명

⑷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집행위원 : 12명

(5) 업무 기구

① 사무총장

〈표 6-1-5〉 역대 사무총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 기간
초대	이정배(李廷培)	1999. 5. 15~2001. 5. 14
2대	박광희(朴光熙)	2001. 12. 1~2002. 6. 30
3대	류흥렬(柳興烈)	2003. 2. 4~

② 2처 2부 7팀

· 사무처장 : 총무팀, 사업운영팀, 기반조성팀, 시설조성팀

· 기획처장 : 기획팀, 행사팀, 홍보팀

4) 주요 시설

조직위원회 사무실, 첨성대 영상관, 시범터, 처용의 집, 동방문화관, 백결공연장, 프레스 센터, 천마의 궁전, 화랑극장, 퍼레이드 운영동, 풍월주 게임방, 광장(난장트기), 기념품 판매장, 음식관, 각종 공방 등

5) 부지(敷地)



엑스포공원

2000년 6월 23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시설 부지로 156,00평을 534억 5천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입 당시 경상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의 협력으로 양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여 매입하게 되었다.

5. 통일전(統一殿)



1) 소재지 : 경주시 남산동 920-1번지

2) 설립목적(設立目的)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받들고 그 위업을 선양하며, 분단된 조국통일의 실현을 기원한다.

3) 조성 경위

1974년 6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6년 4월 22일 착공하여 1977년 9월 7일 개관(공사비 739백만 원)하였다.

4) 관리

· 1977년 9월 7일~1986년 12월 31일 경상북도 소관
· 1987년 1월 1일부터 경주시 관리
· 직원 :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 환경미화원 2명

5) 시설 현황

· 총면적 : 66,000㎡
· 건 물 : 1,176㎡
본 전 : 태종 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봉안함
회 랑 : 평양성 공격도, 매초성 당군 격멸도, 기벌포 대첩도, 사천왕사호국불사도, 화랑 관창 용전도, 황산벌 혈전도, 김유신 장군출전도, 남산 축성도, 황룡사 9층탑 조영도 등 삼국통일의 과정을 담은 17점의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음.
옥 외 : 삼국통일 기념비 1점, 사적비 3점, 삼국통일순국무명용사비 1점

6. 서라벌문화회관

1) 소재지 : 경주시 사정동 1-26번지

2) 개관 연도 : 1979년

3) 주요 시설

· 강당(대강당 574석, 소강당 52석), 전시실(155평), 사무실
· 피아노, 영사기,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등

4) 사용 시간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단, 공휴일은 공무원 출 · 퇴근 시간으로 함.

5) 사용 신청

사용 신청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변경 신청은 5일 전에 신청해야 함.
신청 서류 : 문화회관 소정양식

7. 선재미술관

1) 소재지 : 경주시 신평동 370번지

2) 설립목적

국내 · 외의 우수한 현대미술품을 수집 · 소장하여 소개하는 종합적인 현대예술 공간이다. 미술관을 경주에 설립한 까닭은 고대 미술과 현대 미술의 조화와 공존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3) 시설

지하 1층 · 지상 2층의 석조건물로 3개의 대형전시장과 150석의 강당, 도서실, 워크숍실, 옥외 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주요 소장품

⑴ 외국 작가

· 조각
토니 카로 : '성 트로페스'
장 피에르 레이스 : '자화상' 등 20여 점

· 회화
안젤름 카이퍼 : '제이슨과 미디아', 제이슨, 메디아 외 50여 점

⑵ 국내 작가

· 조각
백남준 : '나의 파우스트', '고대 기마상' 등 20점

· 회화
이세득 : '실상', '심상 91-2' 외 100여

5) 주요 사업

기획전 : 연간 3~4회 개최
정기 강좌 : 매월 첫 화요일

8. 경주문화원(慶州文化院)

1) 소재지 : 경주시 동부동 198-4번지

2) 경주문화원의 초창기

1960년대 제3공화국이 들어서자 새로운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시 · 군 1문화원 설립 독려에 맞추어 전국 각 지방마다 문화원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향토 문화재 보존 및 개발과 전통문화의 육성은 물론 그에 따른 전승사업을 주도하며 지방 특성에 부합된 시 · 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창달을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지방마다 문을 열게 된 문화원 사업은 지방 여건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64년 12월 '경주시 문화원' 이 창설되었고, 이어 1967년 4월에는 '경주군 문화원' 이 설립되었다.

3) 경주시 문화원(慶州市文化院)

1964년 12월 10일자의 인준을 거쳐 경주시 문화원이 창설되었다. 초대원장으로 서양화가 최기석(崔璣錫)이 취임하여 이사진을 구성하고 임원진을 만들어 노동동 소재 경주시청 동편 구내에 위치한 당시 후생복지관 건물의 한 공간을 얻어 사무실을 개원하였다.

1965년 사단법인 전국문화원연합회에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초창기는 개척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기타 여건으로 난관을 거듭하면서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1966년 건설부 경주개발사무소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제2대 채상기(蔡相基) 원장이 취임하여 당시 황오동사무소 2층에 경주시 문화원 간판을 옮겨 달았고, 제3대 정길화(鄭吉和) 원장과 제4대 이해동(李海東) 원장이 각각 직무를 이어받아 어려운 운영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나라시와 교류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으며, 1984년 시청 별관에 자리를 마련하여 사무실을 옮겼다.

1987년 3월, 제5대 이영식(李永植) 원장이 취임하면서, 동년 4월 10일 동부동 198-4번지 건물(구. 경주박물관)인 현재의 원사(院舍)로 옮겨 정착하게 되었다.

그후 많은 역경 속에서도 내실을 다져 회원을 확충하며 출판물 간행과 사진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일본 나라시와 문화 교류의 길을 다시 여는 공적 등으로 1987년 5월 26일 문화공보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 무렵 황

재현(黃在炫)이 국역(國譯)한 『동경통지(東京通誌)』발간과 '경주 고사진전시회(慶州古寫眞展示會)'를 갖는 등으로 1991년 6월 19일 문화공보부 지정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의 경주문화원

1991년 8월 이영식 원장의 퇴임 후 원장의 공백이 생겨 동년 9월부터 1992년 1월까지 손성호(孫成鎬) 직무대리가 원장일을 맡아 이어가다가 1992년 2월 제6대 이상렬(李相烈) 원장이 취임하게 되어 본격적인 활동기로 접어들었다. 취임 직후에 『경주 출신 초대작가 작품집』 발간에 이어 『경주부의 임진항쟁사』(최효식 저), 『겨레의 땅 부처님 땅』(윤경렬 저), 『고도 경주 신비속의 남산 불적』과 『경주 옛사진집』등을 출판하여 문화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뚜렷한 공적을 남기면서 시 · 군 통합 문화원의 문을 열게 되었다.



안강교육장

4) 경주군 문화원(慶州郡文化院)

1967년 4월 20일 경주군문화원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동년 11월 27일 설립인준을 받아 법인 등기의 절차를 마치고 안강읍 안강리 319-62번지 소재의 원사(院舍)에서 경주군문화원이 설립되었다. 초대 원장에 안강 출신으로서 안강읍장을 지낸바 있는 황재복(黃載福)이 취임하여 이사진을 구성하고 임원진을 만들어 시무에 착수했다. 여건상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미 공보관 영사기를 이용하여 국내외 뉴스 및 영화 상영 등으로 당시 영상 시설이 미약했던 시골에 새로운 보도나 계몽에 집착하면서 흥미를 유발하며 나아갔다.

1970년대에 들어 청소년 정서 계발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사생대회, 서예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 유적지 탐방 등을 펼치는 한편 경로사상 계도를 위한 청소년 수련 모임을 마련하고 이를 주도하였다. 1988년에는 『월성문화유적지(月城文化遺蹟誌)』를 발간하여 군민의 관심을 모으며 향토 애향심을 고취시켰다.

1993년에 들어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범문화원으로 지정 받아 원사(院舍) 내부를 개 · 보수하였다.

황재복(黃載福) 원장은 초대원장에서 4대까지 연임하다가 6, 7대 원장을 다시 맡아 그야말로 경주군 문화원을 혼자서 이끌다시피 한 인물이며, 그의 열과 성의로 경주군 문화원은 많이 발전하였다.

제8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용섭(金溶燮)은 1991년 『향토문화(鄕土文化)』를 창간하여 1994년까지 3호를 발간해 오다가 1995년 시 · 군 통합 문화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끝을 맺었다.

그후 경주군 문화원 원사(院舍)는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으로 개설되었고, '안강문화연구회' [회장 장병환(張炳煥)]가 발족되어 『비화원(比火原)』을 발간하고 있다.

5) 경주문화원(慶州文化院)

1995년 4월 2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 · 군 문화원이 통합됨으로써 경주 전역을 포괄하는 '경주문화원' 이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6월 10일, 당시 이상렬(李相烈) 경주시문화원장이 통합된 경주문화원 초대 원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였다.



경주문화 창간호



경주문화논총 창간호

1995년 12월 문화원 기관지 『경주문화(慶州文化)』창간호를 발간하여 날로 확충되는 회원들의 지적 교양 향상과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한편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를 개설하여 학문적 연구 활동을 개시하였다.

1996년 6월 권오찬(權五燦) 2대 원장이 선출되어 취임함으로써 새로운 활동 단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韓國文化學校)' 로 1998년 3월 6일 지정받았으며, 동년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및 전북 익산문화원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하는 한편, 원내에 '향토사료관' 을 개설하고 학술논문집 『경주문화논총』 제1집을 발간하였다.

2000년 6월에 임원을 개선하여 제3대 김태중(金泰中) 원장이 취임하였다. 전대의 문화사업을 이어 받아 경주와 관련된 출판물을 재정비하여 발간 · 배포하였는데, 『신라의 빛』(권오찬 저) 보증판, 국역 『경주읍지(慶州邑誌)』(조철제 역), 국역 『경주선생안(慶州先生

案)』(조철제 편역) 등을 출간하였다.

한편, 동적 활동을 강화하여 '부설 서라벌예술풍물단'의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학교(서예 · 장구 · 가요교실 등)의 상설 운영과 '향토문화유적답사' 등 회원들이 몸소 체득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원사를 무상대여 받았으며, 객사(客舍) 건물을 보수하여 '전통문화학교 동경관'을 개관하였다.

이어 2004년 3월 회원 전원의 직선제 경선으로 4대 최용환(崔龍煥) 원장이 당선되어 동년 6월 5일 취임하였다. 새로 선출된 최용환 원장은 취임 직후 원사(院舍)의 내외 정비와 확충에 착수하여 연접해 있던 종전 부시장 관사를 수리 통합하여 사무실을 넓게 단장하였다. 또, 동편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괘정서사(掛庭書舍)'란 현판을 걸고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던 서적을 정리 · 진열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⑴ 연간 활동 상황

○ 민속자료실 개설 : 민간 신앙, 산업 기술, 의식주, 풍속 오락, 민속 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 전시

○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학술발표회, 문화유적조사, 연구논문집 간행 등을 실시

○ 부설 서라벌예술풍물단 활동 : 향토민요, 전통 무용, 농악 등을 연수하고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등의 봉사 활동에 참여

○ 문화강좌 개설
· 문화학교 : 서예, 민요, 가야금, 장구, 가요, 다도, 한국화, 한국무용, 판소리. 스포츠댄스, 전통자수, 종이공예, 통기타, 시조창 등을 개선
· 각종 강좌 : 경주문화특강, 충효교실, 주부교실, 출향인사 초청강의 등을 실시

○ 도서 간행 : 『월성문화유적』(1998), 『동경통지 번역본』(1990), 『경주지방 고서목록』(1992), 『경주출신초대작가 작품집』(1992), 『경주부의 임진항쟁사』(1993),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1993), 『경주의 옛사진집』(1994), 『신라의

빛』(2000), 『경주문화』(1~10호), 『경주문화논총』(1~7집), 『국역 경주선생안』(2002), 『국역 경주읍지』(2003), 『경주문집해제』(2004), 『만화로 보는 경주역사』(2004), 『경주풍물지리지』(2005)

○ 국악 행사 : 경주시 농악경연대회, 경주시 향토민요 경창대회 개최

○ 문화유적 답사 : 어린이 향토문화유적 답사, 회원 문화유적 탐방 실시

○ 지방 문화행사 주관 및 후원 : 신라문화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가지행사, 한국의 술과 떡잔치 민속 행사 주관 및 조선통신사 행렬, 경주박물관대학 강좌 등 후원 및 주관

○ 문화단체와의 교류 : 전북 익산문화원과 자매결연,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와 산학협동교육연구에 관한 자매결연,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와 지방문화 공동연구에 관한 협정

(2) 역대 문화원장

〈표 6-1-6〉 역대 문화원장 명단

경주시 문화원	경주군 문화원	(통합)경주문화원
초대 : 최기석(崔璣錫) 1964~1972. 8	초대~4대 : 황재복(黃載福)	초대 : 이상렬(李相烈) 1995. 6~1996. 5
2대 : 채상기(蔡相基) 1972. 9~1976 .8	5대 : 정해룡	2대 : 권오찬(權五燦) 1996. 6~2000. 5
3대 : 정길화(鄭吉和) 1976. 8~1980. 8	6대 : 황재복(黃載福)	3대 : 김태중(金泰中) 2000. 6~2004. 5
4대 : 이해동(李海東) 1980. 8~1984. 8	7대 : 황재복(黃載福)	4대 : 최용환(崔龍煥) 2004. 6~현재
5대 : 이영식(李永植) 1984. 9~1991. 8	8대 : 김용섭(金溶燮)	
직무대리 : 손성호(孫成鎬) 1991. 9~1992. 1		
6대 : 이상열(李相烈) 1992. 2~1995. 6		

9. 신라문화동인회(新羅文化同人會)

1) 소재지 : 경주시 성건동 176-1번지

2) 연혁

향토 문화유적을 아끼고 발굴 ·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뭉쳐, 경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1956년 10월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온 국민이 앓고 있던 그 때에 경주를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 유산을 제대로 알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여, 이상구, 윤경렬, 이덕형, 김태중, 최영식, 정선, 윤월희 등을 중심으로 발기 모임을 갖고 신라문화동인회를 창립하였다.

당시 법조인으로서 향토문화 창달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이상구(李相龜) 변호사가 초대 회장을 맡아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가입한 회원들은 시내 각급 학교의 교직자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언론과 예술인들이 가세하여 회원수는 날로 늘어갔다. 매월 1회 유적답사가 있는 일요일은 조상의 손길을 찾아 경주인의 자긍심을 심는 등 동인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초대 회장직을 맡아 32년이란 긴 세월 동안 회의 활성화에 공적을 남겼던 이상구 회장이 작고하고, 제2대 윤경렬(尹京烈) 회장이 2년, 제3대 김태중(金泰中) 회장이 11년, 제4대 우병익(禹炳益) 회장이 4년을 맡아 개성적이고 전통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2004년 4월에 제5대 김광해(金光海) 회장이 직무를 이어받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릇 50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문화동인회는 그 동안 서울신문(대한매일)으로부터 '향토문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무수한 단체상 수상과 회원 개인으로는 '외솔상'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문화상', '경주시 문화상' 등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3) 전통이 확립된 기존 사업

(1) 박물관학교(博物館學校) 운영

주된 사업으로는 우선 박물관학교의 창립 및 운영이다. 윤경렬과 당시 경주박물관장이던 진홍섭이 1954년에 '경주박물관학교'를 설립하였고, 창립부터 지금

까지 신라문화동인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이 학교는 1부 초 · 중등부(1년 과정), 2부 고등 · 일반부(1년 과정)로 나누어 우리 역사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전승 · 보존에 대해 교육하며, 졸업생은 5,000여 명에 이른다.

(2) 문화유적 답사

창립 이후 지금까지 매월 1회 '문화유적 답사'를 통하여 회원 및 참가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바른 이해와 애호 정신을 심어주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훼손 문화재의 보존,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3) 문화재 해설 – 시민 문화강좌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사로 초빙하여 매월 1회 개최하는 '문화재 해설 –시민 문화강좌'는 2005년 6월 현재 512회를 맞고 있으며, 49년에 이르는 동안 경주시민의 역사 · 문화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사업 목적 :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천년고도 경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 생활과 더불어 접하는 각종 문화재의 설명(해설) 및 역사 강좌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문화재의 중요성 인식과 문화재 애호 및 시민, 학생의 문화재 지킴이와 문화재 안내요원화를 도모한다.
○ 사업 개요 : 연간 계획을 세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지역의 전문 향토사학자,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거나, 회원들이 평소 연구한 분야의 발표 또는 사료 소개, 문화재 해설 등을 교재와 빔 프로젝트, 슬라이드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강의한다.
○ 사업 성과 : 매회 70명 내외의 참석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교양함양을 통한 문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였다.

(4) 새벌 향연

1962년 경부터 매년 10월 10일 저녁에 신라 천년 동안 종교 학문을 진흥하거나 금관이나 토기를 만들고, 탑이나 건축물을 쌓고, 불상을 조각하고, 그림을 그리

고, 악기를 연주하고, 향가를 짓는 등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운 예인(藝人)들, 즉 충담, 월명, 솔거, 백결, 양지, 김생과 같이 이름을 남기거나, 이름 없이 돌아가신 신라문화예술선사들을 위한 제전인 '새벌 향연의 밤'을 개최해 오고 있다.

(5) 대외 문화 교류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발표를 통한 타 학회와의 교류 사업으로 1969년부터 '광주 민학회'와 문화 교류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북 익산 '고적선양회'와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면서 '함평문화연구소'와도 문화 교류를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합동 문화 답사, 개천제, 새벌 향연 공동 참여 등이다.

(6) 회지 발간

동인회 회지 『천고(穿古)』를 매년 출판하여 2004년 기준으로 61호 발간에 이르며 79명 현 회원들의 발표 광장이 되고 있다. 연구 논문과 문화재 답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7) 역대 회장 명단

〈표 6-1-7〉

구분	회장	재임 기간
초대	이상구(李相龜)	1956. 4~1988. 3
2대	윤경렬(尹京烈)	1988. 4~1990. 3
3대	김태중(金泰中)	1990. 4~2000. 3
4대	우병익(禹炳益)	2000. 4~2004. 3
5대	김광해(金光海)	2004. 4~현재

10. 신라역사과학관(新羅歷史科學館)

1) 소재지 : 경주시 하동 201-1번지 하동민속공예촌

2) 설립자 : 석우일(昔宇一)

3) 설립목적



1988년 10월 15일에 동악미술관(東岳美術館)으로 출발하여, 1995년 신라역사과학관[新羅歷史科學館, 과학기술부 제기-1호]으로 개명 · 등록하였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과학 · 기술과 불교미술을 탐구하고 그 모형을 제작 ·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이 조상의 슬기를 쉽게 이해하며 나아가 새로운 문화적 창조의 의욕을 유발하도록 한다.

4) 주요 시설 및 전시물

○ 제1전시실 : 하늘에는 천문도, 땅에는 왕경도
첨성대와 별 관측도, 천정 천문도와 혼상(천구의), 해시계와 물시계, 신라왕경도전시

○ 제2전시실 : 뉴밀레니엄 태양빛이 가장 먼저 닿는 석굴암
석굴암의 건축 · 보수 문제, 본존상의 방위, 석굴암의 옛 사진, 여래상의 수인 사진을 전시

○ 제3전시실 : 종소리는 중생을 구제하고 시간도 알림.
상원사종 모형과 성덕대왕신종의 주조 과정 전시

○ 제4전시실 : 한국의 고대 하이테크 인쇄 기술
불국사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직지심경, 신라 금관의 이해, 해인사 팔만대장경 설명

○ 제5전시실 : 5~6세기 황금의 나라 신라왕들의 금관과 허리띠
서봉총 금관, 천마도와 천마총 금관, 금관총 금관과 허리띠, 황남대총 북분 금관 소개

○ 제6전시실 : 세종대왕과 과학 문화재
석각 천문도, 월인천강지곡, 앙부일구, 측우기, 일성정시의, 천상열차분야지도 소개

○ 제7전시실(옥외) : 첨성대

5) 부설 신라과학기술연구소(新羅科學技術硏究所)

신라 역사 · 문화에 대한 국내 · 외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저술과 논문을 비치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1. 신라문화원(新羅文化院)

1) 소재지 : 경주시 노서동 129-9번지

2) 주요 사업

경주의 고대 유적이나 문화 유산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경주는 이른바 불교문화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불교신문' 경주지사 개설을 계기로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해 2004년 11월 사단법인 '신라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활발한 불교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문과 이사장으로 스님들을 추대하고 진병길 원장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하고 있다.

신라문화원의 주된 목적은 불교인들에게 신라문화의 바른 이해를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있다. 오로지 순수한 민간 문화단체로서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신라불심회, 신라바라밀, 교사모임, 청년회, 계림사우회, 서다림회 등 6개의 독립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문화 유산 보존 및 정화 사업, 문화재 해설 봉사, 청소년 문화의식 함양 사업 및 소외 계층 문화체험 사업 실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야간 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달빛신라역사기행' 그리고 '별빛신라역사기행' 등이 있다.

3) 활동 내용

〈표 6-1-8〉 신라문화원 주요 활동 내역

연월일		내용	비고
1990	4.	불교신문 경주지국 개설	
	9.	큰스님 초청대법회 개최	현 27회
1991	12. 5	선다원 개원 (신라문화원 전신)	
1992	1. 27	제1회 청소년 문화마당 (년 2회, 현 20회)	연 인원 6,000여 명
	4. 5	제1회 선다원 유적답사 시작 (매월1회, 첫째 일요일 실시 1999년 8월까지 진행)	경주문화기행 전신 연 인원 4,000여 명
1993	3. 18	신라문화원 개원	
1994	9. 17~18	제1회 달빛신라역사기행 (2002년까지 600여 명)	매년 1~2회 실시
1995	7. 30	회보 '신라문화' 계간 발행 (통권 6호)	매년 3회, 15권발행
1996	4. 3~12	개원 3주년 기념 제1회초대작가사진전(서라벌! 빛 그리고 향기)	안장헌 사진작가
1997	6. 29	경주 남산 '97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 주최	
1998	10. 1	경주 문화유적 전도 발행(중국 세계지도박람회 참가)	2쇄 2만부 제작
1999	9. 6	제1기 신라불교문화대학 개강	
	10. 10	제1회 경주문화기행(매월 둘째 일요일 실시)	현 60회-3,000여 명
2000	1.	제1회 어린이 문화학교 (매월 1회, 첫째 일요일)	현 57회-3,000여 명
	12. 8~14	2000 청소년문화마당(초대작가전 '무형문화재 사진전'-정수미 작가)	20,000여명 참석
2003	4~10	2003 달빛신라역사기행(신라문화원 주관, 경상북도 후원)	19회 개최, 약 3,000여 명 참가
	8. 24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문화축제 주관	문화관광부 후원 3,000여 명
	8. 18~23	한국세계문화유산과 경북사진전 개최	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4	4~6	안압지야간 상설 국악 공연(경주시 주최/신라문화원 주관, 매주 토요일)	매회 1,500~3,000여 명 참가
	10. 18	'1가족 1문화재 가꾸기' 운동 발대식 주관	안동 태사묘
	11. 29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설립 허가	문화재청
	12. 08	전국문화유산 자원봉사자대회 문화재청장 표창	문화재관리 우수단체

12. 신라문화진흥원(新羅文化振興院)

1) 소재지 : 경주시 성건동 349-32번지

2) 연혁(沿革)

민족혼의 발상지인 고도 경주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여, 선조들이 남긴 뿌리 깊은 문화 유산을 찾아서 바르게 알기 위해 자생한 민간 문화단체이다. 우리 문화

의 원류인 신라문화 유산을 보호 · 교육 · 홍보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1997년 7월 24일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제453호)를 받고 8월 5일 '사단법인 신라문화진흥원'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97년 9월 30일 김주락(金周珞) 변호사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초창기 개원에 따른 회원 정비와 제반 임원진을 구성하고 1998년 1월부터 제1회 '경주사랑 사진공모전'을 필두로 '백제 문화유적 답사'(충남권)에 이어 '신라문화대학 강좌'를 실시하며, 동년 3월에는 '충담재' 등을 주관하였다.

기존 행사로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과 회원이 참여하는 문화유적 답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화전놀이', '사진강좌와 전시회',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주부문화대학 강좌', '전통문화체험', '교원연수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경주 이해를 위한 한영한(漢英韓) 사전 발간과 기관지 『신라문화』를 정기적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1999년 8월 30일 성건동 349-32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신라문화유적답사' 160회, '어린이문화유적답사' 107회, '청소년문화유적답사' 41회의 실적을 올리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 주요 활동

○ 교육 사업 : 전통문화 체험, 교원 연수, 신라문화대학, 주부문화대학

○ 유적 답사 : 신라문화 유적답사, 타 지역 유적답사, 청소년 유적답사

○ 어린이를 위한 사업(해누로미 문화학교) : 어린이 유적답사, 우리 문화 체험 마당, 부모와 함께하는 겨울 역사 교실, 어린이 자연 학습 교실, 어린이 차 예술 교실, 어린이 한자 교실, 어린이 국악 교실, 우리 문화 사랑방

○ 문화사업 : 화전놀이 마당, 유적답사 지도 및 강좌

○ 소모임 활동 : 우리 꽃사랑 모임(풀꽃아리), 주부대학 모임(하눌아리)

13. 동리 · 목월기념사업회(東里 · 木月記念事業會)

1) 사업회 발족

2000년 9월 출향 인사 공선섭(전 리비아 대사)과 김기찬(경북대 교수)이 고향을 방문하여 장윤익(문학평론가, 전 경주대 총장)과 서영수(시인)를 상면한 자리에서 동리 · 목월을 기념하는 문학관 건립을 발의 · 권유한 것이 추진 계기가 되었다.

한국 현대문학사의 금자탑을 이룬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박목월을 기념하는 문학관을 고향 경주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때늦은 발상임을 함께 공감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 구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동년 10월 23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첫 모임을 갖고 발기의 모체를 형성했다. 이근식, 권윤식, 장윤익, 서영수, 정민호, 김종섭, 김봉환 등의 문인들과 김태중(문화원장), 오해보(전 부시장), 김선학(동국대 교수), 박기태(경주대 교수), 김주현(경주대 교수), 신평(변호사), 박종택(새마을금고 이사장), 박형채(전 신라고 교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규합하여 추진준비위원장에 장윤익을 선출하고 사무국장에 신평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발족된 가칭 '동리 · 목월 문학관 건립추진 준비위원회'는 동리 · 목월 기념사업회를 법인으로 결성하기로 하고 실질적 활동에 들어갔다. 경향 각지 출향인사와 문학인, 그리고 많은 명사 유지들의 찬동과 협조를 받았다. 장윤익 위원장은 당시 이원식 시장과 면담, 논의를 하면서 언론기관을 통해 이 사업을 널리 보도하였다.

2001년 2월 3일 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추진의 결실을 얻어 발기인 대회 및 동리 · 목월 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경주 보문 교육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석 인원은 330여 명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지의 문인과 학자, 그리고 각계 각층의 유명 인사와 동리 · 목월의 유가족들은 물론, 경주시민들이 함께 모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앞으로 공식적인 추진의 기틀을 형성했다. 이에 회장에 장윤익(張允翼), 부회장에 오해보(吳海輔), 서영수(徐英洙), 사무국장은 신평(申平)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감사에 주영일(朱英一), 권순일(權純溢) 회계사를 선출했다.

그리하여 경향 각지의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에게 고문을 위촉하고 이사회를 조직결성하여 문학관 건립 기금 조성과 건립에 따른 제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무에 착수하였다.

2) 문학관의 건립

가칭 동리 · 목월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는 동안 전국 각지의 유지와 문인들이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협조와 찬사를 보내왔지만 문학관 건립의 막대한 예산과 부지 선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선 경주시 노동동 14번지(구 진성의원빌딩 3층)에 사무실을 임대 개설하고 2001년 3월 3일 동리 · 목월 기념사업회 현판식을 가졌다.

그후 신평의 후임으로 박형채(朴亨埰)가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으며, 2001년 9월 24일 사단법인 인가의 확정 통보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장윤익 회장의 투지와 끈기가 원동력이 되어 2,000여 명의 전국적 규모의 회원들을 일일이 접하여 찬동 청원서를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끝에 국비(12억 원), 도비(9억 4,000만 원), 시비(18억 6,000만 원)의 계상 승인이 확정되어 마침내 문학관의 건립을 착공하게 되었다.

당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벗어났으나 부지 위치 선정이 뒤 이은 난관으로 다시 부각되어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다. 당초 기공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진 후 최종 선정된 곳이 진현동 산 550-1번지(옛, 석굴로 관리사무소) 토함산 기슭에 마침내 동리 · 목월 문학관 부지가 시의회의 가결로 확정되어 공사에 착수했다.

2003년 10월 설계 입찰을 공고 후, 11월 5일 동리 · 목월 문학관 기공식을 가졌는데, 서울을 비롯한 경향 각지와 경주시민 그리고 동리 · 목월의 유가족과 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상승 시장과 장윤익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들이 모여 감격의 첫 삽질에 성취의 보람을 가득 담았다.

2005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6년 새봄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천년고도 경주의 새로운 문학명소로 동리 · 목월 문학관이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 경주시립도서관((慶州市立圖書館)

경주시 황성동 370번지

본 시립도서관은 1953년 7월 1일 한국전쟁 중에 개관되었다. 그 설립은 당시 읍의회 의원 및 유지 그리고 읍 당국의 절대적 노력과 성원 하에 사설 도서관을 운영하던 엄대섭(嚴大燮)의 기증도서(寄贈圖書) 1,000여권을 기본도서로 하여 우선 동부동(東部洞) 읍사무소 회의실을 관옥으로 쓰기로 하고 경주읍립 도서관을

발족하였다. 당시는 아직 도서관법(圖書館法)이 발포(發布)되기 전이어서 경주도서관 설립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 후 시승격과 함께 시립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시립도서관의 건물문제는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시청사 신축계획의 일부로서 일백수십평의 독립건물이 설립될 계획이며 도서관 설립의 후원단체로서는 관우회[館友會, 회장 김종준(金鍾埈)]가 조직되어 도서의 수집과 독서보급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사이 경주도서관은 발전을 거듭하여

1955. 7. 1	경주읍에서 읍도서관으로 설립확정
1955. 9. 1	경주시립 도서관으로 개칭
1976. 11. 26	경주중앙도서관으로 개칭 (중앙일보 창립 11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증)
1989. 9. 22	도서관 건물 신축개관. 경주시립도서관으로 명칭 환원. 경주중앙도서관을 중앙분관으로 개칭
1998. 12. 8	문화관광부로부터 신라 역사 문화관련 특별공공도서관으로 지정
2003.	디지털자료실 신축

○ 경주시립도서관

주 소 : 본관 경주시 황성동 370번지
분관 경주시 사정동 1번지

규 모 : 본관 지하1층, 지상 2층
대 지 : 8,376㎡(2,533평)
연면적 : 3,253㎡(984평)
좌석수 : 450석
분관 지하1층, 지상 1층
대지 : 2,013㎡(609평)
연면적 : 536㎡(162평)
좌석수 : 250석

장서현황 : 135,079권(본관 : 109,342 분관 : 25,737)

○ 외동도립도서관
주 소 :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443-3번지

○ 건천읍민도서관
주 소 :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171번지
규 모 : 202평
장서현황 : 34,300여권

○ 감포읍민도서관
주 소 :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6-2번지
규 모 : 98평
장서현황 : 44,000여권

○ 안강읍민도서관
주 소 :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234-11번지
규 모 : 부지면적 : 1,155㎡(350평)
연 면 적 : 994㎡(300평)
장서현황 : 39,700여권

○ 동국대학교 도서관
주 소 :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
규 모 : 13,078㎡(3,956평)
장서현황 : 56만여권

○ 경주대학교 도서관
주 소 : 경주시 효현동 산42-1번지 경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규 모 : 1,000㎡(303평)
장서현황 : 34만여권

○ 위덕대학교 도서관
주 소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번지 위덕대학교 회당학술정보원

규 모 : 9,427㎡(2,852평)
장서현황 : 20만여권

○ 서라벌대학 도서관
주 소 : 경주시 충효동 165번지 서라벌대학 도서관
규 모 : 970㎡(294평)
장서현황 : 10만2,300여권

제2절 문화행사(文化行事)

1. 신라제(新羅祭)

1935년 가을에 신라제를 창설하여, 매년 음력 8월 17일부터 3일 간 황성공원(隍城公園)에서 신라의 발상 전설(發祥傳說)을 재현하고 경주 6부 촌장들의 건국을 현창(顯彰)하였다. 제전식(祭典式) 후에는 선덕여왕을 기리는 여성 집단의 행렬, 화랑단의 행렬, 김유신 장군의 출진 행렬(出陣行列)과 12지신상(十二支神像)의 행렬이 있었으며, 궁술(弓術) · 체육(體育) · 백일장(白日場) 대회도 거행하였다.

이 행사는 당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고 큰 규모의 행사였으므로 타 지방에서 오는 참관인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 운임을 할인(개인 20%, 단체 50%)하였으며, 참관자가 해마다 6만 명을 넘었다 한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다.

2. 서라벌예술제(徐羅伐藝術祭)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 경주지부[慶州支部, 지부장 : 이상구(李相龜)]에서 그 결성 1주년을 기념하여 1954년 9월 12~15일에 각 분야에 걸쳐 예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의 취지문 중에 "우리는 오늘날 생의 미각을 잃은 동류(同類)에게 안유의 시공(時空)을 마련하고저 움직이려 한다. 일찍이 민족문화가 발상한 성지(聖地)요 아름다운 유적(遺跡)들이 천년(千年) 풍우(風雨)에도 그대로 명맥(命

脈)을 이어가는 서라벌에서 이제 향불을 피우고 제전(祭典)을 올려 선인(先人)의 유덕(遺德)을 기리고 겨레 문화의 백화난만(百花爛漫)을 설계함이 결코 뜻 깊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행사 내용은 기념식 등 20종목으로 전국의 문화 · 예술인이 다수 참여하였다. 아쉽게도 이 행사는 1회에 그치고 말았다.

1) 기념식 / 장소 : 경주극장

2) 강연회 / 장소 : 경주극장

· 강사 : 이병도(李丙燾), 양주동(梁柱東), 이헌구(李軒求), 조지훈(趙芝薰), 왕학수(王學洙), 구 상(具 常) 등

3) 원화 · 화랑선발대회(源花 · 花郎選拔大會) / 장소 : 영남일보사

4) 화랑제(花郎祭)/ 장소 : 고성 숲

5) 원효대사재(元曉大師齋) / 장소 : 분황사

6) 연등(燃燈) / 장소 : 경주 시가지

7) 가장행렬(假裝行列) / 장소 : 경주 중심가

8) 문학부(文學部) / 장소 : 경주극장

· 내용 : 동요(童謠), 한글 시(詩),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

9) 미술부(美術部) 학생, 일반 공모전 / 장소 : 군청 별관

· 심사원 : 이상범(李象範), 도상범(都相範), 백낙종(白樂宗), 손일봉(孫一峰)

10) 연극부(演劇部) / 장소 : 경주극장

· 참가 : 전국 남 · 녀고등학교

· 심사원 : 류치진(柳致眞), 김진수(金鎭壽), 이해랑(李海浪)

11) 음악부(音樂部) / 장소 : 경주극장

· 참가 : 전국 남 · 녀고등학생

· 출연 종목 : 성악(독창, 합창), 취주악(독주, 합주)

· 심사원 : 이흥렬(李興烈), 윤이상(尹伊桑)

12) 민악부(民樂部) / 장소 : 황성(隍城) 숲 가설극장

· 참가 : 군내 각 읍 대항, 일반

13) 아악부(雅樂部) / 장소 : 황성 숲 가설극장

· 참가 : 국악원 일행

14) 궁도부(弓道部) / 장소 : 북천 특설도량

15) 학술부(學術部) / 장소 : 학술 논문 공모(제목 : 신라문화 및 자유)

· 심사원 : 이병도(李丙燾), 이헌구(李軒求), 왕학수(王學洙), 양주동(梁柱東)

16) 사진예술부(寫眞藝術部) 광화예술전(光畵藝術展) / 장소 : 경주도서관

· 참가 : 각지 응모자

17) 무용부(舞踊部) / 장소 : 경주극장 및 계림운동장

· 고전무용(古典舞踊), 어린이 무용, 군무[群舞, 화랑무(花郎舞)], 기무(妓舞)

18) 체육부(體育部)

· 집단체조(集團體操) / 장소 : 계림운동장
참가 : 각 중학교 체육단

· 단축 마라톤(13Km) / 장소 : 경주소방서 앞 출발~불국사~경주
참가 : 일반 및 학생

· 전국씨름대회 / 장소 : 고성 숲 상설 씨름장
종류 : 애기 씨름, 중 씨름, 전국 장사 씨름

19) 신악무(神樂舞) / 장소 : 고성 숲

20) 향가(鄕歌)전시회 / 장소 : 국일예식장

· 전시 : 현존 향가 25수

3. 신라문화제(新羅文化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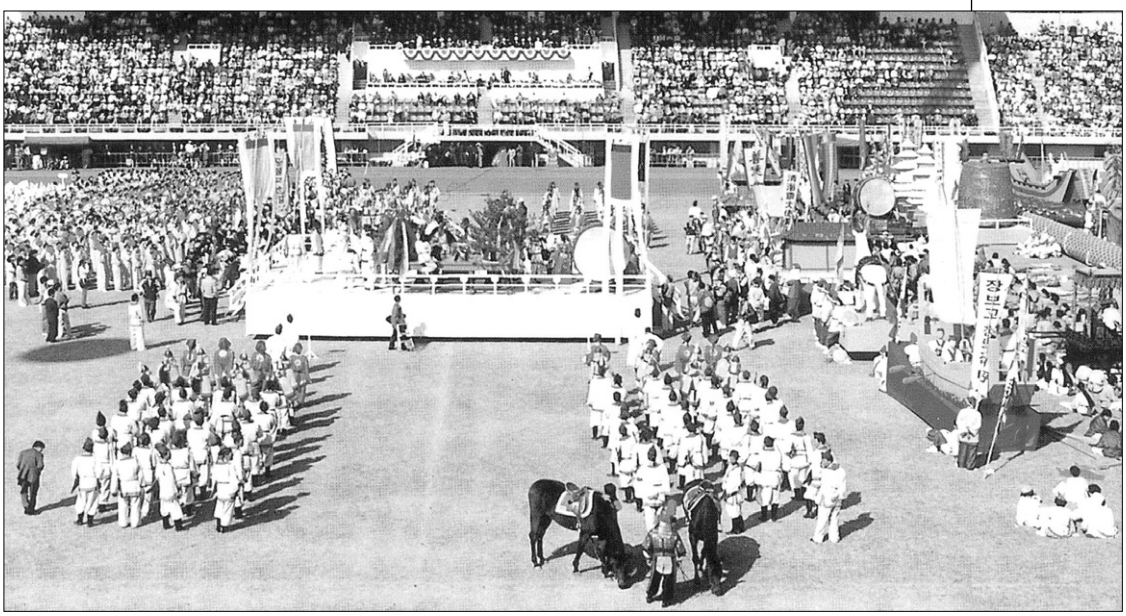
1962년 가을 '천년의 꽃다운 향기와 음향이 울려 퍼지는 오늘의 대축제(大祝祭)는 옛 조상들의 참되고 슬기로운 그 정신과 유산을 계승 · 발전시켜 새 문화창조의 기틀을 삼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초창기의 주요 행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전(祭典)

· 서제(序祭)

서제는 천지신명(天地神明) 앞에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옛 문화를 조명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신라문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제전(祭典)이다. 제의행렬(祭儀行列)은 취타악(吹打樂)에 맞추어 처용무인(處容舞人)과 차비인(差備人)들이 신목(神木)을 제단(祭壇)의 중앙에 봉안하고, 당기를 제상(祭床)의 네 모서리에 세운다.



신라문화제 개막식 장면

세계적으로 고대에서는 제의(祭儀)에 신격(神格)을 봉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한(三韓)이 솟대를 세웠으며, 신라는 삼산오악(三山五岳)을 제향하였는데 신목은 사직(社稷)을 상징하며, 신라 사람들이 받들던 천지신명이라 하겠다. 이 신목은 서라벌의 오악인 낭산(狼山), 토함산(吐含山), 선도산(仙桃山), 금오산(金鰲山), 금강산(金剛山)에서 모셔왔고, 색포(色布)를 드리워 신체(神體)로서의 위의(威儀)를 갖추고 있다.

진행은 분향(焚香), 참신례(參神禮), 초헌례(初獻禮), 독축(讀祝),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사신례(辭神禮), 음복례(飮福禮), 분축(焚祝)의 순이다.

2) 신라미술대전(新羅美術大展)

신라미술대전은 1979년, 전국에서 지방으로서는 유일하게 관에서 주최하고 전 문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公募展)으로 출발하였다. 이 전시회는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위원장 ; 경주시장)가 주최하고 신라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운영위원회는 경주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제9회까지는 미협지부, 예총지부가 집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제10회부터는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가 주관을 하여왔다. 따라서 미협지부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부위원장 격)으로 신라미술대전의 초대작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사위원의 선정, 공모 규정 등을 심의, 전시회를 집행하게 된다.

이 대전은 창설 당시 경주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띤 도시의 위상에 부합되는 특별한 관의 지원으로 시상제도에 파격적인 대우를 부여하였다.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150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수상자를 예우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상이라는 대상의 명칭은 제1회 때만 허용되었고 다음해 부터는 정부에서 대통령상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문화예술행사에서 대통령상 제도를 규제하게 되었다.

전시회의 응모 분야는 동양화, 양화, 조각, 공예, 서예의 5개 부문에 걸쳐 공모하였고, 제4회부터는 '사진'과 '신라 풍속 및 기록화' 분야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신라 풍속 및 기록화는 당해 년도에만 공모하고 폐지되었으며, 제5회부터는 기존 5개 분야 외에 사진을 추가하여 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1회 때에는 '불교미술'과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을 추가하여 8개 부문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이 분야도 제12회부터는 다시 제외되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은 공예 부문에 포함시켜 6개 분야로 한정하여 공모하였다.

제14회(1993)부터는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르의 고유한 예술성을 두고 전 분야에서 한 명이 대상을 수상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각 1명씩의 대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는 6명의 분야별 대상을 뽑았다.

제15회 때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공예 부문에서 분리시키고 '판화' 분야를 추가하여 8개 부문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대상은 6개 부문에 한 해 수여하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주관 부서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대상 분야를 축소하기에 이른다. 제19회에는 4명, 제21회에는 3명, 제22회 · 23회 역시 3명으로 대상을 줄이고 제25회(2004)에는 대상을 전 분야에 걸쳐 1명으로 한정하여 파격적 상금(일천만원)을 수여하는 시상 규정을 만들어 창설 당시의 제도로 환원하였다.

〈표 6-1-9〉 신라미술대전 연도별 출품 및 입상 현황

회수	연도	출품수	입선 이상수	공모 부문수	대상 분야
1	1979	391	194	5	한국화
2	1980	436	201	5	양화
3	1981	740	222	5	조각
4	1983	609	284	7	서예
5	1984	652	313	6	양화
6	1985	597	287	6	공예
7	1986	763	228	6	양화
8	1987	551	299	6	조각
9	1988	531	277	6	없음
10	1989	673	345	6	양화
11	1990	560	272	8	조소
12	1991	708	296	6	한국화
13	1992	750	309	6	사진
14	1993	1036	527	6	한국화, 양화, 조소, 서예, 공예, 사진
15	1994	949	473	8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사진, 판화
16	1995	1135	545	8	양화, 조소, 공예,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서예
17	1996	1040	568	8	한국화, 양화, 공예,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서예
18	1997	1114	537	8	한국화, 양화, 공예, 사진, 서예
19	1998	925	500	8	양화, 공예, 사진, 서예,
20	1999	971	513	8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사진, 서예
21	2000	786	443	8	양화, 공예, 서예
22	2001	843	410	8	양화, 사진, 서예
23	2002	748	422	8	양화, 사진, 서예
24	2003	532	629	8	양화, 조소, 공예, 사진, 서예
25	2004	798	473	8	한국화

3) 학술발표회 및 학술지 발간

1979년 이래 신라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발표회(學術發表會)를 개최하고 학술지(學術誌)를 간행하고 있다.

〈표 6-1-10〉 역대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주제

차례	주제	발간 연도
창간호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신연구(新研究)	1980
제2집	삼국사기(三國史記) 지(志)의 신연구(新研究)	1981
제3집	신라 문화(新羅文化)의 일본(日本)에 끼친 영향(影響)	1982
제4집	신라 민속(新羅民俗)의 신연구(新研究)	1983
제5집	신라 종교(新羅宗教)의 신연구(新研究)	1984
제6집	신라 예술(新羅藝術)의 신연구(新研究)	1985
제7집	신라 문학(新羅文學)의 신연구(新研究)	1986
제8집	신라사회(新羅社會)의 신연구(新研究)	1987
제9집	신라(新羅)와 주변 제국(周邊諸國)의 문화 교류(文化交流)	1988
제10집	화랑문화(花郎文化)의 재조명(再照明)	1989
제11집	삼국유사(三國遺事)의 현장적(現場的) 연구(研究)	1990
제12집	신라사상(新羅思想)의 재조명(再照明)	1991
제13집	신라 산업 경제(新羅産業經濟)의 신연구(新研究)	1992
제14집	신라 불교(新羅佛教)의 재조명(再照明)	1993
제15집	신라(新羅)의 대외 관계사(對外關係史) 연구(研究)	1994
제16집	신라왕경연구(新羅王京研究)	1995
제17집	신라(新羅)와 낭산(狼山)	1996
제18집	불국사(佛國寺)의 종합적고찰(綜合的考察)	1997
제19집	신라(新羅)의 인재 양성(人材養成)과 선발(選拔)	1998
제20집	분황사(芬皇寺)의 재조명(再照明)	1999
제21집	석굴암(石窟庵)의 신연구(新研究)	2000
제22집	황룡사(皇龍寺)의 종합적 고찰(綜合的考察)	2001
제23집	신라(新羅) 금석문(金石文)의 현황(現況)과 과제(課題)	2002
제24집	신라(新羅) 미술세계(美術世界)의 이해(理解)	2003
제25집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을 통(通)해 본 신라(新羅)의 인물(人物)	2004

4) 전국국악대전(全國國樂大典)

1982년 이래 국악의 보급과 국악인의 발굴을 위하여 국악협회 경북지부가 주관하여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최고상에는 대통령상이 수여된다.

5) 신라문화제 종합 평가지(綜合評價誌) 및 종합 홍보지(綜合弘報誌) 발간

창간호[제13회 신라문화제(1975년 2월 1일 발행)]부터 제10호[제22회 신라문화제(1990년 발행)]까지 발행

○ 주요 내용

행사 계획서, 행사 요강, 가장행렬 해설, 분과별 행사 결과 및 평가, 신라문화제를 이렇게 본다(시민의 소리), 언론을 통해 본 신라문화제 등을 수록

6) 새벌 향연(饗宴)의 밤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기틀을 형성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신 신라문화 선사(先師)들께 감사드리고, 추모하는 제전이다. 처음에는 경주의 문화 · 예술인들이 1962년 제1회 신라문화제 때부터 월성, 남천 등지에서 충담사(忠談師), 양지(良志), 솔거(率居), 백결(百結), 김생(金生) 등 신라문화 선사를 모셨으며, 제3회 신라문화제부터는 신라문화동인회의 주관으로 여러 선사들의 신위(神位)를 받들어 나물왕릉 옆에 제단을 마련하고 제를 올리고 있다. 제의는 제1부 제전(祭典), 제2부 향연(饗宴), 제3부 음복(飮福)의 차례로 진행된다.

7) 행사일정표

〈표 6-1-11〉 제23회 신라문화제 행사 내용

행 사 명		일 정			장 소	주 관
		10.8	10.9	10.10		
화랑 · 원화 선발대회		10.7(목) 19:00			서라벌문화회관	경주문화원 KBS대구방송총국
개막제	식전 공개 행사 (태권도 시범, 가배놀이)	15:40			시민운동장	예총경주지부 경주시태권도협회
	개식 · 고유제	17:00			〃	경주시, 신라문화동인회
	식후공연 (신라 시조 탄신 퍼포먼스)	18:10			〃	포항MBC
	축하공연 (인기가수, 불꽃놀이)	19:00			〃	포항MBC

행 사 명		일 정			장 소	주 관
		10.8	10.9	10.10		
길 놀 이		16:30	15:00	15:00	황성공원,시내일원	예총경주지부
민속경연	줄다리기		17:00		실내체육관 앞	경주문화원
	그네타기	10:00	10:00	10:00	황성공원 그네장	그네협회
	궁 도	11:00	10:00	10:00	황성공원 호림정	궁도협회
	화랑씨름	10:00	10:00	10:00	황성공원 씨름장	씨름협회
	신라검법	10:00			실내체육관	검도협회
문예창작	제22회 전국국악대제전	10:00	10:00	10:00	서라벌문화회관	국악협회 경북도지회
	제25회 신라미술대전	전시 : 10. 2 ~ 10.19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	미협경주지부
	한글백일장		10:00		반월성	문협경주지부
	한시백일장		10:00		경주향교	한시협회경주지부
	전국사진공모전	10. 8 ~ 10. 10 (3일간)			시내일원(행사장)	사협경주지부
	그림그리기		10:00		계 림	미협경주지부
민속문화한마당	문화체험	10. 8~10. 10 (3일 간)			황 성 공 원	예총경주지부
	전 시	〃			〃	〃
	민속놀이	〃			〃	〃
	상가축제	10. 9~10. 10 (2일 간)			중 앙 로	경주시, 상가발전협의회
학술·제전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10월 중			시내 적의 장소	경주문화원
	문화재 해설의 밤		19:00		경주문화원 동경관	신라문화동인회
	새벌향연			19:00	첨성대 서편	〃
불교행사	신라불교영산대재		10:00		불국사 경내	불국사
	원효예술제			17:00	분 황 사	원효학연구원
공연	국악관현악 대합주		20:00		안압지 특설 무대	동국국악예술단
	전통국악 공연	14:30	14:30	14:30	보문단지 야외 상설 공연장	신라국악예술단
	천년의 소리 만파식적			18:30	실내체육관 앞 특설 무대	(사)신라만파식적보존회
	시민노래자랑			20:30	〃	경주시
	마당극「방자전」	20:30	19:00		〃	극단 에밀레

4. 경주세계문화엑스포(慶州世界文化EXPO)

1)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⑴ 개요

이 행사는 1996년 이의근(李義根) 경북도지사의 발의에 의해 문화의 우위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절대 요건이라는 21세기 문화적 비전, 퇴락해 가는 민족 정신 문화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이 1차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문화의 산실인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승화시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혜안을 가지고 기획 의도된 문화 축전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21세기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인류 문화 부흥의 중심 역할로 국가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천년고도 경주의 찬란한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적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행사 시설물과 도시 기반 시설의 공익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장르별로 2년마다 실시하며 행사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기반을 조성한 행사이다.

(2) 명칭의 의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라는 명칭에서 먼저 '경주' 란 행사 개최 지역 또는 본 엑스포의 포괄적인 주제인 문화의 대상 지역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세계' 를 '경주' 와 대등한 관계로 본다면 역시 경주와 비교되는 세계, 세계와 비교되는 경주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 의 대상 지역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지닌 명칭이다.

즉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라는 명칭은 경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한국 문화와 세계 문화를 대조 · 비교하여 보는 의미와 상호 융합과 화해를 통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 문화 유산의 고장 경주를 세계 속에 심는다는 뜻도 함께 담았다고 할 수 있다.

(3) 주제와 부제의 선정

주제목으로 선정된 '새천년의 미소 '와 부제목 '전승, 융화, 창조' 는 인류의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고 갈등과 긴장의 21세기를 극복하면서 물리적 개발로 훼손된 인류 문화를 계승 · 보전하여 21세기 세계 문화의 대융화를 지향하고 화합과 재창조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① 심벌 - '수막새와 태극문양'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휘장은 태극무늬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얼굴 모양 수막새를 기본 모티브로 하였다. 태극문양은 한국을 상징하고 수막새의 부드

럽고 너그러운 눈길, 상냥한 미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얼굴 표정은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적색과 청색의 태극은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융합을 뜻하며 수막새의 황금색은 21세기 문화의 큰 중심지의 하나로 우뚝 서겠다는 경주의 의지를 나타낸다.

② 마스코트 – 화랑

경주인을 비롯하여 한민족 고유의 전통과 이념의 바탕이 되었던 화랑정신을 알리고자 소년의 이미지로 화랑을 표현하였다. 밝게 웃는 정감어린 소년의 모습과 하얀색의 의상은 따뜻하고 순수한 한국인의 마음과 문화적 자긍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머리에 새의 깃털을 꽂고 활을 맨 모습은 세계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다.

③ 공식 포스터와 표어

경상북도 도민을 상대로 3개월 간 현상공모하여 당선된 포스터는 경주의 손관목 작품 '창조의 미소' 와 지용선(구미)의 '새천년의 미소'가 우수작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표어 부문은 김정일의 "어우르자 세계 문화 꽃피우자 한국 문화"가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새천년의 문화 향기 경주에서 온 세계로"(김은아) 등이 우수작으로 뽑혀 모두 4개국 언어로 제작되어 국내 · 외 홍보용으로 사용되었다.

④ 주제가 – "가자 경주로"

행사 주제가의 제작 의도는 주제의 의미를 노래에 담아서 일반인들에게 제작 · 배포하여 국민적 관심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주제인 "새천년의 미소"와 부제인 "전승, 융화, 창조"를 부각시켜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구성하되 대중적인 감각과 시대성을 반영하며 한국적 정서가 가미되도록 주도하였다.

· 주제가명 : 가자 경주로(원제 : 타오르는 불꽃)
· 작곡 및 뮤직 디렉터 : 김수철 / 작사 : 이동순(시인 영남대 국문학과 교수)
· 노래 : 유열과 김원 / 번역(영문) : Christine 외
· 음반제작사 : 서울음반(제작수량 5,000매)

⑤ 홍보영화 – "세계 문화, 시간 여행"

「세계문화시간여행」이라는 제목의 홍보 영화는 상영 시간 11분으로 배우 유인촌이 출연하여 "경주가 새로운 문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지"임을 소개하였다. 유

인촌은 신라의 미소라고 불리는 수막새를 들고 "이 수막새는 천년 동안 변함없이 잔잔하게 미소짓고 있다. 이 미소에는 지난 천년 동안 묵묵히 존재해 온 경주 문화의 혼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술에서부터 종교, 도덕, 학문, 전통에 이르기까지 문화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인류의 소중한 희망이다. 인류 문화의 재창조의 계기를 마련하는 이번 문화엑스포의 주제인 '새천년의 미소'는 인류가 새로운 일천 년을 화합하고 발전해 나갈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입체적 구성과 편집으로 주목을 높여 국내용 테이프 700개와 영어 및 일어판 등 해외용 테이프 300개를 제작하여 각 교육기관, 역, 터미널, 공항 등에서 홍보용으로 상영하였다.

⑥ 문화엑스포 특산품 문양 확정

경주시는 "문화엑스포 경주 특산품 개발 자문위원회"를 열어 경주대학교 박재관 교수가 도안한 '금관' 문양을 문화엑스포 특산품 문양으로 선정하였다. 이 문양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주시 추천 상품 스티커와 쇼핑백 도안으로 활용되었다.

문화재는 세계적인 문화 산업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이다. 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고 정치력과 권력을 집중시켜도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산업엑스포는 몰라도 문화엑스포는 열고 싶어도 함부로 열 수가 없다. 경주처럼 오랜 전통과 문화 유산을 가진 고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2)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1) 행사 개요

① 명칭 :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Gyeong-ju World Culture EXPO2000)

② 주제 : 새천년의 숨결

숨결은 시공에 관계없이 탄생, 생명, 생존을 의미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의 '탄생'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이며 '생명'은 옛 문화의 부활이며 '생존'은 지금의 문화를 온전히 보존하여 미래로 이어지게 하는 맥 잇기를 뜻한다.

③ 부제 : 만남과 아우름

'아우르다' 란 말은 여럿이 함께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삶은 '만남' 을 통해서 이뤄지고 '아우름' 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이같은 삶의 과정과 실제가 '문화' 이다. '만남' 은 두 요소의 충돌이 될 수도 있지만 '아우름' 은 두 요소의 속성을 용해하여 새로운 제3 요소의 출현을 시사하기도 한다.

④ 심벌 · 로고 : 태극과 인물 모양 수막새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의 휘장은 태극무늬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얼굴 모양 수막새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을 상징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눈길, 상냥한 미소, 모두를 포용하는 천년고도 경주를 표출한다.

⑤ 마스코트 : 화랑과 원화

화랑과 원화가 짝을 이루는 모습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화랑의 진취적인 기상과 문화적 자긍심에 아름답고 부드러운 미소의 원화로 아름다움이 문화의 핵심이며 부드러움이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⑥ 주최 :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⑦ 주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조직위원회

⑧ 기간 : 2000년 9월 1일~11월 26일 (87일 간)

(2) 정리

행사가 열린 87일 동안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은 내국인 160만여 명과 외국인 134,000여 명 모두 173만 여명이나 되었고 행사장 광역화로 경주시가지 행사의 관람객도 15만 명을 넘었다. 외국인 관람 목표는 10만 명보다 34%를 상회하는 숫자였다. 국내에서 열린 문화행사로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찾은 행사였다. 전 세계 81개국이 직 · 간접으로 참가했고 이 가운데 문화 예술인이 직접 참가한 나라는 62개국이고 인원은 9,414명이 되었다. 행사장에서 일한 사람은 하루 평균 2,000여 명이고 연인원은 14만여 명이었다.

문화 정보화의 시대인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난 천년의 위대한 문화 유산을 품안에 보듬어 안고 있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새천년의 숨결'을 주제로 삼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이 장장 87일 동안 펼쳐져 21세기의 역사 앞에 '만남과 아우름'을 화두로 던지면서 새로운 천년의 비전과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세계 최초의 문화 박람회', '세계 유일의 문화 박람회' 지방자치단체행사를 뛰어넘는 문명사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행사라는 평가 속에 출발한 98행사에 이어 2000행사는 신라 천년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은 행사로서 경주가 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21세기 문화 실크로드의 새로운 출발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행사이기도 하였다.

3)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1) 행사 개요

① 명칭 :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② 주제 : 천마의 꿈/Dream Of The Flying Horse

인류의 꿈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 화해와 공존의 문화적 지평을 모색하고 다가오는 꿈과 세기를 위한 문화적 비전을 신화적인 상상력에서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경주 천마총을 모티브로 신화를 찾아가는 「천마의 꿈」은 현대인들의 공허한 정신세계를 채워갈 해답이다.

천마는 비상하는 역사와 미래에 대한 상징이며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이자 역동적인 코드로서 경주의 지역성과 신라의 시대 정신이다. 그러므로 「천마의 꿈」이란 본 행사가 한국과 세계, 인류의 이상과 현실, 산업 사회와 디지털 사회를 잇는 교량 역할이 되도록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③ 부제 : 함께 그러나 다르게/Harmony In Diversity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지난 세기의 위기 현상들을 자기 문화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문명의 충돌이라 보고 그 극복의 대안을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평등에서 찾고자 하였고, 이것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세상을 지향하고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④ 기본 방향

상상력을 담은 신화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와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시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 꿈의 엑스포(Dream EXPO) : 문화컨텐츠 개발을 통한 새로운 꿈 만들기
· 첨단 엑스포(Digital EXPO) :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21세기 신문화 창조
· 기쁨의 엑스포(Delight EXPO) : 인프라 축적으로 관객에게 즐거움 주기

⑤ 주최 :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⑥ 주관 :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⑦ 기간 : 2003년 8월 13일~10월 23일(72일 간)
※대구 U 대회(8. 21~31)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본 행사는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세계 문화 교류의 장에서 한국의 대표 브랜드로 명실상부한 인류 문화 축전임을 재확인하고 세 차례 연속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포함한 17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음으로써 주도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몫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얻은 성과로는

첫째, 특화 프로그램으로 최고 최대의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명실상부한 인류 문화 축전 세계 문화 브랜드로 도약하였다.


엑스포 축제 현장

둘째, 지역의 예술 창작 의욕과 문화 역량을 드높여 우리 문화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국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선진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넷째, 문화 인프라 축적으로 문화 테마파크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산업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5.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1) 목적

한국의 술과 떡에는 정성과 풍류가 깃들어 있다. 떡과 술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온갖 꽃과 풀, 곡식과 열매를 이용하여 지방 · 집안마다 각기 다른 비법과 정성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조상께 제를 올릴 때 사용되었고 살면서 겪게 되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 등의 각종 행사 때 나누어 먹던 정감어린 음식이었다.

경주시가 만물이 약동하는 화창한 봄날 전국 축제 중 가장 먼저 펼치는 한국 전통주와 떡축제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외국 브랜드 식품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우리의 전통 맛이 점차 퇴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쌀 음식의 우수성과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오곡을 원료로 한 우리 민족 전통 음식인 술과 떡을 국 · 내외에 널리 알리고 민족문화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전통 먹거리를 관광상품화하는데 있었다.

아울러 이 축제를 전통문화 관광 축제로 정착시켜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적극 되살리고, 국내 · 외 관광객의 유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 역대 행사

⑴ 제1회

· 행사명 : '98한국 전통주와 떡축제'
· 기 간 : 1998년 3월 26일(목) ~ 29일(일, 4일 간)
· 장 소 : 보문관광단지 잔디광장

⑵ 제2회

· 행사명 : '한국 전통주와 떡축제'
· 주 제 : "세계로 열린 우리의 맛, 멋, 흥!"
· 기 간 : 1999년 3월 17일(수) ~ 23일(화, 7일 간)
· 장 소 :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문화엑스포 행사장

특기 사항으로는 인터넷 제작 운영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 언론사는 물론 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하여 1,500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관람객 유치 목표인 20여 만 명을 달성하였다. 행사장 내 참여 업체의 총 영업실적이 10억 원을 상회하고 관람객이 경주시에 미치는 직 ·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40억 원으로 추산되는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었다.

(3) 제3회

· 행사명 : '한국의 술과 떡잔치2000'
· 주 제 : "새천년을 열어가는 우리의 맛, 멋, 흥!"
· 기 간 : 2000년 3월 24일(금) ~ 4월 2일(일, 10일 간)
· 장 소 :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신라촌광장

행사를 통해 우리 음식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재확인하고 술과 떡이 세계적으로 상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40만이 넘는 방문객 속에 외지인이 33만을 넘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자매도시 중국의 서안(西安)시와 일본의 나라(奈良)시, 우사시, 간자키정의 특색 있는 술과 떡에 관심도가 높아 친선 우호에 도움이 되었으며 특색 있는 공연 행사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인기를 끌었다. 체험 행사의 확대로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전통주의 행사에는 전국 각 지방에서 다양한 전통주가 선보여 전국 단위 축제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4) 제4회

· 행사명 : '한국의 술과 떡잔치 2001'
· 주 제 : "세계 속의 우리의 맛, 멋 그리고 흥!"
· 기 간 : 2001년 3월 30일(금) ~ 4월 4일(수, 6일 간)
· 장 소 :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제4회 행사의 특징은 떡방앗간을 현장에 직접 설치한 점이다. 떡방앗간을 설치함으로써 부드럽고 따뜻한 양질의 떡이 제공되었고, 떡 케이스를 고급화하여 떡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엑스포공원의 우수한 시설인 공연 장소를 이용하여

관람객 편의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이 돋보였고 외국인에 대한 통역 도우미가 확대 운영되었다. 제4회는 신규 및 특색있는 행사로 외국인 이해도 제고 및 관람객 볼거리 확대 · 제공에 기여한 행사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매년 행사 일정을 새롭게 결정하는 관계로 사전 홍보의 어려움 및 일정 결정이 빨리 안될 경우 행사 준비 기간 부족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5) 제5회

· 행사명 :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2002'
· 주 제 : "세계 속의 우리의 맛, 멋 그리고 흥!"
· 기 간 : 2002년 3월 30일(토) ~ 4월 5일(금, 7일 간)
· 장 소 :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보문관광단지 주변의 벚꽃 만개와 더불어 7일 간 개최된 축제에 외국인 7,500여 명을 포함하여 64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국 각 지방 술과 떡 참가, 국내외 새로운 볼거리, 참여 체험 행사 개발, 짜임새 있는 행사 계획 등 행사 전반에 걸친 모범적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유명 축제로서 완전 정착된 행사로 평가되었다.

특히 국내외 많은 방송언론사의 취재 경쟁과 전국 주요 축제, 자치단체에서 대거 시찰 · 견학함으로써 타 지역 문화 관광 축제에 발전적 행사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고, 종래의 정적인 관광 패턴에서 체험과 참여로 동적인 관광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점에서 성공적인 축제로 높이 평가되었다.

동국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가 분석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425억 원으로 추정(경주 지역 내 소비 지출액)되었으며, 소득 파급 효과는 243억 원, 총생산 파급 효과는 무려 1,000억원에 달하였고 고용 파급효과도 2,300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더욱이 경주의 사적지 문화 자원과 축제 행사가 연계되어 타 지역 단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외래 관광객의 85% 이상 참여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행사였으며 수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단체, 시민, 국내외 취재진과 지역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행사로 기록되었다.

(6) 제6회

· 행사명 :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2003'
· 주 제 : "세계속의 우리의 맛, 멋 그리고 흥!"
· 기 간 : 2003년 3월 29일(토) ~ 4월 3일(목, 6일 간)
· 장 소 :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보문상가 광장

행사장 내 호텔음식 부스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호텔음식 서비스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곧 타 지역 축제 행사장과의 차별화가 뚜렷해진 제6회 행사의 특징이기도 했다. 보문관광단지 개장 후 사상 최대 인파의 행사장 방문으로 인하여 행사장 주변의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내 상가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 방문객을 시내로 유치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6. 경주시민문화축제(慶州市民文化祝祭)

긴 세월 동안 전래된 우리 고장의 풍습과 민속놀이에서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배우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여 새문화 창조의 기운을 마련하고 신명나는 놀이를 통해 활기차고 기쁜 삶을 살고자 하는 염원이 모여 마련된 축제들이다. 특히 값진 삶을 살아 후대에 길이 교훈이 되는 분들의 올바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잘못 되어가는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를 바르게 세우려는 귀중한 뜻도 이들 축제 속에 녹아 있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개최하는 중요한 축제는 다음과 같다.

1) 월명재(月明齋)

통일신라시대의 승려인 월명사(月明師)를 기리는 축제는 음력 9월 보름을 전후하여 보름달이 뜨는 야외 들판에서 열린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월명은 승려이면서 풍월도에 소속된 화랑이었고 호국불교의 중심 도량인 사천왕사에 머물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중심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다.

신라 경덕왕 19년(760)에 하늘의 해가 둘 나타나는 괴변이 있었는데, 월명이 도

솔가를 지어 불러서 괴변을 물리쳤다. 이에 왕이 차와 염주를 내리자 부처님의 시자가 받아 미륵상 앞에 놓고 사라진 기적을 보였다. 이렇듯 월명은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그 시대 국가적 인물로 존경받은 승려였다.

1993년 음력 9월 보름날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하여 사천왕사지에 모여 시작된 월명스님의 추모재는 고위산 천룡사와 분황사, 황룡사지로 옮겨 다니면서 그 뜻과 높은 예술의 혼을 기렸다. 2003년 10월에는 월명사가 문화관광부의 '이달의 문화 인물'로 지정되어 월명학술대회와 월명음악회, 월명유적답사 등이 열렸다.

월명재의 첫째 마당은 불교의식의 추모재를 올리고, 둘째 마당은 대금, 소금, 단소 등 월명사의 피리소리를 재현하는 공연을 한다. 2004년부터 월명문학상을 공모하여 당선작은 이 자리에서 헌시로 낭독하고 시상한다.

2) 충담재(忠談齋)

1989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남산정상에서 부처님마을과 사단법인 대원사, 법보신문사 공동주최로 400여 명이 참가하여 경주남산을 보호하고 가꾸자고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듬해 봄에 행사를 치뤘는데 참여도가 높아졌고, 참가 단체도 20여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7회 때부터 남산과 관계되며 행사의 구심점이 될 인물로, 진솔한 삶의 자취를 남긴 충담사(忠談師)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사 이름도 '충담재'로 바꾸었다.

충담사는 신라 35대 경덕왕 때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공양하고 돌아오다 경덕왕의 초청을 받고 「안민가(安民歌)」를 지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한다. 따라서 그는 학식과 도량이 높은 스님으로 전해진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남산 삼화령에 올라가서 다례의식을 하고, 낮에는 안압지에서 추모재를 개최한다. 부대 행사로 전국에서 참가한 도예 공방과 차 생산지에서 직접 생산한 좋은 녹차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차문화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최 시기를 음력 3월 3일(삼짓날)을 전후한 일요일로 정하고 행사장도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계림, 반월성, 안압지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3) 정월대보름잔치

정월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그 해를 설계하고 일년의 운세를 점쳐 보

는 달이다. 율력서에 의하면 정월은 천지인(天地人) 삼자가 합일하고 사람을 받들어 일을 이루며 모든 부족이 하늘의 뜻에 따라 화합하는 달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월은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여 점쳐 보는 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보름의 풍속은 농경을 기본으로 하였던 고대 사회로부터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겠다.

즐겨먹는 음식으로는 오곡밥과 부름(밤, 잣, 호두, 콩, 강정)과 귀밝이 술이 있다. 그리고 풍습으로는 더위팔기, 달맞이, 지신밟기, 개에게 밥을 안 주는 개보름쇠기와 서출지 설화에 따라 까마귀를 제사 지내는 오기일(烏忌日) 고사가 있으며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의미와 뜻을 새기고 새해 소원 성취를 위하여 여러 동네마다 음력 정월대보름을 기해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 중에서 서천둔치에서 열리는 경주문화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잔치가 성대하고, 양동 민속마을, 동천동, 탑정동, 산내면 등에서도 열리고 있다.

서천둔치에서 열리는 달집태우기 행사는 달뜨기를 기다리면서 서각, 남근 등 목판조각 전시가 있다. 놀이마당은 논과 밭둑에 불을 놓아 쥐나 병충해를 제거했다는 쥐불놀이, 연날리다 띄워 보냄으로써 액을 멀리 보낸다는 연날리기, 윷놀이, 엿치기, 줄넘기, 투호놀이, 가훈 써 주기, 올해의 운세 보기 등 다양하지만 잔치의 꽃은 서원제와 달집태우기가 손꼽힌다.

생나무로 쌓은 약 20m의 둥그런 달집에 오방색 천을 둘러치고 봉오리에는 솟대를 올린 달집을 세운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 대나무 깃대에 오색 종이를 달고 간절한 소망을 적은 소망기를 달집에 꽂고 국태민안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서원제를 지낸 다음 달집에 불을 붙인다.

4) 천관제(天官祭)

칠월칠석은 만남의 명절이다. 만남은 미운 이나 고운 이나 오해와 갈등을 풀고 화해와 사랑으로 그리움을 해소하는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천관제는 견우와 직녀의 애뜻한 칠석사랑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있으며, 역사 속의 못다한 사랑 이야기로 주제를 삼고 있다.

2회까지는 동짓달 천관사지에서 진행하였다. 3회부터는 행사날을 칠월칠석날로 당겼고 장소도 김유신장군의 옛집터인 재매정(財買井)으로 옮겨서 열고 있다.

5) 기타 행사

각 읍 · 면 · 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양동줄다리기, 양북 산나물과 마라톤 축제(양북면), 경주버섯축제(건천읍), 안강단감축제(안강읍), 화산불고기축제(천북면), 감포항회축제(감포읍) 등이 철에 맞추어 열리고 있다.

7. 역대 경주시 문화상 수상자 명단

〈표 6-1-12〉

회수	부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시상일자
1회	문화	이상구(李相龜)	1920. 2. 16	남	89. 12. 1
	예술	최현태(崔賢泰)	1925. 3. 20	남	〃
	학술	윤경렬(尹京烈)	1916. 1. 14	남	〃
	사회	조경규(趙慶奎)	1902. 11. 26 (사망)	남	〃
2회	문화	최남주(崔南柱)	1905. 4. 1 (사망)	남	90. 12. 18
	예술	김만술(金萬述)	1911. 1. 23	남	〃
	문학	정민호(鄭旼浩)	1939. 8. 6	남	〃
	학술	권오찬(權五燦)	1925. 7. 27	남	〃
	사회	김용성(金龍成)	1918. 3. 20	남	〃
	체육	장경춘(張慶春)	1925. 4. 13	남	〃
3회	문화	황재현(黃在炫)	1935. 8. 11	남	91. 12. 13
	예술	박재호(朴在浩)	1927. 4. 27	남	〃
	문학	이근식(李根植)	1928. 10. 2	남	〃
	사회	이종룡(李鍾龍)	1924. 4. 5	남	〃
	체육	최상진(崔相辰)	1930. 11. 5	남	〃
4회	문화	김태중(金泰中)	1931. 6. 25	남	92. 12. 11
	예술	장순애(張順愛)	1925. 4. 25	여	〃
	문학	서영수(徐英洙)	1939. 9. 16	남	〃
	학술	장충식(張忠植)	1941. 7. 15	남	〃
	사회	김재식(金載植)	1941. 1. 11	남	〃
5회	문화	황능곤(黃能坤)	1930. 2. 22	남	93. 12. 20
	예술	이수일(李秀一)	1935. 4. 6	남	〃
	문학	허동인(許東仁)	1941. 3. 29	남	〃
	사회	백수근(白水根)	1946. 7. 11	남	〃
	체육	장전호	1916. 3. 12	남	〃

회수	부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시상일자
6회	예술	한영구(韓永久)	1941. 5. 5	남	94. 12. 20
	문학	김종섭(金鍾燮)	1946. 11. 5	남	〃
	학술	최효식	1944. 6. 12	남	〃
7회	문화	박대근(朴大根)	1935. 5. 16	남	95. 12. 26
	학술	이종학(李種學)	1929. 11. 5	남	〃
	예술	이강우(李康雨)	1905. 5. 20	남	〃
	문학	김두조(金斗祚)	1930. 5. 18	남	〃
	사회	이기락(李起樂)	1946. 2. 9	남	〃
	체육	이금복(李今福)	1931. 12. 30	남	〃
8회	문화	석우일	1939. 8. 15	남	96. 12. 30
	예술	김인식(金仁植)	1936. 2. 5	남	〃
	문학	이희목(李熙穆)	1938. 5. 12	남	〃
	사회	우병익	1933. 11. 5	남	〃
	체육	최인환(崔寅煥)	1934. 1. 4	남	〃
9회	문화	이상렬(李相烈)	1924. 7. 25	남	97. 12. 16
	예술	이근덕	1925. 8. 26	남	〃
	문학	손경호(孫敬鎬)	1941. 9. 22	남	〃
	사회	신영식	1944. 8. 6	남	〃
	체육	김장원	1935. 10. 7	남	〃
10회	문화	임운식	1926. 2. 16	남	98. 12. 24
	예술	이애자(李愛子)	1950. 12. 7	여	〃
	문학	조동화(曺東和)	1949. 8. 20	남	〃
	사회	하장순	1937. 6. 2	여	〃
	체육	이용근	1934. 12. 16	남	〃
11회	문화	김민태	1918. 10. 10	남	99. 12. 23
	예술	최복은(崔福殷)	1938. 9. 13	남	〃
	문학	김기문(金基汶)	1946. 9. 20	남	〃
	학술	곽근	1950. 6. 1	남	〃
	사회	윤위분	1924. 10. 12	여	〃
	체육	정덕희	1939. 7. 18	남	〃
12회	문화	김세환	1919. 4. 1	남	2000. 12. 21
	예술	김의진	1941. 11. 15	남	〃
	문학	장윤익(張允翼)	1939. 9. 20	남	〃
	사회	최용환(崔龍煥)	1931. 10. 16	남	〃
	체육	정만택	1942. 2. 6	남	〃
13회	문화	최병준	1927. 6. 5	남	2001. 12. 27
	예술	이동호	1943. 8. 11	남	〃
	문학	석병호(昔柄浩)	1934. 1. 20	남	〃



회수	부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시상일자
13회	학술	김선학(金善鶴)	1947. 1. 13	남	〃
	사회	손봉순	1936. 4. 10	여	〃
	체육	김성하	1941. 11. 1	남	〃
14회	문화	이향희	1953. 3. 23	여	2002. 12. 31
	예술	최영건	1943. 3. 1	남	〃
	문학	권윤식(權潤植)	1935. 4. 27	남	〃
	사회	손원조(孫源祖)	1943. 1. 13	남	〃
	체육	이달(李達)	1944. 8. 11	남	〃
15회	문화	김원주(金源周)	1930. 8. 28	남	2003. 12. 31
	예술	조희수(曺喜洙)	1922. 8. 16	남	〃
	문학	윤기일(尹淇一)	1947. 10. 22	남	〃
	사회	박준현(朴埈賢)	1944. 3. 19	남	〃
	체육	이응렬(李應烈)	1942. 12. 19	남	〃
16회	문화	권순국(權純國)	1933. 10. 27	남	2004. 12. 31
	예술	박기자(朴基子)	1941. 1. 25	여	〃
	문학	박숙희(朴淑姬)	1953. 5. 20	여	〃
	사회	이영순(李瑛淳)	1951. 8. 7	남	〃
	체육	이정식(李廷植)	1944. 3. 28	남	〃

제2장 예술(藝術)

제1절 문학(文學)

1. 구비문학(口碑文學)

1) 경주 구비문학의 시원(始原)

⑴ 수렵시대 문학의 자취

선사시대 문학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그 모습을 추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생활 방식을 말해주는 유물이나 조형예술의 혼을 이용하고, 후대까지 이어진 문학 형태에서 얻을 수 있는 방증까지 보태면, 사라지고 없는 문학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추정하는 길이 열린다.

경주에는 선사시대 문화의 자취가 제법 남아 있다. 이 시기의 문화를 추정하게 하는 암각화 등의 조형예술이나 동작예술은 문학사 서술의 상한선을 많이 끌어올리게 한다. 문학의 발생을 예술의 기원에서 찾으면서 문학사 서술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서천과 북천이 만나는 예기청소 북서편의 작은 구릉지인 금장대의 남단에 병풍처럼 서 있는 수직의 암벽에서 1994년 3월에 발견된 암각화는 경주 문학의 시원의 단서가 된다.

암각화란 제작 당시의 부족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신에게 기원하고 주술을 걸기 위해 제단으로 사용하던 공간인 성역(聖域)에다 새긴 그림이다. 따라서 조각된 그림들은 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들의 집단적 의사를 표현한 언어이자 문자인 것이다. 금장대의 암각화는 청동기시대 집단의 제정일치 사회를 보여 주는 제장(祭場)으로 주목받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 금장대 암각화는 이어서 1995년 2월에 발견된 내남면 상신리의 암각화와 더불어 경주 지역의 암각화 제작 집단의 이동 경로 및 제사 집단의 상관성을 어느 정도 밝혀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곳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모두 31개로 대부분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종류는

90개 문양으로 다양한 편인데, 사람 얼굴 모양의 암각화는 주술사나 무사의 얼굴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에서와 같이 종족 보존을 위해 아이 갖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조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발자국, 수렵을 나가기 전에 동물들이 잘 잡히기를 기원하면서 조각한 꽃 모양의 동물 발자국 등이 보인다.

특히 꽃 모양의 조각은 울산 천전리, 안동 수곡리 유적 등에서도 확인된 문양이다. 금장대에서는 동물상 옆에 사지를 벌리고 있는 남성상과 여성의 생식기인 여근(女根)과 탈 문양, 산과 동물, 네 사람이 탄 배 모양의 문양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청동기시대의 어로 활동과 수로를 이용한 교통수단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혹자는 이를 영일만으로부터 형산강을 통해 배를 이용하여 경주 지역으로 침입해 오는 해양세력으로 보기도 한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사냥을 하면서 살았는데, 사냥거리인 짐승이 많고 잘 잡히기를 기원했다. 누구나 사냥꾼이어서 사냥이 잘 되도록 하는 주술이나 의식이 공동의 관심사였다. 금장리 암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짐승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는 것이 사냥꾼이 하는 생업의 일부였다. 형체를 만들거나 그려 놓으면 짐승을 많이 잡을 수 있게 된다고 여겨 이러한 조형예술을 남겼을 것이다.

(2) 원시 종합 예술로 나타난 구비문학의 원형

조형예술이 동작예술이나 언어예술과 얽혀 이른바 원시 종합 예술을 이루고 있었다. 조각이나 그림을 보면서, 사라지고 없는 춤이나 노래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짐승의 모습이나 움직임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사냥하는 과정을 실제와 흡사하게 재현하는 데 춤이나 노래는 아주 긴요한 구실을 했을 것이다. 사냥춤과 사냥 노래는 실제 사냥과 구별되지 않아, 일상 생활의 일부이면서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열광해서 벌이는 의식이기도 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자. 짐승 가죽을 덮어 쓰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짐승 춤을 추면 짐승이 모여든다고 믿었다.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광경을 보여 주어 짐승의 번식이 왕성해지도록 하려고 했다.

춤과 노래는 기억 전승의 방법이기도 했다. 사냥에서 겪은 시련과 승리 가운데서 자랑할 만한 것은 공동의 전승으로 남길 수 있게 두고 두고 재현했다. 자기 집단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구실을 하는 춤과 노래도 있고, 이야기가 삽입되기도 했다. 노래와 이야기 또는 민요와 설화의 오랜 형태는 이미 그 단계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짐승이기도 하고 짐승이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사회제도와도 관련을 가지면서 관습화하는 것이 이른바 토테미즘이다. 모든 자연물이 생명을 지녔다고 하는 애니미즘도 널리 퍼져 있었다. 토테미즘 · 애니미즘과 같은 원시 종교의 사고 형태는 후대까지 전승되어 상상력이나 수사법의 원천으로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구석기시대에 신화나 서사시가 생겨났던가는 의문이다. 이야기나 노래를 길게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고, 사고 형태가 복잡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석기시대에 이미 있던 사고 형태를 다음 시기 사람들이 이어받아 더욱 구체화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2) 문헌에 나타난 경주의 설화 문학(說話文學)

⑴ 신화(神話)의 범주(範疇)

신화는 전승 집단의 범주 내에서 절대적으로 신성하고 진실되다고 믿는 이야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성하다고 믿는 이야기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문중의 시조 이야기는 문중 내에서는 신화이지만 타 문중에서는 전설일 뿐이다. 신성 및 그 신성에 대한 믿음은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집단의 사회적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문명 종교의 준거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다. 더욱이 민간의 구비신화들은 그 신성에 대한 합의가 늘 충족된 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화의 범주를 설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과거에는 신화였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기도 하고, 전설의 주인공들이 지역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신화로 거듭나기도 한다.

경주의 신화는 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 실린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한 문헌신화이다. 대신 순수하게 민간 전승의 구비신화나 여타의 민간신화들의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것은 신화 연구가 지녔던 역사학적 편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화 연구자들이 신화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한 탓도 없지 않다.

그러한 포괄적 시각으로 신화가 전승되는 사정을 살피면 경주 신화의 자산은 곧 한국 신화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편이다.

크게는 우선 문헌에 정착한 일군의 신화들이 있다. 『삼국사기』, 『제왕운기』, 『동국이상국집』,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규원사화』, 『환단고기』 등의 사료를 비롯하여, 여러 성씨의 족보 및 지방의 자료들에 실

린 신화들이 그것이다. 『삼국유사』의 신화 자료는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 내용도 풍부한 편이다. 이 문헌들에 실린 신화들은 주로 건국신화와 성씨 시조 신화가 주류를 이루며, 여산신의 신화 같은 것도 더러는 행간을 차지한다. 이 신화들은 원래 구전되어 오던 것이 일정한 역사 찬술의 동기에 의해 문헌에 정착된 것이거나, 아니면 앞 시대의 문헌에서 옮겨진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일실된 사료에서 옮겨진 것도 있다.

다음으로는 무속적인 제의(祭儀)의 현장에서 구송(口誦)되는 구비신화들이 있다. 1920년대 이후부터 선학들이 무가의 채록을 거듭하면서 열두거리굿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서사 무가들이 무속신의 신화로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 서사 무가들은 제의의 현장에서 구송되어 온 살아 있는 신화로서, 사회와 문화의 오랜 적층을 갈무리하고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창세와 인간 기원에 관한 신화도 무속신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오랜 연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밖에도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마을 수호신 및 신화 및 당제의 기원신화들이 아직도 풍부하게 구전되고 있고, 종교운동 또는 민중운동과 관련하여 사회 개혁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맥락에서 제세주의 신화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도 구비신화의 중요한 국면으로 신화의 범주에 포함시켜 볼 만하다.

(2) 신화의 분류

신화는 담고 있는 기원의 내용, 문화권, 기능, 전승 방식, 전승 범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이루어졌다. 분류란 연구 대상의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한 통로와 같은 것이므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분류가 가능하다. 영웅 신화, 건국신화, 문헌신화, 농경 신화, 창세신화 등은 모두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된 범주들을 일컫는 용어들이다.

① 건국신화(建國神話)

신화에는 건국신화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이 있다. 건국신화 이전의 신화는 신석기시대에 나타나는 원시문학이고, 건국신화는 청동기시대에 창조된 고대문학이다. 원시신화의 주인공은 거대한 모습을 한 여신이어서 고대 신화에서 내세우는 건국의 주역 노릇을 한 남성 영웅과 다르다. 자료가 분명하지 않아서 원시신화를 힘써 찾아내야 신화의 역사가 제대로 이해된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 유형도 있다. 큰 홍수가 났을 때 죽지 않고 남

은 남매가 하늘의 뜻을 받아서 혼인을 해 그 후손이 이 세상에 퍼졌다고 한다. 힘이 장사인 오누이가 성을 쌓는 등의 과제를 두고 힘내기를 하다가 패배자는 죽어 불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거인의 시대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편적인 증거가 그런 형태로 남아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전설 노릇을 한다.

경주에서 숭앙을 받는 선도산의 여신은 모계사회의 신앙 대상인 지모신(地母神)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도산(仙桃山) 성모(聖母)가 신라 건국시조 혁거세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행적이다. 웅녀와 유화가 단군이나 주몽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상통한다. 어머니 대신 아들이 등장한 것은 모계사회가 가고 남성 지배자가 권력을 장악한 것을 의미한다. 지리산 성모를 고려 태조의 어머니라고 한 데가 있어 같은 발상이 후대까지 이어졌다.

고대문학이 시작된 명백한 증거는 건국신화가 나타난 것이다. 위대한 영웅인 건국의 시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창업의 과정을 서술하고 칭송하는 신화는 고대에 이르러서 생겨났다. 큰 집단이 생겨난 시기는 고고학의 시대구분을 따르면 청동기시대이다. 청동제 무기를 든 정복자들이 자기 집단 안에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가지는 사회 구조를 이룩하고 밖으로 다른 집단을 쳐서 복속시키는 단계에 이르러, 나라라 할 수 있는 것이 출현하고 각기 자기 나라를 높이는 건국신화를 만들어 냈다.

건국신화는 거인신화, 지모신신화, 창세신화 등의 원시신화와 많이 달랐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남성이 하늘에서 부여한 권능을 실현해 나라를 세운 위업을 칭송하는 기본 설정에서 계급이 분화되고 역사가 시작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경쟁자와 투쟁하기도 하고 거주지를 이전하기도 한 내력을 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네 집단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랑하는 우월감이 고대 자기 중심주의라고 일컬어 마땅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투쟁과 승리의 주역인 군사적 귀족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종교, 예술, 문학을 모두 주관했다고 생각된다.

국중 대회에 관한 기록도 시대 변화를 말해준다. 많은 인원이 모여들어 함께 어울리는 굿놀이는 어느 때든지 있던 일이다. 마한 사람들이 오월과 시월에 손발을 맞추면서 노래부르고 춤추었다는 것은 파종과 수확에 으레 따르는 굿놀이라고 할 수 있어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부여에서 정월에 거행한 영고(迎鼓), 고구려와 예(濊)의 시월 행사인 동맹(東盟)과 무천(舞天)은 그런 것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고유한 이름이 있고, 국중대회라고 명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놀이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주최자가 마을 공동체에서 국가로 바

꿔어 국중대회가 생겨났다. 행사를 특별하게 계획하니 고유한 이름이 필요했다. 많은 사람이 무리를 지어 노래부르고 춤추고 술마시면서 논다고 한 말은 생산 증대보다 주민 단합에 더욱 힘쓴 증거라고 생각된다. 농사일은 하지 않고 통치자 노릇만 하는 세력이 나타나 횡포를 자행하는 탓에 심각해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굿의 새로운 기능이었다.

부여의 옛 풍속에 농사가 잘되지 못하면 임금을 죽이거나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기록에서는 영고를 거행할 때면 형벌과 감옥에 관한 업무를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고 했다. 이 둘은 상이한 시대의 사정을 말해준다. 처음에는 임금이 무당의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다가, 제사장과 통치자가 분리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통치자는 형벌로 나라를 다스려 불만이 누적되었으므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날이 필요해 국중대회를 거행했다고 생각된다.

국중대회를 할 때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것은 천신을 섬기는 굿을 했다는 뜻이다. 생산의 신보다 우위에 다른 신이 없던 시기를 지나, 최고의 신으로 설정한 천신을 받들게 된 것이 건국신화에 잘 나타나 있는 새 시대의 사고 형태이다. 보편적인 신앙의 대상인 천신이 자기네와 어떤 특별한 관련을 가지는가를, 신화에서 말로 설명하고 국중대회의 굿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천신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 건국시조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본 설정이다. 지금까지 널리 받들던 지모신이 천신의 아내이고 건국시조의 어머니라고 해서, 재래의 신화를 새로운 창조의 발판으로 삼았다.

거인신화나 지모신신화는 처음 출현한 신앙 서사시에 상응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접된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창세신화는 별도의 구전이 없고 창세 서사시에서 간직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에 등장한 영웅 서사시에서, 적대자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해 국가를 창건한 남성 영웅은 원시인이 아닌 고대인이다. 신앙 서사시는 원시 서사시이고, 창세 서사시는 원시에서 고대로의 이행기 서사시라면, 영웅 서사시는 고대 서사시이다.

영웅 서사시를 창조한 고대의 귀족은, 토지나 신분을 세습하기 때문에 무능해도 그만인 중세의 지배층과 달랐다. 나서서 싸우면서 용맹을 발휘해야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솜씨가 놀랍고 물러설 줄 모르며 패배를 가장 부끄럽게 여겼다. 문무를 갈라서 말하면 무를 숭상하고 문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기풍을 중세인은 야만스럽다고 했으나, 중세의 나약함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근대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단계에 이르자 민족의 기상을 드높인 영웅적인 쾌거로 인식되었다.

고대의 이념은 중세의 보편주의와는 많이 다른 자기중심주의였다. 후대의 개념을 들어 말한다면 자기중심주의를 주체성이라 할 수 있으나, 피지배층에 대한 멸시가 대외적인 적대감과 표리를 이루고 있는 그 내부 구조를 알면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중세 보편주의를 배격하고 근대 민족주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고대 자기중심주의를 주체성의 원천으로 이해해 크게 찬양한 것은 전환의 논리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역사의 실상에 대한 재인식은 아니다.

고대의 민족문화라고 부를 만한 공동의 영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정복 집단이든 각기 자기 나름대로 건국 서사시를 내세우고 서로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가졌다. 천신족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어디든지 있었지만, 천신이 누구든지 함께 받들 수 있는 보편적인 신은 아니었다. 어느 쪽에서 말하는 천신이 더 위대한가 하는 시비는 이치를 들어 가릴 수 없고 전쟁을 해서 결판내야 했다.

국가적인 범위에서 신성시되는 국가 창건의 시조 및 관련 신격에 관한 신화들로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국 시조에 관한 전승이 남아 전한다. 이들은 모두 고 문헌에 정착되면서 전승이 고착된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오래고 가장 중요한 한국 신화 자료로 다루어져 왔다. 국가 신화 또는 민족신화로도 통칭할 수 있겠으나, 건국주에 관한 자료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보통 건국신화 또는 건국시조 신화(국조 신화)로 불린다.

② 성씨(姓氏) 시조 신화

씨족의 범위에서 신성시되는 성씨 시조에 관한 신화이다. 건국시조와 씨족 시조를 겸하고 있는 박혁거세를 비롯하여 김씨(김알지), 석씨(석탈해), 허씨(허황옥) 등의 왕가 씨족 시조에 관한 신화들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으며, 그 외에도 가문의 족보나 비문 등의 기록으로 남아 전하는 성씨 시조 신화 일군이 있다.

구전 자료도 풍부하나 그 가운데는 가문 밖에서 이야기되면서 신성 관념이 약화되어 전설화된 성씨 시조담도 많다.

③ 마을신화

마을의 범위에서 신성시되는 신화로서 우선은 마을의 당신(堂神) 또는 개촌(開村) 시조에 관한 신화를 들 수 있다. 마을에 따라서는 당신과 개촌 시조가 겹치기도 한다. 당신화는 당신의 좌정 유래담과 영험담으로 구성되며, 전자가 망각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후자인 영험담은 당제의 지속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원혼 당신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지만, 그 정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당신화는

주로 구전되는 것인데, 근래 와서는 마을 유지에 의해 더러 기록되기도 했다.

④ 종교 신화

특정 종교의 범주에서 신성시되는 신화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속신앙의 범위에서 구전되고 믿어지는 무속신에 관한 신화들로서 창제신의 신화, 생산(출산)을 관장하는 제석신(당금애기)의 신화, 죽음을 천도하는 바리데기 신화, 가옥의 축조와 유지를 관장하는 성조신의 신화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불교 및 기독교 신화의 한국적 변이형이나, 증산교를 비롯한 신흥종교에서 신성시되는 영험담류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⑤ 기타 민간신화

무속적 제의의 절차에는 들지 않고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섬겨지는 영등신, 여산신, 업신에 관한 신화적 언술들, 또는 사회 변혁의 시기에 형성되고 회자된 제세주에 관한 신화적 언술(言述)들이 있다. 이들은 믿음의 범위나 정도가 일정치 않은 상태로나마 민간에서 일정의 힘을 가지고 전승된 것들이다.

(3) 신라의 신화

신라의 신화는 육촌장(六村長)의 신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삼국유사』의 혁거세 기사 서두에는 육촌의 촌장들이 모두 하늘로부터 하강한 존재임을 말하는 신화가 간략하게 실려 있다. 신라의 건국신화는 그 육촌이 연맹체 국가인 신라를 이루는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이나, 혁거세의 봉납 후 하늘로 올라가는 백마에서 보듯이 박혁거세의 연원도 하늘과 닿아 있다. 이는 육촌장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나 단군이 천손인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혁거세는 천부지모(天夫地母)의 혼인를 통하지 않고, 천계를 암시하는 서기라든지 백마의 상징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알을 통해서 지상에 출현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같은 날 알영정 우물가에서 계룡을 신라의 산신인 서술성모의 현현이라고 하여 지신계임을 암시하고 있다. "왕의 순행을 종행하여 백성에게 농상을 권려함으로써 토지의 생산을 마음껏 하도록 했다"는 기록으로 보더라도 알영은 분명 지모신적(地母神的) 존재이다. 따라서 혁거세 신화 역시 천부지모형의 구조적 패턴에 속한다.

다만 신화적 주체가 천부지모의 신성 혼인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성 혼인을 치르는 점에서 북방의 천부지모형 신화들과 다르다. 가락국의 신화도 신라의 그것과 비슷한데, 이러한 차이는 국가가 형성된 배경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혁거세 신화에서 육부의 조상들이 모여서 왕의 추대를 결정하는 상황이라든지, 같은 날 육부에 속하는 두 집단체에서 출현한 혁거세와 알영의 신성 혼인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결국 육부의 연맹체적 통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신성혼 형태의 차이는 이주, 투쟁, 정복을 통하여 이룩한 나라와, 여러 집단의 연맹 내지 결속을 통해 이룩한 나라의 건국신화들이 보이는 변이태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인지 혁거세와 알영의 우열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혁거세신화에서 두 존재는 같은 날 출현하여 왕과 왕비가 될 성아로서 동등하게 받들어진다.

선도산(서술산) 성모가 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라는 신화적 설명이 『삼국유사』의 다른 행간에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맥락에서 떠올려 볼 만하다. 혁거세 기사의 보주(補註)에서도 혁거세의 탄생을 서술성모와 연관시키는 내용이 보인다. 어쩌면 신라의 건국신화는 두 갈래의 전승이 공존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여러 유이민의 정착과 결속으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신라에는 천강형(天降型) 계열의 신화와 성모형(聖母型) 계열의 신화가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공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의 건국시조 신화는 천강(天降)과 난생(卵生)의 모티프를 지닌 점, 천부지모의 구조적 패턴을 지닌 점에서, 북방의 신화 계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한 사실은 신라의 형성을 주도한 것이 북방의 유이민 집단이었던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도 북방계 신화와 달리 남녀신의 우열이 드러나지 않고, 여산신에 의한 시조 탄생 신화가 공존하고 있는 양상은 신라가 세력이 대등한 집단들로 이루어진 연맹체 국가였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박 · 석 · 김의 세 성이 번갈아가며 왕통을 이었던 신라에서는 건국시조인 박혁거세 외에도 석씨와 김씨의 시조 신화가 왕가 시조 신화의 성격을 겸하면서 전승되었다. 『삼국유사』 기이 편에 수록된 석탈해와 김알지의 신화가 그것이다.

석탈해는 바다를 건너 신라로 들어와 왕실의 부마가 된 후, 노례왕을 이어 신라의 4대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알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기아의 시련을 겪기도 하고, 숯을 묻는 계략을 써서 신라의 토착 세력인 호공의 집터를 빼앗는 탈해의 신화는 비범, 시련, 모험 등의 신화적 모티프와 함께 신화적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알지의 신화는 알지가 나무에 걸려 있는 황금궤에서 출현하게 된 것을 소략하게 전하는 데서 그치고 있지만, 그 궤가 자주빛 구름으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거나 "박혁거세의 고사와 같아서 아이 이름을 알지라고 했다"는 설명들이 천강계열의 신화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신라의 신화는 북방의 신화들처럼 신화적 주인공의 연원이 천신뿐만 아니라, 산신(지신), 수신(용신)계와 닿아 있다. 상징도 다양한 편이다. 특히 서술산성모와 계룡과 알영이 혁거세신화에서 동일항으로 묶이는 것을 보면, 산신, 지신, 용신은(때로는 여신까지도) 상징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신과 지신, 곧 남신과 여신의 신성은 그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간단히 말할 수 없다. 건국시조는 남신격이지만, 그 건국시조를 여산신(女山神)이 낳았다고 하는 성모형 신화가 건국시조와의 한 중요한 변이태로 전승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신라 건국에 앞서서 육촌이 있고, 육촌은 촌장이라고 부르는 지배자가 다스렸다. 육촌 촌장은 모두 하늘에서 어느 산봉우리로 내려왔다고 한다. 한 예를 들면 육촌 가운데 첫째인 알천 양산촌 촌장은 알평이고 처음에 표암봉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나머지 다섯 촌에 관해서도 같은 내용이 되풀이해 나타난다. 그렇다면 육촌을 이루는 집단도 모두 천신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다는 말이지만 건국신화를 마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육촌의 지배자들은 지석묘에 묻혔다. 다음 시기에 지석묘가 아닌 석관묘를 구축하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혁거세나 탈해를 내세우는 건국 사업을 이룩했다. 육촌 촌장이 산봉우리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데서는 산신 신앙이 나타나 있다. 산신이 모두 남신이다. 그런데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데 깊이 관여한 산신은 여신인 선도산 성모이다.

선도산 성모는 웅녀나 유화와 마찬가지로 나라 전체의 지모신 구실을 한 것 같은데 환웅이나 해모수에 해당하는 남성 상대역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웅녀가 단군을, 유화가 주몽을 낳은 것과 같은 과업을 수행해, 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했다. 선도산 성모가 비단을 짜 조복을 만들어 남편에게 입혀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신이함을 알게 되었다고도 하는 데서는 혁거세의 부인 알영과 동일시되었다.

선도산 성모가 낳았다고 하는 혁거세와 알영이 결혼해 신라 건국의 시조가 되었다. 알영도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고 신화의 주인공이다. 관련 양상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특징은 어렵지 않게 지적할 수 있다. 여신의 시대에서 남신의 시대로 넘어오는 점차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 신과 건국

이 이루어지고, 건국 후에도 여신이 계속 존중되었다.

선도산 성모가 계속 숭앙된 것은 아니다. 육촌 촌장이 건국 과정을 주도했다고 하는 별도의 전승이 정통의 위치를 차지했다. 육촌의 촌장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적임자를 찾아 나섰다가, 양산 아래의 나정 곁에 흰 말이 꿇어앉아 있어 가 보니 알이 하나 있었고 그 알에서 혁거세가 태어났다고 했다. 사량리라는 곳의 알영정 가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알영을 낳았다고 했다.

하늘로 다시 올라간 천마(天馬)와 알영을 낳고 사라진 계룡(鷄龍)은 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관해서는 말이 없다. 육촌 촌장이 혁거세와 알영을 발견해 양육하고 결혼시켜 왕과 왕비로 삼기까지 해서, 아버지가 할 일을 대신했다고 할 수 있다.

천마와 계룡은 단군 어머니의 웅녀와 상통한다. 육촌 촌장은 동부여 금와왕과 흡사하다. 혁거세와 알영은 어머니를 잃고 양육자 손에서 자라나기까지 아무런 갈등도 겪지 않았다. 촌장들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군주가 육촌을 통합해 국가를 창건하는 과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할 만하다.

천마는 혁거세를 받드는 집단이 말을 타고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천신족의 자부심을 나타낸 상징물이다. 천마총에서 발굴한 그림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물가에서 알영을 낳았다고 하는 계룡은 닭이면서 용이다. 처음에는 알영의 입술이 닭부리 같다가 목욕을 시키자 떨어졌다고 한 데서는 닭의 특징이 나타난다. 알영의 특징을 말해 주는 상징소들은 날아오르는 데 쓰이면서 물과 깊은 관련을 가진 이중의 성격을 가졌다. 천신족(天神族)일 수도 있는 집단이 지신족의 위치에서 혁거세의 천신족과 결합되었음을 말해준다.

알영과 같은 집단 출신의 남성 알지는 천신족의 특징을 갖추고 등장해 그 후손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의 계림이라고 하는 곳의 나무에 황금궤가 걸려 있고 흰 닭이 울었다고 했다. 왕의 측근인 호공이 발견하고 궤를 열어보자 그 속에 들어 있었던 아이가 알지이다.

황금궤는 혁거세가 들어 있었다는 알과 상통한다. 흰 닭은 천마나 계룡처럼 아이의 어머니는 아니고,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암시한다. 혁거세 집단 박씨족 알영과 알지 집단 김씨족은 건국신화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또 하나의 신라 왕족인 석씨 집단 시조 탈해의 유래는 아주 다르다. 탈해 쪽은 바다를 건너왔다고 했다. 왜국 동북쪽 천리나 되는 곳 용성국에서 잉태된 지 7년 만에 알로 태어난 왕자를 버렸다. 궤에 넣어서 바다에 띄웠더니 신라까지 와서 갯

가의 늙은 할미에게 구출되었다. 자라서는 토함산에 올라가 돌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레 동안 머물렀다. 자기 집안은 원래 대장장이였다고 하면서, 숯을 묻어 놓은 것이 소유권을 판별하는 증거라고 하고 호공의 집을 빼앗았다. 다른 자료에 가락국에 가서 수로왕과 크게 싸우다가 왔다고 했다. 임금의 사위가 되었다가 왕위를 이었다. 죽은 뒤에 뼈로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세우게 하고, 토함산의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호공과 싸울 때는 자기 집안이 대대로 대장장이였음을 입증하는 술책을 써서 승리를 거두었다. 정복의 무기인 쇠를 다룰 줄 아는 것이 놀라운 기술인 그 시대에는 대장장이가 무당의 권능까지 가지는 지배자였다. 수로와는 힘으로 싸우다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것으로 되어 있다. 김해 쪽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탈해 집단이 경주 지방에 이르러서 토함산 근처에 근거지를 두고 세력을 굳힌 것 같다.

탈해의 일생은 시련과 투쟁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점이 혁거세나 알지와 많이 다르다.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버림받았다가 투쟁을 승리로 이끈 영광을 차지한 과정에 주몽의 경우와 상통하는 '영웅의 일생'이 보인다. 궤에다가 아기를 넣어 바다에 띄웠다는 것은 후대의 서사무가에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토함산 돌무덤 속에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은 웅녀의 변신 과정과 상통한다. 토함산의 산신이 되었다는 결말은 단군의 경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신라의 국중대회를 말해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혁거세 다음 제2대 남해왕은 무당을 뜻하는 차차웅으로 일컬었다는 데서 암시를 얻을 수 있다. 왕이 무당이어서 나라굿을 스스로 주도했을 것이다. 제49대 헌강왕이 남산신의 춤을 추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신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 것이 마로 무당 노릇이다. 헌강왕만 그런 임금이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오랜 관습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남해왕은 시조 혁거세의 사당을 세우고 친누이 아로가 제사를 주관하도록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임금의 누이 아로가 권력자와는 분리된 무당이 되어 혁거세의 유래나 행적을 굿이나 노래로 부른 사실을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굿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건국 서사시였다는 추론을 신라의 경우에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은 새삼스럽지 않으나, 임금의 누이가 나라 무당 노릇을 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자료이다.

삼국이나 통일신라시대의 설화는 그 당시 문학의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큰 구실을 했다. 한문학은 필요한 수련을 하고 상당한 학식을 가져야 창작할 수 있고, 상층의 관심사라도 자유롭게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향가는 생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폭이 좁고 전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한문이나 향찰을 읽어 이해할 수 있는 독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기록문학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구비문학의 영역은 줄어들지 않았다. 향유자의 범위를 들어 말하면 민요나 설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계속 되었다. 민요와 설화를 비교하면 설화가 더 큰 비중을 가졌다. 설화는 상하층이 함께 만들어내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은 무엇이나 다룰 만큼 폭이 넓다. 소설과 견줄 수 있는 포괄성을 가지면서지지 기반이나 유통 범위가 소설보다 더 넓다. 설화 시대에서 소설 시대로 넘어 오면서 문학의 저변이 오히려 축소되었다.

설화 자료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서 서술하려고 한 정사 『삼국사기』에도 설화라고 해야 할 것들이 이따금 보인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면 설화를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국유사』는 역사 이해의 범위에 구전을 대폭 포함시킨 야사여서 거의 전편이 설화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 일연(一然)이 택한 방법을 받아들여 오늘날 우리도 삼국이나 통일신라시대 이해를 위해 설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화는 동일한 양상을 유지하지 않고 역사적인 변천을 겪었다. 신화 시대가 끝나가면서 전설과 민담이 긴요한 구실을 하기 시작한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에 들어섰다고 이미 말했다. 시대 정신의 서사적 표현을 전설과 민담이 맡은 것이 다시 일어난 변화이다. 자아와 세계를 아우르는 원리는 없어지고 둘 사이의 대결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에 입각해 전개된다고 여기게 된 시대가 중세이다. 전설과 민담의 독점적 지위는, 내부의 혁신자 소설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출현해 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위에 입각한 갈등을 나타내자 흔들리고, 근대소설이 서사 문학을 지배하게 되면서 무너졌다.

신화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신화가 기억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화적 상상을 이으면서 자아와 세계 대결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되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화이고자 한 이야기가 전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우선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건국시조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고 하고, 알영과 동일시되기도 하던 선도산 성모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달라진 것을 보자. 중국 제실의 딸이 신선술을 습득해 신라에 와서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고, 부처를 장식할 금을 마련해 주었다고 했다. 중세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중국 황제, 신선술, 부처가 함께 등장해 고대 신화를 파괴했다.

그 다음에 수록된 미추왕의 죽엽군(竹葉軍)에 관한 이야기도 신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설이다. 김씨로서 처음 왕위에 오른 제13대 미추왕이 죽어 묻힌 무덤

에 이따금 대나무 잎 군사가 나타나, 적병을 물리치고, 37대 혜공왕 때에는 김유신 혼령의 요청을 받고 그 후손이 몰려 죽게 된 원통한 사정을 해결해 주었다고 했다. 미추왕과 김유신 혼령의 그런 활약상이 후손들에게는 가문 신화라고 할 수 있고, 제삼자가 보기에는 전설이다.

혁거세, 탈해, 알지를 내세우는 이야기는 세 왕족 집단의 신화이면서 또한 신라 국가의 신화였으므로 그 의의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주도권을 오래 장악한 김씨네가 여러 집단으로 분화되고 서로 다투게 되어 신화 숭상에서도 분파 작용이 일어났다. 공동의 시조인 알지가 아닌 자기 가문의 직계 선조를 따로 내세울 필요가 있어 미추왕이 이적(異蹟)을 보였다고 했다.

그런 신화는 후손이 아닌 쪽에서 본다면 전설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 집단의 안에서는 신화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전설이기만 한 것이 후대의 족보의 서두 같은 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가문 신화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신라 왕권이 신성하다는 증거물들에 관한 이야기는 건국신화 이후의 시기에 생겨났다. 제31대 신문왕은 하늘에서 내린 옥대(玉帶)를 받고, 용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 만파식적(萬波息笛)을 만들어 적군을 물러나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는 이적을 행했다고 했다. 통치의 법도를 상징하는 금척(金尺)이 고분 속에 묻혀 있다고도 한다.

그런 신화는 후대로 이어졌다. 고려 태조는 그 옥대(玉帶)를 찾아내 신성 왕권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조선 왕조는 하늘에서 내린 금척을 받아 천명을 지상에서 실현한다고 했다. 두 왕조 다 오랜 전승에다 새로운 신화라고 할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족보의 서두에 올라갔다. 신화 전승의 더욱 중요한 통로는 민간의 하층 무당이 부른 서사 무가였다.

(4) 경주 전설의 역사적 전개

전설로 통칭되는 것의 범주에는 자연물, 인공물, 인물, 풍속, 신앙을 비롯한 인간사회 제반 현상에 얽혀있는 내력들이 망라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양을 자랑하는 전설 자료들은 증거물에 대한 단순 설명에서부터 복잡하게 구성된 문학적 형상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설의 전승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개개 전설 유형의 형성 및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설이 역사적 문헌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역사적 쟁점을 함축

하고 있는 경우도 제법 발견되어 전설의 역사 구술적 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삼국 초기 전설사의 첫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은 신화적 세계관의 전설적 전환 반향일 것이다. 현전하는 문헌자료에는 신화적 서사 원리와 전설적 역사성을 공유하는 자료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탈해 전승이나, 일월 신화라 할 수 있는 '연오랑세오녀(延烏郎細烏女)' 는 지명 유래담과 결부되면서 문헌에 정착된 경우들이며, 산신이면서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는 선도산성모는 중국 제실의 딸이자 불사에 즐겨 동참하는 존재로 설명되어 그 위상이 역사적 현실 안에서 재정립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 밖에도 『삼국유사』기이편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화적 전설이 포함되어 있다.

삼국 초기부터 출현한 전설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된다. 세계의 횡포로 좌절하는 인물 이야기는 해명태자와 호동왕자에게서 발견된다. 부왕의 오해를 사 죽음을 권유받자 어떠한 해명도 시도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이들 인물은 전설 주인공의 원형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교 관계 설화의 초기 형태는 불교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재래신앙과 갈등이 주조를 이루는 문화사적 양상을 함축하고 있다. '어산불영(魚山佛影)' 처럼 기존 신격의 신성성을 빌려와 불교의 우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거나 사찰 주변에서 전해지는 불승과 용신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도 재래신앙과 불교신앙의 관계 양상을 반영하는 자료들로 이해할 수 있다. 토착 신앙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독자적 위상을 확립한 불교는 종교적 영험담 및 수행담과 함께 깊숙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삼국유사』는 이같은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삼국통일기에는 명장, 충신, 효자, 열녀 등 다양한 인물전설이 나타난다.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에 관한 전설은 민간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설 유형 속에 자리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하다 죽어서도 길가에 묻혀 왕의 사냥 중단을 만류했던 김후직이나 왕의 동생을 귀국시킨 뒤 왜국에서 죽임을 당한 박제상 등의 충신전설과 함께, 여성 인물의 의지와 결단 또한 주목할 만하다. 망부석이 된 박제상의 부인, 설씨녀, 도미의 처 등은 열녀 전설의 성격을 지니며, 아버지의 희언대로 온달과 결혼한 평강공주, 꿈을 사서 운명을 개척한 문희 등도 눈에 뜨인다.

효행담에는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자식을 묻으려 했던 손순, 부자집 종살이를 하면서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려 했던 지은 외에도, 살을 베어 병든 부모께 드렸던 향덕, 성각에 관한 이야기가 주목되는데, 이들의 행위는 후대의 효자와 열녀담에서 하나의 모형을 이루면서 되풀이되어 나타나고 있다.

(5) 다양한 민담(民譚)의 세계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민담의 개념은 설화 전반을 칭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적 옛날 얘기만을 칭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쯤의 것이다.

그것은 신화(神話), 전설(傳說)과 더불어 설화의 하위 갈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설화의 한 갈래로서의 민담은 '흥미 위주로 전승되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규정될 수 있다. 전설이 '사실(事實)' 차원에서 말해진다면, 민담은 말 그대로 '이야기' 로서 말해진다. 사실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마음껏 동원하여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이 민담이다. 전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민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전하는 자료가 엉성한 상황에서 멀리 상고시대 민담의 존재 양상을 해명하기는 아주 어렵다. 삼국, 신라는 물론 고려시대까지도 문헌에서 민담의 뚜렷한 흔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삼국유사』 등에 민담의 요소를 갖춘 설화, 또는 후대 민담과 관련이 있는 설화가 실려 있지만, 딱히 민담이라고 규정할 만한 것을 들기는 쉽지 않다. 아직 민담의 시대가 펼쳐지기 이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만한 양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서를 표방한 저술에 민담이 포용되기 어려웠던 사정의 반영일 가능성도 크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실린 삼국, 신라 설화 가운데 민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호동, 온달, 서동, 경문왕, 박제상, 도미의 처, 구토설화, 거타지, 조신, 김현 감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보면 전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만, 뒷날 민담의 형태로 민간에서 널리 전승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바보 온달 이야기(온달)나 당나귀 귀 이야기(경문대왕), '내복에 산다' 유형의 이야기[서동], 토끼와 자라 이야기(구토설화)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도 '구토설화(龜兎說話)' 는, 역사적 기록 속에 우언(寓言)의 형태로 끼어든 것이지만, 그 자체로 민담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대 민담의 실체를 단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민담의 실상을 밝히는 것은 삼국, 신라에 비하여 오히려 더 어려운 면이 있다. 당대 민간 설화의 기록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고려 후기에 패설집이 속출했지만 그 속에서 민담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고려사』역시 『삼국유사』만큼의 설화를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이전(殊異傳)』의 '수삽석남' 이나 '선녀홍대(仙女紅帶)' , 『고려사』 고려세계(高麗世系)의 '작제건' 등을 통하여 이 시기 민담이 전대보다 약화

되었던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민담 가운데는 중국이나 몽고 등지에서 전래된 것이 적지 않다고 하거니와, '남매혼(대전쟁)', '견묘쟁주[犬描爭珠]', '지하국대적퇴치' 등은 몽고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들이 고려시대에 들어온 것이라고 할 경우, 이 시대에 민담이 민족 간 교류가 가능할 정도로 널리 유포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한편, 이 시기에 민담이 저변에서 편폭을 확장했음은, 앞에서 든 삼국, 신라 설화의 민담화가 대체로 이 시기를 거치며 성취되었으리라는 추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러 사정을 통해 볼 때, 증거가 표면에 뚜렷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민담이 이미 민간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 특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환상적(幻想的) 민담(民譚)

환상적 민담은 말 그대로 환상이 개입하여 현실과 비현실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야기다. 선녀나 산신령, 도깨비 같은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거나, 지하국이나 저승 세계 같은 초월계를 여행하거나, 구렁이와 여우 등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하거나(혹은 사람이 동물로 변신하거나), 호랑이와 토끼 같은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일상적 경험의 틀을 벗어난 신비한 환상이 펼쳐지는 이야기들이다. 흔히 '정통 민담'으로 지칭돼 온, 동화(童話)류의 이야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이 외에 '바리데기'나 '당금애기' 등 무속신화(巫俗神話)에 해당하는 자료도 설화로 구연할 경우 환상적 민담이 된다. '호랑이와 토끼', '토끼와 자라' 등은 우화(寓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타 이야기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데, 그 또한 '환상적 상상'을 매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주에 포괄할 수 있겠다. 환상적 민담은 남성보다 여성 화자에 의해 많이 구연되는 것이 특징이거니와, 이는 여성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② 희극적(喜劇的) 민담(民譚)

희극적 민담은 인간 존재 및 그들의 삶을 희극적으로 변형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소화(笑話)라 지칭되어 온 이야기들이 곧 희극적 민담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우스운 사람을 만나고 우스꽝스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거니와, 이를 적절히 포착하고 상상을 보태어 맛을 내면 곧 희극적인 이야기가 된다.

전체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또는 어리석은 행동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 또 한편에 유별난 꾀로 남을 교묘하게 골려먹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육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또한 희극적 민담의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희(語戱)를 포함한 형식담(形式譚)은 좀 성격이 특수한 면이 있지만, 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적 이야기라는 점에서 희극적 민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희극적 민담의 범주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갈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희극적 민담에는 짤막하고 단순한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꾀쟁이 하인' 이나 '정승 골린 사람', '봉이 김선달 이야기' 와 같이 길고 진지한 이야기들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희극적 민담의 문학성을 낮추어 보는 시선은 정당하지 않다. 둘째,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설화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성과 한음의 장난에 얽힌 이야기나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특정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이들을 전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역사적 인물로서보다 가상적, 상징적인 캐릭터로서 흥미와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민담, 특히 희극적 민담으로 보는 것이 실상에 맞는 판단이다.

③ 사실적(事實的) 민담(民譚)

사실적 민담은 이야기 내용이 사실적, 현실적으로 엮어지는 민담이다. 흥미 중심의 이야기이면서도, 환상적, 희극적 요소에 기대지 않고 현실적 가능성의 테두리 안에서 스토리와 작중 상황이 엮어지는 것이 곧 사실적 민담이다. 환상적, 희극적 민담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두루 여기 해당하거니와, 사실적 민담은 그 폭이 넓고 이야기 종류가 많다. 인간 만사에 관계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사실적 민담은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 크게 발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야담집에 많은 이야기들이 수용돼 있다. 현전 구비설화 자료에 있어서도 사실적 민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그럼에도 그간 이 이야기들은 민담으로서의 성격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전설과 민담 사이에서 제자리를 못 잡았던 적이 많았다. 특히 박문수나 숙종대왕에 얽힌 많은 설화에 대해서는 그간 그것을 '인물 전설(人物傳說)' 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었는데, 오성과 한음이나 김선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민담에 포괄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사실(事實)로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럴듯하게' 꾸며진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여타 민담과 함께 이야기꾼의 주요 구연 종목으

로 포함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실적 민담은 민담의 허구적 지향설에 '사실성(事實性)'의 구심력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긴장감을 자아내곤 한다. 그것은 성인(成人)들의 이야기판에서, 특히 가벼운 오락을 넘어선 진지한 문학적 소통의 장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이 사실적 민담의 유산에 대한 재인식은 민담의 세계를, 설화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3) 경주의 민요(民謠)

후대 문헌에 보이는 바지만, 마한에서 오월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 한 차례, 시월에 농사를 끝낸 다음 또 한 차례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발을 맞추면서 높이 뛰기도 하고 낮게 뛰기도 하는 춤을 추었다고 한다. 흥이 나서 한 동작만은 아니고, 농작물이 빨리 자라도록 하는 동작을 한 것이다. 씨를 뿌리고 그런 동작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룬 성과를 자축하면서 한 번 더 놀이를 벌이는 것이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을 농업 사회의 오랜 풍속이다. 농악에 바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일을 여럿이 함께 하면서 손발을 맞추고 흥을 돋우는 데 노래가 긴요한 구실을 했다. 사냥을 할 때보다는 여유가 있어 농사노래는 부르는 방식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고 가락이나 사설을 길게 늘일 수 있었다. 갈이노래, 심기노래, 거두기노래가 따로 있고, 가창 방식이 교환창, 선후창, 제창이나 독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관습이었을 것이다.

심기노래의 하나인 모노래는 남녀가 사랑의 사연을 주고받는 교환창으로 부르는데, 농작물의 번식을 촉구하는 의례의 기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노동요는 농사에 관한 것들만은 아니다.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노래의 종류가 늘어났다. 고기잡이를 하고,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고, 무거운 것을 운반하며, 집을 짓고, 맷돌질이나 절구질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른다. 그런 노래도 대부분 신석기시대에 생겨나서 오늘날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노래의 사설보다 되풀이되는 여음이 더욱 긴요한 노동요는 최초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보아 마땅하다.

민요는 노래이며, 구전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요는 설화, 민속극 등과 구분된다. 민속극에도 노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이다.

노래로 된 구전물은 민요 이 외에도 무가, 판소리, 잡가 등이 있으며, 가곡과 시조까지 이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무가는 무당에 의해 불리며, 판소리, 잡가, 가곡, 시조 등은 광대 또는 가객에 의해 주로 불린다. 무당은 무의(巫儀)를 행

하는 특수한 직업인이며, 광대와 가객은 전문적인 예능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래는 전문적인 수련을 거쳐야 제대로 부를 수 있다. 이에 반해 민요는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수련을 거친다 해도 전문성은 약하다. 따라서 민요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적인 민중의 노래라는 점에서 노래로 된 다른 구전물과 구별된다.

4) 경주의 무가(巫歌)

역사적으로 보면, 외래 종교가 유입되기 이전의 무당은 나라굿을 주재하는 제사장(祭司長)이자 정치군장(政治君長)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어느 민족이나 인류 역사의 이른 시기에는 제사권과 정치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겪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라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제사권과 정치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나라 단위의 굿을 주재하면서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구비시로 노래했다. 오늘날 전해지는 우리의 건국신화들은 바로 이런 나라굿에서 불리던 신화의 잔재로 이해된다.

건국 서사시는 원래 나라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중대회를 거행할 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불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후 통치 방식이 달라지고 유학이나 불교에 근거를 둔 중세 이념이 등장하게 되자 무당은 몰락을 겪어야만 했으며, 나라의 시조를 섬기던 노래가 무속의 신을 기리는 노래로 기능이나 내용면이 바뀌었다고 보아 마땅하다.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오는 다음 두 기록은 신라 제2대 임금이었던 남해왕(南解王)이 무당이었으며, 이 시기에 비로소 제정(祭政)이 분리되어 제사권이 여자 무당에게로 넘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이 즉위(卽位)하니 차차웅(次次雄)은 혹은 자충(慈充)이라고도 한다. 김대문(金大問)이 이르되, 방언(邦言)에 무(巫)를 의미하는 말이니, 세인(世人)은 무당이 귀신(鬼神)을 위하고 제사(祭祀)를 숭상하는 까닭으로 외경(畏敬)하여, 마침내 존장자(尊長子)를 자충(慈充)이라 한다. 이는 혁거세(赫居世)의 적자(嫡子)이었다. …〈중략(中略)〉…삼년(三年) 정월(正月)에 시조(始祖)의 묘(廟)를 세웠다.

> …〈전략(前略)〉…제 2대 남해왕(남해차차웅) 3년에 비로소 시조 혁거세의 사당을 세워 사시(四時)로 제사하고, (왕의) 친매(親妹) 아로(阿老)에게 제사를 맡게 하였는데 …〈후략(後略)〉…

이 두 기록을 상호보완적으로 검토해 보면, 신라의 남해왕은 시조(始祖)인 혁거세의 적자(嫡子)로, 귀신을 위하고 제사하는 권능을 가진 무당이며, 동시에 정치군왕이었는데, 즉위 3년에 이르러 시조묘를 세우고, 그 제사권을 누이인 아로(阿老)에게 넘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신라에 있어서는 이때에 비로소 제사권과 정치권이 분리되어 정치군장은 남자가 맡고, 제사장은 여자가 맡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로(阿老)는 확인 가능한 최초의 여자 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제사는 시조를 위해 따로이 만들어진 시조묘에서, 왕가(王家)의 여인이 사제가 되어 행한 국가적 공식 제전인 나라굿이었음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등에 기록된 '단군신화', '주몽신화', '박혁거세신화', '김수로왕신화' 등의 건국신화들은, 후대에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개(變改)가 이루어지기는 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시기의 나라굿에서 나라 무당에 의해 구연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자료들이며, '해가(海歌)' 등의 노래도 주술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무가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경주의 속담(俗談)

속담이라는 용례가 처음 보이는 문헌은 선조 때 유몽인이 편찬한 『어우야담』이다. 이보다 이른 시기에 나온 『삼국유사』권5 「욱면비염불서승」조에는 이언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며, "내 일 바빠 한댁(大家) 방안 서두른다"는 표현이 들어있다. 문헌에 나타나는 최초의 속담인 셈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속담이 생성된 시기는 이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속담은 특정한 역사적 사례를 묘사하면서 형성되기도 하고,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반 사례를 묘사하면서 형성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속담은 일반 사례의 묘사로부터 형성된 것이지만, 이 경우도 특수 사례가 반복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근원적으로는 특정한 역사적 사례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 벼슬명 등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례에서 출발하여 형성된 속담이 보편적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일반인의 공감을 얻는 속담으로 정립된 사례는 상당히 많다.

6) 경주의 수수께끼

수수께끼의 어원적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수수'는 숨은 것을 찾아낸다는 뜻으로서 숨바꼭질과 상통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겨루기'라는 의미의 '겻구기'가 변한 말인 '께끼'가 덧붙어 수수께끼라 일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수께끼는 주어진 설문에 대해 답을 알아 맞추는 일종의 놀이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제를 내는 화자(話者)와 문제를 맞추는 청자(聽者)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수께끼는 '내기'의 성격을 지닌 유일한 구비문학 장르이다. 설문과 응답의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심심풀이에 적격인 말놀이이다.

그러나 수수께끼가 단순히 유희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수수께끼는 일종의 지혜 겨루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수수께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수수께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래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몽신화에 보면, 주몽이 부인에게 "내가 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 돌 위 소나무에 물건을 감춘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얻은 자라야 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장차 자신을 찾아올 아들에게 전해주라는 내용이 있다. 아버지 주몽을 찾아 나선 유리태자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고심하다가, 집 기둥에서 슬픈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 기둥이 돌 위에 있는 소나무였고 나무의 몸은 일곱 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리태자가 이를 "일곱 고개 일곱 골은 일곱 모요 돌 위의 소나무는 곧 기둥"이라고 해석하고는 기둥 위 구멍에서 부러진 한 조각 칼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주몽의 칼과 맞추어보고 마침내 부자 상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몽이 유리태자에게 낸 문제는 아들의 지혜를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낸 수수께끼인 셈이다.

『삼국유사』권1 사금갑(射琴匣) 조에 "열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까마귀의 봉서를 일관이 "두 사람이란 서민을 뜻하고 한 사람이란 임금을 뜻한다"고 해석하여 임금을 위기로부터 구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같은 책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조에는 소정방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그림을 신라에 보냈는데, 원효가 이를 반절로 풀어 '속환'의 뜻으로 해석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같은 책 권2 문무왕법민 조에는 거득공이 안길의 후대를 받고 떠날 때, "나는 서울 사람이다. 우리집은 황룡사와 황성사의 두 절 사이에 있고, 내 이름은 단

오다. 그대가 만일 서울에 올 기회가 있거든 우리집을 찾아 주면 고맙겠다"라는 수수께끼를 남기고 떠났는데, 뒤에 안길이 서울에 '기인(其人)'으로 가게 되어 단오의 집을 찾던 중 길 가던 한 노인이 "두 절 사이에 있는 한 집이란 아마 대궐을 말하는 것이겠다. 단오란 거득공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은 문헌으로 전해 오는 것이지만, 서양에서 전하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삼손의 수수께끼'나 그리스 신화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보건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수수께끼도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수께끼는 여타의 구비문학 장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산출된 시대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생성, 전승, 소멸되는 과정을 거친다. 농업과 관련된 것,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 한자를 이용한 파자(破字)놀이 등은 전통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7) 최근의 구비문학(口碑文學) 자료 개관

(1) 경주의 구비설화(口碑說話)

신라시대 유적과 관련된 전설, 『삼국유사』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설화 등이 현지에서 이중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문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문헌을 보지 않고, 학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구전하는 것이다. 이 둘 중에서 전자는 구태여 조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으나, 후자는 주목의 대상이 된다.

대개의 설화는 조선 왕조 시대에 성립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박문수 전설 같은 것이 의외로 많고, 풍수 이야기, 과거(科擧) 이야기 같은 것도 많다. 서면(西面) 지역에서 조선시대 말기에 살았다고 하는 정만서(鄭萬瑞)에 관한 이야기도 도처에 퍼져 있다. 현곡면 같은 곳은 최제우가 난 곳이고, 동학이 지금도 성한 고장이어서, 최제우 및 그 선대에 관한 설화가 많다.

1979년 전국적으로 구비문학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2월에는 현곡면, 3월에는 천북면, 12월에는 동지역 등지에서 조사를 했다.

① 현곡면의 설화

수운 선생 이야기, 용추, 용마 / 효자 손순(1) / 효자 손순(2) / 걸어가는 산(1) / 걸어가는 산(2) / 굴러가던 바위 / 이여송이 혈지른 곳 / 팔암 동네 굴려가던 바위 / 땅에서 나온 글씨 / 외와공의 도술(1) / 병와선생 괴물 퇴치 / 병와선생 무당 퇴치 /

용이 된 김부대왕 / 용이 산을 쳐버린 이야기 / 봉황대의 유래 / 고운선생이 짝지를 꽂아 심은 나무 / 석굴암의 쌀 나오는 구멍 / 아내를 효부로 만든 사람 / 정만서의 꽂감먹은 이야기 / 풍수 때문에 망하고 흥한 이야기 / 강감철과 속새 / 범 잡은 사람 / 전라도로 귀양보낸 지리산 / 정만서가 실패한 이야기 / 복진 며느리와 생금장 / 영천 사람과 경주 사람 / 손자 길들인 동래 정씨 노인 / 수운선생 내력(1) / 수운선생 내력(2) / 박문수 이야기 / "자네 와우일세" / 꽂감 이야기 / 등나무가 된 처녀 / 현곡이라는 이름의 유래 / 정만서의 술책(1) / 정만서의 술책(2) / 외와공의 도술(2) / 외와공의 인품 / 금암공 일화 / 정만서의 불효자 놀음 / 닭을 학이라고 산 정만서 / 복어국을 공짜로 먹은 정만서 / 거짓 상처한 정만서 / 남의 부녀와 입맞춘 정만서 / 최산림의 재주와 술법 / 초시 열두번에 과거 못한 근암공 / 수운선생의 도술과 기백 / 장수나지 못하게 혈지른 이야기 / 과대주 살림 모으는 운수 / 효자 손순(3) / 최산림과 그 부인 / 정만서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 / 경순왕과 주금이들 / 정만서와 서만서 / 정만서의 거문고 / 우는 여자를 웃긴 정만서 / 풀 사먹은 정만서 / 변소를 판 정만서 / 일본 순사를 골린 정만서 / 정만서의 부부싸움 / 정만서와 아들 / 정만서 죽을 때 이야기 / 김삿갓 글지은 이야기 / 장군 징검다리 / 안가닥 할무이 / 등나무가 된 자매 / 금척 / 개 무덤 / 개 무덤 다른 이야기 / 정만서와 담배 주인 / 정만서와 주모 아들 / 김삿갓과 중의 글시합 / 횡재를 한 등금 장수 / 용한 장님 점장이 / 사천 냥 내고 친 점 / 명의 유이태 / 어사 박문수의 과거 급제 / 풍수와 미륵 / 박문수와 백정 / 사자생손(1) / 박문수와 미륵 / 헛 열녀비 / 첫날 밤에 웃은 색시 / 시어머니 눈 뜨게 한 효부 / 점의 시조 광열선생과 노총각 / 거미와 학 / 익모초의 유래 / 놀부 흥보 이야기 / 깨금나무 / 최선달네 맏딸애기 / 조씨의 시조 / 황씨의 시조 / 금송아지가 된 아기 / 자식을 버린 과부 / 나뭇꾼과 선녀, 노루 이야기 / 총각과 조개 처녀 / 류씨의 시조 / 숯구이 총각의 생금장 / 주인을 죽이려고 한 돈 / 불운한 선비 과거본 이야기 / 시묘살이하는 남편 / 최고운 이야기 / 수운선생의 내력 / 처녀와 두꺼비 / 남의 남자를 즐기는데 / 수운선생의 죽음 / 김정승 아들과 이정승 딸 / 영천 거짓말쟁이와 경주 거짓말쟁이 / 나태 사람과 칠전 사람 / 정신없는 사람 / 게으른 사람 / 희한한 사람 / 무식한 시아버지 / 무식한 상주 / 신부의 착각 / 메추리와 여우 / 방구쟁이 며느리 / 병등모시다 실수한 이야기 / 범의 굴을 쑤셔대는 이야기 / 남편을 배신한 색시 / 정만서인가 누군가 / 도포와 속옷 / 수운선생의 내력 / 효자 손순(4) / 외와공의 도술(3) / 정만서, 돼지는 현금 주고 먹는 줄 알았다 / 마누라가 죽었다고 한 정만서 / 저수지굴 방망이를 뺀다는 정만서 / 정만서 담배 얻어피는 이야기 / 물 건너 온 정만서 / 사방 가는 길 / 누이로 태어난 여우 /

복타러 가는 이야기 / 꿩과 이시미 / 정에 정도령 / 배리대기 / 모자라는 며느리(1) / 모자라는 며느리(2) / 거만한 하인 / 어긋난 아들 / 어긋난 아들과 아버지 / 며느리를 효부로 만드는 방법 / 제를 빌려준 이야기 / 장가가서 실수한 이야기(1) / 장가가서 실수한 이야기(2) / 버릇 없는 자 / 손병사 이야기(1) / 손병사 이야기(2) / 손병사 이야기(3) / 귀 어두운 사돈 / 사돈 생일은 일년에 두 번 / 딸 데리고 상객가서 한 실수 / 빈대 절터 / 시집살이 고된 판에 / 궤짝 안에 든 중놈 /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 / 능통감투 / 형제같이 지낸 친구 / 도둑놈 시애비와 며느리 / 참혹하게 가난한 사람의 보은 / 숙종대왕이 순행을 하는데 / 상객가서 실수한 이야기 / 멍청한 남편 / 똥뀌는 상주 / 상사병으로 죽은 처녀 / 상사병 고친 이야기 / 머슴이 주인집 딸에게 장가드는 방법 / 새색시의 지혜 / 도둑 잡은 이야기 / 우스개하다가 명의가 된 아이 / 호랑이와 오누이 / 엉뚱한 종놈 / 임금과 거지 / 정만서의 거짓말 / 사자생존(2) / 남사고의 실수 / 숨어있는 이인 / 사가선생의 무덤 / 개구리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 / 조개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 / 최치원 이야기 / 여우와 가마귀 / 날짐승들의 웅변대회 / 명씨의 유래 / 석숭이의 부를 임시로 맡은 사람 / 명의 유이태 / 수운 선생의 행적 / 최산림의 도술 / 과거에 실패한 근암공

② 산내면의 일화

일곱 선비 도적 / 못을 막아서 마을이 망한 이야기 / 아기장수의 죽음 / 장육산의 장순 / 단석산과 정장군 / 이씨 장군의 실수 / 빈대 때문에 망한 절 / 종을 찾아간 망한 집의 아들 / 오성대감 이야기 / 정만서와 아들 범이 / 김돼지 이야기 / 범잡은 사람 이야기 / 김유신과 단석산(1) / 김유신과 장육산 / 정만서와 기생 / 송장군 이야기 / 사명당과 세 여자 / 떠내려온 산 / 정만서와 담배 장수 / 정만서와 주모 / 정만서와 어린 아이를 잃은 부인 / 정만서와 백운학 /김유신과 단석산(2)

③ 외동면의 설화

입실의 유래 / 애기봉 아기 장수 / 구어리의 유래 / 용이 되어서 득천한 김부대왕 / 유금이들 / 경주는 배형국 / 허미수 형제와 뱀의 혼령 / 떠내려 온 어양산 / 울산 삼바우 / 형제봉 형제산 / 중을 괄시한 만석꾼, 장자못 / 달빛을 받고 낳은 아들, 쌀 나오는 구멍(1) / 달빛을 받고 낳은 아들, 쌀 나오는 구멍(2) / 오누이의 절짓기와 못막기 시합(1) / 오누이의 절짓기와 못막기 시합(2) / 괘릉의 유래와 유물 / 세 보살의 시합 / 별과에 장원 급제한 고아 / 정급자 부자의 행운 / 장감의 일월광 / 천년묵은 여우와 의리를 지킨 남자 / 양반 주인을 골려준 정만서, 처음으로 욕을 먹은

정만서 / 서화담과 제자 원불천의 도술 / 여우의 구술 / 후손없는 풍수 남사고 / 유이태탕 / 효불효교, 경주 칠교 / 축기(바보)의 상사병 / 칠득이 팔득이 / 선동이 후동이 / 착한 머슴과 산삼 / 토째비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자된 사람 / 토째비와 팥죽 / 헛침손 / 친구의 도움을 받고 남을 도와주는 짚신 장사 / 하룻밤에 백발이 된 사람 / 백인재의 범눈썹 / 의형제 이정수와 김정수 / 박문수의 무주구천동 순행 / 씨장가를 들고 부자된 사람 /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점괘 / 치술령 / 모화와 방적 공장 / 언양서 떠내려온 삼간 / 선산강을 친 김부대왕 / 중을 괄세한 황부자 장자못 전설 / 효동 전설 / 효문동 효자 / 문둥병을 치료한 열녀 / 나무장사와 능금장사의 시비 / 제불 삼년 구불십년 / 개무덤 / 오효자와 호랑이 / 범 잡은 강장군 / 홍성지와 여우 구슬 / 양정 유씨의 범 인자 항렬 / 하서선생의 선심 / 경주 효문동 / 박상진의 독립운동 / 저승 갔다 온 사람 / 죽은 사람의 현몽 / 암캐 잡은 셈 치라는 정만서 / 부인들의 소문을 고친 정만서 / 등 따시고 배부른 정만서 / 청룡 황룡이 그려진 정만서의 집 / 인동환생 / 김대성의 환생과 불국사 창건 / 삼태골 / 박제상 부인과 치술령 / 쌀 나오는 구멍 / 애기봉 / 혈 찔린 장수 우물 / 세준님의 애기 시절 / 유그미들과의 용의 득천 / 범어굴 / 효자 충신 장막동 / 하루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 봉덕사 종 / 명당 잡은 불효 / 사람이 동물로 보이는 범이 준 안경 / 보구 대사 / 장사 유장군 / 범 잡은 정장군 / 치술령과 박제상 부인 / 옛날에는 바다 / 정만서의 검은고(거문고) / 정만서에게 당한 붓장사 / 박제상 부인과 망부석 / 선돌빼기와 행주형 / 역전산과 국수봉 / 신돌석 장군 / 이여송이 혈찌른 산 / 청도 신선바우 / 아사달 부인이 빠져 죽은 영지 / 효부인 둘째 며느리 / 무수옹 / 박제상 부인과 망부 / 시아버지를 장가들여 준 효부 / 선비가 생각한 촌수 / 시체 지키기 / 불효 남편을 길들인 효부 / 정만서의 처녀 젖가슴 구경 / 정만서의 거짓 죽음 / 조총에 놀란 여우 / 꿀장사 할머니의 봉변 / 꿀장사 할머니의 행운 / 며느리의 어른질 / 얼굴 모르는 사돈끼리 만나서 / 욕심많은 형의 뉘우침 / 불효 마누라를 길들인 남편 / 백정과 딸의 말솜씨 / 효문동 송효자 /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열녀 / 며느리의 버릇 / 안사돈을 보고 병이 난 바깥사돈 / 제수를 시집보낸 주호걸 / 어리광 부리는 며느리 / 평생 고기국을 먹을 낀데 / 죽은 뒤에도 먹어야지 / 신글로 장원한 박문수 어사의 과거길 / 살인한 중과 박문수 / 지방 쓰기 / 못된 시어머니와 원혼이 된 며느리 / 보리쌀 새 / 시어머니를 괄시하는 며느리 / 옥황님이 정해준 부부의 법

④ 감포읍의 설화

대왕암과 용등바위 / 대왕암 앞 바다에 빠진 감은사의 종(1) / 대왕암의 다른 이

름 / 수제동의 기우제 / 이견대 / 감은사 / 수제동명의 내력 / 대왕암과 이견대 / 대왕암 앞 바다에 빠진 감은사의 종(2) / 대왕암과 감은사 / 감은사와 청산대(이견대) / 시집살이 / 문무왕의 수중릉과 득천 / 감은사의 종과 문무왕의 득천 / 문무왕의 득천 / 요강원 / 만파식적 / 이여송과 김덕령 / 양반의 근본 찾기 / 효자가 되려는 아들 / 애기를 안 보이는 것이 효자 / 지렁이 아들 / 아들의 간을 넣어 병 구완한 효부 / 불효 며느리와 자식 /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며느리 /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 / 가리도치 중과 김활량 / 호암사의 유래 / 청렴한 황희 정승과 박광대 / 무덤 속의 채번암 / 홍거실족 미녀세말 / 전골의 유래 / 용구무 / 대왕암과 이견대 / 만파식적 / 부엉이집을 만나면 부자 된다 / 정만서의 코 베어 팔기 / 정만서와 그 부인 / 동방삭의 수명 / 이순신 장군의 출생 / 아생무와 불성사 / 고아가 된 남매의 행운, 누이 바꿈 / 청송기담, 아부지 바꿈 / 우목낭상 / 호륜사의 유래

⑤ 내남면의 설화

하늘이 도운 사람 / 부모를 찾은 아이 / 무덤 속에 든 금자 / 되찾은 친석군 살림 / 아들을 찾은 영감 / 며느리가 장모 되고, 시애비가 사위 된 이야기 / 은혜 갚은 처녀 / 오 형제의 내력 / 하늘이 도운 사람 / 남의 터에 장사지낸 이야기 / 착한 원님의 원수를 갚은 아들 / 경주 최씨 마을을 갯모둠 / 칠월 고을 원님과 도둑, 친구, 여자 / 이왕대장의 지혜 / 상 정승과 홍판수 / 삼년뒤에 시집간 처녀 / 아전인 정만서와 원님 / 정만서와 아내 / 정만서와 아들 범이 / 삼대 과부의 아들 병을 고친 의원 / 어정스러운 하인 / 병사가 된 인물 / 도리깨로 범 잡은 사람 / 김유신과 단석산 / 정만서와 가난한 정승 / 정만서와 말 잘하는 여자(1) / 정만서와 말 잘하는 여자(2) / 변소를 샀다고 하는 정만서 / 정만서 “돼지는 맞돈 냈다고” / 신돌석 장군 / 형제장수 / 상전에게 복수를 한 성지 / 사명당이 용을 물리치고 무덤을 쓴 이야기 / 천룡사의 장사 스님 / 김시습 이야기 / 족째비 때문에 원수 갚은 이야기 / 숙종대왕과 복 없는 선비(1) / 숙중대왕과 복 없는 선비(2) / 저승 영감 이야기 / 손병사와 도깨비 / 객구는 양반이고, 손(홍역)은 상놈이다 / 양반 욕보인 하인 / 무식한 형과 유식한 동생 / 무식한 사돈과 유식한 사돈

⑥ 안강읍의 설화

효자동 유래 / 고씨네와 정승 아들 / 서애 대감 / 강도령 장가간 이야기 / 박문수의 구천동 순행 / 창마을이 생긴 유래 / 유금이들의 내력 / 윤태사집 사자생손 / 월성 이씨 망한 내력 / 성지와 남사고 이야기 / 효자동의 유래 / 채번암 이야기 /

산봉우리 끊어 망한 이야기 / 자라목 이야기 / 정만서와 주모 아들 / 정만서와 순라꾼 / 정만서 이야기 / 여자가 개보다 못하다 / 행인과 부인 뱃사공 / 대사와 정승 / 재담으로 평양감사 한 이야기 / 돈 떼먹는 이야기 / 길 가는 여자 농락하기 / 정만서 / 오성과 한음 / 김학봉 생질 장가간 얘기 / 최장군 이야기 / 기이한 호박 / 박문수와 며늘 열둘 가진 사람 /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 풍수 성기 이야기 / 은혜 갚은 개구리 / 창녕 조씨 시조 이야기 / 정만서와 밀장사 / 양주목사 한 시골 선비 / 소지 이야기 / 딸 아홉 낳은 숙맥이 / 장구혈과 북혈 / 시골 사람 과거 보는 얘기 / 즉심이면 감천 / 딸 하나에 신랑 셋(1) / 딸 하나에 신랑 셋(2) / 동태 대신 총각 / 총각이 과부 데려간 이야기 / 효부각의 유래 / 남편의 문둥병 고친 곽씨 / 정만서의 맞돈 / 강감찬 / '드문 총총' 이야기 / 앉은뱅이 며느리 / 삼태 이야기 / 세 정승의 재주 / 복 타러 가는 이야기 / 낳은 불효자와 얻은 효자 / 정승댁에 장가들고 복수하고 / 형제의 우애 / 박문수의 두 수행 / 구년 홍수 팔년 대한 / 칠십에 생남자 / 박문수 이야기(1) / 박문수 이야기(2) / 박문수 이야기(3) / 사주는 못 속인다 / 아들 한 섬 두는 부부 / 쌀 나오는 구멍 / 정에 정도령 / 애기 장수 / 어미는 남이다 / 친구 부인 가로챈 얘기 / 소도둑을 피한 이야기 / 여우가 둔갑한 딸 / 저승 간 구두쇠 / 두꺼비 신랑 / 용두지 유래 / 젖 끊긴 여종과 아들의 복수 / 이정승 아들과 김정승 아들 / 김유신 장군의 신검 / 숙종대왕과 풍수 / 대추로 요기하는 양반 / 복을 타러 간 사람 / 첫날밤에 낳은 달님 아들 / 삼천 갑자 동방삭 / 장자못 다른 이야기 / 남사고

⑦ 동지역의 설화

성부산 / 봉황대 / 김부 대왕이 용이 된 이야기 / 개무덤 / 김유신 이야기 / 박문수와 죽은 정승 / 박문수와 인색한 천석군 / 호랑이 처녀의 죽음 / 박문수와 영리한 아이 / 박문수와 무주 구천동 초씨 / 홍길동이의 행적 / 효불효교 / 혼인 날자 십칠일 / 상객 가서 실수한 이야기 / 신랑이 신부 가마문을 열게된 경위 / 숙종대왕과 하졸 / 옥녀봉 / 용이된 김부대왕 / 선도산 성모 / 금척의 유래 / 정만서와 불효 자식 / 정만서와 과거 보러 가는 동료들 / 정만서와 빨래하는 처녀 / 정만서가 과거한 이야기 / 정만서와 밀장수 / 정만서와 농부 / 정만서와 아들 인경철이 / 거짓말 이야기 / 원님의 명재판 / 칠삭만에 해산한 며느리와 서투른 풍수 / 가난한 사람이 캔 산삼 / 과거 간 시골 선비 / 서투른 풍수와 아이로 변한 부엉이 / 사람을 소로 변하게 하는 노인 / 소로 변한 중 / 박문수와 우복동의 반란 / 박문수와 찾아온 아들 / 이성계의 출생 때문에 살아난 사람 / 궁궐을 지은 무학이 / 숙종대왕이 순행하다가 만난 사람들

(2) 경주의 무가(巫歌) : 감포 별신굿

감포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별신굿을 한다. '3년두리 굿' 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2년을 건너 3년만에 별신굿을 하는 셈이다. 해마다 동제를 2회 지내는데, 음력 6월과 12월에 제사를 지낸다. 별신굿은 6월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파젯날에 시작해서 3일 굿을 한다. 동제를 특히 '제망' 이라고도 했다. 별신굿이라는 명칭도 새마을 운동과 함께 감포 풍어제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나, 주민들과 무당들은 여전히 '별신굿', 또는 '별선' 이라고 한다. 한때 미신이라고 하여 동제만 지내고 별신굿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1975년에 별신굿을 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 해에 해난 사고가 많이 나서 78년도부터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한다.

별신굿을 주관하는 사람은 어촌 계원들과 유자망 업자들이다. 큰 배를 가지고 꽁치를 주로 잡는 유자망 업자들이 경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다음은 어촌 계원들이 경비를 부담하여, 읍내 각 기업체나 유지들이 경비를 보조해 준다. 전에는 동민들이 재산 정도에 따라서 경비를 공동 부담하기도 했으나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1978년도 별신굿에 든 경비는 총 190만 원인데 굿거리 80만 원, 무당들 숙식비가 10만 원, 각 거리마다 무당이 개별적으로 뜯어가는 돈이 합해서 약 40만 원, 그 외에는 제물과 굿청을 마련하는 등 기타 경비가 소요되었다. 굿 값 80만 원은 원심이라고 하여, 무당들과 계약할 때 20만 원, 나머지는 굿을 하는데 따라서 고르지 않다. 이 수입은 굿을 담당한 무당의 몫이 된다. 이 때문에 무당들끼리 시간을 너무 많이 끈다고 서로 다투기도 한다.

감포 별신굿을 담당하는 무당은 김석출, 김재출 형제일가다. 아직 이들이 아닌 다른 무당들이 와서 굿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이 별신굿을 하고 난 뒤에 별로 큰 사고가 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김석출 일행은 약 30명이 된다고 했으나 감포 별신굿에 참여한 남녀 무당은 모두 19명이었다. 주로 부부가 굿에 참여하며 여무(女巫)가 주무(主巫)가 되어 굿을 하면 남무(男巫)가 반주를 한다. 가족이 함께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김재출의 경우는 부인 정채란과 함께 아들 딸이 모두 이 곳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별신굿을 할 때는 한 자리에 모이지만 평소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무업을 한다. 며느리와 사위들도 처음에는 무당이 아니었으나 이들 일가와 관계를 맺고부터 무당이 되었다. 사위 중에는 택시 기사를 하던 사람과 사진업을 하던 사람도 있었으나, 무업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아서 무당이

되었다고 한다.

동제를 지내거나 별신굿을 할 때나 제관을 정해야 되는데 제관이 되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금기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를 자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제관을 정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했다. 옛날에는 제관이 되면 일년 동안 금기를 했으나 최근에는 3개월 간으로 기간을 줄였다가 다시 1개월 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제관이 되면 남의 궂은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고 매일 우물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옛날에는 제삿날이 정해지면 그날부터 제사가 끝나는 날까지 동민들 전체가 금기를 지켜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감포 별신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손님 굿과 거리굿만 소개한다.

1. 부정굿	2. 골매기청좌굿	3. 당맞이굿	4. 성황굿
5. 일월맞이굿	6. 성조굿	7. 군능굿(풍농축굿)	8. 각댁조상굿
9. 산신령굿	10. 토지지신굿	11. 천왕굿(원님놀이굿)	12. 심청굿
13. 황재굿	14. 사해용왕굿	15. 손님굿	16. 놋동이굿
17. 재민굿	18. 걸면굿	19. 꽃노래굿	20. 뱃노래굿
21. 등노래굿	22. 상맞이굿	23. 범굿	24. 거리굿

(3) 경주의 민요(民謠)

① 현곡면의 민요

모내기 노래(1) / 보리타작 노래(1) / 나무하는 노래 / 지신밟기(1) / 쾌지나칭칭 / 모내기 노래(2) / 어사용(1) / 보리타작 노래(2) / 상여소리 / 망깨소리 / 지신밟기(2) / 베틀 노래(1) / 경주 월성 노래 / 경주 처음 생기던 노래 / 자장가 / 인절미 노래 / 징금이 타령 / 회갑 노래 / 권리가 / 어사용(2) / 보리타작 노래(3) / 진주낭군 / 댕기 노래 / 쌍가락지 / 베틀 노래(2) / 시집살이 / 빨래 두드리는 노래 / 어깨동무 노래 / 똥구랑땡 / 칭칭이 / 각서리, 장타령 / 어사용(3) / 지신밟기(3) / 보리타작 노래(4) / 초록 제비

② 외동면의 민요

쌍금쌍금 쌍가락지(1) / 쌍금쌍금 쌍가락지(2) / 베틀 노래(1) / 베틀 노래(2) / 모노래, 모내기 노래 / 논매기 노래 / 방아타령 / 메물 노래, 메밀노래 / 시집살이

노래 / 애기 어르는 노래

담방귀타령, 진주낭군 / 시리굿 노래 / 방아타령 / 댕기노래 / 시집살이 노래 / 베틀 노래(3) / 베틀 노래(4) / 오륜가 / 애기 어르는 노래 / 단가 / 바늘 노래

노인가 / 백구가 / 보리타작 노래 / 지신밟기 / 논매기 노래 / 망깨소리 / 지신밟기, 성주풀이 / 각설이 타령 / 치마 노래 / 지신밟기 / 각설이 타령 / 부채 타령 / 항굴래비 노래 / 진보 청송 조리장사 / 청춘가 / 육자배기 / 경주 고적가 / 단가 / 찔레꽃 노래 / 갈가마구 노래, 어사용 / 명잣으며 부르는 노래 / 권주가 / 화투 노래 / 논매기 노래 / 지신밟기 성주풀이 / 망깨소리 / 초왕가 쾌지나칭칭 / 주연가 / 모숭기 노래 / 호박꽃 노래 / 인생가 / 베틀노래 / 임타령 / 징금이 타령 / 지신밟기 노래 / 초군 노래, 어사용 / 백발가 / 객구 물리기 / 인생가 / 성주풀이 / 산재 / 노인가 / 극락가 / 꽃 노래 / 꽃풀이 / 등 노래

③ 감포읍의 민요

모노래 / 애기 어르는 노래 / 영월정승 노래, 아리랑 / 가래소리 / 지신밟기 / 노인가 / 각설이 타령

④ 내남면의 민요

모내기 노래 / 달 노래 / 나물 노래 / 베틀 노래 / 쌍금쌍금 쌍가락지 / 불매 노래, 애기 어르는 노래 / 메물 노래 / 사랑 노래 / 애기 어르는 노래 / 모 노래 / 덜구 노래 / 상여소리 / 망깨 노래 / 지신밟기

⑤ 동지역의 민요

모내기 노래 / 어사용이

2. 고전 시가문학(古典詩歌文學)

1) 신라시대의 향가문학(鄕歌文學)

⑴ 향가문학의 기록(記錄)

『삼국유사』와 『균여전』의 문헌에서 향가 작품들이 실린 편목(編目)과 작품명, 항목(제목) 등을 책의 게재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삼국유사(三國遺事)

○ 기이(紀異) 제2(권 제2) 1.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효조왕대 죽지랑
2. 헌화가(獻花歌) : 수로부인
3. 안민가(安民歌) :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4.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5. 처용가(處容歌) : 처용랑 망해사
6. 서동요(薯童謠) : 무왕

○ 탑상(塔像) 제4(권 제3) 7. 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歌) : 분황사천수대비 맹아득안

○ 의해(義解) 제5(권 제4) 8. 풍요(風謠) : 양지사석

○ 감통(感通) 제7(권 제5) 9. 원왕생가(願往生歌) : 광덕 엄장
10. 도솔가(兜率歌) : 월명사 도솔가
11. 제망매가(祭亡妹歌) : 월명사 도솔가
12. 혜성가(彗星歌) : 융천사 혜성가 진평왕대

○ 피은(避隱) 제8(권 제5) 13. 원가(怨歌) : 신충괘관
14. 우적가(遇賊歌) : 영재우적

② 균여전(均如傳) 보현십종원왕가(普賢十種願王歌)
제칠가행화세분(第七歌行化世分), 향찰문 향가 11수
제팔역가현덕분(第八譯歌賢德分), 최행귀(崔行歸)의 한역가, 칠언율시 11수

기이(紀異), 탑상(塔像), 의해(義解), 감통(感通), 피은(避隱) 등의 편명을 보면 『삼국유사』가 이야기 중심의 문학 역사서임을 알 수 있고 책이름도 『삼국유사(三國遺事)』라 하여 삼국의 남은 이야기들을 모았음을 말해 준다. 향가 작품 또한 신이(神異)하거나 이상한 일, 하늘과 자연을 감통(感通)한 이야기들에 얽힌 설화와 더불어 아름다운 서정시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균여전에 실린 「보현십종원왕가(普賢十種願王歌)」는 경주 문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시대별 향가 작품

신라의 향가 작품을 세기별, 왕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7세기 진평왕 시대(서기 600년 전후) : 서동요(薯童謠), 혜성가(彗星歌)

○ 7세기 선덕여왕(632~646) : 풍요(風謠)
문무왕(661~680) : 원왕생가(願往生歌)
효조왕(692~701) :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8세기 성덕왕(702~736) : 헌화가(獻花歌)
효성왕(737~741) : 원가(怨歌)(737)
경덕왕(742~765) : 도솔가(兜率歌)(760), 제망매가(祭亡妹歌),
안민가(安民歌)(765),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歌)
원성왕(785~798) : 우적가(遇賊歌)

○ 9세기 헌강왕 5년(879) : 처용가(處容歌)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신라 향가는 6세기에서 9세기까지 300여 년에 걸쳐 창작된 작품들이다. 신라 3대 유리왕 때, 가사가 전하지 않는 「도솔가(兜率歌)」가 있었는데, 이 노래는 차사사뇌격(嗟辭詞腦格)을 가지고 있으며 차가악지시야(此歌樂之始也)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기 경에 향가문학이 태동하여 통일신라인 7 · 8세기에 이르러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유사』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경주를 배경으로 한 시가들인데, 그 중에서 경주와 관련이 다소 멀어 보이는 작품은 「헌화가(獻花歌)」와 「우적가(遇賊歌)」 두 편이다. 성덕왕 때의 「헌화가(獻花歌)」는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길목인 경상도나 강원도의 어느 해변에서 창작되었고, 원성왕 때의 「우적가(遇賊歌)」는 영재스님이 만년에 지리산으로 은거하는 길목 어디에서 도적을 만나 지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들도 경주에서 임용된 관리가 부임하는 노정에서 지었고, 경주에서 살다가 은거하러 가는 승려가 지은 작품이기에 경주의 문학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고 본다.

그리고 최근 위작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랑세기에 실린 미실의 「풍랑가(風浪歌)」를 향가로 보면 남아 있는 최고(560년 경)의 향가 작품이 된다. 사다함이 지었다는 「청조가(靑鳥歌)」는 한역되어 있어 향가라고 단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경주의 향가문학은 미실의 「풍랑가」를 포함하면 15편이라 할 수 있다.

2) 향가 작품과 내용

향가문학은 향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향찰(鄕札)은 한자의 음[音, 소리]과 훈[訓, 뜻]을 차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표기법이다. 경주와 관련된 향가 작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향찰문 및 현대어로의 해독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향찰문에 대한 해독은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한데, 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를 참고하여 필자의 해독을 보태어 현대어로 쉽게 풀이하였다. 그러나 우적가의 해독만은 아직 해독이 불완전하여 우선 양주동 박사의 해독을 현대어로 옮겨 놓았다.

⑴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① 서동요(薯童謠)

善化公主主隱	선화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 몰래 결혼해 두고
薯童房乙	맛동방(맛서방)을
夜矣卯乙抱遣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② 혜성가(彗星歌)

舊理東尸汀叱	옛 동해 물가
乾達婆矣遊烏隱城叱肹良望良古	건달파가 놀던 성을 바라보고
倭理叱軍置來叱多	왜군도 왔다
烽燒邪隱邊也藪耶	봉화 올린 숲이여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세 화랑의 (금강산) 오름을 듣고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矣	달도 부지런히 볼 밝힐 때
道尸掃尸星利望良古	길 쓸 별을 바라보고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혜성이야 사룐 사람이 있다
達阿羅浮去伊叱等邪	달 아래 떠 있더라
此也友物北所音叱彗叱只有叱故	이에 무슨 彗ㅅ기(재앙) 있을까?

③ 풍요(風謠)

來如來如來如	오다 오다 오다
來如哀反多羅	오다 서럽더라
哀反多矣徒良	서럽다 우리들이여
功德修叱如良來如	공덕 닦으러 오다

④ 원왕생가(願往生歌)

月下伊底亦	달하 이제
西方念丁去賜里遣	서방까지 가십니까?
無量壽佛前乃	무량수불전에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일러다가 사뢰고 싶습니다.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다짐 깊으신 부처님께 우러러
兩手集刀花乎白良	두 손 모두어 사뢰어
願往生願往生	원왕생 원왕생
慕人有如白遣賜立	그릴 사람 있다 사뢰고 싶습니다.
阿邪此身遺也置遣	아으, 이 몸 남겨 두고
四十八大願成遣賜去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去隱春皆理米	간봄 다이매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모든 것이야 울 이 슬픔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아름다움 나타내신
皃史年數就音墮支行齊	모습이 세월감에 허물어지는구나
目煙廻於尸七史伊衣	눈 돌릴 사이에
逢烏支惡知作乎下是	만나보기를 어찌 이루리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의 갈 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 밤 있으리.

⑥ 헌화가(獻花歌)

紫 布 岩 乎 邊 希	붉은 바위 가에
執 音 乎 手 母 牛 放 敎 遣	잡은 손의 암소 놓으시고
吾 肹 不 喩 慙 肹 伊 賜 等	나를 안 부끄러워하신다면
花 肹 折 叱 可 獻 乎 理 音 如	꽃을 꺾어 바치오리이다.

⑦ 원가(怨歌)

物 叱 好 支 栢 史	물 좋은 잣나무가
秋 察 尸 不 冬 爾 屋 支 墮 米	가을도 안 시들어짐에
汝 於 多 支 行 齊 敎 因 隱	너 어찌 잊으랴시던
仰 頓 隱 面 矣 改 衣 賜 乎 隱 冬 矣 也	우러러보던 낯빛이 고치실 줄이야
月 羅 理 影 支 古 理 因 淵 之 叱	달 아래 그림자 고인 못에
行 尸 浪 阿 叱 沙 矣 以 支 如 支	일렁이던 물결에 모래 어리듯
皃 史 沙 叱 望 阿 乃	모습이야 바라보나
世 理 都 之 叱 逸 烏 隱 第 也	세상도 갓 숨은 것이야(숨고 싶구나)
(後句 亡)	

⑧ 도솔가(兜率歌)

今 日 此 矣 散 花 唱 良	오늘 이에 산화 불러
巴 寶 白 乎 隱 花 良 汝 隱	뿌린 꽃아 너는
直 等 隱 心 音 矣 命 叱 使 以 惡 只	곧은 마음의 명 받들어
彌 勒 座 主 陪 立 羅 良	미륵부처님 모셔라.

⑨ 제망매가(祭亡妹歌)

生 死 路 隱	죽고 사는 길은
此 矣 有 阿 米 次 肹 伊 遣	여기 있음에 두려워 하고
吾 隱 去 內 如 辭 叱 都	'나는 갑니다' 말도
毛 如 云 遣 去 內 尼 叱 古	못 다 이르고 가는 것입니까?
於 內 秋 察 早 隱 風 未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此 矣 彼 矣 浮 良 落 尸 葉 如	여기 저기 떨어지는 잎 같이
一 等 隱 枝 良 出 古	한 가지에 나고는

去 奴 隱 處 毛 冬 乎 丁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阿 也 彌 陀 刹 良 逢 乎 吾　　아으, 미타찰에서 만날 내
道 修 良 待 是 古 如　　도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⑩ 안민가(安民歌)

君隱父也　　임금은 아비여
臣隱愛賜尸母史也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 할 때
民是愛尸知古如　　백성이 사랑하심을 알 것입니다.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꾸물거리며 살아가는(배가 큰) 중생
此肹喰惡支治良羅　　이들을 먹여 다스려라
此地肹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 할 때
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를 (어떻게) 지킬가를 알 것입니다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⑪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咽鳴爾處米　　울어지침에
露曉邪隱月羅理　　나타난 달이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흰구름 좇아 떠가는 어디쯤
沙是八陵隱汀理也中　　모래 가른 나루터에
耆郎矣皃史是史藪邪　　기랑의 모습같은 숲이여
逸烏川理叱磧惡希　　수모내 조약돌에
郎耶持以支如賜烏隱　　낭이 지니고 계시던
心未際叱肹逐內良齊　　마음의 끝이라도 좇고 싶습니다
阿耶栢史叱枝次高支好　　아으, 잣나무 가지처럼 높아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서리 모르실 화랑이시여.

⑫ 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歌)

膝肹古召旀　　무릎을 고이며
二尸掌音毛乎支內良　　두 손바닥을 모아

千手觀音叱前良中　　천수관음 앞에
祈以支白屋尸置內乎多　　빌어 사뢰옵니다
千隱手□叱千隱目肹　　즈믄(천) 손의 즈믄(천 개의) 눈을
一等下叱放一等肹除惡支　　하나를 놓고 하나를 덜어
二于萬隱吾羅　　둘 없는(감은) 내라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　　하나야 가만히 고쳐주소서
阿邪也吾良遺知支賜尸等焉　　아으, 내게 주신다면
於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놓으시되 쓸 자비야 (얼마나) 클꼬.

⑬ 우적가(遇賊歌)

自矣心米　　제 마음의
皃史毛達只將來呑隱日　　모습을 모르던 날
遠鳥逸□□過出知遣　　멀리 숨어서 지나치다
今呑藪未去遣省如　　이런 숲을 가는구나
但非乎隱焉破□主　　그릇된 파계주(를)
次弗□史內於都還於尸郎也　　두려워 다시금 돌아가리
此兵物叱沙過乎　　이 칼이사 지나면
好尸日沙也內乎呑尼　　좋은 날이 곧 오리라(좋아했더니)
阿耶唯只伊吾音之叱恨隱濕陵隱　　아으, 오직 요만한 선업은
安支尙宅都乎隱以多　　아니 새집 되외니이다.

⑭ 처용가(處容歌)

東京明期月良　　서라벌 밝은 달에
夜入伊遊行如可　　밤들도록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들어와 자리 보니
脚烏伊四是良羅　　가로리(다리가) 넷이구나
二肹隱吾下於叱古　　둘은 내해엇고(내 아내의 다리이고)
二肹隱誰支下焉古　　둘은 뉘해엇고(누구의 다리인가)?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디 나의 것이지마는
奪叱良乙何如爲理古　　빼앗겼으니 어찌하릿고?

⑵『화랑세기(花郎世記)』에 실린 향가

⑮ 풍랑가(風浪歌) : 미실이 사다함의 출정에 앞서 부른 노래

風只吹留如久爲都	바람이 분다고 해도
郎前希吹莫遣	임 앞에 불지 말고
浪只打如久爲都	물결이 친다고 해도
郎前打莫遣	임 앞에 치지 말고
早早歸良來良	빨리 빨리 돌아오라
更逢叱那抱遣見遣	다시 만나 안고 보고
此好郎耶執音乎手乙	아흐, 임이여 잡은 손을
忍麿等尸理良奴	차마 물리려뇨.

3) 가사 부전(歌詞不傳) 작품의 성격

신라시대 시가 문학은 향가 이 외에도 여러 문헌에서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시의 전체적 내용이나 창작 배경만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고, 때로는 한시형태 또는 한문 의역으로 전하기도 한다. 통일신라의 노래들은 지역적으로 경주를 벗어난 것들이 몇 작품 있지만 신라 시가는 모두 경주에서 불렸다고 볼 수 있다. 시가작품 자체가 그대로 전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신라 시가들을 다음의 항목으로 정리해 본다.

○ 치리가계(治理歌系) : 도솔가(兜率歌), 회소곡(會蘇曲), 달도가(怛忉歌), 해가(海歌), 현금포곡(玄琴抱曲), 대도곡(大道曲), 문군곡(問羣曲), 동경(東京)1, 동경(東京)2-안강가(安康歌), 이견대(利見臺), 장한성(長漢城)

○ 화랑, 충신계 : 해론가(奚論歌), 양산가(陽山歌), 실혜가(實兮歌)

○ 원가계(怨歌系) : 물계자가(勿稽子歌), 천관원사(天官怨詞), 치술령곡(鵄述嶺曲), 목주가(木州歌)

○ 불교계(佛敎系) : 산화가(散花歌), 무애가(无导歌), 징성가(澄性歌)
○ 악(樂) : 회악(會樂), 신열악(辛熱樂), 돌아악(突阿樂), 지아악(枝兒樂), 사내

악(思內樂), 가무(笳舞), 우인(竽引), 미지악(美知樂), 도령가(徒領歌), 날현인(捺鉉引), 사내기물악(思內奇物樂), 내지(內知), 백실(白實), 덕사내(德思內), 석남사내(石南思內), 사중(祀中), 한기무(韓岐舞), 소경무(小京舞), 우식악(憂息樂), 대악(碓樂)

○ 동요, 참요 : 모랑가(毛娘歌), 도파요(都破謠), 원산아(完山兒), 비형랑사(鼻荊郎詞), 지귀사(志鬼詞)

○ 순수 서정시 : 번화곡(繁花曲), 앵무곡(鸚鵡曲)

(1) 치리가계(治理歌系)

가사가 전하지 않는 시가의 경우도 국가적인 치리(治理)의 성격을 띤 작품이 많다. 「도솔가」는 "시제도솔가 차가악지시야(始製兜率歌 此歌樂之始也)"라 하여 국가적인 악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회소곡」은 궁중의 화합이나 길쌈의 장려를 위한 궁중악이고, 「달도가」는 소지왕 시절 서출지(書出池) 사금갑(射禁匣) 설화에 나오는 왕비와 분수승(焚修僧)의 불륜을 경계한 노래이다.

「해가」는 성덕왕 시절 순정공의 부인 수로를 해룡이 납치하였으므로 그를 구출하기 위한 노래이며, 국선[國仙 : 화랑]들이 임금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릴 뜻을 시로 지어 대구화상에게 노래로 부르게 한 「현금포곡」, 「대도곡」, 「문군곡」 등이 있다.

『고려사』 악지에 실린 노래로는 신라가 태평하고 정치가 순미(醇美)하여 그를 노래한 「동경1」과 군신(君臣), 부자(父子), 존비(尊卑), 장소(長少), 부부(夫婦) 등에 대한 송도지가(頌禱之歌)인 「동경2(안강가)」가 있고, 신문왕이 대왕암에 장례되어 동해의 호국룡이 된 문무왕을 만났다는 「이견대」, 한강 북쪽의 성을 회복하고 그 공을 기린 「장한성」 등이 있다.

(2) 화랑(花郎), 충신계(忠臣系)

화랑이나 충신계열의 노래에는 「해론가(奚論歌)」, 「양산가(陽山歌)」, 「실혜가(實兮歌)」가 있는데, 「해론가」는 6세기 진평왕 시절 백제와의 가잠성(椵岑城)

전투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곳에서 아들 해론 또한 전사함으로써 그를 애도한 장가(長歌)이며, 「양산가」는 나물왕의 8세손인 김흠운(金歆運)이 양산 아래 백제와의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였는데 더불어 전사한 예파(穢破), 보용나(寶用那), 적득(狄得) 등을 애도하여 지은 노래이고, 「실혜가」는 진평왕 시절 모함을 받아 죽령 밖으로 쫓겨났으나 불평을 하지 않고 충성된 마음을 표현한 장가이다.

(3) 원가계(怨歌系)

신충의 향가인 「원가(怨歌)」와 유사한 서정으로 세상이나 왕 또는 개인을 원망한 계통의 노래들로는 「물계자가」, 「천관원사」, 「치술령곡」, 「목주가」 등이 있어 이들을 별도로 묶어 보았다.

국가적인 충신이나 세상이 알아 주지 않자 그를 원망한 노래로는 나물왕 시절 두 번이나 전공을 세우고도 왕자와 왕이 상을 주지 않음을 비관하여 사체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물계자가」가 있다.

여인들에 의해 지어진 원망의 노래로는 신분의 차이로 김유신과 인연을 맺지 못한 천관녀(天官女)의 슬픔을 노래한 「천관원사」, 박제상의 부인이 남편을 그리는 애틋한 심정을 읊은 「치술령곡」, 계모 밑에서 자라며 효성을 다해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자 그를 원망한 「목주가」가 있다.

(4) 불교계(佛敎系)

불교 계통의 노래로는 「도솔가」와는 다르나 가사가 번다하여 기록하지 않았다는 「산화가」, 소승거사라 자칭한 원효가 바가지를 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체무애인(一切无导人)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라는 화엄사상을 가르친 「무애가」, 원효의 깨달음의 노래인 「징성가」 등이 있다.

(5) 악(樂)

가사가 전하지 않는 신라 시가로 악(樂)이라 이름 붙은 작품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궁중이나 특정 지역의 집단악으로 짐작되며 이 속에 '무(舞)'나 '인(引)'으로 기록된 악곡도 포함 시켰다.

『삼국사기』 권 제 32권, 「잡지일, 악(雜志一, 樂)」에 이름만 전하는 「회악」, 「신열악」(유리왕), 「돌아악」(탈해왕), 「지아악」(파사왕), 「사내악」(나해왕), 「가무」(나물왕), 「우인」[지증왕대 천상욱개자(川上郁皆子) 작], 「미지악」(법흥왕), 「도령가」(진흥왕), 「날현인」[진평왕대 담수(淡水) 작], 「사내기물악」(원랑도 작), 「내지」(일상군), 「백실」(압량군), 「덕사내」(하서군), 「석남사내」(도동벌), 「사중」(북외군), 「한기무」, 「소경무」 등이 있다.

시의 전체적 내용만 전하는 악(樂)으로는 눌지왕의 아우로 고구려에 볼모로 간 복호(卜好)와 일본에 볼모로 간 미사흔(未斯欣)을 만나 그 기쁨을 왕이 직접 지었다고 한 「우식악」과 백결(百結)선생은 집이 가난하여 아내가 떡방아를 찧지 못함을 한탄하자 방아소리를 담아 지었다는 「대악」이 있다.

(6) 동요, 참요, 주술요

동요로는 「모낭가」가 있고 참요에는 「도파요」, 「완산아」, 주술적인 노래에는 「비형랑사」, 「지귀사」 등이 있다.

진흥왕 때 원화(原花)인 교정랑이 남모랑을 질투하여 죽여서 북천에 버린 사건을 아이들에게 노래하게 하여 진실을 밝혀낸 「모랑가」, 헌강왕 때 신라가 망할 줄을 알아 지식인들이 모두 도망가 도시가 망하리라는 참요인 「도파요」, 후백제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구금될 것을 아이들에게 노래하게 한 참요적인 「완산아」, 도화녀와 사륜왕 사이에서 태어난 비형랑이 귀신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자 귀신을 물리치는 주술로 사용된 「비형랑사」, 선덕왕을 사모하던 지귀(志鬼)가 죽어 그 심화(心火)가 불귀신이 되어 화재를 일으키므로 술사(術士)에게 주문을 짓게 한 것으로 화재진압에 사용된 「지귀사」가 있다.

(7) 순수 서정시

순수한 서정시로는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미인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번화곡」이 있는데 이는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에 비길만큼 슬픈 노래였다고 하니 서정시가로 볼 수 있고, 흥덕왕이 왕비가 타계하자 짝 잃은 앵무새를 보고 그 외로움을 노래했다고 한 「앵무곡」 또한 순수한 서정 시가임에 틀림없다.

4) 조선시대의 가사 문학(歌辭文學)

⑴「독락당(獨樂堂)」

노계(盧溪) 박인로(朴仁老)의 작품, 1619년(광해군 11년) 작. 경주 안강읍 옥산서원에서 선현(先賢)인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모습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가사, 늙은 몸으로 독락당을 찾아가 회재선생의 모습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중국의 사적들과 비교하며, 회재의 유훈(遺訓)을 길이 받들 것을 권면한 내용이다.

○ 박인로(朴仁老) : 자는 덕옹(德翁), 호는 노계(蘆溪), 1561~1642, 명종 16년 경북 영천군에서 태어나 임진란에 수병(水兵)으로 종군, 1599년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조라포만호(助羅浦萬戶)에 이름, 노계집에 가사 7편과 시조 60수가 전함.

○ 가사 작품 :「독락당(獨樂堂)」가사의 앞 부분과 뒷 부분만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자옥산(紫玉山) 명승지예 / 독락당이 소쇄함을
들은 지 오래로되 / 이몸이 무부(武夫)로서
해변사(海邊事) 공극(孔棘)거늘 / 일편단심(一片丹心)에
분의(奮義)를 못내하야 / 금창(金鎗) 철마(鐵馬)로
여가(餘暇)없시 분주타가 / 중심경앙(中心景仰)이
백수(白首)에 더욱 깊어 /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오날사 차자오니 / 봉만(峰巒)은 수려하야
무이산(武夷山)이 되어 있고 / 유수(流水)는 반회(盤回)하야
후이천(後伊川)이 되었는가?
일 천년 신라와 / 오백재(五百載) 고려에
현인(賢人) 군자들이 / 많이도 지낸마는
천간(天慳) 지비(地秘)하야 / 아선생(我先生)께 기치도다

… 중략 …

선생 유화(遺化) / 지극함이 엇더하뇨

차재(嗟哉) 후생들아 추앙(趨仰)을 더욱 높혀
만세(萬世) 천추(千秋)에 산두(山斗)같이 바래사라
천고(天高) 지후(地厚)도 유시진(有時盡)하려니와
독락당(獨樂堂) 청풍(淸風)은 가없을까 하노라.

『노계집』

(2) 동학가사(東學歌辭)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가 지은 『용담유사(龍潭遺詞)』에는 9편의 동학가사가 실려 있고, 현재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에는 동학의 발생지인 용담정과 수운 생가터 및 유허비 등의 자취들이 남아 있다.

수운의 가사는 4.4조를 주음수율로 사용하였는데, 「용담가」와 「몽중노소문답가」는 자신의 생애를 은유적으로 표시하였고, 「안심가」는 자기 아내와 부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작품이고, 「교훈가」는 자식과 조카들을 교훈한 내용이며, 「권학가」, 「도덕가」, 「도수가」, 「흥비가」 등은 제자들을 계몽하기 위한 작품이고, 「검결」은 천재일우의 때를 노래한 것인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낸 가사문학대계 동학가사(상주본)에는 8편 작품의 구수(句數)와 창작 연대, 구성된 장수(章數)를 기록하고 있는데, 1구는 4음보 1행을 의미하므로 구를 행으로 바꾸고, 「검결」을 넣어 9편 가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용담가(龍潭歌)」: 룡담가, 72행, 경신, 4장, 수운이 태어나서 득도하게 된 용담의 아름다움과 득도의 기쁨을 노래

○ 「교훈가(敎訓歌)」: 227행, 경신, 10장, 객지에서 자질(子姪)과 교도(敎徒) 및 제자들에게 수도를 권면한 노래

○ 「안심가(安心歌)」: 145행, 경신, 7장, 득도 후 세상의 모함이 심하여 사회적, 종교적으로 불안해 하는 부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은 가사

○ 「도수가(道修歌)」: 도슈ᄉᆞ, 100행, 신유, 5장, 타의로 고향을 떠난 수운이 제자들에게 정심수도(正心修道)하기를 당부한 가사

○ 「권학가(勸學歌)」: 140행, 임슐, 5장, 성경이자(誠敬二字)를 잘 지켜서 부지런히 수도할 것을 가르친 가사

○ 「도덕가(道德歌)」: 68행, 임슐, 3장, 성리학에 입각한 도덕, 마음 공부를 권유한 가사

○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몽즁료쇼문답가, 86행, 신유, 4장, 꿈 속에서 신선과 소년의 문답을 통해 동학의 깨달음과 자기 생애를 노래한 가사

○ 「흥비가(興比歌)」: 93행, 계히, 4장, 중도에서 그만 두지 말고 끝까지 수도하기를 권면한 풍유적 교훈적 가사

○ 「검결(劍訣)」: 10행, 「용천리검가(龍泉利劍歌)」라고도 하며, 만세에 하나뿐인 때를 당하여 용천검을 휘두르면서 서구 세력에 항전할 것을 촉구한 짧은 가사

경주의 용담정과 득도(得道)를 노래한 「용담가」 앞 부분 및 짧은 「검결」작품을 현대어로 옮긴다.

「용담가(龍潭歌)」

국호는 조선이요 읍호는 경주로다
성호(城號)는 월성(月城)이요 수명(水名)은 문수(汶水)로다
기자 때 왕도로서 일천 년 아닐런가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新府)로다
아 동방 생긴후에 이런 왕도 또 있는가
수세(水勢)도 좋거니와 산기(山氣)도 좋을시고
금오는 남산이요 구미는 서산이라
봉황대 높은 봉은 봉거대공(鳳去臺空) 하여 있고
첨성대 높은 탑은 월성을 지켜있고
청옥적(靑玉笛) 황옥적(黃玉笛)은 자웅(雌雄)으로 지켜 있고
일천 년 신라국은 소리를 지켜내네

어화 세상 사람들아 이런 승지(勝地) 구경하소
동읍삼산(東邑三山) 볼작시면 신선(神仙)없기 괴이하다
서읍 주산(西邑主山) 있었으니 추로지풍(鄒魯之風) 없을소냐
어화 세상 사람들아 고도 강산(古都江山) 구경하소
인걸은 지령(地靈)이라 명현달사(名賢達士) 아니날까
하물며 구미산은 동도지(東都之) 주산(主山)일세
곤륜산 일지맥(一支脈)은 중화로 벌려 있고
아 동방 구미산은 소중화 생겼구나
어화 세상 사람들아 나도 또한 출세 후에
고도 강산(古都江山) 지켜내어 세세유전(世世流轉) 아닐런가(이하 생략)

「검결(劍訣)」

시호 시호(時乎時乎) 이내 시호 부재래지(不再來之) 시호로다
만세일지(萬歲一旨) 장부로서 오만년지(五萬年之) 시호로다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無袖長衫) 떨쳐 입고 이칼 저칼 넌짓 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一身)으로 비겨 서서
칼노래 한 곡조를 시호 시호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日月)을 희롱하고
기을(氣乙)은 무수 장삼 우주에 덮여 있네
자고 명장(自古名將) 어디 있나 장부당전(丈夫當前) 무장사(無壯士)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身命) 좋을시고(전문)

『용담유사』

5) 조선시대의 시조문학(時調文學)

고려시대 한글 시가(고려속요)나 조선시대의 한글 시조문학 중에서 경주와 관련된 작품은 찾기가 쉽지 않다. 김시습과 이언적의 시조가 각 1수씩 전하고 있을 뿐이다. 금오신화의 작가인 김시습의 시조로 전하는 2수 중 1수는 이현보의 작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시조의 내용은 경주와는 관련이 없고 유학의 정신인 인의(仁義)나 효(孝)를 선양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고려시대 한글 시가인 고려속악이나 조선시대의 한글 문학인 시조 장르 중 경주와 관련된 작품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은 이 곳이 신라 때부터 불교가 뿌리 깊은 지역이고, 고려 속악은 궁중의 잔치에 사용된 노래들이고, 시조와 가사 문학은 유학자들의 문학이요, 중앙 관료사회에서 유행하던 장르였기 때문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부녀자들에 의한 내방 가사는 꽤 많은 양의 작품이 전하고 있다.

⑴ 김시습(金時習)의 시조

맹자(孟子) 견양혜왕(見梁惠王)ᄒᆞ신ᄃᆡ 첫 말ᄉᆞᆷ에 인의(仁義)로다
주문공(朱文公) 주의(註義)에 긔 더욱 성의정심(聖意正心)
우리ᄂᆞᆫ 성주(聖主) 뫼와시니 알외 말ᄉᆞᆷ 업ᄉᆡ라

(출전 : 『동가선(東歌選)』)

⑵ 이언적(李彦迪)의 시조

천부지재(天覆地載)ᄒᆞ니 만물(萬物)의 부모(父母)로다
부생모육(父生母育)ᄒᆞ니 이 나의 천지(天地)로다
이 천지(天地) 저 천지(天地) 즈음에 늙을 뉘를 모르리라

(출전: 『청구영언』, 『동가선』)

3. 경주 지역의 현대 시문학(現代詩文學)

1) 개설(槪說)

과거 경주 지역의 시문학은 한국문학사에서 그 중심자리를 지켜왔는데, 신라 때 사뇌가(詞腦歌)라고 말하는 향가(鄕歌)가 곧 그것이다. 즉 한국 고대 시문학의 중심부에 경주의 시문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 ·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 경주의 시문학은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 경주의 시문학은 말 그대로 지역 시문학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원인은 행정 중심이 서울로 옮겨가면서 모든 문화적 현상이 중앙인 서울로 집중된 현상에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한국의 현대 시문학의 시작은 20세기가 시작된 시기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다. 20세기 초 신체시 시기를 거쳐 1920년대부터 현대 시문학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경주지역의 현대 시문학은 그 태동기를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33년 박목월(朴木月)의 동시가 『어린이』 잡지에 특선되고 이어 1939년에는 시가 『문장지(文章誌)』에 추천되었고 1934년에는 김동리(金東里)가 조선일보신춘문예에 시가 입선된 것을 계기로 하여 경주 지역의 현대 시문학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후 1940년대에 8 · 15 해방을 맞이했고 사회적 혼란을 거치는 와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까지 신인 등단은 전무했다.

195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전쟁은 우리 사회에 혼란과 변화를 많이 가져다 줬다. 수많은 인명의 희생과 재산의 파괴를 당했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생명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했다. 이 시기에 잠시 직장 관계로 경주에 머물렀던 청마(靑馬) 유치환(柳致環) 시인과 고무신(古無新) 박종우(朴鍾禹) 시인,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인 김해석(金海錫) 등이 중심이 되어 청맥문학동인회(靑麥文學同人會)가 결성된 것을 계기로 하여 잠잠했던 경주지역 시문학이 다시 눈을 뜨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문단에 등단한 시인은 김해석(金海錫), 남구봉[南九峰. 본명 기진(基鎭)], 정연길(鄭淵吉) 등이다.

1960년대 경주지역의 현대 시문학은 터를 잡고 일어서는 형성기로 접어들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문단에 등단한 시인은 전재동(全在東), 김월준(金月埈), 허동인(許東仁), 정연해(鄭淵海), 정민호(鄭旼浩), 박주일(朴柱逸) 등이다.

1970년대의 이 지역 현대 시문학은 60년대에 비하여 더 많은 시인이 문단에 등단하게 되었고, 양적 · 질적면에서 성장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문단에 등단한 시인으로는 박상륜(朴相綸), 이근식(李根植), 서영수(徐英洙), 박윤기(朴潤基), 권택명(權宅明), 이경록(李炅錄), 박곤걸(朴坤杰), 이승길(李承吉), 조동화(曺東和), 설성희(薛盛羲), 이일승(李一承) 등이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주지역의 현대 시문학은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로 이어져 발전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 때 문단에 등단한 시인은 김기문(金基汶), 석병호(昔柄浩), 장식환(蔣湜煥), 이희목(李熙穆), 김종섭(金鍾燮), 손원조(孫源祚) 등이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 지역의 현대 시문학이 발전 · 성숙한 단계로 진전하면서 장르별 또는 동인 활동으로 분화되어 간 시기로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을 이룬 성숙 · 분화한 번성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등단한 시인은 윤기일(尹淇一), 박주오(朴柱午), 황능곤(黃能坤) 등 30여 명이 된다.

경주 지역의 현대 시문학이 태동 · 성장 · 발전기를 거쳐 성숙 · 분화하여 번성의 단계까지 이르게 한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많은 시인이 등단하여 질적 · 양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며, 둘째는 80년대 초부터 발간한 『경주문학』을 통하여 작품 발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세 번째는 각종 백일장 및 신라문학대상 공모 그리고 시화전시회와 각종 예술 행사는 이 지역의 시문학 발전에 직 · 간접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경주 출신으로 활동한 시인들은 50~60년대의 청마 유치환, 고무신 박종우, 김윤식이 있으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해 오는 작가는 전문수, 김록촌, 이오덕, 박해수, 구석본이 있다. 이후 등단하여 현재까지 활동하는 작가는 다음과 같다.

김해석(金海錫), 남구봉(南九峰), 전재동(全在東), 김월준(金月埈), 정연해(鄭淵海), 허동인(許東仁), 정민호(鄭旼浩), 박주일(朴柱逸), 박상륜(朴相綸), 이근식(李根植), 서영수(徐英洙), 박윤기(朴潤基), 권택명(權宅明), 박곤걸(朴坤杰), 이승길(李承吉), 조동화(曺東和), 이일승(李一承), 김기문(金基汶), 장식환(將湜煥), 이희목(李熙穆), 김종섭(金鐘燮), 손원상(孫源祥), 윤기일(尹淇一), 황능곤(黃能坤), 박주오(朴柱午), 김홍주(金弘柱), 김명석(金明錫), 김대원(金大元), 조관제(趙寬濟), 조광식(曺光植), 오민필(吳珉弼), 조순호(曺順鎬), 정구찬(鄭求贊), 진용숙(陳龍淑), 송덕수(宋德壽), 권혁주(權赫珠), 최상문(崔相文), 이종림(李鍾琳), 노종래(盧鍾來), 김옥정(金玉井), 이상도(李相道), 황영선(黃英先), 김일용(金溢鎔), 윤무숙(尹戊琡), 조희군(曺喜軍), 최해암(崔海岩), 이용우(李用雨), 이근창(李根昌), 백점례(白點禮), 최해춘(崔海春)

1990년대 이후 타 지역 출신으로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은 조신호(曺信鎬), 후동, 최상고, 유자근, 김이대(金利大), 신부식, 이철현, 조종래, 김민정, 최상환, 김귀현, 구영숙, 박대영, 유미경 등 제씨가 있다.

2) 작가별 소개

(1) 박목월(朴木月 ; 1916~1978)

시인 본명은 영종(泳鍾)이다. 건천읍 모량리에서 출생하였다.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靑鹿派) 시인의 한 사람이다. 건천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갔다가 귀국하여 경주 동부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했다. 8 · 15 해방 후 계성중학교, 홍익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다가 1962년부터 한양대학교 교수 동대학 문리대학장, 문총중앙위원, 한국문학가협회중앙위원, 예술원회원, 한국시인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때 잡지 『아동』(1946년), 『동화』(1947년), 『시문학』(1950년) 등을 편집 간행했고, 1973년 시전문지 『심상(心象)』을 간행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933년 『어린이』 잡지에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특선되고 같은해 동요 「제비맞이」가 『신가정(新家庭)』 잡지에 당선된 후 많은 동시를 써서 동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1939년 「길처럼」, 「그것은 연륜이다」, 「산그늘」과 그 이듬해 「가을 으스름」, 「연륜(年輪)」 등이 정지용(鄭芝溶)에 의해 『문장지』에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이 무렵의 시는 동심의 소박성, 민요풍, 향토성 등이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와 교감을 이룬 짧은 서정시를 계속 발표하여 특유한 전통적 시풍을 이루었다. 그의 출현은 북쪽은 '소월(素月)' 남쪽은 '목월(木月)'이라는 말을 낳게 했다. 1946년 조지훈(趙芝薰), 박두진(朴斗鎭) 등과 삼인시집 『청록집(靑鹿集)』을 간행하여 해방 시단의 가장 큰 수확이 되었고 청록파라 했다.

저서로는 『청록집(靑鹿集)』(1946년 공저), 『산도화(山桃花)』(1954년), 『난(蘭), 기타(其他)』(1959년), 『청담(晴曇)』(1964년), 『경상도의 가랑잎』(1968년), 『구름에 달 가듯이, 101편의 시』(1975년), 『박목월(朴木月)시선』(1975년), 『무순(無順)』(1976년), 사후 시집으로는 『내 영혼의 숲에 내리는 별빛』(1981년), 『박목월시전집(朴木月詩全集)』(1984년), 수필집으로는 『구름의 서정』(1956년), 『토요일 밤하늘』(1958년), 『행복의 얼굴』(1964년), 『여인의 서(書)』(1969년) 등이 있으며, 자작시 해설로서 그의 시작 방법과 시세계를 알 수 있는 『보라빛 소묘』(1959년)가 있다.

한국전쟁을 겪은 1950년대 이후부터는 소박하고 담담한 생활사상을 그려나가 현실성이 가미된 변모를 보이면서 초기 시풍과는 다른 현실성이 짙었다. 이런 변모는 시집 『난(蘭), 기타(其他)』, 『청담(晴曇)』 등에서도 느낄 수 있다. 1960년 시집 『경상도(慶尙道)의 가랑잎』 이후부터는 생활 주변에서 조국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로 심화 학대된 경지와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사념적 관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작시 「사력질(砂礫質)」 등에서 그러한 특색을 보여주었다.

1954년 '아시아자유문학상', 1968년 '대한민국문예상', 1969년 '서울시예술상', 1972년 '국민훈장모란장' 등을 수상했다. 그의 10주기를 맞아 유작 시 110편이 미망인 유익순 여사에 의해 공개된 바 있고 1986년 4월 그의 시 150편이 발굴되기도 했다.

(2) 김동리(金東里 ; 1913~1995)

본명은 시종(始鍾), 호적명은 창귀(昌貴)이다. 성건동 출생이고 김임수(金壬守)의 5남매 중 3남이고 백형은 동양철학자 김범부(金凡父)이다. 경주제일교회 부설인 계남학교(啓南學校)를 졸업하고 대구 계성중학교(啓聖中學校) 2년 수료 후 상경하여 경신고보(儆新高普) 3학년에 편입한 후 4학년에서 중퇴하고 귀향(1929년)했다.

이후 경주에서 박목월과 사귀면서 4년 동안 세계 문학을 섭렵하고 1933년 다시 상경하여 서정주와 교우했으며, 193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백로(白鷺)」가, 『카톨릭청년』10호(1934년)에 「고목(古木)」이, 『카톨릭청년』13호(1934년)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문단에 등단했다.

단편 「화랑의 후예」가 193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상금을 받고 작품을 쓰기 위하여 하동 다솔사(多率寺)로 들어갔다(1935년). 이해 여름 다시 해인사(海印寺)로 옮겼다. 이 무렵 이주홍, 조연현, 최인욱 등과 교우했으며, 이 때 쓴 작품 「산화(山火)」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재차 당선되어 작가적 위치가 굳어졌다.

그후 한때 상경하여 「무녀도」(1936), 「바위」(1936년) 등 단편을 발표했으나 곧 다솔사로 들어가 창작의 여가에 야학을 설립하여 후에 광명학원(光明學院)이라는 사립학원으로 발전시켰다. 1940년까지 작품을 많이 발표했으나 일본의 어용문학단체인 문인보국회(文人報國會) 가입을 거절한 결과 광명학원마저 강제 폐쇄 당하자 만주 등지를 방황하다가 경남 사천(泗川)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후 상경하여 좌우 투쟁의 와중에서 민족 진영의 문학인을 대표하는 서정주, 김달진, 박두진, 조연현, 곽종원, 박목월, 조지훈 등과 한국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하고 그 초대회장에 피선되었다. 한편 좌익 문학인과의 이론 투쟁에도 선봉에 서서「순수문학진의」, 「문학과 자유의 옹호」, 「본격 문학과 제3세계」, 「민족문학론」 등의 평론을 발표하여 민족 진영 문학인을 주도했다.

언론계에 투신하여 경향신문 문화부장, 민국일보 편집국장, 문예지(文藝誌) 주간 등을 지냈다. 한국문학가협회를 창립하여 동소설분과위원장, 문교부예술위원, 서울시 문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문총구국대 부대장, 문총사무국장, 한국문학가협회부위원장(1952년), 한국문학가협회 대표위원(1959년), 유네스코위원(1957년), 서라벌예술대학장(1972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장(1973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1981년), 국정자문위원(1985년) 등의 요직을 맡았으며, 한국문인협회이사장, 한국 소설가협회 상임대표, 월간 『한국문학』(1973년 창간) 발행인 등을 역임했다.

그가 소설가로 더욱 알려져 있지만 시인으로서 그의 위치도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시인으로서 문단에 등단했고, 그후에도 시 「젊은 미국의 깃발」, 「동리시초(詩抄)」, 「그대의 눈」 외 1편, 「연(蓮)」 등을 『문예』, 『현대문학』 등의 문예지에 발표했으며 그의 시는 동양적 세계의 진수에 투철한 서정시로서 평가되며 시인으로서도 일가를 이룬 대가이다. 시집으로는 『바위』(1973년), 『패랭이꽃』(1983년) 등이 있다.

(3) 정연길(鄭淵吉 ; 1928~1999)

안강읍 출생의 시인이다. 연세대학교, 및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립농대, 서울산업대, 한양대, 홍익대, 중앙대, 외국어대 등의 강사를 역임했고 한성대 교수로 재직했다.

1954년부터 '청맥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시 「소녀상(少女像)」등을 발표했고 1959년 시집 『시인(詩人)과 시민(市民)들의 대화 시간(對話時間)』으로 등단 이후 1971년에는 시집 『어느 하늘 아랜들』을 출간했고, 1984년에는 시선집 『한(恨)』을 출판했다.

그의 대표 시는 「온실」, 「기상통보」, 「겨울일기」, 「지도」 등이고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의 회원이고 화백문학(和白文學) 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작품 경향은 지성인의 고뇌와 꿈을 실현하려는 내면의 의지를 동양적 정서의 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시는 곧 애정이라는 신념으로 소박하면서도 고고하고 담담한 시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4) 이경록(李炅錄 ; 1948~1977년)

강동면에서 출생하였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73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시 「달팽이」가 당선되었고, 1974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 「두 개의 방법」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1977년 중앙대학교 예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에 백혈병으로 타계했다.

그의 동료들에 의해 출간된 추모 시집으로 『이 식물원을 위하여』(1979년)와 『그대 나를 위해 쉼표가 되어 다오』(1992년)가 있다. '자유시' 동인으로 활동했고, 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각종 백일장 및 시 현상 공모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의 작품 경향은 생의 고뇌보다 더한 초극의지를 지니고 절명을 의식하고서도

시의 실현을 위해 강인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매운 격정을 안고 시대의 오탁과 독소의 수렁으로 돌진하는 시 정신을 지니고 있다. 현대라는 상황이 취하고 있는 식물적 변화에 꾸짖음을 서슴치 않는 선각적 지성을 그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사물의 속성이 침식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상과 자아와의 접근을 단축시켜 작품과 인격과의 통합을 보여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5) 설성희(薛盛羲 ; 1937~1990)

대구 출생의 시인이다. 경북대학교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시문학』에 시 「한로(寒露)」, 「도계장(屠鷄場)」이 천료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한국현대시인협회 중앙위원, 한국예총경북지회 부지회장,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월성중학교 교감으로 다년 간 재직 중 타계했다.

대표적인 시로는 「가을날」, 「낮달」, 「돋보기를 처음 끼고」 등이 있다. 그의 작품경향은 전통적 순수서정을 절제된 언어와 예리한 감성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고도의 간결미를 지닌 함축성과 정결한 이미지에 의한 동양적 정관(靜觀)의 깊이를 보여 주는 것이 특징이다.

(6) 석병호(昔柄浩 ; 1934~2004)

포항 출생의 시인이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시문학』에 시 「새」, 「아내」가 천료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건천 무산 중 · 고등학교 교감, 청송여자종합고등학교 교감 등을 역임했고,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글문학회 회원이다. 한국시문회 이사, 청송문인협회 부지부장, 한국예총경북지회 이사, 청송문협 고문, 경주문협 부지부장 및 감사 등을 역임했다. 제36회 경상북도문화상 문학부문(1995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고, 동해남부시동인으로 활동했다.

대표 시로 「별 이야기」, 「깨어 있는 잠」(연작시)이 있고 시집으로는 『낮잠속 얼굴』(1992년), 『한 뼘 남아 있는 햇살』(1993년), 『이 절망의 늪에서』(1995년), 『징금 다리의 세월』(1995년), 『깨어 있는 잠』(1999년) 등이 있다.

그의 작품경향은 시를 통하여 인간 존재 탐구를 꾀하면서 관념적 사변이나 췌사(贅辭)를 극복하고 높은 단계의 서정시를 지향하면서 형상화한 형이상학적 진실을 감성을 통해 투명한 언어와 절제된 형식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

다. 후기에 와서는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절감하고 허무와 고독, 그리고 비애를 통해 무한 자유를 향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그의 시의 특징이다.

(7) 김두조(金斗祚 ; 1930~2004)

울산 출생으로 일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종합학교 졸업 후 군에 복무하다가 군장교로 퇴직했다. 『시와 의식』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현대시인협회 등의 회원, 한국자유시인협회 경북지회장을 역임했고, 경주시문화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세월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1980년), 『바람과 안개 그리고 태양과 별빛 얘기』(1988년), 『기도하는 연가』(1989년), 『모래톱의 발자국』(1996년) 등이 있다.

4. 현대소설(現代小說)

1) 개설(槪說)

문학의 구체적인 실체는 작품이다. 작품은 작가에 의해 창조되고, 창조된 작품이 모여 작가의 문학 세계를 구성한다. 작가들의 문학 세계를 통시적(通時的)으로 조망하고, 그들의 작품을 해명하고 이해하여 성취도를 가늠하면서 통시적인 틀 속에 그 위상을 정립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문학사의 일차적인 목표다. 작가의 삶을 성찰하는 것은 보다 올바른 작품 이해와 그 평가를 위해서다.

작가를 떠나서 작품이 있을 수 없다. 작가가 살았던 자취를 살피고, 그들의 작품과 그 연보를 소상하게 밝히는 일도 작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작가의 이해를 통해 작품의 온전한 해석과 평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그 작가가 태어났거나 살아온 자연적 환경이나 경험적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품이 아무리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에 의한 허구의 소산이라고 해도 창조적 상상력과 허구를 떠받치고 있는 바닥에는 작가의 환경적 요인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나칠 수는 없다.

경주에서 태어났거나, 유 · 소년기를 경주에서 성장했거나, 실제로 경주에서 오랜 기간 삶을 영위하면서 생활한 작가들에게 있어 경주는 그들 작품의 바탕을 형성하는 터전이 되었을 것임을 이러한 논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작가들이 한국 문학의 단위 문학인 '경주문학'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경주문학'은 한국문학사에서 중심자리를 지켜온 과거를 가지고 있다. 사뇌가(詞腦歌)로 말할 수 있는 향가의 작가들인 충담, 월명, 득오 등과 원효, 설총, 최치원, 김부식, 김시습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업적을 가진 한국고대문학의 중심부에 경주문학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를 넘어 근 · 현대에 이르러 경주문학은 한국문학사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 소위 단위문학인 지역 문학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 중요한 원인은 행정의 중심이 서울로 옮겨가면서 모든 문화적 현상이 중앙 지역인 서울로 집중된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앙 집중 현상이 있었다고 해도 경주에서 자신의 환경적 요인이 형성된 작가에게 있어 경주는 작품의 원천적인 근원으로 작품 속에 어떤 형태로든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학의 단위 문학으로서의 경주문학은 주변부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한국의 근 · 현대문학의 시작은 20세기가 임박한 '신문학'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한국 '신문학' 시기 이후부터 경주와 관련한 소설 문학가는 김동리, 이기현, 이종환, 성학원, 양문길 등을 헤아릴 수 있다.

김동리와 이기현, 그리고 이종환은 경주에서 보통학교(초등학교)를 수학했고, 성학원은 15여 년을 경주에서 생활하다 경주에서 타계한 작가다. 양문길은 경주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경주에서 생활하고, 소설가로 활동한 역량 있는 작가이다.

이기현은 『조광(朝光)』지의 현상문예 단편 「태(苔)」가 당선된 이후에는 쓴 작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묻혀버린 작가는 영화와 시나리오 등과 경주에 예술학교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의 문화 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경주 출신 혹은 경주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김성홍, 유만상, 이채형, 김경남, 김봉환, 이경만, 김건일 등의 제씨가 있다.

2) 작가(作家)

⑴ 김동리(金東里 ; 1913~1995)

김동리의 작가적 생애는 경주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할 만큼 경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이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녀도」, 「황토기」, 「선도산」, 「허덜풀네」, 「유혼설」, 「을화」, 「산화」, 「까치소리」, 「바위」, 「달」 등과 역사소설 「회소곡」, 「기파랑」, 「최치원」, 「수로부인」, 「김양(金陽)」, 「왕 거인(王巨人)」, 「강수선생(强首先生)」, 「눌지왕자」, 「원화」, 「우륵」, 「이우랑」, 「장보고」, 「양화(良禾)」, 「석탈해」, 「호원사기(虎願寺記)」, 「원왕생가」, 「아도(阿道)」, 「대왕암(大王岩)」, 「솔거(率居)」 등 30여 편이 경주와 관련된 작품들이다.

김동리 문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 세계와 기독교, 불교 등의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종교적 세계도 경주를 토대로 해서 작품화된 것이다.

1913년 음력 11월 24일 성건동 186번지에서 아버지 김임수(金壬守)와 어머니 허임순(許任順)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동리의 호적명은 창귀(昌貴), 자(字)는 시종(始鍾)으로 되어 있다.

김동리는 1920년 제일교회가 세운 계남학교에 입학하여 그 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기독교계 학교인 대구 계성중학교에 입학하여 2년 간의 수학 과정을 거친 후, 1928년 서울의 미션 스쿨인 경신중학교 3학년에 편입학한다. 그것은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믿어진다.

계남학교와 계성중학교, 경신중학교의 신앙 교육은 김동리에게 기독교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여, 「무녀도」, 「사반의 십자가」 등을 비롯한 유사한 성격의 작품을 창작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학교 교육의 한계를 절감하고 4학년(1929)이 되자 자퇴하고 부산에 있는 맏형 김기봉[金基鳳(凡父)]의 집으로 내려갔다. 전문학교의 진학을 포기한 것은 물론, 중학교까지 자퇴한 이유를 "문학수업에 학교 공부는 방해가 되기 때문(〈독서신문〉 156호)"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1933년 맏형 범부 선생이 부산에서 서울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함께 상경하여, 서울의 친척집에서 하숙을 겸한 가정교사로 있었으나, 돈이 궁했던 그는 신춘문예 당선의 꿈을 가지고 여러 신문사에 응모했다. 그러나 1934년 새해 아침 신문사에 보냈던 대다수의 작품은 낙선되고 〈조선일보〉에 시 「백로(白鷺)」만 입선되었을 뿐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신춘문예를 위한 칼을 다시 갈기 시작했다. 이때 고향 경주에서 문우들과 사귄 인생 역정도 자신의 문학 수업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론, 경주 예술의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소설 「선도산(仙桃山)」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분위기와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엮어진 경주의 문학 수업은 마침내 「화랑의 후예」가 〈중앙일보〉에 당선되는 행운을 가져온다.

1935년 소설가로 등단한 김동리는 상금을 가지고 경남 사천에 있는 '다솔사(多

率寺)' 로 들어가서 그의 문학 세계를 결정짓는 김동리 특유의 문학관(文學觀)을 확립한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영원과 신(神)의 문제,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생의 구경적(究竟的) 문제와 불교적 인생관, 외래 종교와 죽음의 문제 등을 민족적인 것과 연계시키는 예술적 작업에 몰두했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산화(山火)」를 비롯해서 같은해에 나온 「무녀도」, 「바위」, 「술」, 「산제」, 「허덜풀네」 등과 1937년의 「어머니」, 「솔거」, 1938년의 「잉여설」, 「생일」, 1939년의 「황토기」, 「찔레꽃」, 「두꺼비」, 1940년의 「동구 앞길」, 「혼구(昏衢)」, 「다음 항구」, 1941년의 「소년」 등이 해방 전에 쓴 작품들이며, 몇 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작품들이 경주와 관련되어 있거나 '도솔사' 와 '해인사' 에서 결정된 문학관의 예술적 승화로 보여진다.

1937년 서정주 · 김달진 등과 함께한 '시인부락' 동인의 가입도 그의 빼놓을 수 없는 문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문학 평론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1939년 유진오와의 세대 논쟁의 작품으로 「순수이의(純粹異議)」를 발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45년 경상남도 사천에서 해방을 맞은 김동리는 전쟁 기간 중 절필했던 문학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몇 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친 그는 1946년 서울로 상경하자마자 소설 「미수(未遂)」, 「근친기(覲親記)」, 「윤회설(輪回說)」 등을 발표한다.

그리고 좌익 계열의 문학 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 과 대결하기 위하여 '청년문학가협회' 를 결성하여, 자유 진영 문학 단체로서는 최초로 '문학의 밤 '을 개최, 「순수시의 사상」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조선문학의 지표」, 「순수문학의 진의(眞意)」 등의 평론을 발표하여 좌우익 문학 논쟁이 심화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1947년에는 소설 「혈거부족」, 「달」, 「이맛살」, 「상철이」, 「지연기(紙鳶記)」 등을 발표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진보적 민족문학론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진영의 기수가 되었다.

1948년에는 김동석, 김병규 등의 공산주의 비평가들과 가진 계급과 순수에 대한 첨예한 논쟁에서, 「생활과 문학의 핵심」, 「민족문학론」, 「독과문학(毒瓜文學)의 본질」,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私考)」,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그 환경」 등의 사상성과 관련된 비평들을 발표했다.

소설 작품으로는 「역마」, 「어머니와 아들」, 「개를 위하여」, 「절 한번」, 「광풍 속에서」 등이 나왔다. 〈민국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49년에는 문단과 대학 강의 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발표 작품은 많은 편이 아니다. 「형제」, 「심정」, 「유서방」, 「급류」, 「검군(劍君)」 등의 단편소설을 발표하고, 장

편소설 「해방」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제2 창작집 『황토기』도 이때 상재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전에 소설 「인간 동의」, 「한내마을의 전설」 등을 발표했으나, 전쟁이 발발하자 피난하지 못하고 서울의 친지 집에서 은거 생활을 한 탓으로 인민군들에게 피검되지 않았다.

1951~1953년 사이의 전쟁 중에는 '문총구국대', '한국문학가협회' 부위원장 등의 업무 관계로 문학 활동은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1951년 소설 「남로행」, 「귀환 장정」, 문학 평론 「문화 구국론」, 1952년 문학평론 「전쟁적 사실과 문학적 비판」과 저서 『문학개론』을 간행하였고, 1953년 중편소설 「풍우기」 등을 발표했다.

1954~1959년까지의 전후 시기는 매우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여준다. 소설 「살벌한 황혼」, 「마리아의 회태」와 시 「해바라기」, 「젊은 미국의 깃발」 등이 1954년에 발표되었고, 소설 「흥남철수」, 「밀다원시대」, 「실존무(實存舞)」, 「용」, 「진달래」, 「청자」 등의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사반의 십자가」의 〈현대문학〉지에 연재, 제4 창작집 『실존무』가 상재되어 1955년은 가장 두드러진 작품 활동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설 「악성(樂聖)」, 「원왕생가」, 「수로부인」을 발표하고, 장편소설 「춘추」를 〈평화신문〉에 연재한 것이 1956년, 「아가(雅歌)」, 「목공 요셉」, 「여수」, 「남포의 계절」을 발표하고, 장편소설 「사반의 십자가」로 예술원 문학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소설 「강유기(江遊記)」, 「고우(故友)」, 「자매」와 장편소설 「춘추」가 나왔고, 1959년에는 소설 「달이와 냉이」, 장편소설 「자유의 역사」를 〈자유신문〉에 연재, 중편 소설 「애정의 윤리」, 시조 「공주에서」, 「분란(盆蘭)」을 발표했다.

1960년대는 인간의 근원적인 운명과 관계되는 「무녀도」 성격의 소설들이 창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소설 「어떤 고백」, 「당고개 무당」과 장편소설 「이곳에 던져지다」를 〈한국일보〉에 발표하였고, 1961년에는 소설 「등신불(等身佛)」, 「어떤 남」, 1962년에는 「부활」, 「먼 산 바라보기」를 발표, 1963년에는 장편소설 「해풍」을 〈국제신문〉에 연재하는 한편, 시조 「분국(盆菊)」을 발표하고, 제5 창작집 『등신불』을 출판하였고, 1964년에는 소설 「천사」, 「늪」, 「심장 비 맞다」, 「유혼설」, 1965년에는 소설 「성문 거리」와 시 「연(連)」을 발표했다.

1960년대 후반부에도 전반부와 유사한 인간의 운명과 생의 구경적(究竟的) 문제를 추구하여 민족과 연계된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한다. 1966년에는 소설 「까치소리」, 「송추에서」, 「윤사월」, 「바람아 대추야」, 「백설가」를 발표하고, 수필집 『자연과 인생』을 출판했고, 1967년에는 「까치소리」로 '3·1문화상'

본상을 수상하고, 소설 「석노인」, 「감람(橄欖)수풀」을 발표하고, 『김동리 대표작 선집』 전 5권을 출판하였으며, 1968년에는 소설 「꽃피는 아침」과 중편 소설 「극락조(極樂鳥)」, 1969년에는 소설 「눈 내리는 오후」를 발표했다.

1970~1980년대까지는 역사소설의 창작 및 기존의 작품을 묶은 작품집이나 대표적인 작품의 영역, 불역, 일역과 수필집의 출간이 주류를 이루는 시기이다. 1971년 장편소설 「아도(阿道)」를 〈지성〉지에 연재, 1972년 장편소설 「삼국기」를 〈서울신문〉에 연재, 1973년 문학지 〈한국문학〉을 창간하였고, 제6 창작집 『까치소리』, 1974년 역사소설 「삼국기」의 후편인 「대왕암」을 연재, 장편소설 『이곳에 지다』를 출간, 1976년 소설 「선도산」, 「꽃이 지는 이야기」, 1977년 소설 「이별이 있는 풍경」, 「저승새」 등을 발표하는 한편 수필집 『고독과 인생』을 출간, 1978년 소설 「참외」와 장편소설 「을화(乙火)」, 작품집 『꽃이 지는 이야기』, 수필집 『취미와 인생』을 출간하였고, 1979년 소설 「우물 속의 영웅」, 「만자 동경(曼字銅鏡)」을 발표했다.

1982년에는 장편소설 『을화』를 일어판(日語版)으로 출간, 1983년에는 장편소설 『사반의 십자가』를 불어판(佛語版)으로 출간, 1985년에는 수필집 『생각이 흐르는 강물』을 출간, 1987년에는 장편소설 『자유의 기수』를 『자유의 역사』로 개작하여 출간, 1988년에는 수필집 『사랑의 샘은 곳마다 솟고』를 출간하였다. 1989년에는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으나 1990년 7월 30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5년 영면(永眠)하였다.

김동리의 작가적 생애는 소설가, 시인, 수필가, 평론가로서 남겨 놓은 자취가 너무도 우뚝하여, 우리 한국문학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학인들에 의해 '노벨문학상'에 추천될 정도로 문학적 업적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소설문학은 그와 더불어 영원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2) 이기현(李起炫 ; 1913~?)

「태(苔)」의 작가 이기현은 소설가 김동리가 〈독서신문〉에 쓴 「나의 문학 수업 시절(156호)」과 소설 「선도산(1976년)」에서 "고향의 문우였다."는 회고의 글 이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소설가이다.

그는 묻혀진 작가인 동시에 예술가였다. 남겨진 작품이나 그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앙 문단은 말할 것도 없고, 경주의 예술인들조차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당선작은 당대로서는 매우 주목을 받았고, 다른 예술적 업적도 사장되어서는 안 될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주의 소설 문학

과 예술을 위해서 반드시 조명해 보아야 할 작가이다.

이기현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의 바로 밑 여동생 이기옥(李起玉), 6번째 여동생 이기수(李起壽), 막내동생 이기락(李起洛)과의 대담 · 증언 및 아들 이강환(李康桓)과의 대담을 참고로 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기현은 1913년 3월 6일(음력) 서부동에서 아버지 이경의(李敬儀)와 어머니 최분란(崔芬蘭)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이경의는 구한 말 진사(進士)를 봉직 받은 전주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개화되어 조선인들의 인권과 생활 보호를 위해 법과에 지망하였다. 고등문관(高等文官)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判事)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기현은 1928년 계림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 중앙고보에 입학하여 1933년에 졸업했다. 예술에 대한 예리한 감수성과 작품 창작에 관심을 쏟았던 꿈이 많은 학창 시절을 보내고, 고향 경주로 귀향한 그는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수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 김동리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 시절 김동리, 박목월, 김석주, 김만술(조각가) 등 문우들과의 교류가 그의 작품창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실감 있게 회고한 김동리의 글에서 확인된다.

> 1937년 〈조광(朝光)〉 2월호에 소설 「태(苔)」가 당선된 이기현은 문학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일본대학 문학예술과에 입학하여 예술 공부에 정진하였으나,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여 1938년 학교를 중퇴한 후 일본 송죽영화사(松竹映畵社)에 취직한다.
>
> 그는 조감독의 직책을 맡아 영화 제작에 열정을 쏟은 것은 물론, 시나리오 창작과 연출을 통해서 일본의 영화계에 주목받는 존재로 등장한 것이다.

〈조광〉지의 청탁으로 당시 일본 최고의 영화감독 기무라 소주지[木村莊十二]씨[〈조광〉 제6권 제7호, 1940. 7]와 인기 여배우 다카미네 히데코[高峰秀子]와의 대담은 그 당시 이기현의 영화계 및 문단의 위상에 대한 일면을 보여 준 구체적인 사례이다.

조선의 영화와 문학에 대한 기무라[木村] 감독과의 회견은 6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깊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이 회견에서 이기현은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맑고 고운 한국어를 자랑했다. 자연과 예술을 자신의 생활과 일치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다양한 예술을 실험한 것이다.

이기현의 예술적 편력은 주로 일본을 무대로 해서 이루어졌으며, 그의 전성 시기는 1938~1941년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로 볼 수 있다. 시나리오 창작, 영화감독, 연출, 연예에 대한 촌평과 대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것이 그 무렵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일본의 잡지와 영화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연보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일본 국내는 물론 조선에까지 전시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그는 1941년 말 귀국하여 고향 경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몇 달 안 되어 박두복(朴斗福) 여사와 결혼을 하여 강환(康桓), 강인(康寅) 두 형제가 태어난다.

1943년 경주 군청 서기로 취직하여 징병을 모면했기 때문에, 그는 고향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꿈을 버릴 수 없었던 그는 1946년 경주예술학교를 설립하여 회화, 음악, 조각의 3과를 두고 학교 운영에 정성을 쏟았다.

해방 직후 절대 빈곤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교 · 강사들의 봉급 지급마저 어려운 시기였으나, 군서기 근무의 덕분으로 일본 사람이 버리고 간 경주극장을 운영하여 빈약하나마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학교의 운영 자금과 교 · 강사의 봉급을 겨우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한국 최고 음악가들로 인정받던 이인범, 김천애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높였는데, 이러한 음악과의 인연이 나중 고려교향악단에 간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해방 직후 경주예술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시련에 봉착했던 이기현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더불어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의 천거로 중앙청 정보과장에 취임했다. 그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자신의 기질이 행정 공무원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일년 후에 다시 본업인 예술계로 돌아온다.

1949년 고려교향악단 상무에 취임한 이기현은 한국 음악 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그의 천부적인 예술가적 기질을 살려보려고 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피난하지 못하고 북으로 납북된 그는 현재까지 생사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

소설 「태」에서 보여 준 작가적 역량과 다양한 예술적 기질로써 실험적인 예술가의 생애를 살아온 그는 경주의 후학들에게 김동리의 말처럼 "경주의 산과 들을 어디서나 예술과 문화로 뿜어내는" 씨앗을 뿌려준 작가로서의 문학사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3) 이종환(李鍾桓 ; 1920~1976)

이종환은 건천읍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순보(巡甫)이다. 18세가 되던 1938년에서 23세가 되던 1943까지 6년 가까이를 만주 등지로 떠돌면서 지냈다. 식민지 조국을 등지고 청년 시절 그가 만주로 갔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종환의 만주행은 당시 일제식민지 치하의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많은 한국인들의 유이민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헤아려 볼 수 있다.

만주에서 이종환은 1942년 무렵 〈만선일보(滿鮮日報)〉에 단편 「낙엽의 노래」를 비롯한 시와 소설 10여 편을 발표하면서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우기 시작한다. 그 이전 1938년 일본어로 시 「방랑자의 노래」와 단편소설 「미남자(美男子)」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종환의 문학적 소양은 매우 조숙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종환이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3년 〈문화세계〉에 단편소설 「발」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계속해서 「고향」 〈현대공론〉(1954. 11), 「창황(蒼黃)」 〈신태양〉(1955. 6), 「담배」〈현대문학〉(1955. 7), 「또 하나의 설계」 〈문학예술〉(1956. 3) 등을 발표하면서 작가적 위치를 굳혀 가게 된다. 이른바 해방 공간의 시기인 1948년 이종환이 쓴 희곡 「려와(麗瓦)」가 서울 '시공관'에서 공연된 것으로 미루어 이종환은 희곡과 연극에도 매우 관심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48년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게 된 이종환은 신학대학에서 수학한 것이 뒷날 '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장을 지낸 것과 더불어 그의 작품 세계가 기독교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사도전서(使徒傳書)」는 이종환의 기독교적 작품 세계를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종환은 1951년 어린이 잡지 〈새벗〉, 1953년 〈서울신문〉 주간부장, 1954년 월간 〈학생계〉, 1955년 〈여원〉, 〈현대공론〉, 〈자유공론〉, 〈소년 서울〉 등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한다. 이것은 이종환이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공인받았던 잡지 편집인의 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이 당시의 순문예지에만 발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종합교양지, 혹은 특수 전문지 등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잡지 편집장으로서 이종환이 잡지계에 많은 지인(知人)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종환은 해방 전 만주에서 서울로 귀국한 뒤에 고향인 경주에서 생활한 적은 없다. 그의 생활과 활동의 근거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주 경주를 내왕했으며, 그의 경주행에는 대부분의 경우 박목월과 동행이었음을 경주의 많은 후배

문인들은 기억하고 증언한다.

이종환은 '한국문학가협회' 사무국장(1959),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1959),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1962~68),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이사 등의 문학 단체의 임원을 맡아 문학 단체의 행정 업무에 깊숙하게 관계한다.

이른바 문협파의 핵심적인 자리에 이종환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당시 문협을 주도하던 김동리, 조연현 등과 같은 그룹에 그가 속해 있었음을 의미하고, 이른바 문단 정치의 한 자락에 그가 발을 담그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종환의 문단 행정 관여가 그의 작품의 질과 심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종환의 작품 세계는 정신적 승리를 제기하는 이상주의적 종교 의식과 실존적 인생을 조감하는 인간의 비리와 이에 대응하는 휴머니즘, 그리고 이를 애정으로 펼쳐 보이는 사랑의 양면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종환의 가족들은 그가 타계하기 몇 년 전,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이 된 이종환 외에 어느 누구도 그의 가족이 언제 왜 이민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말년에 혼자 한국에 남은 이종환은 매우 쓸쓸한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1976년 4월 이종환이 56세로 유명을 달리하고 난 뒤, 문협 기관지인 〈월간문학〉은 그의 문학적 생애에 관한 다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1968년 3~4월호에 〈기독교사상〉지에 이미 발표했던 단편소설 「잘못 만들어진 인형」을 유고작으로 다시 게재했을 뿐이었다.

이종환은 1938년에 단편소설 「낙엽의 노래」(〈만선일보〉) 등 시, 소설 10여 편을 발표하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 단편소설 「발」, 「갈매기의 노래」(1954), 「고향」(1955), 「인간보(人間譜)」, 「또 하나의 설계」, 「창황(蒼黃)」, 「담배」, 「어떤 창부(娼婦)」(1956), 「청춘 광야(靑春曠野)」(1956), 1957년 「형제」, 「개나리」, 「사이렌」, 「운명을 팽개쳐 버린 사나이」, 「만가(輓歌)」, 1958년 「야화(夜話)」, 1959년 「한야(寒夜)」, 「인어의 밀어」, 「사도전서(使徒傳書)」, 「설일(雪日), 「파아란 내일」등을 발표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파고다 공원」(1960), 「징소리」(1961), 「한강」(1962), 「지겹던 긴 여름」(1963), 1964년에「암류(暗流)」, 「동반 여행」, 「동그랑땡」, 「염천(炎天)」, 1965년 「한야(寒夜)」,「일단 정지」, 1966년 「동일(冬日)」, 「스코올」, 1967년 「일진(日辰)」, 「결국은 젊지 않다는 얘기」, 「황노인과 손주」, 장편소설 「에덴의 후원」, 1968년 「잘못 만들어진 인형」, 장편소설 「은하에의 구름다리」, 1969년 「3부

자 하숙생」, 「얼룩진 청조(靑鳥)」「태양같은 마음을 지니고」,「비자림(榧子林)의 여인」, 「제15 병동」 등을 발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중춘 전후(仲春前後)」, 장편소설 「여의사」, 1971년 단편소설 「디즈니랜드의 동물원」, 「입대」, 1972년 「등가(藤架) 밑에서」, 「천사와 마귀」, 1973년 「여정(旅程) 수첩」, 1974년 단편소설 「빙하」, 「잃어버린 고향」, 「하늘엔 뭉게구름이」, 「덕산 어른」, 1975년 단편소설 「여단장(女團長)」, 「도서관 시절」, 1976년 단편소설 「초설(初雪)」, 「잘못 만들어진 인형(유고)」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소설집으로는 『인간보(人間譜)』(1955), 『홍경래』(1967), 『언덕 위의 푸른집』(1969), 『청춘 광야』(1972), 『제15 병동』(1976) 등이 있다. 평론집으로는 『아동 문학 소고(小考)』(1953), 『광복 후의 문예지 · 문예 단체 '한국문인협회'의 조직 활동』(1965) 등이 있다.

(4) 성학원(成鶴園 ; 1922~1975)

성학원의 본명은 성호운(成虎雲)이다. 1922년 평안북도 박천 출신으로, 1948년 월남하여 경북 영주의 영주농업학교 교사를 시작하면서 경상북도와 인연을 맺었다.

1943년 성학원이 월남하여 영주에 정착하기 전에 그는 동국대학의 전신인 혜화전문 불교과를 졸업한다. 이해의 졸업생 중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지냈던 불교학자 황성기, 시인이면서 한시 번역가로 유명한 이원섭 등의 이름이 보인다. 혜화전문은 뒷날 동국대학이 되었지만 이 시절 문학을 지망하는 청년문학도들이 많이 선택, 선호하는 학교였다. 대학 시절 성학원은 아마도 이러한 혜전의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소설가에 대한 꿈이 영글어갔을 것이다.

1956년 34세의 성학원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인간 고발」로 입선한 것은 그의 문학적 출발이 그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해당된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당선이 아닌 입선은 성학원에게 있어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3년 뒤 37세 때인 195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다시 투고하여, 그 해에 단편소설 「인맥」으로 당선된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추론은 가능해진다. 〈조선일보〉에서 입선한 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다시 투고, 당선했던 것이다.

30대 후반에 작가로 등단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늦은 출발임에는 틀림없고, 그동안 그가 문학에 대한 열정과, 소설에 대한 끊임없는 습작의 수련이 있었음을 충

분히 헤아릴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성학원이 성격적으로 대단히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노력파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성학원은 영주농업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공립학교 교사 생활을 줄곧 하게 된다. 그래서 경북의 여러 지역의 중 · 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재직하였던 경력이 그의 소설 대부분에 배경이 되어 나타난다.

성학원은 경주여고와 경주공고 등에 발령을 받아 경주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가 정확하게 언제 경주에 왔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40세가 되던 1962년에 '문인협회' 경주지부장에 피임되고, 그해 '문인협회' 경주지부가 제2회 '신라문화제'를 주관하면서 그가 실질적인 책임을 맡았던 사실을 보면 경주에서의 생활은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 48세가 되던 해까지 10여 년 가까이 성학원이 '문인협회' 경주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는 경주에 분명 정서적 텃밭을 가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 연보를 보면 절반 이상의 작품이 경주에서 생활했던 때 만들어졌음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성학원이 유명을 달리한 것은 1975년 1월, 경주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신라중학교에 주임교사로 있었을 때다. 그가 타계한 연대도 신라중학교에 있는 그의 발령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53세의 아까운 나이에 그는 경주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고 말았다.

한 작가의 평생 작품이 20여 편 정도로 확인된다는 것은 그 작가가 매우 과작(寡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학원은 문단 등단[〈조선일보〉 신춘에 입선한 것이 1956년, 〈동아일보〉 신춘에 당선한 것이 1959년]하여 작가 생활을 한 이후 20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20여 편의 작품을 남긴 것이다. 비록 단편소설에 국한되긴 하지만, 한 해에 한 편 정도는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코 과작이라고 잘라 말할 수만은 없다.

평자들의 눈에 확 뜨이는 작품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꾸준히 한 해에 한 편 정도를 그는 우직하게 발표하였을 뿐이다. 경주에 문학적 텃밭을 가꾸어 놓은 우직한 작품을 남기고 50여 세를 넘긴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성학원은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인간고발」 입선, 195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인맥」이 당선이 되어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그 해에「불연속선」, 「인간 비밀」, 「향수」등을 발표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1960년 「아버지와 아들」, 「길」, 「도살자(屠殺者)」, 「해바라기의 비원(悲願)」「애한(愛恨)」, 1961년 「분노」, 「산딸기」, 「잃어버린 사람들」, 「슬픈 인과」, 1963년 「해빙기」, 1964년 「햇빛과 그늘의 동화(同化)」, 1965년 「현대 노인」, 「인간 설화」, 「영상(影像)」,

1967년 「최후의 귀가」, 1969년「목향(木香)이 타는 세월」등을 발표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설악의 연봉(連峰)」(1970)과 「설악」(1972) 등을 발표했다.

(5) 양문길(梁文吉 ; 1941~2003)

양문길은 1941년 2월 13일 황오동 16번지에서 아버지 양영일(梁榮一)과 어머니 김순남(金順男)의 외아들로 출생했다. 계림초등학교와 경주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매우 인기가 있었던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나왔다. 본관은 남원(南原)이며, 가톨릭 신자이다. 소설가인 부인 김청조(金淸祚)와의 사이에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다. 등산을 취미로 하고, 항상 경주가 고향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경주를 소재로 한 작품을 쓰려고 노력했다.

1960년 고등학교 3학년 때「이류항(異類項)」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여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최정희 여사로부터 "당선시키고 보니 고등학교 학생이라 혹시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염려하였는데 당선 소감을 보니 안심했다"는 일화는 그의 소설가적 재질을 증명하게 한다. 곧 이어 1966년 「부두 주변」이 〈동아일보〉에 당선됨으로써 소설가로서의 그의 위상을 더욱 튼튼하게 했다.

「부두 주변」은 꼬마라는 신문팔이와 부두 깡패들의 생활상을 통해서 한국의 저변 사회상의 한 단면을 그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그의 소설은 서민들의 애환을 묘사하여 사회를 고발하는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던 해인 1965년에 도서출판 현암사에 입사한 후, 교보문고 · 영풍문고 기획실장, 현암사 주간, 현암사 편집 고문, 진솔문고 기획이사, 골드 북 기획실장 등 출판과 홍보에 관한 업무에 종사했다. 한국소설가협회에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3년 11월 30일 평소의 지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한국의 소설사에 높은 위상의 작가로 평가되었다. 그는 경주의 소설가로서 한평생을 소설만을 위해서 산 예술가의 이미지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는 1960년대에 「이류항」(1960), 1966년 「부두 주변」, 「차단 구역」, 「가판결」, 「돌연(突然)」, 「까마귀 꿈」, 「몽(夢)」, 1967년「장거리 주자」,「부육(腐肉)」, 1968년에「기하학」,「증발」, 1969년「마 교수(馬 敎授) 동면(冬眠)을 시작하다」,「장인(匠人) 부자」,「사이비」,「심연의 길」등을 발표했다.

1970년대에는 1970년「목격자」,「엘리베이터」,「지하에서」, 1971년「보호받는 풍

경」,「왕국에서 생긴 일」,「밤의 방문객」, 1972년「미제(未濟) 수첩」, 1973년 「익명의 여인들」, 1974년「닫힌 문 열린 문」,「우물파기」,「축도(縮圖)」, 1975년 「무척추인(無脊椎人)」, 1976년 「풍화(風化)」, 소설집『김에게 가까이』, 1977년 「이 세상 어딘가에」, 소설집 『보호받는 풍경』, 1978년 「한 움큼의 빛」,「불확실한 삶」, 1979년 「고밀도 행복」등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움켜쥔 파국」(1980), 「껍질벗기」(1982), 「바람의 눈」(1984), 「나침판의 사내」(1985) 등을 발표했다. 1990년에는 소설집 『한 움큼의 빛』, 『생각하는 수레바퀴는 구른다』, 1994년 「다섯 사나이가 계단을 오른다」, 1996년 「열목어 우는 소리」, 1999년 「발치」등을 발표했다.

그 중 「풍화(風化)」는 경주를 배경으로 하여 쓴 소설로 어릴 때 정사한 두 젊은이의 사건을 사랑과 관습의 사이에서 희생되는 인간의 본질 문제로 다룬 작품이다. 내세(來世)까지 이어지는 순수한 사랑을 작자는 희구한 것이다.

문학평론가 이명재는 "그의 소설은 현대의 도회에 사는 하층민들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기에 리얼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다분히 어두운 그늘을 드리운 괴기한 마성(魔性)을 발하는 요소가 짙다. 그가 내세우는 현실의 부조리나 비정(非情)함이란 개개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조직체와의 관계에서 논할 수 있다."고 말하여 양문길의 작가적 생애와 작품의 방향을 잘 지적하고 있다.부인 김청조의 대표 작품에는 「새들의 초상화」, 「폭양」 등이 있다.

5. 수필(隨筆)

경주 출신의 문인들은 많다. 그 가운데 특히 박목월은 시를 비롯해서 동시, 수필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친 문인이다. 경주의 현대수필은 박목월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경주 출신의 문인들 가운데 유독 박목월만이 수필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의 수필문학은 이런 시인들의 수필 작품 이 외에 본격적인 수필가가 나오게 된 것은 1970년대와 1990년대의 일이다.

1) 경주 출신 시인들의 수필(隨筆)

박목월(朴木月)의 수필집을 보면 『구름의 서정(抒情)』(1956), 『토요일의 밤하늘』(1958), 『여인(女人)의 서(書)』(1959), 『행복의 얼굴』(1964) 등을 볼 수

있다. 그는 1916년에 태어났으며 대구 계성중학교를 졸업했다. 1939년 『문장지』에 정지용의 추천을 받고 시를 썼지만 그 이전에 동시를 발표하면서 시집과 동시집을 펴냈으며 수필집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발간했다. 그의 수필은 인생의 심오한 부분과 시인으로서 세상을 보는 미적 감각이나 생활을 주로 수필로 썼으며 시로써 쓰지 못한 이야기를 수필을 통해 말하려고 했다.

다음으로는 시인으로서 수필집을 두 권이나 낸 김해석(金海錫) 시인을 들 수 있다. 그는 1929년 경주 출신으로 1956년 『현대문학』에 시 「코끼리」와 「편지」를 추천 받아 시인이 되었으며 근래에 와서 두 권의 수필집을 냈다. '인간의 시작과 끝', '왜 사는가 왜 죽는가' 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수필 작품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의 수필은 종교적 견지에서 인간의 고뇌를 차원 높은 방법으로 풀어보자는 큰 뜻이 이 수필집에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2) 70년대의 수필가

이때에 와서 경주 출신의 수필가가 등장했다. 또 하길남(河吉男)은 경주 출신 수필가로서 1970년에 「인정」이란 작품으로 『수필문학』에 등단한다. 그는 인간탐구라는 주제를 내걸고 좋은 수필을 쓰면서 마산 경남대학에서 수필 이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수필 이론서 『수필문학 연구와 비평(隨筆文學 硏究와 批評)』이란 연구서를 낸 바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구름」이 있으며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이며 수필문학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대추가 영그는 마을』, 『감옥에서 띄우는 편지』, 『아침마다 홍릉에서』, 『니뭐꼬』 등의 수필집을 낸 황종찬(黃鍾讚)은 197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수필이 당선되어 수필가가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평론을 쓰다가 수필로 전향한 사람이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차원 높은 수필을 쓰고 있다. 또 경주에 관한 수필집으로 『단석산 아래 마을 이야기』와 『새 천년의 미소』가 있다.

경주 출신으로 오랫동안 경주에 살면서 수필을 쓰는 작가는 손경호(孫敬鎬)이다. 그는 1970년대부터 수필을 쓰기 시작하여 수필집 『오월의 향연』 외 여덟 권의 수필집을 낸 다작하는 수필가다. 그는 시적인 분위기에서 글을 쓰는 수필가이다. 그것은 그가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수필문학가협회 회원이며 그는 수필로서 제10회 경상북도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3) 90년대 등단한 수필가들

이 때에 등단한 수필가로서는 김재식을 들 수 있다. 그는 1991년 3월 문학세계에 「목각상(木刻像)」이란 수필로 신인상에 당선하면서 문단에 나왔는가하면, 같은 해에 김건일이 『시와 의식』에 수필로 등단을 하더니 수필집 『마음의 밭을 갈며』(1993)를 간행하였다.

1992년에는 정해경이 문학공간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으며, 1993년에는 황순희가 『월간문학』에 「시가 있는 뜨락」이란 수필로 신인상을 받고 등단했다. 그는 일상의 서정을 놓치지 않고 꽃을 심는 마음으로 수필을 통해 우리의 정서를 심고 있다. 그는 지금 서라벌수필문학회 회장으로 있다. 1994년에는 권윤식이 『문학세계』에 「감나무」란 수필을 들고 신인상을 받으면서 수필 문단에 등단했다. 그는 수필집 『신의 원죄』(1994), 『나 이제 청산에 살리라』(1996)라는 수필집을 내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같은 해에 박원이 『예술세계』에 「황혼부」를 가지고 문단에 등단했다.

1996년에는 권덕출이 「내 작은 우주 속에」라는 작품으로 『문학세계』에 신인상을 받고 등단했으며, 시를 쓰는 김옥정도 같은 해에 『문예사조』에 수필이 당선되고 그 후에 수필집 『빈 가슴 태우는 불씨』를 내기도 했었다. 최태호는 1999년 『수필문학』에 「겨울 산행」으로 등단한 수필가로 촉망되는 작가이기도 하다.

우리 경주에 소위 밀레니엄 수필가 몇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병환이 2002년 『한국수필』을 통해 「아내의 다리」, 「삼(三)이 좋다」로 데뷔하는가 했더니 같은 해에 『수필춘추』에 「술과 노래」, 「속이지 말자」가 각각 당선되어 등단했다. 김형섭이 2002년 『수필과 비평』에서 「숟가락」이 당선되어 실력을 과시하더니, 2003년에는 한기운이 『예술세계』에 「활산재 야화」로 당선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 보면 시인 박목월의 수필이 경주 수필의 근간이 되어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필가가 나타나서 좋은 수필을 쓰고 있다.

4) 경주문단의 수필가들 – 경주문협을 중심으로

경주문협 회원으로 있으면서 좋은 수필을 발표한 수필가가 많다. 그들은 주로 『경주문학』의 기관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고 수필집을 내어 많은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주문협 회원으로 있던 이동주는 1990년 『한국수필』 신인상을 통해 등단했으며, 2000년에는 수필집 『간이역에서 내리고 싶다』를 간행하여 경주문협상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해에 조명래는 『예술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그리움에 색깔이 있을까』(1992), 『이 땅에서 천사를 만나고 싶다』(1995) 라는 수필집을 내기도 했다. 최경숙은 1991년에 『문학세계』의 신인상으로 등단해서 작품 활동을 했으며, 같은 해에 유미경은 『시와 의식』 신인상에 수필이 당선되더니 1993년에는 수필집 『사랑의 나이테』를 내기도 하였다.

변호사 겸 수필가인 신평은 『농사짓는 변호사 경주에 살다』(1998)와 『시골의 향기』(2002)라는 수필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해옥이 1998년 제10회 신라문학대상 수필 부문에 당선하여 수필가로 등장하면서 경주문협에 입회하였다.

종교인 김윤보는 수필집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이라네』란 수필집을 발표하더니 1999년 『예술세계』에 수필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가 당선되었고, 2000년에 들어서 조동민은 그의 친정오빠인 조세림, 조지훈과 함께 3남매의 시와 수필 등의 합동 문집을 발간하여 경주문화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주의 수필문학 풍토가 살찌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토양이 있기까지 수필문학회의 창립도 한 몫 했다. '서라벌수필문학회'가 바로 그것이다. 1992년 수필가 이동주가 경주의 수필가들과 함께 서라벌수필문학회의 출발을 보게 되었다. 당시 회장인 이동주는 사재를 털어 『서라벌수필』을 창간하였고 지금은 수필가, 시인, 등 경주, 포항을 총망라하여 2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해마다 회지인 『서라벌수필』을 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경주문학』의 발간이다. 금년까지 34호를 내고 있는 경주문협의 기관지에 매회 많은 수필이 실리고, 금년에 9집을 맞이하는 무크지 『시와 수필』은 1998년에 창간되어 그 동안 수필의 중요 작품과 읽을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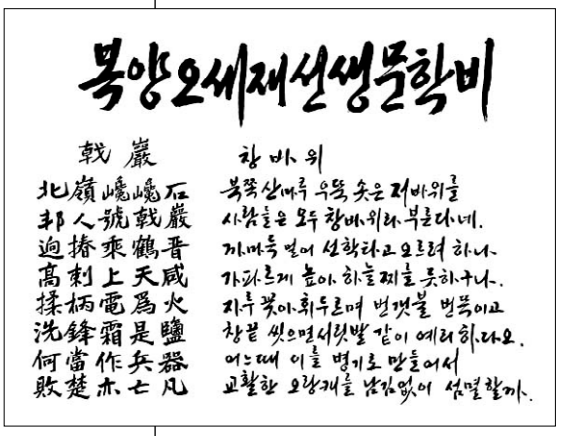
6. 문학비(文學碑)와 시비(詩碑)

1) 오세재(吳世才) 문학비(文學碑)

○ 아호 : 복양(濮陽)
○ 문학비(2001년 10월 건립) : 경주 황성공원 내
○ 비문의 시 : 戟巖[창바위]

오세재선생은 고창(高敞)을 본으로 고려 인종 11년(1133)에 태어나 62세를 일기

로 생을 마감했다. 자는 덕전(德全)이며 시호는 현정(玄靜)이다. 맏형인 경상도 안찰사(慶尙道按察使) 세공(世功)과 중형인 동각시학(東閣侍學) 세문(世文)과 함께 나란히 당대의 문장가로 알려 진 그는 고려 의종 5년(1151) 18세의 나이로 진사(進士)에 오르고 명종 12년(1182)에 대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만년인 명종 19년(1189)에는 제고사(祭告使)의 축사(祝史)가 되어 동경[東京, 지금의 경주]으로 옮겨왔다. 최치원의 고택 상서장(上書莊)에 머물며 당대의 명류 안순지(安淳之) 등과 교류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해좌칠현(海左七賢)의 일원으로 유유자적하면서 이인로(李仁老), 이규보(李奎報), 임춘(林椿) 등 당대 사류들의 추앙을 받았고 속세의 명리에서 벗어나 일생 동안 고결한 절개를 지켰다. 주역(周易)을 암송하고 육경에 통달하였으며 시문에 뛰어나서 당대의 문장가 이규보와 최자(崔滋), 이제현(李齊賢) 등으로부터 선생의 글 뜻이 준매경준(遵邁勁俊), 풍섬혼후(豊贍渾厚), 노건가상(老健可尙)하다는 고평을 들었다.

특히 이규보는 선생의 재주를 아까워하고 선생의 삶을 애석하게 여겨 「오선생덕전애사(吳先生德全哀詞)」를 지었으며 복양선생(濮陽先生)이라 호칭하고 문하생의 입장에서 현정(玄靜)이라는 시호를 영전에 바치기도 하였다. 선생이 지은 시문들은 아깝게도 대부분이 사라졌으나 다행히 『파한집(破閑集)』, 『보한집(補閑集)』, 『백운소설(白雲小說)』,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서하집(西河集)』, 『역옹패설(櫟翁稗說)』, 『고려사(高麗史)』, 『동문선(東文選)』, 『동경지(東京誌)』 등에 전하고 있다.


황성공원에 있는 오세재 선생 문학비

病目

老與病相隨　　窮年一布衣
玄華多掩映　　紫石少光輝
怯照燈前字　　羞看雪後暉
待看金榜罷　　閉目坐忘機

늙으면 병들기 마련이지만
말년까지 초라하게 사는구나.

안질로 자주 눈이 침침해지고
눈동자의 빛마저 야위어 가네.

등잔 앞의 글자를 찡그려 보며
눈[雪]온 뒤에 달무리 보기 부끄럽도다.

뒤늦게 과거에 급제했지만
세상 일 잊고자 눈을 감는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시〉

2) 김동리(金東里) 문학표징비

○ 본명 : 김시종(金始鍾)
○ 문학표징비(1997년 건립) : 황성동 산 1번지

김동리 선생은 1913년 11월 24일 성건동에서 출생했다. 1920년 경주 제일교회 부설학교에 입학한 후 1927년 대구 계성중학(啓聖中學) 2년을 수료하고 경신고보(儆新高普) 3학년에 전입했다.

1934년 시 「백로」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되었으며, 같은 해에 시 「망월」, 「고목」 등의 작품을 발표하여 시인으로서 문단에 등장했다. 1935년에는 단편 「화랑의 후예」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이 무렵 이주홍, 조연현, 최인욱, 홍구범 등과 교유했으며, 이듬해 「산화」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상경하여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하게 된다.



황성공원에 있는 김동리 문학표징비

{{황성공원에 있는 김동리 문학표징비

}}김동리는 본격 문학을 주장하면서 「바위」, 「무녀도」, 「황토기」 등의 이채로운 단편을 계속 발표하여 작가적 위치를 굳히는 한편 서정주, 김달진 등과 시인부락 동인으로, 시 「나긴 밤에 낫지만」, 「행로음」, 「홀로 무어라 중얼거리며 가느뇨」 등을 발표, 시인으로서도 우수한 재능을 나타내었다. 그의 초기 소설 「황토기」,

「무녀도」 등은 토속적, 샤머니즘적, 비현실적 제재에서, 자신의 생명 자체에서 파악한 인간 생명의 신비력과 삶의 허무를 추구한 것이다. 그의 문학 세계가 현실지향의 길보다는 그런 현실이 정적해 버리는 신화적 세계에 칩거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김동리가 신화적 세계관 속의 인간 제시에 골몰한 것은 순수주의와 생명주의를 표방하는 시인부락의 이념에 그가 깊이 침윤되어 있다는 점과 식민지 치하라는 암울한 현실감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기에 유진오가 논문 「순수에의 지향」에서 30대 기성 작가를 옹호하고 신인들의 현실도피적인 안이한 태도를 비난한 데 대해, 김동리는 「순수이의」, 「신세대의 정신」 등의 평론으로 30대 작가를 비문학적 야심과 정치주의라고 단정하고 순수문학을 신인에게 권할 것이 아니라 30대 작가의 반성의 계기로 삼으라고 반박했다.

해방 후에는 좌익측 문학가동맹에 반대, 민족주의적 순수문학을 옹호하기 위하여 조연현 등과 합력하여 한국청년문학가협회를 창립,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그의 문학 정신의 기조는 인간성 옹호에 바탕을 둔 순수문학이며, 이것은 그의 모든 작품의 배후에 일관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좌익측의 김동석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지만, 김동석의 인민의 문학, 당의문학 이론에 대한 반격으로서 제기된 순수문학론은 문학의 가치와 인간의 본질 문제에만 매달려 삶의 현실이나 인간의 역사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도 받게 된다. 그의 문학관은 「문학과 자유의 옹호」, 「순수문학과 제3세계관」, 「민족문학론」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좌 · 우익의 정치적 격변, 한국전쟁 등의 현실을 배경으로 그의 작품도 변모된다. 단편소설 「혈거부족」, 「역마」, 「형제」, 「인간동의」, 「흥남철수」, 「밀다원시대」, 「실존무」 등은 그러한 변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종래의 토속적 · 한국적 특성이 인류적 보편성으로, 종래의 한국적 인간성을 보편적 인간상으로, 한국 현실을 세계적 현실로 확대하고자 한 노력을 볼 수 있다.

「흥남철수」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흥남 철수 작전에서 취재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립상을 그린 것이요, 「밀다원시대」는 부산 피난 시절의 다방 '밀다원'에 드나들던 실제 문인들을 모델로 하여 그들의 심리적 불안을 묘출한 것이다. 그리고 「실존무」는 현대인의 부조리를 파헤친 단편이다. 또한 성경에서 취재한 장편 「사반의 십자가」는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대조시키면서 인간의 운명과 구원의 문제를 추구한 작품이다. 단편 「등신불」도 그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이다.

3) 박목월(朴木月) 시비

○ 본명 : 박영종(朴泳鍾)
○ 시비(1991년 건립) : 신평동 보문단지 내
○ 비문의 시 : 달
○ 노래비(1971년 건립) 황성동 산 1번지(황성공원 내)
○ 비문의 시 : 송아지

1916년 1월 6일 경남(慶南) 고성(固城)에서 출생하여 세 살 때 경주로 왔다. 1933년 대구 계성중학교(大邱啓聖中學校) 재학 중 윤석중 편집의 잡지 『어린이』에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특선되었고, 같은 해에 「제비맞이」가 『신가정(新家庭)』지에 당선된 이후 많은 동시를 썼다.

1935년 계성중학교 졸업 후 본격 시인으로서는 『문장』지에 「길처럼」, 「그것은 연륜이다」, 「산그늘」, 「가을 으스름」, 「연륜」 등으로 추천을 받고 데뷔하였다. 이후, 동심의 소박성, 민요풍, 향토성 등이 조화를 이룬 자연 친화와 교감의 짧은 서정시를 계속 발표해서 특유한 전통적 시풍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초기 시는 『청록집』, 첫 개인시집 『산도화』등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즉 1950년대 이후부터는 소박하고 담담한 생활 사상 등을 읊기 시작, 초기 시풍과는 다른 현실성이 가미된 변모를 보였으며, 이것은 『난 · 기타』, 『청담』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제4시집 『경상도의 가랑잎』 이후로는 생활 주변에서 조국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로 확대되고 심화된 경지와,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사념적 관념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박목월의 시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때, 초기시는 두 세계로 나뉜다. 전반기는 『청록집』의 세계, 후반기는 『산도화』의 세계이다. 『청록집』의 세계에서 화자는 '꿈꾸는 사람', 대상은 '임', 정서는 '슬픔'이다. 또한 화자와 대상은 불화의 관계로 드러난다. 그러나 『산도화』에 이르러 '꿈꾸는 사람'으로서의 화자와 '임'으로서의 대상은 화해의 관계를 획득한다. 슬픔의 정서 역시 막연한 정서이기보다는 한결 순화되면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된다.

중기의 시 역시 『난 · 기타』의 세계와 『청담』의 세계로 나뉘며, 전자에 속하는 시들은, 화자(話者)는 '연인', 대상은 '당신', 정서는 '허전함'으로 드러난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불화(不話)의 양식으로 제시된다. 이때 불화의 양식을 물들이는 정서가 허전함이다. 화자와 대상의 불화적 관계가 서운함이나 허전함의 정서를 매개로 조금씩 변주되는 것들로는 '하얀 그림자'(「시점에서」), '나'와 '마리

아'(「아가」), '나'와 '수평선'(「배경」), '나'와 '그'(「눈물의 훼어리」), 따위가 있다. 이 관계는『청담』에서 '연인'으로서의 화자가 '아버지'로, '당신'으로서의 대상이 '가정'으로, '허전함'의 정서는 '연민'으로 바뀐다. 또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전반기에는 대체로 불화의 양식이었음에 비해 후반기에는 화해의 양식을 획득한다.「가정」이라는 시가 이러한 구조적 유형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후기 시의 세계는 전반부의『경상도의 가랑잎』, 후반부의『무순』,『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기의 시편들에서 화자는 '만술아비', 대상은 '죽음', 정서는 '허무감'으로 나타난다. '만술아비'가 현실적인 인물인가, 상상적인 인물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만술아비'로 표상되는 화자가 '죽음'이라는 세계와 끊임없이 관견된다는 사실, 따라서 죽음과의 대면 속에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며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려는 노인의 이미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허무감을 매개로 하는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불화의 양식으로 드러난다.『무순』에서 여기서 소멸되었던 화자, 대상, 정서의 관계는『크고 부드러운 손』에서 명료한 화해의 양식을 획득한다.

그 구조적 유형은, '신앙인'으로서의 화자, '하느님'으로서의 대상, '경건함'으로서의 정서이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신앙적인 경건함이라는 정서를 매개로 하여내재적이거나 지상적인 화해가 아니라 초월적이거나 천상적인 화해의 양식으로 드러난다.



▲ 보문단지 박목월 시비
시비의 전면에는그의 육필로 쓴「달」이 새겨져 있다. 원작에는 '배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도화'로 섰다.

달

도화가지
반쯤 가리고
달이 가네.

경주군 내동면
혹은 외동면
佛國寺 터를 잡은
그 언저리로

도화가지
반쯤 가리고
달이 가네

4) 이경록(李炅錄) 시비

○ 시비(1985년 11월 건립) : 진현동 우정의 동산 내
○ 비문의 시 : 사랑가



진현동 우정의동산
이경록 시비

1948년 1월 8일 강동면 다산 2리에서 부(父) 이환익 모(母) 김순연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65년 충남대 전국 고교생 백일장에서 시(詩) 장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에 건국대 고교생 현상문예 시 당선, 대전대 및 미국 오스틴대 고교생 작품 모집에서 시 당선, 1966년 충청일보 신춘문예에서 학생부 시 당선했다.

1973년에는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1974년 4월 『월간문학』신인상에서 시부문에 당선했다. 이후 박정남, 박해수, 이기철, 이동순, 이태수, 이하석, 정호승 등과 자유시 동인을 결성했으나 백혈병이 발병했다. 끈질긴 투병 생활을 했으나 1977년 4월 타계했다. 이후 1979년 추모 시집 『이 식물원을 위하여』가 발간되었다.

사랑가

그대 며칠 전 팔백 리 밖 아화(阿火) 안말에서 띄워 보낸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
오늘 아침 동남풍과 함께 닿아 내 몸의 숨구멍을 타고 흘러 들어 오다.
흘러 들어와 그 말의 숨결이 내 심장의 피 덥히며 온몸을 흐르다.
팔백 리 밖 사람아,
그대 사랑한다는 말의 하늘 길로 또 내 말을 보낸다.
오늘 밤 금강이나 추풍령 상공에서 내 말은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소리치며 떠 헤매 가리라.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이 나라의 사랑하는 마음들아,
한 마디씩 씨 받아 팔 괴고 잠들어라.

5) 유치환(柳致環) 시비

○ 호 : 청마(靑馬)
○ 시비(1971년 건립) : 석굴암 등산로 입구
○ 비문의 시 : 석굴암 대불

1908년 7월 14일 경남(慶南) 충무시 태평동(太平洞)에서 출생했고 1967년 2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타계했다.

1922년 통영보통학교(統營普通學校) 4학년을 마치고 도일하여 도오야마중학교(豊山中學) 입학, 박명국(朴明國), 김거주(金居柱), 최두춘(崔杜春), 유치진(柳致眞)과 함께 동인회「토성(土聲)」을 조직했다. 연희전문(延禧專門) 문과를 중퇴한 후에 창작에 뜻을 두고, 1931년 시 「정적」을 『문예월간』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그 후 삶의 본질과 그 운명을 깊이 있게 추구하는 시들을 많이 남겼다.

대표작 「깃발」은 초기 시의 한 주조인 연민과 애수의 서정을 통하여 존재론적 차원의 허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의지가 감상적 허무에 압도되어 있는 초기 시의 시적 자아를 대표적으로 표상한다. 깃발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상징이다. 특히 '이념의 푯대'에서 알 수 있듯이 외곬로 이상향에 집념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애수, 마음'을 만남으로써 이상향에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감상적 마음의 상징이다.

흔히 생명의 시인이라 일컫는 청마의 시는 소재를 사회 현상에서 취득하는 특징도 보여 주고 있으나, 단순한 현실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초월의 세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탐색을 필요로 한다. 그의 시에서 정신적 특징은 회한과 자학, 일제를 극복하려는 의지, 허무, 순수 서정 및 사모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청마시초』,『생명의 서』,『청령일기』,『기도가』,『보병과 더불어』,『예루살렘의 닭』,『행복은 이렇게 오더니라』,『제9시집』등의 시집에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다.

석굴암 대불

목놓아 터뜨리고 싶은 통곡을 견디고
내 여기 한 개의 돌로 눈감고 앉았노니
천 년을 차가운 살결 아래 더욱
아련한 핏줄, 흐르는 숨결을 보라
먼 솔바람

부풀은 동해 연잎
소요로운 까막까치의 우짖음과
뜻 없이 지새는 흰 달도 이마에 느끼노니.

뉘라 알랴 !
하마도 터지려는 통곡을 못내 견디고
내 여기 한개 돌로
적적(寂寂)히 눈감고 가부좌하였노니



석굴암 등산로 입구의 유치환 시비

6) 정연길(鄭淵吉) 시비

○ 아호 : 정민(丁民)
○ 시비 : 2003년 건립(안강제일초등학교 교정)
○ 비문의 시 : 오요 강아지

1928년 2월 18일 안강읍 양월리에서 출생했다. 대구(영남)대학 예과(문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천중학, 안강중학, 선산고교, 군산사범학교, 경기상업고 교사와 서울시립대학교, 한성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955년 『청맥』지에 「소녀상」을 발표한 이후 1959에는 시집 『시인과 시민들의 대화 시간』, 1971년 시집 『어느 하늘 아랜들』, 『한』과 수필집 『초당방 이야기』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경주의 청맥동인, 군산의 토요동인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문인협회, 펜클럽 한국본부, 현대시인협회, 자유시인협회, 자유문인협회 회원으로 1991년 화백문학회를 발기하고 공동 대표 및 회장을 역임하였다. 남다른 향토사랑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그는 따뜻한 사랑과 인간미 넘치는 눈길로 인정과 삶을 노래하였다. 묘소는 안강읍 야일 선영에 있다.



안강제일초등 교정의 정연길 시비

산골

하얀 박꽃
안개비에 외롭던

초가 지붕
산지기가 살던
외딴 오막집
자취도 없고

늙어버린 감나무가
세월처럼 서 있네.

7) 고유섭(高裕燮) 비

○ 호 : 우현(又玄)
○ 비(1985년 건립) : 양북면 봉길리
○ 비문의 시 : 대왕암

1905년 2월 2일 인천시 용리(龍里)에서 출생하였다. 부친 고주연(高珠演)은 동경제대 철학과에 입학하려다가 조선총독 데라우치[寺內]가 "조선인이 무슨 철학과에 들어가느냐"라며 입학을 막았다고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고유섭은 1925년 보성고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철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했다. 1930년 졸업 후 미학연구실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중요한 고대미술품을 조사하고 연구했다. 1933년 개성부립박물관장, 36년 이화여자전문학교 및 연희전문학교에 출강하면서 근대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한국 미술사학에 새 장을 개척하였다. 그의 업적은 한국 미술사의 독보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학문의 주된 연구 대상은 불교미술이었는데 63년부터『진단학보(震檀學報)』에 실린「조선탑파(朝鮮塔婆)의 연구」는 양식적이며 문헌예술사학적인 방법을 취하고 나아가서 정신사적 미술사 방법론까지 채택하고 있다. 그는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의미 해석을 '무기교(無技巧)의 미', '적조(寂照)의 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1944년 40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자



이견대 옆의 고유섭 시비

그의 제자였던 황수영(黃壽永) 등이 유고로 『고려청자(高麗靑磁)』, 『한국미술사 급미학논고(韓國美術史及美學論攷)』(1963), 『한국미술문화사논총(韓國美術文化史論叢)』(1966), 『송도고적(松都古蹟)』(1977) 등을 펴냈다.

대왕암

대왕의 우국성령은
소신(燒身) 후 용왕되사
저 바위 길목에
숨어들어 계셨다가
해천(海天)을 덮고 나는
적귀(敵鬼)를 조복(調伏) 하시고

우국지정이 중코 또 깊으시매
불당에도 들으시다
고대(高臺)에도 오르시다
후손은 사모하여
용당(龍堂)이요 이견대(利見臺)라더라

영령이 환현(幻現)하사
주이야일(晝二夜一) 간죽세(竿竹勢)로
부왕부래(浮往浮來) 전해 주신
만파식적(萬波息笛) 어이하고
지금은 감은고탑(感恩孤塔)만이
남의 애를 끊나니

대종천(大鍾川) 복종해(覆鍾海)를
오작아 뉘지 마라
창천이 무섭거늘
네 울어 속절없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뜻 있어 운다 하더라

8) 박종우(朴鍾禹) 시비

○ 호 : 고무신(古無新)
○ 시비(1977년 건립) : 송화산 입구
○ 비문의 시 : 종(鍾)



송화산 입구의 박종우 시비

1925년 3월 27일 경남 울주군 상북면에서 출생했다. 몇 군데 학교를 다녔으나 보통학교와 만학의 고대 경영대학원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졸업증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여자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동아대학 · 부산대학에 출강했다. 그 뒤 부산고교, 양산농고, 마산제일여고, 경주공고, 포항고교, 안동고교, 경주 문화고교 교사를 역임했다. 또한 『자유공론(自由公論)』, 『젊은 세대(世代)』 편집국장과 재향군인회 공보실장, 100인 문학회 상임 간사. 한국문학사 이사도 역임했다.

박종우는 누구나 사람 사귀기를 좋아했고 남의 어려운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성격을 가져 누구나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청마(靑馬) 유치환(柳致環)이 경주고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청마와 함께 청맥동인회(靑麥同人會)를 만들어 『청맥(靑麥)』 1호를 내기도 했다.

박종우가 필명으로 한 고무신(古無新)은 정말 고무신처럼 서민적이었고, 또 친구가 많아서였다. 또한 화술에도 능하여, 술자리나 모임에는 사람을 곧잘 웃게 했고, 어느 때든 그가 꼭 좌장격을 차지하였다.

김동리(金東里)는 박종우를 "그러나 고무신에서 느끼기 어려운 일면도 박 형에게는 있다. 그것은 재기(才氣)이다. 박 형은 호 고무신 같은 면과는 반대로 총명하고 서리(犀利)하기가 재자(才子) 같은 일면을 가졌다. 고무신쪽보다 재자(才子)면이 더 우세할지 모른다. 박 형의 시에는 박 형의 인간성에서 느낄 수 있는, 고무신 같은, 거무티티하고, 질기고, 마구잡이고, 구수하고, 인정미 있는 일면과 재자(才子)같은 총명하고 서리(犀利)한 일면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저서로는 시집 『조국(祖國)의 노래』(1950), 『습지(濕地)』(1961), 『양지(陽地)』(1967), 『한 알의 씨앗을 위하여』(1971), 『다시 가을에』(1975) 등이 있으며 수필집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1974)가 있다.

7. 향가비

1)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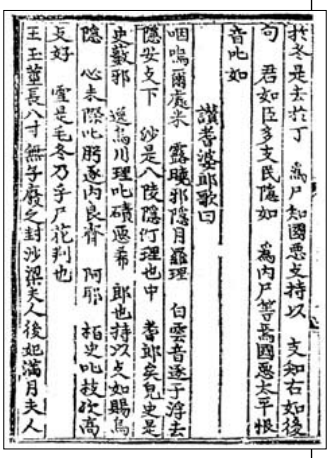
○ 시비(1986년 건립) : 계림 경내

월명(月明)스님이 지은 제망매가(祭亡妹歌)와 함께 향가(鄕歌) 가운데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왕은 이 노래를 일컬어 "매우 뜻이 높다"고 칭찬하였다. 그렇지만 충담사(忠談師)가 기파랑(耆婆郎)을 찬미한 노래라는 것만 알 뿐 기파랑이 어떤 인물이며 화랑으로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는 문헌에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다.

咽鳴爾處米	열치고
露曉邪隱月羅理	나타난 달이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흰구름 좇아 떠나는 것 아닌가
沙是八陵隱汀理也中	새파란 냇물 속에
耆郎矣牟史是史藪邪	기랑(耆郎)의 모습이 있어라
逸烏川理叱磧惡希	이로 냇물의 조약돌이
郎也持以支如賜烏隱	랑(郎)이 지니신
心米際叱肹逐內良齊	마음의 끝을 좇과자
阿耶柏史叱枝次高支好	아으 잣가지 높아
雲是毛冬乃乎尸花判也	서리 모르올 화판(花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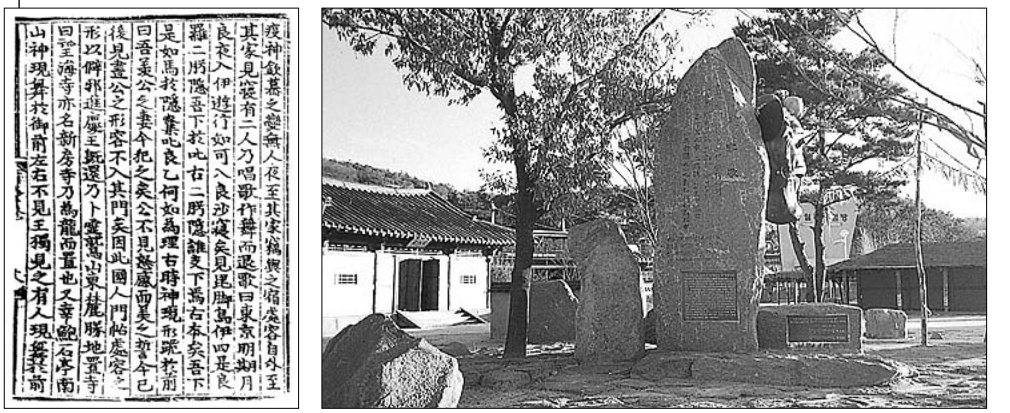
계림 경내의 찬기파랑가비(좌)와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의 「찬기파랑가」

2) 처용가(處容歌)

○ 시비(2001년 10월 건립) : 보문 엑스포공원 내
○ 비문의 시 : 처용가

신라 제49대 헌강왕(879~886) 때의 노래로 신라향가 14수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의 노래이다. 어느날 왕은 개운포[開雲浦 ; 지금의 울산]로 가서 놀다가 동해용(龍)의 조화로 인해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속에서 길을 잃고 만다. 일관(日官)의 말을 따라 부근에 절을 짓게 하니 용이 기뻐하며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 중에 한 아들을 데려와 벼슬을 내리고 또 아름다운 여자와 혼인케 했는데 이가 처용(處容)이다. 그 아내의 뛰어난 미모에 반한 역신(疫神)이 사람으로 변해 동침하자 현장을 발견한 처용은 오히려 대범하게 노래하며 물러났다. 그러자 역신은 크게 감동하여 이후로 처용의 얼굴만 그려 놓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맹서하였다.

東京明期月良	새벌 밝은 달 아래
夜入伊遊行如可	밤늦게 노닐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들어와 자리 보니
脚烏伊四是良羅	가랑이가 넷이어라
二肹隱吾下於叱古	둘은 내 것인데
二肹隱誰支下焉古	둘은 뉘 것인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디 내 것이다마는
奪叱良乙何如爲理古	빼앗긴 걸 어찌하리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 조의 「처용가」(좌)와 엑스포 공원 안의 시비

8. 한국문인협회(韓國文人協會) 경주지부(慶州支部)

1) 태동기 (1950년대)

1954년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문총) 경주지부가 결성되고, 경주에서 처음으로 '서라벌 예술제'가 열리게 되었다. 그 행사의 문학분과 일을 주도하였던 이들은 예술제를 마친 후 동인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처음 '팔일 동인회'라 이름을 정했다. 이 동인회가 열정적으로 자리를 거듭할 무렵인 1955년 봄, 청마 유치환 시인이 경주고등학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주중 · 고등학교 교사들을 주축으로 '청맥(靑麥)' 동인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결성을 하였고, 이들이 경주의 문학활동을 주도하였다.

이원팽, 박종우, 김해석, 정연길, 홍영기, 김윤식, 이종룡, 황호근, 이진원, 김영식, 오경환 등이었고, 청마의 작품을 함께 실은 '청맥' 동인지 창간호를 출간하여 이목을 끌었다.

한동안 진지한 문학 풍토를 이루던 이 동인들은 1960년대 정치 · 사회적 변모를 겪으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청마는 대구로, 박종우, 김해석, 정연길은 서울로 떠났다. 이 무렵 소설가 성학원이 경주여중으로, 평론가 원형갑이 경주고등학교 교사로 각각 부임하게 되면서 문학의 열풍은 다시 일기 시작했다.

2) 형성기(1960년대)

1961년 12월 31일 문화예술계도 새로운 정치질서의 여파로 각종 단체들이 재정비 개편됨에 따라 문학인들도 '한국문인협회'란 명칭을 걸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도 다투어 그 지부가 결성되었는데 한국문인협회 지부 창립 규약에 "등단한 기성 문인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야 한다"는 설치 요건이 붙어 있었다.

그리하여 경주는 원형갑, 성학원의 이름으로 인준 신청을 하여 1962년 9월 17일 인준 통보를 받고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와 함께 제일 먼저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가 결성되었다. 초대지부장에 원형갑, 부지부장에 성학원, 사무국장에 오경환이 선출되었다.

제3회 신라문화제부터 '전국한글백일장', '문학의 밤', '시화전' 등을 주관하였다.

신라문화제 '한글백일장'은 해가 갈수록 번창하여 이름 그대로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번졌다. 초 · 중 · 고 · 일반부에서 시 · 산문부로 나눈 참가자들은 경주의

영역을 넘어 대구, 부산, 서울에까지 분포도가 형성되었고, 이어 호남, 충청에서 참가한 이도 있었다.

신라문화제 '문학의 밤'은 회수를 거듭함에 따라 질적 · 양적 증가를 이루었다. 경향 각지에서 모인 문인과 경주 문학인들의 시 낭독으로 시작하여 초청 문인의 문학 강연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문학의 밤이 깊어가면 화가와 음악가, 조각가까지 합세하여 그야말로 예술의 밤이 되었는데, 이러한 풍류의 시절이 30여 년 이상 이어졌으니 경주는 문화 · 예술인들의 낭만적인 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신라문화제의 문협 고정 행사 가운데 또 하나는 '시화전'이었다. 경주의 시인들과 초청 시인들의 창조 작품에다 미술협회 회원들이 각기 한두 점씩 맡아 그림을 곁들인 시화(詩畵) 작품은 문화제 행사 기간 동안 전시되었다. 일정한 전시장이 없어 해마다 어렵게 실시되었지만 관람객의 관심과 인기는 대단하였다.

문협지부를 결성하여 기틀을 형성했던 원형갑과 성학원은 1965년까지 지부장, 부지부장을 번갈아 맡아 오다가 1966년부터 홍영기가 지부장이 되고 원형갑은 5년 간 경주생활을 청산하고 대구로 떠났다.

문협지부를 결성하고 기틀을 형성했던 원형갑은 충남 서천 출생으로, 『현대문학』지를 통해 문단에 등단한 후 '현대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활동이 왕성했고, 초창기 경주의 문학 풍토 조성에 공헌한 분으로서 서울 한성대학교 총장을 거친 후 타계했다.

그와 함께 문협지부 결성에 참여했던 성학원은 본명이 성호원이다. 그는 이북 태생으로 공립중등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다. 그는 1950년대 말 무게 있는 작품을 내 놓아 문단에 호평을 받던 역량 있는 작가였다. 1961년 경주여자중학교 국어교사로 부임하여 경주공업고등학교와 신라중학교 등으로 전근하면서 경주 문단의 초창기에 큰 족적을 남기고 경주에서 타계했다.

3) 성장기 (1970년대)

1968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하여 박목월 노래비(얼룩송아지)가 황성공원 독산(獨山) 기슭에 건립되었다. 한국아동문학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해온 '새싹회'에서 전국의 뛰어난 동시를 선정하여 그 작가의 고향에 노래비를 세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경주문협은 노래비 제막과 동시의 기념행사로 어린이 백일장을 열고 문학 강연회도 했다. 이 행사는 첫 회 이후 한 해도 빠짐 없이 지속하여 2004년 5월에 제37회 행사를 치루었다.

박목월 시인이 생존하였던 70년대에는 본인이 매년 참석하여 참가한 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백일장 제목을 직접 내고 심사하여 최고상인 '목월상'을 본인이 수여하며 격려했다. 목월 타계 후에도 목월 시인의 가족과 제자들인 '목월회' 회원과 경향 각지의 문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가장 전통 있고 뜻있는 대회로 이어졌다.

1970년대 초 박주일이 지부장을 맡아 새로운 변모를 모색하다가 대구로 가고, 1973년 총회에서 이근식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무렵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정민호가 『사상계』에서, 박주일은 『현대문학』에서 이근식과 서영수는 『현대시학』에서 시로, 허동인은 〈경향신문〉에 동시로 각각 등단하게 되어 풍성한 경주 문단이 이루어졌다.

1978년으로 접어들면서 서영수가 지부장을 맡고, 청마 유치환을 추모하는 제1회 한글백일장을 불국사 청마시비 앞에서 개막하였다. 청마(靑馬) 유치환(柳致環)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서 경주고등학교장(1955~59)과 경주여자고등학교장(1961~62)으로 재직하였다. 그의 시비가 전국에 수 없이 세워졌지만, 경주의 시비가 전국에서 청마시비 제1호가 된 것도 경주와의 깊은 인연에서 온 결과였다. 청마시비는 1968년에 청마 1주기를 맞아 한국문인협회와 현대문학사의 협찬으로 경주문협이 주관하여 건립한 것이다.

그리하여 청마 10주기가 되는 1978년에 전국한글백일장을 개최하였던 것이다. 제1회 청마백일장이 열린 현장에는 청마 미망인 권재숙 여사와 가족들, 그리고 부산의 허만하 시인을 비롯하여 대구와 서울에서 많은 문인이 참석하였고, 경주의 인사들과 선생을 따르던 제자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초등부가 없고 중 · 고등부와 일반부로 기획된 이 행사는 산문부를 넣지 않고 시부에 국한한 것이 청마백일장의 특색이기도 하다. 청마백일장은 2004년에 25회를 맞았으니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4) 발전기 (1980년대)

1980년대로 접어들어 설성희, 석병호, 이희목(시문학), 김기문(심상), 조동화(중앙일보), 김종섭, 손원상(월간문학)이 시로서, 손기원, 정운모가 아동문학으로 각각 문단에 등단하였다.

1981년에 정민호 지부장이 기관지 『경주문학』 발간을 준비하여, 1982년에 설성희 지부장이 마침내 『경주문학』 창간호를 출간하였다.

1986년에 정민호가 다시 지부장을 맡았다가 그해 7월 20일 부로 문협경주지부가 경상북도 지회로 승격되어 명칭과 체제가 바뀌게 되었다. 행정구역상 대구 · 경북이 분리됨에 따라 그 동안 공백상태였던 경북지회를 잠정적으로 맡겨 체제를 정

비하려는 한국문인협회 본부의 기획에 따른 승격 인준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연간으로 출판된 『경주문학』이 제3호부터 『경북문학』으로 제호를 바꾸게 되었다.

이 무렵 문협 경주지부는 일본 나라시 문화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한 · 일 합동시집을 2년(1986, 1987)에 걸쳐 국어와 일어로 출판했고, 한 차례씩 상호 방문도 하였다.

1988년에 명칭만 바꾸어진 경북지회장으로 서영수가 재임되었다. 처음으로 경북문학상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 확보는 보우문화재단 김재식의 후원으로 경북문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제1회 김천의 윤사섭(아동문학)을 필두로 2회 허동인(아동문학), 3회 이근식(시), 4회 정민호(시), 5회 김종섭(시) 등의 수상자를 1992년까지 배출했다.

1990년 2월, 문협이 창립된 경북 각 지역의 대표 5명씩이 도청 회의실에 모여 집행부를 구성하였는데, 서영수가 협의회장이 되고 김종섭이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이 협의회의 출발과 함께 『경북문단』 창간호가 12월에 출판되고, 1991년 2호까지 나왔다.

5) 융성기(1990년대 이후)

1992년 2월 경북문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경주 중심의 잠정적인 경북문협과 경북문인협의회가 동시 해체를 선언하고 경상북도 문인 전체가 합의 구성한 한국문협 경북지회가 새롭게 탄생하였다.

그리하여 경주는 문협 경북지회에서 경주지부로 환원되었다. 3월 재발족 총회에서 지부장에 정민호, 부지부장에 김종섭을 뽑고 이때 다시 『경주문학』이란 제호로 바꿔 10호가 발간되었다.

1990년 초기 윤기일(현대문학)이 시로, 황능곤이 시조, 이동주, 손경호(한국수필), 조명래(문학공간)가 수필로 김봉환(한국문학)이 소설로 등단한 이후 1990년대 말기까지 권윤식, 김재식(문학세계), 김건일(시와의식), 황순희, 최태호, 박원, 장명희, 도은숙(문예사조)등이 수필로, 김대원(농민문학), 조순호, 정구찬, 조관제, 진용숙, 권혁주, 조광식, 최상문(문학세계), 노종래, 이상도(월간문학), 황영선(시문학), 조신호(신라문학대상) 등이 시 또는 시조로 등단하였고, 동화작가 박숙희가 90년대 중반부터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1990년대 들어 석병호(95년), 허동인(96년), 김종섭(98년)이 경상북도 문화상(문학부문)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문학상에 수많은 수상자가 나왔다. 70

년대 초 중앙일보 신춘으로 등단하여 중진으로 활동하던 문학평론가 장윤익이 경주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여 1995년 문협에 가세할 무렵, 서울 거주의 시인 김해석, 김월준과 작가 이채형, 유만상 등의 출향 문인들이 경주 문협에 가입하여 융성기의 면모를 보였다.

1991년 12월 14일에는 박목월 시비를 보문단지 내에 건립하여 제막하였다. 이 시비에는 '달'이란 목월의 시가 새겨져 있다. 보문호를 안고 우뚝 선 이 시비는 경주 보우주택 김재식의 재원으로 세워진 것이다. 문학평론가 곽종원이 뒷면에 설문을 쓰고, 조각가 이동호가 조형했다.

1994년 경주문협 부설 '문예대학'이 개설되어 이근식 시인의 애착과 노고로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경주 문학인의 저변 확대와 문인 양성에 큰 공적을 남겼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15여 년 간 전국적인 권위와 위상을 높여 가는 '신라문학대상' 공모가 있다. 이 행사는 민족 문학의 발상지이며 향가의 고향인 경주에서 신라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려는 데 참 뜻을 두고 있다.

당선 작품은 당해에 『월간문학』과 『경주문학』에 발표하고 이를 모아 3년마다 『신라문학대상 당선작품집』을 출판하게 되어 다섯 권의 작품집이 나왔다. 1996년부터 1999년도까지는 지부장에 이희목과 조동화가 이어 맡았고, 2000년 허동인, 2002년 윤기일 등이 지부장에 선출되어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문학 기행 및 월례회를 베풀며 회원 작품집인 『경주문학』을 연 2회로 출판하여 현재까지 34호를 내었다.

〈표 6-2-1〉 문인협회 경주지부 역대 지부장

차례	지부장	재임 연대
초대	원형갑	1962. 9. 17
2대	성학원	1964
3대	홍영기	1966
4대	성학원	1967
5대	성학원	1968
6대	홍영기	1969
7대	성학원	1970
8대	박주일	1971
9대	홍영기	1972
10대	이근식	1973
11대	이근식	1976
12대	서영수	1978
13대	정민호	1980
14대	설성희	1982

차례	지부장	재임 연대
15대	정민호	1985
16대	서영수	1988
17대	장승재	1991
18대	정민호	1992
19대	김종섭	1994
20대	이희목	1996
21대	조동화	1998
22대	허동인	2000
23대	윤기일	2002
24대	김기문	2004

제2절 음악(音樂)

1. 한국음악(韓國音樂)

1) 삼국시대 신라음악(新羅音樂)

⑴ 신라의 궁중음악(宮中音樂)과 향토음악(鄕土音樂)

삼국시대 신라음악은 통일신라 이전의 음악을 일컫는다. 즉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4세기 경에 걸쳐 형성된 여러 정치집단인 '진한'과 사로국이 모체가 되어 '신라'라는 국가가 형성되는 4세기 중엽부터 삼국통일기인 676년까지의 음악을 말한다.

진한의 음악에 관하여 『삼국지』에는 "변진 그 나라의 풍습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마시기를 좋아한다. 슬(瑟)이 있는데, 그 모양은 축(筑)과 같고 연주하는 음곡(音曲)도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양이 축과 같은 슬'이란 악기로 연주도 하였다. 이 기록은 중국 사람의 기록이므로 그들이 진한의 현악기 명칭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악기는 고대의 현악기 '고'라고 짐작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슬(瑟)처럼 생긴 악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고'라는 명칭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얏고'와 '거문고'라는 악기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한시대 음악활동은 '고'라고 할 수 있는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악 ·

가 · 무의 종합예술형태라고 하겠다.

① 궁중음악

신라음악에 대한 전반은 『삼국사기』 잡지 악 조에 음악의 종류를 시기별로 소개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2〉 신라의 궁중음악

음 악	시 대	음 악 가
회악 · 신열악	유리왕	
돌아악	탈해왕	
지아악	파사왕	
사내악	내해왕	
가무	나물왕	
우식악	눌지왕	
대악	자비왕	백결
우인	지증왕	천상욱개자
미지악	법흥왕	
도령가	진흥왕	
날현인	진평왕	담수
사내기물악		원랑도

유리왕 때 지었다는 회악(會樂)은 팔월 보름날 길쌈을 하면서 여인네들이 춤을 추며 노래불렀다는 회소곡(會蘇曲)으로 밝혀졌다. 나물왕 때 가무(笳舞)는 가(笳)라는 관악기 반주에 맞추어 추는 춤이며, 통일 이후 신문왕 때까지 연주된 곡이다. 우식악(憂息樂)은 눌지왕이 직접 지은 가무(歌舞)로서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동생 미사흔(未斯欣)이 박제상의 공로로 무사히 귀국한 것을 기뻐하여 지은 곡이다. 대악(碓樂)은 백결선생(百結先生)이 지은 '방아음악'으로 연말을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 지어진 현악기 반주의 음악이다.

여기서 나물왕부터 진평왕에 이르기까지 실성왕, 소지왕, 진지왕시대 즉 3대 왕대에 대한 음악이 빠진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실성왕은 나물왕의 태자인 눌지가 덕망이 있어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므로 고구려의 힘을 이용하여 눌지를 제거하려 했으나, 오히려 고구려는 눌지를 지원하여 정변을 일으켜서 실성왕은 살해되었다. 소지왕은 16세 미모의 벽화를 첩으로 삼고 두 달만에 죽는데, 소지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실정(失政)으로 인하여 폐위된 것이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이 있다. 진지왕 역시 재위 3년 만에 정란황음(政亂荒淫)하여 제왕의 위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폐위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에서는 거의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라의 궁중음악은 왕의 재위기간 동안 통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 음악은 일반적인 음악이 아니라 각 왕대의 덕업과 관계가 있으며, 왕실과 밀접하므로 궁중음악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따라서 궁중에서 공식적인 행사 때 악기반주에 맞추어 연행된 음악으로 볼 수 있다.

음성서(音聲署)는 궁중음악기관으로서 진덕여왕 5년(651)에 설치되었다. 관원 구성은 경[卿, 혹은 장(長)] 2명, 대사(大舍) 2명, 사(史) 4명과 20여명의 악공(樂工)으로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국가의 각종 제사와 연회에서 행해지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국왕의 행차 시에 음악을 연주하고, 악공들을 파악 등록하고 이를 교육하며, 지방에 있는 유명한 악사로부터 음악을 배워오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시 후학을 길러내는 업무 등을 관장하였다.

② 향토음악(鄕土音樂)

신라에는 궁중음악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음악도 있었으니,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2-3〉 신라의 향토음악

향토음악	지역
내지	일상군
백실	압량군
덕사내	하서군
석남사내	도동벌군
사중	북외군

일상군과 북외군은 경상도의 어느 지역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압량군은 경산시 압량지역이며, 하서군은 울산광역시 하서지방이고, 도동벌군은 영천지방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내지(內知), 백실(白實), 덕사내(德思內), 석남사내(石南思內), 사중(祀中)은 신라시대 각 지역에서 연주된 악곡명이다.

⑵ 신라 음악가(音樂家)와 음악

신라시대 음악가로 기록에 남아있는 인물은 물계자(勿稽子), 백결선생(百結先生), 천상욱개자(川上郁皆子), 담수(淡水), 계고(階古), 법지(法知), 만덕(萬德), 융천사(融天師), 실혜(實兮), 원랑도(原郎徒) 등이 있다.

물계자는 3세기 경의 인물로 현악기 '금'(琴)을 연주하며 자신의 뜻을 노래로 불렀다. 백결선생은 낭산(狼山) 아래 살았는데, 세모를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 역시 현악기 '금'으로 방아소리를 내며 시름을 달래주었는데, 그 음악이 '대악'(碓樂)이다. 천상욱개자는 어떤 사람인지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았으나, 지증왕 때(500~514) 사람인데, 우인이란 곡을 지은 작곡가이다. 계고, 법지, 만덕은 진흥왕 때 활동한 음악가들로서 551년 우륵이 대가야로부터 투항해 왔을 때 우륵의 음악을 전수받았다. 계고는 가야금을, 법지는 노래를, 만덕은 춤을 각각 전해받았는데, 우륵의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신라 사회에 맞게 변용하여 신라음악으로 발전시킨 음악가들이다.

융천사(融天師)는 진평왕(579~632)때 인물로 향가인 '혜성가'를 지었다. 당시 세 사람의 화랑이 풍악(楓岳)으로 유람하려 하는데,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여 낭도들이 의아해 하여 유람하지 않았다. 그때 융천사가 '혜성가'를 지어부르니 혜성의 괴변이 사라지고, 때마침 침략한 왜구도 물러가 도리어 복이 되었고, 왕이 기뻐하여 낭도를 풍악에 보냄으로써 유람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혜성가'를 부르니 괴변이 사라지고 적병이 물러간 점으로 볼 때, 당시 노래에 주술적인 힘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혜 역시 진평왕대 인물인데, 성품이 강직하여 의리에 어긋나는 일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진제(珍堤)라는 간사한 사람으로부터 참소를 입어 좌천(左遷)되어 길 떠나게 되었는데, 왕에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나면서 그 사연과 억울함을 노래로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혜가'이다.

이 외에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곡명이나 노랫말이 남은 신라음악이 다수 있다. 서동요(薯童謠)와 풍요(風謠)같은 향가가 있으며, 원화제도를 폐지하게 된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의 사건을 폭로한 '동요(童謠)'도 있다.

서동요는 내용상 무왕이 지은 곡으로 6~7세기 경에 아이들이 부른 동요의 하나이다. 풍요는 『삼국유사』 양지사석(良志使錫) 조에 실려 있는데, 승려 양지가 영묘사에서 불상을 만들 때 그 일을 도와주려는 신도 남녀가 진흙을 운반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풍요'는 유행하는 노래 즉 오늘날 민요와 유사한 의미로 본다. 따라서 민요 가운데 노동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화 남모를 살해한 준정의 음모를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함으로써 일의 전모가 드러나 결국 원화제도가 폐지된 기록이 있다. 이렇듯 6~7세기 신라에서 동요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되었음이 주목된다.

한편, 6~7세기 신라사람들은 중요한 업적을 이룬 인물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추모를 했는데, 바로 해론(奚論)을 위해 부른 '장가(長歌)'와 김흠운(金歆運)을 위한 '양산가(陽山歌)'가 그것이다. 해론은 백제와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인물인데, 당시 신라인들이 싸움에서 영예롭게 전사한 해론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장가를 지어 조문하였다. 김흠운은 태종무열왕의 사위인데, 고구려와 백제와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렇듯 나라를 위해 전사한 김흠운을 위해 당시 신라인들이 찬양하고 추모하는 뜻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곡이 '양산가'이다. 양산은 김흠운이 전사한 곳으로 지명을 본 딴 곡명이다.

이와같이 신라인들은 노래를 이용하여 음모가 있었던 사건을 폭로시켜 사건이 해결되도록 하였고, 장렬히 전사한 인물의 경우 그 용맹을 가슴에 되새기기도 하였다.

〈표 6-2-4〉 신라시대 음악가와 음악

음악가	시기	음악	비고
물계자	2~3세기	물계자가	금(琴)연주
백결선생	자비왕	대악	금(琴)연주
천상욱개자	지증왕	우인	
계고	진흥왕	우륵으로부터 가야금을 전수받음	
법지		우륵으로부터 노래를 전수받음	
만덕		우륵으로부터 춤을 전수받음	
작자 미상		동요	남모와 준정 사건
담수	진평왕	날현인	승려
원랑도		사내기물악	화랑의 무리
융천사		혜성가(향가)	승려
실혜		실혜가	
당시 사람들		장가	
당시 사람들		양산가	김흠운 추모

(3) 신라의 악기(樂器)

신라의 악기에 대해서는 문헌에 현악기 '금(琴)'과 관악기 '가(笳)'가 기록되어 있으며, 고고학 자료에는 '비파(琵琶)'가 나타난다. 한편, 문헌과 고고학 자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종류의 북과 종, 징 등의 타악기도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① 현악기 금(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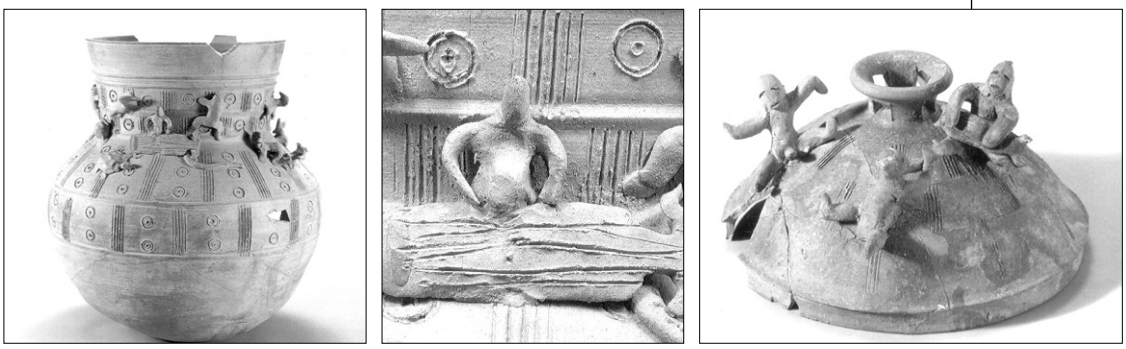
금에 대한 문헌의 기록으로는 『삼국유사』에 물계자가 연주한 금(琴)과 백결선생

이 연주한 금(琴) 및 사금갑(射琴匣) 조에 '금갑'에 대한 것이 있다. 지금까지는 음악학계뿐만 아니라 사학계에서도 기록에 나타난 금을 일반적으로 가야금 혹은 거문고로 해석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로서 가야금이나 거문고와는 다른 '신라의 금'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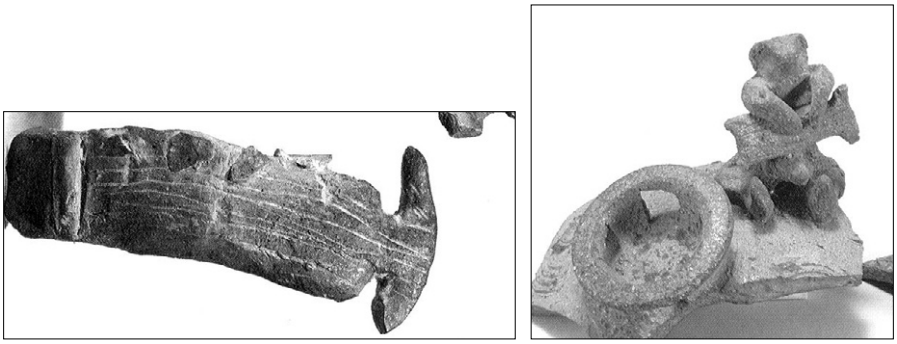
왜냐하면, 첫째는 우륵이 가야금을 신라에 전한 시기는 551년인데, 물계자나 백결이 연주했다는 금은 이보다 100~200년 이상 앞서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라의 4~5세기 생활양상을 보여주는 고고학자료 가운데 '신라토우'가 있는데, 토우에 현악기인 '금'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상 유물이 12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결이 연주한 금은 가야국의 가야금도 아니며, 고구려의 거문고도 아닌 신라의 금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신라의 금은 그 형태가 오늘날 가야금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양이두(羊耳頭)는 신라의 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닮았다.



계림로 출토 장경호(높이 34.2cm, 좌)와 세부(여자 연주상, 중), 춤반주 토우(우)



신라금(좌)과 신라금 연주 남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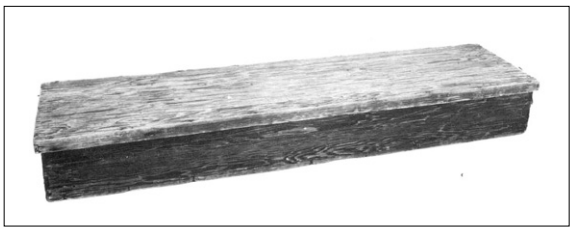
이렇듯 임산부 여인이 연주하기도 하며, 백결선생이나 물계자처럼 남자들이 연주하기도 하여 신라의 남녀가 모두 즐겨 탄 악기가 금이다. 금의 반주에 맞추어



신라금병창 토우 1(좌)과 토우 2(우)

춤을 추는 모습도 토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 '신라금병창' 도 연행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토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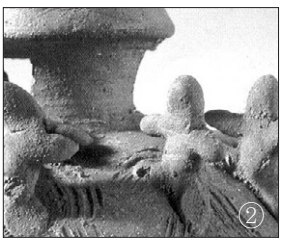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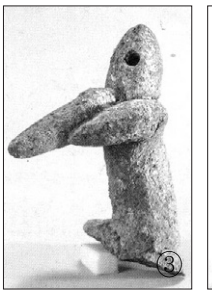
신라의 금은 거의 오늘날 가야금의 형태를 구비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악기 구조가 닮았다. 한편, 『삼국유사』 사금갑 조에 나오는 '금갑' 은 '악기를 넣는 상자' 로서 악기를 넣어서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케이스(case)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러한 악기 케이스가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한 유물 가운데 '신라금궤' 가 지금도 일본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되어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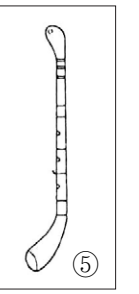

▲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금궤

결국, 『삼국유사』에 기록된 금갑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신라금궤' 를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특히 길이가 183.5㎝, 폭이 43.8㎝, 높이가 24.0㎝인 점을 보면, 토우장식장경호의 현악기 규모만큼이나 큰 규모의 악기로 짐작할 수 있다.

② 관악기 가(笳)

나물왕 때 지은 곡으로 '가무' (笳舞)가 있는데, 가(笳)는 세로 잡고 부는 종적류의 악기로서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연주된 관악기의 일종이다. 따라서 '가무(笳舞)' 는 관악기 가(笳)를 반주로 하여 춤추는 무곡(舞曲)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시대 가(笳)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笳)로 볼 수 있는 종적(縱笛)의 악기가 신라토우의 주악상에 있다.


① 고배뚜껑 장식 토우, ② 연주토우 1, ③ 연주토우 2, ④ 연주토우 3, ⑤ 조선시대 가(笳)

③ 비파(琵琶)

신라인들은 휴대하기 간편한 비파를 들고 다니면서 연주하기도 하였다. 신라토우에는 비파주악상도 나타난다.

『삼국사기』 잡지 악 조의 비파 조를 보면, "신라에서 시작됐으나,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렇게 비파는 신라에서 비롯된 악기이기 때문에 가야금 악곡 185곡이나 거문고 악곡 187곡보다 더 많은 212곡이라는 곡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신라는 관악기와 현악기를 모두 구비하여 통일신라 이전에 이미 춤반주 혹은 노래 반주에 사용했던 것이다. 남녀가 모두 현악기 연주를 즐겼고, 병창도 이 시기에 연행되었다.



비파연주 토우상(높이 12.7cm, 좌)와
비파연주 토우상(호암미술관 소장, 우)

(4) 외래음악의 수용

신라는 6세기로 접어들면서 중앙집권국가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가야를 복속시킴과 동시에 이전 시기와는 달리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6세기 이후에 신라가 성장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외래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신라의 급속한 성장과 관련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신라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과의 교섭을 본격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왕의 통치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악의 교류도 당연히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외래음악 수용은 이웃한 가야를 비롯하여 동 시대인 남·북조 및 수(隋)·당(唐)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① 가야음악의 수용(受容)

가야음악의 수용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다. 551년에 진흥왕(眞興王)은 우륵(于勒)과 그의 제자 이문(尼文)이 음악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직접 만나서 음악을 듣는다. 왕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라인 계고와 법지, 만덕을 보내어 우륵의 음악을 배우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기록을 보면, 이 세 사람은 우륵의 12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5곡으로 줄이며, 진흥왕은 이 음악을 '대악(大樂)'으로 승격시켜 왕실에서 연주하도록 하였다. 진흥왕이 대가야음악과 악사를 왕실의 음악, 더 나아가 국가의 음악으로 수용

한 것은 외래음악을 받아들여 신라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6세기 무렵의 신라는 외래음악을 자주적으로 수용할 정도로 음악적 역량이 성숙했었다.

② 수(隋)나라와의 음악교류

신라는 수나라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는데, 589년부터 613년까지 신라와 수의 교류가 표기된 관련 기록이 『삼국사기』에 10회나 등장한다. 남북으로 분열됐던 중국 대륙을 수나라가 통일하면서 수나라 황실에서는 남북국의 음악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음악을 통합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신라악이 잡악으로 자리잡은 기록이 『수서』 권 15에 전한다.

> 처음으로 개황[開皇, 580~600] 초에 7부(部)의 음악을 정하였는데, 첫 번째가 국기(國伎)이며, 두 번째는 청상기(淸商伎)이다. 세 번째가 고려기(高麗伎)이며, 네 번째는 천축기(天竺伎), 다섯 번째는 안국기(安國伎), 여섯 번째는 구자기(龜玆伎)이고, 일곱 번째는 문강기(文康伎)이다. 또 잡악으로 소륵(疎勒), 부남(扶南), 강국(康國), 백제(百濟), 돌궐(突厥), 신라(新羅), 왜국(倭國) 등이 있었다.

이렇듯 수나라에 악공이 파견된 것으로 볼 때, 신라 악공들이 대륙의 음악은 물론이거니와 대륙으로 모여든 각처의 음악과 직접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신라 여악(女樂)의 당나라 파견 및 당악 수용

신라는 7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전의 남북조 및 수와의 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당(唐)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신의 왕래는 더욱 잦았다. 신라와 당과의 음악교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라에서 여악(女樂)이 당(唐)으로 건너간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신라가 당악(唐樂)을 수용한 것이다. 신라에서 당으로 사신을 파견할 때 여악(女樂) 혹은 미녀(美女)를 바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 정관 5년(631)에 사신을 보내어 여악(女樂) 두 사람을 바쳤는데, 모두 머리가 새까만 미인이었다. 태종이 사신에게 "짐이 들으니 성색(聲色)을 즐기는 것은 덕(德)을 좋아함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 그리고 산천(山川)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고향을 그리워할 것도 알 수 있다. 얼마전에 임읍(林邑)에서 바친 흰 앵무새도 오히려 고향을 그리워할 줄 알아 제 나라로 보내줄 것을 하소연하였다. 새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인정(人情)에 있어서랴! 짐은 그

들이 멀리 떠나와서 반드시 친척을 그리워할 것을 불쌍히 여긴다. 마땅히 사자(使者)의 편에 보내어 제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사절요』에 당으로 '미녀를 바쳤다' 는 기록은 미(美)를 겸한 여악공이 보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664년에 당악을 수용하기 이전인 631년에 이미 신라의 여악이 당으로 파견된 사실을 증명하며,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 668년과 723년, 그리고 818년 기록에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세기 초에 신라에서는 당으로 사신을 보낼 때 미(美)를 겸한 여악공들이 보내졌다. 이들은 황제의 측근에서 기첩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띠었기에 어느 정도의 교양과 지식을 겸비한 귀족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야 했다. 이들은 돌아오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그곳에 머무르기도 했는데, 이들의 체류 혹은 왕래로 인하여 대륙의 문물이 신라로 들어 오거나 혹은 신라의 음악이 대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라는 백제와의 전투를 위해 바다 건너 당(唐)나라와 연합을 맺었는데, 나당연합으로 660년 백제를 무찌른 후 웅진부성(熊津府城)에 온 당(唐)나라 진영에 성천(星川)과 구일(丘日) 등을 보내어 당악(唐樂)을 배우게 한 기록이 있다.

문무왕 4년, 웅진(熊津)에서 김인문(金仁問)과 당나라 칙사(勅使) 유인원(劉仁願) 및 백제의 부여융(扶餘隆)이 함께 맹약을 하였다. 그리고 3월에 사비산성(泗沘山城)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므로, 이를 진압한 후에 마침내 웅진부성으로 성천과 구일 등 38명을 파견하였다. 그런 다음 7월에는 또다시 일선주(一善州)와 한산주(漢山州) 병사와 웅진부성의 군사가 합세하여 고구려 돌사성(突沙城)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신라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당에서 건너온 음악의 수용을 위해 성천과 구일 등 38명을 파견하는 적극성을 보였으며, 같은 해 7월에 웅진부성의 군사가 다른 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공격한 것으로 볼 때 수용기간은 길게 잡아 3월에서 7월까지 약 5개월 간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수용된 음악은 당나라의 군악(軍樂) 계통의 고취악(鼓吹樂)이었을 것이다.

(5) 불교의 전래와 불교음악(佛敎音樂) 수용(受容)

불교음악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불교음악은 불교로 인하여 생성되거

나 불교와 관계있는 모든 음악을 총칭하는 말이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음악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전문소리인 범패(梵唄)뿐만 아니라, 염불(念佛), 축원(祝願), 송경(誦經), 독송(讀誦), 게(偈) 등을 모두 포함하며, 좁은 의미는 전문소리인 범패에 한정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찰에서 재(齋)뿐만 아니라 일상 예불(禮佛)을 올리는 것은 곧 불교의례를 말하며, 불교의례와 반드시 함께 행해지는 것이 불교음악이 아닌가 한다.

신라에서 551년에 처음으로 고구려 승려 혜량(惠亮)에 의해서 '백좌강회(百座講會)'와 '팔관의 법[八關之法]'이 시작되었음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백좌강회란 백 개의 자리를 마련하여 강회를 연다는 뜻으로, 이것을 백고좌회(百高座會)라고도 한다. 백고좌회란 불교 경전 가운데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을 읽으면서 국가의 안태(安泰)를 기원하는 법회이다. 결국 이것은 불교의식의 한 종류이다.

그리고 '팔관의 법'이란 '팔관회'를 말하는 것으로, 왕실의 후원 아래 개최된 의례로서 임금의 장수(長壽) 기원과 왕실의 조상숭배 의례로서의 기능이 있다. '팔관'은 원래 수행자들이 옳은 행동을 하도록 규정한 여덟 가지 불교 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팔관회 역시 불교의식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수용된 이러한 불교의식은 그 이후 계속되었는데, 백좌강회의 경우 진평왕과 선덕왕대에도 지속된 기록이 있다.

6~7세기에 개최된 백좌강회는 그 설치 목적이 대외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염원한다거나 국왕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든가 하는 호국적인 의미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에서 주관한 백좌강회와 팔관회는 규모가 큰 의식이었고, 국가의 안태와 관련된 의식이었다.

이와는 달리 사찰이 완공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낙성회(落成會)'와 매달 정기적으로 '육재일(六齋日)'이 행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2) 통일신라시대 음악(音樂)

⑴ 궁중음악(宮中音樂)과 공연형태(公演形態)

① 악곡의 종류와 공연형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음악에 있어서도 고구려와 백제 음악을 수용하여 더욱 다양한 음악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나당연합으로 통일을 이루고 난 뒤 신라는 676년 당(唐)의 세력마저 몰아내고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 680년 신문왕대(神文

王)에 이르면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데, 신문왕 9년인 689년에 '신촌(新村)'에서 큰 연회가 열렸다. 이때 연주된 궁중음악과 구성원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志)의 악(樂) 조(條)에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2-5〉 신문왕 9년 궁중음악과 구성원

악곡명	감	악기	춤	노래	구성원 전체
가무	6	가(?) 2	1	×	9
하신열무	4	금(琴) 1	2	2	9
사내무	3	금(琴) 1	2	2	8
한기무	3	금(琴) 1	2	×	6
상신열무	3	금(琴) 1	2	2	8
소경무	3	금(琴) 1	1	3	8
미지무	4	금(琴) 1	2	×	7

표는 신문왕 9년(689)에 왕이 신촌에 행차했을 때 잔치에서 연행된 악곡(樂曲)들로서, 가무(笳舞), 하신열무(下辛熱舞), 사내무(思內舞), 한기무(韓岐舞), 상신열무(上辛熱舞), 소경무(小京舞), 미지무(美知舞)의 7곡이다.

가무는 나물왕대(356~401)에 만들어진 것인데, 신문왕대까지 약 300년 동안 계속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관악기 가(笳)의 반주에 의한 춤곡이다. 관악기 가(笳)를 연주하는 악공 2명과 춤 1명, 그리고 감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때 감(監)은 신라 중앙관서(中央官署)의 하나인 감전(監典)에 소속된 인원의 뜻과 관련시켜 연주[奏樂] 등의 진행을 감독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책임지는 관부이고, 그러한 일을 맡은 소속 관원(官員)들을 통칭하여 '감'이라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신열무는 감 4명, 금 1명, 춤 2명, 노래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내무는 감 3명, 금 1명, 춤 2명, 노래 2명이다. 한기무는 감 3명, 금 1명, 춤 2명으로 노래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음악과 춤으로만 이루어진 곡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례는 아래에 있는 미지무 역시 감 4명, 금 1명, 춤 2명으로 역시 노래가 없다. 그리고 상신열무는 감 3명, 금 1명, 춤 2명, 노래 2명인데, 앞에 있는 '하신열무'와 '상하'(上下) 관계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서로 관련이 있는 곡으로 짐작된다. 소경무는 감 1명, 금 1명, 춤 1명, 노래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신라의 '9주 5소경'의 '소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보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다.

이와 같이 신문왕 때 잔치에서 연행된 악곡은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행사 때 연행되었기 때문에 궁중음악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구성원이 중앙관서

의 관부와 악기 연주자, 춤꾼 그리고 노래하는 가공(歌工)인 점으로 볼 때 악기와 춤 그리고 노래 등 악 · 가 · 무의 종합예술형태로 연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악곡에서 전체 구성원이 6~9명인 점으로 볼 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 편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애장왕 8년(807)에 연주된 음악에는 연주하는 악공(樂工)과 춤추는 무공(舞工)들의 구성인원과 복식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6〉 애장왕 8년 연행된 궁중음악과 복식

악곡/구성원	계	춤꾼	금(琴) 연주자	가수
사내금	10명	푸른색 옷(4명)	붉은색 옷(1명)	채색된 옷 수놓은 부채(5명)
대금무		붉은색 옷	푸른색 옷	

사내금을 연주한 다음 대금무가 이어졌는데, 아마도 두 곡은 번무(番舞) 관계의 악곡으로 보인다. '번무'란 공연 때 서로 관계되는 춤끼리 하나의 짝을 이루며 연주되는데, 한 짝이 되는 관계를 번무라고 한다. 일본의 『고사유원(古事類苑)』 악무를 보면, 삼국의 음악인 고려악(高麗樂)의 무악곡(舞樂曲)이 번무였다고 한다.

② 궁중음악기관 음성서(音聲署)

궁중음악인 가무, 하신열무, 사내무… 등의 악곡이 신라 악인들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음악기관이 '음성서(音聲署)'이다. 이 음성서는 이미 통일 이전인 진덕왕 5년(651)에 설치되었으며, 통일 이후에도 음성서는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문왕 7년(687)에 음성서의 수장인 장(長)을 경(卿)으로 고쳐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음성서를 경덕왕대(742~765)에 그 이름을 '대악감'(大樂監)으로 바꿨지만, 혜공왕대(765~780)에 다시 '음성서'로 하였다. 이 기관의 업무는 국가의 행사 때 악 · 가 · 무를 연행하였으며, 악공들의 교육과 습악도 겸비한 것으로 짐작된다.

③ 신라의 군악대(軍樂隊)

신라는 통일 이전부터 군악대가 형성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기록상으로는 673년 김유신이 죽자 문무왕이 군악고취 100명을 내어주어 금산원에 장사지내게 하였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신라왕실에 군악대가 있었으며, 국가 행사에 고취대가 연주했는데, 장례행렬 때도 연주하였음을 시사한다.

(2) 악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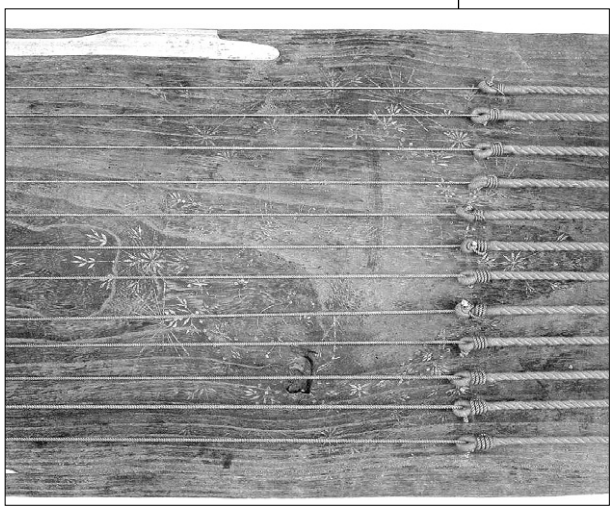
신라의 대표적인 악기로는 『삼국사기』에 '삼현', '삼죽', '박판', '대고'가 기록에 나타난다. 그리고 문헌상에는 없으나,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통일신라의 악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모두 갖추었다고 추정된다.

① 현악기(絃樂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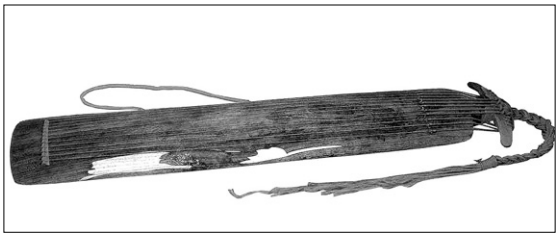
현악기로 대표되는 것은 '삼현(三絃)'이다. 삼현은 거문고[玄琴], 가야금(加耶琴), 비파(琵琶)를 말한다. 고고학 자료에 보이는 현악기로 '공후'도 있다. 그리고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금'도 현재 일본의 정창원에 3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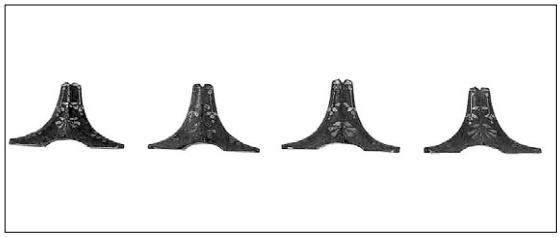
가.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금(新羅琴)

일본 정창원에 있는 '신라금'은 3종이 있는데, 오늘날 가야금과 너무도 흡사한 구조를 지녔다. 신문왕 9년에 연주된 하신열무, 사내무, 한기무, 상신열무, 소경무, 미지무 등에는 대부분 현악기를 연주하는 금(琴)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때 금이 4~5세기 신라토우에 나타나는 신라금인지, 우륵이 전한 가야금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백결선생이 연주한 금(琴)의 음악인 '대악'이 애장왕 8년에 '대금무'로 연주된 점으로 볼 때, 가야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가야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일본 기록을 보면, 신라인 '사량진웅'(沙良眞熊)은 신라금 연주를 잘 하였으며 일본인들에게 그 비법을 전하였다 한다.



신라금 세부 금박장식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금(좌)와 신라금 안족(우)

나. 거문고[玄琴]



무용총벽화 거문고

거문고는 원래 고구려에서 제작된 악기인데,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에 전해진 듯하며 효조왕 때 거문고가 왕실의 보물고인 천존고(天尊庫)에 보관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거문고 음악에 쓰인 악조(樂調)는 평조(平調)와 우조(羽調) 두 가지이고, 두 악조로 작곡된 거문고 곡은 모두 187곡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거문고 연주자 옥보고(玉寶高)가 지리산에 들어가 악곡 30곡을 지었으며, 그의 음악이 속명득(續明得)에게 전수되었고, 속명득의 거문고 음악은 또 다시 귀금선생(貴金先生)과 안장(安長), 청장(淸長), 극상(克相), 극종(克宗) 등에게 전해졌다. 이 시기의 거문고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거문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것은 오늘날의 악기 형태와 거의 유사하다.

다. 가야금

551년에 우륵이 신라로 전한 현악기이다. 『삼국사기』에 보면, 가야금의 악조는 하림조(河臨調)와 눈죽조(嫩竹調) 두 가지이며, 이 악조로 창작된 악곡이 185곡이었다고 전한다.

라. 비파(琵琶)

비파는 오늘날의 기타처럼 생겼는데, 휴대하기에 간편한 악기이다. 문무왕의 동생인 거득공(車得公)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 승려 차림으로 다닐 때 바로 비파를 휴대하였다. 따라서 통일 전후에 당시 승려들이 애용한 악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파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고고학 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현악기가 바로 비파이다.



감은사 사리기 비파상(좌)과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 비파상(중), 상주 석각천인상 비파상(우)

감은사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기에도 비파가 있으며, 봉암사 지증대사부도와 상주 석각천인상에도 비파가 나타난다. 이 시기의 비파는 그 형태가 다양하다. 악기의 줄감개 부분이 곧은 것과 굽은 것으로 나눠지며, 연주법에 있어서도 손으로 타는 것 혹은 발(撥)을 이용하여 타는 것으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비파에 쓰인 악조는 궁조(宮調), 칠현조(七賢調), 봉황조(鳳凰調) 이상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세 악조를 바탕으로 연주된 악곡이 모두 212곡이 있었다고 한다.


상원사 동종 공후 연주상

마. 공후(箜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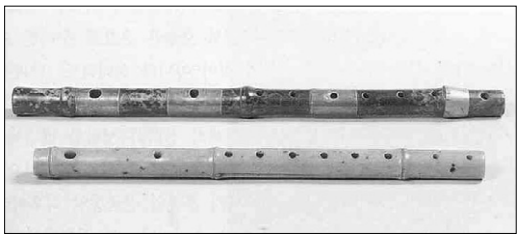
공후는 오늘날 하프같은 형태의 현악기이다. 상원사 범종에 현악기 공후를 연주하는 천인상(天人像)이 있는데, 이 시대 현악기로 공후가 새롭게 등장한다. 그리고 신라 석탑의 기단부에 팔부신중이 공후를 연주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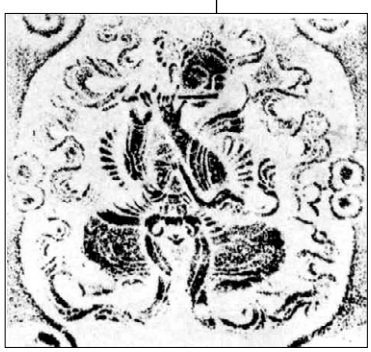
② 관악기

『삼국사기』 잡지의 악 조에서 신라악으로 소개한 신라의 관악기로는 '삼죽' 뿐이다. 그러나 689년 신촌에서 연주된 '가무(笳舞)'의 가(笳)도 관악기이며, 고고학 자료를 볼때 생황과 피리류의 종적(縱笛)도 있어 주목된다.

가. 삼죽

삼죽(三竹)이란, 대금(大笒), 중금(中笒), 소금(小笒)을 말하는데 모두 악기의 제작 재료가 대나무인 까닭에 '삼죽'이 되었다. 삼죽 음악에 쓰인 악조는 일곱 가지인데, 평조(平調), 황종조(黃鍾調), 이아조(二雅調), 월조(越調), 반섭조(般涉調), 출조(出調), 준조(俊調)이다. 삼죽의 악곡은 대금곡이 324곡이고, 중금곡이 245곡이며, 소금곡이 298곡이 있었다고 전하여, 총 867곡으로 가장 많은 악곡 수를 지닌 점으로 볼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삼죽을 애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옥적(국립박물관 소장, 좌)과 봉암사 지증대사 부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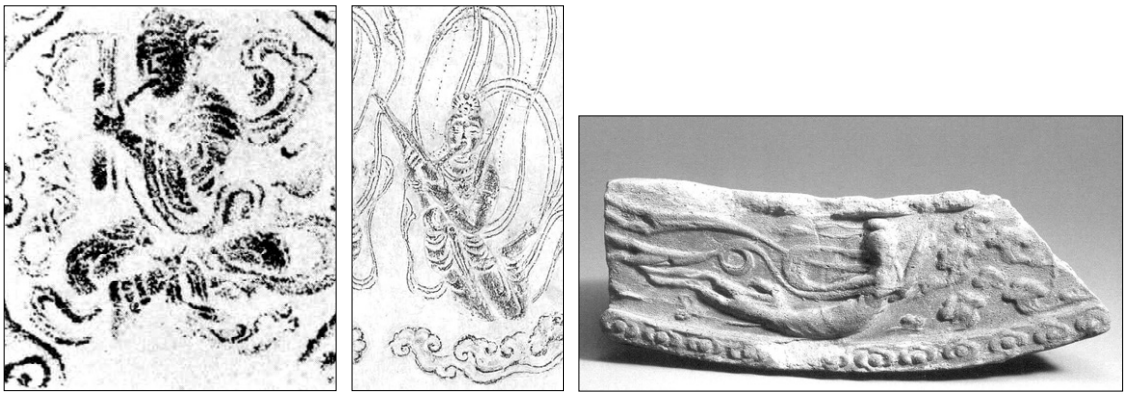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금동판불 가운데 관악기

를 연주하는 주악상이 있으며,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부도에도 관악기 연주 모습이 있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옥적이 두 점 전하는데, 이 유물이 신라시대 것인지는 미상이나 악기 구조는 거의 오늘날 대금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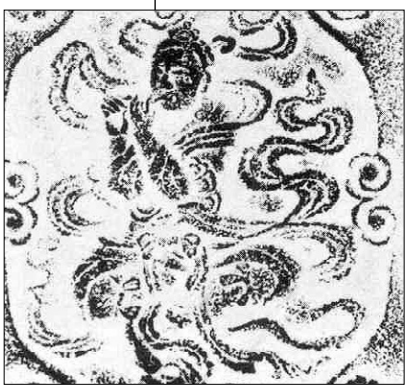
나. 생황(笙篁)

생황은 바가지에 여러 관을 꽂아서 부는 관악기의 일종인데, 『삼국사기』 신라악 조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헌강왕대에 "마을에는 생가(笙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면, 당시 연주된 악기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유물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

즉 상원사 범종에 공후와 함께 생황을 연주하는 천인이 있다. 그리고 암키와 편에 천인이 생황을 부는 모습이 있으며, 문경 봉암사의 부도에도 생황 연주 모습이 있다.



봉암사 지증대사 부도(좌), 상원사 동종(중), 암키와의 생황(우)



봉암사 부도의 피리류

다. 피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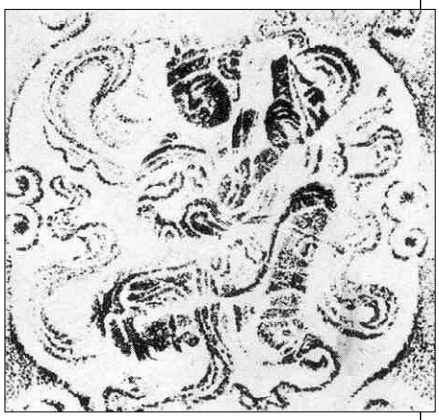
피리는 오늘날 세로로 잡고 부는 관악기인데, 단소나 퉁소보다 길이가 짧은 악기이다. 문헌기록에 피리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고고학 자료에도 피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신라 관악기의 하나로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리는 문경 봉암사의 부도에도 나타난다.

③ 타악기(打樂器)

『삼국사기』에 신라악으로 기록된 타악기는 박판과 대고이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에는 동발(銅鈸)이 있으며, 무엇보다 크고 음향면에서도 뛰어난 범종이 지금까지 전하는데 이것은 현존 최대의 타악기이다. 최근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에서 요고(腰鼓)가 한 점 출토되기도 하였다.

가. 박판(拍板)

박판은 '박'(拍)이라고도 하는데, 나무조각을 2~6개 묶어서 치는 타악기이다. 주로 박자를 짚어주는 역할을 하며, 후대에는 춤출 때 무구(舞具)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악기는 지금도 사용되며 궁중음악 합주 시 음악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친다. 박판은 통일신라시대 당과의 교섭 과정에서 수용된 악기 가운데 하나로 짐작된다.



봉암사 부도의 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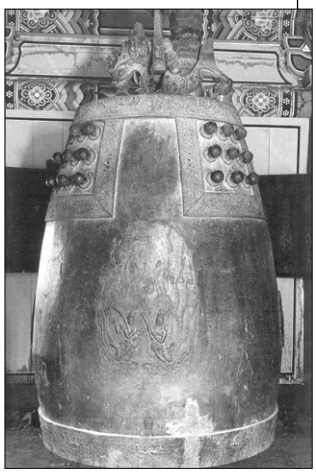
나. 대고(大鼓)

대고란 큰 북을 뜻한다. 북은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타악기로 짐작할 수 있으나, 기록이나 유물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 통일신라 악기로 문헌에는 대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작은 규모의 소고(小鼓)는 일찍이 전쟁이나 사냥에서 신호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무열왕 2년(655)에 "월성 안에 고루(鼓樓)를 세웠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큰 북은 이미 통일 이전에 궁 안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 범종(梵鐘)

범종은 오늘날 불교의식에 사용하는 사물(四物) 가운데 하나이다. 법흥왕 이후 불교가 공인되고 불교와 함께 불교의식이 전래되었으며, 이때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많은 의물도 함께 수용되었을 것이다.



상원사 범종



감은사 사리기 동발(좌)과 요고(우)

라. 동발(銅鉢)

동발은 오늘날 바라처럼 양손에 둥근 철판을 마주잡고 치는 타악기류이다. 이 악기 역시 기록에는 없으나, 감은사 사리함에 등장하는 점으로 보면, 당시 연주된 악기임을 알 수 있다.

마. 요고(腰鼓)

요고는 허리에 매고 치는 장고류의 악기로 작은 타악기이다. 6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기 시작한 악기인데, 신라의 경우 감은사 사리기에 처음 등장하며, 725년 상원사범종의 하대에도 나타나며 선림원종에도 보인다. 통일 이후 고구려의 문화적 영향으로 형성된 듯하다.

(3) 향가(鄕歌)와 잡극(雜劇)

① 통일신라시대의 향가

향가의 작가층은 다양하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승려와 화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충담사와 월명사 및 영재는 향가를 잘 하기로 널리 알려졌고, 민간인은 물론 도둑들까지 감복할 정도로 명성을 떨친 사람들이다. 이러한 향가는 당시 책으로 남겨지기도 했다. 진성왕은 각간 위홍에게 명하여 대구화상과 함께 향가를 모아 편찬하도록 하였는데, 그 책을 『삼대목(三代目)』이라 하였지만 오늘날 전하지는 않는다.

〈표 6-2-7〉 통일신라시대 향가

향 가	작 자	시 기	신 분
원왕생가	광덕	문무왕대	승려
모죽지랑가	득오	효조왕대	화랑
헌화가	어떤 노인	성덕왕대	
원가	신충	효성왕대	
도천수대비가	희명	경덕왕대	
안민가, 찬기파랑가	충담사	경덕왕대	승려
도솔가, 제망매가	월명사	경덕왕대	승려
우적가	영재	원성왕대	승려
처용가	처용	헌강왕대	

② 잡극(雜劇)

잡극이란 다양한 형태의 연희, 즉 연극과 재주부리기 및 놀이 등을 일컫는다.

가. 최치원의 향악잡영오수

최치원(崔致遠)의 시에 '향악잡영오수'가 있는데, 금환(金丸), 월전(月顚), 대면(大面), 속독(束毒), 산예(狻猊)이다.

금환은 금빛나는 공을 던지는 곡예의 일종이며, 월전과 대면은 가면극의 하나이다. 속독과 산예는 탈춤의 일종으로 본다. 특히 금환이나 월전은 고구려 수산리 벽화에 보이는 공던지는 모습과 유사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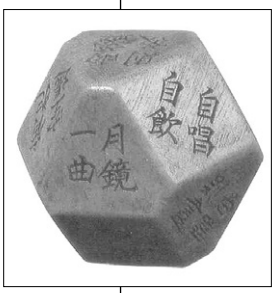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신라 오기(五伎)는 고구려나 당 또는 서역계의 잡희(雜戲)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곡예나 가면희를 연출할 때 악기의 효과음은 필수라고 하겠다.



고구려 수산리 벽화

나. 14면체 주사위 놀이[주령구(酒令具)]

오늘날 대부분의 주사위가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것에 반하여, 안압지에서 출토된 주사위는 그 모양이 다면체(多面體)인 점이 특이하며, 그것도 한 가지 도형이 아닌 두 가지 도형 즉 육각형과 사각형이 합쳐져 하나의 주사위로 이루어진 것이 매우 독특하다. 모두 14면을 이루는데, 육각형면이 8면이며, 사각형면이 6면이다. 14면마다 재미난 문구가 새겨져 있고, 그 내용 가운데 1/3이 바로 음악의 가무(歌舞)와 관련된 문구이다.



안압지 출토 주령구

○ 자창자음(自唱自飮) – 혼자 노래부르고 혼자 마시기
○ 금성작무(禁聲作儛) – 소리 없이 춤추기
○ 임의청가(任意請歌) – 아무에게나 노래 청하기
○ 자창괴래만(自唱怪來晩) – 스스로 '괴래만'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 월경일곡(月鏡一曲) – '월경' 한 곡조 부르기

이 주사위의 14문구를 통해 볼 때, 당시 신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데에도 놀이와 재미를 가까이하였고, 특히 시(詩)·가(歌)·무(舞)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신라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마시기를 즐겼던 것을 알 수 있다.

(4) 불교음악의 성장

불교는 신라 법흥왕 때 공인된 이후 삼국통일 이후에도 군왕을 위시하여 귀족과 일반백성들이 받드는 종교로 발전하였다. 더 나아가 통일신라의 중심적인 종교로 군림하였고, 그 결과 여러 방면에 걸쳐 불교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음악에 있어서도 불교음악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승려들의 음악활동

승려 가운데 사찰에서 범패를 전문적으로 소리하는 범패승(梵唄僧)과 화랑들과 함께 활동하는 낭승(郎僧)으로 구분된 듯하다.

가. 범패승(梵唄僧)

신라의 고승인 진감선사(眞鑑禪師, 774~850)는 그의 비문에 "범패를 청아하게 잘 불러서 그 소리가 금과 옥 같았고, 그 음조에 귀 기울이면 나는 듯한 소리가 상쾌하고 애완해서 능히 제천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고 소리가 멀리까지 전해지니 배우는 자가 집에 가득했으며 그들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진감선사는 804년에 불도를 닦기 위해 당나라에 갔다가 830년에 귀국하여 지금의 쌍계사(雙溪寺)인 옥천사를 짓고 그곳에서 범패를 가르친 승려이다. 따라서 진감선사는 범패를 전문으로 부른 범패승이라 할 수 있다.

나. 낭승(郎僧)들의 향가 활동

신라시대 승려들은 화랑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는데, 통일 이전시대에는 융천사와 담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통일 이후의 승려로는 충담사(忠談師), 월명사(月明師), 영재(永才) 등이 있다. 충담사는 안민가와 찬기파랑가를 지었으며, 월명사는 도솔가와 제망매가를 지었고, 영재는 우적가를 지었다.

이렇듯 통일기의 승려들은 사찰 내에서 범패를 가르치기도 했고, 국왕의 요청에 의해 안민가와 도솔가 등 국가 안위를 위해 향가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다. 원효의 대중불교음악

원효(元曉)는 귀족집안에서 태어난 학승이었으나, 파계한 이후 민중불교를 일으킨 떠돌이 승으로 유명하다. 특히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이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등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로 더욱 유명한

승려이다.

한편, 음악사적 관점에서 보면 원효는 대중불교음악을 일으킨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하면서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을 얻어 그것을 도구로 삼아 『화엄경(華嚴經)』속에 말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한가지 도로써 생사를 벗어난다"는 문구를 따서 이름을 '무애(無导)'라 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이 노래는 오늘날 '무애가(無导歌)'로 전해진다. 비록 노래의 선율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일반 백성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야 했으므로 노래가사가 범패처럼 한문구(漢文句)가 아니라 쉬운 신라말로 되었을 것이며, 노래의 선율도 민요처럼 간단하며 반복 선율이었으리라 짐작한다.

② 유물에 나타난 불교음악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많은 사찰에서 불교의례와 함께 불교음악이 연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와 직접 관련된 국내 기록은 드물다. 그러나 일본 고승 엔닌[圓仁, 793~864]이 838년 당나라에 들어가 847년에 일본에 귀국하여 펴낸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산동반도 등주 문등현에 있었던 적산원(赤山院)이란 신라절에서 연주된 신라범패에 관한 기록이 있다.

> 〈적산원 불경 강의 의식〉 오전 8시 경에 강의를 알리는 종을 쳐 대중들에게 알리면,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 대중이 강당으로 들어온다. 다시 대중에게 자리를 잡도록 알리는 종을 치면 강사가 법당으로 올라와 고좌(高座)에 앉고 대중은 같은 목소리로 탄불(嘆佛)하는데, 그 음곡(音曲)은 모두가 신라풍의 것이지 당음(唐音)이 아니다.
>
> 강사가 자리에 오르기를 마치면 탄불을 멈춘다. 이때 아랫자리(下座)에 있는 한 승려가 범패(梵唄)를 외는데, 이는 전적으로 당풍이다. 그가 외는 구절은 '이 불경을 어찌할 것인가' (云何於此經) 등 한 행이다. '바라옵건대 부처께서는 미묘함과 비밀스러움을 열어 주소서' (願佛開微密)라는 구절에 이르면 대중은 계향(戒香), 해탈향(解脫香) 등을 합창한다.
>
> 범패 읊기를 마치면 강사가 불경의 제목을 읊으면서 그 제목을 삼문(三門)으로 나눈다. 제목의 풀이를 마치면, 유나사(維那師)가 앞으로 나와 고좌에서 먼저 오늘 모임의 이유를 설명하고 시주의 이름과 그가 바친 물건을 밝힌 뒤에 그 문서를 강사에게 넘겨준다. …(중략)… 강사가 자리에서 내려가면 한 승려가 '한 세상 삶이여, 허공과 같도다(處世界如虛空偈)' 하고 외치는데, 그 음세(音勢)는 일본풍과 매우 비슷하다. 강사가 예반(禮盤)에 올라가면 한 승려가 삼례(三禮)를 외고 다시 대중과 강사가 한 목소리로 삼례를 따라 외운 뒤 법당을 나서 방으로 돌아간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신라 사찰인 적산원에는 범패에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신라풍, 당풍, 일본풍이다. 동아시아 3국이 모두 불교문화를 받아들이지만, 불교조각과 건축이 각 나라마다 양식을 달리하듯이 불교음악 역시 각 나라마다 음악적 성격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라는 불교의식에 음악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통일신라시대 범종과 부도, 석탑 심지어 사리함 등에 주악상이 있기 때문이다.

범종 가운데 주악상이 그려진 것은 상원사종, 실상사종, 연지사종, 광명사종, 동국대출토종, 운주사종, 청주출토종 등이다. 현존하는 통일신라 범종 가운데 유일하게 성덕대왕신종만이 주악상이 없고 그 외는 모두 주악상이 있다.

석탑과 부도 그리고 사리함의 주악상 가운데 통일신라시대 유물로서 가장 오래된 감은사 사리함의 주악상을 통해 당시 불교음악의 연주형태를 엿볼 수 있다.


감은사 사리기

682년 통일 직후에 감은사 삼층석탑에 사리함을 봉안하면서 비파, 횡적, 요고, 동발 즉 관 · 현 · 타악기 합주형태의 불교의식음악이 연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불교음악적 특징을 보면, 소규모 악기편성이며 모두 행진하면서 연주가 가능한 악기로 구성된 점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불교의례에 음악이 연주되면서 그 분위기를 더욱 온화하고 신비롭게 장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근 · 현대의 경주전통음악

⑴ 전통음악교육

경주는 신라의 음악기관인 음성서(音聲署)가 있었던 곳이다. 음성서는 진덕왕 5년(651)에 설치되었으며 신라시대 651년 진덕왕 때 왕실의 음악연주 및 교육이 이루어진 음악기관이다. 음성서는 악 · 가 · 무의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국가행사에 연주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경주는 음악교육과 그 전통이 가장 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외래음악의 유입과 근대화 및 서구화 과정에서 전통음악은 서서히 우리 주변으로부터 이탈해 갔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는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음악교육을 학교교육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 즉 교육기관에서 전

통음악의 교육 및 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음악인들이 모이고 교육이 가능했던 곳은 기생방으로 불리는 권번(券番)이 유일한 장소였다. 일제강점기 각 지역마다 권번에서 전통음악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경주 역시 '경주권번' 에서 전통음악의 교육과 연주가 이루어졌다.





경주권번 수강생(좌)과 수업장면(우)

일제강점기 소학교(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육은 일본의 창가나 서양의 민요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해방된 직후 국어를 되찾고 국사를 되찾는 과정에서 음악분야는 일본의 창가교육 대신에 국악을 되찾기보다 서양음악교육 위주로 흘러갔다. 민족 해방을 맞았지만, 초 · 중등학교의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교육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전통음악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경주시에서는 '경주시립국악원' 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① 동도국악원(東都國樂院)과 경주시립국악원

1958년 유난곡(俞蘭谷) 여사의 기탁금으로 난곡보육재단(蘭谷保育財團)이 설립되었고, 산하에 동도국악원이 개설되었다. 목적은 신라 천년고도의 후예로서 국악만이라도 명맥을 유지시켜보자는 뜻이었다. 초대 원장은 최윤(崔潤)이 맡았으나, 그 다음에 조경규(趙慶奎)가 담당하였다. 설립 당시 장소로는 유난곡 여사가 남기고 간 유치원 건물을 사용했는데, 1962년에 시가지 정리의 일환으로 중앙시장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철거되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 노서동 권번 사무실이었던 집을 원사로 사용하였다.

본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악 전문가가 초청되었는데, 당시 국악계의 거목(巨木)이었던 유종구(柳鍾九)의 천거로 가야금 명인으로 알려진 광주의 장순애(張順愛)와 대구가 낳은 시조 명인 박기자(朴基子)가 초빙되었다.

그런데 1968년에 국악원의 재정난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조경규(趙慶奎), 이강우(李康雨), 김경곤(金敬坤), 김교식(金敎植) 등이 경주시장을 찾아가 동도국악원을 시에서 인수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경주시립국악원으로 바뀌었다. 즉 동도국악원은 1958년부터 1968년까지 약 10년 간 존속된 이후 경주시립국악원이란 새 기구로 탈바꿈하였다.

1968년부터 경주시립국악원은 경주시의 국악발전과 국악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 문화과에서 운영하였다. 장소는 노서동 113번지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전국적으로 관이 운영하는 국악원으로는 매우 드문 사례였다.

운영체제를 보면, 원장은 부시장이 맡았으며, 부원장, 총무, 강사, 국악연주단으로 구성되었다. 국악연주단은 연수과(研修科)와 별과(別科)로 나눠졌는데, 연수과에는 초등 · 중등 · 성인부가 있었으며, 별과는 중학교 3년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연수과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주로 전통음악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초등부에서는 가야금, 성악, 창악, 무용교육이 실시되었고, 중등부에서는 가야금, 국악이론, 성악, 거문고, 피리, 양악이론, 해금, 기악, 대금, 시조, 창악, 무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인부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피리, 대금, 시조, 장고, 창악, 무용 등의 교육이 각각 이루어졌다. 별과에서는 전통음악교육인 가야금, 국악이론, 성악, 거문고, 합주, 피리, 양악이론, 해금, 기악, 대금, 시조, 장고, 창악, 무용교육이 실시되었고, 일반 교육과목으로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가 이루어졌다.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일반 학과목을 수업받았고, 오후에는 전통음악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체제를 보면, 오늘날 국악예술중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전통음악 분야의 강사로는 장순애가 판소리와 춤을 담당하였고, 박기자가 시조와 가곡 및 거문고를 담당하였다. 그 외 분야는 서울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짧은 기간 파견되었는데, 거문고에 이오규(李五奎)와 서대석(徐大錫) 등이 거쳐갔다. 모집인원은 20~30명 정도였으며, 모든 비용은 무료로 이루어졌다.

초기 졸업생으로 김자경(金慈卿), 최영희, 김경애(金京愛), 이위정(李渭貞), 하원정(河媛貞), 허영숙(許英淑) 등이 있으며, 1976년 졸업생으로 주영희(朱英熙), 여명숙(呂明淑) 등이 있고, 1977년 졸업생으로는 이경희(李慶姬), 서묘경(徐妙炅), 황보 남(皇甫南) 등이 있다.

시립국악원 역시 창설 8년만에 해체의 비운을 맞게 된다. 해체의 이유는 첫째, 국악교육과 연주라는 이원성과 관영(官營)에 따른 불합리성 때문이다. 둘째, 국악에 대한 교육은 어디까지나 국악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이 있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6년에 시립국악원의 운명은 또 다시 국악인들에게 되돌려졌고, 국악인들은 시립국악원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단법인 서라벌국악원을 개원하였다.

1976년 12월에 경주시립국악원은 사단법인 서라벌국악원의 이사장 조경규(趙慶奎)에게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새롭게 출범하면서 정악, 궁중악, 제례악, 민속악, 무용, 창악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 그러나 1980년에 결국 폐원함으로써 안타깝게도 시립국악원의 맥은 끊어지고 말았다.




시립국악원 정문(좌)과 시립국악원 단원들의 연주활동(우) ▲

②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국악과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81년까지 대학교육기관 가운데 국악과가 있는 곳은 서울지역에만 한정되었다.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추계예술대에서만 국악과가 있었고, 서울을 제외한 그 어느 지역에서도 국악학과는 없었다. 그런데 1982년부터 민주화 열풍과 함께 전통음악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강 이남지역의 대학교육기관에도 국악과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경주는 1979년에 처음으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설립되었고, 1995년에 불교문화대학 내에 국악과가 신설되었다. 초기에는 한 학년의 정원이 55명이었는데, 최근에는 40명으로 줄었으며 학과 전체 인원은 약 140여명 정도이다. 기악에 가야금, 거문고, 해금, 피리, 대금, 타악전공과 성악에 판소리, 민요, 정가전공 그리고 불교무용과 범패 및 작곡, 국악이론 전공자를 교육 및 양성하고 있다.

국악과에서는 연중 정기연주회와 신입생연주회를 개최하며, 전공별로 가야금 연주회, 정가발표, 타악발표, 해금과 거문고발표 등 다양한 연주 발표회를 펼치고 있다.

(2) 국악단체의 활동

① 경주시우회(慶州時友會)

경주시우회는 1958년 최윤(崔潤), 황찬조(黃纘祚) 외 여러 인사들이 모여서 경주를 중심으로 영남시조의 맥을 잇고자 하여 만든 단체이다. 창설 당시 '동도시우회(東都時友會)' 였으나, 1970년에 '경주시우회' 로 개칭하였고, 전국시우단체 총연합회지회로 운영되었다.

한편, 이와 별도로 1971년 이강우(李康雨)는 '대한시우회 경주지회' 를 운영해 왔는데, 두 단체의 성격이 비슷한 관계로 1982년 이근덕(李根德)은 두 단체를 통합하여 '경주시우회(대한시우회 경주지회)' 라 하여 오늘에 이른다. 회원의 구성은 학술임의단체였던 경주서시동호인협회(慶州書時同好人協會)와 시묵회(時墨會)를 합하여 구성되었고, 현재 회원은 100여 명에 이른다.

중요사업의 하나는 매년 10월에 전국시조경창대회를 주관하는데, 종목은 명인부, 특부, 갑부, 을부이다. 그리고 회원들의 시조강습이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언어의 사투리가 있듯이 민요에도 지역마다 토리가 있다. 마찬가지 시조도 각 지역마다 그 선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의 경제시조, 충청도의 내포제시조, 전라도의 완제시조 그리고 경상도의 영제시조가 있다. 경주는 고도(古都)로서 시조의 역사 또한 깊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으며, 영남시조의 맥을 지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시우회는 이러한 전통 명맥의 유지와 영제시조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한 단체이다.

② 신라국악예술단(新羅國樂藝術團)



창극 심청전 공연

1981년에 장순애[張順愛, 예명-장월중선, 1925~1998)]와 그 문하생들 중심으로 경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음악을 계승 · 발전시키고 후계자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라국악예술단이 설립되었다. 2005년 현재 단장은 김민태(金珉台)이며, 부단장은 정경호(鄭慶浩)이다. 창악 및 작창지도는 정순임(鄭順任)이 담당하며, 무용지도는 주영희가 맡고 있다. 단원들의 구성은 무용, 가야금병창, 판소리, 피리, 해금, 가야금, 사물놀이, 아쟁 등의 연주자 약 2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활동은 경주시민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1991년부터 지금까지 경주보문야외공연장에서 상설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국내 및 해외공연을 하고 있다. 공연 내용은 무용으로 부채춤, 학과 선녀춤, 사랑무, 삼고무, 산조춤, 태평무 등 다양하며, 기악으로는 가야금병창, 대금연주 및 사물놀이를 펼쳐왔다. 2000년 이후부터는 이차돈, 놀부전, 심청전 등 창극을 무대화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③ 극단 두두리

극단 두두리는 1988년에 이시호, 이종태 등 몇 몇 전통연희 활성화 작업에 뜻을 모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단체이다. 주요 활동을 보면, 매년 1회 혹은 2회의 정기공연을 개최하였는데, 특히 안동이나 밀양, 진도, 통영 등 타 지역과의 전통문화 교류공연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1988년 제1회 정기공연 때 "말뚝이"를 무대에 올렸고, 제2회 정기공연으로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무대에 올려졌다. 1989년 제4회 때는 "진도 다시래기"가 펼쳐졌으며, 1991년 제7회 공연에는 "통영 오광대"를 경주시민에게 선사하였다.

전통문화의 보급과 전수를 위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을 위해 풍물과 탈춤 강습을 실시하는데, 현재 이동협이 대표를 맡고 있다.





두두리 공연 모습

④ 서라벌예술풍물단

1990년 경주문화원 주부대학 수강생들이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위해 '개나리회'로 출발한 여성문화모임이다. 단원들이 평소 습득한 풍물이나 민요의 기량으로 지역의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위문공연을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와 향토민요경창대회 등에 입상하여 여성들의 우리문화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에는 10주년 기념으로 국악발표회를 가졌으며, 2003년에는 경기민요 전공자인 김오택의 지도 아래 영남민요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현재 경주문화원 부설 단체로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⑤ 신라만파식적보존회(新羅萬波息笛保存會)

2002년 2월에 만파식적을 통해 전래된 대금의 제작기법과 연주법을 전승 발전시키고 우수한 국악예술인의 육성과 해외 문화교류사업 등을 통한 전통예술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3년 11월에 창립공연으로 "천년의 소리 만파식적"을 개최하였으며, 제2회 공연으로 "경주 만파식적제"를 열었다. 2005년에 제2회 전국대금경연대회를 주관하였고 아울러 경주시민을 위한 대금 활성화를 위해 대금과 단소의 강습을 율맥국악연구소에서 하고 있다.

대표인 문동옥은 대금산조 연주자이며, 김동진의 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서라벌예술풍물단(좌)과 만파식적보존회(우)의 공연 모습

(3) 경주의 음악인들

고대 신라시대부터 경주의 음악인들로는 현악기 연주자로 물계자(勿稽子), 백결선생(百結先生), 옥보고(玉寶高) 등이 있으며, 향가로 널리 알려진 융천사(融天師), 충담사(忠談師), 월명사(月明師)와 그 외 천상욱개자(川上郁皆子), 담수(淡水), 원랑도(原郎徒)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근 · 현대 음악가로 경주지역의 음악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 재산을 경주시에 기부한 유난곡 여사


유난곡 여사의 비

유난곡(俞蘭谷)은 우리나라 근 · 현대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해방이 되기 전에 작고한 여인이다. 그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그의 무덤 앞에 세워진 비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도이다.

그는 재산은 많았으나 슬하에 한 명의 혈육이 없어 평생을 육영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한 사회사업가였다. 경주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왔으나, 1940년 8월 5일 노환으로 작고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당시의 경주읍(慶州邑)에 기증했다. 경주읍에서는 1942년 기증자산 전부로 재단법인 난곡보육재단을 설립한 후 '사립경주유치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1945년 조국 해방 후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본 재단 소유의 농토는 전부 분배대상이 되고 대지와 건물 등은 시내 노서동 고분군으로 편입됨으로써 유치원 운영은 자동적으로 중지되었다. 따라서 약간의 보상금 수입으로 당시 지인(知人)인 조경규가 생전에 국악애호가였던 여사의 뜻을 받들어 남은 유산으로 국악인을 양성하는데 활용하고자 1958년에 난곡보육재단을 설립하였고, 산하에 동도국악원을 개설하였다. 동도국악원은 1981년에 서라벌국악원으로 개칭되면서 사단법인이 되었다.

서라벌국악원은 조경규가 운영하였는데, 국악의 지도와 양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이름난 국악인이 초빙되었다. 그 가운데 현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인 권명화도 서라벌국악원에서 지도한 바 있으며, 1981년에 신라국악예술단을 창단한 장순애는 원래 서라벌국악원에서 국악지도를 담당하였다. 장순애가 신라국악예술단으로 독립하면서 그 후속으로 최인숙이 담당하였다. 1988에 조경규가 작고한 후 국악원 운영은 조영재가 담당하였는데, 2001년 마침내 문을 닫았다.

오늘날 경주시 문화과에서 유난곡여사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묘소는 원래 금강산록 묘좌지원(卯坐之原)에 위치하였으나, 1984년에 현곡면 오류리 산록으로 이장하였다.

② 경주고등학교에 장학금을 후원한 이말량(李末良) 여사

이말량은 경주가 낳은 국악의 보배로 불린 바 있다. 가야금에 능하였고, 1970~1980년대에 '계림국악원'을 운영하였으며, 전통무용과 가야금으로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음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린시절에 동네를 찾아온 떠돌이 예인집

단을 보고 그것이 신명나고 보기좋아 하루 종일 따라다닌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며칠 동안 끼니도 거르고 따라 다니는 것을 지켜본 그의 부모가 마침내 당시 전통음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권번 뿐이었고, 경주지역에서는 이웃의 시선이 거북했던지 멀리 떨어진 평양권번으로 보냈다고 한다.

평양권번에서 악 · 가 · 무를 두루 익혔고, 해방 이후 고향인 경주로 내려와서 후학을 지도하기 위해 계림국악원에서 제자를 양성하였다. 이말량의 제자로 지금도 경주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동국대학교 국악과 교수인 윤소희와 경덕애가 대표적이다. 그 외 학춤을 배운 후 승려가 된 이길재와 경북대 국악과 가야금 전공으로 졸업한 정주련, 그리고 현재 포항예고 강사인 최은경 등이 있다.

이말량은 자신의 재산 전부를 경주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증하였다. 작은 체구에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였는데, 후학들을 위한 마음은 그 무엇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거대하였다.


장월중선

③ 팔방미인 장순애(張順愛)

장순애는 장월중선으로 널리 알려졌다. 장월중선은 일제강점기 유명한 소리꾼인 장판개(1885~1937, 전주권번 소리선생)가 큰아버지로서 조부와 부친이 모두 음률의 명인으로 음악가 집안에서 자랐다. 1960년대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경주시립국악원의 전임강사로 초빙되어 경주로 오게 되었고 경주에서 일가를 이루며 살았다.

그는 춤이면 춤, 소리면 소리, 악기 연주는 연주대로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팔방미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의 특기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도 가야금도 잘하며, 소리도 뛰어난 것을 고려하여 '가야금병창'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장순애의 소리는 그의 딸 정순임이 계승하고 있으며, 가야금병창 역시 딸 정경옥이 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춤은 제자 주영희가 이어받아 활동하고 있다.

④ 경주민요의 최이범(崔利範)

안강읍 안강 3리에 경주민요를 잘 부르는 소리꾼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최이범이다. 그는 1921년생으로 11세 때 경주소학교에 입학했으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계속 다니지 못하고 2학년 때 중퇴하였다. 평소에 소리하고 놀기를 좋아했는데, 일하면서 소리하고 소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한창 혈기 왕성한 20대에 영일군 달전면사무소가 불타고 없어졌을 때, 면사무소를 새로 짓기 위한 기금마

련을 위해 영일군 전역(全域)을 다니면서 모금 굿거리를 하기도 하였고, 기계면 운주산 안국사 산신각 자리에 암자를 지을 때도 몇 달씩 걸립하여 비용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는 1992년에 주로 안강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주군 농악단'을 창설하였다. 그해 경북농악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고, 1993년 4월 경주 보문단지 벚꽃제 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풍물뿐만 아니라 민요에 있어서도 1995년 경상북도 제4회 향토민요경창대회에서 안강농악단은 단체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단원들이 열심이라 처음부터 성적이 좋았다. 최근까지 최이범은 안강농악단의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특기는 북가락과 소리이다. 특히 소리에 있어서는 모심기소리, 논매는 소리, 보리타작소리 등 논농사소리를 비롯하여 산에 나무하러 가서 부르는 어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993년 MBC 라디오에서 실시한 『한국민요대전』을 위한 음반제작의 경상북도편에 그의 목소리가 녹취되기도 했다. 또한 1995년 경주문화원에서 주최한 제4회 향토민요경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의 목청은 맑고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2000년 9월에 작고하였다.




안강농악단(좌)과 소리꾼 최이범

4) 한국국악협회(韓國國樂協會) 경주지부(慶州支部)

(1) 국악의 초창기

1962년 여타의 예술단체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한국국악협회 경주지부가 창립되어, 초대지부장에 조인좌[趙仁佐, 본명 조경규(趙慶奎)]가 선출되었다. 그는 한

의원을 경영하며 국악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협회를 조직하여 경주국악의 발전과 후진양성에 뜻을 두었다. 고도 경주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여 각종 행사를 위한 국악인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한동안 경주시청에서 국악원의 설립을 시도하였고, 사설 국악원도 나타났으나 국악협회 경주지부 창립으로 모든 국악행사는 일관하여 체계적인 활동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조인좌 지부장이 16년 간(62년~78년) 연임하다가 1979년에 제2대 지부장으로 이강우(李康雨)가 피선되었다. 이강우는 시조창(時調唱)으로 알려진 선비로서, 1980년까지 1년간 재임했다.

(2) 1980년대의 변모와 신라국악예술단(新羅國樂藝術團)의 활동

국악협회 경주지부는 1981년에 이르러 경상북도 지회로 승격하고 지회장에 김민태가 선임되어 국악계는 변모의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이때 경주국악협회 활성화와 후진양성을 위해 '신라국악예술단'이 창단되었으며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발표하거나 주도하며 다채로운 활약을 전개하였다.

〈주요 행사 실적〉

· 1982~1996년 신라문화제 국악행사(서제의 처용무 · 제례악)
· 1983~현재 전국국악대제전(全國國樂大祭典) 주관
· 1984~1999년 일본 제 도시 초청 및 순방공연(오사카, 나라, 이즈, 히로시마, 오바마, 우사 등)
· 1990년 프랑스 빠리, 도이취란트 베를린시 순방공연
· 1990년 중국 서안시 초청공연
· 19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
· 1998~현재 경북 국악인의 한마당 공연
· 1999~현재 경주 전통주와 떡축제 공연,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

(3) 국악협회 경주지부 부활

1981년 이래 경주지부는 경북도지회 체제가 되어 김민태 지회장으로 이어 오다가 1987년부터 89년까지 한동안 장순애가 지회장을 맡은 후 다시 김민태 지회장이 재선되어 상기한 제반 행사를 주도 · 집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기존의 도지회가 존속하는 가운데 국악협회 경주지부의 부활을 시도하여 새로운 변화를 나타냈다.

1999년 부활된 국협 경주지부장에 주영희가 선임되었다. 경주지부는 1999년 '서라벌전국학생민속무용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후진양성을 시도하는 한편, 2001년 무대공연 작품 '천년의 소리'와 2002년 무대공연 작품 '마 음 소 리'를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 후 국악협회 경주지부는 도지부와 공통적 맥락으로 '신라국악예술단'에 의한 다채로운 공연행사로 일관하여 활동하고 있다.

· 2000년 4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홍보공연 – 일본 나라시외 5개도시
· 2000년 10월 '선화공주님은 …' (2회 공연)
· 2002년 10월 '이차돈'
· 2003년 8월 창무극 '놀보전' 대공연 (2회)
· 2003년 8월~9월 창무극 '이차돈' 대공연 (2회)
· 2004년 12월 창극 '심청전' 대공연 (2회) 등의 무대 공연 작품 발표

2. 서양음악(西洋音樂)

역사에는 항상 지난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교착과 굴곡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대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경주의 음악활동을 시대별로 나누기가 어렵지만, 서술상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1) 해방의 여명기(1945~1950)

⑴ 경주문화협회(慶州文化協會) 창립

① 경주예술협회(慶州藝術協會)와 경주문화협회(慶州文化協會)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0월 1일, 경주예술협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22일, 최윤(崔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진용으로 '경주문화협회'가 창립되었다.

경주문화협회는 회장에 최윤, 부회장에 이채우를 중심으로, 문학의 이기형, 음악의 이의성, 이호성, 한준길, 미술의 손일봉, 김준식, 그리고 문화계의 이상문을 비롯한 40여 명의 인사가 집결하여 대중계몽운동과 문화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② 경주현악4중주단 활동

경주문화협회 회원인 음악가 이의성은 1909년 서악동에서 태어났으며, 동경유학 도중에 귀국한 바이올리니스트이다. 그는 1934년부터 노서동 79번지, 지금의 청기와 다방 근처에서 일심당악기점을 경영했으며, 해방이 되자 그의 동생 이호성(동경유학에서 첼로를 전공하였음)과 함께 경주현악4중주단을 조직한 것이다. 그 때의 멤버는 제1바이올린 한준길, 제2바이올린 천시권(문학박사, 전 경북대학교 총장, 현 대구원로음악가회 고문), 비올라 이의성, 첼로 이호성이었다.

경주에서 최초로 조직된 경주현악4중주단은 성악에 고태국(성악가, 전 일본 음악콩쿠르에서 1등으로 입상, 일제강점기에는 대구사범학교 교사로, 해방 후에는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정년퇴직 후 작고)을 참여시켜, 경주극장, 감포극장, 포항극장, 안강극장 등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의 주 레퍼토리가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곡 14번 「죽음과 소녀」였다는 사실은 그 당시로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당시 중학교(6년제) 4학년인 안종배는 한준길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이 연주를 직접 경주극장에서 참관하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③ 바이올리니스트 한준길(韓俊吉)

한준길은 일본 동양음악학교(현 동경음악대학)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경주에서 처음으로 현악4중주단을 이의성, 천시권, 이호성과 함께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경주중학교(6년제)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경주예술학교에서도 후진을 양성하였으나 1948년 서울교향악단의 수석주자로 상경하여, 한국전쟁 때 월북하였다.

경주중학교 재직 시에는 경주중학교 교가(손종섭 작사/현재의 구 교가)를 작곡하였으며, 처음으로 경주중학교 브라스밴드를 조직하여 연주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박기환, 백상기, 안종배 등을 비롯한 많은 후학들을 길러 내었다.

(2) 경주예술학교(慶州藝術學校)의 명암(明暗)

여명기 경주의 음악활동에 있어 경주예술학교의 영향은 대단하였다. 여기서 많은 인재가 길러졌으며,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수준의 교육기관이 경주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경주에서 이러한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경주가 가지는 신라천년의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성과 아울러, 새로운 근대적 문화를 익힌 인재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이다.

① 경주예술학원(慶州藝術學院)의 설립(設立)


경주예술학원 입학식

1946년 5월 5일 이의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경주예술학원은 구 철도역사(현재의 서라벌문화회관 자리)에서 개교식을 거행했으며, 이때의 참석자는 경주문화협회 회장 최윤, 부회장 이채우, 경주군수 이상문, 미술가 주경, 손일봉, 김준식, 성악가 권태호, 피아노 김상곤, 첼리스트 이호성, 트럼펫 유장렬 등이었다.

경주예술학원은 음악과와 미술과 남녀 50명의 학생을 선발했으며, 본과와 별과가 있었다. 2년제 본과는 3년제로 인가를 받았고, 별과는 1년제로 예비과정이었다.

경주예술학원은 설립된지 1년이 지난 1947년 5월, 창설 1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음악과 재학생의 독창 독주와 합창단이 출연을 하였고, 경주여자중학교 합창단이 찬조출연을 하였다.

② 경주예술학교(慶州藝術學校)로 개칭(改稱)과 폐교(廢校)

경주예술학원은 1948년 3년제로 학제개편이 됨으로써 경주예술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 3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음악과 졸업생은, 피아노 전공 김진호, 이상돈, 배윤조, 안무근, 최명린, 최종석, 성악전공 김해학, 오영학, 이종용, 채찬용, 바이올린 전공 손지익, 이창호, 황태연, 최종환, 남지익, 오해주 등이다.

1948년 8월, 이의성의 동생 이칠성[李七星, 1948년 8월 남한에서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전에 월북하여, 그 해 8월 25일,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된 인민회의 대의원 360명 중 한사람]의 월북사건은 심각한 체제대결로 치닫던 당시로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크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호성 마저 월북한 사실은 이의성의 경주예술학교를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의성도 1950년부터 3년 간 복역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그의 주변 친구들도 떠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주예술학교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마침내 학교 운영권이 계림학숙으로 넘어갔지만, 1952년 정부의 폐쇄조치에 따라 경주예술학교는 폐교를 맞게 되었다.

2) 한국전쟁의 혼란기

⑴ 혼란기의 음악활동

① 육군 일군단정훈부(陸軍一軍團政訓部) 공작대(工作隊)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월성군청 청사에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경주극장에서 정훈부가 발족하였다. 전시(戰時) 선무공작을 위한 정훈부에 이원팽, 홍영기, 최현태, 황호근, 정규섭 등 경주중학교 교사가 다수 참가하였다.

그리고 당시 경주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인 김억봉의 주선으로 정훈부 공작대가 조직되었으며, 이른바 선무공작을 위한 음악연주단체였던 것이다. 여기에 경주중학교 악대부 단원 정재남(당시 경중 7회 졸업생), 안종배(경중 6년, 경중 악장), 이영진(경중 5년), 전만환(경주공고 6년, 공고 악장), 천창욱(문화고등학교 밴드 코치), 박귀자(무용, 경주여중 5년), 하영숙(성악, 경주여중 4년) 등이 참가하였다. 경주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서 선발된 단원들과 함께, 일군단 정훈부공작대는 사병위안과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연주활동을 전개했다. 북진(北進) 때는 경주중학교 교사 이원팽, 황호근 등과 함께, 강릉, 주문진, 고저, 고산, 원산, 함흥, 북천, 성진 등지에서 사병들과 시민을 위한 선무공작에 참가했으며, 1. 4후퇴 때는 성진에서 강릉, 울진, 풍기 등지를 거쳐서 귀가 조치를 받았다.

② 경주제일교회 성가단 활동

한국전쟁 때, 경주에는 많은 피란민이 집결했는데, 음악활동에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 경주제일교회에 모여들었다. 김귀선(치과의사), 차영민(의사, MBC 아나운서 차인태의 부친), 박순선(남편이 납북을 당하고 피란을 왔다), 백영옥(피아니스트, 이화여대 출신, 의사부인) 등의 피난민들은 지휘자 안종배(당시 경중 음악교사)를 비롯해서, 최진규(서울대 법대 수료), 박귀자(현 경주 실버합창단 단원), 최명자(현 경주실버합창단 간사) 등과 함께 성가활동을 했으며, 영천 등지에 순회연주를 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이미 1951년 8월 15일 YMCA연합성가단을 조직하여, 성결교회에서 안종배 지휘로 발표회를 가졌다.



③ 경주합창단 발족

1953년에 문총(문화단체총연합회)경주지부가 창립되고, 그해 9월 12일, 경주극장에서 문총 음악부 회원들로 구성된 경주합창단이 문총 경주지부 발족을 경축하는 기념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단장 최진규, 음악부장 및 지휘 안종배, 단원 이계순, 박귀자, 엄경옥, 김차선, 김성문, 최 현, 신종원 , 현규진 등이 참여하여 전쟁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데 기여하였다.



④ 문총 경주지부 주최 서라벌예술제(徐羅伐藝術祭)

문총 경주지부는 이상구(李相龜)가 지부장을 맡았으며, 문학부, 음악부, 미술부, 연극부, 학술부, 사진예술부, 민악부, 아악부, 궁도부, 체육부를 두었고, 사무국장에 방 민(한국전쟁 때 월남)이 활동하였다.

문총 경주지부가 주최한 서라벌예술제는 1954년 9월 12~16일까지 다채롭게 거행되었는데, 음악부는 경주합창단(단장 최진규, 지휘 안종배)의 경축음악회와 전국남녀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음악콩쿠르를 경주극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심사위원으로 서울에서 이흥열, 윤이상이 참석하였다.

작곡가 윤이상을 맞이한 경주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모두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견해를 듣고싶어해서, 예정에 없던 음악세미나를 귀로다방에서 개최하여, 그의 가곡 「낙동강」을 중심으로 특강을 듣기도 하였다.

⑤ 경주박물관학교 교가(校歌)

윤경렬 작사, 윤이상 작곡의 경주박물관학교 교가는 문총 경주지부가 주최한 서라벌예술제를 계기로 작곡되었다. 1955년 10월 10일 개교 1주년을 기념하여 윤경렬 작사, 윤이상 작곡으로 제정 · 발표되었다.

⑥ 경주여자고등학교 오페라 춘향전 공연

경주여자고등학교는 김억봉이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예능방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음악활동에는 적극성을 띄었으며, 활발한 과외활동을 뒷받침하였다.

석종환(작곡가,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역임)이 1958년 경주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현제명 작곡 오페라 춘향전을, 경주여자고등학교 여성합창단과 최은섭

(피아니스트, 황해도에서 피난, 경주중학교 재직)의 피아노 반주로 공연을 한 것은 당시로서는 괄목할 일이다.

3) 환도(還都) 이후의 과도기

(1) 제1회 및 제2회 신라문화제(新羅文化祭)


제1회 신라문화제 음악회(불국사 자하문 앞)

한국전쟁 이후 상처 입은 서울이 복구되어, 경주에서 활동하던 음악인들이 서울로 되돌아가자, 경주의 음악활동은 사실상 소강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남은 음악인들도 가까운 대구, 부산 등지로 떠나감으로써, 경주는 음악활동의 과도기적 현상이 지속되었다.

1962년 4월에 거행된 제1회 신라문화제와 이듬해 1963년 5월 4~6일에 거행된 제2회 신라문화제는 당시 경북예총이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주최 경상북도, 주관 경주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출연자 모두가 대구음악인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 당시 경주의 음악활동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제1회 신라문화제에는 대구관현악단(지휘 이기홍, 악장 안종배)과 대구코러스(지휘 임성길)가 참가했으며, 일반 행사는 반월성 일원에서 거행되었으나 음악회 연주회는 불국사 광장에서 열렸다. 이때, 대구코러스가 불국사 대웅전을 뒤에 둔 계단에서 헨델의 할레루야를 연주한 사실은 오래도록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날, 당시 최고회의의장인 박정희장군으로부터 격려의 말과 함께, 저녁에는 대구관현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현악4중주단(제1바이올린 이영애, 제2바이올린 신현국, 비올라 이철구, 첼로 조태석)이 숙소인 불국사 관광호텔에 초대를 받아, 모차르트의 「아이네 크라이네 나하트 뮤직」을 연주한 사실은 특기할 일이다(박정희 장군은 대구사범학교 출신으로 새마을노래를 직접 작곡했을 뿐 아니라, 클래식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 후 경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신라문화제 경축음악회를 비롯해서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에밀레합창단, 경주어머니합창단, 조홍환, 방태준, 한광하 문화생 발표회 등, 한 달이 멀다하고 크고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2) 한국음악협회(韓國音樂協會) 경주지부 창립

『경주예술』제10집에, 1964년 지부장 최은섭, 부지부장 조흥환, 사무국장 김복출, 감사 신윤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5년도에는 지부장이 없고, 1966~67년의 지부장은 신윤원, 1967년 말 경에 총회를 열어서 김복출을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1968년 1월 5일에 경주음악협회가 정식으로 인준을 받았으며, 김복출이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음협경주지부가 자리를 매김하였다.

이 시기의 중요한 연주회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57. 12. 29 송년음악회, 지휘 석종환, 반주 석진환, 장소 경주제일교회
- 1959. 4. 13 부활절 축하음악회, 지휘 석진환, 장소 경주제일교회
- 1960. 12. 25 성탄축하음악회, 지휘 최은섭, 장소 경주제일교회
- 1965. 10. 2 신라문화제 경축음악회, 경주합창단, 지휘 최은섭, 장소 : 경주극장
- 1967. 12. 14 에밀레합창단 창단음악회, 지휘 최은섭, 반주 방태준, 장소 대왕극장
- 1968. 11. 23 에밀레합창단 제2회 음악회, 지휘 나경관, 반주 방태준, 장소 경주극장
- 1969. 10. 27 신라문화제 음악회, 지휘 박영수, 반주 방태준, 장소 문화고등학교 강당
- 1969. 11. 1 방태준 문하생 피아노 발표회, 장소 문화고등학교 강당

4) 향토악단 정착기

(1) 음협경주지부의 역할

해방과 함께 한 여명기와 한국전쟁의 혼란기, 그리고 휴전으로 인한 환도 이후의 과도기를 거친 경주음악계는 1970년대에 와서 한국음악협회 경주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향토악단의 정착기를 형성해 나갔다. 이 시기의 음협경주지부장 김복출, 신윤원은 향토악단의 정착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매년 열리는 신라문화제 경축음악회를 비롯해서, 전국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대구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우리 가곡의 밤, 경주합창단, 경주어머니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연주회, 서라벌 음악학우회 정기연주회, 솔거추모종합예술제, 강호준 · 유환무 독창회, 신현국 · 백청자 부부 2중주의 밤 등 풍성한 결실을 거두면서 향토악단을 정착시켜 나갔다.

(2) 국제교류 활동

70년대는 우리 사회가 경직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제교류는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도시와 달리 경주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몇몇 분야에서 국제교류가 실천되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근화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던 작곡가 김의진은 음악을 통한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주재함으로써 향토음악의 홍보에 기여하였다.

당시의 교류 상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1975. 9. 18 한 · 일 클래식 기타연주회, 장소 근화여고 강당
· 1976. 6. 20 한 · 일 학생합동연주회, 장소 문화고등학교 강당[이는 일본측 음악지우사(音樂之友社) 콩쿠르 입상자와 한국측 월간음악 콩쿠르 입상자들의 합동 연주회로서 1~3회는 서울에서, 제4회를 경주에서 유치하였다]
· 1976. 8. 14 한 · 중 친선음악회, 장소 근화여고 강당
· 1977. 8. 7 자유중국 대북현악아동합창단 초청연주회, 장소 문화고등학교 강당
· 1985. 6. 8 미국 레이건 대통령 파견 음악사절 '셔리 앤 세권' 피아노 연주회, 장소 경주코오롱호텔
· 1993. 9. 21 일본 삿포로 하트기타앙상블 초청 연주회, 장소 경주코오롱호텔

(3) 성악 및 현악분야 활동

유환무(의학박사)는 1977년 10월 27일, 테너 유환무 제1회 독창회(반주 방태준)를 문화고등학교 강당에서 열었다. 경북목관5중주단의 반주로 슈베르트 가곡 마

왕, 플로토의 오페라 마르다 중에서 「꿈과 같이」, 한국가곡 등을 불렀다.

제2회 독창회(반주 유미원)는 1985년 6월 15일 같은 학교 강당에서 열렸는데, 외국가곡, 오페라 아리아, 한국가곡을 중심으로,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제3회 독창회(반주 유미원)를 콩코드호텔에서 소프라노 김금자의 찬조를 받아, 외국가곡 및 한국 가곡을 중심으로 개최하였다.

소프라노 김금자(성악가, 현 경주제삼교회 시온성가대 지휘자)는 1986년 제1회 독창회(반주 신미숙,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강당)를, 도이취란트 가곡 및 프랑스 가곡을 중심으로 개최했으며, 1991년 제2회 독창회(반주 방태준, 장소 문화고등학교 강당)를 한국가곡, 이탈리아가곡, 오페라 아리아를 중심으로 개최하여 향토악단 정착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1978년 10월, 신현국(의학박사, 현 경주교향악단 단장)은 피아니스트인 부인 백청자와 함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조인트 리사이틀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을 중심으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했으며, 1979년에는 경주예총 종합예술제(장소 서라벌문화회관)에 피아노 트리오로 출연하였다.

5) 80년대의 향토악단

1981년 대구시가 경상북도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1984년 12월 예총경주지부가 예총경북지부로 승격 인준되었다. 음협경주지부도 음협경북지부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이 시기에 신현국과 김의진이 음협경북도지부를 맡아, 향토악단 전성기를 주도해 나갔다. 이 시기의 주요 연주활동은 다음과 같다.

- 1981. 11. 16 김진성 · 김금자 조인트 리사이틀, 반주 최춘숙, 장소 문화고등학교 강당
- 1982. 11. 13 제9회 경주예총종합발표회, 바리톤 김요한 외, 장소 서라벌문화회관
- 1983. 5. 9 김금자 · 김진성 한국가곡의 밤, 반주 방태준, 장소 문화고등학교 강당
- 1983. 7. 18 제21회 음악동호인 발표회, 신윤원 외, 장소 : 한광하 피아노교실
- 1983. 10. 10 제19회 신라문화제 엄정행 초청 우리가곡의 밤, 장소 : 문화고등강당

· 1986. 9. 11 제20회 신라문화제 테너 정광 초청 우리가곡의 밤, 장소 서라벌문화회관
· 1986. 8. 14 가곡과 아리아의 밤. 장소 경주도큐호텔
· 1986. 9. 26 경주실내악단 창단 연주회, 장소 서라벌문화회관
· 1986. 12. 11 성탄축하 연합예배 메시아 연주회, 장소 경주제일교회
· 1989. 12. 11 경주시민합창단 창단연주회, 지휘 한광하, 반주 이윤경, 장소 서라벌문화회관

6) 새로운 도약기와 한국음악협회 경주지부

(1) 한국음악협회 경주지부의 활동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규음악대학 졸업자가 많이 배출되자 1993년 음협경주지부는 한국음악협회 정관에 따라 새로 회원을 받아들여 명실상부한 음협경주지부로 새로이 탄생했다.

그리고 90년대 초에는 성악가 김진성이 음협경주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원의 단결과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위상정립에 노력했으며, 신라문화제 경축음악회, 회원 향상음악회 등을 추진하였다. 1998년부터 성악가 김종식이 음협경주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90년대 후반을 잘 마무리했으며, 의욕적인 연주회를 많이 개최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매년 개최하여 음악대학 진학을 위한 음악도들의 연주무대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편, 남성중창, 독창으로 많은 연주회에 출연하여 모범을 보였다.

2001년부터 음협경주지부장을 맡은 성악가 장성현은 개인적으로는 1989년 5월 16일 제1회 장성현 성가 독창회(반주 노미경, 장소 문화고등학교 강당), 1992년 6월 22일 모차르트의 「카탈로크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독창회(반주 김지연, 장소 서라벌문화회관), 1994년 5월 17일 제2회 성가 독창회(반주 박자은, 장소 경주남부교회) 등의 활동을 했다. 음협 경주지부장으로는, 봄맞이 · 가을맞이 음악회, 문화엑스포 축하음악회, 안압지 연주회, 경주예술인의 밤 음악회 등을 주재하여 경주악단의 새로운 도약기를 이끌어갔다.

(2) 음악협회 경주지부 역대 지부장 명단

〈표 6-2-8〉

대/차례	지부장	재임 연대	비고
초대	김복출	1968. 1. 5	인준
2대	신윤원	1970~1973	
3대	김의진	1974~1977	
4대	신윤원	1978~1981	
5대	김의진	1982~1985	
6대	〃	1986~1990	도지회로 승격
7대	김진성	1991~1995	
8대	김종식	1996~1900	경주지부 복귀
9대	장성현	2001~1904	
10대	김상용	2005~	

(3) 합창단 활동의 전문화

① 경주시민합창단

1989년 12월 11일에 경주시민합창단이 창단되었다. 단장 신현국과 지휘자 한광하의 희생적인 노력과 함께 당시 이원식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창단의 원동력이 되었다.

경주시민합창단은 1990년 9월 13일에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동상 입상, 1991년 10월 22일에 문화부 주최 전국합창경연대회 입상 등의 실적을 올렸다. 1991년 7월 13일 제4회 정기연주회를 끝으로 지휘자 한광하는 10월 31일에 사임했으며, 1991년 11월 22일 제5회 정기연주회부터 계명대학교 교수인 김돈이 상임지휘를 맡았다. 그 후 1995년 11월 4일까지 총 13회의 정기연주회, KBS 가요무대, 영·호남 합창제, 콩코드 여름음악회, 경북합창제 등에 출연하였다.

② 경주시립합창단

1996년 5월 31일, 경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됨으로써, 단장 신현국, 상임지휘자 김돈, 반주자 이윤경·김아진, 단원 50명이 위촉되었고, 1996년 10월 10일 창단연주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설치조례 개정으로 기획문화국장이 당연직으로 단장이 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정기연주회 12회, 순회연주회 13회, 콩코드 여름 음악회, 경북합창

제, 오페라 공연 2회(1998년, 창작 오페라 「원효」, 1999년 까발레리아 루스띠까나), KBS 열린음악회(1999. 3. 30), 경주시립극단 정기공연 협연 2회, 각종 경축행사 연주 20회, 경주합창축제(2003. 11. 28) 등의 연주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경주아카페합창단

1991년 11월 23일 창단연주회를 개최한 경주아카페합창단은, 단장 강주복, 단목 이규호, 명예단장 유환무, 지휘자 김인주, 부지휘자 김헌수, 반주 이윤희로 구성되었다. 2003년 2월 17일까지 12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2000년 7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합창올림픽에 참가해서 민요부문 은메달, 현대곡 부문 동메달을 수상했으며, 2000년 10월에 대통령배 전국 합창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④ 경주YWCA소년소녀합창단

1995년에 창단하였으며 현재 단장은 이향희, 지휘는 김인주가 맡고 있다. 2002년 부산 세계합창올림픽에서 어린이합창부문과 연출이 있는 민요부문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였다.

(4) 교향악단 활동의 활성화

1986년 9월 26일 경주실내합주단이 지휘자 신윤원, 악장 신현국, 단무장 김상용으로 창단되었으며,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신윤원이 지휘하였다. 1990년 2대 상임지휘자로 박석출이 영입되었으며, 그는 1990년 11월 3일 제2회 정기연주회 때 지휘를 맡았다. 그리고 1992년 2월 7일에 경주실내합주단은 경주교향악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단장은 김영우(현 경주원로음악가회 간사), 상임지휘는 박석출, 단무장은 김상용(작곡가, 현 신라고등학교 재직)이 맡았다.

경주교향악단은 그 후, 9회의 정기연주회와 하계특별연주회(1988. 7. 2), 순회연주회, 93년 벚꽃축제 음악회(1993. 4. 10), 경주월드 설립 축제 초청연주회, 신라문화제 경축음악회 등의 연주활동을 했으며, 1995년 11월 1일에 안종배를 음악고문으로 추대하고, 1997년 5월 10일에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1998년 7월 1일에 신현국이 2대 단장으로 추대되었고, 1998년 10월 31일에 세계문화엑스포 기념음악회를 주재했으며, 2000년 9월 1일에는 안종배가 2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였다.

그 후 경주교향악단은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하여 교향악단으로서의 본격적인 레퍼토리를 과감하게 선정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계의 관심을 모았을 뿐 아니라, 경주에서의 교향악단 활동의 활성화를 실천하고 있다.

② 음악활동 지원단체

○ 경주실버합창단 : 1996년 창단, 회장 김경자, 지휘 김의진
○ 경주장로합창단 : 1996년 창단, 단장 임창구, 지휘 김의진
○ 경주원로음악가회 : 2000년 1월 7일 창단, 회장 안종배

제3절 미술(美術)

1. 회화(繪畵)

1) 서양화(西洋畵)

⑴ 근 · 현대의 경주화단

신라 천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경주는 일찍부터 미술문화가 싹트고 발전해 왔다. 근대에 들어와 경주천도교 교당에서 열렸던 1936년의 '미술전(美術展)'은 지역문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전시회에는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작가 세 사람이 참여하였는데, 동양화의 박봉수(朴奉洙), 서양화의 김준식(金埈植)과 김상준(金相俊) 등이 그들인바 김상준은 대구에 거주했다.

1942년에는 경주보통학교에서 향토미술전(鄕土美術展)이 열려 일본 유학생을 포함하여 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서양화의 손일봉(孫一峰), 손동진(孫東鎭), 손수택(孫壽澤), 김준식, 최기석(崔璣錫), 박종렬(朴宗烈), 김동철(金東喆), 김영일과 동양화의 박봉수, 조각의 김만술(金萬述) 등이 참여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경주에 거주하던 화가들이 경주예술협회를 구성하고 동년 10월 경주박물관에서 미군진주환영기념전(美軍進駐歡迎記念展)을 개최하였으며, 1946년 2월에 서라벌미술가협회(徐羅伐美術家協會)를 결성하게 된다. 여기에 새로 이기섭(李起燮), 권경섭(權景燮), 김한천(金漢天), 김무종(金武鐘), 이기완(李起完), 최현주(崔賢柱)가 참가하였다.

1946년에는 경주예술학교(慶州藝術學校)가 설립되어 미술과 음악을 교습하였

는데, 미술과 교수로는 배운성(裵雲成), 이응로(李應魯), 윤승욱(尹承旭) 등이 활동하였다. 이 학교는 한국전쟁의 와중에 해체되어 교수와 학생은 홍익대학교를 위시한 서울의 학교로 전임하거나 편입하기도 하였으며, 월북한 사람도 있었다. 또 예술학교에 미련을 가졌던 사람들은 계림학숙(雞林學塾)으로 옮겼으나 이 학숙은 곧 해체되고 말았다.

1954년 9월에 개최된 제1회 서라벌예술제 때에는 서라벌미술가협회원과 초대작가의 작품전이 경주군청 별관에서 열렸으며,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여 이상범(李象範), 도상봉(都相鳳), 백낙종(白樂宗), 손일봉(孫一峰)이 심사를 맡았다. 이 무렵에 조각가 윤경렬(尹京烈), 현성각(玄聖珏)이 서라벌미술가협회에 가담하였다.

1962년부터 신라문화제가 개최되고 미술행사에 중앙과 대구의 최영림(崔榮林), 박연도(朴演島), 김창락(金昌洛), 이지휘(李志輝), 이경희(李景熙) 등이 심사를 맡고, 지역 미술인과의 교분을 맺었다.

서라벌미술가협회는 1964년 4월 2일 자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로 인준 등록되었다. 당시에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미술지부로 한국화 · 서양화 · 조각 · 공예 · 서예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지부장은 손일봉이 맡았다.

1970년대에는 대구 · 부산의 중견화가들과 다섯 차례의 교환전(交驩展)을 개최하였으며, 1979년에는 신라미술대상전(新羅美術大賞展)을 개최하였는데, 조필제(趙必濟)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 전시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이루고 많은 작가를 양성하고 있다.

1970년대는 정부의 국토개발사업으로 경주의 미술계도 영향을 받게 된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미술학과가, 서라벌대학에 산업디자인과가 설치되어 경주화단의 앞날을 밝게 하였으며, 중앙에서 수학한 신세대의 귀향으로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들은 제3구상회(第三具象會)와 서림회(徐林會) 같은 단체를 탄생시키고 최초로 관인 동방미술학원(東方美術學院)도 생겨 미술계에 진출하려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 무렵 프랑스의 빠르비쥥에서 자연주의가 꽃피었듯이 경주에서는 유서 깊은 계림(雞林)이 작가와 젊은 화가지망자들의 정열적인 작업장이며 교육장이기도 하였다. 또 경주미협회원들이 계림과 황성공원에서 사생지도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숲속학교로 발전하여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학원에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1984년에 월성(月城)의 화가들에 의하여 미협월성지부(美協月城支部)가 탄생되

어 조희수(曺喜洙)가 지부장을 맡았으며, 곧 김일석(金一錫)의 지부장 대행으로 운영되다가 1991년 이재건(李在健)이 맡아 회원의 확충과 회원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였으나 월성지부는 1994년 6월에 발표된 정부의 지방행정 통합방침에 따라 1995년 1월에 경주지부로 통합되었다.

경주출신의 첫 미술유학생은 황술조(黃述祚)인데, 그는 1930년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졸업하였으며, 손일봉(孫一峰)은 1934년에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양화가 손동진(孫東鎭)은 동경국립예술대학에 입학하였다가 1954년 프랑스 빠리에 가서 작가활동을 하였다. 이들과 더불어 활동한 한국화의 지홍(智弘) 박봉수(朴奉洙), 서양화의 김준식(金埈植), 손수택(孫守澤), 조각의 수월(水月) 김만술(金萬述)은 경주미술계의 제1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에 이어 활동한 작가는 조희수(曺喜洙), 이수창(李洙昌), 김인수(金仁洙), 박기태(朴基台), 박해룡(朴海龍), 최현태(崔賢泰), 박재호(朴在浩) 등이며, 1970년대부터는 김태중(金泰中), 최봉준(崔奉埈), 최복은(崔福殷), 오해진(吳海鎭), 이재건(李在健), 박비오(朴飛烏), 조필제(趙必濟), 박진수(朴鎭洙), 배한기(裵漢基), 최용대(崔容大), 최영달(崔英達), 최영조(崔榮造), 이명호(李明浩), 정석환(鄭錫煥) 등이 있다.

특히 조희수는 국전(國展)을 통하여, 최현태는 교육계에서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둘 다 사실풍을 고집하는 작가로 경주화단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박재호는 경주미협 지부장으로 신라미술대전을 창설하고 운영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리고 서예에서는 한영구(韓永久), 진원재(陳源載), 정수암(鄭壽岩), 한종환(韓鍾煥), 정진용(鄭振鎔), 서보영(徐寶榮)이, 조각에는 이동호(李東浩), 장용호(張龍虎), 이점원(李點元), 김동호(金東浩), 박원섭(朴源燮), 정광화(鄭光和)가, 공예는 유효웅(柳孝雄), 배용석(裵容石), 오해익(吳海益), 김번(金繁) 등이 지방과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동호인의 모임인 창미회(創美會), 아웃사이드 등이 발족되었으며 경주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1996년 제10회 경북미협 회원전이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출품한 경주미협회원은 전기한 작가 이 외에 한국화에 강위국, 곽유식, 박문선, 양해동, 정병국, 허만욱이, 서양화에는 곽양숙, 김동선, 김영중, 김장곤, 김호연, 박용, 배재옥, 서종숙, 이도우, 조성희, 한상태, 황찬욱이, 조각에는 박경희, 최용석이, 서예에는 최경춘 등이 출품하였다.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신라문화유적예술작품전시회(新羅文化遺蹟藝術作品展示會)에 전기한 회원 밖에 서태현, 양해동, 정귀숙, 박수미, 박선영, 김안

복, 김장곤, 변동열, 권성실, 최성화, 조재형, 김규현 등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2003년 경주예총종합예술제에는 앞에서 든 작가 외에도 김복희, 박수미, 손정화, 윤자희, 김정수, 김안복, 송재용, 신기철, 이도우, 이동언, 최정화, 김영찬, 김진헌, 김선희, 김희준, 김종학, 이승수, 정종국, 최용석, 최경민, 이명호, 김광욱, 임경, 임태빈 등이 출품하였다.

⑵ 근 · 현대 서양화가

① 황술조(黃述祚 ; 1904~1939)

경주의 근대 미술계는 일제 강점기 초기 소수의 일본 유학생에 의해 화단이 형성되었다. 경주 출신의 최초 미술계 유학생은 황술조로 호는 토수(土水)였다. 그는 1904년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공립경주보통학교(현 계림초등학교 전신)를 졸업하고 상경, 양정고보를 거쳐 1930년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귀국 후 개성에서 잠깐 호수돈여고와 개성상업학교에서 미술과 교사로 교편을 잡았으며, 32세 때 경주로 낙향하여 '경주고적보존회'(현 국립경주박물관)의 상임 고문역을 맡아 고미술에 심취, 골동품 수집과 신라미술 함양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화가로서는 출세의 길이기도 한 '조선미술전람회'(鮮展)를 거부하고 동미전(東美展), 협전(協展), 목일회(牧日會) 등 주로 동경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그룹전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선전의 보수적인 아카데미즘에 반기를 들고 정통 이상주의를 비롯하여 표현주의, 야수주의, 추상미술 등 여러 경향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황술조의 경우는 대상에 대해 주관적 변형을 어느 정도 가하여 화면 자체가 주는 회화적 효과에 치중하였으니, 곧 표현주의 내지 야수주의적 사실화의 기법으로 대상을 표현하였다고 하겠다.

10년 정도의 짧은 작가활동의 탓으로 그의 작품은 흔히 대할 수 없으며 작품세계에 대하여도 깊이 연구된 예가 없다. 대표작으로는 「수련」(1930년대 작), 「실내」 등을 들 수 있으며, 약간의 풍경화와 누드화가 남아 있다.

② 손일봉(孫一峰 ; 1906~1985)

황술조(黃述祚)의 뒤를 이은 동경 유학출신의 서양화가는 손일봉이다. 그는 동경미술학교를 황술조보다 3년 뒤에 졸업하고 줄곧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해방 후 귀국하여 경주화단의 주도적 위치에서 서양화 불모지에 많은 제자를 배출, 미술교육자 또는 작가로서 중진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향토적 정서 표현에

매진하여 후일 사실화계열 화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경주는 물론 영남 화단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는 1906년 현곡면 소현리에서 태어나 경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사범학교에 입학, 2학년 때에는 집에서 기르던 금붕어를 그려 선전에 입선한 이후 줄곧 세 번의 특선을 차지하여 천재적 화가로 찬사를 받았다. 특히 재학시절 마지막 해(1927년)에는 일본의 권위 있는 '제국미술전' 에 「뒷골목」을 출품하여 한국인으로서는 동양화부의 김은호(以堂)와 함께 2명만 입선되는 영예를 얻었다.

사범학교 졸업 후 동경미술학교 유화과에 입학한 그는 당시 일본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상파 또는 후기인상파에서 야수파에 이르는 사조의 영향과 특히 세잔느의 견고한 입체적 구조와 내면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철저한 아카데미즘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제도 아래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재학시절 '제국미술전' 에 연 4회 입선이라는 비범한 신예작가로 주목받게 되었다.

조국해방 이듬해 일본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이곳에 이미 결성되어 있었던 '예술가협회' 의 김만술(조각), 김준식(서양화), 최기석(유화, 동양화), 주 경(서양화) 등과 함께 '경주예술학교' 설립에 참여하여 1946년 4월에 초대교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 좌 · 우익 학생들의 충돌과 일부 교수의 월북 등으로 좌익학생들에 의해 제기된 교장의 친일문제 등으로 교장직을 사퇴하고 경주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그의 20여 년 간의 교직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1971년 중 · 고등학교 교장직을 끝으로 서울의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중앙화단과의 인연을 맺었다. 서울 신세계미술관에서 제5회 '손일봉 개인전' (1975)을 가진 이후 대구에 정착하여 제6회 개인전(1976)과 '한유회(韓油會)' 회장직을 맡으면서 창립전(1979)을 갖는 등 1985년 11월 작고 때까지 대구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손일봉의 작품활동 시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4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제1기는 경성에서의 시기(1922~1928)로 사범학교 재학시절과 교원시기로 한창 예술적 감성이 활발하게 피어나던 때이며, 수채화로서의 재료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표현주의적 사실화 경향의 시기이다.

제2기는 동경(1929~1937)과 북해도에서의 시기(1938~1946)로 동경미술학교 재학시절 및 북해도에서의 교사시절이다. 이 때 그는 "나의 스승은 세잔느"라고 말한 것처럼 오브제의 구조와 분석논리에 철저하여 아카데믹한 사실력을 발휘한 시기이다.

제3기는 경주예술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의 시기(1946~1950)로 향토적 정서를 서정적 사실화로 표현한 시기이다.

제4기는 수도여자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에서의 시기(1971~1974)와 마지막 작품 활동의 무대였던 10여 년 간의 대구에서의 시기(1974~1985)이다. 이 시기는 차분하고 매끈한 터치의 묘사법으로 밝고 고운 색채의 톤을 사용하여 경쾌하고 단순화된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기이다.

손일봉은 항상 "자연에 대한 겸허한 자세와 어린애 같은 눈을 가져야만 자연이 갖는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술가의 자세를 일깨웠다. 아무튼 그는 한국 현대미술 초기에 '동쪽에는 손일봉, 서쪽에는 오지호[吳之湖, 1905~1982, 현대미술 초기의 호남의 대표적 서양화가]' 라고 불릴 정도로 영남화단의 거장으로 손꼽혀 왔다. 주요작품으로 경주남산(1946, 계림초등학교 소장), 딸(1949), 정물(1991) 등이 있다.

③ 김준식(金埈植 ; 1923~1992)

동경유학 출신 가운데 손일봉 다음의 서양화가로 관성(冠城) 김준식을 꼽는다. 그는 황술조, 손일봉과 함께 정규 미술대학을 다녀 아카데믹한 교육제도 아래서 미술수업을 받은 작가이다. 따라서 그 역시 서양화의 정통성에 입각한 사실표현에 충실한 화가로서 좀 무겁기는 하나 깊이 있는 색감과 질감에 유화의 물질적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동경 태평양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곧 귀국하여 경주예술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주로 향토에서 접하는 여러 풍경들을 스케치하였으며 고분, 남산, 절터 등의 역사 유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남겼다. 그는 경주예술학교의 행정사무도 맡아 학교운영에 헌신하였으나, 예술학교가 폐쇄되고 미술과 학생들을 김범부(김동리의 형)가 교장으로 있던 계림학숙으로 흡수시킨 뒤 이 학숙의 부교수를 맡아 선생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이후 그는 문총 경주지부장 이후 예총 경주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향토작가와 경주를 거쳐간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등 개인 화랑의 시초를 열었다. 또한 황오동에 최초의 갤러리를 열어 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대중과 미술을 연결한 문화운동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화단 경력은 선전 입선, 개인전 2회가 있으며, 그룹전으로는 예술협회와 대한미술원전 출품이 있으며, 신라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대표작으로는 「고분과 남산」, 「감은사지」, 「해녀」등이 있다.

④ 최기석(崔璣錫 ; 1918~1989)

최기석은 성동동에서 태어나 청년시절까지는 고향에서 학업을 계속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동경 무사시노[武藏野]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1942년에 동경전수대학 상경과를 졸업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아 귀국하여 이듬해부터 12년간 문화중고등학교, 경주상업고등학교, 신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미술과 체육 등 문화예술활동을 계속하였다. 그의 첫 개인전은 1954년에 서라벌미술가협회 주최로 당시 경주읍립도서관에서 열렸는데, 「계림」, 「안압지」, 「문천」, 「경주읍성」, 「감은사탑」 등 유화 34점이 출품되었다. 제2회 국전에 입선한 이후로 공모전의 출품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주로 향토에서 개최되는 단체전에 출품하면서 개인작업과 문화활동에 주력하였다.

그의 작품 경향은 향토의 유적을 주제로 한 풍경화가 대부분이며 자연주의풍의 사실화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묵화에도 관심을 가져 문인화를 다소 남겼다. 1962년 교직생활을 청산하고 문화계몽 활동에 노력한 결과, 1964년 12월 30일 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경주문화원을 인가받고 원장에 취임하였다. 이러한 문화활동에 헌신하여 1969년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향토문화발전에 대한 공헌으로 제8회 향토문화공로상을 수상하였다.

⑤ 손동진(孫東鎭)

손동진은 1921년 노동동에서 태어나 청년시절까지는 주로 고향에서 활동하다가 20대 후반에 동경 유학길에 올랐다. 일본에서 현대미술을 접하게 되었으며 대학 졸업 후 바로 파리에 유학하였고 귀국 후 재차 도불(渡佛)하였다. 그래서 많은 시기를 파리에서 활동한 까닭에 국내에서보다 파리화단을 통해 더 잘 알려진 작가이다.

일본 유학전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 두 번 입선(1943, 1944년)하였고, 1946년 '경주미술인전' 에도 출품하여 지역에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황술조, 손일봉, 김준식 등 초기의 '신미술 1세대' 들은 해방 이전에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인상주의 경향의 작품을 유입하였으나 손동진은 이들보다 훨씬 후에 해방을 맞고 유학길에 올라 전후의 신미술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20대 후반에 경주에서의 예술활동을 접고 국립동경예술대학 미술학부에 들어가 철저히 아카데믹한 미술 수업을 받았다. 1952년 졸업 당시 동경예술대학 미술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후 동대학원 1년을 수료하고는 1954년 9월 파리 유학길에 올랐다. 이듬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서양 현대미술에 탐닉하였다. 1959년 졸업 때까지 약 5년 동안 '파리

국제미술전' (1955), '앙데팡당전' (1956), '까뉴국제회화전' (1957), '도빌르국제전' (1958)과 개인전, 당시 파리에서 주목받던 쟁쟁한 화가들과의 합동전 등 눈부시게 활약하였다.

귀국 후 16년 간 서울대와 세종대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당시 국내의 현대적 구상 및 추상 경향의 작가들과 신상회(新象會) 그룹을 통해 현대미술의 평면적 색채구성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신라시대」, 「목마」, 「기마상」, 「낙토(樂土)」, 「달빛」 등은 경주의 이미지에서 기인하였다고 한다.

그가 파리에서 귀국하여 서울에서 활동하던 1960년대는 우리 화단에도 서구의 잉포르멜[Informer : 비형상]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로 대부분의 추상화가들은 여기에 동조하였으나 손동진은 맹목적 서구사조에서 벗어나 한국 현대회화가 나아가야 할 주체적인 방향을 앞질러 찾아가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현대화시켰던 것이다.

1976년 재차 도불한 후 그는 파리에서 '프랑스 명예 예술가 회원' 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되는데(1979년 8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각국의 화가 14명과 함께 시로부터 파리교외에 1천호짜리 그림을 걸 수 있는 화실이 딸린 40여 평의 아파트를 제공받는 특혜의 화가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그가 파리화단에서 당당히 국제적 지위를 차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손동진의 작품경향은 본질적으로 구성주의적 평면화법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색채공간구성은 잉포르멜의 표현기법에서 흔히 보이는 행위성이나 우연성이 배제되는 철저히 계산된 구성으로서 양식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세계에 대한 확신과 회화의 본질성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이라 하겠다.

⑥ 손수택(孫壽澤 ; 1914~1978)

손수택은 홍익대학을 중퇴하고 경주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과 강사를 지낸 것 외에는 별다른 교육계나 예술단체에서의 활동은 없었다. 말하자면 전업작가로서의 길을 걸으며 꾸준히 작품 세계를 구축한 경우다. 그는 선전(鮮展)에 입선한 이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도 계속 출품하여 두 번의 입선 경력을 가졌으며, 개인전과 미술협회전에도 꾸준히 출품하였다. 또한 그는 유화뿐만 아니라 묵화에도 관심을 가져 묵죽 등 문인화도 몇 점 남겼는데, 그의 대표작으로는 「안압지」, 「계림」 등 경주의 유적을 소재로 한 작품을 꼽을 수 있다. 1969년에 그린 「계림」은 그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프 터치가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무성한 계림의 수목풍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⑦ 최현태(崔賢泰 ; 1925~1993)

청릉(靑陵) 최현태는 1925년 황오동에서 출생하였으며, 대구사범학교 심상과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48년 9월에 경주중학교로 교직을 옮긴 후 42년 간 이곳에서 미술계에 많은 제자들을 진출시켰다. 진정한 교육자로서, 화단에서는 철두철미한 야인의 길을 걸으며 명리나 권위주의에 기울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예술세계에 충실한 일관된 화풍을 유지하면서, 6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향토화단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國展]에 처음 입선하고, 공모전에는 일체 출품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술가로서 후진양성에 헌신하였다.

1956년 10월, 경주YMCA회관에서 제1회 개인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여덟 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주로 지역의 화가들로 구성된 협회전 등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신라미술대전의 운영과 심사에도 관여하였다. 그의 작품경향은 서정적 자연주의풍의 사실화로써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겸허한 자세로 섬세하면서도 진지하게 표현하였다. 대표적 작품인 「계림」, 「고분의 설경」, 「추령풍경」 등은 차분하고 극도로 안정된 터치를 유지하여 그의 작품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자」, 「무」처럼 정물화에서는 극사실의 기법을 선보였으며, 1993년 68세를 일기로 영면, 화가로서의 길을 접을 때까지 철저히 아카데믹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장을 역임하였고, 제1회 경주시 문화상(예술부문)을 수상하였으며, 교육계의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⑧ 박재호(朴在浩 ; 1926~1995)

석랑(石浪) 박재호는 서면 아화리에서 태어났으며, 1951년 경주예술학교를 1회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경주교육청 연구사로 있으면서 서라벌예술대학 미술대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초기에는 추상계열의 작품을 시도하다가 점차 향토의 풍경을 주제로 맑은 광선을 담은 점묘법으로 조용하고 담백한 풍경의 작품을 남겼다. 이후 그는 만학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에 적을 두고서 새로운 미적대상을 찾았다. 경주남산의 마애불에 비치는 따뜻한 햇빛의 화강암 질감에 매료되어 마애불을 소재로 한 그림에 심취하여 풍경화보다 더욱 확대된 터치의 점묘법으로 1,000호에 달하는 대형 마애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근화여중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작품경향이 추상표현주의 경향에 가까운 풍경화를 선호하였는데, 1995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한 원색의 큰 터치가 화면을 압도하는 작품을 즐겨 그렸다.

박재호는 일찍부터 국전에 인연을 맺고 연 10회의 입선경력을 가졌으며, 일곱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미술협회지부장(1971~1973)을 거쳐 예총지부장(1973~1980)을 오래 역임하면서 지역화단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당시로서는 전국적으로 볼 수 없었던 전국 규모의 공모전인 신라미술대전을 설립하였고 경상북도 미술대전에도 관여하였다.

경주시 문화상, 경상북도 문화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과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 받았다.

⑨ 조성희(趙星姬 ; 1946~2000)

서울 태생으로 30대 초반에 경주에 정착하여 활동한 여성작가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20대 중반부터 주로 유화작업을 하였다.

1982년, 당시 지역화단의 젊은 미술대 출신 모임인 '제3구상회전'을 필두로 창작미술협회전,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전, 월성미술협회전 등 각종 단체전에 출품하였고 신라미술대전에 초대작가로 활약하였다.

1990년 첫 개인전을 열었고, 1994년에 '향토작가 초대전'을 계기로 지역의 여성작가 모임인 '동해남부여성작가회'를 창립하여 다년간 회장을 역임하였다.

1999년 4월 두 번째 개인전을 가진 이듬해 5월,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 근 · 현대 한국화

○ 박봉수(朴奉洙)

경주의 근 · 현대 화단에서 한국화 분야에는 지홍(智弘) 박봉수가 독보적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1916년 사정동 국당마을에서 태어나, 소년시절부터 미술의 재능을 인정받아 일찍부터 화가로서의 길에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아호를 '국당(菊堂)'이라 했으며, 후에 금관에 매료되어 금관이 출토된 서봉총의 '서봉(瑞鳳)'으로 쓰다가 나중에 한 스님을 만나, '지홍(智弘)'으로 바꾸어 최후까지 사용하였다.

박봉수는 10세 때(1925) 경주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시절에 이미 「토우」, 「연화 속의 소녀」 등을 제작하였고, 15세 때는 「시집가는 날」을 제작하여 일본화의 대표적 화가인 고다마기보오[兒玉希望]에게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것을 계기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미술수업을 시작하였다.

16세 때 귀국하여 「천도(天桃)」를 제작하였고, 19세 때는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풍류악」을 출품하여 입선하면서 경주의 대표적 동양화가로 부상하였다.

20세 때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미술학원을 수료하고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1921~1922), 입선하였다.

이와 같이 지홍은 10대 초부터 수묵화 채색, 유화 등 재료의 한계를 벗어나 표현주의적 기법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에 「천도」(1931), 「태몽」(1932) 등 종이에 유화물감을 사용한 초현실적 구상의 유화와 「목동」(1936), 「고신라남녀토우」(1937)의 수묵화를 함께 선보였다. 또한 1941년과 1943년에는 「시성(始聲)」, 「서광(曙光)」 등 마지에 유화로 그린 추상화와 「초혼무」(1946), 「파랑새의 노래」(1946)와 같은 한지에 농채로 그린 비구상화도 보였다. 이후 1952년의 「씨앗」, 1953년의 「문자도」가 한지에 수묵채색으로 나타나 추상과 구성주의적 기법을 시도한 동양화 장르로 넘어와 줄곧 필력에 의한 구성적 획의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며 본격적인 동양화적 회화성이 돋보이게 되었다. 1951년부터는 토속적인 신앙의 주제에서 불교적인 주제로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꼴라주 등 소재와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보였다. 이때 종군화가로 잠시 근무하였으며, 1954년에 미국 공보원 초청 개인전을 가진 이래 미국과 도이취란트 등지에서 초청 전시회를 자주 갖게 되었다.

1956년에는 서민들의 생활 정경을 묘사한 「막걸리」와 일련의 그림들은 수묵담채의 스케치 풍으로 나타냈으며, 1959년에는 「탈춤」을 선보이는데 역시 수묵의 역동적 필치로 표현하였다. 특히 이 그림에서 '견취도(見取圖)' 라는 낙관과 함께 기재된 것을 보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담아두었거나 현장 스케치한 그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에 그는 수묵담채화 농채, 꼴라주, 비구상의 여러 기법과 장르를 넘나들며 자유분방한 표현의 욕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963년 48세 때 「명상그리스도」를 그린 다음해에는 카톨릭교회의 영세를 받고, 이탈리아, 도이취란트, 프랑스 등 유럽화단에도 출품하였으며,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의 기행으로 그 곳의 풍물에도 관심을 가져 스케치풍의 작품을 남겼다. 귀국하여 국전, 한독미술협회에도 관련하였으며, 예총, 미협지부의 지부장도 역임하였다. 다만 말년의 일본풍의 수묵화는 세속적 아취를 강하게 드러내어 예술성보다는 장식성이 돋보이는 경향이 있어 일반대중의 선호도로 위작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다양한 그의 작품 중에서 「달마」, 「열반과 나한들」(1972), 「반가사유상」 등은 불교소재가 강한 묵의적 표현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꼽힌다.

말년에는 서울에서 고희기념전을 갖고 1990년에 울산, 포항, 서울에서의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1991년 절필작 「태풍」을 남기고 76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3)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

〈표 6-2-9〉 미술협회 경주지부 역대 지부장

대/차례	지부장	재임연대
초대	손일봉	1964~1968
2대	김준식	1968~1970
3대	박봉수	1970~1971
4대	박재호	1970~1982
5대	최현태	1982~1984
6대	김만술	1984~1987
7대	한영구	1987~1989
8대	이동호	1989~1991
9대	오해진	1991~1993
10대	이재건	1993~1996
11대	최영달	1996~1999
12대	최영달	1999~2002
13대	이명호	2002~2005

2. 조각(彫刻)

○ 김만술(金萬述 ; 1910~1996)

수월(水月) 김만술은 경주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를 마치고 조각연구소에서 수학하였으며 거의 독학으로 조각계에 입신하였다. 1930년 중반부터 작가로 활약하였고 향토미술전(1942년), 미술가 협회전(1945년) 등에 출품하면서 지역 미술계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경주예술학교의 창설과 운영에도 관여하여 예술학교 유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향토 화단을 지켜온 작가이다.



아화초등학교 교정 동상

예술활동의 환경이 제약적이고 경제적으로 빈약한 지방에서 그가 혼자의 힘으로 영남조각계의 중진작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오직 혼신의 노력으로 예술세계에 도전한 결과라 하겠다. 해방 직전 조선미술전람회 조각부에 특선

(1942)과 입선(1944)을 했다. 그의 작품은 불두(佛頭)와 여인인물상(흉상)으로 얼굴의 뛰어난 묘사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가 인물의 표현에 남다른 솜씨를 발휘하게 된 것은 경주라는 지역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신라 불상은 그의 중요한 조각 소재이면서 스승이기도 하였다. 선전에서 특선한 불두는 평소 불교조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석굴암 조각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였다.

김만술의 작품은 인물상 또는 인체의 실체감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실력을 볼 수 있다. 그의 대표작 「해방」은 굵은 동아줄에 묶인 청년이 온몸으로 끈을 벗어나려는 표현인데 데생이 정확하고 사실력이 힘차게 표현된 작품이다. 이 조각은 해방 직전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가 남긴 많은 조각 중에는 초상 조각이 주류를 이루며, 타계하기 전에는 지역의 저명 예술가들의 초상조각공원을 만들 계획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만년에 들어 초기의 사실적 순수 조형작품은 불상을 선호하는 지역환경과 초상조각의 수요로 인하여 비천, 보살상 등 관념화된 불교조각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대형의 기념조형물이 다수 남아 있다.

그의 주요 기념 조형물은 김유신 장군 기마상(경주 황성공원) 곽재우 장군 기마상(대구 망우공원) 비천군상 (대구 경북대강당) 체육인상 (대구 실내체육관) 수봉선생상 (경주중고 교정) 등이 있다.

3. 서예(書藝)

1) 삼국시대

한자(漢字) 쓰는 방법을 서법(書法)이라 하며, 이를 높은 예술적 가치로 여겨 서예(書藝)라 한다. 신라시대는 한자의 수입과 동시에 서예도 일어나게 되었다. 현존하는 신라의 서적(書跡)은 포항 냉수리비(冷水里碑), 울진 봉평리비(鳳坪里碑), 울산 천전리(川前里) 명기(銘記)로부터 진흥왕 순수비(巡狩碑), 단양 적성비(赤城碑), 영천 청제비(靑堤碑) 등이 있다.

진흥왕대의 여러 비는 전아(典雅)한 육조해서체(六朝楷書體)를 보여 서예의 발달을 짐작케 한다. 그 이전의 비들은 고졸(古拙)한 예서(隸書)의 풍을 겨우 벗어난 육조해법(六朝楷法)을 나타내고 있다.

삼국시대 신라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승려 양지(良志)가 있었다. 그는 7세기 선

덕여왕대의 고승(高僧)으로 석장사(錫杖寺)에 주석하였다. 예술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서예와 조각으로 한 세상를 떨쳤으니 대가람 영묘사(靈廟(妙)寺)와 법림사(法林寺)의 현판을 그가 쓴 것은 유명하다.

조각 조소의 천재로 영묘사 장륙삼존상(丈六三尊像)을 만들고, 사천왕사(四天王寺)의 팔부신장상과 법림사 삼존상, 좌우 금강신상이 그의 작품이다. 회화에도 천재성을 나타내어 영묘사, 사천왕사, 법림사의 제신장상의 탱화를 그렸다고 전한다.

2) 통일신라

통일신라 때에는 당(唐)에 유학한 학자들이 구양순(歐陽詢), 왕희지(王羲之)의 서법(書法)을 배워 귀국하면서 당대를 풍미하였고, 그들의 명필은 당나라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신라시대는 사경(寫經)과 석각사경(石刻寫經) 및 비갈(碑碣)에는 당(唐) 구양순의 솔경체(率更體)가 크게 유행했다. 그래서 그의 글(書)인 구성궁예천명(九成宮醴泉銘)과 같은 솔경서는 신라사람들이 글쓰는 모범으로 삼았다고 한다.

통일 이후에는 솔경체와 함께 동진(東晋) 왕희지(王羲之) · 왕헌지(王獻之) 부자의 우군체(右軍體), 진체(晋體)가 일세를 풍미했다. 신라인은 두 부자의 서성(書聖)을 우러러 받들고 모범으로 삼았다. 솔경체의 거장(巨匠)은 요극일(姚克一)이요, 우군체의 거벽(巨擘)은 김생(金生)이었다. 왕희지 우군체의 작품 중 걸작은 김생의 글씨로 알려진 창림사비(昌林寺碑)와 한눌유(韓訥儒)가 쓴 문무왕릉비(文武王陵碑), 김육진(金陸珍)이 쓴 무장사아미타여래조상비(鏊藏寺阿彌陀如來造像碑)가 유명하다. 솔경체의 명품 중 걸작은 흥덕대왕릉비(興德大王陵碑), 삼랑사비(三郎寺碑),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碑)가 있는데, 모두 요극일의 글씨라고 알려져 있다.

(1) 작품(作品)

① 창림사 석탑 무구정광다라니경(昌林寺石塔無垢淨光陀羅尼經)

추사 김정희가 창림사 석탑 사리함에서 나온 것을 입수하여 서예 대가인 친구 권돈인(權敦仁)에게 기증한 것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아유가이 후사노싱[鮎貝房之進]의 손으로 들어간 천하의 둘도 없는 보물이었다. 추사 김정희가 지(識)를

쓰고 낙관(落款)을 하고, "이것은 당나라 대중(大中) 연간(847~850)에 쓴 것이니 김생이 살아 있기 6 · 70년 이상 된다. 필법이 극히 고아(古雅)하여 문무왕릉비 · 신행선사비 · 무장사비와 어깨를 겨누리라. 김생 또한 마땅히 한 수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평하였으니, 얼마나 신묘한 작품(作品)이었는지 알만하다.

조선을 대표한 서예가 완당(阮堂)이 극구 찬양한 문무왕릉비(文武王陵碑), 신행선사비(神行禪師碑), 무장사비(鏊藏寺碑)를 볼 때 문무왕릉비를 쓴 한눌유와 신행선사비를 쓴 동계사문 영업(東溪沙門靈業)과 무장사비를 쓴 김육진은 가히 김생에 버금가는 신필이라 하겠다.

②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경덕왕 14년(755) 황룡사 연기법사(緣起法師)의 발원으로 조성된 폭 27.2cm 길이 13.7m에 이르는 두루마리 불교경전이다. 신라 석탑의 사리함 속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필법은 당대의 사경체(寫經體)를 답습한 솔경체의 해서(楷書)로 필력이 힘차고 당당하여 당나라나 일본의 어느 사경도 이 필적을 따라올 수 없는 걸작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경(寫經) 절차를 명기한 신라 사경연구의 희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사경종이를 만들기 위하여 닥나무를 식재할 때, 그 뿌리에 향수를 부어 정결하게 배양하고, 껍질을 벗겨 종이를 만들 때,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보살계를 받고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다. 필사(筆師), 화사(畵師), 경심장(經心匠) 등 종사자는 모두 보살계를 받고 재식(齋食)하여 항상 숙식, 용변 후는 향수로 목욕 재개하며 사경에 임할 때는 의관을 정제하고 청의동자(靑衣童子)로 관정발(灌頂鉢)을 받들게 하고 청의동자와 네 사람의 악사(樂師)로 음악을 연주하며 지나는 길에 향수를 뿌리게 했다. 한 법사로 범패(梵唄)를 부르며 길을 인도하고 여러 필사들은 각자 향화(香花)를 받들고 염불하면서 길을 걸으며 사경하는 곳에 나아갔다. 그곳에 이르면 삼귀의(三歸依)를 합창하고, 세 번 정례(頂禮)하고 여래(如來)에 경전과 공양을 드리고 난 다음 제자리에 가서 사경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정결, 엄숙, 지성을 다 바치는 숭고한 신앙심을 서원하는 마음을 다하여 사경 글자를 완성했던 것이다.

신라시대는 백지에 묵서하는 사경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면 아청지(鴉靑紙)에 금분과 은분으로 쓰는 금자(金字) 혹은 은자(銀字) 사경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麻紙), 상지(楮紙)에 은자 사경도 많이 조성했다.

신라의 현존하는 금석문 중 유명한 성덕대왕신종명(聖德大王神鐘銘)과 감산사(甘山寺) 미륵 · 아미타여래조상기(彌勒 · 阿彌陀如來造像記)는 왕희지체이다.

고려시대의 사경은 솔경체가 널리 쓰였으며, 간혹 우세남(虞世南) · 류공권(柳公權)체를 선호하였다. 고려 후기에 오면 조송설체(趙松雪體)와 소동파체(蘇東坡體)를 많이 따랐는데 조선 초기까지 송철체가 주류를 이루었다.

중기 이후에는 다시 왕우군체가 부활하고 고구려에서 발달한 예서가 신라에서는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오면 예서를 많이 따르게 되며, 경주에도 인연이 깊은 추사 김정희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③ 김유신비(金庾信碑)

이 비는 국자박사(國子博士) 설인선(薛因宣)이 왕명을 받들어 썼다. 그러나 이 비석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임진왜란 전의 탑본이 영 · 정조대까지 전하여 경주부윤 홍양호의 손에 들어왔다 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④ 화엄사(華嚴寺) 화엄경석벽각자(華嚴經石壁刻字)

돌에 쓰고 새긴 경전은 구양순체의 명품으로, 경문을 쓴 서발한(舒發邯) 김임보(金林甫)와 김일(金一), 김순헌(金順憲)은 하늘이 내린 명필로 추정된다. 이들 필경사(筆經師)는 당대의 대표적인 명필이거니와 숭고한 신앙심에서 심혈을 기울인 정성이 어울려 그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창림사법화경석(昌林寺法華經石)도 석편이 출토되었는데, 비록 글쓴이는 알 수 없으나 그 또한 희대의 명필로 평가된다.

⑵ 서예가(書藝家)

① 김생(金生)

김생은 동국 제일의 명필(名筆)이다. 이규보(李奎報)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우리나라의 서예가를 평하여 신품사현(神品四賢) 묘품이현(妙品二賢)을 꼽았다. 신품(神品) 제1에 김생, 제2에 대감국사(大鑑國師) 탄연(坦然), 제3에 최우(崔瑀), 제4에 류신(柳伸)을 꼽았고, 묘품(妙品) 제1에 홍관(洪灌), 제2에 문공유(文公裕)를 꼽았다.

김생은 화성(畵聖) 솔거(率居)와 함께 서성(書聖)으로 불린다. 그는 승려로 절에서 팔순이 넘도록 글씨에 정진했다. 오직 왕희지의 서체를 전공하여 예서, 행서, 초서가 모두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의 명성은 중국까지 알려졌다. 그의 필적은 광종 5년(954)에 승려 단목(端目)이 집자한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太子寺

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가 있고, 현존하는 서첩으로 『전유암산가서(田遊岩山家序)』와 『대동서법(大東書法)』에 여산폭포시(廬山瀑布詩)가 목판본으로 전한다. 남산 창림사비는 그가 쓴 천하의 둘도 없는 글씨로, 원대(元代) 제일의 서예가 조맹부(趙孟頫)가 그 탑본을 보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고려 명필 학사 홍관(洪灌)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가져간 김생의 글을 보여주니 왕희지의 진묵(眞墨)을 본다고 감격하였으며, 계림 김생의 글이라 하니 천하에 왕희지를 제외하고 어찌 이같은 아름다운 글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송나라 학자들은 끝내 믿지 않았다 한다. 그는 왕희지에 버금가는 신의 경지에 이른 서예가였다.

② 요극일(姚克一)

『삼국사기』에 김생 다음으로 가는 신라의 명필이라 칭한다. 벼슬이 시중(侍中) 겸 시서학사(侍書學士)에 이르고 구양순 솔경체를 습득하여 필력이 강건했다. 그의 필적은 현존하는 것이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碑)와 이보다 석달 뒤에 쓴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가 전한다.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는 시독우군대감겸성공신(侍讀右軍大監兼省公臣) 박거물(朴居勿)이 왕명을 받들어 지었다. 이때 요극일은 '숭문대랑겸춘궁중대성신 요극일 봉교서(崇文臺郎兼春宮中臺省臣 姚克一 奉敎書)' 라 했으니 그 글을 직접 썼다고 볼 수 있다.

적인선사비는 전남 곡성군 원달리 대안사에 세워졌으나, 현재 비는 없어지고 탑본이 화엄사(華嚴寺)에 전한다. 이 비는 경문왕 12년(872) 8월 14일에 건립했다. 무주동리산대안사적인선사비송병서(武州桐裏山大安寺寂忍禪師碑頌并序)를 한림랑(翰林郎) 최하(崔賀)가 짓고 요극일이 썼다고 했다.

이 밖에 박거물이 찬한 삼랑사비문(三郎寺碑文)과 흥덕대왕릉비문(興德大王陵碑文)을 썼다고 한다. 흥덕왕릉비는 여러 개의 비편이 수습되었는데 요극일이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김원(金遠), 김언경(金彦卿)

유림랑(儒林郎) 수무주곤미현령(守武州昆湄縣令) 김원과 사금어대(賜金魚袋) 김언경 두 사람이 헌강왕 10년(884)에 건립한 가지산(迦智山) 보림사(寶林寺) 보조선사영탑비(普照禪師靈塔碑)를 왕명을 받아 같이 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명필일 것으로 추측된다.

김원은 정강왕 1년(886)에 건립한 사림사(沙林寺) 홍각선사비명병서(弘覺禪師碑銘并序)를 봉교찬(奉敎撰)했다. 그때 그의 직함은 유림랑 수병부랑중 겸 숭문관직학사(崇文館直學士) 사비어대(賜緋魚袋)라 했다.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고 벼슬하다 온 당대의 엘리트로 글을 짓고 쓰는 재능이 뛰어났다. 이 비는 김영(金穎)이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김원, 김언경 두 사람이 썼다. 첫째 줄부터 제7줄 선(禪)자까지 해서는 김원이 쓰고 사(師)자 이하는 행서로 김언경이 썼다. 이는 김원이 쓰다 유고(有故)하여 김언경이 이어받아 썼다고 보여진다.

④ 최승우(崔承祐), 최인연(崔仁渷), 최치원(崔致遠)

나말여초(羅末麗初)의 삼최(三崔)란 최인연, 최승우, 최치원을 일컫는다. 세 사람 모두 당나라에 유학가서 과거에 급제, 벼슬하고 돌아온 문호(文豪)로 글을 짓고 쓰는 재능이 뛰어났다. 최승우는 후백제왕 견훤에게, 최인연은 고려 태조 왕건에게 출사하여 보필하였고, 최치원은 신라에서 벼슬했다.

최인연은 『고려사』 열전에 실려있는 명신으로 18세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다가 42세에 귀국했다.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가서 태자사부(太子師傅)에 오르고 문한(文翰)을 담당했다. 초명(初名)은 신지(愼之), 신라에서 인연(仁渷)이라 하다가 뒤에 언위(彦撝)라 개명했다. 그의 손자 최항(崔沆)은 청백한 재상으로 유명하다.

대랑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를 왕명으로 최치원이 짓고(奉敎撰) 최인연이 썼다. 이때 최인연의 관직은 조청대부전수집사시랑사자금어대신(朝請大夫前守執事侍郎賜紫金魚袋臣)이라 했다. 그는 글을 짓고 쓰는 재주가 훌륭하여 흥녕사(興寧寺) 징효대사보인탑비(澄曉大師寶印塔碑)를 왕명으로 지었다.

최치원은 신라 제일의 문호다.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다가 귀국했다. 진성여왕대에 개혁 정치를 주장하고 외교 문서를 관장했다. 수병부시랑충서원학사(守兵部侍郎充瑞院學士) 아찬(阿飡)에 제수됐다.

그가 글을 짓고 쓴 쌍계사(雙溪寺) 진감선사비(眞鑑禪師碑)가 유명하다. 한 사람이 글을 짓고 제액(題額)의 전서(篆書)와 비문을 쓴 것은 세상에 드물다. 신라시대에 유행한 사경체와 구양순체의 전형으로, 서법은 구양순의 아들 구양통(歐陽通)이 쓴 도인국사비(道因國師碑)의 서체를 방불케 한다.

최치원이 왕명을 받들어 지은 초월산대숭복사비명(初月山大崇福寺碑銘)은 고운[孤雲, 최치원의 자]의 사산비명(四山碑銘)으로 유명하다. 이 비는 없어지고 그 비의 탑본(榻本) 또한 없어졌으나 다행히 전라북도 순창군 구암사(龜巖寺)에 전하

는 사본이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에 전하고 있다.

⑤ 석혜강(釋慧江)

최치원이 왕명을 받들어 지은 봉암사(鳳巖寺) 지증대사적조지탑비(智證大師寂照之塔碑)의 글을 쓰고 새긴 명필이다. 이 비를 세울 때 그의 나이가 83세였고 분황사(芬皇寺)에 주석한 승려였다. 서체는 행서로, 고령에 쓴 글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명필이다.

⑥ 김인문(金仁問)

태종 무열왕의 둘째아들이다. 식견과 도량이 크고 넓었으며, 제자백가(諸子百家)에 통달한 당대의 석학이었다. 당나라에 숙위(宿衛)하여 임해군개국공(臨海郡開國公)의 벼슬을 받았고, 당 고종(高宗)이 문무(文武)를 겸비한 영재(英材)라고 찬양하였다. 백제 정벌 시 당나라 부사령관이었으며, 고구려 정벌 시 신라군 부사령관으로 전공을 세웠다. 서예에 뛰어났는데, 특히 예서에 능했다.

무열왕릉비는 『대동금석서속(大東金石書續)』에 김인문이 썼다고 했는데, 이수(螭首)의 제액(題額)에 '태종무열대왕지비(太宗武烈大王之碑)'라 양각되어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가 부왕(父王)인 태종무열왕의 비문(碑文)을 짓고 썼으며, 전자 제액까지 썼다 한다. 당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文)과 서(書)의 대가인 그가 부왕의 비명을 짓고 썼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지금은 비와 탑본이 모두 없어졌으나, 15세기 매계(梅溪) 조위(曺偉)가 살았을 당시에 누운 비석이 있었고, 1563년 경주부윤(府尹)으로 도임한 구암(龜庵) 이정(李楨) 당시에 탑본이 전하여 비를 다시 세우려 했었다. 1935년 무열왕릉 전방에서 발견된 무열왕릉비편에 '중례(中禮)'자가 구양순체의 단아한 해서로 쓰여 있었다.

⑦ 한눌유(韓訥儒)

그에 관한 행적은 알 수 없다. 다만 문무왕릉비의 말미에 대사신한눌유봉(大舍臣 韓訥儒奉)이란 비문에서 그의 관품위가 10위인 대사(大舍) 관직에 있었으며 봉(奉)자의 아래 결락은 봉교서(奉敎書)일 것으로 보아 이 왕릉비문을 쓴 이는 한눌유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능비(陵碑)를 쓴 재능은 당대 제일가는 서예가였다고 보겠다. 이 비의 서체는 왕희지체로 세상에서 보기드문 명품이다.

⑧ 김육진(金陸珍)

그의 행적은 애장왕 때 당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실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다. 무장사아미타여래조상비(鏊藏寺阿彌陀如來造像碑)의 부서진 비편(碑片)에 수대나마신김육진봉교(守大奈麻臣金陸珍奉敎)라는 글이 있어 그가 쓴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경주부윤으로 도임하여 무장사터에 김생(金生)이 글을 쓴 비가 매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조 38년(1760)에 암곡리 일대를 찾아 헤매어 고비(古碑)의 조각을 찾아 내었다. 왕희지체의 글을 탑본하여 읽어보니 무장사비였다. 그것은 김생의 글씨가 아니라 김육진의 글씨였다. 글씨가 김생의 서체를 닮은 달필이라 김생의 글로 잘못 전하여 왔던 것이다.

김정희는 평하기를 김생의 집자(集字)비인 백월서운탑비(白月栖雲塔碑)의 위라고 격찬하고 청나라 서예 대가 옹방강(翁方綱)도 격찬하였다.

이 비는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의 발문(跋文)에서 옹방강이 평한 바와 같이 왕희지의 난정서(蘭亭序)와 홍복사사문(弘福寺沙門)이 집자한 대당성교서(大唐聖敎序)를 섞어 썼다 하며 당인이 집자한 우군서(右軍書)를 외국 사람이 다 알고 배웠다 한다. 추사도 무장사비는 과연 홍복사체(弘福寺體)라고 했다. 글씨가 성교서(聖敎序) 홍복사비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서예 금석문의 대가인 홍양호와 김정희가 김륙진의 글씨라고 평한 비범한 안목이 돋보인다.

⑨ 석영업(釋靈業)

그는 지리산 단속사(斷俗寺) 신행선사비(神行禪師碑)를 쓴 명필이다. 지금 그 비석은 없어지고 다행이 탑본이 전한다. 비문의 글씨는 일견에 왕희지 집자의 홍복사 대당성교서에서 집자한 것으로 눈을 의심케 한다. 그만큼 왕희지체에 몹시 가까운 명필이다.

신라사람들은 왕희지체를 숭상하여 일생을 배우고 익혔다. 그래서 천재 서예 대가인 왕희지의 난정서(蘭亭序)나 대당성교서(大唐聖敎序)를 본받아 실물과 다름없을 정도로 익혔다. 만약 신행선사비에서 동계사문영업서(東溪沙門靈業書)라는 글이 떨어져 나갔더라면 영락없는 우군집자(右軍集字)라 했을 것이다.

이조묵(李祖默)은 『나려림랑고(羅麗琳瑯攷)』에서 '득산음정맥(得山陰正脈)' 즉 왕희지의 올바른 맥을 이었다고 격찬했다.

3) 고려시대

(1) 이환추[李奐(桓)樞]

광조사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명병서(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銘并序)를 최언위(崔彦撝)가 왕명을 받들어 지었다. 상주국(上柱國) 이환추가 봉교찬서병전액(奉敎撰書并篆額)하였으므로 곧, 왕명을 받들어 제액(題額)의 전자와 비문을 모두 이환추가 쓴 것이다. 또 보리사대경대사현기탑비(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도 최언위가 짓고 이환추가 썼다. 그리고 영주시 풍기의 비로사진공대사보법탑비(毘盧寺眞空大師普法塔碑) 또한 최언위가 글을 짓고, 이환추가 왕명을 받들어 썼다.

이환추는 경주 출신으로 경순왕이 고려에 귀순할 때 함께 개경으로 간 신라인이다. 그는 고려에 벼슬하여 고관에 올랐고 나말여초의 뛰어난 명필이었다.

(2) 김부식(金富軾)

경주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하여 최고의 벼슬인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고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시문(詩文)에 능하고, 서예 또한 대단하여 행서가 호건(豪健)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가 지은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의 비문이 전해 온다.

(3) 안치민(安置民)

경주에 우거하여 칩거하던 불우한 천재 시인으로 시(詩), 서(書), 화(畵)에 능하였다. 호는 기암(棄庵), 수거사(睡居士) 취수선생(醉睡先生)이라 했다. 『보한집(補閑集)』에 공어서화(工於書畵) 라 하였는데 미술과 서예에 능했다고 평한 것이다.

(4) 오세재(吳世才)

명종때 대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멀리하고 경주의 상서장(上書莊)에서 안치민과 시문을 논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그의 시문은 세상을 놀라게 하여 「한림별

곡(翰林別曲)」에 '오세재와 유충기(劉沖基)의 글쓰는 솜씨는 대단하였다(吳生劉生兩先生偉走筆景何如)' 고 할 만큼 일세의 명필이었다.

(5) 설장수(偰長壽)

호는 운제(芸齋), 시호는 문량(文良)으로 위그르(Uighur, 回鶻) 사람이다. 공민왕 8년(1359)에 아버지 부원후(富原侯) 설손(偰遜)과 함께 고려에 귀화했다. 과거에 급제한 후 문화찬성사로 재임하였다. 조선 태조 5년(1396)에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에 오르고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에 봉해지면서 경주를 본관으로 하사 받았다. 시문에 능하고 글씨가 뛰어났다. 수서목은집(手書牧隱集)은 그 필법이 주경유범(遒勁有範)하다는 평을 하였다.

4) 조선시대

(1) 설경수(偰慶壽)

설장수의 아우다. 우왕 2년에 등제(登第)하여 고려와 조선에서 벼슬하였다. 글씨를 잘 썼고 진체(晉體)를 체득했다. 유명한 「천문도석각(天文圖石刻)」은 권근(權近)이 짓고 설경수가 쓴 것이다. 해서로 쓴 것인데 살이 찌고 곱다고 평했다. 권근이 지은 용문사정지국사비(龍門寺正智國師碑)와 이숭인(李崇仁)이 지은 신륵사대장각장경기비음(神勒寺大藏閣藏經記碑陰)을 썼다.

(2) 이씨부인(李氏夫人)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손녀요 좌의정 홍웅(洪雄)의 외조모다. 시문과 글씨로 일가를 이루었다. 일세의 명필 참판(參判) 금헌(琴軒) 김유(金紐) 소장의 팔경시발(八景詩跋)을 짓고 쓴 해서체의 글이 유명하다.

(3) 손소(孫昭)

세조 4년에 문과에 등제, 관직이 참판에 이르고 계천군(鷄川君)에 봉해졌다. 우재(愚齋) 손중돈(孫仲暾)의 부(父)이다. 글씨를 잘 써 유명했다.

5) 근 · 현대

근 · 현대 경주의 서예계는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괄목할 만한 작가나 서단(書壇)의 활동이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역사와 문화예술의 고장이며 서원, 향교와 같은 유학중심의 문화가 잘 이어져왔으며 양동, 교촌 등 양반, 사대부가의 전통이 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예나 문인화 같은 문기(文氣)의 예술분야는 침체되어 왔다고 하겠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 대중의 서예 붐을 타고 서예교육과 공모전을 통해 신진들이 많이 배출되고 서단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⑴ 최윤(崔潤)

교촌 최부자 집에서 성장하여 양반 부호의 자제로 모자람없이 지필묵을 사용할 수 있었고 예술에 재능이 있어 경주의 서계(書界)를 주름잡았다. 뿐만 아니라 금고(琴鼓) 기(棋)와 창(唱)에도 재능이 있었다. 작품으로 삼십일대본산팔공산은해사사적비(三十一大本山八公山銀海寺事跡碑)가 전한다.

⑵ 최현주(崔賢柱)

호는 계전(桂田)이며, 해방 후 경주의 서예계를 주름잡은 한 시대의 명필이었다. 대구고보 재학 시절 석재(石齋) 서병오(徐丙五)에게 사사하여 안진경체(顔眞卿體)를 체득했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초대부터 4회 연속 입선하고 4회부터 4회 연이어 특선하여 서도계를 놀라게 했다. 이후 국전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안진경체의 행서 · 초서에 능했다.

그림에 지홍(智弘) 박봉수(朴奉洙), 조각에 수월(水月) 김만술(金萬述)과 함께 경주 예원(藝苑)의 삼태성(三台星)으로 불리웠다.

⑶ 이정갑(李廷甲)

향산(香山) 이정갑(李廷甲)이 경상북도 농정국장을 퇴직한 후 경주서도학원을 개설하여 경주 서예계에 공헌했다. 그 문하에 덕봉(德峰) 정수암(鄭壽岩)과 지산(智山) 정진용(鄭振鎔)이 있다. 정수암은 향묵서예연구원(香墨書藝硏究院)에서 후

진을 양성하고 한국서예협회 경북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정진용도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4) 이종원(李鍾元)

호가 남강(南岡)인 이종원은 1932년 안강읍 양월리에서 출생했으며 1994년에 타계했다. 포항수산대학을 졸업하고 계전 최현주에게 사사하여 서단에 진출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 6회의 입선과 4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경상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 지부장을 지냈다. 경상북도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예계의 후진 양성과 서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서예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의 필치는 계전(桂田)의 필법을 이어받아 유려하였고 행서의 작품을 많이 남겼다.

6) 현대 서예단체 활동

현재 경주지역의 서예단체는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주지부 협의단체인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 서예분과에 한영구(韓永久), 정수암(鄭壽岩), 한종환(韓鍾煥) 등 7~8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 밖의 서예단체로 한국서예협회 경상북도지회 경주지부가 있는데, 2004년 현재 지회장에 정수암, 지부장에 신영식이 맡고 있으며, 경주지부에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서예가협회에 소속된 회원은 임태빈 등 5~6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예단체는 중앙과 연계한 도지회, 시지부로 이어지면서 미술협회, 서예협회, 서가협회 등으로 구분되며 미협과 서협, 서가협에 중복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4. 사진(寫眞)

1) 여명기

경주의 사진작가 모임이 시작된 것은 5.16 군사혁명 후 여타의 모든 예술단체가 탄생하며 정립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부터이다. 1962년 경주포토사진클럽

(KPC)이 결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주로 사진을 전업으로 사진관을 경영하면서 사진의 예술적 진가를 추구하는 이들과 자연과 인간과의 미적 교감을 사진으로 작품화하려는 사진동호인들의 의욕이 함께 어울려 KPC의 모임을 형성했다.

초대회장에 최원호(별천지사진관 경영)가 선임되었고, 김인식, 손용석, 안상홍, 최기주, 권상봉이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이 경주 포토사진클럽은 제3회(1962년) 신라문화제부터 제5회(1964년)까지 사진 분과 행사를 주도하면서 국제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였다.

2)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주지부 창립

1965년 10월 27일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인준으로 경주지부가 창립되었다. 경주포토사진클럽의 전신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사협 경주지부는 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구성했다. 초대 지부장에 김인식이 선출되었다. 그 후 계속 연임하면서 많은 사진작가를 배출하여 경주 사진예술의 기조를 형성하며 사협지부의 위상을 높였다.

신라문화제의 일환인, 경주사협주관의 국제사진촬영대회는 수준 높은 전국 규모의 대회로 인정받아 1966년에는 최고상에 대통령상을 수여하기 시작하여 국무총리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최상의 권위를 다진 촬영대회로 발전 · 변모하였다.

1967년에 들면서 경주사진협회의 새로운 또 하나의 행사가 개설되었는데 바로 '회원전' 이었다. 이 회원전은 전회원의 연중 제작 작품을 결산하는 전시회로서, 청기와 다방에서 열린 제1회에는 12명의 작품 24편으로 개최 시작을 알렸던 행사가 1979년 3월 1일부터 5일간 열린 제7회에 이르러서는 66점이 전시되었다.

이 무렵 사진동호인 모임이 자생하여 '서라벌작가협회' 와 '서라벌사진동우회' 가 결집되고 사진예술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30여 명이 가세하여 그야말로 풍성한 합동전시마당을 이루었는데, 사진에 몰두하는 사진 가족의 저변확대는 활성화된 경주사진협회의 큰 변모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1980년 5월 17일에는 경주 보문단지내에서 '전국신록사진촬영대회' 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3) 한국사진작가협회 경북지회 승격과 활동

예총 경주지부와 산하 여러 단체의 명칭 변화가 이 무렵 '경북' 이란 이름으로 함께 바꾸어졌던 것과 같이, 대구와 경북의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 1982년부터 이 단체도 한국사진작가협회 경북지회로 승격 인준되어 명칭이

바뀌어졌다. 지회장은 전대로 김인식이 맡아 경북지회장이 되었다. 이때부터 '회원전' 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1986년 제26회 신라문화제부터는 종전의 국제사진촬영대회를 대회방향을 바꾸어' 전국사진공모전' 으로 열었고 1987년에는 경주 옥산서원에서 사협 회원 누드촬영대회도 개최했는데, 1990년 6월 불국사 대회까지 성황을 이루었다.

4) 1990년대 사진협회의 변모와 활동

1990년대에 들어 10여 년간 사협경북지회의 명칭 아래 경북을 대표하여 활동하였던 시대를 벗어나 1996년에 경주지부로 환원하여 새로운 체제를 형성했다. 1991년에는 기존 행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제1회 서라벌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설했는데 경주지부로 복귀한 후 이 행사가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발전했다. 첫 대회에는 전국사진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했고, 최고상에는 문화체육부장관상으로 순금모조금관 350여 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하였다. 이어 1994년 4회를 넘기면서 전통적으로 고정시킨 부상 '순금모조금관' 은 2000년대에 접어든 제10회 대회에 이르러서는 600만원 상당의 금관으로 바뀌었는데, 참가자가 1,300여명이 넘어 전국사진 동호인들 간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입상자의 질적 우수성은 날로 향상하여 한국사진예술에 기여도를 높여왔다.

1998년에 들어 또 하나의 사협행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전국사진공모전' 이다. 이 공모전은 '98세계문화엑스포' 경축행사로 9월에서 11월에 걸친 엑스포 기간 중에 전국사진동호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이었다. 알찬 엑스포를 위해 사협 경주지부가 기획 주관한 것인데 최고상은 엑스포조직위원장(경상북도지사)상으로 부상이 500만원이었는데 2000년 제2회 대회를 거쳐 활기찬 행사로 나아가고 있다.

경주사진협회의 활동내역을 2003년에 기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10〉

경주사진협회의 활동 내역	대회개설 연도	비 고
신라문화제 국제사진촬영대회	1962년 개설	1986년 명칭 변경
신라문화제 전국사진공모전	1986년 명칭 변경	32회
회원전	1967년 개설	30회
서라벌전국사진촬영대회	1991년 개설	13회
세계문화엑스포 전국사진공모전	1998년 개설	2회

경주의 사진예술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40여 년 사협 경주지부를 이끌어 온 주인공은 김인식인데, 그는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91년 경상북도 문화상(예술부문)과 2004년 '한국예술문화상' 을 수상했다.

2000년대에 들어 경주사진작가협회의 새로운 시도는 해외교류였다. 2000년 9월 11일 중국 서안시 사진작가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서안시 군중예술회관에서 한중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를 필두로 2001년부터 양 국간 장소를 번갈아 가며 작가들이 상호 방문하여 친선과 우의를 도모하며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다.

5) 사진작가

○ 최원오(崔元伍)

1917년 노동동에서 태어나 건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오오사카 기계기술학교를 수료한 후 귀향하였다. 중형이 경영하는 사진관에서 견습으로 사진기술을 익혔는데, 1955년 제1회 전국 사진가연합회가 주관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함으로써 사단(寫壇)에 입문하였다. 이후 사진작가 손용석, 김인식, 김주식, 최귀주와 협력하여 '경주사진가 연합회' 를 만들고 지역 사단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진가 연합회의 초대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1963년에는 문화공보부가 주관한 전국 신인예술상전에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6회에 걸쳐 입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러한 경력을 쌓으면서 그는 노동동에 '별천지 사진연구소 '를 개원하여 제작에 몰두하였다.

1966년에는 일본 아사이신문사(朝日新聞社)와 전일본 사진연맹(全日本寫眞聯盟)이 주최한 제26회 국제 사진 살롱에서 신라문화제를 구경하기 위하여 고분 위에 운집한 사람들을 소재로 한 「군중(群衆)」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입선되면서 일약 작가로서의 명성을 굳히게 되었다.

그의 작품 경향은 초기에는 주로 풍경과 유적의 사실적 전경을 찾았고, 후기에는 추상적 구성의 소재를 취하여 현대 사진의 영역에로 접근하였다.

그의 주요 활동과 작품을 보면, 1968년에 제17회 국전에서 「순교자」로 입선하였고, 1983년에는 대한민국 사진전람회에 초대되어 출품하였다. 1985년에 '최원오 자연사진전' 을 개최하였고, 1994년에는 '자연과 대화' 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열었다.

〈표 6-2-11〉 사진협회 역대 지부장

대/차례	지부장	재임 연대
초대	김인식	1965~1976
2대	권혁규	1977
3대	김인식	1978~2003
4대	남강호	2004

5. 공예(工藝)

공예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식주 생활과 연계된 산업미술과 상업미술의 범주 안에서 그 개념을 찾아봐야 한다. 따라서 공예는 순수 미술보다는 생활 용도에 따른 상업을 목적으로 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자기, 목기, 토기, 섬유류, 금속, 주물, 종이, 짚공예 등 생활용구가 장인들에 의해 가업으로 전수되어 그 활동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미술로서의 공예는 예술성을 강조하면 인간생활의 정서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예술작품을 말하게 된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의 산물인 고고미술품들이 풍부하게 전해져 오는 지역이다. 화려하고 빼어난 미적 세공기술을 보여주는 금관, 요대, 귀걸이 등의 장신구와 조형미가 완벽한 토기류, 와당, 전돌, 디자인과 채색이 화려한 칠기, 목기류 등은 이 지역의 공예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작품소재로 이용되어 왔다.

이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뜬 공예가는 조각가이면서 향토사학자인 윤경렬과 금속 공예가인 김인태가 대표적이다.

1) 현대의 공예 현황

○ 경주민속공예촌 사업협동조합(慶州民俗工藝村事業協同組合)
경주시 하동 201-18번지

본 조합은 민속공예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며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83년 8월 17일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1986년 3월 31일에 준공되었다.

전체 부지는 66,234㎡에 1,619㎡의 종합전시장을 갖추고, 현재 18개 업체에 110명의 장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2) 공예가

(1) 윤경렬(尹京烈)

윤경렬은 1916년 함경북도 경성군 주을면에서 태어났다. 그 곳에서 주을보통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거친 뒤 19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후꾸오까현(福岡懸) 하까다시(博田市)에 있는 일본의 인간문화재 나까노꼬다미(中之子多美) 인형연구소에서 인형제작수업을 했다. 그러나 그는 4년만인 1938년에 귀국하였는데, "한국인이 아닌 일본사람의 얼굴을 연구하고 만드는데 대한 짙은 회의와 실망감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이 결정적인 귀국 이유였다.

귀국 후 고향에서 '조선인형연구소'를 경영하다가 1944년 개성으로 옮겨와 '고려인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당시 개성 박물관장이었던 고유섭(高裕燮)을 만났고, 그로부터 민족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 후 한국미술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한국미술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경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경주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인의 얼굴과 인물의 복식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인형조각과 불상조각으로 한국의 전형적 인물상을 제작하는데 전력하였다. 1943년과 44년에는 개성에서 인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조선미술전람회 조각부에 두 번 입선을 하고, 1949년 경주에 정착한 후, 한국 풍속인형연구소인 '고청사(古靑舍)'를 경영하면서 경주예술학교와 인연을 맺었다.

그의 조각 작품은 경주에 안착한 이후 주로 불교유적에서 소재를 구했고, 신라석불에 매료되어 테라코타(소성상) 불상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소형의 인형으로 한국적인 인물상을 독특하게 표현하였다. 인형작품은 단아하고 귀여우며 잔잔한 미소를 띤 인상으로 여성의 사랑스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1953년, 계림초등학교의 미술강사를 맡으면서 미술과 동화, 연극을 지도하며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에 헌신하였다. 특히 1954년부터는 경주박물관장 진홍섭과 함께 '어린이박물관학교'를 개설하여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가르쳐 어린이들에게 신라문화를 깨우치게 하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한편 1956년 신라문화를 아끼고 알고자 하는 취지로 모인 민간 문화단체인 '신

라문화동인회'를 만들어 신라문화에 대한 계몽과 학술연구, 강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였으며 유적답사를 통하여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이로써 1977년에는 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연구소 '경주 · 월성지표조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경주의 사적과 특히 남산에 대한 불적연구로 경주의 불교미술에 대해서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향토사학가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연구결과로 1979년에 남산불적에 대한 종합적인 저서인 『경주 남산 고적순례』를 경주시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윤경렬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우리 문화와 민족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을 하였는데, 1980년에는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의 미'를 열강하였다. 1983년에는 '석굴암의 예술', 1985년에 '경주 남산 불적'을, 1988년에는 '한국 문화와 자연 신앙'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 문화의 독창적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 미술을 외국의 미술과 비교 · 연구하고자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지의 유적을 답사하였다. 1999년 11월에 84세를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신라문화의 연구와 강연을 계속하여 시민 문화계몽에 헌신하였다.

윤경렬은 1971년에 향토문화상(문화공보부)인 '상록수상'을 수상하였고, 1980년에는 동아일보가 제정한 '햇님어린이 보호상'을 받았다. 그리고 1982년에 '외솔상' 실천부문상 및 '한국문화예술상(문화부분)'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불교동화집』(법화사, 1965), 『경주남산고적순례』(경주시, 1979), 『신라이야기 Ⅰ · Ⅱ』(창작과 비평사, 1981), 『신라의 아름다움』(동국출판사, 1985), 『경주남산 Ⅰ · Ⅱ』(대원사, 1989), 『경주박물관학교 교본 Ⅰ · Ⅱ』(경주박물관학교, 1990), 『경주남산의 탑골』(열화당, 1991),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불지사, 1993), 『NAMSAN』(Buuddha Land Co, Ltd, 1994), 『자서전』(학고재, 1997) 등이 있다.

(2) 김인태(金仁太)

1937년 경주 인왕동에서 태어나 12세 때 고청사의 윤경렬 문하에서 7년 간 토제인형과 금속공예를 수업하였다. 1956년, 경주박물관학교 개교 2주년 특별전시회에 황룡사 9층탑과 금관의 모형을 제작, 출품하여 뛰어난 솜씨를 인정받게 되었다. 1962년 경부터는 토제인형제작 분야에서 벗어나 당시 아무도 실현하지 못한 신라 금속장신구 재현 작업에 몰두하여 금속공예품 복원의 새로운 길로 접어

들었다.

그러나 공예품 제작으로 그의 공방(工房)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잠시 표구점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타고난 손재주와 미적 감각은 결국 그를 금속공예가로 돌아오게 하였다. 1975년 천마총 발굴 복원사업 시 고분 돔(dome) 내부에 출토유물 전시장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이때 추진 운영진에서는 일본 기술진에게 맡기기로 논의됐다. 그러나 그의 제작 기술능력을 인정한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강력한 추천으로 천마총 내부 전시 유물을 일괄 제작하게 되어 마침내 탁월한 고대금속공예 제작기술을 국내외에 인정받게 되었다.

생전에 그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제1회 금속공예 명장으로 선정되었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장증서(제91-5)'를 받았으며 경주어린이 박물관 강사로 수고하다가 1993년 57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3) 경주의 명인 · 명장

〈표 6-2-12〉 역대 이사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 기간
1~3	김종준(金鍾埈)	1984. 11.~1994. 2.
4	김동학(金東鶴)	1994. 3.~1996. 2.
5	류효웅(柳孝雄)	1996. 2.~1999. 2.
6	박정호(朴正浩)	1999. 2.~2002. 2.
7~8	김영섭(金榮燮)	2002. 2.~2005. 4.

〈표 6-2-13〉 경주의 명인 · 명장

성명	분야	상호	지정 년도	비고
김동학(金東鶴)	전통(箭筒)	근학공방	1989	중요무형문화재 제93호
김인태(金仁太)	금속공예	삼선방	1991	명장 제91-3호(사망)
배용석(裵容石)	토기	부산토기	〃	명장 제91-9호
류효웅(柳孝雄)	도자기	신라요	〃	명장 제91-30호
윤만걸(尹萬杰)	석공예	(주)동신건설	1995	명장 제95-23호
김해자(金海子)	누비장	장생화 누비공방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김영찬(金永燦)	석공예	석경조각연구소	2005	명장 제05-20호

제4절 연극(演劇)

경주의 연극사는 한국 연극사의 일부분이며, 한국 연극사 역시 그 발생 과정과 변화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과 대동소이하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우리는 연극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다.

첫째는 연극 구성의 4대 요소인 무대(극장), 극본(희곡), 배우, 관객이라는 기본을 중시하는 다분히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협의(狹意)의 무대예술이고, 둘째는 인류 발생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자연 속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단순하고 유희적 형태로 나타낸 민속 예능이나 일반 서민들의 연예(演藝) 활동 등을 포함한 전근대적이며 광의(廣意)의 문화적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대 연극을 비롯하여 창극이나 신파극, 신극 등이 전자에 해당되고 고대와 중세 및 근세에 발생한 굿이나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마당 등이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광의의 연극적 개념에 해당하는 '굿'의 사전적 풀이는 '무당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귀신에게 치성(致誠) 드리는 의식' 으로 되어있다. 이는 '사냥할 때나 노동할 때의 동작의 반복이나 모방 행위가 종교의식[宗教儀式=ritual]으로 변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세기 철학자 화이트헤드(A · N · Whitehead)의 서양식 합리주의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곧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종교 의식이나 예술행위(굿 연극)의 근원이 동 · 서양이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연극의 발생과정이 샤머니즘이나 종교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 고대의 연극

3세기 무렵의 한반도 여러 부족들의 생활 상태를 기록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에 의하면 "해마다 한두 차례의 부족축제를 열었는데, 이는 씨 뿌리는 봄이나 추수하는 가을에 하늘에 제사지냄으로써 풍작을 기원하며 동시에 부족의 안녕과 단결을 비는 제천의식(祭天儀式)이었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濊)의 무천(舞天) 등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때 부족들이 어울려 떠들고 춤추며 노래 부르는 가무적(歌舞的) 요소가 신을 위한 의식에서 차츰 인간 상호간에 즐기는 놀이로 변하면서 본래의 종교 의식이 연극의 형식으로 발전된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전통의 맥이 삼국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강릉 단오제'

와 '하회(河回) 별신굿' 등이다.

2. 신라시대의 연극

1) 신라 향악(鄕樂)과 가면극

신라는 삼한(三韓) 78개의 작은 부족국가 중 하나인 진한(辰韓)의 사로국(斯盧國)이 모체가 되어 기원전 57년에 설립된 왕국으로서 6세기 후반에 가야(加耶)의 여러 나라를 병합하고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백제와 고구려마저 정벌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 신라는 영토의 통일을 통해 언어와 습속(習俗)을 같이하는 문화의 통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양 세계를 풍미하던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토착화된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신라 연극의 뿌리가 된 향악(鄕樂)을 꽃피운 것 역시 삼국통일 이후의 일이었다. 당나라는 물론이고 가야, 백제, 고구려 등 전시대(前時代)의 가악(歌樂) 등을 집대성 하여 독창적인 가무(歌舞)와 연희(演戱) 문화를 확립했던 것이다.

『삼국사기』의 신라향악을 서술한 대목에 가무백희(歌舞百戱)란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채붕[綵棚, 채붕은 나중에 산대(山臺)라고 함]이라 불리는 화려한 비단휘장을 드리운 높고 넓은 무대에서 행해진 가배놀이, 팔관회(八關會) 등 여러가지 가무놀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라의 향악이 왜(倭)에도 전해져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신라 눌지왕(訥祇王)이 악인(樂人) 80명을 보내 왜왕의 죽음을 조상(吊喪)했다는 기록이 보이니, 이때 이미 신라악무(新羅樂舞)의 내용이 얼마나 풍부했으며, 또한 그 규모가 방대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2) 검무(劍舞)의 전형(典型) 황창무(黃昌舞)

『동경잡기(東京雜記)』와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의하면 신라의 황창랑(黃昌郎)이라는 소년이 검무(칼춤)를 빙자하여 백제왕을 시해하고 백제인들에게 피살되었으므로 신라 사람들이 이를 슬피 여겨 황창의 가면을 만들어 쓰고 검무를 추게 되면서 [像其容爲假面作舞劍之狀] 지금껏 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헌비고』 이후에 나온 『증보문헌비고』에서는 경주에 전해오던 검무 황창무가 관창무(官昌舞)의 와전일 것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열전(列傳)에 보면

신라 품일장군(品日將軍)의 아들 관창랑(官昌郎)이 소년용사로서 백제 전투에 참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계백장군에게 피살된 사실(史實)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연관하여 볼 때 황창무가 아니라 관창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여러 설화를 연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춤이 단순한 전투모의무(戰鬪模擬舞)나 용검술(用劍術)의 묘기(妙技)를 보이는 검무일 뿐만 아니고, 가면을 쓰고 좀더 연극성(演劇性)을 띤 가면동자무검희(假面童子舞劍戱)였음도 알 수 있다.

3) 무애무(無导舞)

'무애무' 의 유래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조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원효가 이미 실계[失戒, 파계(破戒)]하여 설총(薛聰)을 낳은 이후로는 승복을 벗고 속복(俗服)으로 바꾸어 입고 다녔으며 스스로 소성거사(小姓居士)라 불렀다. 우연히 어떤 광대를 만나 큰 박을 무농(舞弄)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형상이 기괴(奇怪)하였다. 원효가 그 형상대로 한 도구(道具)를 만들어 그 이름을 『화엄경(華嚴經)』의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 란 구절을 따서 무애가라 명명(命名)하여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촌락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시정잡배들과도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들로 하여금 모두 불타를 알게 함으로써 누구나 염불(念佛)할 줄 알게 하였으니 원효의 법화(法化)가 크다 하겠다.

그런데 이 무애무의 춤을 추며 부르던 노래 가사는 알 수 없으나 내용 추정은 가능하다. 고려시대에도 불교적인 내용이 많았으나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러서는 차츰 왕가(王家)의 번영을 송축하는 노래로 내용이 바뀌어졌다. 가무는 궁중에서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도 다분히 유흥적인 형태로 연무(演舞)되어 지금까지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

다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무애무' 가 춤이냐 연희(演戱=연극)냐 하는 논쟁은 이 춤에 소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큰 바가지를 악기로 보느냐 탈(가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4) 처용가무(處容歌舞)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궁중나례(宮中儺禮)나 연희를 베풀 때에 처용의 가면

을 쓰고 기괴하고 호방한 춤으로 연행[演行, 공연]되어 온 무극(舞劇)인 처용가무는 그 기원을 신라의 처용설화에 두고 있다. 『삼국유사』의 처용랑망해사(處容郎望海寺)조에 처용설화는 그 줄거리가 중국이나 불교설화 등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그 기층(基層)에는 신라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주술(呪術)적인 토착신앙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요컨대 처용의 관용성 내지 독창성은 사악[邪惡, evil]을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주술적인 능력과 함께 '제웅' [사악을 짊어지고 대신 버려짐으로써 선(善)을 맞이하게 하는 짚으로 만든 대속물(代贖物)]으로서 진경[進慶, 좋은 일을 맞이함]의 주력을 동시에 갖는 복합적인 신격(神格)이란 점에 있다.

처용무가와 비슷한 것으로 제주도의 '영감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또 『삼국유사』의 처용랑망해사 조에는 처용설화에 이어 그 후반부에 남산신(南山神), 지신(地神) 등의 신무설화(神舞說話)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무산신(御舞山神)'이라고도 하는 유명한 '남산신무(南山神舞)'의 내용은 이러하다.

> 헌강왕이 이번에는 포석정(鮑石亭)에 행행(行幸)하였을 때에 남산신이 모습을 나타내어 춤을 추었는데 좌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보였다. 남산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따라 왕 자신도 춤을 추었으니 그 형상이 보였던 것이다.

왕 자신이 산신과 함께 춤을 추었다는 사실은 포석정이 호국신을 제사지내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 제정(祭政) 일치 시대의 제사 주제자(主祭者)는 왕이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아무튼 처용무는 왕조의 교체를 거치면서도 고려와 조선조에 전승되어 구나무[驅儺舞, 재앙을 물리치는 춤]로서 뿐만 아니라 궁중의 연악무(宴樂舞)로도 변형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시와 소설의 주제로 사용되거나,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에도 처용 설화의 줄거리(plot)가 활용되고 있어서 '처용무가' 야말로 신라 문화예술의 정수요 무대 공연에 있어서 신라미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검무, 무애가무, 처용가무 이 외에도 신라의 가무백희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로 오기(五伎)라는 향악이 있다. 고려의 산대잡극(山臺雜劇)이나 조선의 나례잡희(儺禮雜戲)에 앞선 가무로 중국과 서역(西域) 전래의 무악(舞樂)과 산악(散樂) 등에서 영향 받은 삼국악(三國樂)을 종합한 놀이들로 추정된다.

3. 고려시대의 연극

고려시대(918~1392)의 가무문화는 신라문화를 계승 · 발전시켜 조선시대로 이어주는 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처용무와 나희(儺戱) 등 신라의 연희(演戱)를 계승하여 연등회, 팔관회 등의 국가적인 행사와 나희와 조희 등의 민중 가무를 발전시켜 후세에까지 전하고 있다.

1) 산대잡극(山臺雜劇)

⑴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와 백희(百戱)

고려에서는 음악과 가무(歌舞), 백희(百戱) 등으로 제불(諸佛)과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으며, 이런 국가적 행사를 통하여 군신(君臣)의 결속을 다지고 일반 백성들도 이를 즐겼는데, 그 대표적인 제전(祭典)이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였다.

연등회는 불사(佛事)에 관한 국가제전(國家祭典)으로 상원[上元, 정월 대보름]에 행해졌고, 팔관회는 천지신명과 오악(五嶽)과 명산대천용신(名山大川龍神) 등의 토속신(土俗神)에 대한 제사 의식이었다.

이 두 행사의 의식 절차는 다같이 등불을 휘황찬란하게 밝히고 채붕(산대)을 설치하였으며 술과 음식, 음악, 가무백희로 대축연(大祝宴)을 베풂으로써 제불과 천지신명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채붕(綵棚)이란 말은 산처럼 높다는 점에서 산붕 또는 산대(山臺)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의 극장 또는 연극 무대란 뜻이며 신라 진흥왕이 팔관회 행사 시에 처음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와 조선조에 이르러 그 규모가 커지고 점점 더 화려해졌다.

⑵ 교방가무희(敎坊歌舞戱)

고려시대의 교방은 조선시대 장악원 (掌樂院)과 유사한 것이다. 교방가무희는 우리나라 고유의 가무에다 고려 때 송(宋)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된 교방악(敎坊樂)이 합쳐져서 성립된 가무희를 일컫는 것으로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2) 나희(儺戱)

나희 또는 나례(儺禮)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일정한 소도구를 들고 주문(呪文)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는 행사인데 일종의 가면극이다. 이러한 귀신을 쫓는 벽사진경(辟邪進慶)의 행사에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연희의 시작이 처용무라 할 것인데 고려와 조선시대에 매우 활발하게 행하여졌다.

3) 조희(調戱)

고려시대에 매우 활발하게 공연된 연등회나 팔관회 등은 어느 정도 규칙과 격식을 갖춘 연희인데 반하여 비교적 자유분방한 형식의 화극(話劇)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조희(調戱)이다. 이는 특별히 재담(才談)에 능한 배우나 광대(廣大)가 무대에 올라와서 관객을 웃기고 익살을 부리며 세태를 풍자하는 놀이가 주류를 이루는 '소학지희(笑謔之戱)' 로서 오늘날의 희극(喜劇)과 비슷한 것이었다.

충신 열사의 무용담이나 일상적인 삶의 애환을 소재로 삼았는데, 예를 들면 '하공진 놀이' 와 같은 것이 있다. 『고려사』 열전(列傳)에 기록된 하공진(河拱辰)은 현종(顯宗) 원년(1010)의 거란 침입 시에 철군 교섭을 위하여 적진에 들어갔다가 포로가 되어 억류되었고, 거란왕의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절을 거부하다가 살해된 공신이었는데 이 사실을 줄거리로 꾸민 연희(演戱)였다.

4) 고려시대의 재인(才人)과 광대(廣大)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술 문화, 특히 연극, 음악과 같은 공연 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객 즉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필수적이다. 고려의 경우는 왕건의 개국 이래 농업 생산의 증대와 함께 상업과 수공업 분야가 점차로 발달하여 서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졌다. 생활이 안정되면 안일과 오락적인 욕구가 뒤따르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어서 이런 욕구에 부응하여 직업적인 연예인(배우)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종래의 가무백희도 그 내용이 틀에 박힌 연희 형식에서 탈피하여 조희(調戱) 즉 소학지희(笑謔之戱)와 같은 오락성이 강한 형태로 변천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배우 중에서 줄타기, 방울놀리기(弄丸), 땅재주 등에 능한 부류를 재인(才人)이라 하고 가무와 가면연희 등에 종사하는 무리들을 광대(廣大)라 불렀다.

4. 조선시대의 연극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가 1992년 조선을 세우고, 숭유척불(崇儒斥佛) 정책을 국가 지도원리로 삼은 이래 약 2백년 동안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국토가 확장되고 농업이 발전하는 등 국력이 신장되고 민생이 안정되었다. 또 이 기간 동안 문화면에 있어서도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경국대전』 등 저명한 서적들이 간행되고 특히 세종대왕에 의해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6세기 이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왜구 침입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으면서 국토가 피폐하고 서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되어 나라의 운명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다행히 이런 와중에도 조선조 후기에는 그런대로 상업자본이 발달하게 되어 상공인들로 주축을 이룬 서민 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의 뒷받침으로 서민 문화 · 예술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1) 산대나희(山臺儺戲)

불교를 멀리한 조선시대에는 국초부터 연등회, 팔관회 등의 의식은 소외당했으나 산대잡극(山臺雜劇)과 나례(儺禮)는 계승되어 더욱 성행하였다. 특히 나례는 고려 예종조 이후 구역(驅疫)보다 잡희(雜戲) 부문이 확대되어 나례가 곧 나희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조선조에 들어서는 나례도감(儺禮都監)을 강화하여 동계나례의식(冬季儺禮儀式) 때는 물론이고 중국사신을 영접할 때, 알성시(謁聖時), 또는 지방관을 환영할 때에는 산대희[山臺戲=산대잡극=산대나례=나희]를 공연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와 같이 조정의 각종 의식과 영사행사(迎使行事) 때, 이 연희 공연이 필수적인 절차로 되어 있었으나 영(英) · 정조(正祖) 이후에는 국가 재정과 외교적인 사정으로 폐지되고 민간에서 민속극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2)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戲)

조선시대의 산대희에서 잡희, 창우지희(倡優之戲), 또는 배우희 등의 명칭으로 부른 광대소학지희의 화극적(話劇的) 전개 방식은 그 형식이 현대 연극과 매우 비슷하다. 줄거리의 내용은 주로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나 부패무능한 왕 또는 벼슬아치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들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세조실록』에 보면 "축역우인[逐疫優人, 배우]이 잡희[雜戱, 연극] 공연 중에 자문자답하는 대목에 '관리탐염지상(官吏貪廉之狀)'과 '여리비세지사(閭里鄙細之事)'를 연출하며 무소부지(無所不至)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필자 미상의 『지양만록(芝陽漫錄)』에는 "명종(明宗) 22년의 일로서 왕이 병환 중 소일삼아 창우희[倡優戱, 연극]를 구경하는데 배우가 도목정사(都目政事)놀이를 연출하면서 극 중의 이조판서와 병조판서가 서로 못난 조카와 사위에게 정실(情實) 쓰는 내막을 보여주는 장면에 이르자 왕이 크게 웃었다(上爲之大笑)"는 기록도 있다.

이 밖에 성균관 유생들이 연례적으로 행한 궐희[闕戱, 유희(儒戱)]와 속리산 법주사의 좌수희(座首戱) 같은 것도 문헌에 나타나 있다. 이 광대소학지희에 대해 이두현은 『한국연극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 15~16세기의 광대소희지희의 전개는 이 시기에 이미 가면이나 인형의 수단을 빌리지 않고 배우가 직접 나와서 일정한 인물과 일정한 사건에 관련된 주제를 전개하는 연극을 화극(話劇)으로 연출하였다. 그것도 독연형태(獨演形態)만이 아니고, 다수의 등장인물에 의한 연희도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잡극(雜劇)들은 세시(歲時) 때에 산대에서 공연되었으며 궁중의 나례(또는 나희)에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의 재인(才人)과 광대(廣大)

조선시대의 연희 문화는 주로 나례도감의 공의(公儀)를 끼고 내려왔지만, 배우들은 유사 시에만 상경하여 공연이 끝나면 떼를 지어 경향 각지를 돌아다니며 연희를 베풀어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들의 수입원은 과거에 등과한 사대부의 유가(遊街)나 상공인 및 농어촌민들의 오락적 요구에 불려 다니면서 받는 화대가 전부였다. 천민들인 이들에게는 백정이나 유기공(柳器工) 등 한정된 몇몇 직업 외의 일반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땅재주나 줄타기꾼 등을 재인이라 하고 가무, 판소리, 무악, 가면희 등에 종사하는 무리들을 광대라고 한 것은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였다.

4) 판소리

판소리는 광대의 '소리'와 '아니리' 및 '발림'에 고수(鼓手)의 북소리와 '추임

새' 로 구성되는 독연(獨演) 형태의 극예술이라 할 수 있다. 팔관회나 연등회와 같은 정식 무악이 아닌 산악백희(散樂百戱)에 근원을 둔 화극(話劇)의 변형으로서 시초에는 촌극단장(寸劇短章)이던 것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힘입어 대본(臺本)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단편적인 가사들이 결합된 연가체장편희(連歌體長篇戱)로 형성되었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속편』에 이렇게 적고 있다.

> 이 판소리의 비조가 하한담(河漢譚)과 최선달[崔先達 : 이름미상]이요 이들의 업적을 계승한 정조 때의 권삼득(權三得)에 의해 그 내용이 많이 순화(醇化)되었으며 순조(純祖) 조의 신재효(申在孝)의 노력으로 그 대본의 내용이 문학적으로 쇄신되어 예술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이것이 순조, 헌종, 철종 어간의 송흥록(宋興祿), 염계달(廉季達), 모흥갑(牟興甲) 등의 명창들 덕분에 예술적 가치가 높아져서 천시 당하던 광대의 판소리가 마침내 조선의 대표적인 가악[歌樂, 창극]으로 발전되었다.

5. 근 · 현대의 연극

1) 근 · 현대 연극의 형성

조선왕조 후기에 이르러 우리의 연희는 공의(公儀)로서의 산대희가 사라지게 되자 점차 민속극으로서 각 지방에 정착되어 갔다. 즉 반농반예(半農半藝)의 연희자들에 의해 산대도감 계통극인 각 지방의 가면극이 연희되는 한편 '굿중패', '남사당' 이라 불리던 직업적인 연예인들이 농어촌을 돌며 꼭두각시놀음 등의 각종 놀이로 서민 오락을 주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신연극을 공연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엽이었다. 즉 1902년 12월 4일자 황성신문에 광고까지 게재하고 협률사(協律社)에서 막이 오른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戱)' 가 그것이다. 협률사는 정부기구인 궁내부(宮內部) 소관의 최신식 공연무대를 갖춘 극장이었다. 그 후 원각사에서 공연된 이인직의 '은세계', '수궁가' 등도 그랬지만 공연된 작품들은 여전히 광대들의 판소리와 기생들의 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래의 연희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이후로 신극운동은 도쿄(東京) 유학파인 윤백남, 이기세, 이광수(춘원), 박승희, 이서구, 함대훈, 유치진, 이해랑, 김동원… 등이 극단을 조직하고 연출을 담당하였으며 극본(창작 또는 번역)을 쓰거나 연기에 종사함으로써 서울과 지방 공연을 활발하게 이끌어갔다. 그러다가 1940년 전후에 이르러 중일(中日)전쟁과 제2

차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더욱 포악해진 일본의 야만적인 정책으로 연극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활동을 통제받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2) 해방 후의 연극 활동

해방 직후의 연극계는 일제강점기의 오랜 악몽에서 미처 깨어나기도 전에 좌우 투쟁이란 비극적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리게 된다. 좌익세력인 박영호, 박춘명, 김일영, 심영 등 극렬분자들이 조선연극동맹 산하에 인민극장, 혁명극장, 조선예술극장 등을 결성하여 좌익운동과 신탁통치 지지운동에 참가하고 나섰다.

한편 유치진, 함대훈, 김광섭 등 우익진영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강압으로 해산되었던 극예술연구회를 재건하여 해방기념 공연을 가졌으며 반탁운동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이런 혼란 속에 한국전쟁이 발생했으며 전쟁 중에도 신협(신극협의회)이 구심점이 되어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유치진 작 「원술랑」, 「별」과 오영진 작 「맹진사댁 경사」 등을 꾸준히 공연하였다. 이 무렵 악극단, 창극단과 같은 상업극단이 조직되어 신파적인 눈물로 서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기도 했다.

서울 수복 후에는 대구에 있던 국립극장을 서울 명동의 시공관으로 옮기고 1962년에는 드라마센터가 생기는 등으로 연극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 한국 연극의 뿌리는 고대 제천의식에서 출발해 신라 향악에 그 뿌리를 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발간된 경주관련 기록서에 연극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다.

(1) 「학병수첩(學兵手帖)」

경주에 본격적인 연극이 시작되기 전인 1946년에 경주연극의 미래를 밝혀 주는 행사가 한 차례 있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경주극장에서 「학병수첩」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이 공연된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최현석(崔鉉錫) 극본에 최현석, 이원달(李源達), 이상대(李相大), 손승목(孫承睦), 이용문(李龍文), 정성조(鄭聖朝), 박영수(朴永壽), 홍영기(洪永基) 외에 경주여자중 · 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주실과여학교 학생 두 명이 여자역을 담당한 2막 3장의 90분짜리 연극이었다.

나흘 동안 공연되어 극장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장내는 뜨거운 감동의 도가니였으며, 의미있는 문화행사로 평가받았다.

줄거리는 일제병영(日帝兵營)의 잔혹상, 한국인 출신 병사들에 대한 차별, 한국인 학도병들의 갈등 등을 표현함으로써 일제의 야만성과 마침내 되찾게 된 조국 해방의 환희가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연극에 종사한 분들이 지금은 80세가 넘었지만, 이때 활동한 홍영기는 1950년대에 경주연극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다.

(2) 서라벌극우회와 에밀레극단

대학이 없던 시절 경주의 모든 문화 활동이나 행사는 중 · 고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주도해왔다. 캠퍼스 밖에서 생활하는 몇 몇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받긴 했지만, 신라문화제 행사기간 중의 가장행렬이나 백일장같은 핵심적인 이벤트 등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고등학교의 아마추어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연극의 막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연출 겸 무대장치, 조명, 효과 등을 당시 국어교사였던 홍영기가 맡은 유치진 극본의 「별」이 사흘 주야로 경주극장에서 상연되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구름같이 밀려들어서 극장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주인공인 도령과 별아기의 역을 맡은 학생은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다.

1944년 경주중학교 5년을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영문과를 나와 모교 국어교사를 담당하던 홍영기는 이후에도 해마다 소질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연극 연출을 했다. 「별」 외에도 「자명고」, 「마의태자」 등을 경주극장의 무대에 올렸다. 따라서 그는 경주 연극의 원조요 그의 제자인 황동근, 김태무, 이용근, 권혁인, 조해수, 이수일, 최태광 등이 제2세대로서 경주 연극의 맥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1956년에 황동근, 권혁인, 조해수 등을 주축으로 서라벌극우회를 결성했으며 「원효대사」, 「수양대군」, 「토막」 등을 황동근이, 「별」을 권혁인이 각각 연출하여 무대에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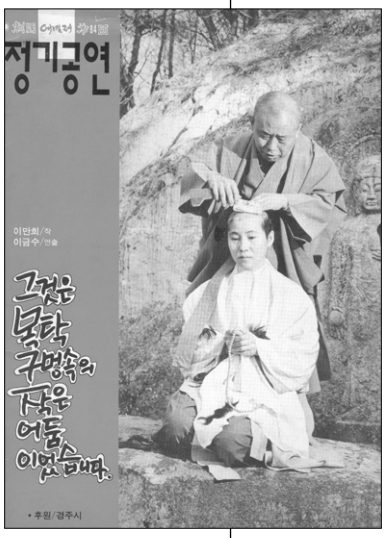
그러다 1957년 9월에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연기생활을 하던 이수일이 낙향하여 서라벌극우회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결집되어 서라벌극우회를 에밀레극단으로 개칭 · 발족시켰다.

1950년대 당시는 서울의 국립극단 소속인 신협을 제외하고는 연극단체가 전국 어디에도 없던 때라 경주와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 발족된 에밀레극단의 존재는 전국적인 각광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창립된 에밀레극단은 1987

년에 경주시립극단이 창단될 때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약 2회 정도로 모두 50여 편의 작품을 공연하였다. 이 중에서 이수일이 유치진 작 「마의태자」 외 31편, 황동근이 8편, 기타 아마추어 연출자들이 10여 편의 작품을 경주극장, 서라벌문화회관 등의 무대에 올렸다.

(3) 경주시립극단(慶州市立劇團)

30여 년 간 경주에서 연극을 이끌어 온 에밀레극단의 발자취는 그야말로 형극의 길이었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던 황동근이 부산으로 떠나버리자 이수일 혼자서 극단의 살림을 꾸려가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본래 그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것이 연극을 시작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경주연극 발전에만 매달렸다.



다행히도 1987년 여름에 정 · 관계와 문화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숙원이던 경주시립극단이 창단됨으로써 에밀레극단 단원들 대부분이 지방연극 단체로는 처음으로 유급 단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고, 동시에 작품 제작에 있어서도 시(市)재정의 보조를 받게 되어 연극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시립극단 창립을 계기로 그 편제가 일반극단과는 좀 달라졌다. 단장은 기획문화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고 직전 단장이던 이수일과 현재의 이금수는 상임연출자로서 연기 지도만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의 단원은 40년 근속의 이애자를 포함한 10여 명의 상임단원 외에 7~8명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상임단원이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다. 또한, 객석 2백여의 전용 공연장까지 확보하고 매년 4회씩의 정기공연을 하는 한편 수시로 유익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또 2004년부터는 안압지에 설치된 야외 공연장에서 매월 1회 정도 야간 공연에 참가하고 있기도 하다.

수상경력은 1986년 5월에 대구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4회 전국연극제에 경북 대표로 「무녀도」를 공연하고 단체 우수상을 받았고 1990년의 제8회 전국연극제에서는 「바다와 아침등불」로 출전하여 무대미술상과 최우수 여우주연상(이애자)을 차지했으며, 2002년의 전국연극제에서는 「아비」의 공연으로 단체 최우수상과 여우 주연상(이애자)을 수상하였다.

시립극단 제2대 상임 연출가인 이금수는 호남출신의 명감독으로서 중앙대학 연극영화과에서 본격적인 연극 수업을 받았다. 현재 한국 연극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차범석 극단에서 다년 간 활동하면서 아동연극을 지도하기도 했는데, 1986년에 경주에 정착하여 20여년 간 오로지 경주 연극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 연출한 작품이 30여 편을 넘는다.

4) 극단 연보(年譜)

⑴ 에밀레 극단 연보(年譜)

〈표 6-2-14〉

회수	작 품 명	연 출	기 간
1	마의태자	이수일	1957. 7
2	흘러간 성군	〃	1958. 2
3	산적	〃	1958. 9
4	원효대사	〃	1959. 10
5	자명고	〃	1962. 5
6	원술랑	〃	1963. 5
7	별	권혁인	1964. 4
8	원효대사	황동근	1964. 10
9	수양대군	〃	1965. 4
10	토막	황동근	1965. 10
11	이열치열	이수일	1966. 4
12	자명고	권혁인	1967. 4
13	원술랑	황동근	1967. 5
14	왜 싸워	〃	1967. 10
15	이차돈	〃	1968. 5
16	별	〃	1968. 10
17	마의태자	이수일	1969. 4
18	사육신	이수일	1969. 10
19	토막	〃	1970. 5
20	원효대사	〃	1970. 10
21	복날	〃	1971. 5
22	고래	〃	1971. 10
23	석학	〃	1972. 10
24	설경	황동근	1973. 10
25	맹진사댁 경사	이수일	1974. 10



회수	작 품 명	연 출	기 간
26	이열치열	이수일	1975. 10
27	배비장전	박수동	1976. 10
28	화랑 관창	신하균	1976. 10
29	아버지 연설	이수일	1977. 10
30	무영탑	이수일	1975. 10
31	출발	이성환	1979. 11
32	고래	이수일	1980. 11
33	청혼	임석구	1981. 4
34	아버지의 연설 · 청혼	이수일, 임석구	1981. 6
35	마의태자	이수일	1981. 10
36	복날	〃	1981. 11
37	토끼와 포수	〃	1982. 6
38	유산	〃	1982. 11
39	이혼파티	김기영	1983. 6
40	만선	이수일	1983. 10
41	굿장이	〃	1983. 12
42	용감한 사형수	김창현	1984. 2
43	신의 원죄	이수일	1984. 6
44	고래	〃	1984. 11
45	무녀도	〃	1985. 10
46	무녀도	〃	1986. 5
47	무녀도	〃	1986. 5
48	인생유전	〃	1986. 9
49	연약한 침입자	이금수	1986. 10
50	연약한 침입자	이금수	1986. 12

⑵ 시립극단 연보(年譜)

〈표 6-2-15〉

회수	작 품 명	연 출	기 간
1	어이하여 나로 하여금	이수일	87. 4
2	〃 (시립극단 창단공연)	〃	87. 5
3	혹부리 영감	이금수	87. 7
4	위기의 여자	이수일	87. 10
5	슈퍼마켓 소동	〃	88. 2
6	말괄량이 길들이기	문호근	88. 3
7	상방	이금수	88. 4

회수	작 품 명	연 출	기 간
8	배비장전	이수일	88. 5
9	탑	〃	88. 9
10	탑	〃	88. 10
11	대역인간	이수형	88. 10
12	방자놀이	이금수	88. 12
13	시위즈벤지는 죽었다	이수일	89. 5
14	혹부리 영감	이금수	89. 9
15	방황하는 별들	이수일	89. 12
16	바다와 아침등불	〃	90. 4
17	바다와 아침등불	〃	90. 5
18	다시라기	이금수	90. 9
19	다시라기	〃	90. 10
20	보잉 보잉 보잉	이수일	90. 12
21	봄날	〃	91. 4
22	대학은 왜가	이금수	91. 6
23	장선생 가출기	이수일	91. 10
24	장선생 가출기	〃	91. 11
25	목탁구멍	이금수	91. 12
26	춤추는 꿀벌	이수일	92. 3
27	춤추는 꿀벌(전국 연극제 : 제주)	이수일	92. 5
28	방자뎐	이금수	92. 10
29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이수일	92. 12
30	봄날	이금수	93. 3
31	구름가고 푸른 하늘	이수일	93. 8
32	구름가고 푸른 하늘	〃	93. 8
33	〃(전국 연극제: 대전)	〃	93. 8
34	그것은 목탁구멍…	이금수	93. 10
35	비몽사몽	이수일	94. 4
36	'94 신방자전	이금수	94.10
37	컴퓨터 결혼	권오성	94. 12
38	카덴자	이금수	95. 3
39	우연한 밤의 동반자	이수일	95. 6
40	요정의 숲	이금수	95. 7
41	번지 없는 주막	이금수	95. 9
42	안내놔? 못내놔?	〃	96. 3
43	번지 없는 주막	〃	96. 4
44	위기의 여자	〃	96. 6
45	방황하는 별들	〃	96. 7
46	다시라기	〃	96. 10
47	화랑 사다함	〃	96. 12

회수	작 품 명	연 출	기 간
48	다시라기	이금수	96. 12
49	봄날	〃	97. 3
50	번지 없는 주막	〃	97. 6
51	그것은 목탁구멍…	〃	97. 10
52	오늘 우리의 작은 영웅	〃	97. 12
53	언니집	〃	98. 3
54	언니집	〃	98. 6
55	저승굿	〃	98. 9
56	대학은 왜 가?	〃	98. 11
57	김치국씨 환장하다	이금수	99. 3
58	어느 아버지의 죽음	〃	99. 10
59	시집 가는 날	〃	99. 10
60	시집 가는 날	〃	99. 11
61	천년의 바람	〃	2000. 4
62	번지 없는 주막	〃	2000. 5
63	그것은 목탁구멍…	〃	2000. 7
64	다시라기	〃	2000. 9
65	넌센스	〃	2000. 11

5) 연극협회 역대 지부장

〈표 6-2-16〉 연극협회 역대 지부장 명단

대/차례	지부장	재임 연대
초대	이용근	1968.10
2대	이수일	1976.10
3대	〃	1985.10
4대	〃	1987.10
5대	이애자	1995. 10~현재

제5절 예술단체

1.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문총) 경주지부

1945년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보다 앞서 국제적 이데올로기에 휘말려 사회 · 정치적 대혼란기를 맞게 된다. 연이어 한국전쟁을 겪게 되는 과정을 거쳐 4 · 19혁명과 5 · 16군사 쿠데타가 현대사를 형성하는 고비가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단체의 조직은 정치 분위기에 따라 여러 형태의 변모를 가지면서 탄생하였다.

위의 시대적 배경에 편승하여 한국전쟁이 정전된 1950년대 중반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문총)가 수도 서울에 간판을 걸게 되었고, 각 지방 문화예술인들도 이어 각 지부를 결성하여 중앙에 인준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954년 4월 17일에는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문총) 경주지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초대지부장에 이상구(李相龜) 변호사, 부지부장에 김준식(金埈植) 화백이 선출되어 경주의 최초 문화단체가 창립된 것이다.

이 문총은 그 후 경주의 문화적 정신함양과 새로운 방향모색에 기여하면서 1958년 11월 17일 총회에서 제2대 지부장에 김준식을 선출하였다. 문총을 이어받은 김준식은 서양화가로 일본예술학교에서 수학하고 해방 후 고향에 머물며 작품에 몰두하던 사람이었다.

〈표 6-2-17〉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경주지부 역대지부장

대/차례	지부장	재임 연대
초대	이상구(李相龜)	1954. 4. 17
2대	김준식(金埈植)	1958. 11. 17

2.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예총) 경주지부

근대사의 시대적 변화는 정치 ·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문화단체도 예외가 아니었다. 1960년대 초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기존의 많은 단체가 해체 또는 재결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거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문총)는 막을 내리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예총)란 이름으로 예술인의 모임이 집결되었다. 이 또한 수도 중심이었고 각 지부의 결성은 그 지방의 분야별로 중앙 인준을 거친 예술단체가 세 개 이상 결합을 해야 예총지부를 인준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경주는 1964년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등의 기존결성 인준을 받은 예술단체의 조항 요건을 얻어내어, 그해 9월 17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예총) 경주지부가 새 이름으로 탄생하였다.

초대 지부장에 서양화가 손일봉(孫一峰)이 선출되었고, 임원으로는 국악의 조인좌(趙仁佐), 문학의 성학원(成學園), 미술의 최현태(崔賢泰)가 선임되었다.

1960년대 초, 국가재건최고회의 시대에 막을 연 제1회 신라문화제 행사는 경상

북도가 가담하면서 주관처인 경주에 예총이 창설되지 않았다하여 경북예총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신라문화제의 모든 행사에 대한 주관을 대구의 예술인 중심으로 집행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겪은 후 마침내 예총 경주지부가 인준을 받게 되자 일체의 행사주관을 경주에서 맡아 하게 되었다. 당시의 임원임기는 1년으로 되어 1966년까지 2, 3대의 지부장과 임원진은 그대로 연임되면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혼신을 다하였다.

1967년 8월 20일 정기 총회에서 전 임원단은 물러나고 새 집행부로 개선되었는데, 제4대 지부장에 동양화가 박봉수(朴奉洙)가 선출되고 임원은 문협의 성학원에서 홍영기(洪永基)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임기만료가 되어 1968년 3월 16일 총회에서는 박봉수 지부장과 임원 중 홍영기(문학)는 유임되고 김동헌(국악)이 새로 선임되었다.

1969년 4월 3일 정기 총회에서는 제6대 지부장과 부지부장 등 임원진 교체가 있었는데, 새 지부장에는 1958년 문총지부장을 맡은 바 있는 서양화가 김준식(金埈植)이 취임하게 되었고 임원으로 화가 최기석(崔璣錫)이 가담하였다. 이들이 2년 동안 맡아 예총 활성화에 노력을 거듭한 후, 1971년 4월 17일 새 집행부로 넘겨 주었다.

제7대 지부장에 경주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문학인으로 예총 발전에 기여해온 홍영기(洪永基)가 선출되었고 국악에 조인좌(趙仁佐), 미술에 박재호(朴在浩)와 문학에 이근식(李根植) 등의 임원이 구성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맡아 활동하던 이 임원진은 임기만료되어 새로운 체재로 바뀌었다.

1973년 6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제8대 지부장으로 서양화가 박재호(朴在浩)가 선출되었고, 그는 취임 직후부터 의욕과 활기로써 많은 행사를 주도한 공적을 남겼다.

예총의 활동으로 1962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제1회 예총종합예술제를 들 수 있다. 이 행사는 2003년까지 31회를 이어오면서 각 예술단체의 발표회로서 해마다 성황리에 거행되고 있다.

아울러 옛 신라의 예술선사 추모제를 거행하였는데 충담(1975), 솔거(1976), 백결(1978), 양지(1979), 김생(1980), 월명(1981), 박한미(1982) 등 문화선사에 대한 분향은 예총종합예술제의 폐막으로 올려졌다. 신라인의 예복차림으로 제물을 정성껏 차려 놓고 경주 예술인은 하나같이 제관이 되어 제를 지냈다. 그것이 오늘날 신라문화제 폐막 행사인 '새벌 향연의 밤' 행사로 신라문화동인회의가 주관하고 있다.

박재호는 해마다 전국 규모로 베풀어지는 신라문화제의 주관을 1975년 제13회부터 예총사무실에 문화제 본부를 두고 기획에서 집행까지 예술인의 손으로 이루

어 내었다. 박재호 지부장의 활발한 활동을 같이한 임원들은 김경곤(국악), 김태중(미술), 이근식(문학), 정민호(문학), 이종룡(문학), 서영수(문학) 등이었다.

1982년 1월 29일 박재호 지부장의 사임으로 남은 잔여 기간 동년 7월까지 6개월간을 맡을 후임을 선출하는 임시 총회가 열렸는데, 12대 지부장으로 조인좌(본명 : 조경규)가 뽑혔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1982년 7월 24일 총회가 열려 제13대 지부장에 조경규가 선출되었고, 임원으로 권혁규(權赫奎), 김태중(金泰中)이 선임되었다.

조경규(趙慶奎) 지부장은 당시 고령의 나이로 경주예총의 위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비를 들여 운영하면서 활성화에 애썼다. 그러다가 1984년 12월 18일 한국예총 경상북도 지회로 승격인준을 받았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구와 경북이 분리됨에 따라 한동안 경북예총이 공백 상태에 있었음으로 예총 경주지부가 잠정적으로 승격하여 예총경북지회의 역할을 겸하였던 것이다.

다른 산하 단체(문협 · 미협 · 사협 · 국협)가 같은 맥락에서 모두 도지회로 승격되고 있었다. 명분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예술인의 수준이 높고 양이 많고 지부 결성의 시기가 빠르므로 도청 소재지가 나타날 때까지 경주의 예술단체가 도 단위 역할을 해야 하는 잠정적 조치였던 것이다.

1985년 2월 23일의 정기총회에서 14대 지부장에 조경규는 유임했고, 임원으로 설성희(薛盛羲), 신윤원(申允源), 이수일(李秀一)이 새로 선출되었다.

1988년 2월 12일 정기총회가 열려 제15대 지부장에 이근식(李根植)이 선출되어 경북도지회장이 되었다. 다시 구성된 임원으로는 장순애(張順愛), 김인식(金仁植), 김의진(金義鎭), 최복은(崔福殷) 등이었다. 그 후 16대 지부장은 유임이었으나, 이근덕(李根德)과 김차선(金次先)이 새 임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 2월 이근식 지회장은 경상북도 각 시군별 예총의 대의원을 구성하여 합법적 체제의 경북 지회장을 선출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4년부터 10년 동안 잠정적 예총 경북도지회가 되었던 경주예총은 다시 예총 경주지회로 복귀하였다.

1994년 3월 5일 경주예술인을 소집하여 예총 경주지부로 명칭 변화에 따른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 18대 지부장에 문협소속의 정민호(鄭旼浩)가 선출되고 이재건(미술), 김진성(음악), 조관제(문학)가 임원으로 오해진(미술), 김종식(음악)이 감사로 뽑혀 경주지부의 새 복귀 체제가 시작되었다. 20회를 넘어선 예총종합예술제를 알차게 다지면서 1998년 3월 정기 총회에서 정민호를 19대 지부장으로 유임하고 김의진과 노종래를 새 임원진에 영입하고, 권혁규(사협)와 이금수(연협)를 감사로 선출하였다.

1999년에는 제26회 종합예술제에 이어 신라예술선사추모제 및 창작예술발표회를 개최했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신라문화유적예술작품전시 및 도록을 2000년에 발간하고 2001년에는 예총창립 37주년 기념 예술인대회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002년 3월 8일 정기총회에서 제 20대 지부장에 사진작가 김인식(金仁植)이 선출되어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임원으로는 서영수(徐英洙)가 새로 영입되었고, 그외에는 모두 유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 집행부를 규합한 김인식 지부장은 각 산하 협회의 활성화와 회원간의 단합을 위하여 '예술인의 밤'을 개최하였고, 대외적으로 중국 시안[西安]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03년, 2004년 2차에 걸쳐 상호작품 교류전을 열고 서로 왕래하며 친선을 다졌다.

예총기관지 『경주예술』은 2004년 현재 10호를 출판했다.

〈표 6-2-18〉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주지부 역대 지부장

대	지부장	재임 연대
초대	손일봉(미술)	1964. 9. 17
2대	〃	
3대	〃	
4대	박봉수(미술)	1967. 8. 20
5대	〃	1968. 3. 15
6대	김준식(미술)	1969. 4. 3
7대	홍영기(문학)	1971. 4. 17
8대	박재호(미술)	1973. 6. 16
9대	〃	1975. 7. 11
10대	〃	1977.
11대	〃	1979. 4
12대	조인좌(국악)	1982. 1. 29
13대	〃	1982. 7. 24
14대	〃	1985. 2. 23
15대	이근식(문학)	1988. 2. 12
16대	〃	1990. 2
17대	〃	1993. 3. 13
18대	정민호(문학)	1994. 3. 5
19대	〃	1998. 3
20대	김인식(사진)	2002. 3. 8

제7편 교육 및 언론·출판





제1장 교육과 학문
제2장 언론 및 출판

제1장 교육과 학문

제1절 신라의 교육과 학문의 발달

1. 교육의 발달

1) 교육 목표의 설정

신라는 다른 나라보다 교육이 앞서 있었고, 그것이 국가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국가의 공교육은 물론이고, '화랑(花郎)' 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피교육층(被敎育層)을 넓혔고, 교육받은 백성들의 수를 많이 늘리는데, 어느 나라 보다도 힘을 더 많이 기울였다.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는 비록 늦었지만, 내 것을 다지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확충시켜 교육의 성과를 가장 많이 올렸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이다. 한 나라에서 국정의 지표 또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근대에 와서 이루어진 통치 방식의 하나이며 이는 정치의 상위 개념에 속한다. 신라가 15대 기림왕(基臨王) 10년(307)에 이미 '덕업일신(德業日新) 사방망라(四方網羅)' 라는 국정 지표(國政指標)를 제시하고, 나라 이름까지도 그 마지막 자를 따서 신라(新羅)라 하였다는 것, 그리고 지증왕(智證王) 4년(503)에는 이것을 다시 확인하여 널리 알리게 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교육의 목표도 당연히 그것이 되었다. 즉, 신라 교육의 목표는 '덕업일신(德業日新)' 이었다.

신라가 교육의 목표를 덕업의 일신에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일이며, 고구려와 백제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감안할 때, 실로 놀라운 일이며,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함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덕업(德業)' 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도덕(道德)' 보다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인 질서, 윤리, 도덕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화백(和白)' 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의결 기구가 대두된 이면에는 덕업을 정치 실현의 지상 목표로 세운 사상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신라에서 윤리, 도덕의 구체적인 덕목은 '충(忠)', '효(孝)', '신(信)' 이

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것은 윤리의 상위 개념에 '충'을 두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효'와 '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었다.

이 점이 효를 모든 윤리의 벼리에 두는 유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했던 조선조의 덕업체계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충의 개념도 달랐다. 즉, 충은 나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왕(王)'이라는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관창이 죽어서 돌아왔을 때 그의 부친(父親), 품일(品日)은 비로소 효를 다했다고 칭송했으며 반굴(盤屈)과 흠춘(欽春)에 있어서나, 김유신(金庾信)과 원술(元述)에 있어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윤리 체계는 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었다. 25대 진지왕(眞智王)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었으므로 국인(國人)들이 폐위시켰으며 문무왕(文武王)은 지존의 몸으로 바다의 용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신라는 이러한 교육 목표를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으려고 한 것이다.

2) 화랑도를 통한 교육

화랑도(花郎徒)는 신라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청소년 집단이었다. 오늘날의 한국청소년연맹은 바로 이 화랑도를 본받아서 조직된 청소년 단체인데 화랑도는 신라로 하여금 통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씨족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씨족 사회에 봉사하고 때로는 제사장(祭祀長)의 보조도 하는 집단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씨족 사회의 붕괴에 따라 그 집단도 어느 새 소멸되었다.

화랑도도 처음에는 이러한 집단이었으나, 씨족 사회가 없어지고 부족 국가가 되고 전체적인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그 집단이 새로운 조직과 이념으로 재생되고 그 활동이 활성화된 것이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적게는 수백, 많은 것은 2천에서 3천에 이르는 무리들이 한 조직체를 구성하였으며, 그 집단의 영도자가 처음에는 여자였으나 후에 남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그 원류가 모계 사회로부터 뿌리를 이어왔다는 증거이며, 또한 화랑의 '원류(原流)'라는 뜻인 원화(源花)라고 불렀다.

이렇게 화랑의 기원은 오래된 것이나, 『삼국사기』에 진흥왕 말년인 37년(576)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편년체의 기술상의 방법으로 연대가 불분명한 것을 말년에 실었을 뿐이다. 그것은 같은 『삼국사기』에서 화랑 사다함(斯多含)이 진흥왕 23년(562)에 대가야 정벌에 큰 공을 세웠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而秀良將勇幸由是而生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教之源備詳仙史實
乃包含三教接化羣生且如入則孝於家出則
忠於國魯司寇之旨也處無為之事行不言之
教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諸善奉行竺乾太
子之化也唐令狐澄新羅國記曰擇貴人子弟
之美者傅粉粧飾之名曰花郎國人皆尊事之
也安弘法師入隋求法與胡僧毗摩羅等二僧
迴上稜伽勝鬘經及佛舍利秋八月王薨謚曰
真興葬于哀公寺北峰玉幼年即位一心奉佛

『삼국사기』 난랑비서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화랑의 전신은 원화(源花)로 아름다운 두 여자를 뽑아 단체의 지도자로 하였는데,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이었다. 그들은 무리를 3백여 명이나 모았는데 차츰 세를 다투고 질투하여 드디어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죽이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집단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됨을 관찰하여 인재를 가려 등용하려는 것이 이렇게 되니, 준정은 사형에 처해지고 무리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그 후에 이제는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서 재조직하였더니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는데 이것이 화랑이다.

화랑의 존재 의미를 김대문(金大問)은 그의 저서인 『화랑세기(花郎世紀)』에서 말하기를 '어진 재상과 충성스런 신하가 여기서 자라 나오고 뛰어난 장수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인하여 생겨났다' 했으니, 교육적인 차원에서 화랑이 갖는 위치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여기에 이어 다시 최치원의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을 인용하여 화랑들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이를 풍류라고 하는데, 이 교를 설치한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 교는 삼교(三敎)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민중과 접촉하여 이를 교화하였다[國有玄妙之道曰 風流設敎之源 備詳仙史實 乃包含三敎接化群生]"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삼교라 한 것은 유교(儒敎)와 불교(佛敎) 그리고 도교(道敎)를 말한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간결한 화랑들의 교육 방법과 교과 내용을 전하여 주고 있다. 즉, "서로 도의로써 연마하며, 서로 가락으로써 즐기며, 산수를 찾아 유람하면서 먼 곳이라 해서 가지 않는 곳이 없다[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無遠不至]"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다시 말하면 교과목의 첫째는 도의 교육(道義敎育)이고, 둘째는 정서 교육(情緖敎育)이며, 셋째는 국토 순례(國土巡禮)이다.

첫째의 도의 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에서 교육의 최우선 과제였다. 세속오계(世俗五戒)는 그것이 화랑에게 준 교훈인 까닭에 화랑오계(花郎五戒)라고도 하지만 모두가 도덕의 덕목이며 무술의 연마와 같은 말은 한마디도 없다. 즉, 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써 다하라[事君以忠], 부모를 섬김에는 효도로써 하고[事親以孝], 벗을 사귐에는 신의로써 하고[交友以信], 싸움터에서도 물러남이 없

게 하고[臨戰無退], 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으라[殺生有擇]고 했으니, 충이 으뜸이고 효와 신, 그리고 용기와 자비였다.

둘째, 교과목인 정서 교육에서 가악(歌樂)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교과목으로 택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삼국유사』에 월명사(月明師)의 「도솔가」편에 월명사가 경덕왕께 자신을 변명해서 말하기를 "신승(臣僧)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하여 다만 향가(鄕歌)만 알 뿐이지 불경(佛經)은 익숙하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승려이면서도 화랑인 까닭에 불경보다 향가에 익숙했다고 하니, 화랑과 향가의 깊은 관계를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융천사(融天師)의 「혜성가(彗星歌)」 등 화랑과 향가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해 주는 예는 많이 있다. 통일 후의 태평 세월은 화랑들의 정서 교육의 한 방법으로 쓰인 가락이 주업처럼 되어 풍류도를 화랑으로 칭하게 되었다.

끝으로 국토 순례를 삼대 교육과목의 하나로 택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내 조국에 대한 사랑은 내 국토를 직접 밟아봄으로써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동시에 신체의 단련도 이루어지니 심신을 함께 기르는 좋은 교육 방법으로 현대의 우리들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집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었다. '상마이(相磨而…)', '상열이(相悅而…)'에서 '상(相)' 자는 집단 교육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 우정을 다지고 신의를 기르며 나와 너를 통해서 '우리'를 알고, 우리의 확대가 '나라'임을 알게 하였다. 이러한 집단 교육을 통해서 신라의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보다 빨리 국가를 자각할 수 있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만이 '국사(國史)'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편찬한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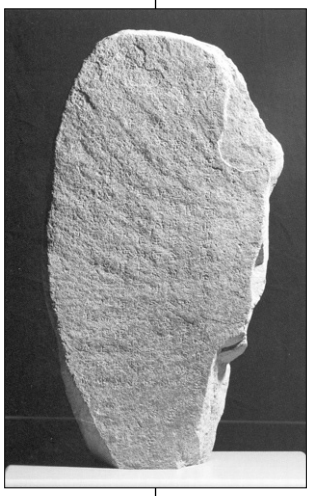

임신서기석 탁본

화랑들의 수도(修道)의 목적과 교육의 내용을 말해주는 사료(史料)로써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을 들 수 있다.

지금 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은 각석(刻石)은 일제 시 금장(金丈)의 '예기청소' 가에서 발견한 것인데,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서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충도를 집지하고 과실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에 이 일을 위반하면 하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서한다. 만약에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면 가히 실행할 것을 맹서한다. 또 따로 지난 신미년 7월 12일에 크게 맹서하여 시(詩), 상서(尙書), 예기(禮記), 춘추좌전(春秋左傳)을 차례로 습득할 것을 3년으로 맹서한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전년 신미년에는 유교의 경전은 3년을 기약해서 습득할 것을 서약하였고, 다음해인 임신년에는 그 경전의 내용을 3년을 두고 실천해서 어김없기를 서약하고, 끝으로 만약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배우고 닦은 모두를 바쳐 실천할 것을 서약한 것이니,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데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서약의 대상은 '하늘[天]'이었으니, 하늘은 곧 내 양심이요, 그들은 양심의 서약을 하였던 것이다. 서약자 두 사람은 이름도 없고 연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수학(修學)에 정진할 것을 충성으로 맹서하는 화랑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 이러한 젊은이의 기풍으로 보아 통일에의 의지를 불태우던 통일 전의 어느 임신년을 추정할 수 있다.

서기석과 유사한 서약을 적은 비석으로 유명한 것에 경주 남산의 신성지에서 출토된 남산 신성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서약의 기간이 3년이다. 이 3년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고 당대의 사회의 통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비의 건비 년대(建碑年代)인 진평왕(眞平王) 13년(591)은 서기석의 임신년을 결정하는 한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평왕(眞平王) 34년(612)의 임신년이 되며, 당대의 사회 풍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인다.


남산 신성비(1비)

그러나 문제는 연대가 아니다. 젊은이들의 마음가짐이다. 초기 화랑들의 이러한 기풍은 태평연월의 세월 속에서 퇴색되어 갔다. 하대 화랑의 대표로서 사서(史書)에 이름이 오른 응렴(膺廉)의 말에서 화랑 정신의 변질을 볼 수 있다.

제47대 헌강왕(憲康王) 4년(890) 9월에 임해전(臨海殿)에서 큰 잔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왕은 국토 순례에서 돌아온 15세 되는 왕족 응렴에게, "너는 화랑으로서 국토를 순례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이 물음에 화랑 응렴은 배울 만한 것으로 3가지를 열거하였는데 그 하나는 큰 가문의 자제이면서도 남의 밑에 처하는 '겸손함'이고, 또 하나는 '부유하면서도 항상 마저(麻苧)에 만족하는 검소함'이며, 끝으로 하나는 '세도가(勢道家)이면서 권력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라 하였다.

이 세 가지의 미덕을 깨달은 것에 감격한 왕은 응렴을 사위로 삼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48대 왕위에 오르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경문왕(景文王)이다. 왕의 사위가 되고 왕위까지 얻을 만큼 감격적인 미덕인 세 가지 덕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적 차원의 덕목에 불과하였다. 통일 전후에서 화랑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충성같은 것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러한 화

랑 정신 즉 시대 정신의 변질들이 신라의 국운을 결정하였던 것이아니었을까.

2. 국학과 학문의 발달

1) 국학(國學)의 성립과 기능의 확대

화랑은 사회 단체이지 바로 국가의 공교육 기관은 아니었다. 나라의 공교육 기관인 국학은 그 성립 연대가 명확하지 않다. 진덕왕(眞德王) 5년(651)에 이미 대사 이명(大舍二名)을 두었다고 했으니, 규모와 명칭이 어떠했든 간에 국립의 학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삼국사기』에 국학의 설치 시기를 신문왕 2년(682)이라고 한 것은 일찍부터 있었던 국립 교육기관을 국학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고 정비한 것을 말한 것이며, 경덕왕 때에 대학감(大學監)이라고 고쳤다가 혜공왕(惠恭王) 때에 다시 국학(國學)이라고 되돌렸다.

신라의 국학 설립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김춘추(金春秋)였다. 그는 진덕여왕(眞德女王) 2년(648)에 아들 문왕(文汪)과 함께 당(唐)에 갔을 때 당태종(唐太宗)에게 간청하여 당의 국학을 견학한 바 있었다. 이러한 김춘추의 국학에 대한 관심이 귀국 후 국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신문왕(神文王) 2년에 국학으로 정비되었고, 그 후 차차 그 면모를 다듬어서 성덕왕 16년(717)에는 당에서 공자(孔子), 십철(十哲), 칠십이제자(七十二弟子)의 화상을 모셔 와서 대학에 비치하였다.

국학의 교육 과정은 전공 과목(專攻科目), 공통 필수 과목(共通必須科目), 수의 과목(隨意科目)으로 되어 있고, 전공 과목은 삼분과별(三分科別)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예기(禮記), 주역(周易), 둘째, 좌전(左傳), 모시과(毛詩科), 세째, 상서(尙書), 문선과(文選科) 등의 3과이며, 수의 과목(隨意科目)은 산학(算學)이었다. 공통 필수 과목은 도의 교과(道義敎科)인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인데 신라의 국정의 지표인 덕업일신의 정신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학에 입학할 때의 품위(品位)는 제 12위인 대사 이하(大舍以下) 또는 품위가 없는 자이며, 졸업할 때는 11위인 나마(奈麻) 또는 제 10위인 대나마(大奈麻)가 된다. 나이는 15세부터 30세까지이며 재학 연한은 9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저히 수학의 가능성이 없으면 퇴학 처분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성에 희망을 걸 수 있으면 9년을 넘어도 재학할 수 있었다.

제36대 원성왕(元聖王) 4년(788)에 국학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라는 일종의

과거제도(科擧制度)를 만들어 인재를 등용하게 하였다. 성적에 따라 상(上), 중(中), 하(下)의 삼품등(三品等)으로 나누어 고사하였던 까닭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라 하고,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라고도 하였다. 삼품(三品)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 상품(上品) : 좌전(左傳), 예기(禮記), 문선(文選) 가운데 하나와 논어(論語), 효경(孝經)에 능통한 자.
○ 중품(中品) : 곡례(曲禮), 논어(論語), 효경(孝經)을 읽는 자.
○ 하품(下品) : 곡례(曲禮), 효경(孝經)을 읽는 자였다.

위의 삼품(三品) 외에 오경[五經 : 역(易), 시(詩), 서(書), 예(禮), 춘추(春秋)]과 삼사[三史 :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제자백가(諸子百家)에 통달한 자는 특별히 우대해서 임용하는 제도도 있었다.

원래 신라에서 인재의 등용은 골품(骨品)에 다라 그 기본이 정해져 있었고, 삼국 말에서 통일 초에는 화랑의 수양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됨을 추천 받아 채용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일 골족(同一骨族)의 수가 늘어가고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 골족 간의 경쟁이 심해져서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와 같은 인재등용 제도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골족 간의 경쟁이 심했던 한 예로, 원성왕 5년 9월에 있었던 인물 등용으로 야기된 한 논쟁을 들 수 있다. 이해 자옥이라는 사람을 양근현[楊根縣 : 지금의 양주(楊州)]의 소수[小守 : 현령(縣令)]에 임명하였다. 집사사(집사부 인사개원) 모초가 반대하여 "자옥은 문적(독서과) 출신이 아니므로 그 직책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왕에게 올렸다. 시중(관장)이 의논해서 건의하기를 "비록 문적 출신이 아니나 당에 유학한 사람이니 불가함이 없다"고 했더니 왕은 이 말에 따랐다(『삼국사기』 성덕왕 4년 9월).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인사(人事)상 특채라는 것은 부정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저자도 이 사건의 뒤에 논평을 가해서 '모초(毛肖)의 일언은 가히 만세의 모범이라' 고 칭찬하고 있다.

신라에서는 기술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특히 고대 국가에서 천문학(天文學)에 대한 연구는 천재지변을 예견하고 천심(天心)을 예지(豫知)하는 치민(治民)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 천문학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는 바가 없으나 천문관측(天文觀測)의 결과인 일식(日蝕)의 기록은 『삼국사

기』에 자주 나와 있다.

흔히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일식(日蝕)의 기록을 중국측 사료에 의거하여 그대로 옮겨 기록했다고도 하고, 신라에서의 독자적인 천문학 연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주장이다. 같은 북반구(北半球)에서 거의 같은 위도 상에 위치하는 이웃 나라인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식의 현상은 거의 같은 시간에 있게 되지만, 다를 수도 있다.

양국의 기록을 추적해 본 현대 천문학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측이 잘못되고, 『삼국사기』의 내용이 옳은 경우도 있다(6대 지마왕 13년, 10대 나해왕 6년 등). 이것은 신라 천문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의 높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천문학과 역학의 연구를 위하여 당(唐)에서 필요한 지식은 수입하기도 하였다. 문무왕 14년(674)에는 덕복(德福)이 당(唐)에서 역학(曆學)을 배워 귀국해서 역법(曆法)을 개정하였고, 32대 효조왕 원년(692) 8월에는 고승 도증(道證)이 당에서 천문도(天文圖)를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천문학과 역학의 활발한 연구의 산 증거로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지금 우리 고장에 남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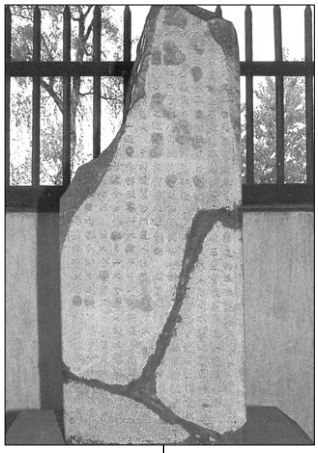
신라에는 의학도 깊이 연구되었고 교육되었다. 의학은 효조왕 원년(693)에 설치되어 『본초경(本草經)』, 『갑을경(甲乙經)』, 『소문경(素問經)』, 『침경(針經)』, 『진경(搢經)』 등을 학생에게 교수하였으며 박사(博士) 2인을 두었다.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18대 실성왕 때 벌써 김파진(金波鎭)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의학을 전했다"라 하고, '『신라법사방(新羅法師方)』'이라는 의서(醫書)가 있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신라의 교육에서 놀라운 하나는 수학의 교육이다. 국학에 수의 과목으로 산학(算學)을 두어 수학 교육에 전념하게 하였고,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의 국학에 대한 기록을 보면 수학에 대한 교과 내용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수학 교육의 결과가 석굴암에 기본 작도와 기하학의 응용으로 이루어지고, 천문대의 건축물이 수천 년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전해올 수 있게 되었다.

2) 학문의 발달과 그 성과

신라에서 언제부터 한문(漢文)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양서(梁書)』「신라전(新羅傳)」에서 '신라에는 문자가 없어서 나무에 금을 그어 표지로 했다.[新羅無文字 刻木爲信]'고 한 것이 어느 때의 상황을 나타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국 가운데서 가장 뒤졌음에는 틀림이 없다.

제17대 나물왕 때 고구려와 왕래가 잦았고, 동왕 26년(381)에는 사신(使臣)을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에게 보냈으니 그 이전에 한문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지증왕대부터는 한문화(漢文化)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되어 '왕(王)'이라는 칭호의 사용, 지명, 인명의 중국식 개명, 중국식의 상복제(喪服制) 도입 등이 있었고, 법흥왕대에는 율령의 공포도 있었으니, 한문의 확대 사용을 짐작할 수 있다.


진흥왕 순수비
(황초령)

진흥왕대는 거칠부(居柒夫) 황종(荒宗)을 시켜 국사(國史)를 편찬하였고[동왕 6년(545)], 법흥왕 23년(536)부터는 중국식의 연호를 사용하여 진덕여왕 4년(650)까지 건원(建元), 개국(開國), 대창(大昌), 홍제(鴻濟), 건복(健福), 인평(仁平), 태화(太和) 등의 연호가 사용되었으니, 자주의식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진흥왕에 의해서 세워진 4개의 순수비(巡狩碑)는 한문 문장력의 진보와 유교(儒敎)의 교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신라 사람들의 강한 자주의식과 창조적인 노력은 한자(漢字)를 사용하되 우리의 어법에 맞추어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향찰(鄕札)' 또는 '이두(吏讀)'식 문장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진덕여왕 이후는 공기관(公機關)인 교육 기관이 세워지고 당(唐)과의 활발한 교류로 한학(漢學)은 더욱 발전되었다.

통일 후에 태평세월이 계속되고 국학(國學)의 정비,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의 등장으로 한학(漢學)은 경쟁적으로 발달해 갔다. 거기에다 통일 이전부터 많은 승려와 학자들이 당(唐)에 유학하여 한학(漢學)을 연구하였으니 학문의 발달은 당연하였고, 훌륭한 학자와 문장가들이 배출되었다.

3) 학자의 배출과 그 활동

통일전의 명문(名文)으로 전하는 것에는 원광법사(圓光法師)가 지은 「걸사표(乞師表 : 고구려 정벌을 청해서 수에 보낸 국서」, 진덕여왕이 법민(法敏)을 당(唐)에 파견할 때[동왕 4년(650)] 보낸 오언(五言)의 「태평송(太平頌)」, 문무왕이 설인귀(薛仁貴)의 편지에 답해서 보낸 글[동왕 11년(671)] 등의 외교 문서가 있다.

그 중 문무왕의 답서는 강수(强首)의 작품이라고 한다. 강수의 출생지는 『삼국사기』 열전(列傳)에서 중원경[中原京 : 지금의 충주] 사량(沙梁) 사람이라고 했으나 태종(太宗)의 물음에 답하는 데는 임나가량(任那加良) 사람이라고 했으니 명백하지 않으며, 부친은 나마석체(奈麻昔諦)였다. 그 부친이 꿈에서 머리에 뿔이나

있는 사람을 보고 그를 낳았는데 이상하게도 뿔 같은 뼈가 있었고 검은 사마귀가 있었다. 그 골상을 본 어떤 현자가 그를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는 자라서 학문에 뛰어나 무열왕(武烈王), 문무왕(文武王), 신문왕(神文王)의 3대에 걸쳐 벼슬하여 문장으로 공헌한 바 컸다.

문무왕이 그를 칭송하여 "선왕께서 당에 청병하여 고구려, 백제를 평정한 것은 무공도 있었으나 강수의 문장의 공도 컸으니 어찌 그 공을 소홀히 할 수 있으랴"라며 사찬(沙飡)을 내리고 세조 200석을 더 주겠다고 한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강수와 함께 통일 초기에 이름을 떨친 학자에 설총(薛聰)이 있다. 설총은 대사 원효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무열왕의 딸 요석공주(瑤石公主)이다. 부전(父傳)의 총명에 각고의 노력, 그리고 당(唐)에의 유학 등을 통해서 학문을 닦아 경사(經史)에 능통했으며 신문왕을 도와 문치(文治)의 세월을 여는데 공이 컸다. 특히 한문의 경서(經書)를 국어(國語)로써 훈독[이두법(吏讀法)]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것은 경서(經書)를 배우는 어려움을 덜어주었고, 유교를 보급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었다.

이러한 공을 감안해서 고려 현종 13년(1022)에는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그 저작으로 『삼국사기』「설총전(薛聰傳)」에 실려 있는 '계화왕(戒花王)' 편은 우언(寓言)을 빌려 왕자의 도리를 일깨운 명편으로 신문왕을 감동시켰다.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통일 초기의 문인으로서는 제문(帝文), 수진(守眞), 양도(良圖), 풍훈(風訓) 등이 있었으나 사적이 자세하지 않다고 하였다.

통일 전성 시대의 성덕왕 때의 대학자로서 김대문이 있다. 그는 한산주[漢山州, 州治는 廣州] 도감(都監)도 지낸 관인 학자로 『계림잡전(鷄林雜傳)』, 『고승전(高僧傳)』, 『화랑세기(花郎世紀)』, 『악본(樂本)』, 『한산기(漢山記)』 등의 저서를 남겼는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까지 전해 왔으나 언제부터인가 없어지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삼국사기』「설총전」 말미).

신라시대에는 많은 학자들이 당에 유학하였다. 국비(國費) 유학생과 사비(私費) 유학생이 있었는데, 국비 유학생은 '숙위학생(宿衛學生)'이라고 하여 정부에서 파견하는 당(唐)과의 연락관(連絡官) 역할을 하면서 학문 연구에 종사하며 당과 신라에 반반 소속되는 신분이었다.

이들 유학생 중에는 외국인을 위한 과거(科擧)인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한 사람이 58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 완전히 당의 관리로 등용된 사람만도 십수 명에 이르렀다. 당에 유학한 이들 가운데 당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은 김운경(金雲卿), 김가기(金可紀), 최치원(崔致遠), 최승우(崔承祐) 등이 있다.

김운경은 문무(文武)에 능통하였고, 당에서 헌덕왕 13년(821)에 빈공과에 급제

하였는데 신라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 20여 년을 당에서 벼슬하다가 책봉사(冊封使)가 되어 귀국했으나 그 후의 기록은 없다. 그는 또한 시(詩)를 잘해서, 그의 시는 당시 일본에서 간행한 『천재가구(千載佳句)』라는 당시집(唐詩集)에 최치원의 시와 함께 실려 있다. 김가기는 문성왕 때 사람으로 역시 빈공과 출신이며, 문장이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당으로 들어간 후로는 신선학(神仙學)에 심취되어 종남산(終南山) 자오곡(子午谷)에서 선인(仙人) 생활을 하다가 그가 예언한 날짜에 승천하였다고 한다.

최치원은 신라시대를 통해 뛰어난 학자의 한 사람으로 사량부(沙梁部) 사람이었다. 헌강왕 원년(857)에 태어나 12세에 당에 유학하여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당에서 벼슬길에 올랐다.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討征軍總司令官] 고변(高駢)의 종사관[從事官 : 秘書官]이 되었는데, 그가 지은 격문이 어찌나 준엄하고 명문이었는지 황제를 칭했던 황소가 그것을 보고 용상에서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뛰어나 중국 천지를 감동시켰다고 한다. 그가 귀국의 뜻을 밝히자 당의 희종은 그를 당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조서(詔書)를 보내어 내직을 내렸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뜻을 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헌강왕 9년(884)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이미 국운이 기울어 그 뜻을 펼 길이 없었다. 태산군[太山郡 : 충남 태인(忠南泰仁)] 태수(太守), 부성군[富城郡 : 忠南 瑞山] 태수로 있었고 시무십조(時務十條)를 올려 난세를 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였다. 하정사(賀正使)로 임명되어 당으로 떠나게 되었으나 난으로 길이 막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는 천하의 대세가 이미 기울어지고 모든 일이 뜻과 멀어진 것을 알고 벼슬을 하직하고 현준(賢俊)과 벗하여 명산대찰(名山大刹)을 찾고 강 · 해변을 소요하면서 신선과 같은 일생을 보냈다.

그의 저작 중 오늘날에 전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서 「사산비문(四山碑文)」이라고 하여 하동(河東) 쌍계사(雙溪寺)의 「진감선사비문(眞鑑禪師碑文)」, 남포[藍浦 : 충남(忠南) 보령(保寧)] 성주사(聖住寺)의 「낭혜화상탑비문(朗慧和尙塔碑文)」, 문경(聞慶) 봉암사(鳳巖寺)의 「지증대사탑비문(智證大師塔碑文)」, 경주(慶州) 「숭복사비문(崇福寺碑文)」 등은 신라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천하의 대세를 예견하고 왕건(王建)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에 '계림황엽(鷄林黃葉) 곡령청송(鵠嶺靑松)' 이라는 신라의 쇠망과 고려의 흥성을 예언한 구(句)가 있었다. 그 이후로 계림숲은 가을이 오기 전에 일찍 단풍이 들었다 하여 경주 8괴(怪)의 하나로 친다.

고려의 현종(顯宗)은 조업을 밀찬(密贊)한 공을 잊지 못한다 하여 내사령(內史令)으로 추증하고 문창후(文昌候)라고 시호하며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였다. 고운(孤雲)의 유적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주 남산의 상서장(上書莊), 독서당(讀書堂), 합천 청량산(淸涼山)의 치원봉(致遠峰), 의성(義城)의 고운사(孤雲寺), 가야산(伽倻山)의 농산정(籠山亭), 신선수[神仙樹 : 日帝末枯死], 동래(東萊)의 해운대(海雲臺), 마산(馬山)의 월영대(月影臺), 함양(咸陽)의 학사루(學士樓), 지리산(智異山) 쌍계사(雙溪寺) 등이 유명하다.

그가 당에서 떨친 문명(文名)은 한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한 것이며, 고려 때의 대학자 이규보(李奎報)는 그의 시화집(詩話集)인 『백운소설(白雲小說)』에서 그를 평하여 "천지개벽의 대공(大功)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학자는 모두 그를 으뜸으로 삼는다(有破天荒之大功 故東方學者皆以爲宗)"라고 하였다.

최승우(崔承祐)는 진성여왕 3년에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고 귀국해서 후백제에서 벼슬하다 왕건에게로 갔다. 특히 문장이 뛰어났으며 견훤이 왕건에게 보내는 격서(檄書)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언위(崔彦撝)는 처음 이름이 신상(愼上)이며 최치원의 종제(從弟)이다. 18세에 입당유학(入唐留學)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42세에 귀국해서 벼슬하다가 다시 고려조에 벼슬하여 태자사부(太子師傅)가 되었고 고려조의 학풍 진작에 공이 컸다.

치원(致遠), 언위(彦撝), 승우(承祐) 등 3인은 '3최(崔)'의 칭을 받은 최씨 삼거봉(三巨峰)이며, 모두 고려 태조의 신임을 얻었고 고려 최충(崔冲)에 이어지는 고려조 학문의 기둥이 되었다.

4) 여러 학문의 발달과 실학자의 배출

한학(漢學)과 유교(儒敎) 외에도 이미 교육조(敎育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학(曆學), 구진천(仇珍川)의 활, 수학(數學), 그 중에도 기하학(幾何學)의 작도법(作圖法)을 응용한 건축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신라 전성기인 제36대 혜공왕 때에는 김암(金巖)이 유명했다. 그는 김유신의 증손으로 일찍이 당에 유학하여 천문학(天文學), 음양학(陰陽學), 병학(兵學) 등의 대가가 되었고 저갑법(杼甲法)을 연구하여 책을 저술하였는데 당의 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귀국 후는 천문학 박사(天文學博士)가 되어 그 계통의 교육에 종사하다가 양주(良州), 강주(康州), 한주(漢州)의 태수(太守)를 거쳐 패강두상(浿江頭上)이 되어 국경 수호의 중임도 맡았다. 이때에 국민 총력에 의한 국토 방위의 중요

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농민에게도 '육진병법(六陣兵法)'을 가르쳤다. 혜공왕(惠恭王) 15년(779)에는 수신사(修信使)가 되어 일본에 갔는데, 학식과 인품에 감탄한 일본인들이 일본에 머물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한다.

신라 말의 도선(道詵)은 풍수학(風水學)의 대가로서 그 영향은 고려, 조선조를 거쳐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그의 속성(俗姓)은 김씨(金氏)이고 영암(靈岩) 사람인데, 15세에 불문에 들어 화엄사(華嚴寺)에서 수도한 후 만년에는 광양(光陽)의 백계산(白鷄山) 왕룡사(王龍寺)의 주지로 있다가 효공왕 2년(898)에 72세로 입적하였다. 그는 풍수지리학(風水地理學)과 음양도참사상(陰陽圖讖思想)을 연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지리쇠왕설(地理衰旺說), 지리순역설(地理順逆說), 지리비보설(地理裨補說) 등을 주장했고, 생전에 이미 신으로 추앙받았다.

고려시대의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을 준 『도선비기(道詵秘記)』는 그의 저술이라고 하며,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에서도 사찰 건립은 도선비기에 따르게 하였다.

전설에서는 신라의 멸망을 재촉하게 한 것도 도선의 소행이라고 한다. 원래 서라벌 지상(地相)이 주행상(舟行相)인데도 고려의 사주로 그가 신라왕에게 거짓으로 봉황상(鳳凰相)이라고 속이고, 그 봉황이 날아가지 못하게 날개의 일부를 끊고 봉황이 좋아하는 맑은 물이 샘솟는 샘을 파고 봉황의 알을 상징하는 인조산[人造山 : 이것을 봉황대(鳳凰臺)라고 함]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사실 날개를 자른 것은 배의 돛대에 해당되는 남산(南山)의 도드랑산(돗대산)이고, 샘을 판 것은 배 바닥의 구멍을 뚫은 것이고 봉황대는 빨리 배가 침몰하도록 무거운 짐을 싣게 한 것이라고 한다. 이래서 신라가 망하였는데 모두 도선의 지시이라는 것이 우리 고장의 전설이다.

제2절 고려시대 유학의 동향

1. 숭유 정책과 유학(儒學)의 성격

1) 유학 정책

고려의 신앙은 불교이지만 유교 이념은 정치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고려의 역대 군왕은 숭유정책을 써서 문치(文治)를 이룩하였다. 따라서 유학 교육은 통일신라의 기반을 이어받아 지방의 학원(學院)과 중앙의 원봉성(元鳳省)이 중요시되었다. 태조(太祖)는 유학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13년에 서경(西京)

에 학교를 창설하고 수재연악(秀才延鶚)을 서학박사(書學博士)로 삼은 일이 있다.

4대 광종(光宗)은 후주(後周)의 문사(文士) 쌍기(雙冀)의 의견을 따라 과거제(科擧制)를 실시하여 시(詩), 부(賦), 송(頌), 책(策)으로 시험하였고, 아울러 명경과(明經科)를 두어 『주역(周易)』, 『상서(尙書)』, 『모시(毛詩)』, 『춘추(春秋)』로 시험하였다.

그러나 쌍기는 학식 깊은 학자가 아니므로 부화한 문풍(文風)만 일어나고 참다운 유학은 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광종은 또 중국에 유학한 바 있는 최행귀(崔行歸)를 우대하였고 남중국(南中國)에서 활약한 왕융(王融)도 과거 실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6대 성종(成宗)은 유학을 가장 숭상한 왕이었다. 최승로는 28조의 상서(上書)에서 "중화(中華)의 제도를 따르지 아니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습속이 중국과 다르므로 다 따를 수는 없다 해도 예(禮), 악(樂), 시(詩), 서(書), 군(君), 신(臣), 부자(父子)의 도리는 중화의 것을 본받아 비루한 것은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하였고,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는 국가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요,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금일의 급무(急務)이니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이러한 의견을 좇아 연등(燃燈), 팔관회(八關會)를 폐지하고 유교를 숭상하였다. 그는 우선 태학(太學)을 수리하여 지방의 자제를 모집하여 교육케 하였고, 동왕 5년에는 지방으로 돌아가는 학생을 위하여 경학박사(經學博士), 의학박사(醫學博士)를 12목(牧)에 배치하여 가르치게 하여 중앙과 지방 교육의 균등을 도모하였다.

성종은 다시 교서(敎書)를 내려 효자(孝子), 순손(順孫), 절부(節婦), 의부(義婦)와 덕행이 있는 사람을 표창했다. 특히 임성로(任成老)는 송(宋)에서 돌아오면서 『태묘당도(太廟堂圖)』, 『사직당도(社稷堂圖)』와 그 기(記), 『문선왕묘도(文宣王廟圖)』, 『제기도(祭器圖)』, 『72현찬기(賢贊記)』 등 많은 도서를 가지고 와서 유교 진흥에 이바지하였다.

8대 현종(顯宗)도 유교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그의 즉위 4년에 최항(崔沆), 김심언(金審言) 등으로 하여금 국사(國史)를 편찬하게 하고 11년에는 최치원을 내사령(內史令)으로 추증하여 문묘에 종사하였으며 13년에는 설총을 홍유후(弘儒侯)로 추증하여 문묘에 종사하게 하였다.

10대 정종(靖宗)은 그의 8년에 동경부유수(東京副留守) 최호(崔顥) 등에 명하여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당서(唐書)』 등을 인출(印出)하게 하고 11년에는

비서성(秘書省)에서 『예기정의(禮記正義)』 70부와 『모시정의(毛詩正義)』 40부를 인출하게 하였다. 당시에는 서적이 매우 귀하여 공부에 많은 애로를 느꼈으나 이때에 와서 출판이 성행하여 서적이 널리 보급되어 유교 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이 크다.

11대 문종(文宗) 시대에는 사학(私學)이 오히려 흥기하였다. 최충(崔冲)과 같이 학식과 덕망과 지위를 겸비한 높은 이에게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최충은 9재(齋)로 나누어 교육에 힘썼으니 최충의 사학도(私學徒)를 시중(侍中) 최공도(崔公徒)라 한다. 이에 따라 유신(儒臣)으로서 퇴관(退官)한 자들이 최충의 성공적인 교육 경영을 본받아 도(徒)를 세우니 이들을 일러 '사학(私學) 12도(徒)' 라고 한다.

사학의 문도가 과거에 응시하여 그를 뽑아준 주시자(主試者)를 좌주(座主) 또는 은문(恩門)이라 하고, 그 밑에 합격한 이를 문생(門生)이라 하여 사제의 분(分)을 지켰으니, 사학의 사제 관계는 하나의 습속을 이루었다. 사학도(私學徒)로서 수업하는 스승을 배반하고 타도(他徒)에 이속(移屬)한 자는 동당감시(東堂監試)에 응시를 못하도록 한 인종(仁宗)의 금지령을 볼 때, 사학도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는 것을 수 있다.

2) 유학(儒學)의 성격

태조(太祖)에서 이루어진 유교주의는 성종(成宗) 때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이념이 확립되어, 문종(文宗) 때는 사학(私學)의 발흥, 예종(睿宗), 인종(仁宗) 때는 관학(官學)의 부흥으로 고려의 유학은 완결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차례차례 쌓여 이루어진 고려의 유학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상적으로 이율성(二律性)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곧 태조의 훈요 10조에서 유교적인 문치(文治)와 현실로서의 불교, 도교를 지향하고 있다든가,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책(時務策)」에서 나타난 유불(儒佛) 병립론(竝立論)이라든가, 대각국사(大覺國師)의 「이교동귀론(三敎同歸論)」 같은 것에서 이율적인 구조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불 공존은 중기 이후부터는 점차 비판받고 끝내 고려 말 정주학적(程朱學的)인 유교 체제로 매듭지어진다.

둘째, 고려 유학은 관료적인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고려는 성종 때부터 경주계 출신의 유신 관료들에 의하여 유교적인 왕도(王道)와 예교(禮敎)의 질서가 정립되었고 최충의 사학(私學)이나 관학 부흥도 따지고 보면 유능한 관료의 배출에 있었던 것이다.

셋째, 덕행을 존중하는 성격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곧 최충의 구재학당(九齋學

堂)이나 예종(睿宗)과 인종(仁宗)의 유풍(儒風)에서 짐작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고려 유학은 고려 왕조가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그 이념적인 기반이 되었고 또 고려 사회의 윤리적인 질서 의식의 기반이 되었다. 이리하여 고려 유학은 항상 전대적(前代的)인 종교나 미신적인 풍수(風水), 도참설(圖讖說)을 비판하면서도 유교주의적인 문화관을 성장시켰다.

2. 경주 지방의 유학(儒學)

신라는 특히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에 의하여 지배된 중대에 와서 그들의 지배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교 정치 사상을 표방하였다. 그 전의 성골 왕족(聖骨王族)의 불교 왕국 이념으로서는 보다 넓은 국가 기반의 확대를 방해하는 족적(族的) 유대 관계의 구속성이나 한계성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유교 정치 사상의 표방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새로운 문화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밖으로 신라보다 앞섰던 고구려와 백제를 지배할 때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적 빈곤성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신라 사회가 갖는 이러한 정치적 빈곤성에 대한 자각은 이미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진평왕(眞平王)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통일 뒤에 도당(渡唐) 유학생(留學生)과 승려들의 당나라 왕래가 빈번해져서 당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가됨에 따라 신라 문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는 불교가 마련한 한문학(漢文學)에 유교 사상을 윤색했을 신라 학문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리하여 강수(强首)가 유학과 불학 중 어느 것을 배우겠는가 라는 부친의 물음에 새로운 학문으로서 유학을 택하겠다 고 할 만큼 유학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스승을 구하여 『효경(孝經)』, 『곡례(曲禮)』, 『이아(爾雅)』, 『문선(文選)』 등을 읽었다고 하였으니, 그는 일찍 중국 문화를 접하였고 또 문장력도 배양하였던 것이다.

『삼국사기』 강수전(强首傳)에 '들을 바는 비록 얕고 가까우나 얻은 바는 오히려 높고도 멀다(所聞雖淺近 而所得愈高遠)' 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왕(神文王) 때, 원효(元曉)의 아들 설총(薛聰)이 나와 한문장(漢文章)에 토(吐)를 붙여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중대 한문학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 임신년[壬申年 : 문무왕 12년 또는 성덕왕 31년]의 서기(誓記)라고

하는 이른바 '임신서기(壬申誓記)'은 비록 이것이 순수한 중국식의 한문이 아니고 우리말 식의 이두 향찰(吏讀鄕札)과 같은 한문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들은 시(詩), 서(書) 등이 유교경전을 학습할 정도였음을 알게 한다.

유교 경전의 전래가 신라의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가는 자세하지 않으나 대부분 한학(漢學)의 전래와 때를 같이하여 들어왔을 것이다. 신라의 한학 전래의 연대는 또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지증(智證), 법흥왕(法興王) 양대간에 이미 중국식의 왕호(王號)와 연호(年號)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율령(律令)을 반포하였고, 진흥왕(眞興王) 때에는 문사(文士)를 모아 국사(國史)를 편찬하고(545) 신개척지(新開拓地)에 순수(巡狩)하여 여러 곳에 '순수관경비(巡狩管境碑)'를 세웠으니 한학(漢學)의 전래는 훨씬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태평어람(太平御覽)』권 781 신라 조소인(新羅條所引)의 진서(秦書)에 의하면, 부견건원(符堅建元) 18년(382)에 신라 국왕 누한(樓寒)이 사신(使臣) 위두(衛頭)를 전진(前秦)에 보내어 조공(朝貢)을 하였다고 한다. 신라 국왕 누한은 곧 나물왕(柰勿王)을 지칭한 것이니, 누한은 마립간의 사음(寫音)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교의 경전(經典)은 이미 나물왕 이전부터 차차 전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하튼, 이 서기(誓記)에서 유의할 점은 신라인이 유교 사상을 수용함에 있어 고유 사상과 습합(習合)을 하였다는 것이다. 서기에 작자가 먼저 유교 경전의 학수(學修)를 서약하고 이어 충도집지(忠道執持)와 궁행실천(躬行實踐)을 서약한 것은 모두 이때 신라청년(新羅靑年)의 지행합일(知行合一), 실천윤리(實踐倫理) 사상이 어떠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라 하대에 와서는 당(唐) 현종(玄宗)이 신라를 '군자지국(君子之國)'이라 하였고 또 신라인은 '군자지향(君子之鄕)'이니 '예의지향(禮義之鄕)' 또는 '하루지향(何陋之鄕)', '인역(仁域)', '근화향(槿花鄕)'이라고 하여 신라 문화의 전통을 과시할 만큼 한문학은 성장하였다. 최치원의 「선안주원벽기(善安住院壁記)」에서는, 왕제(王制)에서 동이(東夷)는 '천성유순 이이도어(天性柔順 易以道御)'라 한 것과 같은 관점에서 쓴 『후한서(後漢書)』「동이전서(東夷傳序)」에 나타난 동이관(東夷觀)을 그대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신라에서 배출된 문인 중에는 고려의 문관(文官)으로 흡수된 사람들이 많다. 특히 신라 말에 당(唐)과 오대(五代)에 유학한 유학생들은 신라가 망하기 전부터 고려와 후백제의 문관(文官)으로 활약하였고, 이들 귀국 유학생들은 주로 육두품(六頭品) 출신들이 많았다. 고려 초기의 문인 학자를 보면 대부분이 신라의 후예로 최(崔), 김(金)의 양성(兩姓)이 많다. 특히 최치원의 뒤를 이어 최승우(崔承祐), 최

언위(崔彦僞), 최행귀(崔行歸), 최승로(崔承老) 등에 이르는 경주 최씨(慶州崔氏)의 후예가 많다.

고려 중기에 이르면 경주 출신의 최(崔), 김(金)은 분파를 하여 다른 지역을 본(本)으로 하여 토호(土豪)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관인(官人)으로 진출한 다음에 출신지와는 관계없이 개경(開京)의 문벌(門閥)을 형성하였다. 이때 개경의 문벌사회가 무너지고 상층 향리(上層鄕吏)의 자제가 군공(軍功)과 과거(科擧)로 입사(入仕)한다.

특히 몽고(蒙古) 침입으로 인한 피난지로 적합한 곳은 이 경북지역인 소백산맥(小白山脈)의 이남 산간분지(山間盆地)였다. 이 지역의 호장(戶長)들은 주민들을 독려하여 산성에 의존하여 몽고에 저항한 공이 크기 때문에 최씨(崔氏) 집권세력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곳의 향리(鄕吏)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사대부로서 관계(官界)에 진출하여 지배 계층에 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 경주의 최백륜(崔伯倫) 부자는 과거(科擧)로 진출한 대표적 사대부(士大夫)이다. 이들 외에도 안동(安東)의 권부(權溥) 순흥(順興)의 안향(安珦) 및 다른 지역에서 난을 피하여 이곳에 온 이곡(李穀), 우탁(禹倬) 등은 당대의 유학자로 이름이 높다.

제3절 조선시대의 교육과 학문

1. 향교 교육

1) 향교(鄕校)의 설립과 기능

경주 향교가 언제 최초로 설립되었는지 알 수 없다. 지금 향교 자리는 신라 신문왕(神文王) 2년(682)에 국학(國學)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던 터이고, 고려 때 주학(州學)인 향교로 전승했다는 것이다. 곧 경주 향교는 신라 때 국학에서 고려시대 주학으로, 그리고 조선시대 향교로 이어지면서 발전하였다고 향교 기문 등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설은 신라 왕경의 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나라 장안 도성과 비교 · 검토하며 비정할 필요가 있다.

성종(成宗) 계사년(1473)에 부윤 양순석(梁順石)이 소학당(小學堂)를 설립하여 후학을 지도했다는 기록을 처음 남기고 있다. 그 후 임자년(1492)에 부윤 최응현

(崔應賢)이 향교를 중수하였고, 그 규범과 제도는 성균관을 본떠 대성전(大成殿) 뒤에 명륜당이 세워졌다.

조선시대 향교 교육은 전대에 비해 유교 이념을 널리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관학(官學)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는 사실이다. 고려 불교에 대신하여 주자학을 국가의 지배 사상으로 하려던 조선 초기에 있어서 관학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였다.

각 지방에 파견된 수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이른바 수령 칠사(守令七事) 가운데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라는 '수명학교(修明學校)'를 그 속에 넣어 수령 포폄(褒貶)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관학 진흥책으로 중앙의 성균관과 4학, 그리고 지방 향교의 교육이 그만큼 비중이 컸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같이 조선 초기에는 중앙에서 직접 수령과 교수관(敎授官)을 파견하여 향교를 설치하고 향교 교육을 담당하여 책임 지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교 교생들에게 부시(赴試), 면역(免役), 취재(取才)의 특전이 주어졌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일향일교(一鄕一校)'의 시책에 따라 각 고을마다 향교를 설립하였다.

조선은 고려의 불교 이념 체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었다. 태종 때 이르러 국가에서 선발한 새로운 이념과 체질을 가진 관원을 지방 향교의 교관으로 보내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강화하고, 유교적 신사회 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따라서 중앙의 관원을 지방 군현에 파견하여 관리 · 통치하였는데 향교의 교관을 파견하여 교육시키는 것도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테면, 수령이 지방 정치를 담당하였다면 향교 교관은 교화(敎化)를 맡았던 것이다.

그런데 향교 교관의 대상 요원은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승문원(承文院) 3관의 권지(權知)였다. 이들 권지는 이미 문과에 합격하고 3관에서 정9품 이상에 해당하는 임시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3관 권지들은 입관(入館) 순서에 따라 각관 유학 교수관의 실직을 주어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그들의 근무실태를 고찰케 하였다. 조선 전기 문과 급제자로서 경주향교 교관으로 파견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불권헌(不倦軒) 황정(黃玎)이 갑오년(1474)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동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간 경주향교 교관으로 재임하였다. 또한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도 23세 되던 계유년(1513)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 별시에 급제하였다.

권지교서관부정자(權知校書館副正字)에 임명된 그는, 을해년(1515)에 경주 주학(慶州州學) 교관으로 뽑혀 내려오면서 벼슬을 시작하였다. 그가 「원조오잠(元朝

五箴)」과 「서망재망기당무극태극설후(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를 지은 것도 경주향교 교관으로 있을 때였다. 물론 이러한 교관은 전국 군현에 모두 파견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우선 주(州), 부(府)에만 3관 권지를 교수관으로 보내고 나머지 군현에는 그 지방에서 사표(師表)가 될만한 인물을 선발하여 학장(學長)이란 직책을 주어서 교생을 가르쳤던 것이다.

15세기 이후 지방 재지 지주들의 사학(私學)이 발달함에 따라 향교의 교육도 쇠퇴해가고, 이에 따라 향교 교관은 더욱 그 권위와 질이 떨어져 문과 급제자들이 이를 기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기에 무자격자들이 이조(吏曹)의 관리와 결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교관직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관학 교육의 부흥에 큰 저해가 되었다.

이에 반하여 사유(師儒)들은 깊은 유교 원리를 연구하는 도학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교육에도 열성이 대단하였다. 따라서 지방 교육은 관학에서 자연히 사학으로 옮겨가고, 사학은 중종 때 생겨나는 서원(書院)으로 발달하기에 이르렀다.

향교의 교육은 명륜당(明倫堂)에서 이루어졌고, 경주의 교생 정수는 50명이다. 이들이 배우는 교과 내용은 경서(經書)와 시문(詩文)이 주요 과목이었다. 이들 두 과목은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이 과거 시험 과목이 되는 동시에 각급 학교의 교육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고려 시대는 경사보다 사장(詞章)이 중시되어 제술 시험이 우위를 점했으나 주자학이 전래된 이후 경사를 중시하는 강경(講經)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향교 교생은 경사위주로 하는 실학교육(實學敎育)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 교과는 『소학』, 『효경』, 『삼강행실(三綱行實)』 등의 초급교재를 비롯하여 사서(四書), 오경(五經), 『성리대전』, 『심경』, 『근사록』 등의 주자서(朱子書)와 『통감』, 『문선(文選)』, 『고문진보』 등 문학서가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소학』을 중시하면서 1차 교재로 활용하였다. 『소학』은 여러 경사(經史) 가운데 유교사회의 도덕규범이 될 만한 문구들을 뽑아서 엮은 책이다.

향교는 조선시대 초등교육기관이었으므로 유교사회의 지배윤리인 애친(愛親)과 충군(忠君)의 가치기준부터 먼저 습득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소학』은 성균관 입학시험, 생원시의 예비시험 과목으로 실시되었다. 중종 11년(1516) 11월에 내려진 전지(傳旨)는 『소학』을 중시하고 교생들에게 이를 교육시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중종 13년(1518)에 경주 부윤 희락당(希樂堂) 김안로(金安老)가 남긴 「경주약향교제생첩(慶州約鄕校諸生帖)」을 보면 향교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주는 영남의 거읍(鉅邑)으로, 예로부터 추로지향(鄒魯之鄕)이라 호칭되었다. 많은 인재의 배출과 글 읽는 소리는 다른 고을에 비해 갑절이나 더 높았고, 따라서 여러 고을 가운데 교화(敎化)가 으뜸이었다. 이는 신라 때부터 순박한 예의(禮義)와 왕화(王化)를 오래도록 입었던 것으로, 풍교(風敎)가 쉽게 창달하여 그 문성(文聲)은 다른 고을이 귀범으로 삼으면서 모두 우러러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 사람들은 예의를 익히지 않고 선비는 학문에 뜻을 두지 않는다. 대부분 완고하고 시끄러운 풍습에 젖어들어 수칙(修飭)한 사람은 보기 드물다. 부질없이 시간을 보내며 모두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학교가 수명(修明)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적(儒籍)에 오른 사람은 그 정수만 채우고 구두(句讀)도 풀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스스로 터득한 자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조금 장구(章句)를 익힌 자도 학사(學舍)를 멸시하고 있는데, 어찌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옛날의 왕도(王都)로서 교화가 다른 고을에 비해 으뜸이었는데, 지금은 완둔(頑鈍)하여 배우지 않음은 오히려 형편없는 아래 고을보다도 떨어지고 있으니, 이는 경주의 수치며 온 고을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옛 교육 방식을 버리고 신학(新學)에 힘쓰게 하면서 먼저 『소학』을 익혀 일용(日用)에 체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교생을 위해 약조(約條)를 만들고, 아울러 학령(學令)을 갖췄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조선 초기 관학 진흥을 위해 수령 칠사(守令七事)의 하나로 넣어 적극 장려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기강이 이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임란을 겪은 뒤 관학의 기강은 크게 무너졌다.

2) 관학(官學) 진흥책

임진왜란은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 사회, 교육에 걸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관아와 학궁(學宮)이 병화(兵禍)로 잿더미가 되었고, 민심은 이반하여 유랑민과 도둑 떼가 뒤끓었다. 뿐만 아니라, 상하의 질서가 무너지고 급격한 신분 변동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사류(士類) 계층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신흥 사대부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러한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론(士論)을 응집시키고, 민심을 수습하여 한데 모으면서 흩어진 백성들을 생활 터전으로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방 수령과 향중 인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향

교를 중창하는 일이었다. 경자년(1600)에 경주향교 대성전을 마침내 중건하게 되었다. 2000년 6월에 대성전을 중수하다가 대들보를 내렸는데, 그 상량문의 연도는 만력 30년(1602)으로 적고 있다.

이를 보면 당시 관찰사 이시발(李時發)과 부윤 윤안성(尹安性)이 실질적으로 주간하여 대성전(大成殿)과 전사청(典祀廳) 각 3칸을 중건하였다. 그리고 전란 중에 교생 문응성(文應星) 등 8명이 선성(先聖)과 제현(諸賢)의 위패를 안강 도덕산 두덕암(斗德庵)으로 옮겨 임시 봉안하고 있었는데, 이를 환봉(還奉)하였다. 갑진년(1604)에 부윤 윤청시가 다시 동 · 서무 각 12칸과 전사청 각 2칸을 지었다.

경주는 웅주(雄州)로서 초석만 남은 성전(聖殿)을 오래도록 방치할 수 없었다. 임란 후 5년 이내에 서둘러 성전부터 다시 건립하게 된 것은 석전제(釋奠祭)를 빠트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내(府內) 선비들의 의견을 성전으로 집약시키고, 전후 민심 수습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경잡기』 학교 조에, "본래 대성전 앞에 계층으로 된 정로(正路)가 없었다. 기유년(1669) 가을에 동무와 서무가 허물어지자 개수 공사를 마치고, 부윤 민주면(閔周冕)이 여러 유생들과 상의하여 안압지(雁鴨池) 임해전(臨海殿) 옛 섬돌을 가져와 성전 아래 계층석으로 삼고, 또한 정로(正路)를 쌓았다. 그리고 존경각(尊經閣)을 송단(松壇) 동쪽에 지었다"고 하였다.

한편, 제독청은 본래 향교 교수(敎授)가 머물렀던 곳으로, 선조 20년(1586)에 제독청을 설치했다가 숙종 6년(1680)에 혁파되었다. 이들 제독관은 교육을 장려 감독하기 위해서 지방에 파견된 관원으로, 8도에 각 1인씩 보내어 그 도의 향교를 감독하도록 했던 것이다. 당시 경주 향교에 제독으로 온 명안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손기양(孫起陽)이 경주향교 제독(提督)으로 부임한 것은 신축년(1601)이다.

앞서 그는 기축년(1589)에 성주 향교 교수(敎授)로 있으면서 그곳에 소장하고 있던 낡은 학령(學令)을 베껴 두고 교생을 지도하였다. 그 후 임란 때 병화로 향교와 모든 문적이 불에 타 없어졌다.

손기양은 다시 경주 향교 제독으로 부임하여 옥산서원 양진재(兩進齋)에서 성주향교 학령을 정사(淨寫)하여 규범을 삼았는데, 원본과 결락된 부분이 다소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범서국휘(犯書國諱)」 등 헌조(憲條)는 태반이나 글이 없어졌다.

마침내 그는 「학령(學令)」, 「백록동규(白鹿洞規)」, 「당중헌(堂中憲)」, 「전지(傳旨)」를 쓰고, 다음에 그가 지은 「시권성주학도(示勸星州學徒)」와 정축년(1517)에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의 차운을 부록하여 성책(成冊)하였다. 그리고 세주(細註)에서 학령이 나오게 된 경위를 밝혀둠으로써, 이는 '경주학령(慶州學令)'으

로 호칭되며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다음 「학령(學令)」, 「백록동규(白鹿洞規)」, 「당중헌(堂中憲)」의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경주학령[慶州學令 : 향교에서 공부하는 교생이 지켜야 할 학칙]

○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교관은 모든 유생을 인솔하여 의대(冠帶)를 갖춰 묘정(廟庭)에 나아가 알성하고 네 번 절하고 예를 행한다.

○ 매일 교관은 강당에서 제생(諸生)에게 읍례(揖禮)를 행할 것을 청한다. 북소리가 한 번 울리면 제생은 차례대로 뜰 가운데로 들어와 교관을 향하여 선다. 읍례를 행한 후 각기 재사(齋舍) 앞으로 나가서 서로 읍하고 곧 재사에 들어간다. 다음에 유생은 교관 앞에 나아가서 일강(日講)할 것을 청하고, 동 · 서재에서 각각 한 두 사람씩 뽑아서 (어제) 배웠던 바를 강한다. 조[粗 : 강서과(講書科)의 채점에서 3위의 성적을 말함]하거나 불통[不通 : 강경과(講經科)에서 주어진 책을 전혀 외지 못하는 최하위 성적을 말함]한 자는 차등에 따라 벌초를 가한다. 그리고 통[通 : 강서과(講書科)에서 매기는 성적 가운데 최상위를 말함]하고 약(略 : 강서과)의 성적에서 중등을 차지한 것을 말함]한 사람도 아울러 장부을 만들어 비치해 둔다. 북소리가 두 번 울리면 제생은 각기 배울 책을 가지고 교관에게 나아간다. 먼저 전일에 배운 것 가운데 논란이 있었거나 의심스러운 곳을 밝힌 다음 새로운 수업을 받는다. 많이 배우려 하지 않고 모름지기 정독을 해야 한다. 혹, 책을 대하면서 졸거나 주의를 하지 않으면 교관의 벌을 받는다.

○ 매월 보름 전후에 지방 수령은 직접 향교에 가서 교관과 함께 간혹 제목을 내어 제술과(製述科)의 글을 짓도록 명한다. 상벌을 내린 후에 아울러 장부를 비치해 둔다.

○ 수령과 고을의 존로(尊老)나 선달(先達)이 향교에 오면 제생은 교관과 같은 예를 행한다.

○ 항상 6개월마다 고강[考講 : 강시(講試)의 성적을 고람하여 살핌]을 통하여 그 점수를 장부에 비치해 두고, 1년마다 합계를 내어 불통이 가장 많은 한 사람은 또 장부를 비치해 두었다. 그리고 이를 본읍(本邑)에 보고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불통한 자는) 혹 의(醫), 율생(律生)으로 정하거나 또는 세공(歲貢)을 정하여 벌욕(罰辱)을 보이고, 다음에 열심히 배우고 잘못을 뉘우치면 교적(校籍)을 되찾는다. 열심히 배우고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본인의) 원에 의하여 『소학』과 이서(二書) 또는 일경(一經) 이상을 강통(講通)으로 시험한

다. 태만이 더욱 심하여 끝내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영구히 정해 두었고, 통(通)이 가장 많은 사람은 또한 본읍에 보고하여 상을 내리되, 간혹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지만 일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

○ 항상 6개월마다 제술과 고사를 통하여 차례대로 장부를 비치하고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본읍에 보고하여 상을 내리되, 간혹 호역을 면제해 주지만 6개월을 넘지 못하게 한다.

○ 제생은 글을 읽을 때 먼저 의리(義理)를 밝히고 사물의 변화를 통달해야 하며, 다만 장구(章句)에 매달려 문의(文義)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항상 『소학』, 『가례』, 사서(四書), 오경(五經), 『성리대전』과 사서(史書) 등을 읽고, 『장자』, 『노자』, 불경이나 잡류(雜流) 및 백가자집(百家子集) 등의 책은 가까이하지 않는다. 또 언제나 『동몽수지(童蒙須知)』를 익혀서 언행을 삼가며, 예절을 어긴 자는 벌한다.

○ 제생은 글을 읽을 때 의리를 밝히는데 힘을 써서 자신의 실천에 옮기고, 항상 공경(恭敬), 독실(篤實), 겸양(謙讓), 수칙(修飭)을 행해야 한다. 서로 학문을 힘쓰게 하며 허황하고 묘원(渺遠)한 데 나아가지 말아야 하며 비루한 데 처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결같이 염락(濂洛)의 현철(賢哲)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간혹 방탕(放蕩), 부탄(浮誕), 오만(傲慢)하여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는 서로 힘써 경계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치지 않는 자는 사장(師長)에게 알려 벌을 주되, 그래도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내쫓는다.

○ 주문공(朱文公) 백록동규약(白鹿洞規約)을 항상 읽고, 강당과 동 · 서재에 이를 써 붙여 두고 모든 교생은 서로 힘써 수칙한다.

○ 매월 보름 전에 고시(古詩), 의의(疑義), 논(論), 부(賦), 표(表), 전(箋) 가운데 두 가지, 보름 후에 명(銘), 잠(箴), 송(頌), 기(記), 대책(對策) 가운데 한 가지를 명제(命題)하여 제술한다. 그 체제(體制)는 모름지기 간엄(簡嚴)하고 정절(精切)히 말이 통하게 해야하고, 험벽(險僻)하거나 기괴(奇怪)한 글을 짓지 말도록 해야한다. 만약 시체(時體)를 쫓아 부미(浮靡)한 문체를 선창하는 자는 내쫓고, 글씨는 해정(楷正)으로 쓰지 않는 자는 벌한다.

○ 제생이 경서(經書)를 강할 때 구두(句讀)에 자세하고 의론에 통달해야 한다. 한 책을 읽으면 그 강령과 취지에 두루 밝아야 하고, 여러 책을 이해 관통하고 십분(十分)의 경지에 이르는 자를 '대통(大通)'이라 한다. 그리고 비록 십분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나 구두

에 밝고 의론에 통달하여 한 책의 강령과 취지를 이해 관통한 자는 '통(通)'이라 한다. 비록 경서에 이해 관통하지는 못했으나 구두에 밝고 뜻풀이에 통하며 상하의 문맥에 접하여 1장의 대지(大旨)를 터득하면 '약통(略通)'이라 한다. 구두에 밝고 뜻풀이도 분명하여 1장의 대지(大旨)를 터득했으나, 의론(議論)에 미진(未盡)한 바가 있으면 '조통(粗通)'이라 하고, 이하는 '불통(不通)'이라 한다.

○ 제생이 성현을 숭상하며 논하지 않고, 혹 이론(異論)을 고담(高談)으로 삼고 선현을 헐뜯으며 조정과 지방의 정사(政事)를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혹자는 재산이나 뇌물를 논하고 주색을 얘기하는 자는 벌한다.

○ 제생 가운데 오륜의 죄를 범하여, 혹 절행(節行)에 결여하고 자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긴 자는 제생이 서로 상의하여 북을 두드리며 공박한다.[죄상(罪狀)을 공개적으로 성토(聲討)하는 것을 말함(小子鳴鼓而攻. 『논어 · 선진』)] 혹 심한 자는 지방 수령에게 보고하여 천역(賤役)으로 정하게 하여 종신토록 함께 수학하지 못하게 한다.

○ 제생 가운데 혹 재주를 믿고 스스로 교만한 자, 권세를 믿고 스스로 귀한 척 하는 자, 부유를 믿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한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자, 호치(豪侈)를 자랑삼아 의복으로 남에게 과시하는 자, 간혹 소송으로 싸우기를 좋아하여 남의 이익을 제 것으로 탈취하는 자, 교묘한 말과 아첨한 얼굴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 혹 창녀 등 여색을 불러와 가무를 즐기고 제방(齋房)에서 지숙(止宿)하여 예교(禮敎)를 문란하게 하며 학궁(學宮)을 더럽힌 자는 학적에서 내쫓고, 실행을 고치면, 곧 그만둔다.

○ 제생이 태만하여 뜻을 세우지 않고, 수업과 제술(製述), 그리고 독서를 하지 않는 자는 벌한다.

○ 매월 3 · 4차례 제생은 부모에 근성(覲省)하고 의복을 씻거나 가사 돌보기를 청하면, 교관은 날짜를 헤아려 휴가를 내어준다. 제생은 휴가를 받아도 모름지기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읽으며 책읽기를 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후[射候 : 활로 과녁을 쏘며 즐기는 것을 이름], 박혁[博奕 : 장기와 바둑을 두며 놂], 엽어[獵魚 : 사냥하거나 천렵(川獵)하며 즐기고 노는 것을 이름]를 일삼지 말아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유희(遊戲) 등의 일에 응하여 위반한 자는 벌한다.

○ 제생이 길 가다가 수령이나 사장(師長), 혹은 고을의 원로, 선달를 만나면 몸을 드러내 두 손을 맞고 읍하고, 길 왼쪽에 서서 수령, 사장, 노선배, 선달의 탄 말이 지나가도록 기다린다. 간혹 몸을 숨기거나 낯을 가리며 예의 지키기를 꺼리는 자는 벌한다.

○ 매일 미명(未明)에 북이 한 번 울리면 제생은 기침하고, 평명에 북이 두 번 울리면 의관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글을 읽는다. 북이 세 번 울리면 차례대로 식당에 나가 앉아서 식사한 후 차례로 나간다. 혹 질서를 잃거나 떠드는 사람은 벌한다.

○ 제생 가운데 조행(操行)이 뛰어나고 학문이 해박하며, 재예(才藝)가 출중하고 시무(時務)를 통달한 자를 매년 1 · 2명씩을 뽑는다. 이 때 여러 교생이 상의하고 교관에게 알려 천거하면 교관은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장부에 비치해 두었다가 조정의 부르는 명을 기다린다.

○ 제생의 과실을 범하여 그 과실이 크면 매로 때리고 작으면 벌한다. 그리고 『소학』을 통하지 못하는 자는 매를 때린다.

백록동규(白鹿洞規)

○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 사람은 차례가 있어야 하고, 벗 사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오교(五敎)의 항목이다. 요, 순이 그의 신하 설(契)에게 사도(司徒) 벼슬을 주어서 삼가 오교(五敎)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다.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배울 뿐이며, 그 배우는 순서를 또한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 그 나눔은 아래와 같다.]

○ 넓게 배우고[博學], 자세히 물으며[審問], 신중히 생각하고[愼思], 명확하게 판단하며[明辨], 착실하게 행동해야[篤行] 한다.
[이는 배움의 차례로,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愼思), 명변(明辨) 네 가지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무릇, 독행(篤行)은 행위를 실천하는 일로서, 수신(修身)에서 처사(處事)와 접물(接物)에 이르기까지 또한 각각 그 요령이 있는데 그 나눔은 아래와 같다.]

○ 말은 충실하고 미덥게 하며, 행실은 돈독하고 공경하며,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으며, 선(善)으로 옮기고 허물을 고쳐야 한다.
[이는 수신(修身)하는 요령임]

○ 자신의 의(義)를 바르게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도리를 밝히되 그 공로는 꾀하지 않는다.
(이는 일을 처리하는 요령임)

○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고, 행동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도리어 그 잘못을 자신에게 찾는다.
[이는 접물(接物)의 요령임]

○ 내(송나라 주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 성현이 사람을 가르치고 학문하는 뜻은,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리(義理)를 밝히고 그 몸을 수양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한 후에 나아가서 남에게 미치게 하였다. 다만 기람(記覽)에 힘쓰고 사장(詞章)을 익혀 명성을 얻고 이록(利祿)만 취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현이 사람을 가르치고 학문하는 대단(大端)을 위와 같은 조목을 들었다.

당중헌[堂中憲 : 명륜당에서 교생이 지켜야 할 헌장]

○ 제1등은 초갑(楚甲) 30대
국휘(國諱)를 범하는 자.
독서에 부지런하지 않는 자.
어른에게 기만하는 자.
기녀(妓女)를 불러들여 함께 자는 자.
창문이나 벽을 함부로 더럽힌 자.

○ 제2등은 초(楚) 30대
사사로운 감정으로 싸우는 자.

앞서 지적했듯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향교는 경자년(1600)에 대성전부터 먼저 중건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손기양이 제독관으로 부임하여 이 글을 발표하고 교생들을 가르쳤다. 학령은 모두 20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학칙(學則)으로, 교생들이 일과와 교과목 그리고 주공(做工)의 궁극적 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성적 고하에 따라 상벌이 주어졌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교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 1 · 2명은 관찰사에서 보고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 추천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학문을 게

을리하거나 유희(遊戱)를 일삼는 자는 교적(校籍)에서 제명시키고, 부윤에게 보고하여 천역(賤役)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다스렸다.

또한 백록동규는 송나라 주희(朱熹)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서 강할 때 만든 규약으로, 조선시대 각 향교에서 이를 강규(講規)로 삼고 판각하여 향교 강당에 걸어두고 수칙(守則)으로 삼았다. 이 글은 사서(四書)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 뽑은 것으로, 유가의 핵심적 덕목인 동시에 실천적 윤리 규범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에서, 교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목표는 의리(義理)를 밝히고 자신의 올바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데 있고, 명리를 위하거나 사장(詞章)을 힘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당중헌은 전란 중 내용을 거의 잃어버리고 1 · 2등의 벌칙 6개 조항만 남아 있다. 당시 일부 교생은 학문을 게을리하고 심지어 창기(娼妓)까지 데리고 와서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지(傳旨)는 정덕 11년(1516) 11월에 중종이 내린 유지로,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생들에게 이를 반드시 익히도록 한 글이다.

본디 교생의 수업은 명륜당에서 이뤄졌으나 명륜당이 소실되고 없었기 때문에 당시 수업은 아마 향교 경내 가사(假舍)에서 행해졌을 개연성이 높다. 대성전을 중창한 14년이 지난 갑인년(1614)에 이안눌[李安訥 ; 1571~1637]이 부윤으로 부임하여 명륜당 5칸과 동 · 서재 각 5칸을 중건하였다.

이안눌은 계축년(1613) 11월 24일에 금산 군수에서 경주 부윤으로 도임했다가 이듬해 갑인년(1614) 9월에 선산에서 거행한 향시 시관(試官)의 일로 말미암아 간원(諫院)의 논박을 받고 떠난 것으로 『부선생안』에 기록하고 있다. 실제 이안눌이 부윤으로 재임한 기간은 10개월에 지나지 않지만 향중 인사들과 같이 명륜당을 다시 건립하고 구획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기록은 정극후(鄭克後)의 「송단기(松壇記)」에 약간 보일 뿐 아쉽게도 당시 기문이나 상량문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동경잡기, 학교』에, 만력 갑진년(1604)에 부윤 이안눌이 명륜당과 동 · 서재를 중건하였다. 그리고 명륜당 동편 담장 밖에 제독청(提督廳)이 있었고, 그 동편에 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다. 다시 돌로 대(臺)를 쌓은 후 자미화(紫微花) 한 그루를 그곳에 심었다고 적었다.

그런데 『부선생안』에는 이안눌이 부윤으로 부임한 연도를 계축년(1613)으로 적었고, 『동경잡기』에 그가 명륜당을 중건했다는 기록은 갑진년(1604)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그의 문집 『동악집』을 보면 전자의 기록이 타당하다.

숙종 6년(1680)에 제독청이 혁파된 후 관학은 점차 침체되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서악 · 옥산서원에 이어서 숙종 16년(1690)에 구강서원, 을해년(1695)에

동강서원, 을묘년(1699)에 용산서원이 창건되면서 사학(私學)이 발흥하였다. 각 서원에서 훌륭한 스승을 모셔두고 학안(學案)을 마련하여 유생을 교육시켰다. 이를테면 사학은 관학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시설을 갖춰두고 교육이 이뤄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반 자제들은 향교를 떠나 각 서원으로 몰리게 되었고, 향교는 비양반 교생들의 피역소(避役所)처럼 되어 갔다. 비양반 교생들은 향교에 부여된 각종 특전을 이용하여 국가의 역의무(役義務) 대상에 제외될 뿐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로써 조선 중기 이후 교생 문제는 사회적 물의가 되었는데, 이는 관학 진흥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것이다.

부윤 송징계(宋徵啓)가 갑자년(1744) 8월에 향교 동편에 육영재(育英齋)를 설립한 것은 이러한 교생 문제와 아울러 관학 진흥이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향교 내에 부속 재사(齋舍)를 건립하고 유생들을 불러모아 지도한 것은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시기적으로 늦긴 하지만 이근오(李覲吾)가 울산 유생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학성관(鶴城館) 서편에 양사재(養士齋)를 건립한 것도 관학을 일으키고자 한 의도에서 향의(鄕議)가 모아졌던 것이다. 제독관과 마찬가지로 경주 육영재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여러 문집을 참고해 보면 유의건(柳宜健), 이기여(李器汝), 이운붕(李運鵬) 등이 재임을 맡았고, 『소학』과 정주(程朱) 등 성리학을 강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후 남용만(南龍萬)이 지은 「육영재중수기(育英齋重修記)」를 보면, 조선 초에 교수청(敎授廳)이 있었다가 뒤에 제독청(提督廳)으로 고쳐졌고, 다시 육영재로 불렸다고 하였다. 병자년(1636)에 호란을 겪은 뒤에도 오히려 제독청 건물은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마침내 송징계가 부임하여 곡식 100섬을 연출하고, 각 교원(校院)으로 하여금 그 수만큼 곡식을 내게 하였다. 200섬에서 나온 이식으로 유생들의 학자금을 삼고, 육영재를 설립했다고 하였다. 이재영(李在永)이 지은 「육영재문회시게시문(育英齋文會時揭示文)」을 보면, 육영재의 제도는 향당의 상숙(庠塾)에서 비롯되었다. 1년에 한 번씩 유생들에게 배운 과정을 시험했던 것으로, 거의 3백 년 지속되었다.

그런데 근래 후배들은 학규를 지키지 않고 강의도 충실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물에는 비바람이 새고 하여 지탱할 수 없었고, 거두어 들이는 조세도 해마다 감소하여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서 경주 선비들이 문회(文會)를 열어서 제도를 경장(更張)하고 유생들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만들어 삼가 준수할 것을 촉구한 글이 게시문(揭示文)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절목은 지금 전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

병진년(1856)에 관찰사 신석우(申錫愚)가 부윤 송근수(宋根洙)에게 청하여 이종상(李鍾祥)을 육영재 강장(講長)으로 추천하고, 사진(四鎭)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 선비들을 모아 강학(講學)에 힘쓰도록 하였다. 정헌이 육영재에서 강한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경주는 물론 인근 고을 선비들까지 모여들어 수강하면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1856년 『심경』 강의 때 이화구(李華久) 등이 수강하였고, 특히 정묘년(1867) 『근사록』 강의 때는 서숙(徐塾), 윤인석(尹仁錫), 이규일(李圭一), 이호상(李琥祥), 정관검(鄭觀儉) 등 정헌의 문인 등 많은 유생들이 참석하면서 연일 큰 성황을 이루었다. 『정헌집』 권13에 실린 「육영재강의」를 보면 주로 정헌의 문인 남정환(南廷煥), 이재령(李在齡) 등이 『근사록』 등 글을 질문한 데 대해 답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종상은 육영재에서 10여 년 간 『소학』과 성리서 등을 계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육영재 강의는 적어도 갑오년(1894)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물론 육영재는 강학으로만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유림들의 회의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영조 초에 권혁 등 10명이 모여 시사(時事)를 논하다가 귀양간 일이 있었다. 또한 신 · 구 사족(士族)들의 향안(鄕案) 입록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때 이곳에 소장하고 있던 향안을 향사대(鄕射臺)로 옮겼다가 다시 영당(影堂)으로 이봉한 일도 있었다.

어쨌든 육영재는 조선 시대 관학으로서의 마지막 강의가 이뤄졌던 곳이다. 그 후 육영재는 최준(崔浚)이 월성여학교를 설립하였고 1921년에 폐지함으로써 건물 또한 철거되고 말았다. 1949년 동 · 서의 제현(諸賢) 위패가 정리 철거되자, 계림중학교(현 선덕여자고등학교)가 그 자리를 임시 교사로 활용하였고, 1955년에 계림대학이 명륜당을 교사로 빌려 개교하고, 이 때 김범부(金凡夫) 선생 등이 교수로 출강하였다. 1970년 이후 명륜당에서 예절 교육과 한문 등 계절 강좌가 열렸고, 1997년에 마침내 경주향교 사회교육원이 개설되어 그 맥을 유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 사학(私學)의 발달

1) 서원(書院)

조선 시대 서원의 설립 주체는 조선 왕조의 정치사를 주도했던 사림파(士林派)들의 세력이었다. 원래 이들은 고려 중기 사대부에서 조선 왕조의 개국을 둘러싸

고 재야 세력으로 밀려난 후손으로, 중소 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향촌에 있으면서 교육과 향촌 자치의 건설에 주력하였다. 사림 세력은 세종의 폭넓은 인재 등용책으로 한때 중앙정계에 진출했으나 성종 때 이르러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조선 왕조는 문신들이 주도하는 문치주의 국가이고, 그 지배 사상은 유교였다. 교육은 바로 관료를 양성하는 유교 교육이었다. 이를테면 교육은 국가에서 향교 중심으로 주관하는 관학(官學)이었지만, 사족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학(私學)도 장려하였다. 세종 때 사학을 세워 교육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포상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15세기 이후부터 관학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국초에는 성균관, 4학의 교육을 강화하고, 수령이 수행해야 할 일곱 가지 일[守令七事] 가운데 군현마다 향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장려할 것을 의무로 부과하여 관학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부실과 교관직을 한직(寒職)으로 여기는 풍토가 생겨나고, 세조와 연산군의 강권 정치와 여러 차례 사화(士禍) 등으로 말미암아 관학은 더욱 쇠퇴하였다. 세조 때 공신 계통의 주축 세력인 훈구파의 정권 독점은 지방 사림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력 기반으로서 유향소, 향약, 사창 등 향촌 자치조직을 강화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의 사학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사림 세력은 훈구파의 사장(詞章) 중심의 학풍을 비판하고 경학(經學) 중심의 사학을 육성하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주자가례』, 『소학』, 향사례(鄕射禮), 향음주례(鄕飮酒禮) 등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보급하고, 종래의 불교적이고 음사적(淫祀的)인 이족(吏族) 중심의 향촌 사회를 사족 중심의 유교적인 향촌 질서체제로 개편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들은 정사(精舍)나 서당은 산수 경치가 뛰어난 곳에 건립하고, 후학을 지도하며 주자학의 학문적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들은 기회가 있으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려 했지만, 마음은 학문을 닦는 데 있었다. 따라서 도학(道學)의 학문적 풍토가 발생하게 되었고, 뜻을 얻으면 도학정치를 주창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원은 이같이 지방 사림의 교육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지방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훈구 세력과 마찰을 야기 시켰고, 마침내 향촌으로 내려가 교육에 힘씀으로써 훈구파의 견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학인 향교에서 강학과 문묘 기능이 공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원도 강학과 사우(祠宇)가 결합된 곳이다.

원래 강학(講學)은 사(祠)보다 우위로 강조되었다. 이를테면 교육 기능을 가진

원에 사가 부수적으로, 사는 다만 원생들이 귀감으로 삼은 유현(儒賢)을 모신 곳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원보다 사가 더 중시되었는데, 이는 문중 의식과 당색(黨色)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서원은 임인년(1542) 주세붕(周世鵬)에 의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설립되었지만 그 보급과 정착에 있어서는 이황(李滉)의 역할이 컸다. 이황은 조광조의 도학 정치론에 깊이 공감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그는 풍기 군수 시절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하여 사림의 향촌에서의 기반확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받았고, 이후 그의 문인들과 함께 서원 보급을 적극 전개하였다.

소수서원이 경술년(1550)에 사액된 지 11년이 지난 신유년(1561)에 경주 서악리에 서악정사를 창건하고, 이어서 계해년(1563)에 설총, 김유신, 최치원 세 선생을 봉안하였다. 이는 이황의 제자 이정(李楨)이 주도하고 향유(鄕儒)들이 적극 호응하였던 결과이다. 이를테면 서악서원이 창건되고 삼현(三賢)을 봉안하게 된 배경에는 이황의 서원 보급운동과 그 궤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원은 임란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만력 경술년(1610)에 김득추(金得秋) 등에 의해 중건되었고, 계해년(1623)에 서악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서악서원은 달리 삼현사(三賢祠) 또는 향현사(鄕賢祠)라 하며 경주 사림에서 향례를 행했지만 후세에 남아있는 문헌이 별로 없다.

서악서원에서 유생들을 가르친 학규(學規)나 유생안 등은 없고, 다만 을축년(1682)에 작성한 성책 『서악서원유안(西岳書院儒案)』 1책이 있다. 이를 성씨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1-1〉 (단위:명)

성씨(姓氏)	계	이(李)	손(孫)	권(權)	최(崔)	정(鄭)	임(任)	김(金)	오(吳)	장(蔣)	서(徐)	주(朱)	유(柳)	진(陳)	박(朴)	한(韓)	황(黃)	양(楊)	신(申)	홍(洪)
수(數)	205	71	26	24	24	10	9	6	5	5	5	4	3	3	3	2	2	1	1	1

이 가운데 이씨가 71명이나 되는 것은 경주 이씨, 여주 이씨, 청안 이씨를 모두 합친 것으로, 본관을 기록하지 않아 구별할 수 없다. 이씨 가운데 경주 이씨가 많고, 특히 이제현(李齊賢)과 이말동(李末仝) 후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유안에 추입(追入)할 때 원장(院長)의 성과 수결을 해 두었다. 원장을 성씨별로 보면 최씨 4번, 이씨 4번, 유씨 3번, 황씨와 임씨 2번, 손씨 1번을 나타내고 있다.

옥산서원은 임신년(1572)에 경주 부윤 이제민(李齊閔)과 회재 선생의 문인 권덕린(權德麟) 등 향중 사림 13명의 건의에 따라 창건되고, 이듬해 사액되었다. 본 원은 다른 서원에 비해 서적과 고문서 등 많은 자료를 비교적 온존히 전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은 언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옥산서원에서 글을 배우는 유생들이 수칙해야 할 원규(院規)를 전하고 있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옥산서원 원규(院規)

○ 여러 유생들의 독서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문호(門戶)로 삼는다. 국가가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지킨다. 만선(萬善)이 본래 나에게 갖춰져 있음을 알고, 옛 도리(道理)를 오늘에 실천해야 할 것이다. 모두 궁행(躬行), 심득(心得), 명체(明體), 적용(適用)의 학문에 힘쓰고, 그 밖에 여러 역사책, 자집(子集), 사장(詞章), 과거(科擧)의 공부를 또한 익히어 두루 능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외(內外), 본말(本末), 경중(輕重), 완급(緩急)의 순서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항상 스스로 격앙되어 사탄(邪誕), 요이(妖異), 음벽(淫僻)의 책에 빠져들지 말아야 하고, 아울러 서원에 들어와 근안(近眼)으로 도(道)와 지(志)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 여러 유생은 뜻을 견고히 세우고 정직(正直)함에 나아가며, 학업은 원대한 데 스스로 기약하고 행실은 도의(道義)에 귀의함을 선학(善學)으로 삼는다. 그 마음가짐이 비하(卑下)하여 현혹에 취사(取舍)하며, 지식은 비속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뜻하는 바가 오로지 이욕(利欲)에 있는 것을 비학(非學)이라 한다. 만약 성품과 행실이 괴상하여 예법을 비웃고, 성현을 능멸하며 법도(法道)를 배반하고, 추잡한 말로 어버이를 욕되게 하고 못된 무리와 가까이하는 자는 원중(院中)에서 함께 상의하여 내쫓는다.

○ 여러 유생은 항상 조용히 각 재사(齋舍)에서 오로지 독서에 힘쓰고, 강구(講究)하거나 의난(疑難)한 일이 아니면 함부로 다른 재사에 가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며 피차 황량한 생각으로 학업을 폐해서는 안 된다.

○ 이유 없이 상고(上告)하지 말고, 일체 자주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의관(衣冠), 동작(動作), 언행(言行) 등을 각각 힘써 권하고 서로 귀감으로 삼으며 선(善)으로 나아가야 한다.

○ 성균관 명륜당에 이천선생(伊川先生) 「사물잠(四勿箴)」, 회암선생(晦庵先生) 「백록동규십훈(白鹿洞規十訓)」, 진무경(陳茂卿)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써서 걸어두었다. 이 뜻은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원중(院中)에 또한 이를 써서 벽 위에 걸어두고 서로 규범을 삼으며 성찰하였다.

○ 첫째 제사를 삼가 지낼 것, 둘째 어진 이를 예로 대할 것, 셋째 원우(院宇)를 수선할 것, 넷째 창고 물품을 갖춰 둘 것, 다섯째 서책을 점검할 것이다. 무릇 삼가지 않으면 신이 흠향하지 아니하고, 예로써 대하지 않으면 어진 사람이 이르지 않으며, 원우를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창고를 갖춰두지 않으면 반드시 텅 비며, 서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흩어져버린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폐할 수 없다. 사문[斯文 : 원장]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사는 맡은 바 감독해야 한다.

○ 별도로 덕업(德業)과 학문이 신신(信愼)한 1인을 가려 뽑아 원장으로 삼고, 또 1인을 선택하여 부원장으로 삼아서, 함께 서원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

○ 무릇 서원에 입학하는 선비는, 사마시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 다음은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비록 초시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학문에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행실이 올바르면서 입학하기를 원하면, 유사가 사문(斯文)에게 품의하여 입학을 허락한다. 서원 재사를 개설한 것은 어진 사람을 맞이하고자 한 것이다. 지나치게 입학을 허용하면 어질지 못한 자가 사이에 끼어든다. 이들은 창고 물품만 소모시킬 뿐 아니라, 서책과 여러 가지 문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어리석은 자가 입학하면 어진 사람이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니, 이 또한 서원을 황폐시키는 한 가지의 경우이다.

○ 별도로 입원록(入院錄)을 배치한다. 서원에 입학하는 선비는 반드시 성명을 직접 기록하고, 또한 입학한 연월을 기입한다. 따라서 제명(題名)하는 것이 우연이라 하겠는가? 후생들이 입원록을 펼쳐 보면 반드시 지점(指點)하면서 "아무개는 글을 배우되 위기(爲己)의 학문에 힘썼고, 아무개는 글을 배우되 위인(爲人)의 학문에 힘썼으며, 아무개는 살아있지만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아무개는 죽었지만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 곤궁(困窮)과 영달(榮達)은 다르지만 어질고 어리석음은 또한 차이가 많으니, 어찌 힘쓰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 고을 수령의 자제가 재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폐단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서책을 함부로 천대하지 못하도록 한다.

○ 활쏘기와 잔치 놀이는 금지한다.

○ 수직(守直)하는 집안 사람을 남들이 불러 일을 시켜서는 안되고, 관에서 수탈해서도 안 된다.

○ 무릇 서원에 부속한 것은 공사(公事)가 아니면 일체 사사로이 사용하지 못한다.

○ 무릇 원생은 춘추 향사 때 이유 없이 불참하는 자는 사문(斯文)이 중벌을 내린다.

○ 무릇 서원의 일을 맡은 자가 혹 임무를 삼가지 않거나 혹 전수(典守)를 청렴하게 하지 않으면, 사문(斯文)이 상의하여 쫓아낸다.

○ 서원의 서책과 용기 등은 일체 서원 밖으로 반출시키지 않는다.

○ 무릇 관례를 치르지 않은 자는 일체 재사에 들어옴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기와를 깨거나 담장을 훼손시키고, 서책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면 서원 유생들이 공부하는 과목과 조행(操行)을 강조하고, 함부로 성현을 업신여기거나 잡서를 읽지 못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유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사마시에 합격하거나, 혹은 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물론 초시에 합격하지 못해도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으면 유사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입학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입학한 자는 반드시 입원록(入院錄)에 자필로 성명과 연월을 기입한다. 또한 유생들의 임무도 기록해 두었다. 향사 때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함부로 유연(遊宴)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원규 가운데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굳건한 입지(立志)와 올바른 학문 태도이다. 이를테면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영달을 꾀하기 보다 위기지학(爲己之學)에 힘쓰고 덕업(德業)을 닦는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축년(1641)에 옥산서원에서 작성한 「입학기(立學記)」가 있다. 이를 보면 당시 유생들이 독서를 게을리한데 대해 개탄하고, 14조 항목에 달하는 수칙을 세웠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사에서 방출하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하였다.

각 서원의 유생 정수는 서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숙종 36년(1710)에 제정된 것을 보면, 사액서원은 20명, 문묘종사유현서원(文廟從祀儒賢書院)은 30명(후에

20명으로 감소), 미사액서원(未賜額書院)은 15명으로 정했으나, 서원의 재정 형편에 따라 그 수는 조정되었다. 옥산서원 유생 정수는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용산서원 정수와 거의 비슷하게 30명 정도로 사료된다. 19세기 중엽 「용산서원유생안(龍山書院儒生案」에 나타난 것을 보면 유생 정수는 30명이었는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1-2〉

연도	1831년	1834년	1838년	1841년	1843년	1844년	1845년	1848년	1855년	1858년	1860년
인원	30명	21명	30명	30명	31명	30명	30명	30명	31명	31명	31명

1834년에는 21명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으나 거의 30명을 정원으로 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산서원 유생은 비지(飛只), 야척(也尺), 안심(安心), 능지(陵旨), 노곡(蘆谷) 등 경주 동남부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에는 문중이나 마을 단위로 운영되었던 서당은 있었지만 서원은 없었다. 따라서 재주가 뛰어나고 향학 의욕이 있는 유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신년(1860)에 작성한 「용산서원유생안」으로, 이를 통해서 보면 당시 성씨와 출신 지역을 알 수 있다.

〈표 7-1-3〉

인명 (人名)	김춘걸 (金春杰)	김상기 (金尙紀)	고도문 (高道文)	한익택 (韓益澤)	도희문 (都喜文)	김춘만 (金春滿)	김상록 (金祥祿)	이광겸 (李光謙)	안성학 (安聖學)	한익호 (韓益昊)	김상위 (金常偉)
거주 (居住)	용장 (茸長)	내와 (內瓦)	비지 (飛只)	천군 (千軍)	와와 (臥瓦)	용장 (茸長)	노읍 (蘆邑)	노전 (蘆田)	하묵정 (下墨丁)	천군 (千軍)	안심 (安心)
인명 (人名)	김수천 (金守天)	김치우 (金致禹)	김극성 (金克成)	김운채 (金雲彩)	박수문 (朴守文)	안처택 (安處宅)	김정종 (金鼎宗)	최경문 (崔景文)	김종우 (金宗禹)	고일재 (高日載)	김오일 (金五一)
거주 (居住)	입곡 (立谷)	능지 (陵旨)	야척 (也尺)	안심 (安心)	내와 (內瓦)	하묵정 (下墨丁)	야척 (也尺)	복안 (伏安)	능지 (陵旨)	도진암 (道眞巖)	박달 (朴達)
인명 (人名)	김해손 (金海孫)	김성집 (金聖集)	이신룡 (李信龍)	우원신 (禹遠臣)	김갑득 (金甲得)	김월룡 (金月龍)	김복삼 (金福三)	김성존 (金聲存)	최흥만 (崔興萬)		
거주 (居住)	야척 (也尺)	복안 (伏安)	구일 (仇日)	비지 (飛只)	노곡 (蘆谷)	안심 (安心)	노곡 (蘆谷)	양삼 (良三)	음변 (陰邊)		

이 밖에 용산서원에서는 별안(別案)인 「용산서원유생별안(龍山書院儒生別案)」이 전한다. 여기서는 유생 14명, 양전(良丁) 14명, 노비인 하전(下典) 14명을 동시에 수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용산서원 소속으로 단순히 기명만 했는지, 아니면 이들에게도 일정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른 안(案)과

구별하여 여기 별도로 부록한 것은 신분의 귀천을 떠나 학안(學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구강서원(龜岡書院), 동강서원(東江書院), 구산서원(龜山書院), 인산서원(仁山書院) 등의 학규나 유생안 등은 아직 얻어 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옥산서원이나 용산서원에서 실시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학규나 유생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 거의 모든 서원은 유생을 강학(講學)하는 비중에 비해 향사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점차 서원 교육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유생들도 위기(爲己)의 학문보다 시문(時文)을 익히는데 급급하였다. 물론 당시 유생들의 학문은 대다수 과거 공부에 치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학문적 성취에는 관학과 사학의 구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신분 사회에서의 이들의 학문은 단순히 학문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학연과 혈연 등의 상호 유기적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시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유생안에 입록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원 교육은 향교 관학의 보완적 기능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의 독립성을 갖고 유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학칙에 따라 교육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사학으로서의 교육 기능은 서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 교육의 기초 과정은 각 고을에 설립돼 있던 서당(書堂)이나 서숙(書塾)이 담당하였다.

2) 서당(書堂)

조선 시대 서원은 사학(私學)으로서의 중추적 교육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 서원에서 동몽(童蒙)을 가르쳤던 기초 과정의 교육까지 모두 담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재사의 정해진 규모와 정수가 한정돼 있었으므로, 유가의 초급 과정을 담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원에서 부속으로 운영하는 서당이 있었다.

이를테면 한 서원이 마을 단위로 여러 부속 서당을 개설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 · 교육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서원 유생 안에 들기 위해서는 초시 이상의 합격자나 아니면 향학(向學)에 대한 열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서원의 서재는 신분적으로 차별이 있었지만 서당 교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천서(賤庶)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실시되었다. 또한 서원은 자제를 교육하는 서재와 선현을 봉사하는 사우(祠宇)의 기능을 합쳐 놓은 것이라면 서당은 향촌 자제

들을 대상으로 삼아 교육만 전담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교과는 『동몽선습』, 『유합(類合)』, 『소학』 등을 먼저 가르치고, 점차 사서(四書)를 가르쳤다. 서당은 서원에 부속한 것도 있고, 또한 향교 입학 준비를 하는 학급 학교로 운영된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독자 설립된 것이 많다. 마을 서당, 문중 서당, 개인 사숙(私塾)이 그러한 것이다.

양반은 자기 집에 교사를 초빙하여 일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이 · 동에서 공동으로 숙사를 마련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가르치는 것도 있었다. 또한 교사가 자기 집에 숙사를 정하고 직업적으로 생도를 모아 가르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한 사람이 여러 서당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일도 있었다.

『경주읍지』 등 경주 지리서에 나타난 서당(書堂), 정사(精舍), 서사(書社), 사(祠), 등의 기능과 개념을 이해하는데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서원 규모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이에 버금하는 구획(區劃)이 구비되었을 경우 사우와 강당이 혼재하고 있는데, 정산서당(靜山書堂)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옥산서원, 구강서원, 동강서원 등은 안강읍과 강동면 및 기계면과 신광면 일대 향촌 서당과 유기적 관계를 가졌고, 용산서원도 내남면 등 남부 일대의 서당과 같은 맥이 닿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 문헌은 찾을 수 없지만 「용산서원유생안(龍山書院儒生案)」을 보면 유생들의 거주 분포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서당은 향촌 단위로 많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벼슬하다가 은퇴한 뒤 향리로 돌아와 자제를 교육시킨 학자들이나, 과거 시험에 뜻을 버리고 은거하여 후진 양성에 오로지 책무를 다한 선비들도 모두 서당을 개설하여 후학을 지도하였다.

남구명(南九明)과 이종상(李鍾祥) 등은 전자의 경우이고, 이순상(李舜相), 유의건(柳宜健) 등은 후자의 예다. 남구명은 문과 급제하고 제주 통판과 순천 부사를 역임한 뒤 외동 방어리에서 영호서당(影湖書堂)을 개설하여 이두원(李斗遠), 남용만(南龍萬), 이진택(李鎭宅) 등 많은 후학을 배출시켰다.

이종상 역시 용궁 현감과 강원도 도사를 역임하고 보문에 내려와서 역학(易學) 등을 강의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경주 중리에서 태어난 이순상은 진취(進取)에 뜻을 접고 문인을 가르쳐 문과 합격자 6명과 사마시 합격한 자가 10명이었다. 유의건은 진사시에 합격하고 내남 화곡리에서 화계서당을 개설하여 많은 유생들을 지도하였고, 특히 이곳에는 승도(僧徒)까지 와서 글을 읽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문중이나 향촌 단위로 서당이 운영된 곳도 있다. 강동면 양좌동 경산서당(景山書堂)의 경우 묘우가 있지만 여주 이씨 중문의 자제들 중심으로 강학이 이뤄

졌고, 내남면 이조리 남강서당(南岡書堂)과 교동 숙연당(肅然堂) 역시 경주 최씨 문중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곳에는 학계(學契)와 문계(門契) 등을 작성하여 면학(勉學)과 돈목(敦睦)의 의미를 강조하며 지속되었다. 문중이나 향촌의 공통체로 운영된 서당은 그 명맥이 오래 지속되었다. 지역에 훌륭한 사람을 초빙하여 학동을 가르치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이를 초빙하여 지속하였다.

그렇지만 개인이 설립한 서당은 그 맥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다. 스승이 돌아가면 학계(學契)를 결성하고 또 문인 가운데 학행(學行)이 뛰어난 사람이 대신 이어가지만 세월이 흐르면 '서당골'이란 이름만 남기고 유지(遺趾)는 빈터로 변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면모에서 볼 때 서당은 서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서당은 구한 말에 이어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향촌 사회의 중요한 교육 기능을 담당하였다. 신학과 구학이 혼란스러웠던 학제(學制) 속에서 서당은 전통적 학문의 맥을 전승하는 동시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제들을 대상으로 삼아 몽학(蒙學)과 사서(四書) 등을 가르치는 등 또 다른 교육적 기능을 1960년대까지 이어왔다.

3. 제가(諸家)의 유학 사상(儒學思想)

조선 초기에 경주 지역 유학자는 우선 문과에 오른 사람을 꼽을 수 있으나 시문 등 문헌이 전하지 않아서 논할 수 없다. 경주에서 최초로 문과에 급제한 최예(崔汭)는 벼슬이 성균관 사성에 올랐으나 문집이 없다.

이어서 불권헌(不倦軒) 황정[黃玎 ; 1426~1497]은 점필재 김종직과 인척이었다. 점필재가 경상 감사를 대신하여 경주 향교 석전제 때 제관으로 내려와 예를 마치고 불권헌 집을 방문하여 시를 남겼다. 뒷날 정언(正言)에 오른 불권헌은 효행이 뛰어나고 문학에 정통하여 사표(師表)로서 이름이 높았다. 우재(愚齋) 손중돈[孫仲暾 ; 1463~1529]은 회재 이언적의 외구(外舅)이다. 문과에 합격하고 벼슬에 나아간 그는 도승지를 포함한 승지 세 번, 대사간 네 번, 관찰사 네 번을 지냈고, 두 번 판서에 세자 빈객에까지 오르며 당시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또한 그의 서울 사저는 남산 북쪽 산기슭에 있었고, 집 곁에 큰 바위 하나가 있으니, 곧 객거암(客居巖)이라 불렀다.

이 사저에는 회재 이언적과 충재(冲齋) 권벌(權橃)이 서울에서 벼슬할 때 주로 머물렀고,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도 자주 들렸던 곳이다. 따라서 우재는 관료생활을 하면서 당시 명현(名賢)들과 두루 사귐을 맺고 잦은 내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재 역시 논저(論著)에 대한 글이 거의 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 시대 경주 유학은 회재 이언적을 정점으로 하여 논할 수밖에 없다.

1) 제가학파(諸家學派)

⑴ 이언적(李彦迪)의 태극론(太極論)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 1491~1553]의 자는 복고(復古)이고 시호는 문원(文元)이며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양좌동에 태어난 그는 23세 되던 계유년(1513)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 별시에 급제했다. 그는 권지교서관부정자(權知校書館副正字)에 임명되었다가 을해년(1515)에 경주 주학(慶州州學) 교관으로 뽑혀 벼슬을 시작하였다.

정축년(1517) 설날 아침에 그는 스스로 학문과 도덕적 실천이 부진할까 두려워하여 하늘을 경외하고[畏天], 마음을 수양하며[養心], 자신을 공경하고[敬身], 허물을 고치며[改過], 의지를 독실히 할 것[篤志] 등 「원조오잠(元朝五箴)」을 지어서, 학문을 하되 성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는 곧 자신을 범인에 국한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옛 성인을 스승으로 삼되 죽은 후에야 그만 둘 것이다 하여, 자아의 이상적 인간의 목표가 성인이 되는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회재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 『봉선잡의(奉先雜儀)』, 『구인록(求仁錄)』, 「진수팔규(進修八規)」,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등의 저술은 모두 만년에 강계부 귀양지에서 지은 저술이다. 그러나 회재의 사상과 학문을 논할 때 이들 저서보다 27~28세의 젊은 때에 지은 「무극태극론변(無極太極論辨)」을를 더 비중 있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 퇴계가 지은 회재의 행장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그 정미하고 깊은 견해와 홀로 터득한 오묘함은 망기당 조한보와 무극 · 태극을 논한 편지 4~5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 편지에서 한 말은 우리 도(道)의 본원을 밝히고 이단의 그릇된 주장을 물리쳤다. 정(精)하고 미(微)함을 꿰뚫고 위와 아래로 관철하여 순전히 모두 유가(儒家)의 바른 도(道)에서 나왔다.

퇴계는 그의 논저에 대해 유가 철학의 본원을 천명하고 이단의 사설을 물리쳤다고 극찬하고, 정여창(鄭汝昌), 김굉필(金宏弼),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회재를 동방의 사현(四賢)으로 추앙하였다. 따라서 회재는 이미 20대의 젊은 나이에 학문의 오묘한 뜻과 사도(斯道)의 올바른 길을 정확하게 체득하고 있었다. 그의 이같은 사상이 후세의 유학자들로부터 "동방에서 그를 따를 사람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망재(忘齋) 손숙돈(孫叔暾)은 우재 손중돈의 아우이고, 망기당 조한보는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퇴학 당하여 향리에 은거하고 있을 때이다. 이들은 무극 · 태극에 대해 논변하면서, 망재는 송나라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의 학설을 따랐고, 망기당은 불가와 도가 사상의 영향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이 논한 글을 본 회재는 바로 「서망재망기당무극태극설후(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란 글을 지어 두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자, 망기당은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망기당과의 논변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네 차례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망기당의 글은 전하지 않고, 회재가 답한 네 차례의 글만 전하고 있다. 이 답서를 통해서 망기당이 주장한 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송나라 주돈이(周敦頤)가 지은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란 말이 첫 머리에 나온다. 이를 두고 육상산은 '무극(無極)'은 본래 유가 경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도가의 전적에 있는 말이니, 주돈이의 이 글은 도가의 이론적 바탕에서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희는, 복희씨가 8괘를 긋고, 문왕이 괘사를 연역하고, 공자가 계사를 쓴 것은 역대 성인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계발(啓發)한 것으로, 주돈이가 무극이라고 한 말은 송나라 시대 우주론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태극만 말하고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이 하나의 개체가 되어 만화(萬化)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무극만 말하고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무극이 공적(空寂)에 빠져 역시 만화(萬化)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다고 했다. 이를테면 망재와 망기당 역시 이 '무극(無極)'이란 두 자를 노불(老佛)의 허무적멸(虛無寂滅)에서 입장을 취하여 이해하려 했다. 여기에서 회재는 이렇게 말했다.

> 이쪽[儒家]의 허(虛)는 허(虛)이지만 유(有)이고, 저쪽[老佛]의 허(虛)는 허(虛)이면서 무(無)이다. 이쪽의 적(寂)은 적(寂)이면서 감(感)이고, 저쪽의 적(寂)은 적(寂)이면서 멸(滅)이다. 피차 허적(虛寂)은 같은 허적(虛寂)이지만 그 귀추는 현격하게 달라 진실로 분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무극이라고 한 말은, 다만 이 이(理)의 오묘함이 형체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을 형용했을 뿐이니, 저쪽이 말하는 무(無)와 다르다. 그러므로 주희는, 노자의 유무(有無)는 유무를 둘로 보고 한 말이고, 주돈이가 말한 유무는 유무를 하나로 보고 한 말이라고 했다. 이는 남과 북 또는 물과 불처럼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니,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의 정미한 관찰과 명백한 논리는 모두 유가의 올바른 도(道)에서 나온 것으로, 앞사람이 깨닫지 못한 독득(獨得)한 실지가 없었다면 능히 이같이 입언(立言)할 수 있었으랴. 본디 이 「무극태극논변(無極太極論辨)」의 글은 회재의 문집에 모두 수록돼 있다. 회재의 손자 이준(李浚)이 일찍이 이 글을 깨끗이 베껴 한 책자로 만들어 퇴계에게 가지고 가서 질정을 청했다. 퇴계는 이를 읽어보고, 회재의 학문이 이같이 깊은 줄 몰랐다 하며 크게 찬탄했었다.

그 후에 이준은 이를 다시 한강(寒岡) 정구(鄭逑)에게 보였다. 한강은, "주희가 육상산과 논변한 무극태극설의 몇 편이 전하고 있다. 따라서 주희와 회재가 전후 논변한 이 글을 모아서 상 · 하를 나눠 한 책으로 만들어 간행하는 것이 사도(斯道)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은 또 한강에게 서발의 글을 청했으나 한강은 곧 운명하고 말았다. 이준이 다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에게 청하여 지(識)를 받고, 임술년(1622)에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에게 서문을 받았다.

그 해 가을에 관찰사 김지남(金止男)이 옥산서원에 와서 묘우를 배알하고 다시 독락당을 찾았다. 이때 이준은 이 책을 내보이며 회재의 저서 가운데 유독 이 글만이 나오지 않았다 하며 간인(刊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지남은 흔쾌히 허락하고 책을 가지고 가서 계해년(1623)에 화산부[花山府 : 安東]에서 이 책을 간행하니, 『태극문변(太極問辯)』의 초간본인 화산본(花山本)이다. 그러나 화산본은 책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인년(1782)에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이른바 옥산본(玉山本)이다.

옥산본이 간행된 지 불과 6년이 지난 뒤 정미년(1787)에 성주 회연서원(檜淵書院)에서 다시 옥산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고정(考訂)」을 붙인 뒤 『태극문변(太極問辨)』을 펴낸 것이 회연본(檜淵本)이다.

옥산본과 회연본이 나오게 된 배경은 『태극변무록(太極辯誣錄)』에 자세히 실려 전한 것으로, 조선조 후기 선현(先賢)에 대한 명분을 두고 야기된 논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⑵ 권석물(權碩物)

동은(東隱) 권석물[權碩物:1613~1674]의 자는 관지(貫之), 호는 동은(東隱),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그는 사종형 수졸재(守拙齋) 권휴(權休)에게 글을 배우고 학문을 토론하고 성리서를 연구했다. 특히 심학(心學)을 공부하면서 문밖의 일은 모르고 잠심했다.

「이기이기설(理氣二氣說)」을 지어서 음양과 흑백의 논리를 구별하며 스스로 즐거워했고, 「삼인설(三忍說)」을 지어서 자신이 행해야 할 도리를 성찰했다. 또 「천군대고(天君大誥)」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나타냈다. 동은은 시(詩)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성정(性情)에 감흥이 있으면 시를 읊었으나 곧 이를 버리곤 했었다.

계미년(1643)에 어머니 상을 당하고 이듬해 아버지의 상을 입었다. 그는 시묘를 하면서 조문객을 받으니, 사람들이 '효자' 라고 하며 칭찬했다. 상제의 예를 모두 옛 사람의 절차에 따랐으나, 상기를 마친 뒤 그는 가난으로 인해 여한이 없을 수 없었다. 마침내 통한의 슬픔을 안고 매년 기일에는 호곡을 멈추지 않았다.

앞서 병자년(1636)에 청나라 병사가 쳐들어오자, 인조가 도성을 비우고 남한산성에 갇혔다가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 동은은 곰쓸개를 맛보는 분통을 느꼈으나 당시의 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경기도 광주 옛 집을 버리고 가족을 거느린 채 천 리를 떠나 경주로 내려왔다. 양북면 구길리(九吉里)에 이른 그는, "산은 궁벽하면서 물이 넓고 성시(城市)가 까마득머니, 내 한 몸을 감추기에 족하다"하고, 마침내 성명을 숨겼다.

그는 「이기설(理氣說)」에서, 무른 기(氣)는 기(器)이며 기(機)이고, 이(理)라는 것은 기(氣)에 묘한 것이다. 이는 진(眞)이고 기는 적(迹)이다. 진이 나타나면 올라가고, 적이 나타나면 내려간다. 이가 부여하게 되면 기는 반드시 화(化)하고, 기가 화하게 되면 이도 또한 부여받는다.

혹자가 말하기를 "이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 하면 옳다. 그러나 가까운 데를 말하고 먼 데를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은 천지 만물의 이치가 서로 뒤섞여 같지 않는 것은 기(氣)가 그렇게 된 것이다"고 했다.

이에 동은은 "천지 만물의 기(氣)는 뒤섞여 같이 않는 것은 이(理)가 그렇게 된 것이다. 천지 사이에는 두 기(氣)일 뿐이다. 하늘에 있으면 음양이고 땅에 있으면 강유(剛柔)이며 사람에게 있으면 건순(健順)이다. 두 기가 나뉘면 목화금수토(木火金水土)의 오행(五行)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고 열매를 맺고 싹이 튼다. 생생지리(生生之理)가 다하지 않는 것이 목(木)이다. 그러므로 목은 하늘에 있으면 원(元)이고 사람에게 있으면 인(仁)이다. 찬연한 빛이 있으나 범하기 어렵고 꺼지지 않는 것은 화(火)다. 그러므로 화의 이치는 하늘에 있으면 형(亨)이고, 사람에 있으면 예(禮)이다. 강유가 정직하고 만물을 제단하는 것은 금(金)이다. 그러므로 금의 이치는 하늘에 있으면 이(利)가 되고, 사람에게 있으면 의(義)다. 흐르고 스며들며 만물을 성장시키는 것은 수(水)다. 그러므로 물의 이치는 하늘에 있으면 정(貞)이고, 사람에게 있으면 지(智)다. 실제 그 덕이 있고 만물을 발육하며

쉬지 않는 것은 토(土)다. 그러므로 토의 이치는 하늘에 있으면 성(誠)이고, 사람에게 있으면 신(信)이다. 이를테면 오덕(五德)은 이(理)고 오행은 기(氣)다. 이러한 이(理)가 있으면 이러한 기(氣)가 있고, 이러한 기(氣)가 있으면 곧 이러한 이(理)가 있다. 앞서 말한, 이른바 이가 부여하게 되면 기는 반드시 화(化)하고, 기가 화하게 되면 이도 또한 부여받는다는 것이 이것이다"고 했다. 후세 경주 선비들이 동은을 말할 때 곧잘 이 글을 두고 높이 평가하였다.

(3) 한여유(韓汝愈)

둔옹(遁翁) 한여유[韓汝愈 ; 1642~1709]의 자는 상보(尙甫)이고 호는 둔옹(遁翁)이며 본관은 곡산(谷山)이다. 그는 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월성 이씨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는 책 읽기를 시작하자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고 스승을 좇아 『소학』을 배우게 하니, 그는 밤낮으로 익히며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장하여 개연히 위기(爲己)의 학(學)에 뜻을 두니, 그 학문은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므로 실천할 줄 알았고, 그 말은 본성에 가까우며 꾸밈이 없었다.

그가 54세 되던 을해년(1695)에 모부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신녕현 동당시(東堂試)에 응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거의 완성했을 때, 홀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과지를 탈취하여 달아났다. 그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 어찌 명리(名利)로써 남들과 다툴 수 있겠는가"하고, 마침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성현의 글을 읽는데 전념하였다.

그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어려운 글이라도 쉽게 풀리고, 마음이 흩어지면 쉬운 글이라도 깨닫기 어려우니, 마음을 굳게 가지지 않을 수 없다"하고,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알아야 하며, 내 자신에 절실하지 않는다 하여 배우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둔옹은 「제회재선생개정대학후(題晦齋先生改正大學後)」에서 회재의 『대학』 차서(次序)는 백세 후에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경사기의(經史記疑)」에서 『시경』, 『논어』 등 경사에 난해한 문구를 지적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혀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양, 역상(易象), 병진(兵陣), 성률(聲律)에 이르기까지 연찬하여 터득하지 않는 바 없지만, 특히 일생을 통하여 『주역』의 논구에 많은 열정을 쏟았다.

특히 둔옹의 역학관은 음양의 운용과 수리(數理) 및 하락(河洛)의 선천도에 그

사상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즉 의리적(義理的) 입장보다 상수적(象數的) 관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인데, 이 내용의 주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권4의 「잡도변해(雜圖辨解)」이다.

그는 「지우도(智愚圖)」, 「거경도(居敬圖)」, 「천지화생만물지도(天地化生萬物之圖)」 등 19개의 제목을 통해 주제 의식에 따른 본질적 요소를 산술적으로 조리 있게 풀이하고, 어떤 것은 한눈에 환연히 알 수 있도록 사변적 전개 과정을 도식으로 그려 그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를테면 「지우도」에서, 성인(聖人)의 마음은 순일(純一)하여 만변(萬變)에 통달하고 만사가 순리대로 응하는 혼연의 태극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자는 전체가 소융(昭融)하지만 간혹 사의(私意)가 생겨나는데, 이러한 맹아를 그림에서 검은 두 점으로 찍어서 표시하였다. 다음은 수사(秀士)로서 이성(理性)에 대하여 반은 알고 반은 알지 못한다 하여, 흑백 상태를 절반으로 그려 두었다. 마지막으로 중인(衆人)의 마음은 모두 검은 바탕으로 나타내고 상단 부위에 흰 두 점을 찍어서 간혹 한 번씩 본성을 나타낼 때가 있음을 뜻하였는데, 이는 군자와의 대칭관계로 그린 것이다.

그리고 둔옹은 「건곤변(乾坤辨)」에서, '천지 사이에 오직 음양만 있을 뿐'이라 하고, "건(乾)의 획이 실(實)한 것은 성(誠)이 되고, 곤(坤)의 획이 허(虛)한 것은 경(敬)이 된다. 그러므로 건괘 92효에 성을 말하였고, 곤괘 62효에 경을 말하였다. 이 성과 경이 육십 이괘의 중정(中正)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둔옹의 이 같은 학설은 선인들이 이미 주장한 내용이 많고 또한 지나치게 그 말이 번잡하여 '첩상(疊床)'의 혐의가 없지 않았다고 했다.

둔옹은 특별한 사우(師友)의 가르침 없이 오로지 잠심하여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궁극의 경지에까지 이르렀고, 이같은 그의 학문적 깊이와 넓은 경지로 인하여 후인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추앙을 받았다.

그는 또한 지수(篪叟) 정규양(鄭葵陽)과 교분이 두터웠다. 정해년(1707)에 아들 한익신(韓益新)을 영천 횡계로 보내 빌려온 『계몽의의(啓蒙疑義)』를 지수에게 도로 돌려준 사실이 있고, 권 5에는 모두 지수와 내왕한 편지만 싣고 있다.

둔옹이 보낸 편지는 3편에 불과하지만 별지와 도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매우 많다. 특히 「여정지수별지제이(與鄭篪叟別紙第二)」에는 무려 다섯 편의 논저를 써서 보냈고, 아울러 지수의 글도 부록해 두었다. 둔옹은 사후 107년이 지난 무진년(1749)에 '호학다문 사친지효(好學多聞 事親至孝)'로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었다.

(4) 최남중(崔南重)

허재(虛齋) 최남중[崔南重 ; 1674~1740]의 자는 대진(大鎭), 호는 허재(虛齋), 본관은 월성(月城)이다. 그의 집은 황오리에 있었다. 읍성과 시장이 가까워 문밖으로 나가면 온갖 물건이 다 있었으나, 일체 못본 체 했다.

성장하면서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알았고, 문장이 또한 크게 발전했다. 주위에서 그에게 기대한 바가 컸으나 향시에 합격하고 회시에 가서는 낙방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편안한 듯 "나라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이 오직 과거 한 가지 뿐이다. 앞 시대의 훌륭한 선배들이 모두 이를 통하여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한 번 발을 들여놓으니,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거문고를 몰라주는 것과 같았다. 이런 처지라면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의 뜻을 알고 문천 가에 서재를 짓고, 그로 하여금 오로지 학문에 힘쓰게 했다. 이에 그는 과거 공부를 버리고 성인(聖人)의 초상을 모사해서 걸어두고 조석으로 대하며 심학(心學)에 열중했다.

또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와 회재의 「위육설(位育說)」 및 퇴계의 「인설(仁說)」을 베껴 두고 항상 보면서 학문의 요체로 삼고, "세 선생의 말씀을 구하면 충분히 스승이 될 텐데, 굳이 현재 사람을 찾아가 속수의 예를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하고, 혼자 탐구하며 인륜을 극진히 하는데 그 준칙을 삼았다. 문천 서재는 아버지가 계신 집과 좀 떨어졌으나 정성을 폐하지 않았다. 두 형을 섬기며 우애가 워낙 두터워 30여 년을 같이 지내고, 한 번도 언사에 있어서 거슬림이 없으니, 이웃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감화를 받았다.

정해년(1707)에 아버지 상을 당하고 경인년(1710)에 또 모상을 입었다. 6년 간 상제를 하루같이 예에 따라 정성을 다했다. 복을 마치자 그는 서제를 어동(魚洞)으로 옮겨 짓고 편액을 '허재정사(虛齋精舍)'라 했다. 그 기문에 이르되, "그릇은 비워야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종은 속이 텅 비었으므로 소리가 난다. 못은 비워야 물을 받아들이고, 불은 속이 텅 빔으로써 밝음을 나타내니, 이것으로 내 자신을 반성하며 탐구할 것이다. 사람 마음은 본래 텅 비었다. 나는 장차 빈 데(虛)를 좇아 나아가겠다"고 했다.

무극 태극의 이치를 음양(陰陽), 이기(理氣), 심성(心性), 의정(意情), 도덕(道德), 체용(體用), 합벽(闔闢), 표리(表裏) 등 요지에서 찾고, 그 논변을 모두 도식화하여 총 내외 152개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 그림에 제사(題辭)를 붙여 의미가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는 선유들의 논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허재는 또 『중용』과

『대학』의 한 자와 한 구에 이르기까지 방기(放棄)하지 않고 연구하였고, 『논어』, 『맹자』, 『시경』, 『주역』, 『예기』, 『춘추』 및 성경(誠敬), 위의(威儀), 선악(善惡), 정변(正變), 오행(五行), 오상(五常), 오품(五品), 사덕(四德)의 요지를 깊이 규명했다.

그는 "밝음에서 성(誠)을 하고, 경(敬)에서 성(誠)을 한다. 욕심을 적게 하면 진성(盡性)에 이르고, 마음을 잘 닦으면 양성(養性)에 이른다. 이것이 모두 성인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이를테면 그는 일상 생활이 바로 존심양성(存心養性)이요, 학문의 범주가 궁리와 격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허재는 "마음의 체(體)는 지극히 밝다. 그 밝음을 깨끗한 물에 비할 수 있으나 물은 때때로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고, 마음을 맑은 거울에 비할 수 있으나 닦지 않으면 먼지가 끼어 어두워지는 것이다. 다시 이를 해와 달에 비한다면 거의 형용에 가깝지만, 이 또한 일식과 그믐이 있어서 본연의 체를 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은 태허(太虛)에 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하여 「심여태허설(心如太虛說)」에서 밝히고 있다.

그의 문집을 보면 이기(理氣)와 심성 등 유학의 핵심적 본령을 논한 140여 편을 남겼다. 권 1에 있는 52수의 시 또한 모두 성정(性情)으로 느끼고 읊은 철리시(哲理詩)이고, 단순히 교우시나 사물을 음영한 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허재는 「고양정기(高陽亭記)」를 남겼는데, 고양정은 곧 팔우정(八友亭)이다. 이 글에서, 황오리(皇吾里)는 본디 최씨가 세거하였다. 마을 가운데 높은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여덟 가지가 뻗은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곳에 정자를 짓고 '고양정(高陽亭)'이라 불렀다.

(5) 남용만(南龍萬)

남용만[南龍萬 ; 1709~1784]의 자는 붕로(鵬路), 호는 활산(活山), 본관은 영양(英陽)이다. 그는 어려서 불국사를 내왕하며 글을 읽었다. 14세 때 영해에 사는 당숙의 후사로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종조부 수약당(守約堂) 남제명(南濟明)에게 수학했다. 후에 가족을 데리고 경주 명활산(明活山) 아래 덕계(德溪)로 내려오니, 곧 이른바 보문 남씨의 입향조가 되었다. 명활산을 이름으로 취해 자호를 '활산(活山)'이라 하고, 서재를 '한한정(閒閒亭)'이라 했다.

그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거친 밥을 먹어도 궁색한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단정히 앉아 성현의 책을 읽고, 더욱이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 힘쓴 바가 깊었다. 또한 회재가 지은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를 본떠서 『대학장구난의(大學

章句難疑』를 지으니, 아는 사람이 읽어보고 그 정밀함에 탄복했다. 향시에 여러 번 합격했으나 회시에 불리했다. 이는 부모상을 거듭 당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병자년(1756)에 형제들의 권유에 의해 응거하여 생원시에 합격했다.

신축년(1781)에 나라의 재변(災變)으로 정조가 신하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이에 활산은 1만여 자에 달하는 10조목 소를 올렸다. "임금은 나라의 기강이고, 마음은 일신(一身)의 기강입니다. 그러므로 대순(大舜)이 말한 인심과 도심은 요(堯)의 집중(執中)을 이어받은 것으로, 대개 일신의 기강부터 먼저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를테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임금이 먼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경(敬)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며, 이렇게 나아가면 10조목이 행해지고 나라의 재앙도 자연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상소문은 안타깝게도 경상도 감영의 저지로 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는 성품이 호탕 솔직하며 일찍이 남에게 자랑하는 빛이 없었고, 감히 오만한 행동이나 비속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남들과 더불어 농담하는 일이 없었다. 평생 토록 좋아하는 물건이 없었고, 좋은 의복과 성색(聲色)을 뜬구름 보듯 했다. 다만 산림(山林)의 뛰어난 곳을 보면 곧 흔연히 돌아갈 바를 잊었다.

만년에 암곡 지연(止淵) 수석(水石)을 좋아하여 지연정(止淵亭)을 짓고 그 속에서 여생을 마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오로지 학문 연마와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따라서 그는 경학(經學)과 시문학에 괄목할 만한 저술을 남겼다.

그의 아들 남경희(南景羲)가 「활산어록(活山語錄)」을 남겼다.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부자의 문답이 나온다. 경희가 묻기를 "석전(釋奠)의 '석(釋)'은 어디에서 나온 뜻입니까"하자, 활산은 "석전례에는 모두 삶은 음식을 쓰지 않는다. 석(釋)은 '석(淅)' 자의 뜻으로, 쌀을 물에 씻지만 아직 밥을 짓지 않는 상태이다. 『시경』「대아」에 '쌀을 씻고 인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고, 또 석채(釋菜)의 '채(菜)'는 산나물(生菜)을 뜻한다."고 말했다. 경희가 또 묻기를 "퇴계 문하에는 자제들이 많고, 회재 문하에는 어찌해서 제자가 적습니까?"하자, 그는 "퇴계는 도학(道學)을 자임하였고, 회재는 경제(經濟)를 스스로 기약했다. 그러나 회재는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여 바로 성현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어찌 문인이 적은 것으로 의심을 가지겠는가?"고 했다.

활산은 학문하는 자세가 철저했다. 그는 "학문하는 방법은 어렵고 의심나는 부분〔難疑〕을 연구해서 밝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의심이 있으면 정주(程朱)의 학설이라도 마땅히 자기의 견해로써 참고하여 그 이치를 규명해야 할 것이

다. 지금 사람들은 선배 학설이라면 의심된 것이 있어도 감히 비판하지 못하니, 이는 학문을 연구하고 이치를 밝히는 방법이 아니다. 의심나는 뜻을 연구해서 밝히는 것은 의심나는 곳이 없는 경지에 이름을 구하는 것이다. 『논어』가 얼마나 존귀한 책인가? 그렇지만 『논어』를 읽고 의심을 가진 연후에야 학문에 전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활산은 정주의 기본 학설에 따라 경전을 연구하지만, 의심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학자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

『논어』 향당편(鄕黨篇)에 "자신을 해칠 기미를 보면 곧 날아서 빙빙 돌아다니며 관찰한 다음 내려앉는다.(色斯擧矣 翔而後集)"는 말이 있다. 선유들은 앞뒤 문맥을 보면 글이 빠졌다고 하고, 주자는 제가 학설을 인용했지만 절충하지 않고 자세히 알 수 없는 글이라고 했다. 그러나 활산은 뒤 문장 '왈산량자치(曰山梁雌雉)…' 와 선후 뒤바뀐 글로 해석하고, '왈(曰)' 자 앞에 '자(子)' 자를 보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같이 주자의 주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경전을 읽다가 의심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자기의 학설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글을 묶은 글이 『경의난의(經義難疑)』란 책이다.

(6) 최남복(崔南復)

도와(陶窩) 최남복[崔南復 ; 1759~1814]의 자는 경지(景至), 호는 도와(陶窩), 본관은 월성(月城)이다. 내남 이조리(伊助里)에서 태어난 그는, 임자년(1792)에 생원시에 합격하니 그의 나이 34세다.

그는 진취에는 뜻이 없고 어버이 묘소 아래 작은 서재를 짓고 스스로 호를 '도와(陶窩)' 라 하고, "네 모습은 지극히 완고하고, 네 마음도 매우 비웠구나. 마땅히 너는 흙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고 명(銘)을 지었다. 그리고 일체의 명리와 득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책을 읽다가 뜻에 맞는 어구가 있으면 침식을 잊었다. 마을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배움을 청하면 그 자질에 따라 순순히 가르치되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당숙인 질암(質庵) 최벽(崔璧)은 묘년에 문과 장원급제한 수제였으나 크게 현달되지 못하고 52세 때 죽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도와는 그의 묘비 등 글을 써서 천양하고, 그 자제들을 온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도와는 용암 최기영과 근암 최옥 등과 교의가 두터워 백련서사에서 와룡암, 그

리고 용담정을 오가며 창수(唱酬)한 많은 시편을 남겼다. 그는 또 전아한 서체로 유명하였다. 지난 2000년에 후손 최창규(崔昌圭)가 발행한 『도와최남복선생필첩(陶窩崔南復先生筆帖)』을 보면, 「난정집서(蘭亭集序)」와 구양순(歐陽詢)의 「팔법서법론(八法書法論)」 등이 수록돼 있는데 완연히 어제 쓴 듯 생동감이 있다.

부윤 이채(李采)가 향음례를 열었을 때 도와는 주사(主事)를 맡겼고, 의학에 능해서 산후나, 두과(痘科) 및 소아 질병을 잘 다스려 여러 사람이 효험을 보았다. 그 밖에 치암 남경희, 면암 이우와 가까웠고, 선조(先祖) 정무공 유허비를 세우는데 큰 힘을 썼으며, 자녀 교육과 집안의 규범이 되는 「내범편저(內範篇著)」를 지었다.

그가 답한 「답유이호(答柳彝好)」와 「답녕춘군(答寧春君)」의 편지를 보면, 도와는 젊은 시절 문장학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연만하여 역학 등 도학을 깊이 연구했는데, 곧 인문입도(因文入道)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사상은 권5 잡저(雜著) 중 「하락도설(河洛圖說)」과 「무극태극설(無極太極說)」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하락도설(河洛圖說)」의 글에, "천지가 있는 후로 이(理)와 기(氣)가 있고 상(象)과 수(數)가 있다. 상(象)이란 이(理)가 사물에 형상하여 드러난 것이고 수(數)란 이(理)가 사물에 붙어[寓] 서열된 것으로, 그 드러남과 서열이 바로 기(氣)이다"고 했다.

이어서 도와는, 성인이 계천입극(繼天立極) 앙관부찰(仰觀俯察)하여 상수에 의해 그 이(理)가 밝혀지는 것이며 천하의 도(道)가 이기상수(理氣象數)에 벗어난 것이 없다고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오묘하고 정미한 것이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라 했다.

그렇다면 이 하락상수(河洛象數)에 바탕을 둔 역학 전개는 어디에서 그 연원을 찾아야 옳은가. 「서경(書經)」, 「예기(禮記)」, 「논어(論語)」 등 유가 경전이 처음 등장할 때 하도낙서는 이러한 도서역학적(圖書易學的) 상수론의 의미를 지닌 철학이 아니고, 단순히 신성(神聖)하고 서상적(瑞祥的)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했다. 이를테면 공자의 십익(十翼)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 「계사전(繫辭傳)」이 만들어진 시기와 작자의 진위에 대하여 간혹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글에서 하도 낙서가 천지의 생성변화(生成變化)의 표상과 인사의 길흉을 판단하는 척도로써 성인이 법칙으로 삼는 대법(大法)의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유가 경전의 본래 의미가 역학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통찰 사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자의 『역학계몽(易學啓蒙)』에 잠심 · 완미하여 깊이 연구하고, 선유(先儒)의 학설을 참고하여 강학 텍스트를 삼으려 이 글을 지었다고 말미에 덧붙였다.

(7) 이회경(李晦慶)

이회경[李晦慶 ; 1784~1866]의 자는 서구(敍九), 호는 학남(鶴南),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그는 19세 때 병곡[盍谷] 유범휴(柳範休)의 문하에 들어가 『소학』과 『대학』을 차제에 따라 수업하였다. 뒷날 집으로 돌아온 후 병곡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강질(講質)한 글을 모아 『입설록(立雪錄)』이란 책을 엮었다. 계미년(1823)에 호곡이 돌아가자, 그는 과거에 응하지 하고 남의 잔치에도 가지 않으면서 3년 간 심상(心喪)하며 정성을 다했다.

그가 약관 때 매곡서사(梅谷書社) 강회에 참석하니, 당시 강장(講長)은 남와(南窩) 정동필(鄭東弼)이었다. 『대학』을 강했는데,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다.(視而不見 聽而不聞)' 는 글을 보고, 모인 유생들이 모두 '시청(視聽)' 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홀로 '견문(見聞)' 이 중하다고 하고 "마음에 없는데 어찌 눈으로 볼 것이며 귀로 들을 수 있는 이치가 있겠는가?"하자, 여러 사람들이 그의 논리에 탄복했다.

학남은 세속의 명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조문록(朝聞錄)」, 「이학총도(理學總圖)」, 「홍범도설(洪範圖說)」, 「연우문답(蓮友問答)」, 「원치(原治)」, 「이문록(異聞錄)」 등의 저술을 남겼다.

학남은 성학(聖學)이 후학에 전수한 것은 심(心)에 있고, 심의 주체는 경(敬)이라고 했다. 따라서 경전의 수많은 말이 천일합일(天人合一)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또한 하락(河洛)에 그 근원을 두고 있지만 역시 '경(敬)' 자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경에 대해 깊이 연찬한 나머지 우연히 한 송이의 꽃을 선도산(仙桃山)에서 얻었는데, 이를 효도(橈桃)라 하고 또는 선지(鮮支)라 한다. 세상에서 말한 치자(梔子)는 다만 황색으로 물들어져 있을 뿐이다. 이 꽃의 오묘한 이치는 마도(馬圖)와 귀문(龜文)과도 같아서 손바닥 위에 두고 40여 년 간 관찰했다.

그런데 이 꽃은 아홉을 이고 하나를 밟고 있는 모양[戴九履一]이었다. 중간에 한 줄기가 곧게 솟아서 꽃이 피고, 두 잎이 두 갈래로 뻗었지만 여섯 꽃이 하나를 싸고 있어서 안에는 여덟 잎이고 중심권은 아홉이었다. 참으로 오묘하였다.

다시 이를 차례대로 살펴 보면, 중심의 첫 번째 둘레는 군사(君師)의 자리이고, 그 다음은 옥조(玉藻)의 구용(九容), 『논어』의 구사(九思), 『대학』의 팔조목(八條目), 『중용』의 구경(九經), 구주(九疇) 등의 순으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추리하고 연역하여 그림으로 완성시킨 것이 이른바 「천화도(天花圖)」다. 이는 소옹의

『황극경세』를 그 이론적 바탕으로 삼은 것으로, 천화(天花)는 곧 심(心)의 요체로 풀이하고 있다.

즉 학남은 일생 동안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실천에 옮기고 이를 체득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그가 온 정력을 기울여 남긴 것이 '천화(天花)'에 관한 글이다. 곧 그의 문집 권 5에 실린 「천화도(天花圖)」, 「천화만수일관도(天花萬殊一貫圖)」, 「천화보전(天花寶詮)」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를 깊이 숨겨두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학남의 이 글은 바로 경세서(經世書)로, 『황극경세』의 책을 남긴 송나라 소옹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은 글인지 모른다. 참판 송정화(宋廷和)가 이 소문을 듣고 얻어 본 후 「천화도(天花圖)」의 발문을 지으면서, "만세(萬世) 경륜(經綸)의 조목(條目)이다"고 평가했다.

(8)이종상(李鍾祥)

이종상[李鍾祥 ; 1799~1870]의 자는 숙여(淑汝), 호는 정헌(定軒),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그는 7세 때 「연명(硯銘)」, 10세에 「천지찬(天地贊)」과 「공자찬(孔子贊)」, 11세 때 「호연지기책(浩然之氣策)」을 지었을 정도로 학문에 뛰어났다. 무신년(1812)에 아우 희암 이우상과 더불어 『회재선생문집』 가운데 '집(集)' 자와 '중(中)' 자의 운을 빌려 연작시를 지었다. 당시 덕계 남봉양과 창려 이정기는 노유(老儒)였지만 향교에서 의견을 모을 때 반드시 정헌을 불러 물어보았을 만큼 이름이 높았다.

그는 신묘년(1831)에 부친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진사시에 응하여 합격했으나, 곧 대과 공부는 포기하고 성리(性理)를 궁구하였다. 당시 큰 학자로 알려진 대산(臺山) 김매순(金邁淳)이 경주 부윤으로 부임하여 분황사에서 시회를 열어 정헌과 『근사록』을 강론하였고, 또한 그는 「태극치성설(太極稚盛說)」을 지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문답하였다.

그의 나이 38세 되던 병신년(1836)에 장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은하고 곧 돌아왔다. 경자년(1840) 봄에 장수(莊修)의 뜻을 갖고 금오산 동쪽 기슭에 태초암(太初庵)을 지었다.

3월에 화재로 소실된 옥산서원 구인당(求仁堂)이 중건되었다. 왕명에 의하여 관찰사 김도희(金道喜)가 다시 현액하고 선비를 불러 백일장을 베풀며 낙성했을 때, 정헌은 관찰사를 대신하여 고묘문(告廟文)을 지어 올렸다.

정헌은 수년 동안 역학에 대하여 깊이 연찬한 끝에 그의 나이 44세되던 임인년

(1842)에 『역학라작(易學蠡酌)』을 완성하였다. 그는 이를 완성한 후 서문에, "괘례(卦例)와 효정(爻情)이 상전(象傳)과 범례(凡例)와 더불어 역을 읽는 사람의 좁은 식견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자가 있다. 이는 간혹 선유(先儒)들의 주석 이 외에서 나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를 감히 드러내 논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깊이 생각하고, 사색한 끝에 터득한 바가 있으면 곧 차록(箚錄)해 두는 것은, 선유들이 일찍이 허락한 것이다"하여, 본 책의 찬술이 앞 시대 유학자들이 논한 학설에 어긋남이 없고, 또한 역을 공부하는 후인들에게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는 첫 장에 이어서 「팔순괘범례(八純卦凡例)」, 「오위일효범례(五位一爻凡例)」, 「상전용자개유범례(象傳用字皆有凡例)」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 가운데 (팔순괘범례) 중 건괘에서, "건괘 중 성대한 덕(德)은 5효에 있다. 단전(彖傳)에서 강건중정순수정(剛健中正純粹精)이라 한 것이 즉 이 효를 두고 말한다. 감(坎), 태(兌), 손괘(巽卦)의 구오(九五)에 강(剛)하고 중정(中正)이라고 했으나 순수(純粹)가 없다. 그러므로 건괘의 구오(九五)는 본괘의 성대한 덕이 될 뿐 아니라, 모든 괘의 으뜸이 되고 있다. 그 덕이 지극히 순수하고 그 상이 가장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괘에 가림(加臨)했어도 길(吉)하지 않는 바 없다"고 하였다.

곤괘(坤卦)에서, "곤괘의 성대한 덕은 예(例)로써 육이(六二)가 실제 마땅하지만 원길(元吉)의 점은 육오(六五)에 있고 육이(六二)에 있지 않는데, 이는 육이(六二)는 신하이고 육오(六五)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육오(六五)는 대순지순(大順至順)의 덕으로써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의상(衣裳)을 드리우고 천하를 다스리는 상이 있다. 그러므로 본괘에 황상원길(黃裳元吉)이라는 점이 되고, 다른 괘에 가림(加臨)했어도 역시 길하지 않는 바 없다" 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특히 육위, 팔괘, 상전 등의 용례(用例)를 규명하였고, 용례가 있는 곳에 즉 효사와 길흉이 유래한다고 하였다. 본디 『역학라작(易學蠡酌)』의 '라(蠡)' 자는 독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즉 '리'로 발음하면 '표주박', '려'는 '좀먹다', '라'는 '소라' 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는 작은 표주박 또는 소라 껍질로 바닷물의 양을 헤아린다[以蠡測海]는 뜻으로, 즉 관견(管見)과 마찬가지의 뜻이다.

자신의 천박한 지식으로 사물의 깊은 뜻을 짐작한다는 겸사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서명은 일반적으로 '역학라작'으로 부르고 있다. 마침 경주 부윤 박장복(朴長復)이 찾아와서 이를 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 아무개의 역설(易說)은 앞 시대 역학자들이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 학설로서, 이사(理辭)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후세 사람들은 반드시 이를 '이자라작(李子蠡酌)'이라 말할 것이다"고 하였다.

정헌의 학문적 세계는 호한(浩瀚)하다. 특히 그는 여러 해 동안 『주자대전』을 공부하였고, 이정(二程)과 소옹(邵雍) 등 제자(諸子)의 글을 읽으면서 그 학설에 따르며 연구하였다. 또한 그는 역학(易學) 가운데 상수역(象數易)에 대하여 용공(用力)한 바가 깊어서 환연히 자득(自得)의 경지에 이르렀다.

앞에 몇 가지의 논제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사상적 근거와 저술은 수리적 역학관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수많은 수재들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그들 중 성암 최세학과 사암 이재령 등의 제자들이 역학에 잠심하여 다수의 저술을 남기게 된 것도 실제 사생(師生)의 학맥이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밖에 정헌이 계해년(1863)에 지은 「금사학문(禁邪學文)」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옛날에 이단(異端)이나 사설(私說)은 오히려 이치에 근접하였으나 지금 양학(洋學)은 의리로 논한다면 학문이라 할 수 없는데도 사민(士民)이 모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반문하였다.

천주학(天主學)이 오히려 불씨(佛氏)의 천당이나 지옥보다 더 허탄하지만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사를 폐하려는 것은 묵씨(墨氏)의 그것보다 더 심하지만 근본을 망각하는 자들이 이에 의탁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요컨대 나라에서 이를 금지시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멸륜(蔑倫)하게 될 것이며, 결국 집집마다 양학에 젖어들고 말 것이라 일깨우고 있다.

2) 경주의 학맥(學脈)

조선시대 경주에서 스승을 좇아 가르침을 받고, 그 학맥을 이어서 후세에 전수시킨 학파는 크고 작은 여러 파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여기에 실을 수 없고 다만 몇 학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경주 유학자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회재 이언적이다. 퇴계가 지은 회재의 「행장」을 보면, 회재는 수수(授受)한 데 없고 스스로 노력하여 높은 차원의 도덕을 닦았다고 밝혔다.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에 회재의 스승으로 이진(頤眞) 김덕수(金德守)를 꼽고 있으나 이러한 연원(淵源)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알 수 없다.

박세채(朴世采)가 지은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에 회재 문인으로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 한 사람 뿐이고, 앞서 『동국문헌록』에는 귀봉과 함께 김자(金磁), 안경창(安慶昌), 이전인(李全仁) 등 네 사람을 기술하였다. 또한 『유학연원록(儒學

淵源錄)』에는 위의 네 사람 외에 배도(裵燾), 김세량(金世良) 등 6명으로 기록하고, 회재의 연원은 없다고 밝혔다.

사실 회재는 도학과 명망에 비하여 문인을 양성하지 못했다. 더구나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퇴계의 제자는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에 의하면, 무려 368명에 이르고 있다.

회재는 퇴계와 달리 그의 나이 40대 초에 6년 간 옥산에 머무른 것 외에 일생 동안 관계(官界)에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문인들을 대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회재의 사상을 말할 때 경세 철학(經世哲學)이라 운위하는 것도 실은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과 향유들 중심으로 회재의 「태극문변」과 「원조오잠(元朝五箴)」 등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찬과 논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둘째는 우암(寓庵) 남구명[南九明 ; 1661~1719]의 학파다. 그는 영해 원구리에서 문과에 합격한 후 처가가 있는 영지로 내려와 영지서당(影池書堂)을 개설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우암은 재주 통판과 순천 부사를 역임하였고, 그의 제자는 계옹(溪翁) 이헌속(李憲涑)과 역락당(亦樂堂) 김유일(金惟一), 남애(南厓) 이두원(李斗遠)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후 이곳 서당에서는 우암의 손자 활산(活山) 남용만(南龍萬)과 그의 아들 동계(桐溪) 남경채(南景采), 치암(癡庵) 남경희(南景羲), 그리고 덕봉(德峯) 이진택(李鎭宅) 등이 경사를 읽고 대 · 소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이곳 서당에서는 근래에까지 글 읽는 소리가 이어졌고, 또한 학계(學契)가 온존하고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는 내남 화곡리에 살았던 화계(花溪) 유의건[柳宜健 ; 1687~1760] 학파로, 그는 화곡서사(花谷書社)를 짓고 많은 후학을 지도하였다. 을묘년(1735)에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 그의 나이는 48세다.

그는 집 이름은 '문회암(文會庵)'이라 하고, 서재는 '난실(蘭室)'이라 불렀다. 그 주변에는 바위산과 석대(石臺)가 둘러싸였는데, 항상 그 속에서 거닐며 "비록 좁은 땅에 태어났지만 능히 천하의 책을 읽을 수 있으니, 또한 장관(壯觀)이 아닌가"하고, 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하여 보고, 읽으면 직접 베껴 놓았는데, 평생 필사한 책이 수 백 권에 이르렀다.

화계는 시문에 능하여 많은 시를 남겼다. 더욱이 두(杜) · 한시(韓詩)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이따금 불평할 일이 생기면 이들 시를 외며 울적한 심회를 달래곤 했다. 그는 『주역』에 용심(用心)한 바가 깊어서 「독역의의(讀易疑義)」, 「괘변의(卦變

義)」, 「선천변위후천설(先天變爲後天說)」 등을 지었다. 「독역해조(讀易解嘲)」를 보면, 그는 정전(程傳)과 본의(本義)를 가리지 않고 읽었다고 했으나, 실제 수리역(數理易)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그의 문인으로서 목재(牧齋) 황곡(黃斛) 등과 통도사의 승려 태감(太憨)과 황화(潢和) 등이 와서 글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그는 뇌진(雷震), 인한(印閒), 풍감(豊鑑), 도주(道周), 도태(道泰), 한영(漢英), 서봉(西峯) 등 많은 스님과 가깝게 지냈고, 최남도(崔南圖)와 한사언(韓思彦), 이덕록(李德祿), 손경걸(孫景杰), 남용만(南龍萬) 등과 절친하였다.

넷째는 정헌(定軒) 이종상[李鍾祥 ; 1799~1870]으로, 그의 학파는 19세기 경주 일원의 유림을 대표하고 있다. 당시 그의 문하에는 많은 선비들이 공부하며 학문을 토론하였다. 특히 정헌은 상수적 역학에 밝았고, 그 자신이 진작 『역학라작(易學螺酌)』을 남겼다. 그의 제자 사암(竢庵) 이재령(李在齡)은 일찍이 『역학기견(易學記見)』을 지었고, 성암(惺庵) 최세학(崔世鶴), 일암(一庵) 윤인석(尹仁錫), 경암(敬庵) 이재목(李在穆) 등도 역에 잠심한 바가 깊어서 여러 논저를 남겼다.

정묘년(1867) 2월에 정헌은 경주 향교 육영재(育英齋) 강장(講長)으로서 『근사록』 등을 강의했을 때 경주 지역의 많은 유생들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그는 자제들에게 "집안을 다스릴 때 반드시 효제근검(孝悌勤儉)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근검한 사람은 효제하는 이가 많지만, 근검하지 못한 사람이 효제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으니, 참으로 조심할 일이다."고 하며 사람이 행해야 할 도리를 직접 천리(踐履)하고 모범을 보였다.

일찍이 부윤 김매순(金邁淳)이 분황사에서 정헌과 그의 아우 희암(希庵) 이우상(李瑀祥), 오포(梧圃) 이호상(李琥祥) 등과 향중의 여러 선비를 불러 『중용』, 『대학』, 『심경』, 『근사록』 등의 책을 강의하고 시회(詩會)를 열었다. 이때 부윤은 이들 형제를 곧 '금곤옥계(金昆玉季)'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섯째는 경주 지방의 서호학파(西湖學派)다. 본디 경주 사류는 대부분 영남의 남인 계열에 속하고 있었으나, 이들 서호학파는 노 · 소론계의 인사와 연계하여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또 다른 당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둔옹(遁翁) 한여유[韓汝愈 ; 1642~1709]에서 비롯된다.

둔옹은 기미년(1679)에 우암 송시열을 엄정(嚴程)에서 만났다. 당시 우암은 갑인년(1674)에 효종비의 상으로 인하여 이른바 제2차 예송이 일어났고, 그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우암도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 삭출되었다. 을묘년(1675)에 그는 덕원으로 유배되었다가 후에 장기(長鬐)에 이배하였고, 다시 기

미년[숙종 5년(1679)]에 거제도로 옮겨갔다. 이때 우암이 경주를 지나가면서 서남산 기슭 포석정 부근에서 하루 묵고 갔는데, 둔옹이 이때 그를 만난 것이다. 그 뒤 경신환국(1680)으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 우암은 유배에서 풀려나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

기해년(1719)에 이르러 경주에 사는 진사 한시유(韓是愈) 등은 선정[先正 : 宋時烈]의 장구(杖屨)가 미쳤던 곳이라 하여 포석정 뒤 봉암산(鳳巖山)에 우암 영정을 세우고 봉암영당이라 하였다.

임인년(1722)에 부윤 권세항(權世恒)과 경주 사림들이 이를 훼철하고 한시유 등은 큰 수모를 겪었다. 3년 뒤 을사년(1725)에 부윤 이정익(李禎翊)과 일부 선비들을 중심으로 이를 중건하면서 이른바 을사사화[乙巳士禍, 일명 계림사화(雞林士禍)라 함]가 일어났다.

이 때 우암 영당은 봉암산 옛 터에서 상서장 서편에 인산영당(仁山影堂)을 세워 봉안하였고, 갑신년(1764)에 인산서원으로 승호하였다가 대원군 때 이는 훼철되었다. 이를테면 둔옹이 우암을 만났다는 사실은, 조선 후기 경주지역의 사론(士論)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이어서 송국재(松菊齋) 이순상[李舜相, 1659~1729]이 경주 부윤 읍취헌(挹翠軒) 정언섭(鄭彦燮)과 같이 송시열의 유집과 효종의 영릉지(寧陵誌)를 읽고 애통해 하며 우암을 높이 추앙하는 대목이 그의 문집에 보인다. 요컨대 18세기 초에 경주의 일부 문사들은 서호 지방의 사류(士類)와 연계돼 활동함으로써 향내 사론에 여러 차례 사단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당색이 다른 인사로서 향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진사에 합격한 석산(石山) 한문건[韓文健 ; 1765~1850]이다. 그는 진취에 뜻을 버리고 오로지 고인의 학문에 뜻을 두고 의리(義理)를 궁구했다. 특히 그는 주자(朱子)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학(學)을 좋아하였는데 정조 때 편찬한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을 구하여 아침저녁으로 송독하여 한 글자도 틀림없이 외곤 하였다.

그는 아들인 한공한(韓公翰)을 멀리 우암의 6세손인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 ; 1759~1838]에게 보내 글을 배우게 하니, 이 때 강재가 '석산재(石山齋)' 란 세 글자를 써서 석산에게 보냈다.

석산은 일찍이 우암 위패를 모신 인산서원(仁山書院)을 창수하여 향인들과 함께 예를 익히고 학업을 닦았다. 또한 '창수인산서원(刱修仁山書院)' 이라 하며 인산서원의 강학(講學)과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인산서원의 근거를 공고히 하고 우암의 학통을 전승하려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자, 매산(梅山) 홍직필(洪

直弼)은 "동도(東都) 주위 수 백 리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석담[石潭 : 李珥]과 화양[華陽 : 宋時烈]의 학문을 진작시킨 것은 한문건(韓文健)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고 기술하였다.

외와(畏窩) 최림[崔琳 ; 1779~1841]은 일찍이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 문하에서 유학했다. 강재는 정조 때 유일(遺逸)로 천거되었고, 헌종 때 형조판서를 거쳐 정헌대부까지 올랐으며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했다.

그는 강재에게 학문의 연원과 전수 및 후학(後學) 유입(由入)의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게을리 하지 않으며 배웠다. 어느날 강재가 '심안모언(尋顔慕彦)' 이란 네 글자를 써 주었다.

'심안(尋顔)' 은 공자 제자 안회(顔回)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스스로 도를 즐겼다는 뜻이고, '모언(慕彦)' 은 송나라 주희가 서원(西原)에 살고 있는 은자 최가언(崔嘉彦)을 위해 와룡사를 지어준 고사로, 이를 원용하여 최씨와의 동성(同姓)임을 은근히 가르치고 있다. 이는 곧 외와가 곤궁하게 살면서 즐거움을 그치지 않고 은자의 풍모를 지녔다는 뜻으로, 외와가 공암정(孔巖亭)을 짓고 사는 모습을 이들에 비견한 것이다.

또 강재는 공암정에 '반구재(反求齋)' 란 편액을 써서 걸고, 강당에 외우(畏友)의 뜻을 취해 '외와(畏窩)' 라 하여 자호로 삼게 했는데 이는 모두 강재의 친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외와가 어떻게 하여 강재 문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외와는 경주의 대표적 사족(士族)의 한 후손으로, '송씨(宋氏)' 와 그 맥이 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는 당색이 다른 한문건(韓文健) 등과 동시대 인물이지만 시를 주고받거나 내왕한 사실도 두 사람의 문집에서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의 경제(經濟)는 의지적이고 개혁적이며, 사상은 기철학(氣哲學)에 기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이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의 이 같은 사상은 뒷날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문제다.

또한 외와는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과 도의의 사귐을 맺고 간혹 내왕하며 학문을 토론했다. 관찰사가 여러 번 그를 나라에 추천하여 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외와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사람은 민암(敏菴) 조병하(曺秉夏), 이계(伊溪) 이기희(李紀羲), 희재(希齋) 손진번(孫晉蕃) 등이다. 이들은 그의 사후 문집을 간행하고 남계서사(南溪書社)를 창건하여 향사를 주도하는 등 적극 숭모에 나섰다.

영남 지방의 선비로서 서호학에 맥을 닿는 사류는 경주뿐만 아니라 안동에도 있

었다. 이들은 기존의 향촌 문벌 중심의 사회에서 조금 벗어난 성씨, 또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가문의 후손들이 중앙 정계의 인사와 연계하거나 그 당색의 연원을 좇아 선현을 추앙하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제4절 근대의 교육

1. 개화 교육의 전개

우리나라는 고종 13년(1876)에 일본과 소위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면서부터 개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개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열려진 문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의 수입과 함께 근대 교육의 새 물결이 밀어닥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항으로 우리나라는 정치 · 경제 · 군사면에서 열강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고, 문화적으로는 구체제의 문물 · 제도가 무너지고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1881년에는 일본에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이, 중국에 영선사(營繕司)가 파견되어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 오게 되었다.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면서 근대화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신식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였다.

신식 학교는 1883년에 설립된 원산학사(元山學舍)와 동문학(同文學)에서 비롯되었다. 함경도 덕원부에 세워진 원산학사는 개항장으로 일찍부터 일본 상인들이 침투한 원산의 상인들과 덕원부의 주민들이 설립한 학교로 각종 신지식과 외국어를 교육한 민간인이 주동이 된 신교육 기관이라면, 동문학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무 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영어 교습기관으로 세운 것이다. 그 후 1886년에 국가에서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미국인 선교사를 초빙하여 귀족 자제들에게 근대적 학문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한편, 1883년에는 독일인 묄렌도르프(P. G vom Möllendorf)와 영국인 해리 팍스(T. E. Holifax)에 의한 영어 학교[일명 通辯學校]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 일본에 있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 머크레이(R. S. Machllay) 목사가 내한하여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의 윤허를 받았고, 북장로교의 알렌(H. N. Allen)이 의사의 자격으로 내한하여 교육과 의료사업을 실시하였다. 1885년에 내한한 언더우드(Horacd G. Underwood)와 아펜젤러(Rev. H. G.

Appenzeller) 목사 등 개신교 각 교파의 목사들은 전도의 앞선 단계로 의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였고, 뒤에는 교육사업을 통하여 자유주의를 고취시키는 한편 민족의식을 앙양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학당 등은 전통 교육에 대한 새 교육의 가능성을 말하는 신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계 학교의 이러한 교육 시혜가 민족 교육에 끼친 공로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역사에 있어 자아 의식을 근본적으로 가능케 한 원동력은 민간 주도의 사학(私學)이고, 이 이념의 출처는 '교육 구국론(教育救國論)'에 있었다.

민간 사학이 나타나기 전 · 후에 정부 주도의 관학(官學) 교육이 있었다. 1894년에 제정된 '홍범 14조'에서의 교육에 대한 의욕과 1895년에 내린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에서 유교경전 교육을 지양하고 세계 정세에 눈을 뜨게 하는 새로운 교육의 강조라든가 또 덕(德) · 체(體) · 지육(知育)의 3대 교육 강령의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사범학교, 소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등 각급 관립 학교가 설립되었다. 또, 같은 해의 성균관 '경학과(經學科)'의 신 교육적 교육 운영은 개화 의지에 입각한 교육개혁이었으나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1905년을 전후로 민간 사학의 건립이 맹렬한 기세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신교육이 사회를 근대화하고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학은 도시는 물론 지방의 곳곳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사학의 교육 내용은 독립을 위한 강한 신념과 힘을 기르는 데 집중되었다.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여 새로운 시대의 식견을 갖춘 지도적 인물의 양성과 민족 의식의 고취 및 애국사상의 배양, 체력의 연마 그리고 산업 발달을 도모하여 국운의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당시의 교사(教師)는 애국하는 지사였고 학도(學徒)는 겨레의 우국(憂國) 청년이었다.

그리고 전통 교육과 개화 교육의 차이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대상, 교육의 방법, 학습교재, 교사관, 교육 제도 등에 걸쳐 일대 전환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세계관과 인간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2. 경북의 근대 사립학교

경북지방에 있어서의 근대 사립학교는 1899년 7월에 대구에 설립된 달성학교가 효시이다. 이 학교는 동년 4월에 제정, 공포된 '중학교 관제'에 의하여 경상북도 감

영 안에서 개교되었는데 이는 경북지방의 개화 청년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심상과(尋常科)는 1905년 8월 27일 자로 관립 대구보통학교로 인계되었고, 고등과(高等科)는 1909년 3월 8일 자로 대구향교 강당으로 옮겨져서 사립 협성학교가 되었다. 그 후 협성학교는 1916년 5월 15일 자로 '조선 총독부 고등보통학교 관제'가 공포됨에 따라서 설립된 대구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가 되면서 폐교되었다.

한편 경북 지방에서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맨 처음 설립된 것은 1902년의 대남남자소학교이다. 이 학교는 1897년에 대구에 온 미국 장로교 선교사 아담스 부부가 경북지방에 신교육을 통하여 포교를 목적으로 현 대구 제일교회의 대문채 집을 교사로 하여 설립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인은 신명여자소학교를 세웠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타고 경북 지방은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 각 학교의 설립은 1906년 경북 관찰사로 부임한 이근오(李根吳), 신태휴(申泰休) 등의 적극적인 학교 설립 추진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신태휴는 이들 각 학교에 필요한 교과서의 간행을 위하여 광문사(廣文社)와 연결하여 교과서의 인쇄, 배포에 노력하였고, 도내 유지에게 학교 설립과 그 유지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다. 그는 또 각 지방에 학교 설립과 그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케 하였으니 그 결과 그의 재임 동안에 경북의 41개 군에 설립된 학교가 370여 개 학교이고 학생 수는 4,5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 사립 학교는 각 지방의 유지들의 출연에 크게 의존했으나 장기적인 대책이 없어 많은 고생을 하였다. 이리하여 폐지된 원사(院祠), 향교(鄕校), 사마소(司馬所) 등의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했으나 이것마저 완고한 유림의 반대로 잘 실천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08년 9월에 사립 학교령이 반포되면서 각 학교의 기본금 3,000원을 마련하기에 고심하였고 이 때문에 수많은 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사립학교 유지를 위하여

① 각 지방의 3, 4개 학교를 하나로 통 · 병합할 것
② 동계, 서당계, 위친계(爲親契) 등의 경비를 학교 경비로 충당할 것
③ 학도로부터 월사금을 징수할 것
④ 각 구역별로 의무금을 징수할 것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잘 알 수 없다.

3. 경주 지역의 근대 교육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 관찰사 신태휴의 노력으로 많은 사립학교가 설치되었는데, 당시 경주는 1909년 6월까지 10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의 학교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고 다만 지금 밝혀볼 수 있는 몇 개의 학교만 소개한다.

〈표 7-1-4〉

설립년도	학교명	설립년도	학교명
1907. 4. 1	계림학교	1909. 6.	광흥학교
1907. 10. 4	옥산학교	1909. 8. 20	양좌학교
1907. 12.	월성학교		계남학교

1) 계림학교(鷄林學校)

계림학교는 1907년(광무 11) 4월 1일 향교 부근의 육영재(育英齋)에서 발족하여 1911년 3월 31일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경주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21년 4월 9일에 사립 월성여학교를 합병하여 여자부를 신설하였고 1923년 1월에 성동리 396번지의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다.

1927년 4월 1일 여자부를 경주여자공립보통학교로 분리하여 남자만 수용하였고 1941년 4월 1일 계림공립심상소학교라 칭하였다. 1960년대에 북부동으로 옮겨 현재에 이른다.

2) 옥산학교(玉山學校)

옥산학교는 옥산서원의 재단으로 1907년에 경주사립옥산학교(4년제)로 당시 학부대신 이완용의 인가를 받아 옥산 1리 동사에서 발족하였다. 당시 설립자는 이병유(李秉裕)이다.

1923년에 6년제로 학제가 변경되고 초대 교장으로 이기호(李紀鎬), 교사에 박영목(朴榮穆), 김병제(金炳濟), 이병도(李秉度), 이철구(李喆久), 최두한(崔斗翰) 등이 봉직하였다.

3) 월성학교(月城學校)

월성학교는 1907년 12월에 유림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원사(院祠) 소속 재산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학생은 40명, 매일 6시간씩 수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의 존폐는 알 길이 없다.

4) 광흥학교(廣興學校)

광흥학교는 1909년 6월에 군수 오태영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학생은 150명이었다.

5) 양좌학교(良佐學校)

양좌학교는 원래 회재 이언적 선생의 문중 서당이었다. 1909년 3월 20일에 사립 양좌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1913년 6월 15일 공립보통학교(4년제)로 변경하여 인가를 받아서 동년 9월 25일에 개교하여 1915년 3월 25일에 제1회 졸업생 6명을 배출하였다.

1923년 5월 11일에 새 교사로 이전하였고 1924년 3월 29일에 수업 연한은 6년으로 연장 인가를 얻었으며, 1938년 4월 1일 양동공립심상소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그 후 1941년 4월 1일에 양동공립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당시 학생 수는 아래와 같다.

〈표 7-1-5〉

학년	계	1	2	3
아동수	62	40	13	9

6) 계남학교(啓南學校)

계남학교는 경주 지방의 유일한 개신교 계통의 학교로 1902년 5월 10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안의와(Rev. James. E. Adams)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09년 (융희 3년) 8월 21일 자로 구한말 조선정부 학부대신의 허가를 받아 노동교회(현 경주제일교회) 안에 개교하였다.

학교 설립 자금으로 400원이 필요하였는데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200원

을 출자하고 나머지 200원은 노동교회가 출자하여 신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으로 교회가 세운 공식적인 사립 기독학교로 초대 교장으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명의와 선교사가 취임하였다.

1939년 12월 5일 경주 황남교회(현 중앙교회)에서 열린 제 5회 경동노회에 보고된 학교 현황 보고를 보면 개교 당시 교사 수가 남 1명, 여 1명이며 학생 수는 남학생 141명, 여학생 19명, 도합 160명이었고, 당시 학교의 예산 액수를 보면 수입 총액이 1,467원 77전이고 세출 총액은 1,453원 86전, 잔고가 13원 91전 규모였다. 1940년 12월의 학교 현황을 보면 남 교사 2명, 여교사 1명으로 남자 교사가 1명 증원되었고, 학생 수는 151명, 여학생 29명으로 총인원이 180명에 이른 것을 보면 남녀 학생수가 조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945년 8 · 15 해방 후 남녀 학생들은 계림초등과 월성초등으로 모두 옮겨 간 후 계남학교는 문을 닫았다.

(자료 : 경주제일교회 90년사 중에서)

제5절 민족 저항기의 교육

1. 일제강점기 초기의 교육(1910~1921)

1) 무단 통치와 식민지 교육

1910년 8월 29일, 국권 침탈의 야욕을 성취한 일제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일시적인 경제적 착취와 같은 단순한 식민지 정책이 아니라 한민족을 철저히 그리고 영구히 말살 · 소멸시켜 일본인화함으로써 일본 제국 예속지로서 종속 신분층을 만드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초대 총독 대라우찌 마사다께(寺內正毅)의 통치를 무단 통치(武斷統治)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무력을 앞세웠다는 데 있다. 그는 식민지 통치의 중점을 치안 유지에 두고, 조선인은 억눌러야 한다는 발상에서 강력한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런 기본 방침 아래 1910년 9월 10일에 헌병 조례를 발표하여, 헌병으로 하여금 군사 경찰과 일반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행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잔혹함은 세계 식민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1910년 10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 관제와 지방 관제, 각종 관서의 직제 및 직무

교정이 공포 시행되었고, 1910년 11월 6일에는 민족 의식과 자립 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51종에 달하는 서적의 반포 발매를 금지하는 한편, 기타 신문, 잡지 등을 압수 또는 발행 정지시키는 등 사상의 탄압을 서둘렀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 활동 면에서는 우리 국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여 일본 정신에 복종할 수 있는 황국 신민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니 교육 제도의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1910년 국권 강탈에서 1945년 민족 광복까지 네 차례에 걸친 교육령 개정에서 그들의 식민지 정책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911년의 조선교육령, 다음이 1922년의 개정 교육령, 그 다음이 1938년의 3차 교육 개정령, 마지막이 1943년의 4차 교육령이다.

이 네 번에 걸친 교육령은 그 때마다 시의에 따라 변화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민족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한 황국 신민화(皇國臣民化),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시 동인(一視同仁)은 일제의 변함없는 일관된 정책이었다.

2) 일제강점기 초기의 교육

일제강점기 초기 교육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일시 동인(一視同仁)은 예속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표어일 뿐, 그들이 말하는 교육 방침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교육령이 시작되던 1912년 4월과 1919년 5월의 학교 현황을 비교해 보면, 1912년의 학교 총수 1,717개교가 오히려 1,320개교로 축소되었으며, 학생 수는 103,051명에서 131,975명으로 8년 동안 3만 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에 공립보통학교는 328개교에서 462개교로 연평균 약 20개교 정도의 증가에 불과한데 비해 서당의 경우는 16,540개소에서 23,556개소로, 학생수도 141,604명에서 268,607명이라는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보아서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식 학교보다는 환경이 열악한 서당을 더 선호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일어교육 강요 등 일본인화 교육에 반발하는 민족 감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등보통학교의 경우 2개교에서 5개교로 겨우 3개교가 증가하는데 그치고 학생 수도 1,565명에서 1,705명으로 연평균 140명의 증가에 불과하다.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도 1개교에서 2개교로 겨우 1개교의 증설에 그쳤으며, 또 실업교육을 중시한다고 하였으나 실업 학교는 19개교에서 22개교로 3개교가 증가하

였다. 간이 실업학교는 19개교에서 67개교로 48개교가 증가하였는데, 결국 구호에 그친 셈이며, 전문학교의 경우 1개교에서 4개교로 3개교가 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신설 학교는 1개교도 없고, 기성 학교를 규칙에 의해 승격시킨데 불과하였다.

교사의 경우도 자격 요건을 구실로 내세워 절대 수를 일본인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인화 교육을 식민지인에게는 맡길 수 없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 경상북도의 학교 설립

당시 경상북도는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아서 타도에 비해 그 규모가 적지 않은데도 학교 설립 면에서는 타도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었고, 그나마 설립된 학교도 대부분이 대구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데는 일제가 서둘러 학교를 설립 내지 인가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인 방침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의 신식 학문에 대한 거부의식과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권이 피탈되던 1910년부터 1934년까지 15년 동안의 경상북도 학교 설립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7-1-6〉 일제 초기 경상북도 각급 학교 설립 현황

연 도	공립 보통	사립 보통	고등 보통	여자 고보	농업 학교	상업 학교	공업 학교	각종 학교	서 당
1910	22	5	–	–	1	–	–	89	1,254
1918	49	1	1	–	1	–	–	36	1,623
1929	161	5	1	1	1	1	1	8	547
1934	210	5	1	1	1	1	1	?	331

이를 통하여 볼 때, 초등학교인 공립보통학교는 증설 정책에 의거 증가의 현상이 뚜렷하지만 사립 보통학교는 당국의 불허 방침을 알 수 있다. 중등학교인 고등보통학교나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 변화가 없는 것은 교육 시책이 초등 중심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업학교 또한 마찬가지인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실업교육 강화도 결국 초등 정도의 기초 실업교육이었음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각종 학교와 서당조차 온갖 규제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당국의 교육 중점이 통제하기 쉽고 장기적 안목에서 일본인화의 효과가 큰 관립 중심의 초등 교

육에 있었으며, 그 이상의 교육은 바라지 않는다는 우민화(愚民化) 정책의 한 단면임을 읽을 수 있다.

4) 경주지방의 학교

경상북도에서 신식 학교의 효시로는 1899년 7월 대구에 설립된 달성학교(達城學校)이다. 이 학교는 동년 4월 제정 공포된 중학교 관제에 따라서 경상북도 관찰사 영내에서 개교되었다.

1905년 8월 통감부의 방해로 달성학교의 심상과는 관립 대구보통학교로 인계되고, 고등과는 1909년 3월 구 대구향교 강당으로 옮겨져 사립 협성학교로 개칭되고, 1916년 5월 조선총독부 고등보통학교 관제에 따라 설립된 대구고등보통학교(大邱高等普通學校)에 그 기구가 인계됨으로써 협성학교는 없어지고 말았다.

개화기 시대부터 일제 초기에 해당하는 1921년까지 경주 지역의 보통학교의 설립을 보면, 경주(1907. 4), 양동(1913. 6), 건천(1921. 4), 전촌(1921. 10)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일제는 이 시기에 식민지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여, 한국 아동의 취학률은 3.7%인데 비해 조선 내 일본인의 취학률은 91.5%나 되었으며, 당시 일본인을 위해 초등교육기관인 소규모의 심상소학교를 도처에 설립하였는데 경주에는 모량심상학교(1920. 10)와 경주(1910. 7), 감포(1913. 10), 안강(1914. 10) 공립 심상고등소학교가 설립되었다.

2. 일제강점기 중기의 식민지 교육(1922~1937)

1) 교육 정책의 변화

일본은 한국에 식민지 정책을 수정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1919년 8월에 총독부 관제를 개정하고, 온건파로 알려진 사이토 미노루[齋藤實]를 총독으로 파견하였다.

"총칼로 지배하는 것은 그 순간의 효과밖에 없다. 남을 지배하려면 철학과 종교와 교육, 그리고 문화를 앞장 세워서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고 역설한 그는 무단적 통치정책을 수정하여 문화 정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시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결과 공포의 대상이던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되었

으며, 한국인의 관리 등용문이 약간 열리는가 하면,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민간 신문과 잡지가 모습을 나타내고 소수의 민간 단체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문화라는 미명의 탈을 쓴, 보다 차원 높은 식민 통치 방법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였다.

2) 일제강점기 중기의 교육

한민족의 3 · 1 독립 운동을 계기로 소위 문화 통치가 시작되자 교육이 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편의상 일제 중기를 3기로 나누어 질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상승기라고 할 수 있는 1919년부터 1925년까지를 보면 총독부가 보통학교 3면(面) 1교(校) 계획으로 초등교육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인의 민족 의식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의욕과 면학열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1919년 전국 1,320개교에서 1925년에는 2,045개교로 증가하고, 수용 학생수도 131,975명에서 500,71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취학률도 4.6%에서 17.6%로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침체기라고 볼 수 있는 1926년부터 1931년까지의 기간을 보면 보통학교 1면 1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세계적 공황의 영향으로 학교 수는 비록 2,045개교에서 2,543개교로 약 500개 늘었으나 학생수는 겨우 87,000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학령 아동 취학률도 17. 6%에서 18.9%로 겨우 1.3% 증가했을 뿐이었다.

셋째, 회복기로 볼 수 있는 1932년에서 1935년까지는 간이 학교의 설립, 1면 1교 계획의 진전과 함께 아동의 취학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 2,543개교 학생 수 587,951명에서 1935년에는 3,563개교 863,195명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비록 교육적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1925년도의 재한(在韓) 일본인과 한국인의 민족 별 취학자 수를 비교하면 한국을 1로 할 때 일본인은 초등은 6, 남자중학교는 21, 여자중학교는 107, 실업 21, 사범 16, 전문 26, 대학 예과 109로 나타나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차별이 더욱 심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일제강점기 중기 경주지역의 학교

1922년부터 1937년까지 경주지역에는 설립된 초등 교육 기관인 보통학교는 입

실(1924. 5. 21), 의곡(1923. 9. 1), 하서(1923. 5), 월성(1927. 5. 9) 내남(1926. 7. 17), 경주 여자(1926. 5), 안강 제일(1923. 5. 27), 내동(1929. 7. 23), 양남(1923. 5. 26), 천북(1929. 4. 20) 등의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3. 일제강점기 말기의 식민지 교육(1938~1945)

1) 교육정책의 변화

일제는 1931년에 이르러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이듬해에는 만주국이 수립됨으로써 대륙 침략의 1단계 공작이 성공하게 되자, 본격적인 중일전쟁으로 확대시켰다.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중일전쟁은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고, 장기전을 타개하기 위해 물자가 풍부한 서남 태평양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으나 영국, 미국 등에 의해 저지되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재미 재산의 동결, 석유를 비롯한 전쟁 물자 수출 금지와 같은 수단으로 일본의 전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이에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을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본으로는 이 대규모의 소모전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역량이 결여되어 있었고, 급격히 번져 가는 퇴세(頹勢)를 만회하기 위하여 초비상 수단이 요청되었다.

1936년에 총독으로 취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전쟁확대론자였다. 이러한 인물의 총독 부임으로 3·1 운동 이래 비교적 온건했던 식민지 정책이 또 한 번 공포 정치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완전히 병참기지로 변해버린 한반도는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병력과 노동력의 보충을 강요당해야 했으며, 사상적으로도 가혹한 탄압이 지속되었고, 격화된 일본인화 정책의 제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전쟁 수행 노력에 맞추어 교육 정책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뚜렷한 특징은 교육의 전시체제화라고 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 말기의 교육

(1) 초등교육(初等教育)

1929년 이래 8년 간 1면 1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확장 계획을 추진한 결과 1935

년에는 학령 아동 총수의 25%가 취학하기에 이르렀다. 당국은 다시 제2차 초등교육 확장 계획을 계기로 하여 이 계획을 4년 앞당겨서 1942년에 완수하도록 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관 · 공립학교가 1936년 학교 수 2,415개교, 학생 764,539명이 1943년에는 학교 수 3,732개교, 학생 1,834,46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밖에 1943년에는 국민학교 부설의 2년제 간이학교 1,563개교가 있어 92,177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었고, 정규 사립 국민학교 126개교에 57,487명의 아동이 재학하고 있었다.

(2) 중등교육(中等教育)

제3차 교육령으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개명하고 1938년 3월 중학교 규정을 제정하여 수업 연한을 5년으로, 1년 이내의 보습과를 둘 수 있고, 특별한 경우 2년제 예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4차 교육령으로 1년 단축시켜 4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개칭되었으며, 동년 3월 고등여학교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국민 도덕의 함양, 부덕의 양성에 뜻을 두어 현모양처로서의 자질을 얻게 하고, 충량 지순한 황국 여성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과정으로는 고등과, 전공과, 보습과, 실과가 있었으며, 설치 과정에 따라 입학 자격도 수업 연한도 달랐는데, 수업 연한으로 5년 또는 4년, 지역 상황에 따라 3년으로 할 수 있고, 고등과 전공과는 2내지 3년, 보습과는 2년 이하, 실과는 2년 내지 4년으로 하였다.

1943년 3월 고등여학교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본과, 고등과, 전공과 과정이 있고, 수업 연한은 본과 4년, 고등과 2년, 전공과 2년 내지 3년(지역 상황에 따라 1년)이었으며, 교과목 중 수업 시수의 비중은 국어, 체육, 역사, 지리의 순서였다.

1938년 3월 사범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1부와 2부를 폐지하고, 단일 과정으로서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관립 사범학교에서는 보통과 5년, 심상과 5년(여자 4년), 연습과 2년, 강습과 1년 내지 6개월, 특설 강습과 1년 등의 과정이 있었다. 사범학교의 과목으로 보아 중학교와의 차이점은 교육 과목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교육 한 과목뿐이며, 시수도 다른 교과목에 비해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경주지역의 학교

(1) 초등학교

1938년 제3차 교육령 개정으로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개칭되고 다시 1941년에는 소학교령이 국민학교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경주 지역에 신설된 국민학교는 다음과 같다.

〈표 7-1-7〉

학 교 명	설립년월일	학 교 명	설립년월일
황 남	1940. 4. 9	덕 동	1943. 10. 16
안강 옥산	1943. 5. 1	우 라	1944. 3. 16
외동 영지	1943. 5. 28	대 본	1944. 4. 29
왕 신	1944. 3. 16	양 북	1938. 6. 20
모 량	1943. 5. 28	아 화	1941. 4. 10

(2) 중등학교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8년부터 광복 때까지 경상북도의 중등학교 설립을 보면, 실업교육의 필요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어느 때보다 여학교의 설립이 많았는데, 이 시기에 경주중학교(1938. 4. 20 개교), 포항고등여학교(1939. 4. 1 개교), 오산불교학교(현 능인 중 · 고등학교, 1939. 10. 9. 은해사 경내), 안동고등여학교(1942. 5. 1), 포항중학교(1943. 4. 16.), 영주공립농업학교(1943. 5. 5) 등이 개교되었다.

① 경주중학교(慶州中學校)

경주에는 일제강점기에 중등학교가 없어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수봉(秀峯) 이규인(李圭寅) 선생이 1936년에 지역 주민들의 의료, 구휼, 교육, 독립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수봉정(秀峯亭)의 전 재산을 내놓아 구국의 동량을 키우기 위한 재단설립의 용단을 내렸다.

그러나 나라를 구하는 길은 오직 교육(敎育)에 있음을 굳게 믿고 경주에 고등보통학교를 세워 민족정기를 고취하고, 구국의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으나 총독부는

학교설립을 인가하지 않았으니, 그리고 많은 민족진영 지도자들이 학교설립을 지원하였으나 1938년 3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립이 아닌 공립으로 하여, 경주공립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인가 받았다. 1938년 조선교육령에 의해 경주중학교로 이름을 고쳐, 1938년 4월 20일 입학생 55명으로 개교하게 되었는데 지방으로서는 유일하게 한일(韓日) 공학(共學) 학교가 되었다.

일제의 이러한 방침에 2년 동안 줄기차게 항거했지만 수봉선생의 유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결국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공립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경주중학교는 오늘날 향토의 명문 수봉학원(秀峯學園) 경주중 · 고등학교(慶州 中 · 高等學校)의 모체가 되었다.

제3절 현대의 교육

1. 해방 후의 교육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국 해방은 이루어졌고, 당연히 교육권도 회복되었지만 일제에 저항하던 민족 세력은 약화되고 좌우 세력의 사상적 갈등과 대립으로 민족 교육에 대한 차분한 설계를 도모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민족 교육의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광복의 감격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교사도 교재도 없었으니 교육이념이나 교육의 조직 같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는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간은 이른바 미군정 시대로서 우리 민족의 자율적인 교육의지를 수행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교육의지의 실천은 과거 일제 식민지 교육의 백지화와 청산이었고 새로운 민주교육사상과 방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도입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광복 한국에 부과된 지상과제는 민주국가의 수립이었고, 교육 또한 이와 같은 염원에 따른 교육이념의 설정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군정에 참여한 미군들은 정치와 행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도 매우 빈약하였다.

이러한 광복 초기의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여건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미국교육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의 중요한 교육방침은 일제의 잔재 불식이고 평화와 질서의 유지이며 생활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기능의 연마였다. 그리하여 군정청 문교 당국자들은 한국인 자문기관으로 한국교육위원

회와 조선교육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한국의 실정과 한국교육의 실상에 대해 거의 무지하였던 군정청 문교 당국자들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두 개의 자문기구를 구성하게 하고 이들 자문기구의 의견에 따라 한국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군정청의 학무 당국자들은 한국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을 활용하거나 또는 한국인을 학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한국인들의 협력을 얻어 한국 교육의 재건방안을 모색 ·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인가, 개교, 교원의 인사 등 행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조선교육심의회는 장기적인 교육계획과 교육이념, 교육제도를 심의 · 결정하여 군정당국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군정시대에 학무국이 취한 정책으로는

첫째, 학교의 교수용어를 한국어로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민족광복과 더불어 교수용어를 한국어로 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일제강점기에서는 국민학교 아동에 이르기까지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의 비교육적인 일들이 행하여졌고, 한국인으로서의 교육을 크게 그르쳤던 사실들을 상기할 것 같으면 교수 용어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처사인지 모를 것이다.

또 설사 민족해방이 된 동남아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국어와 자국 문자가 없어서 부득이 공용어로 지배 민족의 언어를 계속 학습용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한글로 된 교과서를 편찬하여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국어를 교수 · 학습용어로 지정함에 따라 당시 한글을 해득하지 못했던 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강습회가 도처에 개설되었다.

둘째, 일제강점기 잔재인 황국사상의 조속한 불식을 위해서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의 교과서 편찬 및 보급에 힘썼다. 이를 위해 군정청은 학무국에 편수과를 두고 1946년 초에 32명의 학자들로 하여금 교과서의 편찬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 발간하고 배부한 책이 『한글 첫걸음』이다.

셋째, 민주교육이념의 보급을 위해서 교사 재교육 강습에 주력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교원은 일본식 교육이념과 방식에 젖어있어 이를 불식하고 새로운 민주교육 이념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교원들에게 민주교육의 이념을 보급시키기 위해 각종 강습회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신교수법에

따른 교원 재교육이 실시되었고 이동 강습회도 개최되었다. 그 결과 군정기 3년 동안에 약 3만 명에 달하는 현직 교원이 수강하였다.

넷째, 교육제도의 민주화 추진이었다. 교육심의회에서 제정한 학제의 획기적인 의의는 종래의 복선형에서 단선형(單線形)으로 개혁한 데 있다. 곧 교육제도의 민주화가 행하여진 셈이다. 이것은 종래의 제도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따로 따로 양성하기 위한 복선형(複線形)이었음에 반하여, 신제도는 교육의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주는 일원적(一元的)인 것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이 지위, 문벌, 빈부, 종교 및 성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같이 향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 사회에 부합한 교육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교육심의회에서 채택한 학제를 보면 학교 계통을 학령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의 5단계로 하고 6-3-3-4제의 기간학제의 기틀을 정하였으며 남녀 공학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민주화를 추진하였다. 군정기간에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에 따라 종래의 교사중심의 수업방식으로부터 아동중심의 수업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교과중심의 교육으로부터 생활중심의 교육으로 교육활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새교육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아동중심주의 교육이 확산되었다.

여섯째, 문맹자 퇴치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행하여진 성인교육이었다. 광복 당시 12세 이상 한국인의 78%가 문맹자로 되어 있어 문교당국은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 밖에 공민학교를 설치함으로써 민주국가는 교육받은 민주시민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국가건설 등 모든 분야가 발전할 수 있음을 절감하고 문교정책면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다.

광복 후 정부수립 전까지 군정 하에서의 중요한 교육정책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만 했던 교육계의 현실에서 볼 때 상당히 의의있는 것이었고 또 한국의 교육재건에 일익을 담당한 것이었다.

2. 제1공화국의 교육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미군정이 끝났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무상이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공포

되었다. 그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公民)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공영의 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육 민주화의 입장에서 교육이념을 밝혔다. 그리고 국민학교의 의무교육,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 자치제의 실시,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4년의 학제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이후 1950년과 1951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수업 연한은 6-3-3-4제로 확립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은 자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 값진 대가로 한국 사회의 사상적 정치 작업을 이루어 보다 효과적인 반공(反共) 교육을 다졌다. 그리고 도의, 기술, 국방 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고 문교 시책은 학교 재개, 전시교재의 발행, 중학교 입학 국가고시제가 실시되었다. 전시 아래서 특기할 것은 교육자치제의 실시, 의무교육제도의 추진, 사친회의 제도화였다. 이에 따라 5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는데 앞서의 군 학무과에서 교육청으로 교육행정의 권한이 모두 이전되었다.

교육청의 직제는 학무과와 서무과를 두었다. 이 제도는 62년 자치법 개정 때까지 존속되었다. 휴전협정 후 반공교육과 과학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었고 건강교육이 표방됨과 동시에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우리 손으로 드디어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공포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교과, 특별 활동의 2대 영역으로 해서 분과주의를 지양하고 종합원리에 따라 중학교의 교과목으로는 국어, 수학, 사회생활,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당 시수로는 각 학년마다 34-38시간을 이수토록 하였다. 고등학교 교과목으로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실업과, 가정에 관한 교과, 음악, 미술, 외국어, 철학 및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특별활동 시간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였고 실과를 중시하였다.

3. 제2공화국의 교육

1960년에 4 · 19혁명에 따라 들어선 과도정부는 학원의 정상화, 사도의 확립, 교육자의 중립성 확보를 3대 교육방침으로 한 교육기능 강화에 전력하였다. 제2공화국 수립 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발맞추어 학원의 민주화가 크게 대두되었다. 그것은 학원분규, 학생데모, 신생활 운동, 농촌계몽 운동, 교원노조 문제 등으

로 나타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있었다. 서울사대에 교육행정 연수원이 설치되고 사범학교를 교육대학으로 승격시켰다.

또 제2차 의무교육 완수 계획 수립, 대여장학금제도 제정 등 교육내용의 쇄신에 노력하였다. 특히 국민문화 진흥에 진력하는 한편, 향토의 재건을 학습의 결과로 이루어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4. 제3공화국의 교육

1961년 5 · 16군사 쿠데타 후 군사정부 아래서의 교육은 인간개조 운동이 강조되었다. 군사혁명이 완수되자 근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재건국민운동을 사회교육적인 면에서 강력히 추진시켰다. 교육임시특례법을 공포해서 군소대학 학과의 폐지 개편이 강요되었고 학사자격시험과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가 여론에 밀려 원상회복했지만 한때 실시되기도 하였다.

1964년 1월부터 다시 교육자치제가 부활되어 교육위원회의 단위를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 도로 규정하고 각각 교육감을 두고 시 · 군에는 교육장을 두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과는 완전히 분리시켜 독립 운영하였다. 1963년 교육대학원이 설치되고 민족주체성의 자각과 강조는 자연 한국학에 중점이 주어졌다. 따라서 교육면에 민족중흥을 강조하게 되었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어 한국교육의 지표가 제시되었다. 초점을 한국적 인간상의 정립과 한국교육의 재건이란 입장에서 교육의 전환점이 마련되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하여 일선 교육현장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1969년도에는 입시제도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우선 문교부는 대학의 질적 향상이란 명목으로 대학입시 예비고사제도를 두었으며, 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실시하였다. 1969년 서울에서 처음 실험적으로 실시되면서 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평준화에 따라 대도시의 명문 중학교가 폐지되었다. 70년에는 국적있는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민교육헌장의 생활화, 애국 · 애족정신의 함양, 민족사명의식의 강화, 민족정신의 함양, 민족문화유산의 창조적 개발, 국민정신의 진작 등이 강조되면서 자연히 한국사 교육이 강화되어갔다. 경제발전의 뒷받침 하에 불붙은 과학화 교육운동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1974년 중학교 무시험제의 성공으로 고등학교 입시제도에도 변화가 왔다. 즉,

연합고사와 체력점수의 종합 성적에 따라 인문고는 학구제 추첨 배정, 실업고는 전형에 의해 입학되었다. 대학입시제도는 예비고사, 본고사, 체력장 성적을 주로 해서 대학에서 선발하였다.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실업 · 인문고등학교의 비율을 7대 3으로 책정하였으며, 실업초급대학도 대폭 확충하였다. 그 동안 교육과정의 개정은 크게 63년, 69년, 73년 등 3회에 걸쳐 있었다. 그래서 대체로 79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도 차분히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교육과정은 국민학교는 9개 교과(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 반공도덕)와 특별활동이 있고 주당 시간은 특별활동 시간을 제외하고 21시간에서 28시간으로 배당되었고, 실과는 4, 5, 6학년에만 배당되었다.

중학교는 10개 교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 가정, 외국어, 반공도덕)이고 주당 시간은 30-33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별활동은 8시간 정도를 배당하였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필수와 선택의 교과를 두어 개성과 취미를 고려하여 진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 단위제를 원칙으로 하여 인문, 자연, 예능, 직업의 계열과정을 수립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5. 제4공화국의 교육

1972년 10월 유신이 단행된 이후, 정부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화 통일의 지향을 위해 국력을 조직하면서 번영과 안정을 구축하는 국가체제가 필요하였다. 특히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민족 주체성 확립이 기본이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학생용, 교사용의 도서를 발간하여 유신의 정신과 그 정치적 구상을 밝혔다. 또 한국민주주의란 책자를 만들어 각급 학교 교육자의 교육지표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유신교육체제를 확립하여 1973년 2월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리고 문교부는 1974년도 기본 시정목표를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기초로 한 시대적 · 국가적인 요청과 미래 투시에 입각한 구체적인 시정목표를 제시하였다. 국적 있는 교육신장,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교육 등이다. 그리고 장학방침도 유신체제 교육의 심화에 초점이 모아졌다. 1975년도 교육지표는 민족중흥을 성취할 수 있는 국민성 형성으로 삼았다.

이 시기에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 1970년 12월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

이다. 새마을 교육의 기본방침은 새마을운동을 뒷받침하여 영속화시키고 새마을 운동이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념과 정신을 확립시키는 것이었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도 개정에 착수하여 1973년 2월 국민학교, 8월 중학교, 1974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기본 방향으로 한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과 기술교육의 쇄신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특히 1973년 3월 한국통신대학 설치령을 근거로 방송통신대학을, 다음해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였다.

1978년 6월 전통문화의 체계적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주체적 역사의식을 정립하기 위한 정신문화연구원을 세웠다.

6. 제5공화국의 교육

1980년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5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교육지표는 7 · 30교육개혁으로 확립된다. 정부는 교육의 기틀을 바로잡고, 당시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문제가 되고 있던 입시를 위한 과열 과외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입 본고사 폐지를 통한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과외 규제, 전일제 수업 실시,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 입학정원 확대, 초 · 중 · 고교의 교육과정 축소 조정, 교육방송 실시 등이었다.

교육정책의 방향은 교육개혁이 지속화되면서 2000년대를 대비한 것으로,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전인교육의 충실, 평생교육의 확충에 두었다.

특히 1981년도부터 대입 본고사를 폐지하고 예비고사와 출신고교의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학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교육세를 신설하였다. 1982년에는 유아교육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가 실현되어 학생들에게 독창성을 길러주고 개성을 심어주어 자기 행동을 자제하고 책임지는 자율인을 육성토록 하였다. 또 영재교육을 추진하여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하였다.

1973년 이래 시행되어온 교육과정은 학습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수업시간에 충분히 소화하기 어렵고, 수준이 높은 내용이 많으며, 교과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학문의 전문성이 강조되어 기초교육과 일반 교육과정이 소홀해지고 인간교육과 전인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7. 제6공화국의 교육

6 · 29선언으로 정치적 개혁이 이룩되면서 1988년 2월에 제6공화국이 시작되면서 교육정책은 교육본질의 추구, 교육에서의 민주화, 사회의 균등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주창 되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정책으로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간교육을 실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첫째,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를 개설하여 교육시설의 정비를 확충하는 등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에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기술 분야의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교육과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학원의 안정으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회복 및 전문대학 육성과 대학인구의 적정규모 유지, 그리고 지역발전과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육성으로, 학원안정과 대학 교육의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및 기능의 활성화와 취업자를 위한 계속 교육기회 확대, 사회교육시설의 확충, 육성 등 평생교육체제의 확충에 힘쓰고 교육개선에 진력하였다.

8. 문민정부의 교육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한국 건설'이라는 국정지표를 표방하자 교육정책도 정보화 · 세계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암기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타고난 소질계발, 창의력 배양, 인성계발 위주의 다양한 교육으로 바꾸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선택의 교육으로, 규제 위주의 교육에서 자율 중심의 교육으로, 수월성과 보편성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교육제도와 운영의 정보화를 지향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교육부는 일제 식민지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 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에 대해 일제 청산 차원에서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初等學校)'로 변경된 명칭을 사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교육규제의 완화 등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농 · 어촌 인구 격감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 · 폐합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9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에서 우선 중학교는 교과활동의 경우 필수 교과가 10교과로 줄어들고 특별 활동이 주당 2시간이며, 주당 시간수는 34시간이다. 또한 가정과 기술 · 산업을 기술 · 가정으로 통합하고, 재량 시간을 4시간으로 하였다.

고등학교는 우선 자유선택 과목의 비율이 확대되고, 학기 당 12과목 내외로 이수 과목을 축소하며, 필수선택 과목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기초 학습과정과 심화 학습과정을 분리 실시하며, 각 과목의 학년당 학습영역을 축소하고, 교과간의 통합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교육 내용을 구성하며, 수업단위를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4-6' 등으로 융통성 있게 과목별 수업시간을 적용하게 하였다.

제4절 경주 교육의 현황

1. 경주교육청(慶州敎育廳)

1)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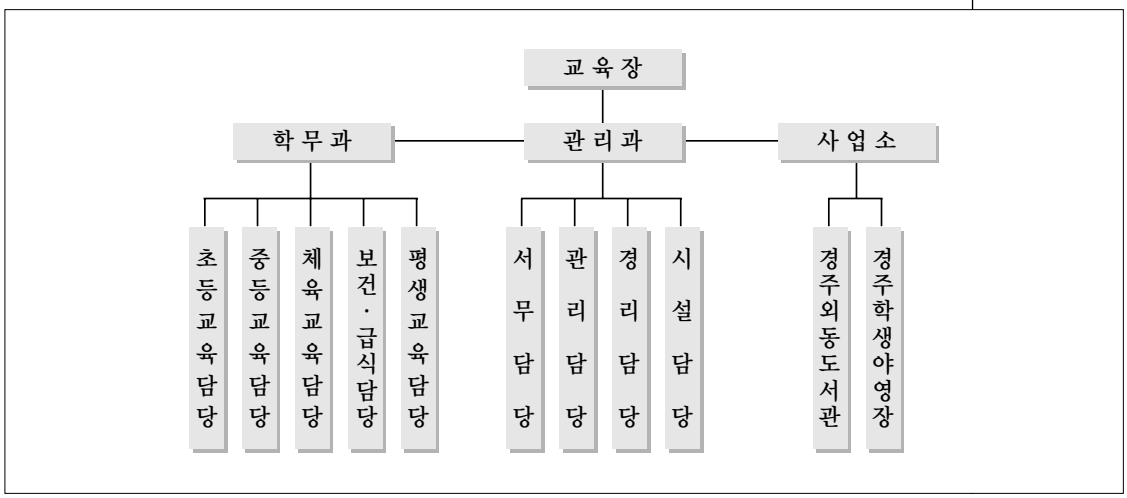
· 1949. 12. 31 법률 제86호[교육법제 167조 제 3 항에 의거 경주군 교육구로 인가]
· 1952. 6. 3 교육법 제167조에 의하여 시 · 군 단위 교육 자치제 실시
· 1955. 9. 1 초대 교육위원 11명 선출
· 1961. 5. 2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6호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해산
· 1962. 1. 1 교육법 개정으로 교육 자치제가 폐지되고 경주시 교육과에 흡수 · 통합
· 1963. 12. 5 교육법 개정으로 교육자치제 부활과 함께 경주시에서 분리
· 1964. 1. 1 교육법 제15조에 의거 시 · 군 교육장제가 실시됨
· 1964. 1. 4 경주시 교육청사 개청
· 1964. 4. 27 경주시 동부동 105-5번지로 이전
· 1970. 3. 10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실시
· 1973. 2. 22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직제 변경
· 1979. 4. 1 경주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북군국교가 월성군 천북면 신당리 산 21번지로 이전

· 1988. 4. 20 경상북도립 외동도서관 개관(대지 2,331㎡, 연건평 936㎡)
· 1990. 3. 1 내남면 학동국교 분교장 격하,
· 1991. 1. 1 광역 교육 자치제 실시로 경주시 교육청을 경상북도 경주교육청으로 개칭
· 1993. 7. 7 경주 학생야영장 개장
· 1995. 5. 23 경주시 동천동 신청사로 이전
· 1989~2002. 2. 28 관내 23개 초등학교 폐교



경상북도 경주 교육청 전경

2) 교육청 구조



2. 경주 지역 학교 통계 (2005. 3. 1 현재)

〈표 7-1-8〉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비고
유치원	계	64	153	3,437	185	
	사립	17	84	2,245	114	
	공립	1	5	150	7	
	병설	46	64	1,042	64	
초등학교	계	46	770	22,303	923	
	사립	·	·	·	·	
	공립	46	770	22,303	923	
중학교	계	19	325	10,705	633	
	사립	7	118	3,944	39	
	공립	12	207	6,761	594	
고등학교	계	20	342	10,160	695	
	사립	13	249	7,472	488	
	공립	7	93	2,688	207	

3. 경주 지역 학교 현황(2005. 3. 1 현재)

1) 유치원

〈표 7-1-9〉

구분	원 명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계		89	2,395	121
사립 시 지역	근 화	6	174	10
	중 앙	4	114	5
	예 원	6	150	8
	새 화 랑	5	143	7
	꿈 나 무	3	120	5
	예 송	5	110	7
	불 국	7	204	8
	동국대부속	8	243	10
	현 대	3	110	6
사립 읍 · 면지구	샛 별	4	90	5
	안강제일	4	102	6
	월성원자력	7	180	8
	리 오 바	4	78	5
	이 화	5	100	6
	리 라	5	120	6
	예 일	4	110	6
	경 주	4	90	6
공립	용황	5	150	7

2) 초등학교 및 공립유치원

〈표 7-1-10〉

구분	교 명	학급수	학생수	초등 교원수	유치원			보건 교사수
					교원수	학급수	원아수	
계	46	770	22,303	923	66	64	1,042	38
시지역	계림	21	670	25	3	3	76	1
	월성	14	437	17	2	2	43	1
	황남	16	491	20	2	2	36	1
	경주	41	1,453	45	1	1	30	1
	화천(분)	4	29	4	1	1	8	·
	동방	6	126	9	1	1	22	1
	불국사	19	704	22	2	2	56	1
	서라벌	6	81	9	1	1	17	1
	황성	45	1,601	49	3	3	89	1
	오릉	6	79	9	·	·	·	·
	화랑	13	402	16	2	2	51	1
	흥무	30	1,086	35	3	3	82	1
	신라	7	195	10	1	1	17	1
	동천	49	1,800	54	1	1	30	1
	유림	53	1,956	59	1	1	17	1
	용강	36	1,242	40	·	·	·	1
	용황	53	1,945	59	·	·	·	1
감포	감포	13	276	16	2	2	21	1
	전촌	4	36	6	1	1	4	·
	대본	4	36	6	·	·	·	·
안강	안강제일	32	983	36	1	1	10	1
	안강	13	309	16	1	1	9	1
	옥산	6	79	9	1	1	15	1
	안강북부	6	65	9	·	·	·	1
	사방	6	52	9	1	1	5	·
	산대	44	1,610	48	1	1	20	1
건천	건천	13	308	16	2	2	36	1
	천포	6	124	9	1	1	11	1
	모량	7	135	10	1	1	20	1
외동	입실	19	516	23	1	1	23	1
	연안	6	133	9	1	1	9	1
	모화	18	508	21	2	2	33	1
	영지	4	32	6	1	1	5	
	석계	6	71	9	1	1	8	
	괘릉	6	56	9	1	1	6	·
양북	양북	6	139	8	1	1	9	1
	송전(분)	2	9	2	·	·	·	·
	용동(분)	2	7	2	·	·	·	·
양남	양남	6	110	9	1	1	19	1
	상계(분)	3	11	3	·	·	·	·
	나산	14	399	17	1	1	29	1

구분	교 명	학급수	학생수	초등 교원수	유치원			보건 교사수
					교원수	학급수	원아수	
내남	내남	7	198	10	1	1	13	1
산내	의곡	6	70	9	1	1	19	1
	일부(분)	5	20	5	·	·	·	·
	우라(분)	3	9	3	·	·	·	·
서면	아화	7	159	10	1	1	16	1
현곡	현곡	6	69	9	1	1	19	1
	나원	28	933	32	1	1	30	1
강동	양동	6	58	9	1	1	9	·
	강동	12	325	14	1	1	21	1
	단구(분)	3	20	4	1	1	5	·
	왕신(분)	4	38	4	1	1	5	·
	천북	6	147	9	1	1	12	1
	물천(분)	3	18	3	1	1	3	·
	북군(분)	·	·	·	·	·	·	·
	모아	6	107	9	1	1	17	1
	모서(분)	3	21	3	1	1	7	·
용황유치원		·	·	·	7	5	150	·

3) 특수 학교

〈표 7-1-11〉

구분	교 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공립	경희	25	199	49

4) 중학교

〈표 7-1-12〉

구분	교 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보건교사수
계	19	325	10,705	586	8
공립	신라중	39	1,357	68	1
	불국중	9	267	18	·
	계림중	33	1,117	54	1
	안강중	25	846	42	1
	외동중	17	553	33	1
	산내중	3	40	8	·
	양남중	6	151	14	·
	아화중	4	85	12	·
	감포중	6	169	13	1
	양북중	4	108	11	·
	경주여중	27	929	49	1
	서라벌여중	34	1,139	58	1

구분	교 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보건교사수
사립	경주중	21	746	38	1
	문화중	18	605	32	·
	월성중	18	617	32	·
	무산중	6	127	12	·
	선덕여중	17	566	26	·
	근화여중	18	605	32	·
	안강여중	20	678	34	·

5) 고등학교

〈표 7-1-13〉

구분	교 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계	20	342	10,160	695
공립	계림고	15	485	34
	경주여고	27	847	55
	경주공고	24	692	54
	산내상고	3	46	10
	감포종고	6	117	14
	안강전자고	9	254	21
	경주디자인고	9	247	19
사립	경주고	27	860	54
	문화고	27	869	53
	신라고	24	764	42
	경주생활예술고	6	165	12
	무산고	6	145	13
	근화여고	24	757	44
	안강여고	15	452	29
	경주화랑고	6	115	14
	신라공고	27	772	58
	경주정보고	27	803	55
	선덕여고	24	738	46
	태화종고	12	339	22
	경주여정보	24	693	46

6) 대학교

〈표 7-1-14〉

구분	교 명	학과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학부	전공			
계	4개대학	45	133	24,069	699	363
사립	동국대학교	13	35	12,630	328	173
	경주대학교	12	32	4,994	140	75
	위덕대학교	20	31	3,045	127	80
	서라벌대학	·	35	3,400	104	35

4. 경주 지역 학교 요람(2005. 3. 1 현황)

1) 초등학교

(1) 계림초등학교(雞林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15번지

② 학교연혁

· 1907. 4. 1 공립 경주 보통 학교로 설립 및 개교
· 1909. 3. 30 제1회 졸업식(남 10명)
· 1941. 4. 1 계림국민학교로 개칭
· 1996. 3. 1 계림초등학교로 개칭
· 2005. 2. 20 제96회 졸업식(졸업생 계 24,907명)

③ 학생현황

〈표 7-1-15〉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학급	유치원
학급수		21	3	3	3	3	3	4	2	3
학생수	계	676	82	113	115	111	107	148	(12)	77
	남	390	43	61	72	61	64	89	(6)	40
	여	286	39	52	43	50	43	59	(6)	37

주 : 특수학급의 ( )안 학생 숫자는 전체 학생 수에 포함 됨. 이하 동일

(2) 월성초등학교(月城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38번지

② 학교연혁

· 1927. 4. 9 경주여자공립 보통학교 개교
· 1945. 3. 1 월성 국민학교로 개칭
· 1985. 9. 1 병설유치원 설립
· 2005. 2. 18 제78회 졸업(졸업생 계 17,150명)

③ 학생현황

〈표 7-1-16〉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14	2	2	2	2	3	3	2
학생수	계	443	65	64	66	68	84	97	45
	남	247	37	35	36	32	56	52	26
	여	196	28	29	30	36	28	45	19

(3) 황남초등학교(皇南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171번지

② 학교연혁

· 1940. 5. 5 황남공립심상소학교 개교

· 2005. 2. 17 제60회 졸업 91명(졸업생 계 17,374명)

③ 학생현황

〈표 7-1-17〉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반	유치원
학 급		18	2	2	2	3	3	3	1	2
학생수	계	492	52	69	79	88	98	101	5	36
	남	270	22	36	40	48	57	65	2	17
	여	222	30	33	39	40	41	36	3	19

(4) 경주초등학교(慶州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3012번지

② 학교연혁

· 1946. 6. 1 경주국민학교 개교(현 경주여중 자리)

· 1947. 9. 4 서악동 교사로 이전

· 1998. 9. 1 충효동 현 교사로 이전(15학급 편성)

· 1999. 9. 1 화천 분교, 학동분교 편입(총28학급)

· 2005. 2. 17 제59회 졸업(졸업생 계 6,987명)

③ 학생현황

〈표 7-1-18〉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계		본교	1,486	222	246	262	255	254	247	30 (8)
		화천분교	29	1	3	4	5	6	10	
학급수		본교	41	6	7	7	7	7	7	본교1 (화천1)
		화천분교	4			1	1	1	1	
학생수	남	본교	794	120	130	140	145	143	116	15(6)
		화천분교	16	1	2	1	3	3	6	
	여	본교	692	102	116	122	110	111	131	15 (2)
		화천분교	13		1	3	2	3	4	

(5) 동방초등학교(東方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139번지

② 학교연혁

· 1948. 5. 3 내동국민학교 동방분교 설립

· 1949. 10. 5 동방국민학교 개교

· 1999. 2. 28 내동분교 폐교, 본교에 통합

· 2005. 2. 21 제54회 졸업식(졸업생 계 4,260명)

③ 학생현황

〈표 7-1-19〉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6	1	1	1	1	1	1	1
학생수	계	121	13	21	12	23	27	25	21
	남	57	5	7	7	12	11	15	14
	여	64	8	14	5	11	16	10	7

(6) 불국사초등학교(佛國寺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392번지

② 학교연혁

· 1948. 4. 19 내동국민학교 구정분교장으로 설립인가
· 1949. 10. 5 구정국민학교로 개교
· 1954. 10. 26 불국사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1981. 3. 12 병설유치원 개원(1학급 편성)
· 2004. 11. 19 다목적 강당 개관
· 2005. 2. 19 제53회 초등학교 졸업(졸업생 계 8,501명)

③ 학생현황

〈표 7-1-20〉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18(1)	3	3	3	3	3	3(1)	2
학생수	계	619	97	99	112	102	100	109	56
	남	314	54	52	49	48	50	61	28
	여	305	43	47	63	54	50	48	28

(7) 서라벌초등학교(徐羅伐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582번지

② 학교연혁

· 1943. 4. 26 덕동공립보통학교 개교
· 1976. 1. 12 서라벌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1982. 3. 10 서라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2005. 2. 21 제57회 졸업(졸업생 계 2,757명)

③ 학생현황

〈표 7-1-21〉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6	1	1	1	1	1	1	1
학생수	계	81	12	12	13	14	9	21	16
	남	40	8	4	7	9	3	9	8
	여	41	4	8	6	5	6	12	8

(8) 황성초등학교(隍城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151-1번지
② 학교연혁
· 1949. 10. 5 개교
· 2005. 2. 18 제51회 졸업(247명) (졸업생 계 12,316명)
③ 학생현황

〈표 7-1-22〉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44(1)	7	8	7	8	7(1)	7
학생수	계	1,584(7)	259(1)	283(1)	258(1)	280	248(2)	256(2)
	남	862(3)	139(1)	146	142(1)	147	141(1)	147
	여	722(4)	120	137(1)	116	133	107(1)	109(2)

(9) 오릉초등학교(五陵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676-2번지
② 학교연혁
· 1949. 10. 5 월남국민학교 개교
· 1966. 6. 16 오릉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2005. 2. 21 제52회 졸업(졸업생 계 2,940명)
③ 학생현황

〈표 7-1-23〉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6	1	1	1	1	1	1
학생수	계	68	10	9	12	10	13	14
	남	34	4	6	9	5	6	4
	여	34	6	3	3	5	7	10

(10) 화랑초등학교(花郎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62번지

② 학교연혁

· 1964. 3. 10 화랑국민학교 개교

· 2005. 2. 18 제39회 졸업식(졸업생 계 8,192명)

③ 학생현황

〈표 7-1-24〉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13	2	2	2	2	3	2
학생수	계	387	44	59	77	53	79	75
	남	206	24	36	46	27	35	38
	여	181	20	23	31	26	44	37

(11) 흥무초등학교(興武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486번지

② 학교연혁

· 1981. 5. 6 개교

· 2005. 2. 18 제24회 졸업(졸업생 계 6,630명)

③ 학생현황

〈표 7-1-25〉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30	5	5	5	5	5	5
학생수	계	1106	173	190	184	187	183	189
	남	611	99	91	98	105	114	104
	여	495	74	99	86	82	69	85

(12) 신라초등학교(新羅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450번지

② 학교연혁

· 1989. 3. 2 사정국민학교 개교

· 1989. 9. 1 신라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2005. 2. 18 제16회 졸업

③ 학생현황

〈표 7-1-26〉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
학급수		7	1	1	1	1	1	1(1)	1
학생수	계	185	23	37	30	26	33	36	4
	남	105	13	19	16	16	17	24	2
	여	80	10	18	14	10	16	12	2

(13) 동천초등학교(東川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꿈나무 길 80호

② 학교연혁

· 2005. 2. 17 제14회 졸업식(졸업생 계 302명)

③ 학생현황

〈표 7-1-27〉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49	8	8	9	8	8	8	1
학생수	계	1802	278	307	314	296	314	293	30
	남	981	148	169	165	170	173	156	19
	여	821	130	138	149	126	141	137	11

(14) 유림초등학교(柳林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539-1번지

② 학교연혁

· 1993. 3. 1 유림초등학교 개교(27학급)
· 2005. 2. 17 제12회 졸업식(졸업생 계 3,446명)

③ 학생현황

〈표 7-1-28〉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53	8	9	9	8	10	9
학생수	계	1,961	309	341	324	315	350	322
	남	1,050	171	160	174	171	191	183
	여	911	138	181	150	144	159	139

(15) 용강초등학교(龍江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293번지

② 학교연혁
· 1993. 1. 19 용강국민학교 설립인가
· 2005. 2. 17 제11회 졸업(졸업생 계 2,284명)

③ 학생현황

〈표 7-1-29〉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36	5	6	6(1)	6	6	7
학생수	계	1,256	176	178	205	214	229	254
	남	651	80	91	105	115	122	138
	여	605	96	87	100	99	107	116

(16) 용황초등학교(龍隍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25-1번지

② 학교연혁
· 2001. 3. 1 용황초등학교 개교(40학급)
· 2005. 2. 18 제4회 졸업(졸업생 계 987명)

③ 학생현황

〈표 7-1-30〉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53	8	10	9	9	9	8
학생수	계	1,965	309	359	334	352	327	284
	남	1,026	143	196	162	190	180	155
	여	939	166	163	172	162	147	284

(17) 감포초등학교(甘浦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 5리 17번지

② 학교연혁

· 1942. 4. 1 감포동부학교로 개교

· 1949. 8. 15 감포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1981. 3. 9 병설유치원 개원

· 2005. 2. 18 제58회 졸업식(졸업생 계 9,522명)

③ 학생현황

〈표 7-1-31〉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13(1)	2	2	2	2	2	3(1)	2
학생수	계	282	52	39	42	48	57	43	31
	남	149	36	18	18	23	30	24	19
	여	133	16	21	24	25	27	19	12

(18) 전촌초등학교(典村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638번지

② 학교연혁

· 1921. 10. 20 전촌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 1940. 12. 1 부설 대본 간이학교 개교

· 2005. 2. 18 제79회 졸업(졸업생 계 5,304명)

③ 학생현황

〈표 7-1-32〉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4	·	1	1	·	1	1	1
학생수	계	36	4	5	8	3	7	9	3
	남	18	2	4	4	·	3	5	2
	여	18	2	1	4	3	4	4	1

(19) 대본초등학교(臺本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69-2번지

② 학교연혁

· 1940. 10. 8 전촌공립보통학교 부설 간이 학교인가

· 1944. 4. 29 대본국민학교 개교

· 2005. 2. 18 제56회 졸업식(졸업생 계 2,217명)

③ 학생현황

〈표 7-1-33〉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4	·	·	1	1	1	1
학생수	계	30	1	2	7	7	5	8
	남	19	1	1	5	5	2	5
	여	11	·	1	2	2	3	3

(20) 안강제일초등학교(安康第一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 3리 1160-2번지

② 학교연혁

· 1923. 10. 5 안강공립보통학교 설립 및 개교

· 2005. 2. 18 제79회 졸업식(졸업생 계 16,831명)

③ 학생현황

〈표 7-1-34〉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
학급수		32	4	5	5	5	6	6	1
학	계	997	133	159	115	171	198	181	5
생	남	543	69	96	83	83	104	104	4
수	여	454	64	63	67	88	94	77	1

(21) 안강초등학교(安康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② 학교 연혁

· 1915. 4. 15 안강공립심상고등소학교 개교

· 2005. 2. 19 제57회 졸업(66명, 졸업생 계 8,356명)

③ 학생현황

〈표 7-1-35〉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12	2	2	2	2	2	2	1
학	계	298	38	40	38	59	59	63	7
생	남	163	16	25	17	28	37	38	5
수	여	135	22	15	21	31	23	25	2

(22) 옥산초등학교(玉山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 4리 1116번지

② 학교연혁

· 1907. 10. 4 경주사립옥산학교로 개교

· 1949. 5. 1 옥산, 하계국교 옥계국민학교로 통합

· 2005. 2. 19 제56회 졸업(졸업생 계 3,534명)

③ 학생현황

〈표 7-1-36〉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6	1	1	1	1	1	1	1
학생수	계	88	17	20	12	14	16	9	14
	남	44	8	15	7	5	6	3	5
	여	44	9	5	5	9	10	6	9

(23) 안강북부초등학교(安康北部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543-3번지

② 학교연혁

· 1945. 4. 1 개교

· 2005. 2. 18 제55회 졸업식(졸업생 계 4,063명)

③ 학생현황

〈표 7-1-37〉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6	1	1	1	1	1	1
학생수	계	65	5	8	11	14	14	13
	남	37	4	5	7	5	11	5
	여	28	1	3	4	9	3	8

(24) 사방초등학교(士方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649번지

② 학교 연혁

· 1945. 4. 1 강서국민학교 사방분교 설립

· 1949. 10. 5 사방국민학교 개교

· 1981. 3. 10 사방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인가

· 2005. 2. 18 제55회 졸업(졸업생 계 3,599명)

③ 학생현황

〈표 7-1-38〉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6	1	1	1	1	1	1
학생수	계	52	8	4	8	9	10	13
	남	29	3	2	7	5	5	7
	여	23	5	2	1	4	5	6

(25) 산대초등학교(山垈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 7리 2387번지

② 학교연혁

· 1997. 3. 1 산대초등학교 개교

· 2005. 2. 18 제8회 졸업식(졸업생 계 1,106명)

③ 학생현황

〈표 7-1-39〉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반	유치원
학급수		44	8	8	7	7	7	6	1	1
학생수	계	1,584	279	292	277	250	251	235	(6)	25
	남	837	155	158(1)	143	119(1)	133	129(1)	(3)	10
	여	747	124	134(1)	134(1)	131	118(1)	106	(3)	15

(26) 건천초등학교(乾川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28번지

② 학교 연혁

· 1920. 7. 10 건천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

· 1941. 4. 1 건천공립학교로 교명 변경

· 1981. 3. 1 건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개원

· 2005. 2. 19 제82회 졸업(졸업생 계 10,363명)

③ 학생현황

〈표 7-1-40〉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반	유치원
학급수		13	2	2	2	2	2	2	1	2
학생수	계	296( )	58	57	55	46	37	42	(6)	31
	남	166(6)	33	36	32	27	19	21	(6)	12
	여	130( )	25	21	23	19	18	21	( )	19

(27) 천포초등학교(泉浦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89번지

② 학교 연혁

· 1963. 6. 29 천포국민학교 설립인가
· 1964. 4. 1 천포국민학교 개교
· 1981. 3. 10 천포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개원
· 1986. 5. 31 산성분교장 본교 통 · 폐합
· 2005. 2. 18 제40회 졸업식(졸업생 계 4,296명)

③ 학생현황

〈표 7-1-41〉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6	1	1	1	1	1	1	1
학생수	계	123	12	21	23	25	22	20	11
	남	72	10	13	11	19	7	12	5
	여	51	2	8	12	6	15	8	6

(28) 모량초등학교(毛良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612번지

② 학교연혁

· 1943. 5. 28 모량북부국민학교 설립인가
· 1945. 10. 8 모량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2005. 2. 18 제57회 졸업(졸업생 계 6,102명)

③ 학생현황

〈표 7-1-42〉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	유치원
학급수	7	1	1	1	1	1	1	1	1
학생수	127	18	17	20	25(1)	19	28(2)	(3)	20

(29) 입실초등학교(入室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039번지

② 학교연혁

· 1925. 4. 22 개교

· 1981. 3. 1 입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2005. 2. 17 제77회 졸업(졸업생 계 9,379명), 유치원 24회(졸업생 계 797명)

③ 학생현황

〈표 7-1-43〉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반	유치원
학급수		19	2	3	3	3	3	4	1	1
학생수	계	522	70	82	83	81	88	118	(4)	23
	남	283	31	43	49	50	50	60	(2)	14
	여	239	39	39	34	31	38	58	(2)	9

(30) 연안초등학교(延安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777-2번지

② 학교연혁

· 1962. 5. 1 설립인가

· 1963. 6. 29 연안국민학교로 개교

· 1982. 5. 20 연안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개원

· 2005. 2. 18 제41회 졸업식(졸업생 계 3,625명)

③ 학생현황

〈표 7-1-44〉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6	1	1	1	1	1	1	1
학생수	계	125	19	16	16	16	37	21	9
	남	67	9	6	12	8	21	11	5
	여	58	10	10	4	8	16	10	4

(31) 모화초등학교(毛火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37-4번지

② 학교연혁

· 1953. 4. 1 설립인가(입실 초등 모화 분교)

· 1963. 6. 15 모화국민학교 설립인가

· 1981. 3. 1 병설유치원 개원

· 2005. 2. 17 제 41 회 졸업(졸업생 계 2,739명)

③ 학생현황

〈표 7-1-45〉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18	3	3	3	3	3	3
학생수	계	500	92	85	78	99	73	73
	남	253	47	48	43	39	26	50
	여	247	45	37	35	60	47	23

(32) 영지초등학교(影地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 636번지

② 학교 연혁

· 1943. 6. 30 영지국민학교 개교

· 1982. 1. 28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

· 2005. 2. 22 제57회 졸업(졸업생 계 3,260명)

③ 학생현황

〈표 7-1-46〉

학 년		계	1	2	3	4	5	6	전담	유치원
학급수		4	1	·	·	1	1	1	·	1
학	계	34	6	5	4	6	5	8	·	5
생	남	23	3	2	3	5	3	7	·	0
수	여	11	3	3	1	1	2	1	·	5

(33) 석계초등학교(石溪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91번지

② 학교연혁

· 1945. 10. 7 석계계명소학교 개교

· 1946. 4. 6 입실국민학교 석계 분교

· 1947. 9. 1 석계국민학교 개교

· 1982. 3. 1 병설유치원 개원(1학급 편성)

· 2005. 2. 17 제55회 졸업식(졸업생 계 3,531명)

③ 학생현황

〈표 7-1-47〉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6	1	1	1	1	1	1
학	계	70	8	7	11	15	15	14
생	남	35	3	5	6	5	8	8
수	여	35	5	2	5	10	7	6

(34) 괘릉초등학교(掛陵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598번지

② 학교연혁

· 1959. 12. 10 영지국민학교 괘릉 분교 설립인가
· 1963. 3. 2 괘릉국민학교 개교
· 1981. 3. 4 괘릉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2005. 2. 18 제42회 졸업식(졸업생 계 2,023명)

③ 학생현황

〈표 7-1-48〉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6	1	1	1	1	1	1	1
학생수	계	54	5	9	9	8	9	14	6
	남	29	2	3	6	3	8	7	2
	여	25	3	6	3	5	1	7	4

(35) 양북초등학교(陽北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701번지

② 학교연혁

· 1938. 7. 8 양북공립심상소학교 개교
· 1992. 3. 1 구길국민학교 통합
· 1993. 3. 1 송전국민학교 통합 분교 승인
· 1994. 3. 1 장항국민학교 통합
· 1996. 3. 1 용동초등학교 통합 분교 승인
· 2005. 2. 17 제62회 졸업식(졸업생 계 5,847명)

③ 학생현황

〈표 7-1-49〉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생수	154	22	22	25	26	28	31	9
학 급 수	10	1	2	2	1	1	3	1
본 교	138	22	19	23	24	27	23	9
송전분교	9	0	1	2	1	0	5	·
용동분교	7	0	2	0	1	1	3	·

(36) 양남초등학교(陽南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569번지

② 학교연혁

· 1923. 7. 9 하서공립보통학교 개교

· 1994. 3. 1 상계분교장 편입

· 1996. 3. 1 석읍분교장 폐교

· 2005. 2. 22 제78회 졸업(졸업생 계 5,592명)

③ 학생현황

〈표 7-1-50〉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본교	6	1	1	1	1	1	1	1
		분교	3	·	1	·	·	1	1	
학생수	계		111	13	22	20	18	19	19	19
	남	본교	58	7	8	9	13	9	12	11
		분교	7	·	4	1	1	1	·	
	여	본교	43	6	10	10	4	7	6	8
		분교	3	·	·	·	·	2	1	

(37) 나산초등학교(羅山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17번지

② 학교연혁

· 1950. 4. 3 나산국민학교 개교

· 1998. 9. 1 현 교사로 이전

· 2005. 2. 18 제51회 졸업(36명, 졸업생 계 2,649명)

③ 학생현황

〈표 7-1-51〉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	유치원
학급수		14	3	3	2	2	1	2	1	1
학생수	계	384	92	78	66	67	39	42	(5)	29
	남	184	48	29	35	25	23	24	(1)	14
	여	200	44	49	31	42	16	18	(5)	15

(38) 내남초등학교(內南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27번지

② 학교연혁

· 1927. 5. 6 개교 2학급 편성
· 1949. 9. 16 명계분교장 인가
· 1949. 10. 5 오릉 · 광석 · 율동분교장 인가
· 1981. 3. 1 병설유치원 개원
· 1992. 3. 1 박달초등학교 통합
· 1995. 3. 1 노월국민학교와 통합
· 1997. 3. 1 명계분교장 통합
· 1999. 3. 1 광석분교장 통합
· 2005. 2. 19 제76회 졸업(졸업생 계 5,493명)

③ 학생현황

〈표 7-1-52〉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7	1	2	1	1	1	1	1
학생수	계	203	28	45	34	36	37	23	12
	남	107	14	19	20	15	24	15	6
	여	96	16	26	14	21	13	8	6

(39) 의곡초등학교(義谷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89-14번지

② 학교연혁

· 1923. 9. 1 의곡공립보통학교로 개교
· 1981. 3. 1 의곡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1993. 2. 28 감산 · 신원 분교장 폐교
· 1996. 2. 29 대현 · 중리 분교장 폐교
· 2005. 2. 21 제79회 졸업식(졸업생 계 4,328명)

③ 학생현황

〈표 7-1-53〉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
학급수		14	2	2	1	3	3	1	2
학	계	96	20	14	14	13	14	8	13
생	남	54	13	4	9	8	9	4	7
수	여	42	7	10	5	5	5	4	6

(40) 아화초등학교(阿火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 282번지

② 학교연혁

· 1941. 4. 10 개교

· 1981. 3. 10 아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2005. 2. 18 제59회 졸업(졸업생 계 8,691명)

③ 학생현황

〈표 7-1-54〉

학 년		계	1	2	3	4	5	6	특수	유치원
학급수		7	1	1	1	1	1	1	1	1
학	계	151	25(1)	24(1)	22(1)	22(1)	29(1)	29(2)	(7)	16
생	남	75	10(1)	13(1)	11(1)	13(1)	14(1)	14(2)	(7)	10
수	여	76	15	11	11	9	15	15	·	6

(41) 현곡초등학교(見谷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 3리 1120번지

② 학교연혁

· 1930. 9. 15 현곡공립보통학교 4년제 개교

· 1938. 4. 1 현곡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6년제)

· 1941. 4. 1 현곡국민학교로 개칭

· 1981. 3. 10 병설유치원 개원

· 2005. 2. 18 제73회 17명 졸업(졸업생 계 4,505명)

③ 학생현황

〈표 7-1-55〉

학 년		계	1	2	3	4	5	6
학급수		6	1	1	1	1	1	1
학생수	계	67	11	8	10	10	14	14
	남	39	7	4	6	7	8	7
	여	28	4	4	4	3	6	7

(42) 나원초등학교(羅原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19번지

② 학교연혁

· 1945. 9. 1 현곡국민학교 나원분교장 설립

· 1949. 10. 1 나원국민학교 설립인가

· 1955. 5. 30 나원리에서 금장리로 교사 이전

· 2005. 2. 18 제51회 졸업식 138명(졸업생 계 3,699명)

③ 학생현황

〈표 7-1-56〉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28	5	5	5	5	4	4	1
학생수	계	914	146	164	181	159	122	142	30
	남	457	78	80	77	87	57	78	17
	여	457	8	84	104	72	65	64	13

(43) 양동초등학교(良洞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64번지

② 학교연혁

· 1909. 3. 20 양좌학교로 설립인가

· 1913. 9. 25 양동공립보통학교로 개교

· 1924. 3. 29 6년제 인가
· 1981. 3. 1 공립 병설유치원 1학급 설립인가
· 1988. 9. 25 본관 6개 교실 신축
· 2005. 2. 18 제91회 졸업(졸업생 계 5,469명)

③ 학생현황

〈표 7-1-57〉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6	1	1	1	1	1	1	1
학생수	계	61	10	13	7	13	9	9	9
	남	31	8	8	4	5	4	2	7
	여	30	2	5	3	8	5	7	2

(44) 강동초등학교(江東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111번지

② 학교연혁

· 1948. 10. 27 양동국민학교 유금분교 발족
· 1949. 11. 19 유금공립국민학교 개교
· 1952. 2. 7 강동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 1981. 3. 10 병설유치원 개원
· 1999. 9. 1 단구 · 왕신 분교 편입
· 2005. 2. 18 제54회 졸업(졸업생 계 2,834명)

③ 학생현황

〈표 7-1-58〉

학 년		계	1	2	3	4	5	6	유치원
학급수		19(7)	3(1)	4(2)	3(1)	3(1)	3(1)	3(1)	3(2)
학생수	계	376(60)	60(11)	73(5)	59(15)	73(10)	50(5)	61(14)	31(11)
	남	195(33)	30(6)	33(3)	38(10)	35(3)	23(2)	36(9)	17(7)
	여	181(27)	30(5)	40(2)	21(5)	38(7)	27(3)	25(5)	14(4)

주 : ( )안은 분교장 숫자임

(45) 천북초등학교(川北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434번지

② 학교연혁

· 1929. 4. 20 천북보통학교 개교
· 1941. 4. 1 천북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 1981. 2. 4 천북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설립인가(1학급)
· 1994. 9. 1 물천분교장 편입
· 1998. 3. 1 북군분교장 편입
· 2001. 3. 1 화당분교장 통합
· 2005. 2. 19 제73회 졸업(졸업생 계 5,634명)

③ 학생현황

〈표 7-1-59〉

구 분		계	본 교							물천분교장						
학 년		초	1	2	3	4	5	6	유	1	2	3	4	5	6	유
학급수		9	1	1	1	1	1	1	1	·	1	·	1	·	1	1
학생수	계	157	21	27	15	28	26	23	10	2	4	1	3	2	5	3
	남	92	13	17	10	19	9	15	5	1	3	1	2	1	1	2
	여	65	8	10	5	9	17	8	5	1	1	0	1	1	4	1

(46) 모아초등학교(毛兒初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622번지

② 학교연혁

· 1949. 12. 1 설립 및 개교
· 1985. 9. 1 병설유치원 개원
· 1999. 9. 1 모서분교장 통합
· 2005. 2. 19 제51회 졸업식(졸업생 계 2,284명)

③ 학생현황

〈표 7-1-60〉

학 년		계		1		2		3		4		5		6	
구 분		본교	모서	본교	모서	본교	모서	본교	모서	본교	모서	본교	모서	본교	모서
학급수		6	3	1	·	1	1	1	·	1	1	1	·	1	1
학생수	계	103	20	13	1	17	3	19	2	16	8	15	3	23	3
	남	56	7	5	1	13	1	7	·	8	3	10	2	13	1
	여	47	13	8	1	4	2	12	2	8	5	5	1	10	2

(47) 경희학교(慶希初等學校)

① 주소 : 경주시 희망찬 길 27호(동천동 733-6)

② 학교연혁

· 1982. 12. 11 경희학교 설립인가(정신 지체 · 지체 부자유)
· 1983. 3. 25 개교(서라벌 초등학교에서 3학급 편성)
· 1983. 10. 21 동천동 신축 교사로 이전
· 1984. 11. 23 중학부 인가
· 1985. 11. 25 유치부 인가
· 1987. 10. 12 고등부 인가
· 2005. 2. 18 졸업식(유 · 초 · 중 · 고 전공과 총 1,174명 졸업)

③ 학생현황

〈표 7-1-61〉

학 년		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1	2
학급수		25	1	9	1	1	2	1	2	2	6	2	2	2	7	3	2	2	2	1	1
학생수	계	200	2	59	10	6	9	11	10	13	44	13	13	18	71	29	22	20	24	13	11
	정신지체	163	2	42	5	4	5	9	7	12	35	8	11	16	60	22	22	16	24	13	11
	지체부자유	37	·	17	5	2	4	2	3	1	9	5	2	2	11	7	0	4	·	·	·

2) 중학교

(1) 신라중학교(新羅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053-18번지
② 학교 연혁
· 1954. 6. 8 개교식 거행
· 1995. 10. 17 강당 겸 체육관 준공(1,333.5㎡)
· 2005. 2. 17 제49회 졸업식(졸업생 계 19,106명)
③ 학생현황

〈표 7-1-62〉

인가 학급	편성 학급	특수 학급	성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학생	특수학급	학급	학생	학급	학생
39	39	1	남	1,354	14	482	(7)	11	385	14	487

(2) 불국중학교(佛國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시래동 206번지
② 학교연혁
· 1980. 1. 24 불국중학교 설립인가(15학급)
· 1980. 6. 1 본 교사로 이전
· 2005. 2. 17 제23회 졸업식(졸업생 계 5,516명)
③ 학생현황

〈표 7-1-63〉

인가학급	편성학급	학 년		계	1	2	3
		학급수		9	3	3	3
15	9	학생수	계	269	85	105	79
			남	138	43	53	42
			여	131	42	52	37

(3) 계림중학교(雞林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69-8번지
② 학교연혁
· 1986. 10. 17 개교
· 1996. 5. 26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000m금상, 1500m은상 수상
· 2003. 6. 3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분문 금상 수상
· 2005. 2. 17 제17회 졸업식 (303명, 졸업생 계 5,903명)
③ 학생현황

〈표 7-1-64〉

학 년		계	1	2	3
학급수		33	12	11	10
학생수	계	1,114	406	674	337
	남	803	298	268	237
	여	311	105	106	100

(4) 안강중학교(安康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1리 233-7번지
② 학교연혁
· 1949. 9. 30 안강농림중학원 설립인가
· 1949. 11. 3 안강농림중학원 개교
· 1951. 12. 23 안강중학교 설립인가(6학급)
· 2005. 2. 17 제54회 졸업식(졸업생 계 15,035명)
③ 학생현황

〈표 7-1-65〉

구분	인가학급	편성학급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수	25	25	846	8	277	9	300	8	269

(5) 외동중학교(外東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433-1번지

② 학교연혁

· 1947. 9. 20 외동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
· 1951. 8. 8 재단법인 외동중학교 설립인가
· 1956. 7. 20 공립학교 전환, 불국사중학교로 교명 변경
· 1957. 3. 15 외동중학교로 교명 변경
· 2003. 3. 1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학교모형 연구학교 운영
· 2005. 2. 17 제54회 졸업식(졸업생 계 12,915명)

③ 학생현황

〈표 7-1-66〉

학 년		계	1	2	3	특수(2학년)
학급수		18	6	6	5	1
학생수	계	553	180	291	182	(7)
	남	297	98	107	92	(4)
	여	256	82	84	90	(3)

(6) 산내 중(山內中) · 상업고등학교(商業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70-65번지

② 학교연혁

· 1964. 11. 22 산내중학교 설립인가(3학급)
· 1977. 12. 30 산내종합고등학교 설립인가(6학급)
· 1989. 11. 30 본관 신축공사 준공
· 1993. 12. 16 산내상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05. 2. 17 중 제38회 졸업식 거행 18명(졸업생 계 3,886명)
고 제25회 졸업식 거행 12명(졸업생 계 1,447명)

③ 학생현황

〈표 7-1-67〉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계	1	2	3	계	1	2	3
인가	3	1	1	1	3	1	1	1
편성	3	1	1	1	3	1	1	1
계	40	9	11	20	47	22	10	15
남	25	6	8	11	30	14	8	8
여	15	3	3	9	17	8	2	7

(7) 양남중학교(陽南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51번지

② 학교연혁

· 1947. 11. 1 양남고등공민학교 설립

· 1954. 3. 3 양남중학교 설립인가(사립)

· 1970. 1. 22 공립양남중학교로 전환

· 2005. 2. 17 제52회 45명 졸업(졸업생 계 5,965명)

③ 학생현황

〈표 7-1-68〉

학급 / 구분	계	1		2		3	
		1	2	1	2	1	2
계	151	29	27	27	26	21	21
남	87	17	16	15	14	13	12
여	64	12	11	12	12	8	9

(8) 아화중학교(阿火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 123번지

② 학교연혁

· 1971. 1. 15 아화중학교 설립인가

· 2005. 2. 17 제32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계 4,695명)

③ 학생현황

〈표 7-1-69〉

학급 /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1	1	2
계	85	23	23	39
남	47	10	13	24
여	38	13	10	15

(9) 감포 중 · 종합고등학교(甘浦中 · 綜合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478-2번지

② 학교연혁

· 1945. 11. 10 감포중학교 개교

· 1953. 6. 23 감포고등학교 병설인가

· 1975. 3. 1 학교법인 감포교육재단을 공립학교로 전환

· 2005. 2. 17 중학교 제56회 61명 졸업(졸업생 계 8,715명)
고등학교 제47회 29명 졸업(졸업생 계 3,094명)

③ 학생현황

〈표 7-1-70〉

구분 / 학년		총계	1			2			3		
			1	2	계	1	2	계	1	2	계
중	계	169	27	26	53	29	29	58	29	29	58
	남	88	15	14	29	17	17	34	13	12	25
	여	81	12	12	24	12	12	24	16	17	33
고	계	117	30	23	53	15	19	34	14	16	30
	남	67	18	13	31	7	13	20	9	7	16
	여	50	12	10	22	8	6	14	5	9	14

(10) 양북중학교(陽北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701번지

② 학교연혁

· 1952. 8. 10 재단법인 양북학원 인가
· 1953. 4. 3 중학교 개교
· 1975. 2. 10 공립으로 전환
· 2003. 3. 1 양북 초 · 중학교 통합
· 2005. 2. 17 제53회 졸업(졸업생 계 7,130명)

③ 학생현황

〈표 7-1-71〉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학생	학생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계	4	108	1	38	1	42	1	28
남	4	63	45	23	1	23	1	17
여		45		15	1	19		11

(11) 경주여자중학교(慶州女子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116-3번지

② 학교연혁

· 1945. 2. 23 경주공립실과여학교 설립
· 1946. 9. 27 경주여자중학교로 승격
· 1951. 7. 20 경주여자고등학교 병설
· 1970. 9. 1 경주여자고등학교 분리
· 2005. 2. 17 제58회 졸업식(졸업생 계 21,254명)

③ 학생현황

〈표 7-1-72〉

학 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27	8	11	8
수	929	281	367	281

(12) 서라벌여자중학교(徐羅伐女子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053-18번지

② 학교연혁

· 1980. 12. 15 서라벌여자중학교 설립인가
· 2003. 6. 30 교실 31실 증축 준공
· 2005. 1. 31 다목적 교실 준공
· 2005. 2. 17 제22회 졸업식(졸업생 계 7,627명)

③ 학생현황

〈표 7-1-73〉

구분	인가학급	편성학급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수	34	34	1138	13	454	10	330	11	354

(13)경주중학교(慶州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3번지

② 학교연혁

· 1938. 2. 19 학교법인 수봉교육재단 설립인가
· 1938. 3. 26 경주공립고등보통학교 설립인가
· 1938. 4. 20 경주공립심상소학교에서 개교
· 1948. 6. 10 수봉선생 동상 제막식 거행
· 1948. 10. 20 사립경영의 건 인가
· 1950. 6. 1 학칙변경으로 4년제 중학교로 변경 인가
· 1951. 8. 31 교육법 개정으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제로 변경
· 2005. 2. 13 제65회 졸업식, 졸업생234명(졸업생 계 21,320명)

③ 학생현황

〈표 7-1-74〉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수	21	744	7	245	8	277	6	222

(14) 문화중학교(文化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717번지

② 학교연혁

· 1945. 10. 1 문화고등여학원 설립인가

· 1946. 5. 1 문화중학원으로 교명 변경

· 1949. 1. 8 문화중학교로 교명 변경, 3년제로 개편

· 1996. 7. 18 경주시 충효동 새 교사로 이전

· 2005. 2. 17 제58회 졸업식(졸업생 계 14,862명)

③ 학생현황

〈표 7-1-75〉

구분	학 생 수	인가학급	편성학급
계	605	18	18
1	205	6	6
2	233	7	7
3	167	5	5

(15)월성중학교(月城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549-6번지

② 학교연혁

· 1953. 1. 13 학교법인 수송학원 설립

· 1961. 4. 3 월성 중학교 설립

· 1991. 2. 1 경주시 충효동 신축 교사로 이전

· 2005. 2. 17 제 44 회 졸업식(졸업생 계 10,014명)

③ 학생현황

〈표 7-1-76〉

구분	인가학급	편성학급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수	18	18	18	618	6	210	7	246	5	162

(16) 무산중 · 고등학교(茂山中 · 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636번지

② 학교연혁

· 1951. 9. 22 무산중학교 설립인가
· 1954. 4. 25 무산고등학교 설립인가
· 1965. 12. 31 무산농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80. 3. 1 무산고등학교로 교명 환원

③ 학생현황

〈표 7-1-77〉

구분	편성학급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남	여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중	6	127	87	40	2	40	25	15	2	38	32	6	2	49	30	19
고	6	145	87	58	2	60	32	28	2	39	25	14	2	46	29	17

(17) 근화여자중학교(槿花女子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70번지

② 학교연혁

· 1949. 2. 28 사설학술강습회(근화여자중학원)인가
· 1950. 5. 3 근화여자중학교 4년제 4학급인가
· 1951. 8. 31 근화여자중학교 3학급인가
· 1993. 2. 26 신축 교사 준공 학교 이전
· 2004. 3. 1 근화여자중학교 단설 18 학급인가
· 2005. 2. 17 제55회 졸업(졸업생 계 13,518명)

③ 학생현황

〈표 7-1-78〉

구분	인가학급	편성학급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수	18	18	18	605	6	208	6	204	6	193

(18) 선덕여자중학교(善德女子中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571-1번지

② 학교연혁

· 1949. 4. 26 만송교육재단 설립인가

· 1952. 1. 1 계림중학교 설립인가

· 1968. 11. 20 선덕여자중학교 교명 변경

· 2005. 2. 17 제34회 102명 졸업(졸업생 계 6,628명)

③ 학생현황

〈표 7-1-79〉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수	17	567	6	209	6	194	5	164

(19) 안강여자중 · 고등학교(安康女子中 · 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59번지

② 학교연혁

· 1964. 1. 8 학교법인 국파 학원인가

· 1964. 1. 21 안성중학교 설립인가(6학급)

· 1966. 11. 2 안강여자중학교로 교명 변경

· 1978. 11. 8 안강여자고등학교 설립인가(6학급)

· 2005. 2. 17 중학교 제36회 졸업(졸업생 계 10,625명)
고등학교 제24회 졸업(졸업생 계 4,704명)

③ 학생현황

〈표 7-1-80〉

구분	인가학급	편성학급	총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중	21	20	678	7	240	7	228	6	210
고	15	15	452	5	150	5	149	5	153
계	36	35	1,130	12	390	12	377	11	363

4) 고등학교

(1) 계림고등학교(雞林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897-1번지

② 학교연혁

· 1984. 12. 29 계림고등학교 설립인가(15학급)
· 1985. 3. 5 제1회 신입생 입학식(신라중)
· 1985. 8. 15 신축 교사로 이전
· 1995. 10. 23 본관 4층 증축 완공
· 2004.12. 23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고등학교 선정(교육부)
· 2005. 2. 17 제18회 졸업식(졸업생 계 4,278명)

③ 학생현황

〈표 7-1-81〉

학년 /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
		공통과정	인문	자연	인문	자연	
학급수	16	5	3	2	2	3	1
학생수	485	164(4)	90(1)	68	80(1)	83	(6)

(2) 경주여자고등학교(慶州女子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20-118

② 학교연혁

· 1945. 2. 23 경주공립실과여학교 설립인가
· 1951. 9. 20 경주여자고등학교로 학칙 변경
· 1974. 11. 20 현 신축 교사로 이전
· 1998. 12. 20 교육계획 및 장학계획 실천 우수 교육부장관 표창
· 2004.12. 31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표창
· 2005. 2. 17 제54회 졸업식(졸업생 295명, 졸업생 계 17,622명)

③ 학생현황

〈표 7-1-82〉

구분 \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인문	자연	인문	자연
학급수	27	9	6	3	6	3
학생수	845	288	181	95	178	103

(3) 경주공업고등학교(慶州工業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157

② 학교연혁

· 1932. 11. 1 경주공예실수학교로서 황오동에서 개교
· 1945. 9. 1 경주공립초급중학교 개칭
· 1947. 8. 8 경주공업중학교로 개칭
· 1949. 8. 30 사정동 현 위치로 이전
· 1951. 9. 25 3년제 4학급(토목, 화학공업, 요업, 건축) 경주공업고등학교로 개칭
· 2003.12. 18 석등관(학생 생활관) 개관
· 2005. 2. 16 제54회 졸업식

③ 학생현황

〈표 7-1-83〉

구분	인가 학급	편성 학급	성별	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계	24	24	남/여	662/30	8	236/4	8	218/13	8	508/13
건 설 정 보	3	3	남/여	89/1	1	29/1	1	30/0	1	30/0
환경화학공업	3	3	남/여	70/16	1	30/0	1	21/8	1	19/8
전산응용기계	3	3	남/여	90/0	1	30/0	1	30/0	1	30/0
전기설비제어	6	6	남/여	170/0	2	60/0	2	58/0	2	52/0
전 자 정 보	6	6	남/여	158/12	2	58/2	2	49/5	2	51/5
자 동 차	3	3	남/여	85/1	1	29/1	1	30/0	1	26/0

(4) 경주디자인고등학교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49-2번지

② 학교연혁

· 1999. 7. 28 경주디자인고등학교 설립 승인

· 2001. 5. 11 본관 1개 동 및 생활관 1개 동 준공

· 2005. 2. 7 제2회 졸업식(졸업생 계 137명)

③ 학생현황

〈표 7-1-84〉

구분	인가 학급	편성 학급	총계			공예디자인과			세라믹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학년	3	3	90	34	56	30	4	26	30	16	14	30	14	16
2학년	3	3	83	33	50	27	9	18	30	16	14	26	8	18
3학년	3	3	74	18	56	28	4	24	19	5	14	27	9	18
계	9	9	247	85	162	85	17	68	79	37	42	83	31	52

(5) 안강전자고등학교(安康電子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 1리 233-7번지

② 학교연혁

· 1949. 11. 3 안강농림중학원 개교

· 1951. 12. 23 안강중학교 설립인가(남 · 여 6학급)

· 1959. 3. 25 안강중학교 공립전환 인가(남 · 여 12학급)

· 1960. 2. 13 안강농림고등학교 병설인가(3학급)

· 1963. 2. 28 안강농업고등학교 폐교

· 1967. 10. 5 안강상업고등학교 병설인가(3학급)

· 1999. 3. 1 안강종합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01. 3. 1 안강전자고등학교로 교명, 학칙 변경

· 2005. 2. 17 제35회 졸업식(졸업생 83명, 졸업생 계 2,886명)

③ 학생현황

〈표 7-1-85〉

인가 학급	편성 학급	학년 \ 학급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9	9	계	254(36)	3	90(12)	3	89(15)	3	75(9)
		멀티미디어과	90(13)	1	30(6)	1	30(4)	1	30(3)
		전자계산기과	164(23)	2	60(6)	2	59(11)	2	45(6)

(6) 경주고등학교(慶州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3번지

② 학교연혁

· 1938. 2. 19 재단법인 수봉교육재단 설립인가
· 1938. 3. 26 경주공립고등보통학교 설립인가
· 1938. 12. 11 본 교사(본관) 준공
· 1948. 10. 20 사립 변경인가
· 1950. 6. 1 학칙 변경으로 4년제 중학교로 변경인가
· 1951. 8. 31 교육법 개정으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제로 변경
· 1951. 9. 25 계림에서 고등학교 개교식 거행
· 1974. 4. 10 고등학교 학급증설 인가(10학급, 전 30학급)
· 2001. 3. 1 고등학교 학급인가(학년 당 9학급 – 총27학급)
· 2005. 2. 17 제66회 졸업(졸업생 계 20,985명)

③ 학생현황

〈표 7-1-86〉

구분 \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계	인문	자연	계	인문	자연
학급수	27	9	9	4	5	9	4	5
학생수	874	290	285	128	157	299	132	167

(7) 문화고등학교(文化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717번지

② 학교연혁

· 1945. 10. 1 문화고등여학원 설립인가

· 1951. 10. 11 문화고등학교 설립인가

· 1996. 7. 18 충효동 신축교사로 이전 완료

· 2005. 2. 17 제53회 졸업식(졸업생 계 17,082명)

③ 학생현황

〈표 7-1-87〉

구분 \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인가학급	27	9	5	4	5	4
편성학급	27	9	5	4	5	4
학 생 수	868	287	181	110	170	120

(8) 신라고등학교(新羅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191번지

② 학교연혁

· 1982. 12. 21 신라고등학교 설립인가(15학급)

· 1985. 3. 27 사정동 가교사에서 충효동 본교사로 이전

· 2005. 2. 17 제20회 졸업식

③ 학생현황

〈표 7-1-88〉

인가학급	편성학급	학년 / 과정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24	24	계	24	761	8	257	8	247	8	257
		공통	8	257	8	257	.	.	.	.
		인문	10	305	.	.	5	148	5	157
		자연	6	199	.	.	3	99	3	100

(9) 근화여자고등학교(槿花女子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70번지

② 학교연혁

· 1949. 2. 28 사설 학술강습회(근화여자중학원) 인가
· 1950. 5. 3 근화여자중학교 4년제 4학급 인가
· 1951. 10. 5 근화고등기술학교 2학급 인가(가사과1, 양재과1)
· 1959. 6. 24 근화여자고등기술학교 폐교
· 1963. 12. 14 근화여자고등학교 각 학년 2학급 전학년 6학급 인가
· 1977. 3. 1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 운영
· 2005. 2. 17 제39회 졸업(졸업생 계 15,078명)

③ 학생현황

〈표 7-1-89〉

학년 / 구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	계	인문	자연	계	인문	자연
학급수	24	8	8	5	3	8	5	3
학생수	757	256	251	168	83	250	166	84

(10) 화랑고등학교(花郎高等學校)

① 주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번지

② 학교연혁

· 1997. 12. 31 학교법인 삼동학원 설립인가
· 1998. 3. 24 경주화랑고등학교 개교
· 2005. 2. 15 제5회 졸업식

③ 학생현황

〈표 7-1-90〉

과정 /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15	40	36	39
남	81	29	25	27
여	34	11	11	12

(11) 경주정보고등학교(慶州情報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549-6번지

② 학교연혁

· 1952. 7. 10 경주상업고등학원 설립인가
· 1953. 4. 10 경주상업고등학교 설립(3학급)
· 1953. 9. 30 경주상업고등학교 개교
(성동동 교지 4,210평, 교사 8교실)
· 1985. 3. 1 경주종합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1991. 3. 1 경주상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05. 2. 17 제52회 졸업식(250명 졸업, 졸업생 계 14,925명)

③ 학생현황

〈표 7-1-91〉

학년 / 과정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계	27	803	9	274	9	267	9	262
관광경영과	6	180	2	60	2	60	2	60
사무자동화과	6	178	2	62	2	58	2	58
경영정보과	6	176	2	61	2	59	2	56
정보처리과	9	269	3	91	3	90	3	88

(12)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慶州女子情報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시래동 729번지

② 학교연혁

· 1973. 6. 20 학교법인 동도교육재단 인가
· 1973. 9. 30 교지 매입 및 본관 신축
· 1974. 12. 27 경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인가(9학급)
· 2001. 3. 1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05. 2. 17 제28회 졸업식(졸업생 계 9,429명)

③ 학생현황

〈표 7-1-92〉

구분 \ 학년	계		인가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계	24	694	24	720	8	241	8	253	8	230
정보처리과	4	115	4	120	·	·	·	·	4	115
사무자동화과	2	56	2	60	·	·	·	·	2	56
상업디자인과	2	59	2	60	·	·	·	·	2	59
인터넷정보과	6	179	6	180	3	91	3	88	·	·
웹 운 용 과	6	165	6	180	3	90	3	75	·	·
유아교육과	4	120	4	120	2	60	2	60	·	·

(13) 선덕여자고등학교(善德女子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571-1번지

② 학교연혁

· 1949. 4. 26 학교법인 만송교육재단 설립인가
· 1952. 1. 1 계림중학교 설립인가
· 1968. 2. 10 인왕동 신축교사로 이전
· 1974. 1. 5 선덕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인가
· 2001. 3. 1 선덕여자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05. 2. 17 제29회 졸업식(졸업생 계 11,142명)

③ 학생현황

〈표 7-1-93〉

구분 \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계	24	740	8	250	8	249	8	241
보 통 과	12	376	4	127	4	130	4	119
정보처리과	9	273	3	92	3	89	3	92
관광경영과	3	91	1	31	1	30	1	30

(14) 태화고등학교(泰和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62

② 학교연혁

· 1978. 11. 8 학교법인 송암학원 및 태화종합고등학교 설립인가

· 2004. 3. 2 태화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05. 2. 16 제24회 졸업식(졸업생 계 8,099명)

③ 학생현황

〈표 7-1-94〉

구분 \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계	학급수	학생수		계	학급수	학생수		계	학급수	학생수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2	210	131	341	4	74	44	118	4	69	48	117	4	67	39	106
보 통 과	6	108	60	168	2	38	20	58	2	37	20	57	2	33	20	53
정보처리과	6	102	71	173	2	36	24	60	2	32	28	60	2	34	19	53

(15) 신라공업고등학교(新羅工業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084번지

② 학교연혁

· 1980. 1. 10 수석고등기술학교 설립인가

· 1984. 2. 2 학교법인 수석학원 설립인가

· 1984. 10. 2 경주군 천북면 신당리 1084번지로 신축 이전

· 1990. 10. 8 수석공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인가

· 1991. 9. 19 신라공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인가

· 2005. 2. 16 제24회 졸업식 (졸업생 계 5,777명)

③ 학생현황

〈표 7-1-95〉

구분 \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계	27	791	9	269	9	263	9	259
전 기 과	9	266	3	89	3	88	3	89
자동차과	6	173	2	60	2	55	2	58
정보통신과	6	177	2	60	2	60	2	57
전자기계과	6	175	2	60	2	60	2	55

(16)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三聖生活藝術高等學校)

①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575번지

② 학교연혁

· 1952. 5. 1 재단법인 광학학원 인가
· 1960. 3. 15 교사 이전(이조리 575번지)
· 1976. 3. 2 내남고등학교 개교
· 1998. 2. 28 내남중학교 통폐합(중46회까지 졸업생 수 : 5,125명)
· 1999. 3. 1 내남고등학교에서 삼성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05. 2. 17 제 27 회 졸업(졸업생 계 2,208명)
· 2005. 3. 1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③ 학생현황

〈표 7-1-96〉

구분 \ 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베이킹 디자인과	뷰티 디자인과	계	보통과	뷰티 디자인과	계	보통과	뷰티 디자인과	계
학 급 수	6	1	1	2	1	1	2	1	1	2
학 생 수	164	30	30	60	27	30	57	17	30	47

제5절 화랑교육원(花郎敎育院)

1. 설립 목적 및 조직

1) 설립 목적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한 화랑의 빛난 얼을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체득케 하여 민족주체성이 강한 참된 새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2) 조직

(1) 직원 현황

〈표 7-1-97〉

직종 / 직급 / 구분	합계	교육전문직				파견교사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소계			4급	6급	7급	소계	
정 원	49	1	1	14	16	·	5	1	3	1	5	23
현 원	47(4)	1	1	14	16	(4)	4	1	3	1	5	22

주 : ( )는 파견교사임.

(2) 시설 현황

① 부지 및 대지

〈표 7-1-98〉

구분 / 면적	계	대지	수련장	임야	도로
㎡ (평)	135,264 (40,917)	14,847 (4,491)	21,919 (6,630)	82,218 (24,871)	16,280 (4,925)

② 건물

〈표 7-1-99〉

구분	계	본관									
		진행실	지도실	보건실	방송실	도서실	휴게실	강 당	식 당	생활실	기 타
실수	99	1	1	1	1	1	1	1	1	18	6
면적 ㎡(평)	5,938.77 (1,796)	88.2 (27)	30.3 (9)	6.7 (2)	62.4 (19)	30.3 (9)	30.3 (9)	491.4 (149)	351 (106)	615.6 (186)	1,235.8 (374)

국선당	남산 정사	금오 정사	화백당	성화채화 기념관	야외 화장실	화랑정	육덕정	급수장
8	22	5	16	10	2	1	1	2
560.52 (169)	468.6 (142)	96.53 (29)	885.6 (268)	668.34 (201)	66.16 (21)	112.5 (34)	122.65 (37)	15.87 (5)

2. 화랑교육의 연혁

· 1973. 5. 21 경북도내 중 · 고등학교 학생수련과정 개설
· 1973. 5. 30 본관 준공 및 개원
· 1976. 10. 4 금오정사 준공
· 1978. 10. 3 남산정사 준공
· 1979. 7. 31 화백당 준공
· 1980. 11. 15 국선당 준공
· 1983. 7. 5 재외교포학생 하계학교 개설
· 1986. 9. 12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성화 채화
· 1997. 5. 8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성화 채화
· 2001. 5. 16 국선당(관리동) 사무실 개축 및 통합
· 2002. 6. 9 월드컵 2002 국가대표팀 훈련

제6절 대학교(大學校)

1. 경주대학교(慶州大學校)

1) 개교 : 1987년 12월 12일

2) 재단명 : 원석학원

3) 학교 연혁

· 1981. 1. 21 학교법인 원석학원 설립
· 1987. 12. 12 한국관광대학 설립 (경북 경주시 효현동 산 42-1번지)
· 1988. 3. 4 제1회 입학식 → 5개학과(250명) : 관광경영학과, 관광행정학과, 관광영어과, 관광개발학과, 문화재학과
· 1993. 3. 1 경주대학교로 교명 변경
· 1995. 3. 28 사회교육원 개원
· 1995. 10. 18 대학원인가(석사과정 45명)
· 1998. 3. 12 본관동 준공(연건평 : 17,696.82㎡)
· 1999. 11. 2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박사과정 설치
· 1999. 11. 19 교육 대학원 인가(석사과정 30명) :
· 2000. 3. 12 공학관 준공(연건평 : 13,093㎡)
· 2000. 4. 26 학생복지관 준공(연건평 : 1,058㎡)
· 2000. 5. 1 창업보육센타 설립
· 2003. 8. 14 관광특성화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4) 학과 및 학생 현황

〈표 7-1-100〉 (2003. 12. 31 현재)

학부(과)	개설전공	정원	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1년	2년	3년	4년		
계		1,570	1,874	1,225	1,059	874	5,417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관광개발학, 호텔경영학, 외식 · 조리학	280	466	289	240	245	1,601	
경찰법학부	법학, 경찰학, 부동산개발학	90	125	62	42	48	131	
사회복지행정학과		30	36	31	17	6	427	
관광외국어학부	영어, 일어, 중국어	190	260	156	135	100	790	

학부(과)	개설전공	정원	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1년	2년	3년	4년		
문화재학부	문화재학, 문화재보존학	70	68	46	36	37	408	
문예창작학과		40	45	30	20	26	115	
경영학부	경영정보학, 세무회계정보학, 국제통상학, 경영학	130	134	83	51	49	39	
방송언론광고학부	광고홍보학, 방송언론학	80	97	69	34	25	28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공학, 사회기반공학, 환경공학	70	72	83	70	58	282	
관광조경학과		30	33	23	20	20	294	
건축학부	건축학, 건축공학	60	64	33	52	59	114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멀티미디어공학	100	153	95	91	74	230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	디지털정보전자공학, 컴퓨터 · 로봇공학	60	93	44	33	26	44	
한약자원개발학과		30	26	–	–	–	–	
미디어아트학부	디지털영상학, 시각디자인학	50	46	39	44	39	108	
생활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 태권도학	80	66	36	28	31	79	
관광학부(야)	호텔경영학전공 외식 · 조리학전공	80	75	46	39	39	232	
경영학부(야)	경영학	40	9	32	46	50	253	
방송언론광고학부(야)	광고홍보학	30	4	15	39	38	213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야)	정보통신공학	30	2	15	22	15	29	

5) 부설대학원

〈표 7-1-101〉 (2003. 12. 31일 현재)

대학원	과정	학과(전공)	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재학	휴학	수료		
일반 대학원	박사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14	–	4	8	
	석사	관광학과, 문화재학과 언론광고학과, 환경조경학과, 도시공학과, 컴퓨터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68	25	59	121	
산업경영 대학원	석사	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영상예술학과, 건설공학과	50	16	4	12	
교육 대학원	석사	교육행정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77	–	2	54	

2. 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 경주캠퍼스

1) 개교 : 1978년 10월

2) 재단명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3) 연혁

· 1978. 10.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설립
· 1980. 5. 원효관 준공
· 1981. 한의학관 준공 및 금장생활관(남학생동) 준공
· 1982. 12. 도서관 준공
· 1983. 11.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개원
· 1985. 학생회관 준공 및 문무관(체육관) 준공
· 1988. 11. 지역개발대학원 설립
· 1990. 2. 정각원 준공 및 상징탑 완공
· 1991. 9. 의학관 준공
10. 의과대학 부속 경주병원 개원
· 2000. 8. 경주한방병원을 용강동으로 확장 이전
9. 불교문화 대학원 신설
· 2002. 9. 동국대학교 의대 · 한의대 부속 불교병원 준공
· 2003. 11. 경주캠퍼스에 산학연 컨소시엄센타 신설

4) 학과 및 학생현황

〈표 7-1-102〉 (2003. 12. 31일 현재)

대학	학과명	주야 구분	정원	총계	학생수				졸업생수 (2003학년도 전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계			2220	8960	2282	2164	2124	2252	1666
불교문화	불교문화대	주		111	62	49	0	0	
	불교학부	주		2	0	2	0	0	
	불교학전공	주	40	85	2	1	41	41	28
	선학전공	주	20	30	0	1	17	12	18
	불교아동학과	주	30	128	32	29	19	48	45
	유아교육과	주	30	96	32	29	35	0	
	국악과	주	50	187	47	40	49	51	40
	대학계		170	639	175	151	161	152	131

대학	학과명	주야 구분	정원	총계	학생수				졸업생수 (2003학년도 전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과학	인문과학대	주		44	1	43	0	0	
	인문학부	주		264	159	105	0	0	
	국어국문학전공	주	55	141	14	11	65	51	33
	한문학전공	주	35	54	7	8	19	20	12
	역사철학부	주		3	0	3	0	0	
	국사학전공	주	40	71	8	6	23	34	23
	고고미술사학전공	주	35	49	5	1	15	28	22
	철학전공	주	35	30	8	2	10	10	6
	국어국문학부	주		2	0	2	0	0	
	외국어문학부	주		26	159	117	0	0	
	영어영문학전공	주	60	171	0	3	80	88	65
	일어일문학전공	주	40	111	0	3	47	61	41
	중어중문학전공	주	50	122	0	1	55	66	43
	사회복지학과	주	60	258	65	54	67	72	69
	불교회화전공	주	12	54	15	10	16	13	10
	한국화전공	주	12	44	9	11	16	8	10
	서양화전공	주	12	53	17	10	12	14	5
	조소전공	주	12	44	6	10	14	14	5
	불교조각전공	주	10	27	9	6	7	5	2
	불교시각디자인전공	주	12	43	13	11	10	9	7
	사회체육학과	주	60	194	59	43	44	48	39
	대학계	주	540	2055	554	460	500	541	392
자연과학	자연과학대	주		188	188	0	0	0	
	자연과학부	주		0	0	0	0	0	
	생물학전공	주		32	0	0	0	32	
	생명과학전공	주	50	71	4	34	33	0	29
	화학전공	주	40	101	6	38	20	37	26
	생화학전공	주		15	0	0	0	15	
	생명공학전공	주	31	60	3	32	25	0	27
	정보통계학전공	주	40	91	0	22	35	34	9
	조경학과	주	50	150	0	53	44	53	45
	수학교육과	주	40	185	40	44	51	50	44
	가정교육과	주	40	175	40	39	43	53	33
	대학계		291	1068	281	262	251	274	213



대학	학과명	주야 구분	정원	총계	학생수				졸업생수 (2003학년도 전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공학	컴퓨터정보통신학부	주		225	225	0	0	0	
	컴퓨터학전공	주	90	160	1	54	53	52	52
	정보통신공학전공	주	80	267	0	105	86	76	3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주	40	29	0	17	12	0	
	안전공학과	주	60	202	57	44	45	56	38
	대학계	주	270	883	283	220	196	184	128
법정	법정대	주		215	215	0	0	0	
	행정학전공	주	60	164	0	56	53	55	45
	국제관계학전공	주	40	75	0	19	27	29	18
	법학과	주	110	227	0	84	74	69	48
	대학계		210	681	215	159	154	153	111
상경	상경대	주		301	301	0	0	0	
	경상학부	주		0	0	0	0	0	
	경제학전공	주	60	83	0	17	36	30	18
	국제통상학전공	주	60	203	0	68	63	72	48
	경영학전공	주	60	283	0	85	89	109	97
	회계학전공	주	60	203	0	70	70	63	51
	전자상거래학전공	주	50	128	0	25	48	54	41
	대학계		290	1201	301	265	307	328	255
관광	관광대	주		143	143	0	0	0	
	관광경영학전공	주	45	157	0	50	53	54	33
	호텔경영학전공	주	45	185	0	50	59	76	50
	관광레저개발전공	주	40	63	0	1	23	21	8
	대학계		130	548	143	119	135	151	91
한의	한의예	주	80	163	78	85	0	0	
	한의학	주		392	96	97	108	91	82
	대학계		80	555	174	182	108	91	82
의	의예	주	49	97	47	50	0	0	
	의학	주		233	60	60	50	63	61
	간호학과	주	50	209	49	56	49	55	45
	대학계		99	539	156	166	99	118	106
야간강좌	공학계	야		0	0	0	0	0	
	컴퓨터학전공	야		120	0	40	35	45	31
	법정대	야		0	0	0	0	0	
	법학과	야		120	0	37	38	45	27
	상경대	야		84	84	0	0	0	
	경상학부	야		0	0	0	0	0	

대학	학과명	주야 구분	정원	총계	학생수				졸업생수 (2003학년도 전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야간강좌	경영학전공	야	50	214	0	52	71	91	45
	전자상거래학전공	야	40	51	0	6	21	24	14
	관광대	야		54	54	0	0	0	
	관광경영학부	야		0	0	0	0	0	
	관광경영학전공	야	25	73	0	22	20	31	13
	호텔경영학전공	야	25	75	0	23	28	24	27
	대학계		140	791	138	180	213	260	157

5) 부설대학원

〈표 7-1-103〉 (2003. 12. 31 현재)

대학원명	학과	학생수	졸업생수
불교문화대학원	불교	33	5
	불교예술	30	
	인간	22	
사회과학대학원	지역경제개발	0	1
	지방자치	5	1
	정책개발	5	0
	경영	15	3
	전자상거래	1	0
	세무관리	4	0
	국제관계	4	1
	법학	4	1
	사회복지	118	18
	사회체육	4	0

3. 위덕대학교(威德大學校)

1)설립개교 : 1995년 3월 11일

2)학교재단명 : 회당학원

3)학교 연혁

· 1991. 11. 4 위덕대학교 설립

· 1996. 3. 11 개교 및 '96학년도 입학식

· 1997. 6. 16 사회교육원 설립

· 1998. 2. 28 제3학생 생활관 완공
· 1998. 8. 28 대학본관 준공
· 1999. 2. 19 인문사회과학관 준공
· 1999. 9. 3 대학박물관 설립
· 1999. 11. 3 일반대학원 및 불교대학원 설립 승인
· 1999. 11. 19 교육대학원 설립승인
· 2000. 3. 16 회당학술정보원 준공
· 2002. 10. 30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설립
· 2003. 2. 18 제4회 학위수여식 거행
URIS관(위덕지역현신센터) 헌공불사 거행

4) 학과 및 학생현황

〈표 7-1-104〉 (2003. 12. 31 현재)

계열	학부명	전공명	정원	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	불교문화학부	불교학전공	30	13	12	15	15	16	
	일본어학부	일본어전공	20	20	22	39	22	18	
	중국어학부	중국어전공	25	23	21	46	29	13	
	관광영어학부	관광영어전공	40	16	35	34	46	39	
	문화콘텐츠학부	문화콘텐츠전공	30	12	1	4	13	10	
사범	교육학부	유아교육전공	40	20	21	/	/	/	
		초등특수교육전공	20	21	20	/	/	/	
사회	공공행정학부	경찰행정전공	70	10	12	7	23	14	
		재테크전공		7	8	16	23	9	
	법학부	법학전공	30	27	20	10	26	24	
	관광경영학부	경영학전공	55 (10)	57	9	33	30	28	
		호텔관광경영전공		13	29	23	33	19	
		경영학전공(야)		10	12	28	30	20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100 (15)	41	14	30	31	20	
		노인복지전공		30	51	26	40	25	
		사회복지전공(야)		14	10				
자연	외식사업학부	식음료조리전공	40	24	22	18	18	8	
	보건학부	공중보건전공	40	26	25	5	7	10	
공학	정보통신공학부	영상정보전자전공	80	12	29	35	28	43	
		디지털방송통신전공		20	43	75	75	53	
	반도체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20	15	41	48	56	19	

계열	학부명	전공명	정원	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공학	컴퓨터멀티미디어 공학부	인터넷멀티미디어전공	30	10	24	40	35	26	
		컴퓨터공학전공		21	52	39	44	70	
	게임학부	게임멀티미디어전공	20	16	20	41	29	27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40	8	15	28	33	16	
	건축시스템공학부	건설공학전공	30	17	15	24	20	8	
		건축실내디자인전공		16	48	27	22	8	
예체능	사회체육학부	레저스포츠전공	70	28	7	10	7	4	
		유아특수체육전공		32	28	13	6	0	
	미술학부	회화전공	60	5	19	10	8	4	
		디자인전공		4	3	7	9	6	

5) 부속대학원

〈표 7-1-105〉

대학원명	학과	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8	6	
	영어영문학과	5	0	
	법학과	2	1	
	외교통상학과	1	0	
	정보전자공학과	13	11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16	1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131	53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66	18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49	26	
	복지행정학과	8	5	

4. 서라벌대학(徐羅伐大學校)

1) 개교:1981년 3월 1일

2) 재단명:원석 학원

3) 연혁

· 1981. 1. 21 학교법인 원석학원 설립

· 1981. 3. 1 경주실업전문대학 개교

· 1988. 12. 7 경주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 1991. 2. 28 효현동 산 42-1번지에서 충효동 165번지로 대학 이전
· 1995. 3. 1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운영
· 1998. 8. 1 본관동 준공(2,300평)
· 1999. 6. 1 서라벌대학으로 교명 변경
· 2002. 7. 1 서라벌대학 원석 체육관 개관
· 2003. 2. 26 제23회 입학식(10학부 6개 과 1,928명)

4) 학과 및 학생 현황

〈표 7-1-106〉 (2005. 3. 30 기준)

학과	개설전공	정원	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1년	2년	3년	4년		
총계			1584	1950	198	3732	25509	
국제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260	47			1699	
	관광영어전공			34			1164	
	관광일어전공			82			1346	
	관광중국어전공			25			783	
	관광러시아어전공			21			522	
	관광호텔경영전공			75			979	
	외식사업전공			8				
	항공서비스전공			41			19	
	카지노전공			31			35	
비지니스경영학부	전산세무전공		84	53			1430	
	인터넷비지니스전공			63			1350	
경찰복지행정과			84	118			1561	
유아교육과			86	99	94		2384	
아동미술보육과			51					
간호과			99	88	81		1328	
작업치료과			33	17				
치위생과			44		23			
생명보건학부	보건환경전공		104	31			1155	
	보건행정전공			21				
	애완동물보건관리전공			58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헤어디자인전공		82	87			1278	
	메이크업 · 코디전공			45				
	피부관리전공			46				
관광호텔조리과			123	148			534	
소자본창업학부			125					

학과	개설전공	정원	학생수				졸업생수	비고
			1년	2년	3년	4년		
음악과			39	33			309	
경호스포츠학부			59					
경호레저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전공			39			136	
	경호전공			15				
디자인미술영상학부	시각디자인문화상품전공			33			1619	
	아동미술보육전공			73				
	영상미디어전공			17				
애니메이션학부			12					
멀티미디어학부			66					
컴퓨터미디어학부	웹컨텐츠개발전공			53			3677	
	멀티미디어전공			111				
고속전기철도과			40					
디지털전기정보학부	전기소방시스템전공			74			175	
	정보통신전공			34				
보석귀금속디자인과			13					
자동차기계학부	자동차전공		67	108			1136	
토탈디자인학부			34					
건축 · 실내디자인학부	건축전공			30			466	
	실내디자인전공			20			435	
경찰복지행정과	야간(산업체위탁교육)		79	72				

제7절 특별 학교

1. 경주예술학교(慶州藝術學校)


경주예술학교 창립기념 사진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과 민족 전통문화가 풍부한 고장인 경주에서도 여러 문화 단체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1945년 5월 5일 창립한 경주예술학원은 바로 그러한 여망에서 탄생하였다.

재단 이사장에 이의성(동경고등음악학교에서 바이

올린 전공), 학장에 최윤 재단이사에 이채우(수봉 재단 이사장 및 초대 경주시장 역임), 상무이사에 문학가 이기현씨 등에 의해 구성되었다.

학원의 체계는 음악과와 미술과 및 국악과로 나뉘어 1년제 예비과정인 별과와 3년제의 본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남녀 신입생 50여 명을 선발하였다. 음악과 건물은 현 서라벌 문화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옛 경주역 청사였고, 미술과 건물은 지금의 경주공고 자리에 있었다. 전공별로 나누어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교양과목은 함께 수업하였다. 당시 입학자격은 지금의 대학 입학자격 수준인 중 · 고등과정이나 고등 보통학교 5년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정하였다.

교수진은 미술학부에 손일봉, 김준식, 김만술, 김봉도, 주경 등이었고, 음악부는 바이얼린 이의성, 한준길, 비올라에 채시권, 첼로에 이호성, 성악에 한순각, 권태호, 고태국, 피아노의 박정양, 작곡에 한준길, 트럼펫에 유장령 등으로 짜여졌다. 이 밖에 교양교과는 국어에 이기현, 윤리에 김억봉, 역사는 김영기(동양사), 한상억(서양사), 최준 등이 담당하였다.

설립 1주년을 맞은 1947년 5월에는 음악과가 중심이 되어 '경주예술학원 창립 1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할 정도로 교육내용에서 전문성에 충실하였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의욕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경주예술학원은 1948년의 학제 개편으로 그 명칭이 경주예술학교로 바뀌었고, 이듬해 3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때에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도 경향 각지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도 있지만 월북했거나 타계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까지 나라는 해방 정국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1회 졸업생 배출 이후 경주 예술학교도 교수진과 학생들이 좌우노선으로 나뉘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학교재단은 김범부(소설가 김동리의 백형)가 교장으로 있는 계림학숙으로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1952년에는 계림학숙마저 폐쇄되었다.

경주예술학교는 당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고의 예술종합학교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국토 분단의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폐교되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주 지역 예술 발전의 터전을 마련했고, 또 현재 경향 각지의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면면은 경주예술학교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경주박물관학교(慶州博物館學校)


경주박물관학교
(1950년대)

1954년 10월 10일 경주박물관에서 관장 진홍섭(秦弘燮)과 목요회(木曜會)회원 윤경렬(尹京烈), 이승을(李承乙), 이기섭(李起燮) 등이 경주의 청소년에게 신라사와 문화재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박물관을 이해하고 문화재 애호심을 함양하려는 목적으로 매주 일요일에 강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진홍섭과 윤경렬이 강의를 맡았다. 학습 효과를 돕기 위해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환등기와 영사기를 활용하였으며, 개교 1주년에는 윤경렬이 노랫말을, 윤이상(尹伊桑)이 작곡한 교가를 만들었다.

그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강의실을 경주여자중학교, 경주읍사무소, 시립도서관 등으로 옮겨다녔다. 그러다가 1975년 경주 인왕동에 박물관이 신축되자 박물관으로 옮겼고 1982년부터 고등학생을 위한 강좌가 개설되었다. 1984년 11월 11일에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교 30주년 기념식과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그간의 발자취와 작품을 실은 『새얼』을 발간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윤경렬과 신라문화동인회 김태중, 김주식, 김윤근, 이철수, 김인태, 최용주, 손윤락 등 회원들이 강의를 도왔으며, 1972년에 박물관학교 뒷받침회가 발족되어 뜻 있는 분들이 도왔다. 그리고 박물관학교는 정양모, 한병삼 관장의 후원이 컸으며, 1986년 이난영 관장의 취임으로 박물관의 사회교육과정에 편입되었다.

이 후 지건길, 강우방 관장의 배려가 컸는데, 이 무렵부터 박물관의 학예사 박홍국, 박방룡과 한영미와 신라문화동인회의 김해규, 이동균, 송재중, 최민희, 김병호, 박임관 등이 돕고 있다. 2000년 박영복 관장이 취임하여 강의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고 교육과정을 새롭게 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박물관학교를 창설한 진홍섭을 위시한 졸업생과 내빈의 참석 아래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그 동안 경주박물관학교를 수료한 인원은 15,000명을 넘었으며 많은 인재를 길러내었다.

3. 경주한림학교(慶州翰林學校)

1973년 경주지역의 친목단체인 샘터모임' 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20여명을 성동경로당에 모아 중등교육과정을 교수 · 학습하는 야학을 시작하였다. 그 해 8월에는 100여명의 학생이 모이자 월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샘터야간학교' 를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한림학교의 모체이다. 그 사이에 강의실을 경주시립도서관, 경주상업고등학교로 전전하다가 경주청년회의소에 정착하였다. 초창기에는 중학과정을 실시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지금은 성인의 수강생도 다수 있다. 그간 여기에서 수학한 학생 중에는 중 ·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다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입학금을 지원하며, 무직자에게는 직업을 알선하기도 한다.

경주한림학교는 이종룡(李鍾龍), 김태형, 이기락(李起洛) · 김윤근(金潤根) 등의 성심어린 지도로 운영하고 있다.

4. 경주박물관대학(慶州博物館大學)

지역 사회 성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당시의 국립경주박물관장 지건길(池健吉)과 신라문화동인회의 김태중(金泰中), 김원주(金源周), 시인 이근식(李根植) 등의 주선과 경주시의원 박재우(朴在佑)의 도움을 얻어 1994년 경주박물관회(慶州博物館會)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으로 김원주를 선출하였다.



경주박물관대학 답사

제2대 회장으로 고현우(高鉉佑)가 선출되었다. 경주박물관회는 사업으로 박물관대학을 개설하고 있는데, 역사, 고고학, 미술사, 민속 등 국내 학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국내와 외국의 문화유적을 답사한다. 강의는 매년 2기로 나누어 3월과 9월에 개강하는데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강의를 실시하며, 학기별 28강좌를 실시한다. 일요일에는 전문학자가 인솔하여 유적지 답사를 하고 있으며 연 2회 외국 유적지 답사도 있다. 그리고 수료 후 심도 있는 수강자를 위한 연구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회에서는 해마다 성덕대왕신종 조성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2장 언론 및 출판

제1절 언론

1. 신문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신문과 잡지, TV, 라디오 등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접하게 된다. 이런 언론매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활자를 매체로 하는 신문과 잡지 등이고, 다른 하나는 전파를 매체로 삼는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이다.

매스미디어, 즉 언론 매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고마운 매체이지만 한편으로는 선정성과 상업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들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필요 이상의 각종 정보는 그 가치를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공해로 시달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매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다 격상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주는 중소도시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중앙지의 지국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중앙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현존하는 기록이나 자료가 멸실되어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 가운데 1956년 말 기준의 언론 관련 자료를 일부나마 발굴해 활용하였는데, 부분적인 자료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표 7-2-1〉 경주 지역에서 발행된 신문명 (1956년 12월 말)

신문명	간별	편집주간 성명	소재지	부수
서라벌시보	주간	황호근	동부동	1,800부

자료 : 경주시지(1956년)

〈표 7-2-2〉 경주 지역에 배포되던 신문 (1956년 12월 말)

신문사명	간별	지사소재지
조선일보	일간	동부동
동아일보	〃	〃
중앙일보	〃	〃
한국일보	〃	노동동
경향신문	〃	동부동
서울신문	〃	〃
연합신문	〃	〃
평화신문	〃	동부동
자유신문	〃	〃
자유민보	〃	〃
민주신보	〃	노동동
시사시보	〃	동부동
부산일보	〃	노동동
국제신문	〃	동부동
국도신문	〃	노동동
대구매일신문	〃	동부동
영남일보	〃	노동동
대구일보	〃	동부동
법률신문	〃	〃
청년시보	〃	노서동

자료 : 경주시지(1956년)

〈표 7-2-3〉 경주 지역 기자단체 명단 (1956년 12월 말)

단체명	가입자수
경주신문기자회	18명
경주신문기자단	15명

자료 : 경주시지(1956년)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시기를 전후해서 경주 지역에는 수십여 개 사의 중앙 일간지와 지방 일간지가 배포되고 있었으며, 지국장과 기자 직함을 가진 인원 또한 50~60명이 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국장의 이름으로 취재 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송고하고 또한 기사가 게재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취재 기자의 구분조차 모호하였다. 또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같은해 5월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언론정화의 기치를 내걸고 정리를 하고 난 뒤 신문사 지국을 경영하는 영업 위주의 지국장과 취재 보도를 맡은 기자가 구분

되면서 언론 분야 업무가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표 7-2-4〉 일간지 신문사 현황 (1962년 12월 말)

신문사	지 국 명
매일신문	경주지국
대구일보	〃
한국일보	〃

자료 : 1960년대초 개인 자료

〈표 7-2-5〉 경주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와 방송사 명단 (1968년 12월 말)

회사명(일간)	회사명(일간)	회사명(일간)	회사명(일간)
조선일보	산업경제신문	대한일보	국제신문
동아일보	대한상공일보	신아일보	대구경제신문
중앙일보	매일신문	매일경제신문	대구문화방송(방송)
한국일보	영남일보	현대경제신문	울산문화방송(〃)
경향신문	대구일보	일요신문(주간)	
서울신문	부산일보		

자료 : 경주시지(1971)

군사정권시대로 불리는 60~70년대에는 지방에서 특히 기자 세계에 있어서도 많은 애환과 고난, 핍박의 시대로 점철되었다. 1972년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던 윤주영이 문화공보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실행된 소위 프레스카드(보도증) 시대의 개막은 신문사가 기자증을 발급하였는데도 다시 정부 차원의 신분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지방기자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커다란 족쇄로 작용하였다.

프레스카드란 해당 신문사가 사규에 의거해 편집국 소속의 기자를 발령하면 취재 보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실정법인데도 정부가 다시 개인의 신원조회를 한 뒤 문화공보부장관 이름의 신분증을 추가로 하나 더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문공부는 이들의 명단이 게재된 명부를 일선 행정기관인 시 · 군에 배포하고 프레스카드가 없는 기자에 대해서는 기관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일선 행정기관에서까지 시청과 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보도증이 없으면 출입을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기가 일쑤였다.

특히 1979년 12월 12일의 거사로 권력을 잡은 정권의 실세들은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를 거치면서 제5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언론으

로부터 국정운영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소위 도이취란트식의 언론사 운영이라는 미명아래 그해 11월 25일자로, 중앙일간지 수를 6개로 줄이고 방송사를 2개로 통합시키면서 지방지의 경우 한 개 시 · 도에 한 개 신문사만 두는 소위 1도1사(一道一社)제도를 공표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중앙지 기자는 지역에 상주하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달 26일부터 일선 시 · 군에는 통신과 두 개의 방송, 지방지 한 개 회사 기자만 상주하게 되는 언론사상 가히 혁명적인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는 군사혁명정부도 보도증으로만 통제하던 언론 풍토가 한 단계 더 퇴보하였다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그 동안 가히 전성시대를 구가하던 지역 담당 기자들은 또 한차례의 철퇴를 맞게 되었다.

〈표 7-2-6〉 경주 지역 주재 언론사 (1980년 1월 말)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방송공사(KBS)
동아일보	매일신문	문화방송(대구MBC)
중앙일보	영남일보	문화방송(포항MBC)
한국일보	부산일보	
서울신문	국제신문	

자료 : 경주시청 공보실

그뒤 1980년 12월부터는 중앙지에서는 시 · 군단위에 주재기자를 두지 못하게 되는 조치가 취해지자 경주에는 하나 뿐인 경상북도 지방지인 매일신문의 기자를 비롯해 통합 통신사의 후신인 연합통신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포항MBC)의 방송국 기자 2명 등 모두 4개 회사에서의 4명의 주재기자만 상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방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의 기자가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몇 년 간 계속되었으나 1986년부터는 이런 저런 핑계와 명분으로 지역 기자들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나라 전체에 민주화와 자유화라는 바람이 불어 언론의 자유도 크게 신장되면서 새로운 언론사가 창간되고 폐간된 언론사가 복간되는 계기를 맞아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지방 일간신문사가 여러 개 문을 열면서 경주지역에도 일간지의 지국이 늘고 지역 담당 기자 수도 크게 늘었다.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지역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문화재 관리 부문의 국가기관은 물론 18년만에 철수한 건설부 경주건설사무소,

보문관광단지를 관리 · 운영하는 경북관광개발공사와 법원 경주지원과 검찰 경주지청 등 수많은 각급 기관단체들이 상주해 있는 관계로 중앙 일간신문사는 물론 지방 일간지에서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주지역에 주재기자를 상주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 1956년부터 50여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주에는 백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오고가면서 경주 지역 사회에 나름대로의 자취를 남기기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7-2-7〉 경주시청 출입 언론사 (1993년 8월 말)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매일신문	한국방송공사(KBS)	부산일보
영남일보	경주신문(주간)	국제신문
경북일보	경북매일	동남일보
대구일보	경상매일	문화방송(포항MBC)
부산매일	대동일보	

자료 : 경주시청 공보실

〈표 7-2-8〉 경주시청 출입 언론사 (2003년 12월 말)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매일신문	전국매일	문화방송(포항MBC)
영남일보	대구일보	연합뉴스
경북일보	대구신문	신아일보
경북매일	부산일보	경주신문(주간)

자료 : 경주시청 기획공보

경주시내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의 역사도 50여 년이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36년 간의 일제 탄압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이후 이 지역에 최초로 지역 신문이 존재한 기록은 1956년대 중반에 이미 주간이긴 하지만 김종대를 발행인으로 하고 황호근을 편집주간으로 한 〈서라벌시보〉라는 제호의 순수 향토 주간신문이 창간돼 1,800부의 신문을 발행하였으나 몇 년 뒤에 폐간되었다.

그 뒤 지역 여건상 지역 신문의 태동은 움직임이 없던 중 1980년대 후반을 맞으면서 지방에도 멀지 않은 장래에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될 것을 예상하고 경주지역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화에 대한 사회적 갈망과 욕구가 분출되면서 순수한 지역 신문의 출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같은 필연성에 따라 경주에도 주간으로 된 지역 신

문이 경주지역의 뜻있는 인사와 상공인들의 주도하에 창간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 첫 결실이 〈경주신문〉이라는 제호의 주간지 탄생이다.

1) 지역 신문

(1) 경주신문(慶州新聞)


경주신문

한나라, 경선없이 시장공천할 듯

예비후보자 사무실 잇따라 개소 출마채비

경주신문은 1989년 12월 15일 당시 신라병원 원장 김경오가 사재를 털어 8면 규모의 주간신문으로 창간한 뒤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지역 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다. 경주지역의 두 번째 주간지로 발행된 경주신문은 1990년 3월에는 발행인이 이종룡, 1992년 3월엔 발행인이 김재식, 1993년 5월엔 발행인이 김석원으로 바뀌어 운영되었는데, 한때는 신문 발행이 중단되는 등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1994년 11월 30일 현재의 김헌덕이 발행인으로 취임한 뒤 대판 12면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2003년말 창간 14주년을 맞으면서 경주 지역사회의 문화창달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문사 조직으로는 편집국을 비롯해 관리국, 광고국, 서울지사, 영남지사가 있으며 경주지역 25개 읍면동에 45개의 가판대를 비치하고 있다. 신문 배포는 경주지역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의 출향 인사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연혁〉

- 1989. 12. 15 창간(발행인 김경오)
- 1994. 11. 30 발행인 김헌덕 취임
- 2001. 5. 경주시민상 제정, 창간 제12주년 및 제1회 경주시민상 시상식 개최
- 2002. 5. 창간 제13주년 기념식 및 제2회 경주시민상 시상식 개최
- 2003. 5. 창간 제14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경주시민상 시상식 개최

(2) 서라벌신문(徐羅伐新聞)



서라벌신문은 경주시 황오동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1990년 8월 15일 자로 주간지로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경주지역에서는 47년 전인 지난 1956년 당시 〈서라벌시보〉라는 이름의 주간지가 이미 발간돼 1,800부의 신문을 발행, 1주일에 한번씩 경주지역에 배포하였는데, 정확한 창간일과 폐간 일자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경주지역에서의 첫 번째 주간지임에는 틀림없다.

50여년 만에 세 번째로 창간된 향토 주간지인 서라벌신문은 당시 경주상공회의소 소속 상공위원 40여명이 주주로 참여해 2억원의 자본금을 모아 전 언론인 우병익을 대표이사로, 김순신을 편집국장으로 하여 경주지역의 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창간 취지는 인내천 사상을 표방하였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10여 명의 인력으로 창간된 서라벌신문은 그 뒤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경영란으로 인해 그 해 말 창간 4개월여만에 자진 폐간하게 되었다.

(3) 새벌신문(서라벌신문)

경주지역에서 네 번째 주간지로 1993년 9월 15일 창간되었다. 1993년 8월 31일 문공부[등록번호 다 3167] 등록을 마친 뒤 발행인 겸 편집인에 박원, 인쇄인 고홍석으로 창간된 새벌신문은 뒤에 서라벌신문으로 제호를 바꾼 뒤 1994년 10월 17일 발행인으로 박순동(朴淳同)이 취임하였다. 경주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 등 지역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 알찬 소식을 전하던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2000년 11월 5일 휴간되었다.

2) 대학신문

(1) 경주대학보(慶州大學報)

경주대학보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대학문화 창출을 위해 1988년 11월 10일



타블로이드 배판의 월간으로 창간되었다. 당시에는 경주대학교의 전 교명인 한국관광대학교의 이름을 따 〈관광대신문〉으로 월간 발행되었으나 1993년 10월 11일 경주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신문사 명칭도 〈경주대학보〉로 변경되었으며 2003년 5월 26일자로 방송신문사로 조직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경주대학보(발행인 김일윤 총장)의 조직은 편집국에 대학부와 문화부, 사회부로 구성돼 있으며 대판 8면으로 발행되고 있다.

지면 배치는 종합면과 주제면, 인물면, 여론면, 대학면, 문화면, 사회면, 사진면 등으로 구성된다.

〈연혁〉

- 1988. 11. 1 타블로이드 배판의 월간으로 창간호 발행
- 1993. 10. 11 〈관광대신문〉에서 교명이 바뀌어 〈경주대학보〉로 명칭을 변경
- 1998. 11. 2 창간 10주년 기념호 발행
- 2000. 6. 8 창간 100호 발행
- 2003. 3. 1 인터넷신문 효현 웹진 개통
- 2003. 5. 26~ 방송신문사로 통합해 운영 중.

(2) 동대신문(東大新聞)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경주편 2면을 독자 제작하기 시작해 현재는 경주캠퍼스면 독자 8면을 5천 500부를 발행 배포하고 있다.

동대신문의 조직은 주간 1명, 부주간 2명, 편집국장 1명, 간사 2명, 학기 중 매주 월요일에 배포된다.

〈연혁〉

- 2002. 3. 경주캠퍼스면 2면 독자 제작
- 2003. 11. 경주캠퍼스 독자 8면 발행 중

(4) 서라벌대학보(徐羅伐大學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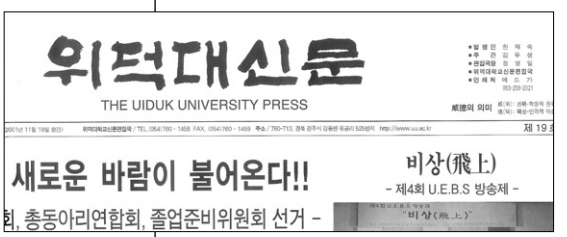


서라벌대학보는 학생들의 면학정신 함양과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발표는 물론 건전한 학풍조성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12월 10일 〈경주실업대학보〉로 창간되었다.

〈연혁〉

· 1981. 12. 10 〈경주실대학보〉라는 명칭으로 월보로 창간
문공부 등록(등록번호 마-774호)
· 1982. 10. 22 〈경주전대학보〉로 명칭 변경
· 1998. 9. 23 학보 제100호 발행
· 2003. 3. 1 〈대학언론사〉로 명칭 변경
· 2003. 5. 24 학보 지령 제133호 발행

(3) 위덕대신문(威德大新聞)



위덕대신문은 진리탐구와 인격도야 등 건학이념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정보지 역할을 다하기 위해 2001년 4월 26일 초대 주간으로 전용환 교수가 취임한 뒤 같은해 11월 19일 월간으로 창간되었다.

〈연혁〉

· 2001. 5. 18 학생회관 2층에 위덕대신문사 개관
· 2001. 9. 21 위덕대신문 홈페이지 개설
· 2001. 11. 19 창간호 발행
· 2003. 12. 8 지령 13호 발간

2. 방송

1) 신라케이블방송



신라케이블방송은 1997년 7월 9일 경주지역의 경제인 몇 명이 뜻을 모아 (주)한국케이블TV 신라방송(대표이사 최해구)이란 명칭의 케이블방송사를 설립하고 2000년 6월 1일부터 지역방송을 시작하였다. 경주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방송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공중파 방송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TV방송을 선보이고자 함이 설립 취지이다.

특히 신라케이블방송은 경주시를 비롯해 영천시와 경산시, 청도군 등 4개 시군을 방송구역으로 하고 있다. 채널 6번을 통해 24시간 송출하고 있는 신라케이블방송은 현재 모두 70개의 채널에서 지상파 방송 6개와 케이블TV(PP) 60개, 외국 위성방송 3개, 지역채널(SBC) 1개 등으로 나눠 방송하고 있다.

방송 편성 내용은 SBC뉴스(매시간 마다 15분 내외)를 비롯해 제작프로그램과 공익프로그램, 생활안내, 기타 순으로 방송된다. 조직은 관리부와 기술부, 제작송출부, 영업부, 인터넷사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 4명과 관리부 9명 등 모두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혁〉

- 1997. 7. 9 한국케이블TV방송 설립(대표이사 최해구)
- 1999. 12. 30 하나로통신(주)과 통신사업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인터넷 부가사업)
- 2002. 6. 1 방송 개시
- 2002. 10. 1 지역 내 16개 중계유선방송과 채널 통합
- 2003. 10. 1 (주)신라케이블방송으로 법인 상호 변경
- 2003. 12. 현재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지역 등 4개 시군의 약 20만 가입자에게 TV방송을 송출 중

2) 대학 방송

(2) 경주대학교 교육방송국



방송매체를 통한 대학문화를 창달하고 학생들의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1991년 3월에 교육방송국을 설립하였다.

〈연혁〉

· 1991년 3월 한국관광대학교 교육방송국으로 개국
· 1993년 3월 교명 변경으로 경주대학교 교육방송국으로 변경

(1) 동국대 교육방송국

교육방송국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BROADCASTING SYSTEM

방송매체를 통해 대학문화를 창달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양을 높이기 위해 1983년 2월 23일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을 개국하였다. 조직은 국장을 비롯해 간사와 학생방송장, 제작부, 보도부, 아나운서부, 기술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혁〉

· 1983. 2. 23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개국
· 1983. 11. 19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동우회 발족
· 1992. 11. 19 영상(TV)시험방송 시작
· 1994. 9. 방송국 학생회관 1층으로 확장 이전
· 1996. 10.31. TV 정규방송 시작
· 1998. 4. 교육방송국 홈페이지 개설
· 2000. 3. 1 인터넷 방송팀 신설
· 2002. 5. 제12회 임석 가요제 개최 인터넷 라이브 중계

(4) 서라벌대학 방송국



대학의 공기로서 교훈에 입각한 교육적 목적에 이바지하고 대학의 공지사항을 보도하며 학생들의 교양증진과 정서생활의 함양을 목적으로 개국하였다.

또한 학생과외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방송요원을 참여시켜 방송업무 과정을 습득시키는 역할도 함께 하기 위함이다.

〈연혁〉

· 1985. 9. 10 서라벌대학 방송국으로 개국
· 1986. 10. 22 제1회 원석가요제 개최
· 1988. 10. 28 제1회 방송제 개최

(3) 위덕대학교 교육방송국



대학교내의 방송매체를 통해 학생들의 교양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연혁〉

· 1999. 5. 18 위덕대학교 교육방송국으로 개국
· 2000. 5. 18 개국 1주년 특별방송

제2절 출판

경주 지역의 출판문화는 이미 1950년대부터 있어 왔지만 그 업적이 미미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은 지역의 문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1962년 9월 17일에 한국문협으로부터 인준을 받은 한국문협경주지부가 주최가 돼 1975년부터 신라문화제 종합평가지의 발간을 시작으로 1982년 5월 10일 『경주문학』 창간호를 발간하는 등 본격적인 출판물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주시 출판업주들은 출판사이기 이전에 인쇄소의 수준으로 기관 단체나 개인의 유인물을 인쇄해 주는 정도였으며, 좀 규모가 큰 인쇄물은 대구의 출판사에 의뢰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경주 지역의 출판문화 발전이 답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문협 경주지부 회원들이 창작집을 출판하는 것을 계기로 출판물이 다소 선보인 가운데 정민호는 1969년 9월에 그의 제1시집 『꿈의 경작』을 발간하였으며 1975년에는 허동인이 제1동시집인 『조약돌의 형제를』, 1979년엔 이근식이 제1시집인 『모량부의 여울』, 같은해 서영수는 제1시집인 『낮 달』을 각각 발간하였다.

1982년에는 김기문의 제1시집인 『토함산 그늘』이 발간되었으며 1983년에는 이승길의 제1시집 『실황 중계』와 김종섭의 제1시집 『환상조』, 1984년에는 조동화의 제1시조집 『낙화암』과 손기원의 제1동화집 『물 그림자』가 각각 발간되었다. 1986년에는 조주환의 제1시조집 『길 목』과 박윤환의 제1시집 『고래산 그림자』, 정운모의 제1동시집 『휘파람새』가 발간되었으며 1988년에는 김녹촌의 『동시선집』이 발간되었다.

1990년에는 황능곤의 제1시조집 『조약밭』, 손경호의 수필집 『알파를 잊은 오메가의 이야기』, 이상윤의 시집 『네가 온다면』, 김재진의 시집 『울음의 왕국』이 발간되었으며 1991년 10월에는 김재식, 김기문이 『경주풍물지리지』를 편저로 간행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강성철이 시집 『질라래비 훠월 훨』을 발간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조명래의 수필집 『그리움에 색깔이 있을까』, 석병호 시집 『낮잠 속 얼굴』, 김정식 수필집 『나 어디 있는가』, 채종한의 시집 『그래 바다로 가자』, 이희목의 시집 『접시꽃 마을』, 김대원의 시집 『치술령의 산울림』이 각각 발간되었다.

1993년 3월에는 유미경의 수필집 『사랑의 나이테』, 김건일의 수필집 『마음의 밭을 갈며』, 조신호의 제1시집 『구봉산 가는 길』, 하영희의 제1시집 『이 참을 수 없는 사랑』이 발간되었다.

1994년 권윤식의 옴니버스『신의 원죄』, 김천우의 제1시집 『혼자 사는 늘 혼자 사는 여자』를 발간하였으며, 1995년에는 최삼영의 시집 『그대의 기슭에서 나는 노래하느니』, 도은숙의 시집 『바다 깊숙한 곳 진주로 남아』, 조명래의 수필집 『이 땅에서 천사를 만나고 싶다』, 김건일의 소설집 『도시의 들쥐』를 각각 발간하였다. 1997년에는 이경만의 창작집 『우혼제』, 노종래의 제1시조집 『꽃빛깔로 흔들린다』가 발간되었으며 1998년에는 신평 수필집 『농사 짓는 변호사 경주에 살다』가 발간되었다.

2000년에는 최상고의 시집 『조국통일』, 이상도의 시조집 『그리움의 숲』, 이동주의 수필집 『간이역에 내리고 싶다』 등이 발간되었다. 2001년에는 박숙희의 동화집 『삐쥬리아 공주』, 이철현의 시집 『숲에 앉은 무지개』, 윤기일 시집 『가슴 속

호리병 하나가』, 2002년엔 신부식의 시집 『토우를 찾아서』, 김옥정의 시집 『수레바퀴 위에 앉은 장닭』, 후동의 시집 『산이 말을 하네』, 2003년에는 김윤보의 수필집 『관음도 대비주기도의 비밀』, 이용우의 시집 『형산강』, 도지민의 시집 『산을 낳은 여자』 등을 발간하였으며, 같은해 정민호는 제12시집을, 김종섭과 석병호는 제7시집을 발간하는 열성을 보였고 문협 경주지부의 회지인 『경주문학』도 31호를 발간하였다.

그 외에도 각종 회지와 기관단체가 발간하는 홍보용 출판물도 적지 않게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주 최초의 대학교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개교되면서 동국대학교를 비롯해 경주대학교와 위덕대학교, 서라벌대학 등이 각각 교내 출판부를 운영하면서 경주 지역사회의 출판문화 창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40여년 간 수많은 출판업소가 생멸을 거듭하면서 끈질긴 노력으로 명맥을 이어 왔기에 현재도 김기문 시인이 경주시 등록번호 1번으로 운영하는 '글밭' 출판사가 지난 1983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21년 동안 수천 권의 출판물을 제작하며 활발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현재 42개소의 출판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정기 간행물로는 지난 1989년 11월에 등록한 경주신문 등 주간과 월간,

〈표 7-2-9〉 등록된 출판사 명단 (2003년 12월말 현재)

등록 일자	상호명	소재지
1983. 4. 4	글밭출판사	성건동 369-22
1990. 2. 1	서라벌군사연구소출판부	평동 389-1
1990. 2. 22	참누리출판사	성건동 684-6
1991. 4. 11	현대교육문화사	동부동 133-34
1991. 6. 28	한나무출판사	성건동 648-6
1993. 4. 1	도서출판 뿌리	성건동 620-540
1993. 8. 31	신라문화원	노서동 120-9
1994. 4. 19	상가연락처	용강동 5지구28-1동 4호
1994. 5. 25	신라출판사	성건동 178-1
1994. 11. 4	실천의학사	강동면 모서리283
1995. 3. 29	하나기획	황성동 422-3
1995. 5. 9	도서출판정책연구기획	성건동 638-24
1996. 4. 9	도서출판 목민사	노동동 14
1997. 6. 27	서일인쇄출판사	양남면 하서리 631
1998. 2. 6	위덕대학교출판부	강동면 유금리 525
1998. 2. 10	지미디어	서부동 4 천광오피스텔 2006호

등록 일자	상호명	소재지
1998. 3. 6	도서출판 환국	동천동 733. 1085호
1998. 4. 29	우진특수인쇄출판사	황성동 73.10호
1998. 5. 15	애드피아	동천동 768-2
1998. 6. 26	도서출판 한국	서부동 9. 24호
1998. 7. 24	도서출판 가람	안강읍 양월리 1205-1
1998. 11. 9	(주)경주신문사	동천동 803. 21호 덕양빌딩 6층
1998. 11. 27	사회교육출판사	충효동 2979-1
1998. 12. 2	대양기획	성건동 260-93
1999. 3. 15	화성정보기술	동천동 787-1
1999. 3. 23	도서출판 가야	노서동 121-21
1999. 4. 16	도서출판 마을	현곡면 금장리 369 신한상가 126동 303호
1999. 7. 7	도서출판 종소리	황오동 300 밀레니움하우스 202호
1999. 7. 20	도서출판 동반	동부동 132-3
1999. 10. 4	천강문원	마동 530-1
2000. 1. 6	도서출판 신명	충효동 2942 대우2차상가 1동 103호
2000. 8. 7	아름다운나라	강동면유금리산50 위덕대학교창업보육센타
2002. 8. 29	도서출판 융화사숭모회	강동면 국당리 산1-1
2002. 10. 24	세종인쇄사 · 출판사	동부동 145-1
2002. 10. 24	한국족보문화보급	안강읍 산대리 1913-16
2003. 1. 16	족보명가	충효동 3020-6
2003. 1. 22	경주CPS	성건동 584-21
2003. 1. 27	한국족보제작보급	안강읍 안강리 302-152
2003. 5. 15	심천출판사	내남면 박달리 950-8 다동
2003. 5. 31	나무기획	성건동 584-15
2003. 9. 9	경주정보	안강읍 안강리 307-39
2003. 10. 28	문화인쇄출판사	성건동 637-21

〈표 7-2-10〉 등록된 정기간행물 명단 (2003년 12월말 현재)

구분	간별	등록일자	제호	주 소	비 고
일반주간신문	주간	1989. 11. 20	경주신문	동천동 768-2	
특수주간신문	월간	1993. 8. 31	서라벌신문	동천동 787-5	
기타간행물	격월간	1992. 4. 8	양지	동천동 946-5	
〃	기타일간	1992. 11. 2	경주벼룩시장	성건동 627-1	
〃	〃	1993. 5. 12	경주교차로		
〃	〃	1993. 8. 23	경주소식		
〃	격월간	1997. 3. 24	동천신문		
〃	월간	1998. 8. 24	황성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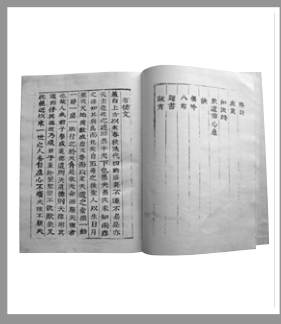
자료 : 경주시 기획공보과

宗教 民俗

제8편 종교와 민속









제1장 종교
제2장 민속

제1장 종교(宗教)

제1절 고유 신앙

종교의 원시 형태는 다양한데, 이를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활론(物活論)

물활론은 정령(精靈)숭배라고도 한다. 일체 만물과 삼라만상에는 모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고 이를 경외했다. 정령이 가지고 있는 주력[呪力 : mana]과 주술[呪術 : magic] 금기(Taboo)를 물활론(animism)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정령이 가지는 초자연적 주력을 인간은 경외하여 이를 숭배하며 그의 힘을 입고자 원했다. 혹종의 주력을 금기(taboo)하고 주술(magic)로 대처했다. 따라서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서는 많은 금기가 따르는 것이다.

2. 토테미즘(totemism)

특정의 동물 또는 식물 (주로 동물)이 자기들 씨족 집단의 공동 조상이라 숭배하고 신성시하여 이를 죽이거나 먹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토템 숭배를 통해 혈연적 유대를 공고히 하였는데,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등지의 미개 민족들은 마을 입구에 토템플을 세워 놓고 신성시했고 제의가 행해졌다.

경주는 왕족 김씨(金氏)가 닭의 자손이란 전통을 가지고 닭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었다.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의 아리나발마전(阿離那跋摩傳)에 계귀(遽貴), 즉 고려국(高麗國) 계귀는 계림(遽林), 즉 신라인데, 당시 당나라에서는 고려, 즉, 고구려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 나라는 계신(遽神)이므로 그들은 닭을 먹지 않는다. 먹으면 화를 입는다"고 위 책과 『연번로(演繁露)』「견융계림 조(犬戎遽林條)」에 실려 있다.

후쿠이현 와가사만[若狹灣]에 시라기[白木](神社)가 있는 마을에서는 섣달 그믐과 정월 초하루 날에는 닭고기나 달걀을 먹지 않는다. 먹으면 화를 입는다는

전통과 습속을 오늘날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다. 이곳은 한반도 신라지역에서 일본에 진출하는 통로인 쓰루가[敦賀]지방인데, 신라 · 가야로부터 일본에 상륙 · 진출한 많은 전설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옛 신라의 김씨족인데, 일본에 유이민(流移民)으로 와서 정착하여 오랜 조상 대대의 토테미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도 조상이 한반도에서 도래(渡來)하여 왔다는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김씨들은 토테미즘의 전통을 망각한지 오래 되나 이들 유이민이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신라 건국 설화에도 보면, 계림에서 흰 닭의 울음소리에 가서 보니 금궤 안에 아기가 있었다. 이 아기가 알지(閼智)로 김씨의 시조라 한다.

3. 소도(蘇塗)

마한에는 신성 구역에 큰 나무를 세워 소도라 하고 여기에 방울, 북을 메달아 귀신을 섬겼고 이곳은 신성불가침의 구역으로 죄인이 들어 가서 피신하여도 체포하지 못했다고 한다. 소도는 소도모토 또는 소도칸째라 한다. 신간(神竿)은 만주, 몽골 등지에 널리 퍼져 있고, 우리나라 권역에도 근래까지 솟대라 하여 마우만대 위에 새를 조각하여 놓았다. 소도는 제단, 수호신, 그리고 경계선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4. 10월 상달 추수감사제(秋收感謝祭)

국가에서 제천행사뿐 아니라 마을과 가정에서도 시루떡을 해서 천지후토신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 신앙행사였다.

5. 일월숭배(日月崇拜)

『수서(隋書)』에 "정월 초하루에는 국왕이 연회를 차리고 서로 하례하고 그날에 일월신(日月神)에 절한다" 했다. 『삼국사기』 제사 조에는 "문열림(文熱林)에서 일월제(日月祭)를 행하고 영묘사(靈妙寺) 남쪽에서 오성제(五星祭)를 행했다"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영일현 도기야(都祈野)에서 제천(祭天)을 행했다" 한다.

6. 하눌님[하나님 · 하느님] 숭배

인간은 그들의 길흉화복, 풍흉, 시화년풍(時和年豊) 등 모든 자연 현상을 주재하는 초인격 · 초자연력으로서 세상을 총섭(總攝)하는 신으로서 하눌님을 숭배했다. 종래 하눌님을 천(天) 또는 천제(天帝)라 하였다. 불교가 수입된 후 불교의 제석천(帝釋天) 사상과 결합하여 불교에서는 제석(帝釋)이라 했다. 오월에 파종 · 이앙 행사가 끝나면 백성들은 풍년을 하느님께 기원하는 제천 행사를 올렸다.

7. 무속(巫俗)신앙[샤머니즘]

샤먼교란 동북아시아와 시베리아에 걸쳐 알타이 제족 간에 널리 신앙되는 고유종교다. 하늘에 하눌님이란 신이 있고 인간에게 길흉화복을 가져다 준다. 신과 인간의 중간 매개체로 샤만[巫]이 있다. 샤만은 강신(降神)하는 나무, 주로 대나무를 집에 세우고 방안에도 강신하는 신장대를 들고 신을 즐겁게 해주는 가무를 연주한다.

악신은 배척하고 선신은 맞아들여 인생을 영복양재(迎福禳災)케 한다. 악령을 불제(祓除)하고 질병과 재앙을 쫓아내는 의무(秉巫)의 직능은 고대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나쁜 귀신과 나쁜 혼령이 침입하여 병마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무당이 이를 양재하는 굿을 하여 치유케 했다.

이 행사에는 신에 대한 제물의 공여와 가무 점무로 악신을 쫓아냈다. 이 무속행사에서는 굿, 풀이, 고사 등으로 불리는 무격(巫覡)이 행했다. 그리고 무당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지하는 기능이다.

신라에 있어서 군왕은 고대의 무사장(巫師長)이었다. 차차웅(次次雄)이란 왕의 칭호는 스승, 중의 음차(音借)로 즉 무당을 의미한다. 선덕여왕이 세 가지를 예견했다는 것은 무사장 왕의 직능의 하나였다.

8. 두둘, 두두리 신앙

12세기 말 무신 집권기에 자기 고향 동경[경주]의 지배자이던 당시의 권신 이의민(李義旼) 장군은 고향 동경에서 인간이 신앙하던 두둘[豆豆乙]을 신앙하여 집에 두둘 사당을 일으켜 나무로 두둘상을 만들어 모시고 날마다 제사하며 복을 빌었다. 그가 모신 목매(木魅)는 나무로 깎아 만든 두둘[도깨비상]이었다.

이의민(李義旼)의 몰락을 예고할 때 두둘 사당에서 울음[哭聲]이 나는지라 이의민이 놀라 두둘에 물으니 두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집을 수호한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장차 화를 내리려 함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곡(哭)하노라." 했다. 얼마 후 과연 이의민이 최충헌, 최충수 형제에 의하여 미타산(彌陀山) 별장에서 기습 처단됐다. 이것은 『고려사』「이의민 열전」에 실린 기사다. 그리고 죽은 진지왕과 그의 여인 도화녀(桃花女) 사이에 태어난 비형랑(鼻荊郎)이 도깨비[두두리] 무리와 더불어 매일밤 황천(荒川) 언덕에 가서 놀았다. 왕이 이를 듣고 그 무리를 데리고 신원사(神元寺) 북쪽에 다리를 놓으니 이것이 유명한 귀교(鬼橋)이다.

『삼국유사』에 보면, 그 무리 가운데 길달(吉達)은 국왕의 요청으로 비형랑이 추천하여 벼슬을 주어 흥륜사 남쪽에 그가 살게 할 문루(門樓)를 지어주니 매일 밤 문 위에서 잤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면 경주부 불우(佛宇) 영묘사(靈妙寺)의 절터는 본래 큰 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의 무리들이 하룻 밤 사이에 이 못을 메워 절을 지었다 한다. 두둘[豆豆乙], 혹은 두두리(豆豆里)는 경주 지방의 독특한 민간 신앙이었다. 귀면와(鬼面瓦)도 잡귀를 막으려는 민간의 신앙으로 두두리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경주 지방에서는 민간에서 복을 맞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신앙으로 두둘 신앙이 유행했다.

9. 기타 잡귀, 조상신, 산신(産神), 조왕신[부엌신], 자택신, 정낭신[뒷간신]등 민간신앙

10. 장승

동구 밖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으로 일컫는 한 쌍의 나무 장승이 서있고 그 장승을 신앙했다. 장승은 축귀대장(逐鬼大將)이라고도 쓴다. 동네에 병마 악귀의 침입을 막고 신성 지역의 표지와 이정표의 기능을 겸했다. 사람들은 이 장승에 병마 퇴치, 양재를 빌고 기복(祈福)을 했다.

11. 기우제(祈雨祭)

예로부터 조상들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빌었는데, 기우제를 올리는 기우소(祈雨所)는 시조묘(始祖廟), 김각간묘(金角干墓), 백률사(栢栗寺),

북형산(北兄山), 온지연(溫之淵), 구미산(龜尾山), 망산(望山), 치술령(鵄述嶺) 등의 여덟 군데가 있었다.

농업국인 우리나라는 강수이 우량에 좌우된다. 그래서 산신과 천신에게 혹심한 한발기에는 강우를 기원했다. 기우제 행사는 명당에서 무덤 파내기, 산위에서 연기 올리기, 시장 옮기기, 물 퍼붓기, 줄 다리기, 무당[계집]의 알몸 드러내기 등이 있으며, 제수를 차려 제사를 지내고 집집마다 경건히 남녀 합방을 금하고 빌었다.

12. 산악신앙(山岳信仰)

신라인의 고유 신앙 중 가장 크고 중요하며 근본적인 것이 산악 숭배, 즉 산신(山神) 숭배였다. 산신은 즉 천신(天神)이며, 동제(洞祭)도 산신제였다.

13. 동제(洞祭) · 도당제(都堂祭, 陶唐祭)

남산의 북쪽 기슭에 도당산[都唐山, 陶唐山]이라는 작은 산이 있다. 월성의 맞은편에 있는 95m 가량의 낮은 산이다. 도당산은 전국 도처의 읍락에 있는데, 특히 개성(開城)의 도당산은 그 도당제로 널리 알려졌다. 충북 진천의 도당산성은 김유신이 태어난 곳으로 그의 사당인 길상사(吉祥祠)가 있어 도당제를 올리는 명산이다.


도당산(都唐山)

도당산은 도당(都堂)이 있는 산의 이름이며, 도당은 촌락제를 지내는 제단을 말한다. 촌락제는 촌제 또는 동제라 일컫는 것으로 그 제장(祭場)을 당(堂), 노고당(老姑堂), 천왕당(天王堂), 선왕당(仙王堂), 성황당(城隍堂), 국사당(國師堂)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동제는 촌락의 성스런 장소에서 행하는 마을의 제사다. 그 명칭도 다양하여 동제, 동신제, 대동신사(大同神祀), 대동치성(大同致誠), 산제(山祭), 산신제(山神祭), 산천제, 당제, 당산제(堂山祭), 성황제, 토지제, 가리제(街里祭), 노신제(路神祭), 장승제, 목신제, 부군제(府君祭), 천제(天祭), 천왕제, 산왕제, 도당제 등으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동제라 부른다. 도당산에는 신당(神堂)이 있고, 이 신당에는 산신의 화상을 그려 걸어놓았다. 그 신성 구역에는 본향목(本鄕木) 또는 도당목이라는 신

목이 서 있었다. 이 신목은 고목이다. 그 앞에는 본향기(本鄕基) 또는 도당기(都堂基)라 칭하는 도당제의 신정(神庭)이 있다. 가끔 누석단(累石壇) 돌무지도 있다.

도당제 즉 동제의 신은 동신이며 산신이다. 동신, 산신은 천신이 하늘에서 산에 내려와서 산신이 되고 동리에 내려와서 동신이 된다. 동제의 목적은 촌락의 안녕과 풍년을 가져오고 재해와 병마를 물리쳐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이다.

상고시대는 제관이 처녀사제자(司祭者)였으나 후대에 오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제주는 남성이 되어 유교식 제문과 제물로 제사를 지냈으며, 그후 여성 무당이 주재하는 도당굿을 올리는 이원 행사로 내려왔다. 여기에는 온 동민이 함께 참가하여 촌락 공동체 의식과 습속으로 바뀌어졌다. 후일에는 사당패가 참가하는 일대 무용굿판 별신굿이 벌어지기도 했다.

축문(祝文)은 가로로 긴 한지에 쓰고 종이 양 끝에는 가는 대를 달아 양손에 들고 독축한다. 도당제에는 군웅(軍雄)의 군장(軍裝)을 한 무녀(巫女)가 사방에 화살을 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을 수호 · 방어한다는 뜻이다.

14. 삼사(三祀) 삼산(三山)

신라시대 경주인은 산악을 경외하고 숭배하였으며 신앙했다. 산악에 의하여 국가를 이루고 진호하였으며 국태민안을 이루고자 했고 개인의 소원성취와 수복을 기원했다.신라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완성한 삼사, 즉 대 · 중 · 소사의 삼산과 오악 숭배 신앙이 유명했다.

신라는 삼산 오악과 별도로 왕경 오악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오악은 왕경을 동, 서, 남, 북으로 둘러싸 왕경을 수호하는 천연의 요새였고, 신라인이 숭앙하던 신산 영악이었다. 왕경 오악은 왕경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동, 서, 남, 북의 명산인 서악 선도산, 남악 금오산, 북악 금강산, 동악 토함산, 중악 낭산을 의미한다. 원래 동악은 명활산이었을 것으로 짐작는데, 그래야만 방위, 위치, 지형에 있어서 왕경 오악과 부합한다.

토함산은 통일기의 동악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꼭 그렇게 생각할 수 만은 없는 문젯점이 있는데, 토함산에는 신라의 왕릉과 사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토함산이 국초로부터 동악이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신라 건국 설화는 신라 후대에 만들어 가관(加冠)시킨 것이며, 경주 평야에서 사로국의 6부가 시작되었을 때, 경주 평야 분지에서 멀리 떨어진 토함

산이 경주 분지를 수호하는 영산으로 신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함산신 탈해는 훨씬 후대의 사실이라고 본다. 신라 원초에 산신은 여신이었다. 그것이 남신으로 변한 것은 통일 후 유교 사상의 영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악에 명활산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악 신앙을 훑어보기 위해서 삼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사(大祀) 삼산(三山)
1. 나력(奈歷 · 습비부) 2. 골화(骨火 · 체야화군) 3. 혈례(穴禮 · 大城郡)

○ 중사(中祀) 오악(五岳)
동, 토함산[대성군 大城郡] 등

○ 소사(小祀), 서술(西述) 모량(牟梁), 훼황(卉黃), 고허(高墟), 사량(沙梁) 등.

대사는 삼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제사로 삼산신이라는 호국신을 국왕이 제사지내는 신라 최고의 제사다. 삼산은 건국 시기의 세 소국의 시조 탄강지였다고 보여진다. 중사는 오악, 사진, 사해, 사독, 육산, 일성, 일진에 지내는 큰 제사다. 그 중에서도 오악의 숭배와 제사가 기본이었다. 고려 시대의 오악 중 중악에 지낸 제문이 남아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국왕이 지내는 큰 제사였다. 이는 신라 이래의 전통으로 볼 때 신라시대의 중사도 국왕이 지내는 큰 제사였다. 소사는 전국의 신령스러운 명산에 지내는 제사로 삼사 중에서 가장 격이 낮았다. 제주는 국왕이 아닌 대신들이 지냈을 것이다.

산악 신앙은 무속 신앙과 함께 신라 고유 신앙의 이대(二大) 주류를 이루는 것이었다. 신라인들은 산신을 천신과 동일하게 숭배 · 신앙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신은 천신, 조상신이라고 보았다. 신라 지배족의 조상신은 모두 하늘에서 산신으로 강림했다. 신라인들은 산신을 남신(男神)이 아닌 여신(女神)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에 부계 부권적 가부장 사회의 윤리 도덕인 유교에 길들지 않은 순수한 한국 고유의 사상으로 소중한 것이다.

신라 삼사와 왕경 오악 숭배와 신라 고유 신앙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최고의 신앙인 산악 숭배, 즉 산신 숭배, 산신 신격인 천신, 조상신, 여성신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인들은 삼산신을 호국신으로 보았다. 소사인 서술의 서술신모(西述神母)도 나라를 진우(鎭祐)하는 호국신으로 숭배했다.

1) 산신의 신격(神格)은 천신(天神)

산신은 천신의 분신(分身) 내지 화신(化身)이었다. 산신의 본체는 천신으로 이위일체의 신격을 가졌다. 영격(靈格)으로서 하늘을 숭배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모든 민족의 공통된 신앙이었다.

신라를 위시한 한반도 남부 지방의 천신에 제사 지내는 사제자를 마한에서는 천군(天君)이라 했다. 신라인은 하늘과 그의 신격인 하느님을 전지전능의 절대자로서 우주를 총섭 · 주재하는 초자연력으로 숭배했다.

하늘은 세상의 만물을 육성하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지배하는 존재로 믿어왔다. 그러나 불교가 수입되면서 하느님은 불교와 결합하여 불교의 제천(諸天)으로 승화되었다. 그리하여 고유 신앙의 하느님은 불교적인 용어와 불법 수호신으로 변화하여 불교와 불교 신앙인을 호지(護持)하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하느님은 천(天), 제석(帝釋), 천주제석(天主帝釋), 혹은 천제(天帝), 천주(天主)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 신앙에서는 명칭이야 불교의 용어를 차용했지만 고유의 하느님 사상은 그 저변에 흐르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천국에 가까운 높은 산악에는 하느님[天神]이 강림하여 산신으로 화신 혹은 분신했다. 지리산 산신을 천왕(天王)이라 칭했다.

속리산 산신은 대자재천왕(大自在天王)이었다. 그 산신은 하늘에 있는 천신인데 10월 인일(寅日) 속리산 법주사에 내려와 45일 간을 머물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것이 신라 산신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대표적인 설화다. 산신의 본신은 천신이었으며 천신과 산신의 이위일체(二位一郎)를 말해준다. 천신이 높은 산에 내려와 주처를 정한다는 것이 천신의 화신 분신설을 가장 잘 말해 준다. 즉 하늘에 있을 때는 천왕[神]이요. 산에 하강해서는 산왕[山神]이다.

다만 신라 고유의 속리산 산신이 불교에 수용된 후에 산악에 들어선 사원과 불교의 신명으로 바뀐 것 뿐이다. 이 대자재천왕이 하강하고 상승하는 봉우리 이름을 천왕봉이라 한다. 재약산 북방의 가지산 최고봉이 천왕봉임은 천왕의 주처이기 때문이다. 태백산 산정에 태백산사(太白山祠)가 있는데, 이를 천왕당(天王堂)이라 하며, 태백산 산신은 태백산 천왕법이다. 팔공산 천왕봉[후대 비로봉] 산정에 천왕당이 있어 천왕, 즉 산왕에 제사했다.

2) 산신의 성(性)은 여신(女神)

『삼국유사』 김유신 조에 대사 삼산신이 세 낭자(娘子)로 현신함을 볼 때 산신은 여신이다. 선도산 신은 서술신모, 치술령 산신은 치술신모, 영축산 신은 변재천녀, 운제산신은 운제부인, 풍류산신은 정완부인, 지리산신은 마야부인, 백악신은 정녀부인 등 원초 한국의 산신은 여신이었다. 따라서 하느님도 여신이다. 일본의 천신 아마데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가 여신인 것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민족의 전승일 것이다.

신라인 뿐만 아니라 근세에까지 한국 민족의 고유 종교 중 가장 성스럽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산악 숭배[산신 신앙]이었다.

15. 조신 숭배(祖神崇拜)

조상이 낳아주고 키워주고 행복과 출세가 모두 조상신이 명명지중에서 음우하는 음덕이라 여겼다. 그래서 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며 항상 가호 음우를 기도하였다.

1) 나을신궁(奈乙神宮)

신라 지증왕(智證王)대에 시조 탄강지에 나을신궁을 창건하여 제사 지냈다. 시조 탄강지 나을(奈乙)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삼산의 하나인 나력산(奈歷山) 또는 나림(奈林)을 동일 지명으로 보고 있다. 『삼국사기』에 습비부에 있다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나을신궁에 국왕이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제사하였다.

2) 조상신(祖上神)

일반 백성도 모두 조신(祖神)을 숭배 · 제사하고 자손의 번영과 행복을 빌었다. 백성들의 집에는 사당을 모시기도 하였다. 이를 가묘(家廟)라 한다. 고려 · 조선 시대에 오면 양반 사대부들은 가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불천위 사당으로서 부조묘(不遷廟)가 있었다. 이것은 특별한 위인에 대하여 국가에서 세워 준 것이다. 이 부조묘에는 영원히 제사한다.

3) 기제사(忌祭祀)

고려 · 조선 시대에 종6품 이상[참상(參上)]은 3대를 지내고 정7품이하는 2대만 지내고 일반 서민들은 1대만 지낸다. 이것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제사 조의 규정이다.

조선왕조 뒤에 현대에 와서는 문란하여 모두 4대봉사(奉祀)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4대가 봉사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는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다. 기제사를 옛 법도대로 1대로 행하는 집도 있다.

16. 신라 이래의 제사(祭祀)

『삼국사기』권 32, 잡지 1, 「제사 조」에는 신라의 국가 제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시조묘(始祖廟)와 신궁(神宮) 및 5묘(廟)와 사직(社稷)에 대한 제사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 선농(先農), 중농(中農), 후농(後農) 등 농사에 대한 제사와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는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대한 제사로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를 지냈다. 넷째는 사성문제(四城門祭) 등의 별제(別祭)를 지냈다고 하였다.

1) 시조묘(始祖廟), 신궁(神宮)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제3대 남해왕 3년(6) 정월에 시조박혁거세묘(始祖朴赫居世廟)를 세우고, 철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친누이 아로(阿老)가 제사를 주관하였다. 그리고 제22대 지증왕 때(500~514)에는 시조 탄강지인 나을(奈乙)에 신궁(神宮)을 창립하고[『신라본기』에는 제21대 소지마립간 9년(487) 2월에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역대의 왕은 즉위 초에 참배하였다.

시조묘와 신궁이 있었던 자리를 나정(蘿井)으로 추정해 왔는데, 2002년 5월,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8각형 기단을 갖춘 건물지가 발굴되어, 시조묘와 신궁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팔각(八角) 건물은 묘사(廟祠)로 신궁(神宮)과 관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래 팔각팔릉(八角八稜)은 아미타여래의 삼매야형(三昧耶形)으로서 미타전, 관음전, 탑파, 부도 등의 건축 기본형이며 후대는 정사(亭榭)의 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유적을 신궁(神宮) 터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2) 선농단(先農壇)

선농단은 중국 상고시대에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를 제사하던 단이다. 우리나라 역대 임금이 선농단에 농사를 잘되게 해 달라고 빈 후에 친히 밭을 갈아 백성들에게 농사의 소중함을 알리고 권농하였다. 제사는 매년 경칩 후 첫 해일(亥日)에 지냈다.

『삼국사기』「제사 조」에 "입춘 후 해일(亥日)에 명활산의 남쪽 웅살곡(熊殺谷)에서 선농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때에는 선농단이 있었던 것 같다. 경주의 선농단은 「경주읍내전도」에 분황사 남쪽인 구황동에 그려져 있는데, 방형의 단이 마련되고, 그 둘레 사방에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3) 사직단(社稷壇)

중국에서 '사(社)'는 후토(后土)라는 토지신의 이름이고, '직(稷)'은 신농(神農)이라는 곡신(穀神)의 이름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제37대 선덕왕(善德王) (780~785) 때 사직단을 설치하였고, 조선에서는 태종(太宗) 때(1401~1418)에 설치한 것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사직단이 "부의 서쪽에 있다"라 하였으며, 『경주읍지』는 "부의 서쪽에 있었는데, 중간에 동천(東川)으로 옮겼으며, 다시 현종(顯宗) 기유년(1669)에 읍성 서쪽 2리에 옮겼다"고 하였다. 또 『경주군지』에는 '경주읍 서문 밖'에 있다고 하였다. 『경주읍내전도』에는 읍성의 서북쪽에 방형의 낮은 단이 있고 그 사방에 홍살문이 서 있는 그림이 있다.

사직단의 정기적인 제사는 중춘[仲春:음력 2월]과 중추[仲秋:음력 8월] 상무일(上戊日)의 2회였다.

4) 여단(羈壇)

여제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외로운 혼령으로서 역질(疫疾)을 퍼뜨리는 귀신인 여귀(厲鬼)에게 지내는 제사이며, 그 제단을 여단이라 한다. 조선 제2대 정종(定宗) 2년(1400)에 중앙과 지방의 각 주현(州縣)에 여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제사는 정기적으로 봄에는 청명(淸明), 가을에는 7월 백중, 겨울에는 10월 초하

루에 지냈으며, 유행병이 돌 때도 지냈다. 경주의 여단은 『경주읍내전도』에 황성공원의 독산(獨山)에 그려져 있고, 『동경통지』에는 "부의 북쪽 4리에 있다"하였으며, 『여지도서』에는 '부의 북쪽 5리에 있다' 고 하였다.

5) 둑제단(纛祭壇)

'둑(纛)' 은 대가(大駕) 앞이나 군대의 대장 앞에 세우는 군기이다. 조선시대에 대체로 경칩이나 상강(霜降) 때 그 기의 신인 둑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신단을 '둑단' 이라고도 한다. 『경주읍내전도』에는 첨성대의 서쪽에 그려져 있으며, 『동경통지』에 "부의 남쪽 3리에 있다"고 하였다.

6) 성황사(城隍祠)

성황신은 마을의 언덕에 작은 돌을 쌓거나 신수(神樹)을 받드는 서낭신과는 다르며, 지방관이 주관하여 위판(位版)을 모시고 무당을 불러 지낸다. 성황신은 여러 여귀(羅鬼)를 통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사는 여단[羅壇] 보다 3일 앞서 지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의 동쪽 7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낭산(狼山)의 서북으로 추정된다.

7) 서낭당[城隍堂]

마을의 언덕이나 어귀에 작은 돌로 쌓은 탑이나, 고목을 신체로 받들며, 신체에는 왼새끼로 꼰 금줄을 두르고, 둘레에 붉은 흙을 뿌려 성역임을 나타낸다. 제주(祭主)는 동리에서 가장 정결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1년에 한 번 제를 지냈다.

경주지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동제를 지낸 곳은 안강읍 옥산리인데, 이곳은 제주를 동네 사람으로 하지 않고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다가 꽹가리와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동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제2절 불교

1.삼국기의 불교

신라의 불교는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 고대 문화를 빛내 주었다. 그렇지만 그 전래와 공인 과정에서는 이웃한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순탄치 못한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공인되고 난 후에는 조정과 왕실의 주도로 국교로서의 위치를 잡아 나갈 수 있었다.

사찰의 건립, 탑과 불상의 건조, 대장경의 구비와 같은 불교 봉행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승려들은 무속의 제사장들이 행하던 제사와 치병(治病), 기도의 집전 등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점차 무속의 성소였던 소도 지역에 흥륜사를 위시한 여러 사찰들이 건립 되었다.

한편 불교의 기복(祈福)과 호국적인 측면보다 불교 본연의 교리를 수학하고자 서학을 하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신라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안함, 원광, 자장 등 많은 이들이 유학 후 신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상을 펼치고 나라 일에 협조함으로써 신라 사회와 신라인들을 일신시킬 수 있었다. 즉 세속오계를 통해 화랑들의 행동 지침이 불교식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고, 승려들은 왕의 자문역, 승단의 구성과 정비, 그리고 왕권과 대중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가항 불교(街巷佛敎)라 불리는 서민들을 위한 포교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삼국이 항쟁하던 시기였으므로 호국 불교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황룡사 9층탑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1) 신라 불교의 전래와 공인, 그리고 정착

신라의 불교 공인은 고구려나 백제의 372년과 384년에 비해 거의 150여 년이나 늦은 제23대 법흥왕(法興王) 14년(527)에 이루어졌다. 그 과정도 순탄하지 못하여 법흥왕은 이차돈을 희생시키고서야 공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라에 불교가 전래되어 공인되기까지의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이를 눌지왕대 아도화상의 전래기, 소지왕대 사금갑(射琴匣)사건으로 대변되는 과도기, 법흥왕대 이차돈 사건 이후의 수용기로 구분해서 인식하기도 한다.

처음 신라에 불교를 전래한 고구려 승 아도화상은 선산 지방의 모례라는 사람

의 집에 칩거하면서 불교를 전파하고자 애를 썼으나 여의치 않던 차에 왕녀의 병을 고쳐주게 되었다. 이에 초가집이나마 흥륜사라는 절을 짓게 되었으나, 그의 뜻대로 신라인들에게 불교가 알려지지 않자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변국인 고구려나 백제에 불교가 공인되어 신앙되고 있었으므로, 신라에서도 전통 무속신앙을 고수하려는 측과 신흥 불교를 공인할 것을 주장하는 측과의 갈등이 점차 생겨나 이른 바 '사금갑(射琴匣)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이 갈등 과정에서 왕실에서는 이미 불교를 신앙하고 궁중에 승려가 머물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소지왕(炤知王)은 일관(日官)의 말을 듣고 대궐 내의 분수승을 제거하였는데, 이는 불교를 신앙하고 있던 측이 견제와 탄압을 받은 것으로 고구려 세력에 대한 견제로 보기도 한다. 신라의 일관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의 자연 현상에 대해 나름대로 그 원인을 풀이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불교의 전래로 점차 일관의 역할을 불교 승려들이 대신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견제가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왕권 강화를 실행하려는 왕으로서는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서의 불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속신앙을 고집하는 여러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차돈을 순교시키면서까지 불교를 공인하려 한 것이다.

삼국에는 도교와 유교가 불교보다 먼저 유입되어 있어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삼국은 각기 자국의 사정에 맞추어 불교가 공인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 무속과 불교가 서로 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설화들이 만들어진 바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불교 수용과 함께 업설(業說)이 전해져 새로운 윤리관이 형성되었다. 불교 전래 초기의 교리라 할 수 있는 업설은 현재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성찰로서 인간의 의지적 행위를 강조한다. 인과응보(因果應報)나 권선징악(勸善懲惡), 수복멸죄(修福滅罪) 등 삼국의 불교 수용 초기 가르침은 모두 이 업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의 자각을 통한 실천을 전제로 한 불교의 평등 사상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던 중앙의 하급 관리와 지방의 지식인층에게 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또한 평등 사상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국가지배체제를 지향하고 있던 왕실 세력에게도 영토 안의 모든 백성들을 공민으로 일원화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이념적(理念的)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불교가 엄격한 수행과 하나의 단일한 지도력에 근거하고 지방의 독특한 제의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중앙집권화를 지향하던 왕실의 관심을 끌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기본적인 정치 · 사회윤리는 자비 정신으로, 자비란 나와 내 집단 이외의 다른 인간과 집단, 나아가 다른 생물에까지 확대되는 정신이다. 그러나 불교 수용 이전 타인과 타 집단, 타 생물의 생명과 권리는 자기와 자기 집단의 생존이 보장받는 한에서만 고려되는 제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이러한 제한을 뛰어넘으로써 보편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질적 집단 출신의 모든 사람을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이상으로 묶어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대 국가의 왕들은 매력을 느낀 듯하다.

신라에서의 불교의 공인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불교가 공인되고 흥륜사를 창건한 의미를 신라 건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법흥왕대부터 짓기 시작한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가 낙성된 해는 진흥왕 5년(544)인 갑자년(甲子年)이었다. 이 해는 신라 건국 기년인 갑자 57년에서 10주갑(周甲)이 지난 후 맞이하는 최초의 갑자년이다. 이해에 흥륜사의 낙성 연대를 맞춘 것은 갑자 기년을 내세워 불교가 처음으로 신라에서 일어나게 된 필연성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에는 군신들과 민간 사이에 무교(巫敎)가 존속해 있었으므로, 흥륜사의 창건 연대를 신라의 건국과 같은 간지인 갑자년(甲子年)에 맞추어 신라가 존속하는 한 흥륜사와 불교가 영속되리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면서 무교를 포용하여 전통 신앙을 습합(習合)하였다는 점이다. 공인 이후 창건된 흥륜사에 무교적 요소가 혼효되어 나타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즉 흥륜사가 들어선 천경림은 천(天)과 경(鏡)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듯이 천신(天神)에 대한 제장(祭場)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차돈 사건은 천경림의 천신을 모신 곳에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들어서면서 빚어진 갈등인 것이다. 진지왕대에 귀교(鬼橋)를 만들었던 비형의 무리 가운데 길달이 만든 길달문의 존재와, 진자사가 화랑들에게 불교정신을 주입하려고 노력하여 미시랑을 국선으로 받든 사건은 무교가 점차 불교에 습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또한 치병(治病)에 있어 선덕왕대의 법척과 밀본의 일화와 흥륜사의 장을 바르면 부스럼이 나았다는 일화 등은 무교적인 전통이 이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신라에 불교가 수용되어 정착 · 발전된 시기는 중고기[中古期 : 514~653]로서,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의 불교식 왕명을 가진 6인의 군주통치시기였다.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과 그를 이은 진흥왕은 사신(捨身), 즉 단기 출가를 행하는 등 봉불 군주(奉佛君主)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진흥왕은 순수(巡狩) 시에도 왕의 자문역으로 승려들을 대동하였고, 화랑도를 제정하면서

승려 낭도들이 활약하게 하였다. 진평왕 대에는 신라의 삼보(三寶)가 제정되는 등 불교가 신라 사회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잡는 시기였다. 진평왕이 안함을 최초의 국비 유학승으로 중국에 파견한 이래 많은 이들이 중국에 유학하였다.

선덕여왕대에는 분황사 건립을 위시하여 영묘사, 법림사, 통도사 등 스물 다섯 곳이 넘는 사찰이 건립되었다. 특히 양지(良志)의 조각이 돋보이며, 중국 유학에서 돌아 온 자장의 청을 들어 황룡사 9층탑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선덕여왕은 지기삼사(知幾三事)라 하여 미리 그 기미를 안 것이 세 가지였다. 이 가운데 자신의 능을 도리천에 써 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신라인들은 나중에 사천왕사가 여왕의 능 아래에 들어섬으로써 그 위가 도리천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진덕여왕은 『승만경』에 나오는 승만부인으로 그 이름을 알 정도였다.

신라 불교를 주도해 나간 이들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국정에 참여하였던 원광과 자장이었다. 이들은 신라 불교의 초석을 놓았을 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원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신라 사회에서 불교를 공인한 이후 불교는 국가의 주도로 급속히 전파되어 갔는데, 그 교설이 신라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생활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장례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왕릉을 예로 들면, 법흥왕 이후 왕릉은 그 위치가 월성 근교의 평지에서 산록으로 이동하였을 뿐 아니라, 적석목곽분의 형태가 현저히 축소된 횡혈식 석실분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다. 또한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자비 정신이 강조되면서 순장(殉葬)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장 유물도 후장(厚葬)에서 박장(薄葬)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적나라한 토용을 대신하여 예복을 갖춰 입은 인물상이 부장되고 있다.

신라 불교의 타계관이 변화하는 것을 살핀 연구에 의하면, 신라는 불교 도입 이전의 타계관과 불교적 타계관이 습합하는 과정으로 천계(天界)가 중심이었다가, 두 세계가 비슷한 영향력으로 습합되면서 천계의 영향력이 반영된 도솔천이 그 중앙에 있는데, 이는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구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불교의 독자적인 타계관의 출현으로 정토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라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하였다는 점과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라의 불교는 그 공인이 고구려나 백제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징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중국에 유학하여 새로운 학문과 교리를 배워옴으로써 세상을 더 넓게 보는 학승을 배출하는 등 국제적인 면모를 보인 특징이 있기도 하다.

2) 진호국가적 성격과 미륵 신앙과 계율의 성행

6세기 신라 불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고구려로부터 기복적(祈福的)이고 치병(治病)을 위주로 한 불교가 신라에 전래됨으로써 신라 불교의 특징 역시 기복적이고 치병을 위주로 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로부터 전래되었다는 북방 전래설과 가야나 백제에서 전래되었다는 남방 전래설이 있는데, 북방 전래설을 뒷받침해 주는 유적들이 산재해 있어 힘을 얻고 있다. 태백산맥 기슭의 봉화, 영주, 안동 등지를 거치는 죽령루트와 충주를 거쳐 문경에서 선산에 이르는 조령루트 상에 산재한 유적들을 말한다. 고구려에서 신라로의 불교 전래는 교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전래였다. 물론 전진에 사신으로 다녀온 위두에 의해 불교가 알려졌을 것이나, 직접적인 전래는 아도에 의한 것으로 구복적인 측면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어 진흥왕 12년(551)에 혜량에 의해 전해진 고구려 불교는 신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승통(僧統)을 비롯한 승관제도 내지는 백좌강회와 팔관회 등이 처음으로 신라에 실시되게 하였다. 혜량이 직접적으로 신라로 망명하게 된 것은 거칠부와의 인연 때문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고구려의 추군(麤群)과 세군(細群)의 세력 다툼에 밀린 세군 측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같은 불교계 내의 세력 가운데 혜량측의 세력이 밀린 것이다.

팔관회는 불교의 팔계(八戒)를 위한 법회였다기보다는, 신라의 영토 확장과 중앙집권의 강화 과정에서 호국신앙적 측면의 전몰 장병 위령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불교행사가 신라에 들어와 변용된 형태라고 하겠다. 자장법사는 중국에서 만났던 신인(神人)이 '황룡사 9층탑을 세우고 팔관회를 열어 죄인을 용서하면 외적이 침입하지 못할 것' 이라고 한 말을 받아들여 귀국 이후 황룡사에서 팔관회를 개최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팔관회는 7세기까지 계속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신라 불교는 고구려로부터 기복적이고 치병(治病)을 위주로 한 불교가 전래되어 팔관회의 실시와 흥륜사의 치병 설화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첫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둘째, 고구려에서 전래된 호국적 불교의 성격은 신라 불교의 호국적 성향을 형성하므로써 신라불교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고구려로부터 망명한 혜량 이후 더 이상의 불교 전래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혜량이 신라로 망명한 이후 고구려 승들과 신도들의 망명이 잇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고구려와 신라를 잇

는 교통로에 6~7세기에 조성된 불교 관계 유적, 즉 순흥 고분군에 보이는 불교적 요소라든가 안동 지역에 조성된 불교 유적 등은 고구려로부터 이주해 온 불교 신도들과 그 지방민의 합작품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혜량에 의해 처음 소개된 백고좌회는 백좌강회라고도 하는데, 재래 무속이 신궁과 소도로 대표되고 유교가 종묘로 대변된다면, 불교는 백좌강회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정도로 호국불교적 특징을 나타내는 행사이다. 백좌강회의 경우 대체로 진평왕 35년(623) 수나라 사신 왕세의가 왔을 때 황룡사에서 실시된 백좌도량을 최초의 행사로 보기도 하지만, 신라의 백좌강회는 혜량에 의해 고구려로부터 전해져 있었다. 또한 구마라집이 『인왕경』을 번역한 401년부터 계산하면 180여 년이 지난 뒤의 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 불교가 전진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북조 불교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고구려에서 백좌도량을 개최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때 실시된 백좌도량도 호국 『인왕경』을 설하는 인왕재, 인왕반야회, 인왕도량, 백좌회라 불리운 행사로, 진호국가적 성격이었던 것이다.

신라 불교가 진호국가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은 신라 불교의 초석을 놓은 혜량, 원광, 안함과 같은 이들이 모두 국가의 흥쇠와 불교와의 관련을 경험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혜량은 고구려 내의 정쟁이었지만, 거의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경험하였고, 원광은 수의 난병에 의해 죽을 고비까지 이른 경험이 있으며, 안함은 진의 멸망과 수의 멸망까지도 지켜 보았을 것이다. 원광의 세속오계는 이러한 그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불교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진호국가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셋째, 미륵 신앙의 성행과 계율이 중시된 점이다. 미륵 신앙의 성행은 백제에 의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미륵진자사의 존재, 죽지랑 등의 탄생 설화에 나타나고 있으나, 백제의 미륵사 창건은 신라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여 양국이 모두 미륵신앙에 기울어 쏠렸음을 알 수 있다. 백제와의 사상 교류로 신라인의 조화 정신, 실질주의, 미래주의적 성향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계율의 성행은 원광의 세속오계와 자장에 의한 대승보살계의 유포이다. 원광은 당시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래 무속적 가치관을 불교적 가치관으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속오계를 전쟁에 임하는 젊은이들에게 주었다. 『삼국사기』권 44 귀산전에 의하면, 귀산은 친구 추항과 함께 원광을 찾아가 계를 받았고, 이들은 602년 8월에 백제의 아막성 침입 때 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따라서 원광이 귀국한 600년에서 이들이 전사한 602년 8월 사이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광은 5계(五戒) 가운데 특히 살생유택(殺生有擇)의 조항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불교의 불살생계(不殺生戒)를 지니기 위한 전 단계로서 세속오계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그가 일반인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또한 임전무퇴계(臨戰無退戒)는 당시 신라가 처한 시대적 요구를 직시한데서 나온 계목(戒目)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를 받은 신라인들은 대무외(大無畏), 불퇴전(不退轉)의 정신으로 전쟁에 임했고 죽음까지도 불사했기 때문이다.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후의 비참함은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널리 회자된 바 있다.

3) 해외 유학파의 교학 연구와 활동

신라 사회는 해외 유학승들의 활약으로 국제적인 사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정운영에도 도움을 받았다. 삼국에서 불교를 수용한다는 것은 선진 문물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가 간의 공식적인 전래는 더욱 그 의미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가 가지고 있던 토착성과 함께 후진성을 중국과의 통교를 통해 면해 보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관(官)과 민(民)이 모두 유학에 적극적이었다.

신라 불교 흥기(興起)의 주역인 법흥왕과 진흥왕대에는 주로 중국 남조(南朝)의 양(梁)과 진(陳)에 유학하였다. 6세기에 해당되는데, 삼국에서 남조와 북조에 유학하여 알려진 이들은 14명이었다. 이들 14명은 백제의 발정, 겸익, 담혜, 현광이고, 신라의 각덕, 원광, 명관, 지명, 담육이고, 고구려의 의연, 지황, 파야, 실법사, 인법사 등으로 주로 양과 진에 유학하여 남악, 형산, 월주, 양도, 금릉, 단양 등에 머물며 수행하고 촉, 장안, 인도에까지 그 행적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백제 4인, 고구려 5인, 신라 5인이라는 비슷한 숫자로 유학승을 파견하고 있다는 것은, 6세기 삼국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비슷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시기 신라의 유학승으로 귀국 후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친 이는 원광이었다. 원광은 불교를 배우고자 중국에 유학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신라에서 유교와 도교를 배웠으나, 수학(修學)에 한계를 느끼고 중국에 유학하여 더 깊이 있게 배우려고 25세 경에 중국에 간 것이었다.

신라 최초의 관비 유학승인 안함에 이어 진에 유학한 원광은 세속오계, 걸사표, 백고좌회 등을 통해 신라에 대승계율을 소개하고 외교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면서 호국불교의 기초를 다졌다. 원광은 신라 지성의 최첨병으로 진평왕대(579~631)에 활약

한 인물로, 25세 경에 중국의 진나라로 유학하여 유교와 도교를 더 깊이 배우고자 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금릉으로 지금 중국의 남경이다. 이곳은 이미 오나라에 이어 양나라를 거쳐 진나라의 수도가 되어 있는 곳이었다. 유학 후 우연히 장엄사에서 행해진 스님의 설법『성실론』을 듣고 출가하여 불교의 승려가 되었다. 원광이 이곳에 오기 수십 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금릉은 고구려 승려 승랑이 크게 명성을 날렸던 양나라의 수도 건강[建康 : 현재의 남경(南京)]이었다. 승랑은 이 곳의 종산[鍾山 : 현재 남경의 중산릉이 있는 자금산(紫金山)] 초당사(草堂寺)와 섭산(攝山) 서하사(棲霞寺)에 주석하면서 양무제의 귀의를 받는 등 삼론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러한 사적은 원광에게 매우 커다란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고구려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신라인으로서 그는 더욱 분발하여 불교의 교학과 선정을 닦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는 금릉에 있으면서 수많은 불교 경전을 수학하였고, 소주의 호구산에 들어가 관법[참선] 수행에도 힘을 기울였다.

원광이 유학하였을 무렵의 중국은 위진 남북조의 말기로서, 수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면서 그가 머물던 진나라도 수에 의해 병합을 당하게 되어 그는 589년인 개황 9년에 수의 수도인 낙양에 가서 섭론(攝論)을 수학하였다.『섭대승론』은 유식철학에 기초하여 여래장사상을 반영한 논(論)으로, 상호 배타적이던 유식학과 여래장 사상을 조화하려는 원광의 사상 경향과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600년 귀국할 때까지 수나라에 머물면서 11년 간 유식사상 등을 연구 강설한 대승교학가로 활동하였다. 원광의 저술은『여래장경사기』[3권, 전해지지 않음]와『대방등여래장경소』[1권, 전해지지 않음] 등『여래장경』에 대한 주석서들이다.

원광은 신라로 돌아온 후 많은 행적을 남겼다. 하나는 신라 화랑들에게 세속오계를 보급하고, 가서갑사(嘉栖岬寺)에서 점찰 법회를 열어 대중을 교화한 점이다. 원광은 지방에 있으면서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이에게 설법도 해주고 세속오계와 같은, 일반인을 위한 불교의 계도 설해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 쉽게 불교 신앙에 접하게 하기 위해 점찰보를 두고 점찰 법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의 명성이 높아가자, 608년 왕실에서는 '걸사표' 의 작성과 613년 수나라의 사신 왕세의가 왔을 때 베푼 백고좌회에 중국어에 능통한 그를 상수에 앉게 하여 조정의 자문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수학한 많은 경전을 궁중에서 강의하였다. 이에 그의 실력을 알게 된 왕이 직접 그를 대접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느끼고 혼자서 하려했으며, 그가 입적하자 온 나라가 슬퍼하고 왕을 장사지내는 것과 같은 정도로 예를 다한 바 있다.

〈표 8-1-1〉 7세기 해외 유학승 일람표

국적	법명	유학지	활동 내역	출전
고구려 −1	혜관	중국 소흥 가상사, 장안 일엄사	길장의 제자로, 삼론종을 익힌 후 625년 일본으로 감.	『일본서기』, 『부상약기』, 『본조고승전』권 1.
−2	파야	중국 천태산	천태 수학	『삼국유사』권 5 「혜현구정」, 『속고승전』권 17 「지월전」
−3	도등	중국(627)	일본에 건너감(645)	『본조고승전』권 72
−4	현유	인도 대각사	중국에 돌아왔으나 미상	『대당서역구법고승전』 『해동고승전』권 2 『삼국유사』권 4 귀축제사
신라 −1	원광	중국 건강, 소주 호구산과 장안	신라로 귀국(600) 후 '세속 오계', 「걸사표」, 백좌강회 등의 활동을 폄.	『삼국유사』권 4 원광서학 『속고승전』권 13 『해동고승전』권 2
−2	지명	중국	신라로 귀국(602) 후, 계행이 뛰어나 대덕, 대대덕이 됨	『삼국사기』권 4, 『해동고승전』권 2
−3	담육	중국	신라로 귀국(625)	『삼국사기』권 4 『해동고승전』권 2
−4	안함	중국 장안 대흥선사	중국 승 2인과 서역승 3인과 함께 귀국하여 역경.	『삼국사기』권 4 『해동고승전』권 2
−5	원측	중국 장안 운제사, 서명사, 낙양 불수기사	현장의 문하에서 많은 역경 사업에 참여, 서명학파의 거두로 중국에 머무름.	『송고승전』권 4
−6	아리 나발마	중국, 인도나란다사, 보리사, 대각사	범본 불경 사경, 인도에 머무름.	『대당서역구법고승전』 『해동고승전』권 2 『삼국유사』권 4 귀축제사
−7	혜업	중국, 인도나란다사	인도에 머무름.	『대당서역구법고승전』 『해동고승전』권 2 『삼국유사』권 4 귀축제사
−8	현태	중국, 인도 나란다사	중국으로 돌아 옴.	『대당서역구법고승전』 『해동고승전』권 2 『삼국유사』권 4 귀축제사
−9	현각	중국, 인도 대각사	인도에서 병사.	『대당서역구법고승전』 『해동고승전』권 2 『삼국유사』권 4 귀축제사
−10	혜륜	중국, 인도 암마라파국 신자사, 간다라 산다사	인도에 머무름.	『대당서역구법고승전』 『해동고승전』권 2 『삼국유사』권 4 귀축제사
−11	구본	중국, 인도		『대당서역구법고승전』 『해동고승전』권 2 『삼국유사』권 4 귀축제사
−12	신라승 2인	중국, 실리불류국의 서쪽 파노사사국	수학 중 병사.	『대당서역구법고승전』 『해동고승전』권 2 『삼국유사』권 4 귀축제사
−13	자장 승실 등 10여인	중국 장안	신라로 귀국하면서(643), 대장경, 불사리, 깃발, 일산 등을 가져오고, 대국통으로 활약함.	『삼국사기』권 4, 『삼국유사』권 4 자장정률 『속고승전』권 24 자장전
−14	원승	중국 장안		『삼국유사』권 4 자장정률 『속고승전』권 24 자장전
−15	신방	중국 장안 홍복사, 종남산 취미궁, 대자은사 번경원	중국에 머뭄.	『속고승전』권 4 『대자은사삼장법사전』권 6 『개원석교록』권 8

-16	지인	중국 장안 대자은사 번경원, 옥화궁 팔주정	중국에 머뭄.	『개원석교록』권 8 『정원록』권 11
-17	승장	중국 장안 대천복사, 서명사	중국에 머뭄.	『송고승전』「의정전, 보리 유지」,『개원록』 『정원록』권 14
-18	신곽	중국 장안	중국에 머뭄.	『섭대승론소』권 11 旁疏
-19	원안	중국 장안 종남산 남전 진량사	중국에 머뭄.	『속고승전』권 13
-20	명랑	중국	신라로 귀국 후 문두루비법을 행함.	『삼국유사』권 2, 권 5
-21	혜통	중국	신라로 귀국 후 활동.	『삼국유사』권 5
-22	의상	중국 종남산 지상사	671년 신라로 귀국 후 해동화엄초조로서 활동.	『삼국사기』권 7,『삼국유사』권 4, 『송고승전』권 4

원광이 이렇게 불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호국 불교로 정리하여 나름대로 활동한 것은 역사적으로 호국 불교의 장을 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투철한 국가관으로 활동한 그의 사상은 삼국 통일의 사상적 밑받침이 되어 신라인들에게 큰 용기를 준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7세기 해외 유학파에 의한 활동은 주로 교학 연구와 경전 유입과 같은 노력이 경주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세기에 해외로 유학한 이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표 8-1-1〉과 같다.

위의 표에 의하면, 인도로 간 현유와 중국과 일본으로 간 파야와 혜관, 도등은 고구려승이다. 이들은 모두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 머물거나[현유, 파야], 일본으로 건너갔다[혜관, 도등]. 그것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구려의 정치적인 사정으로 도교가 득세하면서 불교가 위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 유학승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7세기에는 위의 고구려 승 4인을 제외하면 모두 신라 승들이어서 신라인들의 선진 문물에 대한 열의를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7세기에 접어들면서 왜 이렇게 해외 유학에 열심이었는가 하는 점과 이들이 유학을 통하여 신라에 들여온 내용과 외국에 남긴 인상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불교 경전의 신라 유입이다. 대개 필사에 의한 것이었겠지만, 구역의 경전들이 대부분 유입되었을 것이고, 현장에 의한 신역의 경전들도 역출되면서 1-2년 내에 바로 신라로 전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라는 승 각덕이 진흥왕 10년(549)에 양의 사신과 함께 귀국하면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왔는데, 이 때 일부 불교 경전이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에 본격적으로 불교 경전이 유입된 것은 진흥왕 26년(565)의 일이다. 진의 사신 유사(劉思)와 신라 승 명관이

불경 1700권을 가지고 돌아 온 것이다. 이후 7세기에 이르러서 원광, 지명, 담육의 귀국, 그리고 안함이 귀국하면서 불교 경전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가져 온 불교 경전은 신라인들의 구법열을 부추기고 자극하였겠지만, 한편으로는 미비된 경전을 구하여 좀 더 완전한 내용을 알기 위해 구법 열의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643년에 귀국하는 자장에 의해 불교 경전이 집중적으로 반입되었다. 자장은 신라에 빠져 있는 부분을 메우고자 대장경 온질 1부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무렵은 아직 현장이 인도에서 돌아오기 이전이라 대개 구역에 의한 불경들이었다.

또한 정관 연중인 627년에서 649년 사이에 인도에 갔던 아리야발마, 혜업 등은 대개 총령[파미르고원]을 넘어 서인도를 통해 인도에 들어가 나란다사나, 보리사에 머물면서 불경을 수학하였고 가져올 기약이 없는 범본 불경을 사경하였다. 결국 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거나 병사하였지만, 후에 인도를 방문한 의정에 의해 이 일이 알려져 신라인들이 불교 경전을 신라에 가져오려고 했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645년에 현장이 불경을 가지고 인도에서 돌아오자 새로이 역장이 설치되고 신역 경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현장의 역경장에는 신라승 원측, 신방, 지인, 승장과 같은 이들이 현장의 문하에서 필수(筆受), 증의(證義), 철문(綴文) 등을 맡아 활약하였다. 『유가사지론』 100권, 『대비바사론』 200권, 『대반야경』 600권, 『구사론』, 『성유식론』, 『섭대승론』 등으로, 현장은 특히 『유가사지론』을 구하기 위해 천축으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경이 끝나면 대개 공식적으로 신라로 유입되었다. 원효 이후의 여러 학승들의 소초[주석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역경 사업의 도입이다. 백제에서는 이미 역경이 행해진 바 있다. 6세기 전반인 백제의 성왕 때 배달다 삼장이 겸익과 함께 백제의 수도 사비에 와서 범본 5부율을 번역한 사건이다. 이 사실은 곧 신라에 알려졌을 것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어 신라에서는 7세기에 역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안함은 귀국하던 해에 서역 출신 삼장(三藏) 법사 3인인 북천축 오장국(烏唆國)의 비마라진제(毘摩羅眞諦), 농가타(農加陀), 마두라국(摩頭羅國)의 불타승가(佛陀僧伽)와 중국 승려 2인을 대동하여 귀국하였는데, 이들은 황룡사에 머물면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추정되는 『전단향화성광묘녀경(數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해 내고, 신라 승 담화(曇和)가 필수(筆受)를 한 일이 있었다. 안함이 귀국 후 역경 사업을 벌인 것은 수나라의 대흥선사(大興善寺)의 역경(譯經) 체제를 모방한 것이다.

수 문제 때에는 대흥선사에 북천축 오장국 삼장 비니다유지(毘尼多流支),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 사나굴다 등이 머물면서 역경에 참여하였는데, 이들과 함께

중국에 왔던 북천축 오장국 승려들 가운데 일부가 신라에 와서 역경을 하였을 것이므로, 안함은 수나라 멸망(618) 이전에 신라로 돌아왔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 사신이나 승려의 내방은 간혹 있는 일이었지만, 인도 승려가 신라에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더구나 경전의 번역까지 이루어지고 신라 승이 필수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신라에서의 역경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범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일도 쉽지 않은데다가 다시 신라인들이 쓰는 한문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신라에서 범본을 역경하는 사업은 이것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에 온 서역 삼장은 북인도에서 52개국을 거쳐 중국에 온 후 다시 신라로 와서 경전을 번역까지 하였고, 중국 승려들은 얼마 후에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으나, 이들 서역 삼장들은 언제 돌아갔는지 언급이 없으므로 일정 기간 신라에 머물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신라 사회는 중국어는 물론 범어까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인데, 원측, 아리나발마, 혜업, 혜륜 등 인도로 간 여러 승[歸竺諸師]들이 유학을 떠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즉 이들은 이러한 신라의 국제적인 분위기에서 이미 한문과 중국어, 범어 등을 접하면서 능력을 보였을 것이다. 특히 원측(613-696)이 중국에 있으면서 6개 국어에 능통하였을 뿐 아니라 천축(天竺)의 말을 들은 후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외국어에 접하여 재능을 나타낸 데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셋째는 신라인들의 세계관에 변화를 주었다는 점이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서역과 더 멀리 많은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신라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교역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에 온 서역 삼장 비마라진제와 농가타는 오장국 출신이고, 불타승가는 마두라국 출신이었다. 이들은 우전국 출신으로도 나와 있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 문제 때 범본경을 번역하였다는 천축승들과 일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북천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북천축의 오장국은 오장나국이라고도 하는데, 간다라에서 정북쪽으로 산을 따라 3일 동안 가면 이르는 곳으로, 왕이 삼보를 크게 공경하고 백성과 부락에서는 많은 것을 사원에 보시하여 공양하고 적은 것은 의식을 공급하도록 남겼다고 한다. 재물을 놓고 공양하는데 매일 그러하였으며, 절이 많고 승려도 많아 승려의 숫자가 세속인보다 좀 더 많았고 대승만 수행하였다.

이 곳은 현장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부처님이 과거 인욕선인이셨을 때 이 곳에서 갈리왕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잘랐던 곳으로 『금강경』에도 그 사실이 나오고

있다. 또 아타라라용의 전설이 있고, 반의 게송(偈頌)을 듣기 위해 여래가 목숨을 버리기도 했던 곳으로 탑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북천축의 마두라국은 쿠샨왕조에서 굽타왕조에 걸치는 이른바 마두라 미술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현장이 인도에 갔을 당시인 7세기 초에 가람이 20여 곳, 승도가 2,000명 있었으며, 기후는 무덥고 풍속이 선량한데, 내세에 좋으라고 행실을 잘 하며 덕을 중히 여기고 학문을 존경한다고 되어 있다.

서역 삼장들에 의해 언급되었을 인욕선인의 일화 내지는 용의 전설, 반송설화와 같은 사실들은 당시 신라인들에게 설화로만 여기던 내용을 인도에도 현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마두라 미술이 신라인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선덕여왕(632~646) 때에 활약한 것으로 나와 있는 석양지의 경우, 시기적으로 봐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이 지나왔던 52개국의 여러 풍물 들이 신라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로서 이해되었을 것이다. 실제 신라 시기의 보검으로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보물 635호의 장식 보검은 쿠차의 키질 동굴 벽화에 나오는 보검 내지 카자흐 공화국 출토 보검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구체적인 전래 경로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서역으로 향했던 이들이 구법 승려 외에도 신라 사절이나 상인들도 함께 동행하였다고 볼 때, 이 무렵을 전후하여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당 고종의 칙령으로 천축에 갔던 현조법사의 경우 신라승 3명이 따라갔다면, 함께 했던 일행은 훨씬 대규모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넷째는 신라승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동선(動線)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신라승들의 동선은 인도에까지 가서 나란다사, 대각사, 보리사 등 부처님의 초전법륜지를 확인하고, 장안에서 출발하여 천축으로 가는 실크로드의 여러 국가들을 거쳐 가면서 그 범위를 넓힌 바 있다.

또한 중국에 유학한 이들도 그 활동 범위가 전과는 달리 넓은 동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 예로 7세기 초기에 해당되는 구법승인 원안과 안함은 활동 범위가 넓어서 기록으로까지 전하고 있다. 원안은 원광의 수제자로 기지가 날카롭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성품은 두루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곳에서 도를 구하기를 앙모하였다.

그의 활동 범위를 보면, 북쪽으로 환도에 갔으며, 동쪽으로 불내를 보았고, 서연과 북위 지방을 여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그가 중국에 갈 때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그리고 요동지방을 거치면서 그 곳의 풍속을 두루 보고 갔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당의 서울 장안에 가서 공부하였는데, 특진 숙우(574

~647)가 지은 종남산 남전곡(藍田谷)의 진량사(津梁寺)에 머물면서 수행하였다.

안함은 일찍부터 마음대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에 뜻을 두어 풍속을 살펴보고 널리 교화하였다. 수 문제가 대흥선사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그는 중국의 화산(華山)에서 선장(仙掌)까지 10개 역이나 되는 길을 하루 낮에 갔다 오고, 종남산이 있는 진령(秦嶺)에서 황제의 궁전이 있는 장안까지 하룻밤 사이에 오르는 등 주위를 많이 유오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장안의 종남산은 신라승들이 많이 수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장은 636년 8월에 당에 들어가 불법을 구하였는데, 그가 머문 곳은 장안의 승광별원과 종남산이었다. 원측 역시 장안에 머물다 종남산에 은거한 바 있었다. 신방 등 많은 신라승들이 장안으로 유학한 바 있다. 의상 역시 장안의 종남산으로 유학하였다. 이렇게 중국으로 간 신라 유학승들이 가장 많이 머문 곳이 장안과 종남산이었다.

다섯째는 많은 이들이 해외에 나아감에 따라 삼국의 문물도 해외에 소개되었다. 7세기 당시 인도인들은 신라인들을 구구타 예설라(矩矩蒱 槭設羅) 즉 계귀(鷄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인도인들이 신라인들을 자주 접하면서 그들이 계신(鷄神)을 받들어 높이 여기는 까닭에 그 깃을 꽂아서 관을 장식하는 특징을 들어 이렇게 부른 것이다. 이러한 전승은 많은 신라승들과 신라인들이 인도에 갔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신라방, 신라소 내지 적산법화원이 생겨난 것은 대개 8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7세기 행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그 이전에 이미 백제는 근초고왕, 근구수왕 대에 중국의 해안가에 식민도시를 경영한 바 있다. 삼국의 문물이 중국으로 전해지는데는 이들 도시 내지는 부락들이 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4) 국내파에 의한 신라 불교의 토착화

국내에 있으면서 신라에 불교를 토착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가항 불교라 불리는 일군의 승려들이 있었다. 혜공, 혜숙, 대안과 원효, 밀본 등으로 실제 이들에 의해 신라인들에게 불교가 점차 전파되었다.

혜공은 부개사와 오어사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고, 혜숙은 중국 유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시골 농촌을 무대로 교화에 힘쓴 바 있으며, 대안은 장터를 중심으로 서민 속에 불교를 심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효 역시 천촌만락을 돌아다니면서 거지와 더벅머리 아이들에게까지 부처님의 교화가 미치게 하였다.

이들은 신라로 유입된 불교 경전들을 열정적으로 고구하면서 많은 주석서인 장

소(章疏)들을 저술하였다. 특히 원효는 독보적인 존재로서 많은 저술을 하였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의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현장법사의 귀환에 따른 신역 경전들의 유입에 자극받아 더욱 많은 주석서를 내서 99부 240권이라는 대단한 저술을 남긴 것이다.

일별해 보면, 『대혜도경 종요』[마하반야바라밀경의 종요], 『법화경 종요』, 『열반경 종요』, 『미륵상생경 종요』, 『무량수경 종요』, 『아미타경소』, 『금강삼매경론』, 『보살계본지범요기』,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 별기』, 『이장의』, 『유심안락도』, 『화엄경소』, 『범망경 보살계본사기』, 『보살영락본업경소』, 『중변분별론소』, 『십문화쟁론』, 『판비량론』 등이다. 이 저술들의 탁월함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수학하였는데, 특히 『대승기신론소』는 「해동소」로 불리면서 중국 화엄종의 3조가 되는 현수법장이 널리 인용하였던 저술이다. 통일기 신라를 거쳐 고려 초에 중국에 불경을 역수출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신라인들의 저술이 중국에 전래되어 그 영향을 끼쳤고, 일본에도 많은 경전들이 수출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삼국이 존속하던 시기에는 대체적인 사상의 흐름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삼국으로 전해져 불교 사상이 심화되던 단계였으며, 신라의 문물 역시 해외로 알려지고 신라인의 불경 주석서가 중국에서도 애호되는 교류가 왕성하던 때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통일기 신라의 불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7세기 신라 불교의 특징은 해외 유학승들이 귀국 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였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여진다. 자장은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가장 활발히 활동하였던 승려로, 선덕왕대의 그의 활약은 '불교 치국책'이라고 연구되기까지 하였다.

자장은 귀국 이후 분황사에 머물면서 대국통(大國統)으로서 승니(僧尼)의 숙정과 계율의 전파에 힘써, 신라인들로 하여금 80~90%가 불교를 믿도록 하는 기초를 놓았다. 율사로 불려지는 그는 출가를 막는 왕명을 거역하고 고골관을 닦는 등 출가 수행을 모질게 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중국 유학 후 대국통에 오른 그는 불국토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선덕왕을 찰리종으로 주장하여 전륜성왕사상을 펼쳐 나갔다. 그 위에 더하여 그는 대승 계율을 통해 신라인의 윤리, 도덕상의 변화를 꾀한 것이다. 업설로 대변되는 이 변화는 개인의 모든 행동은 자율에 의해 그 업을 받는 것으로 주장을 한 것이다. 자장은 진종설(眞宗說)과 불국토설과 같은 개념들을 수용하면서 왕들과 승려들, 그리고 사원에 신성성을 부여하여 귀족 출신들이 출가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그는 귀국하면서 중국에서 진신사리를 모셔왔는데, 전국에 걸쳐 사리탑을 조성

하였다. 군사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사찰과 함께 불사리탑을 세워 호국 불교의 원형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을 통해 재래 안함 등에 의해 주창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예언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라의 폐쇄성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중국식 연호의 사용과 중국식 공복의 착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진덕여왕대에 가서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김춘추에 의해 실행이 되지만, 그는 신라 사회의 개방과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을 염원한 국제통의 실천적 승려였다.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근 150여 년이나 늦게 공인되었으며, 고구려로부터 전래받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불교는 선진 문물로서 불교의 유입은 곧 신라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백제를 거쳐 중국과 통교한 이래 직접적으로 양과 진, 수와 당에 유학승을 파견하여 그 문물을 수입하였다. 또한 인도에까지 유학함으로써 신라의 국제성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신라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유입된 선진 문물이 국왕과 대신들에 의해 수용이 되면서 그대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현실적인 면모로서의 반영이었다는 점이다. 즉 원광은 불교의 계율을 세속오계라고 하는 현실에 맞춘 변형된 형태의 적용으로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자장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불사리탑을 세워 신라인들에게 부처님이 진호해 주는 국가라는 개념을 확신시킨 것이다.

이에 더하여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변의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 9개국이 모두 조복해 온다는 믿음을 준 것이다. 결국 이들의 노력은 가장 후진국이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인 밑받침을 해 줄 수 있었던 신라 불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통일기의 불교

신라의 불교는 삼국통일 이후 영역의 확대라든가 잡다한 교학 불교의 수입 등 여러 변화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왕경 불교와 지방 불교라는 틀로 이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고대 사회에서의 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신라 왕경의 불교도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문무왕에 의해 왕경이 일신되고 신문왕은 전국을 새로이 편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왕경의 불교도 정비되어졌던 것이다. 또한 지방의 불교도 중앙의 통제 내지

종속적인 입장에서 의상의 화엄종 내지는 진표의 법상종은 새로운 사조로서 대두되어 신라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그 문도들이 활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라 하대 선종의 유입은 신라 불교를 일신시키면서 지방 산문의 성장과 교선 병립이라는 특징을 나타내게 하였다.

1) 신라 왕경의 교학 불교와 불사의 번성

나당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신라의 왕경은 삼국을 아우른 통일국가의 수도로서 여러 면에서 그 모습이 일신되었다. 왕경 지역의 불교도 사찰의 창건, 사찰관리기구 등이 정비되고, 교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번성하였다.

671년 의상이 귀국하여 당군이 침입한다는 급보를 접한 신라 조정은 명랑에게 그 방책이 맡겨졌다. 이에 명랑은 신라 왕경의 마지막 전통 무속의 성소라 할 수 있는 신유림에 단석을 마련하고 문두루 비법을 행하였다. 그의 기도는 성공을 거두었고, 신라 조정은 이곳에 사천왕사를 건립하여 당군을 축출하고 삼국을 통일한 기념비적인 사찰로 삼았다. 자장을 이은 왕경 불교의 전통이 그대로 사천왕사 창건에 투영된 것이다.

명랑은 자장의 누이 법승랑 남간부인의 셋째 아들이었다. 즉 자장의 조카로서 그의 두 형인 국교대덕과 의안대서성은 모두 명랑과 함께 문무왕대에 활동하였는바, 이들을 대덕, 대서성이라 칭한 것에서 이미 조정과의 관련성이 잘 드러나 있다. 명랑이 행한 문두루 비법은 『관정경』 권 7 「복마봉인대신주경」에 의거한 것이지만, 명랑이 유가명승 12인과 함께 문두루 비법을 행한 것은 유가유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찰명을 사천왕사라 한 것은 호국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금광명경』 「사천왕품」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명랑을 상수로 한 유가명승 12인은 유가에 밝은 유가 계통의 승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당시 왕경 불교계를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신라에는 이른 바 '가항 불교'를 내세웠던 혜숙, 혜공, 대안, 원효와 같은 이들에게 일반민들의 관심이 쏠렸을 것이다. 그것은 전쟁에 따른 희생자 내지는 부역자들을 포함한 일반민들은 일정하게 조정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랑이 신묘한 방책으로 당군을 물리치고 신라의 안정을 가져온 것이다. 그 방책에는 무속 신앙의 성소와 왕실 불교 세력에 의한 실행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불교 신앙 내에 무속 신앙을 포용하면서 왕경 불교계를 장악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사천왕사의 사격이 중대 성전 사원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사원이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왕실 불교 세력은 더욱 힘을 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왕경 불교의 틀을 더욱 확고하게 해 준 것은 '전불시대 7처 가람설'의 정립으로 생각된다. '전불시대 7처 가람설'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 신라 왕경 불교의 특색이 그대로 들어있다. 즉, 신라에는 흥륜사를 비롯한 7곳에 전불 시대의 가람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아도가 고구려로부터 신라로 온 것은 대개 눌지왕대의 일로 상정하고, 미추왕 2년설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전불 시대 7처 가람설'은 왜 무엇 때문에, 어느 시기에, 누가, 이러한 설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신라 신문왕이 689년에 달구벌로 천도하고자 했던 사건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는 700여 년 동안 한 곳에 도읍을 하고 있었던 까닭에 왕경 지역과 기타 지역과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불교는 6세기 중엽에 공인이 되면서 기존의 왕경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거대한 왕릉과 소도, 시조묘, 신궁으로 상징되던 왕경이, 왕릉은 점차 산록으로 이동하고 왕경의 중심에는 사찰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특히 중고기에는 많은 사찰들이 왕들과 관련하여 조영되면서 왕경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삼국 간의 전쟁에 이어 당과의 전쟁도 끝낸 신라는 일통 삼한(一統三韓)의 새로운 왕경을 조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도를 달구벌로 옮기고자 논의하여 추진되었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왜 천도하고자 했으며, 어떻게 이러한 시도가 잠재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천도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왕권 강화의 측면과 지역의 편재성, 지배 집단의 달구벌 친연성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신라의 천도가 거론되었을 때,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에 9사를 지어 지기를 누른 것과 같은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써 언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 역시 달구벌로 천도하기 전에 그 곳을 진호하는 국찰을 세워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찰의 건립은 관부나 도로, 축성 등과 함께 왕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왕이 중대 왕실에 비판적인 전통적 귀족 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통일 왕국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고, 경주지역의 토착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려 달구벌로 천도하고자 한 사실에 대해, 왕경을 달구벌로 옮기고 싶지 않았던 신라의 귀족들로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

불 시대 7처 가람설'을 주창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라벌은 전세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던 지역으로 초창 가람인 흥륜사,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담엄사, 사천왕사의 일곱 가람은 전불 시대부터 신라에 그 터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이른 바 '전불 시대 7처가람설'을 내세운 것이다. 이들 사찰에 대해서는 창건 연대와 창건 연기가 제각각이어서 함께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개 신라 무속 신앙의 성소로서 소도 지역 내지는 제장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한 이 사찰들은 신라의 호국 사찰로서 신라 말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신라 왕경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성의 구획과 방위개념상 중요한 지역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조정에서 왕경이 지역적으로 편협한 것을 문제 삼아 천도가 거론되어 달구벌로 옮기고자 하는 의론이 성숙되었을 때, 전통적인 귀족들은 왕경 지역이 전세의 부처님 때부터 불교와 유관한 지역이므로 옮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세 때부터 깊은 불연을 지닌 이 곳 왕경은 이들 가람이 진호하고 있기 때문에 천도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을 것이라는 점이다.

경주의 귀족들은 불경 속에서 과거 7불의 전불 신앙을 발견하여, 이 곳 성소들을 전불 시대부터 불연이 깊은 곳으로 간주하고, 고도령의 예언을 내세워 '전불 시대 7처 가람설'을 널리 퍼뜨려 신라의 어느 곳도 서라벌만한 지역이 없음을 강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아도본비'는 신라로의 불교 초전 경로가 북중국→고구려→신라로 왔다는 인식 위에서 형성된 이야기로, 그 시기는 신라가 불교 유연 국토라는 인식이 일반화된 이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의 귀족들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왕경을 달구벌로 옮기는 것을 무산시키고, 왕경 지역이 불국토라는 곳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낭산을 수미산으로 인식하여 사천왕천[四天王天 : 사천왕사]과 도리천[克利天 : 선덕여왕릉]을 상정했던 일과 아육왕 양식의 불상이 7세기 후반에서 8세기에 걸쳐 양산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선덕여왕 지기삼사의 하나로 알려진 도리천 설화는 안함이 예언한 것으로 사천왕사가 창건됨으로써 신라인들에게 그 사실이 드러났다고 되어 있으나, 그 시점이 사천왕사의 창건과 물려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역시 7처가람설이 유포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널리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왕경에 수미산이 있고, 사천왕천과 도리천이 있음을 강조하여 더욱 왕경이 불국토가 구현된 곳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문잉림에서 주조된 황룡사의 장육존

상이 신라 특유의 양식으로 주성된 것은 동축으로서의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전금광사지(傳金光寺址) 출토 여래입상을 비롯한 아육왕계 불상이 7세기 후반 경에 유행하였다는 사실도 또한 '전불 시대 7처 가람설'의 형성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신라인들은 왕경을 불국토라고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옛날부터 불연(佛緣)이 있던 곳이라 생각해 왔다. 전불 시대의 7처 가람터가 있고, 수미산과 사천왕천, 도리천이 있는 불국토라는 인식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또한 신라인들은 『유가사지론』의 오명(五明) 가운데 하나인 공교명사상(工巧明思想)에 의거해 수많은 불적을 조성하여 왕경의 도처가 불국정토임을 증명하였다. 특히 경주 남산, 선도산, 단석산 등의 유적은 주로 석재였던 까닭에 그 유적이 오늘날까지 많이 남아 있다.

신라 중대의 왕경에는 7개의 사원 성전을 갖춘 국찰이 확립되어 승정 기구로서의 통제적 기능, 왕실의 봉사 기능, 사원의 경제적 관리를 수행하였다. 사천왕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봉은사, 영묘사, 영흥사로서 이는 왕경 불교가 다른 지역의 불교와 더욱 차별화되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신라는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의 통일전쟁기를 지나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는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의 종파성을 띤 다양한 불교 사상이 수용되었다. 때문에 신라 중대 전반부는 사상적으로는 다양한 논의가 표출된 시기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라 중대에는 유가 계통의 불교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고기의 원광과 자장에 의한 구유식의 유입에 이어 현장역의 신유식이 유입되면서 신라승들의 당과 천축으로의 유학 열풍이 있었고, 이들이 귀국하면서 교학 불교의 번성을 가져온 것이다. 유가 불교는 사물이나 사건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유식관을 닦아서 망념을 지혜로 만드는 것이 요점이다. 즉 선정과 지관을 유가라 하고 이를 수행하는 이를 유가사라 한다. 신라는 백제의 유가 사상을 경흥을 통해 포용하였고, 원측의 서명학파가 그의 제자 도증에 의해 전해지므로써 중국의 신 · 구유식과 백제의 유가사상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었다.

'유가론'이라 언급되어 있는 『유가사지론』은 현장이 그 완본을 구하고자 인도 유학을 결심했을 정도로 중요한 논서(論書)로서, 이 번역본이 신라에 유입되면서 이전에 신라에 유입되어 있던 구역과 함께 여러 논의를 일으키면서 유가유식 계통의 불교가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유가사지론』은 현장이 정관 20년(646) 7월에 번역을 시작하여 22년(648) 여름 5월 갑오(甲午)일에 끝냈는데, 당 태종이 이 경의 완역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 후, 그 말뜻이 심원하여

지금까지 들어 본것이 아니라며 9본을 필사시켜 9주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덕여왕은 표를 보내 『유가사지론』을 보내 줄 것을 청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당 태종이 여름 궁전인 옥화궁에서 이 론을 읽고 9주에 유통시켰던 것으로 볼 때, 신라로 유입된 것은 진덕왕 2년(648) 겨울 내지는 3년(649) 정초 사행 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김지성이 조성한 감산사불상에는 그가 『유가사지론』을 애독한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왕경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양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학생의 파견은 신라 조정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보낸 안함 이후 담육, 지명, 원측, 신방 의상 등 많은 이들이 중국으로 유학하여 다양한 불교 교학에 접하게 되고, 귀국 후 많은 영향을 끼치었다.

이같은 유학승의 파견과 대장경의 유입으로 신라 왕경의 불교 교학은 중고기에 이미 그 틀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다만 주로 구유식의 불교로서 신라 불교계를 이끌던 원광, 자장, 대안, 원효의 교학에 신유식이 도입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왔는데, 주로 9식설과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입장에 있었다. 원측이 현장의 휘하에 있었으면서도 서명학파라고 하는 독특한 입장을 견지한 것도 이미 구유식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현장의 신유식에서는 오성각별적인 주장으로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었는데, 당시 신라에서는 경흥, 신방, 지의 등이 신유식의 교학을 받아들여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 경흥은 웅천주 출신으로 백제에서 40세까지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학의 경향은 오성각별설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문무왕의 측근에 있었던 지의법사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이들은 특히 왕의 주변에서 실세로서 활동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원효가 『금강삼매경』을 강연하려고 준비한 내용이 없어져 사흘 만에 다시 약소를 지어 강의했다는 사실은 이들 신구 유식을 주장하는 세력 사이에 흐르는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의영은 『신구쟁(新舊諍)』 20권을 지어 신구 유식을 일일이 비교 검토한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장의 신역 가운데 『성유식론』에 대한 주석에 많은 이들이 주석을 달고 읽음으로써, 그 주석 내용이 그 당시는 물론이고 후대에까지 이어져, 이들 가운데 중요한 이들은 약칭해서 부르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예를 들면 유설은 규기, 유석은 원측, 유초는 보광, 유해는 혜관, 유운은 현범, 미상결은 의적, 화상은 현장, 요집은 도증, 폄량은 경흥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라 왕경의 불교계에 교학 불교가 서로 간의 논쟁을 통해 매우 번성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신라의 법상 유식가로 오늘날 그 이름이 전하고 있는 이로는 원측, 영인, 지인, 신방, 원효, 순경, 경흥, 둔륜, 승장, 의적, 행달, 명효, 현범, 도증, 태현 등이 있다. 때문에 이 무렵에 신라에 법상종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고 도증, 신방, 의적 등이 그 종조였을 것이라는 논고도 나온 바 있다.

현재 이들의 저술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산일된 까닭에 일본 등에 산재해 있는 내용의 소개가 활발하였다. 이는 당시 신라 왕경에 교학 불교가 매우 번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원효는 신라 중대 불교를 성립시켰다고 논해질 정도로 저술을 많이 하였으며, 특히 인명 관계 내지는 유식 계통에 매우 밝았다. 100여 종 240여 권의 저술 가운데 유식계통의 연구서가 42종 24권으로 가장 많고, 인명론과 판비량론에 관한 것이 3종 4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그가 671년에 『판비량론』을 저술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671년이라는 시점이고, 또 하나는 그 내용에서의 문제이다.

『판비량론』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진나의 신인명(新因明)의 인식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론에 근거하여, 유식이나 인명 등과 관계된 다양한 논증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저술이다. 이 『판비량론』은 '추론함' 그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 저술된 것이라기보다, 유식. 인명. 비담 등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추론을 비판하고 올바른 추론을 제시하기 위해 저술된 것이다.

원효는 이 『판비량론』에서 현장의 해석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주석들의 내용을 나름대로 비판하고 새로운 인명학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원래 원효는 중국 유학까지 결심하면서 배우려고 하였던 신역 불전에 대해 관심을 놓지 않았다. 그의 저서 가운데 『미륵상생경종요』, 『열반경종요』, 『중변분별론』, 『범망경보살계본사기』, 『무량수경종요』, 『판비량론』 등에는 현장의 역경 이후에 나온 불전들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특히 그로서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석을 위해 매우 노력하였다. 그러한 결실이 바로 『판비량론』으로, 현장의 신유식 관계 저술들을 읽어 보고 자신의 주장이 그들보다 못할 게 없음을 알고,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기롱하는 『판비량론』이라는 저술을 내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671년이라는 싯점의 문제이다. 신라는 당의 침공을 받아 명랑의 방책으로 해로로 오는 당군을 물리치기는 하였지만,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당에 대한 상국으로서의 신라 간섭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효는 이 저술을 통해 신라인들에게 당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원효는 『금강삼매경』을 통해 반야공관의 구역 불교를 소개하면서 현장의 신역 불교에 대하여 대립적인 자세를 선명히 한 것이라면, 『금강삼매경론』은 신 · 구유식 간의 대립 갈등을 공유화쟁을 일심사상으로 지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671년의 시점에서 원효는 분명 이들 신 · 구유식의 내용 전체를 궤뚫고 있으면서 현장의 신유식에서의 오류까지 짚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의 현장법사에 대한 당 태종의 환대와 새로이 역출된 불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신라인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때에 원효는 『판비량론』이라는 하나의 저술을 통해, 현장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불교학자들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명쾌히 지적해 내면서 해동 신라인의 자긍심을 높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후대에 '분황의 진나'라는 별칭까지 얻게 될 정도로, 그 칭송이 후대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런데 원효는 백고좌회 강연, 기밀 군사 문서의 해독, 요석공주와의 관계 등 국가와 관련된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주변적인 인물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이 원광이나 자장 그리고 왕경의 교학승들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파계 후 소성거사로서 수 많은 불경을 주석하였지만, 고선사나 분황사에서의 주석에서 보이듯이 그는 종신토록 왕경의 사찰에 거주한 왕경인이었다. 의상이 귀국 후 낙산에 나아갔다가 감응을 얻었다는 소문이 왕경까지 들리자 그도 낙산까지 갔으나 여러 정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 그대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이때 그는 제호(醍醐) 화상으로 불리었는데, 이는 그의 교학이 최상승임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다만 실제 수행에 있어 의상에 미치지 못했음을 나타낸 설화라 하겠다.

하지만 의상이 신라로 귀국한 후 그가 배워 온 화엄학을 놓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하였는데, 수전법 등의 예로 볼 때 의상에게 뒤쳐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의상의 귀국 직후 원효는 『판비량론』을 내면서 기존의 신라 불교의 성과를 표출해 내었다.

이 저술은 신라 왕경의 불교 교학 수준이 중국의 현장이 주도하는 신유식을 능가하는 정도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당시 신라의 유가유식 불교가 왕경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학으로 올라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의상이 부석산에 정주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화엄교학을 쉽게 풀이해 교화하자 왕경에 있던 이들까지 그의 명성을 듣고 부석사까지 찾아가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그 역시 고차원적인 교학 불교보다는 일반 민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불

교를 생각했을 것이다. 원효가 일반 민중을 교화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는 불교의 한문으로 된 어려운 교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자극하였을 것이다. 이에 그는 『화엄경』의 문구를 따서 무애가를 지어 이를 알린 것이다. 특히 광대들이 놀리는 큰 박으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였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이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명호를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될 정도였다고 한다.

의상이 귀국한 후 20여 년이 지난 후인 692년 무렵 승전은 중국의 법장 문하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법장이 지은 여러 저술과 편지를 가져 왔다. 이에 의상은 문을 닫고 며칠 동안이나 탐독을 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읽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당연히 왕경의 유가승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이다.

이론 불교에 밝은 유가승들은 법장의 여러 장소들을 보고 나서 화엄 교학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불이 번지듯이 퍼져나가 신라 전역에 화엄대학이 선 것으로 최치원은 '법장화상전' 에서 전하고 있다.

법장의 서신과 함께 전해진 그의 저술들은 『탐현기』 20권[양권 未成], 『교분기』 3권, 『현의장등잡의』 1권, 『화엄범어』 1권, 『기신론소』 양권, 『십이문소』 1권, 『법계무차별론소』 1권 등이다. 그런데 이 전적들은 미완의 것들도 있으므로 의상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장의 저술 가운데 『기신론소』는 해동소(海東疏)라 불리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많이 참조하여 지은 것으로, 화엄종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원효가 입적(686)하고 난 이후였으므로, 의상은 이를 왕경에 보내어 원효의 제자들과 여러 유가승들에게 읽게 하였을 것이다.

이를 읽은 유가승들은 화엄 교학에 대해서 새로이 이해를 하고, 의문이 나는 점을 알기 위해 의상을 찾아와 문답도 하고 그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오진이나 의적이 대표적인 인물로, 이들은 유가 계통의 저술까지 있는데 뒤늦게 화엄 교학에 대해 인식하면서 새로이 의상에게 와서 의문점을 풀었거나 그에게 배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의상과 그의 문도들에 대한 평가가 점차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법장의 장소가 신라에 유입된 이후 의적을 비롯한 왕경의 유가 계통의 승들은 주로 원효의 기신론이나 법장의 장소를 중심으로 화엄 교학을 연구하였다고 생각된다.

신라 불교의 영향이 일본 고대 화엄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8세기 일본 불교계는 『성유식론』의 이론에 기초한 법상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초기 일본 화엄종을 대표한 인물들인 지경과 수령의 『대승기신론동이약집』과

『화엄오교장지사』가 원효의 교학에 크게 의지해서 저술된 것에 주의하고 있다. 일본 최고의 화엄학 문헌이라는 『동이약집』은 당시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법상종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대승기신론』의 이론으로서 『성유식론』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한 논의의 내용은 전적으로 원효와 법장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유식학의 이론에 대하여는 규기, 혜소와 같은 중국 법상종 학자들의 저술과 함께 신라 승려들의 저술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당시 일본의 화엄교학에 의상의 화엄 교학보다 원효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장의 장소가 신라에 전해진 이후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와 함께 법장의 장소가 크게 부각이 되었고, 왕경의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일본에 전해지면서 초기 일본 고대 화엄학의 성격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선사 서당화상비'와 『삼국사기』「설총전」에 보이는 일본 진인이 원효의 저술을 흠모해 사신이 원효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반긴 사실은, 이미 100여년 전에 신라 사신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을 신라 불교 교학의 영향력이 남아있었던 데서 나온 행동이라 생각된다.

경덕왕대 이후 왕경에서는 중앙 귀족들의 지방 이주에 따른 불사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위기 의식과 왕권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의 불사를 일으키고 있다. 즉 지방에서의 무진사종의 주성, 단속사의 창건, 화엄경 사경 및 4사자 3층석탑의 조성, 갈항사 석탑의 조성, 안성 일명사 탑의 조성, 석남사 비로자나불 및 3층석탑의 조성이 이루어지자 왕경에서는 불국사와 석불사의 창건, 봉덕사종의 주성과 같은 불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어 하대를 주도해 나간 원성왕의 등장은 왕경 불교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원성왕은 785년 즉위하면서 바로 정법전을 정비하였는데, 개혁 정치의 시작이었다. 즉 정법전의 정비를 통해 불교 통제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원성왕은 황룡사 승려로서 화엄 교학에 밝은 이들을 뽑아 승관으로 충당하면서 왕권 강화에 노력하였다.

이에 불교 교단에서는 승전의 저술을 통하여 불교의 위대성 내지 승려들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위축된 권위를 되찾고자 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고승들의 추모 활동을 통해 이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들 불사의 특징은 석각 문화와 관계가 깊다. 왕릉에는 능비문과 함께 석등과 석사자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불교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석물들이다. 불사의 형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탑의 조성에 있어 사리의 봉안과 함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多羅尼經)이 함께 봉안되었으며, 소탑의 봉안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황복사지 삼층석탑에는 죽간에 묵서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봉안되어 있었고, 봉성사지로 추정되는 경주 나원리사지 5층석탑에는 마지에 여러 벌 묵서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봉안되어 있었다. 또 '창림사무구정탑원기'(855)에 의하면 창림사지 삼층석탑에도 사경을 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봉안되어 있었다.

둘째는 사경(寫經)의 유행이다. 신라는 호국 불교적인 측면과 함께 공덕 신앙의 측면에서 사경이 행해졌다. 신라시대의 사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연기조사에 의한 755년의 『백지묵서화엄경(白紙墨書華嚴經)』의 사경을 위시하여, 승 균량(均諒)의 주도에 의한 838년의 춘추지사(春秋之事)와 승 현준(賢雋)의 주도에 의한 886년의 화엄 결사가 있다. 50~80년의 시간차를 두고 8세기 중반부터 9세기 후반까지 사경이 결사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셋째로 석경(石經)의 제작이다. 한국의 석경은 경전을 돌에 새겨 불전을 장엄하였던 것으로, 통일신라 시대 이후 새로운 문예 활동의 부흥과 함께 문화적 업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적이다. 지리산 화엄사의 각황전 내벽을 장엄하였던 화엄경 석경이 가장 유명하고, 경주 남산 칠불암의 금강경 석경과 경주 창림사지 출토의 법화경 석경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 석경은 한결같이 파손되어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잔편을 수습해 놓은 파손품이다. 화엄사 석경은 임진왜란 때 파손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수많은 편석의 내용으로 볼 때, 구양순체의 60권본 화엄경을 1행 28자로 각자한 것이다. 그 형태는 상하에 횡선이 있고, 자간에도 행선이 있다. 창림사 법화경석은 총 23점이 남아 있는데, 1행 30자로 42행을 새긴 것이다. 사언절구와 오언절구, 두 종류의 게송으로 되어 있다.

사경과 석경을 비교해 볼 때,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한 바램은 석경 쪽이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국의 석경은 경전을 돌에 새겨 불전을 장엄하였던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이후 새로운 문예 활동의 부흥과 함께 문화적 업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넷째는 선사들의 비명(碑銘)이다. 선사 비명의 등장은 석각 문화의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 왔다. 821년 도의선사에 의해 전래된 남종선이 신라에 소개된 이후 중국에서의 회창 폐불은 신라 유학승들의 대거 환국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남종선은 신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선종의 유행을 가져왔다. 당시 선사들의 행보는 국가의 위신과 많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왕과 신료들은 신망 높은 선사들을 국사로 책봉하거나 우대함으로써 내외의 인심을 귀복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국사였거나 신망이 높았던 이들이 입적하게 되면,

대개 왕명으로 그의 행적을 문도가 작성한 행장에 따라 문한관이 비문을 쓰고 이 내용을 당시의 명필인 학자 관료 내지 명필승에게 쓰게 한 후, 각자장 내지 각자승에게 새기게 하여 그가 주석하던 사찰에 세우게 하였다. 김생, 요극일, 최치원 등 명필이 대거 등장하고, 석각 장인들의 발전 양상에 힘입어 조성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신라시대의 선사비는 9개 정도인데, 이 가운데 3개를 최치원이 썼다. 최치원이 지은 선사 비문을 비롯하여 신라 말 고려 초의 비문은 홍수를 이룰 정도로 많이 출현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쓴 '사산비명'은 불교계에서도 귀중하게 여길 정도의 명문장으로서, 한국의 석각 문화 발달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최치원은 선법이 영원히 썩지 않고 후세에 오래도록 전하기 위해서 돌에 새기게 된 사실과 이 때문에 선사비가 가장 많이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지방의 화엄종과 법상종

신라의 불교는 왕경에서의 불교와는 달리 새로운 사조로서 화엄종과 법상종이 대두되어 왕경불교에 영향을 주었는데 대개 7세기 말 8세기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동 화엄초조로 알려진 의상이지만 귀국 후 그의 모습은 '동가구'와 같은 것이었다. 즉 귀국과 함께 당의 침입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오기는 하였으나, 정작 그가 수학해 온 화엄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신라인들로부터 '동가구'의 대접을 받고, 홀로 5-6년 간 전국을 유행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왕경의 불교계가 신 · 구유식을 비롯한 다양한 교학 불교의 장으로서 이론 불교가 만연해 있어, 그의 요약된 화엄 교학이 이들에게는 이해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의상은 귀국 후 곧 낙산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거의 은거의 수준으로서 낙산은 왕경과 동떨어진 궁벽한 곳으로, 진전사와는 약 4Km 정도의 거리에 있다. 진전사는 도의선사가 821년에 처음 선종을 전래해 왔을 때, 왕경인들에게 마어를 한다는 배척을 받고 은거해버린 곳으로 신라 하대에도 이런 정도였다면 중대 초에는 더욱 한적한 곳이었을 것이다. 의상은 이곳에서 은거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화엄종을 전교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을 했을 것이다. 이에 2~7일 간의 기도 끝에 관음진신을 뵙고, 수정염주까지 얻는 감응을 얻고 화엄종을 전교하기로 결심을 하고는 그 터전을 찾기 위해 5~6년 간 전국을 유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의상은 부석산에 탁석(卓錫)하였는데, 탁석은 석장을 세운다는 뜻으로, 돌아다니던 승려가 한 절에 오래 머무름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그가 귀국 후 5~6년 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대개 675년~676년 경에 부석사에 정주하였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는 귀국 후 왜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일까? 그는 '화엄종을 전교하기 위해서는 복선의 땅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에서 복선의 땅을 물색하기 위해 5~6년 간 유행하였다. 그는 귀국 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신라인들을 원망하는 대신 낙산으로 나아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행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을 것이고, 감응을 얻은 후 화엄종 전교의 원을 세우고 알맞은 지역을 물색한 것이다.

신라의 사찰은 왕경에서 대국통이 거주한 국찰과 지방의 주통과 군통이 거주한 지방사찰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자장 이후 거의 전국적으로 사찰이 세워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장은 통도사와 태화사를 비롯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압류사, 간월사, 정암사, 월정사, 수다사 등을 건립하였다. 특히 정암사, 월정사, 수다사 등은 자장의 만년에 세워진 것이다. 자장이 문수보살을 찾아 헤매던 갈반지는 대개 소도가 있었던 원시 신앙의 성소로 이해되고 있는 바, 태백산 갈반지로 되어 있는 곳에는 정암사가 들어섰고 이곳은 현재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소백산 부석산에는 권부이종의 무리가 5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의 존재 역시 원시 신앙과 습합된 이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찰이 건립되어 있던 상황에서 의상은 여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화엄종을 전교할 곳을 찾아 다녔고, 고구려. 백제의 잔적이나 마우로 표현된 물리적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으면서도 『화엄경』을 강경하고 실제적인 수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부석사를 결정한 것이다.

부석사가 위치해 있는 소백산은 주변에 태백산, 청량산, 학가산, 희양산 등 이른바 오룡쟁주의 산들이 함께 펼쳐져 있는 곳으로, 자장이 창건한 사찰이 있는 지역인 정선, 양양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륙의 안동, 의성, 원주, 제천, 상주로 뻗어나가 강경과 수행을 펼쳤는 바, 이 일대에는 의상과 그의 제자들과 관련된 창건 설화를 가진 사찰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의상이 귀국은 하였지만 당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오래 머물다 돌아 온 유학승인 그에게 신라인들이 보내는 시선은 고운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가 676년 이후 부석사에 정주한 후에도 계속 왕경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왕경에서의 정치적 상황이 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 면이 있었다. 즉, 문무왕의 만년에는 승 지의가 항상 곁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유언으로 유가 계통의 승려인 경흥을 국사로 삼도록 하여, 신문왕대에 국로가 되고 있다. 그리고 681년

7월 1일 문무왕이 죽고, 7월 7일에 신문왕이 즉위한 지 한달 여 만인 8월 8일에 왕경에는 김흠돌의 반란이라는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이다. 이는 신문왕이 즉위하면서 단행한 친당 세력의 축출이 김흠돌의 반란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고, 반란의 가담자는 철저히 숙청되었다. 이렇게 당과 관련된 이들이 처형되는 등 반당적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당유학파인 의상은 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때문에 의상과 황복사와의 관계는 『삼국유사』의 탑돌이 기사에 연연해서 그가 왕경에 머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신라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명'에 나오는 승려들의 명단에 의상과 그의 제자들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서 황복사를 의상의 출가 사찰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신라의 화엄종은 『화엄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여 중국에서 성립된 종파로, 의상이 중국의 제2조 지엄으로부터 그 법통을 이어받고 신라에 돌아와 해동초조로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였다. 의상이 부석사에 자리잡고 제자를 길러 내면서 화엄종이 태동되어 갔는데, 이른바 지방에서도 불교의 교학이 새로운 사조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60, 80, 40권 본의 『화엄경』은 '광대무변하게 우주에 편만해 계신 부처님의 만덕과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된 진리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경'이다. 요약된 내용으로는 용수의 『화엄경약찬계』와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가 있다. 설법상에서 보면 부처님은 해인삼매에 들어 광명만을 놓고 있고, 대신 여러 보살들이 법을 설하고 있다. 설법의 내용은 법신불사상, 보살사상, 연기사상, 정토사상 등이 설해져 있다. 화엄경은 불의 정각의 세계를 설한 것이어서 깨달은 이만이 알 수 있는 경계 즉 증지소지비여경이며 십불보현대인경이며,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세계와 작용과 공덕을 갖춘 비로자나불이 되는 길[법신불사상]을 무명에 덮인 중생이 한 걸음 두 걸음 닦아 나아가 52단계를 거쳐 마침내 부처가 되는 보살의 길[보살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길은 전부 52단계로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지, 묘각지의 52단계를 거쳐 정등정각의 불위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십지는 환희지, 이구지, 명지, 염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혜지, 법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의상 이전에 신라에서의 『화엄경』에 대한 이해는 자장과 원효의 행적에 이미 보이고 있다. 자장은 자기가 살던 집을 희사하여 원녕사로 삼고 그 낙성식 때 화엄게송 1만게를 연설하였는데, 많은 신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원효는 『화엄경소』를 지었는데, 제4 10회향품에 이르러 그쳤다 하고, 그가 지은 '무애가' 즉,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는 60 『화엄경』 명난품 현수게에 나오는 것을 원용한 것으로 원효의 『화엄경』 이해를 웅변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의상의 『화엄경』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강연이나 주석에 머문 것이 아니고, '화엄일승법계도' 라고 하는 7언 30구 210자의 반시(槃詩)를 지어 화엄 교지를 요약하고,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행문(行文)을 드러내 실천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경향은 귀국 후의 행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낙산에 나아가 2, 7일 간의 기도 끝에 감응을 얻고, 부석사에서 『화엄경』을 강하면서 제자를 양성하였으며, 아미타불만을 모시고 수행에 전력하였던 것이다.

의상이 제자들에게 행한 교화의 방법은 두 방면에서 행해졌다. 하나는 불교의 교설로 『화엄경』을 강설한 것이고, 또 하나는 화엄관과 같은 관법의 수행이었다. 먼저 『화엄경』의 강설부터 보면, 그는 자신이 지은 『화엄일승법계도기』(1권)과 『입법계품초기』(1권)을 중심으로 『화엄경』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 주고 제자들이 의문이 나는 점을 묻게 해서 그 의문을 말끔히 해소시켜주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육성하였다. 이때 그가 제자들과 하였던 문답의 내용이 그의 제자인 도신과 지통이 정리하여 '도신장' , 일명 '일승문답' 과 '추혈문답', 일명 '요의문답' 등으로 남아있다. '추혈문답' 은 '요의문답' 외에도 '화엄경문답' 으로도 불려졌음이 밝혀졌는데, 그 전해지는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문답식으로 『화엄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하고 있다. 그 형식은 이두의 형식으로, 어려운 중국의 한자 대신에 우리 글로 쓰이던 이두를 가지고 『화엄경』의 어려운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서 기재한 것이다.

의상은 『화엄경』을 수학하고자 찾아온 이들을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제자로 받아들여 불교의 평등한 모습을 실제 실행한 것으로 유명한데, 하급 군인 출신의 진정사나 이량공댁의 종이었던 지통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교화 대상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화를 위한 방편으로 비상한 방법을 써야 했으므로, 비교적 신분이 낮은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강경하였다. 즉, 제자와 문답을 통해 의심이 남지 않도록 성실히 우리말로 답변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제자들에 의해 향언 즉 이두로 기록되었는데, 그 형태는 토가 붙은 석독 구결의 형태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의상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새로운 불교 사조인 『화엄경』에 대한 강설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강설 내용을 제자들이 석독 구결(釋讀口訣), 즉 한문에 토를 달아 그 한문을 우리말로 새겨서 읽는 방법으로 기록하여 전수한 사실은 당시 일반민들에게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것은 진정사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즉 그가 군대에 있을 때 남들이 의상법사가 태백산에서 불법을 풀이하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인데, 이는 어려운 한문으로 된 불교 교리에 능통한 왕경의 승려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왕경의 이론 불교적인 경향과는 다른 모습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상은 『화엄경』의 강설과 함께 제자들에게 관법 수행도 병행하게 하였다. 그는 경을 설하는 것처럼 실행을 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 강의를 하는 일 외에는 수련을 부지런히 하였다고 전하며, 또한 언제나 의정의 세예법(洗穢法)을 좇아 실행하여 어떤 종류의 수건도 쓰지 않았으며, 시간이 되어 그냥 마르도록 내버려두었다 한다. 그리고 의복과 병과 발우의 세 가지 외에는 아무 것도 몸에 간직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으므로, 경의 주석에 힘쓰기보다는 실천을 더욱 중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제자들의 수행 태도에서도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일불승을 닦기 위해 아미타불만을 모시고 노력하였는데, 『소아미타경의기』(1권)을 지은 바도 있다. 그는 굴에서 주로 관법 수행을 하였는데, 의상굴로 전하는 곳도 남아 있다. 청량산의 의상봉은 의상굴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가 행적을 남긴 장소들의 형태가 산 정상 가까이에 토굴이나 암자의 형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수행 방법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져 같은 형태로서 수행을 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의 제자 지통이 태백산 미리암굴에서 화엄관을 닦으며 정성을 다하여 예불을 드리고 있는 모습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의상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투사례(投師禮)」를 하면서 예불을 하고, 관법을 닦았을 것이다. 이렇게 의상과 그의 제자들은 화엄관을 닦았는데, 이는 140원, 10회향원, 초지원, 성기원 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한다. 그의 저술 가운데 유독 발원문이 많은 것은 이러한 그의 수행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그릇이 완성된 제자에게는 법계 도인을 주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자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상은 문무왕이 하사한 전장과 노비를 『열반경』의 내용을 들어 거부하였다. 흔히 이적이 나타나거나 수행이 뛰어난 것이 보고 되면 왕실에서 불러들여 조정과 관련을 맺은 무수한 예에서 나타나듯이, 문무왕은 그에게 전장과 노비를 하사하고 일정하게 조정과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의상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조정에 예속되지 않았다. 때문에 의상과 왕권과의 문제는 당시 왕경 불교계의 상황과 의상의 수행 태도를 감안해 볼 때, 쉽게 관계지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의상은 오로지 『화엄경』의 가르침을 신라에 전교하는 데에 전력하였다. 또한 그는 의복과 병과 발우의 세 가지 외에는 아무 것도 몸에 간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귀족의 신분도 버리고 오로지 사문으로서 부처님의 수행을 따르고자 한 데서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때문에 그는 '금산 보개', 즉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의상의 이같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화엄종은 크게 세력을 얻지 못하였는데, 법장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승전이 상주 영내 개령군의 경계에 거주하면서 화엄경을 강하는데, 돌을 앞에 두고 강경했다는 것은 당시 이를 들을 사람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그가 귀국하면서 가져온 법장의 화엄 관계 장소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유가 계통의 승(의적)들이 화엄에 관심을 갖고 의상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의지(義持)의 호를 가진 의상의 실천적 화엄 교학보다는, 문지(文持)의 호를 가진 법장의 번쇄한 화엄 교학이 유가승들에게 크게 어필한 듯하다. 이렇게 해서 유가 위주의 신라 불교계의 풍토에 화엄종이 그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의상은 중앙에서 벗어나 부석사를 건립함으로써 지방 불교시대의 막을 올리게 하여 이후 신라전역에 사찰 건립이 활발해지게 하였다.

경덕왕대에 활동하였던 진표는 10여 년 간 금산사에서 수학 후, 지장보살로부터 계를 받고 미륵보살에게서 간자를 받고 있다. 수행의 감응을 얻은 진표는 많은 이들로부터 보살이 응현하였다고 추앙받으면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처음에 그는 용왕과 8만 권속으로 상징되는 서해안 일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산사를 중창하고 계단을 열어 교화를 편 것이다. 다음에는 속리산과 강릉, 금강산 등지를 유력하면서 일반 서민은 물론 소나 물고기에게까지 계를 주어 일반민은 물론 천민에게까지 그의 교화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경덕왕은 물론 왕실, 종친 등이 그로부터 계를 받고 조와 명주, 황금 등을 시주한 것이다. 이 시주물로 그는 금강산의 발연사를 창건하고 재민을 많이 구제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그의 고향에서부터 먼 국경까지, 계층별로는 일반 천민으로부터 중앙의 권력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 대덕 영심이 속리산에 길상사를 세우고 진표의 법을 이었고, 다시 왕자 심지가 그 법을 이어 대구 동화사를 창건하여 금산사-법주사-동화사의 3대 법상종 사찰을 형성한 것이다. 진표는 『점찰경』에 의한 수행과 교화가 그 특징으로, 새로운 계법을 통한 작선(作善)과 이타행(利他行)을 추구한 바,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 『송고승전』에까지 입전되었다. 자장과 진표는 출가 동기와 수행 교화의 내용에서 매우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① 자장의 출가 동기가 어려서 살생을 즐겨한 그가 매를 놓아 잡은 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감동한 것이라면(『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 진표는 사냥터에 개구리를 꿰맨 채로 1년 동안 물에 담가 둔 죄책감에서 나온 발심이라는 점이다(『송고승전』 권 14, 「진표전」).

② 자장이 가시를 두른 소실에서 머리를 들보에 매고 정신을 차려가면서 수행

한 것과 같이, 진표도 만신창으로 몸을 던져가며 피나는 수행을 한 점이다.

③ 자장이 산에서 나오자 향읍의 사녀들이 다투어 계를 받은 사실은, 진표가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이들이 보살이 응원했다고 하면서 계를 받았다는 내용과 같은 것이다.

④ 자장의 교화 내용이 궁중에서의 『보살계본』의 강연과 계법에 관한 저술, 그리고 원승이 자장을 도와 계법을 편 사실이 주를 이루는 것과 같이, 진표도 또한 『보살계본』을 강연하고 『점찰경』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널리 계법을 펴고 있다.

그의 이와 같은 활동은 삼국 항쟁 시기에 신라인에게 대승보살계의 유포를 통하여 불교의 윤리 의식을 주입시켜 새로운 행동 준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8 · 9세기에는 진표의 보살계법이 크게 퍼졌는데, 『점찰경』을 매개로 한 섭률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의 삼취정계의 참회계법으로 자장 시기의 그것과는 다른 면이 보이고 있다. 즉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불교계의 추구 내용이 교학과 교리 위주로 치닫는데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점찰참회계법의 보급을 실행한 것이다. 이는 곧 그가 통일신라 전역에 새로운 계법을 통한 불교의 윤리 의식을 파급시키려 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철저한 수행인으로서의 그는 당시 불교계에 잡다하게 퍼지고 있던 교학 위주의 승가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면서, 그 스스로 참회행으로 일관하면서 법상종이 대사회적 역할을 재고시킨 점에서 그의 계법이 가지는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자장이 주로 왕실과 승려 중심의 계율을 폈다면, 진표는 왕실은 물론 일반 서민에게 계를 줌으로써 불교 계율의 대중화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광과 관련된 세속오계, 자장의 국통으로서의 불교계 통솔, 진표의 일반민에 대한 계율 전파 등으로 신라의 유가 불교가 신라 사회에 끼쳤던 영향력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신라의 지도 이념으로서의 불교가 고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계율의 사회적 역할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선종의 유입과 교선 병립

신라 하대의 불교는 새로운 사조인 선종의 유입으로 일대 변화가 일어났지만, 기존의 화엄종과 법상종은 왕실및 지배층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말의 혼란에 따른 후삼국의 등장은 기존의 교종과 선종의 융성 외에도

신인종의 재등장과 새로운 이상 세계의 건설을 내걸은 미륵 사상의 대두와 같은 면모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법상종은 진표의 왕경 방문 이후 헌덕왕의 왕자 심지가 동화사-창림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펴고 있었고, 화엄종은 부석사-해인사계와 황룡사-화엄사계가 활발히 불사를 하고 있었다. 특히 하대에는 화엄 결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화엄경을 사경하였다. 60화엄경, 80화엄경, 40화엄경 등 다양한 형태로 왕실이 주도하여 사경이 이루어졌다. 이들 기존의 교종 사찰들은 왕실의 원찰로서 많은 토지가 기진되면서 경제적으로 비대해지게 되었다. 특히 해인사는 진성여왕 이후 사중이 남악파와 북악파로 나뉘어 고려 광종(光宗) 때까지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일 정도로 파벌을 이루었다고도 한다. 이는 『균여전』에 나오는 남악 관혜와 북악 희랑의 대립을 언급한 것으로 신라 하대 화엄의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해인사가 재정적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간여함으로써 생겨난 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선종은 9산문 내지 13산문으로 불리우듯이 신라 말 고려 초에 가장 주목받는 불교 사상이었다. 선종의 전래와 선문의 형성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기는 헌덕왕(憲德王) 13년(821)에서 경문왕(景文王) 말년까지 약 60여 년이고, 후기는 헌강왕 (憲康王) 원년(875)에서 경순왕 말년(935)까지를 이른다.

신라의 유학승들은 귀국 후 국사 등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그의 제자들에 의해 비명이 새겨져 자신들의 행적이 남겨져 중국 유학 당시의 활동 반경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들 가운데 초기에 간 이들은 주로 오대산 내지는 종남산에 먼저 갔다가 선종으로 가는 경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점차 중국 남종선의 선사들을 찾아 강서 내지는 호남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잦아졌으며, 간혹 산동 내지는 항주, 안휘 등에도 나아가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스승의 입적이나 심인을 인가받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곳을 유행하였다. 이 때 가장 가고싶어했고 많이 찾은 곳이 소주(韶州) 조계산의 육조 혜능의 탑이었고, 초조부터 5조까지의 탑을 순례하기도 하였으며, 여산(廬山), 형산(衡山), 항산(恒山), 종남산, 오대산, 태산과 같은 명산들과 선사들의 유적이 있는 공공산, 쌍봉산, 앙산, 석상산 등을 찾아갔다.

이를 지구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으로는 오대산이 있던 대주와 북경에 해당되는 유주, 연주가 가장 멀리 간 곳으로 생각된다. 이 북쪽은 초기에 오대산과 장안, 성도를 잇는 길을 선사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중요한 동선에 해당되고 있으나, 점차 남쪽으로 동선이 옮겨지면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회창폐불 이후 강남으로 통하는 양자강이 매우 중요한 동선이 되고 있다. 특히 초주, 양주, 남경, 구강, 무한, 장사, 성도 등이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강서와 호남의 많은 산들이 선사들의 주처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거리상 제일 많이 이용된 동선으로 생각된다.

셋째 남쪽으로는 형산 즉 남악에 많이 갔지만, 조계산과 나부산이 그 보다 더 남쪽에 있어 남쪽의 동선은 광동성까지 나아갔다. 즉 강서와 호남에서 대유령을 넘어 매관을 지나 조계산이 있는 소주로 가기 위해 광동성으로 가는 동선이 많이 이용되었다.

넷째 강좌로 불리는 절강 지역과 안휘 지방에도 거주하거나 유행한 지역으로, 천태산, 설두산, 회계산, 호구산, 우두산, 경산, 남천산, 투자산 등이 있어 자주 이용된 동선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9~10세기 유학승들의 유학 동선 상에는 여러 특징이 보이고 있다.

첫째 교종승들이 사찰에서 불경을 중심으로 수행하던 것과는 달리, 선승들은 스승에게 나아가 수행하고 다른 스승에게도 인가를 받는 사자상승을 중요시 하여 자연히 여러 곳을 유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6, 7, 8세기에 비해 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에는 장안 일대와 오대산, 성도부 등이 중요한 활동 근거지였으나, 회창폐불 이후 후반에는 승려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점차 강서와 호남 일대로 한정되어졌으며, 특히 강서와 강좌로 한정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이들은 오도 이후 선지식을 만나 문답도 하고 제후들도 만나 법을 전하기도 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인도행이 사라지고, 6조 혜능의 사적이 가장 중요한 성지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선종의 동토전래 구참설의 유행으로, 당시 유학승들의 자질이 매우 훌륭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조에 거부감이 심한 신라인들에게 선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당에 유학하여 선종을 수학한 후 821년에 귀국한 도의는 그의 설법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반면 그가 마구니의 말을 한다며 비방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심한 나머지 설악산 진전사로 은거해 버리고 말았다. 물론 그의 제자 염거화상에서 체징선사로 이어지는 가지산파가 후에 번성하기는 하였지만, 전래 초의 모습은 매우 초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귀국한 홍척대사부터는 흥덕왕과 선강태자[김충공]가 이끄는 왕실의 후의에 힘입어 비교적 지배계층의 대우를 받으면서 선종을 홍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라의 선종은 도

의의 불운한 시대를 지나 흥덕왕 대부터 당에서 귀국한 선사들을 영접함으로써 그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초가 홍척대사로서 최초의 산문인 실상산문을 개창하였다. 이들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기

8개의 선문 마조(馬祖) 계의 선법을 받아 신라에 귀국 후 선문을 개창한 선승이라는 특징이 있다. 화엄종이 복잡한 교리체계와 신앙의례, 수행계위 등을 조직하고 있는데 대하여, 마조선은 일체 그런 설이 없고 마음이 곧 부처[自心是佛]라는 자신을 갖고 본성을 깨칠[頓悟本性] 것을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사물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치는 특이한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선원 또한 백장청규(百丈淸規)의 제정으로 교종계 사찰과 완전히 체제를 달리하여,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최상승선을 표방하였다.

진감국사 혜소는 830년에 귀국하여 왕의 환영을 받고 상주 장백사에서 교화하다가 뒤에 지리산 옥천사[현 쌍계사]로 옮겨가서 쌍계사 선문을 열어 교화하였다. 그는 사찰에 육조 혜능의 영당을 만들어 모셨으며, 범패를 잘하여 배우려는 이들이 당에 가득하였다고 하며, 차를 전래해 와서 지리산 일대에 퍼뜨렸다.

당나라는 무종 때 행해진 회창(841~846)폐불로 사찰이 4만 여 소가 파괴되고 환속당한 승려가 26만 명, 몰수된 노비의 수가 15만 명이었다. 이로 인해 당승 뿐 아니라 외국의 구법승까지도 사부첩이 없는 자는 환속시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엔닌[圓仁]이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당시의 비참한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신라로 대거 귀국한 신라승들은 대부분 선승이어서, 이른바 선종의 새로운 부흥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동리산 선문의 개산조인 혜철은 박씨로 왕경인이다. 처음에 부석사에서 화엄을 배우다가 헌덕왕 5년(813) 당에 유학하여 서당지장에게서 법을 인가받고 문성왕 원년(839)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전남 곡성 동리산 태안사에서 선법을 폈는데, 도선 국사 등 수 백 명의 제자가 배출되어 동리산파를 형성하였다.

봉림산 선문의 개조 현욱(787~868)은 김씨로 동해 지방 사람이다. 헌덕왕 때 당에 가서 마조대사의 문인 장경 회휘의 문하에서 법을 얻은 후 희강왕 2년(837)에 귀국하여 실상사를 거쳐 경기도 여주 혜목산 고달원에서 선법을 폈다. 그의 제자 진경 심희(855~923)가 경남 창원에 봉림사를 세우고 문풍을 날려 봉림산파를 이루었다.

가지산 선문의 체징(804~880)은 도의-염거의 법을 이어 희강왕(僖康王) 2년

(837)에 중국의 선지식들을 참문하고 헌안왕(憲安王) 3년(857)에 보림사에서 선문을 개창하였다. 김영이 찬한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884)에 의하면 김씨로 웅진인으로 되어 있다. 성주산 선문의 개산조 무염(800~888)은 김씨로 무열왕의 8세손이다. 왕족이면서 일찍이 출가하여 설악산 오색석사에서 법성에게서 득도하고, 부석사 석징에게서 『화엄경』을 배웠다. 헌덕왕 13년(821)에 당에 가서 마조의 문인인 마곡보철에게서 법을 받았다. 30여 년 간 중국에서 머물다가 문성왕 8년(846)에 귀국하여 충남 보령군 오합사(성주사)에 머물렀다. 대낭혜화상, 광종선사, 양조국사 등으로 불린 무염은 그의 휘하에 2,000여 명이 크게 도화를 떨쳐 성주산문을 형성하였다.

사자산 선문의 개조 도윤(798~868)은 박씨로 황해도 봉산 사람이다. 헌덕왕 17년(825)에 당에 가서 남천 보원에게서 법을 얻어 문성왕(文聖王) 9년인 847년에 돌아왔다. 귀국 후 전남 능주 쌍봉사에서 종풍을 떨쳤다. 그의 제자 징효 절중이 헌강왕 때 강원도 영월군에 사자산사를 세우고 문풍을 드날려 사자산파를 이루었다.

사굴산 선문의 개조 범일(810~889)은 김씨로 날 때부터 육계의 상을 갖추고 있었다 한다. 15세에 출가하여 흥덕왕 6년(831) 당에 가서 염관 제안의 법을 얻고 문성왕 9년(847)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강원도 강릉에 굴산사를 세우고 종풍을 떨치다가 진성여왕 8년에 입적하였다. 행적, 개청 등 10성으로 불린 많은 제자가 종풍을 드날려 사굴산파를 형성하였다. 대통 원랑(816~883)은 무염의 제자로 김영이 지은 『충주월광사원랑선사탑비』가 남아 있다. 성은 박씨로 무염에게서 배우다가 문성왕 18년(856)에 입당하여 앙산 혜적의 심인을 얻고 유력하다가 경문왕(景文王) 6년(866)에 귀국하여 월광사에 주하면서 선법을 폈다. 처음 위앙종을 전래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위앙종을 전래한 오관산 서운사의 순지는 박씨로 패강인이다. 헌안왕(憲安王) 2년(858)에 당에 가서 앙산 혜적에게 법을 얻고 귀국하였다. 고려 태조의 조모인 원창왕후와 태조의 아버지인 위무대왕에 의해 오관산 용엄사[서운사]에 머물렀다. 그는 다양한 원상(圓相)을 도시하면서 독창적인 사대팔상과 양대사상의 법을 펼치고 있다.

(2) 후기

거의 모두가 전기에 전래한 신라 선승들의 제자들로서 다시 입당 구법한 이들인데, 대개 석두계 선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낭공대사 행적, 선각대사 형미, 진공대사 충심, 법경대사 경유, 대경대사 여엄,

수미산 선문의 개산조 이엄, 동진대사 경포, 원종대사 찬유, 법경대사 현휘, 희양산 선문을 재건한 긍양 등이 활동을 폈다.

이들 선사들은 선사상을 널리 알렸을 뿐 아니라, 당시 진부한 사회에 대해서도 국사로 임명되어 자문 역할을 해 주었다. 한 예로 무염화상의 "능력있는 이를 관인으로 쓰라[能官人]"는 충고는 신라의 인재 등용에 관한 건의의 전통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활발한 교화가 신라 조정에 의해 인정되어 백좌강회(百座講會)에 선 · 교 합석이 이루어진 것은 경애왕대인 924년의 일이었다.

신라의 불교는 통일기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왕경 불교계가 7처 가람설을 확립시키면서 전통 사상을 거의 불교 내에 습합시킨 일이었다. 따라서 불교 교학의 번성이 눈에 띠게 나타났고, 중앙과 지방에서 불교 자체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일어났는데, 조탑, 사경, 결사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지방에서의 불교는 자장 이후 사찰의 창건은 있었으나, 교학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의상과 진표에 의해서였다. 의상은 귀국 후 전국을 물색하다가 부석사에 정주하여 제자를 길러내면서 화엄종을 정착시켰다. 한편으로 그는 문무왕의 무리한 축성 공사에 대한 중지건의 이후 노비와 토지를 하사받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는 문무왕의 호의를 불법은 평등하여 고하(高下)가 함께 고르고 빈천(貧賤)이 같음을 들어 거절한 바 있다. 반면 기층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관음 신앙과 아미타 신앙을 보급하였다. 진표는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방에서 철저한 수행 위주의 법상종을 열면서 소외받고 있던 일반 민중과 천민들에게까지 계를 주면서 불교를 전파하였다. 원광과 관련된 세속오계, 자장의 국통으로서의 불교계 통솔, 진표의 일반민에 대한 계율 전파 등으로 신라의 유가 불교가 신라 사회에 끼쳤던 영향력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신라의 지도 이념으로서의 불교가 고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계율의 사회적 역할에 있었다.

신라 하대의 불교는 새로운 사조인 선종의 유입으로 일대 변화가 일어났지만, 기존의 화엄종과 법상종은 왕실과 지배층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 말의 혼란에 따른 후삼국의 등장은 기존의 교종과 선종의 융성 외에도 신인종의 재등장과 새로운 이상 세계의 건설을 내걸은 미륵 사상의 대두와 같은 면모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선종은 9산문 내지 13산문으로 불리듯이 신라 말에 가장 주목받는 불교 사상으로 유학승들은 귀국 후 국사 등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그의 제자들에 의해 비명이 새겨져 자신들의 행적이 남겨져 중국 유학 당시의 활동 반경을 알 수 있게 한다. 선사들은 선사상을 널리 알렸을 뿐 아니라, 당시 진부한 사회에 대해서도 국사로 임명되어 자문 역할을 해 주었고, 신라와 고려

를 이으면서 불교가 국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해 주었다.

3. 고려시대의 불교

고려시대에는 1,000년 신라 수도 경주가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그 위상을 내주고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로 개편되었다. 고려 태조는 통일후 불교를 여전히 국교(國敎)로서 신봉하여 훈요(訓要)에서 대업은 불교에 힘입은 바 많았다고 술회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도 개경에 태조 시에만 25개의 사원(寺院)이 조성되어 왕경(王京)으로서 위용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경주가 가진 불교계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경주가 가진 행정적 위상 곧 광역의 중간 기구의 중심인 계수관(界首官)으로서 사원 행정과 불교 의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인 집정기 경주 지역 불교계의 움직임과 몽고 침입과 그로 인한 이 지역의 불교 문화의 소실 현황과 이에 대응한 승려들의 활동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원(元)지배기의 경주지역을 중심한 화엄종의 경향을 체원(體元)의 사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말 경주지역 신인종단(神印宗團)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경주지역의 고려 시기 불교계의 동향과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1) 고려 전기 경주지역 불교계의 재편

신라 하대로 접어들면서 불교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곧 선종(禪宗)의 등장이었다. 선종은 교종(敎宗)의 전통과 권위에 대항하는 새로운 불교로서 성립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불교계에 일으킨 변화는 큰 것이었다. 교종이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론적인 불교였던데 비하여, 선종은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다.

선종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견성성불(見性成佛)을 표방하면서 교종에 대항하였다. 교종은 하대에 이르러 점차 이론에만 치중하여 관념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어 시대 정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중앙의 귀족 세력과 밀착되어 귀족 세력의 향락적인 생활에 상응하여 불교계의 정신적인 높은 이상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점차 타락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에서 새로운 선종이 전래되어 와서 여러 선문(禪門)을 형성하여 교종과 양립하게 된 것이다.

선종의 이와 같은 경향으로 인해 선종을 전래한 선승(禪僧)은 대개 경주의 중앙 불교계와 이탈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신라 왕실의 대응은 선승들을 경주의 왕궁으로 초청하거나 지방에 정착하도록 선문의 성립을 지원하고, 이들을 왕실 사원 곧 흥륜사나 황룡사에 소속시키거나 선교성(宣敎省)이나 중사성(中事省) 등의 왕의 문한 기구에 소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선승들에 대해 국사로 책봉하여 우대하기도 하고 선종 사원의 경제적 기반을 인정해주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경주의 중앙 불교계와 결별하려는 경향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경애왕대에는 황룡사에 백좌를 설치하여 경을 설하고 선승 300인을 반승(飯僧)하였는데 이는 백좌에 선 · 교를 통설한 처음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때에는 경주 불교계에도 선종이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혜거[惠居 ; 899~974]는 경애왕의 초청을 받아 분황사에 주지하였고 경순왕대에는 왕명으로 영묘사에 이주하여 법석을 열고 계단을 쌓았으며 불탑을 수리하고 법회를 7일 간 열었다. 이로 보면 신라 말에 혜거와 같은 승려는 경주 불교계의 일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 시기는 고려 왕조가 성립되었고 선승들이 고려 태조 왕건과 결합해가던 시기였던 때임에도 경주의 성전 사원이던 영묘사에서 계단, 불탑, 법회 등의 불사를 주도한 점에서 모든 선승들이 고려 왕건과 결합해갔던 것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선종 사상이 곧 신라 왕조와의 결별로만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고려 왕조 성립 후 경주 중심의 불교 기반은 개경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개경에 건국 초부터 10사(寺)의 창건을 비롯하여 태조 재위 시에 25개처의 사원이 밀집되면서 여러 종파와 불교 세력의 기반으로 삼도록 함과 동시에 왕실의 불사의 중심으로 기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주의 신라 왕실의 불교 사원은 자연 여러 면에서 위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태조 20년에 신라 황룡사 남고(南庫)에 소장되었던 신라 삼보 중의 하나인 성제대(聖帝帶)를 김부(金傅)로부터 받았다. 이는 태조가 신라 왕실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현종 12년에는 이가도(李可道)로 하여금 경주 고선사의 금란가사(金棋袈裟), 불정골(佛頂骨)과 창림사(昌林寺)의 불아(佛牙)를 가져오게 하여 내전에 두게 하였다. 이 역시 경주의 불교적 권위를 점차 개경으로 집중하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불교 정책은 불교를 부정하지 않고 재편성하고 통제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경주 지역의 중심되는 사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수 관리되고 있었다. 황룡사와 같은 사원은 예종 원년에 동경의 황용사 탑을 수리하게 하여 김한충(金漢忠)을 보내 낙성하게 한 기사는 그 한 예라 하겠다.

혜심(慧諶)이 동도유수(東都留守)의 초청으로 영묘사에서 설법한 예 등은 경주의 불교계가 온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2세기 김극기(金克己)의 시에 묘사된 황룡사의 모습은 "전각은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공중을 향하여 날아갈듯 하구나, 집 가득히 만다라꽃은 어지러히 떨어져 옥티끌 같고"라 하여 신라 때에 조성된 각종의 설비나 건물의 규모는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는 고려 초 성종 시 동경유수였다가 현종 시 경주로 다시 동경유수로 되어 대읍의 하나였다. 고려사 『지리지』에 동경은 1유수관, 4주, 1군, 39속읍으로 모두 45읍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종 시 지방 제도의 틀이 갖추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보아 동경은 양경, 양계 병마사, 3도호부, 8목으로 형성된 계수관의 하나였다. 계수관의 기능은 광역의 지배기구로서 관내 군현의 행정적 심장부이자 도회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도시였다.

동경 계수관 사원의 존재와 편제, 그리고 역할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동경 계수관 내에는 모두 127사가 확인된다. 경주부, 기계, 안강, 자인, 신광 4현에는 25사가 있고, 흥해군 2사, 경산군 4사, 영천군부 신녕현 11사, 하양현 2사, 청하현 2사, 연일현 3사, 장기현 3사 등 27사이다. 총 52사가 존재했다. 울주에 총 10사, 예주에 총 11사, 금주에 총 21사, 양주에 2사, 밀성군에 29사가 존재하여 39 속읍에 모두 74사가 존재하였다. 특히 경주와 그에 속한 4현은 당시 동경의 주치(州治)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추측된다. 계수관의 주치는 계수관의 중심부로서 중요한 지역이며 신라 시기 수도의 위상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 사원이 모두 25사가 확인되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1-2〉

고적조 사명(폐사)	위치	불우조 사명	위치
봉덕사(奉德寺)		영묘사(靈妙寺)	부서 5리
담암사(曇巖寺)	사릉 남	분황사(芬皇寺)	부동 5리
천관사(天官寺)	오릉 동	불국사(佛國寺)	토함산
황룡사(皇龍寺)	월성 동	기림사(祇林寺)	함월산
사천왕사(四天王寺)	낭산 남록	감은사(感恩寺)	부동 50리
봉성사(奉聖寺)	부동 4리	백율사(栢栗寺)	금강산
영흥사(永興寺)	부성 남	천주사(天柱寺)	월성서북
신원사(神元寺)	부남 월남리	석장사(錫杖寺)	부북 10리
창림사(昌林寺)	금오산록	법광사(法光寺)	법광산
남산사(南山寺)	남산	천용사(天龍寺)	고위산
주암사(朱巖寺)	하기산양	무장사(鍪藏寺)	부동북 30리
곤원사(坤元寺)		용장사(茸長寺)	금오산
흥륜사(興輪寺)	부남 2리		

위에서 보면 불우 조(佛宇條) 사원이 12개처이고 고적 조(古跡條) 사원은 13개처이다. 현존 사원이 폐사된 사원수보다 1개의 사원이 더 적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시기는 조선 전기 성종조이다. 이로 보아 경주의 사원의 규모는 이 시기에 이미 대략 절반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원사, 돌백사, 동천사, 냉천사 등의 사명이 누락되어 고려 시기 사원 수는 25사 이상이었음에 틀림없다.

계수관의 주치에는 계수관이 국왕의 축수를 비롯한 국가 불교 의례를 진행하는 사원이 있었다. 이를 시사하는 자료는 문종 시 "성평절은 왕의 생일인데 매년 이 날을 맞아 국가에서는 기상영복도량(祈祥迎福道場)을 외제석원(外帝釋院)에서 7일 간 하고 …동서 양경(東西兩京)과 4도호 8목은 각기 소재 불사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는다"라 하여 국왕의 축수를 비롯한 국가 축제를 여는 사원이 계수관 단위로 존재하고 이를 지방관이 집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위 표에 나타난 동경 계수관 주치의 25사 중에서 중심 사원은 어디였을까. 남아 있는 기록이 전혀 없으나 문종 시 천왕사(天王寺)에서 문두루 도량을 연 기록이 있고 고려 후기에도 신인종 사원으로 문두루 도량의 단석이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보아 가장 유력하다.

이들 계수관 사원에는 국왕 축수만이 아닌 여러 국가 불교 의례가 행하여졌다. 상원 연등회와 중동 팔관회는 고려시대의 2대 제전으로 열렸는데 지방에도 시행되었다. 팔관회에는 "양계의 병마영이나 주목(州牧)이나 도호부에서 하표를 올리면 중서성에 내려 보내 그 고하의 차례를 매겨 방을 낸다"라 하여 지방관의 봉표조하가 있어 지방관이 주관하는 팔관회 행사가 계수관 단위에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윤경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주, 부는 물론 군현에도 성대히 설행되었다. 문종의 제(制)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한다. 여러 주, 부, 군, 현에는 매년 윤경회를 설행했는데 이 의식을 치르면서 외리(外吏)가 취렴할 때 많은 폐단이 있어 이를 금하고 오락지사(娛樂之事)도 아울러 금한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또한 계수관인 광주목관이 춘추의 반야도량(般若道場)에 사용할 바라(鉢己)를 제작했다는 명문이 전한다. 계수관과 그 이하 군단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춘추(春秋)에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경행행사(經行行事)가 설행되어 불교 문화를 확산시켰음을 알 수 있다.

경주에서 이 행사가 시행되었음은 일연(一然)이 『삼국유사』에서 "그 경질은 지금 동도의 승사장중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전경하여 재난을 물리쳤다."라 한 데서 알 수 있다. 동도는 곧 동경을 말하고 승사는 계수관 단위의 중심 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앞에서 추측한 것처럼 사천왕사를 의미한다고 생각된

다. 사천왕사에는 경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하기 때문이다.

국가적 병난을 당할 때 시행한 진병법석 역시 지방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그 시행 장소는 지방 행정 단위의 중심 사원이었다. 고려 말 우왕 시 "진병법석을 중외의 불사에서 크게 열었는데 모두 151소이다."라 하였다. 고려사 『지리지』의 서문에 경 4, 목 8, 부 15, 군 129라는 행정 단위를 망라하면 156소가 된다. 이는 군 단위 이상을 망라한 수와 비슷하다. 따라서 각 군 단위 이상마다 중심 사원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사원을 자복사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편제 양상은 고려 시기 군현 단위의 행정적 지배와 각 지방 행정 단위에 소재한 사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국가 불교 의례의 지배를 병행했음을 보여 준다.

국가 불교 의례만으로 이러한 사원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정기 불교 의례 역시 많았다. 2월의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 3월 3일 중삼일, 4월 8일 불탄절, 7월 15일 우란분재, 9월 9일의 중구일, 12월 8일의 부처님 성도일, 그리고 개개인의 조상 숭배일인 기일재 등이 그러한 정기 불교 의례였다. 이때에 각각 연고 사원에 보시와 의례 참여가 있었을 것이다.

국가 불교 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 역시 농경 사회의 춘경제와 수확 의례와 중첩되어 지방에도 크게 설행되었다. 그리고 우란분재와 개개인의 기일재는 조상 숭배의 불교식 의례로 사원을 통해 광범히 설행되었다. 그리고 장례 역시 사원을 통해 행해져서 사원은 고려 시기 사람들의 사회 기간 시설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경주지역에 최소한 25사 이상의 존재가 필요하였다고 짐작된다.

하지만 지방에 소재한 사원은 소속 종파를 달리한 사원이 공존하고 소속을 달리하여 사원의 주지 임명 등의 승정을 시행하고 교풍을 달리하여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다만 사원의 주지 임명과 관련되는 분쟁이나 사원전과 시납과 관련되는 공증은 계수관의 사원 행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소재 사원도 비보사사(裨補寺社)라는 공적인 사원으로 파악되어 사원 인사를 비롯한 행정이 시행되었으나 경주의 사원들 중에는 개인의 원당(願堂)으로 변한 사원도 더러 있었다. 정종 6년(1040)에 경주의 고위산에 있었던 천룡사를 최제안이 중수하고 그 주지와 운영에 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서(信書)를 만들어 유수관의 공문을 받아 확정하였다. 명종 3년(1173)에 경주의 중생사도 점숭이라는 승려가 주지하고 있었는데 승계를 가진 승려가 국가에서 파견되는 것을 막은 사례가 있다. 이도 개인 원당화된 것을 다시 국가에서 접수하려다 중단한 사례로 생각된다. 이 천룡사와 중생사는 모두 신라 말부터 최은함(崔殷傸), 최승노(崔承老), 최숙(崔肅), 최제안(崔齊顔) 그리고 그 후손에 의해 운영된 개인 원당화된 사원의 예라 하겠다.

2) 무인 집정기 경주 지역 불교계의 활동

고려 중기 무인 정권이 성립되면서 개경의 대사원은 크게 위축되고 심지어 방화되거나 약탈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충헌 집권 이후 문벌과 사원의 관계는 더욱 타격을 받게 되었다. 개경의 각 종파의 대사원의 타격은 지방 사원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경주지역 사원 동향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최충헌 정권 초기에 경주 별초군이 영주(永州)와 틈이 있었는데 운문적과 부인 · 동화 양사(兩寺)의 승도를 이끌고 영주를 공격하였는데 이극인이 굳게 지키고 정예병을 보내 싸워 패주시킨 일이 있는데, 이를 들은 최충헌이 재상과 제장을 모아 놓고 의논하여 말하기를 병을 발해서 경주인을 토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경주인들과 동화사, 부인사, 그리고 운문사 등은 최충헌 정권에 비우호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경주 주치 지역의 사원 동향은 잘 알기 어려우나 비슷한 분위기지 않았을까 한다.

고종 3년(1216)에 작성된 오어사 동종 명문에 나타난 조성 경위는 동화사 도감의 두 승려에 의해 발원되어 제작하고 오어사에 걸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동화사와 오어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유가종 사원으로서 최충헌 정권 초기의 탄압을 받은 후 동종 제작의 불사를 통해 관계를 강화해가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무렵에는 혜심이 동도 유수의 초청으로 영묘사에서 설법하고 또한 오어사 법당에서도 설법한 사실이 있다. 진각국사 어록에 있는데 자세한 연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병술년, 곧 고종 13년(1226) 다음해에 편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무렵이 아닌가 한다. 이는 당시 최씨 정권의 후원을 받고 있던 수선사의 혜심을 초청하여 경주지역의 불교계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동경유수 등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묘사는 신라 말 혜거가 적극 수리하여 신라 말의 경주 불교계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사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몽골 침입은 경주의 사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고종 25년 4월에 몽고병이 동경(東京)에 이르러 황룡사탑을 불태웠다. 이 때 황룡사의 장육상과 전우, 범종 등도 소실된 것이다. 이는 황룡사의 피해에만 그친 것이 아닐 것이다. 고종 31년(1244)에 작성된 『흥륜사대종명병서(興輪寺大鐘銘并序)』에는 "해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휩쓸었던 때문에 화재로 말미암아 불당과 보배스런 종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조석으로 올리던 예불의 소리도 끊어졌으니 애석하다"고 하였다. 이는 흥륜사만 그러했다고 할 수 없다. 경주 일원의 신라 왕실 사원의 위용을 보여주던 사원은 거의 사라졌다고 짐작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 조의 13처 사원이

이때 소실된 것으로 추측된다. 성종 시까지 존재한 불우 조 12처 사원은 경주 외곽지의 사원이기 때문이다. 몽골의 이와 같은 경주지역에 대한 집중 공격은 불교 유산을 파괴함으로써 고려인들의 대몽항쟁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종 31년(1244)에 천책이 작성한 '흥륜사대종명병서'는 신라 이래 고찰과 종, 그리고 불당이 소실되었지만, 전란 중의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흥륜사 종을 다시 주조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갑진년에 이르러 도인 정견이 유수인 예부 노연과 함께 발원하여 불탄 재 속에서 남은 쇠조각을 수습하고 또한 단월에게 권장하여 얻은 쇠를 합쳐 일만 근으로 큰 종을 주성하여 명문을 쓰도록 나에게 청하였다"라 하였다. 노연은 『경주부윤선생안(慶州府尹先生案)』에 1244년에 동경유수였음이 확인된다.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남긴 동경흥륜사금당십성(東京興輪寺金堂十聖) 글에도 흥륜사의 불당 등이 어느 정도 복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 문화재를 복구함으로써 몽골에 대한 항전 의식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짐작된다. 몽골의 침략기와 원의 압제기에 살았고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일연, 천책 등의 승려들이 경주의 불교 유산을 고려 불교의 전신으로 인식하였고,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데 따른 복구 노력이 흥륜사대종명병서의 작성, 『삼국유사』에서 신라 불교 기록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고종(高宗) 34년(1247)에 경상진안동도 안찰부사 전광재(全光宰)가 경주에 출진하여 선승을 불러모으고 서룡선노(瑞龍禪老) 연공(連公)을 청하여 법회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몽고병을 물리치려 했다. 이는 경주에 여전히 불교 세력이 결집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항몽의 시기에 경주지역 불교계는 경전을 출판하는 등 교학 활동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고종 35년(1248)에 경주 북천에 위치한 동천사에서 균여의 저술 『석화엄지귀장원통초(釋華嚴旨歸章圓通崇)』의 교정과 편집이 이루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보판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발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본강화상(本講和尙) 흥왕사(興王寺) 교학승통(敎學僧統) 천기(天其)께서 갑오년에 처음으로 개태사(開泰寺)에 주석하면서 고장(古藏)에서 『석화엄지귀장원통초(釋華嚴旨歸章圓通崇)』를 찾아서 얻게 되었다. 이는 팔덕산(八德山)에 있는 귀법사(歸法寺)의 원통수좌균여(圓通首座均如)께서 서술한 경전으로 옹희(雍熙) 4년 3월 30일에 마침내 베끼어 교장본(敎藏本)에 입장하였다. 본강께서는 이로부터 항상 의지하여 개연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

> 들이 강화경(江華京) 17년 무신년에 동천사(東泉寺)에서 여러 대덕들에게 요청하여 안거(安居)를 결의하고 방언(方言)을 삭제하여 학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니 곧 본강화상의 뜻이다. 이 인연을 이어서 화상께서는 법계 중생들에게 미치고 화엄보원법계에 함께 들어가길 바랄 따름입니다. 신해년 5월 일 제자(弟子) 지(誌)

위에서 균여의 저술 중 『석화엄지귀장원통초』가 천기에 의해 고종 21년(1234)에 발견되어 강의 연구되었으나 천기가 돌아가자 제자들이 동천사에서 여러 대덕에 요청하여 방언을 삭제하여 학인들에게 전하게 하였다고 한다. 곧 동천사에서 이 책의 편집과 판각이 주도되었으며, 이것이 대장경 보판으로 입장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로 미루어 경주지역에도 대장경 판각 사업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천사의 승려들이 주도한 판각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비록 100여 년 뒤인 충숙 복위 3년(1334)의 사실이나 동천사 도인 선순이 『백화도장발원문약해(白花道場發願文略解)』를 판각하는데 간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간기에는 이외에도 각화사 주지 비구 성지가 교감하였고, 각수승(刻手僧) 보영(甫英), 색기관(色記官) 최변(崔艾), 별색(別色) 전부호장(前副戶長) 이기(李奇), 서자(書者) 수재(秀才) 김신기(金神器)가 참여하여 계림부(鷄林府) 권지윤(權知尹)이 총책임으로 계림부에서 개판한 것으로 명시하였다. 1335년에 관심론(觀心論)이 계림부에서 개판되었는데 그 조직도 비슷하다. 각수승(刻手僧) 법현(法玄), 보영(甫英), 별색(別色) 기관(記官) 최변(崔艾), 호장(戶長) 김진(金珍), 간선(幹善) 굴현사(堀玄寺) 주지(住持) 통현보응대사(通玄普應大師) 성굉(性宏), 계림부(鷄林府) 권지윤(權知尹) 노신(盧愼), 경상도(慶尙道) 안렴사(按廉使) 김경(金疥) 등이다. 이 중 몇 명은 1년 전 약해(略解)의 간행 인물과 비슷하다. 굴현사는 경주 어디의 사원인지 미상이다.

이로 보아 불교 전적이 사원의 승려들이 주도하고 경주의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개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몽골 침입기인 13세기 보판을 포함한 강화경판 대장경의 조조는 동천사의 승려들이 주도한 가운데 경주 지방 행정 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리된다. 따라서 경주지역도 강화경판 대장경의 조성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동천사는 균여 계열의 화엄종 사찰로 추측된다. 화엄종은 고려 태조대에 개경에 영통사, 흥국사 그리고 연산에 개태사가 그 근거 사원으로 알려졌다. 광종은 귀법사를 창건하여 균여를 주지로 하였는데 그는 후삼국기에 분립된 해인사 화엄종의 남악파와 북악파를 통합하였다. 문종대에는 화엄종단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 부상하였다. 문종대 창건된 흥왕사는 현종대의 현화사와 비슷한 규모의 대찰이었

다. 또한 문종의 4자 의천이 출가하고, 이후 숙종의 자 징엄, 인종의 자 충희 등이 계속해서 화엄종단에 출가하여 왕실의 지원이 컸다. 의천은 1084년 흥왕사의 주지가 되었으며, 1085년 2월에서 1086년 5월까지 14개월 간 송의 고승을 방문하고 제종의 장소를 모아 속장경의 간행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1091년 흥왕사에 교장사를 두고 속장경 간행을 본격화하였다. 의천은 균여 계통의 화엄학을 배척하고 송대 화엄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우 정권은 무신 정권 초기의 화엄종과 법상종의 반발을 무력으로 제압하던 단계에서 수선사(修禪社)를 중심으로 의천계가 퇴조하고 균여 계통의 직계손들이 장악한 화엄종과 소수종파를 지원하였다. 균여의 저술은 대장경 조성 시 보유판으로 수록되었다. 균여 저술의 정리는 균여 사상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균여의 사상적 경향은 균여전에 나타난 그의 행적으로 보아 신이한 승려로 알려진다. 근기가 낮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보현십원가를 지었고, 화엄신중경을 강조하였다.

균여 법손이 부각되는 시기는 무신 정권이 안정을 위해 동요하는 민중을 안정시켜야했고 1230년대부터 시작된 대몽 항쟁 의식도 고취할 때였다. 이때 강조된 것이 균여가 계승한 북악파의 사상적 특징인 화엄신중 신앙이었다. 1250년에서 1251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인사 잡판에 있는 화엄신중경의 발문에는 순안(順安) 산성방호별감(山城防護別監) 이영(李榮)이 화엄신중을 목판으로 조성하면서 몽고와의 항쟁에서 불안한 민중을 안정시키고 신앙으로 단결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화엄신중 도량이 빈번히 개최되었는데 고종 때에만 36회나 된다.

3) 원(元) 지배기 경주지역 화엄종의 경향

원 지배기에는 일연에 의해 부각된 가지산문, 백련사를 계승한 묘련사 계통의 천태종, 혜영, 미수, 해원이 비슷한 시기에 살면서 활동한 법상종이 주된 종단으로 부각된다. 경주 출신인 체원이 해인사와 반룡사에서 활동하면서 균여 계통의 사상적 경향을 강조하였다.

체원은 본관이 경주인 이진의 둘째아들이며 이제현의 바로 위의 가형이었다. 그의 가계는 고려 초 이래 경주의 향리층이었다. 무신란 이후 동정직을 받음으로서 부각되었고 원 지배기에 이진이 입사하여 관료층으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체원은 1280년대 초반에 출생하여 20세 전후에 삭발하고 선불장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한 때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승직이 높아지고 명찰의 주지직을

제수받기도 하였으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거절하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체원의 활동과 저술을 통해 본 사상적 경향은 다음과 같다. 그가 활동한 사찰은 해인사, 법수사, 반룡사였다. 특히 1324년에서 1235년 사이에는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첨의(僉議)로 반룡사주(盤龍寺主)로 추천되었는데 그때 법수사 주지였다. 따라서 반룡사가 당시 이 일대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서 위상을 가진 것으로 추측된다. 동방대화엄도량(東方大華嚴道場)이라 표현한 것이나 일본 정벌 준비로 입게 될 폐해를 방지하도록 유시한 원(元) 세조(世祖)의 방문(榜文)이 반룡사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체원은 반룡사 사주로서 해인사, 법수사, 동천사, 각화사 등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저술과 경전을 편찬하였다. 경주 동천사의 선순과 경주의 향리인 최변, 이기, 김신기 등이 참여하여 계림부윤 노신이 1334년에 개판한 『백화도장문약해』는 체원의 저술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 약해의 발문에 전하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지방관인 노신을 제외하고 모두 경주의 향리들이다. 체원의 출신이 경주였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각화사 주지 성지는 체원의 저술 별행소를 교감하였다. 체원의 다른 저술도 경주 지역 향리들의 지원에 힘입어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체원의 저술 중 첫째는 별행소(別行疏)인데, 저술 동기는 약해의 발문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화엄경의 관음 신앙에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체원의 사형인 인원과 동학의 우애를 보답하기 위해서, 또 위로는 부처님의 현복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류에 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였다. 저술 시기는 1328년 약해를 저술하기 전에 별행소 2권을 저술했다는 약해 발문에 따르면, 1320년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다. 내용은 별행소의 인증 자료를 통해 보면 화엄에 대한 징관소가 많고, 법화경의 관음 신앙과 관련된 영험담 위주의 내용이며, 북종선 창시자인 신수의 묘리원성관(妙理圓成觀)이 인용된 것 등이다. 이로 보아 체원의 사상적 경향은 실천 신앙적인 성격을 띤 관음 신앙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실제적인 예로서 영험과 감응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다음 저술로는 약해가 있다. 곧 의상이 지은 『백화도량문(白花道場文)』의 약해이다. 1328년 10월에 해인사에서 저작되었으며 각화사 주지인 성지가 교감하였다. 개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림부에서 경주 향리의 도움과 동천사의 협력으로 1334년에 있었다. 내용은 백화도량(白花道場)에 머물면서 보살행과 보살도를 표방하는 관자재보살에게 발원하는 것이다. 이로보아 체원은 의상이 표방한 정토로의 중생 구제라는 현실적 실천적 관음 신앙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체원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관음지식품(觀音知識品)』은 그 발문에 의하면 1331년 10월에 저작되었으며 간행은 약해와 비슷한 시기인 1334년인 것으로 추

측된다. 현존하는 것은 후반부만 남아있다. 40 화엄 권 16의 내용을 그대로 판각한 것으로 단지 두주(頭註)를 달고 있을 뿐인데 두주는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발문에 의하면 별행소를 조판한 뒤 따로 한 권을 필사하여 지송용(持誦用)으로 삼았다가 봉지자(奉持者)들로 하여금 편하도록 하기 위해 판각했다는 것이다. 별행소에 대한 일종의 지송용이다.

체원이 발제를 붙인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은 1331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일종의 위경(僞經)이라 한다. 발문의 내용에는 염불을 통한 공덕이나 영험에 의해 정토에 반드시 나아간다는 점의 강조, 공덕소경은 원래 26분이었으나 38분으로 보충, 체원의 사형 인원이 관세음신앙에 심취하면서 따로 여러 성자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 도속(道俗)에 널리 전하기 위해 판각한다는 점 등이 있다. 공덕소경은 염불과 영관(靈官)이나 성자(聖者)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공덕과 영험을 통한 정토에로의 발원이 주 내용이다. 여기서 영관이나 성자는 불보살의 명호뿐 아니라 이와 대비되는 민간 신앙의 대상도 포함되었다. 이는 결국 민간 신앙이 불교화하는 과정에서 화엄종의 염불 신앙과 결합된 양상을 나타낸다.

이상의 체원의 저술들에서 나타난 사상적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관음 신앙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공덕과 영험까지 표방하고 심지어 민간 신앙과 결합된 성격을 띤 염불신앙을 수용하는 사상적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몽 항쟁기에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강조된 균여 사상의 화엄신중 신앙의 부각과 같은 맥락에서 1300년대 중반 몽고 지배기 지방 사회의 현실구원적인 역할이 체원이 몸담은 화엄종의 사상적 경향이었다고 하겠다. 체원은 의상-균여-천기로 계승되는 화엄 사상의 맥을 이은 승려이며 주로 경상도의 반룡사를 중심하여 해인사, 법수사, 동천사, 각화사의 승려들의 협조와 경상도의 계수관인 경주의 향리와 수령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사상적 내용을 담은 저술을 판각하여 널리 유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경주는 1300년대 중반의 현실구원적 화엄 사상 곧 관음 신앙과 염불 신앙이 유포되는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4) 고려 말 경주지역 신인종의 경향

고려 말에는 경주지역에 신인종 사원이 다수 존재하고, 승려가 활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인종은 신라 통일기 신문왕대 성전이 설치된 사천왕사, 봉성사, 감은사 등은 밀교와 관련된 사원이었다. 사천왕사에는 문두루 비법이 시행되었던 유지가 있고 사천왕상의 조각 작품이 사지에서 수습된 채유상이 있고, 봉성사는 밀교승 혜통이 창사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밀교적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감

은사 역시 용신이라는 수호신 신앙에 바탕하였으며 용담지가 존재하므로 밀교적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밀교적 성격과 미술적 특징에 바탕한 종파는 신인종이었고 이를 주도한 승려는 혜통과 명랑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신인종의 성격은 양병밀교(禳兵密敎)라는 호국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데 신라 말에는 경주 적리녀(積利女)의 아들 광학(廣學)과 대연(大緣) 두 형제가 신인종 승려였고 이들이 고려 태조의 초청으로 개경에 와서 수도에 전념하였으며 두 승려의 부모기일보가 돌백사에 급여되었다고 한다. 이로보면 신라 말에는 신인종의 존재가 경주지역에 자리하였으나 왕실의 집중적 주목은 받지 않은 듯하다.

신인종은 고려 태조에 주목되어 개경에 일종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현성사였다. 하지만 인종대까지 국왕의 친행 기록이 없어 주목되지 않은 것 같다. 경주지역의 사천왕사에는 문종대 번병을 물리치기 위해 문두루 도량이 27일 간 시행되었다. 번병은 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로보아 신인종은 개경에 일종의 근거가 마련되어 중심지가 경주지역에서 개경으로 이동되었으나 사천왕사는 양병밀교로서 그 역할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이기는 하지만 신인종과 관련된 기사는 더 이상 없다. 사천왕사와 함께 신문왕대 성전이 설치된 감은사는 1324년에 작성된 묘지명에 언양 김씨 김변의 아들 현변이 유가종승으로서 주지하였고, 1351년에는 대사의 승계를 가진 주인이 주지하여 언양 김씨의 원당이 된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신인종 사원으로 기능은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인종은 고려 시대 불교 제도적 기반에서는 승과(僧科) 합격 후 부여되는 법계상(法階上) 교종이었다.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려 말 덕방원(德方院)을 지은 연공(然公)을 '신인종도대사(神印宗都大師)' 라 한데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대사(都大師)' 의 법계는 조선 초 성현의 『용재총화』에 교종의 법계를 대선-중덕-대덕-대사-도대사의 순으로 승진됨을 말하는데서 교종의 법계인 것이다. 그리고 조선 시기에 신인종은 중도종과 함께 정리되어 교종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이는 신인종이 고려 시기에 법계상 선종과 교종으로 대별될 때 교종으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신인종은 조선 태종 6년에 종파 정리 시에는 중도종과 합쳐서 중신종으로 30사(寺)가 존속되었다. 이후 세종 6년에 교종, 선종으로 다시 정리 될 때 교종에 통합되었다.

고려 말에는 권근과 하륜 등과 교유한 신인종 승 연상인이 천왕사에 주지로 있었는데, 이 천왕사는 사천왕사가 아닌가 한다.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신유림이 있는 사원을 지금의 천왕사라 함으로써 천왕사가 사천왕사임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륜이 울주로 가는 길에 성 남쪽 천왕사에 묵었는데 당시 주지가 연상인이라 하고 이튿날 절문 동쪽으로 인가가 없고 울주까지 90리나 된다는 말로 보아 현재

알려진 사천왕사지가 그곳임이 분명하다. 동경에는 사천왕사 외에도 태조가 신인종 승 광학, 대연 형제를 위한 부모기일보를 설치해 준 돌백사가 있어 일연 당시까지 고문서가 전해져 오는 등 사세가 유지되었음을 미루어 신인종 사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권근이 공양왕(恭讓王) 2년(1390)에 이곳으로 유배와서 교유한 신인종 승 성원이 주지한 갑산사가 있다. 갑산사의 위치는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에 있다. 여기서 발견된 고려 시기의 갑산사 문자 기와는 이곳이 갑산사임을 증명한다. 여기서 채집된 기와는 삼국 말 통일 초에서 고려 시기까지이다. 신인종 승 연공이 세운 덕방원 곧 혜리원이 있다. 이는 하륜이 경주 부윤으로 있을 때 천왕사 주지였던 신인종 승 연공과 원을 지을 것을 의논하여 덕방리에 지었다. 완공 후 하륜이 중국 사행 중이어서 기문을 권근에 청하고 돌아온 하륜에게 원명을 청하여 혜리원으로 한 것이다. 이상에서 고려 말 자료에 나타난 신인종 사원은 사천왕사, 돌백사, 갑산사, 혜리원 등 네 곳임을 알 수 있다.

고려 말 신인종 승려와 성리학자와의 교류 그리고 신인종 승려의 선에 경도된 경향이 있다. 권근이 계림 곧 경주에 유배되었을 때 거기서 교유한 신인종 승으로 옥명과 연공, 그리고 성원이 있다. 이들 신인종 승은 모두 경주 출신이며 권근이 경주에 유배된 인연과 인간적인 성품에 교류한 것이었다. 권근은 성리학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면서도 특히 신인종 승려와 교유가 세 명이나 된다는 것은 신인종과 성리학과의 사상적 공유를 시사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자료 부족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예증하기 어렵다.

윤리 의식에 개인적인 호감으로 교유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다. 권근이 송갑산주지원공시병서에서 "원공은 신인종의 전법사이다. 기품이 맑고 성정이 조용하며 과묵하며 행실을 닦은 사람이다. 내 진실로 그를 좋아하여 방외의 벗을 삼고 또 아이들을 맡겨서 그 몽매한 것을 깨우치게 하였더니, 원공이 밤낮으로 가르쳐서 게으르지 않고 오직 성취 있기를 기약하기에 내가 더욱 중하게 여긴다. 건문 3년 봄에 계림 갑산사 주지로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이웃에 살고 있었으므로 사양하지 않고 가는 것이었다.… 대저 원공은 불자이다. 오직 적멸을 높이고 어버이를 하직하여 애정을 끊으니 이 학술은 우리 유학하는 자로서는 배척하여 멀리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공은 그렇지 않았다. 효도의 큼을 알아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의리의 큼을 알아서 남의 약한 자식을 거두고자 하였다. 이것은 유교의 도에 어김이 없고, 또 그 천명의 성에 인의가 마음에 근본하여 배움을 기다리지 않고도 일용하는 사이에 자연히 나타남을 볼 수가 있었다"라 하였다. 권근은 신인종 승 성원의 효도와 의리가 유교의 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권근은 또한 「송명상인시서」에서 "전에 내가 사간원에 있을 때에 한 유생이 시축을 가지고 와서 청하기를 '신인종의 중 옥명(玉明)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생들과 놀기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근친하러 가게 되므로 우리들이 시를 증정하기로 하였으니, 그대도 한 수 지어 주시오' 하기에, 내가 즉시 지어 주었으나, 일찍이 그의 얼굴은 접하지 못했었다. 두어 해 뒤에 내가 계림으로 귀양가 있었는데, 중 한 사람이 나의 곤액을 민망하게 여기며 말이 관곡하기에 물어 보니 곧 명상인이었다. 계림은 바로 그의 고향으로서 어머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와서 섬기는 것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의 효도 잘하는 것을 칭찬했었다. …내가 사환을 받게 되자, 명상인이 또한 서울로 와서 현성사에 있으며 우리 집에 찾아오기를 여러 차례 하였으니, 대개 그의 천성이 벗들에게 독실한 사람이다. 대저 어버이께 효성스럽고 벗들에게 독실함은 사군자의 아름다운 행실인데, 부도(浮屠)로서 능히 그렇게 하니 더욱 가상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참으로 이른바 이름은 묵자이지만 행실은 유자인 것이니, 같이 상종할 만한 사람이다."라 하였다. 여기서도 신인종 승 옥명의 어버이에 대한 효성과 벗들에 독실함을 들어 사군자의 아름다운 행실과 같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근은 신인종 승 연공에 대해서도 「고간기」와 「덕방원기」를 써 주며 교유하였다. 그에 대한 인품 역시 유자와 공감한 바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덕방원기」에서 "신인종 도대사 연공은 성품이 인자하고 덕량이 커서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복되게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끊임없었다. 노쇠하자 고향에서 쉬니, 고향은 곧 계림이다. 계림에서 울주까지는 겨우 백 리이나, 가고오는 사람이 반드시 중로에서 자고 가야 당도한다. …옛날부터 원관이 없어 잘 데가 없으므로 반드시 민가에서 자게 되는데, …그리하여 공이 중로에다 원관을 세워 왕래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려 하여, 곧 자리를 덕방리 길 북쪽에 잡았는데…공의 은혜가 만물에 넓게 미침을 또한 볼 수 있다"라 하였다. 또한 「고간기」에서 "부도 연사는 신인종의 시 잘하는 승려인데, 그 기상이 유화하고 그 마음이 담담하여 명리를 버리고 선적에 들어갔으니, 당시 사대부들 중에 중히 여기는 이가 많았다"라 하였다. 이로보아 신인종 승 연공도 성품이 인자하고 덕량이 커서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복되게 한다든가, 기상이 유화하고 마음이 담담하여 명리를 버렸음을 권근이 높이 기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인종 승 연공은 하륜과도 교유하였다. 하륜이 쓴 「혜리원기(惠利院記)」에는 "지금 상인(上人)이 그 부모에 효도함이 정성으로 하고 또 그 여력으로 행로의 사람에게 미쳤으니 이는 사람을 은혜롭게 하고 물질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천성의

견고한 가짐에서 나와 그치지 않음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하륜도 연공의 효행과 덕화를 칭송하여 교유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당시 성리학자들이 수행하던 것과 그와 교유한 신인종 승들의 수행과 다르지 않았음에 공감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신인종 승이 이와 같은 예가 많은 것은 개인적인 수행과 성품만이 아닌 소수 종파로서 명리를 누리지 못한 배경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들 신인종 승 성원, 옥명, 연공은 모두 고향이 경주이고 신라 시기부터 신인종의 종풍을 유지한 사원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부모에 대한 효행을 보였고 사회적인 덕화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신인종 승의 사상적 경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신인종 승 연공은 "마음이 담담하여 명리(名利)를 버리고 선적에 들어갔으니"라 하여 선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인종의 식암은 계림의 사족으로서 열 두 살에 신인종에 몸을 던져 머리를 깎았으며 학문이 이미 이루어지자 승과에 합격하여 여러 절의 주지를 지냈다.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나옹사를 따라가서 종유함이 오래되었다. 제법 얻음이 있는 것 같게 되자 장차 나옹에게 질문을 하려 했는데 나옹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옹은 조계종 승려로서 당시 크게 선종을 진작시킨 승려였다. 교종으로 분류되는 신인종의 소속을 가지고 조계종의 나옹을 따라 선에 경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연공과 식암은 신인종 승려로서 선에 경도된 사실을 전한다. 당시 신인종은 신라 이래 밀교적 교의를 유지해왔음은 권근이 교유한 신인종 옥명에 준 시에 "불교의 문두루는 신묘한 변화가 으뜸이네. 환술(幻術)의 말이 세상 사람을 놀래니 기권이 매우 은밀하구나. 상인이 그 도를 배워서 당에 오르고 방에 들어갔네"라 하여 잘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선종이 크게 풍미된 분위기에서 교종으로 분류된 신인종 승려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선에 빠져들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곧 승려들의 수행이 종파의 교의에 경직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추측된다.

이상에서 성리학자들이 신인종 승 옥명, 성원, 연공, 식암 등과 교유하고, 이들 신인종 승은 선에 경도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신인종 승이 모두 경주를 고향으로 하고 부모를 모시는 효행을 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다. 비록 권근, 하륜 등이 유배 온 경주를 연고하여 맺어진 신인종 승들이지만 당시의 사상적 흐름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효행과 행실이 신인종 승에서 발견되었고, 신인종 승은 개인적인 행실이 드러나는 수행을 선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개인적인 높은 윤리적 성품을 기르는 수행이 성리학, 선종, 신인종의 벽을 넘어 하나의 사상적 기풍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4. 조선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경주의 불교 문화

조선시대 경주의 불교 문화는 당시 고대와 고려시대의 융성한 모습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고려 후기 성리학(性理學)의 수용과 조선 건국 주체세력의 배불 정책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받았다. 태종대에는 출가(出家)를 억제하고, 부녀자들의 사찰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사원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를 혁파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대규모의 사찰 정리 작업을 단행하여 전국에 242개 사찰만을 남겨두고 당시 11종이던 종단마저 7종으로 축소시켰다. 이와 같은 불교 억압 정책은 세종 대에도 지속되어 태종대의 7종을 선교(禪敎) 양종으로 통 · 폐합하고, 선종과 교종에 각각 18개 사찰만을 배정하여 전국에 36개 사원만을 남겨두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교지상주의의 표방 아래 불교 탄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의 불교 신앙은 여전히 성행하였다. 불교를 이단이라 하여 그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하들과 더불어 억불과 폐불(廢佛)을 결행하였던 왕들의 재위 기간에도 왕실에서는 불교 행사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태조 때에는 무학(無學)을 왕사(王師)로 삼고, 궁중에서 200명의 승려에게 반식(飯食) 공양을 하였으며, 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족들의 병환과 사후에는 설재(設齋) · 법석(法席) 등의 불사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집권 초기 강력한 배불 정책을 추진했던 세종조차도 1419년 정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흥천사(興天寺), 진관사(津寬寺), 개경사(開慶寺) 등에서 7재(齋)를 베풀었다. 또 모후(母后)의 병환에는 관음 기도(觀音祈禱)와 약사 기도(藥師祈禱)를 행하게 하였고, 왕이 친히 개경사에 행차하여 불공을 드리기도 하였다. 그는 말년에 더욱 불교에 심취하여 대궐 남쪽에 불당(佛堂)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왕실의 불사(佛事)와 신앙은 세조대에 더욱 왕성하여 1457년에는 전지(傳旨)를 내려 관원이나 유생(儒生)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했으며, 사찰에 부과된 부역 외의 모든 노역(勞役)은 일체 없애는 조례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세조는 재위 14년간 승려의 권익을 옹호하여 불교의 위치를 보장하였으며, 사찰을 창건하거나 중수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금강경(金剛經)』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을 비롯한 불교의 대승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언해 사업과 대장경 등 불교 전적을 간행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으며, 불교 음악 · 무용 등의 불교 문화 사업을 크게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 불교는 성리학에 기초한 유교 입국을 표방하면서도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불교를 숭신하는 외유내불(外儒內佛)의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조선 전기 경주는 이전 시기 불교의 본고장이어서 많은 사찰이 있었지만,

그 위치가 하락하여 사찰이 망실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의 사찰은 다른 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찰이 남아 있었다. 조선 전기 전국의 각 군현이 수집하여 중앙에 올려 보낸 자료를 기초로 편찬된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고적(古跡) 조」는 당시 전국에 남아있었던 70개의 명찰(名刹)을 수록하고 있는데, 경상도가 22개의 사찰로 경기도[35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찰이 있었다. 이 가운데 경주는 불국사(佛國寺), 감은사(感恩寺) 등 10개의 명찰이 수록되어 경상도의 명찰 가운데 거의 반수를 차지할 정도였다. 또한 동일한 기록 「불우(佛宇)」조에 의하면 전국 1,658개의 사찰 가운데 경상도는 284개의 사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찰이 있었는데, 경주는 황룡사(皇龍寺) , 사천왕사(四天王寺) 등 11개의 사찰이 있어서 경상도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찰이 굳건히 이 지역의 불교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불교 관계 자료의 부족으로 경주지역의 불교 문화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당시 기록에서 경주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서 불교 신앙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즉 조선 전기 민간에서 행해진 불교 신앙은 불교 탄압의 상황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현실적 고난을 구제하는 관음 신앙,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안락을 희구하는 아미타 신앙, 고통을 제거하고 병을 낫게 하는 약사여래 신앙 등 여러 불교 신앙 형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일반 백성들은 현실의 불행과 빈곤을 벗어나 내세에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정토 신앙을 큰 희망으로 의지하였다. 때문에 이 시기에도 민간에는 미타염불(彌陀念佛)의 정토 신앙이 서민 계층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는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는 기복(祈福)적인 면과 밀교적 의식 또한 점차 짙게 나타났으며, 미륵, 지장, 보현, 신중(神衆), 칠성(七星) 등의 여러 신앙이 신라시대 이래로 조선 전기에도 여전히 민간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찰과 신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경주 불교계의 동향과 그 문화는 조선 후기와 같은 격동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조선 후기 불교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조정의 호의적인 태도와 자구적 노력이 기초가 되어 발전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은 미천한 신분으로 전락한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신(儒臣)들이 왕의 친불교적 성향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태도는 여전히 강렬했지만, 왜란 이후부터 불교계에 대한 인식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 갔다. 의승군(義僧軍)

활동으로 인한 국가적 공헌이 지대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이다.

서산대사(西山大師)는 선조의 명으로 종군한 이래 그 문도(門徒)들을 지휘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영규(靈圭)는 800명의 승군을 거느리고 조헌(趙憲)과 합세하여 청주를 수복하였으며, 사명당은 700명의 승군을 지휘하여 평양을 수복하였고,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도 적진에 출입하며 화평에 공헌하였다. 이 밖에 처영(處英)이나 해안(海眼)도 행주산성과 영남에서 각각 승군을 조직하여 활약했으며, 부휴(浮休)와 그 제자 벽암(碧巖)도 수군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승군들의 활약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산성을 축조하고 보수하였으며, 종묘 건립과 서적 인출 뿐만 아니라 전란으로 희생된 시체를 매장하는 일까지도 담당하였다. 승려들의 활약과 국역(國役)의 담당은 수반된 희생도 컸지만, 도첩(度牒), 고신(告身), 면천(免賤) 등의 혜택이 내려지기도 하여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 혜택은 지속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고통은 극심하였다.

왜란과 호란 이후 진행된 남·북한산성(南北漢山城)의 축성(築城)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사원에서 각 350명씩 700명의 승려들이 동원되어 산성 안의 상주승(常住僧)과 함께 1년에 2개월씩 6회에 걸쳐 교대로 복무하였다. 승려들은 산성 방어를 위한 경비와 장비를 스스로 부담했으므로 의승군이 소속된 사원은 재산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호남에서는 큰 사찰은 4~5명, 작은 사찰은 1~2명이 동원되었는데, 1명씩 보낼 때마다 경제적 부담이 심해 급기야는 승려들이 사찰을 떠나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승려들은 이밖에도 관청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영건(營建)에 목공이나 석공, 그리고 화공(畵工)으로 징발되기도 하였으며, 지방 관부나 향촌 세력에 예속되어 각종 잡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경상도 창원에서는 흰 가죽신, 짚신, 가는 새끼줄 등을 무상으로 조달하였고, 합천에서는 송화(松花)가루나 석이버섯 등을 납부해야만 하였다. 승려들은 결국 수탈을 견디지 못해 환속하거나 은둔하였으며, 인근의 부유한 사원에 잡역을 전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폐단은 한때 승려와 사원 측의 실정에 따라 부역 노동에 동원시키는 시정책과 그 경제적 부담을 반감시키는 조치가 마련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의 사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 녹봉서원(琓峰書院) : 칠곡 상지리에 있는데, 가정(嘉靖) 신유년(1561) 목사 황준량(黃俊良), 교수 오건(吳健)과 더불어 주(州)의 사람들이 옛 정토사(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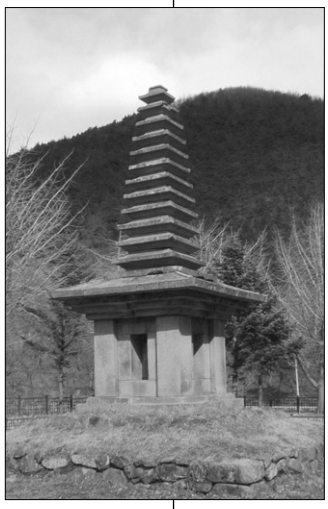
土寺) 터에 서재(書齋)를 창건하였다.(『영남읍지』, 성주(星州) 경산지(京山誌) 권 2, 학교 조)

○ 법장사(法藏寺) : 영남산(映南山) 남쪽에 있었는데, 사찰이 폐허가 된 터에 부(府)의 사인(士人)이 서당을 세웠다.(『영가지(永嘉誌)』, 고적 조)

○ 향사당(鄕射堂) : 큰 절이 중안리(中安里)에 있었는데, 지금 향사당이 그 터다.(『영남읍지』 진주, 사찰 조)

○ 영흥사(永興寺) : 임하현(臨河縣) 서쪽 2리에 있었는데 고려 때 창건한 사찰이었다. 그 터는 지금 임천향사(臨川鄕社)가 되었고, 옆에는 석탑이 있다.(『영가지(永嘉誌)』, 고적 조)

예컨대 향교, 역, 원, 향사당(鄕射堂) 등 국가관부 시설에 이미 폐허가 된 사원의 목재나 기와 혹은 절터가 이용된다든지, 폐허가 된 사찰이 재지 사족들의 재사(齋舍), 정사(精舍), 서당(書堂) 등으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당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찰 또한 지방에서의 수탈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 관부나 궁가(宮家)에 예속되기를 희망하였다. 영남의 법화사(法華寺), 다솔사(多率寺)가 감영, 병영의 수탈이 심해지자 다시 예속되기를 원했다든지, 각 사찰이 여러 궁가의 원당(願堂)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정혜사지(定惠寺址) 13층석탑

경주의 정혜사(定惠寺)는 옥산서원(玉山書院)에 예속된 속사 기능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혜사는 1572년 옥산서원의 창건과 함께 서원의 속사(屬寺) 기능을 담당한 이후부터 1834년 11월 화재로 소진되기까지 약 260여 년 간 옥산서원 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옥산서원은 창건 당시 경주 부윤 이제민(李齊閔)이 서원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혜사, 두덕사(斗德寺) 두 사찰과 사기(沙器), 수철(水鐵), 야철(冶鐵) 등의 각점을 서원에 정속(定屬)시킴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미 정혜사는 이언적이 자주 왕래하여 독서하였고 사찰의 승려들과 친교 또한 있었다. 때문에 정혜사는 이언적의 문적(文籍) 및 『구경연의(九經衍義)』 등 문집 판각(文集板刻), 서원 유생의 공궤 및 서원에서 필요로 하는 현물을 상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컨대 정혜사는 서원에 백지(白紙) 4속(束)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춘추 향사와 임사체개(任司遞改) 때는 종이를 소용에 따라 거두도록 하였다. 신발은 매월 2부씩 상납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고 과외(科外)로는 징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배지나 장지(壯紙) 등도 임시로 상납 받았다. 그러나 정

혜사는 과외로 이들 현물을 서원에 상납했을 경우에는 시장 가격에 따라 그 값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밖에 정혜사의 승려들은 서원에서 필요한 된장, 간장과 술 재료인 누룩, 포도, 송화(松花) 등의 상납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승려들은 승역의 일환으로 문집간행 및 서원 건물 중수 등을 담당하였다. 정혜사와 옥산서원의 이러한 관계는 정혜사 승려가 그 대가로 감영과 경주부의 비호를 받아 조선 후기 가장 혹독했던 각종 잡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혜사는 17세기 이후부터는 옥산서원 뿐만 아니라 지방 관아와 감영 및 산성 등의 수리 및 축조에 차출되기도 하였다. 1611년 감영 수리 공사, 1675년 가산산성(架山山城) 부역, 1622년에는 병영(兵營) 수리 공사 때에는 목수(木手)와 공장(工匠) 등으로 차출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1675년 각종 용도의 종이를 관청에 상납하는 등 그 수탈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때 옥산서원에서는 해당 관청에 글을 올려 승려들의 각종 잡역을 면제받아 속사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옥산서원의 사림(士林)들은 여러 사찰로부터 지원을 받아

〈표 8-1-3〉 조선시대 경주소재 사찰의 수적 변화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 초) 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18세기 중엽) 輿地圖書	경주읍지(1932) 慶州邑誌
영묘사(靈妙寺), 불국사(佛國寺), 기림사(祇林寺), 감은사(感恩寺), 백율사(栢栗寺), 천주사(天柱寺), 석장사(錫杖寺), 분황사(芬皇寺) [이상 불우조] 담암사(曇巖寺), 천관사(天官寺), 황룡사(皇龍寺), 사천왕사(四天王寺), 봉성사(奉聖寺), 영흥사(永興寺), 흥룡사(興龍寺), 신원사(神元寺), 창림사(昌林寺), 남산사(南山寺) [이상 고적조]	영묘사(靈妙寺), 불국사(佛國寺), 기림사(祇林寺), 감은사(感恩寺), 백율사(栢栗寺), 천주사(天柱寺), 석장사(錫杖寺), 법광사(法光寺), 천룡사(天龍寺), 무장사(鵝藏寺), 용장사(茸長寺), 정혜사(定惠寺)(新增), 도덕암(道德菴), 원원사(遠願寺), 심원사(深源寺), 개선사(開善寺), 장천사(障川寺), 단석사(斷石寺), 금곡사(金谷寺), 안곡사(安谷寺), 대둔사(大屯寺), 거동사(巨洞寺), 황룡사(皇龍寺) [이상 사찰조] 담암사(曇巖寺), 천관사(天官寺), 황룡사(皇龍寺), 사천왕사(四天王寺), 봉성사(奉聖寺), 영흥사(永興寺), 흥룡사(興龍寺), 신원사(神元寺), 창림사(昌林寺), 남산사(南山寺) [이상 고적조]	흥륜사(興輪寺), 영흥사(永興寺), 황룡사(皇龍寺), 영묘사(靈妙寺), 분황사(芬皇寺), 불국사(佛國寺), 골굴암(骨窟庵), 천룡사(天龍寺), 감은사(感恩寺), 백률사(栢栗寺), 천주암(天柱庵), 석장사(錫杖寺), 천관사(天官寺), 무장사(鵝藏寺), 홍효사(弘孝寺), 용장사(茸長寺), 신원사(神元寺), 창림사(昌林寺), 원원사(遠遠寺), 사천왕사(四天王寺), 심원사(深願寺), 장천사(障川寺), 황룡사(黃龍寺), 주암사(朱巖寺), 단석사(斷石寺), 삼랑사(三郎寺), 기림사(祇林寺), 정혜사(淨惠寺), 두덕암(斗德庵), 망덕암(望德庵), 호원사(虎願寺), 단속사(斷俗寺), 피리사(避里寺), 법광사(法光寺), 안곡사(安谷寺), 금곡사(金谷寺), 태화사(太華寺), 대둑사(大屯寺), 거동사(巨洞寺), 밀곡사(密谷寺), 보덕암(普德庵), 금정암(金井庵), 금강암(金剛庵) [이상 불우조] 담암사(曇巖寺), 황룡사(皇龍寺), 불국사(佛國寺), 석굴암(石窟庵), 고선사지(高仙寺址), 무장사지(鵝藏寺址), 도림사(道林寺)

불상을 개금(改金)하고 법당과 여러 전각을 중수하였다. 그러나 정혜사의 승려들은 서원과 관청에 대한 과중한 잡역 면제를 끊임없이 서원에 호소하였다. 결국 정혜사는 옥산서원에서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고 조선후기 극심한 불교계의 수탈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선 후기 경주의 사찰은 당시 서원의 경제 기반 역할을 하면서 관청의 수탈과 각종 부역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8-1-3〉은 조선 전기와 후기, 1932년에 편찬된 『경주읍지』에 수록되어 있는 경주의 사찰이다. 16세기 초의 경주 사찰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경주의 사찰이 약 18개, 18세기 중엽의 『여지도서』에는 33개, 1932년의 『경주읍지』에는 50개가 정리되었다.

조선 전기 경주의 사찰은 그 기록이 상세하지 않지만, 사찰 수가 가장 많았던 경상도 가운에서도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지도서』에서도 동일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무장사(鵲藏寺)는 『여지도서』가 편찬될 당시에는 이미 폐허로 변해 그 터만 남아 있었다. 1932년의 『경주읍지』에는 이전의 기록보다 많은 사찰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찰의 현황 조사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진 까닭도 있지만, 조선시대의 지리지와 관련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았을 때 점차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계가 극심한 수탈로 승려가 떠나고 사찰이 폐허가 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의 사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주 지역의 신앙심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조선 전기와 후기, 1900년대 초반의 전국 사찰 수는 1,658개에서 1,537개, 1,283개로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상도의 사찰 수는 전체적인 감소 추세와는 달리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경상도의 사찰이 306개인데 비해 18세기 『여지도서』는 기존의 사찰 수와 조사 당시 새롭게 창건되거나 폐허 상태에서 중건된 사찰을 합해 331개, 그리고 1910년대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는 경상도의 사찰을 394개로 정리하고 있다.

결국 조선 후기 전국의 사찰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주를 포함한 경상도 지역의 사찰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민들의 돈독한 신앙심이 기초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 경주의 사찰들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불국사나 기림사와 같은 대표적인 사찰들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조직하여 왜군에 대항하였고, 폐허가 된 전각들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분연히 일어설 줄 알았고, 배불 정책과 유학자들의 탄압에 대해서 수행자로서 본분을 의연히 지켜나갈 줄 알았던 것이다.

불국사(佛國寺)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의 재상 김대성이 751년에 창건하기 시작했고, 774년 그가 죽은 이후에는 국가가 완성시켰다고 한다. 불국사는 당대 명장(名匠)들의 노력으로 창건된 이후 신림(神琳)과 표훈(表訓)을 비롯한 고승과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1580년 4월에 불국사를 찾았던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은 『동경유록(東京遊錄)』에서 다음과 같이 불국사의 장관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 … 해질 무렵 불국사에 들어갔는데 안개구름만 자욱하여 마치 인적이 없는 것 같았다. 돌다리 하나를 건너니 큰 바위 위에 연지(蓮池)가 있고 연지 북쪽으로 나무를 파서 물이 흐르게 만들었고 홈통을 타고 흘러내린 물은 석조(石槽)로 떨어지고 있었다. 홈통을 지나 구름다리에 올라서니 다리는 돌을 다듬어 만들었는데 마치 무지개와 같았다. 절 문을 들어서니 금당(金堂)과 석탑(石塔), 고불(古佛)과 새로 그린 그림들이 천태만상으로 기괴하였는데 이 모두가 신라의 유적(遺蹟)이었다.

이덕홍의 불국사에 대한 단상은 기행문의 범위를 넘지 못해 그 설명이 상세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불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국사가 '천태만상으로 기괴하다' 라는 표현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예전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나라인 불국토(佛國土)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국사의 불국토 구현을 위한 노력은 이 거친 사바 세계에 우뚝 선 불국 세계의 상징이다. 신라시대 때의 명칭이 '화엄불국사(華嚴佛國寺)' 라고 하였는데, 화엄불국은 화엄의 불국토라는 의미다. 화엄의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공덕으로 장엄한 연화장 세계이고 온갖 꽃으로 장엄된 세계이다. 비로전(毘盧殿), 무설전(無說殿) 등은 비로자나불의 침묵을 상징하는 화엄적 표현이다. 아울러 불국사의 석가탑(釋迦塔)과 다보탑(多寶塔)은 『법화경(法華經)』을 기초로 한 서가불(釋迦佛)의 사바 세계 불국을 그리고 안양문(安養門)과 극락전(極樂殿)은 『아미타경(阿彌陀經)』에 근거한 극락세계 정토를 각각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불국사는 이 사바 세계와는 막연한 이상 세계가 아니다. 백운교(白雲橋)와 청운교(靑雲橋)를 건너고 33계단을 차례로 밟고 올라 안양문을 통과해 극락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편 불국사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 선조 26년(1593) 5월 왜구가 침입했을 때 좌병사(左兵使)가 지장전(地藏殿) 벽 사이에 활과 칼 등의 병장기를 감추어 두었다. 이때 불국사까지 쳐들어 온 왜구는 경내의 풍광에 감탄하여 둘러보다가

병장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렀다. 마침 장수사(長壽寺)에서 난을 피하고 있던 운화대사(雲華大師)가 문도를 이끌고 달려왔지만, 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등을 제외한 2천여 칸이 불타버렸다.

이후 불국사는 선조 37년(1604)부터 지속적인 복구와 중창 불사가 진행되었다. 『불국사고금창기』에는 이후의 불국사 보수 공사와 중건 불사에 대해 정리하였다.

불국사는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버린 이후 약 25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각 전각의 창건과 중건을 거듭하였다. 여기에는 불국사 재건을 위한 승려들의 노력과 함께 지역민들의 돈독한 불심(佛心)이 작용하였다.

한편 기림사(祇林寺)는 불국사와 함께 영남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경주에서 추령재를 넘어 감포쪽으로 토함산과 함월산의 협곡을 10여 km 가다보면 왼쪽으로 안동마을이 있고, 이곳에서 1.5km 거리에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기림사는 선덕여왕 12년(643) 광유선사(光有禪師)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숙종 31년(1705)에 찬술된 「기림사중창기(祇林寺重創記)」는 "범마라국(梵摩羅國) 광유성인(光有聖人)이 서역에서 이 산으로 와 임정사(林井寺)라는 가람을 세우니 '임정'이라는 말은 대범가(大梵家)라는 뜻이다. 절에 우담화(優曇花)를 심고, 또한 5종의 물이 흐르며, 꽃과 대나무가 서로 밝게 빛나니 안양계(安養界)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였다. 즉 광유라는 승려가 인도에서 건너와 임정사를 창건했다는 것이다.

「신라함월산기림사사적(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에 수록된 위의 창건 설화는 기림사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 신앙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림사의 창건 연대와 인물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후 기림사는 원효대사가 주석하면서 중창하였다고 하는데, 사찰의 명칭 또한 임정사에서 기림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기림사는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고, 다만 12세기의 목판본과 사경(寫經)에서 17세기의 목판본에 이르기까지 약 32종의 고려시대 전적(典籍)이 전해지고 있다. 이 전적들은 1986년 대적광전(大寂光殿) 비로자나불상(毘盧舍那佛像)에서 발견 된 것으로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 등의 대승경전류와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이나 『법원주림(法苑珠林)』과 같은 전적류(典籍類)도 발견되었다.

그 후 기림사는 조선 중기와 후기부터 지속적인 중창불사를 통해 대가람의 면모를 지니게 된다. 특히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기림사는 승병의 활약으로 호국 사찰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 후기 지속적인 사찰의 중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802년에 조직된 염불계(念佛契)다. 계는 일정 기간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출자하여

상호부조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임이다. 기림사의 염불계는 참봉 김창윤(金昌胤)과 홍원사문(洪遠沙門), 이관 혜한(理寬惠閑), 천준 태관(天俊泰寬)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하였다. 결성의 목적은 계를 통해 조성된 계금으로 퇴락한 전각을 중수하고, 계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 불교가 지속적인 배불정책 하에 불교계에 대한 억압과 수탈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계 조직은 피폐한 수행 풍토와 사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현재 기림사의 가람 구조는 일주문에서 진입하여 가람 내부로 향하면 중심부를 가로질러 석단을 쌓아 가람을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누고 있다. 상단부에는 최근 새롭게 중창한 가람을 형성하고 있으며, 하단부에는 옛날부터 있어 온 가람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하단부의 옛 가람은 천왕문, 종각, 진남루(鎭南樓), 노전(爐殿), 응진전(應眞殿), 대적광전(大寂光殿), 약사전(藥師殿), 요사(寮舍)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가람을 기초로 한 기림사의 신앙 형태는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삼신불(三身佛) 신앙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즉 서가불(釋迦佛), 아미타불(阿彌陀佛), 약사불(藥師佛)의 삼회상(三會上) 신앙 형태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교외별전(敎外別傳), 이심전심(以心傳心)을 표방하는 응진전(應眞殿)이 위치하여 선종(禪宗) 사찰로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불교 사상과 신앙 구조를 기초로 한 기림사의 하단부 가람 구조는 화엄사상(華嚴思想)을 중요시하는 한국 선종 사원의 신앙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기림사는 임진왜란 후의 중흥 불사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당 조영에 있어서 사찰을 형성한 여러 법당의 권위적 서열 준수를 중요시하고 전통화되었다. 아울러 개개의 법당 건축에서는 경제적 제약, 법당 서열상의 제약 속에서도 법당에 따라 더욱 아름답고 화려한 법당을 만들려는 정성이 엿보이는 건물로 이루어졌다.

한편 조선 후기 경주 지역 사찰들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 승병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왜적은 선조 25년(1592) 4월 중순 부산에 상륙한 뒤 다음과 같은 3루트를 통해 북상하였다.

우도 : 동래 – 김해 – 창원 – 영산 – 창녕 – 현풍 – 성주 – 김산 – 추풍령
부산 → 중도 : 동래 – 양산 – 밀양 – 청도 – 대구 – 인동 – 선산 – 상주 – 조령
좌도 : 동래 – 기장 – 울산 – 경주 – 영천 – 신령 – 군위 – 비안 – 용궁 – 조령

영남 지방은 전반적으로 왜적의 북상로에 해당되어 왜군의 직접적인 침입이라

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 동안 유향소(留鄕所), 향교(鄕校), 서원(書院)을 중심으로 향촌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재지 사족(在地士族)들 역시 의병을 조직하여 왜적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명 조식의 학파는 재조, 재야에 포진하고 있던 동문들의 협력과 퇴계 학파의 재조 관인(在朝官人) 및 호남 의병장들의 협조가 지대하였다.

당시 경주지역의 사찰 가운데 불국사, 기림사, 백운암(白雲庵), 원원사(遠願寺)의 승병은 지역의 사림들과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이안눌(李安訥)은 사찰의 경제적인 지원과 승병 동원에 진력하였다. 그는 선조 24년(1591) 불국사 승려 탄연(坦演)으로부터 300냥, 원원사(遠願寺) 승려 혜관(惠觀)으로부터 390냥, 기림사 인성(印性)으로부터 680냥을 지원받아 군복과 신발 그리고 병장기를 구입하였다. 승병 또한 불국사 285명, 원원사 273명, 기림사에서 279명씩을 동원하여 의병진에 합류시켰다. 당시 사찰의 활동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 보자.

불국사에서의 상황은 의병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이언춘(李彦春)의 『동계실기(東溪實紀)』에 의하면 1592년 11월 이언춘의 의병부대가 불국사로 옮겨 와 진을 치고 정병을 선발하였다. 이듬해인 1593년 2월 26일에는 군병으로 하여금 불국사를 방어케 하자 승장(僧將) 찬홍(贊弘)과 인열(仁悅)이 쌀 200석을 내놓았다고 한다. 다음날인 26일에는 불국사에 300명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나무와 소금 등을 마련케 하였으며, 대장간을 만들어 병장기와 농기구를 만들게 하였다고 한다. 당시 불국사의 이러한 정황은 사찰이 경제적 지리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국사 자체 내에서 군량미를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승병 동원과 함께 불국사 주변 지역에 대한 경계는 불국사가 당시 경주지역의 의병들에게 중요한 주둔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불국사는 여러 의병장들이 진을 치고 전열을 정비했던 주둔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병장들의 작전지휘소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요컨대 불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요 요충지로서의 역할과 승병의 근거지로서 적극적인 역할도 담당했던 호국 사찰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한편 기림사는 승병 동원과 의병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외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선조 27년(1594) 의병장 이눌(李訥)은 군사를 이끌고 기림사에 주둔하여 군사들을 재정비하였다. 더욱이 기림사는 산악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천연의 보장처(保藏處)로서 경주지역의 공문서를 비롯한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기에도 좋은 곳이었다. 최남곤이 쓴 「강무당선생안서(講武堂先生案序)」에 의하면 호장안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선생안을 기림사로 옮긴 경위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① 고려 이후로 호장안(戶長案)을 작성해 두었다. 중간에 임진왜란의 병화를 겪었으나 다행히 없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 온 것은 실로 나의 방조(傍祖)인 최락선생이 정성을 다하여 산사(山寺)에 옮겨 봉안했던 공로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상조문선생안(上詔文先生案)』은 임란 이후 처음으로 차제(次第)와 제명(題名)을 만들었다. 이는 아마 전대에 작성할 겨를이 없었거나, 아니면 전쟁 중 갑자기 피난 갔을 때 이를 챙길 여가가 없어서 마침내 잿더미 속에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제 영구히 후세에 전할 계획이 공의(公議)에서 일제히 일어났다. 따라서 『영주선생안(營主先生案)』·『부선생안(府先生案)』·『호장선생안(戶長先生案)』·『상조문선생안(上詔文先生案)』을 새겨 한 체제의 책으로 등사하여 각각 나무 궤에 담아 자물쇠로 잠궈 기림사에 봉안하고, 후세 참고를 대비하여 간략히 그 전말을 여기 적었다.…

② 경주부 동쪽 50리에 큰 산악과 험준한 바위 속에 기림사라는 절이 있다. 신라, 고려를 지났으나 범궁(梵宮)은 예와 같아서 참으로 마천(馬遷)의 명산이라 할 수 있다. 경주부에서 곧 『영주선생안(營主先生案)』, 『부선생안(府先生案)』, 『호장선생안(戶長先生案)』, 『상조문선생안(上詔文先生案)』을 이 절에 분장하려 하는데, 이 기회에 어찌 본 명안(名案)을 같이 도모해 보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좋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안(舊案)을 등본하여 별도로 신안(新案)을 만들어 이를 기림사 감실에 안치해 두었다. 아 슬프다. 조목에 따라 첨재(添載)하여 거의 누락을 없게 했었다. 이 명안의 관리는 본당(本堂) 동료에게 있지만, 실제로 수호하는 여러 절차는 오직 기림사 승려들에게 달려 있다. 그대들에게 바라는 것은 장육금불상(丈六金佛像)과 더불어 굳게 맹세하여 염라대왕의 철퇴로 여러 마귀를 물리치고, 물과 불의 적으로 하여금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이를 아름다운 구슬과 같이 보배로 삼아 영원히 보전해야 할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고려 중기 이래부터 전해진 5종의 선생안(先生案)을 기림사에 보관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고 있다. 즉 기림사는 산악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 사찰이 온전하여 공문서를 수장하기 좋았고, 스님들이 사찰을 잘 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조대왕의 어필(御筆) 등이 소장되어 있었다. 때문에 경주는 전란을 겪을 때마다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용장사(茸長寺)에 보관했던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의 영정 또한 1878년에 기림사로 옮겨와 봉안하였다. 이와 같이 기림사는 전란 당시 지리적으로는 의병의 주요 진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공문서와 열성조의 어필(御筆)을 보관할 정도로 그 역할이 지대하였다.

백운암과 원원사 또한 전란 당시 주둔지의 역할을 하였다. 백련암은 의병장 이눌과 김응하 등이 거점 진지로 활용하였으며, 군량미를 이곳에 비치하기도 하였

다. 원원사는 울산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선조 25년 12월 이언춘(李彦春), 박인국(朴仁國) 등 의병장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은 원원사에 집결하여 많은 양의 화살을 만들었으며, 선조 27년에는 원원사를 탈환하고자 했던 왜적들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상 조선시대 경주 불교계의 동향과 그 문화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당시의 전반적인 불교 정책의 이해 속에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는 지속적인 배불정책으로 사찰과 승려 수가 감소되는 등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암울한 상황은 이 시기 경주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찰이 크게 감소하여 이전 시기 불교의 요람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사를 대표할 만한 유서 깊은 사찰이나 당대의 거찰들은 탄압의 과정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여 불교 신앙의 요람 역할을 해내기도 하였다. 이 시기 경주의 사찰에서는 관음(觀音), 아미타 신앙(阿彌陀信仰)을 비롯해 지장(地藏)·미륵 신앙(彌勒信仰) 등을 숭신(崇信)하여 우리나라 불교 전래 이후부터 지속된 전통적인 불교 신앙의 면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 후기 경주 불교는 서원에 소속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란 당시에는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호국불교(護國佛敎)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컨대 불국사, 기림사와 같은 이 지역 대표 사찰은 의병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의승병(義僧兵)을 조직하여 왜적의 만행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배불 정책으로 인한 탄압 속에서도 상행위 등으로 발생한 이윤을 계를 결성하여 자금을 축적, 전란으로 폐허가 된 사원의 전각뿐만 아니라 불상 등을 조성하여 봉안하기도 하였다. 결국 조선시대 경주 불교는 불교 전래 이후부터 면면히 전해 내려온 전통을 탄압 받고 있었던 암울한 시기에도 굳건히 지속시키고 있었다.

5. 근·현대 불교와 불교 문화

경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다. 특히 불교 문화는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경주인들은 불교 문화의 정서 속에서 천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신라의 혼을 계승하고, 불교를 근간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경주시가 발표한 종교 단체 현황에 따르면 불교는 224개 시설에 약 376명의 스님들이 수행과 대중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는 153개 시설에 교직자 약 156명, 카톨릭은 10개 시설에 교직자 약 14명이 해당 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교 우위 현상은 경주지역이 전통적인 불교의

요람이자 이 시대와 미래세의 불국토(佛國土)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경주의 불교는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극심한 탄압과 피폐로 한동안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조선시대부터 근 ·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크고 작은 전란으로 사찰은 불타고 황폐화되었으며, 승려들은 수행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불국토의 구현은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이루어졌다. 그것은 출가 수행자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불법(佛法)의 땅에서 살다 간 수 많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법보(法寶)와 승보(僧寶)는 지켜지고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경주 사람들은 오늘도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잇기 위한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경주지역의 승보(僧寶)와 사찰의 면모를 살펴 보면, 일제강점기 이후 경주의 불교는 '불국토' 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에 이르러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 불국사(佛國寺)를 중심으로 제2의 불국토 구현에 진력하고 있다.

불국사가 751년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하여 서기 774년 신라 혜공왕 때 완공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불국사는 토함산 서쪽 기슭에 자리하여 심오한 불교 사상과 천재 예술가의 혼이 독특한 형태로 표현되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념비적인 예술 그 자체이다. 이 때문에 1995년 12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 총회에서 석굴암(石窟庵)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와 같이 불국사는 한국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임과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서의 지위도 확고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불국사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본사로 영남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국사가 영남 불교계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를 대표할 만한 위상을 갖춘 것은 지난 1997년 입적한 월산[月山 ; 1912~1997]의 수행력과 포교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월산스님은 스승인 금오(金烏)에게 인가를 받으며 한국 불교의 주춧돌을 놓은 수행자이기도 하다. 스님은 1913년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 원풍리에서 경주 최씨 최홍규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4년 금오를 은사로 망월사에서 출가한 이후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만공(滿空), 금오, 전강선사 문하에서 용맹정진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스님은 경허→만공→금오선사로 이어진 임제(臨濟)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그는 1974년에는 "앞 절에서는 돈을 구하고 뒷 선원에서는 도(道)를 구한다"고 선언하며, 그 동안 관광 사찰에 머물러 있던 경주 불국사에 선원(禪院)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것은 경주와 불국사를 관광 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선불교(禪佛敎)의 새로운 도량으로 변모시켰다는 혁신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근대 한국 불교

선종의 우뚝한 산맥인 경허, 만공, 금오로 이어진 선맥(禪脈)의 적손으로서 스님은 '참선만이 살 길' 이라고 주창하며, 평생을 정진에 몰두했다.

이와 같은 스님의 가르침은 제자인 성타, 종상에게 전해져 가난함을 즐기고 도에서 즐거움을 얻는 '안빈낙도(安貧樂道)' 의 덕숭문중(德崇門中)의 가풍을 유지해 오고 있다. 1998년 제24대 불국사 주지 소임을 맡았던 성타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불국사를 단순한 관광 사찰이 아닌 포교와 기도, 수행 풍토가 흐르는 가람으로 만드는데 노력하였다. 한편 불국사는 부설 문화회관과 사회교육원, 장애인복지관등을 운영하여 경주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불국사는 불국다보회, 보현회, 구품연지, 불국동영산회, 카루나의 모임, 시청불자회, 불국산악회 등 약 20여 개의 신행 단체가 결성되어 경주지역 불교 포교와 나눔의 실천행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불국사는 매년 신라 불교 문화 영산대제(靈山大祭)를 거행하고 있는데, 영산대제는 매년 가을 경주시 주최로 열리는 신라문화제를 대표하는 문화법석(文化法席)이다. 불국사는 영산대제를 통해 신라 불교 발전에 토대를 마련한 법흥왕을 비롯해 불국사 초대 주지를 역임했던 표훈대성사(表訓大聖師),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金大成) 재상, 불국사 복원에 앞장 선 박정희 전 대통령, 선원(禪院)과 강원(講院) 개설을 주도하며 불국사를 중흥한 월산대종사(月山大宗師) 등 5명의 위인과 성사를 추모한다. 영산대제는 이밖에 기념 법회와 예술제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화합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1995년 12월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해인사장경판전(海印寺藏經板殿)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995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도이취란트 베를린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19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불교문화재가 주축이 된 이들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켰다. 이로써 불국사는 훼손 방지와 영구 보존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에 의한 기술 수혜와 세계문화유산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국사가 신도회와 사회복지단체 운영을 통해 경주 불교계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골굴사는 선무도(禪武道)를 중심으로 수행과 포교의 일선에서 활약 중이다. 선무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선무불이(禪武不二)' 다. 예컨대 선과 무예는 결코 둘이 아님을 표방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의 「금강영관(金剛靈觀)」에 따라 심신을 조화시켜 깨달음을 향하는 수행법인 것이다. 골굴사(骨窟寺) 주지 적운은 '선무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닌 깨달음을 위한 방편' 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일반인들은 선무도를 스님들이 하는 불교무술이라고 알고 있지만, 선무도

는 마음을 닦는 수행' 임을 강조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심신수련을 위해 골굴사를 찾고 있는데, 2001년 한 해만도 약 18,000명이 다녀갔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 시행되는 '화랑수련회' 동안에는 100~200여 명의 수련생들이 한철 동안 상주하고 있다. 수련생은 나이어린 어린이로부터 중고생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골굴사 주지 적운스님은 범어사 양익스님이 집대성한 선무도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2001년 2월에는 선무도대학을 건립하였다. 선무도대학은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378평에 1층 수련관, 2층 강의실, 3층 교수 연구실과 명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주 지역의 불교와 관련된 문화 단체와 행사는 그 수적 증가와 함께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높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경주 지역은 불국사를 중심으로 한 신행(信行)과 대중 포교뿐만 아니라 신라문화원(新羅文化院)과 같은 재가 문화 단체들의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경주의 불교 유적과 유물들은 최근에 와서 분실 및 도난, 그리고 훼손으로 그 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에는 기림사(祇林寺) 유물전시관에 소장 중이던 보물 제959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과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이 도난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런데 이들 불서들은 1987년에도 절도미수 사건이 있어 관리와 보안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 것이다. 또한 2001년 6월에는 백률사 대웅전의 관음보살후불탱화[가로 277cm, 세로 245cm]와 지장보살후불탱화[가로 245cm, 세로 181cm]가 도난당했는데, 이들 불화들은 광무 4년(1900)에 조성된 것들이다.

경주의 불교 문화재들은 도난뿐만 아니라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심각한 훼손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불탑과 석탑, 절터 등 400여 곳이 넘는 불교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남산의 경우 불법 묘지와 기업의 극기 훈련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등산로를 새로 만드는 일 또한 산림을 훼손하고 지형이 깎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등산로별 휴식년제 도입과 입산료 징수로 남산 보호 기금 마련의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95년 불국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국보 제24호]의 본존불 대좌에 7군데나 균열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보수하였다.

한편 문화재 훼손은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따라 그 피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예컨대 삼랑사지, 흥륜사지, 신라시대 도로 등 신라 천년의 문화 유적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98년 동국대와 경주대 조사단이 정리한 〈경주의 문화재 피해 실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예컨대 조사단은 1984년부터 1996년까지 경주에서 벌어진 각종 대형 공사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조사하였다. 피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65건의 도로 건설, 아파트, 택

지개발 등 대형 공사 가운데 12건만 학술 조사 성격의 문화재 발굴을 벌였고 나머지 53건은 대부분 사전 지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건설 공사 중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공고 강당은 신라 초기 사찰인 흥륜사 터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조사단은 공사 중에 각종 유적이 파헤쳐진 곳은 문화재가 80~90%는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1996년 이후에는 문화재 출토 신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왕경 유적의 연구는 당시 도로망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주를 문화특별시로 승격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도 하였다.

1993년 8월에는 경주문화재연구소가 경주 월성해자와 재매정지 등 3개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불상 2점 등 382점의 유물을 수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아울러 1996년 11월에는 황룡사지 동남 지역에서 신라시대 유골과 금동 불상 등 유물 124점이 출토되었다. 당시 발굴 결과 신라시대 도로, 배수로, 담장 건물지, 우물 등 유구와 금동 불상을 비롯하여 유물들이 대규모로 출토된 것이다. 출토된 유구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왕경이 계획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왕경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특히 도로와 배수로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등의 문헌기록에 보이는 방리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 5월에는 경주시 덕동 동대봉산 기슭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전탑 터와 범자 문양이 새겨진 벽돌(塼)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동년 11월에는 국보 제39호인 경주 나원리 5층 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 장치에서 나온 지류편이 현존 최고의 사경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한편 훼손된 불교 문화재 역시 복원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이 경주시 배반동 낭산 중턱의 개인 소유 밭둑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석조 관음보살입상의 몸체를 발굴하여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 작업을 마쳤다. 이밖에 2001년에는 남산 보존의 일환으로 석탑 4기가 복원되었다. 예컨대 비파골 1기, 늠비봉 1기, 국사골 1기, 용장골 1기 등 모두 4기였다. 이러한 복원 사업은 경주시가 남산문화재 종합 도록 발간과 남산 일원 학술 조사,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일련의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97기의 석탑 중 탑의 형태를 갖춘 탑은 이때 복원된 7기를 포함해 모두 20여 기로 늘었다.

2002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의 불교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도록이 발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01년에는 경주 남산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과 선사(先史) 유적, 왕릉, 산성 등 남산의 유적을 총망라해 『경주남산』 도판편을 만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02년 4월에 해설편을 발간하였다. 특히 해설판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 시절에 간행된 『경주남산의 불적(慶州南山の佛蹟)』의 전문을 번역해 부록으로 게재, 당시 상황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 경주의 불교 문화는 신행과 포교의 측면에서는 경주, 포항, 영덕, 울릉 지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찬란한 불교 문화의 명맥은 단순히 한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리고 동양의 정신 문화를 소개하는 사례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행과 포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또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교는 전통 문화의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변화하는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아울러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와 같은 세계적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아쉽게도 세계적이지 못하다. 관리와 보존 대책은 단순한 방치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보존 방안 마련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천주교(天主教)

1. 한국 천주교의 역사

16세기 중엽 가톨릭은 중국과 일본에 전파되어 큰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1593년 12월 일본에 진출해 있던 예수회는 임진왜란 때 동원되었던 왜군을 교화하기 위해 스페인의 신부 G. 세스페데스를 조선에 파견하였는데, 그는 물론 조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했을 것이지만 적대 관계에 있던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였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예수회의 선교사들도 베이징[북경]에 내왕하는 조선 사신들과 볼모로 잡혀 왔던 소현세자를 통하여 간접적인 조선 전도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저술한 한역 서학서만은 계속 조선에 도입되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등이 조선 사신들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이수광은 1614년 『지봉유설』을 지어 가톨릭 및 서양 여러 나라의 사정을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뒤 실학은 주로 남인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이익과 그의 제자 안정복은 가톨릭을 깊이 연구하였다. 이 두 학자 사이에서는 가톨릭을 천학 또는 서학이라고 불러 다만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이었으나 안정복의 문인이던 권철신,

정약전, 이벽 등에 이르러 교리를 연구하는 종교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들은 경기도 광주 주어사, 천진암 등지에서 강학회를 열고 서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여, 기도와 재계 등으로 가톨릭 계명의 일부를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약전의 매부 이승훈은 그의 부친을 따라 베이징에 건너가 정조 8년(1784) 봄 북천주당의 신부 J.J. 그라몽[양동재]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돌아와 한국 최초의 세례 신자가 되었다. 그는 귀국 후 곧 이벽과 더불어 교리를 연구하고, 친지와 친척들에게 전도하여 그해 9월부터는 입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세성사를 베풀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인 역관 김범우의 집에 모여 주일 행사를 지냄으로써 평신도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창설되었다. 이때부터 이승훈 등은 오직 하느님만을 믿음으로써 재래의 온갖 미신 행위를 물리치고, 서로 교우라고 부름으로써 당시의 엄격한 봉건적 계급제도를 타파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성직자가 밖으로부터 들어와 전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를 창설한 것은 세계 교회사상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톨릭은 수용 직후부터 조정의 탄압 대상이 되어 교회 창설 이듬해인 1785년부터 한국-프랑스 수호통상조약이 비준된 1887년까지 10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 1785년에는 84년에 창설한 조선교회가 발각되어 김범우가 유배당하였고, 91년에는 모친상을 당하고도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살랐다는 고발로 이른바 진산사건이 일어나 윤지충, 권상연이 처형당하였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은 계속되는 박해에도 굽히지 않고 베이징교회뿐만 아니라 로마교황에게까지 거듭 편지를 보내어 성직자의 파견을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교회 창설 11주년이 되던 1795년에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처음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그의 밀입국을 신고한 자가 있어 피신해야만 하였고, 관헌의 수색 때문에 사목 활동은 극히 제한되었다.

1801년 순조(純祖) 즉위 뒤부터는 조직적이고 전반적인 박해가 시작되어, 득세한 노론 벽파가 종교를 빙자하여 남인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유박해이다. 이로 인해 주문모와 교회의 지도급 인물들이 거의 순교하고 성서(聖書)도 대부분 압수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비참한 상황에서도 신도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10년만에 재기하였고, 다시 성직자 영입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로마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가 1831년 9월 베이징교구에서 독립된 조선교구를 설정하는 동시에 초대 교구장에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B. 브뤼기에르를 임명하였으나, 그는 조선 입국을 눈앞에 두고 중국에서 병사하였다. 그 뒤 36년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였

는데, 이들은 토착인 성직자 양성을 위해 최양업, 최 프란체스코, 김대건 등을 마카오로 유학하게 하였다. 37년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주교 L.M.J. 앵베르가 입국함으로써 조선교구는 독립교구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가톨릭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1839년 당시의 세도가인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의 세력다툼으로 인해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기해박해이다. 이로 인해 당시 입국해 있던 3명의 선교사와 유진길, 정하상 등이 순교하였다. 특히 정하상은 체포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우의정 이지연에게 제출할 『상재상서』를 작성하여 가톨릭에 대한 박해의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45년 마카오로 유학했던 김대건이 한국 최초의 신부가 되어 귀국하여 교우의 수가 갑자기 늘기 시작하였으나 1846년 그의 체포를 발단으로 병오박해가 일어나 김대건과 교우 9명이 순교하였다.

철종(哲宗) 때에 이르러 가톨릭은 조정의 탄압이 완화되어 교세를 크게 떨쳤으며, 베르뇌 신부를 비롯한 10여 명의 신부가 입국하였고, 최양업도 신부가 되어 귀국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즉위하여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1866년(고종 3) 병인박해가 시작되었고 불과 3개월 사이에 당시 조선에서 전교 중이던 선교사 12명 중 9명과 교회의 지도급 신도들이 처형되었다. 살아남은 3명의 선교사 중 리델신부는 탈출에 성공, 텐진에 있는 프랑스 해군사령관 로즈제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병인양요를 초래하였다.

병인양요와 1868년 E.J.오페르트에 의한 남연군묘 도굴 사건 등을 계기로 가톨릭에 대한 탄압은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때의 박해는 그 규모나 기간 등에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박해로 이 기간 동안 8,000~2만여 명의 신도가 처형당하였다. 1886년 한국-프랑스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가톨릭은 불완전하나마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어 종현성당[현재의 명동성당], 약현성당 등의 건축, 용산신학교의 개설 등이 이루어졌다. 개화기에는 〈경향잡지〉, 〈경향신문〉의 창간을 비롯하여 언론과 교육을 통해 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의 강요, 미국인 선교사 추방, 외국인 선교사 구금 등의 종교 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발전을 계속하여 여러 교구가 창설되었고 서울교구장직이 노기남 신부에게 넘겨짐으로써 처음으로 한국인 교구장이 탄생하였다. 광복 후 미군정 하에서 가톨릭은 프로테스탄트와 함께 우대를 받으며 교세를 더욱 확장하였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성당, 학교 등의 파괴, 성직자, 수도자 납치 등의 시련 속에서도 발전을 계속하였다.

1962년 한국천주교회에 교계 제도가 설정되어 자립 교회로 승격함으로써 많은

교구가 증설되었다. 또한 같은해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개최되어 한국 교회의 발전과 쇄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68년에는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 중 24위를 복자위에 올리는 시복식이 로마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거행되었고, 69년 서울대교구의 김수환 교구장이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을 맞이하였고, 84년에는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내한하여 순교자 103인에 대한 시성식을 집전하였다. 89년에는 10월 4~8일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주제로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한국 천주교회에는 420만여 명의 신자가 있으며, 교구수는 서울, 대구, 광주 3개의 대교구를 포함하여 14개 교구이다. 본당은 765개, 공소는 1,578개이고, 성직자는 추기경 2명, 대주교 3명[한국인], 주교 14명[외국인 3명 포함], 한국인 신부 1,298명, 외국인 신부 219명, 수도자는 수사가 한국인 288명, 외국인 32명이고, 수녀는 한국인 4,869명, 외국인 198명이다. 또한 천주교유지재단에서 경영하는 교육 기관으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35개교, 대학교 9개교가 있으며, 그 밖에 농아학교, 정신장애자학교 등 특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료 사업으로 성모병원 등 30개소의 병원을 경영하며, 사회 사업으로 양로원, 나환자정착마을, 결핵요양원, 부랑인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경주지역 천주교의 역사와 현황

영남지방에 본격적인 천주교의 전파는 경기도나 충청도보다는 약 20년 늦은 순조 1년(1801)의 신유교란 이후이다. 신유교란은 당시 신자가 많았던 기호 지방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피하려는 이들이 강원도와 경상도의 북쪽 태백산과 소백산으로 옮겨 화전을 일구거나 옹기를 구워 팔면서 조금씩 전교를 하여 비로소 경상도의 일부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태백산맥 밑의 청송군 현서면 속칭 '모래실'과 진보면 '머루산'도 이러한 곳이다.

그 뒤 순조 15년(1815)에는 이러한 영남지방에서 을해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산골에 신자의 부락이 생긴 것이 안동 관아에 알려지자 관아에서는 부활절을 기하여 포졸을 파견하여 급시에 신자 부락을 습격하여 약 300여 명의 신자가 참살되었고, 또 대구 감영으로 호송되어 순교한 사람도 29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때 박해를 받은 교우촌은 청송의 노래산, 영양의 일월산, 안동 우련밭의 산골, 청양의 수단이, 진보 등이었다. 이들은 해당 관아인 안동과 경주부에 나뉘어 문초를 받았는데 고문과 매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경주부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14명 중

김사일, 김서방, 박관서, 박바오로 등 7명은 그대로 옥사하고 7명만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경주부는 이렇게 이 지역 신자들의 박해에 앞서 타 지역의 신자를 받아들여 천주교 박해가 시작된 곳이다.

순조 27년(1826) 정해박해는 전라도 곡성에서 시작하여 경상도와 충청도에 파급, 상주, 성주 등에서 잡힌 신자가 대구 감영으로 압송되어 10여 년의 옥고 끝에 헌종 5년(1839) 기해박해 때 순교하였다.

1815년의 을해, 1827년의 정해박해에 이어 1839년의 기해, 헌종 12년(1846)의 병오교란이 발생하여 경기, 호남 지방 신자들은 조령을 넘어 문경, 예천, 상주 등지로 피난하게 되고 경상도 북부의 청송, 영양, 안동 지방의 신자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경주, 언양, 기장, 동래 등으로 옮겨 살게 됨으로써 새 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되었다. 한편 전라도의 신자는 진안, 장수, 무주 등의 산간 벽지로 피하였다가 일부는 경남의 함양, 진주, 고성 등지로 이주하게 되고 대구, 칠곡, 성주 지방의 신자는 낙동강 유역을 따라 밀양, 김해, 양산 등지로 피난하였다.

경주부 지방에 천주교가 처음 전래된 곳은 산간 오지인 산내면의 단석산 일대와 우중골이다. 산내면에는 고종 3년(1866)의 병인박해의 세 분 순교자가 살았던 참나무정[진목정]을 비롯하여 와황, 범곡, 빌기 등 초기의 공소가 있었는데, 이곳 교우들은 모두 박해를 피하여 이곳으로 온 초기의 신자들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전교를 받은 분들의 후손이다. 또한 이곳은 산길로 언양 등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초기 선교자들의 사목 방문지인 기록이 있다. 우중골은 경주에서 들어가는 골짜기로 이곳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온 옹기촌이었다. 산내면은 이곳 경주부 지방에 천주교 전래가 처음 이루어진 곳으로, 진목정, 우중골, 소태안, 단석골 등은 안동, 청송, 상주와 남쪽으로 언양, 동래, 김해 등지에서 교난을 피하여 들어온 교우촌이다. 여기서 허인백 야고보, 김종륜 루가, 이양 베드로의 세 분 순교자가 배출되었다.

허 야고보는 김해 사람으로 1866년 병인박해 때에 관헌에 체포되었으나, 그의 부인이 포졸에게 돈을 주어 석방되었다. 그는 전답과 가옥 등 전 재산을 버리고 가족만 데리고 야음을 타고 언양 산골 '가날'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였는데, 이곳에서 김 루가와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은 언양 산중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신앙 생활을 하기로 결의하고 좀 더 안전한 곳을 찾던 중 드디어 경주시 산내면 소태안 단석골에서 동굴을 발견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남자들은 나무그릇을 만들고 여자들은 이것을 가까운 곳에 팔고, 아이들은 아랫마을에서 일을 하고 밥을 얻어 오면서까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병인박해가 더욱 거세어 천주교 신자를

찾기에 혈안이 된 포졸들의 급습을 받아 체포되었다. 이들은 경주에서 2개월 동안이나 고문 속에 배교를 강요당하였으나 거부하였기에 다시 울산 병마절도사로 압송되었고, 고종 5년(1868) 7월 28일 울산 장대벌 뙤약볕 아래서 마지막 술잔을 들고 순교하였다.

경주부 지방은 이와 같이 처음은 다른 지방에서 박해를 피하여 들어온 신자에 의하여 전도가 시작된다. 이들은 산내의 산골짜기를 중심으로 교우촌을 이루어 살았는데, 이는 경주 본당이 공소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진목 공소, 와황 공소, 빌기 공소, 석계 공소가 모두 그러하다. 이 경주 지방에서 맨 처음 순교자 세 분을 낸 유서 깊은 진목정에서는 1896년 신자들의 힘으로 공소가 세워졌다. 이렇듯 진목 공소는 경주 본당의 시초이며 순교자의 유해가 묻힌 성지일 뿐 아니라 일제에 항거한 민족 의기가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1896년에 신자들의 힘으로 공소를 지었으나 화재로 전소되자 다시 1915년 경에 새로 건축하였다. 당시 교구장 안주교가 직접 말을 타고 와서 축성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이 1930년 경 다시 화재로 전소되자 1957년~1959년에 걸쳐 재건하였다. 또 1972년에는 순교자 묘지를 정리하여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와황 공소는 1896년 대구에 살던 황 루가가 이곳으로 이사하여 세운 것이고, 범곡 공소는 1910년 경 청도 구룡 공소에서 박기문 방지거 가족이 처음 들어와 자리를 잡아서 시작된 것이며, 빌기 공소는 초대 회장인 김 비오가 풍기 단양으로 피난을 하였다 돌아와서 입교한 후 전교를 하여 오늘의 공소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산내에는 중말, 샛길, 신원 등에 공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경주 지방은 산내 산골짜기의 먼 곳에서 천주교의 신앙과 전교가 처음 이루어져서 이것이 경주를 비롯하여 각 고을로 전파되어 갔다. 이리하여 맨 처음 경주 공소가 1926년 5월 30일 본당 승격을 하게 되었다.


경주천주교회

천주교 경주 성당은 1912년 가을, 대구에 사는 서병문이 지금의 성동성당 자리에 초가 2동 와가 1동의 부속 건물을 포함한 400여 평의 토지를 희사한 것을 기반으로 1913년 가을 부산진 본당 권 신부에 의해 경주공소가 설립이 되었고, 그 후 전교 활동의 지지부진으로 폐교의 위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공소를 유지시킨 박영숙 시몬 회장의 노력으로 명맥을 유지하다 1926년 5월 30일 자로 경주천주교회는 공소 설립 13년 만에 경주본당 승격과 함께 이성인 야고보 신부가 부임하였다.

경주성당은 전교 활동 이외에도 지역의 교육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3대 정행만 프란치스코 신부 때인 1947년 4월 10일 2학급의 귀도유치원을 인가받았고, 제5대 신원식 루가 신부 시절엔 당시 경주유치원의 운영권을 1950년 3월에 인수받아 2개의 양 유치원에 수녀 보모 한 사람씩 조보모 한 사람씩을 배치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화유치원의 전신이다. 육영 사업에 관심이 컸던 신 신부는 유치원 운영에 만족하지 않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의 소녀들을 위해 학교 설립의 의지를 굳히고 1949년 2월 28일 근화여자중학원을 설립하여 같은해 4월2일 1학급 50명을 모집하였고, 1950년 5월 3일에 3년제 근화여자중학교로 승격, 4학급인가를 얻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근화여자중 · 고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1952년에 의곡공소가 설립되었으며, 입실공소는 본당 강 까달스 신부 때 전동수가 입실로 이사하면서 생겨났고, 1962년엔 음성 나환자촌인 희망촌에 희망촌 공소를 설립하였으며, 1968년엔 도리 공소가 설립되었다. 1967년에 안강성당이 분리되고, 1983년 8월 28일 경주본당이 성동성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9월1일 성건성당에 이용호 가브리엘 신부가 부임하면서 별도로 분리되었다. 그 이후 황성성당[1993년 10월 19일], 양남 성당[1997년 9월 5일]과 모화 성당[2002년 1월 30일]이 본당 성당으로 분리되었다.

경주시 관내 본당 성당및 산하 공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1-4〉

본당 성당명	주 소	전 화	산하공소
성동성당	성동동 386-11번지	776-1842	
성건성당	성건동 643번지	749-8900	
황성성당	황성동 549-1번지	771-7817	물천, 신당
안강성당	안강읍 양월리 1214번지	763-7012	
양남성당	양남면 읍천2리 50번지	774-8683	감포
모화성당	외동읍 모화리 479번지	774-2004	모화, 입실

제4절 개신교

1. 한국의 기독교(基督敎) 역사

서로마 카톨릭교회는 보통 천주교로 알려져 있고,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신교 또는 기독교로 부르고 있는데, 카톨릭교는 18세기에, 프로테스탄트교는 19세기에

한국에 처음으로 전래되었다. 카톨릭교는 중국에 진출한 선교사 M. 리치의 『천주실의』와 같은 한역 서학서들이 조선에 도입되면서, 서학이라 하여 남인 학자들 사이에서 학문적 관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조(正祖) 8년(1784)에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J.J. 그라몽에게서 영세받고 돌아와 이벽, 정약전 등과 함께 교리를 연구하고 신앙 집회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창설되었다.

한편, 프로테스탄트교는 카톨릭교에 비해 100여 년 뒤에 수용되었다. 1884년 9월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의료 선교사 H.N. 알렌이 입국하였는데, 알렌은 서양 의술로 왕실의 신임을 얻게 되어 1885년 4월 광혜원을 개원하였고, 이를 계기로 선교의 문호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에 북장로교의 선교사인 H.G. 언더우드와 북감리교의 H.G. 아펜젤러가 인천에 왔으며, 5월에는 북감리교의 W.B. 스크랜턴 모자가 도착하였다.

1892년에는 미국 남장로교의 W.D. 레이놀즈, L.B. 데이트, W.M. 젠킨 등의 선교사가 입국하여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하기 시작하였고, 남감리교에서는 1895년에 C.F. 리드를 파송하여 개성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도 성공회는 1891년에, 캐나다장로교는 1893년에, 침례교는 1889년에, 제칠일안식교는 1904년에, 성결교는 1907년에, 그리고 구세군은 1908년에 각각 특징 있는 선교를 전개하였다. 즉 감리교는 선교역량을 교육과 부녀 사업에 치중하였고, 장로교는 네비우스 방법이라는 토착과 자립 원칙의 선교 정책을 적용하였으며, 구세군은 처음부터 사회 봉사와 자선 사업에 치중하였다. 초기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조선 사회 전통과 척사위정이라는 명목 아래 박해를 받으면서 민족교회로 그 자리를 굳혀 갔다.

일제하에서 카톨릭교와 프로테스탄트교는 신사 참배의 강요와 선교사들의 추방, 조선교회의 약세화 등 일제의 탄압 속에서 역사 참여와 민족 구원의 열망을 대변하였다. 프로테스탄트교회도 일제의 탄압 아래서 전국적인 조직과 해외 선교, 그리고 농촌 · 사회 운동을 통해 민족 교육의 장으로 되어갔다.

장로교회는 1912년 총회를 조직하여 처음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었으며, 감리교회는 토착화 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이와 같은 저력으로 3 · 1운동에 임하여 독립의 기치를 내걸고 앞장섰다. 길선주, 유여대, 오화영 등 16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으며, 국내의 각지로 선언서의 배포 및 연락을 취하여 일제히 3 · 1운동에 참여하였다. 프로테스탄트교 주도하의 독립 시위 운동은 전국적으로 총 117회에 달하였다.

1925년부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와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YWCA], 예수교연합공의회를 중심으로 농촌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1929년에는 전국 27개 도시에 대규모 농촌 강습소를 개설하여 농촌 개량, 농사기술, 협동조합, 법률 문제, 의식화 교육 등을 이끌어 나갔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절대 통제를 위해 신사 참배 강요에 나서 교회의 굴복을 강요했다. 교회는 신사 참배 거부의 자세를 굳혔는데, 이 문제로 신학교가 폐쇄되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2,000여 신도가 투옥되고 50여 교역자들이 순교하였다. 전쟁 말기가 되자 일본의 탄압은 더욱 가혹해져 교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선교사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1938년 YMCA와 YWCA를 해산하여 일본 YMCA에 종속시켰고,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또한 해산되어 조선기독교연합회로 변질되었으며, 1940년에는 침례교를, 1943년에는 안식교와 성결교회를 폐쇄했다. 교회의 실질적 말살을 꾀하였던 일본은 남은 교회들마저 해체 · 병합하여 조선교단을 만들어 일본교단에 종속시켰다.

8 · 15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의 개신 기독교[프로테스탄트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독교에서는 1982년의 선교 100주년을 계기로 하여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었던 각 교파 간의 통합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신학교의 학제를 개편하거나 통일적인 신앙고백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개혁파의 기독교장로회로 이어지고 보수파의 예수교장로회도 한국 사회에서의 대중화나 신앙 토착화가 중요한 신앙상의 과제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주지역의 기독교회 현황

현재 경주시 관내에는 감리, 고신, 구세군, 기장, 성결, 순복음, 침례, 통합, 그리고 합동 등 여러 개신 기독교 교단의 교회가 목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각 교단별 산하 교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1-5〉 감리교단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	경주감리	경주시 서부동 123번지
2	경주동부	경주시 용강동 1299-3
3	내남교회	경주시 내남면 용장1리 571-1
4	안강정동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405-5
5	천군감리	경주시 천군동 656

〈표 8-1-6〉 고신교단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	감 포 남	경주시 감포읍 감포1리 504-14
2	건천중앙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46
3	경일교회	경주시 황성동 238-2
4	경주교회	경주시 동부동 2-14
5	경주동부	경주시 황오동 389-10
6	경주부흥	경주시 성건동 713-5
7	경주서문	경주시 성건동 보우A210-501
8	전원교회	경주시 내남면 덕천1리 934
9	동광교회	경주시 서면 도계리 231
10	모화제일	경주시 외동읍 모화2리 236-2
11	밀알교회	경주시 동천동
12	석계교회	경주시 외동읍 석계2리 1596-2
13	안강예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6리 1939-8
14	암곡소망	경주시 암곡동 354
15	영광교회	경주시 용강동 1310-9
16	예인교회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374-3
17	옥산교회	경주시 안강읍 옥산4리 1197
18	월산교회	경주시 내남면 월산2리 1221-1
19	율동교회	경주시 율동 1652
20	읍천교회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204-3
21	평안교회	경주시 동천동 812

〈표 8-1-7〉 구세군 교단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	경주영문	경주시 황오동 293
2	동산영문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525-1
3	방내영문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855

〈표 8-1-8〉 기장 교단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	나아교회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15-8
2	만나교회	경주시 황오동 331
3	서라벌교회	경주시 성건동 1-21
4	양남교회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64
5	은광교회	경주시 동천동 766-2

〈표 8-1-9〉 성결 교단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	경주성결	경주시 황성동 469-1
2	경주성문	경주시 용강동 1353
3	경주중부	경주시 노동동 11-1
4	구어교회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596
5	성은교회	경주시 성건동 694-9
6	안강남부	경주시 안강읍 양월 6리 1264-10
7	팔복교회	경주시 충효동

〈표 8-1-10〉 순복음 교단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	경주주은혜	경주시 황오동 118-12
2	감포순복음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72-1

〈표 8-1-11〉 침례 교단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	경주침례	경주시 동천동 756-6
2	구정중앙	경주시 구정동 463-7
3	목원교회	경주시 황성동 531-2
4	사랑의교회	경주시 용강동 352
5	성림교회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383-4
6	행복한교회	경주시 안강읍 양월3리 1126-1
7	외동침례	경주시 외동 입실2리
8	경주제일침례	경주시 용강동 1313-4

〈표 8-1-12〉 통합 교단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	갈보리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68-10
2	감포제일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401
3	강남교회	경주시 강동면 국당4리 1483-1
4	강동교회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359-1
5	강동제일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041-5
6	강동중앙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033-8
7	건천제일	경주시 건천읍 건천1리 304
8	경동제일	경주시 성건동 350-8
9	경서교회	경주시 석장동 732-1
10	경안교회	경주시 안강읍 산대5리 1901-1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1	경주광명	외동읍 모화4리 162-4 동운상가 2층
12	경주광성	경주시 용강동 1284-6
13	경주구정	경주시 구정동 450
14	경주남부	경주시 황남동 179
15	경주대성	경주시 동천동 796-6
16	경주동방	경주시 동방동 386-2
17	경주동산	경주시 황오동 153-2
18	경주동일	동천동 702-12 우주로얄 301-1105
19	경주동천	경주시 동천동 933-6
20	경주명성	경주시 충효동 3003-11
21	경주반석	경주시 금장리 신한아파트 108-1002
22	경부북부	경주시 성건동 632-7
23	경주사리	경주시 평동 사리 893-60
24	경주새천년	경주시 황성동 555-1
25	경주성산	경주시 성건동 715-21
26	경주성화	경주시 동천동 733-295
27	경주시민	경주시 동천동 887-7
28	경주제삼	경주시 서부동 19-2
29	경주제일	경주시 노동동 176
30	경주중앙	경주시 황오동 226
31	경주충신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885
32	경주화산	경주시 천북면 화산 1리 234-1
33	경주황성	경주시 황성동 126-3
34	국당교회	경주시 강동면 국당3리 763
35	금장교회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64
36	나원교회	경주시 현곡면 나원1리 1173-4
37	내남제일	경주시 내남면 덕천2리 559
38	내남중앙	경주시 내남면 이조3리 1008-84
39	내칠교회	경주시 산내면 내칠리 716
40	단구교회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119
41	대현교회	경주시 산내면 대현2리 637
42	도리교회	경주시 서면 도리 781
43	동부제일	경주시 천북면 신당1리 473-3
44	두류교회	경주시 안강읍 두류1리 303
45	모량교회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86
46	모서교회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556
47	모아교회	경주시 천북면 모아1리 203
48	모화교회	경주시 외동읍 모화3리 250-1
49	모화중앙	경주시 외동읍 모화3리 294-3
50	무과교회	경주시 현곡면 무과리 443
51	물천교회	경주시 천북면 물천1리 382
52	벧엘교회	경주시 동천동 779-13

	교 회 명	교 회 주 소
53	봉길교회	경주시 양북면 봉길1리
54	사방교회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708
55	새경주	경주시 황성동 535-11
56	새마을	경주시 내남면 망성2리 209-2
57	새생명	경주 안강 산대5 우성한빛A 101-108
58	성락교회	경주시 천북면 신당3리 산21
59	송전교회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64
60	신계교회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449
61	신원교회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276
62	아름다운	경주시 황성동 654-7
63	아화교회	경주시 서면 아화리 402
64	안강광명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189
65	안강북부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328-40
66	안강영광	경주시 안강읍 안강5리 383-16
67	안강영락	경주시 안강읍 산대3리 2417-1
68	안강온누리	경주시 안간읍 산대4리 2085-8
69	안강제일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80
70	안강중앙	경주시 안강읍 산대4리 5반 1630
71	양동교회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44
72	어일교회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763
73	연안교회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777
74	오야교회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489-1
75	외동제일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014-1
76	우라교회	경주시 산내면 우라2리 566
77	육통교회	경주시 안강읍 육통1리 1016
78	의곡교회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143-3
79	장산교회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592
80	조양교회	경주시 조양동 854
81	주사랑	경주시 시래동 1884
82	천북제일	경주시 청북면 동산2리 542
83	천촌교회	경주시 서면 천촌리 909
84	청령교회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308
85	충효교회	경주시 충효동 2934-7
86	팔복교회	경주시 충효동 483-1
87	포석교회	경주시 배동 177
88	하강교회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667
89	한동교회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46-26
90	현곡교회	경주시 현곡면 하구2리 1057-6
91	호명교회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74-3
92	화천교회	경주시 건천읍 화천1리 567-1
93	황성제일	경주시 황성동 267-20

〈표 8-1-13〉 합동 교단

	교 회 명	교 회 주 소
1	경주서부	경주시 황성동 341-5
2	광명교회	경주시 광명동 430
3	금척교회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525
4	사라제일	경주시 서면 사라리 355
5	상계교회	경주시 양남면 상게리 37
6	상구교회	경주시 형곡면 상구리 384
7	서면교회	경주시 서면 운대리 153
8	성광교회	경주시 성건동 48
9	양북교회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858
10	충효중앙	경주시 충효동 270-10
11	화평교회	경주시 성동동 313-3
12	광명교회	경주시 강동면 136-1
13	더배섬	경주시 강동면 왕심리 1170-1

제5절 동학(東學)[천도교]

1. 동학 창도의 시대적 배경

최제우와 그의 도통(道統)을 이어받아 2대 교주가 된 최시형(崔時亨)의 고향은 경주이다. 경주가 동학의 발상지이며 경상도 일대에는 1860~70년대부터 동학 조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동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최제우에 의해서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은 당시 팽배하였던 위기 의식의 산물이었다. 내적으로는 삼정의 문란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계속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었다.

조선은 17세기 이래 농업 생산력의 발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장시(場市)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신분제의 동요, 농민층의 분해가 나타나면서 봉건사회의 붕괴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18세기 이후 소수의 농민들이 상업적 농업을 통해 부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반면, 대다수 농민들은 빈농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많은 빈농들은 부농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게 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양반이 경제적으로 몰락해 소작농민이 되었고, 평민도 돈을 벌어 지주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농민층 내부에서 계급분화가 진전되자 자연히 농촌 내 계급 구성이 재편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계급 대립도 첨예화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도정치라는 정치 체제의 파행 현상은 수취체제의 문란과 연결되면서 봉건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민중의 생활은 극심한 피폐 상태에 놓였다.

당시 조선이 직면한 대외적인 위기는 지금까지 조선이 겪어왔던 침략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었다. 잦은 이양선(異樣船)의 연안 출몰, 천주교와 양화(洋貨)의 만연 등이 외부로부터의 위기 의식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아편전쟁과 애로우호전쟁의 결과는 조선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더구나 1860년 영 · 프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한 사건은 중화 질서의 몰락을 예견시키는 위기감으로 연결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조선에서는 정부 스스로 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피폐한 현실로부터의 구원을 고대하던 민중들은 진인(眞人)의 출현을 기대하게 되었고 『정감록』과 같은 비기도참서가 크게 유행하였다. 당시 민중들은 성리학을 대신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하에서 동학의 발생은 필연적이었다. 전통 사회의 모순 확대와 외세의 위협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성리학의 가치 체계 붕괴와 전통 사상과 신앙이 유행했던 사상적 배경이 동학 발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최제우의 생애와 동학의 창도

동학은 1860년 몰락한 양반의 서자인 수운 최제우[崔濟愚 ; 1824~64]에 의해서 창립된 종교이며 사상이다. 동학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결합하여 한국 근대사에서 구체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근대적 체제의 수립을 지향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먼저 교조 최제우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생애는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경주 가정리에서의 수학기, 제2기는 방랑과 울산 유곡동에서의 수도기, 제3기는 용담정에서의 동학의 창도와 포덕기이다.

최제우는 1824년(순조 24년)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수운(水雲)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본명은 복술(福述)이었으며, 관명은 제선(濟宣)이었다. 35세 때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제우(濟愚)로 고쳤다.

최제우의 집안을 양반 신분으로 끌어올린 인물은 7대조인 최진립(崔震立, 1568~1636))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에 가담하여 큰 공을 세웠다. 병자호란 때는 공주 영장(營將)으로서 용인에서 청군을 만나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병자호란 후 국왕은 병조판서를 추서하고 정무공(貞武公)이라는 시호를 내려 주었다.

최제우의 아버지 최옥[崔鋈 ; 1762~1840]은 제자백가를 두루 공부한 그 지역에 문명(文名)이 높은 선비였다. 최옥은 첫째 부인 정씨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나 곧 병으로 부인과 아들을 모두 잃었다. 다시 서씨를 부인으로 맞이했으나 두 딸을 낳고 아들을 얻지 못하여 조카를 양자로 삼았다. 그 후 63세 때 이웃에서 곡산 한씨(韓氏)를 맞아 낳은 아들이 최제우이다. 최제우가 태어나자 구미산(龜尾山)이 3일 동안 크게 울었다고 한다.

최제우는 서자로 출생했으니, 최대의 사회적 대우가 '중인' 으로밖에는 대우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다. 그는 서자이었을 뿐 아니라 재가녀의 아들이었으므로 과거 응시 자격이 없는 신분이었다.

그런데 최제우는 8세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재주가 뛰어나서 가르치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안광(眼光)이 유난히 빛나 남을 위압하는 듯했다고 한다. 함께 놀던 동네 아이들이 어른 말을 듣고 어린 최제우를 놀리면서 "네 눈은 역적의 눈이다"고 하니 그는 태연히 답하기를 "나는 역적이 되겠으니 너희들은 선량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했다 하니 어릴 때부터 남다름이 있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7세에 부친이 79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그가 3년상을 지내는 동안에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가옥과 부친의 서책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잔반(殘班)과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적 상황은 그의 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동학의 탄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제우는 화재로 인해 가정 2리인 지동(芝洞)에 있다가 부친의 3년상을 마치자 부인을 울산의 친정에 보낸 뒤 집을 떠났다. 이 때가 20세인 1843년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31세(1854년) 때 부인에게 돌아와 정착할 때까지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온갖 일과 온갖 공부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조선이 안고 있었던 내외의 모순을 절감했다. 그는 이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게 된 것은 세상 사람이 '한울님의 뜻[天命]' 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기존의 유교와 불교는 이미 낡고 병들어서 생명력을 상실했기에 백성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서학도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서학을 서양 세력의 침입을 인도하는 첨병이라고 보았다.

최제우는 11년 간의 유랑을 통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 보국안민(保國安民)하고 광제창생(廣濟蒼生)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와 사상을 창조할 필요를 절감하여 동학을 창도한 것이었다. 11여 년 간에 걸쳐 전국을 유랑하다가 1854년 울산 유곡동의 여시바윗골에 돌아와 초가집을 짓고 사색에 들어갔으나 사색만으로 해답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1855년 최제우가 금강산에서 온 어떤 노승으로부터 천서(天書)를 받아 그 이치를 꿰뚫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한울님이라는 신께 기도를 통하여 도를 얻고자 하는 길로 수련과 구도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이 천서를 '을묘천서(乙卯天書)' 라 한다.

1856년(33세) 여름에 천성산(千聖山)의 내원암(內院庵)에 들어가 49일 동안의 구도를 위해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47일째에 숙부가 별세했으므로 그는 기도를 중단하고 하산하여 경주를 다녀오게 되었다.

그는 1년상을 마치자 다시 수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기에 생계를 위해 고향의 논을 판 돈으로 울산에 대장간을 열었다. 그리고 천성산의 자연 동굴인 적멸굴(寂滅窟)에 들어가 다시 49일 치성을 시작하였다. 49일의 치성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를 깨닫지 못한 채 하산하였다.

최제우는 울산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집에서 치성을 하며 사색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구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최제우가 득도했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졌다. 최제우는 숙부가 경주에서 별세한 것을 천성산에서 신통력으로 내다보고 미리 알았다, 죽은 노파를 살려 냈다라는 온갖 소문이 일대에 나돌고 이를 믿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 때 대장간이 잘 안 되어 그에게는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어려운 신세가 되어 있었다.

최제우는 득도를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한 후, 1859년 36세에 경주 용담정(龍潭亭)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살림의 거처를 정하였다.


용담정 수운동상

그는 용담정에서 '불출산외(不出山外)' 를 문 위에 써 붙이고 세상을 구원할 도를 깨치지 못하면 세상에 다시 나아가지 않을 굳은 결심을 한 다음, 이름을 '우매한 창생을 구제한다' 는 뜻의 '제우(濟愚)' 로 고쳤다. 그는 용담정에서 정성껏 기도를 드렸으며, 매일 득도를 위한 명상을 계속하였다. 용담정에서 그는 오랜 사상적 편력을 거친 끝에 1860년 4월 5일(양 5월 25일) 득도하여 동학을 창시하였다. 천도교에서는 이 날을 천도교 원년으로 삼아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로 기리고 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최제우는 생일 잔치에 갔다가 몸이 떨리면서 심신에 이상을 느껴 곧 용담정으로 돌아왔다. 최제우는 집으로 돌아오자 몸이 더욱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정신이 무아지경(無我之境)에 빠진 가운데 공중에서 천지가 진동할 때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제우는 벌떡 일어나 물으니 대답하

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한울님'이라고 부르는데 너를 택하여 한울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으니 의심하지 말라 하고, 동학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최제우는 새로운 도를 깨달은 후 약 1년 가까운 기간에는 이 새로운 도에 대한 체계화 작업을 하고, 21자 주문을 지었으며, 도를 닦는 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등 새로운 종교의 이론과 의례를 정립하는 일을 하였다.

1861년에 「포덕문(布德文)」을 지은 후 그의 도를 '동학'이라 이름하고 포덕(布德)을 시작하였다. 1861년 포교를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동학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었다. 6개월 동안에 약 3천 명의 인사들이 최제우를 찾아와 '동학'을 배웠다. 조용한 구미산은 인적이 끊이질 않게 되었다. 봉건적 모순과 전염병, 흉년 등으로 민중의 생존이 위협받는 조건 속에서 동학은 채 1년이 안되어 경상도 일대에서 널리 세를 뻗쳤다.

동학 포교가 성공하기 시작하자 그에 비례해서 그에 대한 비방과 중상도 증대되었다. 최제우가 서학을 신봉하고 있으며 동학은 사실은 '서학'이라는 모략을 하였다. 동학은 서학과는 다른 종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유림은 동학을 서학, 즉 천주교의 일파로 지목하였다.

1861년 11월 최제우는 남원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다. 남원 교룡산성 안에 있는 작은 암자인 은적암(隱寂庵) 피신 생활 중 동학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였다. 여기서 동학의 정수를 밝히는 『동경대전』의 「논학문(論學文)」과 『용담유사』 중에 「권학가(勸學歌)」, 「도수사(道修詞)」 등을 지었다.

1862년 3월 경주로 돌아와 박대여(朴大汝)란 제자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 해 3월 최시형이 찾아와 입도하고 제자가 되었다. 1862년 9월 사술(邪術)로 백성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경주에서 체포되었으나 수백 명의 제자들이 석방을 청원하여 10여 일만에 방면되었다.

사교 탄압의 열풍이 거세지자 최제우는 11월 9일 용담정을 떠나 흥해 매곡리(梅谷里) 손봉조(孫鳳祚)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교세가 확산되어 신도가 늘게 되자 여기서 1862년 12월 접제(接制)를 실시하였다. 이때 수운에 의해 접이 설치되고 접주가 임명된 곳은 15개 고을로 16명의 접주가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학은 창도된지 불과 3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경상도 일대는 물론 충청도 일부에까지 교세를 넓혀가고 있었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주 이북 지역이 동학의 주 활동지역이었다.

1863년 3월 최제우는 용담정에 돌아온다. 그리고 1863년 7월 해월 최시형[崔

時亨 ; 1827~1898]을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하여 2대 교주로 삼았다. 해월은 경주 황오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동학이 맹위를 떨치자 영남의 유생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유자들이 앞장서서 동학교도들을 관에 고발하여 발본색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정은 민중들이 동학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종교에 의해 조직화되는 것에 큰 위협을 느끼고, 1863년 12월 선전관(宣傳官) 정구룡(鄭龜龍)과 포졸들을 경주에 파견하여 수운 등을 체포해서 압송하도록 명령하였다. 조정에서는 동학이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학(邪學)이라고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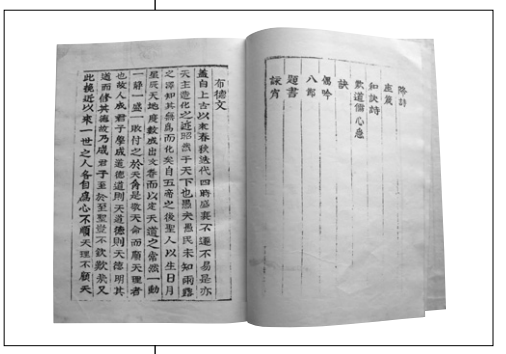
체포 소식을 감지한 동학 도인이 최제우를 찾아와 피신할 것을 건의하자, 최제우는 "도는 곧 나로부터 나온 바인데, 차라리 내가 당해야지 어찌 제군에게 당하게 하겠는가" 하고 듣지 않았다.

최제우는 제자 20여 명과 함께 체포되어 경주 감옥에 갇히었다. 최제우는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 과천에 이르렀을 때, 철종이 승하하여 국상이 반포되었으므로 과천에서 며칠 머물게 되었다. 1864년 1월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었다. 경주 감옥에 갇혀 있던 동학 죄수 22명도 대구로 압송되었다.

최제우는 3월 10일 대구 읍성 남문 밖에 위치한 관덕정(觀德亭) 앞 뜰에서 좌도난정(左道亂正)과 요언혹민(妖言惑民)했다는 죄명으로 41세의 나이로 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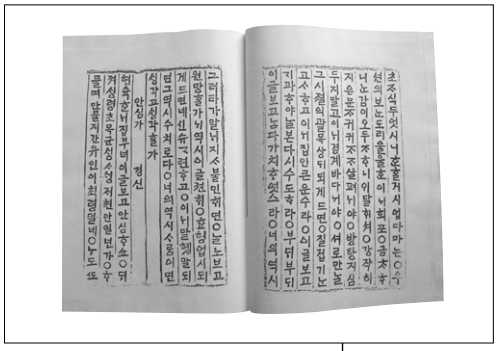
최제우가 처형된지 사흘 후 경상감사는 옥에 갇혀 있던 최제우의 처와 아들을 풀어 준 뒤 그의 시신을 거둘 것을 허용하였다. 최제우는 고향인 가정리가 내려다보이는 구미산 줄기에 묻혔으며, 1907년에 신원(伸寃)되었다.

3. 동학 사상의 기본 구조


▲ 동경대전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龍潭遺詞)』에서 강조되고 있는 동학의 중요한 사상적 특성은 대체로 시천주 사상, 인내천 사상, 후천개벽 사상, 지상천국 사상, 치병(治病) 및 유무상자(有無相資) 사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학 교리는 동양의 경천사상(敬天思想)에 바탕을 두고, 유·불·선 삼교를 비롯하여 비기도참 사상(秘記圖讖思想)과 민간 신앙까지도 수용하고 있다.

동학 사상에 의하면 우주만물은 지기(至氣)로 이루



용담유사

어지며, 천, 지, 인, 귀, 신, 심 모두 지기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기를 매개로 천과 인이 합일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수운의 인간중심적 천인합일 사상은 바로 "사람이 한울님을 몸과 마음 안에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사상을 정립케 하였다. 시천주 사상은 동학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수운의 득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었다.

동학의 종교 사상의 중심은 한울님을 모신다, 즉 '시천주(侍天主)' 하는데 있다. '시천주' 는 천지부모인 한울님으로부터 품부 받은 마음과 기운을 다시 회복하여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하는 한울 사람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시천주의 해설에서 최제우는 '모신다' 는 의미 해설을 "내유신령 외유기화 일세지인 각지불이자야(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동경대전』, 「논학문」)라고 했다. 즉 한울님을 모셨다는 '시(侍)' 의 상태란 안으로는 신령스러운 영(靈)이 있음을 느끼며, 밖으로는 어떠한 신비한 기운과 동화를 이루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나[인간]와 한울님이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제우는 사람이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수련을 통하여 시천주함으로써 '한울님' 과 일체화할 수 있고, 자기 안에 모셔진 '한울님' 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한울님' 과 일체화를 이루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최제우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 라는 수양법을 제시하였다.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함으로써 시천주, 즉 '한울님' 과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수운 최제우는 주문 수련을 통해 종교 체험을 갖게끔 유도하면서 수심정기, 즉 마음을 지켜내고 기를 바르게 하는 윤리적인 지침을 주었다.

최제우가 천명한 본래의 마음을 지킨다는 수심(守心)은 하늘에서 받은 인간 본래의 마음에 자리한 인의예지를 회복하고 또 지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기(正氣)는 곧 기운을 바르게 하여 바른 실행, 바른 실천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제우는 수심정기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는 길로서 21자의 주문수련과 성, 경, 신(誠 · 敬 · 信)의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후자의 수행법은 성실함과 경건함과 진실한 믿음의 수양 방법을 통해서 수심정기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한울님을 모실 수 있게 하는 글이 바로 주문(呪文)이기 때문에 종교적 수행에

있어서는 주문이 중심이다. 주문은 모두 21자로, 8자로 된 강령주문(降靈呪文)과 13자의 본주문(本呪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극한 기운이 지금 여기에 이르러 크게 강림하시기를 빕니다[至氣今至願爲大降]"가 강령주문이고 "한울님을 모시면 조화가 일어나 이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알려지게 됩니다[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가 본주문이다.

강령주문이란 한울님의 기운과 내 기운이 서로 융화일체가 되고자 하는 주문이고, 본주문은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러 한울님의 무궁한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 한울님의 덕에 이르고자 하는 주문이다.

13자 중에서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는 다시 '시천주(侍天主)'와 '조화정(造化定)'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시천주에서 '천주[한울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학의 신관념이 우리 고유의 전통 신앙에서 최고 신앙의 대상이었던 한울이다. 동학의 신앙 대상은 '하늘' 또는 '천주', '한울님'이다. 동학의 천주는 '하늘'에 존대를 뜻하는 '님'을 붙인 한울님을 한문으로 의역한 것이다. 천주라는 개념은 서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믿어 오던 경천(敬天) 신앙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동학의 천주는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아니다. 동양 사상에서 천지만물은 음양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동학의 천주는 초월자이나 부모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과 누구나 나면서부터 천주를 모시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학의 한울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초월적 유일신'이 아니고 만물 가운데 현존하면서 만물을 창생시켜가는 기화신(氣化神)으로서 '지기일원적 범재신(至氣一元的 汎在神)'이었다. 초자연적 초월신이 아니라, 만물과 각자의 몸에 모시고 있는 '내재적 초월신'이었다. 다시 말하면 동학에서의 천주는 인간의 내면[마음]에 존재함과 동시에 인간 밖에 존재하는 초월자 내지 절대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학의 천주[한울님]는 양면성을 지닌 것이었다.

최제우는 시천주 사상에 기초하여 인시천(人是天) 사상을 정립하였다.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손병희가 후에 고친 용어이고 인시천은 최제우와 최시형이 사용했던 용어이다.

인시천이란 시천주에 의해 사람이 가슴 속에 한울님을 저마다 하나씩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느님과 같다고 설교한 것이다. 사람은 한울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설교하였다. 동학 사상에서의 평등은 신분 평등 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에도 해당되었다. 최시형은 부녀는 한울님을 낳은 한울님이므로 남성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어린이는 어린 한울님이므로 동학 신도는 절대로 어린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학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사상이 손병희의 사위인 방정환 등에 의해 어린이 운동으로 이어지고 1922년 어린이날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사람 섬기기를 하느님같이 하라는 해월 최시형의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은 인시천 사상에서 나온다. 최시형은 이 사인여천 사상을 '경(敬)' 개념과 결부시켜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을 말함으로써 그 대상을 사물에까지 확대시켰다.

해월은 제자들에게 물건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동물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동학의 도에 어긋나는가를 '이천상천(以天傷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밝히고 있다. 이천상천, 즉 한울로써 한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물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은 바로 한울을 다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이 한울님이라는 사상은 환경 운동에 수준 높은 이념을 제시하게 된다.

동학에서는 우주와 인간과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기(至氣)는 우주의 본성인 동시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세계의 본성이기도 하다.

3대 교주 손병희는 인시천을 다시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용어로 바꿔 민중들에게 평등 이념을 전파시켜 나갔다. 동학의 인시천 사상은 평민과 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최제우는 인류 역사를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으로 나누고, 이 두 단계는 모두 '개벽'으로 시작된다고 보았다. 선천의 기간은 약 5만 년인데 최제우는 선천 말기가 되면 세상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도덕이 극도로 타락되어 '후천'의 개벽을 요청하게 된다고 하였다. 수운은 자신이 살고 있던 사회를 '천리에 순종하지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고' 각자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소인들의 사회, 시운(時運)으로 말하면 쇠운(衰運)의 사회로 보았다.

최제우에 의하면 자신이 도를 포교한 1860년이 새로운 후천개벽 5만 년의 시작이고, 앞으로는 동학이 5만 년 간 새로운 시대의 이념이 된다고 하였다. 선천과 후천의 교체는 천운과 시운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의 변혁은 전적으로 천운의 순환에 맡기면 되고, 인간은 오로지 수심정기에만 힘써 그러한 순환에 동귀일체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사회 제도의 개혁을 모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위이화(無爲而化)는 조화로 설명되는데, 여기서 조화는 한울님의 작용으로

자연 현상, 인간 현상 모두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조화는 인간 현상에서는 시운(時運)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의 주체적 목적의식적 영위(營爲)와는 무관하다. 동학 사상은 본질적으로 도덕주의에 의한 교화의 원리였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배태하는 혁명의 원리가 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대중적 변용을 통해 예언 사상이 지니는 현실부정적 성격과 반침략적 성격은 혁명의 원리로 발전케 할 요인을 갖추고 있었다.

동학은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현세주의이다. 동학에서는 살아 있는 현실을 매우 중요시한다. 최제우는 서학의 '천당설'에 반대하고 천국은 지상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학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삶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지상 천국은 동학의 종교적 최고 이상이다.

2천만 동포가 모두 동학교도가 되면 동학도가 된 백성들은 군자와 지상 신선이 되고, 우리나라는 군자와 지상 신선이 모여 사는 지상천국이 건설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서학의 천당설에 대결하여 만든 지상 천국 건설의 유토피아 사상이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동학 신도가 되어 굳게 단결하면 서양의 침략은 용이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상 신선은 특정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군자가 되고, 지상 신선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상 신선들에 의해 이룩된 세상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상 신선의 경지를 이루는 세상이 곧 후천 개벽의 세계이고 지상 천국인 것이다.

최제우는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조선 후기 이래 널리 유행하던 콜레라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약방문도 함께 제시하였다. 즉 자신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 병도 자연 치유된다고 주장하였다. 최제우는 부적[宮乙符]을 태워 맑은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자신의 병을 치유하였고,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부적을 그려 주면서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였다. 치병(治病)사상은 동학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한편 최제우는 '유무상자(有無相資)', 즉 경제적 여력이 넉넉한 교도들이 가난한 교도들을 돕도록 가르쳤다. 그리하여 동학 조직은 최제우 당시부터 매우 끈끈한 공동체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여 그가 처형당한 후에도 수십 년 간 지하조직으로 존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치병사상과 유무상자의 사상은 당시 조선 민중들에게서 동학의 대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동학 사상의 특징적 요소의 하나이다.

4. 동학의 확산과 교조 신원 운동

최제우 사후 동학 교단은 위기에 봉착했고 중심 거점이 경상도 북부와 강원도 산간지역으로 옮겨지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경상도 지역의 동학은 1871년 이필제가 주도했던 영해 봉기의 실패로 치명적인 시련을 맞았다. 이필제는 최제우의 신원(伸寃)을 거사 명분으로 내걸고 경상도 일대의 교도들을 영해에 집결시켜 무장 봉기를 꾀했었다. 그러나 이필제가 주도한 거사는 영해, 영덕, 영양 등 경상도 북부 지역 동학 교단 지도자들을 희생시키며 회생 기미를 보이던 교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해월 자신도 또 다시 관헌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최시형은 동학이 불법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교단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동학 경전을 간행하는 등 조직적인 포교 활동을 펼 기반을 만들어갔다.

동학경전인 『동경대전』은 문(文)과 시문(詩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에 해당하는 경편(經編)은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수덕문(修德文)」, 「불연기연(不然其然)」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동학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다.

『용담유사』는 1880년 2대 교주 최시형에 의해 『동경대전』과 함께 간행되었다. 동학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만든 동학가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敎訓歌)」, 「도수사(道修詞)」, 「도덕가(道德歌)」, 「흥비가(興比歌)」 등이 실려 있다.

해월은 강원도의 인제, 정선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884년 상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사이에 관헌의 탄압도 둔화되고, 또 계속된 포교 활동 등으로 교도 수가 증가하였다.

동학은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도 도저히 누를 수 없는 힘으로 민중들 사이에 퍼져나가 동학 세력은 날로 증대되어 갔다. 봉건적 수탈의 격화는 더욱 농민에게 동학이 내포하고 있는 반침략과 반봉건의 평등 사상에 공감을 가지게 하였고 농민들을 날로 동학의 조직에 흡수되도록 하였다. 동학에는 농민들을 강렬히 끌어들이는 매혹적인 사상적 요소가 있었다. 그리하여 1890년대 초에 이르면 교세가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산된다.

교세가 확장되자 교조 신원 운동을 통해 최제우 순교 이후 전개해온 지하 포교 방식을 청산하고 포교의 자유를 획득할 것을 주장했다. 교조의 신원과 동학 교도에 대한 가렴주구의 금지를 요구하는 운동이 공주집회, 삼례집회, 복합상소, 보은집회와 금구취회로 나타났다.

동학 교단의 첫 번째 집회 운동은 1892년 10월 공주에서 열린 교조 신원 운동이다. 신원 운동이란 최제우의 죽음이 억울한 것이었음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자는 것이다. 이는 동학의 공인 운동이다. 20일 경 공주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소지를 올려, '지방관들이 동학교도들에게 가하는 학정을 그치게 하고, 임금께 최제우의 신원을 올려 줄 것' 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병식은 "동학을 금한 것은 조정의 일이므로 감영에 호소할 일이 아니다"는 답을 내려 동학 공인을 임금에게 올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그는 충청도 각 지방에 공문을 내려 지방관의 토색질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였다.

동학 교단은 전라감영에도 소지를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11월 1일에 각지에서 온 동학교도 수천 명이 삼례역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2일에 전라감사 이경직에게 소지문을 제출하였다. 소지문의 취지는 '최제우의 신원과 동학교도에 대한 수탈 중지' 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라감사 역시 11일 각 읍에 공문을 내려 "동학 금지를 핑계로 한 관속배의 재물 수탈을 일체 금하라" 고만 지시하였다.

동학 교단은 동학 공인을 지방 감영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정부에 복합상소할 계획을 세웠다.

복합상소는 1893년 2월 11일부터 시작됐다. 박광호를 소수(疏首)로 한 참여자 40여명은 3일 동안 상소문을 받들고 광화문 앞에 나아가 엎드려 호소하였다. 동학의 공인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교단은 궁궐 앞 복합상소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해산하였다.

한편 복합상소가 진행되는 기간과 그 직후에 서울의 외국 공사관과 교회당에 서양인과 일본인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괘서(掛書)들이 나붙었다.

광화문 복합상소 직후 교단의 중심 세력은 동학도소가 있는 보은과 청산 등지로 내려갔다. 최시형은 곧바로 팔도의 모든 교인들은 보은 장내리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보은의 동학지도부는 3월 10일 보은의 성문 밖에 통고문을 붙였다. 보은 집회는 최제우의 신원 대신에 척왜 · 양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며 시작되었다. 동학 집회 운동이 동학의 공인 요구라는 종교적 성격과 함께 정치적 성격을 띠어 갔다.

보은에 모이는 행렬은 3월 말까지 지속되어 동학 교인 2만여 명 정도가 집결했다. 그러나 보은집회는 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보은 집회와 동시에 전라도 금구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금구 집회는 보은 집회보다 한층 정치적 지향이 강한 것이었다.

공주 집회로부터 금구 집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동학 운동은 민중들을 동학 교단 조직에 의해 동원되고 조직화하는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당시 민중들의

반봉건, 반침략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종교 운동이 아닌 정치 변혁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5. 동학 농민혁명

1) 동학과 동학 농민혁명과의 관계

농민혁명의 시대적 조건으로는 농민층의 양극 분화, 조세 수취 제도의 모순과 문란, 정치 세력의 부패, 열강의 경제적 침탈 등을 꼽을 수 있다. 동학의 조직망은 1894년 농민 항쟁의 조직적 토대가 되었고, 이로써 농민 혁명은 19세기 농민 봉기가 보여온 지역분산적인 한계를 순식간에 극복하였다.

1894년에 일어난 반봉건, 반외세투쟁이 과연 동학이라는 사상과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는 바로 이 사건을 어떻게 명명하는가 하는데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894년 농민 봉기의 성격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명칭의 차이로 나타난다.

동학과 1894년 농민 봉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3가지 연구 유형들을 보면,

① 동학 운동론 ② 농민 전쟁론 ③ 절충론 등이 있다.

동학 운동론 시각은 동학사상과 조직을 농민 봉기의 필수적 전제로 보아 동학사상은 그 자체로 혁명성을 지닌 것이며 곧바로 농민 봉기의 지도 원리가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지칭할 때 동학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상관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동학사상이 이 사건에 사상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파악한다.

동학 농민혁명,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것 속에는 이 사건에 대한 동학사상과 동학 조직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견해가 반영되고 있다. 동학 농민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회 변혁의 움직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기존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전면적인 부정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1894년 농민 봉기에 혁명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혁명으로 단정짓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 전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동학 농민 전쟁이라는 용어는 16세기 도이취란트 농민 전쟁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영향하에서의 봉건 질서에 대한 투쟁을 그 원형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로 농민들이 군대를 편성해서 지속적인 전투를 벌인 사건이라는 보편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농민 전쟁론 시각은 동학과 1894년의 사건을 분리해서 파악해보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은 '동학'이라는 접두어 대신에 '갑오'라는 간지를 쓰거나 '1894년'이라는 연도를 붙임으로써 이 사건을 동학으로부터 분리하여 이해한다. '갑오 농민혁명', '갑오 농민 전쟁', '1894년 농민혁명', '1894년 농민 전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 하나는 1894년의 사건을 동학과 완전히 별개로 구분해보려는 입장으로 동학사상이 지니는 혁명성을 부정하고 대신 19세기 이래 빈번히 일어난 농민 항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의식 성장과 경제 상황이 이러한 대규모의 반봉건 반외세 투쟁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동학과 1894년의 사건을 일직선으로 파악하지는 않으나 이들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을 인정하는 견해로, 동학이 이 사건에서 하고 있는 일정한 역할이란 매개 외피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동학은 이 사건에 조직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특히 사상적인 지원이란 측면에서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절충론 시각은 동학이 곧바로 혁명 사상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동학은 1894년 농민 봉기에 있어서 지방 분산적 조건을 극복하고 사상 및 조직에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다. 종교외피론을 주장해도 동학이 일정 정도 농민 전쟁의 추진력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충론자로 분류가 가능하고 단순히 농민 전쟁의 집단화의 계기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농민 전쟁론자로 분류가 가능하다.

농민 전쟁론과 절충론의 차이는 동학사상이 농민 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인데, 농민 전쟁론은 이를 부정하고 있고 절충론은 동학사상을 매개로 하여 농민 전쟁의 지도 이념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동학은 1894년 농민 봉기에 있어서 지방 분산적 조건을 극복하고 사상 및 조직에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해냈다. 동학사상 자체가 혁명 사상으로 바로 1894년 농민 봉기의 이념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예언 사상이 지니는 현실 부정적인 성격과 반침략적 성격은 동학의 조직과 일부 접주들에 의하여 혁명적인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2) 동학 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동학 농민혁명은 그 과정을 대체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고부민란(古阜民亂) 단계로서 1894년 1월10일(양 2월 10일)에서 3월

13일까지이다. 고부민란은 1월 10일 전봉준 등의 주도로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 아래 고부 농민들이 봉기하여 고부 군청을 점령,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조병갑(趙秉甲)이 수탈한 양곡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萬石洑)를 허물어버린 사건이다

정부는 2월 15일 조병갑을 체포하여 '민란을 부르고 국고를 횡령했다' 는 죄로 유배형에 처하고 전라감사 김문현을 감봉 처분하였다. 이와 동시에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이용태를 사건 조사 및 수습 책임자인 안핵사로 파견하였다. 농민군 내부의 동요와 박원명의 설득, 그리고 읍의 폐단 제거와 탐관오리의 처벌을 이루었다는 판단 속에서, 결국 고부의 농민군은 3월 13일 경 해산하였다. 그런데 고부민란은 단순한 민란에 그치지 않고 제1차 동학 농민혁명으로 발전하였다.

2단계는 제1차 동학 농민혁명 단계로서 3월 20일(양 4월 25일)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기포(起包)하여 5월 8일(양 6월 10일) 전주 화약이 성립될 때까지이다.

3월 13일 경 농민군이 해산하자 고부에서는 관군의 탄압이 자행되었다.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은 꺼져가던 봉기의 불씨를 더욱 크게 되살리는 기름이 되었다. 이용태의 탄압과 학정이 벌어지는 가운데 손화중의 협력을 얻은 전봉준은 무장에서 3월 20일 경에 봉기를 알리는 창의문을 발표하였다. 3월 20일 경 봉기한 전봉준 등 농민군들은 3월 23일 고부를 점령했다. 농민군은 3월 25일 백산에서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김개남, 손화중을 총관령(總管領)으로 정하는 등 지휘 체계를 세웠다. 한편, 격문과 4대 명의, 12개조의 기율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농민군은 3월 27일 경부터 우선 전주를 점령하기 위해 태인, 금구, 부안 등으로 진격했다. 4월 7일 황토재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점령했고, 이 시기에 각지에 글을 보내 탐관오리의 징계와 폐정 개혁을 요구했다.

4월 23일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경군(京軍)을 무찔렀다. 4월 27일(양 5월 31일)에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전주성을 포위한 홍계훈 부대와 협상을 벌였다. 이처럼 정부와 농민군이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주 함락 직후인 4월 30일 정부가 청에 대해 차병 요청을 하자 천진 조약의 내용을 이유로 일본 역시 군대를 파견하는 등 조선을 둘러싼 청 · 일 양국의 간섭이 노골화되고 있었던 급박한 상황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 화약을 맺었는데 농민군은 27개조의 폐정 개혁 요구 조항을 상주할 것과 농민군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5월 8일(양 6월 10일) 전주성에서 철수했다.

3단계는 동학 농민군들이 전주 화약(全州和約)을 맺고 전라도 각 고을로 돌아

가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을 실시하는 시기부터 2차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킬 때까지 이다. 이를 이른바 집강소 통치기라 부른다. 화약을 맺은 농민군은 각 지역의 폐정을 개혁하는데 주력했다. 이는 화약 전 점령 지역에 실시되었던 집강을 통한 폐정 개혁 사업을 이은 것이다.

4단계는 제2차 동학 농민혁명 단계로서 동학 농민군 등이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재기하는 9월 12일(양 10월 10일)부터 그해 12월 정부군과 일본군의 탄압으로 동학 농민혁명이 실패하기까지이다.

청일전쟁에서 우세를 점한 일본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되고, 또 갑오개혁 정권의 개혁 사업이 많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자 각지의 농민군들은 집강소 체제를 거부하고 재기병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것이 김개남을 중심으로 한 8월 25일경의 남원 농민군 대회였다. 재기병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전봉준은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재기병을 결심하게 된다. 농민군 봉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동학 교단도 9월 18일 충청도 청산에서 기병을 결정했다.

일본 세력을 몰아내고 친일 세력의 제거를 목표로 한 2차 봉기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전쟁으로 발전했다. 전봉준 부대는 11월 9일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김개남 부대는 11월 13일 청주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한 후 후퇴를 거듭했다. 전봉준은 11월 27일 태인전투를 마지막으로 12월 2일 체포되었다. 김개남이 12월 1일에, 손화중은 11일에 체포되었다.

1894년 농민 봉기는 반봉건, 반침략적 성격을 지닌 변혁 운동이었다. 농민 봉기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근대 국가와 근대 사회를 만들려 했던 좌절된 혁명이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농민 봉기에서 농민군이 처음부터 일정한 계획 하에 어떤 완성된 정치 사회적 사상을 가지고 변혁 운동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동학 농민혁명의 목적이 조선 왕조 봉건 체제 자체를 완전히 청산하려는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고 봉건 체제 안에서 개혁을 이루려는데 한정되었으나, 봉기가 성공했을 때 이 개혁은 결국 봉건체제 자체의 청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3) 경상도 지역의 동학 농민혁명

1871년 이필제가 주도한 거사는 영해, 영덕, 영양 등 경상도 북부 지역 동학 교단 지도자들을 희생시키며 회생 기미를 보이던 교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경상도지역은 동학의 발상지라는 상징만을

가질 뿐 교단 지도부 내 영향력은 물론 교세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상실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동학이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경상도의 경우 1894년 농민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동학 교도들은 해월이 상주에 안착하는 1884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교도들은 지하에 숨어들어 비밀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갑오년에는 반봉건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호남지역에서 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당시 영남지역 농민군은 이에 함께하지 못했으나, 경상도의 동학 교도들이 공개적으로 농민군 결집에 나서게 되는 것은 전라도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다. 이후 호남지역 농민군의 개혁 활동에 다분히 영향을 받으면서 이들 영남지역에서도 농민군이 결집되어 크게 세력을 형성해 나갔고, 또한 무장력도 갖추어 그것을 바탕으로 읍외 지역에서부터 실질적인 폐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경상도지역의 봉기는 지역과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상주, 김천, 예천, 안동, 의성 등 경상도 북서부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일대 농민군은 비교적 독자적인 활동을 벌였다. 경상도 북서부 지역에서 농민군 결집이 두드러졌던 지역은 상주와 예천 등이었다.

갑오년 당시 경상도 북서부의 동학 조직은 해월 최시형의 북접 교단 영향력 아래 있었다. 따라서 이곳 동학 농민군의 활동 양상은 적극적인 폐정 개혁을 실시하던 전라도 일대와 사뭇 달랐다. 예천, 상주, 김천 등 거점을 둔 영남 북서부 지역 동학 농민군들은 전라도 충청도의 농민군 주력 부대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지 못하고 지역 내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다 소멸하고 말았다. 특히 보수 세력인 민보군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

경상도에서 농민군이 세력을 형성한 또 다른 지역은 하동, 진주, 산청, 함양, 곤양 등 지리산에 접한 남서부 일대이다. 이 일대는 순천, 광양 등 전라도 지역 농민군과 깊은 관계에 있었는데, 특히 하동과 진주는 농민군이 세력을 크게 떨쳤던 곳이다. 두 지역 외에 경상도의 다른 지역에서 동학 농민군이 활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연로(沿路)에 일본군의 병참부가 설치되어 있었던 경상도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일찍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있었다. 호남지역의 본격적인 토벌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각지의 병참 수비대(兵站守備隊)에 의해 경상도지역의 농민군 활동은 타격을 받고 점차 약화되어갔다. 북서부 지역에서 9월 말 경, 남서부 지역에서 10월 말 경에 비교적 일찍 동학 농민군이 진압된 것은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6. 독립투쟁기의 천도교 활동

의암 손병희(1861~1922)는 1897년 해월선사로부터 도통을 전수받고, 천도교 3세 교주가 되었다. 손병희는 1904년에 진보회를 조직하여 이해에 갑신혁신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 동학을 탄압하였으므로 진보회는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일 단체인 일진회와 합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친일 매국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동학 교단이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손병희가 교단 정비를 위하여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 · 선포하였다. 1906년 9월 17일 이용구 이하 62명의 일진회 간부들을 출교 처분하였다.

손병희는 종교적 일신을 위하여 종전의 포접제를 교구제로 바꾸었다. 서울에 천도교 중앙총부를 두고 그 밑에 72개의 대교구를 지방에 설치하였다. 교리의 현대화를 꾀했으며 오관(五款) 제도, 즉 주문 외기, 청수 바치기, 시일식 드리기, 성미 바치기, 기도하기를 정착시켜 천도교식 종교 의례를 제정하였다.

3 · 1 운동의 초기 민족 연합 전선 조직 단계에서 천도교 지도층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3 · 1운동이 일어난 3년 뒤인 1922년에 천도교 인사를 중심으로 제2의 3 · 1 운동이 추진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일본 형사에게 발각되어 실패하고 만다. 천도교가 당시 다른 종단보다 앞서 갔던 것은 민족 독립 운동에서 뿐 만 아니다. 천도교는 문화운동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많이 남긴다.

천도교 교단에서 시사종합지로서 개벽을 발간하여 출판문화운동을 벌였다. 3.1 운동 후 천도교 청년회에서는 이제는 문화로써 이 민족을 깨우자는 계몽 정신을 내세우게 됐으며, 그 첫 번째 결과가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 등의 3대 개벽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양지 『개벽』의 창간이었다. 개벽지는 1920년 6월에 창간되어 1926년 72호를 마지막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당하였다. 종합 교양지이면서 문학지 특성을 지닌 개벽은 근대 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7. 오늘날 경주의 천도교

천도교인들은 일상적 삶 속에서 성, 경, 신을 통하여 생활을 하며, 주문을 통한 수련과 심고(心告), 또한 기도를 통하여 수행과 신앙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한울님으로부터 품부받은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마음을 지키는 '수심(守心)의 경지'와 한울님의 지극한 기운과 융화 일체를 이룬 기운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정기(正氣)'를 행하게 된다.

천도교의 의례에는 반드시 청수(淸水), 심고(心告), 주문 등이 꼭 들어간다. 천도교 신앙은 주문 · 청수 · 시일 · 성미 · 기도의 다섯 가지 정성을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중요한 의례는 입도식, 매일기도, 그리고 시일식, 기념식, 각종 통과의례 등이 있다. 시일(侍日)인 일요일에는 교구별로 교인들이 교당에 모여 시일식을 거행한다. 기념식에는 4월 5일의 천일기념[창도기념], 8월 14일의 지일기념[해월 최시형의 도통전수일], 12월 24일의 인일기념[의암성사의 도통전수일], 1월 18일의 도일기념[춘암사상의 대도주 승통일]이 있다.

천도교 경전은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과 한글 가사체로 된 『용담유사』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경전과 더불어 해월 선생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해월신사법설, 의암선생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의암성사법설이 있다.

천도교 대표 기관은 천도교 중앙총부이다. 천도교 4세 도주 박인호 선생이 1940년 세상을 떠난 후 중의제에 의하여 교령(敎領)을 선출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오늘날까지 3년마다 교령을 선출하여 천도교 교단의 지도자로 천도교를 대표하게 되었다. 교령을 위시한 교구장, 전교사 및 각종 임원은 3년 임기제로 전국 대의원대회나 교구, 전교실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사업 계획과 예산은 종의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중앙총부의 체제는 행정 조직과 연원 조직의 2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조직으로 교령사(敎領司), 현기사(玄機司), 종무원(宗務院), 종의원(宗議院), 감사원(監査院) 등을 두고 있으며, 지방에는 교구와 전교실을 두어 교구장을 중심으로 교인들의 교화와 포덕을 담당한다. 교인들의 수련 및 수행을 위한 수도원이 전국에 9곳이 있다. 경주에는 용담교구와 경주교구가 있고 용담수도원이 있다. 연원 조직으로 중앙에 연원 협의기구인 연원회(淵源會)가 있는데, 연원 조직은 전교인과 수교인 또는 정신적 지도관계를 중심으로 조직한 포(包) 조직을 말한다.

경주에는 천도교의 발상지인 용담정이 있으며, 용담정으로부터 약 1km 아래로 내려온 능선의 중턱에는 수운 선생의 묘소가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km 쯤 남쪽의 가정 1리 마을에는 선생이 탄생한 집터가 있다. 용담정은 수운 선생이 득도한 건물을 지칭하나 넓게는 그 일대 용담 성지 전부를 지칭한다.

용담정은 원래 최제우의 할아버지 최종하(崔宗夏)가 사원인 원적암(圓寂庵)을 매입하여 와룡암(臥龍菴)이라 개명하여 사용하였다. 수운의 아버지 최옥은 1815년 퇴락한 와룡암 옆에 다시 5칸을 신축하여 용담서사(龍潭書社)라 이름하여 이

곳에서 글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용담서사가 수운 선생이 동학을 깨친 용담정이다.

용담정은 최제우 순도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가 그 이후 중건과 퇴락을 거듭하던 중 1975년 지금의 모습으로 중건하였고 이 일대가 천도교 발상지로 성역화되었다.

용담정에는 수운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그 윗쪽 사각정에는 부친인 최옥 선생의 문집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제6절 도교(道教)

1. 한국 도교의 역사

한국에 도교 사상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역사적 자료상 확실한 것은 고구려 영류왕 7년(624) 때가 시초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구당서』의 「고구려전」에 의하면, "영류왕 7년에 당고조 이연이 도사에게 명하여 전존상과 도법을 가지고 고구려에 와 노자 『도덕경』을 강술하자 왕 이하 국인도속 수천 명이 관청하고 또 이듬해에도 국왕이 사람을 보내어 도법을 구해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서는 김인문이 노장서를 섭렵했다는 기록[『삼국사기』, 「열전 김인문전」]과 효성왕(737~741) 조에 당나라 사신 형숙(邢璹)이 노자의 『도덕경』 등서를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근초고왕(346~374) 때 장군 막고해가 태자[근구수왕]에게 드리는 훈언에서 노장의 말을 익숙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도덕 사상과 노장서가 일찍부터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도교 사상 접촉 내지는 전래는 육로를 통한 고구려에서보다 해상을 통한 백제에서 더 일찍 이루어졌음이 짐작된다.

'백제에는 사탑이 매우 많았으나 도사가 없었다[百濟寺塔甚多 而無道士]' 라는 중국기록으로 미루어 백제는 도교 사상을 일찍 접했으나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 삼국 중에 도교가 완전한 종교 사상으로 성대한 세력을 가졌던 나라는 고구려였다. 도교의 전신인 오두미도가 미리 들어와 민간에 성행하였고 개소문에 의한 불교 탄압과 도교 옹호책이 도교의 권장을 말해준다. 고구려의 도교 수용은 순수 노장 사상이나 또는 개인적인 전생보진의 수련적인 도교라기보다는 재초중심의 호국연기 및 연년익수를 기축하는 국가적 차원의 종교로 정치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받아들였다.

신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한강유역을 장악(555년)하기 전까지는 중국과의 직접적

인 접촉이 없어 중국의 문물 제도나 사상의 수용이 늦었다. 신라의 화랑 정신에는 신도 선도 사상 등 선풍 의식이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는 방술, 기행 중심의 의식으로 바뀌고 양생, 보진을 도모하는 단학적인 성격을 띠는 수련적 선술 양상으로 바뀌어 유 · 불과 구별되는 장생 사상의 성격을 띠는 도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라와 백제 사회가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와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중세에 해당하는 고려 왕조는 신앙의 시대. 종교의 시대라 할 만큼 신중심의 시기로 이해된다. 표방되는 고려의 종교는 불교지만 지리도참 사상과 도교의 비중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종교요 생활 신앙이었다. 도참 사상과 크게 관계하면서 모든 종교 양상이 달라진 고려 도교는 단학의 맥을 이어가는 수련 도교는 별로 없고 양재기복을 기축하고 호국연기를 바라는 국가적 차원의 재초행사로 나타나는 도식 도교와 도교 습속의 하나인 수경신 습속이 있었다.

조선 왕조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노 · 불 사상을 이단으로 배척하면서도 지리도참 사상만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고려 때부터 도참 사상에 관심이 있던 이성계는 개국과 함께 천도할 생각으로 음양측정도감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리도참서를 모아 비교 측정하는 등 도참에 비상한 관심으로 한양 천도를 서둘렀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리도참 관심도에 호응하여 민간에서도 참위, 술수, 비기 등 서책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한 때는 도참서를 금하는 교서를 내릴 정도였다. 국가의 위국진호와 왕실의 양재기복을 위해 초재행사로 존속되어 온 과의도교는 도참 사상과 마찬가지로 고려에서 조선조로 이어져 계속되었다.

2. 경주지역의 도교 역사

상기한 바와 같이 도교는 크게 수련 도교와 기복 도교로 나뉘어지고 역사적으로 유교와 불교와 함께 삼교를 이루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현대 한국인의 생활 속에 그 사상의 기저가 일부 스며들어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와 같은 교단 조직을 가지고 교세를 가진 현대 종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주지역의 도교 역사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료상 『삼국사기』「열전 김인문전」에 김인문이 노장서를 섭렵했다는 기록으로 나온다. 당나라에서 도관을 짓고 도교를 장려할 때 장안[서안]에 오랫동안 유학한 김인문은 유학과 함께 도교 혹은 도가 사상에 대한 상당한 지식의 폭을 넓혔으리라 본다. 그리고 최치원 등 많은 당유학 출신 학자들 또한 유학과 함께 도교 사상에 심취한 흔적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새로운 고고학 증거에 의하면 이미 신라는 진흥왕이나 진평왕 시절에도 중국의 도교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즉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2층 황룡사 출토 유물 전시실에 있는 사신도 그림이 있는 동경(銅鏡)이 그것이다. 이 동경은 황룡사지 발굴 시 9층목탑 심초석 하부에서 출토되었는데, 그 동안 테두리 부분의 명문 일부가 해독이 안 되어 그 정체가 아리송한 유물이었다.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였다.



황룡사지 출토 중국제 동경

황룡사지 9층목탑 심초석 하부에서 출토된 중국 수나라 동경, 사신도 그림과 신선사상에 관련된 명문 32자로 미루어 도교와 밀접한 동경으로 중국 수나라 때 유행한 양식이다.

그런데 최근 이 동경의 명문 32자가 완전 해독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국 수나라 때 유행하던 도교 신성 사상의 내용이었다. 최근에 완전 해독된 황룡사지 출토 중국제 동경의 명문은 4언절구 32자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잉보(靈山孕寶) 신령스런 산이 잉태한 보배요
신사관로(神使觀爐) 영산에 사는 그 신들이 보낸 화롯불처럼 보이는
비원효월(飛圓曉月) 하늘에 떠있는 둥근 새벽 달은
광청야주(光淸夜珠) 그 빛이 맑은 밤의 보배요
옥대희세(玉臺希世) 옥대를 바라는 세상에
홍장응도(紅粧應圖) 발갛게 분장하여 응해 주는 모습이
천교집영(千嬌集影) 천 가지의 요염한 자태[그림자]를 모아서
백복래부(百福來扶) 백 가지 복을 가져다 주는 님

이 명문은 중국 수나라 때 유행했던 도교 사상의 신선 사상을 표현한 동경에 자주 나오는 정형화된 한 '영산잉보(靈山孕寶)' 종류의 명문이다. 영산은 신선들이 사는 신령스런 산을 말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진흥왕(眞興王) 25년, 26년, 28년, 31년, 33년에 북제와 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한 적이 있고, 진평왕(眞平王) 7년 7월에는 고승 지명이 진에 구법 여행을 다녀왔고, 18년 3월에는 원광법사가 진에 구법 여행을 갔다가 22년에[당시에 중국은 수나라로 통일됨] 원광스님이 조빙사 나마 제문과 대사 황천을 따라 수에서 돌아온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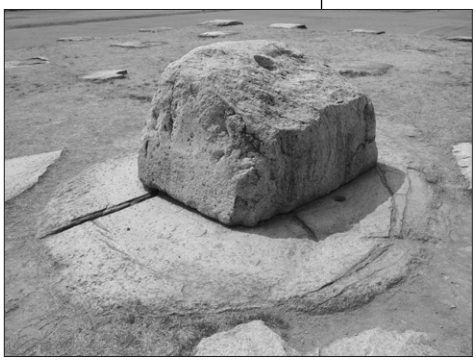
진평왕 26년 7월에 대나마 만세, 혜문 등을 수에 입조시켰고, 27년 3월에 고승 운육이 수(隋)에서 돌아왔다. 27년 8월에는 고구려 침입에 대응하는 수나라 병사를

구원요청하기 위해 왕이 원광법사를 시켜 걸사표를 짓게 하였고, 33년에 왕이 수나라에 출사를 요청하여 수양제가 군사를 출병하는 것은 「고구려기」에도 나온다.

진평왕 35년 7월엔 수의 사신 왕세의가 황룡사에 와서 백고좌를 설하고 원광법사 등이 경을 강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당시 중국은 도교와 신선 사상이 많이 성행하고 있던 시기이다. 따라서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에 전시된 중국제 동경은 당시 수나라의 사신들이 오가는 과정에 신라로 유입되어 들어왔고 이것이 나중에 선덕여왕 14년 3월에 황룡사 9층목탑을 창건할 때 심초석 하부에 매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호국 불교의 상징인 황룡사 9층목탑을 세우면서 중국 수나라 때 신선 사상의 그림과 명문이 새겨진 동경이 심초석 하부에 매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즉 도교의 양재기복 호국연기 사상도 주변의 외침으로부터 신라를 지키려는 선덕여왕의 황룡사 9층목탑 건립 취지와 그 뜻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다.

현재 경주지역엔 도교의 교단 조직이나 신도가 없지만 이미 일천오백 여년 전인 신라 진평왕대 혹은 선덕여왕 시절에 이미 중국의 도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황룡사지 9층목탑의 심초석 하부에서 발굴 되어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에 전시 중인 중국제 동경의 그림과 명문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황룡사지 9층목탑 심초석

제2장 민속(民俗)

민속(民俗)은 사람이 생활해 오면서 전승하는 습관을 말하는 것으로, 집단적 또는 공통적으로 관행이 되는 것이 상례이며, 그 범위는 세시 풍속, 놀이, 통과의례, 제례 등 대단히 넓다. 경주지역의 민속은 역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도처에서 전래되어 오는 것 외의 것도 있다.

제1절 세시 풍속(歲時風俗)

세시 풍속은 옛적부터 계절에 따라 민간에서 행하여 오는 의, 식, 주와 신앙, 경험과 그밖의 생활에 관한 습관을 말한다. 세시 풍속은 인간의 오랜 생활경험에서 생겨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협약이 들어 있다.

1. 정월(正月)

○ 설날

일년의 첫날을 '설' 또는 '설날' 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설날을 싯점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일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설날에는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하였으며, 사악한 것을 버리고 복을 맞이하는 소원[벽사초복(辟邪招福)]을 기원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정하례(正賀禮)는 제28대 진덕여왕 5년(651)부터 행하여졌다고 한다. 이때의 행사로, 『수서(隋書)』에 "신라의 궁중에서는 정월 초에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선물을 주었으며, 일월신(日月神)께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있다.

○ 설빔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놓은 새 옷으로 갈아 입는데 이때의 새 옷을 '설빔' 이라고 한다. 설빔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살림 정도

에 따라서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아이는 설빔에 대한 기대가 커서 설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새 옷을 자랑을 하기도 하였다.

○ 차례

해마다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한 후 설빔으로 갈아입고 세찬(歲饌)과 세주(歲酒)를 마련하여 사당에 차려 놓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정초 차례라 한다. 이 차례는 장자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의 4대조의 신주를 모시고 지낸다. 차례가 끝난 다음에는 어른께 세배(歲拜)를 드린다. 또 정초 행사의 하나로 성묘(省墓)가 있는데,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손질하고, 절을 하면서 새해가 되었음을 고한다.

○ 복조리

조리 장사꾼이 조리를 만들어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팔러 다닌다. 조리 장사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복조리를 사시오"라고 외치면 집집마다 나와서 일년 동안 소용되는 수량의 복조리를 산다. 이 조리를 설달 이른 새벽에 사두면 일년 동안 복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에서 '복조리'라고 부른다.

○ 대보름

정월 15일을 상원(上元) 또는 '대보름'이라 하며 새해의 첫 번째 맞는 보름이다. 보름날에는 달을 보고 풍작과 행운을 빌며 '달불'을 놓기도 하고, 보름달을 보고 절을 하면 소원을 성취한다고 하여 절을 하기도 한다. 달은 일월성신 속에 포함되어 신앙의 대상이었고, 정령이 있다고 믿어 월백(月魄)이라 하였으며, 특히 여인들의 기원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대보름은 새해 들어 가득찬 달을 백성들이 다함께 맞이하고 '달맞이', '달집태우기' 등의 의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명절이다. '달맞이'는 솟아오르는 보름달을 먼저 보아야 좋다 하여 횃불을 들고 앞을 다투어 마을의 동산으로 올라가 두 손을 모아 달님한테 갖가지 소망을 빌었다. 또 달에는 토끼가 산다고 믿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강강수월래'의 가사 속에는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라는 구절이 있어 계수나무가 있는 달을 이상향으로 보았다.

○ 부름깨기

정월 대보름날 일찍 일어나서 밤, 호도, 잣, 은행 등을 깨무는 풍속이 있는데, 이를 '부름'이라 한다. 과실을 자기 나이수대로 깨물기도 하나 노인들은 이가 단단치 못하므로 몇 개만 깨문다. 여러 번 깨물지 않고 한 번에 깨무는 것이 좋다고 여겼고 깨문 과실은 껍질을 벗겨 먹거나 첫째 것은 마당에 버리기도 한다.

과실을 깨물 때 "일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어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기원을 하면 일년 동안 그 소원대로 되고 이가 튼튼해진다고 믿었다.

○ 귀밝이술[耳明酒]

정월 보름날 아침에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모두 술을 마시며, 이를 '귀밝이술'이라 한다. 귀밝이술은 데우지 않고 마시는데, 귀가 밝아질 뿐 아니라 일년 동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고 믿었다.

○ 약밥

정월 보름날 아침에는 약밥을 먹어야 좋다고 전한다. 약밥을 먹는 유래는 『삼국유사』에 신라 제21대 소지왕 때, 까마귀와 쥐의 도움을 받은 왕이 서출지에서 노인의 글을 받고, 내전에서 밀통하던 궁주(宮主)와 승려를 활로 쏘아 죽이고 생명을 구했다. 그 후부터 신라에서는 왕의 생명을 구해준 동물의 고마움을 갚기 위하여 해마다 정월 보름날을 오기일(烏忌日)로 정하고 찰밥을 지어 동물에게 먹였다고 한데서 시작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오곡밥

정월 대보름 아침밥은 쌀에다 보리, 콩, 팥, 조 등 잡곡을 섞어서 만든 밥을 지어 먹는다. 이 날은 성씨가 다른 세 집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아진다고 하여 여러 집의 오곡밥을 서로 나누어 먹었으며, 평상시에는 하루 세 번 먹던 밥을 이 날은 아홉 번 먹어야 좋아진다면서 여러 번 먹었다.

○ 더위팔기

정월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더위를 판다. 해가 뜨기 전에 이웃 친구를 찾아가 이름을 불러, 친구가 "왜 그러느냐?"라 물으면, "내 더위 다 사가거라"하고 말하면 더위를 판 것이 되어, 판 사람은 일년 동안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 때 친구의 부름에 멋모르고 대답을 했다가 더위를 산 사람은, 친구의 더위까지 먹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름날 아침에는 친구가 불러도 이내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미리 알아차리고 이름을 부르면 대신 "내 더위를 다 사거라"고 응수하기도 하였다.

○ 지신(地神) 밟기

지신밟기는 보름날, 지신을 위로하는 습속으로 마을의 청장년들이 징, 꽹가리, 장고, 북으로 이루어진 농악대와 사대부(士大夫), 팔대부(八大夫), 포수(砲手)로 꾸미고, 마을에서 넉넉하게 사는 집을 찾아가 농악을 치고 춤을 추면서 지신을 밟는다. 이렇게 지신을 밟으면 일년 동안 지신의 덕을 받아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집주인은 지신 밟는 일행이 찾아오면 떡과 술을 차려 일행을 대접하면서 덕담을 나눈다.

○ 다리 밟기[踏橋]

정월 보름날 밤이 되면 남녀 노소가 다리를 밟았는데, 다리를 밟으면 일년 동안 발병이 나지 않고 건강해지는데, 다리를 열 두 곳을 밟으면, 12달 동안 건강할 뿐 아니라 액을 면한다고 믿었다.

경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천교, 북천교, 남천교에서 다리 밟기를 하였다.

○ 산신제(山神祭), 동신제(洞神祭)

산신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을 제사하는데, 산신제가 곧 동신제이기도 하다. 산신제는 정월 보름날이나, 보름을 전후한 길일을 택해서 지낸다. 마을의 진산(鎭山)에 단을 만들거나 당우(堂宇)를 짓고 산제단(山祭壇) 혹은 산제당(山祭堂)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 제사를 올린다.

제삿날이 되면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대와 동민이 그 뒤를 따른다. 농기를 세워두고 밤을 기다렸다가 자정이 지나서 첫 닭이 울면 산제를 올리는데, 제수는 모두 화주가 정성으로 만들어 새 그릇에 담는 것이 제격이다. 축관의 독축이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모두가 음복한 후 농악을 울리면서 즐겼다.

○ 달집 짓기

정월 보름날이 되면 짚, 솔잎, 대나무 등으로 달집을 지어서 보름달이 떠오를 때 불을 지르고 한해의 소원을 빌었다. 대개 달집이 탈 때, 날렸던 연과 입었던 저고리의 동전을 따서 달집에 매달아서 태우는데 이를 '액막이'라고 한다. 달집이 타고 난 뒤 다 타지 않은 대나무를 부지깽이로 사용하면 아들 없는 가정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믿고 가져가기도 하였다.

○ 쥐불놀이

정월 14일이나 보름 밤에 농가에서는 밭둑과 논둑을 태우는데 이것을 쥐불놀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병충이 죽으며, 잡귀를 쫓고 풍작을 거두고 한해 동안 무병하고 액을 멀리할 수 있다고 여겨, 어린이들은 깡통에 불을 담아서 밭둑과 논둑에 불을 질렀다. 때로는 산불로 번지기도 하였다.

○ 석전(石戰)

석전은 돌쌈, 돌팔매 또는 편쌈이라고도 하는데, 정월 보름날에 마을과 마을 또는 마을을 동서로 혹은 남북으로 나누어 강이나 구릉을 사이에 두고 서로 돌을 던져 싸움을 벌이는 것인데, 먼저 도망가는 편이 패한 것으로 승리를 가름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군제에 '석투당장군(石投幢將軍)'이 있어 석전이 전투에 사용되었으며, 임진왜란 때의 행주대첩에서도 석전이 전승을 거두는데 한몫을 하였다.

○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정월 보름날을 전후하여 하는 놀이로 마을과 마을 또는 읍·면별로 편을 나누어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정초에 집집마다 짚을 염출하여 줄을 틀어 꼬아 만드는데, 줄은 외줄이지만 암·수줄로 뱀이 달걀을 삼키는 듯한 것, 구렁이 모양으로 중앙은 굵고 양끝은 8갈래로 갈라지는 등 다양하였다. 대개 남녀 대항인 경우에는 여자편이, 동서가 대항할 때는 암줄인 서쪽이, 남북으로 대항할 때는 암줄인 남쪽이, 청소년 대항인 경우에는 소년편이 이기도록 한다.

경주시에서는 안강읍 양동리에서 7월 백중날을 전후하여 마을을 동서로 갈라 줄다리기를 하여 왔으며, 신라문화제 때에도 원화로에서 실시하고 있다.

○ 윷놀이

정초에 들어 가장 보편적으로 남녀노소가 귀천 없이 즐기는 놀이이다. 윷은 부녀자용은 박달나무를 다듬어 채색도 해서 예쁘게 만들었으며, 남자용은 밤나무를 베어다 크게 만들었는데, 지름 3cm, 길이 15cm 쯤 되게 잘라 만든다.

윷놀이는 두 사람 이상이 편을 짜서 노는데, 말을 두 개 이상 겹쳐서 놀 수 있으며, 높은 수를 내어야 하고, 적을 잡을 수 있고 잡힐 수도 있으므로 말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 연(鳶) 날리기

정초에 청소년들이 하는 놀이에 연날리기가 있다. 12월 중순께부터 시작하며, 대개 설날이나 정월 보름 사이에 가장 많이 행해진다.

연날리기는 민속 신앙과 오락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민속 신앙과 관련된 놀이로는 옛날부터 정월 보름날이면 연에 '액(厄)'이란 글자를 쓰거나 '송액(送厄)'이라 써서 높이 날려보냄으로써 액을 쫓아보낸다는 풍습이 전해 왔다. 오락적인 것으로 '연싸움'이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 연을 높이 띄우고 서로 연줄을 걸어, 상대편의 연줄을 끊어 연을 날려보내는 놀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16년(647), 혹은 제28대 진덕여왕 1년에 비담(毗曇)과 염종(廉宗)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큰 별이 월성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때 김유신 장군이 허수아비를 연에 달아 하늘에 띄우면서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내어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 반란을 진압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 그을음 쓸기

정월 보름날 "꺼시름 쓸자"하면서 그을음을 쓸면 한해 동안에는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여겨 많은 사람들이 그을음 쓸기를 하였다. 경주지역에서는 그을음을 '꺼시럼'이라 한다.

2. 2월(二月)

○ 영등(靈燈)할미 풍신제

음력 2월 초하룻날은 하늘에 사는 영등할미가 내려왔다가 20일에 하늘로 올라가는 '영등날'이라 하는데, 2월 1일 아침 일찍 새 바가지에 깨끗한 물을 광이나

부엌에 올려놓고 집안의 태평과 풍년 등의 소원을 빈다.

영등할미가 지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태풍이 일어나 바다에서는 난파선이 생긴다. 그래서 어부들은 출어를 삼가고,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풍재(風災)를 피하기 위하여 영등할미에게 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영등할미 바람 올린다'는 풍신제이다. 영등날에 비가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는데, 영등날에는 마을에서 농악을 울리며, 솔떡을 쪄서 먹기도 한다. 또 초가집에는 노래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노래기를 쫓기 위하여 종이에 '행랑각씨 원거천리(行去角氏 遠去千里)'라는 주문을 써서 천장, 처마, 문지방 등에 붙이거나 처마와 지붕에 꽂아 넣기도 하였다.

○ 입춘(立春)

입춘은 봄이 시작된다는 날로 이 날에는 집집마다 대문, 문설주, 기둥, 대들보와 천정 등에 봄을 알리는 좋은 글을 써서 붙이는데 이를 춘축(春祝) 또는 춘방(春榜)이라 한다. 춘축은 대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국태민안(國泰民安),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 부모천년수(父母千年壽), 자손만대영(子孫萬代榮), 문영춘하추동복(門迎春夏秋冬福) 등이다.

○ 경칩일(驚蟄日)

경칩일에는 날씨도 따뜻해지고 초목도 싹이 트며, 겨울잠을 지낸 짐승들과 곤충도 땅 밖으로 나오는데, 이날에는 대동강의 얼음도 녹는다고 한다. 경칩일에 농촌에서는 보리 싹의 성장을 보아 한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날에 담을 쌓거나 벽을 바르는 등 흙일을 하면 좋으며, 빈대가 없어진다고 믿었다.

○ 한식일(寒食日)

한식은 동지 지나서 105일 째 되는 날이며, 대체로 2월에 들지만 3월이 되는 해도 있다. 한식날에는 조상의 분묘가 헐었을 때에는 잔디를 입히는데 개사초(改沙草)라 하며, 묘 둘레에 나무를 심기도 한다. 이날은 비바람이 심하고 봄 가뭄이 있는 때라서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습관이 있어 한식일이라고 하였다.

3. 3월(三月)

○ 삼짇날

음력 3월 3일을 삼짇날이라 하며, 이날에는 강남에 갔던 제비가 옛집을 찾아 돌아오는 날로 생각하였다. 산에 진달래꽃이 피면 꽃을 따서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에 지져서 먹는데 꽃전[花煎]이라 한다. 꽃전은 봄의 입맛을 한층 돋아주는 시식(時食)으로 풍류 있는 별식에 속한다. 삼짇날에는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윤이 나고 아름답다고 해서 부녀자들은 머리를 감았으며 이 날에는 머슴들도 놀리고 봄놀이를 가는데 이를 '답청(踏靑)' 이라 한다.

○ 곡우(穀雨)

2월에 들면 농가에서는 좋은 볍씨를 가려서 물에 담그며, 호박, 박을 심고 못자리를 다듬는다. 또한 이날을 전후하여 자작나무나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진물을 받아 마시면 신경통,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하여 마셨다.

○ 궁술대회(弓術大會)

3월에는 지방마다 사정(射亭)에서 궁술대회를 갖는다. 활쏘기는 장년 이상의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무술로서 궁사의 활이 과녁에 맞으면 기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지화자노래' 를 부르며 흥을 돋아 주었다.

4. 4월(四月)

○ 초파일(初八日)

4월 8일은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서가모니(釋迦牟尼)의 탄생일이며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한다. 민간에서는 이날 남녀노소가 원근의 절을 찾아 욕불을 하고 축원을 하면서 연등을 올린다. 초파일에는 절에 있는 탑을 돌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으며, 이날 세 곳 이상의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리면 더욱 많은 소원을 성취한다 하여 여러 절을 다니기도 한다.

5. 5월(五月)

○ 단오날(端午日)

5월 5일은 단오절로서 수리[戌衣] 또는 천중일(天中日)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날 각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단오 차례를 지낸 후 음식을 먹으면서 즐겼다.

부녀자들은 산에 가서 수리차를 캐다가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창포 뿌리를 삶아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숱도 많아지고 윤이 나며 각종 재앙을 물리친다고 생각했다. 또 쑥을 뜯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둥근 데서 이날을 '수리' 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 익모초(益母草) · 쑥[艾]

단오절에 익모초와 쑥을 뜯는 풍속이 있다. 익모초와 쑥은 민간 요법으로 더위를 먹은 데 약으로 쓰고, 한방에서는 말린 것은 산모의 지혈, 강장제, 이뇨제 등 약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식욕을 돋구어 준다고 한다.

농부들이 밖에서 일을 할 때 약쑥으로 긴 홰를 만들어 불을 붙여 두면 하루종일 타므로 흔히 모기 등 해충을 퇴치해 준다. 그리고 단오날 오시(午時)에 쑥과 약초를 베어다가 묶어서 세워 두면 재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 그네뛰기

단오날 여성의 놀이에 그네뛰기가 있는데, 나뭇가지나 큰 기둥을 세워 그네를 매고 여인들이 즐긴다. 옛날에는 부녀자의 문밖 출입을 억제했으나 단오날은 그네타는 일을 말리지 않고 허락하였다.

단오 때가 되면 전국 도처에서 시장이나 백사장같은 넓은 광장에서 그네뛰기 대회가 열렸다. 중국의 『송사(宋史)』에 "고려에는 단옷날에 추천(鞦韆)놀이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 중엽에는 이미 그네뛰기가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 널뛰기

널뛰기는 부녀자들이 하는 놀이로, 너비 한자에 길이 열자 되는 두꺼운 널판자를 짚단이나 가마니 같은 것을 뭉쳐서 가운데에 고여 놓고, 양쪽에 한 사람씩 올라 서서 발을 굴려 공중에 높이 솟아 뛰고 노는 놀이이다.

○ 씨름

단오날 남성의 놀이로 씨름이 있다. 장정이나 청소년들이 넓은 마당, 백사장, 잔디밭에 모여 서로 힘과 슬기를 겨누었다. 씨름대회를 할 적에는 많은 사람을 이겨 상대가 없게 되었을 때에 '판막이[都結局]' 라 하여 이긴 사람을 장군이나 장사라 부르며 규모가 큰 대회에서는 상으로 황소를 주었다. 요즈음은 전국적으로 열

리는 씨름대회가 있으며, 체급을 나누어 대결하거나 단체전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6. 6월(六月)

○ 유두(流頭)

음력 6월 15일을 유두일이라 하는데, 유두란 말은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의 약자이다. 사람들은 유두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맑은 개울을 찾아가서 머리를 감고 목욕한 후,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계곡이나 정자를 찾아가서 풍월을 읊으며 하루를 즐겼는데, 이를 '유두연(流頭宴)'이라 하였다.

유두의 풍속은 신라 때에도 있었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냇가에 가서 머리를 감는다. 동쪽은 청[靑 : 淸]이요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기에 그곳을 택했다 한다.

이날에는 새로 나온 과일을 따고, 떡을 만들어 사당에 올려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 한다. 그리고 유두면(流頭麵)을 먹는데, 국수가 길어서 장수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며, 햇보리를 삶아 녹말을 묻혀 끓는 물에 데치거나, 흰떡을 앵두만큼 썰어서 둥글게 빚어 꿀물에 넣고 실백을 띄운 음식인 수단(水團)을 먹기도 하였다.

○ 복날[伏日]

매년 육월에는 복날[伏日]이 있는데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이 있다. 일년 중에서 더위가 심한 날들이다. 복날에는 더위를 피하여 음식과 술을 마련하고 계곡이나 정자를 찾아가서 더위를 잊고 하루를 지낸다.

옛날에는 재액(災厄)을 막는다는 뜻으로 붉은 팥죽을 쑤어 먹기도 하였는데, 요즈음은 복날에는 삼계탕(蔘鷄湯)이나 보신탕(補身湯)을 먹고 몸을 보하기도 한다.

7. 7월(七月)

○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 부른다. 이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저녁에 소년과 처녀들은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에 공부 잘하기와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빌었다.

칠석날은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하늘 나라에 소를 먹이는 목동과 옥황상제의 딸 직녀가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사랑에 빠져 자기들이 맡아 하던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다. 이를 본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직녀를 은하수 동쪽에 살게 하고, 견우는 서쪽에 살게 하여 서로 만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너무 가여운 일이라 1년에 한 번인 칠석날 밤에 만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날이 되면 지상의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에 모여 자신들의 몸을 맞대어 오작교(烏鵲橋)를 놓아,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칠석날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날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한다. 민가에서는 칠석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하여 칠석다례를 올리며, 부인들은 밤에 단을 모아놓고 집안의 부귀와 자손의 명과 복을 빌었으며, 떡을 빚어서 논에 가져다가 농신제(農神祭)를 올리기도 했다.

○ 백중(百中)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일, 백중절, 망혼일(亡魂日), 중원(中元)이라고도 한다. 백중에는 승려들이 불공을 올리고, 민가에서는 조상의 사당에 천신(薦新 : 햇곡식과 햇과일을 조상신에게 먼저 올리는 일)을 드리며, 음식과 술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겼다.

○ 호미 씻기

호미 씻기는 '초연(草宴)' 또는 '머슴 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날을 전후하여 마을에서 가장 농사가 잘된 집의 머슴을 뽑아, 집주인이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위로하며 삿갓을 씌워 소에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음식과 술을 대접한다.

호미 씻기란 늦은 가을이면 한해의 농사일도 거의 끝나 호미가 필요없게 되었으니 내년을 위해 호미를 씻어 둔다는 의미가 있다.

8. 8월(八月)

○ 벌초(伐草)

조상의 묘는 2월 한식 때에 묘를 손질하고, 백중에서 추석 때까지의 적당한 날을 받아 조상의 묘를 찾아 풀을 베고 주변을 깨끗이 한다.

○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은 추석 또는 한가위, 중추절, 가윗날 등으로 불리는 명절이다. 『삼국사기』에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7월 16일부터 8월 보름까지의 한달 동안 길쌈을 짜게 하고 승부를 가려,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이긴 편에 대접하며 온갖 놀이를 하였는데, 이를 '가배(嘉俳)'라 하였다. 이때 진 편에서 한 여자가 춤을 추면서 '회소(會蘇)'라 하였으며,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 아름다웠으므로 뒷사람들이 '회소곡'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추석에는 햇곡식과 과일로 술을 빚고 떡을 만들어 토란국에 오색 과일로 제사상을 차려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성묘를 하며, 이 날은 새 옷이나 입던 옷을 깨끗이 손질하여 입는데 이것을 '추석빔'이라고 한다. 제사를 올리고 성묘를 마친 다음에는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노래와 춤과 갖가지 놀이로 하루를 흥겹게 보냈다.

○ 이슬 먹기

8월에는 콩밭의 이슬을 받아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여 이슬을 받아 마시고, 또 이슬을 받아 두고 홍역을 앓는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하였다.

○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임진왜란 때부터 유래한다고 한다. 달밤에 마을 부녀자들이 수십 명 모여, 목청 좋은 사람이 맨 앞이나 가운데에서 노래를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술래'하고 후렴을 붙이면서 원무를 하는데 이때에 처음에는 진양조로 느리게 춤을 추다가 차츰 빨라져서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변하고 선도자의 능력에 따라 변화 있는 춤으로 발전하고 힘이 지치면 끝난다.

9. 9월(九月)

○ 중양절(重陽節)

음력 9월 9일은 '중양' 또는 '중구(重九)'라 하는데 중구란 기수(奇數)인 아홉과 양수(陽數)가 겹치는 날이란 뜻이다.

이날에는 시주단지에 쌀을 넣고 주인 없는 귀신의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 무렵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뱀이 구멍으로 들어가 겨울잠을 자게 된다고 한다. 지방마다 국화꽃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단자를 만들어 먹으니 국화

전인데, 계절시식으로 가을의 입맛을 돋우어 준다. 그리고 술에 국화 꽃잎을 넣어서 향기를 내기도 하는데 이를 '국화주' 라고 한다.

10. 10월(十月)

○ 말날[馬日]

옛날에는 말이 노동이나 군사용으로, 또 장거리 여행에도 필요하였다. 매년 10월 오일(午日)을 '말날' 이라 한다. 이 날은 말을 위하여 팥떡을 만들어 마구간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말의 무병과 건강을 빌었다.

○ 성주받이 굿[城主祭]

음력 10월인 상달에는 어느 가정에서나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신령인 성주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오일(午日)이나, 길일을 택해서 햇곡과 과일을 장만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집안과 일가의 무사를 기원하였다.

성주받이 굿은 주부에 의하여 간단하게 지내지만, 크게 지낼 때에는 무녀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성주 굿, 성주받이 굿, 안택(安宅)이라고 한다.

○ 시제(時祭)

매년 10월 15일을 전후하여 시제를 지낸다. 조상신은 5대까지만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이상은 가을에 함께 모신다. 이때에는 원근의 후손들이 모두 고향에 모여 제를 올리는데 제물은 후손 중에서 마련하거나 재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장만하며, 집안에서는 많은 후손들이 모여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11. 11월(十一月)

○ 동지(冬至)

동짓날은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이날부터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까닭으로 옛날에는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잔치를 벌여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중국 주(周)나라에서 동지를 설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동짓날에는 왕은 천지신과 조상의 영혼에 제사를 드리고, 신하들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동짓날을 "아세(亞歲)라 하고, 민간에서

는 작은 설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 유풍으로 오늘날에도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이 전해 온다.

○ 동지팥죽

우리나라에서는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다. 팥죽은 팥을 삶아 으깨거나 채에 걸러서 그 물에다 찹쌀로 단자를 새알 크기로 만들어서 끓여 죽을 쑤어 먹는데 이 단자를 '새알'이라 한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사당에 올려 차례를 지낸 후, 방, 마루, 광 등에도 한 그릇씩 놓으며, 대문 벽에 뿌린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 먹는다. 팥죽은 붉기 때문에 액을 막고 잡귀를 물리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또 동짓날에는 부적으로 '사(蛇)' 자를 써서 대문, 벽이나 기둥에 거꾸로 붙이면 악귀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동짓날 일기가 따뜻하면 다음해에 질병이 많아진다고 여겼고,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 동지 금방(冬至禁房)

민간에서는 호랑이가 동짓날에 짝짓기를 한다고 하여, 이날 부부의 동침을 금하였다. 호랑이는 평생 새끼를 한 마리밖에 낳지 못한다 하여, 사람도 이날 동침을 하면 평생 한 사람 낳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 동지 불공(冬至佛供)

민간에서는 동짓날에 인근의 사찰을 찾아 불공을 드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날 불공을 드리면 복을 받고, 각종 액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12. 12월(十二月)

○ 납향(臘享)

동지로부터 세 번째로 맞이하는 미일(未日)을 납향, 납일이라 한다. 이날에는 각 가정마다 묘소와 사당에서 대향사(大享祀)를 지냈다. 납향 날 밤에 새를 잡아 아이들에게 구워 먹이면 마마를 앓지 않는다고 하여 농촌에서는 참새잡이를 했다. 이날 내리는 눈은 약이 된다고 해서 독에 눈을 곱게 받아 두었다가 김장독에 넣으면 김치 맛이 변하지 않고, 옷이나 책에 바르면 좀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또

눈이 녹은 물로 눈을 씻으면 안질에 걸리지 않으며 눈이 맑아지고, 홍역을 앓는 아이에게 먹여 열을 내리게 하였다.

○ 그믐[除夜]

한해의 마지막 날인 그믐날 밤을 '제석(除夕)' 혹은 '제야(除夜)'라 하고 민가에서는 '작은 설'이라 하여 친척 어른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는데 이를 '묵은세배'라 한다.

모든 부정을 면한다는 의미에서 집안의 구석구석에 불을 밝히고 잠을 일찍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자지 않기도 하며, 묵은 근심과 걱정을 없애기 위하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금을 뿌린다. 부엌의 조왕신(竈王神)을 위하여 부뚜막 솥에 불을 밝히는데, 속설에 의하면 조왕신은 12월 25일에 말미를 받아 천제(天帝) 앞에 가서 자기네 집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하고, 그믐날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날 아주까리를 불에 태우면 빈대가 없어진다 하여 그렇게 하였다. 또 밤마다 이를 가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나뭇가지에 돌을 끼워 두면 이를 갈지 않는다고 한다.

13. 윤달[閏月]

윤달은 1년에서 한달이 더 있는 달이므로 무엇을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지장이 없다고 한다. 가옥을 고치거나 이사를 하여도 나쁜 일이 없으며 혼례를 올리고, 수의(壽衣)를 만들어 두면 좋다 한다. 따라서 부정한 일이나 액을 타는 일도 윤달을 이용하기도 하며 조상의 묘도 손질한다.

제2절 놀이[遊戱]

사람은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쉬기도 한다. 그리고 틈틈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즐겼는데 놀이를 통하여 친목을 다짐할 수 있었다.

1. 향악 5기(鄕樂五技)

『삼국사기』에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지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가 실려 있다. 이것은 신라에서 유행하던 다섯 가지 향악의 연희를 노래한 것이다.

○ 금환(金丸)

몸 돌리고 팔 까불며 금방울 희롱하니[廻身掉臂弄金丸]
달이 굴고 별이 뜬 듯이 눈이 요란해[月轉星浮滿限看]
의료(宜僚)같은 재주인들 이보다 나으랴[從有宜僚那勝此]
동해바다 파도 소리 잠잠할 것일세[定知鯨海息波瀾]

금방울 놀이인데, 중국 한(漢)나라에서 전해 온 탈춤의 한 형식, 금빛으로 된 둥근 공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춤을 춘다.

○ 월전(月顚)

어깨 솟고 목은 움칠 가발은 꼿꼿한 게[肩高項縮髮崔嵬]
여러 한량 팔 걷으며 술잔을 다툰다[攘臂羣儒鬪酒盃]
노랫소리 듣고 나자 사람들 모두 웃으니[聽得歌聲人盡笑]
초저녁이 지새도록 깃발 붐비다[夜頭旗幟曉頭催]

다리꼭지춤인데, 신라의 탈춤으로서 노래와 함께 웃기는 놀이의 하나였다.

○ 대면(大面)

노랑 금빛 탈을 썼던 바로 그 사람이[黃金面色是其人]
방울채를 손에 쥐고 귀신 부린다네[手抱珠鞭役鬼神]
빨리 닫고 천천히 걷고 한바탕 춤을 추니[疾步徐趍呈雅舞]
너울너울 봉황새가 날아드는 듯하구나[宛如丹鳳舞堯春]

중국의 북제(北齊)시대에 행해진 악무(樂舞)로서, 황금탈을 쓰고, 손에 구슬이 달린 채찍을 들고 귀신을 쫓는 흉내를 내는데, 노래에 맞추어 어깨를 으쓱거리는 춤이다.

○ 속독(束毒)

쑥대머리 파란 얼굴 저 사람 좀 보소[蓬頭藍面異人間]
무리 거느리고 뜰에 와서 난새춤 춘다[押隊來庭鸞舞鸞]
장고 소리 동둥 바람은 산들산들[打鼓冬冬風瑟瑟]
까닭 없이 이리저리 잘도 뛰누나[南奔北躍也無端]

꼭두각시춤인데, 서역에서 전해진 춤으로. 쑥머리에 남색탈을 쓰고, 북소리에 맞추어 떼를 지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춤을 춘다.

○ 산예(狻猊)

만 리 길 사막을 건너오느라고[遠涉流沙萬里來]

털옷은 헤어지고 흙먼지만 붙었구나[毛衣破盡着塵埃]

머리 젓고 꼬리치며 몸에 벤 인덕(仁德)[搖頭掉尾馴仁德]

온갖 짐승 재주 좋다만 어찌 이와 같으랴[雄氣寧同百獸才]」

사자탈을 쓰고 추는 춤이다. 인도에서 행해지던 동물의 작무(作舞)로서 서역을 통하여 동방으로 퍼졌다 한다.

2. 유상곡수의 연[流觴曲水宴]

옛날부터 동양 3국에서 행해지던 시회(詩會)의 하나이며, 음력 삼월 삼짇날 행하던 세시 풍속의 하나이다. 이날 물가에서 흐르는 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신에게 빌어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비는 불계(祓禊)를 행하고, 음복에 깃들여 연희를 한데서 시작하였다. 유상곡수의 명칭은 중국의 진(晋)나라에서 서기 353년 음력 3월 상사일에 왕희지(王羲之)가 회계산(會稽山)의 북쪽에 있는 난정(蘭亭)의 계욕 행사에 문인 41명을 초청하고,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시를 읊고 하루를 즐겼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경주 배동에 있는 사적 제1호 포석정 터[鮑石亭址]는 신라 왕실의 이궁으로, 유상곡수를 베풀던 전복 모양으로 생긴 석조의 도랑이 남아있다. 일본에도 유상곡수연의 유구들이 있으며, 현재에도 곡수연을 베푸는 곳이 있다.

3. 탈놀이[假面戲]

탈은 원시시대에서 행하던 종교 의식 중, 사람이 신령, 악귀, 요괴, 동물 등 비인간적인 것으로 가장하여 주술(呪術)을 행하면서 시작되었다.

○ 호우총 출토 탈[壺杅塚出土假面]

1946년 경주시 노서동 호우총에서 출토된 가면이다. 나무로 무서운 얼굴을 새긴 위에 검은 칠(漆)을 입힌 것으로 코 아래가 파손되어 얼굴 전체의 형상은 알 수 없으나, 얼굴 테두리의 눈동자에 순금으로 된 선을 돌린 호화로운 가면이다.

○ 황창랑의 탈[黃倡郎假面]

황창무(黃倡舞)는 신라에서 창작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경주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던 전통 가무의 하나로 신라문화제에서도 군무(群舞)로 행해 왔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신라 화랑 황창랑이 나이 17세에 백제에 들어가서 탈춤을 추었는데 구경꾼이 담을 쌓은 듯이 많았다. 백제왕이 그를 불러 구경하려고 마루 위에서 춤을 추라고 명령하니, 황창랑은 춤을 추는 것처럼 하다가 칼로 백제왕을 찔러 죽이고 그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백제와의 싸움 때, 황산(黃山)에서 용감하게 전사한 관창(官昌)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동방에 옛날 창해역사 황창랑[滄海力士黃倡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 처용무(處容舞)

신라 제49대 헌강왕 때의 처용설화(處容說話)에서 비롯된 가면무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려사』 제28대 충혜왕과 신우 조(辛禑條)에 처용희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처용무는 원래 검은 옷을 입고 비단 모자를 썼으며[黑布紗帽] 한 사람이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로 구성된 시기는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12월 회일(晦日) 하루 전날 궁중에서 나례(儺禮)를 행한 뒤에 두 차례에 걸쳐 처용무를 추었다"고 하였다.

경주에서는 신라문화제의 서제(序祭) 때에 제단 위에서 처용무를 춘다.

○ 사자 춤[獅子舞]

울릉도는 신라 때 우산국(于山國)이라 하였다. 『삼국사기』에 신라 제22대 지증왕 13년(512)에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는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으면서도 사나움으로 굴복시키기 어려워, 나무 사자[木偶獅子]를 만들어서 전선에 싣고 해안에 이르러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을 놓아 너희들을 모두 짓밟아 죽일 것이다" 하고 큰 소리로 위협하여 우산국을 정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자의 탈은 몸통은 나무와 종이로 만들고, 삼을 찢어 갈기를 만든다. 사자의 춤은 사자의 몸 동작을 흉내내어 춤을 추기도 하고 서로 위협적인 동작으로 싸우기도 한다. 대체로 2명의 남자가 들어가 몸체를 이루는데, 뒷 사람이 앞 사람의 어깨에 올라가 곧추서고, 좌우로 머리를 돌리거나 굿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거나, 몸을 긁어 이도 잡으며 꼬리를 흔들어 사자의 몸 동작을 한다.

경주의 보문동(普門洞)과 월남(月南) 마을에 일제시대까지 주지놀음이라는 사자놀음이 전승되고 있었다는데, 최상수(崔常壽)는 『한국민속놀이의 연구』에서 "왕년에 경주지방에서 축사연상(逐邪延祥)의 축원으로서 행하여졌던 사자놀이로, 두 마리의 사자가 나와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 광대(廣大) 놀이

『동이전(東夷傳)』「고구려전(高句麗傳)」에 "초야(草野)에 남녀가 번번이 무리를 이루어 노래하고 즐겼다[草野輒男女群聚倡樂]"는 기록이 있다. 그림으로는 고구려 벽화 행렬도의 주인공 수레 앞에 몇 명이 광대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신라의 토우에도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있다.

광대놀이는 원래 신전에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었다. 경주에서도 광대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

4. 마당 놀이

○ 줄타기[踏索戱]

줄타기는 중국 한(漢)나라의 산악백기(散樂百技)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광대놀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였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등과한 선비들을 위한 축하연에서 이루어져 하객의 흥을 돋구었다.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재담도 잘하며 신기한 재주와 웃음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인기가 컸었다. 줄타기는 조선시대에서는 나례도감(儺禮都監)에 속하였다.

○ 땅재주

광대놀이 중의 하나이다. 땅재주의 기본은 '살판.'이다. 살판은 두 손을 땅에 짚고 한 번씩 법사위를 넘는 놀이로 덤불링과 비슷하다. 살판은 머리, 목, 어깨, 팔, 오금,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발목 등을 모두 사용하는 놀이다. 이에 변형된 것으로 '팔짱살판' · '귀잡은 살판' · '자국살판' · '화로살판'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화로살판은 불을 벌겋게 피운 놋화로를 안고, 뒤로 살판을 넘어 떨어지는 놀이다.

○ 씨름[角抵]

옛날 사람들은 전쟁에 앞서 신 앞에 승리를 기원했다. 그 중의 하나로 힘 겨루기를 하였는데 씨름도 그 하나였다. 씨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구려 각저총(角抵塚) 동벽에 두 사람의 남자가 씨름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으나 신라시대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근래에는 체육 경기의 하나가 되어 전국적인 대회가 열리고 있다.

○ 활쏘기[弓術]

활은 선사시대에 식량을 얻는 수단으로 시작되었다가 전쟁의 무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사신총(四神塚)과 무용총(舞踊塚)의 수렵도가 유명하고, 신라에서는 경주시 사정동에서 출토된 수렵문전(狩獵文塼)이 있으며, 제28대 진성여왕 때 거타지(居陀知)라는 명궁의 이야기가 전해 온다.

경주 황성공원에 호림정(虎林亭)이란 사장이 있으며, 해마다 전국적인 궁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마사희[馬射戱]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로 화살을 과녁에 맞추는 놀이다. 이 놀이는 말 다루는 솜씨와 활을 다루는 솜씨가 하나로 합한 기예이며 군사 훈련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었다.

고구려 덕흥리 고분 벽화(德興里古墳壁畵)에 4인의 기수와 2인의 심판원과 1명의 서기가 있고, 서기의 옆에는 '사희주기인(射戱主記人)'이라는 글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마사희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으며,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의 일행 중에도 2인의 마상재(馬上才)가 반드시 수행하여 기예를 자랑하였다고 한다.

○ 축국(蹴鞠)

축국은 신라인들이 즐겼던 것 같다. 축국의 '국(鞠)'은 '국(踘)'이라고도 하여 가죽주머니에 털이나 솜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구자(毬字)'를 사용하여 '축구(蹴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한다. 그 놀이의 방법은 대개 넓은 광장에 길다란 장대를 양편에 세우고 그 위에 그물을 얽어 놓고, 7~8명씩 짝을 지어 국을 차서 그물에 넣는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은 김춘추와 함께 자기 집 앞에서 축국 놀이를 하면서 일부

로 김춘추의 옷고름을 떨어트렸으며, 이 옷고름을 달아준 김유신의 동생 문희(文姬)는 이것이 인연이 되어 태종 무열왕의 왕비[文明王后]가 되었다.

○ 격구(擊毬)

말을 타고, 장대로 공을 치는 상무적(尙武的)인 놀이이다. 구장 동서에 문을 세우고 선수들이 무리를 만들어, 말을 타고 막대로 공을 쳐서 문에 넣는 놀이이다. 문 양쪽에 24폭의 수놓은 깃발을 공이 공문에 들어갈 때마다 임금이 계신 곳 동서에 설치한 허공에 1기씩 게양하다가, 마지막에 합하여 승부를 정한다. 그 사이 쉬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여 응원한다.

조선시대에는 말을 타고 주걱 모양의 막대를 든 선수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기다리고 있으면,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공을 들고 나와 중앙에 던지면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가 끝나 승자가 결정되면 선수들은 말에서 내려 임금께 재배하고 상을 받았다.

○ 남사당(男寺党)

조선시대 서민 사회의 남성 민중놀이 집단이다. 남사당패를 비롯하여 대광대패, 솟대쟁이패, 사당패, 걸립패, 중매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남사당패가 첫손에 꼽힌다.

5. 매 사냥

길들인 매로 꿩이나 토끼 등의 짐승을 잡는 사냥[放鷹]이다. 『삼국유사』에, 신라 제54대 경명왕(景明王)은 매사냥을 즐겼는데, 하루는 선도산에 올라가 매를 놓았다가 잃어버렸다. 왕은 선도신모(仙桃神母)에게 "매를 찾아 주신다면 신모님에게 벼슬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빌었더니, 매가 돌아와 궤 위에 앉았다. 왕은 약속과 같이 신모를 대왕으로 봉했다는 전설이 있다. 사냥을 하는 매를 송골매라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새끼 때부터 길들여서 '해동청(海東靑)' 이라고 하였다.

6. 뱃놀이[船遊]

배를 타고 노는 놀이이다. 옛날부터 바다나 강에 배를 띄우고 연안의 경치를 즐기면서 흥취에 따라 시를 짓거나 노래를 하면서 풍류를 즐겼다.

우리나라는 많은 산과 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면이 바다임으로 옛날부터 뱃놀이도 성행하였다. 1974~1976년, 신라의 동궁이었던 안압지(雁鴨池)의 발굴조사 때 목선 2척과 파편들, 그리고 크고 작은 노(櫓)들이 발굴되었다. 조선 후기의 화가 김홍도(金弘道)의 인물산수도에서 선비들의 뱃놀이와, 신윤복(申潤福)의 풍속화에서 악사와 기녀들과 더불어 노는 선유화를 볼 수 있고, 민화에도 뱃놀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제3절 통과 의례(通過儀禮)

사람은 일생 중에 일련의 중요한 의식 절차를 밟는다. 즉 한 개인의 살아가는 과정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출생, 성년, 결혼, 죽음이다.

도이취란트의 인류학자이며 민속학자인 게냅(Arnold van Gennep)은 한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 등의 변화가 생길 때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하여 통과의례(通過儀禮)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1. 출생(出生)

태아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 한다. 인간은 예로부터 결혼을 하여 자녀를 얻는다. 사람은 혼인을 자녀 출산의 수단으로 여겼던 까닭에 혼인한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는 일이 가장 큰 소원인 동시에 의무였다.

○ 잉태(孕胎)

옛날에 부인들은 자녀를 낳기 위하여 명산대천에 가서 빌거나 여러 가지 주술을 베풀기도 하였다. 먼저 본인이 자신의 출산력을 높이기 위해 음력 초열흘부터 보름까지 닷새 동안, 달이 점점 커질 때 달을 마주 바라보고 숨을 크게 들어마신다. 이밖에 고추, 달걀, 수탉이나 황소의 생식기 등 특정한 음식을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돌부처, 망부석, 돌미륵 따위의 코를 떼어 갈아서 그 가루를 마시기도 하였는데, 이런 풍속은 전형적인 유감주술(類感呪術)로서 석상의 코를 남성의 성기로 여긴 데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산 치성과 바위 치성이 보편적으로 행해져 왔는데, 산 자체를 치성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바위의 경우는 험상 궂거나 묘하게 생긴 것일수

록 영험이 있다고 믿었다. 절 치성은 산신각이나 칠성각에서 올린다. 또 집 치성이 있다. 뒤란의 칠성님, 부엌의 조왕님, 우물의 용왕님을 주 대상으로 삼으나 삼신할머니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밖에 무당에게 치성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임신을 못하는 경우에는 '씨받이'라 하여 남의 몸을 빌리기도 하였다. 신분이 낮거나 과부로서 아들을 낳을 상을 지녔거나 경험이 있는 여인이 대상이 된다. 아이를 못 낳는 원인이 남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은밀히 남자를 빌리는 '씨내리'라는 기습(奇習)도 있었다.

○ 경주 남산 산신당(慶州南山山神堂)

경주 남산의 상선암(上仙庵) 위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은 큰 바위를 일러 산신바위[山神岩] 혹은 산신당(山神堂)이라 부르고 있다. 『동경잡기』에 '산신당은 금오산에 있는데, 아기 낳는 모양과 같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때부터 아기를 얻기 위하여 아낙들이 와서 빌던 곳이라 하며, 가위질을 한 자국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바위의 동남에 '산신당(産神堂)'이라 새기고, '조선 제25대 철종 5년(1854) 4월에 김응구(金應口)라는 사람이 이 바위에 기도하여 아들을 얻고 산신에게 감사하는 글을 새겼다.

○ 태교(胎敎)와 금기(禁忌)

잉태가 이루어지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잉부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데 이것을 태교라 한다. 이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고려 말,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가 남긴 「태중훈문(胎中訓文)」이 있으며, 근세조선 중엽의 명의였던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아동교육서인 『소학(小學)』을 비롯한 여러 곳에도 언급되어 있다.

○ 산 바라지

산달을 앞둔 집에서는 그 준비에 바쁘다. 창호지를 새로 바르는 등 방 치장을 하는 한편 포대기, 기저귀, 배내옷, 솜 따위를 마련하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입는 배내옷을 마련한다.

해산 준비와 산바라지는 주로 친정이나 시집의 어머니가 맡지만, 해산 경험이 많고 아이들을 모두 무사히 키운 노인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산실은 윗목에 깨끗한 짚을 깔고 쌀, 물, 미역 따위가 놓인 삼신상을 둔다. 곳에 따라 밥과 미

역을 소반에 올려놓고 순산을 빌기도 한다. 한편, 남편은 아내의 산달이 가까워오면 삼으로 왼새끼를 꼬아, 산실에 밧줄처럼 매어 놓아서 임산부가 이를 잡고 힘을 쓴다. 곳에 따라 이 줄을 황소 오줌에 적셔 두면 주력(呪力)이 생긴다고 한다.

태는 짚이나 종이에 싸고 삼신상 아래에 두지만, 이를 귀하게 여기는 집에서는 일진에 맞추어 좋은 방위에 둔다. 이 방향을 '장태방(藏胎方)'이라 한다. 태는 보통 사흘이 지나기 전이나 사흘째 되는 날에 처리하며, 그 방법은 곳에 따라 다른데, 장작불에 태워서 깨끗한 물에 띄우기도 하고, 산에 묻으며, 작은 단지에 넣어 땅에 묻기도 한다.

○ 금줄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 동안 대문에 금줄을 친다. 출산을 외부에 알려서 외인, 특히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남아의 경우에는 줄에 붉은 고추와 숯덩이를 끼워 두며, 여아는 미역, 솔잎, 종이 따위를 달아 둔다. 금줄은 반드시 왼새끼로 꼬며 양끝을 자르지 않는다. 왼새끼는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서이며, 양쪽 끝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기와 산모의 수명이 길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또 붉은 고추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며, 붉은 기운은 잡귀를 물리친다고 여긴다. 한편 숯은 제독(除毒)의 뜻이 담겨 있고, 솔잎의 색상인 녹색은 여성을 나타내는 색으로서, 자라서 바느질을 잘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 장수를 위한 습속

아이의 무병과 수명 장수를 위하여 절이나 큰 바위에 빌기도 하며, 무당을 어머니로 섬기게 하는 풍속도 있다. 절에 보낸 아이가 승려와 함께 지내거나 불공을 드리면 부처의 도움으로 재앙을 물리친다고 믿었다. 바위에 비는 것은, 바위가 단단하여 굳세며 변하지 않으므로, 수명 장수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또 아이에게는 이름을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돌쇠, 바위, 꺾쇠 등과 같이 천한 이름을 붙여 잡귀가 달라붙지 말고 무병 · 장수하기를 소망하였다.

2. 관례(冠禮)와 계례(笄禮)

옛날부터 사람이 성인이 될 때는 일정한 의례가 베풀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를 행하여 왔다. 이러한 관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고려 제4대 광종 16년(965) 이래 왕가에서 관례를 행하였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왕가를 비롯한 양반 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졌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통 관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남자는 성년기(15세에서 20세)가 되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뒤로 땋아 늘인 머리를 끌어올리어 상투를 틀고 망건과 갓을 쓰고 새 옷을 차려 입었다. 그리고 새로 자(字)가 주어진 뒤, 사당에 인사하고 어른께도 인사한다.

계례의 의식은 관례와 거의 같지만, 남자가 갓을 쓰는 대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다.

현대는 땋아 내린 머리가 없고, 상투나 쪽을 찌는 일이 없기 때문에 관례나 계례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어른이 된다는 뜻으로 성년식(成年式)을 치르기도 한다.

3. 혼인례(婚姻禮)

혼례는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는 관습이 있었는가 하면, 신랑이 한때 처가살이를 하는 풍습이 있어 '장가든다[入丈家]' 라는 말이 생겼다.

○ 의혼(議婚)

의혼이라 함은 혼인을 서로 의논하는 일로 주로 중매장이가 양가를 오가면서 상대방의 가계, 재산, 학식, 건강, 품위 등을 알리고 권유하여 청혼하게 하는 혼사의 첫 순서이다.

○ 허혼(許婚)

의혼에 따라 양가의 부모 사이에 승낙이 있었으므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신부측에서 허혼의 편지를 신랑될 사람의 집으로 보낸다.

○ 납채(納采)

신랑집에서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은 사성단자(四星單子)와 물목을 적어 신부집으로 보내는 절차이다.

○ 연길(涓吉)

위길은 택일을 말한다. 신랑집에서 사성단자가 오면 신부측에서는 결혼식 일자를 택일하여 신랑측에 통지하는 절차이다.

○ 납폐(納幣)

신랑집에서 신부용 혼수와 예의(禮衣 : 혼서지) 및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신부집에 보내는 것을 납폐라 한다. 이것을 '봉채(封采)', 혹은 '봉치' 라고도 한다.

○ 친영(親迎)

친영은 혼인날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예로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행례(行禮)를 하였는데 지금은 신부집에서 예를 하고 대개 3일을 묵고 난 후에 신부를 데리고 친가로 돌아온다.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것을 '신행(新行)' 또는 '우귀(于歸)' 라 한다.

○ 전안례(奠雁禮)와 초례(醮禮)

재래식 혼례 절차는 전안례와 초례를 치르는데, 신랑이 초례장에 마련된 전안상에 나무오리[木雁]를 올려놓고 재배하는 절차가 전안례이다. 초례는 신랑 신부가 첫 상면하는 예절로 동서로 갈라 앉아 합환주(合歡酒)를 마시며 백년 해로를 맹세하는 의식이다.

초례상은 송죽, 쌀, 암 · 수탉 1쌍, 5색실[五色絲], 술, 과일 등을 올려놓아 교배상(交拜床)이라고도 한다. 초례상을 중심으로 신랑은 동편에 서고 신부는 서편에 선다. 문중이나 마을에서 선발된 사람이 사회 겸 주례역을 맡아 혼례를 진행한다.

초례를 마친 당일,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치르는 일을 '동방화촉(洞房華燭)' 이라 일컬었으며 이때에 친척 및 마을 아낙네들이 상직(上直)한다 하여 신방의 문에 구멍을 뚫고 거동을 살피는 풍습은 잡귀와 외인의 신방 침입을 예방함이라 한다.

○ 신랑 다루기

신부의 일가 친척의 젊은 사람들이 신부와 합방을 치른 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그의 발바닥을 때리며, 남의 딸을 훔쳐간 죄를 묻는다. 물론 장난이지만 지나치면 예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여 식자들은 그 폐해를 말하고 있다.

4. 상장례(喪葬禮)

상례는 사람의 죽음을 맞아, 주검[屍]을 장례 절차에 따라 땅에 묻고, 근친들이 슬픔으로 근신하는 기간의 예절이다.

우리나라에서 상례는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들어와 유교의식으로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상례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현재는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의식에 의한 상례가 도입되고, 매사에 간략화를 추구하는 풍조로 인하여 많이 변모하였다. 경주지방의 상장례는 가문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초종(初終)

사람이 운명하여 염습(殮襲)할 때까지의 과정을 초종이라 한다.

○ 천거정침(遷居正寢)

환자의 병세가 위중하여 운명하게 될 때는 정침이나 대청으로 옮긴다. 이때 환자를 북쪽 창문 옆에 눕히고 머리를 동쪽에 둔다. 헌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 뒤 가족들이 둘러앉아 운명을 기다린다. 근래에 와서는 병원에 부설된 영안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 운명(殞命)

환자의 운명이 가까워지면 부드러운 솜을 코밑에 올려놓는데 숨이 끊겨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운명으로 판단한다.

○ 수시(收屍)

환자의 숨이 끊어지면 눈을 감기고 준비한 솜으로 입과 코, 귀를 막고 머리를 높게 하여 괸다.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펴고 백지로 시체의 얼굴을 가린 다음에 베 헝겊으로 좌우 어깨를 단단히 동이고, 두 팔과 손을 곱게 펴서 손을 배 위에 올려놓는데,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놓는다. 그리고 두 다리를 바르게 편 후에 두 발을 바로 모아 베로 동여 일그러지지 않게 덮는다.

○ 고복(皐復)

고복은 혼을 부르는 것으로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 수시가 끝난 뒤에 시체를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 채반에 밥 세 그릇과 짚신 세 켤레를 담아 대문 밖에 놓는다.

죽은 사람의 직계 자손이 아닌 한 사람이, 남자의 것은 두루마기[周衣]나 속적삼을, 여자의 것은 속적삼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북쪽을 향하여 옷을 휘두르면서 큰 목소리로 "해동 대한민국 ○ ○ 시 ○ ○ 동 ○ ○ 공 복(復), 복(復), 복(復)"하고 부른다. 죽은 사람이 관직이 있으면 "○ ○ 관 ○ ○ 공" 이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의 직분에 다라 "○ ○ 부인 ○ ○ 씨"라고 하거나 "유인 ○ ○ 씨"라고 한다. 옷은 지붕 위에 놓아두거나 시체 위에 덮고 곡한다.

고복은 운명한 직후에 떠도는 혼이 방향을 모른다 하여 죽은 사람이 평시에 입던 옷으로 복(復)을 불러 그 영혼이 다시 시신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 천시(遷屍)

고복 후에는 시상(屍床), 병풍, 포장 등을 마련하여 시신을 옮긴다. 이때 시신의 머리를 북향으로 두고 시신의 상하를 똑바로 하여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며, 포장이나 병풍으로 시신을 가린다.

○ 발상(發喪), 상주(喪主)

발상은 초상을 알리는 일이며, 아들, 딸, 며느리는 머리를 푼다. 상주는 죽은 사람의 장자가 되는데,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승중상(承重喪)으로 맏상주가 된다.

복인(服人)들 중 남자 상제는 흰 두루마기를 입으며, 아버지 상이면 왼편 소매를 끼지 않고 팔 밑에 여미고, 여자 상제는 흰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푼다.

○ 호상(護喪)

발상이 끝나면 친족이나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선정하여, 장례 진행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절차를 진행한다.

○ 부고(訃告)

상이 나면 친척이나 친지에게 부고를 낸다. 우편이나 인편을 이용하지만 요즈음은 신문에 게제하기도 한다.

○ 습(襲) · 염(殮)

사람이 죽으면 당일이나 다음날에 의복을 갈아입히는 절차가 있다. '습'은 죽은 사람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일로 시신의 목욕은 향나무를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정결하게 씻는다. 목욕을 시킬 때 목욕을 시키는 사람[侍者]이 방에 들어가면 상주 이하 전원이 방 밖에서 북향하고 기다린다.

습의(襲衣)는 남자의 것은 적삼, 고의, 보랏빛 저고리, 남색 두루마기, 바지, 행전, 버선, 허리띠, 대님, 복건, 검은 공단, 망건, 멱모[얼굴을 싸는 천], 악수[손을 싸는 천], 신[들매], 심의(深衣), 대대(大帶), 조대[실로 짠 띠], 충이(充耳:귀막) 등이고, 여자는 적삼, 속옷, 보랏빛 저고리, 초록빛곁마기, 허리띠, 바지, 다홍치마, 버선, 검은 공단모자, 악수, 신, 원삼(圓衫), 대대, 충의 등이다.

수의를 입힌 후 '반함(飯含)'이라 하여 찹쌀을 물에 불리었다가 물기를 빼고 버드나무 숟가락을 만들어서 세 술을 시구(屍口)에 넣으면서 "천석이오, 천석이오" 하고 외친다.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서 써야 할 식량과 재물이라 하기도 하나 사실은 시체의 빔[空]을 채우는 것이다.

'염'은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이 있다. 소렴은 시신을 묶는 절차이다. 소렴이 끝나면 괄발(括髮)이라 하여 주인, 주부가 머리를 삼끈으로 묶은 다음 삼끈 한 끝을 똬리처럼 틀고, 두건을 쓰며 흰옷에 중단을 입는다. 행건을 치고 복인은 모두 시체 앞에 곡한다. 다음 영좌(靈座)를 만들고 명정(銘旌)을 쓴다. 대렴은 시신을 모셔 입관하는 절차이다. 대렴이 끝나면 빈소 옆으로 여막을 짓고 크기는 반 칸쯤 하고 천장과 3면을 가린 바닥은 그 위에 짚베개를 만들어 놓는다.

2) 성복(成服), 복제(服制)

성복은 죽은 사람을 기리며 애도해 근친들이 일정 기간 입는 옷을 말한다. 전통 복제는 상복의 재질과 봉제 방법에 따라 오복(五服)이 있었고, 그것을 입는 기간에 따라 구복(九服)으로 나뉘어지기도 했다.

○ 성복(成服)

상복을 입는 절차로 대렴이 끝난 다음날 상주 이하 모든 유복자(有服者)는 척분(戚分)에 해당하는 그나름의 옷을 입는다. 상복으로 갈아입은 유복자는 영좌 앞에 제상을 갖추고, 곡하면서 분향하고 잔은 올린 다음 재배한다. 오늘날에는 그 정신

을 살리면서 구하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며 기간도 단축되고 있다.

○ 복제(服制)

옛날의 복제는 상복의 재질과 봉제 방법에 따라 오복(五服)이 있었고, 그것을 입는 기간에 따라 구복(九服)으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 참최(斬衰)

아들이 돌아간 아버지를 위해 입는 복, 또는 아버지가 돌아간 후 증조, 고조를 승중(承重)하는 자, 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입는 복이다. 거친 베로 짓되, 아랫도리는 접어서 꿰매지 않는다. 기간은 3년이다.

○ 자최(齊衰)

아들이 돌아간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인데, 기간은 3년이며, 부재모상(父在母喪)은 1년이다. 조금 굵은 삼베로 지어 좁게 접어서 꿰맨다.(제최는 잘못 읽는 것이다.)

○ 장기(杖朞)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부가 생존할 때 돌아간 조모를 위해 입는 복으로 지팡이를 잡는다. 승중할 때는 증조모, 고조모의 경우와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위할 때도 같다. 기간은 1년이다.

○ 부장기(不杖朞)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 ; 맏아들 아닌 기타의 아들]를 위해 입는 복으로 형제의 아들, 고모, 누이가 시집 안간 경우도 같다. 지팡이를 잡지 않으며, 기간은 1년이다.

○ 대공(大功)

돌아간 종형제자매를 위해 입는 복으로 중손(衆孫)에게도 같다. 기간은 9월이다.

○ 소공(小功)

종조부, 종조모,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제를 위해 입는 복이며, 외조모부와 외숙, 생질의 경우도 같다. 기간은 5월이다.

○ 시마(緦麻)

종증조부, 종증조모, 종조의 형제자매, 형제의 종손과 종조부, 종조모를 위한 복으로 기간은 3월이다.

3) 치장(治葬)

성복을 지낸 뒤 좋은 날을 택하여 장례를 치른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장례 기간이 달랐는데 대부(大夫)는 죽은 뒤 3개월만에, 사(士)는 달을 넘겨, 일반 서민들은 3, 5, 7일 만에 지냈으나 지금은 3일장, 5일장이 보편화되었다.

○ 득지택일(得地擇日)

묘지는 좋은 땅을 택하고 장사날을 정한다. 묘지는 길이나 도랑, 농경지 등을 피하고 토심(土心)이 깊고 물이 나지 않으면 되고 자손이 잘되기 위하여 택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나, 도선(道詵)선사 이후 풍수설에 따라 명당 찾기에 공을 많이 드렸다.

○ 개영역(開塋域)

상주가 일할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묘혈(墓穴)에 표말을 세우고, 토지신에게 제를 올리는데 이를 개토제(開土祭)라 한다.

○ 각지석(刻誌石)

사자의 성명, 세덕(世德), 사적(事蹟), 자손 등을 간단히 적어서 묘 앞에 묻는 것으로, 후일 봉분이 무너져 알아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나 지금은 묘비를 세우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 발인(發靷)

상여가 집을 뜨는 것을 발인이라 한다. 재여(載輿)가 끝나면 혼백상지를 의자 위에 봉안하고 음식을 진설한 다음 상주 이하 모두가 엎드려, 곡하는데 이것을 발인제라 한다. 발인제가 끝나면 제물을 상여꾼에게 대접하고 산지로 행한다. 장례 행렬은 명정, 공포(功布), 혼백(魂帛), 상여, 복인(服人), 조객 순으로 한다.

상여가 친척집 앞을 지날 때나 개울과 다리, 언덕이 있을 때에는 멈추기도 하는

데, 이때마다 복인들이 상여꾼에게 술값이나 담배값을 내놓는다.

○ 하관(下棺)

하관은 관을 광중(壙中)에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하관에 앞서 회(灰)와 흙을 고루 섞어 광중과 횡대(橫帶)에 바르고, 하관을 하는데, 상주가 고인에게 고이 잠드시라는 뜻에서 상, 중, 하 세 곳에 취토(取土)하고 봉분을 만든다. 묘 앞에는 묘비를 세우며 석물로는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을 배치하고 망주석(望柱石)을 좌우에 세운다.

○ 반혼(返魂:反哭)

장사를 지내고 상주 이하 모두가 영가(靈駕)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곡하는 것을 반혼 혹은 반곡이라 한다.

○ 우제(虞祭)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의 우제를 지낸다. 우제의 뜻은 시신을 지하에 매장했으므로 영혼이 안착 못하고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제를 지내어 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초우에는 반곡(返哭)하고 집에 돌아와서 당일에 지낸다. 만일 묘소가 먼 곳에 있어서 유숙하는 경우에는 유숙지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때 남자는 동편에 여자는 서편에 선다.

5. 제의례(祭儀禮)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연 현상과 천재지변의 발생을 놀라움과 공포의 눈으로 보았으며, 천(天), 지(地), 일(日), 월(月), 성신(星辰)과 산천에는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러 신령에게 재앙이 없는 안락한 생활을 기원하였는데, 이것이 제사의 기원이다.

사가의 제례는 고려시대에는 대부(大夫) 이상은 증조까지 3대, 6품 이상의 벼슬아치는 할아버지까지 2대, 7품 이하의 벼슬아치와 평민은 부모만을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를 지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고조까지 4대를 봉사하게 했다. 이 제의는 사당제(祠堂祭), 시제(時祭), 기제(忌祭), 묘제(墓祭), 절사(節祀) 등으로 나누어 지낸다.

1) 묘제(墓祭)와 가제(家祭)

탈상한 뒤에 신주(神主)를 사당에 모신다. 명절에는 절사(節祀), 기일(忌日)에는 기제(忌祭)를 지낸다.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는 묘제이고, 집 정침(正寢)에서 지내는 제사는 가제이다.

○ 시제(時祭)

시제는 춘하추동의 길일이나 절일(節日)에 받드는 제사로 사시제(四時祭)라 하여 봄은 2월, 여름은 5월, 가을은 8월, 겨울은 11월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골라 사당 신주에게 올린다.

경주 남산에서 '사제사(四祭寺)' 라는 글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된 적이 있어 사시제가 신라시대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 시조제(始祖祭), 선조제(先祖祭)

자기의 성씨를 개창한 시조께 매년 동지에 시조제를 지내고, 자기의 선조께 지내는 선조제를 매년 입춘에 지내는데, 각각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에서 지낸다.

○ 이제(禰祭)

부모의 생신일에 지내는 제의이다. 장소는 큰아들 집에서 위패를 모시고 지낸다.

○ 차례(茶禮)

우리나라에서 고래로 정월 초하루, 대보름, 한식, 단오, 동지 등 명절에 차례를 지냈으나, 근래에 와서는 설과 추석에 지내는데,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송편을 주찬으로 한다.

○ 세일사(歲一祀)

기일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직계 조상에 대하여 1년에 한 차례 지내는 제의이다. 세일사는 조상의 묘소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묘가 없을 때에는 특별히 모은 제단에서 지낸다.

○ 산신제(山神祭)

조상의 묘소가 있는 산신께 지내는 제의이며, 1년에 한 번 묘제 때 지낸다. 대개

묘소 동북쪽에 제단을 모으고 지내는데, 같은 장소에 여러 조상의 묘가 있더라도 한 곳에서 한 번만 지낸다.

2) 제수(祭羞)

제의에 쓰이는 음식을 제수(祭羞)라고 하며, 제수(祭需)는 제의에 필요한 금품이다. 제수의 종류와 진설하는 방법은 대개 다음과 같다.

식초 종지 1그릇, 메[제삿밥의 궁중어], 갱[羹 : 제수용으로 소고기와 무를 네모로 썰어 넣어 끓인 국], 숙수[熟水 : 밥알을 풀어 접시에 담은 냉수]는 신위 수대로 놓는다. 면[麵 : 국수], 병[餠 : 떡], 병청[餠淸 : 꿀이나 조청], 탕[湯 : 국], 전[煎 : 부침, 적(炙)이라고도 한다], 포[脯 : 생선을 말린 어포나 쇠고기를 말린 육포], 식혜(食醯), 김치, 간장, 과일[복숭아 등 털 있는 과일은 귀신을 놀라게 한다 하여 올리지 않는다], 과자, 술 등 인데, 경제적 사정이나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진설(陳設)

제사에 사용할 제수를 차리는 일을 진설이라 하는데, 가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신위(神位)는 북쪽 중앙에 모시고 남향하도록 한다. 제주가 신위를 향해 섰을 때 오른 쪽이 동쪽 왼쪽이 서편이 된다.

제주를 중심으로 제일 앞줄에 과일과 과자를 놓는다. 과일은 홍동백서(紅東白西)의 진설법을 따른다. 둘째 줄에는 나물을 놓는데, 좌포우혜(左脯右醯)에 따라 왼쪽에 포를 놓고, 오른쪽에 식혜를 놓는다. 나물은 생동숙서(生東熟西)에 따라 차리며 짝수로 진설한다.

셋째 줄은 탕을 차리는데 어동육서(魚東肉西)법을 따르고 고춧가루는 쓰지 않는다. 넷째 줄은 전[적]을 차리는데 적전중앙(炙煎中央), 생선은 동두서미(東頭西尾)에 따라 진설하고 비늘 없는 것은 쓰지 않는다. 동쪽에 떡을, 서쪽에 면이나 국수를 놓는다. 다섯째 줄은 뫼와 갱을 놓는데, 합설(合設)의 경우 고서비동(考西妣東)에 따라 아버지의 것은, 서쪽에 어머니의 것은 동쪽에 차린다.

3) 제의 절차(祭儀節次)

○ 강신(降神)

강신은 조상의 영혼을 맞아들이는 절차이다. 제주가 먼저 제상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집사가 술을 따라주면 받아서 모사[茅沙 : 깨긋한 모래에 마른 띠풀을 꽂음] 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는다. 집사가 술잔을 받아 제자리에 놓으면 제주는 두 번 절한다.

○ 참신(參神)

제주와 제관들이 신위에 인사하는 절차인데 두 번 절한다.

○ 초헌(初獻)

제주가 초헌관이 되어 무릎을 꿇고 앉으면, 집사자가 술잔을 건네주고 그 잔에 술을 붓는다. 제주는 술잔을 향불 위에서 세 번 돌리고 집사에게 준다. 집사는 술잔을 뫼와 갱 그릇 사이에 놓고, 저(箸)를 전 위에 올려놓으면 모든 참석자들이 꿇어앉는다.

○ 독축(讀祝)

조상을 기리고 자손들의 염원을 담아 읽는 것으로, 축관(祝官)이 축문을 읽는 동안 모두 꿇어앉아 있다가 축문이 끝나면 두 번 절한다.

○ 아헌(亞獻)

두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주가 초헌에서 했던 것처럼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아헌자는 지방에 따라 제주의 부인이 하기도 하나 대개 근친자 가운데서 정한다.

○ 종헌(終獻)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차례인데, 아헌자 다음의 근친자가 올린다. 절차는 초헌, 아헌과 같으나, 술잔은 가득 채우지 않는다.

○ 첨배(添配)

종헌을 드린 잔에 다시 술을 세 번 나누어 첨작한다.

○ 유식(侑食)

제사 때 삼헌작(三獻酌)과 삽시(揷匙)를 한 다음에, 제관들이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잠시 기다리는 일.

○ 계반삽시(啓飯揷匙)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 바닥이 동쪽으로 향하게 뫼 가운데에 꽂은 뒤 참례자 전원이 재배한다.

○ 합문(閤門)

참례자 전원이 방에서 물러 나와 문을 닫고 문 밖에서 2~3분 정도 꿇어 엎드리는데, 조상의 식사 시간을 말한다.

○ 계문(啓門)

합문(閤門) 후 식구반[食九飯 : 밥을 아홉 숟가락 떠먹을 만한 시간]이 지나면 제주가 헛기침을 세 번하고 문을 열면 모두 들어선다.

○ 헌다(獻茶)

갱 그릇을 내고 숭늉을 올린다. 그리고 메를 세 번 떠서 숭늉에 말고 숟가락은 숭늉그릇에 걸쳐 놓는다. 모든 참례자는 읍을 한다.

○ 철시복반(撤匙復飯)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 절차로, 모든 참례자는 두 번 절하고 지방과 축을 불사른다.

○ 철상(撤床)

제수를 물리는데 뒤에서부터 거둔다.

○ 음복(飮福)

선조께서 남기신 복된 음식을 자손들이 나누어 먹는 절차이며, 친척과 이웃에게 나누어준다.

4) 지방(紙榜), 축문(祝文)

○ 지방(紙榜)

지방은 신위를 대신하는 조상의 표상(表象)이다. 지방은 한지로 신주의 모양과 같이 위쪽은 둥글게, 아래쪽은 평평하게 하며, 크기는 신주 앞면의 크기와 같이

높이 24cm, 너비 6cm 정도로 하는데, 내외분을 함께 쓰는 경우는 정면을 향해 왼편에 남자, 오른 편에 여자로 한다.

아버지는 '현고(顯考)', 어머니는 '현비(顯妣)'라고 쓰며, 조상은 '고(考)'와 '비(妣)'자 앞에 '조(祖)', '증조(曾祖)', '고조(高祖)' 등으로 구분한다. 아내는 '顯'자를 쓰지 않고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 망인이 직명과 직급이 있으면 그대로 쓰고, 직급이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쓴다. 여자 조상으로서 남편의 벼슬이 있으면 '부인(夫人)'이라 쓰고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쓴다. 여자 조상이 직급과 직명이 있으면 그대로 쓴다. 남자 조상일 경우에는 '부군(府君)'이라 쓰고 여자 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같이 쓴다. 지방은 그대로 세울 수 없으므로 지방틀에 붙이기도 하며, 사진이나 초상화를 모실 때에도 지방을 함께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수연례(壽筵禮)

수연은 어른의 생신에 아랫사람들이 상을 차리고, 오래 사시기를 비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수연례라 하지 않고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라 하였다.

○ 육순(六旬)

나이 60세 때의 생신이다. 육순은 열[旬]이 여섯이란 말이고, 60갑자(甲子)를 모두 누리는 마지막 나이이다.

○ 회갑(回甲) : 환갑(還甲)

나이 61세 때의 생신이다. 60갑자를 모두 지내고, 다시 태어난 해의 간지가 돌아왔다는 의미이다.

○ 진갑(陳甲 : 進甲)

나이가 다시 60갑자가 펼쳐져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62세 때의 생신이다.

○ 희수(稀壽) : 칠순(七旬)

나이 70세 때의 생신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70세까지 살기는 드물다[人生七十古來稀]'는데서 희수란 말이 생겼다.

○ 희수(喜壽)

나이가 77세 때의 생신이다. '희(喜)' 자를 초서로 쓰면 '칠십칠(七十七)' 이 되는데서 유래하였다.

○ 팔순(八旬)

나이 80세 때의 생신이다. 열이 여덟이란 말이다.

○ 졸수(卒壽) : 구순(九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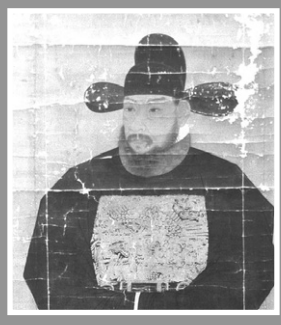
나이 90세 때의 생신이다. '졸(卒)' 자를 초서로 쓰면 '구십(九十)' 이라 쓰여지는데서 졸수라 하는데, '졸(卒)' 이란 '끝나다' '마치다' 의 뜻이므로, 열이 아홉이란 구순을 많이 쓴다.

○ 백수(白壽)

나이 99세 때의 생신이다. '백(白)' 자가 '백(百)' 자에서 '하나(一)' 를 뺀 글자이기 때문에 99로 의제(擬製)하여 말하는 것이다.

제9편 인물 人物






제1장 신라 · 고려시대
제2장 조선시대
제3장 근 · 현대

제1장 신라 · 고려시대

제1절 신라

1. 박제상(朴堤上)

박제상[朴堤上,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성(姓)을 김(金)이라 했다]은 이름을 모말이라고 했다. 그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후예로서 제5대 파사니사금의 5세손이며, 그의 조부는 갈문왕(葛文王) 아도(阿道)이고, 아버지는 물품으로 파진찬 벼슬을 지낸 충신이었다. 박제상 역시 제17대 나물왕(奈勿王)대에 출생하여 제19대 눌지왕(訥祗王)대까지 삼대에 걸쳐 충성과 절의로 공헌하였다. 그의 벼슬은 삽량주[歃良州, 지금의 양산] 간[干, 태수]이었으며, 사후 대아찬에 추증되었다. 부인은 당시의 혈족혼인의 풍습에 따라 그 외가에서 맞이하여 슬하에 세 딸을 두었는데 둘째 딸 보화는 후일 눌지왕의 왕자 미사흔(未斯欣)에게 출가하였다.

박제상이 삽량주 태수로 있을 무렵 신라 왕실은 고구려 · 백제 · 왜의 침범이 큰 걱정거리였으나, 그보다 왕제, 왕자의 볼모에 관한 난제를 안고 있었다. 나물왕 37년(393)에는 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는 비통한 일이 있었고, 그 10년 후인 실성왕 원년(402)에는 나물왕의 아들 미사흔(未斯欣)을 왜국에 볼모로 보낸 눈물겨운 일이 있었다. 또한 실성왕 11년(413)에는 역시 나물왕의 둘째 아들이요, 미사흔의 둘째 형인 복호(卜好)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야만 했다.

이렇게 20여 년 동안에 세 사람의 왕자 · 왕제들을 산 설고 물 선 타국에 볼모로 빼앗긴 신라의 왕실은 수심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왕실의 고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이 볼모 사건은 왕실 자체 내에서 빚어진 비애요, 고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실성(實聖)이 고구려 질자로부터 풀려나와 왕위에 오른 후 그 보복수단의 하나로 자기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나물왕의 아들 미사흔과 복호를 각각 왜국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던 것이다.

따라서 나물왕의 큰 아들 눌지가 실성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자 꿈에도 잊지 못할 두 아우를 본국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었다. 그리하여 매일 북

쪽 고구려의 하늘과 동남쪽 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혈육의 정을 잊지 못하였다.

왕은 마침내 즉위 다음해 문무백관을 모아 연회를 베푼 다음 두 아우를 데려올 방도를 구하게 되었다. 그 때 서불한(舒弗邯) 미사품(未斯品)이 아뢰기를, "대왕께서 말씀하신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인 줄 아옵니다. 만일 성사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흥망이 달린 일이오니 뛰어난 슬기와 용맹이 구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아뢰오. 그러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삽량주(지금의 양산) 태수 박제상이 적합한 인물인 줄 아뢰옵니다"라고 진언하였다.

왕은 즉시 박제상을 불러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는 복호를 구출할 것을 상의하니, 박제상은, "신이 듣자옵건대 자고로 임금에게 근심이 있아오면 신하의 욕이요, 임금께 욕됨이 있아오면 신하는 죽어 마땅하다 하였나이다. 일이 어렵고 쉬움을 생각한 연후에 행함은 불충스러운 일이옵고, 생사를 돌아보고 움직이면 이는 용기가 없다 할 것이오니, 신이 비록 어리석으나 감히 어명을 받들겠나이다,"하고 아뢰었다. 신라를 떠나 고구려로 간 박제상은 예의를 갖추고 장수왕(長壽王)을 만나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신이 듣자오니 서로 사귀는 길은 성신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볼모로써 사귀면, 즉 그것은 왕패의 행위에 지나지 아니 하오매 참으로 말세의 일이외다. 이제 우리 임금의 사랑하는 동생이 이곳에 있은 지 거의 10년이 되었나이다. 우리 임금님은 할미새가 들어 있는 것처럼 오래 보고싶어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만일 대왕께서 은혜를 베푸시와 돌려보내시면 아홉 마리 소에 터럭 하나가 빠짐같이 손될 바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우리 임금은 대왕의 덕을 헤아릴 것이오니 왕은 통촉하시옵소서."

고구려왕은 그 말을 듣고 과연 옳다고 생각하여 복호와 함께 돌려보냈다. 이는 탁월한 슬기와 용맹을 지닌 박제상의 희생적인 활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써 서라벌 왕실의 큰 고통을 덜고 왕을 기쁘게 했으니 때는 눌지왕 2년 (418) 가을이었다.



치술령 정상의 신모사지

아우 복호가 돌아왔으나 왕의 심중에 어찌 기쁨만이 있으리오. 복호 왕제를 보니 왜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미사흔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왕의 용안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본 박제상은 혼연히 입을 열어, "신이 미사흔 왕제를 모시고 오겠나이다."라고 한 마디 한 다음 재배 하

직하고 집에도 들리지 않은 채 왜국으로 향했다.

왜국에 도착한 박제상은 왜왕께 거짓 귀부한 다음 환대를 받고 볼모 미사흔 왕자와 어울리며 틈틈이 왜왕의 환심을 사서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탈출의 기회를 엿보던 박제상은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날을 택하여 마침내 왕제 미사흔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왕자 미사흔이 안심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끈 박제상은 마침내 왜왕 앞에 묶이어 갖은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신라의 신하로 숨을 거두었으니 눌지왕 3년(419) 정월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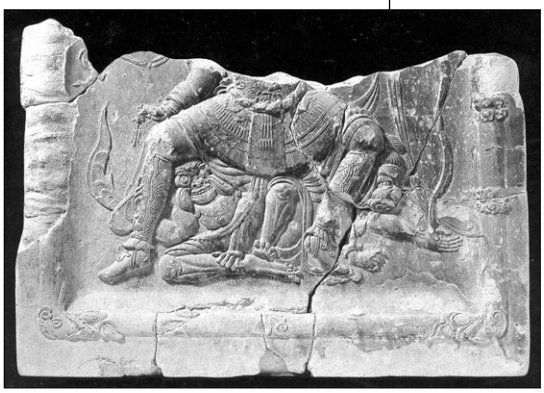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2. 양지(良志)

양지는 그 세계(世系)와 출생에 대해서는 전하는 것이 없지만 선덕왕 때에 크게 활약한 승려이다.

그가 석장(錫杖) 머리에 포대를 걸어 놓으면, 석장이 혼자 날아가 시주할 집 앞에 이르러 소리를 내었다. 시주자는 그 소리를 듣고 포대에 가득 시주하였고 석장은 다시 날아서 돌아왔다 하여 그가 거주하는 절을 석장사라 하였다.

그는 잡예에도 정통하였고 문장과 글씨도 뛰어났다. 영묘사(靈廟寺) 장육삼존과 천왕사(天王寺) 탑의 팔부신장과 법림사(法林寺)의 주불삼존과 좌우 금강신이 모두 그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영묘사, 법림사의 현판이 또 그의 글씨이다. 그는 또 벽돌을 새겨서 작은 탑을 만들고 그 안에 삼천불을 만들어 안봉하여 절 안에 두고 경배하였다 하니 천재조각가인 그의 솜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사천왕사 출토 채유사천왕상전

영묘사 장육상을 만들어 세울 때, 성내의 여자들이 앞을 다투어 흙을 날랐는데 그때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 '래여래여래여, 래여애반다라, 애반다의도량, 공덕수질여래여'

來如來如來如	오라 오라 오라
來如哀反多羅	오라 서럽더라
哀伴多矣徒良	서럽다 우리들이여
功德修叱如來如	공덕 닦으러 오라

그 뒤, 이곳 사람들은 절구질이나 힘쓸 때에는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장육상을 만들 때에 든 비용이 2만 3천 7백석인데 모두 입곡미로 이루었다. 이로 보면 양지는 진실로 재와 덕이 겸비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삼국유사』

3. 김 생(金 生)

김생은 부모가 가난한 탓인지 그 세계(世系)를 알 수 없다. 신라 성덕왕 10년(711)에 출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다. 평생토록 다른 기예를 공부하지 않고 나이 80이 넘도록 붓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으며, 예서, 행서, 초서가 모두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작품으로 창림사(昌林寺) 비는 중국에까지 경탄의 적이었다. 고려 초기에 집자한 태자사 낭공(朗空)대사 백월서운탑(白月栖雲塔) 비가 전한다.

고려 때의 일이다. 학사 홍관(洪灌)이 진봉사를 따라 송(宋)에 들어가서 변경[북송의 서울]에 묵고 있을 때, 한림대조 양구(楊球)와 이혁(李革)이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사관에 와서 그림 족자를 썼다. 홍관이 김생의 행초 한 권을 보이니, 두 사람이 크게 놀라며, "오늘 왕희지(王羲之) 선생의 글씨를 보게 될 줄 몰랐다."고 하였다. 홍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라인 김생이 쓴 것이다."고 하니 두 사람이 웃으며 천하에 어찌 왕희지가 아니고서 이런 묘필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이에 홍관이 여러 번 설명하였지만 끝내 믿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선생의 필법의 경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규보가 평하여 신품 4현 중 신품 제일이라하며 서성(書聖)이라 칭했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4. 솔거(率居)

솔거는 신라 제일의 화가로 화성(畵聖)이라 일컬어졌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의 출생이라 그 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천재적인 자질이 있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종이와 먹 등 변변한 화구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나, 틈만 나면 나무 꼬챙이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림에 관한 정규교육은 받은 적이 없었으나 뛰어난 천재에 절륜한 공부를 쌓아 신라 제1의 화가가 되었다. 그에게는 그의 이름을 천고에 빛낼

영광의 기회가 주어졌다. 신라 제1의 대가람 황룡사의 큰 벽에 노송도(老松圖)를 그리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솔거는 이제까지 갈고 닦은 재주와 솜씨에다 혼신의 정력과 영혼을 기울여 숭고한 신앙심과 조화를 이루어 황룡사 큰 절에 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티칸 대성당의 벽화를 그리듯 절의 벽에 노송을 그리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좋은 붓과 형형색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솔거의 손은 마치 부처님의 계시를 받은 양 신비스런 영감에 풍우가 치 듯, 붓을 날려 그려나갔다.

완성된 늙은 소나무는 몸뚱이가 거칠게 비늘지고, 가지가 꾸불꾸불 용트림하며 무수한 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하여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황룡사의 벽은 아침 햇살이 들 때나 저녁 해가 기웃이 넘어갈 무렵엔 희미한 빛을 받게 되므로 그때의 소나무는 더더욱 살아있는 듯하여 까마귀, 솔개, 참새 등 온갖 산새들이 날아와서는 나무 위에 앉으려다 벽에 부딪쳐 떨어지곤 했다. 그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노송의 색이 많이 바래지자 절의 승려가 단청으로 칠을 다시 하였더니 이후로 새들이 다시는 날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솔거의 그림 솜씨는 당대 뿐 아니라 천고에 떨쳐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을 떨쳤다. 솔거의 작품으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저 황룡사 노송이지만, 그 외에도 경주 분황사의 관음보살과, 진주 단속사(斷俗寺)의 유마상(維摩像) 등도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그림들은 당시와 이후 세상에서 신화로 일컬어지며 전해져 왔으나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는 없어져 찾아볼 수 없으니, 애석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는 신묘의 경지에 들어간 절세의 천재 화가로 한국 역사상 최고의 화성으로 꼽혀 김생의 서성과 병칭된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5. 옥보고(玉寶高)

신라 경덕왕(742~765)대의 악성으로 거문고[玄琴]의 대가다. 아비는 사찬 영공(永恭)이다. 일찍 지리산 운상원(雲上院)에 들어가 세상에 나오지 않고 거문고를 전공하여 오직 한길로 50년간을 닦아 신통한 경지에 다다랐다. 그는 불후의 명곡인 신조 삼십곡을 작곡했다.

그가 지은 30곡은 상원곡이 1편, 중원곡이 1편, 하원곡이 1편, 남해곡이 2편, 의암곡이 1편, 노인곡이 7편, 죽암곡이 2편, 현합곡이 1편, 춘조곡이 1편, 추석곡이 1편, 오사식곡이 1편, 원앙곡이 1편, 원호곡 6편, 비목곡 1편, 입실상곡 1편, 유곡

청성곡 1편, 항천성곡 1편이다.

거문고는 고구려의 제2수상인 악성 왕산악(王山岳)이 중국 진(晋)나라 칠현금을 본떠 만든 것인데 한국의 독특한 악기로 그는 100여곡을 작곡하여 연주하였는데 검은 학[玄鶴]이 날라 와서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현학금(玄鶴琴)이라 부르다가 뒤에는 현금이라 줄여 부르게 되었다. 천재작곡가며 연주가인 왕산악이 창제한 현금이 신라에 전해져 현금악이 일어난 것은 삼국 통일 이후의 일이었다. 즉 통일 후 25년이 지난 효조왕 2년(693) 경까지 현금은 적[만파식적]과 함께 월성 천존고(天尊庫)에 갈무리되었다가, 금마저[익산(益山)]의 보덕국[高麗國, 報德國]에 전승되어 오던 현금악을 옥보고가 이어받아 집대성하여 이를 후세에 전함으로써 크게 번성케 된 것이다.

옥보고는 그의 음악을 수제자인 속명득(續命得)에게 전하였다. 속명득은 다시 이를 귀금(貴金)선생에게 전함으로써 현금이 백악지장으로 숭상되었다. 경주 금오산 마루에는 그가 거문고를 타며 놀던 금송정(琴松亭)이 있었다. 전설에 그는 옥부신선이 되어 노고단 지리산에서 노닌다고 한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6. 귀금선생(貴金先生)

8세기 말 9세기 초의 신라 악성으로 현금의 대가였다. 옥보고가 집대성하여 수제자 속명득에 전수하고 속명득이 수제자인 귀금에게 전했다. 귀금은 옥보고처럼 지리산에 들어가 일로 정진하여 거문고를 대성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신라왕이 거문고 음악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을 근심하여 재상 이찬 윤흥에게 명하여 현금악을 전수하도록 간곡히 명하고 남원소경의 사신(지방장관)에 임명했다. 윤흥이 남원에 부임하여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안장(安長), 청장(淸長) 두 소년을 뽑아 지리산 산중에 가서 음악을 배우게 했다. 그러나 귀금선생은 음악을 가르치면서도 그 오묘한 경지는 숨기고 전수하지 않았다.

이에 윤흥은 진골의 고귀한 재상의 몸으로 부인과 함께 지리산중으로 귀금선생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공손히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나를 남원 사신으로 파견한 것은 선생의 음악을 전수받으라는 것이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선생이 음악의 비장한 오묘를 감추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 국왕께 복명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윤흥이 부인과 같이 가서 스승의 예를 다 올려 무릎으로 기면서 정성껏 술잔을

올림에 이에 감동하여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비장하던 표풍(飄風) 등 3곡을 전수했다.

이 얼마나 고고하고 위대한 악성 예술가의 풍모와 기상이었던가. 국왕의 칙명에도 진골재상의 간청에도 굽히지 않던 예술가의 꼿꼿한 기개와 자부심을, 그리고 그 예술가를 권력으로 누르려 하지 않고 스승의 예와 성으로 극진히 대우하던 신라인의 멋과 정성에 머리가 숙여진다. 안장은 그 아들 극상(克相), 극종(克宗)에게 음악을 전하였다. 극종은 7곡을 작곡했다. 이후로 현금악이 신라에서 발달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7. 위홍(魏弘)

희강왕(僖康王)의 아들 김계명의 아들이다. 김계명은 문성왕 10년에 시중(侍中)에 임명되었고, 그 후 각간(角干)에 올랐다. 또한 위홍은 경문왕의 아우요 헌강왕과 정강왕, 진성여왕의 숙부다. 헌강왕 1년(875) 이찬으로 상대등이 되었다. 이보다 4년 앞서 경문왕 11년(871)에 상재상 이간(伊干)으로 성전감수성탑사(成典監修成塔事) 수병부령평장사(守兵部令平章事) 이간이 되어 황룡사(皇龍寺) 구층탑을 중수하는 책임을 맡았다.

진성여왕이 즉위하자, 왕의 유모인 부호부인과 그 남편 위홍 이간은 왕의 총애를 받아 정사를 맡았다. 진성여왕은 북궁장공주(北宮長公主) 시절부터 위홍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임금이 되어서는 궁중에 불러들여 정치를 맡겼다. 그리고 위홍은 후일에 왕의 배필이 되었다. 진성왕 2년(889)에 위홍이 죽자 혜성대왕(惠成大王)을 추시(追諡)했다. 진성여왕은 사랑하는 위홍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해인사를 위홍[혜성대왕]의 원당 사찰로 삼았다.

위홍 부부가 진성여왕을 에워싸고 정사를 마음대로 휘둘러 기강이 해이하고 부패됨에 백성들이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喪伊沙婆訶

란 타라니 은어를 지어 써서 길가에 뿌렸다. 찰니나제(刹尼那帝)는 여왕을 판니판니소판니는 두 소판을 지칭한다. 우우삼아간은 소판의 명이요 부이(喪伊)는 부호부인이라 한다고 『삼국유사』에서는 말했다. 그러나 이때 위홍은 벌써 이찬 일등관이 된 지 오래고 삼등관 소판은 아니다. 진성여왕대는 각간[이벌찬]에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왕력(王曆)에는 각간(角干)이라 했다. 각간이 옳을 듯하다.

이 시정을 비방하는 사건으로 억울하게 대야주의 은사 거인(巨仁)이란 선비가 혐의를 받아 투옥되었다. 장차 형을 가하려 하매 벽에 시를 써 붙였다.

燕丹泣血虹穿日	연단의 피맺힌 울음 무지개 되어 해를 뚫고,
鄒衍含悲夏落霜	추연의 머금은 슬픔 여름에도 서리되어 내렸네.
今我失途還似舊	지금 내 처지 옛날과 같거니,
皇天何事不垂祥	황천은 어찌하여 아무 표적도 안 내리나.

라고 했더니, 홀연히 어두워지고 천둥과 벼락이 내려치고 우박이 쏟아졌다. 이에 여왕은 두려워 거인을 곧 석방했다. 이 시대에 지식인들이 얼마나 정부의 정치에 비판적이었고, 왕가는 그들의 여론을 탄압했던가를 알 만하다. 그와 같은 정치가 멸망하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니, 드디어 사방에서 백성들이 떠들고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다.

위홍은 왕족 중 국왕 다음의 상대등 각간이란 최고의 신분으로서 풍류재상이었다. 그는 향가에 조예가 깊어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 대구(大矩)화상이란 승려와 함께 신라 상 · 중 · 하대의 향가를 집대성한 향가대전을 만드니 이를 『삼대목』이라 한다. 이것이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세상에 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는 우리 문학사상의 한 금자탑이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8. 진흥왕(眞興王)

신라 제24대 진흥왕(534~576)은 백제의 근초고왕이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같이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영걸이다.

삼맥종(三麥宗) 또는 삼맥부(三麥夫)라고도 이름 하였던 김진흥은 재위 38년 동안 화랑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확장한 영토에 4개나 되는 순수비(巡狩碑)를 세웠고, 연호를 사용하여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각종의 불교사원을 건립, 불교문화의 육성에 기여했는가 하면 음악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괄목할 민족사적 업적을 남겼다.

진흥왕은 7세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한때 왕 태후의 섭정기가 있었지만, 40여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국내외 정사를 주체적으로 처리하여 후세에까지 영주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재위 기간은 곧 신라가 미약했던 국세를 회복 · 팽창하여 삼국통

일의 튼튼한 기초를 다진 때였다. 왕은 즉위 2년(541)에 명신 이사부(異斯夫 또는 伊斯夫)를 병부령으로 삼아 내외의 병마사를 맡도록 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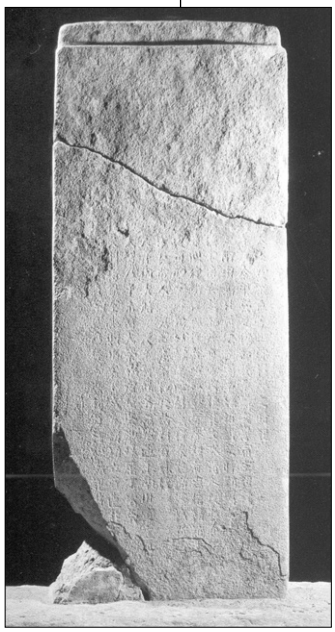
이어 재위 6년(545)에는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케 하였으니, 이는 국력의 신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자주의식의 발로이며, 중고기의 영광을 후세에 알리려는 역사의식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이즈음 북쪽에 있던 고구려가 동예와 연합하여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였으니, 신라는 이에 이웃 백제를 도와 고구려군을 격파함으로써 일찍이 맺은 백제와의 의리[나제동맹 433~553]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왕은 551년에 개국(開國), 568년에 대창(大昌), 572년에 홍제(鴻濟)라는 연호를 써서 자주적인 국가의식을 내외에 선양하였다. 뿐만 아니라, 악성 우륵으로 하여금 랑비성[청주]과 충주 탄금대에서 가야금을 연주케 하여 고유한 음악문화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계고(階古) · 법지(法知) · 만덕(萬德) 등에게는 우륵의 가야금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토록 독려하였으니 민족문화 창달에 힘쓴 공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왕의 영토확장 및 통일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 투철하였다. 551년에 백제와 연합하고 남하하는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백제가 한강하류를 차지한 틈을 이용해서 신라는 죽령 이북의 10개 군[지금의 강원도 일대]을 공취하였다. 553년에는 여세를 몰아 백제가 점령하였던 한강하류마저 차지하여 신주를 새로 설치하고 다스리니 120년 간 유지해오던 나제동맹은 와해되었다.

고령의 대가야까지 정복한 진흥왕은 백제와의 군사적 의리보다는 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앞세우고 한강 일대의 지리적 우위를 독차지하였다. 이때는 삼국이 통일되기 120년 전으로 통일을 위한 저력과 배경이 마련된 셈이다.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옥천 관산성에서 전사(554)한 것도 모두 이 때의 일로 신라의 국가적 팽창력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이듬해(555)에는 영토 확장의 징표로 우선 한강과 연해있는 북한산 비봉(碑峰)에 신료 · 승려와 같이 순수를 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력과시 및 통일에의 염원은 그대로 지속되어 영토확장지에 모두 4개의 순수비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즉 창녕비(昌寧碑) · 북한산비(北漢山碑) · 마운령비(磨雲嶺碑) · 황초령비(黃草嶺碑)를 수립한 것이 그것이다.


진흥왕 순수비(북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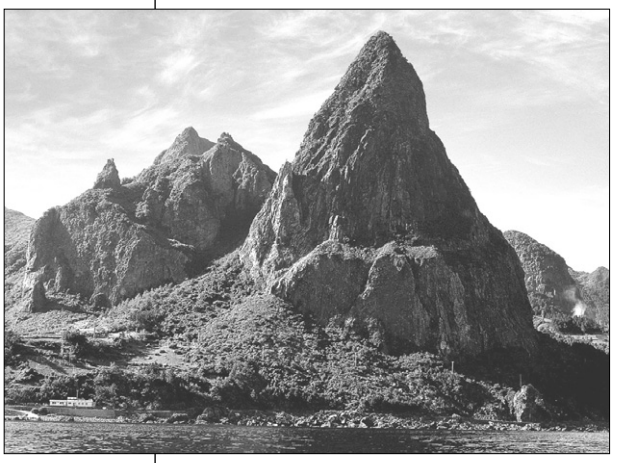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서도 왕은 국토확장과 국난극복의 의지를 살려 민중을 제도하고 국가의식과 자주사상을 주입하는데 게을리하지 않

았다. 그것은 곧 불교신앙을 통한 호국사상에로의 승화를 실현하는데 있었다. 왕 자신이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며 사도부인 박씨도 비구니였다. 따라서 다수의 사찰을 창건하거나 중건하였다. 유명한 황룡사를 13년(553~566)에 걸쳐 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기원사, 실제사, 갑사, 법주사 등의 대 · 소사찰을 세우고 다듬었다. 그리고 사리의 초전과 스님 혜량(惠亮)을 국통으로 삼고 백좌강회와 팔관회를 열게한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 3만 5천 여근, 도금 1만 1백 98분을 배합하여 주성한 황룡사의 장육상은 신라 3보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귀중한 보배로 기록되고 있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명인전(朝鮮名人傳)』

9. 이사부(異斯夫)

이사부는 성은 김이요, 나물왕의 4대손으로서 이름을 태종(苔宗)이라고도 하였다. 신라가 삼국의 일원으로서 비약적으로 발돋움하던 지증왕 이래 법흥왕 · 진흥왕의 3대에 걸쳐 정치 · 군사적으로 종횡무진 활동한 이가 바로 이사부다. 그의 활약상은 『삼국사기』의 곳곳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의 울릉도 송곳산

지증왕이 재위 6년에 국내의 주(州) · 군(郡) · 현(縣) 지방제도를 처음으로 제정하고 그 장관인 군주(軍主)를 파견할 적에 이사부는 이 군주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 왕의 이사부에 대한 신임도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특별히 재위 13년(512)에는 그동안 지세의 험함을 믿고 신라에 귀속하기를 거부했던 우산국 즉 울릉도를 이사부는 지혜를 모아 마침내 복속시켰던 것이다.

이는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 군주가 되어 부임했을 때 일이었다. 그때 이사부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산인은 사납지만 어리석으므로 위세로써 굴복시키기는 어려우나 계교를 써서 항복받을 수는 있다 하고 이에 목우사자(木偶獅子)를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달아 거짓말로 고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항복치 아니하면 이 맹수를 놓아 밟아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들이 마침내 항복하였다는 것이다.

진흥왕대에 병부령 이사부로서 중외의 병마사를 총괄하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국사편찬의 필요성을 왕에게 아뢰어 『국사』를 수찬케 하였다.

진흥왕 6년(545) 7월에 이찬 이사부는 왕에게 "국사란 것은 군신의 선악을 기록하여 그 상벌을 만대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기를 꾸미어 두지 않으면 후세에 무엇을 귀감으로 삼겠습니까?"하고 진언하여 왕으로 하여금 거칠부를 시켜 『국사』를 편찬케 하였다.

또한 국방을 맡은 명장으로서 진흥왕 11년(550)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싸워 국력이 소모되자, 이 틈을 타서 정병을 이끌고 양국을 공격, 백제의 금현성(金峴城)과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공함하여 신라의 영토로 삼았다.

동왕 23년(562)에는 반기를 든 가야를 쳐서 마침내 굴복시키는 등 혁혁한 무공을 올렸다. 진흥왕이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 명군으로서 이름을 더 높힐 수 있었던 저변에는 이사부 같은 명신 · 명장을 주위에 둘 수 있었던 덕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10. 거칠부(居柒夫)

거칠부는 일명 황종(荒宗)이라고도 부르며 성은 김씨요, 나물왕의 5대손인데 할아버지는 각간을 지낸 잉숙(仍宿)이며, 아버지는 이찬 물력(勿力)이었다.

삼국정립 때인 신라 진흥왕대에 이사부, 김무력과 함께 신라가 크게 웅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거칠부는 벼슬길에 올라서는 관직이 대아찬에 이르렀다. 특히 진흥왕 6년(554)에는 왕명을 받아 여러 문사들을 모아 『국사』를 수찬함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거칠부는 상대등이 되어 군국사무를 관장하다가 집에서 늙어 돌아가니 향년 78세였다.

거칠부는 소시에 사소한 일에 거리끼지 않고 원대한 뜻을 품어 출가하여 사방으로 구학하였다. 언젠가는 고구려를 정찰하려고 그 지경에 들어갔다가 법사 혜량(惠亮)이 경을 강설한다는 말을 듣고 나아가 들었다. 하루는 혜량이 묻기를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하므로 대답하되 "저는 신라사람입니다." 하였다. 그날 저녁에 법사가 그를 불러서 보고 손을 잡으며 은밀히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네 용모를 보니 분명 보통사람이 아니다. 아마 다른 마음을 가진 듯하다."고 하였다. 거칠부가 답하기를, "제가 편방(偏方)에서 태어나 도리를 듣지 못하다가 스승님의 덕망과 명성을 듣고 와서 말석에 참여하였사오니, 스승님은 거절하지 마시고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였다.

법사가 말하기를, "노승이 불민하지만 그대를 능히 알아볼 수 있다. 이 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자가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대가 잡힐까 염려하여 비밀히 알려주는 것이니 빨리 돌아가라"고 하였다.

거칠부가 돌아오려 할 때 법사가 또 말하기를 "그대의 상을 보니 제비턱에 매의 눈이라 장래에 반드시 장수가 될 것이다. 만일 군사를 거느리고 오거든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였다. 거칠부가 대답하여 "만일 스승님의 말씀과 같다면 애호를 같이 아니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저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합니다."하고 드디어 무사히 귀국하였다.

혜량법사의 말대로 거칠부는 진흥왕 12년(551) 왕명으로 구진(仇珍), 비태(比台), 탐지(耽知), 비서(非西), 노부(奴夫), 서력부(西力夫), 비차부(比次夫), 미진부(未珍夫) 등 8장군과 함께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였는데, 백제가 먼저 남평양[지금의 북한산]을 탈환함에 힘입어 죽령 이북의 10군을 점령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혜량법사가 무리를 이끌고 노상으로 나와 거칠부와 만났다.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군예로서 맞이하고 나아가 말하기를 "옛날 유학할 때에 법사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보존하였는데, 지금 의외에 서로 만나니, 어떻게 보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법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나라[고구려]의 정사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니 귀국 신라로 데려가 주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거칠부가 같이 수레를 타고 돌아와 왕께 알현하니, 왕이 혜량을 승통으로 삼고 처음으로 백좌강회(百座講會)와 팔관의 법을 설하였다. 거칠부는 실로 신라의 국위를 드높인 문무겸비의 인품을 갖춘 영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11. 지조부인(只召夫人, 6세기의 왕비)

신라 천년 역사상 이 부인 만큼 권력을 휘두른 여인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법흥왕의 딸로 어사추여랑[여사추 공주]으로 추정된다.

지조(只召)는 숙부인 사부지[입종(立宗)] 갈문왕과 혼인했다. 서석명기(書石銘記)에는 지몰시혜비(只沒尸兮妃)라 했다. 심맥부지[삼맥종(三麥宗)]를 낳았다. 심맥부지가 7살로 왕위에 올라 진흥왕이 되니 어미인 지조부인이 섭정을 했다. 진흥왕이 법흥왕의 연호인 건원을 쓰다 독자의 연호(年号)를 쓴 진흥왕 12년 즉 19살인 성년이 될 때 까지 섭정했다고 보겠다.

지조 부인은 진흥왕의 태자 동륜(銅輪)의 고모이면서 자신의 딸이 태자비가 되

었다. 지조는 진평왕의 외조모이고 진평왕은 동륜태자의 아들이다.

법흥왕이 노쇠하자 지몰시혜 공주와 그의 부군인 사부지(입종) 갈문왕과 함께 정사를 보았고 어린 아들 진흥왕의 섭정이 되어 정사를 맡았고 손자 진평왕을 옹립하는데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진평왕의 숙부 진지왕은 재위 4년 만에 물러나 죽었던 것이다. 지조태후는 신라 중고기를 풍미한 여걸이었고 진흥왕 성세를 연 여인이었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12. 사다함(斯多含)

약관의 나이로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은 이야기는 신라의 사다함(斯多含)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게 이 나라의 역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소년 화랑 사다함의 애국정신은 당시 신라가 처한 삼국대립의 역사적 상황에서 발휘된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정벌의 의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젊은 낭도의 구국충절의 의지는 오늘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현존 기록상 가장 앞선 시대의 화랑은 사다함이다. 사다함은 진골 출신으로 나물왕의 7대손이며 아버지는 구리지 급찬으로 문벌이 고귀한 명문 귀족이었을 뿐 아니라 모습이 곱고 그 뜻이 방정했다. 사람들의 추대로 화랑이 되니 일천 명이나 되는 낭도가 모두 그를 진심으로 따랐다.

562년 진흥왕이 이사부로 하여금 고령의 대가야를 토벌케 하였을 때, 나이 겨우 15~16세 이었던 사다함이 종군을 자원하였다. 왕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그의 출정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의 굳은 결의를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그의 종군으로 따르는 자가 많았다. 전장에 이르자 사다함은 다시 이사부 원수에게 자원하여 고령성문을 제일착으로 돌파하고 들어갔다. 선봉이 급습에 성공하자 대병이 물밀 듯이 뒤를 이어 대가야는 급기야 멸망하고 말았다.

개선한 사다함에게 왕이 내린 상은 대가야인 포로 3백 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을 모두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살게 하였다. 왕은 다시 좋은 땅을 주었으나 사다함은 굳이 사양하였다. 그래도 왕이 굳이 토지를 내리고자 하니 그가 마지못해 겨우 원한 것은 경주 알천[북천]의 쓸모없는 불모지였다 한다.

그런데 사다함은 평소에 동료 화랑인 무관랑에게 서로 사우되기를 다짐했는데 무관랑이 병사하였다. 사다함이 이를 슬퍼하며 통곡하더니 7일 만에 그도 따라 절명하고 말았으니 이때 그의 나이 겨우 17세였다. 그가 전장에 나가 용맹하였던

기개는 물론이려니와 동포를 사랑하는 애민 정신, 붕우간에 지킨 신의는 실로 화랑으로서 익힌 바를 몸소 행한 것이니 장하다 할 수밖에 없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13. 무력(武力)

무력 장군은 김유신의 조부이다. 공은 신라에 투항한 김관국(金官國) 최후의 왕후인 구해(仇亥)왕의 3자[노종, 무덕, 무력]로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4, 법흥왕 19년 조의 기록과 같이 그의 父王과 함께 신라에 투항하였으니, 『삼국유사』 기이 2 가락국기에 ① 세종(世宗), ② 무력(茂力), ③ 무득(茂得)이라 한 무력(茂力)에 해당한다. 진흥대왕순수관경비(眞興大王巡守管境碑)에 나오는 수가중신으로, 마운령비에 나타나는 사달부[沙喙部] 무력지잡간(另力智迊干)이 바로 그이니 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에도 등장함은 물론이다. 근년에 발견된 단양(丹陽) 적성비에는 사달부무력지[沙喙部武力智]라고 나온다. 『삼국사기』 제40 열전 1 김유신전에 조부 무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력장군은 금관국의 왕자로서 금관국이 망하자 그의 부왕 구해왕을 따라 법흥왕 19년(553)에 신라로 와서 진골에 편입되었다. 그의 이름은 진흥왕 15년(554) 관산성[지금의 옥천] 전투에서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이 불멸의 대회전인 관산성 전투는 백제에게는 만고에 남을 참패였고, 신라에게는 천고에 빛나는 승리의 금자탑이었다.

광개토왕, 장수왕 양대에 걸친 막강한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왕국의 심장부인 한수유역을 점령당하자 실지를 회복코자 오랜 숙적 백제와 나 · 제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격퇴시키고 상실한 한수유역의 영토를 수복하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이 신라의 배신행위에 격분한 백제의 성왕은 신라에 적대선언을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양국의 우호와 군사동맹은 파탄되고, 일전을 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량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한수유역의 점유는 이후 신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던 것이니 이로써 신라는 당과의 교통로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난을 극복하고 중흥대업을 도모한 성왕은 영매하고 과단성 있는 인걸로서 웅진에서 부여로 천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국토를 다시 찾겠다고 결심한 영주였다.

실지를 수복코자 왜, 가라의 군대와 연합하여 3만 대군으로 요새 관산성을 공



격하였다. 성왕의 왕자 여창이 거느린 대군은 서전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여세를 몰아 급타모라의 요새를 구축하였다. 이에 백제왕자의 군을 독려하기 위하여 성왕이 친히 대군을 지휘하였다.

『일본서기』에 왜도 병사 1천 명, 말 1백 필, 배 40척으로 원군을 보내었다고 기록되었으니, 성왕의 군은 백제, 왜, 가라의 3국 연합군이었던 듯하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초전에서 함산성[관산성을 이렇게 기록했다]을 함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관산성을 공격하여 오자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요격했으나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전에서 신라군이 불리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듯하다.

이때 신주군주인 무력장군이 급거 휘하 정예군을 이끌고 와서 공격함에 백제군은 퇴로를 차단당하고 신라군의 포위작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성왕은 깊은 밤을 이용하여 기병대로 구천[충북 옥천 부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잠복해 있던 신라 비장인 삼년산군[지금의 보은 부근]의 고간(高干) 도도(都刀) 부대의 기습공격을 받아 성왕이 전사하고 말았다. 이에 환호하는 신라의 사기는 충천하여 포위 공격작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백제군의 침통함과 사기의 저상은 말과 글로써 다 설명하기 어려웠다. 파죽지세로 공격을 단행하는 신라군에 국왕 이하 4인의 좌평[재상]과 29,600 인이 모두 옥쇄하고 말았던 것이다.

백제는 이 전투의 패전으로 중흥웅도는 영원히 꺾이게 되었고, 찬란하던 성왕의 치세와 그의 큰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신라는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 결과 가야지방에서의 백제의 세력은 완전히 퇴조하게 되고 려 · 제동맹 세력을 분단시킴으로써 반도의 심장부 한수유역을 장악한 신라는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무력장군의 명성이 드날리게 되었고, 진흥대왕의 성세를 이루게 되었다. 진흥대왕시대는 인재가 실로 많았으니 수상 거칠부, 이사부와 함께 무력지 그는 진흥왕대 3대 명장으로서 삼태성처럼 천고에 빛을 발하고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의 기초는 진흥왕대에 다져지게 된 것인 바, 그 공적은 김유신의 조부 무력장군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다. 관산성 대전의 결과 백제의 국력은 급전직하 쇠퇴 일로를 재촉하게 되었다.

백제 세력의 위축으로 신라는 안심하고 대가야작전(對加耶作戰)에 임하게 되어 진흥왕 23년 총사령관 이사부와 부사령관인 소년 화랑 사다함이 거느린 대군과 5천 기병대의 전위 공격대에 의하여 가야는 멸망하고 신라에 병합되고 말았다.

14. 김유신(金庾信)


김유신 영정
(통일전)

각간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혁혁한 공훈을 세운 절세의 명장이다. 그가 80평생을 통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은 위험과 고난을 마다않고 헌신적으로 분투한 때문이며, 금관가야의 후손으로서 신라 제일의 원훈이 되기까지의 견결하고도 비장한 분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모와 용기를 겸비한 무장 김유신의 생애를 더듬어보는 것은 큰 뜻이 있다 하겠다.

김유신의 부친 서현(舒玄)은 갈문왕 입종(立宗)의 손녀 만명(萬明)과 우연히 길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당시 신라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사회여서 왕족[골족]과 귀족[두품족] 사이에는 지켜야 할 계율이 있었다. 특히 신라왕족 사이에는 엄격한 근친 · 족내혼(族內婚)이 행해졌다. 그러므로 결혼계율을 어긴 죄로 만명은 감금되었으나 때마침 그 집에 벼락이 떨어지는 소동이 일어난 틈을 타서 탈출하여 지방의 태수로 나가 있던 김서현을 찾아가 혼인하고 유신을 낳게 되었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어 낭도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17세 때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번갈아 침공하는 것을 보고 조국의 수호를 마음 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중악[中嶽, 팔공산]의 석굴 속에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정신을 연마하게 되었다. 이같은 김유신의 기도에 감복한 산신이 그의 간청에 응하여 비법을 전수하였다고 한다.

유신의 생애에는 이러한 신령과의 교섭에 관한 일화가 많아서 그의 인물됨을 잘 알려 주고 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고구려 첩자 백석(白石)으로부터 죽음에서 모면한 것은 그 대표적인 일례이다.

이 밖에도 이웃나라에서 신라를 번갈아 침입해 오자 유신은 산신령으로부터 받은 보검을 가지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 다시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 기원 덕분에 보검에 영기가 서렸다고 『삼국사기』에서는 지적하였다. 이 보검으로 바위를 갈랐다고 하여 그 산을 단석산(斷石山)이라 하였는데 이곳은 유신이 중심이 된 용화향도(龍華香徒)들이 화랑정신으로 심신을 수련하던 영험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비상한 시련과 고초로 우뚝 선 김유신 등 화랑도의 힘은 삼국을 통일하는 원동

력이 되었다. 그는 같은 언어, 풍속, 제도 속에 한민족이 뭉치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여, 무열왕이나 문무왕 그리고 문무왕의 아우 김인문 등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곤 하였다. 특히 무열왕 김춘추는 유신의 동생 문희와 혼인한 것을 계기로 더욱 의기투합되어 대망의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번은 김춘추가 백제를 치기 위해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하러 간 일이 있었다. 이때 김춘추는 유신에게 뒷일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원병은커녕 김춘추는 고구려에 억류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신은 용사 3천 명을 모으고 말하기를, "한 사람의 결사의 용기는 백 명을 당하고 천 사람의 결사의 분투는 만 명을 당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 나라의 현상이 적국에 갇히어 있으니 일의 어려움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고 불같은 의기를 품으니 군졸들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호응하여 출동하게 되었다.

이 소식은 곧 고구려에 알려졌으며, 고구려에서도 돌아가면 죽령 이북의 반환에 노력하겠다는 김춘추의 약속을 믿기로 하여 드디어 춘추는 석방되었다. 이를 보아도 유신이 인심의 움직임을 명민하게 파악하는 탁월한 통솔력과 더불어 풍부한 연기(演技)의 소유자임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할 때 당의 힘을 빌렸으나, 당나라는 신라의 청원을 구실 삼아 한반도에 출병하여 백제는 물론 신라까지 삼키려는 심사였다. 백제가 망한 후 당은 신라를 침공할 음모를 꾸몄다. 이 기미를 안 김유신은 선수를 써서 당군과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신라의 결의에 주춤한 당군은 마침내 뒷날을 기약하고 백제의 군신 2만 여명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당나라 고종이 신라를 병합하지 못한 것을 크게 꾸짖으니 소정방은 답하여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오나 그 왕은 영명하고 그 신하는 충용하며, 그 백성들은 그 상전을 부모와 같이 섬기어 굳게 합심단결하고 있어서 도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아도 통일 전후의 신라가 상하의 구별 없이 얼마나 한뜻으로 잘 뭉쳐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군민이 합심 노력하여 신라는 마침내 당의 야욕마저 물리치고 통일을 이룩하였다. 김유신에게는 그 공으로 태대각간(太大角干)이란 최고의 관직이 주어졌다.

문무왕 13년 6월, 무기를 든 군졸 수십 명이 김유신 집 앞을 울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명이 다하였음을 알았다 한다. 이윽고 그 후 10여 일이 못되어 유신은 병상에 누워버렸다. 왕은 친히 유신을 위문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와 경은 어수지교(魚水之交)였는데 만약에 경이 떠나면 이 나라 이 백성은 어찌

할 것인가" 하고 탄식하자, 김유신은 "못난 신이 나라에 무슨 공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작은 공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명주의 변함없는 신임을 얻은 덕택이옵니다."라고 하면서 통일을 이룩한 후의 지키는 어려움을 순순히 충간하였다. 그해 7월 1일에 명장 김유신은 고요히 눈을 감으니 향년 79세였다(673).

김유신의 죽음은 당시 신라에 있어서는 나라의 기둥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특히 이때는 옛 고구려와 백제 땅에 머물고 있는 당군을 실력으로 몰아내는 대규모의 통일전쟁이 한창인 때였던 만큼 그에 대한 온 백성의 애도와 추모는 더욱 간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신은 이 곤란한 당군과의 전쟁이 반드시 승리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고 그 후의 태평세월에 있어서의 신라 군신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까지 지성을 다하여 간언하였던 것이다.

민족의 영웅 김유신의 생애는 또한 금관가야 출신으로서 골품제의 엄격한 신라 귀족사회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된 데도 우리는 항상 주시해야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日本書紀)』, 『당서(唐書)』

15. 무열왕(武烈王)



무열왕 영정
(통일전)

신라의 삼국통일이라 하면 우리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김춘추 곧 무열왕의 외교와 김유신의 전략인데, 특히 무열왕의 그 교묘하고도 출중한 외교적 수완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이 곧 국토를 통일해야 하는 중대한 싯점에 서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당시 신라가 안고 있었던 삼국관계의 복잡함은 오늘날의 국제정세에 비해도 좋을 만큼 미묘하고도 한층 어려웠던 것이다.

신라 천년에 인물도 많았으나 김춘추만큼 걸출하고 빼어난 영걸은 손꼽을 정도였다. 태종 무열왕으로 불리는 김춘추는 신라 제29대 왕으로서보다도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 외교정치가의 면모를 가진 인물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경주의 전형적 왕손인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이며 이찬벼슬을 지낸 용춘[일명 용수]의 아들이고 진평왕의 딸 천명부인이 어머니인 왕족이었다. 그 용모의 비범함과 심오한 통찰력은 가히 하나된 삼국을 이끌고 나갈 호탕스러운 기상으로 뭉쳐 있었던 것이다. 당 태종이 그를 찾은 김춘추의 인물됨을 보고 섬짓 놀라며 "신성인의 기개가 서려 있구먼." 하고 탄복할 정도였다. 그러나 조부 진지왕이 정



난황음의 죄로 왕위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는 내외 정세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왕위계승은 외조부인 진평왕으로 연결되었거니와 성골의 왕계에서도 배척되고 말았다. 용춘과 김춘추 부자는 권력과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공인으로서의 경륜을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진흥왕 이후 중국과의 직접적인 문물교류의 빈번함은 뜻있는 많은 신라 청년들에게 중국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에 김춘추도 글을 많이 읽고 만리의 창파를 헤쳐야만 대장부가 품고 있는 호연지기를 펼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어 골품으로 경직되어 있는 경주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게 마련이었다.

김춘추가 친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은 대륙문화에 대한 선망과 흠모일 것이고 그것을 신라에 수용하여 문화화한 것은 그의 원대한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이때 그의 불우한 입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물이 바로 금관가야왕계 김유신이었다. 나이는 비록 김유신이 8세 위인 터였으나 서로 왕의 외손자로 동지를 찾고 있었으므로 쉽게 밀착될 수 있었다.

이들의 가족적 융합을 더욱 긴밀하게 한 것은 골품상 불리한 점을 가진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가 김춘추와 결혼한 사실이었다. 김유신은 일부러 그의 매씨를 축국경기를 계기로 김춘추에게 접촉시켜 혼사를 성사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7세기 중엽 국가중흥과 통일과업 달성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국가적 해후이기도 하였다. 장래성 있고 박력있던 양 김씨는 서로 보충적인 입장에서 국가발전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일깨워 갔다.

이 시기의 국제정세는 격동기로 빠져 들어가 수 · 당이 교체되고 국내정세는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 속에서 방어에 여념이 없었던 때였다. 신라가 특히 친당정책을 취한 것은 국내적 위기의식을 불식하여 통일이라는 원대한 국가적 이상을 실현해 보고자 기도함에 있었던 것이다.

진평왕의 딸 선덕여왕이 왕위를 이은 뒤 백제의 침공이 날로 격화되었는데 선덕여왕11년 (642)에 의자왕은 윤충(允忠)을 시켜 마침내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말았다. 이때 대야성 도독은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인데 그 부인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졸지에 사위와 딸을 잃은 김춘추는 종일토록 기둥에 몸을 의지한 채 그 앞을 지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슬픔에 젖었었다고 한다. “아 어찌 대장부의 몸으로 나라의 원수, 가문의 원수를 무찌르지 못하리오.” 하고는 마침내 왕에게 청하여 고구려 청병의 길을 떠났다. 그는 고구려와 손잡고 백제를 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고구려가 불응하여 실패하였다. 청병에 실패한 김춘추의 호

국의지는 더욱 굳게 다져지고 통일의 염원도 한층 심화되었다.

그는 명석한 판단력과 달변으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수차 당나라를 오가는 가운데 당의 군사적 후원을 다짐받았다. 그의 소망은 이렇게 해서 착실히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춘추가 진덕여왕 때(648) 직접 당(唐)에 가서 보고 온 것 중 감명 깊었던 것은 국학에 가서 석전(釋奠)과 강론(講論)을 참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3년 뒤(651) 그의 의견을 좇아 집사부(執事部)가 설치되었으니 이는 신라의 관제가 정비되는 큰 디딤돌이 된 것으로 그 의미와 기여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춘추는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마침내 진골왕으로 즉위하자 즉시 이방부격(理方府格) 60여조를 공포하여 왕권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외교정책은 한시도 휴식이 있을 수 없다. 대당외교가 바로 우리의 살길이며 나라발전의 첩경이다."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친당외교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660년 무열왕은 마침내 나당연합군 결성을 실현시켰다. 따라서 상대등이 된 김유신과 왕자 법민[法敏, 문무왕]에게 5만의 대군을 주어 백제를 멸하게 하였다.

그의 즉위로 신라는 황금시대인 중대를 맞게 되었거니와 왕권의 전제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성장된 귀족세력을 배경으로 당식의 문물을 도입하여 관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일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구서당(九誓幢)」이라는 9개의 군단을 설치함으로써 군사조직을 정비하여 통일과업의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라."고 당부하였으니 그는 오늘도 호국과 통일을 위해 깊이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당서(新唐書)』, 『일본서기(日本書紀)』

16. 지조부인(智炤夫人)

무열왕의 셋째 딸로 김유신의 아내였다. 김유신의 환갑 해인 무열왕 2년(655) 혼인했다. 나이 차이는 40년 가량의 차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아들 다섯을 낳아 훌륭히 키우니, 이찬 삼광, 소판 원술, 해간 원정, 대아찬 원망과 딸을 넷을 두었다. 남편이 79세로 문무왕 13년(673)에 돌아가니 19년 간을 같이 살았다. 내조의 공이 절대하여 남편을 삼한통일의 영웅으로 만들었고, 현모양처의 귀감으로 자식을 잘 교육했다.

아들 원술이 상장 의복(義福) 춘장의 비장으로 출전하여 당군과 싸워 지고 돌아

옴에 가훈을 어겼다고 목을 베기를 주장했으나 국왕의 명으로 용서되었다. 원술은 아비가 두려워 시골에 숨어 아비 생전에 뵙지 못했다. 아비 사후 찾아와 어미를 베옵고자 하니 지조부인이 말하기를 "부인은 삼종의 의리가 있다. 내가 지금 과부가 되었으니 아들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원술같은 자는 이미 선군에게 아들노릇을 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 어미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그 후 원술은 당군을 격파 큰 공을 세우고도 끝내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정도로 교육이 엄했다. 속으로는 모자의 자정에 입술을 깨물고 울었으리라.

부인은 유신이 죽고 40년 후인 성덕왕 11년(712) 8월에 왕이 부인의 공덕을 찬양하여 '부인'을 봉하고 해마다 곡식 14석을 주기로 한 것을 보면 이때까지 생존했었다. 부인은 왕의 배필의 칭호다. 왕비가 부인이다. 그 후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 만년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세상을 마쳤다 한다. 부인은 스키피오의 딸로 30살이 위인 그라크스에 시집가서 유명한 호민관 그락크스 형제를 키운 코르네리아와 비교될 만한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17. 문무왕(文武王)

문무왕(661~681)은 신라 제 30대의 왕으로서 20년 동안 재위하면서 숙원인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을 만한 명군 중의 한 사람이다. 태종무열왕의 맏아들로서 이름을 법민(法敏)이라 했다.



문무왕 영정 (통일전)

무열왕 김춘추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법민을 태자로 삼았다. 무열왕에게는 그 외에도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태자 법민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아우 인문 그리고 처남 유신과 더불어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심신을 다 바쳐온 유능한 화랑이었다.

660년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자 태자 법민은 김유신과 같이 신라의 군대를 지휘, 백제를 멸망시켰다. 다음해 고구려를 정벌할 때도 전진에 나아가 직접 신라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왕의 부음을 듣고 달려와 왕위(王位)에 올랐다. 왕은 즉위 후 백제의 잔당을 소탕하는데 힘쓰는 한편 당의 문

물과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과 우의를 다지는 외교적 노력을 거듭했다.

마침내 666년 당나라의 원군을 얻는데 성공, 2년 동안의 전투 끝에 668년 8월 왕은 당군과 합세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대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삼국의 끝없는 전쟁이 아니라 한민족으로서 통일되어야 할 역사적 운명을 성취시킨 우리 역사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위업이었다.

왕의 일생은 결코 무사태평한 세월이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시련이 그치지 않았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도호부(都護府)를 두고 이를 삼키려는 음모를 꾸몄다.

당에 가 있던 김인문이 이 소식을 듣고 유학승 의상(義湘)을 통해 왕께 전했다. 왕을 도와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앞날을 건지려는 노력에는 불교승려들이 솔선하여 참여했다. 명랑법사(明朗法師)는 낭산의 남쪽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세우고 밀교의 비법을 써서 당의 군선(軍船)을 침몰케 하였다.

왕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불력은 곧 국력이므로 부처님의 가호를 비는 국가적 행사가 더욱 확산되어야 하오" 당이 김인문을 감금하자 인용사라는 절을 짓고 관음도량을 개설하여 모든 재액에서 구해 주는 관음보살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다. 인문이 귀국 도중 해상에서 죽자 이번에는 미타도장을 열어 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왕의 시대에는 탁월한 고승들이 즐비하게 활약하였다. 의상, 명랑 외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있었고 승전(勝詮), 혜통(惠通), 낭지(朗智), 지통(智通), 의안(義安), 지의(智義) 등이 있었다.

왕은 항상 두터운 신심을 가지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또 당시의 승려들은 한결같이 대중보살의 적극적인 현실참여의 정신을 생활화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정치와 종교는 표리일체를 이루어 호법이 호국이요 호국이 곧 불법(佛法)이라 믿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신라의 국토가 항상 불국토라는 신념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땅의 천지자연이 그대로 자기의 심신이나 다를 바가 없어 '죽는 것이 오히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으로 왕은 바다로부터 오는 왜구의 횡포와 노략질에도 만만치 않은 경계를 해야만 했다. 왕은 미리 국방의 대책을 세워 방어시설과 군량 확보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하들의 충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명군이었다. 한번은 의상이, "정치와 종교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성을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축성과 백성들의 정신교육에 똑 같은 무게를 두게 되었다.

왕은 불교를 깊이 믿어 불교 의식의 장례를 원하여 시신을 화장하여 동해의 바위 사이에 수장토록 하였다. "나는 이미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다. 짐승들의 먹이가 되느니 보다, 차라리 바다에 묻혀 호국의 용왕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는 왕의 측근인 지의법사에게 경건하게 남기고 간 말씀이다. 사실 왕은 죽어서도 호국의 염원과 위력을 발휘하였다. 아들 신문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상의 국보로서 만파식적을 문무왕 해중릉에 돋아난 대나무에서 얻었다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사후에까지 길이길이 이 나라를 지키려는 왕의 유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18. 김인문(金仁問)

김인문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즈음 당을 오가며 뛰어난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여 그 일익을 담당했던 정치외교가이다. 김인문의 자는 인수(仁壽)이며,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이고 문무왕의 동생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유가의 서적을 탐독하고, 겸하여 『장자(莊子)』, 『노자(老子)』는 물론 불서(佛書)도 섭렵하였다 한다. 또한 예서(隸書)와 사(射), 어(御), 향악(鄕樂)을 잘하였으며, 기예가 남다르고 식견이나 도량이 넓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마침내 진덕여왕 5년(651) 왕명으로 인문은 당으로 숙위의 길을 떠났다. 당나라 고종은 인문이 나이 겨우 23세로 바다 멀리 왔으니 충성을 가상히 여겨 좌령군위장군(左領軍衛將軍)을 제수하였다. 656년에 귀국한 인문은 압독주총관(押督州摠管)이 되어 장산성[경북 경산]을 쌓아 국방에 힘쓰기도 하였다.

뒤에 인문은 당나라에 파견되어 나당연합군의 조직에 성공하여, 무열왕 7년(660) 김인문은 신구도부대총관(神丘道副大摠管)으로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무열왕은 인문의 공을 가상히 여겨 파진찬을 제수하고 또 각간(角干)을 더하여 주었다. 얼마후 인문은 당에 들어가 전과 같이 숙위하였다.

문무왕 8년(668)에 귀국하여 인문은 2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당군과 연합,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문무왕은 인문의 영략과 용공을 높이 평가하여 죽은 대각간 박유(朴紐)의 식읍(食邑) 5백호를 그에게 내렸다. 당 고종도 인문의 전공이 적지 않음을 듣고 "조아의 양장이요, 문무의 영재이다. 작(爵)을 제정하고 봉읍을 설하는 아름다운 명을 내림이 마땅하겠다." 하고 작위를 더하고 식읍 2천 호를 더하였다. 그 후로 당의 궁궐에서 시위하여 많은 세월을 보냈다.

인문은 우효위(右驍衛) 원외대장군임해군공(員外大將軍臨海郡公)으로 있다가 674년 당 고종에 의해 문무왕의 관작이 박탈당하자 계림주대도독개부의동삼사(雞林州大都督開府儀同三司)에 임명되어 형인 문무왕을 대신하여 신라왕에 봉해졌으나 때마침 문무왕이 사신을 보내어 사죄함으로써 복위되자 인문은 그대로 당경에 머물며 679년 진군대장군행우무위위대장군(鎭軍大將軍行右武威衛大將軍), 다시 690년(신문왕 10년) 보국대장군상주국임해군개국공좌우림군장군(輔國大將軍上柱國臨海郡開國公左羽林軍將軍)이 되었다. 그러다가 효조왕 3년(694) 4월 29일에 병으로 누워 당경에서 죽으니 향년이 66세였다.

영구는 신라에 호송되고 효조왕으로부터 태대각간에 추증되었으며, 이듬해 경주 서원에 장사지냈다. 인문이 일곱 번 당에 들어가 그 조정에서 숙위한 년월을 계산하면 무릇 22년이나 된다 하니 삼국통일에 쏟은 그의 충성을 헤아릴 만하지 않는가?

참고 문헌 : 『삼국사기』

19. 당천(當千)

당천은 신라 문무왕 때의 장군으로 출신지와 세계(世系)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여 삼국통일의 위업을 거의 다 이루었을 즈음, 돌연히 드러난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에 맞서 당군 축출을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였다. 문무왕 11년(671) 9월 당의 장군 고간(高侃) 등이 말갈병 4만을 거느리고 평양에 이르러 구거(溝渠)를 깊이 파고, 성루를 높이 하고는 대방(帶方)을 침범하였다.

이들의 세력은 강성하여, 그 말발굽이 한반도의 다른 곳까지 얼마나 짓밟게 될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대국에 맞서 싸움을 벌이게 된 신라는 흥망이 걸린 문제라 치열하게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달인 10월 6일, 당측은 자군 진영에 식량과 무기 등의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운송선 70여 척을 띄워 보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한 신라 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대를 출동시켜 날랜 병사들로 하여금 그 보급선을 습격케 했다. 양측은 서로 격렬하게 맞붙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마침내 승리는 신라측에게로 돌아와, 당의 낭장 겸이대후(鉗耳大侯)를 비롯하여 사졸 백 여인을 사로잡게 되었으며 이 밖에 물에 빠져 죽은 당군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급찬이던 당천(當千)은 이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결과 전공이 제 1위라 하여, 사찬(沙飡)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각 전투에서 당천의 뛰어난

전투능력은 계속 발휘되어 그가 지휘하는 신라 수군은 연전연승 당 함대를 격파했다. 그는 한국해전사상 위대한 해군 제독의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20. 설총(薛聰)

설총에 관한 기록은 참으로 뚜렷하지 않아서 언제 출생하여 언제 죽었는지, 또는 어느 때에 무엇을 했는지 분명치 않다. 오직 신라 통일 후의 대학자요, 특히 '신라 십현' 의 한 사람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그가 신라 때의 대학자로 혹은 국학의 개조로 후세의 숭앙을 받고는 있지만, 명성에 비하여 기록이 부족하다.

설총은 신라 통일기의 고승 원효와 요석공주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원효와 요석공주와의 만남이 무열왕대에 이루어졌으므로 미루어 설총은 654~660년 사이에 출생한 것이라 여겨진다. 설총의 자는 총지(聰智)이며, 그의 활약은 신라 통일기의 문화가 번성하던 신문왕(681~691)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대는 물론 불교가 왕성하던 때였지만 당과의 잦은 왕래 때문에 중국의 유교나 한문학과 접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불교가 왕성한 속에서도 유교와 중국 학문이 크게 일어났다. 신문왕 2년에 이르러 국학[지금의 국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발전의 소산이었다.

국학의 교과목은 ① 『예기(禮記)』, 『주역(周易)』, 『논어(論語)』, 『효경(孝經)』, ② 『춘추좌전(春秋左傳)』, 『모시(毛詩)』, 『논어(論語)』, 『효경(孝經)』, ③ 『상서(尙書)』, 『논어(論語)』, 『효경(孝經)』, 『문선(文選)』이었다. 유교와 중국 학문에 정통했던 설총이 이 같은 신문왕의 국학진흥책에 일익을 담당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설총은 "우리 국어로 아홉 가지 중국 경서를 읽어 후생들을 가르쳤다"고 했으며, 또한 『삼국사기』에는 "중국 경사나 역사에 널리 통하여 신라 십현 중의 한 사람이었다. 우리 나라 발음으로 중국과 동방민족의 언어의 물건 이름을 잘 적었고 중국 경서와 문학을 풀어 새겼다"고 하였다.

「서동요」는 진평왕(579~631) 때 작품이요, 「혜성가」도 그렇고 「풍요」도 선덕왕(632~647) 때 작품이고 보면 설총이 출생하기 전에 벌써 이두의 글로 노래를 지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설총은 중국 고전인 경서를 읽고 새기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한문을 국어화하고 한학 또는 유학의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큰 학자의 작품이 하나도 전해 오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그가 신문왕의 잘못을 풍자한 「화왕계(花王誡)」 일편은 참으로 우리 나라 풍자문학의 효시가 될 뿐 아니라, 그의 완곡 · 염일한 문장은 신라의 일대를 살펴보아도 비견할 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구두(口頭)로 전해 완전한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설총의 사상적 측면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음은 다행이다.

설총의 장한 점은 다시 없이 흥왕한 신라의 불교보다도 유학에 뜻을 두고 그 진흥에 힘썼다는 것이다.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세워 유학을 크게 부흥시킨 것이 과연 설총의 힘에 말미암은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해도, 이러한 시대풍조를 고취시키는데 설총의 힘이 더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때에 가서 그를 홍유후(弘儒侯)로 삼고 문묘에 모셔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그의 영향력이 그때까지 혁혁했던 탓이 아닌가 한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21. 의상(義湘)

『송고승전』을 보면 의상의 속성은 박씨요, 신라의 계림부 사람이라 한다. 출생연대에 대하여는 620년 설과 625년 설이 있고, 출가 시기에 대해서도 29세 설이 있으나 최근의 고증에 의하면 20세에 출가하고 78세에 입적한 듯하다.

그는 선덕여왕 13년(644) 경 황복사(皇福寺)에서 중이 되고 문무왕 원년(661)이 되어서는 마침내 해로(海路)로 당나라에 가서 지상사(至相寺) 지엄삼장(智儼三藏)의 문하에서 『화엄경』을 배웠다. 그 후 671년에 귀국하였고 676년 왕명으로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화엄경을 강론하여 우리나라 화엄종의 창시자가 되었다.

의상은 당에 가기 전에도 원효를 선배로 섬겨 존경하고 보덕화상(普德和尙)에게서 『열반경』과 『유마경』을 함께 배웠다고 한다. 당나라에 머무는 8년 간 지엄대사에게서 화엄학을 연구하는 한편 또 남산 도선율사(道宣律師)와 교유한 일이 있고 의정(義淨)의 세예법(洗穢法)이라는 것도 행했다고 하니 대사는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다. 『삼국유사』에는 그의 제자로 오진, 지통, 표훈, 진정, 진장, 도융, 양원, 상원, 능인, 의적 등 10명이 열거되어 있다.

의상은 10산에 머무르면서 비법을 전했다 한다. 그 10산이라 함은 공산(公山) 미리사(美理寺), 지리산(智異山) 화엄사(華嚴寺), 북악(北岳) 부석사(浮石寺),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 웅주(熊州) 보원사(普願寺), 계룡산(鷄龍山) 갑사(岬寺), 삭주(朔州) 화산사(華山寺), 금정산(金井山) 범어사(梵語寺), 비슬산(琵瑟山)

옥천사(玉泉寺), 전주(全州)의 모산(母山) 국신사(國神寺) 등이 그것이다.


의상대사 영정

불서목록(佛書目錄)에 의하면 의상대사의 저서로서 『십문간법관(十門看法觀)』, 『입법계품초기(入法界品鈔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것은 『화엄일승법계도』와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이라는 간단한 글월 한 편 뿐이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저서로 보아서는 대사의 원대한 학덕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문헌을 통해 보면 대사의 그 높은 학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송대 찬녕 저(贊寧著) 『송고승전』 권 4권에 의상대사의 전기가 실려 있는 바,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놀랄만한 사실인 것이다. 송나라로서 우리 신라를 볼 때는 조그마한 소국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당시 송나라 학자들의 안중에 없었을 것이나 의상의 출중한 명성이 찬녕으로 하여금 대사의 전기를 싣게 만들었던 것같다. 그 전기 중 특히 주목되는 사건만을 들어 본다면 중국의 화엄종조인 법장 현수(法藏 賢首)와 지엄선사의 문하에서 동문수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수가 대사를 학형(學兄)으로 존경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수는 신라인인 승전법사(勝詮法師)가 귀국하는 편에 문안 서신과 함께 그의 저서 『탐현기(探玄記)』 20권, 『교분기(敎分記)』 3권, 『현의장등잡의(玄義章等雜儀)』 1권, 『화엄범어(華嚴梵語)』 1권, 『기신론소(起信論疏)』 2권, 『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 1권, 『법계무차별론소(法界無差別論疏)』 1권 등 저서를 보내어 이것을 검영해 주기를 부탁해 왔다 하였으니 이것은 막역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법장의 편지가 전래한 것은 신라 효조왕(孝昭王) 원년(692)이었다.

또 최치원이 지은 『법장화상전』에 의하면, 법장의 저서를 받은 의상대사는 이것을 스스로 검토하느라고 방문을 닫아걸고 진지하게 탐토한 후, 특히 그 중에서 『탐현기』20권은 진정, 상원, 양원, 표훈 등 네 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5권씩을 분강시키고 이에 일러 말하되 넓히는 자는 장공(藏公)이요, 나를 일으키는 자는 너희들이다 라고 하셨다한다. 의상대사의 사상이 불교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불교 중에서도 화엄사상이었을 것은 상술한 바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에 소개된 그 유저만으로서는 대사의 화엄경관(華嚴經觀)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가령 당나라 법장의 화엄경관이라 하면 불타 일대의 교설을 시간적으로 보아 ① 소승교[즉 아함경(阿含經)], ② 대승시교[즉 해심밀교(解深密敎)], ③ 종교[즉 릉가

경(楞伽經), 승만경(勝鬘經)], ④ 돈교[頓教, 즉 유마경(維摩經)], ⑤ 원교[즉 화엄경(華嚴經)] 등 5교로 분류하여 화엄경을 일대제경 중 최고 위에 올려 놓았다.

또 사상 내용을 공간적으로 검토해서 10종으로 분류하여 보았으니, ① 아공법유종(我空法有宗), ② 법유아무종(法有我無宗), ③ 법무거래종(法無去來宗), ④ 현통가실종(現通假實宗), ⑤ 속망진실종(俗妄眞實宗), ⑥ 제법단명종(諸法但名宗), ⑦ 일체개공종(一切皆空宗), ⑧ 진덕부공종(眞德不空宗), ⑨ 상상구절종(相想俱絕宗), ⑩ 원명구덕종(圓明具德宗)이라 한 것으로 이에 ⑩ 원명구덕종(圓明具德宗)이란 곧 화엄경의 사상을 말한 것으로서 화엄경의 사상은 가장 원만하고도 심오한 경이라고 판석하여 왔다.

그런데 의상대사는 법장의 『화엄탐현기(華嚴探玄記)』를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강설하게 하였다 하니 법장의 설을 그대로 인정하였단 말인가? 이러한 학설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다. 이 점은 의상대사 뿐만 아니라 그 문하와 우리나라 후세의 화엄학자도 모두 그러하다. 만약 이 점을 양국 화엄경관의 비교적 견지에서 본다면 대사의 화엄경관은 아마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견지가 서로 달랐던 데서 온 차이가 아닐까? 중국 법장의 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그 화엄경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모양이니 그것은 중국은 화엄경 중에 내포되어 있는 교리를 발휘하여 조직하는데 그 특색이 있었음에 비하여 의상대사의 화엄관은 경중에 소장한 원융무애(圓融無礙)의 교리를 실천수행에 의하여 체득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던 것이 아닌가. 즉 저쪽은 학설조직위주요, 이쪽은 원리체득위주였던 것 같다.

그 원리체득의 결정이 다름 아닌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운운의 일승법계도인 것이다. 이러한 걸작은 많은 저작을 남기고 있는 법장의 저서 중에도 이에 비교할 것이 없음에 의해서도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사의 호국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실을 부기해 둔다. 대사가 당나라에 가 있을 때 대사보다도 먼저 가있던 신라 재상 김흠순(金欽純)이 정치적 모략으로 당나라에 감금이 되어 있었던 바 당 고종이 장차 신라를 대거 정벌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탐지하였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의상대사에게 알려 먼저 귀국하도록 종용하였던지라 대사는 함형 원년(670)에 귀국해서 조정에 보고하여 신라는 신인종(神印宗) 명랑대사(明朗大師)로 하여금 불교의 양재법(穰災法)을 베풀어서 국난을 면하게 하는 공을 세웠다. 이때의 고승들은 법을 구하면서도 항상 호국 · 애국의 정신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원종문류(圓宗文類)』, 『송고승전(宋高僧傳)』

22. 원효(元曉)


원효대사 영정

원효대사의 행적은 『송고승전』 권 4, 일연의 『삼국유사』 권 4등에 자세하다. 이에 의해 보면 대사의 속성은 설씨로 신라 진평왕 39년(617) 압량군의 남(南) 불지촌(佛地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바 압량이란 지금의 경산이요, 불지촌[혹은 발지촌]이란 지금의 경상북도 자인현(慈仁縣)이다. 대사는 아명을 서당이라 하고 제명을 신당이라 하였다.

처음에 그 어머니 꿈에 유성(流星)이 품 속에 들어옴을 보고 인하여 태기가 있더니 해산함에 이르러서도 오색 구름이 땅을 덮었다 한다. 낳으매 또한 영이하여 학문에도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않았다. 『청사제작목록(請師製作目錄)』이라는 데서는 원효를 신라 흥륜사 법장(法藏)의 문인이라 하였고, 또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에는 고구려로부터 백제에 왔던 보덕(普德)에게 『열반경』을 배웠다고 되어 있다.

때로는 멀리 남쪽 양산으로 내려가서 영축산 기슭의 번고사(磻高寺)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자주 낭지(郎智)스님을 찾아가서 학문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하니, 이로 보아도, 그의 학문에는 상사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백제가 망한 이듬해인 문무왕 원년(661)에 마흔 다섯 살이 된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으로 구법의 길을 가는 도중, 풍우를 만나 길 옆에 있는 토감 사이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그 이튿날 깨어 보니 그곳은 고분 속 해골의 옆이었다. 천기가 더욱 사나와져 떠나기 어려웠는지라 또 연벽(埏甓) 중에 의지해 있었더니 밤이 되자 귀신이 괴행을 했다. 이에 원효가 탄식하면서 "전날밤 잘 적에는 토감이라 생각되어 편안하던 것이 귀향이라 생각하니 무서워진다. 곧 알지니라, 마음이 나는 고로 종종의 법이 나고 마음이 멸하는 고로 감과 분이 둘이 아니로구나. 또 삼계는 오직 마음 뿐이요, 만법도 오직 식 뿐이라 마음 밖에 법이 없거늘, 어찌 따로 구할 것이 있으랴,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으리라." 하고 이어 본국으로 돌아 갔다 한다.

그 후 오래지 않아서 그 발언이 광패하고 시적이 괴소하며, 혹은 소를 짓고 화엄경(잡화)를 강하며 혹은 거문고를 어루만지며 사를 즐겨하고 혹은 여항에 우숙하며 혹은 좌선을 하는 등 이적이 자못 많았다. 그리하여 원효는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불교의 진리가 담겨진 노래를 지어서 부르며 이 거리 저 거리로 바람을 따라 다니듯 나타나는 것이었다. 대안스님도 남루한 옷을 걸치고 거리에서 징을

울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일찍이 혜공스님도 부개사(夫蓋寺)에 있을 때 매양 미친 체하고 돌아다니며, 때로는 삼태기를 등에 메고 거리에서 노래부르며 춤도 추었던 일이 있어 모두들 혜공스님을 부궤화상(負簣和尙)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실로 깨친 자의 거리낌 없는 진솔한 행실이 아닌가.

무열왕 때 요석공주와 연을 맺어 설총을 낳았다. 그 후로부터는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 혹은 복성거사(卜性居士)]라 칭하였다. 설총은 경사에 박통하여 신라 십현 중의 일인이 되었다. 대사는 일찍이 『화엄경』의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 즉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생사를 뛰어넘는다 라는 가르침을 중심 삼아 쉽게 노래지어 표주박을 희롱하며 세상을 주류하였으니 사람들은 이 노래를 「무애가(無碍歌)」라 하였다.

대사의 입적년에 관해서는 고선사 서당화상탑비(高仙寺 誓幢和尙塔碑)에 「수공이년 삼월 삼십일 종어혈사춘추칠십야(垂拱二年 三月 三十日 終於穴寺春秋七十也)」라고 있는 바 이것은 신라 제 31대왕 신문왕 6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기로는 686년이다. 그 신족(神足)에는 9인이 있었다 하나 그 명은 전하지 않는다.

대사의 저서에 관한 것을 의천 찬(義天撰)의 『제종교장총록(諸宗敎藏總錄)』, 영초 찬(永超撰)의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 원공 찬(源空撰)의 『제종경소목록(諸宗經疏目錄)』, 겸순 찬(謙順撰)의 『제종장소록(諸宗章疏錄)』, 흥륭 찬(興隆撰)의 『불전소초목록(佛典疏抄目錄)』 기타 제록에 기재된 것을 바탕으로 개괄해 보면 경에 관한 것이 34종, 대 · 소승율론(大 · 小乘律論)에 관한 것이 11종, 논에 관한 것이 32종, 기타 제반교리에 관한 저술이 14종 등 모두 91부의 유저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산질되어 없고 현존하는 것만을 동국대학교에서 『원효대사전집(元曉大師全集)』에 모아 수록하였다. 그 내용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과 「화엄경(華嚴經)」과의 단편 그리고 「법화경종요(法華經宗要)」,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 「미륵상생경종요(彌勒上生經宗要)」, 「영락본업경소(瓔珞本業經疏)」,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범망보살계본사기(梵網菩薩戒本私記)」, 「기신론소(起信論疏)」, 「중변분별론소(中邊分別論疏)」,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 「대승육정참회법(大乘六情懺悔法)」, 「이장의(二障義)」등 경에 관한 것 9종, 율(律)에 관한 것 2종, 논에 관한 것 4종 기타 5종에 불과하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옥같이 귀하고 무게 있는 글귀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이 없는 명문들이다. 질적 · 양적으로 놀랄 만한 저서를 낸 원효이었기에 모두들 만인의 적이라고 두려워하기도 했다.

대사의 저서의 종별에 의하여 대체로 그 사상이 어떠하였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흔히 원효(元曉)를 화엄경의 승이요 학자라고 한다. 사실 그는 분황사(芬皇寺)에서 『화엄경』을 강의하기도 하고,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짓기도 하였다. 이 『화엄경소』 가운데서 그는 여러 경을 비판하고 삼승별교(三乘別敎), 삼승통교(三乘通敎), 일승분교(一乘分敎), 일승만교(一乘滿敎)라는 사교(四敎)를 내세우고 『아함경(阿含經)』은 삼승별교(三乘別敎)에 해당하며, 『반야경』은 삼승통교에 또 『범망경(梵網經)』은 일승분교에 『화엄경』은 일승만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화엄경』을 가장 으뜸된 경전이라 했다. 그런데 원효대사는 화엄(華嚴), 열반(涅槃), 법화(法華), 염불(念佛), 율(律), 유식(唯識), 섭론(攝論), 삼론(三論), 성실(成實), 비담(毘曇) 등 10종(宗)에 관한 저서를 남기고 있다.

중국의 고명한 종조 학자 중 천태종의 지자대사(智者大師)의 저서도 화엄종의 삼대부가 주이며, 그 밖에는 그다지 널리 걸쳐 있지 못하고, 당나라 화엄종주인 법장의 저서도 화엄에 관한 것이 주저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원효대사 저서는 여러 경에 관한 것, 율에 관한 것, 제론에 관한 것 등 실로 삼장 전체에 걸쳐 있어 이러한 예는 신라에는 물론이요, 중국에도 없었던 일대 박학이요, 저작가였던 것이다.

화엄을 말할 때는 화엄이 주요, 법화를 말할 때, 유식을 말할 때는 다 각각 그 종학을 주로 하고 그 진의를 천명하기에 성의를 기울였던 것이 결코 그 이름과 종학 간의 우열이나 시비를 비교해서 논하는 쟁론적인 논조를 표시해 있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다. 말하자면 원만하게 그 명경, 명론의 대의 본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그 원만한 태도를 보이는 실례의 저서가 『청변호법공유쟁론(淸辨護法空宥諍論)』,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등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지금 이러한 논쟁들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사의 유저상에 논리적인 필치가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원효대사의 머리에는 오직 불교가 있을 뿐 종파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불교학자 간에 흔히 원효는 통불교적이었다 함은 이러한 점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또한 대사는 진작부터 삼국통일의 정신적인 바탕이 있어야 할 것을 잊지 않았다. 문무왕 16년(676)에 신라에 의해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상적으로 겨레가 하나가 된 것은 아니었다. 대사가 『법화경종요』를 지은 것도 삼국통일의 원리와 이념을 제시하려는데 있었다. 삼국통일의 원리를 『법화경』에서 찾아 이를 널리 폄으로써 사상통일을 꾀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원효가 국내외 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컸다. 특히 이웃 중국과 일본의 불교

학에 미친 감화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의상대사는 중국 유학을 하였지만 그 당시 당에 학문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나 원효대사는 한발도 당나라에 들여 놓지 않았지만 큰 흔적을 남겼다.

즉 의상과 동문이던 법장 현수가 그의 저 『화엄경탐현기』 권 1에 "해동의 신라국 원효대사는 이 경의 소를 지어서 또한 사교를 세우니 일은 삼승별교니… 이 사교의 별은 저의 소중과 같으니라."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 또 『송고승전』 권 5, 『청량징관전(淸凉澄觀傳)』[중국 화엄종의 제4조]에 "또 회남법장(淮南法藏)은 「해동기신론소(海東起信論疏)」의 의를 받아서…"라고 하여 있는 바, 해동소란 즉 원효의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현수도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를 저작할 적에 원효대사의 소의를 받아서 썼다는 것을 현수의 제자가 언명하고 있다.

또한 원효가 일본불교에 끼친 영향도 매우 컸다. 나라시대(710~787) 이후부터 카마쿠라 시대(1192~1336)에 걸쳐 수 많은 학승들이 그들의 저서 가운데에 원효를 비롯한 태현(太賢), 경흥(憬興), 법위(法位), 의적(義寂) 등의 신라 승의 학설을 많이 참고하였다. 상등(常騰 ; 740~815), 선주(善珠 ; 905~997), 양충(良忠 ; 1199~1336), 응연(凝然 ; 1240~1321), 요혜(了慧 ; 1230~1290), 장준(臧俊 ; ~1170) 등의 저서 가운데는 원효의 학설이 널리 참고되어 있다. 그 가운데 카마쿠라 시대에 명혜상인(明惠上人 (1173~1232)이 지은 『광명진언토사권진기(光名進言土砂勸進記)』라는 책은 원효의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를 해설한 것이다.

안으로 원효가 당시 일반 하류 사회 대중에 끼친 감화력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빛이 난다. 대사는 아들 설총을 얻은 후로는 속복으로 바꾸어 입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사(酒肆) 창가에도 들어가고 혹은 산수 간에 좌선도 하며 혹은 경을 강하기도 하고 또 혹은 소를 짓기도 하는 등 임성소요 무애방만의 행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접촉하여 도담 교화행을 하였다.

대사는 또한 무애가를 지어 가지고 천촌만락에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어 영창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니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명호를 알아서 '남무' 라 부를 줄 알았다 하니 대사의 교화가 얼마나 널리 또 깊이 숨어들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나라 찬녕은 대사의 교화행에 관하여 "시적이 무항하고 화인이 부정하며 혹은 반을 던져 뭇사람을 구하고 혹은 물을 뿜어서 불을 끄며 혹은 여러 곳에 몸을 나타내고 혹은 육방에 고멸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사는 무애 자유한 행적이었으니, 그 당시 승려계에서 존경을 받았

을 리가 만무했다. 말하자면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처신이었으니 어찌 올바르게 보였으랴. 아마도 인왕백고좌(仁王百高座) 때에도 대사는 그 일좌의 영광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반 승려계에서 증오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왕후의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 당에 구약하러 갔던 사자가 용궁에서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을 얻어 가지고 와서 이 경의 설법회를 결행하면 그 공덕으로 완쾌하리라는 말을 듣고, 왕은 그대로 실행했던 바 그 강경의 법사로 원효대사가 초청되었다.

대사는 그 때, 그 법회를 황룡사에서 행하였던 바 그 법당에는 왕신과 도속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대사의 강경에는 위의가 갖추어져 있었고 그 해석은 명쾌하였다. 그 설법을 칭양 탄복하는 소리는 허공에 떨쳤다. 이에 이른 대사는 비로소 외쳐 가로되, "석일에 백연[백법사]를 채할 때에는 비록 예회하지 못하였으나 금조 일동(一棟)을 가로 놓는 곳에는 오직 나 홀로 만이 능하구나"라고 하여 그때 모였던 청법의 모든 명덕들로 하여금 참색(慙色)이 만면케 하여 응징 · 참회케 하였다 하니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이러고 보면 누가 원효를 거사라 부를 수 있으며 타락승이라 할 수 있으리요. 대사는 재가 · 출가의 장벽을 타파한 그야말로 불기의 무애대승보살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 고려조 제 15대 숙종 6년(1101)에는 조를 내려 가로되 "원효와 의상은 동방의 성인이나, 비기 · 시호가 없어 그 덕이 불폭이라, 짐은 이것을 심히 슬퍼하여 원효대사는 화정국사라, 의상대성은 원교국사라 증하노라"라고 하였다.

참고 문헌 : 『삼국유사』, 『한국역대고승전(韓國歷代高僧傳)』,

23. 원측(圓測)

원측은 신라의 왕손으로 본명은 문아(文雅)며, 원측은 그의 자다. 후에 당나라 수도에 있던 서명사(西明寺)라는 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여 서명이라고도 한다. 현장(玄奘) 밑에서 함께 수학한 중국승 규기(窺基 ; 632~682)와 그 후계자들을 가리켜 자은학파(慈恩學派)라고 부르는데 대해 원측과 그 후계자들은 서명학파(西明學派)라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측은 원효보다 4년 앞서 613년에 태어나 3세 때 출가하여, 15세 때에는 벌써 중국으로 건너가, 처음에는 법상과 승변 밑에서 수학했다. 어려서부터 명민한 자질이었는지라 비담(毗曇), 성실(成實), 구사(俱舍), 바사(婆娑) 등 논과 고금의 장소를 배우면서 통효(通曉)하지 못함이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어학에 소질이 있어 중

국어는 물론 범어, 서장어 등 6개 국어에 능통하였다. 그래서 현장이 인도로부터 돌아 온 후로는 그에게 사사하며 역경사업에서도 증의가 되어 중역을 담당했다.

이후엔 측천무후의 칙명으로 인도승 지바하라[地婆訶羅]가 중국에 왔을 때 같이 밀엄경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또 매양 인도에서 불사가 올 적마다 원측이 그들을 맞아 상대하며 토론을 할 정도로, 당시 그는 중국의 불교철학 특히 유식철학계에서 대표자 격으로 대우받았다.

원측은 불경을 해석하는데 있어 대단히 독창적이고 분석적 · 논리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같은 현장의 제자인 규기와 많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그는 해심밀교(解深密敎), 성유식론(成唯識論),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을 강의하거나 저술함에 있어서 일찍이 천축의 호법(護法 ; 530~561)이 유식학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대목을 지적하는 한편, 안혜(安慧 ; 470~550)와 그 밖의 천축 고대 불교학자들의 유식론에도 큰 관심을 보여 의외로 호평을 받았다.

그리하여 호법의 설을 오로지 고집하는 규기와 그 후계자 혜소(慧昭 ; 640~714) 등 법상종(法相宗)의 자은학파는 정통파로 자처하고, 그에게 적의를 품어 서명학파를 질투하며 이단시하고 배척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현장이 규기를 위해 유식론을 강의할 적에 원측이 이를 몰래 엿듣고서 모든 종의에 통하여 현장이 강의를 마칠 무렵, 벌써 서명사에다 사람을 모아 놓고 규기보다 먼저 유식론을 강의하였으며, 현장이 규기에서 유가론(瑜伽論)을 가르칠 때도 이와 똑같이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그의 인격에 모독을 가하는 얘기까지 만들어가며 그를 깎아내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 작용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되었으니, 이는 결국 그의 명석함과 심오한 사고 능력을 반증해 주며 그가 규기보다 앞서 유식론과 유가론에 통달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뿐인 것이다. 당시 측천무후로부터 생불이란 찬사까지 들을 정도로 인격면에서 존숭을 받던 그가 남의 강연을 엿듣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현장법사가 굳이 규기 한 사람만을 비밀스럽게 불러 놓고, 비법을 전수하는 것처럼 불경을 강했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성유식론소』 등 모두 23부 108권 가량에 이르렀던 원측의 저서가 거의 다 없어지고 다만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등 3부만이 전해져 오는 것도 신라인인 그를 질시한 자은학파의 소행이란 설도 있다.

아무튼 원측의 사상은 규기와 많은 면에서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는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원측의 해석이 정통파로 자처한 자은학파보다 오히려 현장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유식사상 그 자체를 편파성 없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전한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효조왕 때 원측법사는 해동의 고덕이지만 모량리 출신인 탓으로 승직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그가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는 거의 일생을 중국에서 지냈다.

유식론의 정통대가로서, 규기가 죽은 이후에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중국의 불교계에서 군림했던 원측법사는 696년에 당의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입적했다. 그의 제자들이 사리를 모아 종남산(終南山) 풍덕사(豊德寺)에 탑을 세워 모셨고, 공사(貢士) 송복(宋復)이 그 탑명을 찬했다. 이후 제자들은 다시 지금의 섬서성 서안부 함녕현 번천에 있는 흥교사(興敎寺)로 탑묘를 옮겨, 현장의 탑묘 앞에 규기의 것과 나란히 세웠다.

원측의 저서로는 『해심밀경소』, 『인왕경소』, 『반야심경소』, 『무량의경소』, 『유식론소』, 『금강반야경소』, 『유가론소』등이 있다.

참고 문헌 : 『송고승전(宋高僧傳)』

24. 자장(慈藏)

자장은, 중국의 도선(道宣)이 개창하는 소승(小乘)의 사분율(四分律)을 주체로 하되 법망경을 참작하여 계율을 대승적으로 해석하는 종파인 남산율종(南山律宗)의 거두였다. 신라 진덕여왕 때의 승으로 속성은 김씨이고 속명은 선종(善宗)이었으며, 진골 출신으로 소판 무림의 아들이다.

그는, 그 어머니가 별이 떨어져 품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잉태하여, 4월 8일 서가(釋迦) 탄신일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와 불가의 인연은 어쩔 수 없었던지, 양친을 여의자 곧 속세가 싫어져 처자를 버리고 출가하여, 원녕사(元寧寺)를 세워 혼자 지내면서 독실하게 불법을 수련하였다. 당시 재상에 결원이 생겼으므로 나라에서 여러번 불렀으나 오지 않자 왕이 노하여 죽이려고 하여도 끝까지 불응하고 수도에만 힘썼다.

자장은 선덕왕 5년(636)에, 제자승 실(實) 등 10여 명을 데리고 당나라에 들어가 불경을 연구하고, 8년 후에 장경 1부와 불법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돌아와 당시 신라 불법에 일대 부흥을 일으켰다.

귀국 후 그는 분황사 주지로 있으면서 궁중과 황룡사에서 대승론(大乘論)과 보살계본(菩薩戒本) 등을 강론하였는데, 그의 고매한 강을 듣고자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한다. 이 후 그는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승니의 일체 규범과 승통

의 전부를 주관하였다. 또한 통도사를 창건하고 10여 개의 사탑을 건조하여 전국에 불교를 확장하였으며, 중국을 본떠 의관제도를 경신하기도 했다.

만년에는 강릉에 수다사(水多寺)를 창건하고 불교 포교에 힘썼다. 그 뒤 태백산에 석남원(石南院)을 세우고 거기서 기거하다가 입적했다. 자장의 유고로는 『제경계소(諸經戒疏)』와 『출관행법(出觀行法)』이 있다.

자장법사가 선덕여왕 5년에 당나라에 유학(求法)하여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진신을 만나 문수보살이 "너희 나라 임금은 천축[天竺, 刹帝利 : 크샤트리아] 종왕이니 동이(東夷)의 다른 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태화지변에서 신인의 계시를 받았다 한다.

이 때 문수보살은 또한 "황룡사 호법룡(護法龍)은 나의 장자로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보호하고 있으니 돌아가 황룡사 9층탑을 세우면 일본 중화 등 층마다 아홉나라를 진압할 수 있고 구이[아홉 나라]가 와서 조공하고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라 했다. 이에 자장은 귀국하여 선덕여왕께 건의하여 황룡사 9층탑을 세웠다. 이 역사를 총감독 · 주재한 이는 김춘추의 아비 용수[춘]이었고, 도대목은 백제인 아비지였다.

그는 신라의 불국토설 동천축설을 창조한 장본인이었다.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법사가 당에서 돌아올 때 부처님의 두골(頭骨)과 불아(佛牙) 불사리(佛舍利) 백립과 부처님이 입던 비라금점가사(緋羅金點袈裟)를 가져와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룡사에, 또 하나는 태화탑(太和塔)에, 또 하나는 통도사 계단에 봉안했다.

자장이 당에 있을 때는 황제 태종의 융숭한 대우를 받았다. 견 200필을 주어 의비로 쓰게 했다. 선덕여왕이 그를 돌려보내주기를 청함에 태종이 그를 궁중으로 불러 견 일령과 잡채 500단을 하사하고 동궁이 또한 200단을 하양하고 많은 예물을 주었다. 그는 이때 신라에 아직 경상(經像)이 미비하여 대장경 1부와 제번당(諸幡幢) 화개(花蓋) 등을 가져와 신라 불교를 한 차원 높인 공로가 있다. 자장은 귀국하여 오대산 북대(北臺)와 송정(松汀)과 태백(太伯)과 갈반지(葛蟠地)에서 문수보살 진신을 뵈옵고 문수보살을 좇다가 태백산(太白山) 남령에서 쓰러져 입제하였다.

참고 문헌 : 『삼국유사』,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25. 충담사(忠談師)

신라의 불교는 5세기에 고구려를 통해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 양국에서는 처음부터 왕실의 보호 하에 본격적으로 채택 · 발전된 것과는 달리 신라에서는 6세기에 이차돈의 순교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법흥왕에 의해 공인되

게 되었다.

비록 다른 두 나라보다 조금 늦긴 했으나 '호국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띤 신라의 불교는 발전을 계속하여 경학 · 예술 등 전반적인 면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통일신라기에 이르면 특히 불교의 전성기라 일컬어질 정도의 개화를 이룩하게 되었으며 그 발전의 맥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신라와 통일신라기에는 뛰어난 고승이 많이 출현하였는데, 고매한 경지에 이른 그들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활동에 의해 이 무렵의 불교는 더욱 고차원적인 것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 고승들은 고귀한 행적에 의해, 왕실을 비롯하여 일반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전도의 폭을 넓혀 당대의 시대정신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했다.

이 시기 불승들의 특징으로는 그들의 활달하고도 개방적인 성격을 들 수 있다. 다른 시대의 불제자들이 흔히 속세와는 유리된 채 불교세계만에 탐닉하는 것을 오히려 숭고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이 시대의 불승들은 항상 민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해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 스님들의 행적에는 불교에 관계된 것 뿐이 아닌 향가 제작, 화랑의 활동 등에 관계된 것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충담사는 경덕왕(742~765) 때의 승려로서 불제자로서의 고매한 인격도 칭송되는 바이지만 특히 향가 제작에 뛰어난 재주를 보인 사람이다.

경덕왕 24년(765) 3월 3일에 왕은 귀정문(歸正門) 누(樓) 위에 나가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누가 길거리에서 위의있는 중을 한사람 데려오겠느냐"고 명하였다.

이때 마침 위의있고 깨끗한 고승 한사람이 길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은 "바로 이 스님이다" 하고는 왕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 스님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이 스님은 내가 말하는 위의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잠시 후 다시 중 한 사람이 납의를 입고 앵통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며 누 위에 모시게 했다.

왕이 묻기를 "그대는 대체 누구인가?" 하니, 그 중이 "소승은 충담이라 합니다." 하였다. 다시 "어디서 오는 길인가?" 왕이 하문하니, "소승은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차를 달여서 남산 삼화령(三花嶺)의 미륵세존께 드리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였다. 그의 앵통 속에는 다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왕은 자신에게도 그 차를 한 잔 나누어 줄 것을 부탁하니, 스님이 이내 차를 달여 바쳤는데 차맛이 이상하였으며 찻잔 속에서 신묘한 향기가 풍겨 나왔다.

왕은 그 스님이 바로 자신이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찾던 충담임을 확인하고 말하

기를 "내가 일찍이 들으니 스님이 기파랑(耆婆郎)을 찬미한 「사뇌가」가 그 뜻이 무척 고상하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안민가(安民歌)」를 한 수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충담이 이내 왕의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왕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왕사에 임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충담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고는 앵통을 짊어지고 표연히 갈 길을 가버렸다.

승려이면서도 불교 교리에만 집착해 있지 않던 충담의 호기 발랄한 성품에는 왕사란 직보다는, 구름에 달가듯 떠다니며 산수를 노래하고 시정을 읊는 향가 작가로서의 길이 더 어울렸던 때문이었다. 현존하는 향가 작품 중에는 스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주옥같은 작품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담사의 「찬기파랑가」, 「안민가」는 씩씩한 화랑의 기상을 기리고, 백성을 위하는 방법을 논한 향가로서 그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참고 문헌 : 『삼국유사』

26. 월명사(月明師)

월명사는 경덕왕 때의 중이자 낭도이자 대표적인 향가작가였다. 또한 그는 피리를 잘 불어 신통한 경지에 이르렀다. 사천왕사(四天王寺)에 있으며 즐겨 피리를 불었다. 어느 달밤에는 피리를 불면서 문 앞 큰길을 지나가니 달이 그 소리를 듣느라 가지 않고 멈추었다. 이로 인해 그곳을 월명리(月明里)라 이름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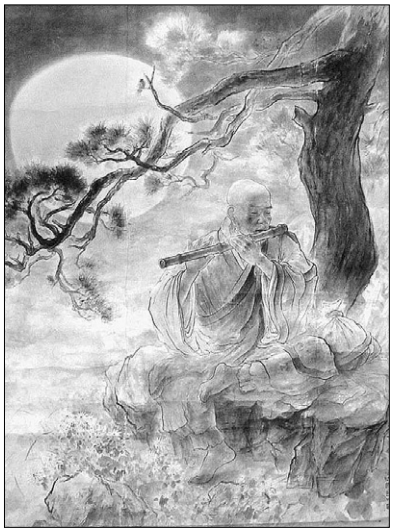
이렇게 다양한 면을 가진 월명사는 바로 신라시대 화랑도와 불교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즉 화랑도는 이 당시의 사회 사조 내지 국민정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고유사상인 무속과 외래 사조인 유학, 불교, 도교의 혼융체였고, 신라 불교는 바로 이 화랑도와는 불가분의 합일체적 사상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승려 중엔 화랑이나 낭도인 사람이 많았고 월명사도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 월명사의 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것은, 화랑도와 불교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 외에 그가 향가작가였다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몇 수 안되는 귀중한 향가를 그가 남겼다는 것 외에, 그가 스님이면서 또한 향가작가였다는데, 바로 그 당시 불제자들의 활달한 성격과 나아가 신라적 불교의 성격까지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향가작품으로는 「도솔가」와 「제망매가」 두 편이 전해지고 있다. 「도솔가」

는 경덕왕 19년(760)에 지어졌다. 4월 1일에 태양이 두 개가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자 왕이 크게 근심하였다. 이에 일관에게 하문하였더니 인연 있는 중을 청하여 산화공덕(散花功德)을 드리면 이 재난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에 왕은 조원전(朝元殿)에 정결한 단을 마련한 다음, 청양루(靑陽樓)로 나아가 연승을 기다리던 중 마침 지나가던 월명사를 불러들여 계문을 지으라고 명했다. 이에 월명사는 「도솔가」를 지어 노래를 불렀더니 해 하나가 곧 없어졌다고 한다.

「제망매가」는 월명사가 어느 가을에 세상을 떠난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읊은 것인데, 이때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 신주로 모신 지전이 하늘로 솟아 서쪽을 향해 사라졌다고 한다.


월명사 영정(경주문화축제위원회)

월명사는 이와 같이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향가 작가로서, 스님이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자취를 더 많이 남겼다. 그는 당시의 고승인 능준대사의 제자로 사천왕사에 거처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당시의 스님이 향가를 짓는다는 것과 어느 화랑 밑에 낭도로 있는 것이 별반 이상한 일은 아니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다.

그는 충담사와 함께 향가의 2대 작가로 이름 높다. 향가는 주술적 영능을 가져 자연 현상의 괴기와 신불, 미물인 짐승까지 감동시키고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다. 이렇세 예술을 신통한 경지에까지 승화시킨 신라인의 예술관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참고 문헌 : 『삼국유사』

27. 원광(圓光)

원광법사(542~640)는 진흥왕 3년에 박씨 집안에서 출생한 신라 불교 초기 단계의 고승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영특했다고 한다. 또 글 읽기를 좋아해서 스무 살에 사서삼경과 『사기』·『춘추』 및 나아가 제자백가의 책을 모두 새겨 읽고 통달할 정도로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그런데 25세가 되던 해인 진흥왕 27년(566)에, 우연히 불경을 대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이치와 심오한 사상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속의 어떤 학문보다 뛰어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법사는 그 길로 출가를 하여 불제자로서의 길을 택했다. 30세가 되던 해에는 삼기산(三岐山)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수도생활에 몰두하여, 6년 동안 도를 닦았으나 미진한 감이 있어

마침내 중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신라 불승들 중 몇 명이 중국에 다녀온 이가 있긴 하나,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원광의 중국 유학으로 이후 많은 고승들이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게 되었다.

37세가 되는 진지왕 3년(578)에 법사는 진(陳)의 서울 금능에 도착, 장엄사(莊嚴寺)에서 승민의 제자로부터 정통으로 『열반경』과 『성실론』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배웠다. 이후 법사는 세속에서 떠나 산생활을 하려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열화같은 요청에 의해 『열반경』과 『성실론』을 강의하게 되자 그 이름이 중국 땅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구름같이 많아졌다.

진에 온 지 10년째 되던 해, 이 때는 수나라가 후량(後梁)을 멸망시키고 난 후 진을 위협해 오던 무렵이었다. 그때 원광법사는 금릉에 있다가 수나라가 침입해 오매 수의 병졸에게 붙잡혀 막 참수를 당할 지경에 처했다. 이때 수의 한 장군이 시가를 지나던 중, 절이 불에 타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급히 말을 달려 그 절에 가보니, 불은 전혀 나지 않았고 스님 한 사람이 탑 앞에 구조되었고, 그 장수는 그가 이름난 원광법사임을 알고 더욱 존경을 표했다고 한다.

이후 수가 통일을 한 후 법사는 담천(曇遷)으로부터 『섭대승론(攝大乘論)』을 배웠고, 혜원(慧遠) · 영유(靈裕) 등에게서 『열반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두루 배웠다.

그는 진평왕 22년(600)에 수에 사신으로 왔던 제문(諸文)과 횡천(橫川)을 따라 귀국했는데 이때 법사는 『섭대승론』, 『열반경』, 『성실론』 등을 전해와서 신라불교계로 하여금 중국 불교계와 호흡을 같이하게 하고 신라 불교의 학문적인 바탕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귀국한 이후 원광법사는 국인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 법사는 성질이 다정박애하였으며, 말할 때는 항상 웃음을 머금어 온화 · 고매한 인품이 저절로 주위 사람을 감화시켰고, 사상과 학문에도 심오한 깊이가 있으므로 항상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법사는 왕에게도 극진한 공경을 받아, 왕은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비롯한 모든 것에 법사의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진평왕 29년에는 고구려가 신라의 변방을 자주 침입하므로 수나라에 고구려를 쳐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문서를 원광에게 작성토록 하였다. 이후로는 장표나 계서 등 외국으로 왕래하는 모든 국명과 외교문서를 원광법사가 모두 담당했다. 원광에 대한 왕의 극진한 마음은, 원광으로 하여금 수레를 타고 대궐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하였으며, 법사의 의복과 약과 음식을 모두 왕이 손수 마련했다고 한다.

원광법사는 또 세속오계를 귀산과 취항에게 전해줌으로써 신라인의 생활윤리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것은 후에 화랑의 세속오계로 발전하여 화랑정신을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당시의 신라 특유의 시대정신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왕실을 비롯하여 민간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를 끼쳤던 원광법사는 신라 건복 58년(640)에 열반하였다. 이때 법사는 몸이 조금 불편한 것을 느끼더니 7일을 지나 간절한 계를 남기고 거주하던 황룡사 안에 단정히 앉아서 입적했는데 이때 나이는 99세였다. 임종할 때 절 동북쪽 먼 공중에는 음악소리가 가득하고 이상한 향기가 절 안에 가득차는 신기가 보여 모든 승려들과 속인들이 슬퍼하면서도 한편 경사로 여기며 이 또한 그의 영감임을 알았다고 한다.

참고 문헌 : 『삼국유사』,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28. 최치원(崔致遠)



최치원 영정

"다만 천하의 사람이 다 죽이기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땅속의 귀신들도 이미 죽이기를 의논했노라…" 이 글은 당나라 희종(僖宗) 대에 일어난 황소(黃巢)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관군의 종사관으로 참전한 고운 최치원이 지은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신라 헌강왕 7년(881)]의 한 구절로서 너무도 유명한 글이다.

최치원은 이 한 편의 글로써 문명을 천하에 떨쳤을 뿐 아니라, 또한 시에 있어서도 능히 당나라의 명사들과 겨루어 조금도 손색이 없었으니 이러한 사실들은 그로부터 천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그가 당나라 사람이었으면 또 모르되 그들이 동이(東夷)라 부르던 동방 신라인이었던 까닭에 이와 같은 당나라에서의 대활약은 비록 그가 우리 한문학의 조종이라는 의의를 제쳐놓고서라도 갖가지 설화와 일화 그리고 기담으로써 인구에 회자되어 추앙받을 만한 소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최치원은 신라 헌안왕 원년(857) 경주 사량부에서 태어났다. 때는 신라의 천년사직이 종언을 고하려는 황혼기였다. 그의 자는 고운(孤雲), 시호는 문창후, 벼슬은 시독(侍讀) 겸 한림학사에 이르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명민하고 투철하여 12세에 혼자 당나라에 건너가 18세에 빈공과(賓貢科)에 금방(장원)하여 선주표

수현위(宣州漂水縣尉)가 되어 벼슬길에 올랐다. 학문을 즐겨하던 그는 관계에 나가서도 학문에 전념하여 선주에 재직할 때는 『중산부궤집(中山覆簣集)』(1부 5권)으로 이룩하여 문명을 떨쳤으며, 중국의 『육조사적(六朝事蹟)』에 오른 쌍여분기담(雙女墳奇談)도 이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어 미구에 승무랑시어사내공봉(承務郎侍御史內供奉)이란 벼슬에 올라 자금어대(紫金魚袋)까지 승사받았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그는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앞서 본 바 있는 「토황소격문」을 지어 평정에 큰 공을 세웠고 이로써 그의 문장은 천하를 감탄케 했다. 또 그는 난 중에 『계원필경』(20권)을 저술하여 문단에 혜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최치원이 고국 신라에 돌아온 것은 그의 나이 28세가 되던 해(884) 10월이었다. 당시 당나라도 말세가 되어 내외로 파란이 잇달아 일어났고, 신라 역시 황혼기에 접어들어 기울어가는 때였으나 귀국하자마자 시랑 겸 한림학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중원에서 익혔던 성현의 도를 펼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질투와 시기에 견디지 못하여 지방장관을 자원하여 태산군[太山郡 지금의 태인(泰仁)], 함양(咸陽), 부성[富城 지금의 서산[瑞山)] 태수를 역임하였다.

최치원은 진성여왕 7년(893)에 당나라 하정사(賀正使)로 가게 되었으나 마침 그 해에 흉년이 들어 도둑이 각처에 횡행하여 가지 못하고, 그 후에 봉사하여 입당한 사실이『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진성여왕 8년에 시무 10여조를 건의하여 난정과 민생의 도탄을 구하려 했으나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끝내는 세상에 뜻을 버리고 퇴관하여 산천을 소요하며 소풍농월(嘯風弄月)과 휘호농필(揮毫弄筆)로 나날을 보냈다.

그가 다닌 명승지는 해인사, 쌍계사를 비롯하여 창원의 월영대(月影臺)와 해운대(海雲臺) 등이며, 만년에 가족을 모두 이끌고 가야산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다가 95세로 고려 광종 2년(951)에 선화(仙化)하였다

『전고대방(典故大方)』 문묘배향록에 의하면 최치원은 문묘에 배향된 문인 군자로서 신라의 두 현인(설총과 최치원) 중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는 고려가 신흥국가로 융성하리라는 예시를 태조에게 보냈다 하며, 그 후 그의 문하생들은 과연 고려 건국 초에 많이 출사하여 벼슬을 하였다. 특히 고려 현종은 최치원이 고려의 창업에 은밀한 공이 있다 하여 내사령의 증직과 함께 문창후(文昌侯)라는 시호를 내렸다.

『계원필경』 저서에 보면 최치원은 당나라에 들어가 17.8세 때 성정을 읊은 것이 많았으나 연약한 탓으로 그것들을 버리고 동도에서 문필로 생활할 때 오언시 일백 수, 잡시와 부 30수를 합하여 3편을 이루고, 또 선주의 표수현위(漂水縣尉)로

있을 때 시문집 『중산부궤집(中山覆簣集)』(5권)을 이룩하였으며, 황소의 난에 종군한 4년 동안에 『계원필경』 20권을 이루었다. 또 이 책 권두에는 자저의 잡시 · 부 및 『표주집(表奏集)』28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시금체부(私試今體賦)』5수 1권, 『오언칠언금체시(五言七言今體詩)』 모두 1백수 1권이라 하였다.

그 밖에도 그의 저서로는 『삼국사기』 권 46 열전에 46집 1권, 문집 30권이 있다고 했으며, 그 중 현존하는 것은 『계원필경』, 『동문선』에 실려 있는 그의 시문과 『금석총람』에 실려 있는 그의 시문 및 법화상전이 있다. 최치원 찬의 비명[숭복사. 쌍계사. 성주사. 봉암사]을 모아서 『사산비명(四山碑銘)』이라 하여 이에 시를 가한 것이 있다.

그의 문체는 화려체인 사륙변려체를 본땄으나 이 변문의 특징인 대구, 사륙자의 구조, 음조의 해화, 전고의 번용, 문사의 화미라는 기교가 지나쳐 뚜렷한 점을 잃는 통폐를 그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고, 문장이 염려(艶麗)하면서도 글 뜻이 창랑자재하여 독특한 일가를 이루었다. 최치원은 이처럼 문장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시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존재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특히 당나라에 있을 때 시명이 높던 고변(高駢)의 지우를 받은 일이나 고운(孤雲)과 나은(羅隱)과의 친교 등을 보더라도 능히 그의 시의 경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명시전서』 중에 있는 그의 시 「추야우중(秋夜雨中)」은 지금도 애송된다.

최치원의 생애를 보면 한 마디로 말하여 그는 매우 불운한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었다. 나면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영특했던 그는 학문과 문학에 뛰어난 자질을 지녔으나 공교롭게도 그가 문명을 떨친 당나라나 고국인 신라는 모두 패망 직전에 놓여 있었으니, 그 영민한 웅지를 어떻게 제대로 펼 수 있었겠는가. 심오한 유가의 세계와 웅대한 문학에의 뜻이 그의 고결한 성향과 결부되어 부귀공명을 가벼이 여겼으며 시기를 일삼는 세상사에는 그의 자가 말하듯 청정고결한 고운의 지조를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여 그 기개는 결국 그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해인사에 들어가게 한 것이리라.

더욱이 그는 입산 후 불교와도 상당히 깊은 연관을 맺었는데 해인사에서 모형(母兄)현준(賢俊)과 정법사와 인연을 맺은 기록이라든지 입산시 및 그 밖에 쌍계사 「진감대사비명」에 밝힌 비문 등에서 충분히 그와 같은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진감대사비명에 이런 구절이 있다. “유학은 너무 실천적이요, 현실적이어서 부처의 심오한 철리에 미치지 못하니 초학자가 유교로서 일상사를 알고 난 후 한걸음 나아가 불교에서 진리를 구함이라…” 그는 또 지증대사의 「적조지탑비명(寂照

之塔碑銘)」에서 "인은 불이니 인심은 곧 자비라" 한 것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그는 인간적으로 넓은 성품과 고결한 인품을 타고났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중원에 이르기까지 문명을 떨치고 종횡무진한 활약으로 신라인의 기백을 드높였으며 아울러 대성한 문학으로 이땅의 한문학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 오늘날 우리가 그를 가리켜 한문학의 조종이라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29. 지장법사(地藏法師)

지장법사의 이름은 당대 이래 전하지 않았다. 『송고승전(宋高僧傳)』 권 제20 당지주(唐池州) 구화산화성사(九華山化城寺) 지장전(地藏傳), 『신승전(神僧傳)』 권 제8 석지장전(釋地藏傳)과 「구화산창건화성사기」에는 석 지장은 속성 김(金)씨라고 쓰여 있고 법명만 있으며 속명은 없다. 그러다가 명나라 시대의 기록으로부터 교각이란 속명이 나온다.

그래서 원광법사 자장율사같이 법명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보겠다. 그는 신라의 왕자로 성덕왕 18년(719)에 24살에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각지를 순력하다가 구화산의 수려한 승경에 마음이 끌려 이 산에 들어와 수도하게 된다.

지장법사는 신라를 떠날 때 선청(善聽)이라는 흰 개를 대리고 황입도(黃粒稻)란 볍씨와 금지다의 씨앗과 오차송[五叉松, 잣나무]씨를 가지고 당에 건너갔다. 항상 법사는 이름을 지청(地聽) 또는 신견(神犬)이라고도 하는 선청 개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금지차와 황입도를 재배하여 일용 식량으로 하고 오차송을 심어 잣을 땄다.

구화산은 중국 4대 불교 성지로 꼽는 불국(佛國)이다. 보현보살의 주처인 아미산, 관음보살의 주처인 보타산(普陀山), 문수보살의 주처인 오대산이 그것이다.

지장은 흰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운무가 짙은 구화산 심산유곡에 들어가 북쪽에 있는 동애봉 수십 길 절벽에 수도할 만한 석굴을 발견하여 이 굴에서 수도했다. 756년 산 밑에 살던 제갈절(諸葛節)이란 유지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구화산을 구경하게 된다.

깊은 골 동애봉 몇십 길 절벽 석굴에 한 중이 참선하고 있었고 다리 부러진 헌 솥에도 백토와 쌀을 섞어 끓인 죽이 담겨 있었다. 이 무인지경의 첩첩 험한 산중에 이같이 훌륭한 중이 수도하는 것에 놀라고 감복했다. 일행은 눈물을 흘리며 "화상이 이같이 고생하는 것은 우리 고장 사람들의 부끄러움이다"하고 마을 사람

들은 절터를 닦아 절을 이룩해 주었다.

지장은 마을에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교화 제도하고 절로 올라갈 때 "사람 살려라"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 큰 범이 한 소년을 덮칠려고 뒤쫓고 소년은 달려 도망가고 있었다. 위기일발 지장은 이를 보고 경악하여 데리고 다니던 신견과 함께 육중한 석장을 날려 칠척 거구 장사가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쳐 올라가니 지장의 불꽃튀는 날카로운 안광과 위세에 눌려 범은 달아나고 호식의 위기에서 소년을 구해주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인연이었다. 이 소년은 아래 마을 대 부호 민양화의 아들이었다. 구화산은 청양거사 민양화의 소유였다. 민공은 아들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구화산 전체를 지장에게 희사하고 아들과 같이 지장의 문하에 들어가 출가하여 제자가 되어 지장을 받들었다.

신라에서는 김소우(金昭佑), 김소보(金昭保) 두 외숙이 지장을 데려 갈려고 왔다가 지장에게 감화되어 수도 · 정진하였는데 이곳 사람들이 이성(二聖)이라 숭배하며 구화산에 이성전을 지어 모셨다. 그리고 지장은, 애틋하게 사랑하고 연모하여 수륙만리 머나먼 신라국에서 구화산까지 찾아온 어여쁜 신라 아가씨가 거룩한 비구니가 되어 일편단심 지장을 사모하면서 일로정진 불도를 닦다가 열반하자 이 지순 지결한 신라 여인의 성스러운 사리를 묻은 낭랑탑(娘娘塔)을 구화산에 세웠다.

득도하여 고승 대덕으로 천하의 존경을 받던 지장은 성덕왕 10년(794), 7월 30일 99살로 저녁에 승려들을 모아 놓고 작별 인사를 한 후 앉아서 참선하다 선정하듯 결가부좌한 채 조용히 입적했다.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에 따라 다비하지 않고 독에 넣어 봉하여 묘탑을 지어 모셔 두었는데 3년이 지난 후 꺼내 보니 결가부좌 한 체로 단정히 앉아 있었으며 살결은 산 것 같았다.

그래서 유언대로 그대로 개금을 하여 등신 보살상으로 육신보전을 지어 모시고 김지장탑이라고 했다. 전신 사리가 된 지장보살로 숭배되었다. 보탑의 앞뒷면에는 거대한 지장보살상을 모셔 놓고 좌우에는 민양화 민도명 부자의 상을 만들어 세우고 앞에는 신견상을 만들어 놓았다.

당, 송, 명, 청 역대 열성조에서는 막대한 시주를 하여 그를 받들고 지장보살로 숭배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4개 불교성지로 신앙되어 세계 각국에서 100만의 신도가 연중 순례 참배한다. 지장은 서가세존(釋迦世尊) 열반 후 가장 존경받고 가장 교화에 성공하여 지장보살로 숭배되었고, 신라의 이름을 천하에 떨쳤다.

참고 문헌 : 『송고승전(宋高僧傳)』

30. 김양(金陽)

김양의 자는 위흔(魏昕)이며, 태종대왕의 9대손이다. 증조부는 이찬 주원(周元)이고, 조부는 소판 종기(宗基)이며, 부친은 파진찬 정여(貞茹)이니 모두 대대로 관록이 있는 집안으로 장상이었다.

양은 날 때부터 영걸하였으며 소신이 굳고 용기가 있으며 또한 담대했다. 정치적인 소양이 있어 흥덕왕 3년(828)에 고성군(固城郡) 태수가 되고, 이어 중원대윤(中原大尹)이 되었다가 얼마 후에 무주 도독으로 전임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정무를 잘한다고 명성이 높았다.

그런데 836년에 흥덕왕이 후사가 없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 왕위를 두고 균정(均貞)과 균정의 형인 헌정(憲貞)의 아들 제륭(悌隆)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양인을 둘러싸고 제신들이 두 파로 갈라져, 치열하게 왕위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양은 균정의 아들인 아찬 우징(祐徵)과, 균정의 매서인 예징과 더불어 균정을 받들어 왕으로 하고 적판궁(積板宮)에 들어가 사병으로서 숙위하였다.

그런데 제륭의 편인 김명, 이홍 등이 와서 포위하였다. 양측은 서로 활을 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는데 이때 제륭의 부하인 배훤백(裴萱伯)이 양의 다리를 쏘아 맞혀 사태는 양측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자 균정은 양에게 물러가 후일을 계획하라 하고는, 양이 겨우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 자신은 난병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다. 한기시(韓岐市)까지 도망쳐 온 양은 하늘을 보며 굳은 맹세를 하고는 산야에 숨어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균정의 아들 우징은 잔병을 거두어 청해진으로 가 장보고와 결탁하여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이들이 병기를 가다듬고 있는 동안 소식을 들은 양은 즉시 모사와 병졸을 모집하여 희강왕 3년에는 해중으로 들어가 우징을 만나보고 함께 거사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해 3월에 강병 5천 인으로 무주를 습격하여 항복을 받고, 다시 남원에 이르러 신라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는 청해진으로 돌아가 병마를 휴양시켰다. 이 해 겨울에 혜성이 사방에서 나타났는데 광채 나는 꼬리가 동쪽을 가리키니, 여러 사람들이 하례하기를 이것은 옛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펴며, 원수를 갚고 수치를 씻을 상서라고 하였다.

양은 스스로 평동장군(平東將軍)이라 일컫고 12월에 다시 출동하여 그 다음해 정월에 대구에서 왕(王)의 군사를 격파함과 동시에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옛 원분을 씻었다. 양은 널리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를 자신은 "본래 원수를 갚으려 한 것이므로 원수가 아닌 나머지 사람은 모두 각각 편안히 거처하라"고 하였다. 그리

고는 지난날 자신을 쏘았던 훤백을 불러 말하기를, "너는 부하로서 그 주인을 위해 나를 쏘았으니 의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개념치 않을 것이니,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의 도량에 감동하고 기뻐하며, 불안한 마음을 모두 떨쳐버리게 되었다.

양은 그해 4월에 마침내 시중 우징을 받들어 즉위케 하니 이가 바로 신무왕이다. 신무왕을 이은 이가 문성왕으로 이 때 양은 소판 겸 창부령이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서는 시중 겸 병부령에 전임하여 권력의 최정상을 누렸다.

이 후 영화를 누리던 양은 문성왕 19년(857) 8월 13일에 서거하였는데 이 때가 향년 50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대왕은 애통해 하며 서발한(舒發翰)을 추증하고 부의와 염장을 모두 김유신의 구예에 의거하여 하게 했고, 그 해 12월 8일에 태종무열왕릉에 배장하였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31. 김흠순(金欽純), 원술(元述)

흠순은 흠춘(欽春)이라고도 하는 명장으로서 유신의 아우다. 진평왕 시에 화랑이 되었다. 무열왕 7년 대장군 김유신과 장군 품일과 함께 장군 이손 흠순이 정병 5만으로 백제를 정벌할 때 황산벌의 대전에서 흠순은 그 아들 반굴(盤屈)과 더불어 불멸의 위공을 세웠던 것이다. 그 후 문무왕대에 백제 부흥 운동군을 토벌하는데 공훈을 세우고, 문무왕 8년에는 대당총관(大幢摠管) 김인문과 함께 대당총관(大幢摠管)이 되어 고구려 정벌군을 이끌고 위훈을 세웠다. 그 뒤 그는 당에 사죄사로도 갔다 온 바 있다.

김삼광(金三光)은 유신의 장자로 문무왕 6년에 들어가 숙위하고 좌무위익부중랑장(左武衛翊府中郎將)이 되어 문무왕 8년에 류인궤(劉仁軌)와 같이 고구려를 정벌하여 빛나는 무훈을 세웠다.

원술은 유신의 아들로 문무왕대 당군 소탕 작전 시에 석문야(石門野)의 전투에서 대장군 의복(義福), 춘장(春長)과 함께 부장으로 참전했다가 패함에 원술이 싸워 죽고자 하였으나 보좌관 담릉(淡凌)이 만류하여 "대장부는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죽을 때를 택하는 것이 어려우니, 만약에 죽어서 이루어짐이 없다면 살아서 후일에 공을 도모함만 같지 못하다."고 하나 원술이 대답하기를 "남아는 구차하게 살지 않는 것이다. 장차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보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말을 채찍질하여 적전으로 돌격하려 하였으나 담릉이 고삐를 놓아주지 않아 죽지 못하고 상장군과 함께 미행으로 서울에 귀환하니 아버지 유신은 원술이 왕명을 욕되게 하고 가훈을 저버렸다고 참하기를 국왕께 청하였다.

왕은 원술이 비장인데 혼자만 중형함이 불가하다고 용서하였다. 원술은 부끄럽고 두려워 감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전원에서 숨어 살다 아버지가 별세한 뒤 어머니를 찾아가 뵙고자 하였는데 지조부인이 "부인은 삼종지의가 있는데 내 지금 과부가 되었으니 아들을 따라야겠다만 원술같은 놈은 선군께 아들 노릇을 못하였으니 내 어찌 그 어미가 될 수 있겠느냐"하고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문무왕 15년 매천(買川)성 전투에서 그는 당군을 무찌르는데 공훈을 세웠으나 부모의 버림을 받고는 벼슬을 하지 않고 세상을 마쳤다. 이렇듯 삼국의 통일에는 김유신의 아들까지 공헌했으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끝내 사랑하는 자식을 만나지 않았던 유신 부처의 엄한 가훈에 옷깃을 여미게 했다.

이와 같이 신라의 삼국통일은 김유신가 일족의 공헌이 컸음을 고찰해 보았다. 무력장군의 위훈을 계승한 서현과 그의 아들 유신, 흠순 형제의 공훈, 그의 여서 춘추공과 공의 외손자 문무왕, 김인문, 그리고 그의 증손자 반굴과 삼광, 원술 등의 공훈에 의하여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우리는 청사에 길이 빛날 김유신 가문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의 가문은 조국의 역사와 함께 영원불멸할 것이다.

문무왕이 이세적과 함께 평양을 격파한 다음, 남한주에서 제신들에게 "옛날 백제의 명농왕[明穠王, 성왕]이 고리산[古利山, 관산성]에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꾀했을 때, 유신의 조부 무력(武力) 각간이 장수가 되어 이를 맞아 싸워 이겨 왕과 재상 4인, 그리고 사졸들을 사로잡아 그 세력을 꺾었으며, 또 부친 서현은 양주총관(良州摠管)이 되어 여러 번 백제와 싸워 그 예봉을 꺾어 변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변민들은 농업을 편안히 하고 군신의 근심을 없게 하였다. 유신이 조고의 업을 계승하여 사직의 신이 되고 출장입상하여 그 공이 많았다. 만일 공의 일문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흥망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고 했으며, 성덕왕은 지조부인에게 상을 내리며 "지금 중외가 편안하고 군신이 베개를 높이 베고 근심이 없는 것은 곧 태대각간의 사물(賜物)이오"라고 하였다.

문무왕은 김유신의 임종 시에 울면서 "과인에게 경이 있음은 고기에게 물이 있음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김유신은 무열왕, 문무왕과 손잡고 삼국을 통일했던 것이다. 인문, 흠순이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출정할 때 흠순이 왕께 고하여 "유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후회가 있을까 한다."고 아뢰니, 문무왕은 말하기를 "공등

삼신[흠순, 인문, 유신]은 나라의 보배이다. 다 함께 적지로 갔다가 불의의 일이 있어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유신을 머물게 하면 은연히 장성과 같아 끝내 근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병으로 고생하는 유신을 왕경에 두고 떠나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신은 신라의 대들보였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32. 설계두(薛罽頭)

설계두는 진평왕대의 사람으로 귀족가문의 자손이었다. 그는 대단한 용맹성을 갖고 있었고, 또한 명예욕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신라사회는 전통적인 골품체제에 완전히 얽매여 있었으므로, 왕족이 아닌 그로서는 아무리 뛰어난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벼슬길이 벌써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항상 불만을 품고 있던 설계두는 어느날, 친구 4인이 모인 술자리에서 "신라에서는 사람을 쓰는데 먼저 골품을 따지므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그 재주와 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멀리 중화국에 가서 지략을 발휘하고, 비상한 공을 세워 내 스스로 영화의 길을 열고 고관이 되어 복장과 검패를 갖추고 천자 곁에 출입하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소원을 밝히기도 했다.

그 후 진평왕 43년(621)에 설계두는 마침내 평소의 계획대로 해박을 따라 비밀히 당나라에 들어갔다. 도착 후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마침 태종(太宗) 문황제(文皇帝)가 고구려를 친정하고자 하여 군사를 모으고 있었다.

설계두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 자천하여 들어가자 군에서는 좌무위과의(左武衛果毅)란 직책을 그에게 내려주었다.

당군이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요동으로 와서 고구려군과 주필산(駐驆山) 하에서 만나 싸우던 중, 설계두는 누구보다도 용맹스럽게 싸움에 임하여 분전에 분전을 거듭했다. 저돌적으로 싸우니 공이 일등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계두는 전투 중에 너무 적진에 깊이 들어가 분전한 탓으로 싸움 도중에 전사하고 말았다.

당(唐) 황제는 역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좌우에게 그가 누구인가 묻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끝내 전사해 버리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히려 죽기를 두려워하여, 뒤를 돌아보며 나아가지 못하는데 외국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국사에 죽었으니 무엇으로 그 공을 갚을 것인가."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평소 소원을 물어 본 후 어의를 벗어 그의 시신을 덮어주고 대장

군의 관직을 제수하고 예로써 장사를 후히 치러 주었다.

골품체제에 고착되어 있던 신라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고국인 신라를 위해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외국에서의 뛰어난 활동으로 신라인의 용맹심을 마음껏 발휘했던 것은 또한 국위선양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33. 김영윤(金令胤)

김령윤은 사량부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급찬 반굴(盤屈)이고 할아버지는 각간 흠춘(欽春)으로 모두 무골정신이 뛰어난 용장들로서 삼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김영윤은 이렇게 대대로 이름 난 집안에서 생장하였으므로, 명예와 절개 있는 인물로 항상 자처해 왔다. 김영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꿋꿋한 무골정신은 어릴 때부터 그의 머리 속에 뿌리 박혀 인격 형성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생활신조를 알 수 있게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태종무열왕 7년(660) 경신에, 당(唐)고종이 대장군 소정방(蘇定方)에게 명하여 백제를 치게 했을 때, 신라에서는 장군 김유신과 흠춘에게 명을 내려 정병 5만을 거느리고 당군에 호응하게 했다.

그해 7월 백제 장군 계백의 결사대와 마주친 황산벌 싸움에서 신라는 네 번 싸워 네 번 다 지는 등 전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었다. 이에 흠춘은 아들 반굴을 불러 말하길,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이 제일이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가 제일이다. 위태로움에 당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은 충과 효를 다함이다."라고 하고 자신의 은근한 뜻을 비쳤다. 이에 아들 반굴은 두말 없이 "옳습니다." 하고는 바로 적진 중으로 뛰어 들어가 힘써 싸우다 전사했다. 반굴의 분전으로 한껏 고무된 신라군은 맹렬한 기세로 반격을 가해 마침내 백제의 용장 계백과 그의 결사대를 쳐부수어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통일의 과정에서 획기적인 것으로서 이 싸움을 끝으로 백제군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셨던 영윤은 자연히 가풍에 따라서 그 자신도 꿋꿋한 기상과 용맹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명예심도 또한 강했다.

그런데 신문왕대에 고구려의 잔존 세력인 실복(悉伏)이 보덕성에서 반란을 일

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윤은 이때 황금서당(黃衿誓幢) 보기감(步騎監)이 되었는데 떠날 때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종족과 붕우들로 하여금 악명을 듣게 하지는 않겠다."며 씩씩한 태도를 보였다. 마침내 실복과 마주치게 되자, 영윤의 군대는 가잠성[椵岑城, 지금의 거창군] 남쪽 7리쯤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하기를 "지금 저 흉당들은 마치 제비가 천막 위에 집을 짓고, 물고기가 솥 안에서 노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저들이 아무리 만 번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 싸우더라도 하루 목숨밖에 되지 않는다. 옛말에도 궁한 도둑은 쫓아가지 말라 하였으니, 좀 물러서서 적이 극도로 피로해지길 기다려 친다면 칼날에 피도 묻히지 않고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고 계책을 밝혔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그럴듯하게 여겨 모두 잠시 물러갔는데 오직 영윤만이 홀로 따르지 않고 싸우려 했다. 이에 종자가 말하기를 "지금의 여러 장수들이 어찌 다 살려고만 하고 죽기를 아끼는 무리들이겠습니까? 그 계책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장차 틈을 보아 그 편리함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 때 혼자만이 바로 나간다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라 하였다.

그러자 영윤은 "전진에 임하여 용맹이 없는 것은 예경(禮經)에서 경계한 바요, 나아감만이 있고 물러섬이 없는 것은 사졸의 떳떳한 일이다. 장부가 일에 직면하여 스스로 결정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를까 보냐."라고 하면서 곧장 적진으로 달려가 장렬하게 싸우다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가 없었으면 그 아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의열이 가상하다." 하고는 추후 벼슬과 상을 더욱 후하게 주었다.

이렇듯 김영윤에게서는, 통일전쟁 당시에 사회에 충만하던 화랑정신, 그 중에서도 임전무퇴의 정신이 통일 후인 영윤의 시대에서도 대단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임전무퇴 정신은 다소 지나치게 고지식한 경향이 있고, 무분별하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과용과 독선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신라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시대정신이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확연히 살펴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34. 김흠운(金歆運)

김흠운은 왕족으로 나물왕의 8세손이고, 잡찬(匝飡) 달복의 아들이다. 그는 화랑 출신으로서 전형적인 임전무퇴의 용사였다. 그의 씩씩한 기개는 어릴 때부터 나타

나 화랑 문노의 문하로 있을 때, "아무개가 전사하여 지금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면, 항상 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흠모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이에 같은 문하에 있던 승 전밀(轉密)은 김흠운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이 사람이 만약 싸움터에 나간다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종 무열왕 2년(665)에 왕은, 연합하여 변경을 자주 침범하는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고자 결심했다. 모든 장비를 갖추고 군사를 모아 출동할 때, 왕은 흠운을 낭당대감(郎幢大監)에 임명했다.

평소의 소원대로 군직을 받은 흠운은 자기 집에 가지 않고 들에서 바람에 빗질하고 비에 목욕하며 군사들과 감고를 함께 했다. 군사들은 왕족이면서도 자신들과 동고동락하는 흠운에게 감동하여,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하가 한마음이 되어 전진에 전진을 거듭했다.

마침내 백제 땅에 당도한 신라군은 양산 아래 진영을 갖추고, 먼저 조천성(助川城)을 공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상황을 알아차린 백제인들이 먼저 선수를 쳐, 밤을 타고 급히 달려와, 새벽녘에 아무런 방비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던 신라군을 급습했다. 이에 혼비백산한 신라군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백제군은 이 호기를 놓칠 새라 계속 강공을 퍼부으니, 화살은 비오듯이 쏟아지고, 검은 하늘에서 번득여 신라군은 점점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 모양을 본 흠운은 자신이 죽어야 할 곳이 여기다 작정하고, 창을 굳게 잡고, 말에 꼿꼿하게 올라 타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흠운의 비장한 각오를 알아차린 대사(大舍) 전지(詮知)가 그를 달래며 말하기를 "지금은 어두운 상태에서 적이 기동한지라 서로 지척을 분별할 수 없으니 공이 비록 죽는다 해도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공은 신라의 귀골이요, 대왕의 사위이니, 만일 적의 손에 죽는다면, 백제에게 큰 자랑거리를 주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매우 수치를 안겨 주게 될 뿐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흠운은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에 바쳤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모르고가 무슨 상관있느냐? 어찌 사사로이 명성에 구애되어 장수가 가야할 길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하고는 꿋꿋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종자가 또한 그 말의 고삐를 쥐고 돌아갈 것을 권하니 흠운은 칼을 빼어 적에게 돌격하여 수인을 죽이고 마침내 자신도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 모습을 본 대감 예파(穢破)와 소감적득기보당주(少監狄得騎步幢主) 보용나(寶用那)도 이들의 죽음을 듣고 말하기를 "흠운은 귀골이고 권세가 번창하여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기는데도 절개를 지켜 죽었다. 그런데 나 보용나는 살아도

별 이익됨이 없고 죽어도 손해됨이 없는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 할소냐.” 하고는 곧장 적진으로 달려가 수삼 인을 죽이고 전사했다.

대왕은 이 소식들을 모두 전해 듣고는 몹시 슬퍼하며 흠운 예파(穢破)에게는 일길찬(一吉飡)을 제수하고 보용나와 적득에게는 대나마(大奈麻)의 위를 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양산가(陽山歌)」를 지어 부르며 그들을 애도했다.

신라는 이들과 같은 용사들의 충성심과 임전무퇴의 강인한 무골정신, 그리고 의리를 숭상하는 기풍에 힘입어 마침내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35. 열기(裂起)

열기도 또한 용기와 담대함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통일 무렵의 전쟁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역사상에 그 가계(家系)와 성씨가 남아 있지 않아 다만 그의 이름과 행적만이 일화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문무왕 원년(661)에, 당(唐) 황제가 소정방을 보내 고구려의 평양성을 포위하였을 때였다. 함자도(含資道) 총관(摠管) 유덕민(劉德敏)이 국왕에게 국서를 전하여 군자를 평양에 보내주길 청하였다. 이에 왕은 대각간 김유신에게 명하여 쌀 4천 섬과 벼 2만 2천 2백 50석을 운송하게 하였다.

그런데, 장새(獐塞)땅에까지 왔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도 몹시 내려 사람과 말이 많이 동사해버리는 등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인들은 신라군사의 피로함을 알아채고 공격해오려 하였다. 당(唐) 진관까지의 거리는 3만여 보인데 전진할 수도 없고, 글을 보내려 해도 갈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김유신은 안타까워하고만 있었다.

이 때 보기감(步騎監) 보행[輔行, 부사]이던 열기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제가 비록 노둔하고 부족하지만 가는 사람의 수효라도 채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열기와 군사로 있던 구근(仇近) 등 15인이 함께 궁검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을 몰아 달려가니 고구려인들은 다만 바라보고만 있을 뿐 막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겨우 이틀 만에 소장군의 진영에 도착하여 사명을 전하니, 당인들이 모두 듣고 기뻐하였다. 그들의 회신을 받은 열기는 또다시 말을 재촉하여 이틀 만에 아군 진영으로 돌아왔다. 김유신은 그의 용감함을 가상히 여겨 즉석에서 급찬

의 벼슬을 내려주었다.

그 후 군사를 돌이켜 신라로 돌아온 김유신은 왕에게 고하기를 "열기와 구근은 천하의 용사입니다. 신이 편의에 따라 급찬 직위를 허여하였으나 공노에 맞지 아니하오니 사찬을 더하기 청하나이다 하니, 왕이 사찬의 관품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였다. 유신은 재배하고 아뢰기를 "작과 녹은 공공한 것으로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 어찌 과하다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에 허락하였다.

열기는 자신의 용기와 충의를 적절한 곳에서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유신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36. 진공대사(眞空大師)

문성왕 17년(855)에 동경에서 왕족 김씨 가문에서 탄생했다. 가야산의 선융화상(善融和尙)을 찾아가 승려가 되어 배우고, 경문왕 14년(874)에 가야산 수도원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삼장(三藏)을 깊이 연구했다. 일납선사(一納禪師)의 초노를 방문하여 배우고 설악산에 가서, 마조도일(馬祖道一)의 수제자 중의 한 사람인 서당지장(西堂智藏)의 심인을 얻어 귀국하여 선풍을 선양한 선종(禪宗)의 해동선조(海東先祖) 도의대사(道義大師)를 앙모하여, 그가 계시던 진전사(陳田寺)에 가서 그의 유허와 영탑을 참배하여 제자의 의를 올렸다.

김해에 가서 초은(招隱)이 있던 절을 수리하여 주석함에, 찾아오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능장(能長) 좌승(佐丞)과 상부(尙父) 선필(善弼)의 단월(檀越)을 받았다. 그 후 난을 피하여 소백산의 비로암에 주하고 있을 때 태조가 남정으로 전선에 가다가 선거를 찾아가 뵈옵고 찬앙을 지극히 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 뒤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자 대사는 상경하여 하례했다. 그는 간청하여 서울을 떠나 산중에 와서 태조 20년(937)에 타계했다. 태조는 부음을 듣고 크게 슬퍼하고 시를 진공대사(眞空大師)라 하고 탑명을 보법지탑(普法之塔)이라 하고 최언휘(崔彦撝)로 하여금 탑비문을 짓게 했다. 비문에는 대사를 찬양하여 "작군생지자부 일절지도사자의(作君生之慈父 一切之導師者矣)"라 했다. 전법 제자에 현양선사(玄讓禪師), 행희선사(行熙禪師) 등 400여 인이 있다.

참고 문헌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37. 윤다(允多)

경사인으로 경문왕 4년(864)에 출생하여 8세에 출가의 뜻을 가졌으나 부모가 허락지 않자 읍소하여 재삼 간청함에 부모가 마지못해 허락했다. 곧 슬하를 떠나 사방에 운유하다가 동리산(桐裡山)에 가서 상방화상(上方和尙)에게서 중이 되고 가야갑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전심으로 참구하여 묘지(妙旨)를 깨닫고 현기에 통달했다.

명성이 사방에 들려 스님들이 많이 모였다. 법맥은 적인 혜철이 입당하여 서당지장(西堂智藏)의 법전을 받고 이를 혜철(惠哲)이 여화상(如和尙)에 전수하고 여(如)가 이를 대사에 전했으니 서당의 법증손이다.

효공왕(孝恭王)이 맞이하고자 했으나, 그때에 병란이 심하여 이루지 못했다. 태조가 일찍부터 대사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부름에 개경(開京)에 가서 태조의 극진한 영접을 받았다. 태조의 귀의를 받고 누의국(屢醫國)의 악성을 듣고 통일정책에 자문을 구함이 많았다.

황주원(黃州院)에 있을 때는 태조의 태자 왕욱(王旭)이 대사를 앙모하여 편지를 보내어 제자를 칭했고 대사의 단월이 되었다. 혜종 1년(944)에 인연이 있는 고사 동리산(桐裏山) 대안사(大安寺)에 들어가 이듬해 혜종 2년(945)에 세상을 떠났다. 그 때 나이 82세, 승랍 66세였다. 그는 경보(慶甫)와 함께 동리산파의 고승이었다. 시를 광자(廣慈)라 했다.

참고 문헌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제2절 고려

1. 궁예(弓裔)

궁예는 왕[혹자는 47대 헌안왕이라 하며 혹자는 48대 경문왕이라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과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신라의 왕자로 성은 김씨이다. 그는 5월 5일에 외가에서 출생하였다.

그 때 지붕 위에 긴 무지개 같은 흰빛이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이를 보고 일관(日官)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重午日)에 태어났으며 광도도 이상하고, 날 때부터 이[齒]가 나 있으니 장래 국가에 이롭지 못할 듯 합니다. 청컨대 화근을 미리 없애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일관의 말이 그럴 듯하여

중사를 시켜 아이를 죽이게 하였다. 사자가 외가로 와서 강보에 싸인 아이를 빼앗아 누 아래로 던져버리고는 대궐로 돌아갔다.

그 때 유모가 누 밑에 있다가 몰래 아이를 받아 죽음을 면하게 하였는데, 받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이 아이의 눈을 찌르게 되어 애꾸가 되어버렸다.

궁예는 이렇게 날 때부터, 주위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살해의 위협에 처하였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으나 한평생 불구로 지내야 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것은 그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모는 궁예를 데리고 멀리 도망해서는 온갖 고생을 다하며 숨어 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궁예는 열 살이 되어도 공부할 생각도, 심신을 단련할 생각도 않은 채, 호방한 성격대로 마냥 놀기만을 좋아했으며 동네에서 짓궂은 장난은 그가 도맡아 하곤 했다.

궁예의 장래를 걱정한 유모는 마침내 어느 날 그를 불러 앉히고는 사실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대가 태어나자마자 나라에서 버림받은 것을 내가 차마 보지 못해 남모르게 길러 오늘에 이르렀소. 그런데 그대의 행동이 이렇게 방만하니 남들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나와 그대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하였다.

자신의 내력을 알게 된 궁예는 복받치는 울분과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울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멀리 가서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제까지 키워 준 유모의 곁을 떠난 궁예는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출생내력[자신이 평민이 아닌 왕족이라는 것, 그러고도 천한 궁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 등]에 대해 비분강개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방황하던 끝에 마침내 속세를 버리고 세달사(世達寺)로 들어가 중이 되어버렸다.

불제자가 된 궁예는 선종(善宗)이라 자호하고, 세상에 미련을 버리려 애썼으나, 활달하고 호방한 성격인지라 조용히 수도생활에만 몰두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이 되었으면서도 승려의 계율에 별로 구애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재(齋)를 올리러 가던 길이었다.

궁예는 행렬에 들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날아와 무엇을 물어다가 그의 바리때 속에 떨어뜨렸다. 꺼내보니 상아로 만든 점치는 가지였는데 거기에 왕(王)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궁예는 여기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아무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으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무렵 신라는 국운이 다해가는 듯 정치는 어지럽고 부정부패가 극심하였으며, 국가의 재정은 한껏 고갈되어 갔다. 거기에 천재지변까지 일어나게 되니 백성들은 어디 한 곳에도 마음 붙이고 생활에 안주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특히 지배층의 탐욕은 끝이 없어 나라살림을 모두 거덜내고도 아직 모자람이 있었는지 백성들의 얼마 안돼는 재산에까지 탐욕의 손길을 뻗쳐 백성들의 살길은 점점 막막하게 되었다. 나라는 나라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게 되니 나라 안 곳곳에서 도적의 무리가 떼지어 일어났으며 반란의 기치를 올린 적수들도 상당수가 되었다.

궁예도 또한 이러한 난세를 자신의 뜻을 펼 기회라 여겨 마침내 불문에서 떨치고 나와, 죽주의 적괴 기훤(箕萱)에게 귀의하였으니, 이때가 진성여왕(眞聖女王)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였다. 그러나 궁예는 기훤에게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자 몹시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같은 불만 세력 원회(元會), 신훤(申煊) 등과 결탁하여 그 다음해 북원의 적 양길(梁吉)에게로 옮겨갔다.

궁예의 자질을 인정한 양길은 그를 잘 대우하였으며, 드디어 군사를 나누어 주어 동쪽으로 가서 공략하게 하였다. 원대한 포부를 처음으로 떨칠 기회를 갖게 된 궁예는 치악산 석남사(石南寺)에 출숙하고, 주천(酒泉), 나성(奈城), 울조(鬱鳥), 어진(御眞) 등의 현성(縣城)을 습격하여 모두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진성왕 8년(895)에는 군사 3천 5백 인을 거느리고 명주로 들어갔는데, 이때 궁예는 군사들과 더불어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하였으며, 전획물의 분배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사사로이 함이 없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또한 경애하여, 일심으로 뜻을 모아 그를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이후에도 궁예는 저족(猪足), 성천(狌川), 부약(夫若), 금성(金城), 철원(鐵圓) 등 여러 성을 격파하고, 군세가 자못 강성하게 되자 패서(浿西)의 반역 무리들도 많이 귀의해 왔다.

신라 효공왕 5년(902), 궁예는 이만하면 개국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드디어 왕을 자칭하고 내외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궁예가 개국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자신이 신라와 당 때문에 멸망한 고구려를 재건하여 옛날의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이 신라 왕실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는 데서 나온 울분이라 여겨지는데 어쨌든 궁예는 '고구려 부활'이란 기치를 내세우면서 옛 고구려 땅의 후손들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흡수할 수가 있었다. 궁예는 처음 국호를 고려라고 칭했는데 그 연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궁예는 또 송악군(松岳郡)을 도읍으로 정했는데 이 무렵 그 주변의 많은 현(縣)

들이 그에게 항복해 왔으며, 왕건도 이때쯤 궁예에게 귀부하게 되니, 궁예는 그를 철원군 태수로 삼았다. 그런데 이때 양길은 원래대로 북원에 있었는데 궁예의 세력이 대단히 강성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장차 그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먼저 알아챈 궁예의 공격으로 오히려 크게 패하게 되었다.

궁예는 11월에 팔관회(八關會)를 시작하였으며, 왕건으로 하여금 양주(楊洲), 견주(見州), 광주(廣州), 충주(忠州), 당성(唐城), 청주(靑州), 괴양(槐壤)을 치게 하여, 평정하는 등 그 위세가 날로 번성해 갔다. 이와 동시에 궁예의 신라에 대한 감정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래서 흥주 부석사에 가서는 벽에 그려진 신라왕의 상을 보고 칼로 내려쳐 칼자국이 지금까지 남아 있게 하기도 했으며, 신라 쪽에서 오는 사람은 불문곡직하고 죽여 버리기도 했다.

효공왕(孝恭王) 8년에는 국호를 마진(摩震), 연호를 무태(武泰)라 고쳤다. 또 광평성(廣評省)을 설치하고, 광치나(匡治奈), 서사(徐事), 외서(外書) 등의 관원을 두었으며 병부, 대룡부, 수춘부, 봉빈부, 의형대, 납화부, 조위부, 내봉성, 남상단, 수단, 원봉성 등의 관부도 아울러 설치하였다. 또 사대, 식화부, 장선부, 주도성을 두고, 정광, 원보, 대상, 원윤, 우윤, 정조, 보윤, 군윤, 중윤 등의 관직도 설치했다. 7월에는 청주의 민가 1천호를 철원성으로 옮기고 서울을 이곳으로 천도하기도 했다. 이때 또 상주 등 30여 주현(州縣)을 공격하여 취하였는데, 공주장군 홍기(弘奇)가 와서 궁예에게 항복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달이 차면 기울 듯, 궁예의 이렇듯 번창해가던 세력이 점점 말기적 현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효공왕 9년(906)부터였다. 그 징조는 궁예 자신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 그의 성격상의 결함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변화무쌍하여 변덕이 심하며, 의심증과 편벽이 강하고, 약간은 자아도취적인 성격이 강한 궁예는 이때부터 전기와는 다른 면을 점점 나타내게 된다.

새 서울에 들어가 초호화판으로 궁궐과 누대를 꾸며놓고는, 연호를 성책(聖冊)이라 다시 고쳤으며, 효공왕 15년(912)에는 성책을 버리고 다시 수덕만세(水德萬歲)라 고쳤다. 또 국호를 태봉(泰封)이라 개칭했는데 이는 궁예의 근본적인 정책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이때 초창기의 고구려주의를 포기하고 철원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태봉왕국에 그냥 만족하기로 한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의 부하 및 지지세력들 중에서 고구려 후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쌓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궁예의 자기망상적 성격은 또 자칭 미륵불이라 하여, 머리에 금책(金幘)을 쓰고 방포(方袍)를 입으며 장자를 청광보살, 계자를 신광보살이라 한 데서도 나타난다.

그는 외출할 때는 항상 백마를 타고 채색비단으로 말갈기와 꼬리를 장식하고 동남동녀에게 일산과 향화를 받들게 하여 앞에서 인도케 하고, 또 비구 2백여 명에게 범패를 부르면서 행렬의 뒤를 따르게 하기도 했다. 또 스스로 경문 20여 권을 저술하였으며, 때로는 정좌하여 강설을 하기도 하는 등 사교적인 행위를 그럴 듯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의 고승 석총이 이런 것들이 다 사설 · 괴담이라고 하니 궁예는 그것을 듣고 노하여 철퇴로 때려죽이기도 했다.

궁예의 변태적 성격은 점점 심해져, 신덕왕 4년(916)에는 부인인 강씨가 그에게 비법을 너무 행한다고 충심에서 우러난 간언을 하자 그녀를 다른 사람과 간통을 했다고 억지로 몰아세우고는 무쇠방망이를 달구어 음부를 지져 죽이기도 했다. 자신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얼굴만 보아도 다 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강씨 소생의 두 아들까지 죽였다.

이후 궁예의 의심증은 점점 심해져 여러 보좌관과 장수, 관리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죄 없이 주륙되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왕건도 한 번 그에게 반역을 꾀한다는 의심을 받아 위험에 처했으나 기지로써 겨우 모면한 일도 있었다. 궁예의 광포한 행위가 도를 지나치게 되자 국가 안의 민심이 점점 그에게서 멀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왕건의 성가(聲價)는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언제 목숨을 잃게 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왕건은 광적인 궁예와는 대조적으로 온후 · 관대하여 민심을 충분히 자신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 이에 거리에서는 이상한 참언도 때를 맞추어 나돌게 되었다.

궁예는 갈수록 흉악 · 폭학한 짓을 자행하였다. 신하들은 그가 언제 자신에게 철퇴를 가하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하여 나라 안에 그의 횡포에 대한 불만을 갖는 세력이 점점 늘어가던 중, 마침내 태봉국 정개 5년, 홍유 · 배현경 · 신숭겸 · 복지겸 등의 추대를 받은 왕건이 반란의 의기를 들었다.

이미 궁예에게서 마음이 떠난 백성들은 순식간에 왕건의 주위로 몰려드니, 궁예는 이미 사태가 기울어졌음을 직감하고 사복차림으로 겨우 궁궐에서 빠져나가 산림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를 숨어 지내던 궁예는 결국 부양(斧壤)의 백성들에게 들키게 되어,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았던 그들의 분노에 찬 손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가 경명왕 2년(917)이었으니, 처음 반기를 든 진성여왕 5년(892)부터 무릇 28년 만에 멸망해 버린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불운했던 궁예는 한때 천운을 누리는 듯 전성기의 극치를 구가

하기도 했으나, 그의 운은 그것으로 끝이었던 듯 결국엔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 버렸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참고 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高麗史)』

2. 최언휘(崔彦撝)

신라는 삼국통일을 바탕으로 그 문화의 극치를 이루었으나 이제 국운이 서서히 쇠하여 여러 가지 모순과 내부적인 불만이 표출되고 있었다. 신라의 왕조질서가 서서히 붕괴의 길을 걷고 있던 경문왕 8년(867)에 최언휘는 화려한 문화의 중심지 경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처음 이름은 신지(愼之) 혹은 인곤(仁滾)이라 하였으며, 그는 천성이 관대하고 후덕하였다. 어릴 때부터 학업에 열중하여 글을 잘 하였다.

그러나 언휘는 신라에서 학업을 성취하여 정치적인 진출 등 자기의 뜻을 펼 수가 없었다. 6두품 출신인 언휘는 당시 다른 6두품 학자,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진골 중심의 폐쇄적인 신분질서인 골품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학문적인 성취와 정치적인 진출에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최치원 등 6두품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골품제도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고, 심지어는 반 신라적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많은 지식인들처럼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펼치기 위하여 당나라에 가서 유학할 뜻을 품었던 것이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제도에 의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였으며, 신라인, 발해인 등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급제하여 관계에 진출하였고 또한 문명을 떨치고 있었다.

언휘는 신라 헌강왕 11년(886) 최치원이 귀국하던 해에 18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예부시랑 설정규(薛廷珪)의 밑에서 급제하였다. 이때에 발해의 재상 오소도(烏炤度)의 아들 광찬(光贊)이 같은 해에 급제하였는데, 소도가 당에 조견하였다가 그 아들의 이름이 언휘의 밑에 있음을 보고 표를 올려 청하여 말하기를, "신이 옛적에 입조하여 등제할 때는 이름이 이동의 위에 있었으니 지금 신의 아들 광찬도 마땅히 언휘의 위에 올려야 합니다"고 하였으나 언휘의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서 허락하지 않았다.

언휘는 당에서 벼슬하고 지내다가 효공왕 18년(909) 나이 42세가 되어서 비로소 신라에 귀국하였다. 돌아오자 신라조정에서는 집사성시랑(執事省侍郎) 서서원학사(瑞書院學士)의 벼슬을 제수하였다.

이때 신라는 이미 쇠하여 회복할 기미가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 후백제의 견훤과 후고구려의 궁예가 천하의 쟁패를 다투고 있었다. 이미 신라는 쇠하여 더 이상 왕조를 유지할 능력을 잃고 있었으며 또한 언휘 자신도 신라에서 정치적 포부를 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심 신라를 떠나고자 했다.

인망을 얻고 있던 왕건과 그 부하 장수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나 왕건이 즉위하여 반 신라적인 불우한 숙위학생 계열의 지식층을 포섭 · 흡수하자, 언휘도 천하의 대세를 깨닫고 이에 가족을 거느리고 태조에게 귀부하여 섬겼다.

태조는 이를 기쁘게 맞아들여 태자사부를 삼았고, 문한(文翰)의 직책을 맡겼다. 당시 궁원의 액호(額號)는 모두 언휘가 지어 정했다. 문필의 이름이 알려지자 전국의 학자 진신들이 모두 찾아와 배우고 그를 섬겼다.

그는 태조의 뜻을 받들어 고려 초기의 문물제도의 정비에 힘썼고 관직이 대상(大相) 원봉대학사(元鳳大學士) 한림원령(翰林院令)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 그는 77세의 고령으로 고려의 창업과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위대한 공헌을 세우고 혜종 원년(944) 77세로 목숨을 다하였다. 왕이 부음을 듣고 통곡하며 애도하였으며 정광(正匡)을 추증하고 문영(文英)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언휘의 아들로는 광윤(光胤), 행귀(行歸), 광원(光遠), 행종(行宗)이 있었는데, 광윤은 일찍이 빈공진사(賓貢進士)로 유학하여 진(晋)에 들어가다가 글단[契丹]에 붙잡혀갔으나 재능과 학식으로 관직에 등용되어 구성(龜城)에 봉사하였는데, 글단이 장차 우리[고려]를 침범할 것을 알고서 서신을 만들어 변방사람에게 부쳐 알려 고려가 30만의 관군을 조직하여 이에 대비하게 하였다.

행귀(行歸)도 또한 오월국에 유학하여 비서랑(秘書郎)에 제수되었다. 후에 고려에 돌아와 광종(光宗)을 섬겨 총애받는 신하가 되었으나 죄를 받아 죽었다. 광원은 관직이 비서소감(秘書少監)에 이르렀고, 그 아들은 항(沆)이다.

참고 문헌 : 『고려사(高麗史)』

3. 최승우(崔承祐)

최승우(崔承祐)는 신라 골품제 사회가 서서히 붕괴의 길을 걷고 있던 신라 말 6두품 출신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학업에 충실하였으나 진골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에서 6두품 출신인 그는 정치 · 사회적 진출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중앙에서는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진행되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지방에서도 농민, 촌주 등의 계층이 동요를 일으키

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가질서가 무너지자 지식인으로서 불만을 품은 승우는 당에 유학의 길을 떠났다.

그가 당에 유학을 떠난 해는 진성여왕 4년(890)이었다. 이 때 신라는 진성여왕이 정강왕의 동생으로 후사가 없어 왕에 즉위하였고, 여왕은 소행이 좋지 못하여 각간 위홍(魏弘)과 내통하며, 궁중에 미모의 소년들을 두고 음행을 일삼고 뇌물을 받는 등 기강이 해이해지고, 지방에서는 조세가 걷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제(兵制)가 허물어지고 도적이 발호하던 시대였다.

승우는 893년 당(唐)에서 시랑(侍郎) 양섭(楊涉) 고시하(考試下)에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당에서 활약하다가 뒤에 귀국하였는데, 당에서 공부한 학사(學士)들 중에서 가장 문장이 능하여 곧 유명해졌다. 그는 당시 도당 유학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인들인 최치원과 최언휘와 더불어 당대 삼최(三崔)라고 일컬을 정도로 문장이 뛰어나고 문명이 높았다.

그는 이미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견훤, 왕건 등이 천하를 각축할 때 귀국하였고, 이에 그는 신라를 떠나 후백제의 견훤에게 귀부하여 벼슬을 하였다. 이는 다른 6두품 출신의 학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신라의 폐쇄적인 골품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었고 반신라적이었던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승우(承祐)는 견훤을 섬기면서 그의 유명한 문장으로 측근에서 문필과 외교문서 등을 담당하였던 것 같다. 그는 견훤을 위하여 「대견훤기고려왕서(代甄萱寄高麗王書)」라는 격서를 지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보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465권의 문집을 지어 스스로 『호본집(鰗本集)』이라 하였으며, 시가 10 수 전한다. 그가 언제쯤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 문헌 : 『고려사(高麗史)』

4. 배현경(裵玄慶)

번영을 구가하던 신라 왕조는 하대로 갈수록 나라가 차츰 어지러워졌다. 중앙에서의 왕위 쟁탈전의 혼란과 함께 지방에서도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각 지방의 향호들이 신라에 배반하여 일어났다. 이리하여 후삼국 시대가 열리고 특히 견훤, 궁예, 왕건 등이 천하의 패권을 다투었다.

현경은 이렇게 나라의 정세가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 천하대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국가질서의 수립을 위해 투신하였다. 그의 처음 이름은 백옥삼(白玉杉)이라 하였으며 신라의 천년 고도인 경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담력이 뛰어

나고 용맹하여 일찍이 후삼국의 천하각축전에 뛰어들어 궁예의 부하 장수로 있었으며, 군사적으로 많은 공을 세워 여러 번 벼슬에 올라 대광(大匡)에까지 이르렀다.

현경은 궁예의 부장으로서 충성을 다하였으나 궁예는 말년에 이르러 차츰 교만 · 포악해져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려 인심을 잃게 되었다. 이에 마음을 굳게 먹고 포악하고 실정하는 궁예를 내쫓고 새로운 왕으로 왕건을 추대하기로 결심하고는 비밀리에 홍유(洪儒),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918년 6월에 현경은 여러 동지 장수와 함께 밤에 왕건의 집에 이르러 추대의 뜻을 전하게 되었다.

즉 현경 등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한 통일신라가 다시 3분하여 군도가 다투어 일어났는데, 궁예가 용기를 떨치고 크게 호령하여 초구를 무찔러 그 태반을 점령하여 통치하였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한 지 24년이 넘었으나 궁예는 불교에 광신하고 포악하여 잔학한 짓을 함부로 하며, 형벌을 남용하여 처자를 죽이고 신료를 베어 멸하니 백성이 도탄에 빠져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혼주(昏主)를 폐하고 명왕을 세우는 것은 천하의 대의입니다. 청컨대 공은 탕왕 · 무왕의 일을 행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천하의 대의로써 궁예를 베고 정치를 바로잡을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왕건은 안색을 고치며 거절하기를 "내가 충성과 순직으로 자허(自許)하여 왔는데, 지금 주상[궁예]이 포학하다고 하지만 감히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대저 신하로서 임금을 교체하는 것을 혁명이라 하는데 내가 실재 박덕으로서 어찌 감히 은(殷) · 주(周)의 일을 본받을 수 있으랴." 하였다.

이에 현경 등 여러 장수들은 "때는 두 번 오지 아니하므로 만나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습니다. 하늘이 주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벌을 받습니다. 지금 정사는 어지럽고 나라는 위태로운데, 백성들이 모두 웃사람 미워하기를 원수와 같이 합니다. 지금에 있어 덕성(德聖)이 공의 위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왕창근이 얻은 경문[고려의 건국과 통일을 예언함]이 저러한데 어찌 칩복(蟄伏)해 있다가 독부[궁예]의 손에 죽을 것입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때에 부인 유씨도 여러 장수들의 의논을 듣고 이에 왕건에게 이르기를 "인으로써 불인을 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으니 첩으로서도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더구나 대장부에게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천명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손으로 갑옷을 들어 왕건에게 바치니, 여러 장수들이 그를 부축하여 호위하

고 문밖으로 나오며 앞에서 외치게 하기를, “왕공[왕건]이 이미 의기를 들었다.” 고 하였다.

여기저기서 전후로 달려와 따르는 자가 얼마인지 모르며 또 먼저 궁성문으로 가서 떠들며 기다리는 자가 역시 일만여 명이었다. 왕[궁예]은 이 사실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뒷문으로 빠져나와 사복차림으로 도망해서 산림 중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 부양(斧壤;지금 평양 平壤)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리하여 태조가 왕에 즉위하였으며 즉위한 후 현경 등은 왕을 추대한 공으로 일등 공신에 책봉되었고 많은 금은기(金銀器), 금수기피욕(錦繡綺被褥), 능라(綾羅) 포백(布帛)을 하사받았다. 이 후 현경은 태조를 충심으로 극력 보필하였는데 태조가 청주 사람 현율(玄律)로 순군랑중(徇軍郎中)을 삼자 현경이 신숭겸 등과 함께 반대하였다.

즉 그는 말하기를, “지난날 임춘길을 순군리(徇軍吏)로 삼았다가 불궤를 도모하는 변을 당했는데 이는 그가 병권을 잡고 본주(청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현율로 순군랑중을 삼는다면 신들은 적이 미혹하나이다.”라고 하여, 반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태조도 이를 인정하여 현율을 병부랑중(兵部郎中)으로 고쳐서 임명하였다.

태조가 사방을 정토함에 현경의 공이 가장 많아서 태조의 총애도 컸다. 태조 19년(936)에 현경은 병을 얻어 위독하였는데 태조가 그 집에 행차하여 그의 손을 잡고서는 “운명을 어떻게 하겠소? 그러나 경의 자손은 내가 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태조가 문을 나오자 현경은 후삼국의 통일에 위대한 공을 세우고 또한 태조를 충심으로 보필하여 새로운 국가질서를 수립한 업적을 남긴 채 눈을 감았다. 이에 태조는 어가를 멈추고 현경을 애도하였으며 관에 명하여 장례의 일을 도우게 한 뒤에 환궁하였다. 그리고 왕은 무열(武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현경에게는 아들 은우가 있었으며 뒷날 성종 13년에는 홍유, 신숭겸, 복지겸 등과 함께 모두 태사에 추증되어 태조묘정에 배향되었다.

5. 최승로(崔承老)

신라의 국운이 다해가던 경애왕 말년, 즉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다가 견훤의 불의의 습격을 받아 경애왕이 목숨을 잃은 927년에 최승로는 신라에서 원보로 벼슬하고 있던 은함(殷含)의 아들로 태어났다. 은함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기도하여 승로를 낳았는데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신라 말에 최은함이 늦도록 아들이 없어 중생사의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였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석달이 못되어 백제의 견훤이 서울에 습격 · 침범하니 성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은함이 아들을 안고 이 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 일이 위급합니다.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할 듯하오니 진실로 대성께서 아기를 주신 바일진대 대자대비의 힘으로 보호하여 길러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보게 하소서"라고 울며 슬퍼하되 세 번 울면서 세 번 고하고 기저귀에 아이를 싸서 관음상의 사자좌(獅子座) 밑에 감추어 두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떠났다. 반달이 지나 적병이 물러간 뒤에 찾아보니 살결이 새로 목욕한 것과 같고 얼굴도 좋아지고 젖냄새가 오히려 입에 남아 있었다. 아이를 안고 돌아와 기르니, 장성함에 이르러 총명하고 슬기로움이 남보다 뛰어났다.

이처럼 승로는 불교의 인연을 입어 태어나 남달리 총명하였던 것이다. 불우한 신라에 태어난 그는 열 살이 되던 해에 이미 기울어버린 신라의 천년 사직을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넘기게 되는 역사적 순간을 겪었다. 이에 승로는 경주를 떠나 새로운 수도인 송도로 이사해 가서 정착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여 글도 곧잘 익혔던 최승로는 곧 태조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나이가 겨우 열 두 살밖에 안되는 그가 태조를 만나 왕 앞에서 자신있게 『논어』를 줄줄 외웠던 것이다. 태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염분을 하사하였고, 또 안마와 예식 20석[例食 20碩]을 하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태조의 명으로 학자들이 드나드는 원봉성학사(元鳳省學士)에 예속되었고, 이로부터 문한(文翰)의 책임을 맡았다. 승로는 당대 제일의 지식인으로 일찍부터 문장과 학문계통의 관직생활을 하면서 태조를 이어 혜종을 비롯하여 그 후의 정종, 광종, 경종을 거쳐 6대 성종에 이르기까지 줄곧 다섯 임금을 모셨다.

성종 원년(982) 6월에는 성종이 경관 5품 이상의 신하에게 각각 봉사를 올려 시정의의 득실을 논하게 하였다. 스물 세살의 젊은 왕이 구언을 하게 되자, 승로는 역대의 선왕들을 모셔왔던 쉰 여섯의 국로로 상서를 하였다. 이 때 승로는 정광(正匡) 행선관(行選官) 어사(御事) 상주국(上柱國)의 벼슬로서 앞서 5조의 정적평(政績評)과 시무 28조를 올려 왕의 여러 정책과 득실에 관한 그의 정견을 진술하였다. 그 스물 여덟 가지 조항의 정견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고려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47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나라의 일이 제대로 자리를 못잡고 쓸데없는 비용만을 지출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비경제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경 문제만 하더라도 압록강변에 성을 튼튼히 쌓고, 그 고장 사람 가운데서 잘 싸우는 사람들을 가리어 뽑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면, 중앙의 군대를 구태여 멀리 보낸다거나 병량을 수송한다거나 하는 번거로운 일도 덜게 되어 여러 모로 이익된 일이 많을 것이다.

또 왕은 지금 친히 공덕을 쌓으려고 손수 차나 보리를 갈아 정성을 다한다고 듣고 있는데 부질없는 일로 성체를 해칠까 두려울 뿐이며, 이런 공덕 쌓는 일은 광종 때부터 있은 일인즉 이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과응보를 그대로 믿는 데서 오는 부질없는 일인 줄 안다. 광종은 죄없는 신하를 많이 죽였기에 그 속죄로 공덕을 쌓기 위하여 때때로 승들을 많이 궁중에 불러들여 재(齋)를 올리기도 하고 비로자나 참회법을 베풀기도 하며, 또 무차수륙대회(無遮水陸大會)를 귀법사(歸法寺)에서 여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 또 보름이나 그믐의 육재일(六齋日)에는 으레 많은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는 바람에 심지어는 죄지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승이 되어 피해다니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이런 자들에 의해서 공덕이 칭송될 수 있겠으며 이런 일은 지금 왕이 하는 일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궁중에 있는 시위군사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일찍이 태조 때엔 시위군사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더욱이 밭을 제각기 갈아서 먹게 하였으므로 쌀 창고가 별로 축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가운데서 풍채 좋은 사람만 남겨두고 대폭 줄인다면 자못 경제적일 줄 안다.

왕은 공덕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때때로 거리의 사람들에게 간장, 술, 국 등을 마구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 공덕이 쌓이는 것은 아니다. 오직 매사를 권선징악의 도리에 맞게끔 잘 살펴 한다면 그것으로 족할 줄 믿는다.

태조는 몇 년에 한 번씩 외국에 사신을 보내어 예를 갖추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금은 무역까지 하므로 그 일로 해서 사신의 왕래는 그칠 사이 없이 빈번하다. 이 후로는 예를 갖추기 위해서 사신이 들어갈 때만 한하여 필요한 물건을 무역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때만 사신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절의 승려들이 주 · 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절에서 꾸어온 불보전의 이자를 받으려고 갖은 행패를 부리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는 중앙의 일도 완전한 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자연 지방의 일은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에서 지방에 관원을 파견하여 체제를 갖추어가야 한다. 특히 지금 지방에서는 신라 이래의 호족들이 제각기 버티고 있어 백성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는데 왕자의 정치란 이러한 일을 잘 살피는데 있다. 지금 당장 여러 지방에 관원을 보낼 수 없다면 적어도 열 다섯 곳만이라도 우선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사이 왕은 여철(如哲)이라는 승을 궁중에 맞아들여 복을 빌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일찍이 광종 때에도 선회(善會)라는 승을 맞아들인 일이 있었으나, 그 선회는 길 한가운데서 폭사하

였다. 왕은 이러한 전례를 밟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자들에게서 무슨 복이 나오겠는가.

신라 때에는 공경, 관료, 서인들이 모두 그 품수에 따라 의복의 구별이 엄연히 서 있었다. 우리 고려에서는 아직 그런 법이 있지 않아 귀천의 구별없이 마구 입고 다니어 결국 재력이 풍부하면 천한 사람이고 아니고를 막론하고 능라금수(綾羅錦繡)로 마구 휘감고 다니는 사치의 풍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하면 아무리 귀한 사람도 공복인 통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우리들의 공복을 하루속히 제대로 정하여야 한다.

요사이 승들이 이 군에서 저 현으로 돌아다니며 관역에 묵고는 으레 아전들을 부려 백성들로부터 금품을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다. 앞으로는 승들이 관역에서 묵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백성들이 다시는 그런 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달된 중국의 여러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습관화된 풍속을 갑자기 고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예(禮), 악(樂), 시(詩), 서(書)의 가르침과 군신 · 부자의 도는 마땅히 중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

여러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죄로 오래오래 섬에서 살아 온 것이다. 지금은 먹을 것도 없어 그들의 생활은 매우 처참하다. 거기에 세금징수는 그칠 사이 없고 더욱이 광록사(光祿寺)에서는 그들을 여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매양 다른 군현에서처럼 그 공역을 같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정월에 연등회(燃燈會)를 열고 11월에는 팔관회(八關會)를 크게 베풀어져 오는데 그때마다 그 준비에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또한 그 행사절차도 번거로울뿐더러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므로 이 후로는 팔관회와 연등회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백성들은 때때로 여러 우상을 만들고 기도하느라고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더욱이 그 우상은 한 번 쓰면 버리게 마련이다. 일찍이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에도 그 우상을 보고는 질겁을 하면서 외면하였다고 한다. 그 나라에서는 흉례가 아니면 우상을 쓰지 않는다 하니 우리나라도 이 후로는 이런 쓸데없는 우상을 금해야 한다.

궁중에서 기르는 말과 궁노비는 그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일찍이 태조 때엔 실지로 일하는 노비만 궁중에 두고 나머지는 모두 내보내어 농사짓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광종이 공덕 쌓는 일로 해서 손이 모자라 밖으로 나아가 있던 노비들을 모조리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 숫자도 많아졌고 따라서 궁중의 곡식도 나날이 줄어들어 갔다. 이제 하루속히 그 숫자를 줄여서 태조 때와 같이하기를 바란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승들이 널리 아전을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공사보다도 더 급하게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짓느라고 재촉하고 있으니 그 폐단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이것도 하루속히 엄금하기 바란다.

근래 존비의 차별없이 재력있는 자는 제멋대로 큰 집을 마구 짓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

러 지방의 호족들도 서로 경쟁하여 법도에 어긋나게 큰 집을 짓기에 여념이 없다. 이 처사도 속히 예관으로 하여금 존비의 가옥을 질서있게 구별하도록 법을 만들게 하고 아울러 이미 지어 놓은 것이라도 법도에 어긋나게 큰 것들은 곧 헐고 그 본을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공덕을 쌓기 위하여 베껴 놓은 불경이나 조각한 불상들은 오래 모시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어째서 근래에 와서는 금은으로 장식하여 도둑의 마음을 한결 돋구어 놓는지 모르겠다. 옛적에는 으레 불경은 누런 종이에 먹으로 썼고 또 단향목으로 그 축(軸)을 만들었으며 불상도 나무나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난당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신라 말부터 지나친 사치로 이것들을 금은으로 만들었던 까닭에 도둑이 빈번히 이를 훔쳐다 팔아먹곤 했다. 요즘도 이러한 풍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후로는 금은을 쓰지 말도록 하고 예전과 같이 검소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국공신들의 자손 가운데 아직도 벼슬을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는 노예로 된 자도 없지 않다. 또 광종 때 숙청당한 자손이 아직도 그 가통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모두 공신록에 올려 그 신분에 맞게끔 각각 벼슬을 내리도록 하고 아울러 태조 23년(940)에 역분전(役分田)을 받았던 사람에게도 각각 벼슬을 준다면 모두들 활기를 띨 수 있게 됨은 물론 모든 시끄러운 재해도 제거될 것이다.

불법을 믿는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제왕과 서민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민들이 크게 재를 올린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재화를 없애는데 그치지만 제왕이 베푸는 불교행사는 자연 이모저모로 백성을 괴롭히게 되어 많은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화복귀천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 있는 것이거늘 매사는 이 이치에 따라야 한다. 어디까지나 내생의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별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릇 불교란 자기 자신의 몸을 닦는데 그 근본이 있는 것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근본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자기 몸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내세를 위한 일이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현세의 시급한 과제인데 어찌 제왕으로서 이 시급한 일을 버리고 도리어 먼 날의 일을 위하여 그릇된 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 불경을 읽고 강의해 오는 법회가 있던 터이고, 또 선왕과 선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베풀어 오는 기제도 있다. 이것들은 당장 없앨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다른 번거로운 행사는 없애야한다.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우선 1년 열두 달을 둘로 나누어 2월부터 4월까지와 8월부터 10월까지의 도합 여섯 달에는 불사를 하되 나머지 여섯 달에는 정사에만 오로지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귀신을 모신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아무런 복된 일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종묘사직의 제사는 아직도 법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밖에도 빈번히 산신을 모시거나 혹은 성

숙(星宿)을 모시기도 하는데 무릇 제사란 그 횟수가 빈번하여지면 질수록 자연 번거로워질 뿐더러 경건한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그 제사의 비용은 모두 백성의 고혈과 노역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이제 잡스러운 여러 기제를 없애버려서 백성들을 편히 쉬도록 하여 신임을 얻게 된다면 그 복은 필경 귀신을 모시는 데서 오는 복보다 훨씬 클 것이다.

양민과 천민의 법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며 문란해져서는 안된다. 일찍이 억울하게 노비로 된 사람은 다시 잘 살펴서 그 누명을 벗게 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이 광종 때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 법을 구실삼아 거짓을 꾸며 주인을 모함하려는 노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그 중에는 그런 뜻을 이룩한 사람도 있어 그 하극상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천민을 부당하게 양민으로 만들거나 혹은 양민을 억울하게 천민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최승로는 국방과 재정을 비롯하여 지방정책, 사회정책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그 정견을 올렸던 것이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여러 면으로 논하였는 바 현실적인 여러 폐단이 속히 시정되어야겠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불교를 믿는 것은 상관할 바 아니지만 공과 사를 엄연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불교 말살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온 천하가 불교일색으로 되다시피 한 당시에 이와 같은 정견을 내놓기까지에는 커다란 용단과 각오가 필요했고, 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국로였던 그였기에 서슴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고려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불교 비판자가 되었다.

그가 성종에게 바쳤던 정견인 시무책은 헛되지 않고 많이 실현을 보게 되었다. 성종 2년(983) 왕은 우선 양주, 광주, 충주, 청주, 전주, 나주, 승주[지금 순천], 공주, 진주, 상주, 황주, 해주 등의 12곳에 목(牧)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비록 12군데의 적은 수였지만 파견된 목사로 인하여 중앙과 직접 연결되어 지방행정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즉 단지 향호로써 조직된 반 자치기구에 지방행정을 일임하고 수시로 임시 출장관들이 중앙에서 파견되어 순회할 뿐이었던 것을 이때에 비로소 바로잡아 지방행정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전의 향호들은 중앙과 백성을 연결하는 말단 사무를 보는 향리로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부터 4년 후에는 팔관회와 연등회도 폐지되었다.

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리고 난 후 2년에 벼슬이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로 전보되었다. 그러나 승로는 벼슬을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7년에

이르러서는 문하수시중(門下守侍中)을 제수받았으며, 청하후(淸河侯) 식읍(食邑) 700호에 봉해졌다. 여러 번 상주하여 치사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던 승로는 신라에서 태어나 고려의 건국을 돕고 또한 고려 초기 문물제도의 정비에 기초를 닦는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성종 8년(989)에 예순 세 살로 그 일생을 마쳤다.

왕은 자기에게 정치적인 고문 역할을 하던 최승로의 부음을 듣고 애도하여 그 공훈과 덕을 포숭하여 태사(太師)를 증하고 베 일천 필과 국수 300석, 그리고 경미 500석, 유향(乳香) 100냥, 뇌원다(腦原茶) 200각, 대다(大茶) 10근을 하사하여 그 장례비로 쓰도록 했다. 그리고 시호를 내려 문정(文貞)이라 했다.

후일 목종 원년(998)에는 성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덕종 2년(1033)에는 대광(大匡) 내사령(內史令)에 추증되었다.

참고 문헌 : 『高麗史』

6. 김부일(金富佾)

고려 예종 때 이름을 떨친 학자인 김부일의 자는 천여(天與)이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경주가 본관이며 경주의 주장 위영의 증손이고 국가제주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근(覲)의 아들로 부필(富弼), 부일(富佾), 부식(富軾), 부의(富儀) 4형제 중 차남으로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원에 들어갔다.

송나라에 건너가 뛰어난 명문으로 송(宋)의 철종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숙종 때 습유(拾遺) 지제고(知制誥)를 거쳐 원주, 상주의 군수를 역임한 후 예종 때 예부랑중(禮部郎中)을 지냈는데 그때 요나라가 여진을 치려고 고려에 원병을 청하자 모든 대신이 찬성하였으나 부일은 그의 동생 김부식과 함께 정해(丁亥) 무자병란(戊子兵亂), 윤관(尹瓘)의 정벌(征伐) 직후이므로 출병이 불가함을 역설하였다.

직학사(直學士)에 올라 왕을 비롯하여 보문각(寶文閣) 유신들과 경사를 강론하여 이름을 떨쳤고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김부일을 크게 등용하여 벼슬이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를 거쳐 수태위개부의동삼사판비서성사주국(守太尉開府儀同三司判秘書省事柱國)에 이르렀다.

예종은 부일, 부식, 부의를 모두 문한시종(文翰侍從)으로 하고 그 어머니를 대부인(大夫人)으로 봉하였다. 인종 10년(1132)에 62세로 졸했다.

검교태보수대위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초사 판상서예부사상주국(檢校太保守大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判尙書禮部事上柱國)을 증하고 익호를 문간(文簡)이라

했다. 공은 청렴결백했으며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팔관회(八關會)의 송사(頌辭)와 구호(口號)를 지었다. 예종이 이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조(詔)로 구호를 바꾸지 못하게 명했다. 송나라 악인(樂人) 노중입이 이 사를 송나라 황제에게 올렸더니 송(宋) 천자가 참으로 아름다운 글이라고 극구 찬미한 것은 유명하다. 아우 부의 또한 시문호매하고 강직하여 당세에 유명하여 인종이 동궁에 있을 때 문학으로써 존경을 받아 즉위해서는 이 · 호 · 예 삼부상서(三部尙書)와 한림학사를 역임했다.

서경(西京)천도를 극력 반대하고 반도 토벌 때에는 급공을 반대하고 포위 서공을 주장하여 왕이 이를 가납하고 좌군사(左軍師)를 삼았다. 평정에 그의 계책대로 성공하여 금대(金帶)를 하사받았다.

인종 14년에 죽으니 왕이 영도하고 검교 문하시랑동중서 문하평장사 판상서 예부사상주국(檢校 門下侍郎同中書 門下平章事 判尙書 禮部事上柱國)을 증하고 문간이란 시호를 내렸다.

참고 문헌 : 『고려사』

7.김부식(金富軾)

고려 인종 때 위대한 역사가로, 문장과 관작으로, 또 무운으로 출중한 김부식은 국자제주(國子祭酒)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김근(金覲)의 4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당시 서긍(徐兢)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김부식을 묘사한 것을 보면 풍만한 몸집에 얼굴은 검고 눈은 불룩 솟아 오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의 자(字)는 입지(立之)이고 호는 뇌천(雷川)이다. 그의 형제는 장남이 부필(富弼), 차남이 부일(富佾), 삼남이 부식(富軾), 사남이 부의[富儀, 초명은 富轂]로 4형제 모두 등제하여 고관대작을 지낸 당대의 문한가 세도가들이었다.

숙종 초년까지 고려에서는 세 아들이 등과하면 그 어머니에게 세름(歲稟) 30석을 하사하였는데 숙종 2년(1097)에 넷째 부의가 등제하자 이미 얻은 30석에 10석을 더하여 40석을 그 어머니에게 하사하는 상규가 생겨났으며 예종은 부일, 부식, 부의를 모두 문한시종(文翰侍從)으로 삼고 대학자들을 낳은 어머니를 대부인으로 봉하고 관리에게 명하여 늠속(廩粟)을 세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들이 녹양을 받고 있어 국은이 분에 넘치는 터에 더 받을 수 없다 하여 사양하였다. 또한 김부식의 아들 돈중(敦中), 돈시(敦時)와 손자 군수(君綏)도 이름있는 수재였다.

김부식은 숙종 초에 과거에 급제하여 안서대도호부사록참군사(安西大都護府司錄參軍事)에 보임되었다가 기한이 차자 한림원에 들어갔고, 우사간 중서사인(右司諫 中書舍人)을 역임하였다.

인종이 즉위하던 해 김부식은 48세였는데, 인종의 외조부이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가공할 집권자 이자겸의 권세를 과감히 군신의 예를 논하여 수그러지게 한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인사였다.

그 일화를 보면, 인종 즉위년에 이자겸의 반차예수(班次禮數)를 두고 보문각학사 정극영(鄭克永)과 어사잡단 최유(崔濡)는, "천자가 신하로 삼지 못할 자가 셋 있으니 왕후의 부모가 그 하나인데 군신연회에는 백관과 같이 정하할 수 없고 막차에 들어가서 절하고 왕이 답배한 연후에 앉는 법이다."라고 이자겸을 옹호하는 견해가 조정 중신의 중의로 되어가자 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로 있던 김부식만 반대의견을 들고 나왔다.

"한고조(漢高祖)가 처음 천하를 평정하였을 때 5일에 한 번씩 태공을 뵈었다. 그 때에 태공의 측근이 그에게 진언하여 「천무이일이요, 토무이왕인데 황제는 비록 자식이기는 하나 백성의 주인입니다. 태공은 아버지이긴 하나 백성의 하나가 아니옵니까. 어찌하여 군주로 하여금 신하에게 배례하게 합니까"라고 하였다.

고조는 이 말을 옳다 하고 가로되 "사람의 지친은 부자의 정보다 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천하를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은 천하를 잡고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다. 이것이 인도의 극치이다. 지금 왕후경대부(王侯卿大夫)가 나를 황제로 받들고 있는데 태공에게 존호가 없으니 태공에게 존호를 올리어 태상황이라 하겠노라" 하였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천자의 아버지라 할지언정 존호가 없으면 천자로 하여금 배례케 할 수 없다. 또 불기후 복완(不其侯 伏完)은 헌제(獻帝)의 황후의 아버지인데, 정현(鄭玄)의 말에 의하면, "불기후는 경사에 있어서는 모든 절차를 신예에 따랐고 이궁(離宮)에서는 부모로 귀령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복완공이 정하할 때는 중신과 같이 하고 황후궁에 있어서는 황후가 딸의 예로 배례한 것이다.

또 동진(東晋)의 신하들이 목제(穆帝)의 어머니 저태후(褚太后)의 견부례에 관하여 의논이 분분해서 일치되지 않을 때, 박사 서선(徐禪)이 정현의 말을 가로되, "왕정에서는 군신의 예를 갖추고 사사로 볼 때에 있어서는 부자의 친을 다하는 것이 대순(大順)의 도이다."라고 하였다. 또 위제의 아버지 연왕(燕王)도 상표신(上表臣)이라 하였다.

"부자는 지친이라 하여도 예수가 이렇거늘 하물며 외조부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

도 없다. 의례오복(儀禮五服)의 제도를 보건데 어머니 부모는 5개월 상(喪) 뿐이다. 스스로의 부모를 존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어찌 성상과 항례할 수 있을까. 마땅히 상표신이라 부르고 왕정에 있어서는 군신의 예를 행하고 궁위에 있어서는 가인의 예로 상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공의와 사은이 더불어 고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의 의견을 밝히니 인종은 이 두 의견을 이자겸에게 물어보니 이자겸은, "신이 무지하지만 김부식의 의견이 천하의 공론인 듯 여겨짐에 그 의견을 따르겠나이다. 김부식이 없었더라면 군공들이 나를 불의에 떨어뜨릴번 하였나이다."라고 말하여 인종은 그것을 허락했다.

그 외에도 인종 2년(1124) 김부식이 예부시랑(禮部侍郎)에 전임되었을 때 왕은 이자겸의 조고를 추봉하였는데, 박승중은 분황일(焚黃日)에 교방악(敎坊樂)을 하사할 것을 청하자 김부식은 이에 반대하여, "종묘의 용악(用樂)은 생시의 공적을 표현하는 것인데 분묘에 있어서는 소복하여 종사하고 체읍에 이르는 것이어늘 어찌 용악을 할 수 있겠느냐?"라 하였다.

또 박승중이 이자겸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고 할 것을 희원하자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생일을 '절' 이라고 부른 일은 자고로 없다. 당나라의 현종(玄宗) 때에 처음으로 황제의 생일을 천추절이라고 하였는데, 인신의 생일을 '절' 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아직 들은 바 없다."라고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50 전후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깊은 학식에 의해 피력하였다.

그는 박승중, 정극영과 더불어 『예종실록』을 수찬하고, 어사대인, 호부상서, 한림원학사 등을 거쳐 평장사에 승진하고 수사공(守司空)을 더하였다.

인종 12년(1134)에 왕은 묘청의 말을 들어 서경천도를 하려하자 김부식은 "지난 여름 서경의 대화궁(大花宮)에 30여 곳이나 뇌진하였는데 서경이 정녕 길지라면 그렇게 천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거가가 나서면 농작물이 많이 상할 터이니 이는 인민애물의 뜻이 아닌 줄 아뢰오."

이어서 김부식이 간관(諫官)과 더불어 상소하여 서경행의 불가함을 주장하자 이에 왕은 김부식의 말이 지당하다고 생각하여 서경행을 단념하였다. 묘청의 반란이 바로 이에서 싹트게 되었다.

인종 13년(1135) 정월에 묘청, 조광, 유참 등은 서경을 거점으로 반기를 들었는데 그 때 김부식의 나이는 61세 환갑을 맞은 해였다. 인종은 김부식을 불러 반란 진압의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는데 김부식은 중군의 장수로서 김정순, 정정숙, 노영거, 임영, 이진, 고당유, 유영 등 여러 장수들을 거느렸고 그의 동생이며 이부상서인 김부의는 좌군장으로, 이주연(李周衍)은 우군의 장수로 거느렸다.

먼저 출사에 앞서 여러 장수들과 상의하고 정지상, 김안, 백수한 등이 반란의 주모자들과 공모하였다 하여 궁성문 밖에 그들 3명을 불러내어 목을 베고는 사후에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이 일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김부식을 비방하는 말이 번져나갔는데 후에 이규보의 『백운소설』을 보면, 당시 정지상의 문장이 널리 일세에 알려져 김부식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정지상이 "임궁(琳宮)에 격경파(擊磬罷)하니, 천색(天色)이 정류리(淨琉璃)"라는 시를 쓰자 김부식은 이것이 마음에 들어 그것을 빌어 자작시로 하고자 하였으나 정지상이 그것을 주지 않아 화가 난 김부식이 서경난을 핑계로 정시상을 죽였고 죽은 정지상은 음귀가 되어 김부식을 따라다녔다 할 정도로 당시 김부식과 정지상의 문장력이 비교되었던 것 같다.

서경으로 떠나기에 앞서 융복을 하고 출사보고를 하기 위해 인종을 찾아뵈니 인종은 천복전(天福殿) 계단 위에 오르게 하고 친히 부술(斧鉞)을 주며 군사 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임시키면서, "서경민들도 이 나라 백성이니 큰 괴수만을 목베고 양민의 희생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무운을 빌자 노도와 같은 관군의 북진이 북소리에 맞추어 시작되었다. 우군(右軍)은 선발하여 마천정(馬川亭)에 이르렀고 중군(中軍)은 김교역(金郊驛)에 이르렀을 때 순라기병이 서경의 간첩 전원직(田元稷)을 잡아왔다.

김부식은 전원직을 귀순시켜, "자신자(自新者)는 생명을 보전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천주를 면치 못하리라"고 서경인들에게 전하라고 했다.

당시 군중에는 졸속을 중시하여 선수를 쓰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환갑이 된 노장 김부식만은 졸속의 병법에 반대하여, "서경의 모반은 5, 6년 째 준비된 것으로 설계가 주도하고, 전수(戰守)의 장비를 갖춘 연후에 거사한 것이니 그 불비를 엄습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우리 군사들이 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다가 기장(器仗)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 갑자기 적의 복병을 만나면 위험천만이 아니오? 둘째로는 병사를 견성 밑에 주둔시켜 놓기만 하고 한파가 심하고 땅이 얼어서 벽루(壁壘)를 이루지 못한 채 별안간 적이 쳐나오면 위험하지 않소? 듣건대 역적들은 왕명이라 교언하고 동북 양계에서 병사를 징발하였기에 열성이 호의하여 그 진위를 알 수 없고 만약에 간인이라도 있어서 표리가 상통하면 도로가 막히니 이보다 더한 화가 어디 있겠소. 간도를 거쳐서 적의 배후로 나가 역적들과 손을 끊게 한 연후에 격문을 적에게 띄워 서서히 대병으로 진격함이 만전의 방법인 줄 아오"

이러한 김부식의 지구전에 대해 조신들은 끝끝내 반대하였지만 그는 왕에게 직접 서경의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자 왕은 김부식의 말이 옳

다 하여 그 불평을 물리치고 서경 공격에 관한 모든 것을 김부식에게 또 한번 당부하였다.

그의 지구전은 인도적인 것이다. 과격한 공격으로 희생되는 것은 동포가 아닌가. 김부식의 지구전은 주효하여 인종 14년(1136) 10월이 되자 서경에는 양식이 떨어져 노약부녀를 가려서 성 밖으로 구출하였다. 쫓겨나온 사람들은 굶주려 활기가 없었다. 전졸들도 때때로 투항하여 왔다.

이에 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을 느끼고 예병을 3도로 나누어 중도에 3천, 좌 · 우도에 2천씩을 배치하여 총공격을 감행하니 서경의 조광은 가족과 함께 스스로 자결하였고 서경인들은 최영(崔永) 등을 잡아서 투항해 왔다.

김부식은 이들을 하옥하고 군민을 위유하고 노유 부녀들은 성에 들어가서 각기 가옥을 잘 살피도록 하였다. 김부식은 군의(軍儀)를 갖추어 경창문(景昌門)으로 입성하여 관풍전 서청(西廳)에 앉아서 오군 제장의 하례를 받고 모든 성에 제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병마판관 노수(魯洙)를 서울로 보내어 전승을 왕에게 아뢰고 서경에서 항거하던 자들에게는 '서경역적' 이란 넉자를 이마에 찍어 섬으로 유배했으며 다음은 '서경' 의 두 자를 찍어 향(鄕)과 부곡(部曲)에 각각 유배하고, 괴수급들은 목 베었다.

왕은 김부식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여 의복, 말, 금띠, 금그릇, 은약합을 하사하고, 그는 '수충정난정국공신' 의 호를 받고 검교태보수태위(檢校太保守太尉), 문하시중(門下侍中),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 감수국사상주국(監修國史上柱國) 겸 태자태보(太子太保)에 임명되어 개선하였다. 그 후 집현전태학사 · 태자태사의 벼슬과 동덕찬화공신(同德贊化功臣)의 호를 더하였다.

김부식이 묘청의 반란을 평정하고 개선한 9년 뒤인 인종 23년 그의 나이 71세 되던 해에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사 50권을 찬수하여 진상하니 이것이 오늘날 귀중한 문헌으로 전해오고 있는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는 시대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이를 찬진케 한 인종의 어의(御意)와 같이 매우 강한 민족적인 자부심과 주체사상에서 서술된 우리 민족사의 최고 최상의 빛나는 역사책이다.

김부식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역사가다. 신라 왕손이면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동등하게 다루어 같이 본기(本紀)라 했다. 위(魏)를 정통으로 한 진수(陳壽)의 『삼국지』와 비교할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공정하다.

흔히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민족의 위대한 설화 부분을 삭제해 버린 죄를 논하나, 김부식은 전승(傳承)과 원사료(原史料)에 충실하여 임의로 산삭(刪削)을 가하지 않았다. 그는 당(唐)태종의 군대를 격퇴한 연개소문과 신라의 반역자인 장보고

의 열전을 자랑스럽게 적었다. 그래서 조선의 사대주의 사가들에 의하여 신랄하게 비평받았다.

그는 『삼국사기』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체제를 본받아 기전체로 썼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천자와 동격으로 본기를 두었고 세가(世家)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가 기록해 놓은 여러 고증,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그리고 지(志)에 나타나는 여러 문물제도 및 풍속에 관한 자료와 그 체계를 세운 노력은 값진 것이다. 의종이 즉위하자 낙랑국개국후(樂浪國開國侯)로 봉하고 식읍 1,000호 식실봉(食實封) 400호를 봉하고 의종의 명을 받들어 『인종실록』을 편찬했다.

그는 이러한 학자적, 무운적 탁월함 외에도 외교수완이 뛰어나 송나라 사신 노윤적(路允迪)과 그 수행원 서긍(徐兢) 등을 관반으로서 맞았을 때의 그 능란한 솜씨는 그들이 귀국한 다음 해에 서긍이 엮은 『고려도경』에 실어 절찬하여 해동 제일의 대학자라 하여 송 황제에게 진상함으로써 부식의 이름은 송나라에서도 유명하였다.

『인종실록』을 완성한 2년 후 의종 5년(1151) 2월에 김부식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부식은 후일 고려의 가장 뛰어난 공신으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문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 의종의 6대에 걸쳐 학문과 정치, 외교, 군사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시호를 문열(文烈)이라 하고 중서령(中書令)에 추증되고 인종묘정(仁宗廟庭)에 배향했다.

고려 중기 제일의 문호로 문집 20권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 : 『고려사(高麗史)』

8. 최항[崔沆 ; ?~ 현종 15(1024)]

현종조의 대신. 본관은 경주. 자는 내융(內融). 최언휘의 손자다. 가학을 이어 20살에 갑(甲)과에 급제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 재주를 아껴 우십유지제고(右拾遺知制誥)에 발탁되었다. 목종조에선 여러 번 지공거(知貢擧)에 임명되어 인재를 많이 취선하여 국왕의 신임이 두터웠다.

김치양(金致陽)이 천추태후(千秋太后)와 야합하여 불궤를 도모하자 채충순(蔡忠順) 등과 더불어 현종을 옹립했다. 여러 관직을 거쳐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어 왕의 사부가 되었다. 왕께 청하여 성종 이래 폐지된 팔관회를 부활시켰다.

현종 3년(1012)에는 이부상서 참지정사 감수국사(吏部尙書 參知政事 監修國史)가 되고 추충진절위사공신 검교태부 수문하 시랑동내사문하평장사 청하현개국자 식읍오백호(推忠盡節衛社功臣 檢校太傅 守門下 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 淸河縣開

國子 食邑五百戶)를 받았다.

불교를 독실히 믿고 사환을 싫어하여 70살이 되기 전에 치사를 간청하여 현종이 여러 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황룡사 9층탑 중수를 자청하여 감독을 맡았다. 집에서 불상 예배와 독경생활을 하다가 집을 희사하여 절로 삼았다. 현종 15년(1024) 병이 위독하자 현종이 친히 문병했고 죽자 몹시 슬퍼하고 부의를 후하게 했다.

과묵하고 결단력이 있고 청렴결백한 청백리로 집에 저축이 없었다.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뒤에 문하시중에 추증되고 기일엔 어명으로 현화사(玄化寺)에 도량을 베풀어 명복을 빌었다. 문종 21년(1067)에는 수태사(守太師) 중서령(中書令)에 가증되고 시호가 절의이다.

9. 최제안[崔齊顔 ; ?~문종 즉위년(1046)]

본관은 경주, 최승로의 손자요 최숙의 아들이다. 현종 11년(1020) 요 나라에 천령절 하례 사절로 다녀왔다. 정종 9년(1043)에 문하시랑 동내사문하 평장사(門下侍郎 同內史門下 平章事)가 되고 뒤에는 태사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다. 문종 묘정에 배향되고 시호는 순공(順恭)이다.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사조에 역사하여 인신을 극하였으며, 고향인 남산 고위산에 천룡사(天龍寺)를 세워 중창, 국태민안 성수무강(國泰民安 聖壽無疆)을 기원하는 서가(釋迦)만일도장을 개설하여 최제안(崔齊顔) 가의 원당으로 삼았다.

내사시랑동내사문하 평장사 상주국 최제안(內史侍郎同內史門下 平章事 上柱國 崔齊顔)이 서한 신서(信書) 원문이 절에 오래 동안 전해왔다. 난중에 없어진 태조의 훈요십조를 최항의 집에서 찾아내어 국왕께 바쳐 세상에 전하게 했다.

10. 안치민(安置民, 13세기의 은사)

자는 순지(淳之)요, 호는 기암(棄菴)이다. 벼슬을 하지 않고 경주에 은거했다. 그러나 그는 일세를 울린 천재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문호 이규보(李奎報)가 그의 천재를 극찬한 불우한 귀재였다. 동경에서 당대의 천재 오세재(吳世才), 안순지(安淳之)와 교유했다. 서화에 있어서도 일세의 명필이었다.

이규보의 안치민 평을 들어 보겠다. 이규보가 정동막[일본을 정벌하는 여원연합군 막사 정동성 막료]에 있을 때 안치민에게 준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詩高全勝庭堅体	시는 고상하여 황정견체(黃庭堅体)보다 훨씬 뛰어나고,
文瞻猶存子厚風	문장은 풍부함이 유자후풍(遊資厚風)과 똑같다.
但恨未成華國手	다만 한 되는 것은 나라를 빛내는 솜씨를 이루지 못했구려.
草間呼吋學秋蟲	풀 속에서 우는 벌레 소리를 배우는 것이 한이로구나.
眉毛垂似絲	눈썹은 실처럼 드리워 있고,
胖子炯如水	눈동자는 물처럼 맑고 빛나라.
我不見龐公	내 방덕공[龐德公 : 후한(後漢)의 은사(隱士)]를 본 바 없으나,
見君疑卽是	그대를 보니 마치 그 사람 같구나

참고 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1. 오세재(吳世才 ; 1133~미상)

고려 중기의 문호, 본관은 고창(高敞), 자는 덕전(德全)이다. 한림학사 학린(學麟)의 손자다. 당시의 세 손자 세공(世功), 세문(世文), 세재(世才) 삼형제가 문명으로 일세를 울렸다. 그 중에서 세재가 가장 뛰어나고 세문이 그 다음이었다.

세재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칭찬되었다. 학문에 힘써 손으로 육경을 베껴 읽고 『주역』을 외어 통달하고 육경에 통달했다. 시문을 잘하여 한유와 두보의 체를 얻어 문명이 세상을 진동했으니 초수목동에 이르기까지 공의 이름을 모르는 이 없었다.

뛰어난 천재라 강직한 기개는 당시 조정에 맞지 않아 불우하게 지내다 명종대에 과거에 급제했다. 그는 당대의 명상 문극겸(文克謙), 한문준(韓文俊)의 문인이다. 두 형은 모두 등제 후 벼슬길에 나아가 현달했으나 공은 성품이 자유분방하고 너무나 명석 준민하여 고루한 규범에 얽매이지 않아 세상에 맞지 않았다. 이인로(李仁老)가 세 번이나 글을 올려 추천했으나 끝내 벼슬에 오르지 않았다.

당대 최고 명문 경흥 이씨 가문에 태어나 평장사 이오의 증손자로 당대의 문호이던 이인로와 금난지우(金蘭之友)로 유명하다. 당대의 명유인 이인로, 임춘(林椿), 조통(趙通), 황보항(皇甫抗), 함순(咸淳), 이담지(李湛之)와 더불어 연령을 초월하여 망년지우를 맺어 시주로 즐기며 놀며 일세의 호준이라 칭하며 칠현이라 자부하니 세상에서 진(晋)나라 혜강(嵇康), 원적(阮籍), 유령(劉伶) 등의 죽림칠현(竹林七賢)에 비겨 해좌칠현(海左七賢)이라 칭했다.

오세재가 세상을 떠나매 이담지가 이규보에게 이르기를 "자네가 가히 그 자리를 보충하겠는가?" 함에 이규보가 말하기를 칠현이 어디 조정의 관작이라 그 결

원을 보충하겠는가. 아직 혜강, 완적의 뒤를 계승한 이가 있음을 듣지 못했노라 하여 모두 한바탕 웃었다 한다.

개경 서울에서 불우한 신세 세상에 쓰이지 못함을 체념하고 아주 떠나 외가인 동경에서 은둔할 생각을 가져 가고 싶었으나 먼 곳이라 걸어가기 어려웠다.

동경(경주)에 때마침 제고사(祭告使)의 축사(祝史)를 자원하여 역마를 타고 가서 일을 마치자 그곳에 와서 살았으며 금오산에 있는 최치원의 고택 상서장(上書莊)에 살면서 당대의 명류 안순지(安淳之)와 같이 놀며 여생을 보냈다. 당대의 천재 안치민이 자주 뵈옵고 공의 시를 절찬(絕讚)하고 존경했다.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가난에 쪼들리다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시는 이규보 최자(崔滋)에 의하여 높이 찬양되었다. 그는 명필로 당대를 풍미했다. 저 유명한 「한림별곡」에,

眞卿書 飛白書 行書草書
篆籀書 蝌蚪書 虞南書
羊鬚筆 鼠鬚筆 빗기드려
위 딕논 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吳生劉生 兩先生의 吳生劉生 兩先生의
위 走筆人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최치원의 고택 상서장

라는 노래의 오생은 오세재를 말한다. 절세의 문호 이규보는 공의 재주와 불우한 생애를 애석히 생각하여 오선생 덕전 애사를 지어 애도했다. 18살의 이규보에 53살의 오세재는 망년지교로 친교했으나, 이규보는 복양선생이라 존대했고 사부로 대접했다. 이규보가 사시하여 현정선생이라 영전에 바치고 스승으로 존대했다. 『동문선』에 실린 그의 시를 소개하면,

김무적이 준 시를 차운하여

재주를 이하의 고헌과시 지은 재주를 앞서고,
도는 성문에 든 양웅에 비교할 만하네 .
백 아름이나 큰 재목 쓰임이 없으매 쓰이고,
세치 긴 부리 말 없음을 말하네 .
선동이 곤륜산의 약을 부쳐오지 않으니,
공자는 공융의 술병이나 기울이누나.

투후 김일제처럼,
깨끗한 충성으로 국은을 입으리.

참고 문헌 :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경잡기』, 『동문선』, 『동국리상국집』, 『보한집』

12. 이제현(李齊賢)


이제현 영정
(문화재자료 제90호)

초명은 지공, 자는 중사(仲思), 호는 익제(益齊), 실제(實齊), 역옹(櫟翁), 본관은 경주, 대대로 경주 사람이었다. 1287년(충렬왕 13년)에 개성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비는 정당문학(政堂文學)을 거쳐 검교첨의정승(檢校僉議政丞)을 지낸 임해군문정공진(臨海君文定公瑱)이었다. 그는 제자백가에 통달하고 시문에 뛰어난 문인이었다. 아내는 당대의 거유요 영도첨의사사 영가부원군 문정공 권부(領都僉議司事 永嘉府院君 文正公 權溥)의 딸이다. 그의 처가는 일가구봉군(一家九封君)이란 영광을 누린 당대의 명문거족이었다.

이제현이 출세하는데 그의 아비와 처가의 후광이 컸던 것이다. 물론 이제현의 위대한 자질은 당대에 뛰어난 인재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성리학자 백이정(白頤正)의 문인이다. 13년(충렬왕) 성균시에 장원하고 이어 문과에 급제했다. 이후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다.

왕위를 아들 충숙왕에 양위하고 상왕이 되어 원나라 대도에 살던 충선왕이 대도[大都; 지금의 북경(北京)]에 만권당(萬卷堂)을 짓고 원나라 조맹부(趙孟頫) 등 일류 학자를 초치할 때 본국에서 이제현을 초빙함에 원(元)에 가서 당대의 원 문사들과 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전을 연구하게 되었다.

1316년(충숙 3년)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에 승진하고 이듬해 선도전서(選都典書)로 원에가서 상왕의 생신을 축하했다. 이때 그는 상왕의 부탁으로 장강상류 서촉(西蜀)의 명산 아미산(名山峨眉山)에 가서 악산봉사(嶽山奉祀)를 하고 1319년엔 상왕을 수행하여 강남지방을 유람하여 절강(浙江)의 보타사(寶陀寺), 혜인사(慧因寺)에 불공 시주도 했다. 이듬해에 지밀직사(知密直司)에 올라 단성익찬공신(端誠

翊贊功臣)이 되었다.

이 해에 원에 있던 고려인 임바얀투크스의 모함으로 상왕(충선왕)이 원황제의 노여움을 사 15,000리나 되는 티베트 사스카에 섣달 엄동설한에 10개월에 걸려 도착하는 유배를 당하자 이제현은 원승상에 간곡한 서한을 보내여 노력하여 감숙성 타스마에 이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제현은 이 궁벽한 먼 곳에 상왕을 뵈올려고 가는 도중 상왕이 방면되었다.

1325년에 정당문학 김해군(金海君)에 봉해지고 1336년에 삼중대광예문관사(三重大匡藝文舘事)에 올랐다. 1339년 심왕고(瀋王暠)가 모역하다 실패하자 원제에 충숙왕을 모함하여 원사 두린(頭麟)이 와서 왕을 잡아가자 이에 본연히 연경에 가서 사실을 해명하고 와서는 시골에 은거했다.

충혜왕(忠惠王) 복위 4년(1343) 원나라가 왕을 포박해가자 충정어린 글을 올려 사면을 주장 · 방면케 했다. 1348년 충목왕이 죽자 원나라에 가서 충정왕의 승습을 요청했다.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자 우정승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에 오르고 1356년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다.

1362년 홍건적의 침입 때는 왕을 청주에 호종하고 계림부원군(雞林府院君)에 봉해졌다. 만년엔 은퇴하여 왕명으로 실록을 편찬했다. 공민왕(恭愍王) 16년(1367) 81세로 생애를 마쳤다.

충숙왕 10년(1323)에 유청신(柳淸臣) 등이 고려를 없애고 원의 성으로 개편하는 일행정구역으로 만들자 원에서는 이를 실시코자 했다. 이에 공이 충성이 넘치는 글을 원에 보내어 취소케 했던 것은 유명하다.

선생의 시는 동국제일의 정종(正宗)으로 치며 동국의 두자미(杜子美)라 칭한다. 문장은 김부식과 병칭된다. 유성룡(柳成龍)은 선생을 평하여 "옛날에 불후의 이름을 남기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덕(德), 공(功), 언(言)이다. 덕이 있는자 반드시 공이 있는 것도 아니오 공이 있는자 반드시 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고려 오백년 간에 세상에 이름난 자 많으나 오직 선생뿐이로다"라고 했다. 그의 시문은 중국 천지를 두루 답사하여 지은 호탕하고 뛰어난, 우아하고 고상한 것들이었다.

13.최해[崔瀣 ; 충렬왕 13(1287)~충혜왕 1(1340)]

고려 후기의 학자로 본관은 경주. 문창후 최치원의 후예다. 자는 언명보(彦明父)또는 수옹(壽翁). 호는 졸옹(拙翁), 예산농은(猊山農隱)이다. 아비는 장원급제하여 민부의랑(民部議郎)에 오른 백륜(伯倫)이다. 원이 고려왕경유학교수(高麗王

京儒學敎授)에 제수했다. 최해는 어려서부터 천재로 칭찬받아 아홉 살에 능히 시를 지었고 장성함에 학문이 날로 진보하여 세인이 경탄했다.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에 보임되었고 마침 학유(學諭)의 자리가 생겨 이수(李守)와 경합하게 되었다. 정승 최유엄이 이수를 추천함에 아비 최백륜이 최정승을 자못 과격 불손하게 공격하여 백륜이 고란도에 유배되기도 했다.

최해는 예문춘추관 검열에 선임되었으나 일로써 장사 감무로 좌천 되었다가 예문춘추관 주부에 임명되었다. 충숙왕 8년(1321)에 원나라의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쳤다. 원의 벼슬 요양로(遼陽路) 개주(盖州) 판관(判官)에 임명되었으나 임지는 궁벽하고 일은 복잡하여 재직 5개월 만에 병을 핑계하여 사직하고 고려로 돌아왔다.

본국에서는 예문, 성균, 정교 삼관이 함께 영빈관에서 뜨겁게 환영하였다. 예문응교를 제수받고 드디어 검교성균관대사성에 승진했다. 그는 재주가 뛰어나고 뜻이 높아 글을 읽던지 지음에 사우를 따르지 않고 초연히 자득하여 이단에 미혹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여 고인에 부합하기를 힘쓰니 사물을 논함에는 참으로 그 정당함을 알면 비록 노사 숙유로서 당대의 대종(大宗)이라도 과감히 비판 · 공박하여 확고부동한 신념을 견지했다.

연우과(延祐科)가 일어남에 조를 듣고 말하기를 "가히 배운 바를 시험할 것이다"고 하더니 과연 원나라 제과에 합격했다. 동년 장원 송본(宋本)이 그의 재주를 칭찬하여 여러 번 시로 찬양하니 이로부터 그의 명성이 더욱 떨쳐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이를 미워하여 배척했다. 그리고 말을 삼가지 않고 바른 말을 함부로 하여 아첨하지 않아 당세에 크게 등용되지 못했다.

그는 벗을 사귐에 반드시 단정한 사람을 취하고 시주로 스스로 즐겼다. 이제현, 민사평과 친했다. 일찍이 동래현을 지나다 해운대에 올라가서 합포 만호 장선이 소나무에 시를 지어 쓴 것을 보고 말하기를 '아! 이 나무가 무슨 액운이 있어 이 악시를 만났던고' 하고는 드디어 깎아 버리고 흙으로 칠했다.

가다가 안동에 이르니 장선이 이 사실을 듣고 노하여 맹장 3~4인에게 이를 추격하여 시종 한 사람을 잡아 돌아와 칼을 씌워 문밖에 세워 두었다. 이 때 최해는 피하여 죽령을 넘어 서울에 돌아왔다. 이 사건은 유림에 웃는 바가 되었다. 이와 같이 그는 재주를 믿고 매사에 오만함이 이와 같았다.

그는 평생에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 졸옹이라 호를 하고 성남의 사자산 밑에 살면서 자서전인 「예산은자전(猊山隱者傳)」을 지어 자기를 말하기를 은자의 이름은 하계(夏屆)요 혹은 하건(下建)이라고도 하였으며 창괴(蒼槐)는 그의

성씨다. 대대로 용백국의 사람이 되어 본래 복성이 아니었는데 은자에 이르러서 이음(夷音)이 완만함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병합하여 이를 바꾼 것이다.

은자가 바야흐로 어릴 적에 이미 천리를 아는 것 같았고 취학함에 미쳐서 한 구석에 머무르지 않고 잠깐 그 요지를 얻으면 문득 졸업함이 마침내 없으니 그 범전하고 궁리하지 않음이다. 조금 성장하매 개연히 공명에 뜻이 있었으나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성품이 높은 사람을 찾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술을 좋아하여 몇 잔 마신 뒤에는 남의 선악을 말하기를 즐겨 무릇 귀로 들어간 것은 입에서 감출 줄을 모름으로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문득 거용되었다가는 문득 배척당했다.

비록 친우가 그를 애석히 여겨 고치고자 하여 혹은 권고하고 혹은 책망하여도 보았으나 능히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중년에는 자뭇 스스로 뉘우쳤으나 사람들이 이미 상대하기를 만만치 못할 것이라 여겨 쓸 수 없다 하였다.

은자도 또한 다시 세상에 뜻을 두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왕래한 자는 모두 선인으로 그같이 하지 아니한 자는 욕심이 많은 자들이니 여러 사람을 얻기는 진실로 어렵다 하니 이것은 그의 단점을 장점으로 삼는 까닭이다.' 고 했으니 그의 성격과 일생을 솔직히 묘사한 자화상이다.

말년에는 사자갑사 승려와 상종하며 밭을 빌려 경작하여 호를 예산농은(猊山農隱) 이라했다. 그의 좌우명에 너의 밭과 너의 동산은 삼보의 중은이니 취족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삼가 가히 잊지 말 것이라 했다. 은자는 본래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그 전호(佃戶)가 되었다고 자학자조했다.

54세에 세상을 마쳤다. 고려 명현의 시문을 선발하여 『동인지문』 25권을 편찬하고 그의 문집은 『졸고천백(拙槁千百)』 2권이 전한다. 이 책은 일본에만 있는 천하의 고본이다. 슬하에 아들이 없다. 죽을 때 씻은 듯이 가난하여 장사를 치를 수 없어 친구들이 부의를 거두어 장례를 치루었다.

참고 문헌 : 『고려사』, 『동경잡기』

14. 오언잔(吳彦棧)

본관은 고창이며 자는 선지(善之)라 했으며 호는 은와(隱窩)이다. 충목왕 원년(1345)에 출생했으며 공민왕 18년(1345)에 무과급제한 후 왜구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상장군(上將軍)에 올랐다. 시호는 장무(壯武)라 했다.

참고 문헌 : 『고려사』

15. 김진양(金震陽)

김진양은 고려 말에 태어났으며, 자는 자정(子靜)이고 호는 초옥자(草屋子) 초려(草廬)이었다. 그는 계림부, 즉 경주 사람으로 성품은 강개하며 출중하였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으나 상심하지 않고 학업을 꾸준히 성취하였다.

그 결과 공민왕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검열(藝文檢閱)에 뽑혔으며, 또한 10년이 되지 않아서 화요(華要)한 직책을 지녔다가 외직에 전보되었다. 즉 서해도안염(西海道按廉)이 되어 많은 치적을 이루어 그 공적이 있었고, 이어 다시 중앙에 들어와 문하사인(門下舍人)을 거쳐 좌사간(左司諫)에 승진하였다. 공양왕 때에 이르러 이초의 옥사가 일어나자 진양은 동료에게 "이초의 일은 세 살 난 어린아이라도 또한 그 무망함을 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그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는데, "대역을 경솔히 의논하여 정론을 저지하니 청컨대 관직을 삭탈하고 먼 지방으로 유배하고 서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탄핵했다. 이에 그는 대역을 경솔히 발설하였다 하여 잠시 그 직을 파면당하였으나, 곧 다시 기용되어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가 되었다가 이어 좌상시(左常侍)로 옮겼다.

이 때 김진양은 고려 왕실파인 우사의(右司議) 이래(李來), 좌헌납(左獻納) 이감(敢), 우헌납(右獻納) 권홍(權弘), 정언(正言) 유기(柳沂) 등과 함께 이성계파의 우익인 삼사좌사(三司左使) 조준(趙浚), 전 정당문학(政堂文學) 정도전(鄭道傳),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남은(南誾), 전 판서(判書) 윤소종(尹紹宗), 전 판사(判事) 남재(南在), 청주목사(淸州牧使) 조박(趙璞) 등이 변란을 꾸며 민심이 흉흉하다고 상소하여 논핵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정도전은 미천한 신분에서 몸을 일으켜 당사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천한 근본을 숨기고자 하여 본주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혼자 일을 하기 어려우므로 참언으로 죄를 얽어 만들어 많은 사람을 연좌시켰습니다. 조준은 한두 사람의 경상 사이에서 우연히 원수와 같이 틈을 일으켜 도전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변란을 선동하고 권세를 희롱하여 여러 사람을 꾀고 협박하니, 이에 관직을 잃을까 걱정하며 세를 좇는 무리와 그 뜻에 영합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다. 그 중에 남은(南誾), 남재(南在) 등은 변란을 선동하는 우익이 되고, 윤소종(尹紹宗), 조박(趙璞) 등은 말을 지어내는 후설이 창화하며 일어났다. 조준은 이성계가 회군 이후 공양왕을 세우려는 것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행이 권세있는 연줄을 타서 도리어 공신의 이름을 얻어 공신의 반열에 참가하여 품계를 뛰어 넘어 진짜 공신보다 10배나 되는 영

화를 누렸으나 개과천선하여 죄를 가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몰래 우익이 되고 후설이 되는 무리들과 함께 때도 없이 모여서 모의하였습니다. 신 등은 두려워하건대 반드시 그 도모함을 이룩하지 못하면 또 불충한 의논이 있을 것이니 일찍 이들을 처치하여 그 세력이 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신 등이 듣건대 은(誾)이 일찍이 아뢰기를 전하는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인의를 베푼다 하였으니 이 말이 웬말입니까. 은(誾)은 국가에 별로 특수한 공도 없이 갑자기 대부(재상)에 올랐으니 전하의 하사함이 컸는데도 이에 준(浚)과 도전(道傳)의 뜻에 영합하여 일찍이 은혜에 감동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없고 감히 경멸하고 모욕하는 불경스런 말로 임금의 뜻을 격동케 하였으니, 그 용의하고 간악함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가히 두렵습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그 죄가 오직 같은데 전하께서 만약 고식적으로 결단하지 않으시면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원망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못할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준(浚), 은(誾), 재(在), 소(紹), 종(宗), 박(璞) 등의 직책과 공신의 녹권(錄券)을 회수하고 그 죄를 국문하여 형벌을 밝게 다스리고 도전(道傳)은 이에 폄소에서 처형하여 후래를 경계함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성계파에 대한 일대 숙청을 건의했다. 상소가 올라가자 궁중에서 우유부단한 공양왕은 보류하고 명을 내리지 않자 진양 등이 헌사(憲司)에 이첩하여 이졸을 풀어 준과 곤의 집을 지키게 하였다.

이 때 준은 독서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나는 사직을 위할 뿐이니 또 무엇을 근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튿날 진양 등이 합에 엎드려 다시 죄를 청하자, 이에 왕은 시중 심덕부, 정몽주를 불러 의논하여 드디어 죄인들을 벌하였는데, 조준은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고, 남은, 윤소종, 남재, 조박은 관직을 박탈하여 먼 지방으로 유배하였다. 정도전 또한 유배 중에 있었으나 지신사 이첨이 잊어 버리고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진양 등이 아뢴데 의거하여 사람을 봉화로 보내어 도전을 잡아서 보주로 가두었다.

대사헌 강희백 등 사헌부 관원이 준(浚) 등을 다시 죄줄 것을 청하자, 진양 등이 또 말하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필경에는 다시 나고, 악을 제거하고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이 자라난다고 하였습니다. 준과 도전은 악의 뿌리요 남은, 윤소종, 남재,조박은 그 뿌리를 길러 무성케 하는 자입니다. 전일에 신 등이 글을 올려 복주할 것을 청하였으나 오직 도전은 윤허를 받았으나 나머지 사람은 다만 외방으로 폄출되었으니 죄는 같은데 벌은 다릅니다. 청컨대 준 등을 모두 극형에 처하소서" 하였다.

왕이 몹시 놀라며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 도전을 베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고

는 명하여 도전은 광주로, 준은 니산으로 옮겨 유배하고, 은, 소종, 재, 박 등은 모두 수원에 모아 순위부천호(巡衛府千戶) 김구련(金龜聯), 형조정랑(刑曹正郎) 이반(李蟠)과 양광도관찰사(楊廣道觀察使) 강은(姜隱)을 보내어 함께 국문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미온적인 공양왕의 우유부단한 처결은 뒷날 이들에 의하여 폐위되고 고려 왕조는 망하고 왕 자신도 죽게 되는 운명을 불렀다.

이때 진양은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우현보(禹玄寶) 등과 함께 조준, 정도전 등을 죽이고 세력이 커져가는 이성계를 병으로 있는 기회를 계기로 제거하려 하다가 도리어 정몽주가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 등에게 피살됨에 따라 죄를 입게 되었다.

몽주가 피살됨에 미쳐 태종(太宗 : 이방원)이 태조의 동생 화와 더불어 의논하고는 정종에게 "만약 몽주의 당을 국문치 않으면 신 등을 죄주십시오."라고 아뢰게 했다. 이에 왕은 "외지에 유배함이 옳을 것이요, 반드시 국문할 것은 없다."고 하였으나 양사가 국문할 것을 계속 청하게 됨에 따라 판삼사사(判三司事) 배극렴(裴克廉), 문하평리(門下評理) 김진(金溱)에게 명하여 순군제조(巡軍提調) 김사형(金士衡) 등과 함께 죄를 다스렸다.

이에 진양이 토설하여 말하기를 "정몽주, 이색, 우현보가 이숭인, 이종학, 조호를 시켜 신 등에게 이르기를 판문하(判門下) 이성계가 공을 믿고 오로지 천단하는데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우익인 조관(趙觀) 등을 제거한 뒤에야 가히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숭인, 호, 종학과 그 아우 종선, 몽주의 아우 예조판서 과(過), 사재령(司宰令) 도(蹈) 및 그 당 정우, 이당을 국문하니 모두 자복하였다.

그 결과 조준이 풀려 돌아오게 되고 남재, 조박은 모두 복직되었으며, 정도전, 남은, 윤소종은 용서받고 사면되었다. 반면 진양, 이숭인, 조호, 이종학 등은 먼 곳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율문을 상세히 고찰한 법관이 "진양 등의 죄는 참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하여 죽이기를 청했다. 이에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음이 오래인데, 진양 등이 몽주의 사주를 받았을 뿐이니 어찌 가히 함부로 형벌을 쓰겠는가?" 하였고, 또 "마땅히 곤장을 치소서"하니 태조가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으니 어찌 곤장을 칠 필요가 있겠는가?" 하여 진양 등에게 벌을 더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조의 휘하에 있던 유만수(柳曼殊), 윤호(尹虎), 황희석(黃希碩) 등이 글을 올려 몽주의 집을 적몰하고 그 당을 아울러 다스리기를 청하게 되자 왕은 이 의견을 쫓아 진양, 확(擴), 숭인(崇仁), 호(瑚), 종학(種學), 종선(種善) 등의 고신을 빼앗았다. 또한 대간이 글을 번갈아 탄핵하여 죄를 청하였다.

즉 "김진양의 무리가 흔단을 만들고 일을 일으켜 화란을 이룬 것은 그 모의가 하루에 한 것이 아니며 그 당이 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또 인순을 하고 고식적으로 방치하고 묻지 않는다면 신 등은 여러 사람의 의심이 풀릴 수 없으며, 여러 사람의 마음이 편안할 수 없으므로 변고의 발생과 간사의 일어남이 장차 그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시켜 진양 등의 정상을 구문하여 경중을 따라 그 죄를 밝혀서 재화의 근본을 근절하소서."라고 죄를 청했다.

이에 왕은 다시 국문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다만 앞서의 옥사에 의거하여 그 경중을 아뢰게 하였다. 그 결과 진양은 장 일백의 형벌을 받고 먼 지방에 귀양갔다.

이처럼 진양은 쓰러져 가는 고려 왕실을 보존코자 하였으나 도리어 성장하는 이성계의 세력에 의해 화를 입고는 유배되었고, 결국은 유배지에서 그 일생을 마쳤다. 공의 충절은 만고에 빛나리라. 공은 고려 충신 이숭인과 막역한 친구로 금란지계를 맺었다.

참고 문헌 : 『고려사(高麗史)』

16. 이존오(李存吾)

공민왕 때에 직간(直諫)으로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난 이존오(李存吾)의 자는 순경(順卿)이고 경주인이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읜 이존오는 용모와 자태가 단정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학문에 힘을 써 10여 세에 12도에 예속되어 공부하였다.

"큰 들이 다 함몰하였으나
높은 산은 홀로 의연하였다."
라고 강물이 넘친다는 제목으로 시를 지어 주위의 삶을 놀라게 했다.

공민왕 9년(1360)에 문과에 급제하여 수원서기(水原書記)가 되었다가 사한(史翰)으로 있을 때 정몽주, 정도전, 이숭인, 박상충, 김구용, 김제안 등과 더불어 서로 벗하며 친하게 지냈고, 강론함이 쉴 날이 없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여러 번 감찰규정이 되었다가 공민왕 15년에 정언이 되었는데, 이 당시는 신돈이 국권을 잡고 전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신돈의 위세가 무서워 감히 말하는 자가 없자, 존오는 분격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이를 논란하고자 상소할 초고를 가지고 성(省)에 가서 주위의 동료에게 보이자, 모든 낭관(郎官)들은 위축되어 선뜻 동조하는 자가 없었다. 당시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정추(鄭樞)는 이존오와 인척 간이므로 그에게 말을 하니 추는 이존오의 의견을 좇아 함께 신돈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는 대언(代言) 권중화(權仲和)에 의해 임금에게 읽혀졌는데, 반도 못 읽어 임금은 크게 노하여 불에 태우라고 명하고, 추와 존오를 불러 면책을 하였다. 면책하는 자리에 신돈이 임금과 더불어 평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으므로, 이존오가 임금 앞에서도 신돈의 무례함을 꾸짖자 임금은 더욱 노하여 그를 하옥시키고 국문하게 했다. 국문관은 그의 성난 눈을 두려워했다.

그 때 그의 나이가 25세였으므로 국문하는 찬성사 이부춘이 그에게 젖내 나는 동자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뒤에서 사주한 자를 말하라고 하자, 그는 "국가가 동자를 아는 것이 없다 않고 언관(言官)에 두었으니 어찌 말하지 않아 국가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조금도 동요되는 빛이 없이 당당하게 말을 했다.

돈의 무리들은 반드시 그를 극형에 처하려고 했는데 이색 등이 힘을 써서 죽음은 면하고 장사감무(長沙監務)로 좌천시켰다. 그 후 공주(公州) 석탄(石灘)에서 은둔생활을 하였는데, 신돈의 권세가 더욱 성하자 울분하여 병을 얻었다. 공민왕 20년에 병이 심하자 좌우를 시켜 붙들어 일으키게 하고 말하기를 "돈의 세력이 아직도 성하느냐?"하자, 그렇다고 하니 "돈이 죽어야만 내가 이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 자리에 도로 편안히 눕기도 전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죽은 지 3개월 만에 돈은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임금은 그의 충성을 생각하여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을 추증하고 10세 된 아들 래(來)에게는 임금이 손수 「간신 존오지자 안국(諫臣存吾之子安國)」이라고 글을 써 정방(政房)에 내려 장차직장(掌車直長)을 제수하였다. 안국은 래의 어릴 때 이름이었다. 이와 같이 강직하고 곧은 그 성품은 후대 간관의 모범이 되어 길이 기억되었다.

참고 문헌 : 『고려사(高麗史)』

17. 김자수(金子粹 혹은 自粹)

일명 자수(自粹), 자는 순중(純仲), 호는 상촌(桑村), 본관은 경주로 고려 공민왕 23년 1374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덕녕부주부(德寧府注簿)를 출발로 관계에 나아갔고, 성격이 매우 강직했다.

우왕 시에는 정(正)에 이르렀다. 때에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 조민수(曺敏修)가 밀성(密城)에 침략한 왜구(倭寇)를 격퇴하여 수 10급을 참하는 전공을 올려 포상으로 우왕이 옷과 술과 말을 하사하자 조민수(曺敏修)가 상전하여 사은

소(謝恩疏)를 올리니 국왕이 회교를 지으라고 명했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조민수는 일도의 병을 통솔하여 전일에 김해, 대구의 싸움에서 겁나하여 패적이 많아 사졸을 많이 죽였으니 지금 밀성의 소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이 아직도 그 죄를 갚는데 부족하며, 의주구마로 상이 이미 과한데 또 무슨 회교가 필요하며 또 회교는 공적을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조민수는 기공을 기록할 만한 것이 없어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고 국왕의 명을 거부했다.

우왕이 대노하여 김자수를 순위부(巡衛府)에 내려 지윤(池奫)과 대사헌(大司憲) 하윤원(河允源)으로 하여금 국문(鞫問)케 했다. 지윤(池奫) 등은 이를 위지(違旨)의 죄에 두고자 했다.

자수가 말하기를 "선왕이 간관을 두는 것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로부터 왕의 언(言)이 불가함이 있으면 간관은 이를 간한다. 원컨대 제공은 국가가 쟁관을 두는 뜻을 살피시오." 함에 지윤이 크게 노하여 장유하려 하여 도당(都堂)에 의논케 했다.

모든 재상들이 지윤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다만 밀직부사(密直副使) 이보림(李宝林)의 건의에 의하여 도당은 이를 유배에 그치기로 청했다. 그러나 우왕이 듣지 않았다.

삼사우사(三司右使) 김속명(金續命)이 들어가서 태후에 아뢰어 드디어 태후의 말에 의하여 장을 면하고 전라도 돌산(突山) 수(戍)에 유배되었다. 뒤에 전장부령(典杖副令)을 배하고 판사재사사(判司宰寺事)로 옮겼다.

공양왕 때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세자좌보덕(世子左補德)을 제수했다. 때에 천문의 이변이 일어나 직언을 구함에 자수는 상서해서 봉불의 잘못을 말하고 연복사탑중수(演福寺塔重修)의 공역을 그만두고 민력을 덜게 하기를 청했다. 성균생원(대학생) 박초 등이 상소해서 이를 극론하여 왕의 숭불을 통박하니 왕이 대노하였다.

처음에 사예(司藝) 류백순(柳伯淳)이 성균관 대학생들에 효유해서 상소치 못하게 했다. 그러나 박초 등 15인은 이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유백순은 다시 지신사(知申事) 성석용(成石瑢)에 말해서 그 상소를 만류하게 했다.

박초 등은 이를 알고 항거하려 했다.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오늘날 국립대학총장] 김자수는 그들의 무례를 보고 크게 노하였다. 그러나 박사[국립대 교수] 김초(金貂)와 김조(金祖) 등은 박초 등을 비호했다. 그들은 생원[대학생] 서복례(徐復禮)가 소에 서명치 않는다고 격하여 북을 쳐서 서복례를 크게 징계하여 퇴학시켰다.

이에 김자수는 김초 등이 장관(長官)에 고하지 않고 생원을 퇴교시킨 것에 크게

노하여 김초의 가노를 잡아 가두고 서복례를 불러서 복학시켰다. 김자수가 학교에 출근하니 김초 등이 이를 마당에서 맞이하지 않았다. 이에 김자수는 하관에게 모욕당한 것을 부끄러워 하여 상전하여 사직코저 했으나 왕이 윤허치 않았다.

그는 성리학자로 성균관 대사성으로 재직 시는 숭유배불정책에 공헌하고 성리학을 펴는데 공헌했다. 그의 문교에의 공로는 당대에도 찬양받았다. 얼마 안가서 그는 전교사판사(典校寺判事)가 되고 좌상시(左常侍)로 전직하고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고려가 망하자 은퇴하여 안동에 은거했다. 모친상을 당하자 여묘 3년을 살아 조정에서 효자로 정려하였다.

조선이 개국하여 태조가 옛 친분으로 공을 대사헌의 관직으로 불렀으나 수절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태종이 다시 형조판서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공은 고려에 충절을 지키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가묘에 영결 · 통곡하고, 그 아들에게 장구(葬具)를 가지고 뒤따르라 명하여 바로 그 날로 길을 떠나 광주 땅의 추령에 이르러 그 아들에 이르기를 "이 땅은 바로 내가 죽을 곳이다. 비록 여자로서도 오히려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남의 신하가 되어 두 성의 임금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너는 반드시 추령의 근방에 나를 매장하되 절대로 비를 세우지 말고 초목과 함께 썩게 하라"고 하고는 절명사 두 구절을 지어 읊은 다음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고 말았다.

추령은 고려 충신 정몽주를 장사한 곳이라고 하는 기사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나온다. 『연려실기술』에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김자수가 후사본조(後仕本朝)했다는 기사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싣고 있다.

> 우천(愚川) 정칙(鄭侙)의 상촌사적비(桑村事蹟碑)에 『여지승람』의 김관찰(金觀察)의 이름 아래 사본조 세 글자가 쓰여 있다. 『여지승람』을 지은 것이 광릉 즉 세조 때의 일이었으므로 국초로부터 시대가 그다지 멀지 아니하여 김관찰이 자결하여 죽던 일은 비록 은거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에 반드시 그 사실을 들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
> 그러나 『여지승람』에 다만 본조에 벼슬했다고만 기록한 것은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태조가 처음 나라를 세우던 날부터 따르던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던 때 그 밑에 협찬하던 사람들이 재주있고 뛰어나지 아니한 인물이 없었다. 홍문관, 예문관에서 붓을 잡은 이와 문청에 총재한 이들이 모두 세조의 거사에 협력하던 무리들이 아니면 곧 태조에게 붙었던 이들의 자손들이다.
>
> 비록 정치 정세에 편승하여 공명을 세웠으나, 그들도 명분과 의리가 귀중한 것임을 돌이켜 생각한다면 또한 어찌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없었겠는가. 그들이 전시대의 절의 있는 선

비에게 대하여서도 오히려 자신은 그보다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인데 하물며 같은 시대의 절의 있는 선비로서 (김자수) 이름이 숨겨진 분에게 대하여 어찌 유광(幽光)을 발양시키고 잠덕(潛德)을 드러내려고 하겠는가[죽은 것은 사실로 쓰는 것]. 그러므로 이씨 조정에 벼슬하였다고 사본조 석자도 거짓으로 꾸며 쓴 것이다.(『경주 김씨 족보』, 『연려실기술』, 『태조 조 고사본말』 김자수 조).

라는 기사를 싣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손인 경주 김씨의 족보를 인용하고 있다. 이 김자수의 수절불사(守節不仕)의 기록은 『조선인명사서』, 『한국인명사전』, 『전고대방』, 『영남인물고』 등에 모두 한결같다. 소위 『두문동칠이현록(杜門洞七二賢錄)』이나 『기우자문집(騎牛子文集)』 등에도 한결같이 수절하여 자결했고 불사했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두 대벌족인 경주 김씨의 기록에 바탕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실제 김자수는 1401년(태종 원년 정월 27일 정해)에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에 임명되고 있으며 1406년(태종 6년 7월 13일 경오)에 충청도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에 제수되었다. 1407년(태종 7년 정월 5일 경신)에는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자수가 연호미법(煙戶米法)을 파하고자 청하였다. 1411년(태종 11년 9월 20일 무인)에는 김자수를 판강릉대도호부사에 임명했다. 그는 태종 13년(1413) 11월 14일 경인에 졸했다.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공은 고려가 망하고 난 후 태조가 불러도 계속 수절하다가 조선왕조 태종의 간곡한 부름을 받고 출사한 것이다. 따라서 『연려실기술』에 밝힌 공에 관한 『동국여지승람』 경주 조와 안동인물 조(安東人物條)에 나오는 김자수에 관한 두 기사는 잘못이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상촌선생(桑村先生)은 위대한 고려의 충신임에 틀림없다. 조선 혁명기에 발휘한 그의 충절은 위대한 것이었고, 조선이 완전히 개국 안정되자 십 년이 지난 후 출사한 점은 고려의 충절과는 상치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 『고려사(高麗史)』 , 『동경잡기(東京雜記)』

18. 설경성(薛景成)

고려 충선왕(忠宣王) 때 명의로 이름이 났던 설경성은 계림 사람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홍유후 설총의 후손이라 하고 대대로 의술을 생업으로 하였는데, 그 기술에 정통하여 처음에 상약의좌(尙藥醫佐)에 보임되었다가 점점 관직이 올라 군부

총랑(軍簿摠郎)이 되었고,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에 승진되었다가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로 사직을 하였다. 충렬왕이 병을 만나면 반드시 경성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유명해졌다.

원나라 세조가 병이 나서 사신을 보내어 의원을 구하자 안평공주[安平公主, 충열왕비 제국공주]가 여비와 의복을 주어 그를 원나라로 보냈다. 원에 도착한 그는 즉시 약을 써서 세조의 병을 낫게 하자 원의 세조도 그의 공을 높이 치하하고 어전에 무시로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원에 머문 지 2년 만에 고려로 돌아오려고 하자 원의 세조는 후히 상을 주며 가족을 데리고 와서 원에서 머물러 살기를 권유했다. 돌아와서 처와 더불어 가려고 하였으나 처가 고려를 떠나지 않으려 하므로 그만 두었다. 그 후 다시 원의 세조가 불러 이로부터 자주 왕복하며 세조와 원의 성종의 병까지 고쳐 이름이 원에서 더욱 알려졌다.

벼슬이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러 77세로 세상을 마쳤는데, 설경성은 원래 키가 크고 성품이 근검하고 온후하여 원제와 국왕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일찍이 자손을 위하여 은택을 구하지 않고 재산에 욕심도 없었다.

참고 문헌 : 『고려사』

19. 이달충(李達衷)

고려 공민왕 때 강직한 성품의 유학자인 이달충은 자는 지중(止中) 이고 경주인이다. 아버지 천(蕆)은 등제하여 벼슬이 첨의참리(僉議參理)에 이르고 월성군에 책봉되었던 사람이었다.

충숙왕 때 급제하여 성균관제주(成均館祭酒)를 거쳐 공민왕 8년에는 호부상서(戶部尙書)였는데, 그 당시 팔관회(八關會) 때 유사가 손을 씻는 장막을 복사청(僕射廳) 남쪽에 설치하고 울타리를 세워 내외를 가리자, 이달충은 형부상서(刑部尙書) 이연(李挺)과 더불어 그 울타리를 철거시키니 임금이 의봉루(儀鳳樓)에 있다가 이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하옥시키라 명하자 주위에서 모두 청하여 다만 가노만 가두었다. 그 후 어사대(御史臺)가 탄핵하여 파면되었으나 워낙 이름난 유신이었기에 1366년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뽑혔다.

그가 관직에 올랐을 때는 신돈이 권세를 잡고 전횡하던 시대였다. 그는 여러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돈을 보고, "사람들이 상공은 주색을 좋아한다고 말한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여 그것이 화근이 되어 파면되었다.

돈이 죽은 뒤에 계림부윤(雞林府尹)에 제수되었는데 그는 전(箋)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며 우왕 11년에 계림군으로 죽으니 시호를 문정(文靖)이라 하였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곧아 누구에게라도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 사람을 보는 안목이 높았는데 그 일화를 보면, 일찍이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가 되었다가 돌아오는데 환조[桓祖, 태조 이성계의 부]가 들에서 전송하고 있을 때, 이성계는 환조 뒤에 서 있었다.

환조가 술을 따르자 이달충은 서서 마시고 이성계가 따르자 꿇어 앉아 마시길래 환조가 물으니 "이 아들은 진실로 보통사람이 아니므로 그대가 미칠 바가 못 된다. 그대의 가업을 이 아들이 반드시 크게 하리라"라고 하였다 한다. 문장으로 일세에 유명했다. 이달충의 저서로는 『제정집』이 전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고려사』

제2장 조선시대

※이는 『경주읍지(慶州邑誌)』(1933), 『동경통지(東京通誌)』(1933), 『금오승람(金鰲勝覽)』(1936)에 등재된 인물에 한하여 실었다. 대 · 소과(大小科)는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명안(名案)으로 한데 묶었고, 정렬(貞烈) · 음사(蔭仕) 등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지 못했다. 인물 등재는 다음 항목에 따라 가다다 순으로 실었다.

1. 열전(列傳)

○ 권귀환(權龜煥)

자는 응락(應洛)이고 묵인재 권기(權炁)의 5세손이다. 문장을 일찍이 이루었고, 더욱이 명현(名賢)을 높이고 선사(先師)를 추모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또한 옥산서원을 호위하는데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사림의 공의(公議)를 수렴하여 운곡서원(雲谷書院)을 창설하였다. 운곡서원의 원규와 구획 및 제도는 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호는 기암(棄庵)이고 유고가 있다.

○ 권기(權炁)

자는 양정(養正)이고 노헌(魯軒) 권응생(權應生)의 큰 아들이다. 음직으로 선교랑(宣敎郎)에 오르고, 여헌 장현광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또 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에게 글을 배웠다. 타고난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 상을 당하여 시묘를 하며 상제(喪制)를 마쳤다. 당시 사람들이 그 산을 가리켜 '산막동(山幕洞)' 이라 했다. 호는 묵인재(默忍齋)이고 유고가 있다.

○ 권덕린(權德麟)

자는 군서(君瑞)이다. 회재 선생 문하에 아침저녁으로 나아가 글을 익히니 학문에 깊은 근원이 있었다. 명종 계축년(1553)에 문과 급제한 대책문(對策文)에 성경(誠敬), 대본(大本), 체용(體用) 등을 분명하게 밝혔다. 여러 고을을 맡아 다스리며 모두 선정하여 명성이 높았고, 합천군에 그의 유애비(遺愛碑)가 있다. 임신년(1572)에 옥산서원(玉山書院)을 창립하고, 초당(草堂) 허엽(許曄)에게 편지를 보

내 서원의 시말(始末)을 적은 기문(記文)과 재사(齋舍) 이름을 청하였다. 정조 때 규장각 명현록에 들었고, 호는 귀봉(龜峯)이며 문집이 있다.

○ 권도(權燾)

자는 원지(元之)이고 노암 권응생의 셋째 아들이다. 타고난 자질이 간중(簡重)하고 기국이 높고 정연하였다. 여헌 장현광 문하에서 글을 배워 많은 장려를 받았다.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 완정(浣亭) 이언영(李彦英)과 더불어 도의의 사귐을 맺었다. 아버지 노헌이 일찍이 응천(凝川)에 별업을 짓고 그로 하여금 살게 하였다. 호는 모암(慕庵)이고 유고가 있다.

○ 권사민(權士敏)

자는 수언(粹彦)이고 권사의(權士毅)의 아우다. 문예(文藝)로서 이름이 드러났고, 천거에 의해 일곱 개 고을의 훈도(訓導) 및 사옹원(司饔院) 주부(主簿)에 올랐다. 임란 때 의사 백여 명을 모아 기회를 틈타 왜적을 막았고, 가산을 기울여 군량미로 공급하였다. 이를 계기로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와 군사를 합하여 화왕산성을 같이 지키며 큰 공을 여러 번 세웠다. 모친상을 당하여 진영에서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 3년을 시묘하였다. 하루 저녁은 호랑이가 묘 앞에서 울부짖었다. 그는 나아가 호랑이를 감화시키니 사람들은 이를 효성의 감응이라 말하였다. 헌종 신축년(1841)에 암행어사의 별단(別單)과 관찰사가 포창하는 장계에 의하여 좌승지에 증직되었고 옥연사(玉淵祠)에서 제향하였다. 갑진년(1844)에 효행(孝行) 정려비가 세워졌다. 호는 매헌(梅軒)이다.

○ 권사악(權士諤)

자는 명언(明彦)이고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의 조카다. 임진왜란 때 집안 종을 거느리고 달아나는 사람을 불러모아 창의하자, 많은 사람이 호응하였다. 여천에 주둔한 적병이 수 만 명에 이르자 그는 손시, 최진립 등으로 더불어 정병을 거느리고 의병장 권응수의 진으로 나아가 힘을 합해 화공법으로 크게 승리를 거뒀다. 계사년(1593)과 갑오년(1594)에 밀양과 울산 등지에서 적을 대파하고 군공으로 상직을 연이어 받았다. 무과에 급제하고 원종공신에 녹훈되었으며 관직이 현감에 이르렀다. 철종 무오년(1858)에 좌승지에 증직되고 호계사(虎溪祠)에 제향되었으며 호는 매와(梅窩)다.

○ 권업(權業)

자는 연원(連源)이고 권혁의 아우다. 자질이 초일(超逸)하고 덕망과 기량이 이루어졌다. 훈수 정만양과 지수 정규양 문하에서 글을 배워 깊은 장려를 받았다. 호는 잠재(潛齋)이고 유고가 있다.

○ 권응생(權應生)

자는 명세(命世)이고 권사의(權士毅)의 아들이다. 선조 을사년(1605)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여헌 장현광 문하에서 글을 배워 많은 장려를 받았고, 문장과 덕업(德業)이 사문(斯文)에 우뚝하였다. 임자년(1612)에 학행(學行)으로 침랑(寢郎)에 제수되었고, 또 평구(平丘) 우승(郵丞)에 제수되어 부임하였다. 얼마 후 광해군의 혼란스러운 정치로 인하여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여 도내 선비들과 함께 상산(商山)에서 모임을 가졌다. 글을 올려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원한을 구하는 것과 주목(朱穆)의 글을 초안한 것으로써 북당(北黨)과 연을 끊었다. 호는 노헌(魯軒)이고 유고가 있다.

○ 권의화(權宜華)

자는 이관(而觀)이고 호는 경암(景嵓)이며 모암(慕庵) 권도(權燾)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지극한 성품을 지녔고 성의를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다. 문장이 출중하였고 정취가 고상하였다. 만년에 옥계에 터를 정하고 살았다. 산에 가서 나물 캐고 물가에 가서 고기 낚으며 자연에 묻혀 소요하다가 여생을 마쳤다. 유고가 있다.

○ 권임(權恁)

자는 화숙(和叔)이고 소암 임숙영 문하에서 글을 배워 지결(旨訣)을 받았다. 소암이 죽고 후사(後嗣)가 없었다. 이에 그는 상제(喪祭)를 맡았고, 소암 문집을 간행하였으며 묘에 비석을 세웠다. 그리고 후사를 세워 대를 잇게 하였다. 인조 을유년(1645)에 학문과 올바른 행실로 천거되어 사옹원 참봉이 되었다. 벼슬에 뜻을 버리고 물러나 그 서재 편액을 퇴암(退庵)이라 붙였다. 유고가 있다.

○ 권제운(權濟運)

자는 창여(昌汝)이고 사정 권수해(權壽海)의 후손이다. 태어나면서 재주가 뛰어났고 가르침을 독려하지 않았으나 문사(文詞)가 날로 발전하였다. 사자서(四子書)

와 육경(六經)이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번 과거에 응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물러나 처음처럼 학문을 닦으니 원근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머니가 병이 들었을 때 정성을 다하여 시탕(侍湯)하고 자신이 어머니의 아픔을 대신해 달라고 단(壇)을 쌓아 하늘에 빌었다. 이때 지은 기천사(祈天詞)가 있는데 28수(宿)로 성장(成章)되어 있다. 교리 이중구(李中久)가 그의 행장을 지었고 문옹유고(汶翁遺稿)가 있다.

○ 권찬환(權瓚煥)

자는 문옥(文玉)이고 매와 권사악의 후손이다. 타고난 품성이 단중(端重)하고 문장의 격이 뛰어났다. 헌종 을미년(1835)에 문과 급제하였다. 일찍이 조용한 서재에서 글씨를 쓰고 역사책 읽는 것으로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그는 특별히 변려문(騈儷文)을 잘 하니 참판 김재전(金在田)이 시관을 맡아 그의 글을 보고 찬탄하며 으뜸으로 뽑았고 후에 과거 급제하자 글을 보내 축하하였다. 승문원주서(承文院注書)에 증직되었으며 호는 향오(香塢)이고 유집이 있다.

○ 권치박(權致博)

자는 성제(聖濟)이고 퇴암(退庵) 권임의 6세손이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고 어린 나이에 성재 손윤구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또 성재(性齋) 허전(許傳) 문하에 나아가 경의(經義)로 강하며 질의하니 성재가 '학문중인(學問中人)' 으로 칭찬하였다. 수신잠(修身箴)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였고 문 앞에 소나무를 심어두고 날마다 그 사이를 거닐며 시를 읊었다. 호는 송와(松窩)이고 유고가 있다.

○ 권치혁(權致奕)

자는 경일(景一)이고 매와 권사악의 후손이다. 문학을 일찍 이루었으나 곧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독서에 힘쓰며 후생을 가르쳤다. 부윤 김철희(金喆熙)가 '물러나 깊은 곳에 숨는다[退藏于密]' 의 뜻으로 '퇴밀(退密)' 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써서 편액으로 붙였다. 이로 인해 호를 퇴밀(退密)이라 하였다.

○ 권혁(權焃)

자는 달원(達源)이고 묵인재 권기의 종손이다. 문학이 뛰어나 고을의 중망을 받았다. 영조 을사년(1725)에 경주와 경상도의 동지(同志) 10명과 더불어 육영재(育英齋)에 모여 강론하였다. 이때 이론(異論)이 창궐했으나 의(義)로써 거절하다

가 마침내 참소를 받고 갑산(甲山)에 귀양갔다. 호는 만은재(晩隱齋)이고 유집이 있다.

○ 권형(權瀅)

자는 기지(器之)이고 구사재 권복시의 아들이다. 어린 나이에 힘써 공부하였고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그리고 여헌 장현광을 모시고 아곡(阿谷)에 목욕을 다녀왔는데, 이 때 지은 「이십현동욕록(二十賢同浴錄)」이 있다. 형강 가에 정사(精舍)를 짓고 스스로 호를 형강(兄江)이라 했다.

○ 김건준(金建準)

자는 평중(平仲)이고 강호(江湖) 김숙자(金叔滋)의 후손이다. 성품이 맑고 검소하며 문장을 일찍 이루었다. 효종 정유년(1657)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여러 번 천거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기해년(1659)에 방례소(邦禮疏)를 지어 올렸고, 몽암 이채와 더불어 동경지(東京誌)를 편찬하였다. 호는 후옹(後翁)이고 유집이 있다.

○ 김광복(金光福)

자는 경원(慶源), 호는 죽포(竹圃)이고 우계당(友溪堂) 김순(金洵)의 아들이다. 그는 골상(骨相)이 크고 경전과 역사책을 널리 읽었으며 아울러 병학(兵學)에 정통했다. 선조 신미년(1571)에 무과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훈련원 판관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의 명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아우 김광록(金光祿)과 조카 김몽화(金夢和)와 더불어 군무를 감독하였다. 부윤 윤인함(尹仁涵)이 정병(正兵)을 내주어 서생포 전투에서 여러 번 싸워 대첩을 거두었다. 전란이 평정된 후 부모상을 당하여 6년 동안 시묘하며 상제를 마쳤다. 특별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훈련원정(訓鍊院正)에 제수되었다. 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품계는 자헌대부에 올랐다. 광무 갑진년(1904)에 본손 김준(金埈)이 나라에 글을 올리니 시호는 충효(忠孝)다.

○ 김균(金稛)

고려 평장사 김인위의 후손으로 이조 개국공신이 되어 계림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제숙이다.

○ 김기영(金祺永)

문옹(汶翁) 김석견(金石堅)의 후손이다. 성품이 근검하고 독서를 좋아하며 행실이 올발랐고 효우가 지극하였다. 더욱이 『심경』과 『근사록』 등 책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 서재의 편액을 일심재(一心齋)라 하고 생도들을 모아 날마다 가르쳤다. 그리고 단정히 앉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공경하였다.

○ 김득지(金得地)

자는 덕장(德章)이고 호는 손익당(損益堂)이며 호정 김세량의 아들이다. 가정 을묘년(1555)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항상 회재 선생 문하에서 직접 글 배우지 못한 것을 여한으로 삼고 자주 계정(溪亭)을 찾았다. 벼슬할 뜻을 버리고 가연호(駕淵湖) 위에 정자를 짓고 한가롭게 지내며 여생을 마쳤다.

○ 김맹성(金孟誠)

김균의 아들이다. 벼슬은 형조판서에 이르렀고 시호는 희경(僖敬)이다.

○ 김명옥(金鳴玉)

자는 자명(子明)이고 호는 석당(石塘)이며 충효공 김광복의 5세손이다. 성품이 중후하고 과묵하였다. 종형 김곤옥(金崑玉)과 김진옥(金振玉) 등과 같이 학문에 깊이 매진하고 경사(經史)를 탐구하여 선비들의 중망을 받았다. 정자를 감천(甘川) 가에 짓고 영추헌(迎秋軒)이라 편액하였다.

○ 김세량(金世良)

자는 언숙(彦叔)이다. 중종 기묘년(1519)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을미년(1535)에 이을규와 동방 급제하였다. 모두 문행이 뛰어나자 회재 선생이 깊이 허여하였다. 회재 선생이 강계에 적거할 때 그는 진해 현감으로 있었다. 어느 날 꿈에 회재 선생을 만나니 선생이 시를 지어 주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시를 되새긴 뒤 통곡하며 아들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였는데 뒤에 들으니 과연 회재 선생이 바로 운명한 날이었다.

○ 김세평(金世平)

자는 안세(安世), 호는 낙남(洛南)이고 노암 김종일의 아들이다. 현종 기사년에 건원릉(建元陵) 참봉에 제수되었다. 밖으로 두 고을을 다스려 모두 훌륭한 치적을

남겨 통정대부에 올랐고 안으로 익위위솔(翊衛衛率)에 임명되었다. 청백리에 녹선되고 숙종 때 훈련원 대장을 제수하려 했으나 그는 기필코 사양하였다. 따라서 그 대신 이의징(李義徵)이 임명되었는데, 이러한 기록은 비망기(備忘記)에 실려 있다.

○ 김순(金洵)

자는 윤명(允明)이고 정숙공(貞肅公) 김인경(金仁鏡)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기국(器局)이 뛰어났고 경전과 사서(史書)를 두루 통하고 병학(兵學)을 섭렵하였다. 중종 무자년(1528)에 무과에 합격하고 병조 정랑에 임명되었다. 방어사, 목사, 부사 등을 역임하고 도호부사(都護府使)가 되면서 무릇 34번이나 천거되었다. 만년에 임천(林泉)에 물러나 있으니 나라에서 도승지를 제수하고 여러 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일찍이 만포첨사(滿浦僉使)로 있었다. 회재 선생이 강계에 귀양가 있다가 그의 병이 중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우려하였다. 임진왜란 때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고 아들 김광복(金光福)에게 명하여 의병에 달려가도록 하였다. 명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고 절제사로 임명될 때의 유서(諭書)와 내사본(內賜本) 병학(兵學) 8권이 있다. 숙종 기유년에 자헌대부 판의금부사에 증직되었고 호는 우계당(友溪堂)이며 사림(士林)에서 학남사(鶴南祠)를 세웠다.

○ 김시탁(金時鐸)

자는 영문(英聞)이고 삼의당 김찬원의 현손이다. 훈수 정만양과 지수 정규양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는데, 그는 뜻을 크게 두고 학문을 좋아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다. 섭서(葉西) 권엄(權)이 흥해 군수로 있을 때 그와 종유(從遊)하여 많은 강론이 있었다. 만년에 국학에 오르자 마침내 유생들의 추대를 받아 사표(師表)가 되어 여러 학생을 가르쳤고 추천되어 정릉 참봉에 제수되었다. 죽으니 사림에서 장례를 치르고 가마(加麻)한 자제들이 50여 명이었다. 『향파유집(香坡遺集)』이 있다.

○ 김신민(金新民)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에 이르렀다. 아들 이승경(李升卿) 역시 문과 급제하고 벼슬이 형조참판에 올랐다.

○ 김영유(金永濡)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의 손자이다. 한림(翰林)에서 대사성(大司成)과 형조참판을 역임하였고, 경상도 감사에 이르렀다. 자헌대부에 올랐고, 호는 퇴재(退齋)이다.

○ 김예갑(金禮甲)

자는 성화(聖和)이고 본관은 김해다. 숙종 무자년(1708)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필법과 문행으로 당세에 추중을 받았다. 영조 을사년(1725)에 고을 선비들과 더불어 척향(斥享)을 주장하다가 귀양갔다. 호는 흥륜(興倫)이다.

○ 김종일(金宗一)

자는 관지(貫之)이고 직장(直長) 김경룡(金慶龍)의 아들이다. 9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상례 절차를 어른들과 같이 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그는 정축년(1637)에 서사(書司)로 소현세자를 배종하고 심양(瀋陽)에 들어가 3년간 모시었다. 그곳에서 온갖 험난(險難)한 일을 겪고, 마침내 박로(朴簪) 등의 모함을 받고 나포된 채 귀국하여 영덕(盈德)에 유배되었다. 조정에 벼슬할 때는 항상 곧은 말과 절의(節義)가 많았다. 인성군(仁成君)의 셋째 아들 전은(全恩)에게는 동계(桐溪) 정온(鄭蘊)과 함께 계사를 피하도록 힘써 청하였다. 그리고 김자점(金自點), 윤방(尹昉), 여이징(呂爾徵)을 탄핵하니 조정의 여러 대신들이 숙연해 하며 경탄(敬憚)하였다. 벼슬은 교리(校理)에 이르렀다. 호는 노암(魯庵)이고 문집이 있다.

○ 김찬원(金纘元)

자는 현술(賢述)이고 김광복(金光福)의 증손자다. 태어나면서부터 재주가 뛰어났고 모습이 가지런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문장을 일찍 이루었으며 예서(禮書)에 밝았다. 숙종 기유년에 그의 고조 절도사 김순(金洵)의 시호를 청하는 일로 인하여 조정에 글을 올렸다. 마침내 명리(名利)에 뜻을 끊고 산림에 묻혀 후생을 훈도하였다. 감천(甘泉)가에 작은 집을 짓고 삼의당(三宜堂)이라 편액을 붙였는데 이는 대개 뜰 앞에 매화, 대나무, 국화를 심어두고 그 뜻을 취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다. 구암(懼庵) 이수인(李樹仁)이 기문을 지었다. 영조 계유년(1753)에 예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유집이 있다.

○ 김천령(金千齡)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벼슬은 직제학에 이르렀으며, 문재(文才)로 이름이 있었다.

○ 김희영(金熙永)

자는 희원(希元)이고 호는 청초(聽蕉)이며 노암 김종일의 후손이다. 성품이 총

민하여 한 번 읽으면 곧 암기할 정도였다. 아버지 병환을 보살필 때 약을 끓이고 맛있는 음식을 갖춰 드리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상을 당하여 매우 슬퍼하며 예를 다하였다. 고종 병인년(1866)에 의흥 현감에 임명되었고 유고가 있다.

○ 남경희(南景羲)

자는 중은(仲殷)이고 활산 남용만의 아들이다. 본성이 총명하여 말을 하면 곧 사람들이 놀랐다. 원조팔잠(元朝八箴)을 지어 좌우명으로 삼고 스스로를 계감(戒鑑)하였다. 정조 정유년(1777)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문과 급제하였다. 경술년(1790)에 찰방에 제수되니, 사람들이 그에게 부임하지 말 것을 권했으나 "사군자의 출처(出處)는 오직 의(義)를 보는 것인데 어찌 벼슬이 높고 낮음으로써 거취의 기준을 삼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봉직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녹봉을 덜어서 빈민을 구휼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연(止淵) 가에 정자를 짓고 봄과 가을이면 학도를 모아두고 강하고 형 남경채(南景采)와 더불어 한가롭게 거닐며 시를 읊었다. 벼슬은 병조좌랑에 이르렀고, 호는 치암(癡庵)이며 문집이 있다.

○ 남구명(南九明)

자는 기서(箕瑞)이고 영양 남씨이다. 송정(松亭) 남수(南須)의 후손이며, 처음으로 보문리에 살았다. 성품이 청검(淸儉)하고 문장이 뛰어났다. 현종 정유년(1657)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계유년(1693)에 문과 급제하였다. 여러 번 우승(郵丞)에 임명되어 모두 선정을 베풀었다. 제주 통판으로 부임하였을 때, 여러 해 동안 이곳에 큰 기근이 드니, 녹봉을 할애하여 백성을 구제하였다.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직접 그의 이름을 어전 벽에 써 두고, 특명에 의하여 품계를 높이고 연임하도록 하였다. 순천 부사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교화되고 풍속이 변하였다. 귀향할 때 지은 시는 승평악보(昇平樂譜)에 등재되었다. 순천에 계마비(繫馬碑)가 있고 또 동비(銅碑)를 세워 사실을 기록하였다. 호는 우암(寓庵)이고 문집이 있다.

○ 남봉양(南鳳陽)

자는 명응이며 남용만의 손자이다. 학술과 문사가 뛰어나 사우의 추증을 받았다. 여덟 차례나 향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 떨어지니,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유집이 있다.

○ 남용만(南龍萬)

자는 붕로(鵬路)이고 우암 남구명의 손자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성장하면서 더욱 학문을 좋아하였는데, 『대학(大學)』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뜻에 힘을 더욱 기울여 대학장구난의(大學章句難疑)를 지었다. 영조 병자년(1756)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경주 부윤으로 부임하여 흥학(興學)에 뜻을 두고 예로써 그를 맞아 스승으로 삼고 문장을 익히며 경의(經義)를 강독하게 하였다. 희릉(禧陵) 참봉에 추천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또 제릉(齊陵) 참봉에 제수되어 부임한 지 몇 달 만에 돌아왔다. 신축년(1781) 겨울에 임금이 나라의 재앙으로 인하여 명을 내려 훌륭한 대책이 될 말을 구하였다. 이에 그는 만 여 어(語)에 이르는 원폐소(原弊疏)를 올렸다. 호는 활산(活山)이고 문집이 있다.

○ 노영경(盧泳敬)

자는 경함이며 문의공 노수신의 후손이니 고종 정축년(1877)에 과거에 급제했다. 임오군란 때 기주로 입직하여 임금이 후원으로 피난하자, 임금을 따라 호위하였다. 갑신정변 때 옥당으로 왕을 호종하고, 여러 날 음식을 잊으며 시종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무자년(1888)에 동부승지가 되고 경인년(1890)에 안변 부사로 나갔다가 경주부윤으로 전임해왔다. 그 후 특진관이 되어 입시하니 임금이 갑신년의 일을 이르면서 찬물(饌物)을 하사하고, 세자 또한 그 노모에게 포과(胞果)를 내리었다. 을사년(1905)에 5조약이 체결되자 송병세, 민영환 등과 함께 누차 상소하여 조약의 폐기를 청하고, 또 심순택, 이근명 등과 더불어 재차 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와 두문불출하고 서사로 스스로 즐기면서 일생을 보냈다.

○ 문응성(文應星)

부 북쪽 흑림촌(黑林村)에 살았고 강성군 문익점(文益漸)의 후손이다. 임란 때 공사(公私)의 일이 다급하여 서로 도망갔으나 응성은 아우 문응방(文應房)과 더불어 그 사이에서 주선(周旋)하였다. 즉 향교 대성전 및 동 · 서무의 위패를 안강 자옥산 속으로 임시 옮겨서 봉안하고 시종 보호하였다. 전란이 평정된 후 특별히 집경전 참봉에 제수되었다.

○ 박광립(朴光立)

자는 덕보이고 첨중추 박용수의 5세손이다. 헌종 경자년(1840)에 문과 급제하여 권지성균관학유가 되었고 이어서 전적에 올랐다. 여러 번 관직을 옮

겨 한성감시의 식과시관으로 차출되니 권돈인, 허전 등이 극히 추장을 더하였다. 일찍이 제주감진관이 되어 목사 이원조로 더불어 망경루에서 유생을 모으고 경전의 뜻을 강설하여 문화를 진흥시켰다. 갑진년(1844)에 자인현감이 제수되었으나 연로(年老)하여 상소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별장을 짓고 스스로 즐기며 후진을 양성했다. 무신년(1848)에 지평이 제수되고 철종 신해년(1851)에 정언을 제수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유집이 있다.

○ 박용수(朴龍壽)

자는 천약이니 군수 박희운의 아들이다. 성품이 온화하고 기풍이 중후하였으며, 성리서를 깊이 연구했으나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형인 진사 박영수에게 글을 배웠는데 형제의 우애가 남달리 돈독하였고 전원에 은거하면서 세상을 마치었다. 수직으로 첨중추를 받았다.

○ 백수장(白受章)

백이정(白以貞)의 5세손이다. 일찍이 매산 정중기 문하에서 글을 배워 깊은 장려를 입었다. 문장과 필법으로 당대에 이름이 드러났다. 호는 지봉(芝峯)이고 유고가 있다.

○ 서덕량(徐德良)

자는 천뢰이며 양경공 서유의 후손이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고 여러 경전을 널리 통했으며 스승과 벗으로부터 많은 장려를 받았다. 유집이 있다.

○ 서사도(徐思道)

자는 달보(達甫)이고 양경공 서유의 7세손이다. 한강 정구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고, 학문이 높았으며 올바른 행실로 이름이 있었다. 호는 사암(思庵)이다.

○ 서숙(徐塾)

자는 문일이며 서유의 후손이다. 이종상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많은 지취와 요결을 깨달았다. 친상에 삼 년 간 시묘하였고 아들 서당오와 더불어 『명화록』을 지었다. 문집이 있다.

○ 서일범(徐一範)

자는 성칙(聖則)이고 남창군 서진(徐津)의 증손이다. 성품이 근후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외와 최림에게 글을 배워 크게 장려를 입었다. 그리고 문인 및 여러 벗과 더불어 사문(師門)을 위해 공암정사(孔巖精舍)를 짓고 강질(講質)의 장소로 삼았다. 호는 회천(晦川)이고 유고가 있다.

○ 서일원(徐一元)

자는 춘경(春卿)이고 호는 귀봉(龜峯)이며 서사도(徐思道)의 아들이다. 인조 을해년(1635)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병자년(1636)에 창의하여 조령(鳥嶺)에 이르렀다가 강화(講和)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며 돌아왔다. 문을 닫고 독서에 힘쓰니 관찰사와 암행어사가 차례로 조정에 추천하여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에 제수되었다.

○ 서한운(徐翰雲)

본관은 달성이고 귀계(龜溪) 서침(徐沈)의 후손이다. 재주와 행실을 두루 갖추었고, 일찍이 과거 공부를 버렸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 분수를 지켰고 경전(經傳)의 의미를 깊이 연찬하였다. 노잠 손여두와 학문을 강하고 시를 주고받았으며 후생을 훈도하였다. 호는 운재(雲齋)이고 유집이 있다.

○ 설순(偰循)

설손의 손자다. 널리 배워 글을 잘 지었으며, 두 번이나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은 제학(提學)에 이르렀다.

○ 설장수(偰長壽)

자(字)는 천민(天民)이고 원나라에서 숭문감승(崇文監丞)을 지낸 근사재(近思齋) 설손(偰遜)의 손자다. 설손이 원나라 말 공민왕 때 병란을 피하여 고려에 왔다. 설장수는 벼슬이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이르렀고 뒷날 조선조에 들어와 벼슬하면서 관향(貫鄕)을 청하니 태조가 계림(雞林)을 본관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시호(諡號)는 문정(文貞)이고 호(號)는 예재(藝齋)다. 아들 설순은 박학 능문하고 등제한 후 벼슬은 제학에 이르렀다. 본디 설손은 위그르[Uighur]사람이다.

○ 손경걸(孫景杰)

자는 대지(大之)이고 경절공의 후손이다. 기상이 높고 문학을 일찍 이루었으며

경종 신축년(1721)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임인년(1722)에 경상도 선비들이 장희빈을 신원하는 소청(疏廳)을 열고 그를 추대하여 장의(掌議)를 삼았다. 무신년(1728) 역변(逆變) 때 소모사(召募使) 조덕린(趙德麟)이 그를 경주 의장(義將)으로 뽑아서 규율과 계책을 강구하였다. 경주 사마소(司馬所)가 폐지되어 중건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계 유의건, 동고(東皐) 이덕록(李德祿)과 논의하여 다시 짓고 연계안(蓮桂案)을 닦았다. 호는 설와(雪窩)다.

○ 손경모(孫敬謨)

자는 공직(公直)이고 손계증의 5세손이다.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힘써 글을 외웠고 성품이 준직(峻直)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관찰사 김학순(金學淳)이 그의 뛰어난 문학으로 육영재에 선입(選入)시키고 시를 지어 주었다. '술 무르익을 때 서로 만나 거나하게 취했는데 떠나려 하자 보내주신 한매(寒梅)의 향기 또한 그윽하구나!' 라고 하였다. 선정(先亭)을 깨끗이 해두고 경서를 연구하며 후학을 가르치니 배우러 오는 사람이 문에 가득하였다. 호는 경와(警窩)다.

○ 손계돈(孫季暾)

자는 언승(彦昇)이고 양민공 손소(孫昭)의 넷째 아들이다. 중종 을묘년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정암 조광조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정암이 천거하여 말하기를 '염정강정(廉靜剛正)하고 학술이 뛰어나다.' 고 하였다. 기묘사화 때 궁궐에 나아가 죽음으로써 간하여 이름이 기묘사화록(己卯士禍錄)에 올랐다. 지평(持平)에 증직되고 호는 유곡(柳谷)이다.

○ 손계증(孫繼曾)

자는 성희(聖希)이고 호는 만오(晩悟)이며 본관은 일직이다. 윤암(綸庵) 손우남(孫宇男)의 증손이다. 어릴 때부터 효성과 우애가 두터웠고 성장하면서 문장이 크게 나아졌다. 여러 번 향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서 떨어졌다. 드디어 과거의 뜻을 버리고 물러나 몇 간의 집을 계산(桂山) 선영 아래에 짓고 거기서 시를 음영하며 후진을 지도하였다. 수직으로 부호군에 올랐다.

○ 손광호(孫光晧)

자는 희원(熙遠)이고 경절공(景節公)의 손자다. 광해 무자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효행(孝行)이 있었다. 어려서 회재 선생 문하에서 글을 배웠는데 직접 수학한 제자

중에서 가장 절근(切近)하였다. 선생이 귀양갈 때 신령(新寧) 우역까지 모시니 선생이 증별시(贈別詩)를 남기었다. 선생이 강계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 학문에 힘쓰도록 하고 양친(養親)하는 절차를 부탁하였다. 그가 회재 선생 및 정부인(貞夫人) 박씨에게 올린 제문에는 모두 글을 배우고 양육을 받은 말이 실려 있다. 옥산서원을 창건할 때 창의(倡議)하여 규약을 만들었다. 호는 설애(雪厓)이고 유고(遺稿)가 있다.

○ 손국제(孫國濟)

자는 계심(季心)이고 손응구의 아우다. 정조 경자년(1780)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타고난 품성이 총명하고 학문이 깊고 지식이 넓었다. 하도(河圖), 낙서(洛書), 천인성명(天人性命), 예악(禮樂), 명물(名物) 및 고금(古今)의 사실 변천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달하지 않은 바 없었다. 호는 학와(鶴窩)이고 유고가 있다.

○ 손기영(孫耆永)

자는 경규이고 군수 손상준의 아들이다. 고종 임오년(1882)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을유년(1885)에 정능 참봉이 되었다. 신묘년(1891)에 문과 급제하여 즉일로 홍문관부수찬으로 임명되고 곧 전시에 장원 수찬에 올랐다. 겨울에 정언을 거쳐 부교리에 오르니, 한해 동안 3선 3사가 되었다. 임진년(1892) 봄에 교리에 올랐으나 친상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 손길(孫佶)

자는 군언(君彦)이고 호는 현암(玄庵)이며 유곡 손계돈의 5세손이다. 효종 갑오년(1654)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타고난 자질이 준영(俊英)하고 문학이 깊었다. 쌍봉 정극후와 몽암 이채가 모두 그의 학문에 감복하였다.

○ 손덕승(孫德升)

자는 현수(玄叟)이고 양민공 손소의 7세손이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해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태어나자 보통 아이와 달랐다. 타고난 성품이 온후(溫厚)하고 문장이 전아(典雅)하였다. 숙종 갑자년(1684) 별과에 장원급제하여 승문원에 발탁되었다. 기사년(1689)에 김천 찰방에 제수되어 치적을 남기니, 우승(郵丞) 아전들이 비석을 세워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여러 번 관직을 옮겨 병조좌랑에 이르렀고, 임신년(1692)에 소명을 받아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얼마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었다. 갑진년(1724)에 성균관 직강(直講)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안강 대동(大洞) 둔덕 위에 정자를 짓고 후학을 가르쳤다. 호는 매호(梅湖)이고 홍문관 응교(應敎) 및 시강원 필선(弼善)에 증직되었다.

○ 손동걸(孫東杰)

자는 진백(震伯)이고 호는 함취정(含翠亭)이며 일휴재(逸休齋) 손여규(孫汝奎)의 손자다. 재주가 총명하여 문장을 잘 외웠으며 널리 배우고 행실을 닦는 성품이었다. 자연에 묻혀 살면서 경사(經史)를 읽는 것으로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아버지 상을 당하매 예를 다하여 3년 간 시묘를 하였다. 부윤이 그 소문을 듣고 방문하여 위로하고 돌아가서 곧 제전(祭田)을 내려주고 호역(戶役)을 감면시켰다.

○ 손로(孫魯)

자는 여유(汝唯)이고 양민공 손소의 현손이다. 학문과 행실이 뛰어났고 여헌 장현광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임진왜란 때 화왕산성 회맹에 참여하였다. 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 그리고 경전과 사서(史書)를 읽으며 스스로 즐겼다. 호는 연정옹(蓮亭翁)이다.

○ 손삼걸(孫三杰)

판관 손시(孫時)의 현손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힘써 글을 배워 문장이 크게 나아졌다.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자 문을 닫고 오로지 학문에 힘썼다. 식견이 매우 넓어서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수직으로 동중추에 오르고, 추와유고(楸窩遺稿)가 있다.

○ 손상기(孫相騏)

자는 노문(魯文)이고 호는 둔암(遯庵)이며 경절공의 후손이다. 태어나면서 자질이 뛰어났고, 총명하며 힘써 글을 외웠다. 12세에 능히 시(詩), 부(賦), 기(記), 논(論)을 지었고, 성장하여 위기(爲己)의 학문을 깊게 쌓았다. 따라서 정자(程子), 주자(朱子)의 책을 직접 베껴두고 하루도 이를 놓지 않았다. 옥계(玉溪) 둔세동(遯世洞)에 살며 그곳의 천석(泉石)을 사랑하여 옥계구곡(玉溪九曲)을 지었다. 유집이 있다.

○ 손상일(孫相馹)

자는 선일(善一)이고 낙선당 손종로의 후손이다. 헌종 경자년(1840)에 문과 급제하고 헌납을 역임하였다. 이때 승지 유치명(柳致明)이 글을 올려 장종(莊宗)을 승호해야 한다고 청했다. 이에 이론이 일어나 그를 죄에 빠뜨리려 하고 삼사(三司)로 하여금 합동으로 글을 올리게 했으나 그는 홀로 따르지 않았다. 병인년(1866) 양이(洋夷)의 난 때 아버지의 명으로 강화도에 달려가 성문으로 들어갔고 이튿날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임명되었다. 경오년(1870)에 수찬(修撰)으로 소명(召命)을 입었고, 곧 양산 군수에 임명되었다. 고을을 다스릴 때 너그럽고 청간하게 하니 양산 군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 벼슬은 교리에 이르고 호는 오서(梧棲)다.

○ 손상준(孫相駿)

자는 상우(象于)이고 호는 월초(月樵)이며 판관 손시(孫時)의 후손이다. 순조 갑자년(1804)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금부도사에 제수되고 형조좌랑을 역임했다. 정축년에 호조좌랑에 오르고, 무인년에 당진 현감으로 나가 크게 치적을 남겼다. 이에 어사 이건창이 포상을 청하였고 경진년에 영천 군수로 전임하니, 당진 백성들이 길을 막으며 유임을 원하고 유애비(遺愛碑)를 세웠다. 영천에서 아전의 폐단을 바로잡고 백성의 피해를 혁신하니 군민들이 역시 비를 세워 그 은혜를 기리었다. 계미년에 영덕 현감으로 부임하여 사학(邪學)을 금하니 임금이 유시를 내려 포상하였다.

○ 손상혁(孫相赫)

자는 여현(予顯)이고 뇌고 손여제의 5세손이다. 성재 손윤구 문하에서 글을 배워 문사(文詞)가 일찍이 나아갔고 침식을 잊으며 학문에 힘썼다.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고 봉양함에 있어서 모든 정성을 다했다. 뇌고의 역학(易學), 예서(禮書)를 편집하여 정재 유치명과 정와(訂窩) 김대진(金岱鎭) 등 여러 어진 사람에게 보내어 감평을 받고 교감하여 간인(刊印)하였다. 호는 황관(篁冠)이고 유집이 있다.

○ 손상호(孫相浩)

자는 경우(敬佑)이고 호는 경암(敬庵)이며 장령 손혁의 증손자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문하에서 글을 배우니 연재가 곧 나를 보인(輔仁)할 사람이라고 허여하고 그 서재의 미액(楣額)을 '경암(敬庵)'이라 명했다. 겸허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문장이 전아하였다. 유집이 있다.

○ 손성도(孫星度)

자는 대첨(大瞻)이고 손종도의 6세손이다. 본성이 근후하고 효우(孝友)가 지극하였으며 뜻한 바가 두터웠고 힘써 실천하였다. 호학(好學), 조심(操心), 징분(懲忿), 간언(簡言), 과욕(寡慾)의 다섯 가지 잠언을 지어서 스스로 성찰하였다. 더욱이 주자전서(朱子全書)를 공부하여 성리(性理)의 원리를 규명하였다. 일찍이 세 그루의 괴목(槐木)을 직접 심어두고 세 아들을 훈계했다. 현몽정사(現夢精舍)를 선영 아래 짓고 자연에 묻혀 자적하면서 여러 사손(祀孫)들에게 이를 자신의 소유로 삼지 못하게 부탁하였다. 호는 우헌(迂軒)이고 이조참의에 증직되었으며 유고가 있다.

○ 손성악(孫星岳)

자는 숙옥(肅玉)이고 유곡 손계손의 후손이다. 일찍이 문학으로 한 고을에서 중망을 받았다. 순조 신유년(180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 후 과거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이학(理學)에 대해 공부하였다. 구암(懼庵) 이수인(李樹仁), 남려(南廬) 이정엄(李鼎儼)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고 시를 지으며 화답하였다. 호는 설파(雪坡)이고 유고가 있다.

○ 손성열(孫星說)

자는 천필(天弼)이고 손정구의 아들이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독서를 하였고 또 필법이 정교하였다. 정조 병오년(1786)에 사임란 때 어머니와 처자를 산중으로 모셔 숨겨두고 홀로 활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았다. 이에 적들이 감히 부산성으로 접근하지 못하여 이 산중으로 피난 온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 사마시에 합격했는데, 어느 고관이 그가 쓴 글씨를 좋아하여 시권(試券)을 감추고 넘겨주지 않았다. 따라서 다시 써서 주고 시권을 되찾았다. 이조참의에 증직되고 호는 인와(忍窩)다.

○ 손소(孫昭)

자는 일장(日章)이고 계성군 손사성의 둘째 아들이며 처음으로 양좌촌(良佐村)에 살았다. 기묘년(1519) 현량과에 뽑혀 홍문관에 들어가니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함께 홍문관에 있다하여 미담이 되었고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과 더불어 도의(道義)의 사귐을 맺었다. 일찍이 문장궤범발(文章軌範跋)을 지었고, 금오산부(金烏山賦)와 용학의대(庸學疑對) 등은 당시에 회자되었던 글이다. 정해년(1527) 이시애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에 녹선되고 계천군(雞川

君)에 봉해졌다. 임금이 그의 초상(肖像)을 그려 충훈부(忠勳府)에 소장하도록 하고 그 부본(副本)을 본가에 내려보냈다. 또한 나라에서 대대로 세유(世宥)와 아울러 부조(不祧)하도록 명하고, 옥연(玉硯), 산호영(珊瑚纓), 상초도(象鞘刀) 등 이른바 삼보(三寶)를 하사하였다. 벼슬은 이조참판에 이르렀고 이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시호는 양민(襄敏)이다.



손소 영정
(보물 제1216호)

○ 손숙돈(孫叔暾)

자는 숙경(叔卿)이고 양민공 손소의 셋째 아들이다. 호는 망재(忘齋)이고 성종 때 현량과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성종 때 척불소(斥佛疏)를 올렸고 일찍이 무극태극설(無極太極說)을 지으니 회재 선생이 그 후설(後說)을 썼다.

○ 손숙일(孫夙日)

자는 효칙(孝則)이고 호는 정당(靖堂)이며 매호 손덕승의 손자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고 힘써 글을 외워 경서와 역사책을 두루 통달했고 더욱이 성리(性理)의 글을 깊이 공부하였다. 여러 번 도시(道試)에 합격하고 이로 인하여 조정에 추천되었다. 영조 경진년(1760)에 특별히 사정(司正)에 제수되었다. 유고가 있다.

○ 손승구(孫升九)

자는 군술(君述)이고 낙선당 손종로의 현손이다. 문장이 풍부하고 뛰어나며 시를 잘 지어 명성이 높았다.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가 그의 문집 서문에서 '그는 각 체(體)를 두루 갖추었다. 그 기상은 혼연하고 넓으며 그 문향은 맑고 힘이 차다. 조금도 흠이 있거나 천박한 모습을 찾을 수 없으니 가히 성정(性情)의 올바름을 발현한 것으로 체험할 수 있다' 고 하였다. 호는 동산(東山)이다.

○ 손시(孫時)

자는 순백(順伯)이고 경절공(景節公)의 증손이며 벼슬은 판관에 이르렀다.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받들고 조석으로 맛있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렸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목욕하고 하늘에 절을 하면서 어머니가 오래 살도록 축원하였다. 임진왜란 때 화왕산성 회맹에 참가하고 많은 전공을 세웠다. 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고 판관을 지냈으며 녹권(錄券)이 있다.

○ 손시겸(孫時謙)

자는 익부(益夫)이고 호는 금파(錦坡)이며 손계증(孫繼曾)의 현손이다. 문예를 일찍 이루어 당시 사림의 중망이 높았다. 관찰사가 그 이름을 듣고 육영재(育英齋) 시험에서 선발하여 3년 간 학업을 닦게 했는데 많은 장려를 받았다.

○ 손시의(孫是椅)

자는 인식(仁植)이고 노잠 손여두의 아들이다. 문장이 뛰어났고 효성이 매우 지극했으며 부모 초상과 제사 때 예를 다하였다. 형제 간에 토지와 노비 등을 나눌 때 토질이 척박하고 노약한 자를 취하여 스스로 가졌다. 영조 무신년(1728)의 난 때 영천 인사들과 더불어 상의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송와유집(松窩遺集)이 있다.

○ 손여규(孫汝奎)

자는 회지(晦之)이고 손여두(孫汝斗)의 아우다. 본래 재주가 뛰어났고 문학을 일찍 이루었다. 21세가 되던 입춘 날에 입지잠(立志箴)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삼았고 또 기룡산부(騎龍山賦)를 지어서 당시 선비들로부터 회자되었다. 매산(梅山) 정중기(鄭重器)가 그의 묘갈명에서 '하늘이 특이한 자질을 내려 재주는 높으나 마음은 세상과 멀었도다. 내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으나 어찌하여 천명이 이렇게 짧은가' 하였다. 호는 일휴재(逸休齋)이고 유집이 있다.

○ 손여두(孫汝斗)

자는 망지(望之), 경절공 손중돈의 6세손이다. 성품은 삼가면서 단상(端詳)하고 성리학 공부에 힘썼다. 사림과 더불어 동강서원(東江書院)을 창립하였다. 또 입암서원(立巖書院)과 도잠서원(道岑書院)을 세워 사액을 청하고 지산 조호익(曺好益)의 시호를 청했을 때 솔선하여 글을 올렸다. 신유년(1681)에 척향소(斥享疏)를 올릴 때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다. 갈암 이현일과 가까운 인척이었는데 갈암이 판서로 있을 때, 모습을 보이면 남의 혐오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내왕하지 않았다. 그가 귀향하자 붓, 벼루, 종이, 먹을 각 1개씩 봉하여 올렸는데 이는 봉소(封疏)한 글에 대하여 용퇴를 하고자 한 것이다. 타고난 성품이 효성스러워 아버지가 병을 앓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서 회복하게 하였다. 호는 노잠(魯岑)이고 문집이 있다.

○ 손여제(孫汝濟)

자는 경즙(景楫)이고 경절공의 6세손이다.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고 과거 공부를 익히지 않았다. 주역(周易) 읽기를 좋아하고 고금의 예서(禮書)를 모아 두루 열람하며 정독하였다. 밀암(密庵) 이재(李栽), 훈수 정만양, 지수 정규양과 더불어 선(先)·후천(後天)의 괘위(卦位) 및 변례(變禮)에 대해 논하였다. 저서로 사례찬요(四禮纂要), 가례석의(家禮釋義), 원회산서(元會算書), 소학대학석의(小學大學釋義) 등이 있다. 호는 뇌고(雷皐)이고 문집이 있다.

○ 손염조(孫念祖 ; 1785~1860)

자는 백원(伯源)이고 호는 무민(无悶)이다. 본관은 경주이며 기계면 계전리(桂田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영임하여 구암 이수인과 해은(海隱) 강필효(姜必孝)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경사를 통달한 후 벼슬에 뜻이 없어 문사들과 교유하며 세상에 숨어살면서 자적하였다. 자호를 무민(无悶)이라 하고 후진 양성에 전력하다가 죽으니 후학들이 1843년에 무민정(无悶亭)을 건립하였다. 동편은 반구정(反求齋), 서편은 영시헌(永矢軒)이라 하고 상량문은 조휘림(趙徽林)이 짓고 강필효가 기문을 지었다. 문집이 있다.

○ 손엽(孫曄)

자는 문백(文伯)이고 손광호(孫光暠)의 아들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하였고 일찍이 준수한 재주로 명성이 있었다. 그는 문장이 매우 뛰어났고 특히 시에 능했다. 선조 무진년(1568)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더욱 힘써 글을 익혔다. 임진란(1592) 때 집경전(集慶殿) 참봉으로서 태조의 어영(御影)을 봉안하여 예안(禮安)으로 옮기었다. 화왕산(火旺山) 회맹에 달려가 의병을 창의하였고 전략(戰略)을 세우며 군량미 조달에 협조하였다. 이때 명나라 장수가 군사를 풀어 양좌촌에 있는 수목을 남벌하므로 그는 글을 보내 그 명령을 중지시켰다. 추천되어 정릉(靖陵)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설천(雪川) 가에 수운정(水雲亭)을 지어두고 한가롭데 노닐며 여생을 마치었다. 호는 청허재(淸虛齋)이고 문집이 있다.

○ 손영모(孫永謨)

본관은 월성이고 고려 태상소경(太常少卿) 손의경(孫義敬)의 후손이며 경주부 아전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며 일을 처리하는데 간단명료하였다. 부

에서 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였고 무과에 합격하였다. 병인년(1866) 양요(洋擾) 당시 정헌 이종상이 경주부 소모사(召募使)가 되었을 때, 그를 중군찬획방략(中軍贊劃方略)으로 삼았다.

○ 손우영(孫友永)

자는 경학(敬學)이고 교리 손상일의 아들이다. 성품이 온후하고 풍채가 응중(凝重)하였다. 철종 무오년(1858)에 사마시에 합격했다. 이때 성균관은 승정원과 서로 알력이 있어서 유생들이 권당(捲堂)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중앙의 한 고관이 그에게 밀지를 보내 '먼저 동재(東齋)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좋은 관직을 내릴 것이다' 라고 부탁하자, 그는 정중한 말로 단호히 물리치고 그 날 바로 귀향했다. 집안이 가난하여 아침저녁의 끼니를 잇지 못했으나 편안히 있었다. 그리고 한 번도 벼슬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주고받는 일은 오직 정의(正義)를 지키니 향도(鄕道)의 추앙을 받았다.

○ 손욱(孫旭)

계성군(雞城君) 손사성(孫士晟)의 아들이다. 세조 계유년(1453)에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영북어사(嶺北御史)의 벼슬로 왕명을 받고 함흥에 이르러 적과 싸우다 죽었다. 아우 계천군 손소가 왕명으로 적을 토벌하고 시신을 진중에서 찾아 영천 장항리(獐項里)에 운구하여 장사지냈다.

○ 손윤구(孫綸九)

자는 경부(敬夫)이고 손중돈의 후손이다. 기상이 높고 문사가 뛰어났다. 입재 정종로의 문하에 나아가 글을 배우니 정종로는 그의 재주가 명민하고 학문을 좋아한다 하여 여러 번 감탄하며 시를 지어주었다. 저서로 동경효자전(東京孝子傳)과 유몽첩경(牖蒙捷徑)이 있으나 불행히 전하지 않고 호는 성재(省齋)이며 문집이 있다.

○ 손응구(孫應九)

자는 백효(伯孝)이고 경절공 손중돈(孫仲暾)의 주손이다. 타고난 자질이 단정·엄숙하고, 몸가짐과 행동이 아결(雅潔)하였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단념하고 은거하여 학문에 전심하고 후생 교육에 힘썼다. 호는 식와(息窩)이다.

○ 손의경(孫義敬)

고려 때 벼슬하여 태상소경(太常少卿)에 이르렀다. 조선 태조가 폐백을 갖추어 부르니 그는 곧 글을 올려 말하기를, '오직 국가에는 지극히 높은 직위와 한없는 통치의 위대함과 수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저를 강제로 불러들이려 명하십니까? 저의 지은 죄는 형벌로도 도망할 수 없고 죽어도 목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왕명을 거절하고 동도(東都)에 숨어 살았다. 호는 소회(素晦)다.

○ 손정구(孫鼎九)

자는 국보(國寶)이고 호는 졸암(拙庵)이며 낙선당 손종로의 현손이다. 문장과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고, 영조 경자년(1780)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계묘년(1783)에 임금이 내린 응제시(應製詩)에 으뜸으로 합격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주서절요(朱書節要), 주문작해 관상완점(朱文酌海 觀象玩占)을 내사(內賜)받았고 사복정(司僕正)에 증직되었다.

○ 손종도(孫宗道)

자는 달경(達卿)이고 경절공 손중돈의 현손이다. 음직으로 충의위(忠義衛)를 지냈고 의지가 굳고 배움에 힘써 일찍이 향시에 합격하였다. 광해군 혼정 때 권신(權臣)이 그의 명성을 듣고 한 조정의 인사를 보내 같은 당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르되, '황하는 쉽게 맑지 않고 사람의 수명도 길지 않다. 고집스럽게 뜻을 지키지 말고 시론(時論)을 부응하는 것이 어떠한가' 고 하였다. 이에 그는 큰 소리로 거절하기를, '지금 삼강(三綱)이 무너졌다. 어찌 정도를 굽히고 시류에 아부하여 구차스럽게 영달의 길을 찾겠는가' 하고, 끝내 거절하며 과거에도 응하지 않았다.

○ 손종로(孫宗老)

자는 고경(考卿), 호는 낙선당(樂善堂)이고 경절공 손중돈의 현손이다. 어려서 글을 배웠고 담력과 지략이 뛰어났으며 아울러 활쏘기와 말타기 등을 익혀 무과에 합격하였다. 광해군의 혼정 때 벼슬에 뜻을 끊고 힘써 농사지으며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인조 신미년(1631)에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어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다. 그리고 외직으로 남포 현감(藍浦 縣監)에 임명되었다가 곧 부(賦)를 지어 노래하며 고향으로 돌아왔다. 병자년(1636) 호란 때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몽진했다. 그는 곧 달려가 임금을 모시려 했으나 적들의 위세가 워낙 강성하여 산성으로 통

하는 길이 두절돼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쌍령(雙嶺) 진영으로 달려가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하였고 따라 다니던 종 억부(億夫)도 같이 죽었다. 정조 계묘년(1783)에 존주록(尊周錄)을 편찬할 때 입록되도록 하였고 대보단(大報壇)에 배식(配食)하였으며 그의 제사를 부조묘(不祧廟)에 모시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려비를 세우고 아울러 종 억부도 정려되었다. 순조 때 좌승지에 증직하고 글을 내려 말하기를, '어지러운 조정에서 자취를 숨기니 그 지절(志節)은 동양(董養)과 같고 쌍령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니 그 충성은 고경(杲卿)에 견줄 수 있다' 고 하였다. 헌종 임진년(1832)에 사림에서 단고사(丹皐祠)를 세워 향례하였다.

○ 손중걸(孫重杰)

호는 암헌(巖軒)이고 손동걸의 아우다. 풍체가 준수하고 성품과 도량이 너그러웠다. 문학과 올바른 행실로 높은 명망을 받았고 정희(鄭熙嬉), 손승구(孫升九), 이정훈(李鼎勳) 등 여러 명사들과 더불어 사림의 숙덕(夙德)으로 추앙을 받았다. 유고가 있다.

○ 손중돈(孫仲暾)

자는 태발(泰發)이고 계천군 손소의 아들이다. 이치를 궁구하며 성(性)을 다하였고 어려서 점필재 김종직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성종 계묘년(1483)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기유년(1489)에 문과 급제한 뒤 한림(翰林)에서 대교(待敎)에 올랐다. 연산군 때 헌납(獻納)으로서 극간하다가 피소되어 축출되었다. 중종 원년(1506)에 서용되어 상주목사에 임명되니 고을 사람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워 화상(畵像)을 모셨는데 이는 뒤에 속수서원(涑水書院)이 되었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고 두 번이나 전주(詮注)를 맡았으나 공평하게 하였다. 임신년(1512)에 왕명을 받들어 관혼례(冠昏禮), 향사례(鄕射禮), 향음례(鄕飮禮)를 제정하였다. 계유년(1513)에 임금에게 아뢰어 소릉(昭陵)을 복위시켰고, 간흉 유자광(柳子光)이 나라를 그르친 죄를 탄핵하였다. 이때 기묘사화(1519)를 겪은 뒤 선비들은 배움을 기피하니, 을유년(1525)에 오조소(五條疏)를 올려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학을 밝혔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 그에게 글을 배웠는데, '저가 조금 의방(義方)을 알게 된 것은 모두 외구(外舅)의 가르쳐 주심이다' 고 말했다. 벼슬이 이조판서, 좌우참찬, 세자좌우빈객에 이르고 월성군으로 습봉했다. 기축년에 운명하니 2일간 조회를 중지하였다. 시호는 경절(景節)이고 동강서원에 제향하였다.

○ 신상뢰(辛商賚)

본관은 영월이고 문정공 신당계(辛唐係)의 후손이다. 선조 때 익사원종공신 2등, 인조 때 정사원종공신 1등, 병자호란 때 호종원훈공신에 녹선되었다. 임금이 글을 내리니 그 요지를 살펴보면, '의(義)를 잡고 힘을 다하여 신하로서 충절을 나타냈으니 어진 이의 공적을 기록한 것은 국가가 힘써 표창할 일이다' 하고 그 신위를 부조(不祧)하도록 명하였다. 일찍이 풍천도호부사가 되어 훌륭한 치적을 남기니 고을 사람들이 잊지 못하여 동비(銅碑)를 세웠다.

○ 안필(安罼)

자는 숙형(淑亨)이고 호는 창우(蒼愚)이며 교리 안주(安宙)의 후손이다. 문학으로 칭찬을 받았고 일찍이 『용학문답(庸學問答)』, 『폐호설체우식(閉戶雪涕偶識)』 등 책을 지었다. 당대 훌륭한 선비들이 그와 더불어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고을의 자제들이 그를 많이 높이고 따랐다. 유집이 있다.

○ 오웅걸(吳雄杰)

현정(玄靜) 오세재(吳世才)의 10세손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3부자가 창의하여 아우 웅동(雄仝)과 함께 장정 수 10인과 함께 아비를 따라 동대산(東大山) 부동곡(釜洞谷)에 포진한 의병진에 합류했다. 이후 3부자는 울산, 나아(羅兒), 석읍(石邑), 모화(毛火), 관문성 등 여러 전투에서 공훈을 세우고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公臣) 3등에 책록(策錄)되었다. 벼슬이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였다.

○ 오웅동(吳雄仝)

오웅걸의 아우다. 형 웅걸과 함께 아비를 따라 3부자가 근왕거의(勤王擧義)하고 문천회맹(蚊川會盟)에 참여하여 왜적 격멸을 맹세하고 울산 나아, 석읍, 모화, 관문성 등 여러 전투에서 용전분투하여 전공을 세웠다. 울산성 전투에서 장렬히 순절했고 선무원종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 유의건(柳宜健)

자는 순겸(順兼)이고 본관은 서산(瑞山)이다. 자질이 아름다우며 담력과 지략이 있고 총명이 뛰어났다. 병서(兵書), 음률(音律), 의약(醫藥), 복서(卜筮) 등 통하지 않는 바 없고 더욱 의리(義理)의 학문에 마음을 오로지하였다. 아

래로 송나라 성리학에서부터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복희씨(伏羲氏)와 공자(孔子)에 이르렀다. 특히 주역(周易)에 밝아서 괘변의의(卦變疑義) 등 글을 저술하였는데 이는 앞 시대의 유학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나타냈다. 또한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친상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려 눈이 거의 실명되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한나라 정현(鄭玄)에 비유하여 평생 묵계하였고 생졸의 해가 또한 같으니 사람들은 모두 정현의 후신(後身)이라 일렀다. 영조 을묘년(1735)에 사마시에 합격한 이후 과거에 뜻을 버리고 후학을 지도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다. 문인들과 자제들이 화곡(花谷) 수석(水石) 가에 화계서사(花溪書社)를 지었다. 죽은 5년 뒤 조정에서 만녕전(萬寧殿) 참봉(參奉)에 제수하자 그의 아들 유영로(柳榮魯)가 이 직첩을 관찰사에게 알렸다. 이에 관찰사 정존겸이 그의 죽은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니, 왕명에 의하여 내린 직첩을 그대로 제수하게 하였다. 호는 화계(花溪)이고 문집이 있다.

○ 윤좌은(尹佐殷)

자는 탕로(湯老)이고 본관은 파평이다. 본성이 총명하고 특히 경사(經史)에 능통하니 온 고을이 그를 높이 받들었다. 인조 때 추천되어 장악원 사평(掌樂院司評)에 제수되고 통정대부에 올랐다. 글씨와 독서로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호는 일암(一庵)이다.

○ 이강(李壃)

자는 대계(大啓)이고 이응기의 증손자다. 표상이 우아하고 높으며 가학(家學)에 힘을 썼다. 왕비와 가까운 인척(姻戚)이 있었으나 그 세력으로 벼슬에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덕동(德洞)에 은거하여 자연을 즐겼고 사계(四季)의 마땅함을 취하여 사의당(四宜堂)이란 서재를 지었다.

○ 이건행(李健行)

자는 군천(君天)이고 지헌 이철명의 후손이다. 품성과 자질이 응중(凝重)하고, 어릴 때부터 학문에 뜻이 깊고 과거 공부를 하여 여러 번 향시에 합격했다. 집 뒤에 몇 간의 서재를 짓고 사정재(四正齋)라 편액을 붙였다. 문을 닫고 조용히 살며 경사(經史)를 연구하였고 특히 예학에 능하여 상제(喪祭) 2책과 주석(註釋)을 지었다. 호는 오월헌(梧月軒)이고 유집이 있다.

○ 이경중(李敬中)

자는 이직(以直)이고 이민중(李敏中)의 아우다.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고 학문을 일찍 이루니 갈암 이현일이 그의 글을 보고 매우 칭찬하였다. 숙종 경인년(1710)에 생원시에 합격하니, 고관이 그의 글을 보고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 뒷날 그 고관이 다시 문과시를 맡았을 때 사람을 시켜 그를 만나려 했으나 이경중은 끝내 사양하고 듣지 않았다. 호는 임부(任夫)이고 유집이 있다.

○ 이경택(李慶宅)

자는 통중(通仲)이고 호는 죽포(竹圃)이며 판관 이봉수의 5세손이다. 품성이 온아하고 경서에 깊이 잠심했다. 날마다 마을 생도들과 더불어 거듭 강의를 하고 바깥 명리를 구하지 않았다. 낮에는 농사짓고 밤이면 독서하여 그 어버이를 잘 봉양했다. 만년에 조카 이복형(李復馨)과 더불어 도주(道州) 동쪽 호수 가에 옮겨 살면서 자연의 시를 읊조리며 여생을 보냈다.

○ 이경한(李景漢)

판윤 이지대(李之帶)의 5세손이고 호는 청와(淸窩)다. 향청(鄕廳)에 판본을 새겨 걸었는데 그 글에서 '충성은 사직을 다하고 이름은 인각(麟閣)에 빛났다. 지극한 효성으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고 포창하는 은전은 충(忠)과 효(孝)가 나란히 드러났다.' 라고 하였다. 그는 부조묘(不祧廟)에 모시었기 때문에 제사 받드는 후손은 모두 연호군(烟戶軍)을 면제받은 예(例)가 적용되었다. 임란 때 많은 공을 세웠고 이괄의 난에 원종공신에 녹선되었다. 품계는 자헌대부에 이르렀고 여러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후에 숭정대부 판중추부사에 증직되었다.

○ 이관국(李觀國)

자는 용빈(用賓)이고 이의번의 아들이다. 자질과 품성이 준수하고 문장과 행실을 모두 갖추었다. 학와(鶴窩) 손국제(孫國濟), 약남(藥南) 이헌락(李憲洛) 등 당시 명유(名儒)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고 시를 주고 받았다. 호는 눌암(訥庵)이다.

○ 이관길(李觀吉)

자는 국빈(國賓)이고 송와 이종윤의 후손이다. 뜻한 바가 깊어 힘써 배웠고, 효(孝), 우(友), 충(忠), 신(信)의 모든 성품을 지녔다. 여러 번 향천(鄕薦)을 받았고 후진 교육에 힘을 쏟았다. 임천(林泉)에 묻혀 여생을 마쳤고 서재의 편액을 사우

당(四友堂)이라 하였다.

○ 이관상(李觀祥)

자는 백심(伯心)이고 이시중의 증손이다. 타고난 자질부터 뛰어났고 도량이 넓고 깊었다. 아울러 문장을 익혀 신유년(1801) 사마시에 합격했다. 그후로 관직에 나아갈 뜻을 버리고 항상 우뚝이 앉아 책을 읽었다. 몸가짐과 행동을 삼가고 내적 조행(操行)이 순후하였다. 호는 창남(蒼南)이다.

○ 이관영(李觀永)

자는 내윤(乃胤)이고 이두경의 현손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경사(經史)와 백가를 널리 통달하였다. 그가 지은 만파식적부(萬波息笛賦)는 동도악부(東都樂部)에 선입되었다. 호는 우재(迂齋)이고 유고가 있다.

○ 이구징(李耉徵)

자는 대년(大年)이고 청와 이경한(李景漢)의 손자다. 어려서 재주가 뛰어났고 뜻을 세워 학업에 힘썼다. 사천(沙川) 이유성(李惟聖)을 스승으로 삼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인조 기묘년(1639)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효종 정유년(1657)에 문과 급제하였다. 벼슬은 예조좌랑에 이르렀고 여러 고을을 맡아 다스리며 모두 훌륭한 치적을 남겼다. 함안 군수로 있을 때 남전여씨향약(藍田呂氏鄕約)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풍속을 바로잡았다.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행장에는 한 가지 물건도 가져오는 것 없이 쓸쓸하였다. 동계(桐溪) 정연(鄭延)의 시호를 청하려 도유(道儒)를 거느리고 나라에 소를 올렸다. 호는 죽헌(竹軒)이다.

○ 이남순(李南淳)

자는 계락(啓洛)이고 본관은 전주이며 봉성군 이이의 후손이다. 타고난 품성이 온아하고 재기(才器)가 뛰어났다. 성리서에 잠심하고 문장이 풍부하며 필법이 또한 묘(妙)하였다. 서울에 유학하여 여러 번 과거에 응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향리에 은거하여 분수를 지키며 여생을 마쳤다. 호는 난파(蘭坡)이고 유고가 있다.

○ 이능덕(李能德)

자는 구길(九吉)이고 호는 치재(恥齋)이며 정언 이재립의 아들이다. 총명 · 지혜

하여 겨우 말을 할 나이에 이미 자획(字畫)을 분별했다. 일찍이 달을 보며 가리키기를 태극도(太極圖)의 형상이라 말하고, 7세 때 팔괘(八卦)와 하도낙서(河圖洛書)를 구별했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머니 병환 때 젖을 먹지 않았고 아버지의 병이 심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다. 정재 유치명 문하에서 글을 배워 많은 장려를 입었고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이 그를 동문도계(同門道契)로서 보인(輔仁)할 사람이라 하며 칭찬했다. 유집이 있다.

○ 이능섭(李能燮)

자는 공리(公理)이고 이재정의 아들이다. 타고난 자품이 단중(端重)하고 풍모가 맑고 깨끗하였다. 헌종 무신년(1848)에 문과 급제하였다. 경연에서 충직한 말을 아뢰니 임금이 가납하고 『예기(禮記)』 등 책을 하사하였다. 경주 부윤으로 부임하였을 때 동해현에 숲을 봉금(封禁)하여 백성들의 고질적 폐단이 되었다. 이에 연이어 소를 올려 그들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잘못한 관리를 파직시키니 동해 백성들이 그의 송덕비를 세웠다. 임금으로부터 '평안하면서 공손하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지조를 지켰다' 라는 포문의 교시가 특별히 내려졌다. 벼슬은 이조참판에 이르렀고 호는 노석(老石)이다.

○ 이능수(李能樹)

오의정 이의온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독실히 하여 논맹(論孟)을 힘써 터득하였다. 특히 그는 퇴계(退溪)의 글을 많이 공부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퇴계 선생을 만났다. 따라서 스스로 호를 몽퇴(夢退)라 하니 이는 존모(尊慕)의 뜻으로 붙인 것이다. 유집이 있다.

○ 이능윤(李能淪)

자는 경진이니 회재 선생의 11세손이다. 독서 궁리하여 여러 경전에 정통하였고 특히 예악(禮樂)과 상수(象數)에 능했다. 저서는 용학문변, 초학지도문, 지심지방편등과 유집이 있다.

○ 이능직(李能直)

자는 사경(士敬)이고 이헌순의 현손이다. 어릴 때부터 자질이 뛰어났다. 족조인 남려(南廬) 이정엄(李鼎儼) 문하에서 글을 배워 많은 장려를 받았다. 날마다 의관을 단정히 하고 책상을 대하고 앉아 주서(朱書), 성리서(性理書)의 주소(註疏)와 요어(要語)

을 초출(抄出)해 내어 읽으며 학문의 바탕으로 삼았다. 나이 84세에 우로(優老)의 특전이 있었고 제자들이 나라에 글을 올려 벼슬을 청하려 했으나 그는 간곡하게 제지하며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여 한 가지도 보필한 일이 없었고 다만 늙음으로써 벼슬을 청하는 것은 나의 본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호는 농한(聾漢)이고 유집이 있다.

○ 이능혁(李能奕)

자는 공세(公世)이고 참판 이능섭의 아우다. 풍모가 단정하고 지조가 꿋꿋하였다.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여 가법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일찍이 문학을 이뤄 명성이 높았다. 철종 무오년(1858)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경신년(1860)에 참봉에 제수되었다.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의 시호를 청할 때 소수(疏首)로 추대되었다. 호는 창하(蒼下)다.

○ 이능호(李能灝)

자는 화극(和克)이고 호는 상경헌(常敬軒)이며 농재 이언괄(李彦适)의 후손이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고 몸소 돈독히 실천하였다. 어버이를 섬길 때 뜻으로 받들며 봉양했다. 항상 학도들과 더불어 백록동(白鹿洞) 규약을 강하고 향음주례를 익혔다. 그러나 세상이 덧없이 격변하자 마침내 자취를 거둬 중국 요녕(遼寧)으로 들어가 조용히 있다가 죽었다. 삼정록(三正錄), 강목법의(綱目法義), 일건록(日乾錄) 등의 글을 지었고 문집이 있다.

○ 이덕록(李德祿)

자는 중여(重與)이고 이의잠(李宜潛)의 증손자다. 현종 신축년(166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풍체와 기골이 우뚝하고 성품과 도량이 중후하였다. 한적한 곳에 서재를 짓고 날마다 후생을 지도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경주 사마소(司馬所)가 있었으나 임란 때 불타버렸다. 같이 사마시에 합격한 손경걸(孫景杰)과 더불어 다시 짓고 규범을 갖추었다. 여러 번 추천되어 영릉(英陵) 침랑(寢郎)에 제수하는 왕명이 내렸으나 이미 죽은 이후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호는 동고(東皐)이고 유집이 있다.

○ 이덕표(李德標)

자는 정칙(正則)이고 이교의 손자다. 기상이 뇌락(磊落)하고 덕망과 행실을 모두 갖추었으며 숙종 기묘년(1699)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경종 2년(1722)

에 일어난 신임옥사(1721~1722) 때 장희빈을 신원하는 일로써 삼남(三南) 지방의 선비들이 대궐 앞에 나아가 소를 올리려 했는데 이때 그는 소수(疏首)로 추대하였다. 그는 여러 번 사양했으나 뜻을 얻지 못하자 곧 분연히 일어났다. 마침내 인륜을 부지(扶持)하고 간악한 무리를 배척하는 소를 올리니 그 글은 수백 언(言)에 달하였다. 3년이 지난 을사년(1725)에 권세를 잡은 무리들의 허위 사실에 의해 마침내 관서(關西)의 용천(龍川)으로 귀양갔다. 정미년(1727)에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세상과의 접촉을 일체 끊고 경전을 깊이 탐구하면서 자연에 묻혀 여생을 보냈다. 호는 우와(寓窩)이고 유집이 있다.

○ 이도겸(李道謙)

자는 호여(好汝) 호는 구봉(九峯)이고 두곡(杜谷) 이습(李熠)의 5세손이다.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고 선비들 사이에 중망이 두터웠다. 저술로 충효설(忠孝說)과 의례(疑禮) 등 글이 있고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10세 때 아버지 상을 당하여 상제를 성인과 같이 하였고 조부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종기 부위의 독을 입으로 빨아내어 낫게 하였다. 어머니 병환이 위독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고 상을 당하여 3년을 시묘하였다. 평생토록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를 빠뜨리지 않았고 국기일(國忌日) 때 반드시 3일간 소찬으로 먹었다. 고종 기사년(1869)에 사림이 나라에 글을 올려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되었다.

○ 이두경(李斗經)

자는 자위(子緯)이고 이팽수의 후손이다. 기개가 뛰어나고 지조가 있으며 경전을 깊이 강구(講究)하였다. 천성이 얽매이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일찍이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어지러운 풍토를 보고 탄식하며 돌아왔다. 고을이나 이웃에서 가난하여 의탁할 사람이 없어서 시집이나 장가들 시기를 놓쳤거나 상례의 기일을 넘긴 사람이 있으면 혼수의 물품과 의복을 갖추는데 힘을 다하여 도와 주었다. 호는 졸재(拙齋)이며 유고가 있다.

○ 이래(李來)

이존오(李存吾)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고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참록되었으며 계림군에 봉해졌다. 태종 사당에 배향되었다.

○ 이말동(李末仝)

자는 자원(子源)이고 호는 도원(桃源)이며 본관은 경주다. 판서 이량(李良)의 증손자이고 성종 경자년(1480)에 사마 양시에 합격하였다. 연산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보고 마침내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았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안정민(安貞愍), 김절재(金節齋) 등 여러 어진 사람과 도의(道義)의 사귐을 맺었다. 한훤당이 동년계첩(同年契帖)서 그를 일러 이르되, '나이와 도(道)가 서로 비슷하며 교분이 매우 두텁다' 라고 하였다. 문집이 있다.

○ 이문형(李文炯)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풍모가 구슬처럼 맑았고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 이민중(李敏中)

자는 사행(士行)이고 이의활(李宜活)의 현손이다.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문장을 일찍 이루었고 뜻이 높고 간평(簡平)한 것을 숭상하였다. 호는 효우당(孝友堂)이다.

○ 이번(李蕃)

자는 숙한(叔翰)이다. 안강현 양좌촌에 살았고 타고난 품성이 뛰어나고 의용이 단정하였다. 약관 때 부상[府庠 : 鄕校]에 유학하여 스승과 벗을 가려 사귀었고 경학(經學)을 통달하고 문장을 잘 했으며 필법 또한 묘(妙)하였다. 성종이 마침 남도(南道) 도회(都會) 때 유생들이 지은 글 가운데 장원으로 뽑힌 몇 편의 글을 보았는데 이번이 지은 글을 보고 매우 가상하게 여겼다. 즉시 궁궐로 불러들여 종이와 붓을 내리고 다시 시험을 보게 한 뒤 의복과 음식을 내렸다. 그리고 성균관에 머물게 하여 학업을 마치도록 하니 많은 선비들이 영광으로 여겼다. 홍치 을묘년(1495)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 이범중(李範中)

자는 이경(彝卿)이고 수졸당 이의잠의 현손이다. 영조 신유년(1741)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병인년(1746)에 추천으로 재랑(齋郎)에 제수되었고 여러 고을을 맡아 다스렸다. 만년에 선산 금오산(金烏山)에 터를 정하고 여생을 보냈다. 성품이 천진(天眞)하고 재주가 총명하여 늙어서도 쇠하지 않았다. 재상 채제공이 그를 한

번 만나보고 교의(交誼)를 맺었고 그가 죽었을 때 묘갈명을 지었다. 호는 이향정(二香亭)이다.

○ 이선(李璿)

자는 계옥(季玉)이고 훈도 이후근의 아들이다. 벼슬은 훈련원 판관 겸 부호군에 이르렀다.

○ 이선상(李善祥)

자는 원부(元夫)이고 이헌유의 손자다. 용모가 아주 출중하고 성품이 침중하며 도량이 있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책을 읽으니 명성이 온 고을에 높았다. 부윤 김양순(金陽淳)이 그를 한 번 만나고 조정에 가서 어전에 아뢰기를 "신이 영남에서 한 선비를 얻었습니다"라고 했다. 호는 지와(遲窩)이고 유고가 있다.

○ 이수민(李樹敏)

자는 도숙(道叔)이고 수졸재 이두경의 증손이다.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고 문학을 일찍이 이루었다. 약관 때 아버지 상을 당하여 상제의 예를 다하였다. 자신을 위한 학문에 힘써서 성경론(誠敬論), 양심편(養心篇), 지명잠(知命箴)을 지었다. 호는 대산(臺山)이고 유집이 있다.

○ 이수영(李秀榮)

자는 맹실(孟實)이고 호는 창애(昌厓)이며 원종공신 이응수(李應壽)의 후손이다. 성품이 단정하고 학술이 진실하였다. 후생을 가르치며 명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종형인 동려(東廬) 이운익(李運益)에게 글을 배웠다. 문집이 있다.

○ 이수인(李樹仁)

자는 성안(性安)이고 두촌 이팽수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밝고 순수하며 총오하였고 가난하지만 배움을 좋아하였다. 정조 계묘년(1783)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로써 진취의 뜻을 끊고 오로지 성리학에 마음을 다했었다. 병진년(1796)에 유일(遺逸)로 추천되었다. 임금을 뵈올 때, '재물을 절약하여 쓰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시폐(時弊)를 구제하는 요체입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하고 특별히 가감역(假監役)에 제수하였다. 그는 곧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서 학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 고종 계사년(1893)에 제주(祭酒)에 증직되었다. 호는 구암(懼庵)이며 문집이 있다.

○ 이순(李淳)

자는 심원(深源)이고 잠계 이전인의 둘째 아들이다.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문학을 일찍이 이루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의례문답(疑禮問答)을 남겼다. 음직으로 제용감 봉사에 올랐고 호는 치암(癡庵)이다.

○ 이순상(李舜相)

자는 사원이니 본관은 경주이다. 총명이 뛰어나고 문사를 조성(早成)하였으나 여러 번 과거에 실패하였다. 마침내 자연에 묻혀 후학을 가르치니 많은 성취가 있었다. 유집이 있다.

○ 이술현(李述賢)

자는 학조(學祖)이고 졸재 이두경의 손자다. 풍모가 뇌락하고 논의가 명쾌하였다. 정조 을묘년(1795)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오로지 성리(性理)에 마음을 다했다. 또 효성이 지극하였다. 14살 때 하과(夏課)에 으뜸으로 뽑히자 시관이 잔치를 베풀고 부르니 그는 상을 대하고 밥을 먹지 않았다. 어머니가 종기 병을 앓고 있으니 입으로 상처를 빨며 병을 돌보았다. 무오년(1798)에 성균관의 여러 유생들이 그의 지극한 효행과 깊은 학문을 표창하려고 경주부에 글을 보냈다. 이에 사림이 한결같이 응하여 나라에 글을 올리려 했으나 그가 이 소문을 듣고 적극 제지하였다. 호는 인와(忍窩)이고 유고가 있다.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 이습(李熠)

자는 용회(用晦) 호는 두곡(杜谷)이고 이말동(李末仝)의 손자이다. 본디 효성과 우애가 있었고 성리학에 잠심하였으며 또한 필법이 절묘하였다. 관찰사가 여러 번 천거하여 참봉과 직장(直長)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서재를 공연방(孔燕坊)에 짓고 편액은 자락당(自樂堂)이라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바라보면 가을달 같이 맑고 만나 보면 구슬처럼 따스하다.' 라고 하였다.

○ 이승운(李乘運)

자는 원길(元吉)이고 호는 근암(謹庵)이며 이요신의 손자다. 성품과 도량이 넓고 기상이 쇄락(灑落)하였다. 책을 읽고 뜻한 바를 찾으며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고 행실에 법도가 있었다. 또 효성이 독실하여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간 것을 통한

해 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밤이면 반드시 목욕하고 하늘에 기도하며 어머니의 장수를 빌었고 추위와 더위에도 이를 폐하지 않았다.

○ 이승증(李承曾)


문호사

본관은 월성(月城)이고 문학과 행의(行誼)가 있었다. 부모를 섬길 때 그 효성을 다하였고 상을 당하여 시묘하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이때 무서운 도적 팔룡(八龍)의 무리가 각 고을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이승증의 시묘하는 곳을 지나면서 손으로 가리키며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곳에는 효자가 살고 있다. 삼가고 가벼이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하고 마침내 무리를 거둬 피하여 떠나갔다. 가정 무오년(1558)에 생원시에 합격하니 경연관(經筵官)이 천거하여 여섯 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나라에서 정려비를 세우게 하니 그 비각은 부 동쪽 첨성대 북편에 있다. 그의 행적은 삼강속록(三綱續錄)에 실렸고 지곡사(智谷祠)와 문호사(汶湖祠) 두 곳에 배향되었다. 호는 관란(觀瀾)이고 문집이 있다.

○ 이시일(李時逸)

자는 경안(敬安)이고 본관은 월성이다. 영조 병자년(1756)에 문과에 합격하고 황해도와 경상도의 아사(亞使) 및 병좌랑(兵佐郎)을 역임했다. 일찍이 명고(鳴皐) 정간(鄭榦)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덕성각(德成閣) 경연에서 여러 번이나 형벌을 신중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 등에 대하여 진언하니 장헌세자가 교시를 내려 '참으로 충정 어린 마음에서 나온 글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에 장현세자의 원통한 일로서 임금의 뜻에 조금 거슬리니 임금이 곧 파직하여 내쫓았다. 또 글을 지어 올렸으나 상사(上司)의 제지를 받아서 마침내 외막(外幕)으로 좌천되었다. 이로써 물러나 자연에 묻혀 지냈다. 호는 한와(閒窩)이고 문집이 있다.

○ 이시중(李時中)

이언괄(李彦适)의 후손이고 영조 기묘년(1759)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힘써 학업을 닦아 명성과 문장이 일찍이 드러났다. 계당(溪堂)을 다시 짓고 '산은 깊어져야 마땅하고 물은 더욱 멀리 흘러야 마땅하다. 학문은 더욱 의미가 있어야 마땅하

고 가난하지만 더욱 즐거움이 있어야 마땅하다' 라는 네 가지 '마땅하다' 는 말을 취하여 사당와(四當窩)라 이름을 지었다. 또한 증자(曾子)가 날마다 충(忠), 신(信), 습(習)의 세 가지씩 반성했다는 가르침을 취하여 자호를 성헌(省軒)이라 했다. 유고가 있다.

○ 이시현(李時鉉)

자는 옥경(玉卿)이고 호는 만회당(晩悔堂)이며 이양선(李揚善)의 현손이다. 그는 숙부인 용와(慵窩) 이홍이(李弘廙)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성리학(性理學) 등 여러 책을 깊이 연구했다. 『소학(小學)』을 평생 체험(體驗)의 방법으로 삼고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였으며 어버이상을 당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 이신중(李愼中)

농재 이언괄의 후손이다. 우암 남구명 문하에서 글을 배워 문사(文詞)가 크게 발전하고 선비들에게 중망을 받았다. 경전의 뜻을 깊이 연구하고 후생을 훈도하였다. 만년에 수직(壽職)으로 첨추(僉樞)에 올랐고 유고가 있다.

○ 이악상(李岳祥)

자는 자언(自彦)이고 이정익(李鼎翊)의 아들이다. 성품과 도량이 단중(端重)하였고 입재 정종로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유겸암(柳謙庵)의 시호를 청할 때 온 고을 선비들이 추천하여 소수(疏首)가 되었다. 판서 김상휴(金相休)가 그의 학문과 행실로 조정에 천거하였으나 임금의 명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죽으니 당시 선비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호는 치암(恥庵)이며 유집이 있다.

○ 이양복(李養復)

자는 유능(幼能)이고 호는 은계(隱溪)이며 이홍이의 손자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버리고 은거하여 도를 탐구하며 문생을 가르쳤다. 이기설(理氣說) 등을 지었고 부윤의 추천으로 향교 훈도가 되었다. 유고가 있다.

○ 이양선(李揚善)

자는 자집(子執)이고 이습(李熠)의 증손이다. 문학과 올바른 행실로 이름이 높았고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으며 초상 때 예를 다하였다. 작은 정자를 비

학산(飛鶴山) 아래 짓고 현액을 학소암(鶴巢庵)이라 했다. 그리고 서식(棲息)의 장소로 삼으니 원근의 학자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 호는 학암(鶴庵)이다.

○ 이언괄(李彦适)

자는 자용(子容)이고 회재의 아우이다.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는데 봉양을 위하여 벼슬을 버리고 직접 맛있는 음식으로 받들었다. 상을 당하여 읍혈(泣血)로 슬픔을 지나치게 하였고 제사지낼 때 예를 다하였다. 정미년(1547)에 회재가 평안도 강계에 유배되었다. 그는 송라 찰방으로 있다가 겨우 십 개월을 지내고 돌아오니 그곳 사람들이 비를 세워 덕을 기리었다. 그는 회재를 위하여 밤마다 향을 사르고 하늘에 축원하였는데 그 효우(孝友)의 독실함은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나라에서 듣고 복호(復戶)해 주었다. 임자년(1552)에 보군덕(輔君德)이 되어 형을 신원하려 상소(上疏)하려 했으나 회재가 힘써 제지시켰다. 일찍이 자경집설(自警集說)과 한거잡계(閒居雜誡) 등 글을 저술하여 좌우(座右)에 걸어두고 항상 눈으로 익히며 성찰을 삼았다. 정조 경인년(1770)에 지평(持平)에 증직되고 고종 때 대사헌 겸 성균관 제주(祭酒)에 증직되었다. 호는 농재(聾齋)이고 문집이 있다.

○ 이언적(李彦迪)

자는 복고(復古)이고 이번(李蕃)의 아들이다. 정덕 계유년(1513)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갑술년(1514)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영의정에 증직되고 시호는 문원(文元)이며 명종 사당에 배향되었고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였다. 문집(文集) 5권, 『구경연의(九經衍義)』, 『구인록(求仁錄)』,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봉선잡의(奉先雜儀)』, 『태극문변(太極問辨)』, 『별집(別集)』 등의 책이 세상에 전한다. 호는 회재(晦齋)이다.



이언적 수필고본(보물 제586호) 중 봉선잡의

※제7편 교육 · 언론 및 출판 제1장 교육과 학문 참조

○ 이연상(李淵祥)

자는 계우(季愚)이고 이해상(李海祥)의 아우다. 처음 벼슬에 나아가서 매우 강직하며 흔들리지 않으니 조정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헌종 경자년(1840)에 임금

의 부름을 받았다. 이때 임금이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였고 상(喪)으로 인하여 관례를 치르면서 삼가례(三加禮)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이연상은 길례(吉禮), 흉례(凶禮)가 서로 겹쳤을 때의 예법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극언으로 논하니 듣는 사람들은 옳다고 하였다.

기해년(1839)에 옥산서원에 화재가 일어났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서원을 중건하고 관찰사에게 청하여 두 번이나 선액(宣額)을 받았다. 벼슬은 대사간에 이르렀다.

○ 이요신(李堯臣)

자는 훈보(勛輔)이고 호는 눌와(訥窩)이며 이시현(李時鉉)의 아들이다. 10세에 천지잠(天地箴)을 지었고 자라면서 학문을 더욱 깊게 연구하여 구잠의의(九箴疑義), 문답이기(問答理氣) 등의 글을 지었다. 예법(禮法)에 밝았고 필법이 고졸하면서 웅건하였다.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는데 일찍이 아버지 명으로 과거를 보러 갔을 때 참판 이익운(李益運)이 그를 한 번 만나고 돌아가서 정승 채제공에게 "이 아무개는 참으로 박학하고 아칙(雅飭)한 군자다"라고 하였다.

○ 이우상(李瑀祥)

자는 우옥(禹玉)이며 이종상의 아우이다. 재주가 뛰어나 4세에 이미 글자를 묻고 능히 시를 지었다. 글을 배우면서 한 번 읽은 것은 거의 외웠고 문사가 크게 진취하여 이종상과 같이 당세에 이름이 높았다. 평소 『춘추』와 『좌전』을 읽고 이를 초록하여 한 권의 책자를 만들었다.

○ 이운붕(李運鵬)

자는 도만이고 이제현의 후손이다. 집이 가난했으나 학문을 좋아하고 경사를 널리 통하였다. 과거 공부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성리학(性理學)에 뜻을 두어 후진을 교육하였다. 풍치 좋은 산수 간에 정자를 짓고 이곳에서 날로 향중 선비들과 함께 학문을 강론했다. 유집이 있다.

○ 이운익(李運益)

자는 성수(聖受)이고 호는 동려(東廬)이며 이양호의 손자다.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종숙인 학남 이회경에게 글을 배워 문장이 정미하고 자세하였

다. 고고(高古)함을 숭상하고 예학에 깊었으며 저술은 『주해예설(註解禮說)』, 『유학통의(幼學通儀)』 2책이 있다.

○ 이운정(李運楨)

자는 주언(周彦)이고 호는 방산(方山)이며 이도겸의 5세손이다. 종숙인 학남 이회경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또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을 좇아 간절히 묻고 깊이 생각하여 덕과 학문을 성취하였다. 이에 사우(士友)의 중망을 받았고 저술로 『춘방양정록(春坊養正錄)』, 『용학통론(庸學通論)』 등이 있다.

○ 이원상(李元祥)

자는 선장(善長)이고 회재 선생의 주손이다. 8세 때 몽암(蒙庵) 정희(鄭熹)의 가숙에서 글을 배우며 학서(學書)를 지었는데 이 글에서 '성(性)은 곧 이(理)다' 라고 하니 몽암이 무릎을 치며 찬탄하였다. 순조 병인년(1806)에 전천(銓薦)으로 벼슬하였고 정묘년(1807)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계유년(1813)에 대책(對策)으로 문과 급제하니 대신들이 그의 글을 보고 놀라서 "이 사람은 영남 선비들 가운데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인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서 얼마 후에 죽으니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특전으로 수찬(修撰) 겸 문신선전관(文臣宣傳官)에 증직하고 이조 참판에 추증(追贈)하였다. 호는 의은(依隱)이다.

○ 이원익(李源益)

양졸당 이의징의 후손이다. 아버지가 여러 해 동안 병으로 고생하여 온 힘을 다해 약을 구하여 시탕했다. 상을 당했으나 가난하여 상례로써 장사 지낼 수 없어 임시로 장사지냈다. 어느 날 밤 꿈의 조짐이 이상했다. 놀라서 일어나 산소에 가보니 여우 무리가 무덤을 범하고 있어 수호하고 사나운 풍우가 몰아쳐도 피하지 않으며 밤낮으로 무덤 가에서 슬피 울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힘을 모아 여막을 묘 곁에 짓고 그곳에서 시묘하게 하니 원근에서 조문하러 온 사람이 많았다.

○ 이위현(李渭賢)

자는 기언이니 이팽수의 후손이다. 풍채가 우뚝하고 재주가 영민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소채로 끼니를 이었으나 사물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경사로써 스스로 즐거움을 삼았다. 유집이 있다.

○ 이윤인(李尹仁)

익재 이제현의 후손이다. 문과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역임한 뒤 평안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 이은찬(李殷瓚)

자는 희익(羲翊) 호는 눌와(訥窩) 본관은 영천이고 울산군 이중영(李仲榮)의 후손이다. 외와 최림 문하에서 글을 배워 문예를 일찍이 이루었고 효우가 매우 돈독했다. 고종 경진년(1880)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마침내 명리(名利)에 뜻을 버리고 산림에 묻혀 즐겼다. 무자년(1888)에 경릉 참봉에 제수되었고 수직으로 가선대부에 올랐다.

○ 이을규(李乙奎)

자는 문경(文卿)이다. 중종 신묘년(1531)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을미년(1535)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은 승문원 교리에 이르렀다. 세 번이나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금동 화로를 하사 받았다. 일찍이 회재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회재가 시를 지어 주면서 학문에 힘쓰도록 하였고 자주 독락당에 나아갔다. 정사(精舍)를 호계(虎溪)에 세우고 이에 호계(虎溪)를 호로 삼았다. 북산사(北山祠)에 제향하고 실기(實記)가 있다.

○ 이응기(李應期)

자는 형중(亨仲)이고 농재 이언괄의 아들이며 음직으로 영해(寧海) 교수(敎授)가 되었다. 품성이 고요하고 진솔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날마다 책을 읽을 때 일정한 과정을 정해두고 뜻에 맞는 글귀가 있으면 횡거(橫渠) 장재(張載)의 버릇과 같이 촛불을 밝혀두고 거듭 읽었다. 호는 매헌(梅軒)이다.

○ 이응상(李凝祥)

이의잠의 후손이다. 순조 정유년(1837)에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참의에 이르렀다. 어려서부터 중후하고 간묵(簡默)하며 책 읽기를 좋아하였다. 과거에 급제했으나 풍치(風致)가 소산하여 가난한 선비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도덕과 인망이 모두 높았다. 글씨, 역사책, 거문고, 바둑 등으로 즐거움을 삼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썼다. 그리고 돈목(敦睦)과 효우(孝友)로써 가정의 법통을 삼으니 경향 각지의 인사들이 모두 그를 높이 받들었다.

○ 이응인(李應仁)

자는 경이(敬而)이고 회재 선생의 사자(嗣子)다. 8세 때 생모 이씨의 부음(訃音)을 듣고 매우 슬피 울었다. 하루는 이질에 걸려 심하게 고생하니 그는 근심에 잠겨 고기를 권해도 먹지 않았다. 이튿날 석용자(石茸子)로 국을 끓어 가져오니 그는 어려서부터 이를 보지 못했으므로 소 천엽(千葉)으로 끓여 국인 줄 알고 먹지 않았다. 처음 생모 이씨가 옷을 만들어 보냈다. 이때 이르러 그는 매일 울면서 옷을 만지며 말하기를, "나의 어머님 옷입니다"하며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였다. 이에 박씨 어머니가 그 등을 어루만지면 울음을 그치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너의 어머니고 돌아가신 분은 너의 숙모이시다."하니 그는 대답하기를, "이 분 모두 나의 어머님이십니다"하자 회재 선생이 듣고 매우 기특하게 여기었다. 뒤에 벼슬하여 여러 고을을 맡아 다스렸고 부임하는 곳마다 선정으로 이름이 있었다. 호는 수암(守庵)이고 승지에 증직되었다.

○ 이의윤(李宜潤)

회재 선생의 손자이다. 천성이 순미하고 일찍 학문에 뜻을 두어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하에서 수업했다. 독학 역행하고 선업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여 호를 무첨당(無忝堂)이라 편액하고 어버이를 효도로써 섬기고 아우들로 더불어 우애가 돈독했다. 부친이 병이 들자 정성을 다해 목욕하고 하늘에 빌며 그 아픔을 자기 몸으로 대신해 줄 것을 기원했다. 계사년(1593) 전란 중에 아버지 상을 당했다. 그러나 상제의 예를 다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슬픔이 극진하였다. 새벽마다 가묘에 배알하며 풍우가 치는 날에도 이를 폐하지 아니하였다.

○ 이의립(李義立)

자는 예겸(禮兼)이고 이승증(李承曾)의 5세손이다. 그는 아버지의 상을 마친 뒤 탄식하기를 '국가의 도는 병기(兵器)와 농기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병기와 농기구의 원자재인 수철(水鐵) 등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으니 많은 부족함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국내 유명한 산을 두루 답사하고 산천(山川)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였다. 마침내 10년 만에 이상한 현몽과 신(神)의 도움으로 수철(水鐵)은 달천(達川)에서 비상(砒礵)은 반척곡(盤尺谷)에서 황석(黃石)은 만호봉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비상, 수철, 유황 등을 법제하여 나라에 바치니 특별히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였다. 그는 성은에 감동하여 뜻을 가다듬고 기술을 개발하여 비상과 철 등으로 물건 거만(巨萬)의 수를 제조하여 주사(籌司)에

헌납하였다. 현종이 그 공을 크게 찬탄하여 숙천 부사(肅川 府使)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굳이 사양하며 "유황 등 새로 제조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 일을 주간하도록 해 주신다면 임금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하니 현종이 의롭게 여겨 허락하였다. 그리고 가선대부로 품계를 높이고 사패문(賜牌文)이 내렸다. 만년에 서재를 부 동쪽 효문동(孝門洞)에 짓고 편액을 구충당(求忠堂)이라 붙여두고 여생을 보냈다. 실기가 있다.

○ 이의잠(李宜潛)

자는 병연(炳然)이고 이의활의 아우다. 일찍이 지산 조호익과 우복 정경세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깊은 장려를 받았고 임란 때 화왕산 회맹에 달려가 동참하였다. 집에서는 효성을 행하고 벼슬살이에서는 맑은 덕으로 다스리니 고을 사람들이 초상을 그려 전하고 사림이 숭봉하였다. 벼슬은 현감에 이르렀고 호는 수졸당(守拙堂) 또는 동호(東湖)라 하며 유집이 있다.

○ 이의주(李宜澍)

농재 이언괄의 손자이고 벼슬은 선공감 부정(繕工監 副正)을 지냈다. 일찍이 한강 정구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깊이 도(道)에 거의 가깝다는 허여를 받았다. 집 가에 오래된 향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래 단(壇)을 쌓고 날마다 여러 학도들과 더불어 강습(講習)하며 스스로 즐겼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일컬어 향단옹(香壇翁)이라 말했다.

○ 이의징(李宜澄)

자는 형연(泂然)이고 이의윤의 아우다. 어린 나이에 힘써 배웠고 한강 정구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상을 당하여 예를 다한 것은 그 형과 마찬가지였다. 슬픔을 지나치게 하여 효상(孝傷)을 입었는데 3년 상을 마친 얼마 후 형제가 차례로 죽었다. 나라에서 이 사실을 듣고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었다. 호는 양졸당(養拙堂)이다.

○ 이의활(李宜活)

자는 호연(浩然)이고 이의징(李宜澄)의 아우다. 광해군 임자년(1612)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공조랑에 임명되었고 3개 고을을 맡아 다스렸으며 모두 치적이 있었다. 무오년(1618)에 문과 급제하여 벼슬하다가 곧 돌아왔다. 인조 반정 후 전적(典

籍)과 형조랑에 임명되었고 원종녹권(原從錄券)이 있다. 입춘 날 중전춘첩(中殿春帖)에 대해 글을 지어 올리니 대신들이 보고 감탄하여 읽으며 지제고(知製誥)의 글이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상의 제지를 받고 축출되어 함경도 도사(都事)로 있었으나 곧 순천부사로 임명되었다. 문원공 3대의 비석 세우는 일로 조정에 청하여 흥해 군수로 교체되었고 군수로 있으면서 일을 마무리지었다. 호는 설천(雪川)이고 문집이 있다.

○ 이재간(李在幹)

자는 서옥(瑞玉)이고 호는 만서(晩棲)이며 오의정 이의온의 후손이다. 경전을 널리 읽었고 다른 사람이 그의 문장을 보고 놀랐다. 철종 신유년(186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글을 읽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학문에 탄복했다. 만년에 서재를 지어 만서재(晩棲齋)라 편액을 붙이고 이곳에서 시를 지으며 여생을 마쳤다.

○ 이재경(李在敬)

자는 함중(涵中)이고 무첨당 이의윤의 후손이다. 타고난 품성이 풍위(豊偉)하고 재주가 준수했다. 일찍이 문학으로 칭찬을 받았고 동년인 이연상(李淵祥), 이재건(李在楗)과 더불어 나란히 문예가 뛰어나서 이름이 높으니 사람들이 '1문 3무신(一門 三戊申)'이라 칭찬했다. 호는 삼향사(三香舍)다.

○ 이재교(李在嶠)

자는 기수이고 이덕표의 5세손이다. 풍모와 표상이 고아(高雅)하고 문장이 간결하며 고졸하였다. 고종 갑신년(1884)에 복제(服制) 변경의 명이 내렸을 때 영남 유생들이 대궐에 나아가 소를 올렸는데 이 때 소수(疏首)로 추대되었다. 이에 복제를 복구(復舊)한다는 비답을 듣고 율시 한 수를 지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였다. 호는 내곡(內谷)이고 유집이 있다.

○ 이재급(李在伋)

자는 숙보(叔甫)이고 농재(聾齋) 이언괄(李彦适)의 후손이다. 헌종 을미년(1835)에 사마시에 합격한 후 진취의 뜻을 버렸다. 그리고 주서(朱書)와 성리서(性理書) 등의 글을 공부하니 사림의 중망이 높았다. 무신년(1848)에 온 고을 사림들이 장헌세자(莊獻世子) 전례(典禮)에 관한 일로 대궐에 나아가 글을 올렸을 때 소수(疏首)로 추대되었다. 유고가 있다.

○ 이재령(李在齡)

자는 사우(士愚)이고 농재 이언괄의 후손이며 이종상의 조카이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고 백부인 정헌 이종상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재주와 뜻이 매우 뛰어나고 효우가 독실하며 미묘(微妙)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역학기견(易學記見)』을 지었다. 호는 사암(竢庵)이고 문집이 있다.

○ 이재목(李在穆)

자는 치숙이고 이연상의 아들이다.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 두 번이나 관찰사의 추천을 받았다. 후학들의 훈도에 힘썼고 고을 선비들과 더불어 강학의 규약을 만들었다. 아울러 향음례(鄕飮禮)를 행하여 풍속을 올바로 잡았다. 문인들이 그의 유지를 받들어 학당(學堂)을 설립하였다. 『주역찬의』를 저술하고 호는 경암(敬庵)이고 문집이 있다.

○ 이재무(李在懋)

자는 근보(謹甫)이고 양졸당 이의징의 후손이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특히 문장에 능하니 정헌 이종상이 매우 칭찬하였다. 여러 번 향시에 합격했으나 끝내 급제하지 못하니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양사유고(陽沙遺稿)가 있다.

○ 이재영(李在永)

자는 사직(士直)이고 이악상의 아들이다. 자신은 얼음같이 맑게 다스렸고 풍모는 구슬처럼 깨끗하였다. 학문은 늙을수록 더욱 깊어졌다. 고종 신미년(1871)에 선공감역에 제수되었고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에 올랐다. 호는 내헌(耐軒)이고 문집이 있다.

○ 이재우(李在羽)

자는 의가이니 이정덕의 손자이다. 재주가 뛰어나고 성리서에 전심하여 깊이 연구하니 배우러 오는 제자가 문에 가득하였다. 상변례 등과 유고가 있다.

○ 이재윤(李在淪)

자는 숭백이고 농재 이언괄의 후손이다. 성품이 침중(沈重)하고 널리 경사(經史)를 통달했다. 더욱이 사자서(四子書),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의 여러 책을 연구하였고 아울러 율려(律呂), 성력(星曆)의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술로 『중용관규(中庸管窺)』, 『율력잡식(律曆雜識)』 등 여러 책이 있다. 호는 두곡(杜谷)이다.

○ 이재의(李在懿)

이암(李嚴)의 6세손이고 백부인 정헌 이종상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7 8세 때 일월성위(日月星緯)의 형상을 알았고 잠심 · 연구하여 깊은 이치를 터득하였다. 『대학고본통해(大學古本通解)』, 『중용장구보해(中庸章句補解)』, 『논맹집주차의(論孟集註箚疑)』, 『주역전의보록(周易傳義補錄)』 등의 저술과 유집이 있다.

○ 이재정(李在正)

자는 자중(子中)이고 이원상의 아들이다. 순조 경진년(1820)에 처음 벼슬할 때 6년 간 관직에 있으면서 꿋꿋이 스스로 분수를 지켰고 한 번도 권문(權門)에 발길을 옮기지 않았다. 갑오년(1834)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조세를 감해 주면서 상사(上司)의 뜻을 거슬렸다. 이에 해유(解由)의 글을 올리고 귀향하려 하니 군민들이 길을 막고 못 가게하고 또 관찰사에게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관찰사가 비로소 깨닫고 여러 번 사과했으나 그는 허락하지 않고 귀향하였다. 대신들이 순량(循良)이라고 추천하여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 이재직(李在直)

자는 양중(養仲)이고 이원상의 아들이다. 풍체가 우아하고 중망이 높았고 강고(江皐) 유심춘(柳尋春)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순조 정해년(1827)에 대책(對策)으로 문과 급제하니 나이 23세다. 온 조정이 치하하였고 좌찬에 임명되었다. 보양청(輔養廳)에서 원손을 시독하게 하니 이는 매우 드문 예이다. 경인년(1830)에 익묘(翼廟) 산릉(山陵)으로 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찍 죽으니 벼슬은 교리에 이르렀다.

○ 이재항(李在恒)

자는 성구(聖久)이고 설천 이의활의 8세손이다. 5 6세 때 이미 글을 지을 정도로 총명이 뛰어났다. 성장한 뒤 문장이 걸출한 것으로 명성이 매우 높았다. 호는 제남(霽南)이고 유고가 있다.

○ 이재해(李在海)

자는 내우(來于)이고 수졸당 이의잠의 후손이다. 타고난 품성이 준엄하였다. 문장이 풍부하고 예민하여 수십 년 간 문원(文苑)에 이름이 높았다. 그리고 『지비록(知非錄)』을 지어서 자신의 뜻을 나타냈고 유고가 있다.

○ 이전(李塼)

자는 대방(大方)이고 묵암 이교(李皦)의 아들이다. 본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현종 신축년(1661)에 사미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응하지 않았다. 날마다 글씨와 역사책 읽는 것으로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삼고 여러 아우들과 우애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다. 호는 창주(蒼洲)이고 유고가 있다.

○ 이전인(李全仁)

자는 경부(敬夫)이다. 회재 선생의 아들이고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관서 귀양살이하는 곳에 가서 밤낮으로 밖에서 시봉하며 언행을 기록하여 관서문답록(關西問答錄)을 지었다. 선생이 죽어서 시신을 싣고 운구할 때 빙설(氷雪)이 온 산을 덮어 널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때 어떤 나무꾼이 흙을 매고 길을 닦아서 이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했으나 그는 그대로 널 앞에 부복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상을 마치고 선생이 지은 진수팔규(進修八規)를 나라에 올리니 명종이 크게 감복하여 선생을 복작(復爵)하라고 명하였다. 또 선생 문집을 퇴계 선생에게 왕복하며 보여서 발휘(發揮)한 바가 있었다. 호는 잠계(潛溪)이고 후에 예빈시정에 추증되었으며 장산사에 제향하였다.

○ 이정규(李鼎揆)

자는 공택(公宅)이고 수졸당 이의잠의 주손이다. 영조 무자년(1768)에 문과에 합격하고 주서(注書)에 임명되어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명하여 비망기(備忘記)를 읽게 하고 『명사강목(明史綱目)』과 표피(豹皮) 등을 하사하였다. 성품이 청검(淸儉)하고 올곧았으므로 임금의 부름을 받고 갈 때 행장은 매우 소박하였다. 정조 무술년(1778)에 교리(校理)로서 소를 올려 역신(逆臣)을 성토하였다. 이에 임금이 비답을 내려 말하되 '그대가 청한 말은 매우 적절하고 간절하다. 내가 참으로 용렬하구나' 하고 가납하였다. 직위가 바뀔 때마다 곧 낙향하니 임금이 조회에서 "이 사람은 곧잘 고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였다.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나니 임금이 경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세시(歲時) 때마다 음식을 내려보냈다. 벼슬은 대사헌에 이르렀다. 호는 양한당(養閒堂)이고 유집이 있다.

○ 이정기(李鼎基)

자는 사온(士溫)이고 수졸당 이의잠의 후손이다. 순조 신유년(1801)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기량이 넓고 두터우며 오로지 학업에 뜻을 두었다. 후학을 장려하고 지도하면서 한 번도 학문으로써 자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심학(心學)이 매우 깊다고 일컬었다. 호는 창려(蒼廬)이고 유집이 있다.

○ 이정덕(李鼎德)

자는 상여(象汝)이고 이덕록의 증손이다. 어려서부터 기국(器局)이 뛰어나고 총명하며 힘써 글을 외웠다. 정조 계묘년(1783)에 문과 급제하고 세자시강원과 홍문관에서 벼슬하였다. 일찍이 경연(經筵)에 들어가 모시니 임금이 매우 칭상(稱賞)하면서 구마(廐馬) 및 『규장운(奎章韻)』,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향례합편(鄕禮合篇)』, 『대학유의(大學類義)』 등의 책을 하사하였다. 임금에게 글을 올려 성학(聖學)에 힘쓰게 하였고 외직으로 나가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 벼슬은 대사간에 이르렀고 호는 창애(蒼厓)다. 생원시에 합격한 아들 이기상(李耆祥)은 문장과 행실로 역시 중망을 받았다.

○ 이정병(李鼎秉)

자는 이집(而執)이고 수졸당 이의잠의 6세손이다. 정조 병오년(1786)에 문과 급제하고 정묘년(1807)에 교리에 임명되었다. 사간(司諫)이 되어서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으로써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그리고 매양 경연에서 사실을 직설(直說)하니 순조가 어필로 '바탕이 곧고 숨김이 없음은 마치 쇠막대로 담장을 찌르는 것과 같다' 라고 쓰니 당시 사람들은 그를 '쇠막대 학사[鐵杖學士]' 라고 일컬었다. 신미년(1811)에 관서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 숙직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혀두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니 임금이 염탐하여 알고 "참으로 사직(社稷)의 신하다" 라고 하고 옥등(玉燈)을 하사했다. 왕세손의 보덕(輔德)이 되어 엄하게 강(講)하였고 벼슬은 한성부 우윤(右尹)에 이르렀다. 호는 금파(琴坡)이고 유집이 있다.

○ 이정엄(李鼎儼)

자는 망도(望道)이고 이덕록의 증손이다. 정조 을묘년(1795)에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주서(朱書), 강목(綱目) 등의 책을 쌓아두고 아침저녁으로 깊이 연구하였다. 널리 가숙(家塾)을 열어 많은 후신을 장려하였다. 오부리(五夫里)의 옛 제도에 의하여 사창(社倉)을 창설하고 그 조목과 요건을 강구하여 실행했는데 그 효험이 있었다. 호는 남려(南廬)이고 유집이 있다.

○ 이정익(李鼎翊)

자는 택이(宅而)이고 설천 이의활의 6세손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문장이 넉넉하였다. 정조 경자년(1780)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항상 하도(河圖), 낙서(洛書), 복희씨(伏羲氏) 8괘를 직접 그려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를 완미하며 지극한 이치를 탐구하였다. 임자년(1792)에 경향 선비들이 모여 의리소(義理疏)를 주창할 때 소수(疏首)로 추대했으나 병환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조참의에 증직되고 호는 설남(雪南)이며 유집이 있다.

○ 이정익(李鼎益)

자는 중겸(仲謙)이고 수졸당 이의징의 후손이다. 정조 갑자년(1804)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본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어머니가 80세를 넘었는데 평소 담증(痰症)을 앓고 있었다. 눕거나 일어날 때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였으므로 그는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측간의 변기를 깨끗이 씻어두고 다른 사람을 대신 시키지 않으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의 효성을 칭찬하였다. 문을 닫고 책을 읽고 더욱이 『주서절요(朱書節要)』, 『심경(心經)』 등의 책을 깊이 연구하였다. 구암서사(龜巖書社)를 짓고 날마다 후학을 가르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경주 부윤 이덕현(李德鉉)이 그를 불러서 함께 상의하여 향약(鄕約)을 정했다. 호는 감화(甘華)이고 문집이 있다.

○ 이정인(李鼎寅)

자는 공량(公亮)이고 이헌국의 아들이다. 풍의가 늠연하며 자신을 간엄(簡嚴)하게 지켰다. 문학과 올바른 행실로 한 고을의 귀감이 되었다. 만년에 섬계(剡溪)의 뜻을 갖고 부미(浮靡)한 문체는 일절 끊었다. 편액을 사이헌(四而軒)이라 붙이니 구암(懼庵) 이수인(李樹仁)이 '태평의 연월(煙月)이며 성대(聖代)의 일면(逸民)이다. 거듭 부지런히 학문에 탐닉하고 고요한 속에서 본체를 찾는다' 라고 기문을 지었다.

○ 이정제(李鼎濟)

자는 성응(聖應)이고 이헌급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영오한 재주가 비범하였고 문예가 특히 뛰어났다. 정(程), 주(朱)의 여러 책과 백가구류(百家九流)에서 황극내편(皇極內篇) 및 주역의 괘상(卦象)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선비들에게 추앙을 받았고 호는 심와(深窩)이며 문집이 있다.

○ 이정훈(李鼎勳)

자는 대집(大集)이고 설천 이의활의 6세손이다. 영조 병자년(1756)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뜻한 바를 구하며 벼슬에 나아갈 생각은 없었다. 번암 채제공이 그의 학문과 행지를 나라에 알려 벼슬을 내리도록 했으나 이미 죽은 뒤였으니 당시 선비들은 애석하게 여겼다. 호는 정와(靜窩)이고 유고가 있다.

○ 이종경(李宗慶)

자는 방언(邦彦)이고 호는 의가재(宜家齋)이며 이도겸의 현손이다. 종숙인 영모재(永慕齋) 이양호(李養浩)에게 글을 배웠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읜 것을 통한으로 여기고 매달 삭망 때면 성묘하고 새벽마다 사당에 배알했다. 분발하여 힘써 배우니 고을 선비들이 그를 높이 받들었다. 유고가 있다.

○ 이종상(李鍾祥)

자는 숙여(淑汝)이고 농재 이언괄의 후손이다. 매우 총명하여 10세 때 「천지명(天地銘)」과 「공자찬(孔子贊)」을 지었다. 순조 신묘년(183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헌종 병신년(1836)에 추천으로 참봉에 제수되었다. 당시 여러 고을에서 사학(邪學)과 민란(民亂)이 있었고 개령(開寧) 지역이 특히 심했다. 조정에서 논의하여 관리를 특별히 뽑아 임명하였는데 마침내 그가 개령현감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바로 임지에 가서 글을 지어 관리와 백성을 일깨우고 또 「금유사학문(禁諭邪學文)」을 지어서 유포하니 온 고을이 안정되었다. 창고를 열어서 진휼하고 칠서(七書)를 간행하여 글 배우는 사람의 강습 자료로 삼게 하였다. 병인년(1866) 9월에 경주진 소모사(召募使)에 임명되었고 도헌(都憲) 겸 제주(祭酒)에 증직되었다. 호는 정헌(定軒)이고 문집이 있다.

○ 이종윤(李從允)

문효공(文孝公) 이천의 5세손이다. 내남 월남리(月南里)에 살았고 문과 급제하여 양사(兩司)와 시강원(侍講院) 보덕(輔德)을 역임한 뒤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부임했다가 관아에서 죽었다. 본성이 청검(淸儉)하여 수놓은 겉옷은 입지 않았고 옛 사람의 풍모가 있었다. 청백(淸白)으로 제주도 명환(名宦)에 올랐고 호는 송와(松窩)이다.

○ 이준(李浚)

자는 청원(淸源)이고 잠계 이전인의 큰아들이다. 여러 명현 문하에 출입하여 회재의 문집 서문을 받아 출간하여 세상에 반포하였다. 향의를 수렴하여 옥산서원을 창립하고 많은 토지를 헌납하여 영구히 봉수(奉守)의 도(道)를 닦았다. 선조 계미년(1593) 왜변 때 영변에 미곡(米穀)을 헌납하여 군사들의 식량을 도운 공으로 관직은 첨중추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화왕산 회맹에 동참하여 수어(守禦)에 대비하였고 무과에 합격했다. 여러 고을을 맡아 다스리며 선정을 남겼고 통정대부에 올랐다.

○ 이지대(李之帶)

이선(李瑄)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한성 판윤에 이르렀고 점필재 김종직과 망년(忘年)의 사귐을 맺었다. 단종 때 집현전 여러 학자들이 모두 화를 입으니 그도 마침내 숨어살기로 뜻을 굳혔다. 호는 죽은(竹隱)이고 구량리(九良里)에 직접 심은 은행나무가 있으며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 이지상(李趾祥)

자는 원미(元美)이고 이민중의 증손이다. 기상이 뇌락하고 학문이 매우 깊었다. 한 번 향시에 합격하고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상국(相國) 이태영(李泰永)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어정오경백선(御定五經百選)』을 간인(刊印)할 때 문학과 덕망이 뛰어난 선비를 선발하여 교감을 맡겼는데 그가 으뜸으로 뽑혔다. 호는 구와(懼窩)다.

○ 이지한(李之翰)

자는 내헌(乃憲)이고 지헌 이철명의 후손이다. 타고난 자질이 담념(淡恬)하고 문장이 풍부하고 화려하였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오로지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의 책을 연구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천목(薦目)에 올랐고 호는 행정(杏亭)이며 유집이 있다.

○ 이진상(李晉祥)

이정엄(李鼎儼)의 종자(從子)다. 계모를 모실 때 효성을 다하였고 아버지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하였다. 순조 갑오년(1834)에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양산 군수 및 동부승지에 이르렀다.

○ 이진인(李晉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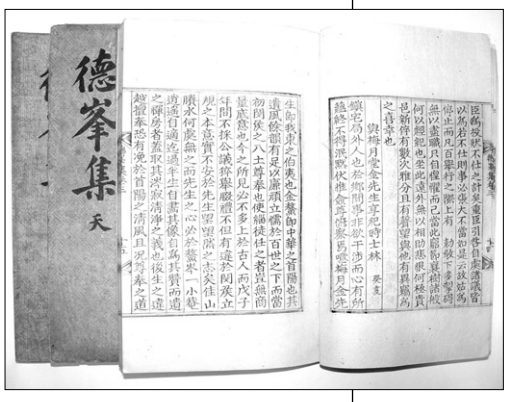
자는 치관(致寬)이고 본관은 영양이며 쌍계 이영근의 후손이다. 재질이 영민하여 12세 때 『논어(論語)』로 강관(講官)에 참여하여 대응(對應)을 정확히 하자 부윤이 칭찬하며 상을 내렸다. 만년에 무릉산(武陵山) 아래 영락정(詠樂亭)을 짓고 아우 이진일(李晉一)과 함께 글씨와 경사(經史)로 즐겼다. 수직으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호는 만포(晩圃)이며 유고가 있다.

○ 이진일(李晉一)

자는 치순(致純)이고 이진인의 아우다. 재주와 슬기가 총민하고 오로지 독서에 힘썼다. 증자(曾子)의 삼성(三省)을 일생 동안 마음에 새겼고 일찍이 자경잠(自警箴)을 지어 그 의미를 되새겼다. 고종 을사년(1905)에 경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형과 우애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다. 만년에 서재를 일으켜 그 편액을 식호재(式好齋)라 하였고 유고가 있다.

○ 이진택(李鎭宅)

자는 양중(養重)이고 문충공 이제현의 후손이다. 정조 경자년(1780)에 문과에 급제하고 임자년(1792)에 치직(治職)으로써 임금의 부름을 받았으며 사노(寺奴)를 혁파하도록 소를 올렸다. 계축년(1793)에 장헌세자 전례(典禮)의 일로써 글을 올렸다. 개성 경력(經歷)으로 있었을 때 북사(北使)가 청나라 부고(訃告)를 전하러 왔는데 그가 지나는 여러 고을에는 전례에 의해 음악과 향연을 베풀었다. 그러나 이진택은 이러한 일을 일체 못하게 하니 북사가 크게 성을 내며 힐책하였다. 이에 그는 경문(經文)의 말을 인용하여 황제가 죽으면 일체의 오락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설득시키니 북사가 크게 부끄러워하며 복종하였다. 맑고 간소하게 정치를 하니 아전과 백성들이 동비(銅碑)를 세워 덕을 기렸다. 후에 앞서 상소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을 받고 삼수(三水)에 귀양갔다.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뒤 다시는 벼슬할 뜻을 품지 않고 거문고와 독서로 즐거움을 삼았다. 고종 경자년(1900)에 장조(莊祖)의 휘호(徽號)를 올릴 때 특별히 비서원승(秘書院丞)에 증직되었고 호는 덕봉(德峯)이며 문집이 있다.



덕봉집

○ 이채(李埰)

자는 석오(錫吾)이고 양졸당 이의징(李宜澄)의 손자다. 사서(沙西) 전식(全湜)이 경주 부윤으로 와서 하과(夏課)를 베풀고 선비를 뽑았는데 그의 재주를 아껴 손서를 삼았다. 숙종 병진년(1676)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빙고 별검(氷庫別檢)에 임명되었다. 본래 성품이 평탄하면서 명백하고 겸퇴하며 자신을 다스렸다. 당시에 학문과 올바른 행실 및 유일(遺逸)로 여러 번 천거되었으나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현종 을사년(1665)에 본 고을에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윤이 부사(府使)로 강등되었다. 숙종 을묘년(1675)에 소를 올려 다시 복호(復號)의 윤허를 받았고 기유년(1669)에 고을 선비들과 더불어 『동경지(東京誌)』를 편찬 간행하였다. 호는 몽암(蒙庵)이고 문집이 있다.

○ 이철명(李哲明)

자는 지지(知之)이고 본관은 여강(驪江)이다. 홍치 을묘년(1495)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갑자년(1504)에 문과 급제하였다. 중종 병인년(1506)에 홍문관 박사에 오르고 벼슬은 예종정랑에 이르렀다. 자질이 뛰어났고 학식이 탁월하였으며 일찍이 의리(義理)의 나눔을 밝혔다. 기묘사화 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등 여러 어진 사람이 한꺼번에 화를 입었다. 그는 벼슬에 나아갈 뜻을 버리고 곧 『귀향부(歸鄕賦)』를 지었다. 그리고 결연히 향리에 돌아와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겼다. 호는 지헌(止軒)이고 문집이 있다.

○ 이태길(李泰吉)

자는 도장(道長)이고 송와 이종윤의 후손이다. 자질과 품성이 간묵(簡默)하고 어릴 때부터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다. 평소 효우가 지극하고 후진 교육에 힘썼다. 진사 김건준(金建準)이 그를 위하여 『목가산기(木假山記)』를 지었다.

○ 이태상(李泰祥)

자는 형원이고 이관상(李觀祥)의 아우다. 순조 계유년(180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세 번이나 관찰사의 추천을 받았다. 성품이 중후하고 조용하며 재주가 뛰어나고 학문이 깊어서 사람들이 모두 그를 높였다. 일찍이 서재를 석현(石峴)에 짓고 못을 파고 꽃을 심은 뒤 동곡(東谷)이라 편액을 붙이고 후생을 훈도하였다. 유고가 있다.

○ 이한경(李漢慶)

자는 홍서(洪瑞)이고 호는 농헌(聾軒)이며 이도겸의 현손이다. 종숙인 계은(溪隱) 이양복에게 글을 배워 학문을 일찍 이루었고 강론과 이치가 정상(精詳)하였다. 아버지 명으로 과거에 응하여 한 번 향시에 합격했으나 아버지 사후 과거에 다시는 응하지 않고 종형 이회경과 더불어 경사를 토론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일찍이 『의례동고(疑禮通攷)』 2책을 지었고 『농기(聾記)』를 지어 서재를 농헌(聾軒)이라 했다.

○ 이항길(李恒吉)

자는 형구(亨久)이고 호는 경당(敬堂)이며 송와 이종윤의 후손이다. 일찍이 문학으로 이름을 떨쳤고 경전을 널리 연구하였다. 송시영(宋時榮), 이유태(李惟泰) 등의 여러 명유(名儒)들과 학문을 강론하였다. 효행으로 여러 번 향천(鄕薦)에 올랐다. 현종 때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증직되었다.

○ 이해상(李海祥)

자는 노백(魯伯)이고 이정규의 아들이다. 순조 갑오년(1834)에 사마시 양시(兩試)에 합격하니 임금이 특명을 내렸다. 타고난 성품이 강의(剛毅)하고 행실이 방정(方正)하였다. 문중 규약을 만들고 향속(鄕俗)을 바로잡으려 힘썼으며 문학으로 여러 번 천목(薦目)에 올랐다. 유집이 있다.

○ 이헌국(李憲國)

자는 만보(萬甫)이고 이민중(李敏中)의 조카다. 태어나면서부터 재주가 뛰어났고 행실이 믿음직하고 의용이 근엄하여 당대 사표가 되었다.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과 더불어 도의의 사귐을 맺었다. 호는 금와(禁窩)이고 유집이 있다.

○ 이헌급(李憲伋)

자는 숙보(叔甫)이고 영조 기묘년(1759)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덕망이 넓고 두터워 고을 선비들이 모두 그를 표준(標準)으로 삼았다. 경주 부윤이 일찍이 그를 만나보고 유일(遺逸)로 추천하려 했으나 갑자기 죽어 당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 이헌락(李憲洛)

자는 경순(景淳)이고 농재 이언괄(李彦适)의 후손이며 타고난 재주가 총명하였

다. 영조 갑자년(1744)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천거되어 강릉(康陵) 참봉을 제수받았다. 정조가 섭정할 때 이조(吏曹)에 명하여 훌륭한 선비를 뽑아 계방(桂坊)에 충원하도록 하자 첫째로 선발되어 위솔(衛率)에 임명되었다. 여러 고을을 맡아 다스렸고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약산(藥山) 남쪽에 서재를 짓고 천석(泉石)을 스스로 즐겼다. 수직으로 첨중추가 되었다. 호는 약남(藥南)이고 문집이 있다.

○ 이헌묵(李憲默)

자는 백용(伯容)이고 이의잠(李宜潛)의 현손이다. 영조 경오년(1750)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임오년(1762)에 사간으로 소명을 받아 갔을 때 온 나라가 가뭄으로 고생하였다. 그 때 휼민책(恤民策)의 글을 지어 올렸다. 서장관으로 연경(燕京)에 갔을 때 공무를 청렴과 근신으로 받들었고 사사로운 부탁은 간여하지 않았다. 돌아올 때 의주 부윤이 관례에 따라 행장을 조사하니 다만 책과 의복 및 서양 거문고 한 개가 있을 뿐이었다. 여러 번 춘방(春坊)에 제수되었고 벼슬은 참판에 이르렀다. 늙어서 고향으로 내려와 안계정사(安溪精舍)를 지으니 임금이 관찰사에게 명하여 연이어 세찬(歲饌)을 보냈고 죽으니 관리를 보내 제를 올렸다.

○ 이헌속(李憲涑)

자는 경온(景溫)이고 호는 계옹(溪翁)이며 이신중의 아들이다. 기질이 강의(剛毅)하고 총명하였다. 경(經), 사(史), 자(子), 집(集)에 두루 통달하지 아니한 바 없었고 문장으로 명성이 높았다. 아울러 과거 공부를 하여 두 번이나 향시에 합격했다. 만년에 기계현 덕동(德洞)에 살터를 정하고 자연에 묻혀 스스로 즐겼다. 유고가 있다.

○ 이헌순(李憲淳)

자는 만식(萬式)이고 이강의 증손이다. 자품이 두터웠고 문학이 풍부하였다. 산수간에 은거하여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를 직접 심어두고 작은 정자를 지어 사우정(四友亭)이라 편액하였다. 유집이 있다.

○ 이헌열(李憲烈)

자는 중찬(中贊)이고 호는 괴와(槐窩)이며 이덕록의 손자다. 문학과 덕망으로 추천되었으나 나라의 답을 받지 못하니 당시 선비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 이헌유(李憲儒)

자는 경진(景眞)이고 이범중의 아들이다. 영조 계미년(1763)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혜랑(惠郎)을 역임했으며 벼슬은 부사(府使)에 이르렀다. 임자년(1792)에 영남 선비들이 만인소(萬人疏)를 올려서 임오년(1762)의 대의(大義)를 신원하려 했을 때 시종 소수(疏首)로서 논의했다. 일찍이 대산 이상정 문하에서 글을 배우면서 여러 번 장려를 입었다. 호는 순암(順庵)이다.

○ 이헌하(李憲河)

자는 도남(道南)이고 이전의 증손이다. 널리 배웠고 행실이 올바르며 문장이 풍부하고 민첩하였다. 또 시에 능하여 성률(聲律)과 격조가 모두 높고 청아하였다. 호는 만사(晩沙)이고 유고가 있다.

○ 이홍각(李弘慤)

자는 여성(汝誠)이고 호계(虎溪) 이을규(李乙奎)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을 잘 지었다. 선조 무진년(1568)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임란 때 곽재우를 따라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였다. 이때 재상이 그의 재주를 아껴 불러서 두 번이나 집경전 참봉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경릉(敬陵)과 제용감(濟用監) 참봉을 지내면서 모두 훌륭히 직무를 수행하였다. 봉사(奉事)에 올랐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니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각 한 질을 내사받았다. 만년에 현도 찰방(峴道 察訪)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호는 동강(東岡)이고 유고가 있다.

○ 이홍이(李弘离)

자는 맹유(孟猷)이고 호는 용와(慵窩)이며 두곡(杜谷) 이습의 후손이다. 일찍부터 문장이 뛰어났고 더욱이 성리(性理)를 깊이 공부하였다. 지은 글은 『천인보전(天人寶詮)』, 『훈춘록(薰春錄)』, 『가례지남(家禮指南)』 등이 있다. 일찍이 훈수 정만양과 지수 정규양 형제를 스승으로 섬겨 깊은 장려를 받았고 당시 영남 8문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하니 나이가 60여 세였다. 문집이 있다.

○ 이화구(李華久)

자는 성삼(聖三)이고 이재경의 손자다. 문사(文詞)가 섬민(贍敏)하고 기상이 늠

연하였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경전을 연구하였다. 만년에 나라에서 삼품(三品)의 벼슬이 내리려 하자 그는 끝내 사양하였다. 그가 죽음에 이르러 유명(遺命)으로 이르되 "내가 죽은 후에 '처사(處士)' 라고 명정에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설초유고(雪樵遺稿)』가 있다.

○ 이환(李皖)

자는 문원(文遠)이고 설천(雪川) 이의활(李宜活)의 아들이다. 여헌 장현광 문하에서 글을 배웠고 계해년(1623)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학문과 올바른 행실로 천거되어 창릉(昌陵) 참봉에 제수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또 헌릉(獻陵) 참봉에 제수되었다. 옥산서원 유생들이 지은 제문(祭文)에 '구슬은 광채를 숨겼지만 난초는 향기를 가리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

○ 이회경(李晦慶)

자는 서구(敍九)이고 호는 학남(鶴南)이며 이도겸(李道謙)의 현손이다. 타고난 품성이 정수(精粹)하고 학문에 독실하였다. 저서는 『조문록(朝聞錄)』, 『이학총도(理學總圖)』, 『홍범도설(洪範圖說)』, 『천화도설(天花圖說)』 등이 있다. 일찍이 호곡(壺谷) 유범휴(柳範休)를 스승으로 섬기며 글을 배웠다. 부윤 이공로(李公潞)가 추천하여 향교의 훈도가 되었다. 유생을 강할 때 항상 논리가 정확하였고 실학(實學)에 힘쓰도록 하였다. 죽으니 사림에서 예를 다하여 장사를 치렀고 가마(加麻)한 사람이 60여 명에 이르렀다. 문집이 있다.

○ 이후겸(李厚謙)

자는 자실이고 이말동의 후손이다.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고 문장으로 당대 사람의 추앙을 받았다. 또한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으나 불행히 일찍 죽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 이희경(李羲慶)

호는 만회헌(晩悔軒)이고 이양복(李養復)의 아들이다. 본성이 총민하여 겨우 말을 했을 때 『주역』의 64괘를 불과 몇 번 읽고 외웠다. 일찍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뜻한 바가 깊고 문장이 전아했다. 이(理)와 성(性)에 대한 저술이 있고 유고가 있다.

○ 이희구(李熹久)

몽암 이채의 후손이다. 고종 갑자년(1864)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성균관에 있을 때 권신(權臣)의 사주를 받은 임금 측근의 한 신하가 글을 올려 왕실을 이간하고 선현(先賢)을 무고하며 헐뜯었다. 이에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장차 권당(捲堂)하고 대궐에 나아가 소를 올리려 할 때 언두(言頭)로 추대되었다. 조정의 의견이 흉흉하여 화란(禍亂)의 기미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이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소조(疏條)를 올려 옳고 그른 것을 진설했으나 마침내 임금의 뜻을 거슬러 강진(康津)에 유배되었다. 도성 인사들이 소문을 듣고 그의 의(義)에 감동하여 다투어 글을 지어 전송하였다.

○ 임만제(任萬濟)

자는 지국(持國)이고 호는 무은(霧隱)이다. 재질이 총민하고 경사(經史)를 널리 읽었으며 『근사록(近思錄)』, 『예기(禮記)』 등에 잠심하여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선비들의 중망을 받았고 유고가 있다.

○ 임목[任㮨]

자는 질보(質寶)이고 호는 가암(可庵)이며 임만제의 아들이다. 순조 기사년(1809)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과거 공부를 버리고 은거하며 덕을 닦았다. 선대(先代)의 뜻을 계승하고 후학 지도를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여러 사람의 중망이 두터웠다.

○ 임이량(任以良)

자는 필보(弼甫)이고 호는 둔수(遯叟)이며 임이현의 아우다. 문학이 일찍이 드러났고 지조가 맑고 높았다. 광해군 때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낙향하였다. 그리고 형 임이현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며 여생을 마쳤다.

○ 임이현(任以賢)

자는 철보(哲甫) 임사유(任四維)의 아들이고 호는 치곡(鴟谷)이다. 광해군 정사년(1617)에 예시(禮試)에 달려갔다. 이때 북인(北人)들이 영남 선비를 꾀여 모후(母后)를 폐하는 상소를 진설하면서 참소(參疏)하도록 회유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과거에 응하지 않고 귀향하여 한강 정구를 만나 뵈니 한강이 크게 칭찬하였다. 서궁이 유폐되자 대군(大君)도 해를 입었다. 그는 아우 임이량(任以良)과

더불어 서쪽으로 바라보며 배곡(拜哭)하고 곧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두문불출하며 학문을 강하였다. 유고가 있다.

○ 임인중(任仁重)

자는 계원(季遠)이고 임이현(任以賢)의 손자이며 호는 별봉(鱉峯)이다. 숙종 신유년(168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문학으로써 명망이 높았다. 청헌(靑軒) 유천명(柳天命)과 도의의 사귐을 맺고 명리(名利)를 찾지 않았으며 후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고 선현을 높이 받들었다. 동강서원(東江書院)과 용산서원(龍山書院)을 창건할 때 정성을 다하여 규모와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조부가 세운 정자인 이요당(二樂堂)을 증축하고 그 곳에서 자적하며 여생을 보냈다. 유고가 있다.

○ 임일빈(任一鑌)

자는 군휴(君休)이고 호는 피촌(避村)이며 임인중의 손자다. 영조 계사년(1773)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뜻한 바가 깊어서 힘써 배웠다. 유집이 있다.

○ 임지중(任之重)

임이량(任以良)의 손자다. 힘써 글을 배워 문장에 능했으며 맑고 검소하며 스스로 분수를 지켰다. 산림에 묻혀 자적하며 후생을 지도하니 고을과 이웃에서 그를 높이 추대하였다. 유고가 있다.

○ 임화세(任華世)

자는 실혜(實兮)이고 임인중(任仁重)의 아들이다. 숙종 기묘년(1699)에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예조정랑에 이르렀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고 기량이 단장(端莊)하였다. 겨우 8세에 입학하여 날마다 수천 어휘를 외고 경전과 역사책을 널리 읽었을 뿐 아니라 문장이 정아(精雅)하였다. 관료 생활을 할 때 청렴 정직하여 당시 재상에게 미움을 받았다. 마침내 뜻을 굳히고 고향으로 돌아와 몽희당(夢羲堂)을 창건하였다. 사림에서 사우(祠宇)를 세워 향사를 지냈고 호는 시암(是庵)이며 문집이 있다.

○ 장일민(蔣逸民)

자는 선여이고 장계현의 후손이다. 문장과 필법이 뛰어나 당세의 추앙을 받았

다. 경주 부윤 이상도가 여러 번 불렀으나 만나지 않고 뜻을 굳게 하며 일생을 보냈다. 유집이 있다.

○ 정관검(鄭觀儉)

자는 경용(景容)이고 호는 학파(鶴坡)이며 정욱의 증손이다. 일찍이 『중용』을 읽다가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독실히 쌓았다. 또 옛 사람의 서법(書法)을 매우 좋아하여 그들의 진수를 터득하였다. 따라서 원근의 제액(題額), 금석문(金石文), 전각(傳刻) 등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문집이 있다.

○ 정광리(鄭光履)

자는 사겸(士謙)이고 문충공의 후손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준수하며 분발심을 일으켜 학문에 힘썼고 심지어 책을 가지고 가서 밭을 갈며 읽는 등 하여 문장이 크게 나아갔다. 영조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늙어서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서사(書社)를 짓고 백형 정광복(鄭光復)과 더불어 서로 화답하여 시를 읊었다. 부윤 홍양호가 써서 준 노일당(魯一堂)이란 편액을 서사에 달았다. 그리고 문생을 모아 강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어려운 데를 묻게 하니 이후 온 마을에는 글 읽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조심수구(操心守口), 예의염치(禮義廉恥) 등 잠언을 지었다. 호는 지로옹(篪魯翁)이고 유집이 있다.

○ 정광복(鄭光復)

자는 사심(士心)이고 호는 훈로(塤魯)이며 문충공의 후손이다. 성품이 총영하여 일찍이 문행(文行)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영조 때 응제시(應製試)에서 특별히 은상(恩賞)을 입었다. 아우 정광리(鄭光履)와 더불어 경서를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쳤다. 정헌 이종상이 그의 유집 서문을 쓰면서 '동백산인(桐柏山人)'이라 일컬었다.

○ 정극후(鄭克後)

자는 효익(孝翼)이고 안강현 남쪽 곤계산(崑季山) 아래에 살면서 자호를 쌍봉노인(雙峯老人)이라 했다. 여헌 장현광(張顯光) 문하에 나아가 글을 배우니 '월성(月城)에 사람이 있다' 하며 여헌이 장려하였다. 이로써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드러났고 여러 번 과거에 응했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만년에 오로지 문장을 익히며 저술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고 『서악지(西岳誌)』와 『역년통고(歷年通攷)』『문묘향

사지(文廟享祀志)』를 지어 모두 간행하였다. 높은 학문과 올바른 행실로 천거되어 대군사부(大君師傅)가 되었다. 문집이 있다.

○ 정동필(鄭東弼)

자는 계상(季常)이고 호는 남와(南窩)이며 정욱의 아들이다. 영조 계해년(1743)에 사미시에 합격했다. 어려서부터 효성스럽고 삼가고 단아하며 자세하였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다. 재주가 통민(通敏)하고 문장이 풍부하였으며 필법이 굳세고 곧았다. 번암 채제공이 그를 한 번 만나고 "문학(文學)이 명조(名祖)의 자손됨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감탄하였다. 유집이 있다.

○ 정사물(鄭四勿)

자는 역안(亦顔)이고 호는 곤봉(昆峯)이다. 만력 계유년(1573)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일찍이 문학으로 이름이 드러났고 아우 쌍봉(雙峯) 정극후(鄭克後)와 같이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문하에서 글을 배워 칭찬을 받으며 깊은 이치를 터득한 바가 있었다. 『도통지(道統志)』를 저술하였고 유집 2권이 있다.

○ 정석호(鄭錫祜)

자는 하수(賀受)이고 호는 자봉(紫峯)이며 정욱의 후손이다. 풍채가 준정하고 문장이 뛰어났다. 오로지 학문에 힘쓰며 후진을 가르쳤다. 그의 여섯 형제가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상을 당하여 예를 다했다. 묘가 10리쯤 떨어져 있었으나 삭망 때마다 나아가서 전배(奠拜)하고 비바람이 심해도 이를 계속했다. 문집이 있다.

○ 정연(鄭沇)

자는 성원(聖源) 호는 사하당(四何堂)이고 쌍봉 정극후의 증손자다. 타고난 품성이 뛰어났고 갈암 이현일(李玄逸)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을 통달하였고 또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 필력이 경건(勁健)하고 조자앙(趙子昂)의 체를 모방하여 「적벽부(赤壁賦)」를 쓴 유묵이 있는데 이를 출간하였다. 병진년에 분연히 무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형조좌랑에 이르렀다. 어버이가 늙음으로써 외직을 자청하여 함안 군수로 나가 훌륭한 치적을 남겼다. 문집이 있다.

○ 정엽(鄭熀)

자는 여장(汝章)이고 호는 식호와(式好窩)이며 쌍봉 정극후의 5세손이다. 기국이 높고 정연하며 아우 정욱과 더불어 우애가 독실하였다. 오로지 예서(禮書)와 관(冠), 혼(婚), 상(喪), 제(祭)의 의문(疑文)이나 변례(變禮)를 깊이 공부하여 널리 통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대산 이상정이 그의 묘갈명에 '하계동(霞溪洞)에 예를 좋아하는 군자가 있었다.' 라고 지었다. 수직으로 부호군에 제수되고 유집이 있다.

○ 정욱(鄭煜)

자는 여휘(汝輝)이고 정엽의 아우다. 고금을 두루 통달하고 재주와 기예가 뛰어났다. 항상 버드나무와 국화를 심어두고 한가한 정취를 누렸다. 대산 이상정이 그의 묘갈명에서 '준수한 재주와 빼어난 일면(逸民)으로 질(質)과 문(文)이 빛났도다' 라고 지었다. 호는 매헌(梅軒)이고 문집이 있다.

○ 정취(鄭鏏)

자는 재보(載甫)이고 쌍봉 정극후의 아들이다. 인조 갑자년(1624)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효종 때 효행으로 추천되어 헌릉 참봉이 되었다. 경전을 매우 좋아하였고 맑고 검소하며 삼가 법도를 지키니 사림의 높은 중망을 받았다. 갈암 이현일이 그의 행장을 지으니 '그 모습대로 보고 그 말대로 들으니 완연히 군자다운 사람이다.' 라고 했다. 유집이 있다.

○ 정충필(鄭忠弼)

자는 백경(伯敬)이고 매헌(梅軒) 정욱(鄭煜)의 아들이다. 가학(家學)을 이어받아서 성명이기(性命理氣)의 원리와 도서상수(圖書象數)의 오묘함을 깊이 탐구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또한 글씨를 잘 써서 6세 때 이미 자획이 본연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근에서 금석문의 제액(題額)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고 십장부유묵(十丈夫遺墨)이 있다.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하였다. 호는 노우(魯宇)이고 문집이 있다.

○ 정호(鄭壕)

쌍봉 정극후의 큰아들이다. 문예(文藝)에 능하고 예서를 잘 썼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광해군 무오년(1618)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당시 조정은 날로 문란하였다. 마침내 벼슬하려는 뜻을 버리고 별장을 낙원리(樂園里)에 지어 광천

별업(廣川別業)이라 하였다. 이곳에서 시를 읊으며 마음이 쇄락하여 한 점의 속된 더러움이 없었다. 풍류와 문장으로 고을에서 중망을 받았다. 호는 동호(東湖)이고 유집이 있다.

○ 정효상(鄭孝常)

갑술년 문과에 장원으로 뽑혔다. 익대좌리공신(翊戴佐理功臣)에 참록되었고 계림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제안(齊安)이다.

○ 정희(鄭熹)

자는 용회(用晦)이고 곤봉(昆峯) 정사물(鄭四勿)의 후손이다. 영조 병자년(1756)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타고난 자질이 민오(敏悟)하고 기품이 늠연하였다. 글을 지을 때 꾸미고 다듬지 않았지만 스스로 일가의 체(體)를 이루었다.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으나 세속에 힘쓰며 스스로 얽매이지 않았다. 자연에 묻혀 정신을 함양하고 시를 읊으며 성정(性情)을 나타내니 원근에서 배움에 뜻을 둔 선비들이 많이 모였다. 호는 몽암(蒙庵)이고 문집이 있다.

○ 조한보(曺漢輔)

호는 망기당(忘機堂)이고 단종 때 부제학을 지낸 충정공(忠貞公) 정재(靜齋) 조상치(曺尙治)의 손자다. 성종 때 사마시에 급제하고 옛 글을 널리 배우며 문학(文學)을 일삼았다. 일찍이 경주 호계에 은거하며 손숙돈과 더불어 「무극태극설(無極太極說)」을 지으니 회재 선생이 편지를 보내 논변하였고 충재(沖齋) 권벌(權橃)에게 글을 보내 일본만수(一本萬殊)의 이치를 논했다. 동규(洞規)를 만들어 여씨향약을 본받았고 「술선당」을 지었다.

○ 조홍도(曺弘度)

망기당(忘機堂) 조한보(曺漢輔)의 아들이고 문학에 훌륭한 명망이 있었다. 그는 사직으로 있다가 김안로가 집권하는 것으로 보고 물러나니 회재 선생이 시를 주며 이르되 '시를 주고받으니 수사(洙泗)가 있는데 도(道)의 원류를 전하게 되어 기쁘구나' 라고 하였다. 호는 용수(容叟)이다.

○ 최계종(崔繼宗)

자는 경승(慶承)이고 잠와 최진립(崔震立)의 아우이다. 임란 때 화왕산성회맹에

참여하였다. 광해군 때 남포현감(藍浦 縣監)으로 있었는데 마침 서궁(西宮)이 유폐된 사건이 발생하자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때 재상이 누명을 쓰고 죽음만 면한 뒤 북도 육군에 보충되고 길을 떠나라고 독촉받았다. 이에 그는 한음 이덕형(李德馨)을 평소 잘 알고 있어서 힘써 그를 구제하도록 청하여 석방케 하였다. 서재를 석호(石湖) 가에 짓고 여생을 보냈다. 호는 육의당(六宜堂)이다.

○ 최남도(崔南圖)

자는 운정이고 최계종의 후손이다. 천성이 총영하여 글을 한 번 읽으면 잊지 않고 외웠다. 젊어서부터 문사가 풍부하였고 평생 잡담이나 게으른 용모를 하지 않았다. 화계 유의건이 그를 스승의 예로 섬기었고 문하에는 많은 선비가 성취하였다. 문집이 있다.

○ 최남중(崔南重)

자는 대진이고 최계종의 현손이다. 재주가 뛰어나 책을 펴고 고요히 생각하면 육경 백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음양, 이기(理氣) 등 글을 깊이 탐구하여 도식(圖式)으로 나타내어 풀이하였다. 문집이 있다.

○ 최동언(崔東彦)

자는 성구(聖求)이고 최계종(崔繼宗)의 아들이다. 광해군 계축년(1613)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인조 계유년(1633)에 천거되어 목릉 참봉에 제수되었다. 병자호란(1636) 때 남한산성에서 임금을 모시었고 기묘년(1639)에 구례 현감에 임명되었다. 귀향한 뒤 늠전(廩田)으로 남은 돈 일 천 꿰미가 되었으나 자신이 갖지 않고 아전에게 주고 돌아왔다. 그런데 아전도 또한 사양한 후 몇 년이 지난 뒤 그 수만큼 환납(還納)하였다. 이에 그는 이를 서악서원에 납부하고 토전을 입매하여 향례를 도왔고 사액의 소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 봉선의범(奉先儀範)을 지어 후손에게 물러주면서 지키도록 하였고 육의당(六宜堂)에 긍구재(肯構齋)와 퇴수재(退修齋) 현액을 붙였다. 호는 백사(白沙)이다.

○ 최락(崔洛)

본부(本府)의 아전이다. 문장과 필체 모두가 풍부하고 생각하는 계책이 심원하였다. 임란 때 관민이 모두 삶을 도모하며 흩어지자 그는 동도사적안(東都事蹟案)을 운반하여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궁벽한 곳에 감추어 두었다. 이로써 천년 사

적이 병화(兵火)로부터 면하여 보존할 수 있었다. 이는 『경주부선생안(慶州府先生案)』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 최림(崔琳)

자는 찬부(贊夫)이고 본관은 월성이다. 재주가 총명하여 7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았고 10세에 인(仁)이 되는 근본을 좌우(座右)에 직접 써 두고 공부하였다. 성력(星曆), 병학(兵學), 기수(箕數)의 글을 모두 통달하였고 자신을 위한 학문[爲己之學]에 힘을 썼다. 만년에 운문산(雲門山) 공암(孔巖)에 터를 정하고 은거하니 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공암서사(孔巖書社)를 지었다. 순조 경자년(1840)에 추천되어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제수되었다. 호는 외와(畏窩)이고 문집과 『경세연류(經世沿流)』가 있다.

○ 최임환(崔琳煥)

자는 성장(性璋)이고 본관은 월성이며 최윤조의 아들이다. 천성이 뛰어나 12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았고 홍직필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통정대부와 돈녕위도정에 올랐고 문학과 올바른 행실로 이름이 드러났다. 유집이 있다.

○ 최벽(崔璧)

자는 중온(仲蘊)이고 정무공 최진립의 후손이다. 정조 경자년(1780)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당년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으나 성품이 겸손하여 임금이 내려 준 화개[御賜華蓋]를 받지 않았다. 경술년(1790)에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뽑혔고 시강원(侍講院)에서 응제(應製)할 때 여러 번 은영(恩榮)을 입었다. 임금이 지은 대보단(大報壇) 시에 화답한 글을 올리니 임금이 중화척(中和尺)을 하사하고 총애하였다. 벼슬은 정언에 이르렀고 이광정(李光靖)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문집이 있다.

○ 최만희(崔晩喜)

최동량의 후손이다. 철종 신유년(186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고종 을해년(1875)에 북부도사가 되었다가 이어서 감조관을 거쳐 사과에 이르렀다. 아들 최현식(崔鉉軾)은 고종 무자년(1888)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경릉 참봉으로 있다가 홍릉감조관에 올랐고 최현교(崔鉉敎)는 고종 무자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순릉 참봉이 되었다가 선원전 진전의 감조관을 지냈다.

○ 최석주(崔錫注)

자는 영숙(英叔)이고 본관은 월성이며 감사 최규(崔珪)의 후손이다. 사암(俟庵) 이재령(李在齡)에게 글을 배워 경전에 해박하면서 일찍이 명성을 드러냈다.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형제 간에 우애가 깊었다.

○ 최세학(崔世鶴)

자는 우석(羽錫)이고 가암 최수의 손자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어머니가 병을 앓으니 이불을 끼고 앉아 눈물을 흘렸고 밥을 지을 때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같이 나누었다. 어버이 상을 당했을 때 매우 슬퍼하며 예를 다하였고 성묘할 때 비바람을 가리지 않았다. 정헌 이종상 문하에서 글을 배워 많은 장허를 입었고 『주역』을 좋아하여 『괘변도후설(卦變圖後說)』과 『역년통고(歷年通攷)』를 지었다. 그는 제자들과 더불어 월산리 보인재(輔仁齋)를 짓고 강학의 장소로 삼았다. 호는 성암(惺巖)이고 문집이 있다.

○ 최수(崔琇)

자는 치옥(穉玉)이고 최진립의 후손이다. 재주가 뛰어나고 문사가 통달하여 아홉 차례나 향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 실패하였다. 정종로(鄭宗魯)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경전을 담론하며 후생들의 사표가 되었다.

○ 최숙생(崔淑生)

자는 자진(子眞)이고 첨정(僉正) 최철중(崔鐵重)의 아들이다. 성종 때 문과 급제하고 호당(湖堂)에 들어갔다. 제학(提學)을 역임한 뒤 이상(貳相)에 이르렀고 대사헌에 올랐다. 문장에 능하고 사륙문(四六文)을 잘 하였으며 호는 앙재(盎齋)이다.

○ 최심건(崔心健)

자는 정칙(正則)이고 최계종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총명하고 글을 잘 지었다. 정조 임자년(1792)에 문과 급제하고 전적(典籍)을 지내다가 칠원(漆原) 군수로 나갔다. 창고의 남은 곡식을 사방에 나눠주어 증식하고 이를 부세(賦稅)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영산(靈山) 군수를 겸임하며 간사한 아전을 엄격히 조사하여 민폐를 없앴다. 벼슬을 버리고 필마로 귀향할 때 오직 말 한 마리에 책만이 대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을 뿐이다. 군민들이 그를 그리워하여 호구 당 놋쇠 숟가락 한 개

씩 내어서 동비(銅碑)를 세워 송덕(頌德)하였다. 호는 우리(迂里)이고 유고가 있다.

○ 최옥[崔 塗]

자는 자성(子成)이고 본관은 월성이다. 문학으로 이름이 높아서 8세 때 「봉덕사신종부(奉德寺神鍾賦)」를 지어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동도악부』에 실렸다. 기와(畸窩) 이상원(李象遠)에게 글을 배웠고 오로지 자신을 위한 학문[爲己之學]에 마음을 다했다. 작은 집을 와룡연(臥龍淵) 가에 짓고 책을 읽으며 장수(藏修)하는 장소로 삼았다. 일찍이 「가훈십일조(家訓十一條)」를 지어서 자제들에게 보였다. 호는 근암(近庵)이고 문집이 있다. 그의 아들 최제우(崔濟愚)는 동학(東學)을 일으킨 수운(水雲)이다.

○ 최인간(崔仁簡)

자는 의보(義甫)이고 화숙공 최현우(崔玄祐)의 후손이다. 태어나던 밤에 밝은 빛이 방안에 가득하였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문장을 일찍 이루었다. 정조 을묘년(1795)에 문과 급제하여 전적에 올랐다. 이에 보안우승(保安郵丞)으로 나가서 치적을 남기니 고을 사람들이 청덕비(淸德碑)를 세웠다. 이로써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거문고와 독서로 스스로 즐겼다. 갑술년(1814)에 승문원 판교(承文院 判校)에 제수되었다가 곧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고 외직으로 나가서 강원도 도사가 되었다. 병술년(1826)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입궐하여 부사직(副司直)을 받았다. 호는 졸헌(拙軒)이다.

○ 최재휘(崔在翬)

자는 명서(明瑞)이고 본관은 영양이며 판서 최하영의 후손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침중하며 동호(桐湖) 이재두(李在斗)에게 글을 배웠다.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고 서재 편액을 회와(悔窩)라 했다. 그의 아우 최재완(崔在完)이 몹시 가난했으나 형제의 우애가 독실하였다. 따라서 그의 형 문적(文籍)이 흩어질까 염려하여 정성과 힘을 다 기울여 『회와유집(悔窩遺集)』을 간행했다.

○ 최종겸(崔宗謙)

자는 백익(伯益)이고 정무공의 5세손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매산 정중기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무진년(1748) 새아침에 스스로 「오잠(五箴)」을 짓고 널리 예

설(禮說)을 채집하여 「소목변(昭穆辨)」 및 「인심흑백도(人心黑白圖)」를 지었다. 서재를 봉강(鳳岡) 위에 건립하고 여생을 보냈다. 호는 제암(霽巖)이고 문집이 있다.

○ 최치덕(崔致德)

자는 성능(聖能)이고 호는 희옹(喜翁)이며 판관 최두엄의 후손이다. 태어날 때 무지개 같은 붉은 기(氣)가 뜰을 감쌌다. 총오가 남보다 뛰어나고 매호 손덕승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성품이 또한 지극히 효성스러워 힘을 다하여 어버이를 섬겼다. 상을 당하여 읍혈(泣血)로 3년을 보냈고 날마다 성묘를 하였다. 원근에서 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모고암(慕古庵)을 지어서 후학을 훈도하였다. 또 일성재(日省齋)를 천군리에 지었다. 영조 계해년(1743)에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 최학수(崔鶴脩)

자는 문백(文伯)이고 호는 국포(菊圃)이며 문창후의 후손이다.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문사가 풍부했으며 특히 시를 잘 지었다. 부윤 임한수(林翰洙)는 그가 지은 주사산성(朱砂山城)의 시를 보고 찬미하여 징례문(徵禮門)에 걸었다.

○ 최현필(崔鉉弼)

자는 희길이니 최진립의 후손이다. 고종 신묘년(1891)에 문과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에 이르고 관제가 변경된 후에는 벼슬할 뜻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로 즐거움을 삼았다.

○ 하한귀(河漢龜)

자는 규서(奎瑞)이고 취암 하기현의 후손이다.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이 전아하며 필법이 정묘(精妙)하였다. 따라서 사림의 추앙을 받았고 문인들과 더불어 시례(詩禮)를 강론하였다. 호는 농은(聾隱)이고 유집이 있다.

○ 한기(韓琦)

자는 송경(宋卿)이다. 이조판서 평절공 한옹(韓雍)의 5세손이고 교리 한권(韓卷)의 현손이다. 어려서 재주가 뛰어났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 정의가 두텁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니 고을 사람들이 그를 귀범으로 삼았다. 암행어사의 천거에 의해 현릉 참봉을 제수하였다. 아들 한언수(韓彦粹)는 선공감 참봉에, 손자 한극효(韓克

孝)는 선릉(宣陵) 참봉에 올라 백의(白衣)의 삼대(三代)로서 이름이 알려졌다.

○ 한세명(韓世鳴)

자는 대유(大有)이고 본관은 곡산이며 평절공 한옹(韓雍)의 후손이다. 타고난 품성이 총민하였고 효성으로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책을 읽고 뜻한 바를 탐구하며 시가를 좋아하였다. 아울러 전서와 예서에 정묘(精妙)하고 호는 낙재(樂齋)다. 영조 임술년(1742)에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 한여유(韓汝愈)

자는 상보(尙甫)이고 본관은 곡산(谷山)이다. 사람됨이 삼가고 중후하며 옛것을 좋아하고 널리 배우며 들은 바가 많았다. 더욱이 『주역(周易)』 가운데 상수(象數)의 변(辨)을 좋아하여 연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고 병서(兵書)와 성률(聲律)도 모두 통달하였다. 저술로 선후천도설(先後天圖說), 건곤변(乾坤辨), 삼십육궁해(三十六宮解), 왕로재조화론설(王魯齋造化論說), 중용혹문설(中庸或問說), 대학혈구장론(大學絜矩章論), 주례직방씨의(周禮職方氏議) 등 약간 편이 있다. 영조 때 지평(持平)에 증직되었다. 호는 둔옹(遁翁)이고 문집이 있다.

○ 한운성(韓運聖)

자는 문오(文五)이고 본관은 청주이며 문정공 한계희(韓繼禧)의 후손이다. 태어나면서 재주가 총명하였고 5세에 글을 지었다. 특히 초서와 예서를 잘 쓰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씨를 받아서 보물로 삼았다. 12살에 책을 가지고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문하에 나아가 글을 배우니 매산이 그의 재주가 탁월한 것을 보고 곧 소학(小學)을 읽게 하였다. 또 그에게 입헌(立軒)이라는 두 글자를 써 주었다. 그가 죽었을 때 문인으로서 가마(加麻)한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호는 입헌(立軒)이고 문집이 있다.

○ 허수(許洙)

자는 성원(聖源)이고 본관은 김해이며 지헌(智軒) 허희만(許希萬)의 5세손이다.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났다. 성장하여 경사를 널리 읽고 더욱이 『심경』, 『근사록』 등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리고 후생을 가르치니 바닷가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이기를 마지않았다. 호는 묵재(默齋)이고 유고가 있다.

○ 허찬(許纘)

자는 계언(啓彦)이고 호는 초호(草湖)이며 본관은 김해다. 어릴 때부터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문장 속에 의심된 곳이 있으면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가르쳤고 잠에서 깨보면 문장의 뜻이 훤하게 풀렸다. 『이기심성정의변(理氣心性情意辨)』, 『사서의의문답(四書疑義問答)』 등의 저술이 있다. 정조 병진년(1796)에 명산서원(明山書院)을 창설하였다. 향시에 합격했으나 어버이 봉양을 위하여 다시 과거에 응하지 않고 후배를 지도하였다. 아버지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하였고 유고가 있다.

○ 홍수원(洪受源)

자는 달순(達順)이고 우국재(友菊齋) 홍경손(洪敬孫)의 후손이다. 타고난 품성이 뛰어나고 행실이 믿음직하며 힘써 글을 배웠다. 그리고 「수분잠(守分箴)」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였다. 그의 선조 우국재는 부조묘(不祧廟)이지만 후사가 없어서 여러 해 동안 임시로 사당에 봉안했다가 양자로 사손을 잇게 하였다. 삼승산(三勝山) 아래 은거하여 후학을 훈도하고 작은 정자를 지어서 관수정(觀水亭)이라 현액하였다. 호는 동와(董窩)이고 유고가 있다.

○ 황곡(黃斛)

자는 만앙(萬仰)이고 본관은 회덕이며 양도공(良悼公) 황유(黃裕)의 후손이다. 화계 유의건 문하에서 글을 배워 이학(理學)에 깨달은 바가 깊었다. 그리하여 태극이기(太極理氣)를 지었고 선기옥형(璇璣玉衡)을 만들었으며 『소학(小學)』 읽기를 좋아하였다. 영조 을유년(1765)에 사마시에 합격하니 참판 이헌묵이 옥산서원에서 그를 맞으면서 '소학장원(小學壯元)'이라 하였다. 관학(館學)에 있을 때 글을 올려 『소학(小學)』 교육의 진흥책을 청하였다. 호는 목재(牧齋)이고 문집이 있다.

○ 황선헌(黃宣憲)

자는 형선이니 황곡의 아들이다. 가정 교훈을 독실하게 이어받고 경사를 널리 통했으며 후생들의 모범이 되었다. 은거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유집이 있다.

○ 황이근(黃以根)

자는 덕배(德培) 호는 계은(溪隱) 본관은 평해이고 정언 황정(黃玎)의 6대손이다. 미수 허목의 문하에서 글을 배우니 미수가 항상 외우(畏友)로서 일컬었다. 숙

종 때 천거되어 통사랑(通仕郎)과 인산감역(因山監役)에 임명되었다가 곧 공조 좌랑에 제수되었다. 주사산 아래 은계정사(隱溪精舍)를 짓고 시를 읊으며 노후를 보냈다.

○ 황재청(黃再淸)

자는 성일(聖一)이고 인와(忍窩) 황부열(黃傅說)의 증손이다. 어려서 재주가 뛰어났고 금와(禁窩) 이정중(李精中)에게 글을 배워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숙종 병자년(1696)에 사옹원 봉사에 임명되었고 을묘년(1735)에 정릉 직장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그 해 임소에서 죽으니 현감 이헌락과 진사 손경걸이 호상(護喪)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오년((1702)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곡식 수 천 석을 내어 삼남(三南)의 빈민을 구휼했다. 호는 송재(松齋)이고 유고가 있다.

○ 황정(黃玎)

자는 정옥(丁玉)이고 본관은 평해다. 성종 갑오년(1474)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정유년(1477)에 문과 급제하였다. 벼슬은 승문원 교리와 삼남도(三南道) 도사(都事)에 이르렀고 여러 고을을 맡아 다스리며 치적을 남겼다. 연산군 때 벼슬에 뜻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와 은거하면서 후학을 가르쳤다. 점필재 김종직과 도의(道義)의 사귐을 맺었고 호는 불권당(不倦堂)이며 유집(遺集)이 있다.

○ 황후덕(黃厚德)

자는 자중(子重)이고 송재 황재청의 아들이다. 독실하게 배우고 행실은 올바르며 효우(孝友)가 출중하였다. 형 황후재(黃厚載)와 한 곳에서 같이 살면서 '효제(孝悌)'란 두 글자를 서재 편액으로 붙였고 새벽마다 사당에 배알하였다. 이헌락(李憲洛), 정욱(鄭煜) 등 여러 어진 사람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고 시를 읊으니 고을에서 '구로(九老)라 일컬었다. 『제봉유고(悌峯遺稿)』가 있다.

2. 충의(忠義)

○ 견천지(堅川至)

자는 유원(流遠)이고 본관은 해주(海州)다. 어려서 열심히 배웠고 아울러 성력(星曆)과 병법을 통달하여 나라에 큰 전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 이에 양식을 깊이 저장하고 병기를 주조하여 만약의 사태에 만전의 준비를 하였다. 임진왜

란 때 의병을 거느리고 적들과 싸워 이기고 도산(島山) 전투에 달려가 용맹을 떨치며 먼저 산성으로 올라가 싸우다가 탄환에 맞아 순절하였다. 관찰사가 이 사실을 알려 나라에서 특별히 병조참의에 증직하였다. 선무원공 1등 공신에 녹선되고 『송고실기(松皐實紀)』가 있다.

○ 고덕신(高德臣)

일명 덕흠(德欽)이고 자는 명원(明元) 본관은 제주(濟州)이며 부윤 고유량(高有良)의 후손이다. 성품이 강직했고 용맹이 뛰어났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 고석남(高碩男)을 따라 의병을 일으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아버지가 공산(公山)의 진영으로 달려가 전사하자 상례를 마친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하늘에 맹세하고 아우 고덕령(高德齡), 고덕곤(高德崑)과 종제 고언장(高彦章)과 더불어 고언백(高彦伯)의 진영으로 달려가 몸을 아끼지 않고 힘써 싸웠다. 군공(軍功)으로 부정(副正)에 제수되었고 부자가 나란히 원종공신록에 녹선되었다.

○ 고석남(高碩男)

임진란에 창의하여 팔공산에서 전사했다. 그의 아들 고덕신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한하며 아우 고덕령, 고덕곤과 종제 고언장과 더불어 족인 고언백 장군의 진영으로 달려가 왜적을 공격하여 공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원종공에 녹훈되었다.

○ 권복흥(權復興)

자는 중원(仲元)이고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의 후손이다. 안강현 다질촌(多叱村)에 살았고 집안에 있을 때 효행이 있었다. 임란 창의 때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의병에 참여하지 못하자 분연히 말하기를 "충과 효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법도이다. 지금 임금이 몽진하고 계시는데 어찌 나라의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곧 갑옷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가동을 거느리고 부산으로 향하였다. 다대포(多大浦)에서 왜적을 만나 바로 적진으로 뛰어들어 싸우다가 화살이 다하여 순절하였다. 영조 정사년(1737)에 왕명으로 정려(旌閭)를 세우고 그 후손에게 조세와 부역을 면제시켰다.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짓고 비를 정려문 곁에 세웠다.

○ 기별(奇別)

최진립의 종 옥동[玉同]의 조카이다. 병자년(1636) 호란 때 험천 전투에서 최진립은 여러 명의 종에게 이르기를 "내 비록 늙었으나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들 가운데 나를 따르는 자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기별이 울고 옷을 입으며 이르기를 "주인이 충신인데 종이 어찌 충노(忠奴)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드디어 진중에서 같이 죽었다. 시체를 찾으니 그 주인 곁에 있었다.

○ 김경룡(金慶龍)

자는 중서(仲瑞) 호는 한강(寒江)이고 김춘룡(金春龍)의 아우이며 서애 유성룡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임진왜란 때 형 김춘룡과 함께 창의하여 망우당 곽재우와 함께 화왕산회맹 및 팔공산회맹에 참여하였다. 벼슬은 군자감 직장에 이르렀다.

○ 김광록(金光祿)

자는 경숙(慶叔)이고 충효공 김광복(金光福)의 아우다. 벼슬은 사옹원 주부와 춘천 판관을 역임했다. 임진왜란 때 관원으로서 막부를 도왔고 백형 따라 기회를 엿보며 적을 방어하였다. 호군(護軍) 이봉수(李鳳壽)와 더불어 화왕성(火旺城)으로 가다가 영천 창암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고 다시 적진으로 돌진하였다가 탄환에 맞아 죽었다. 그의 아들 사복(司僕) 김몽화(金夢和)는 백부를 모시고 화왕산성에 있었다.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분연히 달려와서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시신을 찾아 돌아와서 장사지냈다. 여러 차례 큰 전공(戰功)을 세웠고 난이 평정되자 청부산(靑鳧山) 속으로 들어가 은거했다. 부자가 모두 원종공신록에 입록되었다.

○ 김광복(金光福)

자는 경원(慶源) 호는 죽포(竹圃)이고 우계당(友溪堂) 김순(金洵)의 아들이다. 선조 신미년(1571)에 무과 합격하여 여러 관직에 역임하다가 훈련원 판관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의 명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아우 김광록(金光祿)과 조카 김몽화(金夢和)와 더불어 군무를 감독하였다. 부윤 윤인함(尹仁涵)이 정병(正兵)을 내주자 그는 서생포 전투에서 여러 번 싸워 대첩을 거두었다. 전란이 평정된 후 부모상을 당하여 6년 동안 시묘하며 상제를 마쳤다. 어사 이상신(李尙信)이 조정에 아뢰기를 '효성은 신명과 통하고 충성은 월일에 꿰었다' 라고 하였다. 훈련원정(訓鍊院正)에 제수되었고 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다. 병조참판에 증직되었고 품계는 자헌대부에 올랐다. 광무 갑진년(1904)에 본손 김준(金埈)이 나라에 글을 올리니 시호는 충효(忠孝)다.

○ 김난서(金鸞瑞)

자는 사상(士祥) 호는 병성(甁城)이고 본관은 선산이다. 선조 때 여러 고을을 맡아 다스렸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망우당 곽재우를 도와 영천과 경주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고 전라도 수사(水使)에 제수되었다. 난이 평정된 뒤 어머니를 뵙자 어머니가 병으로 눈이 멀었다. 성심을 다해 하늘에 빌자 어머니의 눈이 다시 밝아졌다. 사람들은 그가 살던 곳을 효문(孝門)이라 하였다. 이 사실은 화왕록(火旺錄)에 실려 있다.

○ 김득복(金得福)

본관은 김해이다. 임진란 때 창의하여 험한 지형을 끼고 기계를 내어 많은 승첩을 거두었다. 경주전과 한산전에서 모두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어사 이상신이 그 사실을 보고하니 임금이 주육과 목포(木布)를 하사했다. 원종공에 녹훈되고 가선에 올랐다. 아들 김효남은 어버지를 배종하고 싸움에 나아가 군량미를 운송했다. 원종공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을 지냈다.

○ 김득상(金得祥)

자는 인중(麟仲)이고 김득복(金得福)의 아우다. 임진왜란 때 형과 더불어 적진으로 달려가 향하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으나 월성 싸움에서 죽었다. 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다.

○ 김득추(金得秋)

자는 운가(雲西)이고 본관은 의성이다. 기국(器局)이 깊고 경전과 사서를 널리 통달하여 경주 객사(客舍) 상량문, 서악서원 상량문, 장서각의 명(銘)과 종질 김응택(金應澤)의 초혼사(招魂辭)를 모두 그가 지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훈련원 주부에 제수되었다. 일찍이 적을 토벌할 책략을 초유사(招諭使)에게 올려 판관에 올랐고 원종공신에 녹선되었다. 사림의 공의(公議)로 사당을 지어 향례를 지냈다. 호는 구재(懼齋)이며 실기가 있다.

○ 김련(金漣)

자는 내옥(乃玉)이고 본관은 경주다. 임진왜란 때 붓을 던지고 분연히 일어나 아들 김응수(金應壽)와 더불어 의병을 규합하여 여러 번 큰 공을 세웠다. 정유년(1597) 재란 때 울산 도산(島山)에 달려가 힘을 다해 싸우다 전사하였다. 아들 김

응수가 시신을 거두어 돌아와 장사지내고 시묘를 하였다. 부자가 아울러 원종공신록에 입록하였다.

○ 김몽주(金夢朱)

자는 응원(應元) 벼슬은 훈련원 주부에 이르렀고 용력(勇力)이 뛰어났다. 임진왜란 때 집안의 재산을 다 기울여 군량미를 마련하여 권응수(權應銖) 진영으로 보냈다. 또한 경주 읍성을 수복할 때 공을 많이 세웠다. 원종 공신에 녹선되었다.

○ 김봉립(金鳳立)

자는 원지(元之) 본관은 경주이고 수문장 김응수(金應壽)의 아들이다. 병자년(1636)에 문무(文武)로 뽑혀 노기종(盧起宗), 전식(全湜)과 더불어 용인 험천(險川)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적에게 포위되어 있으니 김봉립이 적진 앞에 우뚝 서서 후퇴하지 않고 싸우다 전사했다. 집안의 종 의남(義男)이 시신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와 장사지냈다.

○ 김석견(金石堅)

자는 자고(子固)이고 개국공 김유신의 후손이다. 정사(精舍)를 문천 가에 짓고 호를 문옹(汶翁)이라 했다. 일찍이 붓을 던지고 사예(射藝)를 익혀 무과에 합격하였다. 임진왜란 때 세 아들 및 열 명의 가동(家僮)과 더불어 다섯 마리의 말을 갖추고 천 금을 마련하여 경주부 진영으로 달려가 창의하였다. 부윤이 그를 선발하여 영장(領將)으로 삼자 그는 머리가 셋 달린 횃불을 풀에 묶어서 의병(疑兵)을 삼아 적을 의혹케 하였다. 따라서 그는 여러 번 싸워 공을 세웠으나 한 번도 적의 수급을 받치지 않고 겸양하며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선전관(宣傳官) 수문장으로 제수하고 녹권(錄券)을 하사하였다. 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고 병조 참의에 증직되었다.

김석견의 아내 윤씨는 모자(母子)의 정을 할애하여 아들을 보내 군사 진영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따라서 둘째 아들 김몽량(金夢良)은 전쟁에서 죽고 큰아들 김몽수(金夢秀)와 막내아들 김몽남(金夢男)은 아울러 원종 2등 공신과 녹권을 받았다. 막내아들 김몽남이 3년 간 시묘를 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 산을 지칭하여 '몽남이 산마루(夢男嶝)' 라고 불렀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문에 충, 효, 열의 삼강(三綱)이 나왔다 말하고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두산(山)에 세웠다.

○ 김수리(金秀理)

본관은 김녕이다. 부모를 잘 봉양하였고 어버이가 돌아가자 3년 간 시묘를 하였다. 임진란에 창의하여 공을 많이 세우고 원종공에 녹훈되었다.

○ 김승화(金勝華)

호는 일은(一隱) 본관은 의성이고 직제학 김한계(金漢啓)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의지가 있었다. 임진왜란 때 여러 번 의병 진영으로 달려가 공을 많이 세웠다. 계사년(1593) 2월에 김응택(金應澤), 조이함(曺以咸) 등과 함께 창암(蒼巖)에 이르러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어 힘써 싸웠으나 탄환에 맞아 죽었다. 시신을 찾아 유령(柳嶺)에 장사지냈다.

○ 김예심(金禮心)

본관은 월성이다. 형 김인심과 같이 창의하여 망우당 곽재우를 따라 적을 토벌하였다. 예빈시 봉사에 추증되었다.

○ 김윤룡(金潤龍)

본관은 경주이다. 임진란에 곽재우를 따라 많은 전공을 세우니 감사가 그 공적을 나라에 알리어 원종공신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을 지냈다.

○ 김응생(金應生)

본관은 김해이고 절효공 김극일(金克一)의 후손이다. 임진왜란 때 경주 고을의 여러 의사들과 동시에 창의하였다. 팔공산 회맹에 참여하였고 선무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다.

○ 김응춘(金應春)

자는 신여(信汝) 본관은 경주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들이 화제강(花濟江)에 주둔하자 그는 집안의 종과 마을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가 공을 세워 4등 공훈에 올랐다. 계사년(1593)에 3등 공훈에 오르고 같은 해 무과에 합격하였다. 무술년(1598)에 명나라 장수를 따라 기장(機張)에서 적과 싸워 이겼다. 이러한 사실을 조정에 알려 훈련원 봉사(奉事)에 제수되었다가 곧 주부(主簿)로 옮겼다.

○ 김응택(金應澤)

자는 취용(就用) 호는 백암(柏巖)이며 김득추(金得秋)의 종질이다. 임진왜란 때 여러 장수들과 함께 영천 읍성을 수복하고 팔공산회맹 때 지은 시가 있다. 정유년(1597) 서생포 전투 때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김득추가 초혼하여 돌아와 장사지냈고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려 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다. 철종 때 고을 선비들이 상소하여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백암사(柏巖祠)에 배향하고 실기가 있다.

○ 김응하(金應河)

자는 천일(千一)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어려서 무략(武略)이 있었다. 신묘년(1591)에 김동강(金東岡), 장여헌(張旅軒) 등의 여러 어진 사람과 더불어 신녕 불골사(佛骨寺)에서 종유(從遊)하였다. 임진왜란 때 먼저 의병을 일으켜 군사들을 규합하였고 싸울 때 항상 자신은 병사들보다 먼저 적진으로 진격하여 여러 번 큰 공을 세웠다. 큰아들 김홍엽(金弘燁)과 둘째 아들 김홍찬(金弘燦)이 모두 아버지를 따라 전쟁에서 죽었고 막내아들 김홍위(金弘煒)는 부상을 당한 채 적진으로 달려가 공을 세웠다. 그는 충과 효 모두 온전히 지켰는데 이러한 사실은 『구강동고록(鷗江同苦錄)』과 『공산동고록(公山同苦錄)』에 실려 있다.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 김자은(金自隱)

자는 경둔(敬遯)이고 정숙공 김인경(金仁鏡)의 후손이다. 본디 힘이 출중하였고 활 쏘는 재주가 뛰어났다. 선조 때 무과 합격하고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군사를 모았다. 경주 문천 진영(陣營)에서 영천, 울산, 양산 등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싸워 승리하였다. 난이 평정되자 선무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고 훈련원 주부에 제수되었다. 현종 때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호는 덕암(德庵)이다.

○ 김춘룡(金春龍)

자는 원서(元瑞)이고 본관은 경주이며 부정(副正) 김응허(金應虛)의 아들이다. 지기(志氣)가 영특하고 뛰어났다. 아우 김경룡(金慶龍)과 같이 서애 유성룡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임진왜란 때 아우와 더불어 창의하였고 망우당 곽재우와 함께 팔공산, 화왕산회맹 동고록(同苦錄)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유정(柳汀), 이눌(李訥), 이경연(李景淵), 장희춘(蔣希春)과 함께 군사를 합하여 울산 무룡산(舞龍山) 및 개운포(開雲浦)의 왜적을 격파하고 그 공훈으로 송라도 찰방에 제수되었다. 호는 행파(杏坡)다.

○ 김춘복(金春福)

본관은 월성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란에 수문장으로 창의하여 원종공에 녹훈되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 김호(金虎)

자는 덕원(德元)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용략이 있고 말타기를 잘하고 활을 잘 쏘았다. 선조 경오년(1570)에 무과에 급제하고 십 년 간 봉사에 머물렀다. 임란 때 왜구가 침범하자 경주부윤 윤인함은 성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죽장현으로 피해갔다. 김호는 활을 잡고 나아가 적 일대를 만나 싸우며 적장을 쏘아 죽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윤인함은 그의 용맹을 알고 부산(富山)을 지키게 하였다. 김호는 의병을 거느리고 달려가 군사를 매복시키며 남면대장이라 부르니 적들이 감히 이곳을 넘보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적세를 살피며 최진립과 같이 진격하여 많은 왜구를 포로로 잡았다. 이어서 왜구들이 몰려오자 그는 죽음으로써 싸워 혼자 39명을 격살하니 마침내 적은 크게 무너졌다. 이 일을 조정에 알려 부산첨사를 제수되었으나 마침내 계연(雞淵)에서 전사했다. 영조 무인년(1758)에 형조참판에 증직되고 남강사(南岡祠)에 제향했다. 아들 김이충, 김이관, 김이홍이 있다. 김이충은 주부의 벼슬로 의주에서 임금을 호종하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달려왔다. 어머니 정씨가 또 자진하자 통한을 삼키며 슬퍼하였고 원종공에 녹훈되었다. 또한 김이관은 흥해 군수로서 부친을 따라 창의했다. 아버지가 전사하자 곽재우 진영으로 나아가 많은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가선대부에 올랐다. 김이홍는 수문장으로 역시 전공이 높아서 원종공에 녹훈되었다.

○ 도맹교(都孟郊)

본관은 성주이다. 임진왜란 때 권사악 등과 함께 창의하여 적을 토벌하였는데 그 공으로 원종공에 녹훈되고 벼슬이 예빈시정에 이르렀다. 아들 도여국은 아버지를 모시고 역시 분전하여 원종공에 녹훈되고 현감을 지냈다. 도맹교의 아우 도맹호 또한 전공이 있어서 원종공에 녹훈되고 훈련검정을 지냈다.

○ 도여국(都與國)

도맹교(都孟郊)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를 따라 전쟁에 참여하여 비어(備禦)하는 방책을 많이 세웠다. 벼슬은 현감에 이르렀고 나라에서 포창기(褒彰旗)가 내렸다. 그 제목에 이르되 '한 가문 안에 충과 효가 모두 온전하고 장수 넷이 막

으니 원근이 스스로 편안하였네.' 라고 하였다. 선무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다.

○ 박사익(朴仕益)

자는 익지(益之)이고 참봉 박효달(朴孝達)의 아들이며 본관은 밀성이다. 인조 때 선관(宣官)으로 있다가 훈련원 판관으로 올랐다. 병자년(1636)에 능원대군(綾原大君)을 배종하여 심양(瀋陽)으로 들어가 보좌하다가 강화(講和)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와 명활산 아래서 살았다. 그리고 벽에 '대명(大明)' 이란 두 글자를 써 두고 항상 마음으로 되뇌었다.

○ 박응복(朴應福)

자는 여일(汝逸)이고 호는 도암(桃庵)이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 박한수(朴漢壽)가 마을 장정을 거느리고 왜적을 막으니 그는 시종 아버지를 모시고 따랐다. 갑오년(1594)에 무과 합격하고 정유년(1597)에 스스로 군사를 모아 적진으로 달려갔다. 창암(蒼巖) 전투에서 적의 탄환을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종 기복(基卜)의 도움을 받아 수레에 실려 돌아왔다. 상처가 완쾌되지 않았으나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시 군사 진영으로 달려갔다. 조정에서 이 사실을 듣고 훌륭하게 여겨 훈련원 봉사로 제수하였으며 공신록에 녹선되었다. 인조 임오년(1642)에 암행어사의 장계에 의하여 용양위부호군을 더했다.

○ 박이손(朴利孫), 김득복(金得福), 황희안(黃希安)

임진왜란 때 이들은 요해처(要害處)를 나눠 점거하여 힘을 다해 항전하며 많은 왜구를 죽였다. 어사 이상신(李尙信)이 그 사실을 나라에 알리니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관찰사 한준겸(韓浚謙)에게 명하여 교서(敎書)를 내려 유시(諭示)하였다. 그리고 주육(酒肉), 목포(木布) 및 많은 음식을 내려주고 품계를 높여 공신록에 녹선하였다.

○ 박인국(朴仁國)

자는 대보(大輔) 호는 정엄(靖广) 본관은 밀성이다. 용력(勇力)이 뛰어났고 무예를 열심히 익혔다. 경인년(1590)에 신마(神馬)를 나아산(羅阿山)에서 얻었다. 임진왜란 때 말을 타고 적진 속으로 달려가서 장차 큰 승리가 예상되면 신마가 반드시 크게 울었는데 이러한 징후는 여러 번 전투에서 경험했었다. 정유년(1597)에 도산 전투에서 죽으니 선무원종 공신에 녹선되고 좌승지에 증직되었으며 녹권이 있다.

○ 박춘무(朴春茂)

자는 내문(乃文)이고 호는 나곡(羅谷)이며 사복(司僕) 박맹원(朴孟元)의 아들이다. 어려서 자질이 남달랐고 성장하여 경전과 역사를 널리 통달하였다. 아버지의 명으로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의 문하에 나아가 예를 갖추고 역리(易理)를 통하며 병법을 익혔다. 임진왜란 때 형 박춘영(朴春英)과 함께 창의하여 공을 세웠고 선무원종공신에 녹선되었다. 벼슬은 훈련원 판관에 오르고 난이 평정된 후 찰방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울산 충효사(忠孝祠)에 배향되고 실기가 있다.

○ 박춘석(朴春石)

자는 경례(景禮)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임진왜란 때 부산 첨사로서 적진으로 달려갔다. 원종 1등 공신에 녹선되고 공적은 화왕산 동고록에 실렸다. 경주 부윤 박의장이 글을 올려 부호군(副護軍)으로 승진했다.

○ 박홍두(朴弘斗)

자는 능도(能道)이고 박춘우(朴春遇)의 아들이다. 인조 병자년(1636)에 훈련원 참군으로 의병을 일으켜 쌍령(雙嶺)으로 달려갔다. 그는 휘하 장수들과 더불어 몸을 던져 힘써 싸워서 청나라 기병 수십 명을 베고 힘이 다하자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그 아내 이씨가 이 소식을 듣고 9일 동안 음식을 끊고 굶다가 죽었다.

○ 백이소(白以昭)

자는 융원(隆遠)이고 부 서쪽 부산촌(富山村)에 살았다. 사람됨이 건장하였고 용력(勇力)이 남달리 뛰어났다. 갑오년(1594)에 무과 합격하였고 정유년(1597) 재란 때 발분하여 힘써 싸우다 영천 창암(蒼巖) 전투에서 탄환을 맞았다. 수령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탄환의 상처가 완전하지 않은 채 전쟁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며 병사(兵使)도 또한 말렸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신하된 사람으로서 이러한 국난을 당하면 마땅히 진중에서 죽어야 한다. 어찌 구차하게 삶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하고 마침내 스스로 의병을 모아 진중으로 달려가서 사력을 다하며 싸우다 죽었다. 벼슬은 봉사(奉事)에 이르렀고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호는 부암(傅巖)이다.

○ 서득천(徐得天)

본관은 이천이다. 임란 때 창의하여 금장대에서 전사하니 숙종 때 이르러 예빈

사정이 추증되었다. 그의 아들 서사적은 화왕산회맹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웠는데 역시 숙종 때 호조참의에 추증되었다.

○ 서사적(徐思迪)

자는 길보(吉甫)이고 호는 모암(慕庵)이며 서득천(徐得天)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문천 회맹과 팔공산 회맹에 참여했다. 군공(軍功)으로 호조참의에 증직되었다.

○ 서첨민(徐添民)

자는 덕후(德厚) 호는 동림(東林)이고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임진왜란 때 운주산 의현(義峴) 아래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며 싸워 많은 공을 세웠다. 부윤이 듣고 훌륭하게 여겨 중군장(中軍將)으로 추대하였다. 마침 아버지의 환후가 있어서 군사의 일을 이경호(李景湖)에게 맡겼다. 뒷날 전공으로 절충장군에 제수되고 가의대부 동중추(同中樞)에 올랐다.

○ 손세번(孫世蕃)

본관은 월성이다. 본래 지략이 있고 무예를 익혔다. 임진왜란 때 판관 박의장 막하에 들어가 함께 계책을 세우며 읍성을 수복하였다. 품계는 통정대부에 올랐다.

○ 손윤선(孫胤先)

본관은 밀양이다. 임진란 때 화왕산동맹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고 판관을 지냈다.

○ 손윤원(孫潤源)

자는 계현(季賢) 호는 탄수(灘叟)이고 본관은 월성이다. 벼슬은 군자감 참봉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정유년(1597) 9월 창암 전투에서 힘써 싸우다 죽었다.

○ 손향(孫香)

자는 문숙(文叔)이고 유곡(柳谷) 손계돈(孫季暾)의 증손이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무의공 박의장을 따라 계책을 세우고 일을 도왔다. 기무(機務)에 참여하여 결정하고 어렵고 험한 일을 피하지 않으며 경주 읍성을 수복하는데 공을 많이 세웠다. 방어사 고언백(高彦伯)의 장계에 의하여 며 군기시(軍器寺) 주부(主

簿)가 제수되었다.

○ 안영명(安永命)

진사 안윤신(安潤身)의 아들이고 벼슬은 군자감 직장에 이르렀다. 병자년(1636) 호란 때 곽위국(郭衛國), 양훤(楊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모든 재산을 기울여 군용(軍用)을 도왔다. 쏟아지는 화살을 무릅쓰고 힘써 싸웠으나 왕이 적에게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며 고향으로 돌아왔다. 최계종(崔繼宗)이 만사를 지어 높이 평가하였다.

○ 애경(愛卿)

부 북쪽 모아촌(茅兒村)에 살았던 사사로운 종이다. 3대에 걸쳐 그 주인을 섬기며 충애(忠愛)를 굳게 하였다. 전란 때 도망하여 숨어 있으면서 작은 것이라도 얻은 바 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바치니 주인이 그에 힘입어 살았다. 항상 주인이 병이 생기면 온갖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 억부(億夫)

승지(承旨)에 증직된 손종로(孫宗老)의 종이다. 그 주인이 쌍령에 달려갔을 때 두 종이 따라갔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 주인인 손종로가 궁지에 몰려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억부에게 명하여 집에 돌아가도록 했으나 억부는 가지 않고 주인 따라 죽었다. 정조 계묘년(1783)에 손종로의 정려(旌閭)가 내렸을 때 아울러 억부에게도 정려가 내렸다.

○ 오경우(吳敬友)

고창인 오새제(吳世才)의 후손이다. 대호군(大護軍) 사원(士元)의 아들로 중종 25년(1530)에 출생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재를 기울여 집의 노복과 장정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으니 그의 나이 63세의 고령이었다. 덕망 높은 고을의 선비로 의병진의 존경을 받았다. 공암 울산성 영지 등지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임난영남충의단에 배향되었다.

○ 오열(吳悅)

자는 사흠(士欽) 또는 은서(殷瑞)라 했으며 호를 송재(松齋)라 했다. 본관은 고창(高敞)이다. 공은 임진왜란에 창의(倡義)하여 경주 문천(蚊川) 대구 팔공산(八

公山) 등에서 회맹(會盟)하고 분전하여 봉정대부군자감(奉正大夫軍資監)으로 서훈되었다. 공은 태어나면서 뜻이 장중하며 용력이 출중하여 낮에는 무예를 닦고 밤에는 병서를 읽어 유사시에 왕은(王恩)에 보답하기로 명심하고 정진했다. 선조 25년 4월 14일 친상(親喪) 시묘 중에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동래, 울산으로 북상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4월 17일 가동(家僮) 80여 명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4월 25일에 부동곡(釜洞谷)에 진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전투에서 49명을 죽인 전과를 올렸다. 동년 5월 29일에 가동 110 여명을 데리고 경주 문천 회맹에 참가하여 토적구국(討賊救國) 결의를 다졌다. 각종(各種) 각처(各處)의 전투에서 대공을 세우고[선조 25년~30년] 왜란이 평정되자 공은 명리를 돌보지 않고 향리에 돌아와 은거하고 후진 양성에 전념했으며 53세를 일기로 1619년에 타계했다.

참고 문헌 : 『동경지(東京誌)』 인심재창의실기(忍心齋倡義室記)

○ 옥동(玉同)

정무공 최진립의 종이다. 임진년(1592)에 그의 주인이 창의할 때 옥동의 나이는 겨우 15 6세다. 그러나 성심을 다해 주인을 받들며 위난(危難)을 피하지 않았다. 어느날 왜적들이 갑자기 이르렀다. 옥동은 주인과 같이 숲 속에 숨어 있으니 적들이 크게 몰려와 수색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때 옥동은 화를 면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 몸을 던져 먼저 뛰어나와 여러 방면으로 적들을 유인하여 말하기를 "이곳에는 사람이 없다. 저 산골짜기에 많은 피난자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왜적들은 그가 나이가 어리고 용모가 뛰어남을 아껴 해를 입히지 않고 곧 다른 곳으로 떠나니 옥동과 주인이 모두 온전할 수 있었다.

○ 윤희영(尹希永)

본관은 파평이다. 임란 때 의병을 모아서 부윤 윤인함을 따라 크게 적을 공략하였다. 그리고 여러 의병장과 같이 계책을 짜내고 주사산성을 수축하여 많은 승첩을 거두는데 공헌하였다. 후에 직장이 제수되었다.

○ 이경남(李慶男), 이경생(李慶生)

교관 이세번(李世蕃)의 증손이다. 임진왜란 때 형제가 의병을 모아 적진으로 달려가서 많은 공을 세웠다. 원종공신에 녹선되었다.

○ 이계수(李繼秀)

자는 한서(漢瑞)이고 본관은 청안이다. 임진왜란 때 삼종제 이눌(李訥)과 창의하여 선무원공 2등 공신에 녹선되고 갑술년(1634)에 훈련원 첨정에 올랐다. 병자호란(1636) 때 삼종질 이주천(李柱天)과 창의하여 금천(衿川)에 이르렀다가 진영을 한강으로 옮겼다. 이때 강화(講和)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에서 떨어져 순절(殉節)하니 이주천이 도포를 찢어 시신을 싸고 초혼하여 돌아와 장사지냈다. 호는 영풍정(詠風亭)이고 실기(實紀)가 있다.

○ 이국빈(李國賓)

본관은 성산이다. 임란 때 권응수를 도와 영천성을 회복하고 원종공신에 녹훈되었으며 내자시직장을 지냈다.

○ 이극복(李克福)

본관은 경주이다. 선조 때 무과에 합격하여 훈련원정이 되고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아우 이기복 역시 무과에 합격하여 판관을 지냈고 임란 때 전사하여 원종공에 녹훈되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 이눌(李訥)

자는 약우(若愚) 호는 낙의재(樂義齋)이고 정원공 이종주의 후손이다. 성품이 강직하고 지극히 효성스러워 15세에 어버이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하였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호를 천사장(天使將)이라 하고 경주와 울산 두 고을의 영장(領將)으로 위력을 떨쳤다. 선무원종 1등 공신에 녹선되었다. 문집이 있다.

○ 이몽기(李夢麒)

본관은 경주이고 수문장을 역임하였다. 임진란 때 창의하여 곽재우의 화왕산회맹에 참가하고 많은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에 녹훈되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아들 이홍간 또한 창의하여 공을 세우고 부정(副正)을 지냈다.

○ 이몽린(李夢麟)

이지대(李之帶)의 5세손이고 벼슬은 수문장(守門將)이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와 의병을 일으켜 많은 군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에 녹선되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 이몽성(李夢星)

이몽린의 아우이고 벼슬은 판관이다. 임진왜란 때 분연히 적개심을 일으켜 많은 군공을 세웠다. 선무원종공신에 녹선되고 공조참의에 증직되었다.

○ 이방린(李芳隣)

자는 덕화(德華) 호는 동호(東湖) 본관은 청안(淸安)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아우 이유린(李有隣), 이광린(李光隣)과 함께 붓을 던지고 활쏘기를 익혔는데 사예(射藝)가 뛰어나 모두 무과에 합격하였다. 임란 때 두 아우와 더불어 창의하여 백률사와 계연에서 적을 막았고 박의장(朴毅長), 권응수(權應銖)와 함께 힘을 합하여 경주 읍성을 수복하였다. 관찰사가 추천하여 안동부 판관 겸 부사에 임명되었다. 아버지 상을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3년 동안 시묘하니 사람들이 그 시묘하는 곳을 가리켜 '효자동'이라 말했다.

○ 이복성(李復性)

자는 사술(士述)이고 첨추(僉樞) 이순성(李循性)의 아우다. 음직으로 사재감 첨정(司宰監 僉正)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삼 형제가 함께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우니 세상에서 '일가삼충(一家三忠)'이라 일컬었다.

○ 이봉서(李鳳瑞)

본관은 월성이다. 임진왜란 때 복병장으로 많은 적을 참획하고 군자감봉사에 제수되었다.

○ 이봉수(李鳳壽)

자는 기옹(岐翁)이고 호는 죽헌(竹軒)이며 첨정(僉正) 이시명(李時明)의 아들이다. 어려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고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이만수(李萬修)와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웠고 도산(島山) 전투 때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선무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고 벼슬은 한성부 판관에 이르렀다. 일찍이 벼슬할 때 관서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 진제경차관(賑濟敬差官)으로 성천(成川)에 이르렀다. 이때 부사 이상의(李尙毅)와 함께 「창수시(唱酬詩)」 4운을 지었는데 이를 성천 객사 동벽(東壁)에 판액으로 걸었다.

○ 이수남(李秀男)

본관은 월성이다. 임진 왜란 때 형 이의남, 이기남과 함께 창의하여 공을 세우고 모두 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 이순성(李循性)

자는 사임(士任)이고 이습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대구회맹(大邱 會盟)에 참여하고 망우당 곽재우와 더불어 화왕산성을 지키며 여러 번 큰공을 세웠다. 이어서 조정으로부터 공훈을 받았고 벼슬은 첨추(僉樞)에 이르렀다. 원종공신에 녹선되었고 녹권을 받았다. 사실은 『화왕록』과 『삼강록(三綱錄)』에 실려 있다.

○ 이안성(李安性)

첨정 이복성(李復性)의 아우로 힘이 매우 세었다. 선조 정유년(1597)에 무과 합격하고 군공(軍功)으로 봉사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서생포 전쟁에서 장렬히 죽으니 그의 나이 18세였다. 이 사실을 나라에 알리자 창신교위(彰信校尉)가 내렸고 사적은 무의공 박의장의 『관감록(觀感錄)』에 실렸다.

○ 이언춘(李彦春)

본관은 월성이다. 임란 때 부윤 윤인함을 따라 영병장의 직첩을 받고 울산의병장 윤홍명 등과 더불어 동해상에 진을 쳐 왜선 13척을 격침시켰다. 순찰사 한효순이 조정에 보고하여 훈련원 주부에 제수되고 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그가 남긴 임란 때 일기 동계실기(東溪室記)가 있다.

○ 이여량(李汝良)

본관은 월성이다. 어버이 상으로 시묘를 하다가 임진 왜란이 일어났다. 그는 조카 이진국과 함께 창의하여 가는 곳마다 승첩을 거두니 군중에서 그를 격의장군이라 불렀다. 팔공산회맹에 참가하고 원주판관을 지냈다.

○ 이영립(李榮立)

자는 여안(汝安) 호는 검옹(儉翁) 본관은 월성이다. 성품이 강의(剛毅)하고 큰 절의가 있었다. 임진왜란 때 아우 이의립(李義立), 이예립(李禮立), 매서(妹壻) 이문익(李文翼)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망우당 곽재우를 좇아 화왕산성에서 회맹

하였는데 예립이 끝내 전사하자 더욱 힘써 싸워 공을 세웠다. 난이 평정된 후 기해년(1599)에 통정대부에 올랐다. 2등 공신에 녹선되고 인조 때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 이운룡(李雲龍)

본관은 월성이다. 임진란에 창의하여 적을 토벌하고 수 십 명의 목을 베었다. 그 군공으로 사복이 제수되고 통정에 올랐으며 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 이응벽(李應壁)

자는 여원(汝元)이고 본관은 청안이다. 효행(孝行)으로 현릉(顯陵) 참봉에 제수되었고 임진왜란 때 여러 종, 숙질과 함께 창의하여 선무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다.

○ 이응수(李應壽)

자는 일오(一五)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유격복병장군(遊擊伏兵將軍)으로 직위를 받고 여러 번 큰공을 세웠다. 훈련원정에 제수되고 원종 2등 공신에 올랐으며 녹권이 있다.

○ 이응춘(李應春)

본관은 청안이다. 명종 병인년(1566)에 무과 합격하고 부장이 되었다. 임란 때 아우 이우춘, 이봉춘과 아들 이승금 및 종질 이눌 등과 더불어 창의하니 따르는 자가 수백 명이 되었다. 그는 흩어진 사람을 규합하여 화공과 수전으로 전후 수십 합을 싸워 많은 적을 죽였다. 또 개운포에 머물러 수로를 방어하니 적의 형세가 크게 성했다. 이응춘은 힘을 다해 싸웠으나 끝내 화살이 다하고 힘이 소진하여 장렬히 전사했다. 순조 때 병조참판이 추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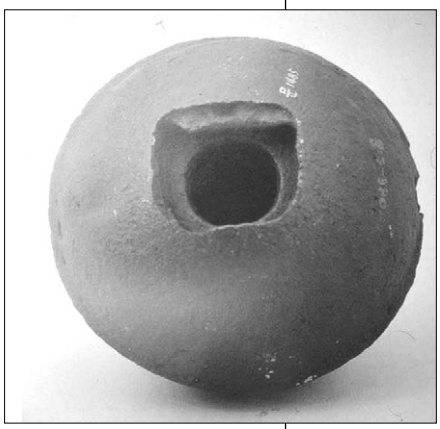
○ 이의온(李宜溫)

자는 율연(栗然) 호는 오의정(五宜亭)이고 이의잠(李宜潛)의 아우다. 어려서부터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고 학문을 쌓으며 행실을 가다듬었다. 널리 책을 읽고 아울러 무예(武藝)를 익혔다. 임진왜란 때 맏형을 대신하여 군량감봉유사(軍粮監捧有司)을 맡았다. 부윤 박의장(朴毅長)이 그를 추천하여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진영으로 보냈다. 한산도에 이른 그는 전략을 도모하며 여러 번 큰 공을 세웠다. 이에 이순신이 그의 사람됨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 조정에 아뢰었고 군자감 직장(軍

資監 直長)에 제수되었다. 이순신이 죽고 왜구와 화의(和議)가 이뤄지자 이의온은 개연히 고향으로 돌아와 집 뒤에 작은 정자를 집 뒤에 지었다. 호를 따라 오의정(五宜亭)이란 편액을 붙였고 책을 읽으며 노후를 마쳤다. 유집이 있다.

○ 이장손(李長孫)

생몰년대 미상 조선 선조 때의 화기제조 공장(工匠). 군기시(軍器寺)에 소속된 화포장(火砲匠)으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라는 포탄을 만들어 공을 세웠다. 비격진천뢰는 특히 폭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목곡(木谷)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발명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뒤 경상좌도병마사 박진(朴晉)은 좌도의 군사 1만여 명을 이끌고 경주성 아래에 육박하였지만 적의 반격으로 안강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야음을 이용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성 아래에 잠복하게 하여 대완구로 비격진천뢰를 발사하였다. 성 안 객사 앞에 떨어진 비격진천뢰의 구조나 내용을 모르는 적들은 모여들어 이리저리 굴려보다 폭파하여 즉사자 30여 명이 발생하였고 실신하여 한참만에야 일어난 자도 많았다.


비격진천뢰

이를 두려워한 적들은 다음날 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망하였고 이 승리로 인하여 좌병사 박진은 성 안에 들어가 남은 곡식 1만여 섬을 도로 찾았다는 기록은 비격진천뢰의 창의성을 말해 주는 좋은 보기이다. 비격진천뢰는 박의장의 경주성 수복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가 비격진천뢰를 제조하던 곳은 괘릉지라고 전한다.

○ 이주천(李柱天)

자는 응천(應天) 호는 습와(習窩)이며 낙의재(樂義齋) 이눌(李訥)의 아들이다. 모습이 비범하고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다. 숭정 무진년(1628)에 무과에 합격하고 방어사(防禦使)로 있었다. 병자년(1636) 호란 때 금천(衿川) 적진으로 달려갔다가 강화했다는 말을 듣고 말에서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다. 임오년(1642)에 정병에 응하여 중원(中原)으로 들어갔다. 그는 금주 전투에 명나라 군사가 패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창으로 찔러 스스로 팔을 끊으니 주장 정한기가 노하여 철장으로 그를 쳤으나 죽어도 복종하지 않았다. 관직이 방어사에 이르렀다. 문집이 있다.

○ 이태립(李台立)

자는 여제(汝濟)이고 본관은 청안이다. 군자감 봉사를 지냈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성전(聖殿)을 중수할 때 스스로 사재(私財)를 출연하였는데 직함과 성명은 성전 대들보에 쓰여져 있다.

○ 이파수(李葩秀)

이분수(李芬秀) 형제는 부산촌(富山村)에 살았고 모두 봉사(奉事)로 있었다. 임란 때 형제가 스스로 군사를 모아 서문(西門) 밖에서 힘써 싸우다 모두 죽었다. 이분수의 아내가 적의 핍박을 받았을 때 죽음으로써 막다가 또한 순절하였다.

○ 이팽수(李彭壽)

자는 미수(眉壽)이고 호는 두촌(杜村)이며 청안군 이양길(李陽吉)의 후손이다. 임란 때 개연히 붓을 놓고 무과에 합격하였다. 병사(兵使) 박진(朴晉)이 그의 의용(義勇)을 듣고 불러서 복병장(伏兵將)으로 삼았다. 이때 여러 고을은 왜구의 풍문만 들어도 무너지며 감히 앞으로 나아가 싸우는 이가 없었으나 팽수는 홀로 분연히 달려가 싸웠다. 진중으로 달려간 그는 기이한 계책을 내고 사나운 적을 많이 막으니 남쪽 고을 백 리가 수개월 동안 안전할 수 있었다. 서생포에 머물렀던 어느날 왜구들이 한꺼번에 쳐들어 왔다. 후원군도 끊어지고 화살도 다했으나 그는 끝내 후퇴하지 않고 전장에서 장렬히 죽었다. 집안 사람들이 시신을 찾지 못하고 화살로 초혼(招魂)하여 돌아왔다. 정조 계묘년(1783)에 정려(旌閭)를 세우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으며 덕산사(德山祠)에 배향되었다.

○ 이희룡(李希龍)

본관은 옥구(沃溝)이고 다질촌에 살았다. 그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낳으니 큰아들은 이변룡(李變龍)이라 하고 둘째 아들은 이희룡(李希龍)이라 하였는데 이는 현몽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선조 신묘년(1591)에 무과 합격하고 사헌부 감찰로 봉직하며 서울에 머물렀다. 임진왜란 때 그는 적의 형세를 엿보며 충주 달천(達川)에 이르러 적을 만나 싸웠으나 화살이 다하고 힘이 소진하여 죽었다. 그의 아들 이문진(李文軫)이 집에 있다가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맹세코 원수를 갚겠다 하며 곧바로 충주로 떠났다. 길을 떠나 신녕에 이르러 적을 만나 힘써 싸우다 역시 죽었다. 그의 아내 김씨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전쟁에서 죽은 것을 통한으로 여기고 바로 달려가서 시신을 찾았으나 석 달이 되어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남편의 옷으로 합장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자결하였다. 숙종 경인년(1710)에 이희룡은 호조참의에 증직되고 이문진은 의금부 도사에 증직되었으며 김씨는 단인(端人)으로 직첩이 내렸다. 그리고 그 신위를 부조묘에 모시도록 하였다. 삼강사(三綱祠)를 지어서 향례하고 묘비(廟碑)를 세웠다.

○ 장계현(蔣啓賢)

본관은 아산이고 통례원인의를 역임했다. 임진란에 족제인 장회춘과 함께 창의하여 곽재우의 화왕성회맹에 참가하였다.

○ 정공청(鄭公淸)

본관은 월성이다. 임진란에 창의하고 적을 토벌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여러 동료와 함께 남정세검록(南征洗劒錄)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당시의 사실을 기록하려 하자 정공청이 웃으며 이르기를 "나로 하여금 후세에 이름을 빛내게 하려느가"하고 마침내 이를 불에 태워버렸다. 벼슬은 군수에 이르고 원종공 1등에 녹훈되었다.

○ 정극의(鄭克毅)

자는 사중(士重)이고 본관은 영일이다. 성품이 충직하고 효성스러웠다. 13세 때 어머니 병환이 위독하자 연이어 세 번이나 손가락을 씹어 피를 드려 수명을 늘였다. 전후의 초상 때 모두 시묘하며 상례를 마쳤다. 일찍이 문예(文藝)로 이름이 높았고 인조 때 무과에 합격하여 여러 번 벼슬을 옮겨 흥의위(興義尉)에 이르렀다. 병자년(1636) 호란 때 창의하여 임금을 모시러 가다가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기절하여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고 끝내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호는 모암(慕庵)이다.

○ 정원(鄭黿)

자는 서수이고 정귀(鄭龜)의 아우다. 임진왜란 때 본 고을의 여러 의사들과 더불어 망우당 곽재우에게 좇아가 화왕산회맹에 참여하고 많은 전공을 세웠다.

○ 정홍업(鄭弘業)

본관은 월성이다. 임진란에 군수물자와 군량미를 조달 · 수송하여 제용감봉사가 제수되었다.

○ 조위(曺瑋)

조한보의 후손으로 임란 때 호령순무사에 협찬한 공이 있어 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 최대지(崔大智)

본관이 월성이다. 성품이 강개(慷慨)하고 재주와 기량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 판관 박의장(朴毅長)의 차전사(遮箭士)로 뽑혀 함께 읍성을 수복하고 통정대부에 올랐다. 선조 을묘년에 영남 향리(鄕吏)들과 더불어 방립(方笠)을 쓰지 않는 일로 조정에 상소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

○ 최득우(崔得雨)

본관은 월성이다. 임진 왜란 때 군공으로 첨정이 되고 원종신공에 녹훈되었다.

○ 최립(崔雴)

본관은 월성이다. 선조 때 주부 벼슬로 서울에서 봉직하다가 임란을 당했다. 임금의 명을 받고 적의 형세를 엿보며 금산(錦山)에 이르러 전사했다. 그의 아들 최동경(崔東憬)은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원수를 갚기로 맹세하고 바로 금산으로 달려갔다가 또 전사하였다. 최립의 아내 유씨(俞氏)는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시신을 찾았으나 적들이 이미 시체를 모두 불에 태워 없앴다. 유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옷을 거둬 초혼하여 돌아와 장사지낸 뒤 마침내 칼로써 자진하였다. 숙종 때 진사 김응규(金應規)와 사림이 나라에 글을 올려 비답을 받고 정려각을 금산에 세웠다.

○ 최봉천(崔奉天)

자는 국보(國輔) 호는 운암(耘庵)이고 사성(司成) 최예(崔汭)의 후손이다. 무과에 합격하고 임란 때 창의하였다. 갑오년(1594)에 전공으로 특별히 좌수영 우후(左水營 虞侯)에 제수되었다. 영천 창암 전투에서 적진으로 달려가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전란이 평정된 후 2품으로 추증(追贈)되었고 부모에게 작위(爵位)가 봉해졌으며 나라에서 그 아들에게 벼슬하도록 명하였다. 순조 신사년(1821)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 최사박(崔嗣朴)

자는 내승(乃承)이고 최신남(崔藎楠)의 종제다. 병자년(1636) 호란 때 훈련원 첨

정으로 해서도호사(海西都護使)가 되어 동선령(洞仙嶺), 사인암(蛇人巖) 등지에서 적들과 싸워 많은 승리를 거둬 공을 세웠다. 용진(龍津)에 이르러 왕이 적에게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최신남과 더불어 글을 올려 당시 장사(壯士)들의 공과 죄를 논하다가 이로써 무고를 받고 국문(鞫問)에 나아갔으나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죽었다.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녹선되었다.

○ 최신남(崔藎楠)

자는 영중(英仲)이고 최복동(崔福東)의 5세손이다. 인조 갑자년(1624)에 아우 최귀남(崔龜楠), 최두남(崔斗楠), 최기남(崔起楠) 및 종제 최지남(崔智楠), 최태남(崔泰楠), 최사박(崔嗣朴), 최장남(崔壯楠)과 함께 무과에 합격하였다. 병자년(1636) 호란 때 어영총관령군(禦營總管領軍)으로 해서(海西)에 출병하여 앞서 8명과 더불어 힘써 싸워 대첩을 거두었다. 그러나 용진(龍津)에 이르러 강화(講和)했다는 말을 듣고 통곡을 하며 귀향하여 의분을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어 죽었다.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입록하고 세칭 한 가문에 여덟 충신이 났다[一家八忠]고 한다.

○ 최언복(崔彦福)

최예의 후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사복시내승이 되고 임란 때 전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 최진립(崔震立)

자는 사건(士建)이고 청백리 최예(崔汭)의 6세손이다. 임진왜란 때 그의 나이 25세였다. 백의(白衣)로 창의하여 읍성을 수복하는데 도왔고 도산(島山) 전투에 참여하여 분투하니 경략(經略) 양호(楊鎬)가 크게 감탄하였다. 3년 뒤 무과에 합격하고 여러 차례 옮겨다니며 벼슬하였다. 부임하는 곳마다 청백으로 이름이 높았고 벼슬은 공조참판에 이르렀다. 병자년(1636)에 나라에게 그를 특별히 공주(公州)에 진수(鎭守)하여 요해(要害)에 대비하게





최진립 유품

했다. 마침내 인조가 남한 산성에 포위되자 그는 용인(龍仁) 험천(險川)으로 달려가 분연히 싸우다 죽으니 그의 나이 70세다. 아들 최동량(崔東亮)이 시신을 찾으니 안색은 살아있는 듯 했다. 병조판서에 증직되고 정려비가 세워졌으며 나라에서 아들 최동량에게 벼슬이 내렸다. 효종 때 시호 정무(貞武)가 내리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숙종 때 대보단(大報壇)에 종사(從祀)하고 용산서원에서 향사하며 사액이 내렸다. 호는 잠와(潛窩)이다.

○ 한언호(韓彦浩)

본관은 곡산이다. 임진 왜란 때의 전공으로 원종공신에 녹훈되고 부사를 지냈다.

○ 허희만(許希萬)

자는 군일(君一) 본관은 김해이다. 독서하는 여가에 무예를 익혔다. 임진왜란 때 김호(金虎), 이눌(李訥), 황희안(黃希安)과 함께 창의하여 공을 세우고 선무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으며 훈련원 부정(副正)에 제수되었다. 작은 집을 짓고 편액을 지헌(智軒)이라 했으며 훈련원정(訓鍊院正)에 증직되었다.

○ 황신(黃愼)

본관은 창원이다. 선조 때 무과에 합격하여 훈련주부가 되었고 임란 때 경상좌병영으로 부임하여 울산성을 사수하며 전공을 세웠다. 원종공신에 녹훈되고 훈련원정을 역임했다.

○ 황희안(黃希顔)

교리 황정(黃玎)의 증손으로 원종 1등 공신으로서 절충(折衝)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높였다.

○ 흔월(欣月)

부 남쪽 월남촌(月南村)에 살았던 사사로운 종이다. 임진왜란 때 그의 주인 김씨는 남편을 잃고 또 자식이 없었다. 흔월은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니 김씨는 이로써 온전할 수 있었다. 후에 김씨가 늙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으나 흔월이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섬기며 한결같이 하였다. 김씨가 죽으니 장례하는 일과 제사 받드는 예에 있어서 성의를 다하고 제수를 갖추었다. 흔월이 장차 죽음에 이르러 그의 여러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상전이 살아 계실 때 오직 내가 의지하며 살

았다. 이제 모두 돌아가셨으니 다시 누구에게 의탁할 것인가? 내가 죽으면 상전 무덤 곁에 묻어다오. 지하에서 두 분을 섬기며 의지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함께 보호하며 제사를 잘 받들도록 하여라"하고 말을 마치자 죽으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그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였다.

3. 효우(孝友)

○ 곽이륜(郭爾崙)

본관은 현풍이다. 아버지가 종기로 고생하였다. 의원이 웅고(熊膏)가 좋다고 하자 그는 운대산에 올라 단을 차려두고 빌었다. 과연 곰을 얻어 그 기름을 취하여 바로 효험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이 단이 있는 곳을 효처동이라 부른다. 그후 어사가 천거하여 공조좌랑이 추증되었다.

○ 곽정(郭楨)

증 좌랑 이윤의 현손이다. 효도로 천거되어 인릉참봉에 제수되었다.

○ 권사의(權士毅)

자는 중언(重彦)이고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의 큰아들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나이 어려서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알았다. 아버지 초상 때 남들보다 크게 슬퍼하였고 상례와 제사를 한결같이 『봉선잡의(奉先雜儀)』에 따랐다. 그리고 그는 "이는 아버지의 스승이신 회재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옥산서원 문간이나 담장 계층에 한 군데라도 무너진 곳이 있으면 반드시 직접 스스로 보수하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온 힘을 기울였고 또한 수택(手澤)이 남아있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추천으로 순릉(順陵) 참봉에 제수되었다.

○ 권의국(權宜國)

자는 응칠(應七)이고 호는 백원(百源)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아버지는 늙고 집안은 가난했으나 힘을 다하여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병으로 여러 해 동안 기침을 했으나 시탕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가 잉어 고기를 원하자 그는 얼음을 깨고 잡아다 드렸다. 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며 예를 다했고 장사 후에 반드시 성묘를 했다. 가숙(家塾)을 세워 후생을 가르쳤고 선친의 묘소에 제전(祭田)과 표석(表石)을 두었다. 고종 때 영릉 참봉에 제수되었고 수직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 권의철(權宜哲)

본관은 안동이고 양모(養母)를 잘 섬겼다. 수 년 동안 양모의 병을 돌볼 때 옷에 띠를 풀지 않고 모시었다. 상을 당하여 매우 슬퍼하였고 장례를 치른 후 날마다 성묘하였다. 비록 폭풍우가 몰아쳐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니 바위틈과 비탈진 언덕에 곧 새롭게 길이 만들어졌다. 나무꾼들이 모두 그 곳을 가르쳐 "이곳은 권 효자가 성묘 다니는 길이다"라 하고 흙과 돌로써 길을 보수하여 위험을 면하게 하였다.

○ 권치웅(權致雄)

자는 화숙(和淑)이고 사정(司正) 권수해(權壽海)의 후손이다. 나이 겨우 15세 때 널리 배우고 경사(經史)를 두루 읽었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를 일찍이 여읜 것을 한스러워했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어머니 병이 심하니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고 정신이 혼미하자 하늘을 향하여 울며 말하기를 "어찌 감히 부모님이 주신 한 점의 피를 땅에 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종이에 피를 받으니 흠뻑 젖었다. 그 유지(遺紙)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여막에서 상례를 마쳤다. 숙종 갑인년(1674)에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공조참의에 증직되었다.

○ 김규선(金奎善)

자는 영선(永宣)이고 선무공신 김기의 후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머니가 종기를 앓았을 때 입으로 빨아서 완치시켰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단을 쌓아 하늘에 축원하여 자신이 그 아픔을 대신하도록 했다. 어느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너의 정성이 이토록 지극하니 내가 영약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서 영지(靈芝) 여러 말[斗]를 얻었다. 이를 탕제하여 드리자 병이 회복되었고 90세의 수를 누렸다. 사림에서 포장(褒狀)을 올렸다.

○ 김기손(金基巽)

본관은 월성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자 3년 간 여묘하고 어머니 병이 위중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회생시켰다. 손자 김석호의 처 김씨는 시어머니 병환에 모두 다섯 차례나 단지(斷指)했다. 나라에서 정려를 명하니 그 비는 구정리에 있다.

○ 김녀(金女)

부 남쪽 용장촌(茸長村)에서 살았고 선비 김정민(金廷敏)의 딸이다. 임란 때 어머니 견씨(堅氏)와 더불어 산중에 나눠 숨어있었다. 적들이 산을 수색하여 장차

그 어머니를 해하려 하자 김녀는 급히 달려가 몸으로 가리고 보호하다 함께 죽었다. 적들이 물러간 후에 종 고음년(古音年)이 가서 보니 흐르는 피가 뒤엉켜 두 몸이 하나가 되어있었다. 시신을 분리하여 장사지내니 지금 금오산 기슭에 두 무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 김두망(金斗望)

본관은 경주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다. 어머니가 눈병으로 앞을 못 보자 그는 항상 곁에서 모시고 식사를 도와드리며 자신이 그 아픔을 대신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이렇게 하기를 7년에 문득 어머니의 눈이 밝아졌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려를 명하였다. 그 정려비는 부 서쪽 광명리에 있다.

○ 김두하(金斗夏)

자는 윤화(允和)이고 본관은 김해이다.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아침 저녁으로 정성(定省)하고 여름과 겨울에 온정(溫凊)을 살피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머리털 밑에 종기를 앓으니 아내 손씨와 더불어 종기를 빨아서 병을 회복시켰다. 후에 또 병이 심해지자 부부가 하늘에 빌며 아픔을 대신해 달라고 하고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서 드렸다. 고을 사람들이 여러 번 관에 글을 올리자 마침내 그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었다.

○ 김만국(金晩國)

자는 중옥(重玉) 본관은 의성이다. 예양산(禮讓山) 아래 백안곡(百安谷)에서 살았고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임진왜란 때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하여 숨어 있으면서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니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였다. 초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하고 슬픔을 상례보다 지나치게 하였다. 사림에서 포장(褒狀)을 관찰사에게 올렸다.

○ 김사범(金思範)

동엄 김득복의 후손이다. 어머니가 염병으로 앓을 때 정성을 다해 약을 구하였고 자신이 그 아픔을 대신해 달라고 기원하여 마침내 병을 회복시켰다. 아버지가 큰 종기로 여러 해 동안 고생할 때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다니며 집안의 재산을 모두 기울였다. 섶나무를 팔아서 쌀을 사 가지고 돌아와 공양하고 종양을 빨아서

완치시켰다. 상을 당하여 슬픔을 다하니 고을 사람들이 포장을 관아에 올렸다.

○ 김사준(金士俊)

현곡촌 정병(正兵)이었다. 어머니 병이 중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다. 이러한 사실이 관가에 알려져 마침내 신역(身役)을 면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의 직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하고 힘써 사양하고 따르지 않았다.

○ 김상동(金尙東)

본관은 월성이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어버이를 극진하게 봉양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학질로 신음하자 정성을 다하고 자신의 다리 살을 몰래 베어 음식으로 드려 병을 낫게 했다. 관부에서 이를 듣고 호역을 면하게 했다.

○ 김성하(金聲夏)

본관은 월성이고 팔조리(八助里)에 살았다. 어머니가 이질을 앓으니 산에 가서 기도하며 약을 캐어 시험한 후 드렸다. 또한 사람들이 오리 고기가 가장 좋다고 하였는데 마침 제철이 아니어서 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하늘을 보고 울며 비니 홀연 솔개가 나타나 오리를 떨어뜨렸다. 이를 고아 드려서 효험을 얻었다. 아버지 병환이 심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서 5년 간 수명을 늘렸고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를 했다. 사림에서 글을 올려 잡역(雜役)을 감면해 주었다. 감찰에 증직되고 정려(旌閭)를 명했다.

○김성하(金成夏)

수문장 김수남의 후손이다. 효성으로 부모를 봉양할 때 온 정성을 다했고 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이 몹씨 야위었다. 건릉(健陵) 장례 때 천리를 걸어가서 부토(負土)에 노고하였고 그 후 두 차례의 국상도 모두 이와 같이 했다. 그의 아내 이씨도 남편의 뜻을 따라 삭망 때마다 반드시 북향하여 배곡(拜哭)하였다. 그의 아들 김은필(金殷弼)은 아버지 병환이 심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다. 또 국상을 당하여 모두 부모와 같이 하였다. 사림에서 여러 번 관에 글을 올리니 관에서 후하게 쌀과 고기를 내리고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었다.

○ 김성화(金星化)

본관은 김해이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여러 달 동안 간병했으나 의약(醫藥)이

효험이 없었다. 하늘에 빌며 정성을 드리니 꿈에 신인이 나타나 "지금 짐승이 들로 내려오는데 어찌 잡아서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 날 새벽에 시녀암(侍女巖)에 올라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효험을 보았다. 상을 당하여 아주 슬퍼하고 읍혈로 3년을 지내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무덤 가에서 시묘하며 풍설도 피하지 않으니 사림에서 경주부와 감영 및 예조에 품의하여 한성부 좌윤에 증직되었다.

○ 김수만(金壽萬)

본관은 경주이고 타고난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겨울에 포도를 원했는데 홀연 까마귀가 포도를 물고와 땅에 떨어뜨리고 갔다. 그의 아들 상태는 어버이 병환에 잉어를 얼음 속에서 낚아서 드렸다. 이러한 사실을 조정에 알리니 정려를 명하였다.

○ 김쉬하(金淬河)

자는 천일(千一)이고 수은(樹隱) 김충한(金冲漢)의 후손이며 안강현 남쪽 대동촌(大洞村)에 살았다. 아버지가 병이 심해지자 두 번이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는데 아버지 병세가 곧 나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남의 것을 꾸어서 생활을 영위했으나 어버이를 봉양하는 데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 영조 때 통정대부 부호군에 증직되었다. 호는 박옹(璞翁)이고 유고가 있다.

○ 김용검(金用劍)

자는 명여(明汝)이고 효절공 김극일(金克一)의 후손이다. 어버이를 극진한 효성으로 섬겼고 아버지가 병이 들자 밤낮으로 하늘에 빌며 오래 살도록 축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신령스러운 약을 얻어 드림으로써 효험이 있었다. 병이 심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고 상을 당하여 예를 다하였다. 일찍이 전란 중에 나이 많은 어른들을 업고 군산(君山) 죽공암(竹孔巖)에 피란갔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곳을 김암(金巖)이라 일컬었다. 강희 11년(1672)에 이조참판이 증직되었다.

○ 김윤손(金允孫)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니 몸을 던져 쫓아가 왼손으로 호랑이의 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격살하여 아버지를 구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려 정려를 세웠다.

ㅇ 김응벽(金應璧)

아우 김응규(金應奎), 김응정(金應井)과 더불어 모두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버지 상을 당하여 세 사람은 묘 곁에서 시묘를 하였는데 사나운 바람과 큰비가 쏟아져도 묘를 떠나지 않았고 항상 토계(土階) 위에 서서 곡을 하였다. 세 사람이 발을 디뎠던 곳에는 모두 깊이가 몇 마디쯤 뚫렸다. 하루 저녁에 풍우가 크게 몰아쳤는데 홀연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들으니 곧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놀라 나와서 보니 보이는 바가 없고 잠시 후 또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들이 신주(神主)를 안고 모두 나와서 살피자 얼마 후 북쪽 산 좌우가 무너져 여막을 덮쳤다. 또 한 마리 개를 길렀는데 이름은 신춘(神春)이었다. 시묘를 하다 집안 소식을 알고자 하면 세 사람은 반드시 개를 불러 이름을 써서 편지를 목에 매달아 각각 그 집으로 보냈다. 그러면 개가 능히 그 뜻을 이해하고 세 집으로 오고 갔는데 그 집에서 역시 개 목에 편지를 매달아 통지하였다. 상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침저녁으로 재계하고 가묘(家廟)에 참배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정려가 내렸다. 그 비는 부 남쪽 10리 금광제(金光堤) 위에 있다가 뒤에 숭덕전 서편으로 이건하였다.

ㅇ 김이홍(金以弘)

김이관(金以寬)의 아우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를 모시고 진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사하자 이홍은 시신을 찾아 돌아와서 슬픔을 다하며 초상을 치렀고 형과 더불어 묘소에서 시묘를 하였다. 이관은 상주의 몸으로 화왕산성에 달려갔고 이홍은 여막에서 상제를 마쳤는데 효행으로 참봉에 제수되었다.

ㅇ 김인학(金仁學)

본관은 월성이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하루는 부자가 소를 몰고 시장에 갔다가 늦게 산 고개를 넘어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앞을 막고 그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 그는 울면서 "네가 산군(山君)이면서 아비를 모르느냐. 우리 아버지를 해치지 말고 내 몸을 물고 가거라"고 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가 그 아버지를 버리고 도리어 그의 아들을 해쳤다. 이에 몰고 간 소가 성이 나서 호랑이를 쫓아내고 곧 본가로 달려가서 문 밖에서 슬피 울었다. 집안 사람들이 나와서 이를 보고 소가 방금 왔던 길을 쫓아가 보았다. 그 곳에 이르니 아버지는 살았고 아들은 죽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렸다. 이에 정려를 세우도록 하고 또 상으로 사료를 내려주며 소를 팔지 못하게 했다. 훗날 소가 죽자 그 마침내 소를 그의 묘 곁

에 묻었다. 정려비는 내동 진현동(進峴洞)에 있다.

○ 김일구(金鎰九)

본관은 경주이고 활성리에 살았다. 어머니가 병이 들어 북두성에 기도했는데 호랑이가 항상 그를 지켰다. 눈 속에서 산삼을 캐서 드리고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드리며 효성을 다했다. 시묘를 3년 간 했고 추천으로 사직서령에 올랐다. 이조판서를 증직하고 정려를 세우도록 했다.

○ 김정기(金禎琪)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후손이다. 집안은 가난하고 아버지가 늙었으나 힘써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맛 있는 음식을 다해 드렸다. 아버지가 여러 해 동안 병으로 고생하니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신인이 나타나 고하기를 "오류(五柳) 서쪽 산봉우리에 영약(靈藥)이 있는데 어찌 가서 구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가니 과연 한 뿌리의 영지(靈芝)가 있었다. 이를 제조하여 드리자 효험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 병이 매우 위중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3일 간 명을 늘렸다. 고을 사람들이 표문을 부(府)와 감영에 올렸다. 철종 신유년(1861)에 통정대부에 증직되었다.

○ 김준탁(金俊鐸)

자는 원문(遠聞)이고 수직으로 부호군에 올랐다.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섬겼으며 아버지 병이 위독해지자 옥산(玉山)에서 백일(百日) 간 기도를 드리니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환약을 내려주었다. 이를 드려서 효험을 얻었다. 상을 당하여 백일단(百日壇) 터에 장사지내고 종신토록 성묘하였다. 갑술년(1754)에 흉년이 크게 들었을 때 조(租) 백여 섬을 진휼하였다. 부윤 홍양호(洪良浩)와 더불어 시를 지으며 화답했다. 정조 때 영남유소(嶺南儒疏)에 참가하여 뇌옥(牢獄)의 화를 입었다. 예조참의에 증직되었다. 호는 서포(西浦)이다.

○ 김지련(金志鍊)

첨사 김호(金虎)의 후손이다.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아버지 병이 중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니 다시 회복하여 연명하였다. 그 효성을 나라에 알리니 정조 갑인년(1794)에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증직되었다.

○ 김최영(金最永)

자는 태겸(兌謙)이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우 김최연(金最衍)과 더불어 70세가 되도록 한 집에 살았지만 가정에 사사로운 말이 없었다. 아우가 죽으니 그의 2남 3녀를 양육하여 모두 성취시켰다. 처음 재산을 나눌 때 전택(田宅)과 노비 등 좋은 것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었다. 병자년 큰 기근 때 집안의 재산을 털어 이웃 마을 5백여 호(戶)를 진휼(賑恤)하며 은의를 베풀었다. 그의 사람됨은 기개가 높고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았다. 일찍이 서울에서 노닐 때 정상완(鄭相完)이 그를 매우 중히 여겼다. 철종 때 경주 부윤이 효우(孝友)와 재학(才學)으로 두 번이나 나라에 추천했으나 시의(時議)에 의하여 굴하였다. 작은 서재를 가연호(駕淵湖) 가에 짓고 편액을 남연당(南淵堂)이라 했다. 자호는 소소(笑笑)라 하고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올랐으며 유집이 있다.

○ 김치도(金致道)

자는 군화(君和)이고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어릴 때부터 효성과 우애를 알았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양식이 여러 번 떨어졌다. 그러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못 구하는 것이 없었고 섶나무를 지고 팔아서 쌀을 사서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종양을 앓았다. 그가 밤에 두성(斗星)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니 홀연히 약봉지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으로써 효험을 얻었다. 어머니가 이질로 고생할 때 의원이 "토끼 고기가 좋습니다"라고 했다. 그가 막 토끼를 구하러 나가자 집의 개가 토끼를 잡아 왔다. 이러한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 김치홍(金致洪)

본관은 김녕이다. 어릴 때부터 어버이를 친애할 줄 알아서 과일 하나와 고기 한 점이 있어도 먼저 입에 넣지 않았고 성장하여 어버이의 지체(志體)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여러 해 동안 병을 앓으니 아내 이씨와 더불어 단을 쌓아 하늘에 기도하였다. 병이 위중하자 그와 아내가 모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마침내 아버지가 장수를 누릴 수 있었다. 고을에서 모두 칭찬하여 "이러한 남편이 있음으로써 그러한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경주부와 감영에 품의하여 포상이 있었다.

○ 김헌식(金憲植)

자는 천진(天眞)이고 김준탁(金俊鐸)의 손자다. 기계현에 살았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을 다해 섬겼다. 어머니가 병석에 있으면서 산 꿩

고기를 먹고자 했다. 마침 눈이 많이 내리는 날 하늘에 빌었는데 홀연 꿩이 뜰에 날아들었다. 이를 드리니 병이 나았다. 그가 일찍 죽고 아내 곽씨가 혼자되었다. 늙은 시어머니가 안방에 있고 어린 아이는 젖을 먹고 있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이 들자 단을 쌓아 하늘에 오래 살기를 빌었다 .이러한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김헌식이 돈녕부도정에 증직되고 정려를 세우도록 했다. 그의 호는 농재(農齋)다.

○ 김현술(金顯述)

본관은 김해이다. 효성을 다하여 어버이를 섬겼고 상을 당하여 시묘하며 상례를 마쳤다. 효행으로 영릉 참봉에 제수되었다.

○ 김형주(金亨周)

자는 응범(應範)이고 김최영의 아들이다. 효성과 우애는 본래 타고났다. 아버지를 섬길 때 지극한 봉양을 다했고 형 김형하(金亨河)와 더불어 우애가 두터웠다. 그의 형이 수 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니 그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탕재를 끓이며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음식을 들 때 반드시 형이 먼저 숟가락을 드는 것을 기다린 후에 조금 먹었다. 형이 끝내 죽으니 애통해 하며 상제(喪制)를 따랐고 어린 조카를 자신의 아이들처럼 보살폈다. 그들이 성장하여 재산은 나누어주지 못했으나 집안에 사사로운 말이 없었고 한 가문이 화목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우를 관아에 알려 포장(褒狀)이 있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오로지 위기(爲己)의 공부에 마음을 두었고 만년에 만회실(晩悔室)이라는 작은 집 한 간을 지어 후생을 가르쳤다. 수직으로 통정대부에 오르고 유고가 있다.

○ 남득온(南得溫)

어머니가 죽고 3년 간 시묘를 하였다. 태종 때 그 마을에 정려를 세웠다.

○ 박광락(朴光洛)

박광립(朴光立)의 막내아우이다. 형 박광국, 박광교와 함께 근검으로 집을 다스려 어버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형에게 유학을 권하여 이름을 날리게 했다. 늙어서 분가해 살면서도 조석으로 가서 안부를 물었다. 아들 박기수 또한 어버이를 지성으로 봉양하고 아우와 더불어 화락하였다. 수직으로 돈녕부도정을 받았다.

○ 박언목(朴彦穆)

본관은 밀양이다. 병이 위중한 아버지가 산 꿩과 겨울 잉어를 먹고자 했다. 그는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리니 마침내 꿩과 잉어를 얻어 봉양하였다. 또 어머니 병이 심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회생시켰다. 여러 번 관아의 포상을 받았다.

○ 박언수(朴彦秀)

본관은 월성이다. 성품이 충효스러워 부모를 잘 섬겼다. 임진왜란 때 신라 시조왕의 위패를 봉안하여 선도산 성모사(聖母祠) 곁으로 피난시키니 그곳에는 항상 검은 안개[玄霧]가 짙게 덮이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 난이 평정된 후 도로 봉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려 특별히 시조묘(始祖廟) 참봉에 제수되었다.

○ 박영간(朴榮幹)

본관은 밀양이고 죽장현에 살았다. 아버지가 병으로 눈이 멀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이들 부부는 밭 갈고 베 짜며 봉양했다. 한여름에 나무 그늘을 따라 아버지의 자리를 옮겨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린 딸이 할아버지 뒤를 따라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는 알지 못했는데 이들 부부는 슬픔을 끼쳐 드릴까 두려워하여 죽은 딸을 몰래 땅에 묻었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 장하게 여겨 관아에 알려 포창하였다.

○ 박영곤(朴永坤)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덤벼들자 그는 도끼로 호랑이를 쳐서 죽이고 어머니를 구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관부에 알려지니 호역을 면해 주었다.

○ 박인화(朴仁華)

박광립의 종손이다. 어머니가 병석에서 십 년을 신음하자 그는 제단을 만들어 하늘에 기도하며 그 고통을 대신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상을 당하여 시묘하니 밤에 호랑이가 와서 호위해 주었다. 또 매년 4월 8일에는 절에 들어가 임금님의 수명을 빌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부에서 포상을 내렸다.

○ 박정찬(朴貞燦)

본관은 무안이다. 어릴 때부터 어버이를 곁에서 성인처럼 섬기니 이웃 사람들이 '효동(孝童)'이라 일컬었다. 성장해서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양식을 이을 수 없었다. "어버이를 모시는 사람이 어찌 땔나무를 해서 팔고 남의 품삯으로 생활하겠는가"라고 탄식하고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했다. 마침내 손과 발에 굳은살이 생겼으나 극진히 봉양하였다. 일찍이 눈이 온 뒤 반찬을 구하기 위해 집 앞을 나가니 홀연 산토끼가 앞에 엎드렸다. 이를 찬으로 드렸고 어머니 기일에 꿩이 집안에 날아들어 제수로 받들었다. 사림에서 경주부와 감영 및 암행어사에게 품의하였는데 포창의 제사(題辭)가 있었다.

○ 박진수(朴震秀)

자는 문익(文益) 본관은 무안이다. 정성을 다해 어버이를 섬겼고 어머니가 머리에 종기를 앓으니 어머니의 아픔을 자신이 대신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아버지가 또 낙상을 입자 대변을 맛보며 증세를 살피고 약을 구해 와 시탕했다. 부모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하니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효자곡(孝子谷)'이라 불렀다. 그는 또 가난한 친척 돌보기를 좋아하여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사람에게 밭을 사서 주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게 했다. 두계(斗溪) 가에 정사(精舍)를 짓고 시를 읊으며 즐겼다. 유고가 있다.

○ 박찬상(朴贊相)

자는 준원(俊元)이고 호는 율산(栗山)이다. 행실이 지극히 올발랐고 집은 가난하고 어버이는 늙었으나 섶을 팔아 쌀을 사서 맛있는 음식으로 받들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이 그 아픔을 대신해 달라고 단을 쌓아 기도했다. 온 마을에서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포장(褒狀)을 올리려 했으나 그가 힘써 저지하였다. 그의 학도들이 천태재(天台齋)을 지어서 이 사실을 기록했다.

○ 박춘우(朴春遇)

자는 양중(陽重)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여헌 장현광 문하에서 글을 배웠고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자 3년 간 시묘하고 어머니 초상 때도 또한 같이 하였다. 인조 무진년(1628)에 훈련원 주부로서 시무(時務) 12조를 올렸다. 임오년(1642)에 부윤 박수홍(朴守弘)이 의풍루(倚風樓)를 짓고 동방회(同榜會)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 의풍루에 걸었는데 박춘우도 또한 참여하였다. 벼슬은 부사(府使)에 이르렀고 치적(治績)이 있다. 호는 구봉(九峯)이다.

○ 박춘화(朴春華)

본관은 밀양이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이 "물고기를 오래도록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그는 눈비를 피하지 않고 고기를 잡았다. 어느 날 돌 게[石蟹]를 잡으려고 계곡을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동하여 산에 올라가 산삼을 캐서 신기한 효험을 얻었다. 어머니 병환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환생시켰다. 부윤 이능섭(李能燮)이 관찰사에게 알려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었다.

○ 박희남(朴希楠), 박희장(朴希樟), 박희정(朴希楨)

3형제는 모두 효성이 있었다. 아버지가 죽으니 3년 간 시묘하고 복을 마쳤으나 오히려 흰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곡(哭)하며 제사를 드리고 다시 3년이 지난 뒤 그만두었다.

○ 서사원(徐思遠)

부 서쪽 현곡촌(見谷村)에 살았다. 임진왜란 때 그의 아버지가 해를 입으니 그는 맹세코 원수를 갚고자 상중인데도 몸을 던져 스스로 군사를 모아 적진으로 달려갔다. 이에 종중이 모두 말렸으나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난중에 죽었는데 아들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어찌 아들이라 하겠는가"라고 하고 곧 노비 5명을 거느리고 대진(大陣)으로 따라가 힘써 싸우다 죽었다.

○ 손만걸(孫萬杰)

자는 사일(士一)이고 본관은 월성이다.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었을 때 10리 밖을 나가서 약재를 구하여 늦게 돌아오니 호랑이가 길을 막았다. 그는 아버지 병환이 위급하다고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 호랑이를 깨우쳐 이르니 호랑이가 피하고 보이지 않았다. 부친의 병이 심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회생하게 했다. 어느날 어머니 병이 심했을 때 또한 손가락을 잘랐다. 효행으로 암행어사의 추천을 받았다.

○ 손성회(孫星晦)

자는 태보(台甫)이고 사정 손숙일(孫夙日)의 손자이며 영릉 참봉을 지냈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 병환 때 똥을 맛보며 증세를 살폈고 하늘에 빌어서 5년 간 더 살게 하였다.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시묘했다. 그의 효행으로 부윤이 표상을 내려 호역(戶役)을 감면했다. 그가 시묘하던 여막은 재사(齋舍)가 되었다.

○ 손시(孫時)

자는 순백(順伯)이고 본관은 월성이다.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받들고 조석으로 맛있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렸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목욕하고 하늘에 절을 하면서 어머니가 오래 살도록 축원하였다. 임진왜란 때 화왕산성회맹에 참가하고 많은 전공을 세웠다. 원종 2등 공신에 녹선되었고 녹권(錄券)이 있다.

○ 손진(孫眞)

두 딸은 기계현 기계리에 사는 절간의 종이었다. 큰딸 사옥(四玉)은 나이 20세이고 둘째 딸 예분(禮分)은 나이 13세였다.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느날 밤에 어머니가 문 밖으로 나갔는데 호랑이가 그를 낚아채어 뜰 가운데서 포효하고 있었다. 두 딸이 백 근의 나무를 직접 지고 손에는 뜨거운 화목(火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불을 던졌다. 이에 호랑이가 놀라서 울부짖으며 가버리자 어머니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웃이 이러한 사실을 관에 알려 완문(完文)을 성급(成給)해 두었다.

○ 오경노(吳敬老)

자는 덕수(德叟)이고 호는 경서제(敬恕齊)이며 본관은 고창이다. 문사 오세재의 후손이다. 중종 21년(1526)에 특제감찰(特除監察)을 지냈고 선조 때 함창현감(咸昌縣監)을 지냈다. 그는 평소에 효성이 지극했다. 그는 선조 신묘년(1591)에 사마시에 합격한 장남 절(嶄)과 임란에 우병장으로 활동한 3남 심(愖)과 4남 열(悅)을 두고 선조 24년(1590) 8월 11일 65세로 죽었다.

○ 오성건(吳成建)

본관은 해주이다. 7세 때 어머니가 등창을 앓으니 그가 종양을 빨아서 효험을 얻었다. 어머니가 또 급한 증세를 일으켜 쓰러지자 그는 때마침 땔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왔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다가 어머니 몸 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한 줄기의 선혈이 그의 입에서 나와 어머니 입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어머니는 회복되고 이로 인하여 그는 지나친 피를 쏟아내 한 쪽 눈을 잃었다. 사림이 그의 효성을 가상하게 여겨 경주부와 감영에 알리니 예조에서 포상(褒賞)을 내렸다.

○ 오심(吳 愖)

현정(玄靜) 오세재(吳世才)의 후손이요 함창현감 오경로(吳敬老)의 아들이다.

난중에 3년 시묘를 마칠 때 찾아온 제의병장이 제승방략(制勝方略)을 물었다. 이에 형 변(忭) 아우 열(悅)과 함께 임진란에 창의하여 의병장 견천지(堅川至) 이눌(李訥) 김응생(金應生) 제장과 함께 싸워 전공을 세웠다. 당세에 충효겸전으로 향내에 이름을 떨쳤다.

○ 오씨(吳氏)

김재성의 아내이다. 일찍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봉양했다. 반찬이 떨어져 울며 걱정하니 문득 꿩이 뜰에 날아들었고 16년 간 병을 보살피며 온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상을 당하자 관부에서 보리 한 섬을 주고 호역을 감면해 주었다.

○ 오여번(吳汝蕃)

오세재(吳世才)의 후손이고 부 북쪽 사방촌(士方村)에서 살았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자급할 수 없으니 몸소 농사를 짓고 그의 아내는 길쌈하여 어머니를 받들었다. 어머니가 죽으니 슬픔과 예를 다했다. 이어서 묘 곁에서 여막을 짓고 살면서 한 번도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국상(國喪)을 당하면 3년 간 복을 입었고 그 스승을 위하여 3년 간 심상(心喪)하였다. 스승의 제사 때와 기일(忌日)에는 반드시 쌀과 제수를 도와주며 제사에 참여하였다. 그가 죽자 아들 오긍(吳兢)이 쌀과 제수를 아버지가 있을 때와 같이 도와주니 집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오긍이 울면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 예를 차마 폐할 수 없다"라고 하고 마침내 애써 진봉하니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이라고 말했다.

○ 우정택(禹鼎宅)

상묵리(上墨里)에서 살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어버이를 섬겼다. 철종 경술년(1850)에 그의 아버지가 선산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화염을 무릅쓰고 달려갔다. 그런데 바람이 사납고 불길이 치솟아 그를 사방으로 에워싸니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 하였다. 정택은 바깥에 나가 있다가 이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와 불 속으로 뛰어드니 사람들이 모두 말렸다.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선조를 위해 죽으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죽는 것이 사람의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고 곧 불 속으로 들어가 옷을 벗어 아버지를 감싸 업고 나왔다. 그의 온 몸은 불에 탔으나 아버지는 생명을 보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3일 후 죽었다. 사림에서 경주부와 감영에 포장(褒狀)하는 글을 올려 여러 번 가상하다는 제사(題辭)를 받았다.

○ 윤병은(尹秉殷)

본관은 파평이다. 그의 아우 윤상은(尹相殷), 윤보은(尹輔殷), 윤명은(尹鳴殷)과 더불어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어머니가 70세에 병으로 두 눈이 모두 멀었고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따라서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식사를 하고 대, 소변을 볼 수 있었다. 형제 네 명이 차례로 시봉하며 온갖 정성을 다해 공양하고 백방의 약을 구해 드리니 멀었던 눈이 다시 밝아지고 마비되었던 수족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려 호역(戶役)을 감면 받았고 수직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 윤씨(尹氏)

통정대부 최민호(崔玟琥)의 아내다. 천군리에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학질에 걸렸다. 윤씨는 자신이 그 아픔을 대신하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고 넓적다리를 베어 드리니 병이 곧 나았다.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성에 감탄하여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포상하였고 관아에서 고기와 쌀을 보내왔다.

○ 윤주백(尹周伯)

자는 평중(平仲)이고 사평 윤좌은(尹佐殷)의 5세손이다. 아버지를 섬기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뜻을 즐겁게 해드리는데 힘썼다. 아버지가 병을 앓으니 단(壇)을 만들어 밤마다 기도를 드렸으나 1년이 지나 병이 더욱 심해졌다. 오른쪽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으나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또 왼쪽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서 회생시켜 3년 간 더 살았다. 효행으로 사간원 정언에 증직되었다. 호는 월은(月隱)이다.

○ 윤형은(尹衡殷)

자는 평중(坪仲)이고 본관은 파평이다. 부모를 잘 섬기니 그의 아내 우씨(禹氏)도 또한 효성이 지극했다. 시어머니가 병으로 눈이 멀자 매양 음식을 드릴 때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한 겨울에 시어머니가 생채(生菜)를 먹고 싶어했다. 우씨는 광주리를 가지고 눈을 밟으며 들에 나가 하늘에 기도를 드리니 홀연 생채를 광주리에 가득하게 얻었다. 곧 집으로 와서 공양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포장(褒狀)을 올리니 관찰사가 제사(題辭)를 내려 기렸다.

○ 이경택(李景澤)

이경해의 아우이며 형제 네 사람이 모두 무과에 올랐다. 앞서 형이 먼저 벼슬

길에 나아가자 경택이 말하기를 "내 또한 벼슬에 나간다면 누가 어버이를 모시겠는가"라고 하고 항상 어버이 곁에 있으면서 손수 약을 지어 드리고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뒤 경택이 먼저 죽으니 그 형들은 노모의 마음이 상할까 두려워하여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 인조 때 이를 예조가 청하여 특별히 포상을 내렸다.

○ 이경한(李景漢)

판윤 이지대(李之帶)의 5세손이고 호는 청와(淸窩)다. 향청(鄕廳)에 그의 충효에 대한 글을 판본으로 새겨 걸었다. 그는 부조묘(不祧廟)에 모셔졌기 때문에 제사 받드는 후손은 모두 연호군(烟戶軍)을 면제받은 예(例)에 적용되었다. 임란 때 많은 공을 세웠고 이괄의 난에 원종공신으로 녹선되었다. 품계는 자헌대부에 이르렀고 여러 번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후에 숭정대부 판중추부사에 증직되었다. 이경한(李景漢), 이경호(李景湖), 이경택(李景澤) 형제는 안강현 안강리에 살았다. 모두 효성과 행실이 뛰어났고 무과에 합격하였다. 경택은 두 형이 먼저 벼슬에 나가고 자신도 또한 벼슬에 나가면 어버이를 모실 사람이 없다하고 다시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다. 경택이 먼저 죽으니 경한과 경호는 노모가 애상(哀傷)해할까 두려워하여 차마 알려 드리지 못하고 다른 말로 둘러대고 숨기니 듣는 사람들도 슬퍼하였다. 인조 때 조예에서 임금에게 글을 올려 특별히 포상(褒賞)을 더했다.

○ 이광복(李光復)

본관은 월성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조모를 지성으로 받들었다. 조모가 등창을 앓으니 이를 빨아서 치유했다. 사실이 감영에 알리자 호역을 감면해 주었다.

○ 이광익(李光翼)

기계현에 살았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고 손으로 온돌을 만져보고 방이 차가우면 비록 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 직접 불을 피워 따스하게 하였다. 그러다 하루는 회오리바람이 불길을 거슬러 나와 그의 수염을 태웠다. 어떤 어진 의원(醫員)이 서울에서 내려와 삼척(三陟)에 잠시 살았고 또 인삼이 그 곳에서 생산되었다. 그는 이 소문을 듣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약간의 베를 마련하여 삼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 증세를 묻고 인삼을 사서 돌아오니 왕복 7일의 여정이었다.

어머니 병이 위독해지자 한겨울에도 밤에 목욕하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어머니 상을 당하여 슬픔과 예를 다하고 3년 간 죽을 먹었다. 그리고 몇 간의 집을 부모 무덤 아래에 짓고 종신토록 추모의 정을 잊지 않았다. 선적(善籍)에 올랐고 여러 번 향천(鄕薦)에 들었다.

○ 이교(李皦)

이의징(李宜澄)의 아들이고 자는 광원(光遠)이다.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고 힘써 글을 읽었으며 한강(寒岡) 정구(鄭逑)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학문과 행실로 여러 번 향천(鄕薦)에 들었고 계모를 잘 섬기며 그 효성을 다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선적(善籍)'이라 쓰고 사실을 나라에 알려 호역(戶役)을 감면받았다. 호는 묵암(默庵)이다.

○ 이군보(李君寶)

자는 문요(文饒)이고 본관은 월성이며 품성이 준수하였다. 외조부인 충재 권벌이 그를 보고 기특하게 여겨 먼 장래를 기대했다. 성장하여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고 맛있는 음식을 두루 갖추어 드리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어버이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하니 사람들이 그 곳을 효막동(孝幕洞)이라 일컬었다. 명종 때 능서(陵署)에 제수되었다.

○ 이규상(李奎相)

본관은 월성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겼다. 어머니 병환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음식을 끊은 채 7일 동안 하늘에 기도하니 이에 병이 나았다. 고을 사람들이 이를 알고 관부에 글을 올려 포상을 받았다.

○ 이능겸(李能謙)

이재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대변을 맛보며 증세를 살폈고 상을 당하여 예(禮)에 따라 상사를 치렀다. 아버지의 유명(遺命)으로 빈곤한 사람을 크게 구휼했다. 이에 혜택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그 은혜를 기록하고자 했으나 능겸은 그 비석을 땅에 묻고 못 세우게 했다. 또 정자를 짓고자 하니 그가 마지못하여 말하기를 "구휼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지(遺志)이시다"라고 하고 선정(先亭)이라 하며 편액을 옥서정(玉西亭)이라 했다. 자봉(紫峯) 정석호(鄭錫祜)가 전기를 지었다. 호는 포애(浦厓)다.

○ 이도겸(李道謙)

자는 호여(好汝) 호는 구봉(九峯)이고 본관은 월성이다.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고 선비들 사이에 중망이 두터웠다. 저술로 『충효설(忠孝說)』과 의례(疑禮) 등 글이 있고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어머니 병환이 위독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고 상을 당하여 3년을 시묘하였다. 평생토록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를 빠뜨리지 않았고 항상 국기일(國忌日)을 만나면 반드시 3일 간 소찬으로 먹었다. 고종 기사년(1869)에 사림이 나라에 글을 올려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되었다.

○ 이도(李壽)

직장 이의온의 손자이다. 천성이 지효하여 7세에 외조 이영도에게 수학하여 글을 읽다가 효(孝) 자에 이르러 "이 글자는 평생으로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두 아우와 함께 우애가 돈독하여 서로 책상을 맞대고 문학에 뜻을 세워 각기 성취함을 얻었다. 숙종 을묘년(1675)에 그는 효우와 학행으로 천거되어 목릉참봉이 제수되었다. 몽애서당을 지어서 후학을 지도하였다. 유고가 있다. 두 아우 중 이리는 수직으로 첨중추가 되고 이심은 수직으로 가선대부에 올랐다.

○ 이동춘(李東春)

본관은 경주이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콩과 물[菽水]마저 공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찍이 섶나무를 팔아서 맛 있는 음식을 사다 드렸는데 그만 어깨에 종기가 발생하였다. 아내 김씨도 또한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니 온 고을에서 그들을 칭찬하는 표상(表賞)이 있었다. 아들 이문영(李文榮)도 또한 효성스러워 어머니 병환 때 3년 간 아우 이선영(李善榮)과 함께 밤낮으로 곁에서 모시며 대변을 맛보며 증세를 살피고 시탕했다. 어머니가 또 머리털 사이에 종기가 심하니 형제가 번갈아 가면 농을 빨아내었다. 이웃 마을에서까지 칭찬하였다.

○ 이면(李葂)

두촌(杜村) 이팽수(李彭壽)의 손자다.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며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고 순종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게 여겨 여러 번 포장(褒狀)을 올렸다. 현종 때 효행으로 사헌부 감찰에 증직되었다.

○ 이문초(李文初)

자는 성욱(聖郁)이고 두촌 이팽수의 후손이다. 어릴 때부터 병으로 눈이 멀었으나 지성을 다해 부모를 섬겼다. 겨울이면 초목을 채집하여 온돌을 따뜻하게 하였고 여름이면 부채를 가지고 밤낮으로 시원하게 해 드렸다. 부모가 스승에게 나아가 글을 배우게 하니 그가 울면서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은 저의 본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릇의 숫자를 손으로 더듬어 그 음식을 직접 맛보았다. 부모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며 예를 다하고 묘가 수십 리 밖에 있었으나 풍우에도 매월 가서 성묘하였다. 주위에서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려 잡역을 감면해 주었다.

○ 이변룡(李變龍)

본관은 옥구(沃溝)이고 참의에 증직된 이희룡(李希龍)의 형이다.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뛰어나 어버이를 섬길 때 정성을 다하고 초상 때 상례를 다하였다. 아우 이희룡(李希龍)과 더불어 무덤 아래 여막을 짓고 3년 간 시묘하고 석 달을 더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이를 찬미하여 그가 살던 집을 효애당(孝愛堂)이라 하고 그 묘 곁에 여막이 있던 골짜기를 가르쳐 효막곡(孝幕谷)이라 했다. 효행과 청렴으로 향천(鄕薦)을 받아 습독(習讀)에 제수되었다.

○ 이상백(李尙白)

자는 문언(文彦)이고 본관은 영천이다. 아버지의 병이 심해지자 지성으로 시탕하니 꿈에 신인이 나타나 "수계(水鷄)를 쓰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수계를 구하려 했으나 찾지 못하자 하늘을 보고 계속 울었다. 그 때 홀연 솔개가 수계 한 마리를 떨어뜨렸다. 이를 아버지에게 드리니 과연 병이 나았다. 사림이 그의 선행을 표창하고 관에서 그의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었다.

○ 이세번(李世蕃)

본관은 경주이다. 어버이 병이 깊으니 똥을 맛보며 증세를 살필 정도로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마침내 어버이가 죽으니 3년 간 시묘하고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집안에 화재가 있어도 달려가 구하지 않았다. 인조 때 사실을 조정에 알려 동몽 교관에 증직되었다.

○ 이시강(李是橿)

자는 사연(士然)이고 지헌 이철명(李哲明)의 5세손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

러워 정성을 다해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부모 상을 당하여 시묘하며 상제(喪制)를 지키니 사나운 짐승이 그를 호위하는 특이한 일이 있었다. 후세 사람들이 그 터를 가르쳐 '효막등(孝幕嶝)'이라 말했다. 숙종 때 특별히 사근 찰방(沙斤 察訪)에 제수되어 치적을 남기니 우승(郵丞)을 맡은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덕을 기렸다. 호는 수암(修庵)이다.

○ 이암(李巖)

자는 경첨(景瞻)이고 농재(聾齋)의 현손이다. 아버지가 병으로 여러 달 누웠으니 그는 옷을 벗지 않고 직접 시탕(侍湯)을 했다. 상을 당하여 슬피 울다 그만 기절하였다가 다시 일어났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받들었다. 맛 있는 음식이 있으면 소매 속에 넣어 와서 봉양하였다. 현종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 숙종 때 추천되어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다고 글을 올리고 귀향하니 방백(方伯) 이담명(李聃命)과 상국(相國) 권대운(權大運)이 편지를 보내 하례하며 말하기를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성이 간절하여 감동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였다.

○ 이양호(李養浩)

자는 사집(士集)이고 본관은 월성이다. 하늘에서 효성을 타고나서 어버이가 병이 났을 때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아 봉양하였다. 상을 당하여 3년 간 죽을 먹으니 경주부윤이 쌀과 고기를 보냈다. 정자를 덕계(德溪) 용연(龍淵)에 짓고 "종신토록 부모를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영모재(永慕齋)라 편액을 붙였다.

○ 이용경(李容駉)

자는 낙유(樂有)이고 남계 이태립의 후손이다. 형제 네 사람이 우애가 두터워 늙음에 이르도록 같이 살았다. 재산을 나눌 때 전답과 집 등 좋은 것은 모두 형과 두 아우에게 양보하고 스스로 척박한 것을 택하여 가졌다. 또한 높은 의(義)로써 이웃을 구휼하였고 족친 가운데 가난하여 혼인과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곧 재산을 기울여 도와 주었다. 일찍이 경제(經濟)에 뜻을 두었다. 을사년(1929)에 영지(影池) 옛 못을 증축할 때 3년 동안 감역(監役)을 맡아 준공하였다. 따라서 수 천 경(庚)의 온 들녘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몽리(蒙利)한 바는 매우 많았다.

○ 이용우(李容佑)

자는 규복(奎復)이고 본관은 청안이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해를 넘기자 밤낮으로 시탕하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회생시켰고 상을 당하여 읍혈로 지내며 나물밥을 먹으니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집안 사람들이 잘린 손가락을 땅에 묻으려 하자 그는 울면서 "부모의 유체를 곧 버릴 수 없다. 내가 죽은 뒤 끊어진 손가락에 다시 이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 고을 사람들이 그의 효성에 감탄했다.

○ 이우남(李友枏)

부 북쪽 모서평촌(茅西坪村)에서 살았다. 술, 고기 등 음식으로 형을 잘 섬겼고 조카를 돌보면서 특별히 노비를 분급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그를 선적(善籍)에 기록하였다.

○ 이우춘(李遇春)

안강현 동쪽 양좌촌에 살았다.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어머니의 병이 중하여 피난할 수 없었다. 우춘이 어머니를 업고 숲 덩굴 속에 모셔두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숨어 있었다. 적들이 달려와 칼을 휘두르며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니 그는 황급히 달려가 몸으로 어머니를 가리며 보호하다 모두 죽었다.

○ 이운발(李運發)

본관은 월성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가 병이 났을 때 자신의 다리 살을 베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드려 수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리자 나라에서 그 집에 조세를 감면하게 하고 그를 동몽교관에 증직했다.

○ 이운형(李運衡)

자는 평옥(平玉)이고 호는 야일당(野逸堂)이며 이회경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정성(定省)을 빠뜨리지 않았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오로지 독서에 힘쓰니 아버지가 그의 서재를 자화재(子和齋)라고 지었다. 본성이 또한 베풀기를 좋아하여 남이 빈궁한 것을 보면 자신의 의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따라서 가난한 집안의 자제들이 그에게 배운 사람이 많았다. 일찍이 6백 섬의 곡식으로 한 면의 빈민들에게 진휼하니 지금도 사람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고 있다.

○ 이월서(李樾瑞)

본관은 월성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함에 자신이 스스로 나무하고 나물을 캐어 반찬을 해 드렸다. 어머니가 병환에 꿩고기를 먹고자 하니 꿩이 뜰에 날아오고 노루고기를 찾으니 노루가 덫에 들어왔다. 조정이 이를 듣고 동몽교관을 추증했다.

○ 이재규(李在珪)

본관은 여주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극진한 효성으로 섬겼다. 어머니가 병이 들었을 때 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니 병이 마침내 나았다. 어머니가 배를 좋아했는데 쌓은 단 아래에서 홀연히 배나무가 자라 결실하니 사람들은 이를 효성에 감응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우애가 매우 두터워 백씨와 계씨(季氏)가 먼저 죽은 것을 애통하게 여겨 벽 위에 「상체시(常棣詩)」를 걸어두고 날마다 세 번씩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선비들이 그의 효행을 나라에 알리려 했으나 그가 힘써 저지하여 행하지 못했다. 『화악당유집(華萼堂遺集)』이 있다.

○ 이정배(李廷培)

자는 충중(忠仲)이고 호는 필어당(必於堂)이며 본관은 청안이다. 어느 날 호랑이에게 물린 노루를 구하여 아버지 병을 치료하였고 눈 속에서 얼마의 쌀을 구해서 아버지의 주림을 구제하였다. 그의 효행으로 사림이 모두 감탄하여 시를 지어서 찬미하였다.

○ 이정하(李正厦)

본관은 월성이고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별미를 얻으면 반드시 그 어버이께 드렸다. 그의 아내도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했다. 그리고 겨울에는 따스하게 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 드리며 어버이가 병이 들었을 때 정성을 다해 약을 구하여 시탕하니 온 마을에서 칭송하였다. 일찍이 잘못을 범하여 옥에 갇혔다. 암행어사가 그의 효행을 조사하여 살펴본 후 곧 죄를 면하게 했다.

○ 이하곤(李河坤)

본관은 월성이다. 어머니 나이 80여 세에 우연히 학질에 걸려 백방으로 약을 썼으나 효험이 없었다.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드렸고 또 넓적다리를 베어 회를

만들어 드리니 마침내 병이 나아서 천수를 다했다. 상을 당하여 예제(禮制)를 한결같이 따랐고 읍혈로 3년을 보냈다. 아침 저녁으로 묘소에 참배하고 사나운 풍우에도 이를 그만두지 않으니 사림에서 여러 번 포장을 올렸다.

○ 이학해(李學海)

본관은 청안이다. 8세에 어머니가 역질에 걸려 가족이 모두 피해 나갔다. 그러나 그는 혼자 남아 병을 돌보며 하늘에 기도하고 초상을 당하여 슬픔을 지나치게 하였다. 감사가 조정에 알리어 동몽교관이 추증되었다.

○ 이협(李協)

본관은 여주이다. 어머니 병환으로 7년 동안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초상에는 슬픔을 다하였다. 아버지를 봉양함에 그 뜻을 순종하여 문밖을 나다니지 아니했다. 상을 당해서는 3년 간 예를 다하고 새벽마다 알묘하여 늙어서도 폐하지 않았다. 또한 두 아우와 함께 우애가 독지하여 침식을 같이하였다. 효행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이 추증되었다.

○ 이호영(李昊榮)

자는 천필(天必)이고 호는 구와(懼窩)이며 본관은 월성이다. 어머니가 일찍이 발제[髮際, 민간에서는 빨지라 함]를 앓았는데 여러 달 동안 시탕하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종기를 빨아서 완치시켰다. 아버지가 흉복통 증세가 심해지자 하늘에 축원하며 자신이 그 아픔을 대신해 달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자라 목에 달린 구슬을 구해 치료하면 효험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마침내 그는 울면서 바다에 나가 기도하니 홀연 한 마리의 자라가 물가에 나타났다. 이에 구슬을 얻어 돌아와서 드리니 곧 병이 나았다.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리니 그 마을에 정려비를 세우도록 명하고 동몽교관을 제수했다.

○ 이효증(李孝曾)

안강현 동쪽 유금촌(有今村)에 살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심으로 봉양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었으나 힘써 맛있는 음식을 구하여 드렸다. 혹 흉년이 들어서 봉양함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고 밤이면 어머니 곁에서 모시며 안부를 묻고 시종 게을리하지 않았다. 초상을 당하여 상제(喪祭)의 예를 다하고 3년 이내에는 시묘 밖을 나가지 않으니 몇 고랑의 밭이 황폐하기에 이르렀다.

○ 장막동(張莫同)

그 계모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다. 어머니가 죽으니 3년 간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상례를 마친 뒤 다시 3년 간 복을 더 입었다. 임진왜란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가 많은 공을 세워 충과 효를 다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려 정려가 내리니 그 비석은 부 동쪽 5리에 있다.

○ 장수의(張守義)

본관은 인동이고 신광현 마북리(馬北里)에 살았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는데 15세 때 일찍 돌아가신 부모를 애통하게 여겨 3년 간 복을 입었다. 경신년(1920) 국상 때 아우 장수인(張守仁)과 더불어 곡을 하며 부모상을 당한 것과 같이 하고 3년 간 풀로 만든 빈소에 살면서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국상 때 천리를 멀다 않고 대궐에 나아가서 곡하니 사림이 그의 충효로를 기려 여러 번 나라에 글을 올렸다.

○ 정남(鄭楠)

자는 두응(杜應)이고 문충공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니 온 마을이 그를 '정효아(鄭孝兒)' 라고 일컬었다. 아버지가 병이 들자 자신이 아버지의 아픔을 대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백일 간 하늘에 빌었다. 인조 때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려 정릉 참봉에 제수되고 후에 가선대부에 증직되었다.

○ 정선용(鄭善鎔)

본관은 영일이고 문충공의 후손이다. 어릴 때부터 어버이를 잘 모실 줄 알았고 어머니 병이 위중해졌을 때 그의 나이 12세였다. 밤이면 정화수(井華水)를 떠놓고 하늘에 빌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이 점차 심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환생시켰다. 관아에서 어린아이가 이와 같이 출천(出天)의 효성이 있다고 더욱 더 가상하게 여겨 포상을 내렸다.

○ 정시구(鄭時玖)

본관은 동래이다. 학문에 독실하였고 어버이께 효도하고 곁에서 모실 때 멀리 나가서 놀지 않았다. 상을 당하여 어육(魚肉)을 먹지 않고 3년 간 죽을 먹으며 나이 80세가 넘어서도 성묘를 계속하였다. 고을에서 그의 효성을 칭찬하였고 수직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 정연길(鄭延吉)

부 서쪽 부산촌(富山村)에 살았고 본관은 영일이다. 그의 형 정연경(鄭延慶)과 함께 우애가 독실하였다. 임진왜란 때 형이 적병에 잡힌 몸이 되자 연길은 황급히 달려가서 형틀을 빼앗아 스스로 지고 자신이 형을 대신하여 먼저 앞길로 달려가니 적들이 곧 형을 버리고 아우를 붙잡아 갔다. 이에 한 줄의 새끼줄로 그의 손을 묶어 무리를 지어서 끌려가며 도망하는 자를 방치하였다. 이 때 잡혀가는 사람 가운데 한 남자가 그를 의롭게 여기고 슬퍼하였는데 적들이 잠깐 잠자는 사이에 정연길이 묶은 새끼줄을 풀고 그의 손을 스스로 매며 말하기를 "그대는 빨리 가시오.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소."라고 하였다. 마침내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 역시 한 의사(義士)였다.

○ 정연성(鄭延性)

부 서쪽 부산촌(富山村)에 살았고 본관은 오천이다. 3년 간 어머니 상을 치렀고 5년 간 아버지 상례를 입었다. 서모(庶母)에 의탁하여 아직 약관도 되지 않았지만 부모를 위하여 3년 간 상복을 더 입었다. 고을 사람들이 선적(善籍)에 썼다.

○ 정치익(鄭致翼)

본관은 영일이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음식을 얻으면 먹지 않았고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했다. 아버지가 병이 났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고 똥을 맛보며 증세를 살폈다. 상을 당하여 시묘할 때 밤낮으로 우니 나무꾼들이 지나가며 그 곳을 "이 곳은 효자의 집이다"라고 지칭하며 나무를 베어 집을 얽어 풍우를 가리게 했다. 순조 신사년(1821)에 왕명에 의해 호역을 감면해 주고 동몽교관에 증직되었으며 그 마을에 정려되었다.

○ 정환익(鄭奐翼)

본관은 영일이다. 어려서부터 뜻을 독실히 하였고 나가서 과일을 얻으면 반드시 가지고 와서 어버이께 드렸다. 집안이 가난했으나 항상 맛있는 음식물을 제공하고 아버지 병환에 손가락을 잘라 치유시켰다. 상을 당하여 3년 시묘를 하고 주야로 호읍하니 나무꾼들이 그곳을 가르쳐 '정효자의 여막'이라 일렀다.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니 교관을 추증하고 정려를 명하니 전촌리에 있다.

○ 조광우(趙光瑀)

본관은 한양이고 성의를 다해 아버지를 섬겼다. 그는 70세가 넘었으나 선친의 기일 때마다 반드시 몸소 주변을 쇄소(灑掃)하고 청결하게 한 뒤 하루종일 눈물을 흘렸다. 이 소문은 듣는 사람들은 그가 종신토록 부모를 생각했다고 칭찬하였다. 효행으로 참봉에 제수되었다.

○ 조봉정(曺鳳貞)

본관은 창녕이다. 아버지 병환에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으나 효험이 없으니 다시 한 번 단지하여 수명을 연장하였다.

○ 주담수(朱聃壽)

부 남쪽 중리(中里)에 살았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나이 66세에 어머니가 죽으니 3년 간 죽을 먹었고 장례와 제사에 예를 다했다. 가묘를 새벽마다 참배하고 늙어도 이를 거두지 않았다. 일찍이 어머니가 수박[西瓜]를 먹고자 했으나 제 철이 아니어서 드릴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평생토록 수박을 먹지 않았다. 나라에서 정려를 명하였다.

○ 주병수(朱柄守)

본관은 신안이고 아우 주병경(朱柄慶)과 더불어 효우가 뛰어났다. 이모(異母) 병이 위중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회복하게 했다. 의원이 "화사탕(花蛇湯)을 드리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때가 겨울이었으므로 울면서 하늘에 축원을 드려서 눈 속에 화사(花蛇)를 얻었다. 병이 심하자 형제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다시 회복하게 했다. 그의 아들 주응창(朱應昌)도 그 어머니 병환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수명을 20년 연장시켰다. 고을 사람들은 한 가문에 세 효자가 났다고 칭송했다.

○ 주양태(朱陽泰)

자는 성윤(成潤)이고 본관은 신안이다. 8세 때 형 주양원(朱陽元)과 더불어 시냇가에 나가 놀다가 형이 물에 빠졌다. 그가 달려가 큰 소리로 호곡(號哭)하니 사람들이 듣고 구제하였다. 10세 때 부모를 여의고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비록 한 톨의 곡식과 한 가지의 옷가지라도 나누어 가졌다. 성장하여 한 집에 수 십 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사사로운 말이 없었다.

○ 주양훈(朱陽勳)

자는 국언(國彦)이고 본관은 신안이며 문절공 주열의 후손이다. 성품은 효성과 우애가 두터웠다. 13세 때 아버지 상을 당했는데 형 주양만(朱陽萬)이 아주 슬퍼하고 상례를 지켰는데 두 눈이 멀게 되었다. 양훈은 형이 출입할 때 수족처럼 따라다니며 부호(扶護)하였다.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약을 쓰니 눈이 다시 밝아졌다. 양만이 또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양훈은 하늘에 기도하고 약을 구해 오래 동안 다스리자 병이 곧 완치되었다. 재산을 사사로이 소유하지 않고 형과 더불어 같이 가졌다. 이러한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형제가 모두 가선대부에 올랐다.

○ 최규장(崔奎章)

자는 영숙(永淑)이고 총관 최신남의 현손이다. 일찍 문명(文名)이 드러났고 향시에 여러 번 합격했다. 아버지를 효성으로 섬겼고 3년 동안 간병을 할 때 지성으로 약을 구해 드렸으며 하늘에 기도하고 대변을 맛보며 병 증세를 살피는 등 힘을 다하였다.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할 때 벌레가 소나무를 갉아먹으니 이를 잡아서 "우리 소나무는 해치지 말아라"라고 하니 송충이가 저절로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사림에서 나라에 포장(褒狀)을 올렸다. 『해엄유고(海广遺稿)』가 있다.

○ 최기형(崔基衡)

본관은 경주이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적비(積痞)로 9년 간 몹시 고생하자 그는 밤낮으로 울면서 하늘에 기도하였다. 하루는 아버지가 산길패(山吉貝)를 원했다. 때는 엄동이었다. 얼음을 밟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는데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과연 산길패가 있었다. 이를 취하여 효험을 보았고 얼음을 깨고 고기를 구하여 아버지를 받들었다. 상을 당하여 예제(禮制)를 한결같이 따르니 고을 사람들이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 최세보(崔世輔)

본관은 월성이고 지극한 정성으로 어버이를 섬겼다. 상을 당하여 나물밥으로 3년을 지냈고 지나치게 슬퍼하여 몹시 수척해졌다. 제삿날에는 집안을 깨끗이 소제하고 목욕재계하며 정성을 다했는데 늙어서도 한결같았다. 친척 가운데 가난하여 혼례나 상례 등을 못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비용을 부담하고 그들을 도왔다. 이웃이 그를 칭찬하며 탄복했다.

○ 최세영(崔世英)

본관은 월성이다. 겨우 8세에 어버이를 섬길 줄 알았고 어버이의 꾸짖음이 있으면 두 번 다시 범하지를 않았다.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지체의 봉양을 모두 구비하였다. 효행으로 동몽교관이 제수되었다.

○ 최숙(崔淑)

본관은 경주이다. 임진란에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적병을 만났고 오히려 태연하게 제사를 행했다. 이에 적들이 경탄하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가히 조선을 빛나게 할 것이다"하고 장검을 주고 갔다. 그는 이 칼을 아들 최득수에게 전하니 득수는 이 칼을 갖고 있다가 병자호란 때 쌍령 전투에 나가 이 칼을 가지고 싸우다 전사했다. 그 아우 최득인이 시체를 찾지 못하고 초혼하여 장사를 지냈다. 득수의 아들 최영우 아내 안씨는 남편이 병들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렸고 남편이 죽으니 따라 죽었다. 영우의 아우 최영로는 어머니를 위하여 약을 구할 때 가는 곳마다 호랑이가 호위해 주었고 어머니가 병이 들자 단지를 하며 정성을 다했다. 모두 향도의 포창이 있다.

○ 최영수(崔永壽)

본관은 경주이다. 문예(文藝)를 일찍 이루어 18세 때 경서를 강하여 네 번이나 복시(復試)에 으뜸으로 합격하니 사람들이 그를 '명경(明經)'이라 일컬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받들며 봉양했다. 어머니가 늙어서 병석에 누워 있어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거(起居)를 부축하며 옷과 이불 등 더럽혀진 것을 직접 씻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효성을 칭찬했다. 가선대부에 증직되었다. 유고가 있다.

○ 최진간(崔震幹)

진사 최신린(崔臣隣)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할머니를 모시고 황룡산 속에 피신하였다. 적들이 산을 수색하여 그의 할머니를 해하려 하자 진간이 칼날을 무릅쓰고 달려와 구출하려다 모두 죽음을 당했다. 그의 아내 정씨도 또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려 정려가 세워졌는데 정려비는 부 남쪽 봉황대 서쪽에 있다.

○ 최진영(崔鎭榮)

자는 성옥(成玉)이고 참봉 최만두의 아들이다. 성품이 효우(孝友)하고 돈목하여 정성을 다해 어버이를 섬겼고 형제 간의 우애는 귀범이 되었다. 또한 가난한 친족을 보살피고 선영의 제전(祭田) 및 석물을 혼자 힘으로 모두 마련하였다. 마침 흉년을 당하여 궁핍한 이웃을 진휼하니 온 마을에서 칭송하여 관아에 포창하는 글을 올렸다.

○ 최치백(崔致柏)

자는 숙보(肅甫)이고 호는 영모재(永慕齋)이다. 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자 고기를 먹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려서 말하기를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고 하여 마침내 정(情)에 억눌려 먹었다. 어머니를 극진한 효성으로 섬겨 효로서 감응(感應)된 이상한 일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을 나라에 알려 정려비를 세웠다. 부제학 오수채(吳遂采)가 정려비명을 짓고 이광사(李匡師)가 글씨를 썼다. 정려비는 부 남쪽 상신리(上莘里)에 있고 증직은 사헌부 지평이다.

○ 최포(崔包)

부 남천 서쪽 부지리(鳧池里)에 살았다. 어려서 문명(文名)이 있었고 효성이 지극히 두터웠다. 아버지가 병으로 눈이 멀게 되자 잠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침 저녁 식사 때 반드시 직접 음식을 받들었다. 그는 진사시(進士試)를 치른 후 방(榜)이 붙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도중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너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는가"라고 묻자 그는 "합격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아버지가 큰 소리로 놀라 일어나더니 갑자기 두 눈이 열렸다. 사람들은 효성의 감화(感化)라고 말하였다. 조정에서 정려하였는데 비와 비각은 현재 내남초등학교 서쪽 산기슭에 있다.

○ 최홍택(崔弘澤)

부 북쪽 오금촌(五琴村)에 살았고 이모(異母)의 아우 최홍준(崔弘濬)과 우애가 독실하였다. 아우가 나무하고 물을 길어야 하는 노역이 있으면 생모(生母)의 노비를 나누었다. 고을 사람들이 그를 선적(善籍)에 기록하였다.

○ 한경동(韓暻東)

본관은 청주이다. 어머니가 병이 드니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리고 밤낮으로 하

늘에 기도하여 병이 회복되었다. 상을 당하여 예제를 한결같이 따르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그의 효성에 탄복하였다.

○ 한소사(韓召史)

안강현 산대 마을에 사는 수군(水軍) 박춘득(朴春得)의 아내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아침이 되면 저녁 끼니를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품을 팔아서 양식을 구하여 시부모를 봉양하고 무릇 시부모를 편안하게 모시는 방편과 맛있는 음식공양에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 이웃이 칭찬하여 사실을 관(官)에 알려 여러 번 포상을 받았다.

○ 한진오(韓鎭五)

자는 상여(相汝)이고 본관은 곡산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를 효성으로 모셨다. 할머니가 병으로 눈이 멀자 반드시 숟가락을 잡아 음식을 먹여 드렸고 출입할 때 따라다녔다. 병이 심하자 똥을 맛보며 증세를 살폈고 문행(文行)과 필명(筆名)으로 알려졌다. 호는 은암(殷庵)이다.

○ 허조원(許調元)

나이 13세에 아버지 허정문(許程文)이 광질(狂疾)에 걸렸다. 그는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약재와 함께 조제하여 드리니 병이 이에 나았다. 이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정려가 세워졌다.

○ 황계동(黃啓東)

본관은 평해이고 죽장현 가사리에 살았다. 어릴 때부터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봉양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 어머니가 일찍이 혼자된 것이 마음에 아파 부부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병이 들어 멧돼지 고기를 원했다. 맨 손으로 산에 들어가니 멧돼지 한 마리가 다가왔다. 돌로 잡아서 집으로 돌아와 공양했다. 어머니 상을 당하여 부부가 좁은 방 가운데 물을 떠놓고 경계를 삼았다. 3년 간 시묘할 때 호랑이와 표범이 내려와서 호위하였다. 관찰사가 나라에 글을 올려 호역(戶役)을 감면해 주었다.

○ 황우로(黃祐老)

그의 아버지가 60세 넘어서 풍으로 6년 간 움직이지 못했을 때 잠시도 곁을 떠

나지 않고 손으로 대소변을 거두었다. 아버지가 호경골(虎脛骨) 얻기를 원하자 그는 곧 포수를 찾아가 울면서 간청하였다. 포수가 그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 산에 시험삼아 몇 걸음 올라가니 호랑이가 누워서 자고 있었다. 이에 나포하여 돌아와 드리니 병이 나았다. 이러한 사실을 관에 알려 연호잡역(烟戶雜役)을 감면받았다.

○ 황윤장(黃潤璋)

황해흥의 6세손이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자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수저를 대신하였고 밤마다 하늘에 자신이 아픔을 대신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하고 스스로 직접 불을 때며 궤전(饋奠)을 끊지 않았다. 온 고을이 칭찬하여 돈을 모아 그를 포상하며 칭찬하였다.

○ 황치근(黃致謹)

자는 형보(亨甫)이고 본관은 평해이다. 10세 때 아버지 병을 시중하면서 똥을 맛보며 증세를 살폈다. 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고 곡을 하여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또 어머니가 눈이 멀자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렸는데 이를 남에게 대신 시키지 않았다. 상례를 치르고 3년 간 시묘하였다. 온 고을이 모두 그의 효행을 칭찬하였고 이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 참의에 제수되었다.

4. 우거(寓居)

○ 권석물(權碩物)

자는 관지(寬之)이고 양촌 권근의 후손이다. 태어나면서 남다른 재주가 있었고 지혜가 뛰어났다. 병자년(1636)에 인조가 오랑캐에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동해 구길리(龜吉里)에 살 터를 정했다. 그리고 작은 집을 짓고 편액을 동은(東隱)이라 했다.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고 「삼인설(三忍說)」, 「사단이기설(四端理氣說)」 등을 지었으며 유고가 있다.

○ 권응록(權應祿)

본관은 안동이다. 선조 때 무과에 합격하였고 벼슬은 전력부위 수문장(展力副尉 守門將)에 올랐다. 군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난이 평정된 후 신녕(新寧)에서 부 북쪽 전곡(前谷)으로 옮겨와서 살았다.

○ 기경중(奇敬仲)

정무공 기건의 후손이고 현감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경주에 와서 우거했다.

○ 김남석(金南碩)

자는 덕부(德夫)이고 호는 벽헌(碧軒)이며 김명원(金命元)의 손자다. 선조 때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집의에 이르렀으며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병자년(1636) 호란 때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신광현 토성리(土城里)에 살았다.

○ 김덕수(金德秀)

자는 옥여(玉汝)이고 본관은 선산이며 문강공 김숙자의 5세손이다. 어려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고 현릉 참봉에 추천되었다. 무오년(1498) 사화 이후 부내(府內) 중리촌(中里村)으로 옮겨와서 살았다. 이 때 관란 이승증이 경주부 동쪽에서 학문을 강하고 있었다. 이에 관란은 그의 명성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유종연원(儒宗淵源) 및 학문 가운데 가장 긴요한 말을 물었다. 부윤 윤인함이 김덕수에게 시를 지어 주니 '그 옛날 선인(先人)의 고택에 다시 위대한 사람이 계시는군요.' 라고 하였다.

○ 김만용(金萬鎔)

지평 김상(金尙)의 손자로 청표(淸標)하고 중망이 있었다. 선조 때 진주에서 금오산 아래로 옮겨 살았다. 그리고 경서에 잠심하고 세속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스스로 즐기다 여생을 마쳤다.

○ 김상(金尙)

정숙공 김인경의 후손이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을 지내고 영월부사로 나가 치적을 남겼다. 그는 상관(上官)과 의견이 맞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아들 김중삼을 데리고 진주에서 금오산 아래로 와서 살았다.

○ 김수남(金壽楠)

자는 국간(國幹)이고 개국공 김유신의 후손이다. 사람됨이 준위(俊偉)하고 기상이 넓고 깊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웠고 어모장군 수문장(禦侮將軍守門將)에 제수되었다. 난이 평정된 후 곧 경주부 서쪽 재동(才洞)에 와서 살았다.

○ 김시습(金時習)


김시습 영정

자는 열경(悅卿)이다. 고향은 강릉이다. 시습이 5세 때 세종이 그를 궁궐로 불러들여 운자를 내어 시를 짓게 하니 삼각산 절구(三角山 絕句)를 지었다. 임금이 감탄하며 표창하였다. 세조가 즉위한 후 출가하여 호를 설감(雪岑)이라 했다. 불법(佛法)에 얽매이지 않았고 스스로 호를 청한(淸寒) 또는 매월당(梅月堂)이라 하였다. 그리고 성리(性理), 음양, 의복(醫卜), 백가의 글 등을 통달하지 않은 바 없었다. 넓고 풍부한 문장으로 『매월당집(梅月堂集)』, 『역대년기(歷代年紀)』, 『금오신화(金鰲新話)』 등을 저술하여 간행하였다. 국내의 명산 대천을 두루 유람하였고 금오산(金鰲山) 아래 용장사를 살 곳으로 정하였다. 그의 사적은 율곡 선생이 선조의 명을 받아서 지은 전기(傳記) 속에 자세히 실려있다. 세상에서 그가 '매월(梅月)' 로 당호(堂號)를 정한 것은 또한 금오매월(金鰲梅月)의 뜻을 취한 것이라 한다. 용장사(茸長寺)는 언제 저절로 허물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섬돌만 아직 남아 있으며 뜰 아래 북향화(北向花)가 있다.

○ 김응절(金應節)

본관은 경주이다. 진사시에 합격하고 영천에서 경주로 와서 살았다.

○ 김제학(金提鶴)

본관은 김녕(金寧)이고 충의공 백촌 김문기(金文起)의 현손이다. 단종 때 충의공 부자와 육신(六臣)이 동시에 화를 입었다. 이에 그는 영동(永同)에서 화를 피하여 동해 내아리(乃兒里)로 도망해 왔다. 그리고 성명을 숨기고 두문불출하며 독서에 힘썼고 '충의(忠義)' 라는 두 글자를 평생토록 가슴에 되새겼다. 서숙을 오룡산(五龍山) 아래에 짓고 마을 유생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시를 읊조리며 지냈다. 호는 송와(松窩)다.

○ 김희(金喜)

세종 을사년(1425)에 과거 급제하고 벼슬은 집현전 교리를 지냈다. 시사(時事)의 그릇된 기미를 보고 경주에 내려와 숨어 살았다. 갑술년(1454)에 우상 정분 등이 죽음을 당하고 안평대군 이용(李瑢) 일당은 영해로 귀양갔다. 병자년(1456)에

성삼문 등이 죽음을 당했다. 마침내 김희도 사사되고 아들 수찬 김민(金玟)과 손자인 직제학 김정심(金正深)도 연좌되어 죽었다. 정조 신해년(1791)에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며 삼대(三代)가 정려되었다.

○ 문경도(文敬度)

자는 언휴(彦休)이고 호는 청천당(聽天堂)이며 충선공 문익점의 후손이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은 직제학에 이르렀다. 세조 때 글을 올려 조정의 득(得)과 실(失)을 극론(極論)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렀다. 경주에 귀양왔다가 해배(解配)된 후 돌아가지 않고 문천 가에 살았다.

○ 박간(朴旰)

자는 원숙(元淑)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음직으로 장사랑 벼슬에 올랐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문행(文行)으로 이름이 높았다. 영천에서 경주부 남쪽 와지리(瓦旨里)로 옮겨와서 살았다.

○ 박분(朴芬)

자는 용지(龍之)이고 호는 우곡(愚谷)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연산군 무오년(1498)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사화를 입은 후 남쪽으로 내려와 상주에서 월성으로 옮겨 살았다. 산수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우계(愚溪)에 터를 정한 후 경전에 잠심하고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마쳤다.

○ 박사익(朴仕益)

자는 익지(益之)이고 참봉 박효달(朴孝達)의 아들이며 본관은 밀성이다. 인조 때 선관(宣官)으로 있다가 훈련원 판관으로 올랐다. 병자년(1636)에 능원대군(綾原大君)을 배종하고 심양(瀋陽)으로 들어갔다가 강화(講和)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벽에 '대명(大明)'이란 두 글자를 걸어 두고 아침저녁으로 우러러 보며 배례를 올렸다.

○ 박태준(朴台俊)

자는 경부(景夫)이고 호는 우암(寓庵)이다.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뜻한 바가 깊어 글을 힘써 배웠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그를 지혜(知慧), 충의(忠義), 방정(方正)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중종 갑오년(1534)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신축년(1541)에 문과 급제했다. 벼슬은 장령에 이르렀고 을사년(1545) 사화 이후 다시는 벼슬하지 않았다. 강릉에서 경주로 옮겨 온 후 산수(山水)와 문적(文籍)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 손의경(孫義敬)

고려 때 벼슬하여 태상소경(太常少卿)에 이르렀다. 조선 태조가 폐백을 갖추어 부르니 그는 글을 올려 말하기를 "오직 국가는 지극히 높은 직위와 한없는 통치의 위대함과 수많은 백성이 있으니 지극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저를 강제로 불러들이려 명하십니까. 저의 지은 죄는 형벌로도 도망할 수 없고 죽어도 목숨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임금의 명을 거절하며 나아가지 않고 경주에 숨어 살았다. 호는 소회(素晦)다.

○ 안주(安宙)

자는 태고(太古)이고 호는 치암(恥庵)이며 본관은 광주이다. 중종 병자년(1516)에 진시시에 합격하고 무자년(1528)에 문과에 급제했다.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고 일찍 청도, 언양 군수로 나가서 모두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다. 이 때 윤원형이 편지를 보내 동참을 요구하자 그는 말하기를 "차라리 빈천(貧賤)으로 죽을지언정 맹세코 권문 귀족에 아부하여 충량(忠良)한 사람을 헤치고 뜻을 굽혀 부귀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바로 그 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당시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했다. 영일에서 부 북쪽 호명(虎鳴) 냇가로 옮겨 소요(逍遙)하며 여생을 마쳤다.

○ 엄량(嚴良)

자는 자유(子裕)이고 충의공 엄흥도의 손자다. 세조 때 화를 입을까 두려워 암곡촌(暗谷村)에 도망쳐 숨어살면서 관향을 시림(始林)으로 고쳤다. 주경야독하며 경서를 연구하고 아울러 육도삼략(六韜三略)을 통달했다. 충성(忠誠), 신의(信義), 경외(敬畏), 검약(儉約)을 대대로 지켰고 하늘의 해가 다시 밝기를 기다렸다. 다시 동해 죽연리(竹淵里)로 옮겨 살았고 마침내 숙종 때 신원되어 다시 본관 영월을 되찾았다. 고종 경인년(1890)에 돈녕도정에 증직되고 호는 월사(越思)이다.

○ 오만운(吳萬雲)

자는 만희(萬希)이고 본관은 해주이며 호는 태화(太和)다. 어려서 문학으로 이

름이 높았고 율곡 문하에서 글을 배워 선비들로부터 중망을 받았다. 백사 이항복이 효성과 청렴(淸廉)한 품행으로 추천하여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제수되었다. 임진년(1592) 왜란 때 백형 벽성군 오치운(吳致雲)을 따라 호종하며 절의(節義)를 세웠다. 후에 경주부 서쪽 서악리에 옮겨와서 살았다.

○ 우립(禹立)

자는 건여(建汝)이고 본관은 단양이다. 단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자 이름을 바꾸고 산림(山林)에 숨었다. 안동에서 경주 밀구(密龜)로 옮겨 온 후 진사(進士)라 일컫지 않고 여생을 마쳤다.

○ 우천록(禹天祿)

자는 응정(應禎)이고 본관은 단양이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지기(志氣)가 확고하였다. 명종 을축년(1565)에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좌승지에 이르렀다. 안동에서 경주로 옮겨와서 살았다.

○ 원세헌(元世獻)

자는 준오(俊五)이고 호는 탄와(灘窩)이며 충익공 원두표(元斗杓)의 후손이다. 대대로 원주에서 살았고 선대의 벼슬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데 그의 조부 원유복(元有復)의 말이 당시 권력가의 미움을 받아서 가솔을 거느리고 피신하여 경주부 동쪽 구길리(九吉里)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다. 집안에는 충익공이 어사(御賜) 받은 통천서대(通天犀帶)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를 세전(世傳)의 보물로 삼고 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분수를 잘 지켰다. 작은 집을 짓고 편액을 경모당(景慕堂)이라 하였고 수직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 유정(柳汀)

자는 여원(汝元)이고 호는 송호(松壕)이며 본관은 문화이다. 임진년(1592) 왜란 때 아들, 조카, 손자와 더불어 창의하였으며 여러 번 전공을 세웠다. 부윤 윤인함이 감탄하였고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 동도객관(東都客館) 현판에 글을 써 이르되 '수의장(守義將) 유정의 일가 내 부자와 숙질 모두가 간성(干城)의 재주이다' 라고 하였다. 영천 창암(蒼巖) 전투에서 아들 유영춘(柳榮春)이 죽었으나 오히려 계속하여 힘써 싸웠다. 그리고 팔공산 전투에 참여하여 말이 넘어져 그만 탄환에 맞았다. 그러나 옷을 벗어 상처를 감싸안고 적 수십 급을 베고 난 후 자신도 죽었다.

조카 유백춘(柳伯春)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와서 장사 지냈는데 부윤 민기(閔機)가 객사 현액에 이 사실을 기록하였다.

○ 윤기야(尹起野)

본관은 파평이다. 임진왜란 때 서울에서 신광현 호촌(虎村)에 옮겨와서 살았고 후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 윤상문(尹尙文)

본관은 파평이다. 중종 때 황해도 감사에 임명되었고 세 번이나 직소(直疏)를 올려 이기(李芑), 정순붕(鄭順朋), 윤원형(尹元衡) 등 여러 간신의 무리를 내쫓도록 했다. 그로 인하여 을사년(1545) 사화 때 당시 명유(名儒)들은 다소 화를 벗어났으나 상문의 아버지 윤세광(尹世光)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그리고 상문은 아우 윤상원(尹尙元)의 아들인 진사 윤첨(尹瞻)과 더불어 신광현에 귀양왔다. 그 뒤 병을 얻은 후 북향하며 크게 울다가 죽으니 곧 토성(土城)에 장사지냈다.

○ 윤선교(尹善敎)

자는 순보(淳甫)이고 소정공 윤곤(尹坤)의 후손이다. 숙종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권력가의 미움을 받아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노성(魯城)에서 경주 동면으로 옮겨와서 살았고 산수를 즐기며 자적하였다. 수직으로 가선대부에 올랐다.

○ 이근오(李覲吾)

자는 성응(聖應)이고 본관은 학성이다. 널리 배웠고 문장에 능했다. 정조 경술년(1790)에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지평에 이르렀으며 호는 죽오(竹塢)다. 정자를 석천(石川)에 짓고 양사재(養士齋)를 학성관(鶴城館)에 건립하여 고을 선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활산 남용만에게 글을 배웠고 그의 이름은 경주 연계안(蓮桂案)에 등재되었다. 마침내 가족을 데리고 월성 남쪽 남간(南澗)에 옮겨와서 살다가 얼마 후 석천으로 되돌아갔다.

○ 이두원(李斗遠)

본관은 재령이다. 영해에서 경주로 내려와 살면서 집이 매우 가난하였다. 그러나 맑고 깨끗이 자수(自守)하며 근실히 책을 읽어 사칠이기변(四七理氣辨)을 지었

다. 건천 선계 위에 한 정사를 세우고 남애서사(南厓書社)라 하였다.

○ 이탁(李橐)

초명은 원명(元明)이고 자는 선중(善中)이다. 아버지인 참찬 이식(李埴)이 을사년(1545) 사화 때 영천으로 귀양왔는데 그는 귀양지에 와서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선조 임진년(1592)에 수전조방장(水戰助防將)으로 뽑혀 큰 공을 세우니 임금이 이름을 '탁(橐)' 자로 내려 주었다. 벼슬은 병조참판에 이르렀고 한성부윤, 전라좌수사를 역임했다. 신축년(1601)에 참소를 받자 안강현 갑산(甲山)에 내려와 화를 피했다. 인조 정묘년(1627)에 호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금성관(金城館)에서 순절하니 경주부 서쪽 도리(道里)에 장사지냈다.

○ 정관택(鄭寬宅)

자는 인준(仁峻)이고 호는 장암(嶂巖)이며 본관은 영일이다. 본성은 효우가 지극하고 어버이 상을 당하여 3년 간 시묘하였다. 매우 슬퍼하며 상례를 지키니 사람들이 그를 '정효자(鄭孝子)'라고 일컬었다. 가난하지만 학문을 좋아했고 생도들을 가르쳤다. 진주 북쪽 용산(龍山) 시묘동(侍墓洞)에서 경주부 동쪽 전촌(典村)으로 옮겨와서 살았다. 숙종 때 효행으로 통정대부에 증직되고 잡역(雜役)을 감면받았다.

○ 정삼계(鄭三戒)

자는 덕신(德愼)이다. 만력 갑진년(1604)에 사마시에 합격했다. 임진왜란 때 형 정삼외와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웠다. 이 사적은 화왕성동고록, 공산회맹록에 실려 있다. 그가 비로소 경주부 동쪽 동면(東面)에 옮겨와서 살았다.

○ 정삼성(鄭三省)

본관은 영일이고 호는 일성재(日省齋)이며 벼슬은 예빈시 판관(禮賓寺 判官)에 이르렀다. 무신년(1728) 변란 후 단성에서 기계현으로 옮겨와서 살았다.

○ 정삼외(鄭三畏)

자는 경덕(敬德)이고 본관은 영일이다. 흥해에서 동도로 옮겨와서 살았다. 흥해에 있을 때 곡강서원(曲江書院)을 창건하여 고을의 자제들로 하여금 선현에 대해 숭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 정성을 다해 어버이를 섬겼고 상을 당하여

매우 슬퍼하였다. 그리고 읍혈(泣血)로 3년을 보내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효성에 감탄했다. 선조 정유년(1597)에 군량(軍糧)을 조운(漕運)한 공으로 군자감 주부(軍資監 主簿)에 임명되었다. 후에 호조참판에 증직되었고 호는 망모당(望慕堂)이다.

○ 정종기(鄭鍾基)

자는 우옥(宇玉)이고 원종공신 정유서(鄭維瑞)의 후손이며 성품이 충후(忠厚)하였다. 장기에 살았는데 도적 떼가 관가에 방화하였다. 그 불길이 향교 전사(殿舍) 및 서적고(書籍庫)에 미치려 하자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다. 그러나 그는 불길을 무릅쓰고 대성전의 위패(位牌)를 이봉하고 또한 장적(帳籍)을 수거해 둠으로써 다행히 보호할 수 있었다. 후에 경주부 동쪽 황오리(皇吾里)에 옮겨와서 살았다.

○ 최경헌(崔景憲)

자는 성일(誠一)이고 호는 은재(隱齋)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고 정유년(1597)에 포로로 잡혔으나 굴복하지 않고 절개를 온전히 지킨 후 돌아왔다. 인조 때 여러 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시호는 충효(忠孝)다. 아버지가 병으로 눈이 멀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정성(定省)을 다하며 잠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임란 때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를 모시게 하고 출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병환으로 돌아왔다. 이에 아버지가 말하기를 "네가 전쟁에서 왜적을 몇 사람 베었는가"라고 하자 그는 "30여 급 베었습니다"라고 말하니 아버지가 크게 놀라서 일어나며 갑자기 두 눈이 열렸다. 난이 평정된 후 양주 풍양(豊壤)에서 답동(沓洞)으로 옮겼고 또 경주부 동쪽 암곡리에 옮겨와서 살았다.

○ 최한(崔漢)

자는 장우(章于)이고 고려 때 벼슬이 신호위(神虎衛)에 이르렀다. 고려가 쇠망하자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라의 운명이 매우 어려우나 정사를 돌보지 않으시네. 아! 간신들이 정권을 농간하니 멀리 떠나 숨으려 한다"라고 하고 경주 송화산(松花山)에 숨어살면서 시를 지어 자신의 심사를 읊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정자를 소나무 사이에 짓고 스스로 송오(松塢)라 불렀는데 이는 대개 송경(松京)을 그리워하는 뜻이다.

○ 추원보(秋元甫)

자는 보현(甫賢)이고 본관은 추계이며 문헌공 추적(秋適)의 후손이다. 문과 급제하고 벼슬은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인조 때 화를 피하여 경기도 양주에서 경주부 북쪽 부곡(釜谷)으로 옮겨와서 살았다.

○ 편갈송(片碣頌)

호는 모헌(慕軒)이고 명나라 절강성(浙江省) 사람이다. 임진년(1592)에 어양총절사 정동제독(漁陽總節使 征東提督)으로 우리나라에 왔다. 정유년(1597)에 또 마귀(麻貴)를 따라 적 종원군(縱猿軍)을 막았다. 이어서 철기(鐵騎)를 타고 적들과 싸워 대첩을 거두니 그가 지나간 소사(素沙), 은진(恩津), 울산(蔚山), 서생진(西生鎭) 등에 모두 비를 세워 그 공적을 기록했다. 그런데 정응태(丁應泰)의 무고 사건으로 인하여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금오산 속에 피신하여 숨어살다가 죽었다. 후에 나주(羅州) 감명서원(感明書院)에 향사되었다. 아들 편성대(片成大)의 호는 은림(隱林)이다. 선조 때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고 병자년(1636) 호란 때 창의하였다.

○ 하기현(河起賢)

자는 자중(子仲)이고 본관은 진주이다. 타고난 품성이 특수하고 식견이 매우 넓었다. 처음 영천에 와서 사니 고을 선비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 노계 박인로와 더불어 좋은 벗이 되어 시율(詩律)을 지어 나누며 화답했다. 임진왜란 때 경주부 서쪽 심곡리(深谷里)에서 난을 피했다. 그윽한 경치를 개척하고 서적에 뜻을 맡기며 송백(松柏) 사이에 묻혀 자적하였다. 따라서 호를 취암(翠庵)이라 했다.

○ 한세응(韓世應)

본관은 청주이다. 성품이 우아하였고 높은 표상이 있었다. 영조 경신년(1760)에 생원시에 합격했다. 그런데 당시 재상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시는 진취(進就)하지 않았다. 원주에서 경주 함월산(含月山) 아래 마동리(馬洞里)로 옮겨와서 살았다. 독서를 즐거움을 삼고 시를 음영하며 여생을 마쳤다.

○ 한숙로(韓淑老)

평정공 한옹(韓雍)의 후손이다. 단종 때 벼슬은 사정을 지냈다. 일찍이 대전(大田) 이보흠(李甫欽)과 같이 종유했는데 대전이 단종을 복위(復位)하려고 꾀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화를 입자 그의 행적도 혐오를 받게 되었다. 그는 정인지(鄭麟趾)에게 말하기를 "군자는 미색(美色)을 가리지 않고 열녀는 분뇨 단지를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며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금척리(金尺里)에 은거했다.

○ 한유경(韓有敬)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벼슬은 선무랑에 이르렀다. 타고난 자질이 강의(剛毅)하고 한 몸을 잊고 충절을 지켰다. 병자년(1636) 호란 때 강화했다는 말을 듣고 멀리 자취를 숨겨 경주에 와서 살았다.

○ 황연(黃綖)

자는 숙장(叔章)이고 호는 명와(明窩)이며 본관은 회덕이다. 효성이 순독(純篤)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외조부 정삼계(鄭三戒)에게 글을 배웠다. 아우 황현(黃絢)과 더불어 서로 강마하고 시를 화답하며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었다.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좌우(座右)에 써 두고 항상 마음에 새겼고 특히 예서(禮書)에 밝았다. 흥해에서 금오산 아래로 옮겨와서 살았다.

○ 황효공(黃孝恭)

자는 경보(敬甫)이고 호는 귀암(龜巖)이며 본관은 창원이다. 중종 신사년(1521)에 과거 급제하고 벼슬은 사간에 이르렀다. 일찍이 퇴계 선생 문하에서 글을 배워 역범도설(易範圖說)을 남겼다. 경주 향교 교관을 지내고 경주에 살았다.

5. 기타(殊行, 技藝, 書, 醫, 道流, 名妓)

○ 김상곤(金相崑)

자는 이오(而吾)이고 상촌 김자수의 후손이다. 서법(書法)은 추사체(秋史體)를 깊이 터득하여 벼루를 3개 뚫고 붓 모(毛)를 모으니 몇 말[斗]이었다. 그가 쓴 자획이 매우 굳세고 강인하였다. 서울 명필들이 그의 글씨를 보고 극찬하면서 보장유묵(寶藏遺墨)으로 많이 가졌다.

○ 문응성(文應星)

부 북쪽 흑림촌(黑林村)에 살았고 강성군 문익점(文益漸)의 후손이다. 임란 때 공사(公私)의 일이 다급하여 서로 도망갔으나 응성은 아우 문응방(文應房)과 더불

어 그 사이에서 주선(周旋)하였다. 즉 향교 대성전 및 동, 서무의 위패를 안강 자옥산 속으로 임시 옮겨서 봉안하고 시종 보호하였다. 전란이 평정된 후 특별히 집경전 참봉에 제수되었다.

○ 손영명(孫永明)

자는 용회(用晦)이고 매호(梅湖) 손덕승(孫德升)의 6세손이다. 필법이 정묘하고 왕희지(王羲之)의 해서를 잘 썼다.

○ 손영식(孫永植)

자는 덕재(德栽)이고 낙선당 손종로의 후손이다. 초서, 예서, 전서, 대액(大額) 등을 잘 썼으며 모두 힘차고 강건했다. 더욱이 왕희지의 해서에 필력을 얻으니 사람들이 그의 글씨를 보장(寶藏)으로 많이 가졌다.

○ 영매(英梅)

숙종 때의 경주 기생으로 거문고와 장고 노래와 춤에 모두 능하여 이름이 있었다.

○ 이능정(李能正)

자는 성중(聖中)이고 대사헌 이정규의 증손이다. 필법이 정묘(精妙)하고 특히 금석문의 전서(篆書)를 잘 썼다. 난정묵첩(蘭亭墨帖)을 남겼는데 세상에서 이를 진귀한 보장(寶藏)으로 여겼다. 수직으로 통정대부 용양위부호군에 올랐다.

○ 이석간(李錫侃)

본관은 월성이다. 안강현 근계리(根溪里)에 살았고 총명이 매우 뛰어났다. 오로지 의술을 공부하여 아무리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도 힘써 노력하여 규명하였고 침과 약을 쓰면 곧 효험이 있었다. 세상에서 그를 신의(神醫)라 불렀다.

○ 최계옥[崔桂玉 : 홍도]

고향은 경주이고 자는 초월산(楚月山)이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홍도(紅桃)라 불렀다. 아버지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최명동(崔鳴東)이며 경주의 세기(世妓)였다. 홍도는 1778년에 태어나서 12세에 시와 서예를 배웠고 뛰어난 미모에 가(歌), 무(舞), 창(唱) 또한 능해서 그에 따를 기녀가 없었다고 한다. 풍문이 궁중에까지

들렸고 임금으로부터 '홍도'라는 예명을 하사받았다고 비석에 적혀 있다. 이인 박준원(1739~1807)의 소실로 들어갔다. 한 번은 박상공이 농담조로 "어찌하여 이렇게 수척해 보이느냐"고 물었는데 그가 시로 답하기를 "곱고 예쁜 새가 / 언제나 먼 하늘을 보고 울고 있구나/ 작은 새장에 오래도록 갇혀 있으니 / 어찌 이 몸이 여위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또 그는 국구[國舅, 경주시 도지동 627번지] 산기슭에서 구적으로만 들려온 홍도의 비석이 발견돼 실존인물임이 밝혀졌다. 비문에는 "당시 시, 서화, 가, 무, 창에 능통한 절세가인 홍도가 사망하고 홍도를 아끼던 풍류객들이 홍도가 세상을 떠난 28년 뒤인 철종 2년(1851) 8월에 이 비석을 세운다"고 기록했다.

○ 최락(崔洛)

본부(本府)의 아전이다. 문장과 필체 모두가 풍부하고 생각하는 계책이 심원하였다. 임란 때 사람마다 모두 삶을 도모하는데 겨를이 없었으나 최락은 그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였다. 즉 동도사적안(東都事蹟案)을 운반하여 깊고 궁벽한 곳에 감추어 두었다. 이에 지난 천년의 사적이 병화(兵火)의 참상에서 보존되어 후세 사람들이 고람할 수 있다. 그 사적은 『부선생안』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 최석신(崔錫信)

최영린(崔永嶙)의 후손이다. 문학(文學)을 일찍 이루었고 더욱이 글씨를 익혔다. 일찍이 쇠막대기로 모래 위를 그으며 자획을 익혔는데 그 획이 매우 힘차고 곧았다. 경주 관아의 큰 액은 모두 그가 쓴 글씨다. 원근에서 찾아온 사람이 매우 많으니 세상에서 그를 김생(金生) 이후 제일의 필법이라 칭찬하였다. 호는 지족당(知足堂)이다.

○ 최정생(崔挺生)

자는 문현(文賢)이고 본관은 월성이며 화숙공(和淑公) 최현우(崔玄祐)의 현손이다. 재기(才器)가 뛰어났고 문장을 일찍 이뤘으며 의술에 정통하였다. 휴암(休庵) 김상준(金尙寯)이 경주 부윤으로 왔을 때 의술로 종유(從遊)하여 3년 만에 그의 고질을 다스리자 김상준이 심히 돈독하게 대하였다. 그가 떠날 때 서울로 같이 올라가서 몇 년 간 함께 생활하였고 돌아올 때 김상준이 노안화(蘆雁畵) 2첩과 4운 시를 주었다. 이로 인하여 조정에 글을 올려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표 9-2-1〉 조선시대 경주지역 문과자(文科者)의 합격 연대와 본관

番	姓名	合格年度	本貫	雜	史誌
1	崔 汭	癸酉(1393)	慶州	○	○
2	金新民	年代未詳	慶州		通
3	李文炯	上同	慶州		通
4	李尹仁	上同	慶州		通
5	尹 統	甲午(1414)		○	○
6	李從義	癸卯(1423)			邑
7	孫 昭	己卯(1459)	慶州	○	○
8	金永濡	年代未詳	慶州		通
9	金千齡	上同	慶州		通
10	崔淑生	上同	慶州		通
11	李從允	戊子(1468)	慶州	○	○
12	黃 玕	甲午(1474)	平海	○	○
13	孫仲暾	己酉(1489)	慶州	○	○
14	李哲明	甲子(1504)	驪州	○	○
15	辛孟卿	同年	寧越	○	○
16	李彦迪	甲戌(1514)	驪州	○	○
17	李乙奎	乙未(1535)	慶州	○	○
18	金世良	同年	慶州	○	○
19	權德麟	癸丑(1553)	安東	○	○
20	李宜活	戊子(1618)	驪州	○	○
21	金宗一	乙丑(1625)	慶州	○	○
22	李耈徵	丁酉(1657)	慶州	○	○
23	金廷益	年代未詳	慶州		邑
24	孫德升	甲子(1684)	慶州		邑,通
25	南九明	癸酉(1693)	英陽		○
26	任華世	己卯(1699)	豊川		○
27	南濟萬	辛酉(1741)	英陽		○
28	朴斗相	辛酉(1741)	務安		○
29	李憲默	庚午(1750)	驪州		邑,通
30	李時逸	丙子(1756)	慶州		○
31	任 玉	壬午(1762)	豊川		○
32	李鼎揆	戊子(1768)	驪州		○
33	孫處仁	甲午(1774)	一直		○
34	南景羲	丁酉(1777)	英陽		○
35	權應範	同年	安東		○
36	李鎭宅	同年	慶州		○

番	姓名	合格年度	本貫	雜	史誌
37	李鼎德	癸卯(1783)	驪州		○
38	崔　璧	同年	慶州		○
39	李鼎秉	丙午(1786)	驪州		○
40	李鼎牧	庚戌(1790)	驪州		○
41	李覲吾	同年	鶴城		○
42	崔心健	壬子(1792)	慶州		○
43	崔仁簡	乙卯(1795)	慶州		○
44	崔道彬	甲子(1804)			○
45	李元祥	癸酉(1813)	驪州		○
46	徐洛淳	丙子(1816)			○
47	孫　嫮	同年	慶州		○
48	李淵祥	己卯(1819)	驪州		○
49	李在直	丁亥(1827)	驪州		○
50	孫相昊	戊子(1828)	慶州		○
51	李晉祥	甲午(1834)	驪州		○
52	權瓚煥	丁酉(1837)	安東		○
53	李凝祥	同年	驪州		○
54	崔斗錫	同年	慶州		○
55	李在立	庚子(1840)	驪州		○
56	李在瀚	同年	驪州		○
57	孫相馹	同年	慶州		○
58	朴光立	同年	密陽		○
59	南溟翼	癸卯(1843)	英陽		○
60	李能燮	戊申(1848)	驪州		○
61	李擎日	庚戌(1850)	慶州		○
62	李在原	戊午(1858)	驪州		○
63	李在圭	同年	驪州		○
64	李能華	甲子(1864)	驪州		○
65	盧泳敬	丁丑(1865)	光州		通
66	朴時奎	乙酉(1885)	密陽		○
67	李能馥	戊子(1888)	驪州		○
68	李中久	同年	驪州		○
69	李時龍	庚寅(1890)	密陽		○
70	鄭　玹	同年	迎日		○
71	崔鉉弼	辛卯(1891)	慶州		○
72	孫耆永	同年	慶州		○
73	鄭顯載	同年	迎日		○
74	李錫璔	甲午(1894)	鶴城		○

番	姓名	合格年度	本貫	雜	史誌
75	(李汲泉)	(麗朝)			金

('雜'은『東京雜記』(1699), '邑'은『慶州邑誌』(1933), '通'은『東京通誌』(1933), '金'은『金鰲勝覽』(1936)이며, 'ㅇ'은 이들 〈三種誌〉에 모두 수록돼 있다는 뜻임. 이들 史誌에 문과방목으로 수록된 인원은 '雜'에 15명, '邑'에 66명, '通'에 72명, '金'에 64명임)

〈표 9-2-2〉 조선시대 경주지역 사마시(司馬試) 합격자

番	姓名	合格年度	史誌
1	崔 汭		ㅇ
2	李 點		ㅇ
3	孫 昭	癸酉(1453)	ㅇ
4	盧好仁	同年	ㅇ
5	孫仲暾	癸卯(1483)	ㅇ
6	孫叔暾	己酉(1489)	ㅇ
7	朱 炯		ㅇ
8	李光曾		ㅇ
9	李末仝	庚子(1480)	ㅇ
10	金 推		ㅇ
11	李 蕃	乙卯(1495)	ㅇ
12	孫季暾	同年	ㅇ
13	李山好	同年	ㅇ
14	李哲明	同年	ㅇ
15	李彦迪	癸酉(1513)	ㅇ
16	金世良	己卯(1519)	ㅇ
17	黃處中	壬午(1522)	ㅇ
18	黃宅中	同榜	邑,金
19	南世豪	同榜	ㅇ
20	李乙奎	辛卯(1531)	ㅇ
21	李德元		ㅇ
22	李禮元		ㅇ
23	李 翰		ㅇ
24	崔起潼		ㅇ
25	崔九疇		ㅇ
26	吳繼宗		ㅇ
27	金振文		ㅇ
28	鄭 髡		ㅇ
29	李光亨		ㅇ
30	文繼游		ㅇ
31	李士林		ㅇ
32	崔山海		ㅇ

番	姓名	合格年度	史誌
33	徐勇元	戊午(1528)	○
34	李山甫		○
35	孫台弼		○
36	金順玉		○
37	金漢宗		○
38	金季洙		○
39	朱　鵬	甲午(1534)	○
40	南　景	丁酉(1537)	○
41	崔雲水	庚子(1540)	○
42	金世柱	癸卯(1543)	○
43	安　貞	同年	○
44	金得地	乙卯(1555)	○
45	李承曾	戊午(1558)	○
46	孫光皜	同年	○
47	李忠憲	甲子(1564)	○
48	崔起南	同年	○
49	朱士英	同年	○
50	孫　曄	戊子(1588)	○
51	李弘慤	戊辰(1568)	○
52	金得基	庚午(1570)	○
53	鄭　珩	癸酉(1573)	○
54	鄭胤金	同年	○
55	安潤身	丙子(1576)	○
56	崔臣隣	壬午(1582)	○
57	吳　절	辛卯(1591)	○
58	權應生	乙巳(1605)	○
59	韓克孝	己酉(1609)	○
60	李宜活	壬子(1612)	○
61	李宜潛	同年	○
62	崔東彦	癸丑(1613)	○
63	權應立	同年	○
64	金應鳴	己未(1619)	○
65	鄭　亨	戊午(1618)	○
66	李　晭	同年	○
67	金宗一	甲子(1624)	○
68	鄭　취	同年	○
69	郭　靄	丁卯(1627)	○
70	李尙一	同年	○

番	姓名	合格年度	史誌
71	徐一元	乙亥(1635)	○
72	李耆徵	己卯(1639)	○
73	鄭之泰	戊子(1648)	○
74	孫 佶	甲午(1654)	○
75	李 皖	癸亥(1683)	邑
76	李 현	甲午(1654)	○
77	金建準	丁酉(1657)	○
78	李 塼	同年	○
79	李 壧	辛丑(1661)	○
80	崔啓基	癸卯(1663)	○
81	李 垏	丙午(1666)	○
82	李 자	同年	○
83	任仁重	辛酉(1681)	○
84	李德齊	同年	○
85	金光震	同年	○
86	李德玄	壬戌(1682)	○
87	李廈構	癸亥(1683)	○
88	李德標	己卯(1699)	○
89	李時中	同年	○
90	李壽朋	同年	○
91	李誠中	同年	○
92	李德謙	乙酉(1705)	○
93	韓是愈	同年	○
94	孫是相	戊子(1708)	○
95	金禮甲	同年	○
96	李敬中	庚寅(1710)	○
97	孫命說	癸巳(1713)	○
98	權道樞	同年	○
99	李見龍	丁酉(1717)	○
100	李德祿	辛丑(1721)	○
101	孫景杰	同年	○
102	劉文濬	乙巳(1725)	○
103	崔柏齡	丙午(1726)	○
104	李精中	壬子(1732)	○
105	柳宜健	乙卯(1735)	○
106	許 琪	同年	○
107	黃命啓	戊午(1738)	○
108	李範中	辛酉(1741)	○

番	姓名	合格年度	史誌
109	李憲洛	甲子(1744)	○
110	李時喆	同年	○
111	李憲燾	甲戌(1754)	○
112	鄭光履	同年	○
113	南龍萬	丙子(1756)	○
114	鄭　熹	同年	○
115	李敦恒	同年	○
116	李鼎勳	同年	○
117	李憲伋	己卯(1759)	○
118	李　標	癸未(1763)	○
119	李鼎宇	同年	○
120	李憲儒	同年	○
121	崔濟漢	同年	○
122	黃　斛	乙酉(1765)	○
123	李述賢	同年	○
124	金振夏	辛卯(1771)	○
125	崔宗嶂	癸巳(1773)	○
126	任一鑌	同年	○
127	鄭東弼	同年	○
128	李憲錫	同年	○
129	李憲愚	甲午(1774)	○
130	孫憙一	丁酉(1777)	○
131	南萬丈	同年	○
132	南景羲	同年	○
133	安宅重	同年	○
134	孫國濟	庚子(1780)	○
135	孫鼎九	同年	○
136	李鼎翊	同年	○
137	南景采	癸卯(1783)	○
138	權彦標	同年	○
139	李樹仁	癸卯(1783)	○
140	崔　璧	同年	○
141	孫星說	丙午(1786)	○
142	李鼎敬	己酉(1789)	○
143	柳榮魯	庚戌(1790)	○
144	崔南復	壬子(1792)	○
145	李鼎儼	乙卯(1795)	○
146	崔鵬遠	戊午(1798)	○

番	姓名	合格年度	史誌
147	孫星岳	辛酉(1801)	○
148	李觀祥	同年	○
149	李鼎基	同年	○
150	李覲吾	己酉(1789)	○
151	韓文健	癸亥(1803)	○
152	金聲斗	同年	○
153	李鼎益	甲子(1804)	○
154	朴春東	乙丑(1805)	○
155	李元祥	丁卯(1807)	○
156	任　棨	己巳(1809)	○
157	李泰祥	癸酉(1813)	○
158	崔世麟	丙子(1816)	○
159	李博祥	同年	○
160	南鴻陽	壬午(1822)	○
161	李耆祥	同年	○
162	崔祈永	乙酉(1825)	○
163	崔濟宅	同年	○
164	李鍾祥	辛卯(1831)	○
165	李海祥	甲午(1834)	○
166	崔世春	同年	○
167	李在伋	乙未(1835)	○
168	李在珏	同年	○
169	李能玄	丁酉(1837)	○
170	李珪和	同年	○
171	李祥馹	同年	○
172	李龍載	庚子(1840)	○
173	崔世龜	同年	○
174	南基恒	癸卯(1843)	○
175	李琥祥	甲辰(1844)	○
176	李在韶	同年	○
177	金時鐸	己酉(1849)	○
178	李璋燦	壬子(1852)	○
179	李能亨	同年	○
180	李能奕	戊午(1858)	○
181	孫友永	同年	○
182	李在喜	己未(1859)	○
183	崔晩喜	辛酉(1861)	○
184	李在榦	同年	○

番	姓名	合格年度	史誌
185	金泰魯	同年	○
186	李憙久	甲子(1864)	○
187	孫相駿	同年	○
188	吳漢澤	同年	○
189	李能升	乙丑(1865)	○
190	金奎學	同年	○
191	李能模	丁卯(1867)	○
192	李寅久	庚午(1870)	○
193	徐唐五	同年	○
194	崔秉壽	同年	○
195	朴容復	同年	邑
196	李能秊	癸酉(1873)	○
197	金在麟	同年	○
198	李紀元	同年	○
199	李在基	甲戌(1874)	○
200	崔晩善	丙子(1876)	○
201	李錫敎	己卯(1879)	○
202	南熙朝	庚辰(1880)	○
203	李庭久	同年	○
204	金現龍	同年	○
205	李能斗	同年	○
206	朴文佑	壬午(1882)	○
207	朴東榮	同年	○
208	李奎魯	同年	○
209	李邁久	同年	○
210	孫耆永	同年	○
211	朴箕鎭	乙酉(1885)	○
212	李宅久	同年	○
213	李圭一	戊子(1888)	○
214	崔鉉軾	同年	○
215	崔鉉卨	同年	○
216	崔鉉敎	同年	通,金
217	李東圭	同年	邑
218	李纘久	辛卯(1891)	○
219	金丞默	同年	○
220	李鍾文	同年	○
221	李鍾德	同年	○
222	李鍾南	同年	○

番	姓名	合格年度	史誌
223	金俊興	同年	○
224	李圭浩	同年	金
225	李能祜	甲午(1894)	○
226	鄭琪和	同年	○
227	權圭運	同年	○
228	崔鶴壽	同年	○
229	李能和	同年	邑
230	洪基燮	同年	○
231	崔海龍	同年	○
232	李圭奭	同年	○
234	李鍾瀅	同年	○
235	李能觀	同年	邑,金
236	張錫圭	同年	○
237	孫晉燮	同年	○
238	李源斗	同年	○
239	金基洙	同年	○
240	李熙喆	同年	通
241	金乙範	太祖	金
242	朱孔陽	太宗	金
243	朱悅后	太宗	金
244	李　默	太宗	金
245	朱舜臣	中宗	金
246	金希達	中宗	金
247	李德福	孝宗	金
248	李廷欽	肅宗	金
249	金　虔	乙酉	金
250	朴尙曄		金
251	朴永壽		金
252	李殷璨		金
253	朴時龜		金

(○표는 慶州邑誌, 東京通誌, 金鰲勝覽에 모두 記載된 것이고, 나머지 '邑' 은 慶州邑誌, '通' 은 東京通誌, '金' 은 金鰲勝覽에 기록돼 있다는 표시임.)



제3장 근 · 현대

※참고 자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 『독립운동사 사료집』(국가보훈처)
· 『신분장 지문원지』
· 『안동농림 학생항일약전』(안동농고동창회1978)
· 『동경속지』(下)
· 『경주시지』(1971. 10. 경주시)
· 『월성군사』(1989. 6. 20. 월성군)
· 『한국인물사』(현대의 인물 – 1983. 9.)
· 『경주체육 50년사』(경주체육회 1994. 12.)
· 『교육연감』(경상북도 편)
· 『경주 출신 초대작가 작품집』(1992. 경주문화원)
· 근 · 현 대 저명 유학자
· 『대구 · 경북 항일독립 운동사』(광복회,대구 · 경북연합지부1991)

※집필 기준 : 작고하신 사람으로서 이사관 이상의 관직 또는 선출직에서 세인이 칭송해 마지 않는 사람, 이 지역의 문화창달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세인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사람을 망라했음.

· 153명, 가나다순

○ 고정권(高湞權 ; 1929. 3. 10 ~ ?)

감포읍(甘浦邑) 오류리(五柳里)에서 출생했으며 그의 조부는 고용성(高龍聲)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사과(司果) 벼슬에 올랐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8회 고등고시 사법부에 합격하여 육군군법회의 군법무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 · 수원 · 전주 · 대구 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참고 자료 : 『월성군사』

○ 권정식(權禎植 ; 1925. 12. 11 ~ 1965. 6. 7)

노서동 25번지에서 아버지 권철죽(權哲竹)과 어머니 이유이(李有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 총명하고 활달하여 계림소학교(鷄林小學校) 창설 이래로 뛰어난 수재라는 칭찬을 받았다.

1940년 경 그는 일본 도코로자와[所澤] 소년항공병학교(少年航空兵學校)에 입

학했고, 일본 항공병이 되어 일본 공군 하사관으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한국군 창군과 동시에 그는 공군을 거쳐 국군 육사 7기 특기생으로 임관했다. 공군 인사과장을 거쳐, 보병학교, 군수참모, 미국 보병학교 고등군사반(高等軍事班)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대령으로 진급하여 삼군사(三軍司) 삼관구사령부(三管區司令部) 참모장 당시는 한국군의 수뇌로 기대가 대단한 것으로 자타(自他)가 인정하는 바였다.

그후 육군본부 감찰차감을 거쳐, 장군으로 진급해 27사단장으로 복무 중 신병을 얻어 치료하고 경과가 좋아 사단장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재발, 수도육군통합병원에 재입원 중 운명했다.

권정식은 불혹의 나이로 애석하게도 요절했다. 경주 최초의 별[將軍]은 이렇게 떨어졌다. 준장으로 타계한 것은 경주로서는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김교식(金敎植 ; 1905. 3. 17 ~ ?)

성건동에서 출생했다. 일본 중앙대학 법정과(法政科)를 졸업했다. 1955년 9월 2일에 간선(間選)으로 경주시장에 선임되었으며 재임 중에 시청사를 신축하여 낙성한 공이 크다. 성품이 호탕하여 각종 일화도 많이 남겼고 경주시 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1959년 9월 11일에 퇴임했다.

참고 자료 : 『경주시지』

○ 김기도(金基燾 ; 1922. 8. 8 ~ ?)

학도병으로 일본군에 징집되었다가 중국 개봉(開封)에서 홍구표(洪九杓)와 같이 탈출하여 독립군 제2지대에 입대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자료 : 『한국독립사』(김승락) 하권 313쪽,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6권 307쪽

○ 김덕련(金悳鍊 ; 1869~ 1929)

김덕련의 자는 건칠(建七)이고 호는 고헌(顧軒)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경주군 산내면 내칠리(內漆里) 동신계(東薪溪)에 이사해 왔다.

김우간[獨省齋]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월성 김씨다. 그는 여섯 살 때부터 배움에 열심이었으며, 같은 또래 아이들이 그를 '책벌레' 라 불렀다. 이런 아들을 두고 아버지 독성재(獨省齋)는 그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산내에서 봉화현(奉化

縣) 삼동리(三洞里)로 이사했다. 그리고 조현익(趙顯翼)의 문하에서 배웠다.

그는 15세에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고 16세에 달성시(達城試)에서는 그가 글을 지어 쓰는데 많은 사람이 주변에 담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그는 과거 공부에는 뜻이 없고 경전 연구에만 몰두하여 조용히 『대학』을 읽고 있으니 동문들이 "총각 학자(總角學者)"라고 했다.

1891년 봉화현감(奉化縣監) 장화식(張華植)이 향시를 보였을 때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1902년 그가 어버이를 모시고 외동읍 신계리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선조 김득복(金得福)이 임란 때 창의하여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쏘아 경주읍성을 수복하는 공을 세웠는데 그 때까지 그 실기(實記)가 없었다. 그는 자료를 모아 『동엄실기(東广實記)』를 간행했다. 그리고 『각간선생실기(角干先生實記)』 4책을 편찬했다.

○ 김동리(金東里 ; 1913. 11. 24 ~ 1995. 6. 17)



성건동(城乾洞) 186번지에서 아버지 김임수(金壬守)와 어머니 허임순(許任順)과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김동리의 호적명은 창귀(昌貴)이고 자(字)는 시종(始鐘)이며 동리(東里)는 그의 호이다.

1920년에 경주 계남학교에 입학, 1926년에 졸업하고 대구 계성중학교에 입학, 1928년, 서울의 경신중학교 3학년에 편입학했다. 그러나 김동리는 1929년 4학년이 되자 학교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학교를 자퇴하고 부산에 있는 맏형 범부(凡父) 김기봉(金基鳳) 댁으로 내려갔다.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중학교 졸업마저 포기한 그는 〈독서신문〉 156호에서 "문학 수업에 학교 공부는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1933년 범부 선생의 상경 시에 따라 올라 온 그는 여러 신문, 잡지사의 신춘문예에 응모했다. 1934년에 시 「백로(白鷺)」가 입선되었으며, 1935년에 〈중앙일보〉에 소설 「화랑의 후예」가 당선되었고, 이후 그는 전심전력 문예활동에 몰입했다. 1945년 경남의 사천(泗川)에서 해방을 맞은 그는 전쟁 동안 못했던 문학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1946년 상경하여 「윤회설(輪回說)」, 「미수(未遂)」 등 작품을 발표하면서 좌익계열 문학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朝鮮文學家同盟)에 대결하기 위하여 청년문학가협회(靑年文學家協會)를 결성하여 자유진영 문학단체의 선봉에 섰다.

1951~1953년의 한국전쟁 중에는 문총구국대(文總救國隊) 한국문학가협회(韓國文學家協會)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1957년에는 「사

반의 십자가」, 1961년에는 「등신불(等身佛)」 1967년 「무녀도(巫女圖)」 등의 작품을 남겼고, 1967년에는 '3·1 문화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1970~1980년대까지는 기존의 작품을 묶은 작품집이나 대표적인 작품의 영역(英譯), 불역(佛譯), 일역(日譯)본과 수필집을 출간(出刊)하는데 주력했고, 1972년 서라벌예술대학장, 1973년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했으며, 1989년 한국문인협회(韓國文人協會)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1990년 7월 30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5년 영면했다.

※제6편 문화·예술 제2장 예술 제1절 문학 참고

○ 김두오(金斗五 ; 1911. 11. 9 ~ 1945. 4. 15)

1928년 3월 감포에서 중앙일보(中央日報) 감포지국(甘浦支局) 기자로 있으면서 보통문예잡지(普通文藝雜誌) 전선지국(全線支局) 등의 사업에 종사했다.

1933년 10월 경 농민야학회(農民夜學會)를 개설하여 교사로서 빈농가(貧農家) 출신의 청소년들에게 문자 해독(文字解讀)을 지도하고 자신이 창작한 「농민야학가(農民夜學歌)」, 「농촌의 추기(農村의 秋期)」 등을 노래로 가르치는 한편 학예회와 소인극(素人劇) 등을 계획하고 지도하였다. 또한 정상갑(鄭尙甲), 최병호(崔炳鎬), 김만갑(金萬甲), 정중교(鄭重敎), 정덕영(鄭德榮)과 함께 '가나다소년회'를 비밀결사하여 「능라도(綾羅島)」라는 연제(演題)를 가지고 동네사람 50여 명에게 소인극을 실연(實演)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1936년 3월 20일 대구지방 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4년 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판결문(1936년 3월 20일 대구복심법원),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797~800쪽

○ 김만득(金萬得 ; 1916. 4. 14 ~ 1959. 10. 10)

중국 강서성(江西省) 구강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군속으로 근무 중 1943년 7월 탈출하여 광복군에 입대, 제2지대 제3구대 강남분대의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31쪽,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6권 442, 615쪽

○ 김만술[金萬述 ; 1910. ~ 1996. 2. 22(음)]



본관이 월성이며 호를 수월(水月)이라 했다. 사정리에서 김성기(金聲琪)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술전람회 특선, 제6회 향토문화상 수상, 한국문화진흥원(韓國文化振興院) 주최 지방작가 초대전 출품, 경상북도 문화상 수상, 경주시 문화상 등 수상하여 조각장(彫刻匠)으로 불렸으며, 그 조각 기술이 절윤하여 경주시 요소에 배치된 김유신장군 기마상(騎馬像), 서천교 자락에 세워진 석사자상(石獅子像), 또 수많은 불상(佛像)을 제작하여 그 명성이 국내외에 자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제6편 문화 · 예술 제2장 예술 제3절 미술 참조

○ 김민환(金旻煥 ; 1909. 6. 20 ~)

황오리에서 태어났다. 건천보통학교를 졸업한 김민환이 광주농업학교 재학 중 1926년 11월 3일에 조직된 항일학생 결사 성진회(醒進會) 회원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성진회는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조국의 독립 사회과학연구, 식민지 노예교육 반대 등을 기본 강령으로 하였다.

회원들은 매월 첫째와 셋째 토요일에 모여서 민족적 교양의 함양과 사회과학을 통한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도중에 회원 중 이반자가 생겨 기밀 누설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1927년 3월 동회를 해체했다. 성진회의 해체는 외관상 형식적이었을 뿐으로 주동 학생들의 활동은 계속되어 나갔다.

1928년 2월 졸업을 앞두고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두암리(斗岩里)에 있는 지용수(池龍洙) 집에서 임주홍(林周弘), 최규창(崔圭昌), 김광용(金匡溶), 문승수(文升洙) 등 선진회 주동 학생들과 모임을 갖고 졸업 후 항일운동의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계속 성진회의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1928년 3월에 동교를 졸업한 후 군농회 기수(郡農會 技手)로 근무하면서 성진회의 목적을 위해 활동을 계속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시위 후 성진회 관련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 후 일경의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항소하여 1931년 6월 대구복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에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 김범부(金凡父 ; 1897. 2. 18 ~ 1966. 12. 16)

성건리 186번지에서 김임수(金壬守)와 허임순(許任順)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정설(鼎卨)이다. 유년시절부터 신동이란 칭찬을 들으며 자랐다. 7세 때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12세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독파하여 다시 천재임을 확인하게 했다. 18세 때에 깨달은 바가 있어 입산수도를 계획했으나 오히려 도일(渡日)을 결심했다. 그는 도쿄의 외국어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했으므로 영어와 독일어는 능숙했고, 계속하여 교토제국대학 청강생으로 수학했다. 그의 해박다식(該博多識)한 식견과 탁월한 철학적 이론에는 교수들도 대선배 대하듯 존경해 마지않았다는 것은 후일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20년부터는 YMCA에서 '칸트'를 강의했고 그 무렵부터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에 출강하여 불교철학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찍이 우리나라에 김범부처럼 동서철학을 한눈으로 투시할 수 있는 학자는 없었다. 그 후 그는 깊은 산골 사암(寺庵)을 순례하며 대중을 위한 불교철학의 오지를 답사하여 강좌를 열기도 하고 구국(救國)과 난세 극복에 전력을 바쳤다. 그는 종교철학자이며 문장가이며 또한 시인이기도 했다.

해방을 전후해서는 정인보, 최남선, 한용운 등과 교류하면서 국난을 논하고 민중계도에 힘썼다. 1950년에 경상남도 동래군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의정단상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정화를 주장했다.

한국전쟁 이후 어지러운 세상에 나아가서 힘 바쳐 일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의 전통이며 얼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사상의 실리적인 체득과 전수의 계발을 위해서이며, 사회의 윤리적인 생활화에 목표를 둔 것이었다. 그래서 경주에 계림대학(鷄林大學)과 동방사상연구소(東方思想硏究所)를 설립하여 필생의 사업인 동양철학과 한학을 강의하며 자신의 근본정신을 발휘하였다.

저서인 『화랑외사(花郎外史)』, 『세간학(世間學)』, 『국제평화문제(國際平和問題)』 등을 보아도 김범부의 생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대의 마지막 선비로서 한국정신의 중추적 모습이기도 했으나 가정사나 일상사에는 소홀했던 사람이었다. 사리사욕에는 소경이며, 집안 일에는 외인이었다. 성격이 호방하여 두주를 사양치 않았으며 친구라면 가문권속의 의 · 식 · 주보다 먼저 챙기는 성품이었다.

16세 때에 김씨 가문의 규수와 결혼해서 3남 6녀를 두었으며 5 · 16후에는 한때 '5월 동지회'의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다시 초야에 복귀했다가 1966년 12월 16일 70세로 일생을 마쳤다.

동서철학은 물론, 학문과 예술정신을 함께 배워 얻은 문하생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은 그의 친아우인 한국 문단의 거봉 김동리(金東里)라 하겠으며 말년에는 석천(石泉) 오종식과 두터운 교분을 맺었었다.

○ 김봉규(金鳳奎 ; 1892. 8. 30 ~ 1968. 2. 3)

감포읍 나정리(羅亭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3 · 1 독립만세 시위운동 때 지역 향리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1920년 송두환(宋斗煥), 최윤동(崔胤東), 이수영(李遂榮) 등과 같이 대구 일대를 중심으로 상해임시정부의 지령에 따라 군자금 조달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직장인 부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그 대상자를 정하고 경남 합천, 의령지방에서 활발히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때에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원을 미행하던 의령경찰서의 일본경찰 가히[甲斐]가 그와 김종철을 체포하려 하자 동지 김종철(金鍾喆)이 그를 사살하고 함께 도피하였다.

그 후 송두환, 정동석 등과 함께 체포되어 1924년 11월 6일 대구지방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건국훈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판결문(1924. 11. 6 대구지방법원),
『고등경찰요사』 225, 227쪽,
『독립운동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849쪽

○ 김봉식(金鳳植 ; 1915. 10. 9 ~ 1969. 4. 23)

1940년 2월에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에 입대하여 항일투쟁활동을 전개하던 중 1941년 1월 1일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이 창군(創軍)되자 중국 서안(西安)에 본부를 둔 광복군 제5지대에 편입되어 지대장 나월환(羅月煥)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1942년 5월에 제5지대가 광복군 제2지대로 개편됨에 따라 그는 제2지대 제2구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한국 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5권 21쪽,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6권 228, 229, 407쪽

○ 김성태(金性泰 ; 1928 ~ 1953)

황오동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성품이 괄괄하고 불의를 못참고 기어코 참여하여 일을 바르게 끝내려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1942년 경주중학교에 입학하여 일제강점기의 막바지인 1944년 혹독한 전시작업에 지쳐, 여름 작업 도중에 일본인 교사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 일로 퇴학당하여 대구계성중학으로 전학했다.

해방 후에 다시 전입학하여 1946년 8월 졸업 후 그 해 말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육군장교로 임관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육군 정보대대장으로 많은 공을 세우고 적의 후방침투작전 중 전사했다[포로가 되어 귀환한 부하 하사관의 증언].

지금 황성공원 6 · 25 전몰자 비석에 그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데, 당시의 계급은 육군 중령이었다.

○ 김세종(金世鐘 ; ? ~ 1923)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약했다. 1910년을 전후하여 해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위해 전 국민을 무장세력으로 양성하고 군비를 갖추면서 독립운동의 효과적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다.

김세종은 1919년 3 · 1 운동 이후 중국 봉천성(奉天省) 유하현(柳河縣)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중위(中尉)로 임관되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20년 10월 경 그는 일본군이 독립군을 압박하기 위하여 만주로 출동해오자 이에 대항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1923년 경 독립군부대와 함께 재기(再起)를 모색하기 위해 노령(露領) 이만으로 이동 중,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동사(凍死)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동아일보〉 1923. 4. 2.

○ 김억봉(金億鳳 ; 1908. 2. 7 ~ 1995. 4. 23)

안강리 314번지에서 태어났다. 1928년에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동 연습과 1년을 수료했다. 그는 체육분야에서 특히 능력과 취미가 많아 재학시절에 한국대표로 전일본대회(全日本大會) 정구선수로 출전했다.

1929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1934년에 고향서 근무하였다. 1945년 경주시청에서 시학(視學) 근무를 하고 1949년 경주여자 중학교장을 역임했으며,

여성교육에 전력을 쏟았다. 그는 항상 교육에는 엄하였고 개개인에게는 매우 자상하고 인자했다. 슬하에 5녀를 두고 1950년에 부인과 사별하고, 다섯째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서야 비로소 재취한 일화는 교육자로서 귀감이었다.

학생의 체육교육에서 배구, 농구, 탁구, 육상부는 직접 맡아 지도했으며 경북에서는 항상 상위권에 입상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교사(校舍)가 육군병원으로 쓰이고 야외수업을 해야 했을 때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의 교육이었기에 그 마음 씀씀이는 뜻있는 여성들이 존경의 눈으로 감탄했다.

1973년 2월 28일에 그가 사랑한 경주여자고등학교에서 정년퇴직했으며 정부에서는 교육계에 끼친 그의 공로를 기리어 대통령 홍조소성훈장(제238호)을 수여하였다.

○ 김영만(金泳萬 ; 1916. 1. 5 ~ 1986. 1. 27)

본관이 경주(慶州)이며 호를 일초(一初)라 했다. 1916년 1월 5일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花谷里) 625번지에서 장사랑 숭혜전 참봉(將仕郎 崇惠殿 參奉) 김규석(金圭錫)과 여강(驪江) 이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건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 공무원으로 출발했다. 1946년 10월에는 내남면장을 지내고 1964년 4월 10일 경주군수로 부임하였고 1965년 8월 13일에 퇴임하였다.

근무 중 30여 회에 걸쳐 상 · 표상을 받았으며 특히 1790년에 면려포장, 1975년에 근정포장, 그 외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5 · 16 군사쿠데타 이후의 조국개발에 발맞추어 농촌의 전화(電化)사업, 농지정리 사업, 교량가설(橋樑架設)사업, 농촌생활 개선 등 현대생활로 발전하는 과정을 향리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크게 돋보인다.

○ 김인태(金仁太 ; 1937. 3. 15 ~ 2003. 4. 22)



1991년 10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韓國産業人力工團)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금속공예(金屬工藝)부문 명장(名匠)으로 추대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장제3호 증서를 받았다. 그는 13세 나이에 금속공예에 입문하여 30여년간 공예의 기능을 연마하고 예술에 대한 개안을 하게 되었다.

그는 황남동 155호 고분(古墳) 내부의 전시유물(展示遺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관, 장신구, 무기 등을 모작재현했다. 1978년 문공부에서 한국문화 소개를 목적으로 '한국미술 5천년 전'을 미국의 5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 전시 했을 때 천마총 목곽 내 유물 출토 상황을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도 금속공예의 명장답게 그의 손으로 제작된 50여 종의 유물 모조품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다.

○ 김영식(金永植 ; 1912. 7. 29 ~ 1999. 2. 1)

1912년 7월 29일 노동동 274-2번지에서 김익련(金益鍊)의 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퇴암(退菴),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한학자인 아버지 지산(芝山)으로부터 한학을 배우면서 경주보통학교를 졸업했고 1929년에 대구사범학교 특과에 입학하여 3년을 졸업했다. 1932년 4월부터 1946년 3월 31일까지 경주계림소학교를 시작으로 화북초등학교에서 교사직으로 봉직했다. 1946년 4월부터 내서국민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1952년 8월까지 예천, 영주, 경주시 등 각지의 장학사를 지내고 1952년 8월부터 1960년까지 경주군의 초대, 2대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초등교육을 지휘, 감독하면서 교육의 향상을 위해 전력했다.

1961년 7월부터는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문사위원회(文司委員會)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교육개혁에 앞장섰고 1963년 2월까지 가사와 고향을 돌볼 수 없는 다망한 세월을 보냈으며 고향에 돌아와서는 다시 율동, 월남, 월성, 황남, 구룡포 등 초등학교 교장직을 수행했다.

경주국립공원 추진위원장(慶州國立公園 推進委員長), 신라문화선양회회장(新羅文化宣揚會會長), 경주교도소교화위원장(慶州矯導所敎化委員長), 대한삼락회 경상북도회장(大韓三樂會 慶尙北道會長) 등 국가와 향리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협력 ·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도 남겼는데, 『교육자의 근본태도』, 『지산문선(芝山文選 - 한글 번역)』 등이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960년 1월 1일 녹조소성훈장(제2982호)과 1961년 11월 5 · 16 군사쿠데타 과업 유공 감사장(軍事革命課業 有功感謝狀 ; 제169호)을 수여했다.

○ 김정학(金廷洛 ; ? ~ ?)

노서동에서 살았다.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1970년 12월 30일에 경주시 교육청 제3대 교육장에 취임하여 1972년 3월 10일 퇴임했다. 그는 김산제(金山齊) 헌관을 지냈으며, 서악서원 발전에 진력했다.

○ 김재호(金在浩 ; 1900. 8. 20 ~ 1969. 9. 3)

경주사람으로서 경상남도 동래구 북면 범어사(梵魚寺) 승려가 되었다. 1919년 3월 18일 범어사 승려 김영규(金永奎)가 대한독립을 달성할 목적으로 주도하고 전개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18일 밤, 범어사 부속 지방학림(地方學林) 생도와 범어사 부속 명정학교(明正學校) 생도들과 공동으로 동래면 서문(西門) 부근에서부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래 시장을 통과하여 남문에 이르기까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튿날 19일에도 만세시위를 계속할 목적으로 오후 6시 경 최응권(崔鷹權) 등 수십 명의 양교 학생들과 함께 동면(東面) 시장에 집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 해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판결문(1919. 5. 20 대구복심법원), 부산 · 경남3 · 1운동사(3 · 1동지회 1979. 9. 10),

○ 김종석(金鍾奭 ; 1909. 1. 30 ~ ?)

경주시 노동동(路東洞)에서 태어났으며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배재고보(培材高普)를 졸업했다. 해방 후 경주소방서장을 역임하였으며, 1960년 12월 27일 경주시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1년 5월16일 군사혁명으로 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군사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다. 동년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0조 시장임명제 공포로 1961년 6월 20일 경주시장을 퇴임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1940년대 초부터 경주상계의 큰손으로 시가지 중심부에서 금성상회(金城商會) 대표로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또 각종 운동대회 때 시설 및 주선을 도맡아 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크게 이바지했다. (김기열 옹의 회고)

○ 김종철(金鐘喆 ; 1888. 12. 12 ~ 1941. 3. 10)

1919년 3 · 1 독립만세 시위운동 이후에 만주 봉천(奉天)으로 가서 송두환(宋斗煥), 최해규(崔海奎) 등과 의용단(義勇團)에 가입하고 군자금 모금차 국내로 돌아왔다.

1920년 12월 6일 동지 김봉규(金鳳奎)와 경남 일대에서 활동하며 합천(陜川)

의 부호 정달락(鄭達洛), 의령(宜寧)의 부호 남정구(南廷九) 등에게 군자금을 요구하던 중 남정구의 계략으로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연행 도중에 일경 가히[甲斐]를 사살하고 조선인 순사 손기수(孫騏秀)에게 중상을 입히고 만주로 탈출했다. 이어 상해로 가서 김원봉(金元鳳), 이종암(李鐘岩) 등이 조직한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여 상해, 만주 등지를 왕래하면서 1928년까지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80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참고 자료 : 『국외용의조선인명부』(총독부경무국) 75쪽, 형사사건부,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45쪽, 『고등경찰요사』 1,101, 102, 104, 224, 225, 227쪽,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166쪽

○ 김종해(金鍾海 ; 1922. 3. 24 ~ 1995. 11. 22)

감포읍에서 의원을 경영하여 한지 의료활동에 전력했다.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해변의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서 인술을 펴서 시골에서 인심을 얻고 의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4 · 19가 일어나고 국회가 해산되고 재선거가 실시되어 제5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5 · 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5월 16일에 국회해산으로 물러났다. 의정활동 이후는 감포읍에서 의료활동을 하였다.

참고 자료 : 『월성군사』

○ 김준식(金埈植 ; 1923. 10. 9. ~ 1992. 12. 2)

호를 관성(冠城)이라 했으며 경주시 성건동 620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본 도쿄 태평양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경주에서 신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후에는 경주예술학교장과 계림대학 미술과장을 역임했다. 대한미술협회 회원이며 서라벌 미술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2대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경주지부장을 지내면서 석굴암 조각품을 연구했다.

제6대 예총경주지부장(1969. 4. 3 ~ 1971. 4. 15), 제8회 신라문화제 대회장을 역임했고 제 5, 6회 도쿄 미술협회전시회 출품을 비롯하여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을 비롯하여 국전에 입선하였고 개인전 2회를 개최했으며 대한미술원 회원(大韓美術院 會員)이었다. 1988년에 제2회 금복문화 예술상을 수상했다.

○ 김철(金喆 ; 1896. 9. 6 ~ 1978. 3. 21)

1919년 3월 11~12일에 노동리에서 박내영(朴來英), 윤기효(尹琪涍) 등의 주도로 3월 13일 독립만세 국민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박문홍(朴文泓)의 집에서 태극기 300여 매를 만드는 등 준비를 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그는 다시 3월 15일 박봉록(朴鳳祿), 서봉룡(徐鳳龍) 등과 함께 경주읍 장날에 모인 많은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그해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뤘다. 그 후 그는 사립학교 교원 4년, 신문사 기자 12년을 역임했으며 해방 후 53세 때에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참고 자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3 · 1 운동실록』(이용락 : 732, 733쪽),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43쪽

○ 김태호(金泰鎬 ; 1942. 2. 26 ~ 1998.)

서부리(西部里) 7번지에서 김충석(金忠錫)의 아들로, 노동(勞動)으로 생활하는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57년 경주중학에 입학하면서 야구 투수(野球投手)로 비범한 소질을 보였다. 1959년 8월 5일 대통령 친선우승기쟁탈 전국중학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동년 8월 말 제2회 전국도시대항 연식야구대회에서도 우승했으며, 동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40회 전국체전에 경북대표로 출전하여 결승전에서 남전[南電= 한국전력(주)의 전신 팀]과 싸워 2:1로 우승한 투수로서 우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약관 17세로 이렇듯 투수로서의 명성을 높였으며 후일 경상북도청 팀에 소속되어 활동했으나 분명한 소속인으로의 뜻을 펴지 못하고 좌절한 경주가 낳은 불세출의 투수라 하겠다.

특히 미국 비엔나 · 파크시 중학교 올스타 팀과의 시합은 비엔나 · 파크 팀이 1959년 한국 원정에 나와서 서울, 춘천, 대전, 부산 선발팀들과 경식(硬式)으로 대전하여 전승으로 대구에 왔다. 대구선발 팀에게 승리하고 1959년도 대통령 친선우승기 쟁탈전 우승팀인 경주중학교 팀과 마지막 시합을 대구 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개최했다.

서울, 춘천, 대전, 부산 등지의 야구 유지들이 중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치르는 경식야구이기 때문에 그 관심은 굉장했다. 경주중학 팀의 김태호 투수의 역투가 비엔나 · 파크 팀의 타봉을 철저하게 막아 3:1 승리를 거두고 육군 제2군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시가지를 카퍼레이드하고 전도민의 환영을 받았다.

물론 모든 선수가 하나가 되어 잘 싸웠지만 김태호 투수의 역투가 결정적인 것이었다 하겠다.

참고 자료 : 『경주체육 50년사』

○ 김학봉(金學鳳 ; ? ~ ?)

1919년 당시 그는 경주읍에 거주하였으며 대구 학생운동의 소식을 김기원(金基源)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박래영(朴來英), 박문홍(朴文泓) 등과 더불어 3월 11일과 12일에 노동리 교회당(路東里 敎會堂)에서 모임을 갖고 경주에서 단행할 독립만세운동을 협의하고 1919년 3월 13일 경주읍 장날에 거사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3월 12일 밤, 박문홍 집에서 태극기 300개를 만들어 13일 새벽에 동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때 수상한 기미를 눈치 채고 경계하던 일경에게 누설되어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 3월 15일, 경주 작은 장날에 많은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이날의 거사는 준비 도중에 주동 인물들이 많이 검거됨으로써 대규모의 만세운동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그는 이해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 받았고 미결 기간을 합산하여 1년여의 옥고를 치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참고 자료 : 판결문(1919. 4. 15 대구지방법원), 범죄인 명부,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2, 443

○ 김형진(金亨鎭 ; 1914 ~ 1993)

김형진의 자는 문여(文汝)이고 호는 강재(江齋) 또는 석농(石儂)이다. 자라면서 재주가 뛰어나고 천품이 명석하여 일찍이 영천에 사는 명암(明庵) 이태일(李泰一)에게 글을 배웠다.

후일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여 이가원(李家源) 등과 같이 한학을 전공하였다. 1980년 초에 정부가 주도하여 반월성 주변정화사업이란 이름으로 월성교 가에 있던 경주 사마소(司馬所)를 이건하게 되었다. 1983년 여름에 경주 사림(士林)을 대표하는 김형진, 이인식(李仁植), 손국호(孫國鎬) 등은 이문환(李文煥) 경주시장을 방문하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마침내 사마소를 지금의 위치로 옮기는 대신 유림들이 유식(遊息)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얻었다. 그곳이 성건동에 있는 지금의 정풍루(整風樓)이다. 김형진은 이곳에서 여러 문사(文士)들과 같이 시회(詩會)

를 열고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그는 서(序), 발문(跋文)과 묘갈명(墓碣名) 등 1천여 편과 『여등록(黎燈錄)』을 남기고 정리를 다 못한채 1993년 가을에 영면한 이 지방 근대의 한학자이다.

○ 문관준(文官峻 ; ? ~ ?)

문관준은 경주사람이다.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사범학교에 진학했다. 많은 초등학교의 교사를 역임하고, 1960년 2월 4일 경주시 교육청 제3대 교육감으로 부임하여 1962년 1월 5일 퇴임했다.

○ 박곤복(朴坤復 ; 1896 ~ 1948)

박곤복의 자는 원뢰(元雷)라 하고 호는 고암(古菴)이며 본관은 경주다. 건천읍 화천리(花川里)에서 박인회(朴仁檜)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영양 이씨(英陽李氏)이다. 고암은 7세 때부터 글을 배웠다. 눈비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글을 읽었고 집에 돌아 와서도 한결같이 글을 읽고 노력했다. 자라면서 일제에 불법으로 나라를 뺏긴 울분으로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의 의열(義烈)을 숭모하여 양석굴(楊石窟) 요양소를 찾아 가 함께 의(義)로 사귐을 맺었다.

해방 후에는 지방의 유지회(維持會) 회장에 피선되어 향리 지도에 헌신했으며 또 대구 계성중학교 한문 강사로 학생 지도에 전력했다.

4권의 『옥룡암기(玉龍菴記)』가 전하고 있다. 금오산과 문천 사이에 탑곡(塔谷)이 있는데 그 자락에 아름다운 숲이 우거져 있다. 그 가운데에 띠집 5칸 짜리를 짓고 그 집을 옥룡암이라 했다. 1924년에 박일정(朴一貞)이란 비구승이 암자를 짓고 현몽에 의해 옥룡(玉龍)이라고 이름지었다. 1929년에 칠성각 2칸을 짓고 1933년에 산령각(山靈閣) 1칸, 극락전 6칸, 곡료(曲寮) 5칸을 지었다. 이를 계기로 고암(古菴)은 옥룡암에 자주 들렀고 당시의 저항시인 이육사(李陸史)도 경주에 오면 이곳과 수봉정(秀峯亭)을 가끔 방문했다고 한다. 『옥룡암기』의 서문은 정병찬(鄭炳璨), 발문은 김필휘(金必輝)가 썼다 한다. 옥룡암은 지금은 불무사(佛無寺)로 불리고 있다.

○ 박동주(朴東柱 ; 1896 ~ 1964)

박동주의 자는 보익(保翊)이고 호는 회산(晦山)이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그는 서악동(西岳洞)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박윤수(朴潤洙), 어머니는 경주 김씨이다.

그는 10여 세에 삼석(參石) 김재헌(金載憲)에게 배웠다. 그는 의표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성품이 과묵하였다.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고 여가에 전심전

력 학문에 정진했다. 그는 특히 성리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먼저 『대학』과 『중용』을 세우는 이치를 규명하였다. 이로써 그의 경학에 대한 깊이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국역본 문집 4권 1책이 있다.

○ 박문홍(朴文泓 ; 1887. 4. 8 ~ 1957. 12. 9)

1919년 3월 13일 경주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박내영, 윤기효(尹琪涍) 등과 함께 시위운동의 주동이 되어 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가 거사 직전에 발각됨으로써 잡혔다.

경주읍내의 만세운동은 경주 노동리 교회의 교인 박문홍 등이 3월 9일에 경산(慶山)의 기독교 목사인 김기원(金基源)으로부터 3월 8일의 대구 만세운동 소식을 들음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박문홍은 박내영(朴來英), 윤기효(尹基涍) 목사 등과 함께 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우며 동지를 포섭해 갔다.

이들은 우선 신망있고 애국심있는 청년 5, 6명을 포섭하여 3월 11일과 12일 밤, 두 차례에 걸쳐 노동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 · 제작하였다, 이 때 태극기는 3월 12일 밤, 박문홍의 책임 하에 자신의 집에서 태극기 3백여 개를 만들었으며, 3월 13일 새벽을 기해 각처에 배포하였다.

그런데 태극기의 배포 사실이 일경의 경계망에 포착되었으니, 경주경찰서에서는 3월 13일 새벽에 기동대를 투입하여 만세운동 주동자들을 체포했다. 이로써 박내영(朴來英)은 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경에 피체되고 말았으며, 3월 13일의 읍내 장터에서의 시위 계획도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립을 갈망하는 만세운동에의 의지는 군중에서 군중으로 계승되면서 읍내 작은 장날인 3월 15일에 수천여 군중들은 박문홍, 박내영 등이 제작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박문홍은 이 일로 1919년 4월 15일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옥고를 치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고등경찰요지(경북경찰부),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3쪽

○ 박병욱(朴柄郁) (1857 ~ 1930)

자를 윤화(允和)라 하고 호를 호봉(瑚峯), 본관은 경주이다. 그는 천북 천군동(千軍洞)에서 박규춘(朴奎春)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김해 김씨이다.

아버지는 그의 뛰어난 재주를 보고 학문으로 성취시키고자 했다. 자라면서 입

헌(立軒) 한운성(韓運聖)에게 배웠다. 그는 아버지 명으로 과거에 응시했는데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고을 선비들의 추천으로 교관에 임명되었으나 1910년 나라가 망하자 통곡하고 두문불출했다. 1896년에 어버이에 대한 불효를 늦게 뉘우치고 선묘 아래에 '척기당(陟屺堂)'을 짓고 매일 두 번씩 성묘하는 효를 보였다.

1957년에 『숭덕전능침사실기(崇德殿陵寢事實記)』를 지었다. 그 글에 참봉 박존고(朴存古)가 숭덕전 사실에 대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전 참봉은 왕릉 10기를 받들고 있습니다. 시조 왕릉은 본전 뒤 남정수(南亭藪) 내에 있고 능은 높고 큽니다.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 및 시조 왕비릉이 같이 있어 이를 세상 사람들은 오릉(五陵)이라 부릅니다.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릉은 10리 쯤 남쪽 배일리(拜日里)에 있는데 이를 삼릉(三陵)이라 합니다. 경애왕릉도 배리에 있고 삼릉과 매우 가깝습니다. 능 위에 소나무, 대나무가 자라 뿌리가 능 내부로 뻗어 있어 노비를 시켜 나무를 베었습니다. 지마왕릉은 포석정 동남쪽 부근에 있는데 소나무 뿌리가 능을 침범하여 또 잘랐습니다. 일성왕릉은 옛말에 해목령(蟹目嶺) 아래에 있다고 전합니다. 능 봉분은 무너지고 소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따라서 돌을 쌓고 봉토한 후 일반 사람들이 범장한 묘는 모두 파서 옮기게 했습니다"고 적고 있어 보니 그것이 확실했다. 서문은 김제춘이 쓰고, 발문은 박정곤(朴定坤)이 지었다.

○ 박봉수(朴奉洙 ; 1916 ~ 1991)



사정동(沙正洞)에서 박재복(朴載馥)의 아들로 태어났다. 호를 지홍(智弘)이라 했으며 동양화의 대가로 그 명성이 국내외에 높았다. 동남아(東南亞) 개인전 5회, 신라문화제 창립기념전시회, 미공보원 초대 개인전 2회, 미국대사관 초청 개인전, 미국초대 개인전, 서독대사관 초청 개인전, 일본 나라[奈良]시 초청 개인전 등 많은 활동을 했으며, 예총 경주지부 4 · 5대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 박상진(朴尙鎭 ; 1884. 12. 7 ~ 1921. 8. 13)

호는 고헌(固軒)이며 유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일찍이 한학을 공부했다. 1902년부터는 허위(許蔿)에게 사사하여 학문적 수업을 쌓았다. 그후 1907년부터 1910년 까지 양정의숙(養正義塾)에서 법률과 경제를 전공했다.

1910년 판사(判事)시험에 합격한 그는 평양법원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사퇴하고 1911년 만주로 건너가서 허겸(許兼), 손일민(孫一民), 김대락(金大洛), 이상룡(李相龍), 김동삼(金東三) 등과 교류하며 독립투쟁에 가담했다. 1912년에 귀국한 그

는 독립운동의 정보 연락 및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대구에 상덕태(尙德泰) 상회를 설립했다. 당시의 상덕태상회는 국내의 연락뿐 아니라 이관구(李灌求)가 설립한 만주, 안동의 삼달양행(三達洋行)이나 장춘(長春)의 상원양행(尙元洋行) 등 곡물상(穀物商)과 연락망을 만들어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그는 1915년 정월 보름날 대구 안일암(安逸庵)에서 독립군 지원단체인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回復團)을 결성하였다. 이때 이 단체에 참여한 인사들은 주로 대구 중심의 경상우도 지방의 중산 이상의 혁신 유림들로서 조선국권회복단은 곡물상의 상업 조직을 통하여 독립군을 지원한 구국경제활동단체(救國經濟活動團體)였다. 그러나 이 단체의 인사들은 보다 강력한 독립군 단체를 조직할 목적으로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제휴하여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하였고 그는 그 단체의 총사령(總司令)을 맡았다.

대한광복회는 혁명적 독립운동단체로서 비밀, 폭동, 암살, 명령의 4대 실천 강령을 정하고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때 일제히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혁명의 거점으로는 국내 각처에 곡물상을 개설하는 한편 만주의 신흥학교(新興學校) 등과 연결하면서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았다.

한편 이에 필요한 자금은 자산가들의 의연금으로써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친일(親日) 부호들의 비협조로 의연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으므로 강제 모금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1916년 그는 무기 구입을 위해 만주로 다녀오는 길에 서울에서 피체되어 1917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군자금 수합에 더욱 힘을 쏟아 당시 식민적 지주체제에 안주하는 반민족적 친일부호를 처단하는 의협투쟁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그는 대한광복회 명의로 포고문을 작성하여 친일 부호 처단의 명령을 내려 채기중(蔡基中), 유창순(庾昌淳), 강순필(姜順必), 임봉주(林鳳柱) 등으로 하여금 1917년 11월 경북 칠곡군(漆谷郡)의 부호 장승원(張丞遠)을 처단케 하였다.

1918년 1월에는 김한종(金漢鍾), 장두환(張斗煥) 등을 주관케 하여 충남 아산군(牙山郡) 도고면(道高面) 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처단하였다. 이때 동단의 고시문을 붙였으므로 만천하에 대한광복회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1918년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피체되었고 사형을 언도받아 4년 동안 옥고를 치루다 1921년 8월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해방 후에 울산 학성공원에 추모비를 세워 그의 독립운동정신을 기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기려수필』 318쪽,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32쪽

○ 박영종(朴泳鍾 ; 1916. 1. 6 ~ 1978. 3. 24)



박영종은 본관이 밀양이고, 호는 목월(木月)이다. 그는 1916년 1월 6일에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여 3세 때에 경주군 건천읍 모량리에 이사를 왔다. 대구 계성중학교 재학 시에 동시(童詩) 「통딱딱 통딱딱」이 『어린이』지에, 「제비맞이」가 『신가정(新家庭)』지에 당선됐으며 계성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1946년부터 교직에 종사하여 대구계성중학교, 이화여고, 연세대학교, 경북대 문리대 강사, 홍익대 조교수, 한양대 문리대 교수를 두루 거쳤으며 1936년 9월 『문장』지를 통하여 시인으로 데뷔했으며 『삼인시집(三人詩集)』, 『청록집』, 동시집 『초록별』, 시집 『청담』, 수필집 『구름에 달가듯이』, 『박목월 시선집』 10권 등 수많은 작품 활동을 했으며 특히 '박목월' 하면 '얼룩송아지' 가 생각난다. 그리고 박목월은 한국문필가협의 중앙위원,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중앙위원, 한국문학가협회 중앙위원, 한국시인협회 간사, 대한민국 예술원회원, 한국시인협회장직을 역임했으며 특히 아세아 자유문학상, 문예상, 서울특별시 예술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978년 3월 24일 타계하기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그의 노래비와 시비가 각각 고향인 황성동 산 1번지 황성공원 내에 1971년에 노래비 '송아지' 가 건립되고, 1991년에는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내에 시비 '달' 이 세워졌다.

○ 박일훈(朴日薰 ; 1912. 1. 6 ~ 1975. 1)

호를 소석(紹石)이라 했고,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에서 아버지 박근영(朴根永)의 4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1912년 1월 6일에 태어났다.

1935년에 경주공예학교 부설 연구과를 수료하고 대구 다나카미술연구소[田中美術研究所]에서 연수를 마치고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을 조상하고, 동래 금정사(金井寺)의 범종을 제작했다. 1938년 8월 경주고적보존회 촉탁을 시발로 1939년 5월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에서 은사 오오사카[大阪] 교장의 주선으로 사무촉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시는 금관을 비롯한 주요 유물을 소개한 뒤 박물관에 기거하면서 잔여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1960년 부여 박물관장을 거쳐 1961년에 경주박물관장으로 부임하여 향토 출신 관장으로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특히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과 사람 얼굴무늬 수막새[人面文円瓦當]를 국고에 귀속시킨 공로는 높이 평가할 일이라 생각된다. '임신서기석' 은 오사카(大阪) 관장이 사비로 구입하여 소중히 간직하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너무나 황급히 귀국한 그는 이것을 박물관 사물함에 두고 갔다. 수차례의 서신교환 끝에 국고로 귀속시킨 일은 사제 간의 그의 정과 정직이 없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인면문원와당' 도 경주에서 개업 의사이던 다나카[田中敏信]라는 사람이 골동품상에서 구입하여 패전 후에 일본으로 갖고 가고는 그의 행방을 몰랐었는데 오사카씨를 일본에서 만났을 때에 다나카가 기타규슈[北九州]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고 30여 차례의 편지로 정성을 다하여 기증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1972년 10월 14일 본인이 직접 방한하여 기증 받은 것이다.

또 하나 그의 성과라고 하면 현재 박물관으로의 이전 성과라 할 것이다. 1970년에 들어와서 경주관광 10개년 계획 속에 경주박물관의 확대 · 신축계획이 성사되도록 한 노력은 앞을 내다보는 향토 출신 박물관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1973년 10월에 정년퇴임 기념 특별전시회를 경주박물관에서 개최했고 1973년 11월 22일에 녹조근정훈장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1974년 1월에는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박재호(朴在浩 ; 1927. 4. 27 ~ 1995)

서면 아화리(阿火里)에서 출생했다. 그의 호는 석랑(石浪)이다. 서양화가이며 교육자로서 경주 근화여중 · 고교에서 24년 간 미술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서라벌예대 및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국전(國展)에 연 10회 입선했으며, 개인전 6회, 아세아현대미술초대전 출품, 경북도전 초대작가로 출품했다. 특히 신라미술대전 창설에 공로가 컸으며, 운영위원, 심사위원, 초대작가로 활동하였다. 1990년대 그의 완성기에 이르러 마침내 소원이던 천호짜리 거작 6점을 내놓았으며, 그 가운데는 3년 세월이 걸려 6폭 연작인 신라불상을 집대성하는데 성공했다.

경주시 문화상, 경북도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교육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받았다.

참고 자료 : 경주예총

○ 배석암(裴錫岩 ; 1923 ~ 1980)

황성동(隍城洞) 사람으로 조학규 장사의 대를 이은 씨름꾼이다. 1950년대 신생 한국의 민속씨름을 중흥시키는데 경북체육계에서 씨름 부문의 유공자이다. 경주시 서부동 옛 문화중학교의 북쪽에 씨름 도장을 차려 놓고 장대한 체격의 씨름꾼이 연일 연습 · 훈련하였는데, 훗날의 민속씨름의 스타도 탄생했고 명감독 김학룡(金學龍)이 탄생한 도장이기도 했다.

○ 배용찬(裴瑢燦 ; ? ~ ?)

성동동 사람으로 경주의 거부로 뜻이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1945년 해방 후에 경주공립공예학교[慶州公立工藝學校, 단기 2년제 실기학교]를 공업고등학교로 승격함에 교사건축비조로 거금 500만원을 희사했다.

참고 자료 : 『동경속지』

○ 서수종(徐秀宗 ; 1941. 4. 20 ~ 1994. 5. 15)

노서리 60번지에서 아버지 서수만(徐壽萬), 어머니 김계순(金季順)과의 사이 3남으로 태어났다. 경주고등학교를 거쳐서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經商大學)을 졸업했다. 중앙정보부 정규 공채(正規公採) 3기로 발탁되어 정보관을 시작으로 충북지부장(忠北支部長), 대구지부장(大邱支部長)을 거치면서 국내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국정에 대한 기획을 입안하는 기획판단국장을 역임했다. 그 후 비서실장을 끝으로 사임하고 제14대 총선에 출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성품이 소탈하고 서민적이었으며 한때 중학진학을 미루어야 할 만큼 어려운 시련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의지가 남달리 강하였고 생활이 검소하였다.

국회에 등원한 그는 유능한 정보통답게 국회국방위원회(國會國防委員會)의 간사(幹事)를 맡아 일했다. 포괄적이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오랫동안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한 경륜을 가졌기에 경주발전에도 큰 기대를 했는데 아깝게도 그는 1994년 5월 15일 타계하였다.

○ 서달수(徐達洙 ; 1920. 4 ~ ?)

산내면 내일리에서 서수석(徐秀錫)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소보(昭甫) 호는 연봉(連峯)이라 했다. 1938년 3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대학 정치과에 입학했다. 재학 중 일인의 한국 학생 차별과 재일교포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민족적 분개심을 느끼고 항일의식을 길렀다고 한다. 그 후에 그는 같은 학교의 김덕중(金德

中), 김홍구(金鴻九) 등과 항일결사 비밀동지회를 조직하였는데 동회는 동경재류 유학생의 단결을 통한 독립사상 고양에 목적을 둔 비밀결사로서 표면상으로는 학술, 문예, 체육부 등을 두어서 학술연구 단체로 위장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동지 포섭에 힘쓰는 한편 토론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면서 항일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동회의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41년 1월에 체포되어 곧 국내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그는 1941년 11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 하였다.

참고 자료 : 신원증명서(국가보훈청 비치)

○ 석현(昔炫 ; 1911 ~ 2000)

인왕동 448번지에서 출생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에서 근무하였으며, 숭신전(崇神殿) 참봉을 지냈다. 금광사(金光寺) 석경편, 남산신성비, 원효대사 비편 등을 발견하여 박물관에 수장케 하였다. 충렬공 박제상 유적복원 추진위원회 고문을 지냈다.

○ 손계술(孫癸述 ; 1903. 7. 20 ~ 1966. 6. 17)

황오동(皇吾洞) 260번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개화된 집안에서 경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5년에 일본광도고등사범학교[廣島高師] 물리과를 졸업하고 대구계성학교 물리교사로 부임했다. 일정 때는 민족사상 운동과 학생지도 문제 등으로 교사직에서 방출, 또 취업을 거듭했다. 해방 후 1945년 9월 대구사범학교 교장, 1948년 2월 14일 대구사범대학 학장에 취임하여 1958년부터 국립 대구사범대학 교수로 연임하여 1966년 6월 17일에 신병으로 타계했다.

그는 암울했던 이 나라의 교육계를 몇 안되는 한국인 교육자와 함께 민족 교육에 힘을 다했으며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으로 해방 직후의 대구 지역 대학교육과 정서함양에 전력했다. 타고난 천성인지 고의인지는 본인 밖에는 알 수 없지만 지역에서 다 알던 건망증(健忘症)이 많은 제자들을 고난에서 구출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그 제자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호의 및 추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손국호(孫國鎬 ; 1912 ~ 1989)

손국호는 자를 사언(士彦)이라 하고 호는 화당(花塘)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花山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손유익(孫猶翼), 어머니는

해주 오씨(海州吳氏)이다. 그는 선조의 뜻을 받드는데 온 힘을 다했으며 효성과 형제 우애가 지극했다. 1964년에 서재 『화당정사(花塘精舍)』를 지었다.

그는 경주 손씨의 선대 유허지, 묘갈명 묘소, 영정(影幀)진본, 원사(院祠)와 정재(亭齋), 산천의 경치, 정려각, 종택 및 외지로 나간 이름난 문호 등을 사진첩으로 편집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서문으로 쓴 글이 「종중선소사진첩서(宗中先所寫眞帖序)」이다. 또 본 집에는 『북산문답(北山問答)』이라는 제목으로 상제(喪祭)에 대한 문답을 글로 모았는데 북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서문은 김형진(金亨鎭)이 썼다.

○ 손동만(孫東滿 ; 1926. 7. 11 ~ 1996. 3. 19)

강동면 양동리(良洞里) 223번지에서 아버지 용락(龍洛)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字)는 혁부(赫夫)라 했고 호를 죽오(竹塢)라 했다. 한학자인 할아버지 손명호(孫明鎬)의 훈도로 한학을 익혔고, 경주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후에 대구사범대학을 졸업했다.

경주중 ·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제5공화국 때에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体國民會議代議員) 대의원을 1972년에서 1977년까지 지냈고 1981년부터 1986년까지 경상북도 교육위원으로 교육기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했으며,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경주신라공고(慶州新羅工高)에서 교장을 역임하여 평생을 향토의 후진 양성과 인재 양성에 노력했다.

○ 손삼호(孫三鎬 ; 1920. 8. 2 ~ 1978. 10. 11)

강동면 오금리(吾琴里) 547번지에서 태어났다. 자를 달가(達可)라 했다. 고향의 양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중등학교를 수료하고 어려운 시대에 향리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 지도에 헌신하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는 각 방면으로 지도자 역할을 다했다. 1952년에 초대 경상북도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경주 지역의 대변자로 각 방면으로 활동을 했으며 1956년 제2대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는 2선의원의 관록으로 내무분과 위원장으로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전력했음은 유명하다. 1972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운영위원의 중책을 맡아 힘을 다했다.

그는 그뿐 아니라 사업가로서 대경토건(大京土建)(주) 대표이사로 건축의 현대화를 위하여 전력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당면한 경주 · 월성 반공연맹(反共聯盟)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반공일선에서 싸웠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인 경주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맡아 참된 이웃사랑에 앞서가는 평생을 살았다.

○ 손상목(孫尙睦 ; 1907. 3. 28 ~ 1972. 8. 27)

호는 춘강(春江)이고 성동동(城東洞) 383번지에서 아버지 손문일(孫文逸)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자라면서 영특하고 민첩 · 인자하여 주변의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했다. 1929년 3월에 대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주금융조합에 근무했고, 또 경상북도 양정과에 근무했으며 해방 직전인 1945년에는 경주 · 포항 식량영단에 근무했다.

해방 후에는 계림소학교 학부형 회장과 경주중학교 사친회장을 지내면서 사회교육에 앞장섰으며, 경주 고적보존회 위원을 지냈다. 1948년에 경주체육회 제2대 회장에 취임하여 경주 체육발전을 위하여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청년운동에 투신하여 1947년 경주 민족청년단장에 취임했으며, 1948년에는 경주 대한청년단 부단장으로 활약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후보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정치적 와중에서[일부에서는 자유당 입당 권유를 거부했다는 설이 있음] 입건,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제1회 대구일보사가 선정하는 한국 체육인상을 수상했다.

○ 손석봉(孫石鳳 ; 1901. 11. 29 ~ 1965. 10. 4)

1919년 대구 · 경북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루었다. 당시 대구 계성중학교 4학년이었고, 이곳 대구의 만세시위는 영남 지역 3 · 1 운동의 효시일 뿐 아니라 이후의 영남지역 시위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곳 시위는 이갑성(李甲成)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대구남산교회 목사 이만집(李萬集) 등에 의해서 주동되었다. 3월 2일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은 이만집은 김태련(金兌鍊), 김영서(金永瑞) 등과 함께 거사를 논의하고 오는 3월 8일의 서문시장의 장날에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때 계성학교 4학년 학생 신분이었던 손석봉은 심문태(沈文泰) 등 학생 대표들과 함께 만세시위 계획에 참여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를 비롯한 계성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마침내 3월 8일 서문시장에는 사전에 연락을 받은 기독교인을 비롯하여 계성중학교, 대구고보, 성경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들었다. 이만집이 준비된 연단에 올라 격려연설을 한 후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학생, 시민, 장꾼들이 독립만세를 화창하며 시위운동에 돌입하였다.

일본군 기마대와 경찰이 제지하려 하였으나 천여 명의 군중들은 일경을 밀어제

치며 앞으로 돌진해 나아갔다. 시위대는 종로통을 지나 일경파출소를 돌아 달성군청(達城郡廳) 앞 삼각지까지 행진하였다. 이때 대구 주둔 일본군 80연대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인사들이 부상을 당하고 시위대는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손석봉은 이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루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명적표(대구감옥),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65, 1271쪽

○ 손수택(孫壽澤 ; 1914 ~ 1978)

손수택은 경남 밀양에서 출생했으나 어려서 경주에 정착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서울 홍익대학교를 중퇴하고 경주의 자연과 신라 문화에 심취하여 서양화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경주여자고교에서 미술과 강사를 지낸 이외에는 별다른 예술계 등에서 활동은 없는 편이다.

그는 1949년에 제1회 국전에 서양화 「천년의 숲」이 입선했으며 제2회 국전에 「항망(港網)」이 입선됐고, 제3회 국전에 「6월의 서라벌(徐羅伐)」이 입선했으며 제22회 국전에서 서양화 「(7月의 鷄林)」이 입선했다. 그는 서양유화뿐만 아니라 묵화, 동양화에도 관심을 가져 묵죽(墨竹) 등 문인화도 남겼는데 「안압지」, 「계림」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계림」에서 무성한 계림의 수목 풍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 경주예총

○ 손시헌(孫時憲 ; 1923. 2. 10 ~ ?)

1942년 7월에 일본 동경에 유학 중 동지 박오훈(朴五勳), 최수일(崔秀逸) 등과 함께 '조선독립청년단'을 조직했고 이들은 여러 차례 회합을 거듭하고 우선 사업 목적을 학병 및 지원병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일경에 탐지되어 1943년 7월 초에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었다. 결국 그는 1944년 3월 동경지방 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애족장, 1977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 자료 : 신분증명서

○ 서영출(徐永出 ; 1906. 6. 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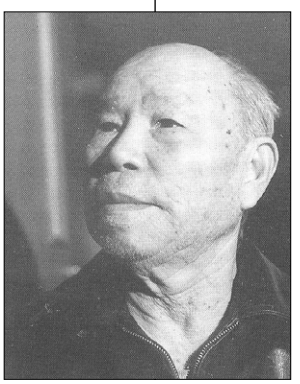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사범학교 특과 3년을 졸업했다. 1926년부터 초등학교 교사 3년을 근무하였다. 그 후 경찰에 들어가서 고등계 형사로 해방을 맞았으며 1945년 10월 12일에서 1946년 2월 17일까지 경주경찰서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경찰 고등계형사 경부(警部)로 근무했으며 조선의 독립운동가 검색 · 검출에 민완(敏腕)한 형사였으며 그 당시의 별명은 '오니 사와다 게이부[鬼澤田 警部]' 였다. 많은 국내외 애국 독립운동가들이 그 손에 체포되었으며 고문으로 신음했다. 한 예를 들어보면,

> 1945년 3월 세계2차대전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일본의 패전이 감지되기 시작한 시기에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각종 비밀 · 결사 단체를 조직하여 항일 지하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북에서는 안동농림학교에서 조직된 조선회복연구단(朝鮮回復研究團)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안동농림학교의 몇몇 교사와 학생 중 8 · 9 · 10회생이 중심이 된 비밀조직이었다. 이 조직을 와해 · 검거한 중심 인물이 서영출 경부였으며 1947년 1월 29일 반민족특별위원회에 의하여 체포되어 친일파 반민족특위에서 심판받을 때에 증인으로 나간 이가 유시승[柳時昇 : 당시 대구농대 교수 및 신라중학교장, 안동농림고교장을 역임]이었다고 한다.
>
> (안동 농림학교 『항일독립운동사』 305쪽)

그후 그는 반공단체인 대한청년단에 입단하여 1954년 5월 20일 3대 민의원에, 1958년 5월 2일 무소속으로 4대 민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 손일봉(孫一奉 ; 1906. 5. 5 ~ 1985. 11. 29)

현곡면 소현리(小峴里)에서 손진선(孫晋善)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라면서 총명했으며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재학시절에 서양화를 잘하여 일본 제전(帝展)에 입상했으며 경성사범 졸업 후 일본 도쿄 우에노[東京上野] 미술학교 서양화(西洋畵)과를 졸업했다. 조선미전 특선 3회, 일본 제전 입선 4회, 일본 광풍회상 수상, 전국 초대작가, 국전 초대작가, 동서양화 초대전, 제4회 한국유화전(대구), 국전출신 작가전, 제8회 개인전을 서울 신세계 미술관에서 개최했다.



해방 후에는 경주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신라중학교, 경주여중 · 고교, 의성여고 등 교장직을 역임했으며 정년 후에는 서울 수도여자사범

대학 미술과 교수를 지냈다. 또 그는 지역의 예술 · 문화창달을 위하여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예총) 경주지부 초대 · 2대 · 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경주의 문화발전에 남긴 자취가 크다.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손제익(孫濟翼 ; 1890 ~ 1964)

손제익의 자는 도경(道卿)이고 호는 오암(鰲巖)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그는 천북면 성지리(聲池里)에서 창곡(蒼谷) 손진필과 어머니 경주 최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자라면서 기질이 맑고 모습이 맑으니 보는 사람마다 옥재(玉材)라고 칭찬했다. 효성과 형제 간 우애가 남달리 두터웠고 글 읽기에 힘썼다. 「소학」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배운 바를 실천했으며 모든 일을 원만하고 평하롭게 처리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탄식하고 한달 보름 간이나 만주를 여행하고 평양에서 「유평양(留平壤)」이라는 시를 남겼다.

오암이 남긴 시 · 문은 한국전쟁 때에 잃었던 것을 다시 정리하여 손국호(孫國鎬)가 1982년에 간행했다. 2권 1책이 전한다.

○ 손진창(孫晋昌 ; 1862 ~ 1923)

자는 극묵(克文)이며 호는 화려(花旅)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그는 안강읍 검단리(檢丹里)에 이사하여 살았다. 아버지는 검산(儉山) 손수한(孫秀翰), 어머니는 완산 이씨(完山李氏)이다.

그는 영천 외가에서 태어났다. 6 · 7세에 『십구사략』을 읽고 문의를 알았다. 아들의 너무나 예민한 재주가 걱정스러워 조금씩 글을 가르치자, 그는 책을 덮고 조용히 앉아 배운 것을 깊이 생각하며 그 뜻을 되새겼다. 1904년 아버지 상(喪)을 당해서는 너무나 슬퍼하여 사경에 이르렀으며 삭망 때는 반드시 성묘하고 폭풍우일지라도 폐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화산(花山)에 서재로 화산실(花山室)을 짓고 옛사람들의 행지와 올바른 도(道)로 마을 사람들을 교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문집 2권1책이 있다.

○ 손진형(孫晋衡 ; ? ~ 1919. 7. 14)

호는 호봉(蝴峯)이며 강동면 오금리에서 태어났다. 한학을 공부했으며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일제의 강제로 체결되어 국가의 외교권이 탈취당하자 이강년(李康年) 의진(義陣)에 참가하여 일군에 대항하여 싸웠다. 나라가 일제에 강점 당한 뒤 1912년 2월 초 이용규 등과 민족운동을 하다가 동년 4월 6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경주경찰서에서 4개월 간 구속되어 고문을 당한 후 특

사(特赦)로 석방되었다.

1914년에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으며, 1915년에는 국내 동지들의 요청으로 은밀히 귀국하여 국내정세를 조사하고 군자금도 모았다. 이때에 동지인 민충식(閔忠植)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 동지 규합에 합의한 뒤 교남교육회(嶠南敎育會)를 지도하면서 청년층 육성에 힘썼다.

1916년 7월, 이용규와 논산의 이대수 집에서 거사 동맹을 하였으나 밀정에 속아 다음해 4월 9일 또 체포되어 울릉도에 유배되었다가 1918년 8월 18일에 석방되었다. 같은해 10월에 독립이 성사될 경우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수권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역설하고 다음해 1919년 3월 상해에서 김창숙(金昌淑)을 도와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에 적극 활동하였다.

4월 10일에는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의원으로 선출되어 독립운동의 기본정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조국해방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그는 과로로 1919년 7월 14일 상해에서 타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포장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조선민족운동연감』 7, 9, 11쪽,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343쪽,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6쪽, 기려수필 233쪽

○ 손학익(孫鶴翼 ; 1908. 6. 13 ~ ?)

자는 명부(鳴夫)며 호는 일파(一波)이다. 강동면 오금리(吾琴里)에서 태어났다.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언양(彦陽) 신주식의 지령으로 반일반제(反日反帝) 내용의 격문을 뿌릴 목적이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울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21세 때에 대구에서 반일 동지 규합에 주력하던 중 유차을(柳且乙)이라는 동지를 만나 '대협' 이라는 기존 조직에 가담, 활동 중 일경에 체포되어 3개월 간 구금되었으며, 23세 때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박재기(朴在基), 우기학(禹奇學) 등 두 동지와 함께 용정에 가서 이시영(李始榮)이 설립한 동흥중하교 임모라는 선생을 만나 길림성 일대의 정세를 들었다. 그리고 박재기, 우기학, 임(林) 선생과 북경으로 갔다.

북경에서 안창호(安昌浩)의 흥사단(興士團) 반제동맹(反帝同盟)에 가담하여 활동 중 이동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新義州) 경찰서에서 6개월 취조를 받고 출감, 25세 때 경남을 거점으로 양산(梁山)에서 중앙일보 지국을 경영하면서 공작 중 경기도 경찰부 형사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6개월 간 구속 · 송치되어 구류만

기 가석방되어 고향에서 농업하며 야학을 개설하여 민족 정신을 고취 · 활동했다.

30세에 다시 가출을 결심하고 부산 초량(草梁)상업학교 우신출(禹新出)과 반일 학생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수차례 모의한 결과 동래고보 등 학생을 대상으로 월 3회 모임을 갖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 중 의지가 강한 학생을 선발하여 돌격대를 조직하고 일본이 패망할 시에 대비 건국협회라는 조직체를 창립했다.

이런 가운데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누설되어 1941년 경남 경찰부 고등계에 동지 90여 명이 체포되어 미결수로 약 3년 간 구류 조사 중 동지 여경수(呂敬守)가 옥사하고, 그는 4년형을 확정 언도받고, 1944년 말 정치범 이감 조치에 따라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어 옥고를 치루던 중 해방을 맞았다. 그 후 국민회 회장직을 맡았으며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참고 자료 : 『월성군사』 1248쪽

○ 손호익(孫澔翼 ; 1898 ~ 1967)

손호익은 자가 성환(聖煥)이고 호는 묵암(默巖)이며 본관은 월성(月城)이다. 강동면 오금리(吾琴里)에서 삼희재(三希齋) 손진번(孫晉蕃)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벽진 이씨(碧珍李氏)이다. 7형제가 크면서 우의가 돈독했고 가세가 곤궁하여 학업할 형편이 아니었으나 주경야독했다.

1933년 그의 나이 31세 때 당시 뜻있는 선비들이 모여 유학을 장려할 목적으로 성균관에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창립했다. 그는 아버지의 명으로 서울에 머무르고 있던 중 명륜학원에 취학했으며 도서관에 취직하여, 『국조실록』을 열람하여 선조에 관련된 사실을 빠짐없이 발췌하여 집으로 내려 보냈다. 삼희재가 이를 자세히 검토하며 편찬하여 1935년에 관가정장판(觀稼亭藏板)의 『양민공문집』과 『우재선생문집』을 간행했다.

1938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아버지의 흩어진 시 · 문을 정리하여 『삼희재문집(三希齋文集)』을 간행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겪은 후 가세가 더욱 기울어지고 더욱 곤궁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본래 명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바램에 따랐을 뿐이다. 문집 1책을 남겼다.

○ 손후익(孫厚翼 ; 1888. 11. 25 ~ ?)

강동면 오금리(吾琴里)에서 태어났다. 자는 덕부(德夫)며 호는 문암(文巖)이다.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한학을 수학하고 1924년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며 의열단 대표인 김창숙(金昌淑)이 민족 독립운동의 장기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몽골의 황무지 개척에 필요한 군자금 모금을 위하여 북경에서 온 연락원의 연락을 받고 국내에서 19명의 동지를 규합했다.

동년 8월 경 김창숙이 귀국함을 계기로 영남 유림측과 부호가들로부터 3,500원을 모금하여 마산의 김창탁(金昌鐸)을 불러 3,500원을 만주 봉천까지 무사히 운반 성공하도록 하여 그 기금으로 자동권총 1정과 실탄 490발을 매입하고 나석주(羅錫疇) 의사를 만나 입국하여 은행 및 동양척식회사 등을 폭파키로 결의한 후 1925년 12월 28일 서울 동척회사에 투탄하여 세상을 크게 놀라게 했다.

그후 대구광역시 원대동 최해윤(崔海潤)에게 김창숙의 서한을 전달하고 동년 12월 말 경 송영우(宋永祐)가 찾아와 같이 최해윤을 찾아가서 일금 일만원을 출차하자고 권유했다.

1925년 1월 4일 경 대구에서 김창숙과 회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년 1월 초순에 김화식(金華植)과 경남 진주군 수곡면 사곡리 하재장(河載章)을 방문하여 독립자금에 필요한 군자금 제공을 전달했으며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 정순모(鄭舜謨)를 찾아 가서 3월 10일 경에 동래 범어사(梵魚寺)에서 김창숙과 협의할 것을 권유하였고 동래군 철마면 와여리 오태환(吳泰煥)의 대리인 오규환(吳奎煥)에 대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출자토록 요구하였다.

1926년 1월에도 계속 활약하다가 1월 중순 경 불행히도 체포되어 60일 간 갖은 고문을 겪고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 총포 · 화약취급령 시행규칙 위반, 협박 · 모함, 범인은닉, 증거인멸, 사기 등의 죄목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이 될 때까지 오직 조국의 독립운동에 이바지하였다. 정부에서는 본인의 공훈을 기리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참고 자료 : 『월성군사』 1247쪽

○ 송명승(宋命承 ; 1904. 8. 20 ~ 1964. 6. 7)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1904년 8월 20일에 출생했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야구를 좋아한 사람이다. 1930년대 중반 경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3형제가 중심이 되어 실업야구단을 조직 · 시작했다. 그래서 경주역 보선구가 조직한 야구단과 시합을 하며 즐겼다.

해방 이후 일본 등지의 중학 · 전문학교에서 정식으로 야구를 배우고 해방된 조

국에 돌아온 젊은 사람들이 '화랑야구단'을 조직하여 1946년 6월에 시합을 개최했다. 그해 6월 10일에 그는 합병야구단 창단을 제의하여 경주야구협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1952년에 계림 · 월성 · 황남국민학교에 야구부를 창설하여 경주 야구의 육성에 이바지했으며, 그 후 영남에서는 경주의 야구팀에 당할 팀이 없었다. 1957년 4월에는 경주중학교와 신라중학교에서 야구부가 창설되고 1958년에는 문화중학교에서 야구부를 창설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했으며, 경주의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의 전성시대를 열게된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야구를 못하는 학교에는 사비로 기구를 공급했으며 뜻에 감동한 젊은 야구 선수로 하여금 지목된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자진 봉사 · 지도토록 지원하였다.

그의 야구 인생에는 일화도 많다. 부산, 대구, 울산, 마산 등지에서 갑작스런 대회 참가 통지가 와 미처 출전 경비가 조달되지 못하면 으레히 그의 부인[김봉순]의 금비녀, 가락지가 전당포로 갔다. 당일로 돈은 총무 손으로 들어가 출전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는 정장을 하고 평소에도 야구모자를 쓰고 출장을 했다.

이렇게 평생 야구를 위해 살아온 그는 1964년 6월 7일 생을 마감하면서 경주야구협회 회장직도 끝을 맺었다.

참고 자료 : 『경주체육 50년사』

○ 신동하(辛東夏 ; 1923. 9. 30 ~ 1984. 10. 16)

일본 고오베[神戶]에서 직공으로 일하고 있던 중 일본인들의 차별적 대우를 체험하면서 점차 민족의식에 눈뜨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고 1942년 2월 경부터 김두갑(金斗甲), 이종철(李鍾哲) 등 동포청년들과 교류 · 포섭하여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을 분석 비판하고 민족 의식을 함양하였다. 또한 미국 비행기의 일본 공습과 이때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일제히 봉기,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고 동지규합에 힘쓰던 중, 1943년 3월 31일 일경에 체포되었다. 1943년 10월 4일 고베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언도받고 석방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서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서류 : 범죄인명부, 『소화특고탄압사』 하권 86, 87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360쪽

○ 안용대(安龍大 ; 1913. 1. 4 ~ 1999. 5. 6)

사정동(沙正洞)에서 출생했다. 호를 남사(南史)라 했고 아버지 안영수(安泳壽)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일본대학 법학부(日本大學法學部)를 졸업하고 1940년 일본 고등문관(高等文官) 시험 행정과에 합격하고 함경남도 도속(道屬)으로 근무, 1941년에는 경남도 함안군수, 사천군수, 거창군수를 끝으로 해방된 한국의 행정지표로 『행정법해설』을 집필했다.

1949년경 국회의원 출마의 꿈을 안고 1950년 5월 30일 경주군 갑구에서 출마하여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 때 갑구에 출마자는 12명이었다. 이후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경주시민의 소망이던 보문, 덕동의 농민을 위한 몽리시설(蒙利施設)의 확립 사업과 서천교의 연장, 광폭(廣幅) 시설사업에 전력을 다했다. 또 그는 지역 사회의 미래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획도 구상했으나 제3대 민의원선거, 제5대 민의원선거에서 낙선하여 그 뜻을 펴지 못했다.

○ 양문길(梁文吉 ; 1941. 2. 13 ~ 2003. 11. 30)

황오동 16번지에서 아버지 양영일(梁榮一)과 어머니 김순남(金順南) 사이에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경주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철도고등학교를 거쳐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60년 고3 때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류항(異類項)」으로 당선했다. 당시 심사위원이던 최정희 심사위원은 "당선시키고 보니 고3 학생이라 표절이 아닌가" 하여 걱정했는데 당선 소감을 보고는 안심했다는 일화가 있다. 1966년에 「부두주변」으로 〈동아일보〉에 당선됨으로써 소설가로서 굳건한 위상을 마련했다. 1960년 「이류항」을 발표한 후 42편의 소설 작품과 수필집을 발표하였다.

문학평론가인 이명재는 "그의 소설은 현대의 도시 하층민의 어두운 괴기한 마성(魔性)을 발하는 요소가 짙다. 이는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거대한 사회조직체와의 관계와 결부하여 논해야 한다"고 말하여 양문길의 작가적 작품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2003년 11월 30일 지병을 안고 소설을 생각하면서 타계했다.

○ 오정국(吳正國 ; 1909. 12. 17 ~ 1980. 6. 12)

오정국은 평안북도 강서(江西) 사람이며 본관(本貫)을 해주(海州)로 썼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醫科大學)을 졸업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의관으로 종군하여 야전병원에 근무, 경주에서 제18육군병원장을 지냈다. 제대 후 1954년 3월

에 경주시 동부동에 '오정국 의원'의 간판을 걸고 개원하였는데 명성이 높았다.

4 · 19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당이 몰락한 후 민주당 후보로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했다. 그리고 1961년 5 · 16 군사 쿠데타 때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지냈다. 그후 의료 활동에 종사하다가 1980년 6월 12일 타계했다. 1952년 11월 10일 정부에서는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 유난곡(俞蘭谷 ; ? ~ 1940. 8. 5)

그의 젊은 시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일제강점기 경주의 어려운 시절에 어린이 보육과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세상을 뜨기 전에 재산을 당시의 경주읍에 기증했다.

경주읍에서는 1942년 기증자산 전부로 재단법인 난곡보육재단(蘭谷保育財團)을 설립하고 사립경주유치원(私立慶州幼稚園)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 시행으로 본 재단 소유의 농토는 전부 분배 대상이 되고, 대지(垈地)와 건물은 고적지 정화구역(淨化區域)에 편입됨으로써 유치원 운영은 자동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인(知人)이었던 조경규(趙慶奎)는 유난곡이 생전에 국악애호가였던 까닭에 그 뜻을 받들어 국악인 양성에 활용코자 1958년에 난곡보육재단을 재설립하고 '동도국악원(東都國樂院)'을 개설하여 고인의 원을 풀어드린 셈이다.

그리고 동도국악원은 규모를 키워 '서라벌국악원(徐羅伐國樂院)'으로 거듭나고 운영은 조경규가 맡아 국악인 지도와 양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이름난 지도자를 영입하여 지도에 임했다. 1988년에 조경규가 사망하고 조영재가 계승하여 운영하던 중 2001년에 문을 닫았다. 다만 경주시에서는 유난곡의 기일에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의 묘소는 현곡면 금장리에 있다.

○유석우(柳奭佑 ; 1900. 11. 5 ~ 1990. 2. 14)



주서(洲曙) 유석우는 본관이 풍산(豊山)이다. 내남면 이조리(伊助里)에서 유하식(柳河植)의 5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날 때 홍보(紅褓)를 쓰고 태어났다해서 일가친척 모두가 기뻐했다고 하는데 옛부터 홍보를 쓰고 태어난, 아이는 대과[大科-지금의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한다는 속설이 있다. 아명은 맹석(孟奭)이라 하고 호를 주서(洲曙)라 했다.

그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후손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 한문학의 크고 높은 학자였다. 7세 때부

터 독학으로 남의 글을 주워 듣는 공부로부터 시작하여 한학자인 외조부에게 배우고 경주부윤(慶州府尹) 노영경(盧泳敬)의 훈도를 받으니 한문학, 역사학, 유교학의 큰 학자로 우뚝 솟았다.

노영경(盧泳敬)은 경남 기장(機張) 사람이었는데 안변부사(安邊府使) 경주부윤, 궁내부(宮內府) 특진관을 역임하고 구한말에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할 때 당시 승지(承旨) 신분이었던 그가 단신으로 고종황제를 등에 업고 뛴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러시아 공관에 도착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군이 쏜 총알이 그의 사모(紗帽)를 관통한 사실을 알았다.

그는 배일사상이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고향인 기장은 일본의 물결이 들어오는 길목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德泉里) 깊은 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다. 노영경의 일상생활은 그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

그는 한국 개화기의 농촌계몽을 시작으로 경주중, 대륜중 · 고교, 영천고교 등에서 교직생활을 했으며 대구대학, 영남대학, 경북대학에서 한민족 문화사, 한국고대사, 조선당쟁사, 임진전화사 등을 강의했다. 또 성리학(性理學)의 대가였던 그는 『시 · 서경(詩 · 書經)』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양고전(東洋古傳)에 두루 통했고 해방 후에는 황폐해진 한국 역사학계를 정리했다.

그는 서애 선조의 유훈에 따라 청빈(淸貧)과 대쪽같은 선비정신으로 생활했으며, 후일 "인생의 제일 큰 낙은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라했던 주서선생은 80을 넘기고도 후학을 가르치는데 신명을 다했다.

이렇듯 청빈과 강렬한 선비정신과 강한 민족애를 지녔던 그에 대해 제자 문경현(경북대 교수)은 조사(弔詞)에서 "학골선풍[鶴骨仙風= 신선같은 풍문] 고결한 선비"라고 받들고, "명문가에서 태어나 강토의 침탈, 민족의 노예화, 민족상잔의 처참한 비극, 남북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대의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오직 한마음 깊고 깊은 진리 탐구와 학문의 연구, 교육에의 종사로 일관한 빛나는 일생"이었다고 추모했다.

사실 그는 그 무서운 일제의 강압정책인 창씨개명에 따르지 않았다. 끝내 그는 내남면 면장직을 그만두고 매부인 박씨와 함께 산속에 숯공장을 차리고 일본을 등지기도 했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조선당쟁사』, 『조선상고사』, 『경주시지(慶州市誌)』, 『경북도사(慶北道史)』 등이다. 대부분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연구 및 고증이거나 독립운동 사료(史料) 등 영원히 빛날 저작들이다. 뿐만 아니라 편집을 완전하게 마무리 못한 원고만도 2만여 장의 많은 분량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엄청난 사료가 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내다 보고 있다. 머리 속에는 항상 학문 연구와 교육에 관한 일념 뿐이었는데 숱한 일화를 남기고 1990년 2월 14일 가전청백(家傳淸白) 세숭충효(世崇忠孝)의 서애 유훈을 다하고 타계했다.

숙원이던 『서애일대기』를 병환으로 탈고치 못하고 가심이 한이 되었겠으나 만원(滿員)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원고 뭉치를 버스 선반에 얹어 두고 곰곰이 원고에 관한 생각에 잠겼다가 내릴 곳이 지났기에 황망히 보따리를 쥐고 내렸는데 집에 와서 열어 보니 아기 귀저기 기타 등등 보따리가 바뀌었다. 이런 많은 일화를 남긴, 태산같은 마지막 이 고장의 큰 선비였다.

○ 윤경렬(尹京烈 ; 1916 ~ 2000. 11. 29)



함경북도 경성군 주을면 온천장으로 유명한 곳에서 태어났다. 그 곳에서 중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18세 때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 하카다[博多] 시에 있는 나카노코[中之子] 인형연구소에서 공부했다. 이 연구소는 인형 제작으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나카노코 다미[中之子多美]"의 사설학원이었다. 그는 이 연구소에서 인형 제작 학습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인의 얼굴을 연구하고 제작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어 4년 만에 귀국했다.

1944년에 다시 진정한 한국인의 얼굴 모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개성박물관장으로 계시던 고유섭(高裕燮)을 찾아갔다. 일본인 얼굴을 연구한 그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여 거절했으나 뉘우치는 그 겸허한 태도에 마침내는 개성박물관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다. 해방 후, "진정한 한국인의 얼굴을 알려거던 경주로 가라"고 하여 그는 경주 사람이 된 것이다.

경주에서의 50년. 그는 진정 정열적으로 신라문화와 함께 했다. 신라문화동인회원으로, 또는 어린이 박물관학교 교사로 정열을 다하고 도처에 흩어져 있던 도요지 발굴, 답사, 조사, 연구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집대성한 『남산 고적 순례』, 『신라의 아름다움』,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 등의 저작 활동도 놀라운 업적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그는 많은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왔다. 즉 1985년 토함산 서북 기슭에 '경주민속공예촌'이 정착했을 때 당시 그 곳에 입촌한 17명의 명인(名人) 내지는 거장(巨匠) 중, 절반 이상이 그의 문화생이거나 수십년 동안 그를 사숙한 장인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활동 영역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생전에 '외솔상', '경주시 문화상' 등을 수상했으며 2002년 10월 20일에는 정부로부터 '은장문화훈장(銀章文化勳章)'을 받았다.

※제6편 문화 · 예술 제2장 예술 제1절 문학 참고

○ 윤길병(尹吉柄 ; 1931. 1. 19 ~ 1953. 6. 6)

건천읍 신평2리 170번지에서 태어났다. 건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에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했다. 1951년 1월에 한국전쟁 중 육군 소위에 임관했다. 소대장으로 사창리 전투, 용문산 전투 등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1953년 1월 대위로 진급 후 강원도 인제지역의 적 접근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1953년 6월 1일 제12보병사단 37연대 중대장으로 인제군 서화북방 812고지에서 대대 규모의 북한군과 5일 동안이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진지 사수작전을 펼쳤다. 중과부족으로 적에게 포위되자 부하들을 무사히 대피시키고 자신은 적에게 포로되는 것이 싫어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 이를 목격한 부하장병들은 분격하여 돌진하였고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812고지를 역습 · 탈환했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1951년 12월 전투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으며, 1953년 7월에는 812고지 전투에서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공훈을 기려 충무공훈장을 추서했다.

○ 이강우(李康雨 ; 1905. 5. 18~ 1997. 7. 22)

그는 휘를 강우(康雨)라 하고 호를 죽파(竹坡)라 했다. 1905년 5월 18일에 토함산 서편 언저리 구정리(九政里)의 세저(世邸)에서 정조(正祖) 17년(1793)에 「사노혁파소(寺奴革罷疏)」로 유명한 덕봉(德峯) 이진택(李鎭宅)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자라면서 성품이 중후하고 용자가 준수하여 귀공자의 풍모가 있어 주위에서 기대가 컸다. 자라면서 전통에 따라 한학을 읽었으며 서예에도 능통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뜻을 펼 수 없어 지역의 유지인 최윤(崔潤), 황찬조(黃纘祚), 손문일(孫文逸), 최성규(崔晟奎), 김경곤(金敬坤) 등과 함께 시부(詩賦)와 국악과 서예로 보냈으며, 1950년 해방과 더불어 이 지역 전통예술 발전의 선봉에 섰다. 1982년 대한시우회 경주지회(大韓詩友會慶州支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경주시묵회(慶州時墨會)와 경주서시동호인협회(慶州書時同好人協會)를 통합하여 경주시우회회장(慶州詩友會長)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1997년 7월 22일 93세로 타계했다.

○ 이경록(李炅錄 ; 1948. 1. 8~ 1977. 4. 8)

그는 강동면 다산 2리(多山二里)에서 이환익(李煥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경주중 · 고교 재학 중인 1965년 충남대학 전국고교생 백일장에 시(詩) 부문의 장원으로 당선되었으며, 같은해 건국대 고교생 현상문예 시 당선, 동년 대전대 및 미국 오스틴대학 고교생 작품 모집에서 시가 당선했다.

1967년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했으며, 1974년 4월에 『월간문학』 신인상 시 당선, 그 해에 군에서 제대하여 복학했고 1976년 4월에 박정남, 정호승 등과 동인회를 결성하여 진정 문학 활동의 출발점에서 발병하여 1977년 4월 14일에 타계했다. 문인사회의 만인이 애석하게 느끼고 추모시집 『이 식물원을 위하여』를 발간했다.

○ 이경의(李敬儀 ; 1887. 5. 20 ~ 1953. 12. 18)

본관이 전주(全州) 사람이다. 자(字)를 학일(學一)이라 했다. 그는 1887년 5월 20일 경기도 연천(連川)에서 진사(進士)를 지낸 이달우(李達宇)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장하면서 총명하고 영민하여 경성대학(京城大學) 법문학부(法文學部)를 졸업하고 1908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慶州支院)의 전신인 경주재판소(裁判所)의 초대 지원장(판사)으로 취임하였고 영덕 지원장을 거쳐 1945년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초대 지청장을 역임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리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 이규인(李圭寅 ; 1859. 4. 16 ~ 1936. 5. 3)



외동면 괘릉리(掛陵里)에서 태어났다. 자는 우서(瑀瑞)이며 호는 수봉(秀峯)이다. 그는 2대 독자로 태어나 일찍 부상을 당하고 모부인 박(朴)씨로부터 엄교와 지훈으로 성장하였으며 천생의 위풍이 주위를 위압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평소에 "의식주를 위한 것. 그 이상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던 그는 이 재산을 큰 일을 이룩하라는 천명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그는 1924년 3천 석의 재산을 법적으로 등기하여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체로 삼는 한편 수봉정(秀峯亭)이라는 이층 한옥을 괘릉리에 세워 교육(敎育), 구료(救療), 구휼(救恤)의 사회사업을 개시했다.

서당을 열어 젊은이들이 깨우치게 했고 약국을 개설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흉년에는 굶주리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 주고 양곡을 대여하여 소작료를 면제하기도 했다. 서간도 먼 곳 동포들에게 거액의 의연금을 보내고 의병장 신돌석(申乭石)을

도우는 등 수없이 독립군 군자금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의 동상 건립 모금을 거부하고 한때 거처를 하양(河陽)으로 옮기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정치는 도를 더했으며 창씨개명, 언어와 문자의 말살로 치닫는 시점에서 오직 교육만이 살 길임을 인식하고 1938년 4월 20일 경주에 경주중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은 독립운동과 연결된다는 이유로 사립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재단이 있는 공립중학교, 그것도 조선인과 일본인이 공학하는 유례없는 형태의 학교가 태어났으니 일제의 수탈통치도 한계에 온 듯 했다.

그러나 당시의 경주중학교는 진정 암흑의 등불이었다. 더구나 옛신라의 서울에 현대화의 인문계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진학 못할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고 민족의 긍지며 태양이었다.

○ 이기희(李紀羲 ; 1863 ~ 1953)

자는 명여(明汝), 호는 이계(伊溪)이며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그는 경주군 안강읍 옥산리(玉山里)에서 이승수(李承壽)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벽진 이씨(碧珍李氏)이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우되, 이해력이 다소 둔하기는 했으나 성을 다하여 일과를 늦추지 않고 외우지 못하면 책을 덮고 문리를 생각하고 끝내 암기를 하곤 했다. 그는 지론이 "글을 쉽게 배우면 쉽게 잊어버리고 글을 어렵게 배우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의 덧없음과 망국의 통탄을 품고 서책으로 벗삼고 생활수단으로 삼았다. 그리고 민암(敏庵) 조병하(曺秉夏), 삼희재 손진번(孫晋蕃) 등과 학문을 논하며 교류했다.

그들은 근세에 보기 드문 선비인 외와(畏窩) 최림(崔琳)의 구슬같은 유고가 상자 속에 방치되어 있음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민암 및 삼희재 등과 더불어 『외와집(畏窩集)』을 간행했고, 1926년에 『회재별집(晦齋別集)』 2책을 간행했다. 1941년에는 『구암유고(求庵遺稿)』1책을 간행했다.

○ 이기현(李起炫 ; 1913. 3. 6 ~ 1950. 7. 납북)

서부동(西部洞)에서 아버지 이경의(李敬儀)와 어머니 최분란(崔芬蘭)의 7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전주 이씨 진사(進士)의 집안에서 조선인 보호를 위해 법과를 지원하여 고등문관에 합격하였으며 판사가 된 아버지 아래에서 이기현은 행복한 문학 예술인으로 자라났다.

그는 1933년에 중앙고보를 졸업하고 니혼대학[日本大學]에 진학했다. 이 무렵부터 그는 김동리, 박목월, 김만술 등 예술인들과 교류했고 1937년 『조광(朝光)』 2월호에 소설 「태(苔)」가 당선되고 꿈과 열정을 가지고 문학예술에 전진했다. 그러나 그는 1938년 학교를 중퇴하고 일본 쇼지쿠[松竹] 영화사에 입사했다.

이기현의 예술적 편력은 주로 일본을 무대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전성 시기는 1938~1941년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로 볼 수 있으며 시나리오, 창작, 영화감독, 연출, 연예에 관한 총평 등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 일본 잡지나 기록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 밝히는 것이 안타깝다.

해방 후 1946년 그는 경주에서 경주예술학교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회화, 음악, 조각의 3과를 운영하는데 경영이 어려워 일본인이 버리고 간 경주극장을 임대 · 경영하여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더불어 정부 부처에 취임했다가 1949년에 '고려교향악단' 상무에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예술에 대한 정열을 기울였다. 1950년 6 · 25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피난을 못하고 납북되었고, 그 후 소식을 모른다. 다만 그 정열과 소설 「태」에서 보여준 작가적 역량과 예술적 기질로 실험적 생애를 살아온 그는 분명 김동리가 말한 '고향의 문우' 경주가 낳은 문학 예술인이다.

※제6편 문화 · 예술 제2장 예술 제1절 문학 참고

○ 이달문(李達文 ; 1899. 12. 30 ~ 1995. 10. 10)

인왕동(仁旺洞) 228번지에서 출생했다. 그는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를 졸업했다. 초임지 신령보통학교(新寧普通學校))를 시작하여 여러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내동초등학교 교장을 거쳐 해방 직전에는 경주실과여중[경주여중 전신] 교장으로 재임하였다.

한국전쟁 때 장남[당시 경찰서장]을 먼저 사별하고 자연과 전원 생활로 위안을 받고 살다가 경주 계림중학교 교사를 끝으로 저작 생활을 시작했다. 저서에는 『우리말 뿌리사전』, 『사성운보(四聲韻譜)』(1991. 6), 『청소년 독본』(1993.)과 수필, 시작 등이 있다.

○ 이동천(李東千 ; 1939. 2. 20 ~ 1998. 8. 20)

본관은 여강(驪江), 호는 우림(佑林)이며 아버지 이수학(李壽鶴)과 어머니 엄증귀(嚴增貴)와의 5남4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경주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가업인

운수사업에 전념했다. 1968년도부터 경주시 체육회 유도부 회장을, 1971년부터 1972년까지 경주복싱연맹 회장을 지냈으며 1982년에는 체육회 육상연맹 회장을 맡아 진력하여 경주 체육을 위하여 노력했다. 1991년 4월에는 경주시 의회에 진출하여 1995년 5월 6일까지 시의회 의장으로 시정의 혁신 · 발전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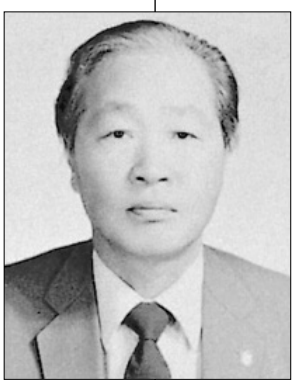
○ 이말량(李末良 ; 1908. 7. 12 ~ 2001. 3. 22)

황오동 교촌의 가까운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것 뿐, 그의 성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1980년대 전후에 그를 아는 주변에서는 "이말량은 경주가 낳은 보배다"라고 했다 한다. 그는 가야금에 능했고 1970년대에 들어 계림국악원(鷄林國樂院)을 운영하고 전통무용과 가야금으로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국악을 하게 된 동기를 물었더니 어린 시절 동네를 찾아 온 떠돌이 예능인들이 신명나고 보기 좋아 며칠을 끼니를 굶어가며 따라다니는 것을 본 부모님들이 곡절을 안 끝에 허락하셨다.

그런데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권번(券番)뿐이었데 당시 경주에서 권번에 보내기에는 이웃 시선이 거북해 멀리 평양 권번으로 보내주셨다고 한다. 그 곳에서 악, 가, 무, 서를 두루 익혔고 해방 후에 경주로 돌아와 계림국악원을 개설하여 제자를 길러내었다. 그리고 계림국악원에서 당시 경주국악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최성규(崔晟奎), 손문일(孫文逸), 이강우(李康雨) 등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평생 근검절약하여 모은 전 재산을 뜻이 있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동국대학교와 경주고등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증했다. 작은 체구에 그런 장한 포부는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다. 그는 1988년에 모든 일에서 은퇴하고 2001년 영면했다.



○ 이상구(李相龜 ; 1920. 2. 16 ~ 1992. 10. 14)

호를 석총(石叢)이라 했고 영일군 기계면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적령에 향리의 소학교에 입학했는데 매우 총명하여 여름 방학 때에 친척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우는데 다른이들에게는 하루에 두 줄을 가르치는데 그에게는 하루에 여덟 줄을 가르쳐 방학 중에 『천자문』을 다 배우고 문리를 얻었다 한다.

그가 비상한 준재였다는 것은 그의 숙부가 본인의 아들에게는 중학교육밖에 시키지 않았으면서 가정이 어려워 진학을 망설이던 석총에

게는 전문학교, 대학까지 진학시켜 학비를 쾌히 부담한 사실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고시 1기생으로 법조계에 입문하여 불과 3개월만인 1949년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晋州支院) 판사(判事)직을 사임하고, 1949년부터 경주에서 변호사로 활약했다.

석총은 변호사이면서 문화에 대단한 관심과 정열을 쏟았다. 한국전쟁 후 청강(晴江) 김영기(金永基)화백, 청마(靑馬) 유치환(柳致環), 관성(冠城) 김준식(金俊植), 고청(古靑) 윤경렬(尹京烈), 이원팽(李源彭), 홍영기(洪永基) 등과 어울려 신라문화를 논하며, 청강의 주선으로 월탄(月灘) 박종화(朴鍾和)와 상의하여 1955년에 문총경주지부(文總慶州支部)를 결성하고 그 지부장직을 맡아 이끌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년 '서라벌 예술제'를 열게 되었는데 이것이 후일의 '신라문화제'로 발전했다.

1956년 신라문화동인회(新羅文化同人會)를 창설하여 다년간 회장을 맡았으며, 로타리클럽, 경주궁도회(慶州弓道會) 등 이 지역 사회봉사단체의 스폰서 역할 등으로 정작 그 자신의 천부적 예술성은 가려져 있었다. 그는 서예에도 능하였다.

그는 최옥교(崔玉嬌)와의 사이에 7남매(3남 4녀)를 두었는데 모두가 예술에 재능이 뛰어나 현악(絃樂) 4중주 정도는 남의 손을 빌릴 것 없다 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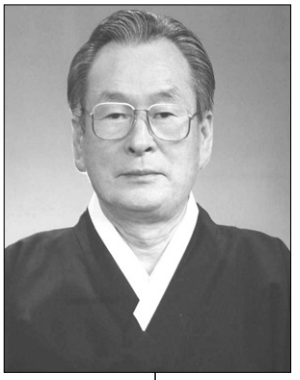
○ 이상무(李相武 ; 1919. 9. 29 ~ 1987. 2. 12)

호를 우보(牛步)라 하고 안강읍 두류리 이병갑(李丙甲)의 아들로 출생하여 중국 목단강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경주 로타리클럽 부회장을 지냈으며 6 · 7대 국회의원 재임 중에는 중앙정보부 보안국장 자문의원과 국회 내무분과위원장을 지냈으며 정부로부터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 이상문(李相文 ; 1901. 9. 12 ~ 1971. 11. 6)

출생은 경산이다. 대구고보(大邱高普)를 졸업하고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乾川里)에 정착했다. 그는 영어회화(英語會話)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해방직후 경주지역에 군정이 시행되었을 때 영어 통역으로 지역에 보탬을 주었다.

그 후 1946년 경주군수로 취임하여 종전 직후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어수선한 때의 갈무리와 10 · 1 사건과 좌 · 우익의 지방 소요 등을 감당하고 1947년 6월 7일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는, 경주중 · 고등학교 교장 · 무산중학교 교장으로 교육사업에 전념했다.



○ 이상열(李相烈 ; 1924. 7. 25 ~ 2004. 10. 9)

호는 괘정(掛庭)이고 외동읍 괘릉리(掛陵里)에서 아버지 이숙우(李淑雨)의 맏아들로 경주 개화의 거인 수봉 이규인의 증손자로 태어났다. 그는 자라면서 모습과 행동거지가 준수 · 대범하여 주위가 모두 장차 큰일을 이룩하리라 칭찬했다. 일본의 패전기색이 짙어질 무렵에 할아버지께서 세운 염원이 깃든 경주중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을 졸업하면서 경주중 · 고교 제2의 성장기 주역으로 등장했다. 그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명문 경주중 · 고교의 명성에 걸맞게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유서깊고 전통있는 신라 문화를 선양 · 재현코자 심혈을 기울였으며 경주시문화원과 월성군문화원을 경주문화원으로 통합하여 전통적 예술 · 문화의 개발과 재현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분야별 활동을 통하여 문화원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2001년 2월 16일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제7편 교육 · 언론 및 출판 제1장 교육과 학문 참고

○ 이석(李錫 ; ? ~ ?)

여강(驪江) 후인으로 자는 석경(錫慶)이며 호는 죽산(竹山)이다. 영일군 신광면에서 이영구(李榮久)의 아들로 태어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를 경영하다가 초대 제헌국회의원으로 경주군 을구에서 당선하여 국회재정분과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 안강중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 『월성군지』1244쪽

○ 이석(李錫 ; ? ~ ?)

이세기(李世紀)라고도 했다. 그는 경주에서 출생하고 살았으나 후일 청송(靑松)에 옮겨 살았다. 성품이 용맹하여 산남의진(山南義陣)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워 중군장(中軍將)이 되었다. 입암리 전투에서 조용기, 이한구 등이 전사하자 우재룡(禹在龍)과 함께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환직을 받들어 북동대산에 의거하여 장기(長鬐)를 공격하는 등 분전했으나 체포되었다.

심문관에게 "너희들은 우리 강토를 빼앗으니 고금의 대적이 아니냐. 나는 대한국민으로 우리 강토를 찾으려 함이니 이세기(李世紀)는 왜(倭)를 죽이려 하였고 왜는 이세기를 죽이려 하였음이니 무슨 말이 더 있느냐."라 하고 의자를 들어 심문관에게 매쳤다가 드디어 순절했다. 그 누이동생이 이 말을 듣고 매일 옥(獄) 근

처에서 탐문하더니 그가 순절하자 시신을 거두어 보현산 밑에 안장했다.

참고 자료 : 『월성군지』456쪽

○ 이석간(李錫侃 ; ? ~ ?)

월성 이씨로 안강읍 근계리(根溪里)에서 살았다. 매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정력을 다하여 의술연구에 전념하였으며 어떤 어려운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한없이 연구하여 침술과 시약으로 효과를 내어 고쳤다. 세상 사람들이 일컫어 신의(神医)라 했다.

참고 자료 : 『동경속지』

○ 이석채(李錫埰 ; 1892. 5. 26 ~ 1948. 3. 16)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원으로 군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이석채는 1917년 12월 경 경남 동래(東萊)에서 군자금 이천원을 모금하였으며 이를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해 줄 목적으로 1920년 1월에 만주 유하현(柳河縣)으로 망명하였다. 1월 중순 경에 유하현에 도착한 이석채는 그곳에서 임시정부 요원인 노백린(盧伯麟)을 만나 일천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임시정부의 외무원이 되어 국내의 민정을 시찰하고 임시정부원(員)을 모집하기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1920년 2월 경에 국내로 들어온 이석채는 이후 서울과 강원도 일대에서 임시정부원 모집 활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군 주문진에 거주하는 최명일(崔命一)과 삼척군 삼척면 읍상리의 김동석(金東錫) 등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이 일로 이석채는 일경에게 체포되어 1920년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신부장지문원지』(경찰청), 판결문(대구지방법원 1920. 4. 12)

○ 이순구(李純久 ; 1884. 1. 15 ~ 1983. 9)

1906년 4월 정용기(鄭鏞基), 이한구(李韓久)의 산남의진(山南義陣)이 조직되자 이에 입대하여 주로 통신과 정찰의 책임을 맡고 의진 밖에서 이세기[李世紀, 이석(李錫)], 남우필(南禹必)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약하였다.

의병장 정용기가 순국한 후 용기의 부친인 정환직(鄭煥直)이 의진을 통솔하게 되자 그 막하에서 활약하던 중 1908년 의성(義城) 구봉산(九峯山)에서 적과 접전하다

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불구가 되었다. 1912년 만주 반석현(盤石縣)에서 이상룡(李相龍)을 만나고 우재룡(禹在龍)의 소개를 받아 광복회에 가입하여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삼남창의지』 하권 75쪽, 『삼남의진비』,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08쪽

○ 이영표(李永杓 ; 1917. 3. 14 ~ ?)

산내면 내칠리(乃七里)에서 태어났으며 단국대학(檀國大學) 문리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 경주에 제사(製糸)공장을 설립했으며,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4선거구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 이종률(李鍾律 ; 1923. 8. 27 ~ ?)

산내면(山內面)에서 출생하여 일본 대판(大阪) 관서(關西)공업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사범대 수학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일생을 교육계에 헌신하여 안동교육대학장, 경북고등학교장과 제6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하였다.

○ 이종원(李鍾元 ; 1932 ~ 1994. 2. 2)

안강읍 양월리(楊月里)에서 태어났다. 자를 엽(燁)이라 하고 호를 남강(南岡)이라 했다. 그는 다재다능하여 서예가(書藝家)이기 이전에 체육인으로 태권도 7단이며 정치인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 대의원, 월성군 행정자문위원이며 경주지청(慶州支廳) 상임선도위원(常任善導委員)을 역임하였다.

서예가로서의 그는 국전(國展)입선 6회, 개인전(個人展), 경북도전(慶北道展) 심사위원장을 역임했고 경북도 문예진흥위원(慶北道 文藝振興委員) 등 많은 활동으로 경북도 문화상(慶北道 文化賞)을 수상했다.

○ 이종준(李鍾駿 ; 1909. 5. 28 ~ 1969. 2. 14)

자는 중협(仲協)이고 호는 성산(星山)이다. 내남면 망성리(望星里) 이규철(李圭哲)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성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부산고등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서울 경동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주군 을구에서 자유당 공천으로 당선되었다.

○ 이종환(李鍾桓 ; 1920 ~ 1976. 4)

건천리 사람으로 호를 순보(巡甫)라 하며 1938년에서 1943년까지 6년 동안을 만주 등지를 떠돌면서 지냈다. 그는 해방 전에 귀국하여 왕성한 문학활동을 했다. 1942년 무렵에는 〈만주일보〉에 단편소설도 10여 편을 발표했다.

1948년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표작 「사도전서(使徒傳書)」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묘사해 낸 중요한 근거가 된다. 1951년에는 어린이 잡지 〈새벗〉, 1953년 〈서울신문〉 주간부장, 1954년 월간 〈학생계〉, 1955년에는 〈여원〉, 〈현대공론〉, 〈자유공론〉 등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는 1959년 '한국문학가협회' 사무국장,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 1962년~1968년까지 상임이사, 그리고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이사 등의 문학단체의 임원을 맡는 등 한국 문학단체의 행정업무에 깊숙하게 관계한다. 그리고 많은 작품을 남기고 1976년 4월에 56세로 타계했다.

※제6편 문화 · 예술 제2장 예술 제1절 문학 참조

○ 이중근(李重根 ; 1905. 12. 11 ~ 1932. 8. 18)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청리(靑里)공립보통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중근(安重根) 의사를 기리는 노래를 가르치는 등 항일 독립의식을 고취했다.

그는 1926년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형인 이만근(李萬根)과 함께 유봉조(俞鳳祚), 김재홍(金在洪) 등의 청년들을 규합하여 항일독립을 목적으로 산내청년회(山內靑年會)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유봉조에게 보낸 편지가 일경에게 발각됨으로써 체포되었다. 이 일로 그는 1927년 10월 25일 대구지방 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형을 언도받았다. 이후 1930년 중외일보(中外日報) 기자로서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산하 경주청년동맹의 집행위원장이 되었으며, 1927년 2월에 결성된 민족주의자와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新幹會)의 경주지회(慶州支會)를 조직하여 선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농민회(農民會)를 결성하여 항일활동을 펴 나갔다.

그러던 중에 일경에 체포되어 1930년 7월 18일 대구지방 법원에서 치안유지법,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해 9월 25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 1982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판결문(1927. 10. 25 대구지방법원), 『고등경찰요사』 298, 299쪽

○ 이채우(李埰雨 ; 1906. 4. 10 ~ 1971. 2. 12)

외동읍 괘릉리에서 수봉(秀峯) 이규인(李圭寅)의 손자로 태어났다. 호를 운초(雲樵)라 했다.

그는 니혼[日本]대학 경제학과 2년을 수료하고 고향에서 해야 할 수봉정(秀峯亭)의 목표인 복지(福祉), 교육(敎育), 구휼(救恤), 의료(醫療) 사업의 육성에 투신 · 전력했으며 특히 1936년도 이후의 경주고등보통학교 설립에 심혈을 기울여 1938년 3월에 당초의 사립(私立)이 아닌 공립(公立)으로의 변경 허가를 받아 당년 4월에 1회 입학식을 가졌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경주예술대학 설립에 참여하여 부원장을 맡았다. 1960년 7월 13일 경주시장에 임명되어 1960년 12월 1일에 퇴임했다.

재임 중 4 · 19 혁명 이후 정국의 혼란으로 자유당이 무너지고 허정(許政) 수반의 과정[過渡期政府]이 수립되어 민주당의 내각제(內閣制)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고 민의원(民議員) · 참의원(參議員) 선거가 실시되는 등 사회변동이 격심한 시기를 원만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법률 제563호로 시장(市長) 직선제로 바뀌면서 1960년 12월 1일에 퇴임하였다.

○ 이채원(李綵源 ; 1898 ~ 1976)

자는 하은(夏誾). 호는 국파(菊坡)라 하고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강동면 양동리에서 이석환(李錫煥)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오천 정씨(烏川鄭氏)이다.

그는 풍모가 청수하고 타고난 품성이 중후(重厚)했다. 그는 14세에 아버지의 병을 대신하여 그 아픔을 자신에게 달라고 기원했으나 상을 당했다. 20세 때에 큰집 종질이 4살짜리 아이를 두고 40리 밖에서 급사했다. 이렇게 대소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대소집일 일을 모두 맡아 다스리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

1950년『경주향교중수향약안서(慶州鄕校重修鄕約案序)』3권 1책을 간행했다. 그 외에 그는 '기문', '서문', '묘갈명' 등 많은 글을 남겼다.

○ 이치용(李致瑢 ; 1894. 4. 4 ~ 1950. 9. 8)

1927년 2 · 3월 경 서울에서 사립고학당(私立苦學堂) 학생인 이종학(李鍾學), 정관진(鄭寬鎭), 김태래(金泰來) 등과 함께 비밀결사 조선학생혁명당(朝鮮學生革命黨)을 조직했다.

조선학생혁명당은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부, 재무부, 정치문화부의 부서를 갖추고 동지 규합에 힘썼으며 1929년 3월 경 조선학생전위동맹(朝鮮學生前衛同盟)으로 개칭한 후 고학당, 중앙고보(中央高普), 중동학교(中東學校)에 세포단체로 독서회(讀書會)를 조직 · 운영하였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이들은 같은해 12월 동조시위(同調示威)를 펴기로 하고 항일격문을 인쇄하여 사회단체와 신문사, 학교 등에 배포했다.

한편 이치용은 1929년 5월 서울에서 차재정(車載貞), 심원섭(沈遠燮), 황대용(黃大用), 부병준(夫丙準) 등과 함께 사회주의 비밀결사 조선공산청년회(朝鮮共産青年會)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일경에게 체포되었으나 면소되었다.

또 그는 1929년 여름 신간회(新幹會) 대구지회 조직위원으로 선임되어 경상북도 일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항일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았다.

신간회가 해산된 후 그는 1931년에서 1936년까지 경북농민조합준비위원회(慶北農民組合準備委員會)와 독서회 등을 조직하여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소작쟁이(小作爭議)와 일제의 착취 기관 철폐, 이민정책(移民政策) 반대 등 항일활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36년 10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판결문(1936. 10. 31 대구복심법원), 범죄인명부,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5권 196, 201쪽

○ 이한구(李韓久 ; 1870. 9. 16 ~ 1907. 9. 11)

아명을 경구(暻久)라 하고 자를 경일(景日)이라 하고 호를 지포(芝圃)라 했다. 훗날 자를 한유(漢有), 호를 신성재(新省齋)라 하였다. 이언적(李彦迪)의 후손으로 인물이 뛰어나며 성품이 맑고 곧았다. 어려서 양친을 여의었고 어른처럼 예의범절을 갖추었으며 계모 손씨를 정성껏 봉양했다.

영천의 정용기(鄭鏞基)와는 각별한 교분이 있었는데 1905년 을사(乙巳)년의 변을 당하여 용기(鏞基)의 부친인 환직(煥直)이 임금의 밀지를 받아 아들인 용기를 영남에 보내어 의거(義擧)를 계획하자 이형표(李亨杓), 최세한(崔世瀚, 손영각(孫永珏)과 용기의 종제 순기(純基)와 뜻을 같이하여 사방으로 동지를 모아 1906년 '산남의진(山南義陣)' 이라는 의병대를 조직했다.

그 때 용기는 대장, 한구는 중군장(中軍將)이 되어 행군하던 중 용기는 우리 친위대의 속임수에 빠져 경주에서 체포되어 대구부로 압송되었다.

한편 산남의진에서는 이한구가 대신으로 군사를 이끌고 윤 4월 10일 강구를 습격하여 왜적을 살해하고 상옥리(上玉里)로 돌아왔다. 그 후 영덕, 청하, 경주, 청송, 진보 등지로 전진하였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때 영해의 신돌석(申乭石) 의진과 서로 연락하고 있었는데, 그 신돌석 의진이 적의 견제를 받고 막혀 있었고, 또한 적군 1개 대대가 청송에 집결하여 의병 억제에 전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한구는 어쩔 수 없이 후일을 기약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그 해 9월에 용기가 석방되어 그는 다시 의거 준비를 하였다. 1907년 4월부터 '산남의진' 의 깃발을 다시 세우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의사들을 집합시켰는데, 부산, 대구 방면에서는 화약이, 그리고 청송에서는 군수물자가 운반되어 오고 안동지방에서는 김석정, 동해지구에서는 임중호, 의성에서는 박태중, 경주에서는 황귀섭, 신녕에서는 권규섭 등이 각기 의병을 거느리고 합세했다. 1907년에는 우재룡(禹在龍)을 비롯한 많은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였다.

이한구는 역시 중군장이 되어 곳곳에서 일본군과 대치하여 적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면서 유격전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도 냈으나 1907년 9월 입암리(立岩里) 전투에서 이한구는 정용기, 손영락, 권규섭 등과 함께 전사 · 순절했다.

참고 자료 : 『경주군사』 455쪽

○ 이협우(李協雨 ; 1921. 2. 27 ~ 1980)

내남면 망성리(望星里) 이종윤(李鍾潤)의 아들로 태어났다. 대구농림학교를 졸업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주군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주군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주군 갑구에서 자유당 공천으로 당선 3선의원이 되어 자유당 원내 부총무를 지냈다.

참고 자료 : 『월성군사』 519쪽

○ 이홍석(李洪錫 ; 1890. 1. 5 ~ 1946. 8. 14)

호를 운초(雲樵)라 하고 성건동에서 이기영(李基永)의 맏아들로 1890년 1월 5일에 태어났다. 성품이 활달했고 기억력이 좋아 일찍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경주소학교를 졸업했다. 애국심이 투철하여 16세에 이미 국가의 쇠퇴함을 개탄하고

조국을 걱정한 그는 1916년 자진해서 마음에 정하는 바가 있어 일본 경찰에 들어갔다.

그는 경주경찰서에 근무하면서 항상 동포들을 옹호해왔다. 1919년 3 · 1 독립시위운동 이래 독립운동이 생기를 찾아 활발히 벌어지고 있을 무렵 그는 도순사(都巡査)로 있으면서 김창숙(金昌淑)을 중심으로 한 경북유림단(慶北儒林團)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1921년 10월에 김창숙으로부터 정수기(鄭守基)에게 북경으로 와 달라는 연락이 왔다. 그는 경찰직을 이용해서 정수기를 무역 상인으로 가장시켜 여권을 내어주고 정수기를 인천부두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경찰에 있으면서 경찰에 입수되는 정보를 동지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동지들 간의 통신연락을 담당하여 도우며 항일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1925년 3월 김창숙, 송영호, 김화식, 이봉노 등 동지들이 모여 장기적 독립운동의 기반 조성을 결의하고 중국 내몽고(內蒙古)지방의 미개간지 20만 정보를 매입하여 남 · 북만주의 동포들로 하여금 이를 개간토록 한 후에 그 수익금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으로 20만원의 군자금 모금을 계획했다.

이에 그는 현곡들[見谷平野]의 부친 소유의 논 50여 두락을 처분한 돈과 정수기의 형인 정을기 토지문서를 아화(阿火) 부자 김명오에게 잡히고 빌린 돈과 함께 정수기를 통하여 만주로 보내며 계속 모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삼남지방(三南地方)으로 흩어져서 6개월 간 12,400원을 모금하였으나 예정액에는 미달했고 1926년 3월 17일 경남 범어사(梵魚寺)에서 손후익(孫厚翼), 이재락(李在洛) 등과 협의한 결과 군자금 모금에 불응하는 자와 소액 헌납자를 암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의혈단과 교섭하여 권총 및 폭탄을 입수하기로 하고 김창숙은 4월 11일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의열단의 김원봉(金元鳳)과 유우근(柳友根), 한봉근(韓鳳根)과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을 국내에서 수행하던 중 같은해 4월에 유림단의 동지들이 일경에게 피체될 때 그는 국내의 정수기를 숨겨주고 가족도 보호해 주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김창숙은 그에게 수정장(水晶章)을 수여하기도 했다. 1927년 그는 정수기와 함께 일경에게 체포되어 3년형을 언도 받았으나 1928년 대구지방 법원에서 면소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동지와 함께 모진 고문으로 사경에 이르러 가출옥으로 풀려나왔다[세칭 유림단 음모 사건].

그는 병고에 시달리는 몸인데도 감시 및 예비검 속을 당하며 지내 오다가 기쁨

의 해방을 맞이했으나 고문의 여독으로 1946년 8월 14일 향년 57세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판결문(1928. 8. 6 대구지방법원), 『기려수필』 261쪽, 『고등경찰요사』 288쪽,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336, 350쪽

○ 임두혁(任杜爀 ; 1922. 4. 22 ~ 1981. 1. 14)

남산동에서 아버지 임영식(任英植)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내동보통학교(內東普通學校)를 졸업하고 가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울산농업학교(蔚山農業學校)를 수료했다. 전통 있는 가문에서 한학(漢學)을 배우고 경주의 남산이 좋아 자신의 호를 남산(南山) 또는 창산(蒼山)이라 했다.

그는 해방 전에는 내동면 농업지도원으로 면지도요원으로 근무했으며 해방 후에는 가업에 종사하면서 양조업을 경영했다. 그는 1956년 2대 경주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방위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했으며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초대의원,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대의원으로 계속 당선됐으며 경주지역 최대 봉사 단체인 로타리클럽 3630 회장을 역임했다.

경주시 · 월성군 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축산농업의 장려와 발전에 힘썼으며 또 체육계에서 궁도(弓道)회장을 맡으면서 경주궁도장인 호림정(虎林亭)을 건설하고자 노력했고, 안압지 임해정(臨海亭) 건물을 이건하여 현 호림정을 건립하는 정열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허무러져 가는 도덕을 그냥 버릴 수 없어 1974년 3월 20일에 경주향교 전교(典校)에 선임되어 타계하는 순간까지 도덕의 향상을 위하여 전력했었다.

참고 자료 : 『경주로타리 40년사』

○ 임찬재(任瓚宰 ; 1849 ~ 1923)

임찬재의 자는 성건(聖建)이고 호는 오산(鰲山)이며 본관은 풍천(豊川)이다. 그는 남산리에서 아버지 임은호(任溵鎬) 어머니 안동권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오산(鰲山)은 태어나면서 기상이 우뚝하고 재주가 총명하여 주위에서 큰사람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자라서 숙부에게서 글을 배웠다.

그는 세속적 명리에는 관심이 없고 전국 명승지를 유람하며 시부(詩賦)를 남겼다. 그는 훗날 집근처에 오산재(鰲山齋)라는 작은 서재를 지어 환경을 꾸미고 날마다 글을 읽고 후진을 가르치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본디 오산은 시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경치를 만나거나 성정(性情)에 느낀 바가 있으면 곧 시를 지었다. 그는 시 · 문을 굳이 남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흩어졌거나 없어지고 현재 전하는 것은 약간의 시와 만사 등이 전부다. 미간행 유고가 1책 있다.

○ 장경탁(張景鐸 ; 1923. 12. 29 ~ 1945. 8. 10)

1939년 16세의 소년으로 그는 조국해방을 위해서 북간도(北間島)로 이주, 항일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1942년 국내에서 항일민중 봉기를 목적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1942년 함경북도 경흥군(慶興郡)의 아오지(阿吾地) 탄광에서 광부들을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지하 공작을 펴던 중 1944년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일본 경찰의 가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생에 조국 해방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죽어서 혼이 되어 일본 궁성에 폭탄을 투척하여 천황을 폭사케 하겠다"고 말하며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1944년 청진지방 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불경죄, 육해군 형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언도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여독으로 1946년 8월 10일 옥중에서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범죄인명부(1944. 10. 10 월성군 현곡면장),
제적등본(1945. 8. 10 옥사보고, 대전형무소)

○ 장월중선(張月中仙 ; 1925. 4. 20 ~ 1998. 2. 6)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곡리 귀밑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별명을 장순애(張順愛)라 했다. 그는 곡성군 오곡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곡성에서 명창 장판개의 문하생으로 입문했다.

'춘향가', '홍보가' 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박동실, 장수향, 박상근 등을 거치면서 가야금 풍류전바탕과 가야금 산조까지 배우고, 1939년부터는 광주, 정읍, 서울, 목포 등지에서 임세균, 오태석 선생에게 거문고 풍류산조와 가야금병창을 공부하였다.

정읍에서 전통무용, 살풀이, 승무를 그리고 서울에서 한갑덕, 김윤덕 선생에게 거문고 산조, 가야금 산조를 수업하고 1976년에는 박송암 스님에게 범패, 홋소리, 짓소리, 나비춤, 천수바라, 법고를 사사했다. 그 사이 1941년부터 약 10년간 조선창극단, 국극단, 임춘앵여성창극단에서 작곡, 안무 등 단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1963년부터 경주로 솔권 이사하여 경주시 관광요원 교육원, 경주시립국악원의 국악 주임강사를 맡았으며, 신라국악 예술단을 창단하여 그 실기 단장과 안무를 맡았다. 1988년 부터는 (사)한국국악협회 경북도지부장을 역임했다. 또 그는 1990년부터는 전국 순회공연을 했고 해외공연으로 일본 오키나와 재일본 거류민단 히로시마본부 초청공연, 일본 나라시, 오바마시 등 초청 공연을 끝내고 1995년 유럽 순방공연으로 파리, 베르사이유, 도이취란트 등 그리고 중국의 서안시 초청공연에 참가하여 의욕적으로 활동했다.

1975년에 제14회 향토문화공로상(문화공보부장관), 1977년에 전국 국악 경연대회 작품 최고상 수상(대통령상), 1988년 KBS 88국악대상, 특별공로상 수상(서영훈 사장상), 1991년 91년도 국악대상 수상(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1993년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수상(문화체육부장관상), 1993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가야금 병창 보유자 인정, 1995년 대통령의 화관문화훈장과 경상북도 지사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국악의 팔방미인"이라 할만큼 특기가 많았다.

현재 장순애의 소리는 그의 딸 정순임이 계승하고 있으며 가야금병창 또한 그의 딸 정경옥이 계승하고 있고 그의 춤은 제자 주영희가 이어서 활동하고 있다.

※제6편 문화 · 예술 제2장 예술 제1절 문학 참고

○ 장철수(張徹壽 ; ? ~ ?)

경주가 낳은 천재이며 기인(奇人)이기도 하다. 중학을 대구에서 마치고 일본 교토[京都] 제3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제국대학 정치, 외교학부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수립 후 외교관 채용고시에 수석합격하여 외무부에서 근무했는데, 장택상 외무부장관 때 그는 초대 외무부 통상국장이었고 벨기에 대사관 2등서기관을 지냈다. 이승만대통령의 외교 비판 사건으로 외무부를 사퇴한 후 경북대학교에서 2년간 외교사(外交史), 국제법(國際法) 등을 강의했다. 그 후 성균관대학으로 이적하여 정치외교학을 강론했다.

불우한 출생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며 평소 여성 멸시의 언행이 잦았다. 그는 술과 담배를 좋아했는데 강의 시간에도 담배를 물고 있었다고 한다. 또 그는 순간의 기지(機智)에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예로 학교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운전기사가 갑자기 나타난 강아지를 피하려 핸들을 급히 조작하여 그의 이마를 다치게 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인도주의 운전사가 아니라 견도주의(犬道主義) 운전기사구먼!" 하고 농반 짜증반을 터트렸다고 했다. 또한 경북대학 초대총장에 의학박사 고병간총장이 부임한다니까 "왜 하필

이면 자그만한 핀셋트가 총장이냐. 큼직한 인문 거인이 오지 않고!" 식으로 기인 중의 기인으로 비치기도 했다. 결국 그는 과연과음(過煙過飮)으로 간경화가 원인이 되어 요절했다. 그의 생일도 요절한 날도 아는 이가 없다.

○ 전춘득(全春得 ; 1925. 4. 6 ~ 1973. 5. 4)

황남동 사람이다. 아버지 전덕조(全德祚)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본 큐슈 오이타현[九州大分縣] 히다 임공학교(日田 林工學校)를 졸업했다. 그는 재학 중에는 야구선수였다. 해방 직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경주군청에 취직했다. 1946년에 '화랑야구단'을 조직하고 경주실업야구단과 합단하여 선수, 주장, 코치 격으로 활동했다. 그 후 후배를 지도하면서 그는 1960년 경주군 서면 의원 선거에서 당선, 지방의원으로 군 체육 향상에 힘을 쏟았다.

경주중학교 야구부 코치를 맡아 경주중학교를 1959년도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우승케 했으며 같은해 도시대항 야구대회에서 우승하게 했다. 그는 야구뿐 아니라 체육 전반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 정규섭(鄭奎燮 ; 1926. 10. 28 ~ 1971. 10. 9)

안강읍 양월리(楊月里) 671번지에서 아버지 정병찬(鄭柄璨)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한학자의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일찍부터 한학을 배웠다. 자라면서 총명하고 듬직하여 주위에 믿음을 주었고 장차의 기대를 모으면서 자랐다. 계림소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에 경주중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해방 후 대구대학[현 영남대학 전신] 법과를 졸업하고 경주중 · 고등학교 교사로 봉직했다.

정규섭은 축구선수는 아닌데 대구대학 축구부 매니저를 했고 경북 태백축구팀의 매니저도 했다. 경주고등학교에서 축구부를 창설하여 경북 일원과 영남 전역의 고교 축구를 풍미했다.

1960년 5월에 경북도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당선, 정계에 진출했다. 5 · 16 군사혁명 이후에 신병으로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참고 자료 : 『경주체육 50년사』

○ 정덕영(鄭德永 ; 1915. 9. 5 ~ 1991. 11. 21)

아버지 정장용(鄭璋鎔)과 어머니 밀양 박씨와의 사이에서 외아들로 1915년 9월 5일에 출생했다. 호를 송은(松隱)이라 했다.

일본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관가에 진출했으나 뜻하는 바가 있어 경주시 황오동에 경주도자기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으며 대학 시절에 즐겨 뛰었던 복싱에 매력이 있어 경주 봉황대 옆에 개인 복싱구락부를 설립하여 해방 직후의 경주체육에 투자했다.

또한 그는 1946년도 경주예술대학을 구 경주 사정리 역사에서 개교하는데 동참했으며 1956년에는 경주시 의회 초대 부의장으로 진출했으며 1962년 4월에는 경주체육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1970년에는 전국자유총연맹 경주시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했으며 말년에는 불교에 귀의하여 이차돈(異次頓), 원효(元曉), 양성사(兩聖師) 봉찬회에 관여하여 경주의 불교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한 바가 크다.

그는 생전에 경주를 위하여 스포츠, 교육, 정치,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공헌한 바가 크다.

○ 정래영(鄭騋永 ; 1900. 1. 15 ~ 1961. 4. 23)

감포읍 팔조리(八助里)에서 1900년 1월 15일에 정우용(鄭遇鎔)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字)는 무범(武範)이고 별명을 만출(萬出)이라고도 했으며 호는 죽교(竹橋)이다. 태어나면서 총명하고 자라면서 성품이 강직할 뿐 아니라 활달했다. 한학을 익히고 신학문을 위하여 서울의 휘문고보를 졸업했다.

1919년 3 · 1 민족의 독립 항쟁이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자 그는 동지를 규합하여 서울에서 독립 투쟁을 벌렸다. 무력 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대구, 서울 등지의 동지들과 연락하여 재기의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1920년 독립운동 방법을 바꾸어 상해 임시정부 및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를 적극 도와 독립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 송두환, 최해규, 김종철, 김봉규, 정두희, 노기용, 정두규, 정독석 등과 대구에 마련된 연락소에서 여러차례의 비밀회의를 열고 해외 항일 운동 단체와 연락하며 구국 운동에 신명을 받치기로 맹세하고 각자 활동을 개시했다.

1920년 9월 만주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발행의 예경령, 의용단위임장, 군자금 모집위원 사령, 사형집행서, 권총, 탄약 등을 군정서의 김응섭 주선으로 신의주에 상주하는 송상욱을 통해서 송두환, 김종철 등이 반입하였다. 이것들을 대구 정독석이 집에 숨겨두고 각자가 필요 시에 이것을 갖고 담당 지역별로 연락하며 실행에 옮겼다. 정래영은 경남 지방을 맡아 의령의 재산가인 남정구 등 각처의 애국 동포들로부터 군자금 모금에 동분서주했다.

1920년 12월 8일의 일경 가히[甲斐]의 사살 사건이 발생하여 일경의 수사는 점

차로 확대되었으며 군위에서 최윤동이 체포됨으로써 정체가 들어나고 그도 여러 동지들과 함께 피체되었다. 대구법원에서 불법 무기소지, 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2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풀려났다.

1924년 4월에 만주로 건너가 만주의 서로군정서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1926년 3월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의 김을섭을 만나 임시정부의 군무부(軍務部)에서 연락 업무를 띄고 중국의 상해, 만주 등지를 왕래했다. 1932년 '애국단(愛國團)' 의 홍구(虹口)공원 사건으로 임시정부가 절강성으로 옮기게 되자 정래영은 밀명을 받고 국내에 군자금 모금에 들어갔으나 경계가 삼엄하여 다시 북만주로 건너갔다.

1937년 중 · 일 전쟁이 터지자 그는 다시 국내로 잠입하여 지하 운동을 벌이던 중 감격의 해방을 맞았다. 그는 건국 사업은 물론 초대 읍의원 등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향년 61세에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독립유공 대통령표창 및 건국공훈훈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판결문,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 정병찬(鄭炳璨 ; 1900 ~ 1966)

정병찬의 자는 서경(瑞瓊)이고 호는 만취(晩翠)며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안강읍 하곡리(霞谷里)에서 정용락[鄭龍洛, 호 행정(杏汀)]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으며 어머니는 이천 서씨(利川徐氏)이다. 20세에 아버지가 타계하고[맏형이 큰집 후사로 양입] 집안 일을 모두 맡아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수리조합장(水利組合長)에 피선되어 관수 이용을 잘하여 쌀을 증산하고 민생을 윤택케 하는데 노력했다. 해방 이후 나라의 분단, 사회의 혼탁, 민족의 상잔 등을 겪은 만취는 명리를 버리고 전원(田園)으로 돌아가서 지냈다. 그는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와 소강(小江) 김헌수(金憲洙) 등과 교류 · 연찬했다.

그는 1960년에서 1962년에 끝낸 『동경속지(東京續誌)』 편찬 주간을 맡아 노력하였다. 기존의 「동경잡기」를 보완했으며 후학을 위하여 원문에 현토했다. 본 집은 경주 인물지리서로서 경주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 그는 경주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육성회장을 맡았고 보분제(普門堤)를 축조할 때 안용대(安龍大)를 대신하여 「개기축문」을 지었다. 서문은 이우성(李佑成)이 쓰고 후지는 정병모(鄭柄瑁)가 지었다. 문집 5권 2책이 있다.

○ 정수기(鄭守基 ; 1896. 4. 24 ~ 1936. 1. 10)

건천읍 송선리에서 정성필(鄭成弼)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오천(烏川)이며 자는 내익(乃益)이고 호는 일천(一川)이다. 나면서 성품이 온후하고 기개와 도량이 넓고 총명하였다.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유림의 원로인 김창숙(金昌淑)과 연락하여 독립구국운동에 참가하였다. 1922년 8월 독립운동에 참가할 목적으로 북경으로 당시 의열단(義烈團) 고문인 김창숙을 찾아가 독립운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를 보았다.

즉 만주와 몽고지방의 황무지 2만여 평을 중화민국으로부터 얻어 개간하여 그 이익금으로 무관학교(武官學校)를 설립하여 둔전제(屯田制)를 실시하고, 독립군을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1923년 2월 손후익(孫厚翼)과 함께 국내에 돌아왔다. 그는 1923년 4월부터 경북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여 김창숙에게 보내었다. 1925년 7월에 비밀리에 서울에 온 김창숙을 다시 만나 독립군 양성을 위한 거액의 군자금 모금 계획을 지시받고 경북 일대에서 모금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5년 8월(음) 대구에서 김화식(金華植)에게 김창숙의 취지문을 제시하고 협력을 구하는 한편 서울 남산공원에서 손후익(孫厚翼), 이재락(李在洛), 이동흠(李棟欽), 김동진(金東鎭) 등과 함께 자금 마련을 위해 수차 회동하였다.

여기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로 분담하기로 하고 정수기 자신은 안동(安東), 영주(榮州), 봉화(奉化) 지방을 맡아 활동하였고, 김창숙은 모금된 군자금을 가지고 상해(上海)로 돌아갔다. 그러나 1927년 6월 18일 김창숙이 상해에서 체포되어 대구로 압송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김창숙을 대표로 하는 유림단 군자금 모금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한편 관련자 전원이 검거되었다.

그는 김창숙을 구출하기 위하여 국내에 들어왔다가 체포되었다. 정수기는 김창숙과 또 그 당시 현직 순사로 있으면서 중국을 왕래하는 많은 애국지사를 돌봐 준 이홍석(李洪錫)과 같이 공판을 받았다. 그는 일경의 모진 고문으로 옥중에서 신병을 얻어 병보석으로 출옥하였다.

일년 여의 긴 예심과 옥살이 끝에 1928년 11월에 대구지방 법원에서 제령7호 위반 및 공갈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고문으로 얻은 신병으로 주거제한 출옥은 했으나 1936년 1월 10일 40세로 세상을 떠났다. 일제는 장지에 가족 외의 어떤 사람도 참석을 불허하고 대구 성서공동묘지에 장례토록 했으며, 「오호일천정수기지묘」라고 새겨진 묘비 하나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서 1977년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참고 자료 : 판결문(1928. 11. 28 대구지방법원), 『고등경찰요지』 284, 285쪽, 『벽옹 김창숙일대기』 174, 209쪽

○ 정연길(鄭淵吉 ; 1928. 2. 18 ~ 1999. 12. 17)

안강읍 양월리(楊月里) 사람으로 호를 정민(丁民)이라 했다. 1928년 2월 18일에 아버지 정진석(鄭鎭碩)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942년 경주중학에 입학했고 일제강점기 말기의 혹독한 전쟁 교육 시기였지만 사춘기 소년으로 여읜 어머니를 그리는 맑은 시재(詩才)를 발현하기도 하였다. 1946년 대구대학 예과 문과를 마치고 같은해 연희대학 문학부 국문학과로 진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대구에서 피난 수업을 해야만 했다.

그는 안강중학 교사를 시작으로 영천고등학교, 선산고등학교, 군산사범학교, 경기상고 등 교사 생활을 1952~1960년까지 연임했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원 국문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부터 서울시립농대 교양학부 교수 임명을 시작으로 한성대학 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1993년 정년퇴임했으며 한양대학, 홍익대학, 중앙대학, 한국외국어대학 등에도 출강하여 후학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도처에서 자리가 잡히는대로 문학 활동을 하였는데, 경주에서는 '청맥', 군산에서는 '토요' 동인회의 창립 동인이 되었으며, 상경해서는 한국문인협회회원, 1991년에는 화백문학회(和白文學會) 창설 및 그 공동대표, 회장, 상임고문을 역임했으며 펜클럽 한국본부회원, 현대시인협회 회원, 자유시인협회 회원으로 시인으로 살았다.

그의 저서로는 시집 『시인과 시민들의 대화 시간』, 『어느 하늘 아랜들』, 『한』 등이 있으며 수상집(隋想集)으로 『초당방 이야기』, 번역서 『시문학 입문』, 『한국시잡지연구』, 『한국현대시의 텃밭을 찾아서-한국현대 시사』를 화백문학 등에 연재하기도 했다.

※제6편 문화 · 예술 제2장 예술 제1절 문학 참고

○ 정영조(鄭永祚 ; 1909. 2. 6 ~ 1990. 9. 5)

황오동 341-1번지에서 태어났다. 호를 금강(錦江)이라 했으며 1947. 7. 1~1948. 11. 14까지 제2대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지원장을 지냈으며 공증변호사였다. 다년 간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경주중 · 고등학교 육성회 회장직을 맡아 5 · 16 군사쿠데타 직후의 경주교육계의 정화에 노력했으며 또한 사회봉사에도 참여, 이바지한 바가

크다. 국제 로터리 3630지구 회장, 경주로터리클럽의 1968년도 회장을 지냈다.

로터리 클럽 지역 대표(地域代表), 총재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경주로터리클럽 '봉사하는 사람' 으로 종사했으며 경주시 청소년 자문위원, 경주교도소 교화위원 등 경주시 차원의 사회 교육 향상에 많은 공로를 남겼다.

참고 자료 : 『경주 로타리클럽 40년사』

○ 정완수(鄭完洙 ; 1917. 1. 7 ~ 1977. 9. 24)

황오동(皇吾洞)에서 아버지 정달영(鄭達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라면서 성품이 곧고 총명했다.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주군청 요원으로 채용됐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은 그는 대구일보(大邱日報)가 채용하는 동해지구 특파원(特派員)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언론인으로 종사했다. 한편 그는 민족 문화 유산인 신라 문화를 널리 알릴 필요를 느끼면서 지방의 유지 김종대(金鍾大), 경완이(景完伊)와 함께 〈서라벌시보〉을 주간판으로 발행하는데에 함께했다[생존 김기열옹의 증언].

그는 초대 시의원을 거치고 1956년 제2대 경주시지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었으며 1961년 경주시 체육회 제4대 회장 취임, 같은해에 대한반공연맹(大韓反共聯盟) 경주 · 월성위원장으로 선임됐고 1962년에는 공화당 경북 제4지구 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70년 10월 10일에 대한지적협회(大韓地籍協會) 경북지부장을 시작으로 1974년 5월 15일까지 대한지적협회 충남 · 제주 겸직(兼職) 지부장을 지냈다.

참고 자료 : 『경주시지』, 『경주체육50년사』

○ 정윤화(鄭潤和 ; 1922. 1. 29 ~ 1987. 9. 1)

황성동 625번지에서 통정대부(通政大夫) 정지용(鄭址鎔)의 후손으로 아버지 정영운(鄭永運)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가세가 가난하여 경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철도국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천품으로 타고 난 운율(韻律) 감각이 그를 풍물놀이로 유혹했다. 독자적인 방법으로 풍물놀이의 운율을 독학으로 터득하면서 대고(大鼓)와 장고(長鼓)에 매료되었다. 인근 고을 명수들을 찾아 다니며 사사했고 해방 후에는 동래의 '동래야유(東萊野遊)' 에 입단했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6호로 지정되었다.

국악 부문 대고무(大鼓舞) 전국경연대회에 입상, 우승했으며 부산광역시 아미동 풍물놀이부를 총지휘하며 전국 우승으로 이끌었다.

○ 정을기(鄭乙基 ; 1893. 4. 2 ~ 1964. 1. 14)

건천읍 송선리에서 성필(成弼) 일명 시목(時穆)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독립운동가 정수기(鄭守基)의 형이다.

1922년 4월 1일 그는 독립운동 군자금 1,300원을 중국에 망명해 있는 동생 정수기(鄭守基)에게 전달 지원했다. 1926년 3월 17일에 중국에 망명 중인 김창숙(金昌淑)의 밀명으로 독립군의 기지 건설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할 목적으로 입국한 동생 정수기를 도와 경북 지방 유림단(儒林團)과 협의하여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1927년 8월 22일 대구 지방검사국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석방되었으나 미결 기간(未決期間)으로 1년 5개월 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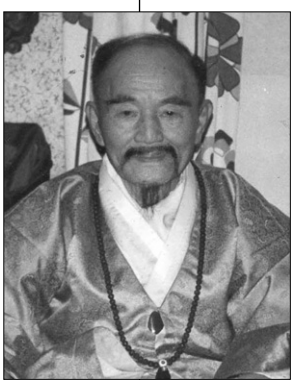
참고 자료 : 형사사건부(대구지방검찰국),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83~289쪽

○ 정헌교(鄭憲敎 ; 1876 ~ 1957)

정헌교는 자를 준백(俊百)이라 하고 호를 지암(止庵)이라 했으며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율재(栗齋) 정현(鄭玹)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월성이씨이다.

그는 5세 때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6세 때에 글을 지을 줄 알았다. 기억력이 뛰어나 많은 글자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를 "정옥편[鄭玉篇 : 사전]"이라 불렀다. 나라가 옛 정책을 개혁하여 신학문을 권장하고 학사(學士)를 뽑았는데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외학교(外學校) 교관이 되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곧 해직되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염원이던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려던 뜻을 펴지 못하고 해방을 맞았다. 그는 문장으로 4권 3책이 있는데 1, 2권은 모두 시(詩)다. 그 외에는 풀과 나무, 새와 짐승 등 미물에 대해 깊은 안목으로 성찰하고 있다.

○ 조경규(趙慶奎 ; 1902. 11. 26 ~ 1988. 12. 26)



일명 인좌(仁佐)라 하고 호를 일성(一城)이라 했다. 함안(咸安) 조씨 명문가에 태어났으며 기울어진 국권을 찾기 위한 1919년의 만세시위 사건을 마산에서 맞아 선봉에 서서 싸웠으며, 1926년에는 광복단에 입단하여 독립군 군자금을 모금, 또 비밀 연락 활동을 하다가 1927년 거창형무소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일경의 끊임없는 감시와 예비 검속 등 고초를 겪으면서 도피 생활 중에도 식민지 하에서 신음하는 민중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 궁리 끝에

1935년 경주에서 대덕당(大德堂) 한약방[현 부용당 한의원]을 개설하게 되었다. 경주에서 인술을 널리 펴면서 수익금을 독립군 군자금으로 충당 송금했다.

해방 후에는 귀환 동포 구제에 진력했고 한국전쟁 와중에서는 대자원(大慈院)을 설립하여 수많은 고아(孤兒)들을 보육(保育), 성장을 돌보는 대부(代父)의 역할을 다했다. 또 전통 예술과 교육 사업에도 뜻을 두고 동도국악원(東都國樂院), 경주서도학원, 경주기술고등학교를 설립했으며, 민족 정기 함양과 불교 진흥을 위해 이차돈(異次頓) · 원효(元曉) 양성사(兩聖師) 봉찬회를 계속 이어왔다. 그런 가운데 가난한 환자를 무료 진료하고 광복회(光復會) 대구 · 경북회 연합회장, 전국예총 12대 경주시회장(1982~1985), 경주여자고등기술학교장,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 대자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경주시신도회장(大韓佛敎曹溪宗 慶州市信徒會長)을 역임하며 일생을 조국 해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살다가 향년 86세로 타계하였다.

1970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고 1977년에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 1978년 매일신문사 광복상, 1981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1982년 5 · 16 민족대상(사회부문),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상했다.

참고 자료 : 〈불교신문〉 2005년 6월 7일, 보훈청 경주지청 자료, 『동경속지』

○ 조학규(趙鶴奎 ; 1914. 12. 19 ~ 2001. 9. 25)

북부동에서 7남매 5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천부의 장사로 인근에 이름을 날린 씨름꾼이다. 신체 골격이 장대했으나 성격이 유순하고 노소장유(老少長幼)를 알아 동리에서는 조장군이라 불렀다. 1930년대에 들어 일제의 수탈이 점점 심해지던 시절의 가을이 되면 추석 대보름이나 '신라제'를 전후하여 그래도 한순간 북천 변의 모래밭이나 애기청소 모래사장에서의 장사씨름대회를 열어 민심을 훈훈하게 달래주었다. 인근의 몇 고을 씨름판인 의성, 영천, 장기, 울산, 양산, 창녕 등지에서 황소 마리나 탔다고 이야기꺼리가 파다하게 퍼졌으며, 그 기술이 신기와 같다고들 했다.

상으로 탄 황소는 그곳의 장사(壯士) 친지들과 우의를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일에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소유자이기도 한 판마기 씨름장사였다.

참고 자료 : 『경주체육 50년사』

○ 주재호(朱在皓 ; 1919. 7. 2 ~ ?)

황남동 중리에서 출생했다. 1959년 9월 12일 경주시장으로 임명[1958년 12월 26일 법률 제501호로 시장 임명제 공포] 1960년 5월 13일 경주시장직을 퇴임했다.

○ 채도옥(蔡道鎏 ; 1849 ~ 1925)

인천인(仁川人)으로 자는 성오(成五)이며, 광무 7년(1903) 홍릉(洪陵) 참봉(參奉)에 서임(敍任)되었다. 고려 말 두문동(杜門洞) 72현인 귀하(貴河)의 16세 손이며, 임진왜란시 공산과 화왕산회맹에 참여한 선수(先修)의 8세손이다. 산내면(山內面)에 입향한 시협(時協)의 증손(曾孫)이고, 유고 및 문집은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 채숙자(蔡淑子 ; ? ~ ?)

본관이 평강(平康)이며 일명 아당(雅堂)이라 불렀고 경주시에서 출생했다. 그는 재주와 예술성이 출중하여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장구 잘치고, 거문고 잘 뜯기로 소시절부터 유명했으며 경주 국악원교사로 재직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하여 전국 시조경연대회에서 일등상을 수상했다.

참고 자료 : 『동경속지』

○ 최기석(崔璣錫 ; 1918. 1. 31 ~ 1989. 10. 17)

성동동 64번지에서 아버지 최성규(崔晟奎) 전 경주읍장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호를 취석(醉石)이라 했다.

1939년에 도쿄의 무사시노[武藏野]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또 도쿄 센슈[專修]대학 상과를 졸업하고 해방 때까지 출판사 근무를 했다. 해방 후 문화중 · 고교, 신라중학교, 경주상고 교사를 12년 역임했다. 신라 미술 연구를 함께 했으며 작품 제작 활동에 몰두했다. 1964년 12월 30일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경주문화원 허가를 취득하여 향토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1969년 6월 30일 제8회 향토문화상 상록수상을 수상했으며 1989년 마산(馬山) 동서화랑(東西畵廊)에서 "취석 서양화 개인전(醉石 西洋畵 個人展)"을 열었으며 1989년 10월 17일 숙환으로 타계했다.

그는 1969년 6월 3일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향토문화 공로상을 수상, 1970년 8월 15일 대통령 훈장 제92호 석류장을 수상했다.

○ 최남주(崔南柱 ; 1905. 5. 28 ~ 1980)

호는 석당(石堂)이고 성건동 200-1번지 나즈막한 4간 기와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30세손이며 천도교 2세 교주로 순도(殉道)한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의 현손 후예이다. 그가 철이 들었을 때, 동학혁명이 집안에 미쳐 일족 혈통이 거의 죽거나 흩어졌고 가산도 기울었다. 그는 가헌(家憲)에

따라 천도교에 입교했고 1919년에 천도교에서 경영하던 보성고보(普成高普)에 입학했다. 서울에서는 최시형 2세 교주의 장남인 최동희(崔東曦)의 집에 기숙했다.

숙항(叔行)되는 최동희는 후일 독립운동 투사로 상해에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실로 크다. 최남주는 그가 잘 아는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의 천도교인이 경영하는 모(某) 초등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하다가 귀향했다. 그리고 건천공립보통학교에서 2년 교직 생활을 했다. 1926년 1월에 경주고적보존회(慶州古蹟保存會)에 들어갔다.

그가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경주고적보존회[경주박물관의 모체]에 들어가게 된 것에는 동기와 연유가 있다. 재학 중의 은사였던 황의돈(黃義敦) 박사가 방학 숙제로 불교 미술(佛敎美術), 문화(文化)의 총본산이며 보고(宝庫)인 남 산불적(南山佛蹟)을 찾게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황의돈 은사는 그 숙제를 통해서 경주가 한국 불교 문화의 성지며, 그 정수(精髓)임을 깨우쳐 주었고 그 유물을 아끼고 발굴하고 빛내는 일이 나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최동희와 황의돈은 그가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 분들이다.

그는 1926년 6월 경주박물관 창설과 동년 10월 10일 스웨덴 구스타프 황태자가 동참한 '서봉총(瑞鳳塚)'의 역사적 발굴에 참가했다. 또한 1931년 10월 31일에 경주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를 발견하여 신라사 연구에 도움을 주었으며, 1933년에는 원원사지(遠源寺址) 석탑을 복원했다.

1938년에는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과 문무대왕 장지인 동해 바닷가를 답사하고 1952년에 무열왕릉 비각 건립을 도왔으며 1957년에는 흥덕왕(興德王)릉의 비단석을 발견하여 왕릉의 주인공을 밝히는 결정적 자료를 제공했다. 또 1962년 천북면 동산리의 토기 요지, 1965년에 내남리 망성리에서 신라 최대의 토기 요지를 발견했다.

이후에도 1971년에는 김유신 장군의 통일기도장으로 『삼국사기』에 기록이 있는 열박산(咽薄山) 유적지를 발견하여 학계에 공헌했었다.

석당은 1970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그리고 1972년에는 서봉총 발굴의 인연으로 스웨덴 왕실로부터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스웨덴 최고 훈장인 바자훈장을 받았다. 2001년 송화산 남쪽에 추송비가 세워졌다.

○ 최병민(崔炳玟 ; 1909 ~ 1987)

자는 중서(重瑞), 호는 죽남(竹南)이며, 본관은 월성이다. 그는 내남면 이조리(伊助里)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최상희(崔相喜)며 어머니는 여주(驪州) 이씨이다.

그는 청백리 정무공 최진립(崔震立)의 후손으로 충절의 가문과 가학을 이어왔기 때문에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었다. 그는 영민하여 신 · 구 학문을 두루 익혔고 1945년 해방 후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한때는 10여 년 간이나 고향을 떠나 대구에서 살기도 했다. 향리에 돌아와서 용산서원(龍山書院)을 다시 세우고 『정무공실기』를 국역하여 간행하는 등 정성을 다했다. 죽남의 사후 최채량(崔埰亮)이 유고를 수집 · 정리하여 간행했다.

○ 최이범(崔利範 ; 1921 ~ 2000. 9)

안강읍 안강(安康) 3리에서 태어났다. 늦은 11세에 안강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통학교를 중퇴했다. 자라면서 소리하기를 좋아했는데 일하면서 소리하고 소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20세 때 영일군(迎日郡) 달전면사무소(達田面事務所)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을 때 면사무소 재건축 자금 마련을 위한 영일군 전역의 순회 공연을 하면서 모금 굿거리를 한 것이 시작되어 호응이 좋았고 기계면(杞溪面) 안국사(安國寺) 산신각(山神閣) 자리에 암자를 지을 때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 지역을 순회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본격 소리꾼이 되었다.

처음은 안강 지역을 순회했고 1992년 '경주군 풍물단'을 창설하여 그 해에 경북 농악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1993년 4월의 경주 보문단지 벚꽃제 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민요에서도 1995년 경상북도 제4회 향토민요 경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의 특기는 북가락과 소리였다. 특히 소리는 모심기소리, 논매기소리, 보리타작소리 그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서 부르는 소리 '어사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1993년 MBC가 실시한 '한국민요대전'을 위한 음반 제작의 경상북도편에 그의 목소리가 녹취되기도 했다. 또 1995년 경주문화원에서 주최한 제4회 향토민요 경창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입상했다.

○ 최병하(崔炳河 ; 1935. 11. 8 ~ 1999. 5. 19)

천북면 덕산리(德山里) 634번지에서 아버지 최상릉(崔相凌)과 어머니 한득술(韓得述)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라면서 매우 총명하여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재사였다. 경주고등학교를 거쳐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電子工學專攻) 교수

로 1978년 동대학의 학생처장, 1994년에 동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표 저서로는『물리전자공학(物理電子工學)』,『전기전자실험공학(電氣電子實驗工學)』 등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 최복규(崔卜奎 ; 1929. 9. 27 ~ 1984. 5. 16)

진현동 570번지에서 아버지 최원조(崔元祚)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7년 9월에 선산중학교(善山中學校)에서 경주중학교로 전입학했으며 동교 사범과(師範科)를 졸업했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검사(檢事)직으로 나아갔다.

1977년 4월 1일~1978년 2월 10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을 지냈다. 그러나 그는 여행 도중에 타계했다.

○ 최상제(崔相齊 ; 1923. 12. 15 ~ ?)

광복군 제1지대에 입대하여 활동하였으며 중국군 제5전구 소속 전시간부훈련단(戰時幹部訓練團)에 특설한 정공간부훈련반(政工幹部訓練班)에서 정훈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수료한 후 제3공작반 제3분대장으로 활약하다가 8 · 15 해방을 맞이하여 귀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자료 :『자료한국독립운동』(추헌수) 3권 229, 234쪽,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3권 819쪽,『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6권 376, 611쪽

○ 최성렬(崔成烈 ; 1893. 7. 20 ~ 1938. 7. 15)

최명수라고도 했다. 1919년 3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경주읍 장날을 이용하여 박봉록(朴鳳祿) · 서봉룡(徐鳳龍) · 박무훈(朴茂勳) 등과 주도하여 미리 박문홍(朴文泓)의 방에서 만든 태극기를 장터에 모인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출동한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래서 그 해 4월 15일 대구지방 법원 경주지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서류 : 수형인명부,『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40쪽,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3쪽, 출소확인서(부산교도소장),

○ 최수창(崔壽昌 ; 1893. 6. 13 ~ 1953. 1. 1)

1919년 3월 15일 경주읍 장날을 이용하여 박봉록(朴鳳綠), 서봉룡(徐鳳龍), 박무훈(朴茂勳), 최성렬(崔成烈) 등과 함께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장꾼들이 일제히 호응하여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같은해 4월 15일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참고 자료 : 범죄인명부, 『3 · 1운동실록』(이용락) 733쪽,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43쪽

○ 최순(崔淳 ; 1892. 10. 15 ~ 1948. 3. 22)

교촌마을의 세저(世邸) 큰집에서 청백리 정무공(貞武公) 진립(震立)의 11대 손(孫)으로 진사 최현식(崔鉉軾)의 4남 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자(字)를 내응(乃應)이라 했다. 성장하면서 총명했고 용자가 단정했으며 거동이 당당했다.

그는 8년 연상인 맏형 최준을 그림자처럼 따르면서 백산무역주식회사(白山貿易株式會社) 상무취채역(商務取綵役)으로 독립운동 자금 송금뿐 아니라 대외의 모든 비밀 문서나 독립 자금 염출 등 그 역할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따라서 일경에게는 항상 요주의 인물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자 많은 경주의 인사들이 제헌의원 출마를 권유하였다. 그때 일부 일제 때 고등계형사 출신 인사들이 자칭 애국자로 둔갑하여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 등에 참여하여 일제 때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순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큰일이 난다는 압박감 때문에 비밀회의를 하여 월남한 젊은 서북청년단원을 교사하여 그를 권총으로 사살케 하고 좌익분자가 지주가문 출신의 극우분자를 처단한다는 유인물을 살포한 사실이 있었다.

얼마 후 그 비밀 회의에 참가한 월남 청년이 사실을 일러 줘서 당시의 청년 검사 오제도(吳制道)가 경주에 와서 서영출과 하수인[성명 미상, 서북청년단원]을 구속하여 조사했는데, 그때는 대한민국 건국 전 미군정 때여서 친일경찰들이 요소마다 있어 용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고 말았다.

○ 최순봉(崔順鳳 ; 1900. 8. 7 ~ 1969. 5. 20)

북성건동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 촉탁으로 근무했

다. 1945년 해방 직후 초대 경주박물관장으로 취임하여 1960년 퇴임했다. 노년은 '동도한약방(東都韓藥房)'을 경영했다.

○ 최시형(崔時亨 ; 1827. 3. 21 ~ 1898. 6. 2)

천도교 제2세 교조이며 비폭력 민중 운동의 선구자이며 경주 동촌마을 황오리에서 최종수(崔宗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의 이름은 경상(慶翔)이며 호는 해월(海月)이다. 그는 5세에 어머니, 12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먼 친척집에 의탁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수려한 풍모와 고매한 인격으로 중망(衆望)을 한 몸에 받았다. 최시형은 35세 때 최제우의 직접 지도 아래 동학에 입도하게 되었다. 최시형은 1863년 8월 14일에 동학의 제2세 교주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 최시형은 1863년 12월에 정운귀에 의하여 체포된 최제우를 대구감옥으로 면회한 직후 유언에 따라 태백산으로 도피했고, 1864년 3월 10일 최제우가 처형된 후에 연루자가 수십 명이나 사형, 혹은 남북 오지(奧地)로 유배됨에 최시형은 72세에 교수형으로 순도할 때까지 35년 간을 줄곧 포교와 망명으로 점철된 생을 살았다.

이 동안 수십만 동학교도가 희생됨으로써 4년 5개월만인 1898년 4월 5일 최시형이 원주(原州) 송동(松洞)에서 송경인(宋敬仁)에 의해 체포되어 그 해 6월 1일 좌도난정률(左道亂正律)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6월 2일 교수형을 당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 죽은 10년 후엔 주문 읽는 소리 장안에 진동하리라"라는 유언을 남겼다.

과연 그 후 6년만인 1904년 전국 각지에서 16만 동학군이 일제히 단발 · 흑의로 진보회(進步會)를 개최했고 21년만의 기미년(己未年)에는 독립운동의 중추역할을 했다.

○ 최영내(崔永乃 ; 1929. 4. 15 ~ 1999. 10. 6)

구정동(九政洞) 사람으로 아버지 최현순(崔鉉淳)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호를 송헌(松軒)이라 했다. 그는 경주중학교를 거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했다.

1955년부터 경주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960년 5월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5 · 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문화중 · 고등학교 교감으로 부임 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학교 발전에 절대적인 공로를 세웠으며 경

주지구 현장 장학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제3교회 창설에 공헌하였다. 문화중 · 고등학교를 서부리에서 충효동으로 이전하는데 공헌한 바 컸다. 경상북도 중등교육회 회장 등을 통해 교육계에 미친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상을 수상했다.

로타리 클럽 83~84 370지구 총재직을 수행했으며 독실한 기독교 장로로서 1999년 10월 6일 타계했다.

○ 최완(崔浣 ; 1889. 2. 26 ~ 1927. 1. 3)

교촌마을 세저[世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큰 집]에서 청백리로 유명한 정무공(貞武公) 최진립(崔震立)의 11대 손(孫)이며 아버지인 진사(進士) 현식(鉉軾)의 4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자라면서 천품이 총명하고 용자가 단아하여 행의(行義)가 분명하였으며 장차 큰일을 해 낼 인물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그는 '구대 진사 십이대 만석' 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영남의 부호이며 독립운동의 거인인 최준의 아우이다.

1909년 안희제(安熙濟), 이원식(李元植), 남형우(南亨祐), 이시열(李時悅), 윤병호(尹炳浩), 서상일(徐相日), 박중화(朴重華) 등 8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신민회(新民會) 계열의 대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밀청년단체인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 을 조직하여 지하에서 강력한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경에 쫓기어 고통받던 신성모(申性模), 김효석(金孝錫) 등을 교촌의 그의 집에 숨겨 두었으나 일경의 수색이 좁혀지자 백형(伯兄)이 장만해 준 자금과 그의 상속분 중 백석(百石)지기 전답(田畓)을 팔아 거액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망명시켜 독립운동을 계속토록 했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침략, 국권을 빼앗자 그는 중국으로 망명했다. 1919년 3 · 1 독립만세운동 후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여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제2회 의정원(議政院) 회의에서 차장(次長) 제도를 없애고 위원제를 채택할 때 재무부위원(財務部委員)으로 선출되었으며 임시정부의 조사원(調査員)과 의정원의원(議政院議員)을 역임했으며 임시정부 활동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 중에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과 옥고 등으로 극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1928년 1월 3일 타계했다.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참고 자료 : 『조선민족운동연감』 7, 8, 9, 61, 112면,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1, 210, 343쪽,

○ 최원오(崔元伍 ; 1917. 3. 19 ~ 1999. 11. 12)

노동동(路東洞) 249번지에서 아버지 최익진(崔翼振)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자를 인상(鱗翔)이라 했고 호를 윤산(倫山)이라 했다.

그는 1932년 3월에 건천보통학교(乾川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37년 3월에 일본 오사카 기계기술학교[大阪 機械技術學校]를 수료하고 중형이 경영하던 부산의 사진관에서 촬영 견습생으로 다년 간 종사했다. 그는 취미가 사진촬영이었으며 점차로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적 정신 세계를 지향하는 사진의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1963년 한국사진가협회 경북지부가 주는 공로상(功勞賞)을 수상하고 1966년 한국 사진가협회 경주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사진작가로서 일선에 나타났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경북지부고문, 운영자문위원,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초대작가이며 개인으로 별천지사진연구소(別天地寫眞硏究所)를 운영하며 1979년 2월 25일 사진문화상(寫眞文化賞) 공로상을 수상했다.

매일사진동우회(每日寫眞同友會) 회원이며 1982년 11월 13일 예총경주지부 사진문화상 공로상을 수상했고, 한국현대사진대표작가선집(韓國現代寫眞代表作家選集)에 4점이 수록됐으며, 제5회 대한민국 국제싸롱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의욕적이고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을 했다.

○ 최윤(崔潤 ; 1886. 3. 26 ~ 1969. 10. 23)

교촌마을 세저(世邸)에서 태어났다. 휘는 윤(潤), 자는 내홍(乃鴻)이라 했고 호는 계파(桂坡)이다. 신라 명신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의 후예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청백리(淸白吏) 정무공(貞武公) 진립(震立)의 11대 손이다. '구대진사(九代進士) 십이대만석(萬石)' 의 집안에서 아버지 진사(進士) 현식(鉉軾)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영남 독립운동의 거봉 최준의 아우이다. 또 독립운동가이며 상해임시정부 재무위원(財務委員)인 최완의 중형이다.

수헌(修軒) 최현필(崔鉉弼)에게 경서, 사기, 제자백가 등을 수학하였고, 특히 서예에 능통하여 명필의 경지에 들었다고 전한다. 이미 타계한 국악인이 전하는 바로는 "계파장의 거문고는 신기(神技)요, 춤은 선학(仙鶴)이며, 바둑은 최고수며, 글씨는 당대의 명필이라 볼 수 있다"고 칭송했다고 한다. 인간문화재 국악명창이던 박동진(朴東鎭)도 수년 간 사사(師事) 받은 바 있다.

그는 태산같은 독립운동가 형과 아우 그 사이에서 구대진사, 십이대 만석의 전통을 유지할 일을 고민했다. 형이 이미 거절한 총독부 중추원참의를 전통의 사수

와 허물어 질지도 모를 가문의 유지를 위하여 받아들이고 친일파로 자처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한(恨)을 다스릴 길이 없어 거문고와 서예, 바둑으로 소일하였다.

그는 해방 후 반민특위(反民特委)에 체포되어 친일정책을 철저히 조사받았으나 학병 권유 등 사소한 친일 행위도 없었고 경주지역 사회를 위하여 현 경주역사(慶州驛舍)와 금융조합 등 공익 시설을 건립한 공적이 인정되어 중추원 참의 출신으로는 가장 먼저 석방되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그 해 10월 22일에 '경주문화협회'를 설립하여 회장에 취임했으며, 1946년 '경주예술대학'을 개교하여 학장에 취임했고 경주국악연구소 개설, 경주고전무용연구소 개원 등 경주의 예술문화 창달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세인들은 그를 '계파장'이라 하였으니, 호 '계파'에 장(丈)자를 더하여 불렀다.

말년에 그는 교육사업에 전념했는데 당시 어려웠던 대구대학(현 영남대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 경주 예술문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

○ 최제우(崔濟愚 ; 1824 ~ 1864. 3. 10)



현곡면 가정리(柯亭里) 용담(龍潭)에서 태어났으며, 아명을 제선(濟宣)이라 했고, 호는 수운(水雲)이다. 그는 고운 최치원의 먼 후손이며 원근에서 문장과 도덕으로 근암(近菴)선생이라 불리어지던 최옥(崔鋈)의 늦게 얻은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새로운 동학(東學)이라는 종교를 세워 서학(西學)에 대항한 민족적 선각자이며 종교가이다.

최제우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侍天主)는 한울님인 것이다. 한울님[神]은 우리 인간을 떠나서 존재하여 밖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떠난 한울님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울님의 계시(啓示)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는 1860년 4월에 깨달음을 얻어서 1861년 『용담유사(龍潭遺詞)』 8책(冊)과 『동경대전(東經大全)』 1책(冊)의 동학사상에 관한 서책을 세상에 펴냈으며, 교회를 경주시 노동동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최제우를 그냥 두지 않았다. 1863년에 선전관 정운구(鄭雲龜)에게 체포되었으며 '혹세무민(惑世誣民)', '사도난정(邪道亂正)'이라는 죄명으로 대구 달성공원에서 참수되었다.

후일 1893년(고종 30년)에 박광호(朴光浩) 등 신도들의 신원(伸寃) 운동 등이

있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며, 1907년 수많은 동학교도들의 투쟁으로 최제우 1대 천도교 교주는 원죄(冤罪)의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제8편 종교 및 민속 제1장 종교 제5절 동학참고

○ 최주찬(崔珠燦 ; 1921. 9. 30 ~ ?)

인왕동(仁旺洞) 315번지에서 최병기(崔炳琦)의 아들로 태어났다. 1936년 3월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4월에 대구사범학교에 입학, 심상과(尋常科)를 1941년에 졸업하고 경주의 황남공립심상소학교(皇南公立尋常小學校)에 첫 부임했다. 여러 초등학교를 모범 교사로 거치고, 1962년에 경주시 교육장 발령을 받았다. 1968년 11월 31일에 교육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항상 사무를 처리함에 이성적이고 평등하여 교무 일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교육인들의 칭송을 받았다.

○ 최준(崔浚 ; 1884. 7. 28 ~ 1970. 9. 15)



휘가 준(浚), 자는 내윤(乃允)이며, 호는 문파(汶坡)이다. 1884년 7월 28일 교촌마을에서 정무공(貞武公) 최진립(崔震立)의 11대 손이며, 진사(進士) 현식(鉉軾)의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성장하면서 천품이 총명하고 기품이 대범하여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으로 주위에서 기대가 컸다. 일찍부터 경서(經書), 사기(史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글을 다 읽었고 서예에도 능하여 달필의 경지를 이루었다.

1910년 망국의 한을 품고 상심하는 아버지를 도와 20세의 나이로 집안 일 일체를 도맡아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의 우애를 보살펴 집안에 화기를 가득하게 했다. 1907년에 그는 장능참봉(莊陵參奉-단종릉)에 제수되었으나, 입신공명은 안중에 없고, 문중 일과 봉재사, 접빈객(接賓客)에 정성을 다하여 사소한 과객 접대에도 소홀함이 없는 겸손함을 지켰다.

또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경주지방의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본부(朝鮮國權回復團 中央總本部)' 조직과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깊이 관여하면서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운동단체에 엄청난 힘을 실어 주었다. 특히 대한광복회 총사령인 박상진(朴尙鎭)은 종자형(從姉兄)으로서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대한광복회 재무부장직도 맡아 강력한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한광복회의 정체가 발각 되었을 때, 이에 연류 체포되어 공주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3 · 1 독립 만세 운동 이후 상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또한 막대한 독립 운동 자금을 송달하였다.

일제 강점기 하의 상황으로서는 삼엄한 일본경찰과 헌병대의 감시를 피해야 하므로 일일이 흔적을 남길 수 없었기에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백산무역주식회사[1918~1928까지 존속]의 설립 당초부터 파산될 때까지 대표취채역 사장으로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 안희제는 경남 의령사람으로 언론, 교육, 사업가로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조국에서 견디지 못하고 조국을 등진 애국지사 가족과 동포들을 위하여 농장개간 사업을 도왔으며, 독립 운동을 하다가 일경으로부터 무수한 고문을 당하여 옥중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석방되었다가 옥중에서 얻은 병으로 1943년 타계하였다. 대한민국 구국훈장 복장수여]와 함께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송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시 일본화폐로 일백삼십여만엔(円)의 부채를 지고 도산하였음은 학계가 다 아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1921년 9월에는 노백린(盧伯麟) 장군을 비롯하여 만주와 러시아 지방의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태평양회의(太平洋會議)에 보내기 위한 독립청원서를 작성하고 경주 대표로 서명하고 김응섭(金應燮)이 영문 번역하고 이 문서를 노끈으로 꼬아 남형우(南亨祐)로 하여금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했으며 백산무역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계속 독립운동자금을 조달 · 송금하였다.

또한 1930년대에 들어서는 당시 문화정책을 표방하던 시절[고등정책이라고도 한다]의 사이토(齋藤) 조선총독의 왼팔이라 불리던 아리가 미쓰도요(有賀光豊) 식산은행(현 산업은행) 두취(頭取)가 "경주 고택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신라박물관을 만들 것과, 중추원 참의가 되어주면 총독부 학무국장(문교부장관급) 자리까지 책임지고 임명토록 하겠다"는 집요한 회유를 뿌리친 절개가 굳은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다.

해방 후 1946년 2월 상해임시정부 김구(金九) 주석이 경교장(京橋莊)에서 만나 만사를 무릅쓰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거액을 송금하느라 백산무역주식회사가 파산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을 주고 받을 때 최준은 62세, 김구 주석은 70세였다.

8 · 15 해방 후 그는 일제강점기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학원의 이사로 민족교육에 헌신하였고 동아일보 창간발기인으로 민족 언론에도 기여했다. 1945년 10월 20일 대구 · 경북유지 30여 명과 또 동월 31일에 경북 도청에서 「대학설립준비위원회(大學設立準備委員會)」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누대로 소장해 온 보물급 도서 7000여 권을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증하여 현재

『문파문고(汶坡文庫)』로 보존되고 있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서울에서 피난 온 많은 학자 · 교수들을 활용할 목적으로 경주출신 김범부(金凡父, 본명 김정설)를 학장으로 기용하여 문파교육재단(汶坡敎育財團)을 설립하여 계림학숙[2년제 대학]을 운영하였으나 9 · 28 수복 후 많은 교수들이 귀경함으로 대구대학 병설 여자초급대학으로 합병, 오늘날의 영남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조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해방 후에는 300여년 이어온 가대(家垈)와 전재산을 민족과 지역 사회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희사하고 1970년 9월 15일 8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3년 대통령 표창, 1990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최진규(崔震奎 ; 1928. 12. 1 ~ 1992. 8. 2)

노동동(路東洞)에서 아버지 최기윤(崔基潤)과 어머니 이윤옥(李潤玉)과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라나면서 총명하고 준수하여 남들이 칭송하였으나 15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좌절했다. 해방 후 한국전쟁으로 서울대학 법과대학을 중퇴하고 가업에 종사했다. 1953년 전국 문총 경주지부 음악부장을 맡았다. 한국전쟁 후 거시적으로 '서라벌 예술제[徐羅伐藝術祭, 신라문화제의 전신]' 를 개최하게 되자 적극 참여하여 '서라벌 예술제' 의 음악분과를 맡아 안종배(安鍾湃), 권태호(權泰鎬), 윤이상(尹伊桑) 등과 함께 활동했으며 탁구(卓球)의 불모지였던 경주 체육계에 탁구의 길을 열었다. 1957년경에는 계전(桂田) 최현주(崔賢柱)에게 사사하여 서도(書道)에 몰두했다. 이즈음 그는 호를 옥매(玉梅)라 했다.

후일에는 서울특별시 목동에서 운암서예원(雲巖書藝院)을 개설하여 운영했으며 1989년 가을에 개인전을 열었다.

○ 최찬해(崔贊海 ; 1884 ~ 1960)

최찬해의 자는 치순(峙舜)이고, 호는 만송(晩松)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그는 천북면 손곡리(蓀谷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최현규(崔鉉奎)이고 어머니는 월성김씨(月城金氏)이다. 그는 총명한 지혜와 단아한 모습의 소유자였다. 성품이 심중했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다.

1924년 서악서원 부원장으로 『경학대장(經學隊仗)』을 간인(刊印) 배포했다. 1927년 향교 헌관(獻官)으로 『주례(周禮)』를 강론했으며 1928년에 『자희옹집(自喜翁集)』을 간인했고 1930년에 구사재(九思齋)를 짓고, 1944년에 송와공(松窩公)

묘소에 비를 세웠다. 1947년에 만송정(晩松亭)을 손곡(蓀谷) 윗마을로 이전하여 사제를 연출하여 계림중학교를 설립했다.

1948년에 전 재산을 학교법인 만송교육재단(晩松敎育財團)에 희사하여 선덕여자중 · 고등학교(善德女子中 · 高等學校)를 설립했다. 그후 이전 글들을 정리하여 전문을 번역하고 『자희옹집』과 합본하여 출간했다. 서문은 이가원(李家源)과 김형진(金亨鎭)이 쓰고, 발문은 권오찬(權五燦)이 지었다.

○ 최태식(崔泰植 ; 1931. 4. 8 ~ 1987. 11. 19)

노서동(路西洞)에서 아버지 최재우(崔在佑)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1944년 3월에 경주계림소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4월에 인천 조병창[병무기 공장]에 입소했다. 1945년 해방 후 귀가, 1950년에 대구 능인(能仁) 중학을 마치고 1952년 육군보병학교에 입학, 1953년에 소위로 임관했다. 같은해 4월에 육군 군의(軍醫)학교에 입교, 동년 10월에 군의학교 졸업과 동시에 육군이동외과병원(陸軍移動外科病院) 보급과장, 부관(副官) 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1964년 예비역으로 전입되고 1964년 경주농지개량조합에 근무를 했다.

지역의 직장야구팀 창단 · 육성에 노력하면서 18육군병원 야구팀을 창설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체육협회와 연을 맺어 양으로는 사무국장, 음으로는 체육회의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평생을 바치다시피 살아왔다. 1977년 체육회 사무국장, 경주야구협회 전무이사를 시작으로 경주 · 나라[奈良]시 간의 국제교류 친선대회의 실무자로 1971년도 제1회 시합을 경주에서 2도시 교류경기가 열리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최풍(崔豊, 1933. 5. 10 ~ 1978. 7. 20)

산내면 외칠1리 원두마을에서 출생하여 의곡초등학교와 대구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작품으로 김삿갓북한방랑기와 장택상자서전 등이 있다.

○ 최해수(崔海守 ; 1925. 1. 25 ~)

1941년 4월 서울 배재중학교(培材中學校)에 재학하고 있을 때 권오직(權五稷)으로부터 해외에서 싸우고 있는 독립운동 상황을 전해 듣고 이해직(李海稙) · 신철호(申喆浩) 등과 함께 민족주의 민족전선(民族主義 民族戰線)이라는 비밀결사

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의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활동하다가 1941년 12월 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었으나 당시의 신흥우(申興雨) 교장의 주선으로 4개월 만에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는 1943년 3월 배재중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 온 뒤, 단파방송을 듣고 가까이 온 독립에 대비하여 청년들을 규합하기로 결심하고 이은우(李殷雨), 박형관(朴炯觀) 등과 뜻을 모아 청년동지회(靑年同志會)를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중 1945년에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그는 1945년 3월 6일 부산지방 법원에서 소위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루다가 해방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자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2권 842쪽,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 국회도서관) 37쪽,

○ 최현필(崔鉉弼 ; 1860 ~ 1937)

최현필의 자는 희길(羲吉)이며 호는 수헌(脩軒)이고 본관은 월성이다. 그는 현곡면 종동(鐘洞)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호가 종남(鐘南) 최하수(崔厦壽)이며 어머니는 월성 이씨이다.

그는 뒷날 향교가 있는 교리에 옮겨 살았는데 문집서문의 "교리사(校里肆)"가 그 곳이다. 그러다가 그는 구황리(九黃里)로 이사했다. 그런데 1924년에 지은 사상재(泗上齋) 모성계안(慕聖稧案)을 보면 당시의 그 주소는 내동면 보문리(普門里)로 적었다. 그리고 만년에는 다시 교리에 와서 살았다.

그는 모습이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났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웠는데 시키는 대로 한자도 틀림없이 다 암송했다. 그는 16세 때에 경주부에서 실시하는 백일장에 참석하여 부윤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재명을 떨쳤다. 1891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승무원 정사에 올랐다. 그러나 갑오년(1894) 후 세상이 날로 어지러워지고 1905년에 외교권을 일본에 뺏기자 울분을 못참고 낙향했다.

그는 평소에 언행을 조심했으며 의(義)가 아니면 따르지 않았다. 그는 덕이 높아 당시 사람들의 기문, 상량문, 묘갈명 등 많았고 이를 얻은 사람들은 스스로 영예로 여기며 간직했다. 그의 둘째 아들 최영우가 흩어져 있는 시 · 서 · 제문 등을 모아 8권으로 묶었다.

1984년 6월에 수헌문집발행발기회(脩軒文集發行發起會)를 향교, 명륜당에서 조직하고 회장에 류석우(柳奭佑)를 선출했다. 시 455, 서 106, 서(序) 59, 기(記) 56, 발문과 상량문 등 46, 제문과 축문 등 91, 행장과 유사 등 42, 묘갈명 105편이 수록되어 있다.

○ 최홍락(崔鴻洛 ; 1898 ~ 1974)

최홍락은 자를 자익(子翼)이라 하고 호를 송운(松雲), 본관은 월성이다. 천군리(千軍里)에서 최진운(崔鎭運)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김해김씨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했으며 서당에서 글을 배우되, 학우들과 어울려 장난하지 않았다. 12세 때에 큰 아버지인 운초(雲樵) 최진주(崔鎭柱)에게 글을 배웠다. 1921년에 추봉정사(秋峯精舍)를 짓고 『추봉실기』를 간행했으며 1923년에는 제오공(霽梧公) 최재공(崔再珙)의 시문 유고를 모아서 『제오유사(霽梧遺事)』를 간행하여 후손들에게 주었다.

그는 또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주장하며 뜻있는 사람들과 동란계(同蘭稧)를 모우고 또 1910년 나라 잃은 근본이 가난이라고 했다. 족보를 만들고 남은 약간의 재물을 17년 간 증식시켜 1927년에 제방을 쌓았다. 이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적절한 관수로 농사를 풍요롭게 지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의 혜택을 기렸다. 그는 『계자십물규(戒子十勿規)』를 지어 열까지 지켜야 할 일을 훈계했다. 서문은 유석우(柳奭佑) 후기는 장손인 이덕환(李悳煥)이 지었다. 많은 저서를 남겼다.

○ 최현주(崔賢柱 ; 1902. 11. 16 ~ 1972. 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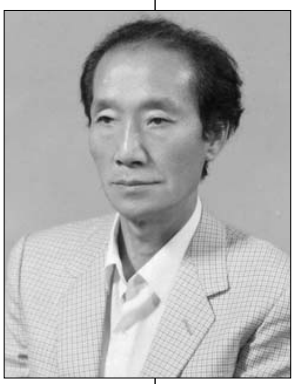
안강읍 안강리(安康里)에서 1902년 11월 16일에 아버지 최문두(崔文斗)와 어머니 이춘악(李春岳)과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름을 현주(賢柱)라 했고 호를 계전(桂田)이라 했다. 태어나면서 총명하여 1922년 대구고보(大邱高普)를 졸업한 후 1926년에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東京早稻田大學] 문학부에서 수학하고 다년간 한일은행에 재직하면서 지점장, 검사역을 지내고 1957년에 퇴직했다.

그는 1927년부터 대구의 서도가 석재(石齋) 서병오(徐丙五)에게 사사하였고 꾸준한 연마 끝에 1936년부터 1942년까지 7회 연속으로 일본 국서도전(日本國書道展)에 출품하여 가작(佳作), 우수(優秀), 동상(銅賞) 등 각각 입상했다.

해방 후 1946년에 대동한묵회(大東翰墨會) 주최 제1회 전국서도전에 출품하여 우수상으로 입상하여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래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연 4회 특선하여 국전 추천작가를 거쳐 1959년에는 무검사 국전 초대작가, 1965년에는 도쿄 대한민국공보관 9인 초대전(招待展) 출품[이는 영구 보존]했으며, 1967년에는 제16회 대한민국 미술전 심사위원, 1968년 제1회 동아 국제 미술전 초대 출품 등 이 외에도 많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1970년 가을 개인전을 경주에서

열었고 1972년 대구 동촌 상무공원 내의 곽재우(郭再祐) 장군 동상의 비문(碑文)을 썼으며 1972년 4월 24일 고향의 안강리 자택에서 타계했다.

○ 최현태(崔賢泰 ; 1925. 3. 20 ~ 1994. 12. 11)



황오동에서 출생했다. 호를 청능(靑陵)이라 했다. 그는 대구사범학교 심상과(尋常科)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1948년 9월에 경주중학에 교직을 옮긴 뒤 42년간 미술교사로 봉직했다.

그는 이 지역에 많은 제자를 진출시켰으며 본인은 참된 교육자의 길을 갔으며 화단에서는 철저한 야인의 길을 걸었다. 1949년 제1회 대한민국 대전에 첫 입선하고는 일체 출품하지 않았다. 1956년 경주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어 여덟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지역 화가들로 구성된 그룹전이나 신라미술대전의 운영 등에 참여했으며 겸허한 자세로 예술계의 생활에 일관했다.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장을 역임했고 제1회 경주문화상(예술부문)을 수상했으며 다년 간의 교육계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 하하해(河河海 ; 1926 ~ 2000)

황남동에서 출생했다. 경주보통학교 재학 때부터 곧장 모래 위에서 씨름을 좋아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연중 명절 때의 씨름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해방 1주년 기념 씨름대회가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렸고 도내 소방대(消防隊) 대항 씨름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씨름하는 곳에 '하하해' 라는 이름이 같이 있게 된다.

향토씨름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속씨름에서 경주체육회 씨름협회가 탄생하고 정완수(鄭完洙) 회장이 취임하면서 그는 씨름부 전무이사로 취임하고 1957년부터 제7대 배석암(裴錫岩)회장의 임기인 1978년까지 계속 경주체육회 씨름부 전무이사로 22년 간을 헌신했다. 그 이후는 대한 체육회 씨름협회의 이사(理事), 감사(監査), 부회장으로 타계하는 날까지 그는 씨름과 떨어지지 않는 생활을 했다. 그는 2000년 여름 신병으로 타계했다.

○ 허유(許楡 ; 1910. 12. 8 ~ ?)

독실한 기독교인 허담(許澹)의 맏아들로 1910년 12월 8일에 경주시 성동동에서 태어났다. 일본 도쿄의 대성중학교(大成中學校)를 졸업하고 총독부 촉탁으로 봉직했다. 1945년 해방 후 경북도를 거쳐서 1947년 9월 20일 경주 군수로 부임하

여 해방 후의 어려운 경주군 행정을 수행하고 1948년 8월 11일에 퇴임했다.

그는 1945년 10월 15일에 학교법인 문화학원(學校法人 文化學院)을 설립하고 문화여중, 문화중학교를 개교하였다. 교장으로 허면(許綿)이 취임했다.

○ 허진(許鎭 ; 1929. 7. 7 ~ 2004. 9. 7)

건천읍 건천리 63번지에서 아버지 허원(許元)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인강(仁崗)이라 했다. 그는 기차 통학 10년, 기차 통근 40년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다. 3대 외동으로 태어나서 조석으로 조부모 수발 · 봉양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부인 또한 효부가 안될 수 없었다.

1947년 경주중학을 기차 통학으로 졸업하고 1953년 기차 통학으로 대구사범대학 역사과를 마치고 포항중학을 거쳐 경주중 · 고등학교에서 정년 때까지 40년을 건천에서 통근하면서 부모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는 아버지 병환시에 정성으로 약수발했으며 돌아가시자 학교 수업 관계로 조석으로 3년 시묘를 했으며, 어버이 묘역에 단정하게 가꾸어진 잔디 이 외에는 잡초라고는 한 포기도 없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며 원근에 칭찬이 자자했다.

1975년 10월 경상북도 사단법인 보화원(社團法人 保化院)에서 「효행상」을 수상했으며 중고등학교 교육계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동백장을 수상했다.

○ 홍영기(洪永基 ; 1925. 12. 14 ~ 1985. 2. 23)

구미(龜尾)가 본적이나 경주사람이다. 그는 홍재천(洪在天)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성격이 유순하고 명랑하며 예절바르고 남의 이야기에 귀 잘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주중학교 5년을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영문과를 마치고 모교인 경주고등학교에서 1973년까지 교사로 근무했다. 그 동안 그는 문학인으로 문학과 연관된 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했다. 교내 활동은 물론이어니와 당시 이 지방의 거의 모든 행사의 주체는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이었기에 그 주체의 리더가 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마 유치환선생이 경주고교 교장으로 부임하고 경주에 "청백동인회"가 발족하고 문학 서클이 생기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경주의 거시적 문화 행사인 신라문화제의 전신인 '서라벌문화제'가 회를 거듭하게 됨도 몇몇 뜻맞는 사람과 함께 한 그의 노력과 정열과 자존심이었다. 1971년 4월 17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

합회 경주지부(韓國藝術文化團體 總聯合會 慶州支部)' 의 지부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3회에 걸쳐 경주문인협회 지부장직을 맡아 활동했으며 대내외적으로 경주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는 1972년 10월 27일의 유신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는 다방면으로 이 고장의 문화 창달에 노력했다.

○ 홍창식(洪昌植 ; ? ~ ?)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홍택순(洪宅淳)의 아들로 태어나 25세에 만주로 건너가서 대한독립단에 가입하고 이범석(李範奭) 장군의 휘하에서 활동하였으며 일군과 전투하다가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 관가정(觀街丁)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참고 자료 : 『동경속지』하권 24쪽

○ 황병기(黃炳基 ; 1923. 6. 28 ~ 1998. 5. 20)

1943년 8월 경상북도 안동농림학교(安東農林學校)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독립회복연구단(大韓獨立恢復研究團)을 조직하고 단원이 되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패색이 짙어오는 전쟁 막바지에 일제는 방학 중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근로 동원에 참가시키는 등 전쟁 수행에 광분하였다. 이때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은 대구 동촌의 비행장 확장 공사에 동원되었는데 황병기를 비롯한 안동농림학교의 제 8 · 9 · 10회생들이 일제의 부당한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항일 결사 대한독립회복연구단을 조직하였다. 이 결사 조직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 동원되었던 일반인, 교사들까지 참가하여 항일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갔다. 즉 독립 투쟁의 일환으로 일제의 후방을 교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안동시내의 일본인 기관 및 요인의 습격 등을 그 투쟁 방침으로 삼았다.

황병기 등은 기회를 엿보면서 거사를 준비하던 중 1945년 3월 10일의 일본 육군기념일에 총궐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이 누설 · 발각되어 황병기를 비롯한 단원 전원이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과 더불어 1945년 8월 16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자료 : 형사사건부, 안동농림학생 항일약사(安東農林學生 항일략사), 『안동농림50년사』(1983) 183, 184쪽, 『안동판독립사』(김을동 1985) 333, 369쪽,

○ 황술조(黃述祚 ; 1904 ~ 1939)

황오동 260번지에서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호를 토수(土水)라 했다.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양정고보를 거쳐 경주 출신 미술학 유학생으로 1930년에 도쿄미술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개성상업학교(開城商業)와 호수돈여학교에 미술교사로 역임했다. 1936년에 경주로 돌아와서 "경주고적보존회"의 상임고문직을 맡았으며 고미술에 심취하기도 했다. 이병규(李昞圭), 고진섭(高鎭燮) 등의 주선으로 서울 화신화랑(和信畵廊)에서 유화작품전을 열었다. 그는 생전에 동경미술전에 「연돌소재부」, 「휴식(休息)」 등 출품도 했다. 그리고 주로 동경유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동미전(東美展)', '목일회(牧日會)' 등에서 활동했다. 대표작으로는 「수련」, 「실내」 등이 있으며 작가로서의 작품 제작 기간이 짧은 탓으로 유작을 쉽게 대할 수가 없다. 그는 35세의 짧은 삶을 살고 타계했다.

참고 자료 : 경주예총

○ 황재현(黃在炫 ; 1935. 8. 11 ~ 1997. 12. 30)

1935년에 태어났으며, 총명하고 어릴 때부터 학업에 정진했다. 한문학에 정진했으며,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을 지냈다. 또 임진난 창의자 추모사업회 회장을 역임했다.

『동경통지(東京通誌)』를 번역하였고, 1991년 12월 13일에 제3회 경주시 문화상 문화부문상을 수상했다. 1996년 2월 29일에는 경주시 임란의사추모사업회(壬亂義士追慕事業會)를 발족하여 그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1998년 9월에 문천회맹기념비문(蚊川會盟記念碑文)을 썼다. 그는 1997년 12월 30일 타계했다.

편찬위원

위원장	백상승(白相承)	경주시장
부위원장	김경술(金慶述)	경주시 부시장
	(전임) 황진홍(黃鎭洪), 김성경(金聲經), 오정석(吳廷石)	
위원	손오익(孫五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전임) 김백기(金百起)	
	최병준(崔炳俊)	경주시의회 의원
	(전임) 김상왕(金相旺), 김일헌(金日憲)	
	이만우(李萬雨)	경주시의회 의원
	(전임) 이장수(李長壽)	
	권오찬(權五燦)	전 경주문화원장
	문경현(文暻鉉)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갑주(金甲周)	전 동국대학교 부총장
	박영복(朴永福)	경북문화재연구원장
	김태중(金泰中)	전 경주문화원장
	권윤식(權潤植)	전 경주신문 주필
	서영수(徐英洙)	전 경북문인협회 회장
	조철제(趙喆濟)	경주고등학교 교사
	최재영(崔宰榮)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최영기(崔榮基)	서라벌대학 교수
간사	김기열(金基烈)	경주시 기획공보과장
	(전임) 이강우(李江雨), 서용봉(徐庸奉)	
서기	박필관(朴苾灌)	경주시 기획담당

집필위원

위원장	최용환(崔龍煥)	경주문화원장
위원	고부자(高富子)	단국대학교 교수
	권윤식(權潤植)	전 경주신문 주필

김기문(金基汶) 문인협회 경주지부장
김기조(金基祚) 전 동서대학교 겸임교수
김대환(金大煥) 영남대학교 박물관
김복순(金福順) 동국대학교 교수
김상현(金相鉉)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성혜(金聖惠) 동국대학교 강사
김세돈(金世暾) 서라벌대학 교수
김신재(金信在)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성(金龍星) 신라유적조사단 조사연구실장
김윤근(金潤根) 경주공업고등학교 교사
김주원(金周元) 서라벌대학 교수
김태중(金泰中) 전 경주문화원장
김호상(金鎬詳) 신라유적조사단
김홍주(金弘柱) 전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남시진(南時鎭) 국립문화재연구소 사무관
문경현(文暻鉉)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박방룡(朴方龍)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임관(朴林寬) 신라문화동인회원
박장승(朴章承)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박홍국(朴洪國) 위덕대학교 교수
서영교(徐榮敎) 목원대학교 교수
서영수(徐英洙) 전 경북문인협회 회장
서태양(徐台洋) 동국대학교 교수
손원조(孫源祖) 서라벌신문 대표이사
손윤락(孫潤洛) 전 경주고등학교 교장
신용철(申龍澈)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신형석(申衡錫)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안종배(安鍾湃)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오경후(吳京厚) 동국대학교 강사
오용원(吳龍源) 아시아대학교 연구교수
오해보(吳海輔) 경주문화원 부원장
우인수(禹仁秀) 경북대학교 교수

윤혁권(尹赫權)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이강근(李康根) 경주대학교 교수
이강식(李康植) 경주대학교 교수
이근식(李根植) 경주문예대학 원장
이근직(李根直) 경주대학교 겸임교수
이기락(李起樂) 서라벌대학 겸임교수
이상규(李相揆) 국립국어원장
이수환(李樹奐) 영남대학교 교수
이연정(李蓮正) 경주대학교 교수
이영호(李泳鎬) 상주대학교 교수
이임수(李壬壽) 동국대학교 교수
이재건(李在健) 화가
이정옥(李正玉) 위덕대학교 교수
이종수(李鍾水) 건축사
이진락(李鎭洛) 경주시의회 의원
이청규(李淸圭) 영남대학교 교수
임원현(林元炫) 경주대학교 교수
임재찬(林在讚) 위덕대학교 교수
장윤익(張允翼) 전 경주대학교 총장
장희흥(張熙興) 동국대학교 강사
전덕재(全德在) 경주대학교 교수
정민호(鄭旼浩) 전 경북문인협회 회장
정수암(鄭壽岩) 계림초등학교 교감
정재훈(鄭在鍊)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조철제(趙喆濟) 경주고등학교 교사
주보돈(朱甫暾) 경북대학교 교수
차장섭(車長燮) 삼척대학교 교수
채무기(蔡戊基) 서라벌대학 겸임교수
최민희(崔珉熙) 죽변종합고등학교 교사
최석규(崔錫圭) 서라벌대학 교수
최영기(崔榮基) 서라벌대학 교수
최장환(崔璋煥) 법무사

	최재영(崔宰榮)	경주대학교 교수
	최혜경(崔惠景)	동국대학교 강사
	최효식(崔孝軾)	동국대학교 교수
	한기문(韓基汶)	상주대학교 교수
	황정환(黃正煥)	경주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위원장	오해보(吳海輔)	경주문화원 부원장
상임위원	김기조(金基祚)	전 동서대학교 겸임교수
편집위원	권윤식(權潤植)	전 경주신문 주필
	김상현(金相鉉)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태중(金泰中)	전 경주문화원장
	문경현(文暻鉉)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손오익(孫五翼)	경주시청 기획문화국장
	오용원(吳龍源)	아시아대학교 연구교수
	최재영(崔宰榮)	경주대학교 교수
상임간사	고복우(髙福雨)	경주문화원 사무국장
	채무기(蔡戊基)	전 경주문화원 사무국장
편집간사	박희정(朴嬉靜)	보리기획 대표

교열위원

문인채(文仁采)	전 봉화여자고등학교 교장
장영길(張榮吉)	동국대학교 교수

감 수

문경현(文暻鉉)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題字 / 심천(心泉) 한 영 구(韓 永 久)

◇표지디자인 / 최 성 원

慶州市史 Ⅱ

발 행 처	경주시사편찬위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0번지 양정로 260호 (054)748-9001
발 행 인	백 상 승
발 행 일	2006년 12월
인쇄 · 제작	세종인쇄 · 출판사 경북 경주시 동부동 145-1번지 (054)772-6537(代)

〈비매품〉

ⓒ 경주시사편찬위원회 전3권 set